

국어 영역

홀수형

성명	
----	--

수험 번호						-				
-------	--	--	--	--	--	---	--	--	--	--

-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쓰시오.
- 답안지의 필적 확인란에 다음의 문구를 정자로 기재하시오.

저 넓은 세상에서 큰 꿈을 펼쳐라

- 답안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쓰고, 또 수험 번호, 문형 (홀수/짝수), 답을 정확히 표시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릅니다. 3점 문항에는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2025-2008학년도 평가원 문학 모음

만든 이 고구마

홈페이지 orbi.kr/profile/900828

제 1 교시

국어 영역

출수형

목 차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예시문항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B형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A형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B형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A형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B형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A형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B형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A형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B형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A형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B형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A형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B형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A형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B형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A형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B형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A형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예비 시행 B형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예비 시행 A형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 시험 시행 날짜 순서대로 배치하였음.
 ※ A·B형 공통 문제는 B형에 수록하였음.

[18~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25.11

[앞부분의 줄거리] 승상 정을선이 출정한 사이 정렬부인의 모략으로 총렬부인이 옥에 갇히자 시비 금섬이 총렬부인을 피신시키고 자진한다. 옥에서 얼굴이 상한 금섬의 시신이 발견되자 왕비는 월매를 문초한다. 전장에서 정을선은 호첩이 전한 편지를 읽는다.

원수가 대경하여 호첩을 불러 연고를 물으시고 인하여 중군장에게 분부하시되 ‘나는 집에 변이 있어 먼저 가니 중군장은 차후에 인솔 하여 오라.’ 하고 밤낮 삼 일 만에 득달하니 이때에 왕비의 시비 월매가 증시 토설치 아니하며 매를 많이 맞고 여쭙오되

“어서 바빠 죽이시면 금섬의 뒤를 쫓아가겠나이다.”

한데 왕비 크게 노하여 목을 베라 할 즈음에 이때 승상이 필마로 달려오다가 월매 죽이려 하는 거동을 보고 급히 소리를 지르며 말에서 내려 이를 구호하며 문왈

“총렬부인은 어디 계시나?”

월매 인사를 모르다가 승상을 보고 방성통곡 왈

“승상은 바빠 총렬부인을 살리소서.”

한데 승상이 급히 문왈

“어디 계시나?”

한데 월매 울며 왈

“소인이 견지 못하오니 어찌 가오리까?”

한데 급히 종을 불러 월매를 업히고 구덩이를 찾아가 보니 부인이 아기를 안고 있거늘 아기는 잠을 깊이 들었는지라. 승상이 통곡 왈

“부인은 눈을 떠 나를 보소서.”

한데 부인이 눈을 떠 보니 승상이 왔거늘 정신 아득하여 인사를 모르다가 겨우 인사를 차려 왈

“이것이 꿈인가 생시인가 구녕지수의 해 같고 칠년대한의 빗발같이 바라더니 지금 구덩이에서 만날 줄 알았으리까. 승상은 나의 누명을 씻겨 주소서.”

하며 인사를 모르는지라. 그 참혹한 형상을 어디에 비하리오. 슬픔에 매우 아위어 뼈가 드러나게 되었는지라. 승상이 아기를 안아 월매를 주고 부인을 구한 후에 자리를 마련하여 옥석을 구별할새, 왕비전에 피온대 왕비 못내 반기시며 사연을 날날이 이르시되 승상 왈

㉠ “이 일은 소자가 이미 아는 바이오니 염려 마옵소서.”

하며 왈

㉡ “처음에 그놈이 총렬부인 방에 간 줄 어찌 알았나이가?”

왕비 왈

“사촌 오라비가 이르기로 알았노라.”

하신대 승상이 복록을 찾는데 벌써 제 죄를 알고 후원에 올라가 이미 죽었는지라. 하릴없어 옥줄을 잡아들여 엄히 문왈

“너희는 어찌 총렬부인 아닌 줄 알았느냐? 바로 아뢰라.”

하신대 옥줄이 급히 여쭙오되

“얼굴이 상하여 아모란 줄 모르오나 손길이 곱지 못하오매 소인 등 소견에 총렬부인이 친하일색이라 하더니 손이 곱지 아니하더라 하올 제 정렬부인의 시비 금연이 이를 듣고 묻기에 자세히 이르고 부디 다른 데 가서 이 말 말라 당부하옵더니, 필연 금연의 입을 통해 발설이 된가 하나이다.”

한데 승상이 금연을 잡아들여 문왈

“이 말을 듣고 네게 국문하니 바른대로 고하라.”

하는 소리가 벼락이 꼭두에 임한 듯하고 궁궐이 뒤집히는 듯 하더라. 이때에 정렬부인이 승상의 호통 소리를 듣고 땀을 한 무더기를 싸고 자빠졌는지라. 금연이 하릴없어 바로 아뢰나니라 하고 정렬부인 하던 말이며 제가 남복을 하고 총렬부인 침소로 들어간 말이며 이불 속에 누웠다가 달아난 말이며 정렬부인이 앓는 채하고 누웠사오매 총렬부인이 약으로 구병하며 곁에 있으시매 침소로 가라 강권하여 침소로 가지못하여 가지매 복록이 왕비께 참소하던 연유를 날날이 아뢴대 왕비 곁에 있다가 양천통곡하시며 왈

“내 바지 못하여 악녀의 피에 빠져 총렬부인을 죽이려 하였나니 무슨 면목으로 총렬부인을 보리오.”

하시며 자결코자 하거늘 승상이 붙들고 울며 왈

“모친이 너무 과도히 하시면 소자가 먼저 죽으려 하나이다.”

왕비 금침에 누워 일어나지 못하더라. 승상이 정렬부인을 결박하여 땅에 꿰리고 크게 노하여 왈

“너는 무엇이 부족하여 총렬부인을 해코자 하느냐. 어찌 일시를 살리리오. 내 임의로는 죽이고 싶으나 황상께 아뢰고 죽게 하리라.”

하고 상소하니 그 글에 하였오되

“대사마 대도독 대원수 정을선은 돈수백배하고 아뢰나니 신이 서용을 쳐 사로잡고, 백성을 진무하고 돌아오려 할 때, 집에서 급한 소식을 듣고 군사를 중군장에게 맡기우고 필마로 올라와 본즉, 정렬부인이 이리이러한 변을 일으켰사오니 세상에 이러하온 일이 있사오닛가.”

하고 금연이 흉계를 꾸민 일과 월매가 당하던 고초를 날날이 아뢰었다.

- 작자 미상, 「정을선전」 -

18. ㉠, ㉡과 관련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을 보니, 호첩에게 물은 ‘연고’의 내용은 왕비가 말한 ‘사연’의 내용과 관련이 있겠군.
- ② ㉠을 보니, 승상이 황상에게 올린 ‘상소’에 들어 있는 내용은 ‘이미 아는 바’와 같겠군.
- ③ ㉡을 보니, 승상은 ‘사연’의 진상을 밝히는 데에 왕비가 ‘그놈’의 행위를 알게 된 경위가 중요하다고 생각했겠군.
- ④ ㉡에 대한 왕비의 대답을 보니, 왕비에게 ‘그놈’의 행위에 대해 제보한 사람이 있었군.
- ⑤ ㉡이 제시된 후에 드러난 복록의 상황을 보니, 복록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하여 심리적 중압감을 느꼈겠군.

19. [누명]과 관련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누명이 벗겨지면서, 누명을 썼던 인물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탓하고 있다.
- ② 누명을 쓴 인물의 요청으로 남주인공은 누명을 썼던 인물의 처벌을 유보한다.
- ③ 누명의 내용은 누명을 쓴 인물이 남몰래 자신의 처소에서 벗어나 구덩이에 있다는 사실이다.
- ④ 누명을 씌우기 위한 계략에는 누명을 쓰는 인물을 특정 장소로 가게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 ⑤ 누명이 벗겨지는 계기는 남주인공이 자신의 어머니가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는 것을 만류한 것이다.

20.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학습 활동>

「정을선전」은 모략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므로 인물 간 소통 양상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윗글을 바탕으로 인물 간에 나타난 소통의 내용을 정리해 보자.

	인물 A	인물 B	소통의 내용
①	원수	중군장	A가 B에게 군사를 이끌고 가 서용을 사로잡으라고 명령함.
②	승상	월매	A가 B에게 총렬부인이 있는 곳이 어디인지 물음.
③	옥졸	금연	B가 A로부터 옥중 시신의 정체와 관련한 정보를 얻음.
④	옥졸	승상	A가 B에게, 금연이 옥중 시신에 대하여 발설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함.
⑤	금연	승상	B가 A로부터 정렬부인이 거짓으로 앓아 누웠었다는 정보를 얻음.

21.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정을선전」은 영웅소설과 가정소설의 상투적인 면모가 혼재되어 나타난다. 이를테면, 가정 안팎의 서사는 남주인공을 매개로 연결되고, 사건이 선악 구도로 전개되며, 인물의 고난과 감정은 극대화된다. 이 과정에서 일부다처제에서 비롯되는 가정 내 갈등이 개인의 인성 문제로 축소된다. 그러면서도 상전의 수족에 불과한 하층의 시비가 능동적인 행위자로 등장하거나, 가정과 사회에서 상층인 인물이 회화화된다.

- ① 정을선이 황상에게 올린 상소에서, 대원수와 가장으로서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으로 보아, 가정 안팎의 사건에 남주인공이 두루 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② 승상이 총렬부인을 구출하는 장면에서, '슬픔에 매우 아위에 뼈가 드러'난 부인의 모습과 '통곡'하는 승상의 모습은 인물의 고난과 감정이 극대화된 형상임을 알 수 있군.
- ③ 왕비가 '양천통곡'하는 장면에서, 총렬부인의 수난이 '악녀'의 탓이라는 인식이 드러나면서 일부다처제의 문제가 개인의 인성 문제로 축소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④ 월매가 '매를' 맞는 장면에서, 월매는 자신이 모시는 주인에게 죽음을 각오하고 진실을 밝힘으로써 능동적인 행위자를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⑤ 정렬부인이 '승상의 호통 소리'에 반응하는 장면에서, 가정의 상층 인물이 자신의 위엄이 실추되는 행동을 보이면서 회화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22~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25.11

(가)

배를 민다
 배를 밀어보는 것은 아주 드문 경험
 회변덕이는 잔잔한 가을 바닷물 위에
 배를 밀어넣고는
 온몸이 아주 추락하지 않을 순간의 한 허공에서
 밀던 힘을 한껏 더해 밀어주고는
 아슬아슬히 배에서 떨어진 손, 순간 환해진 손을
 허공으로부터 거둔다

사랑은 참 부드럽게도 떠나지
 뵈지도 않는 길을 부드럽게도

배를 한껏 세계 밀어내듯이 슬픔도
 그렇게 밀어내는 것이지

배가 나가고 남은 빈 물 위의 흉터
 잠시 머물다 가라앉고

그런데 오, 내 안으로 들어오는 배여
 아무 소리 없이 밀려들어오는 배여

- 장석남, 「배를 밀며」 -

(나)

당신……, 당신이라는 말 참 좋지요, 그래서 불러봅니다 킁킁거리며 한때 적요로움의 울음이 있었던 때, 한 슬픔이 문을 닫으면 또 한 슬픔이 문을 여는 것을 이만큼 살아움의 상처에 기대, 나 킁킁……, 당신을 부릅니다 단풍의 손바닥, 은행의 두 갈래 그리고 합침 저 개망초의 시름, 밝힌 풀의 흠으로 돌아감 당신……, 킁킁거리며 세월에 대해 혹은 사랑과 상처, 상처의 몸이 나에게 기대와 저를 부릴 때 당신……, 그대라는 자연의 달과 별……, 킁킁거리며 당신이라고……, 금방 울 것 같은 사내의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에 기대 마음의 무덤에 나 벌초하러 진설 음식도 없이 맨 술 한 병 차고 병자처럼, 그러나 ㉠치병*과 환후*는 각각 따로인 것을 킁킁 당신 이쁜 당신……, 당신이라는 말 참 좋지요, 내가 아니라서 끝내 버릴 수 없는, 무를 수도 없는 참혹……, 그러나 킁킁 당신

- 허수경, 「혼자 가는 먼 집」 -

* 치병 : 병을 다스림.
 * 환후 : 병을 정중하게 이르는 말.

(다)

그녀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던 시절이 있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만큼 표현의 욕구로 흘러 넘치는 것도 없다. 무언가를 표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시간들이 편지를 쓰게 한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사랑이 얼마나 어렵고 진정하며 운명적인가를 설명하고 싶었다. 편지는 사람을

설득하거나 매혹시키는 방법이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모든 사랑의 편지는 마지막 순간, 도구적이지 못하다. 세상의 모든 글쓰기가 최후의 순간에는 처음에 품었던 소소한 의도를 배반하는 것처럼. 그 통제할 수 없는 **의명의 욕구가** 그 편지의 현실적인 목표를 잊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모든 사랑의 편지에는 **아무 전언도 들어 있지 않다.**

거기에는 결정적인 정보나 주장이 들어 있지 않다. 다만 내 고백을 누군가가 들어준다는 충만한 느낌. 희미한 불빛 아래서 스스로 옷을 벗어야 할 때처럼, 주체할 수 없는 부끄러움 따위. 고백이란 결국 **2인칭을 경유하여 1인칭으로 돌아온다.** 그의 들끓는 고백의 언어들은 고스란히 자신에게 돌아왔다. 한동안 그는, 사랑하는 ○○에게로 시작되는 편지를 자주 썼다. 그녀는 그의 편지를 사랑했다. 정확하게 말하면 **‘편지 속의 그’를 그녀는 사랑했다.** 편지 속에는 그가 찾아낸 자신의 또 다른 영혼이 있었다. 또 다른 영혼의 ‘그’는 순수한 열정과 끝 모를 동경과 깊은 이해심을 가진 존재였다. 그도 역시 그녀처럼 자신의 편지 속 1인칭 화자에게 깊이 매료되었다. 하지만 너무 뻔해서 가혹했던 지리멸렬한 시간들 속에서 그는 편지 속의 1인칭 주체를 잊어버렸다.

편지조차 쓸 수 없는 시간들이 무심하게 지나가고, 다시 편지를 쓰고 싶었을 때, 그는 이미 ‘편지 속의 그’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편지 속의 그’를 연기하는 것이 부끄러웠고, **자신의 비루함을 뻗속 깊이 실감했다.** 그는 ‘사랑하는 ○○에게’라는 편지를 쓰고 싶어 하는 자신 속의 어떤 늙지 않는 영혼을, 그 순수한 인격을 외면하고 싶었다. ㉡**누군가가 듣기를 바라는 모든 고백이란, 위선이 아니면 위악이다.**

- 이광호, 「이젠 되도록 편지 안 드리겠습니다」 -

22.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하강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간의 흐름을 보여 준다.
- ② 자연물에 빗대어 부정적 현실의 극복 가능성을 암시한다.
- ③ 동일한 구절의 반복과 변주를 통해 상황의 반전을 표현한다.
- ④ 특정한 행위를 중심으로 행위 주체와 대상의 관계를 드러낸다.
- ⑤ 공간의 이동에 따라 내용을 전개하여 역동적 분위기를 강화한다.

23. (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아주 추락하지 않을 순간'에 '배'를 밀던 '손'이 '아슬아슬히 배에서 떨어진'다는 것은 이별의 정서적 긴장감을 드러낸다.
- ② '되지도 않는 길'은 '사랑'이 '떠나'는 길이라는 점에서, 이별의 막막한 상황을 공간의 형상으로 드러낸다.
- ③ '슬픔'을 '밀어내는 것'을 '배'를 밀듯 '한껏 세계 밀어'낸다고 한 것은 이별의 아픔을 떨쳐 내려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낸다.
- ④ '배가 나가'며 생긴 '흉터'가 '잠시 머물다 가라앉'는다는 것은 이별의 슬픔이 잦아든 상태에 있음을 드러낸다.
- ⑤ '밀려들어' 온 '배'는 '아무 소리 없이' 다시 돌아온 배라는 점에서, 대상과의 재회가 예상대로 이루어짐을 드러낸다.

24. (나)의 '당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화자와 '한때'의 기억을 잇는 매개적 존재이다.
- ② 화자의 내면에 살고 있는 '병자'로서 연민의 대상이다.
- ③ 화자의 눈앞에 없지만 '부름으로써 환기되는 대상'이다.
- ④ 화자가 '버릴 수 없'고 '무를 수도 없는' 숙명적 존재이다.
- ⑤ 화자에게 '사랑'과 '슬픔'을 경험하게 하는 이중적 존재이다.

25.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시는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어떤 심적 상태에 놓인 화자의 발화로서 형상화한다. (나)에 나타나 있는 독특한 발화 방식, 즉 끊어질 듯 이어지는 서술, 어휘의 반복적 출현, 맥락이 없어 보이는 구절들의 배열, 수시로 등장하는 말줄임표와 쉼표 등은 사랑의 기억을 떠올리거나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는 시적 장치들이다. 이러한 장치들은 사랑의 기억과 함께 상실의 고통을 안고 남은 생을 살아 내야 하는 화자의 복합적인 내면을 생생하게 그려 내는 역할을 한다.

- ① '킁킁'은 반복적으로 출현하는 웃음의 의성어로서, 사랑과 슬픔이 내재된 화자의 복합적인 정서를 생생하게 드러내는 표현이겠군.
- ② '상처에 기대, 나 킁킁……, 당신을 부릅니다'는 말줄임표와 쉼표를 사용한 서술로서, 상실의 고통으로 인하여 사랑의 기억이 희미해지는 화자의 심적 상태를 보여 주는 표현이겠군.
- ③ '킁킁거리며 세월에 대해 혹은 사랑과 상처,'는 맥락이 없어 보이는 표현들이 한데 이어진 서술로서, 감정들이 뒤섞인 화자의 내면을 보여 주는 표현이겠군.
- ④ '마음의 무덤'은 화자의 심적 상태를 형상화한 서술로서, 상실의 고통을 안고 생을 살아 내야 하는 화자의 내면을 비유한 표현이겠군.
- ⑤ '이쁜 당신……, 당신이라는 말 참 좋지요'는 끊어질 듯 이어지는 서술로서, 대상에 대하여 사랑의 감정을 품고 있는 화자의 내면을 보여 주는 표현이겠군.

26. ㉠,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치병의 노력으로도 환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화자의 인식을 말한다.
- ② ㉠은 화자가 대상의 아름다움을 발견함으로써 자신의 환후를 의식하지 않게 되었음을 말한다.
- ③ ㉡은 사랑의 편지가 상대를 향한 표현일 때, 위선과 위악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말한다.
- ④ ㉡은 더 나은 자신을 드러내려는 욕망이야말로 상대를 매혹하는 진정한 요인임을 말한다.
- ⑤ ㉠과 ㉡은 모두, 아픔을 겪는 이나 고백을 하는 이가 그 아픔이나 고백의 실체를 지각하지 못함을 말한다.

27. <보기>를 바탕으로 (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다)에서 편지는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쓰는 사람 자신을 향한 것이기도 하다. 상대에 대한 열망으로 사랑의 편지를 쓰지만 결국 그것은 자신을 표현하는 글이다. 자신을 이상화하려는 욕구에 빠져 있기에 편지는 '그녀'가 사랑할 만한 '그'로 채워진다. 사랑의 편지를 받은 '그녀'는 '편지 속의 그'를 사랑하고, 편지를 쓰는 '그'도 '편지 속의 그'에게 매료되어 있다. 그러나 이런 식의 자기 고백이 지속될 수 없는 까닭은 이 이상화된 '그'와 실제의 '그' 사이의 간극이 주는 부끄러움 때문이다.

- ① '익명의 욕구'를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은 상대를 향한 '그'의 사랑이 운명적인 것이어서 사랑을 멈출 수 없음을 말하는군.
- ② '아무 전연도 들어 있지 않다'는 것은 '처음에 품었던 소소한 의도'를 잊음으로써, 상대를 향한 글쓰기의 '현실적인 목표'가 실패로 돌아갔음을 말하는군.
- ③ '2인칭을 경유하여 1인칭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편지가 상대를 향한 '도구적'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자기 고백에 그치게 됨을 말하는군.
- ④ "편지 속의 그'를 그녀는 사랑했다'는 것은 편지를 받은 그녀가 사랑한 상대는 편지 속의 '또 다른 영혼'임을 말하는군.
- ⑤ '자신의 비루함을 뺏속 깊이 실감했다'는 것은 실제 자신과 이상화된 자신 사이의 간극을 자각한 '그'가 부끄러움에 빠져 있음을 말하는군.

[28~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25.11

㉠ 불편스런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하지만 허원은 그렇게 스스로 주의하고 고통을 감내해 냈기 때문에 자신의 **[비밀]**을 남 앞에 감쪽같이 숨겨 나갈 수 있었다. 아무도 그의 비밀을 눈치챈 사람이 없었다. 비밀이 탄로 나지 않는 한 그의 일상 생활은 더 이상 불편을 겪을 필요도 없었다. 인체 생리나 해부학 서적 같은 걸 뒤져 봐도 성인의 배꼽은 거의 아무런 기능도 수행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적어도 그의 외모나 바깥 생활은 정상상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 점만이라도 무척 다행이었다. 그는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 —그깟 놈의 배꼽, 안 가지고 있음 어때.

그쯤 체념을 하고 될 수 있으면 배꼽에 관한 일들을 잊어버리려 했다. ㉢ 자신으로부터 배꼽이 사라져 버린 사실을, 그리고 그 때문에 생긴 모든 불편을 잊고, 그 배꼽 없는 생활에 스스로 익숙해져 버리기를 바라 마지않았다.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다. 아무리 일상생활에선 드러나게 불편한 점이 없다 해도 그는 역시 배꼽이 없는 자신에 대해 좀처럼 익숙해질 수가 없었다. 그는 자꾸만 허전해서 견딜 수가 없어지곤 했다. 있느니라 여기고 지낼 때는 것처럼 무심스럽던 일이 그런 식으로 한번 의식의 끈을 건드려 오자 허원의 상념은 잠시도 그 잃어버린 배꼽에서 떠나 있을 수가 없었다.

그는 마침내 회사 출근마저 단념하기에 이르렀다. 그러자 신통하게도 늦잠 버릇이 깨끗이 자취를 감춰 버렸다. 그는 눈만 뜨면 사라져 없어진 배꼽 때문에 기분이 허전했고, 그러면 그 허망감을 쫓기 위해 배꼽에 관한 끝없는 상념들을 쌓기 시작했다.

(중략)

그리하여 배꼽에 관한 허원의 지식과 사념은 자꾸 더 심오하고 추상적인 것이 되어 갔다. 그에게는 어느덧 그 나름의 독특한 배꼽론 같은 것이 윤곽을 지어 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 수록 허원은 더욱더 허전해지고, 아무 곳에도 발이 닿아 있는 것 같지 않고, 혼자서 외롭게 허공을 둥둥 떠다니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러면 그는 또 거듭 그 허망감을 쫓기 위해 자신의 배꼽론을 완벽하게 발전시켜 나갔다. 마치 그렇게 하여 그는 자신의 사념 속에서 잃어버린 배꼽을 되찾아내고, 그것으로 그 실물을 대신해 어떤 식으로든 자신과 세상 간에 큰 불편이 없도록 화해시키고 그것으로 그 난감스런 허망감을 채우려는 듯이. 그의 배꼽론은 가령 이런 식으로까지 발전되어 있었다.

— 우리는 누구나 배꼽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우리들의 어머니로부터 **탯줄**이 끊어지는 순간 이 우주의 한 단자(單子)로서 고독하게 존재하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그 탯줄의 기억을 잊지 않는다. 우리 영혼은 언제까지나 그 어머니의 탯줄과 이어지려 하고, 또다시 그 어머니의 어머니의 탯줄과 이어져 나가면서 우리 존재를 설명하고 근원을 밝혀 나가며, 마침내는 마지막 어머니의 탯줄이 이어지는 우리들의 우주와 만나게 된다…… 우리의 배꼽은 우리가 그 마지막 우주와 만나고자 하는 향수의 표상이며 가능성의 상징이며 존재의 비밀로 나아가는 형이상학이다. 그 비밀의 문이다……

그는 어느덧 배꼽에 대해 당당한 일가견을 이룬 배꼽 전문가가 되어 가고 있었다.

㉣ 어느 해 여름이었다. 한니까 그것은 허원이 자신의 배꼽을 잃어버리고 나서 불편하기 그지없는 세 번째의 여름을 맞고 있을 때였다. 그는 물론 배꼽을 잃어버린 자신에 대해 아직도 완전한 익숙해지질 못하고 있었다. 그의 사념 역시 언제나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배꼽에 매달려 거기에서밖에는 영영 더 이상 자유로워질 수가 없었다. 그 대신 허원은 이제 그 자신의 배꼽론에 대해선 매우 **확고한 경지**에 도달해 있었다.

그런 즈음이었다. 허원은 문득 **세상 사람들이** 수상쩍어지기 시작했다. 어느 때부터지는 확실히 알 수 없었지만, 세상 사람들 역시 무슨 이유에선지 이 인간 장기의 한 조그만 흔적에 대해 **심상찮은 관심**을 나타내기 시작한 것이다. 배꼽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 역시 기왕부터 있어 온 것을 여태까지 서로 모르고 지내 오다가 비로소 어떤 기미를 알아차리게 된 것인지, 혹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관심을 내보이게 할 만한 무슨 우연찮은 계기가 마련되었는지는 확실치가 않았다. 그리고 무엇 때문에 사람들에게서 그런 관심이 시작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 수도 없었다. 하지만 그것은 어쨌든 **사실**이었다. 주의를 기울여 보니 관심의 정도도 여간이 아니었다. 한두 사람, 한두 곳에서만 나타난 현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미 일반적인 현상이 되어 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렇듯 **배꼽 이야기**가 **일반화**의 기미를 엿보이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이제 그걸 신호로 아무 흥허물 없이 터놓고 지껄이거나 신문, 잡지 같은 데서 진지하게 논의의 대상을 삼기도 하였다. ㉤ **배꼽에 관한 논의**가 그렇듯 갑자기 시중 일반에까지 성행하기 시작한 것이다.

기묘한 현상이었다.

-이정준, 「배꼽을 주제로 한 번주곡」-

28. ㉠~㉤의 서술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누구의 생각을 누가 말하는지 명시한 표현을 나타내어 서술하고 있다.
- ② ㉡: 인물의 생각을 서술자가 평가하며 그 심화된 의미를 함축하여 서술하고 있다.
- ③ ㉢: 인물의 의식을 인물 자신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서술하고 있다.
- ④ ㉣: 인물의 상황에 관련된 정보를 부가하여 서술하고 있다.
- ⑤ ㉤: 인물 행동의 진행 과정을 순차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29. [비밀]의 서사적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신의 신념을 인물이 돌이켜 본 결과로, 새로운 세계관을 바탕으로 하는 주제를 형성한다.
 - ② 얽힌 인간관계를 인물이 성찰하는 전환점으로, 갈등으로 인한 위기감을 완화한다.
 - ③ 일상적이지 않은 경험을 인물이 의식한다는 표지로, 인물의 심리적 동요를 부른다.
 - ④ 상충된 이해관계를 인물이 조정하는 단서로, 심화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한다.
 - ⑤ 기성의 질서에 인물이 저항한다는 신호로, 돌발적 사건의 발생을 알린다.

30. '허원'을 중심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허원'은 '실물'과 관련하여 시작된 '사념'을 통해 '존재'의 의미를 발견해 간다.
 - ② '허원'은 '실물'이 몸에서 큰 기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일단 안도감을 느끼게 된다.
 - ③ '허원'은 '사념'을 방편으로 삼아 자신의 현재 상태에 대해 다른 방향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 ④ '허원'은 '심상찮은 관심'의 원인에 대해 궁금해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 ⑤ '허원'은 '실물'에 대한 인식을 '세상 사람들'과 공유하게 되면서, 그간 이어 온 '사념'을 더 이상 지속하지 않게 된다.

31.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배꼽을 주제로 한 변주곡」은 주인공이 배꼽을 잃어버렸다는 허구적 설정으로 시작하여, 이후 배꼽을 둘러싼 회화적 에피소드들이 이어진다. 주인공은 으레 있어야 할 것이 없어서 불편한 생활을 이어 가던 중 배꼽에 관심을 갖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알게 된다. 이 과정에서 배꼽에 관련된 개인적 상황은 물론 인간 존재와 사회 상황에 대한 심층적 의미의 탐색이 이루어진다.

- ① '의식의 끈'이 '건드려'짐으로써 주인공이 비정상적 문제 상황에 지속적으로 주목하게 된 것이겠군.
- ② '회사 출근'을 포기하게 되고 '늦잠 버릇'이 사라진 상황은, 주인공의 일상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겠군.
- ③ '배꼽'을 '땃줄'에 연관하여 이해하는 것은, 개인에 관련된 생각을 '우주와 만나'는 '심오하고 추상적인' 생각으로 확장하는 실마리가 된다고 할 수 있겠군.
- ④ '그의 사념'이 도달한 '배꼽론'의 '확고한 경지'는 사소한 것의 심층적 의미를 탐색할 때 이를 수 있으므로, 그 사소한 것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상태에서 실현이 가능해지겠군.
- ⑤ '기묘한 현상'은, '배꼽 이야기'가 '일반화'되는 상황이 뜻밖이지만 '사실'로 나타나는 현상을 두고 일컬은 말이라고 할 수 있겠군.

[32~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25.11

(가)

어저 어저 저기 가는 저 사람아
 네 행색을 보아 하니 군사 도망 네로구나
 허리 위로 불작시면 베적삼이 깃만 남고
 허리 아래 굽어보니 헌 잠방이 노닥노닥
 곱장 할미 앞에 가고 전태발이 뒤에 간다
 십 리 길을 하루 가니 몇 리 가서 얼어지리
 내 고을의 양반 사람 타도 타관 옮겨 살면
 천히 되기 상사여든 본토 군정(軍丁) 싫다 하고
 자네 또한 도망하면 일국 일토(一土) 한 인심에
 근본 숨겨 살려 한들 어데 간들 면할쏜가
 차라리 네 살던 곳에 아무렇게나 뿌리박혀
 칠팔월에 ㉠인삼 캐고 구시월에 돈피* 잡아
 공채 신역 갚은 후에 그 나머지 두었다가
 함흥 북청 흥원 장사 돌아들어 잠매할 때
 후한 값에 팔아 내어 살기 좋은 넓은 곳에
 가사 전토(家畬田土) 다시 사고 살림살이 장만하여
 부모처자 보전하고 새 즐거움 누리려무나

어와 생원인지 초관인지
 그대 말씀 그만두고 이내 말씀 들어 보소
 이 내 또한 갑민(甲民)*이라 이 땅에서 생장하니 이때 일을
 모름쫌냐

우리 조상 남쪽 양반 진사 급제 계속하여
 금장 옥패 빗기 차고 시종신을 다니다가
 시기인의 참소 입어 변방으로 쫓겨 와서
 국내 변방 이 땅에서 칠팔 대를 살아오니
 조상 덕에 하는 일이 읍중 구실 첫째로다
 들어가면 좌수 별감 나가서는 풍헌 감관
 유사 장의 체지 나면 체면 보아 사양터니
 애슬프다 내 시절에 원수인의 모해로써
 군사 강정 되단 말가 내 한 몸이 혈어 나니
 좌우전후 수다 일가 차차 충군(充軍) 되것고야
 조상 제사 이내 몸은 하릴없이 매여 있고
 시름없는 친족들은 자취 없이 도망하고
 여러 사람 모든 신역 내 한 몸에 모두 무니
 한 몸 신역 삼 냥 오 전 돈피 두 장 의법이라
 열두 사람 없는 구실 합쳐 보면 사십육 냥
 해마다 말아 무니 석승*인들 당할쫌냐

- 작자 미상, 「갑민가」 -

- * 돈피: 담비 가죽.
- * 갑민: 갑산의 백성.
- * 석승: 중국 진나라 때의 부자.

(나)

녹양방초 언덕에 소 먹이는 아희들아
 앞내 ㉠ 고기 뒷내 고기를 다 몽땅 잡아내 다래끼*에 넣어
 주거든 네 소 궁둥이에 엮어다가 주렴
 우리도 서주(西疇)*에 일이 많아 바빠 가는 길이매 가 전할동
 말동 하여라

- 작자 미상, 사설시조 -

- * 다래끼: 물고기나 작은 물건 등을 넣는 바구니.
- * 서주: 서쪽 밭.

32.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대구 표현으로 외양을 묘사하여 대상의 처지를 드러낸다.
- ② 행위의 실행을 가정하여 부정적 전망을 제시한다.
- ③ 의문의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의 행적에 대해 의심한다.
- ④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악화된 처지를 보여 준다.
- ⑤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여 감당하기 힘든 현실을 드러낸다.

33. ㉠,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을 언급하는 화자가 이주해 가려는 땅에서 재배할 약재이다.
- ② ㉡은 ㉡을 언급하는 화자가 말을 건네는 상대에게 노동의 대가로 주는 보상이다.
- ③ ㉠과 ㉡은 모두, 각각을 언급하는 화자가 유희를 목적으로 구하려는 물품이다.
- ④ ㉠과 ㉡은 모두, 각각을 언급하는 화자가 획득하려면 상대의 도움이 필요한 대상이다.
- ⑤ ㉠과 ㉡은 모두, 각각을 언급하는 화자가 보기에 상대가 했으면 하는 행위의 대상이다.

34.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조선 후기의 가사나 사설시조에서는 입장이 다른 발화자가 등장하는 대화체를 사용해 작중 상황을 극의 한 장면처럼 만들기도 한다. 대화를 통해 사실성을 추구하는 작품의 경우, 구체적 소재와 다각적인 내용으로 그 시대 삶의 모습을 보여 준다. 대화를 통해 유희성을 보이는 작품의 경우, 대화가 논쟁, 의견 불일치 등 의외의 상황으로 전개되면서 재미가 생겨나며, 때로 등장하는 불완전한 표현은 이러한 작품이 내용 자체보다 대화의 전개 양상에 주목함을 보여 준다.

- ① (가)의 '그대'가 '자네'의 선택과 다른 권유를 함으로써 '자네'가 풀어낸 시연은, 당시 갑산 백성이 겪었을 직한 고통을 사실적으로 보여 주는군.
- ② (가)의 '이내' 말씀은 집안의 내력과 사회적 지위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사회의 부조리를 해결하자는 입장으로, '그대' 말씀과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군.
- ③ (나)는 선행하는 화자의 요청에 대해 '우리'가 선행하는 화자의 기대에 어긋난 대답을 하면서 대화가 의외의 상황으로 펼쳐 지는군.
- ④ (나)의 선행하는 화자가 '고기'를 누구에게 주라고 하는지 명시하지 않아 불완전한 표현이 된 것은 이 작품이 내용보다 대화의 전개 양상에 주목한다는 것을 드러내는군.
- ⑤ (가)의 '그대'는 길 가는 '자네'를, (나)의 선행하는 화자는 소 먹이는 '아희들'을 불러 말을 건네고 있어 작품의 상황이 극 중 장면처럼 보이는군.

MEMO

MEMO

[18~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25.09

제1회 봄놀이

오작교에선 선량(仙郎)이 봄바람에 취하고
버드나무 언덕에선佳人(佳人)이 그네를 뛰네

[A] ‘광한루기’는 작품 전체의 제목이다. 광한루가 없었더라면 이도린이 놀러 가지 않았을 것이요, 이도린이 놀러 가지 않았더라면 춘향이 이도린을 만날 수 없었을 것이요, 춘향이 이도린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8회로 구성된 한 편의 작품이 무엇을 바탕으로 탄생할 수 있었겠는가. 광한루 하나가 공중에 솟구쳐 있었기에 이도린이 놀러 갈 수밖에 없었고, 춘향이 이도린을 만날 수밖에 없었으며, 8회로 구성된 한 편의 작품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다.

(중략)

그네 뛰는 모습을 이도린이 보고 자기도 모르게 눈앞이 어질어질하여 김한에게 말했다.

“너는 저런 것을 본 적이 있느냐? 저것이 금이나, 옥이나? 아니면 귀신이나? 그것도 아니면 선녀냐? 너는 저것을 아느냐?” 김한이 대답했다.

“금도 아니고 옥도 아닙니다. 낙수(洛水)에 빠져 죽은 이의 넋도 사라지고, 양대(陽臺)에서 구름과 비를 만들었던 여인의 일도 이제 아득하기만 한데, 어떻게 귀신 같고 선녀 같은 아가씨가 요즘 세상에 나타났겠습니까?”

“그렇다면 누구란 말이냐?”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이 누구냐?”

“도련님께서는 교방 행수 기생 월매를 기억하시는지요?”(이게 무슨 말이야?)

“저렇게 젊고 아리따운 여인을 어떻게 반쯤은 쭈글쭈글해진 노파에다 비교할 수 있느냐?”

“저 사람은 월매의 딸 춘향입니다.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며 글도 잘하고 바느질도 잘하며 그 용모와 자태는 정말 절색입니다. 남원의 절색일 뿐 아니라 도내의 절색이요, 도내의 절색일 뿐 아니라 국내의 절색이라 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이도린이 매우 기뻐하며 말했다.

“풍류를 즐길 만한 인연이 정말이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가서 불러 오거라.”

“도련님께서는 저 아이를 불러다가 무엇을 하시려고요?”

“고운 얼굴 한번 보려고 그런다.” ㉠(어찌 그렇지 않을 수 있겠는가?)

“도련님께서 저 아이를 보시고 무엇 하시려고요?”(눈치 빠른 김한)

“내가 이 일을 하든 저 일을 하든 내가 알아서 뭇 하느냐?”

“부른다 해도 저 아이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오고 안 오고는 저 아이한테 달렸지 너한테 달려지 않았으니, 너는 그 새 주둥이 같은 입을 그만 닦치거라.”

이에 김한이 머리를 떨고 갔다.

원래 춘향은 풍경을 즐기려는 옆집 여자 아이를 따라 나온 것이었다. 채색 줄로 만든 그네를 탔는데, 봄바람에 옷자락이 흐트러져 버드나무 가지를 꼭 잡은 채 그네를 멈추고 옷매무새를 바로잡으려 했다. 그때 갑자기 광한루 위에서 사람의 말소리가 들리자(이게 누구지?) 춘향은 몸을 돌려 **꽃그늘** 속으로 들어가

숨고서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이도린이 꽃무늬가 있는 작은 종이를 손에 쥐고 홀로 광한루 동쪽 난간에 기대어 있었는데, 그 모습이 티 없이 맑아 춘향은 은연중에 찬탄하는 말을 내뱉었다. 갑자기 김한이 바쁜 걸음으로 와서 불렀다.

“춘향 남자 어디 있소?”

춘향이 다시 몸을 돌려 숨었기 때문에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김한이 이리저리 찾아보다가 꽃그늘에까지 와서 춘향을 발견했다.

(중략)

김한이 웃으며 말했다.

“춘향은 노여워 말고 내 말 한번 들어 보오. 어제 남문 밖 큰 길에서 까치 같은 옷차림의 사령들이 쌍쌍이 앞에서 인도하고, 호랑이 무늬의 활집을 진 군관들이 대열을 이루며 뒤에서 호위한 채, 한 귀인이 구름 같은 가마에 앉아 아전들과 기생들 사이를 누비고 다녔는데, 남자는 그 사람이 누구지 아오?”

“네가 또 쓸데없는 말을 하는구나. 내가 어찌 본관 사또를 몰라보겠느냐?”

“내가 말한 귀인은 바로 사또 자제 도련님이요.”(기특한 김한)

“사또 자제 도련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나?”

“남자, 우리 도련님을 한번 만나러 갑시다.”

“도련님이 어떻게 춘향인지 추향인지 알겠느냐? 내가 춘향 입네, 기생입네 하면서 농지거리해서 일을 벌였겠지. 나는 죽어도 못 간다, 죽어도 못 가.”

“춘향 남자, 그대는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면서 이다지도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오? 속담에도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라고 했듯이 도련님께서 춘향이 발한 것이 우연히 오늘이며, 남자가 그네 뛰며 논 것도 마침 이때이니, 이는 참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된 것이요. 도련님께서 남자를 보시고는 ‘귀신이나? 선녀냐?’라고 물으시기에, ‘귀신도 아니고 선녀도 아닙니다.’라고 말했고, ‘그럼 누구냐?’라고 하시기에, ‘행수 기생의 딸입니다.’라고 말했소. 젊은 사내가 어찌 한 번쯤 그 아름다움을 살피려 하지 않겠소? 춘향 남자는 잘 헤아려서 처신하시오. 갈 수 있으면 가는 것이고, 못 가겠다면 못 가는 것이지만, 화와 복이 눈앞에 놓여 있으니 남자는 잘 생각하시오.”

춘향이 한참 동안 잠자코 있다가 말했다.

“네 말이 일리가 있다.”

- 수산, 「광한루기」 -

18.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이도린은 춘향이 자신에게 호감을 느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 ② 춘향은 그네를 타기 위해 나들이에 나섰지만 기대했던 바를 달성하지 못했다.
- ③ 이도린은 춘향을 부르면 이도린 자신을 만나러 올 것이라는 김한의 말을 믿었다.
- ④ 이도린은 월매가 춘향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이를 모르는 척했다.
- ⑤ 옆집 여자 아이는 이도린을 만나기 위해 춘향과 함께 왔지만 풍경을 즐기는 것에 만족했다.

19. [꽃그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춘향이 그네를 타기 위해 기다리는 장소
 - ② 춘향이 김한을 기다리며 머물고 있는 장소
 - ③ 춘향이 몸을 감추고 이도린을 바라보는 장소
 - ④ 김한이 이도린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장소
 - ⑤ 이도린이 춘향과 만나기 위해 미리 약속한 장소

20. 윗글에서 '김한'의 역할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이도린에게 눈앞에 보이는 것이 금과 옥이 아니라고 알려 주어, 이도린의 무지를 일깨우는 비판자 역할을 한다.
 - ② 이도린에게 춘향이 선녀 같은 아가씨라고 말하여, 이도린이 춘향의 고귀한 신분을 알게 하는 조력자 역할을 한다.
 - ③ 이도린에게 풍류를 즐길 만한 상대가 춘향이라고 이야기하여, 이도린이 춘향을 부르게 하는 중개자 역할을 한다.
 - ④ 춘향에게 춘향 자신이 지혜로운 사람임을 일깨워 주어, 춘향이 이도린을 만나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자 역할을 한다.
 - ⑤ 춘향에게 이도린과의 만남은 거듭된 우연으로 이루어진 인연임을 알려 주어, 두 사람을 만나게 하는 매개자 역할을 한다.

21. <보기>를 참고하여 [A],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광한루기」는 '수산(水山)'이라는 호를 쓴 사람이 「춘향전」을 바탕으로 지은 한문 소설로, 총 8회로 이루어져 있다. 각 회의 앞부분에는 내용을 소개하는 시구와 해당 회에 대한 견해가 제시되어 있고, 본문 속에는 인물이나 사건 등에 대한 짤막한 평이나 감상이 작은 글씨로 제시되어 있다. 「광한루기」의 독자는 이와 같은 다양한 비평적 견해를 이야기와 함께 읽으면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 ① [A]에서는 시구를 활용하여, '봄바람'과 '버드나무 언덕'이 어우러진 봄날의 분위기를 보여 주면서 해당 회의 배경을 드러내고 있군.
- ② [A]를 통해 해당 회의 주요 공간인 '광한루'를 소개하여, 그 공간의 역할을 드러내고 있군.
- ③ [A]에서는 두 인물이 만나게 되는 계기를 서술하여, 서사 전개에 개연성을 보여 주고 있군.
- ④ ㉠은 인물의 말에 대한 평을 통하여, 독자에게 이도린의 반응이 당연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보여 주고 있군.
- ⑤ [A]와 ㉠을 통해 독자에게 작품의 감상법을 다양하게 설명하여, 「광한루기」를 8회로 구성한 이유를 부각하고 있군.

[22~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25.09

(가)

아득한 옛날에 나는 떠났다
㉠ 부여를 속신을 발해를 여진을 요를 금을
홍안령을 음산을 아무우르를 송가리를
범과 사슴과 너구리를 배반하고
송어와 메기와 개구리를 속이고 나는 떠났다

나는 그때
㉡ 자작나무와 이깔나무의 슬퍼하던 것을 기억한다
갈대와 장풍의 불드던 말도 잊지 않았다
㉢ 오로촌이 멧돌을 잡아 나를 잔치해 보내던 것도
솔론이 십릿길을 따라 나와 울던 것도 잊지 않았다

나는 그때
㉣ 아무 이기지 못할 슬픔도 시름도 없이
다만 게을리 먼 앞대로 떠나 나왔다
그리하여 따사한 햇기에서 하이안 옷을 입고 매끄러운 밥을
먹고 단 썸을 마시고 낮잠을 잤다
밤에는 먼 개소리에 놀라나고
아침에는 지나가는 사람마다에게 절을 하면서도
나는 나의 부끄러움을 알지 못했다

그동안 돌비는 깨어지고 많은 은금보화는 땅에 묻히고 가마
귀도 긴 죽보를 이루었는데
이리하여 또 한 아득한 새 옛날이 비롯하는 때
㉤ 이제는 참으로 이기지 못할 슬픔과 시름에 쫓겨
나는 나의 옛 하늘로 땅으로 — 나의 태반으로 돌아왔으나

이미 해는 늙고 달은 파리하고 바람은 미치고 보래구름만
혼자 닳 없이 떠도는데

㉥ 아, 나의 조상은 형제는 일가친척은 정다운 이웃은 그리운
것은 사랑하는 것은 우러르는 것은 나의 자량은 나의 힘은 없다
바람과 물과 세월과 같이 지나가고 없다
- 백석, 「북방에서-정현웅에게」 -

(나)

겨울 아침 언 길을 걸어
물가에 이르렀다
나와 물고기 사이
창이 하나 생겼다
물고기네 지붕을 튼 ㉠ 살얼음의 창
투명한 창 아래
물고기네 방이 한눈에 훤히
나의 생가 같았다
창으로 나를 보고
생가의 식구들이
나를 못 알아보고
사방 쪽방으로 흩어졌다
젖을 갓 댈 어린것들은
찬 마루서 그냥저냥 그네끼리 놀고

어미들은
물속 쌓인 돌과 돌 그 틈새로
그걸 깊은 데라고
그걸 가장 깊은 속이라고 때로 들어가
나를 못 알아보고
무슨 급한 궁리를 하느라
그 비좁은 구석방에 빼곡히 서서
마음아, 너도 아직 이 생가에 살고 있는가
시린 물속 시린 물고기의 눈을 달고
- 문태준, 「살얼음 아래 같은 데 2 - 생가(生家)」 -

(다)

이문원 동쪽 늪은 나무가 있는데 적어도 백여 년은 된 것
같다. 그 몸통은 울퉁불퉁 웅이가 젖고 가지는 구불구불 뻗어서
멀찍이서 보면 가파른 산등성이나 성난 파도 같았고 다가가서
보면 둥그스름한 큰 짐채 같았다. ㉠ 기둥으로 나무를 받쳐
놓았는데 그 기둥이 모두 열두 개이다. 나무 옆에 누각이 있는데
바로 내가 이불을 들고 가서 숙직하는 장소이다. 좌우에 책을
쌓아 놓고 교정하느라 바쁘게 시간을 보내다가 이때금 나무
걸을 산책하였다. 썩썩 불어오는 긴 바람 소리를 들으며 널찍이
드리운 서늘한 그늘 아래를 거닐면 몸은 대궐 안 관청에 있어도
숲속의 소나무와 바위 사이로 훌쩍 벗어나 있는 기분이 든다.

하루는 내가 동료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나무는 정말 특이하군! 대체로 풀과 나무가 살아가려면
제각기 몸을 보전하는 계획이 있기 마련일세. 풀명자나 배,
꿀이나 유자, 사과나 석류 같은 나무들은 열매가 커도 가지가
그 무게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네. 하지만 질경이나 냉이,
강아지풀 같은 풀들은 살아가려면 땅바닥에 붙어 있어야
하네. 그래야 말발굽이 짓밟거나 수레가 밟고 지나가도 더
손상을 입지 않지. 지금 저 늪은 나무는 줄기의 길이가 몸통
보다 갑절로 뻗어 사방에 드리워도 잘라 낼 줄 모르네. 만약
받쳐 주는 기둥이 없으면 부러지고야 말 걸세. 조물주가 이
나무에게는 사람의 손을 빌려 온전하도록 한 것인가?”

아! 내가 암소의 뿔을 보니 뿔이 구부러져 안쪽으로 향했는데
심한 것은 사람이 반드시 톱으로 잘라 내야만 광대뼈를 뚫는
걱정을 모면하였다. 이제야 알겠구나. 늪은 나무를 가축에 견주
자면 뿔을 잘라 내야 온전해질 수 있는 암소와 같다. 가축이
인간에게 의지하여 살아가듯이 늪은 나무도 인간에게 의지하여
살아간다.

나는 저 깊은 산중 인적 끊긴 골짜기에 이렇듯이 변성하게
자란 늪은 나무를 아직까지 보지 못했다.
- 유본에, 「이문원노종기(摛文院老樞記)」 -

22.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비판적 태도로 현실의 부정적 측면을 부각하고 있다.
- ② 역사적 상황을 묘사하여 비극적 현실을 부각하고 있다.
- ③ 빗대어 표현하는 방식으로 '나'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영탄적 어조로 대상에 대한 '나'의 경외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향토적 소재를 활용하여 '나'의 과거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23. **태반**과 **생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의 화자는 태반에서 상실감을 느끼고 있고, (나)의 화자는 생가에서 서글픔을 느끼고 있다.
- ② (가)의 화자는 태반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있고, (나)의 화자는 생가에서 느꼈던 수치심을 떠올리고 있다.
- ③ (가)에서 태반은 이별을 수용하는 공간이고, (나)에서 생가는 만남을 기약하는 공간이다.
- ④ (가)에서 태반은 화자의 희망이 드러나는 공간이고, (나)에서 생가는 화자의 절망이 드러나는 공간이다.
- ⑤ (가)에서 태반은 생명의 섭리를 지향하는 공간이고, (나)에서 생가는 생명의 섭리를 거부하는 공간이다

24. ㉠~㉣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에서는 여러 민족, 나라, 지명을 열거하여, 화자가 떠나온 공간을 북방으로 포괄되는 동질적 공간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② ㉡에서는 의인화된 자연물을 제시하여, 화자가 북방을 떠나면서 느낀 슬픔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에서는 이별하던 장면을 유사한 통사 구조로 제시하여, 화자가 북방에서의 기억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 ④ ㉣의 시구가 ㉠에서 반복, 변주되는 것을 통해, 상반된 상황이 시간의 추이에 따라 일치되는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에서 '없다'와 그 앞에 열거된 시어들을 통해, 화자가 가깝게 느끼고 가치를 부여했던 것들이 부재함을 표현하고 있다.

25.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이 시에서 성년이 된 화자는 얼음 아래의 물고기를 보면서 유년 시절 자신의 생각을 회상한다. 화자는 물고기의 움직임 지켜보면서 '물고기네'의 여기저기를 본다. 그리고 '물고기네'의 모습에 화자의 생가에 대한 기억이 겹쳐진다. 화자는 자신을 물고기에 투영하면서, 성년이 된 지금도 여전히 생가에서의 '시린'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 ① '투명한 창'을 통해 본 물고기의 생활 공간을 '물고기네 방'이라고 표현한 것을 보니, 화자는 얼음 아래 물고기의 공간과 자신의 생각을 겹쳐 보고 있군.
- ② '창으로 나를 보'고 '사방 쪽방으로 흩어'지는 물고기들의 움직임을, 화자는 '생가의 식구들이' 자신을 못 알아본 것으로 표현하였군.
- ③ '젓을 갖 췌 어린것들이' '그네끼리 놀고'라고 표현한 것을 보니, 화자는 물고기들이 노는 모습을 통해 유년 시절 생가에서 지내던 아이들의 모습을 떠올리고 있군.
- ④ 화자는 '비좁은 구석방'에서 '급한 궁리를 하'는 물고기의 모습에 유년 시절 생가에서 외따로 지내야 했던 자신의 모습을 투영하고 있군.
- ⑤ 화자는 '마음아, 너도 아직' 생가에서 '살고 있는가'라고 하여, 성년인 자신의 마음속에 유년의 기억이 자리 잡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군.

26.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화자의 불안을 심화하는, ㉡는 글쓴이의 의지를 북돋아 주는 역할을 한다.
- ② ㉠은 화자의 이상향을 형상화하는, ㉡는 글쓴이의 태도를 전환하는 역할을 한다.
- ③ ㉠은 ㉡와 달리, 화자에게 책임감을 떠올리게 하는 계기가 된다.
- ④ ㉡는 ㉠과 달리, 글쓴이가 처한 상황을 극복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 ⑤ ㉠과 ㉡는 모두 대상을 새롭게 주목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27. <보기>의 [A]에 들어갈 학생의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선생님: 여러분, 「이문원노종기」는 이문원의 늙은 나무가 인간의 도움을 받아 오랫동안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 점에 착안한 글입니다. 서로 다른 생명체가 각각 이익을 주거나 받는 현상을 중심으로, 「이문원노종기」를 다시 읽어 보려고 해요. 이런 관점에서 이 작품을 감상해 볼까요?

학 생: _____ [A]

선생님: 네, 잘 말했습니다.

- ① '이문원 동쪽 늙은 나무'가 '백여 년'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인간이 나무를 보살피 주었기 때문입니다.
- ② 글쓴이가 '널찍이 드리운 서늘한 그늘'로 인해 '홀쩍 벗어나 있는 기분'이 든 것은, '이문원 동쪽 늙은 나무'에게서 인간이 이익을 얻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 ③ '풀과 나무'가 '몸을 보전하는 계책'이 있는 것은, '조물주'가 서로 다른 생명체가 이익을 주고받도록 해 준 경우에 해당합니다.
- ④ '암소의 '뿔이 구부러져 안쪽으로 향'하는 위험을 인간이 '뿔으로 잘라'서 해결해 주는 것은, '가축'이 인간에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⑤ 글쓴이가 '이문원 동쪽 늙은 나무'가 '저 깊은 산중 인척 끊긴 골짜기'에서 자란 나무보다 번성하게 자랐다고 한 것은, 인간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28~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25.09

[**앞부분의 줄거리**] 동림산업은 사무직 남자 직원들에게까지 제복 착용을 확대하는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준비위원회를 결성해 전체 사원이 새로운 제복을 착용하도록 결정했으나, 그 결과에 불만을 품은 사무직 남자 직원들이 있었다.

“**이미 끝난 일이야.** 지금 와서 아무리 떠들어대 봤자 제복은 벌써 우리 몸에 절반쯤이나 입혀져 있어.”

민도식이 나서서 **협약해진 분위기**를 간신히 가라앉혔다.

“준비 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소집한 건 처음부터 요식 행위에 지나지 않았던 거야. 경영자 독단으로 처리하지 않고 직원들의 의사를 물어서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 가지고 결정했다는 인상을 대내외에 풍길 필요가 있었던 거야. 이제 길은 두 가지뿐야. ㉠ **나머지 절반을** 찾아서 마저 몸에 꿰든가, 아니면 기왕 우리 몸에 입혀진 절반을 아예 벗어 버리든가 각자가 알아서 결정할 일이야. 저기 좀 보라고. 저 사람 아까부터 우릴 비웃고 있어. 제복 얘기 앞으로는 그만하기로 하지.”

생산부 공원 복장을 한 사내가 엇비슷한 자세로 이쪽을 돌아다보며 ㉡ **아름다운 웃음**을 입가에 물고 있었다. 그를 보더니 장상태가 화를 벌컥 내면서 큰 소리로 미스 윤을 불렀다.

“이봐, 저기 앉은 저 사람 내가 좀 보잔다고 전해!”

㉢ **눈이 휘둥그레진** 미스 윤이 종종걸음으로 그에게 다가가기 전에 그쪽에서 자진해서 먼저 일어섰다. 그가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장의 목소리가 컸던 것이다.

“저를 부르셨습니까?”

여전히 웃음을 입에 문 얼굴이 장을 정면으로 상대했다.

“당신 뭐야? 뭔데 어제부터 남의 얘길 엿듣고 비웃지, 비웃길?”

“비웃음으로 보셨다면 용서하십시오. 엿듣고 싶은 생각은 없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들릴 정도로 선생님들 말씀리가 컸습니다. 말씀 내용이 동림산업에 계신 분들 같아서 저도 모르게 관심이 갔나 봅니다.”

“오오라, 그러고 보니 당신도 동림 가족의 일원이 분명하군. 부서가 어디야?”

“생산부 제1 공장입니다. 거기서 잡역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권입니다.”

“이름이 권이다? 그럼 성까지 아주 짝을 채워 보게.”

“성이 권입니다.”

만만한 상대를 만난 장은 권 씨를 노리갯감으로 삼아 화풀이할 작정임을 분명히 하면서 동료들에게 은밀히 눈짓을 보냈다. 함께 놀이에 끼어들라는 뜻일 것이다.

그러나 도식이 보기엔 첫눈에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다. 그는 참을성 좋게 여전히 웃고 있었다. 그것은 생산부 공원들이 본사의 사무직을 대할 때 일반적으로 갖는 비굴한 표정이 아니었다. 그렇다고 적대감도 아닌 그것은 일종의 자신감의 표현임이 분명했다. 두툼한

[A] 입술과 커다란 눈이 얼핏 눈에 띄는 특징이었다. 장상태하고 비교해서 둘이 서로 어금어금할 정도로 작은 체구였다. 실제 나이는 장보다 두세 살쯤 위일 것 같은데 적어도 이삼십 년은 더 세상을 살아 났을 법한 관록 같은 게 엿보이는 얼굴이었고, 그것이 교양이라는 것하고도 연결되어 잡역부라던 자기소개가 아무래도 믿어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

“짝을 채우기 싫다 이거지? 좋았어. 그런데 자네가 하는 잡역 일하고 무슨 상관관이 있어서 우리 얘기에 이틀 동안이나 관심이 갔지?”

“물론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쪽에선 작업 중에 팔이 뭉텅 잘려져 나간 사람이 있고 그 팔 값을 찾아 주려고 투쟁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다른 한쪽에선 몸에 걸치는 옷 때문에 자기 인생을 걸러는 분들도 계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장상태의 얼굴색이 하얗게 질리는 것 같았다.

(중략)

체육 대회가 열리는 제1 공장까지 가자면 다른 날보다 더 일찍 나서야 되는데도 여전히 멍기적거리고만 있는 남편 곁에서 아내는 시종 근심스런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 제복 때문에 **총각 사원 하나가** 사표를 던졌다는 소문을 아내는 믿지 않았다. 사표를 제출한 게 아니라 강제로 모가지가 잘린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까짓것 난 필요 없어. 거기 아니면 밥 빌어먹을 데 없는 줄 알아? 세상에 아직도 유니폼 안 입는 회사가 수두룩하던 말이!”

㉣ **거둬되는 재촉**에 이렇게 큰소리로 대거리를 했지만 결국 민도식은 뒤늦게나마 집을 나서고 말았다.

시내를 멀리 벗어나서 교외에 널찍하게 자리 잡은 제1 공장 앞에 당도했을 때는 벌써 개회식이 시작된 뒤였다. 공장 정문 철책 너머로 **검정 곤색 일색의** 운동장을 넘어다보는 순간 민도식은 갑자기 ㉤ **숨이 턱 막혀** 움을 느꼈다. 새로 맞춘 제복으로 단장한 남녀 전 사원이 각 부서별로 군대처럼 질서 정연하게 도열해 서서 연단에 선 지휘자의 손끝을 우리러보며 사가(社歌)를 제창하기 직전의 예비 운동으로 목청을 가다듬는 헛기침들을 하고 있었다. 이윽고 공장 일대를 한바탕 들었다 놓는 우렁찬 노래가 터지기 시작했다. 노래 부르는 사원들 모두가 작당해서 ㉥ **지각한 사람을** 아우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검정 곤색의 제복들이 일치단결해 가지고 사복 차림으로 꿈무늬에 따라붙으려는 유일한 사람을 완강히 거부하는 듯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세상 전체가 온통 제복투성이인 가운데 저 혼자만 외톨이로 떨어져 있는 셈이었다. 자기 한 사람쯤 불참한다 해도 아무렇지도 않게 체육 대회 개회식은 진행될 수 있다는 사실이 민도식을 무척 화나면서도 그지없이 외롭게 만들었다. 정문으로 들어서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뒤돌아서서 나오지도 못한 채 그는 일단 멈춘 자리에 불박여 버린 듯 언제까지고 움직일 줄을 몰랐다.

- 윤홍길, 「날개 또는 수갑」 -

28. [A]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물의 행위를 사실적으로 그려 내어 내적 갈등을 표면화하고 있다.
- ② 과거와 현재를 교차하여 인물이 겪는 인식의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 ③ 공간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인물이 처한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서술자가 특정 인물의 시선을 통해 인물의 특징을 관찰하여 알려 주고 있다.
- ⑤ 서술자가 인물의 경험을 삽화 형식으로 나열하여 사건을 입체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29. ㉠의 의미와 관련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이미 끝난 일이야’라는 말로 보아, 남자 사원들 중에 ㉠을 마저 입을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협약해진 분위기’로 보아, ㉠과 관련된 문제로 남자 사원들 사이에 소란스러운 일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③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라는 말로 보아, 권 씨도 남자 사원들과 마찬가지로 ㉠을 마저 입을지를 선택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총각 사원 하나’에 대한 아내의 반응으로 보아, 아내는 총각 사원이 ㉠ 때문에 회사를 스스로 그만두었다는 소문을 믿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검정 곤색 일색’으로 보아, 체육 대회에 참석한 전체 사원이 ㉠을 마저 입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30. a~e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는 권 씨가 사무직 사원들의 대화에 관심이 있었음을 나타내는 반응이다.
- ② b는 장상태가 화를 내며 큰 소리로 명령하였기 때문에 미스윤이 드러낸 반응이다.
- ③ c는 아내가 집을 나서지 않고 있는 남편 때문에 걱정하여 보인 반응이다.
- ④ d는 전체 사원들이 같은 옷을 입고 군대처럼 도열한 모습을 본 민도식에게 나타난 반응이다.
- ⑤ e는 사원들이 사복을 입은 민도식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는 반응이다.

31.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중도적 주인공’은 자신이 속한 집단의 논리를 비판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집단의 논리를 따를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인물이다. ‘중도적 주인공’은 인식 측면에서는 집단의 논리에 숨겨진 문제를 읽어 내는 주체적인 관점을 보인다. 그러나 행동 측면에서는 자신의 인식에 따라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못하거나, 집단에 동화되지 못한 채 집단 논리의 수용 여부를 두고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인다.

- ① 동료에게 ‘준비 위원회’의 ‘회의’에 담긴 ‘경영자’의 숨은 의도를 파악하여 발언하는 것을 보니, 민도식은 ‘동림산업’이 내세우는 논리에 대해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주체적인 관점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군.
- ② 권 씨를 ‘노리갯감’으로 삼자는 장상태의 ‘눈짓’을 읽었지만 이에 선뜻 동참하지 않은 것을 보니, 민도식은 ‘작업 중’ 사고를 둘러싼 ‘투쟁’과 ‘몸에 걸치는 옷’을 둘러싼 논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군.
- ③ 아내에게 ‘큰소리’로 자신의 생각을 말하면서도 ‘뒤늦게나마 집을 나서’는 것을 보니, 민도식은 ‘동림산업’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회사를 떠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군.
- ④ ‘사복 차림’으로 체육 대회에 가지만 자신을 ‘뽕무니에 따라 붙으려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보니, 민도식은 집단의 논리를 거부하고 싶지만 집단에 소속되고 싶은 마음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군.
- ⑤ ‘제1 공장’ 정문 앞에서 ‘붙박여 버린 듯’ 움직이지 않는 모습을 보니, 민도식은 ‘동림산업’의 정책에 대한 비판을 적극적인 행동으로 옮기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군.

[32~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25.09

(가)

풍파에 일렁이던 배 어디로 갔단 말인가
구름이 험하거늘 치음 나왔는가 어찌하여
허술한 배 두신 분네는 모두 조심하소서

- 정철의 시조 -

(나)

심의산(深意山) 서너 바퀴 감돌아 휘돌아 들어
오뉴월 한낮에 살얼음 엉긴 위에 된서리 섞어 치고 자취눈
내렸거늘 보았는가 입아 입아
온 놈이 온 말을 하여도 입이 짐작하소서

- 정철의 시조 -

(다)

아이야 구력 망태 찾아라 서쪽 산에 날 늦겠다
밤 지낸 고사리 별씨 아니 자랐으랴
이 몸이 이 나물 아니면 조석(朝夕) 어이 지내리 <제1수>

아이야 도롱이 샷갓 차려라 동쪽 시내에 비 내린다
기나긴 낚시대에 미늘* 없는 낚시 매어
저 고기 놀라지 마라 내 흥 겨워하노라 <제2수>

아이야 죽조반(粥早飯) 다오 남쪽 논밭에 일 많구나
서투른 따비*는 누구와 마주 잡을꼬
두어라 성세궁경(聖世躬耕)*도 역군은(亦君恩)이시니라 <제3수>

아이야 소 먹여 내어라 북쪽 마을에서 새 술 먹자
잔뜩 취한 얼굴을 달빛에 실어 오니
어즈버 회황상인(羲皇上人)*을 오늘 다시 보는구나 <제4수>
- 조존성, 「호아곡」 -

*미늘: 고기가 물면 빠지지 않게 만든 낚시 끝의 안쪽에 있는 작은 갈고리.
*따비: 풀뿌리를 뽑거나 밭을 가는 데 쓰는 농기구.
*성세궁경: 태평한 세월에 자기가 직접 농사를 지음.
*회황상인: 세상일을 잊고 한가하고 태평하게 숨어 사는 사람을 이르는 말.

32.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말을 건네는 방식을 통해 화자의 요구를 전달하고 있다.
- ② 대상을 의인화하여 화자와 자연의 유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 ③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미래에 대한 전망을 드러내고 있다.
- ④ 물음의 방식을 활용하여 대상에 대한 친밀감을 표현하고 있다.
- ⑤ 풍경을 사실적으로 묘사하여 계절의 변화상을 그려 내고 있다.

33. (다)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각 수의 첫 음보를 동일한 시어로 제시하여 시상 전개에 안정감을 부여하고 있다.
- ② <제1수>와 <제2수>에서는 생활 도구를 언급하여 화자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 ③ <제1수> 종장과 <제3수> 종장에서 나타나는 화자의 걱정은 각 수의 종장에서 강화되고 있다.
- ④ <제1수> 종장과 <제3수> 초장에서는 간단한 먹을거리를 언급하여 화자의 소박한 생활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제4수> 종장은 첫 음보의 감탄 표현을 활용하여 시상을 집약하고 있다.

34. <보기>를 참고하여 (가)~(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정철과 조존성이 살았던 16세기 후반~17세기 초반에는 정치 참여 과정에서 당과 간의 대립과 투쟁이 극심해지면서 정치적 공격을 받은 문인들이 벼슬에서 파직, 유배되거나 산림에 은거하는 등 정계에서 소외된 상태에 놓이는 경우가 잦았다. 이 과정에서 문인들은 정치 경험을 바탕으로 정치 현실에 대한 비판과 경계, 처세관, 자연에 몰입하려는 태도 등을 작품에 드러내었다.

- ① ‘풍파’가 험난한 정치 현실이고 ‘일렁이던 배’가 시련을 겪은 관료라면, (가)의 초장은 당쟁에 휘말린 사람이 정치적 소외 상태에 놓인 것을 의미하겠군.
- ② ‘구름이 험하거늘’이 정치적 위기의 조짐에 해당하고 ‘허술한 배 두신 분네’가 신진 관료라면, (가)의 종장은 화자가 정치 경험이 충분치 않은 이들에게 정치의 험난함을 알려 주는 것이겠군.
- ③ ‘심의산’이 화자의 심회이고 ‘오뉴월’의 ‘자취눈’이 화자의 복잡한 심정을 비유한 표현이라면, (나)의 초장과 종장에서는 당쟁의 상황에서 굳은 마음을 견지하려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겠군.
- ④ ‘온 놈이 온 말을 하’는 상황이 비방과 모략이 난무하는 현실이고 ‘입이 짐작하소서’라면, (나)의 종장은 온갖 참소를 입금이 잘 판단해 달라는 것이겠군.
- ⑤ ‘미늘 없는 낚시’가 욕심 없이 사는 삶을 의미한다면, (다)의 <제2수> 종장은 자연과 더불어 지내는 화자의 흥을 드러내는 것이겠군.

MEMO

MEMO

[18~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25.06

장 소저가 남북을 벗고 담장 소복으로 여복을 개착하고 금로에 향을 사르며 시랑의 영위 먼저 차린 후 제문을 읽으니, ㉠ 그 글에 하였으며,

‘유세차 기축 삼월 정묘 삭 십오 일에 기주 장 한림의 딸 애황은 감히 이부 시랑 이 공 영위 앞에 이되나이다. 오호 애재! 소첩의 부친이 대인과 사귀어 깊사옵더니, 그 후에 대인은 귀자를 두시고 부친은 소첩을 얻으시니 피차에 동년 동일생이라. 부친이 신기한 꿈을 꾸고는 대인과 진진지연*을 깊이 맺었더니, 슬프다, 양가 시운이 불리하여 대인은 간신의 모해를 입어 외딴섬에 유배 가시고, 부친은 대인의 억울함과 소첩의 앞길이 그릇됨을 원통히 여겨 걱정과 분노가 병이 되어 중도에 세상을 버리시니, 모친 또한 부친의 뒤를 따라 별세하시니, 외롭고 연약한 소첩은 의지할 곳이 없더라. 간적 왕희가 첩의 고독함을 업신여겨 혼인을 강제하옵기로 변복 도주하였다가, 남자로 행세하여 용문에 올라 남적을 멸하고 대공을 이룸은, 적자 왕희를 없이하여 원통함을 풀고 대인과 공자를 찾아 혼약을 이루기 위함이었는데, 사신의 말을 들으니 대인 부자가 형적이 없다 하니, 반드시 수종고혼이 되신지라. 어찌 참통치 않으리잇고 이에 한 잔 술을 바치옵나니 삼가 바라건대 존령은 흠향 하옵소서.’ 하였더라.

(중략)

각설. 이 공자 대봉이 부친을 모시고 ㉡ 용궁을 떠나 여러 날 만에 ㉢ 황성에 올라와 머물 곳을 정한 후, 흉노의 머리 벤 것을 봉하여 성상께 올릴새 상소를 지어 전후사연을 주달하였거늘, 이때 성상이 이 시랑 부자의 생사를 알지 못하시고 장 소저의 앞길을 애련히 여기서 마음에 잊지 못하시더니, 또 장 소저의 상표가 이르렀거늘 상이 반기사 급히 열어 보시니 왈,

‘신첩 장애황은 일장 표를 용담 하에 올리나이다. 신첩이 성상의 큰 은혜를 반자와 바닷가에서 제를 올려 고혼을 위로하오나, 이승과 저승이 판이하게 달라 영혼이 자취가 없사오니, 비록 앞에 와 흠향하온들 어찌 알 리 있사오리잇가. 아득한 경상과 슬픈 마음을 진정치 못하와 제를 지내며 통곡하옵더니, 천우 신조하와 삭발 승려를 만나오니 이 곧 시랑 이익의 처 양씨라. 비록 성혼 행례는 아니 하였사오나 어찌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가 아니리잇가. 일비일회하여 즐겁기 무궁하오니, 이는 다 성상의 넓으신 덕택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나 왕희 부자는 국가를 혼란스럽게 한 간신이옵고 신첩의 원수라. 바라건대 폐하는 왕희 부자를 엄형 국문하사 국법을 밝히시고, 그 부자를 신첩에게 내어 주시면 남선우 베던 칼로 난신을 죽여 이익의 부자에게 제하여 영혼을 위로하리이다.’

하였더라.

상이 다 보신 후 정히 처결코자 하시더니, 이때 또 하나의 표문이 올라오거늘, 상이 의괴하여 열어 보시니 ㉣ 그 소에 하였으며,

‘죄신 이대봉은 황궁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머리를 조아려 절을 올리며 한 장 표문을 황상 용담 하에 바치옵나이다. 신의 부자가

간신 왕희의 모함을 입었사오나, 폐하의 성덕을 입사와 이 한목숨에 너그러움을 베풀어 ㉤ 해도에 내치신 덕택으로 유배지로 가옵더니, 도중을 향하와 배를 타고 대해 중에 행하옵더니, 뜻밖에 뱃사람들이 달려들어 아버를 결박하여 물에 던지거늘, 신의 아비 죽는 양을 보고 또한 뒤를 따라 수중에 빠지오매 거의 죽게 되었삽더니, 마침 서해 용왕의 구함을 입어 살아나 서역 친축국 ㉥ 백운암에 가 팔 년을 의탁하였나이다. 생각하옵건대 신의 부자가 국가의 죄인이라. 타처에 오래 있사움이 옳지 않아 세상에 나와 수중에 빠진 아비 유골이나마 찾고 고국에 있는 어미를 찾아보고자 하와 중원으로 돌아가옵다가, 농서에서 한나라 장수 이릉의 영혼을 만나 갑옷과 투구를 얻고 사평에서 오추마를 얻으며, 화용도에서 관 공의 영혼을 만나 칼을 얻어, 황성으로 향코자 하옵다가, 반적 흉노가 천자의 자리를 범하여 황성을 함몰하고 어가가 ㉦ 금릉으로 행하셨다 함을 듣고, 분심을 이기지 못하와 전죄를 무릅쓰고 천 리를 달려와 금릉에 이르러 자칭 충의장군이라 하옵고 필마단창으로 적군을 파하고 적장 목특남과 동돌수를 베어 성상의 급하심을 구하옵고, 흉노가 도망하는 것을 따라 서릉도에 들어가 흉노를 베었나이다. 돌아오는 길에 해중에서 풍랑을 만나 나흘 밤낮을 정처 없이 가다가 천우신조하옵고, 성상의 하해지덕으로 무인절도에 다다라 바람이 그치오며, 그 섬에 올라가 죽었던 아버를 만났사오니 황명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감히 함께 와 대죄하옵나니, 신의 부자의 죄 만 번 죽어도 아까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하오나 왕희는 국가의 난신적자요 신의 원수라. 뱃사람이 재물 없이 적소로 가는 죄수를 무단히 살해하올 일은 만무하온즉, 이는 반드시 왕희의 사주를 받은 것으로, 의심할 바 없는지라 바라옵건대 성상은 엄형 국문하옵신 후 왕적을 내어 주시고 신의 죄를 다스리옵소서.’ 하였더라.

- 작자 미상, 「이대봉전」 -

* 진진지연(秦晉之緣): 혼인의 인연.

18.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이대봉이 이릉의 영혼을 만나 갑옷과 칼을 얻은 공간이다.
- ② ㉡은 흉노가 침범한 곳이자 이대봉이 흉노를 처단한 공간이다.
- ③ ㉢은 장 한림 부부가 간신의 모해로 유배 간 공간이다.
- ④ ㉣은 이대봉이 중원으로 향하기 전에 머물던 공간이다.
- ⑤ ㉥은 동돌수가 이대봉을 피해 달아난 공간이다.

19. [장 소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부친과 이 시랑이 '진진지연'을 맺은 데에는 신기한 꿈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알고 있다.
- ② 이 시랑이 '간신의 모해'를 입은 것은 시운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 ③ 부친이 '세상을 버'린 까닭은 혼약이 어그러진 것과 이 시랑의 죽음에 대한 분노 때문이라고 여겼다.
- ④ 왕희가 '혼인을 강제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번복 도주했다.
- ⑤ '성혼 행례'는 하지 않았으나, 승려가 된 양씨를 시어머니로 대했다.

20. <보기>의 [A]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선생님: 고전 소설에서는 제문, 표문 등과 같은 다양한 글이 활용되기도 해요. 윗글의 ㉠와 ㉡에서 글을 바치는 사람과 받는 상대가 누구인지 고려하여, 글의 특징이나 기능에 대해 말해 보세요.

학 생: _____ [A] _____

선생님: 네, 맞아요.

- ① ㉠는 망자에게 바치는 제문이고, ㉡는 성상에게 바치는 표문이에요.
- ② ㉠는 상대의 원통함을 위로하기 위하여, ㉡는 상대에게 사건 경과를 알려 특별한 조치를 요청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어요.
- ③ ㉠와 달리 ㉡에는 글을 바치는 사람이 스스로를 낮추는 표현이 사용되었어요.
- ④ ㉠에서 글을 바치는 사람이 오해했던 사건의 실상이 ㉡에서 드러나고 있어요.
- ⑤ ㉠와 ㉡는 모두 글을 바치는 사람과 상대를 서두에서 밝히고 있어요.

21.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이대봉전」에서 주인공은 공적 가치와 사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공적 가치는 국가 차원의 사건에 참여하는 당위로 제시되고, 사적 목표는 가문의 일원으로서 그 사건 해결에 가담하는 동력이 된다. 현실계나 비현실계의 존재들 또한 주인공의 이러한 문제 해결 과정에 조력한다. 공적 활약을 통해 공적 가치의 권위를 인정하는 이면에 사적 목표의 추구를 배치하는 이러한 구도는 영웅소설이 지향하는 '충'이라는 이념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사적 목표의 추구를 정당화한다.

- ① 장애황이 혼약을 이루기 위해 대공을 세웠다고 한 데에서, 혼약이 국가 차원의 사건에 참여하는 동력이 되었음을 알 수 있군.
- ② 장애황이 난신 왕희를 국법으로 다스린 후 자신에게 내어 달라고 한 데에서, 공적 권위를 존중하되 사적 목표도 실현하고자 하는 마음을 알 수 있군.
- ③ 흉노의 침입으로 성상이 피신했다는 소식에 분노하여 이대봉이 출전한 데에서, 국가 차원의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당위성을 확인할 수 있군.
- ④ 표류하던 이대봉이 천우신조로 무인절도에서 이 시랑과 재회한 데에서, 비현실계의 존재가 이대봉의 공적 활약에 조력한 것을 확인할 수 있군.
- ⑤ 이대봉이 흉노 제압을 공으로 드러낸 후 성상에게 왕희의 처벌을 요구한 데에서, 충의 이념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사적 목표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인물의 의중을 확인할 수 있군.

[22~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25.06

(가)

저 건너 ㉠ 풍생원은 팔자를 원망토다
 제 아버 덕분으로 돈천이나 가졌더니
 술 한 잔 밥 한 술을 친구 대접 하였던가
 주재님께 아는 체로 ㉡ 음양술수(陰陽術數) 현혹되어
 이장도 자주 하며 이사도 힘을 쓰고
 당대발복(當代發福) 에 아니면 피란처가 여기로다
 올 적 갈 적 행로상에 ㉢ 처자식을 홀어 놓고
 유무(有無) 상관 아니하고 공것을 바라도다
 기인취물(欺人取物) 하자 하니 두 번째는 아니 속고
공납(公納) 범용 하자 하니 일가 중에 부자 없고
 뜬재물을 경영하여 경향출입 싸다닐 제
 재상가에 ㉣ 청질하다 봉변당해 물리서며
 남의 고을 걸태 하다 혼금(鬪禁)에 쫓겨 오기
 혼인 중매 선채* 돈에 창피당해 뺨 맞으며
 가대* 홍정 구문 먹기 ㉤ 핀잔 들고 자빠지고
 불의행실(不義行實) 쪼그렁이 위조문서 비리호송(非理好訟)
 부자나 후려 볼까 ㉥ 감언이설 꾀어 보자
 언막이에 보막이며 은광이며 금광이라
 큰길가에 섹주가며 노름판에 푼돈 떼기
 남북촌에 뚜쟁이로 인물 초인(招引) 하여 볼까
 산진매 수진매로 사냥질로 놀아나기
 혼인 핑계 어린 딸이 백 냥짜리 되었구나
 대중손 양반 자랑 산소나 팔아 볼까
 아낙은 친정살이 자식은 머슴살이
 일가에게 인심 잃고 친구에게 손가락질
 부지거처(不知去處) 나간 후에 소문이나 들었던가

- 작자 미상, 「우부가」 -

* 선채(先綵): 혼례 전에 신랑 집에서 신부 집으로 보내는 비단.
 * 가대(家垜): 집이나 토지 등을 통틀어 이르는 말.

(나)

경인년(庚寅年)에 큰 가뭄이 들어 정월부터 가을 7월에 이르기
 까지 비가 내리지 않았다. 봄에는 논밭을 갈지 못했고, 여름에는
 김을 댈 수가 없었다. 들판에 있는 풀은 하나같이 누렇게 말랐고,
 논밭의 곡식도 모두 시들었다.
 부지런한 농부가 말하기를,
 “김을 매도 죽을 것이고 김을 매지 않아도 죽을 것이다.
 편안히 앉아 기다리는 것보다는 힘을 다하여 곡식을 살리는
 게 나을 것이다. 만일 비가 내린다면 어찌 그동안 들인 노력이
 모두 허사가 되겠는가.”
 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논밭은 이미 갈라졌으나 김매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짝이 이미 시들었어도 풀 뽑기를 쉬지 아니하여, 한
 해가 다 가도록 부지런히 일을 하면서 자신이 할 일에 최선을
 다하였다.
 ㉠ 게으른 농부는 말하기를,
 “김을 매도 죽을 것이고 김을 매지 않아도 죽을 것이다.

바쁘게 일하면서 수고로운 것보다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쉬는 것이 나을 것이다. 만일 비가 오지 않으면 이것 모두
 무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밭에서 일하는 농부들을 보고 비웃기를
 그치지 않았고, 들밭을 내가는 아녀자들을 보고 조롱하기를
 그만두지 않으면서, 한 해가 다 가도록 물러나 앉아 천명을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일찍이 가을걷이할 무렵 파산(坡山)의 들판에 가 보았다.
 그 밭의 절반은 황폐하였고 절반은 곡식이 잘 가꾸어져 있었는데,
 절반은 곡식이 성글게 달렸고 절반은 뻑뻑하게 달려 있었다.
 어떤 농부는 목을 뺏뺏이 세우고 하늘을 우러러보고, 또 어떤
 농부는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었다. 마을 노인에게 이유를
 물으니,

“저 황폐하고 성긴 곡식은 목을 뺏뺏이 세우고 하늘을 우러러
 보는 자들이 무익하다고 여겨 김을 매지 않은 것이고, 잘
 가꾸어져 뻑뻑한 곡식은 술에 취한 채 목이 베어 잠든 자들이
 정성과 힘을 다하여 살린 것이다. 한때의 편안함을 탐내었다가
 일 년 내내 굶주리게 되었고, 한때의 괴로움을 참아 일 년
 내내 배불리 지낼 수 있게 되었다.”

라고 하였다.

아, 열심히 일하여 얻고, 편안하게 놀다가 잃는 것은 비단
 농사일만이 아닐 것이다. 오늘날 시서(詩書)를 공부하여 벼슬길에
 나아가기를 도모하는 사람들도 어찌 이와 다를 것인가?

㉡ 선비들은 젊었을 때에 학문에 뜻을 두고 밤낮없이 부지런히
 노력하여 육경(六經)과 온갖 사서(史書)를 탐구하지 않음이 없고
 문장과 아름다운 글귀를 익히지 않음이 없다. 저마다 재주를
 품고 기이한 재주를 쌓아 과거 시험장에 나아가 솜씨를 겨루어,
 한 번에 뜻을 이루지 못하면 못마땅해하고, 두 번에 뜻을 얻지
 못하면 마음이 흐려지고, 세 번에도 뜻을 얻지 못하면 스스로
 낙심하여 말하기를,

“공명에는 분수가 있어서 학문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부귀는 운명에 달려 있으니 역시 학문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한다. 그동안 배운 것을 버리고 아울러 이전에 쌓아 온
 바를 버려서 어떤 이는 중도에 그만두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문(門)에 거의 다 이르렀다가 되돌아간다. 아홉 길 높이로 산을
 쌓고도 한 삼태기의 힘을 마저 쏟지 않는 것과 같으니, 어찌
 게을러서 김을 매지 않는 자들과 같지 않으리오.

학문의 수고로움은 농부들이 봄, 여름, 가을의 세 계절을
 고생하는 것에 비할 바가 아니나, 학문을 하여 얻는 공이 어찌
 농사를 지어 얻는 이로움 정도뿐이겠는가. 농사를 지어 입과
 배를 채우는 것은 그 이로움이 적으나, 학문을 하여 명성을
 취하는 것은 그 이로움이 크다. 이로움이 작은 일도 오히려
 부지런히 하지 않을 수 없는데, 하물며 큰 일을 하면서 부지런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마음을 수고롭게 하는 군자는 도리어
 몸을 수고롭게 하는 소인이 끝까지 노력함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이 글을 지어 그들을 깨우치는 바이다.

- 성현, 「타농설」 -

22.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열거의 방식을, (나)는 대조의 방식을 활용하여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 ② (가)는 (나)와 달리, 대구적 표현을 활용하여 인물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 ③ (나)는 (가)와 달리, 반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인물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모두, 계절적 배경을 활용하여 향토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해학적 표현을 활용하여 인물 간의 우호적 관계를 드러내고 있다.

23.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집터나 밭자리를 통해 길운을 바라는 농생원이 관심을 보이는 대상이다.
- ② ㉡은 재물을 모은 농생원이 함께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싶은 대상이다.
- ③ ㉢은 재물을 경영하여 부를 증식하려는 농생원이 권력가의 권세를 이용하기 위한 방법이다.
- ④ ㉣은 집이나 땅을 중개하여 이문을 취하려는 농생원이 흥정 과정에서 겪은 부정적 반응이다.
- ⑤ ㉣은 부자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으려는 농생원이 부자를 피는 수단이다.

24.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도박과 음주에 빠져 있고, ㉡는 파산의 들판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다.
- ② ㉠은 부모의 혜택을 받지 못하여 팔자를 원망하고, ㉢는 분수를 알아 자신의 배움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 ③ ㉠은 혼인을 중매하는 일에 성공하지 못하여 창피를 당하고, ㉣는 과거 시험에서 뜻을 이루지 못하여 수치를 당한다.
- ④ ㉡는 가뭄에 김을 매지 않아 다른 농부들의 조롱을 받고, ㉢는 한때의 괴로움을 참지 못하여 공명을 이루지 못한다.
- ⑤ ㉡는 김매기를 하여도 작물이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는 학문에 힘을 쏟아도 부귀를 이루지 못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25.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인물들의 말을 인용하여 특정 상황에 대한 서로 다른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② 글쓴이의 주장과 그에 대한 반박을 제시하여 화제에 대한 상반된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 ③ 물음에 답하는 인물을 통해 글쓴이가 관찰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 ④ 다른 사람에게 교훈을 전달하고자 하는 글쓴이의 의도를 드러내며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
- ⑤ 글쓴이의 경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논의의 대상을 다른 상황으로 확장하고 있다.

26.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당면한 현실에 대응하는 양상에 따라 삶에 대한 평가는 달라진다. 요행을 바라면서 책임감 없는 삶을 사는 경우에는 부정적으로,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삶을 사는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가)에서는 당대 규범에서 벗어나 세속적 욕망을 추구하며 요행을 바라는 태도에 대한 경계가, (나)에서는 운명론적 태도에서 벗어나 삶의 주체로서 문제를 성실하게 해결하는 자세에 대한 권면이 나타나고 있다.

- ① (가)의 ‘공것’과 ‘뜯재물’은 정당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요행을 바라는 태도를 알 수 있는 소재이군.
- ② (나)의 ‘비가 내리지 않아’ ‘김을 뭍 수가 없’는 것을 보니, 농부들이 농경에 부적합한 환경이라는 문제 상황에 당면하게 된 것을 알 수 있군.
- ③ (가)의 ‘공납’을 유용하려는 것에서 이익을 위해 규범을 무시하는 태도를, (나)의 ‘그냥 쉬는 것이 나을 것’에서 불행한 결과를 예단하는 운명론적 태도를 확인할 수 있군.
- ④ (가)의 ‘돈천이나 가졌더니’, ‘친구 대접 하였던가’에서 재물을 베푸는 데 인색한 물욕을, (나)의 ‘풀 뽑기를 쉬지 아니하여’에서 한계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군.
- ⑤ (가)의 ‘일가’와 ‘친구’에게서 소외당한 농생원의 말로에서 무책임한 삶에 대한 경계가, (나)의 ‘큰 일을 하면서 부지런하기’를 추구하는 데에서 게으른 농부에 대한 권면이 나타나는군.

[27~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25.06

어머니의 변명은 끝끝내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지 못했다. 그 후로 나는 좀처럼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꺼내지 않게 되었다. 뜻밖에도 아버지의 죄를 순순히 시인하는 그녀의 ㉠한마디가 내게는 그토록 엄청난 충격으로 깊이 남겨졌던 탓이리라. ㉡바로 그 순간부터 나는 아버지의 그 죄라는 것을 내 스스로 함께 나누어 지니고 만 느낌이었었고, 그 때문에 나이에 걸맞지 않게 나는 눈빛이 깊고 어두운 아이가 되어 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아버지의 무서운 환영은 저주처럼 내 곁을 따라다니기 시작했다. 그는 언제나 시키면 어둠 저편에 숨어서 음산하기 그지없는 눈빛으로 나를 쏘아보고 있었다. 그는 어디에나 숨어 있었다. 내 어릴 때 이따금 고개를 디밀어 들여다보면 마루 밑 저편 깊숙이 도사리고 있던 그 까마득한 어둠 속에서도 그 어둠 속에서 술술 기어 나오던 그 눅눅하고 음습한 냄새 속에서도 내가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는 그 사내는 핏발 선 눈알을 번득이며 나를 쏘아보고 있는 것이었다. 그건 어디서 묻었는지도 모르는,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까지 지워지지 않는 핏자국처럼 내게는 저주와 공포의 **낙인**으로 깊이 박혀져 있었다. 그리고 그 낙인을 가슴에 지닌 채, 나는 끝끝내 나를 휘감고 있는 어떤 엄청난 **죄악감과 불길한 예감**으로부터 영영 벗어날 수가 없었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 나와 부대원들은 훈련에 대비해 참호를 파다가 발견한 유해를 인근 마을의 노인과 함께 수습하여 매장하는 일을 행한다.

두개골과 다리뼈를 꼼꼼히 문질러 닦은 뒤, 노인은 몸통뼈에 묶인 줄을 풀어내기 시작했다. 완강하게 묶인 매듭은 마침내 노인의 손끝에서 풀리어졌다. 금방이라도 찢겨떨어 췌소리를 낼 듯한 철사줄은 싱싱하게 살아 있었다. 살을 녹이고 뼈까지도 녹슬게 만든 그 오랜 시간과 땅 밑의 어둠을 끝끝내 견뎌 내고 그렇듯 시퍼렇게 되살아 나오는 그것의 놀라운 끈질김과 내구성 언뜻 소름끼치도록 무서움증을 느끼게 했다.

노인은 손목과 팔에 묶인 결박까지 마저 풀어낸 다음 허리를 펴고 일어서더니 **줄 묶음을** 들고 저만치 걸어 나갔다. 그가 허공을 향해 그것을 멀리 **내던지는** 순간 나는 까닭 모르게 마당가에서 하늘을 치어다보며 서 있는 어머니의 가녀린 목 줄기와 그녀가 아침마다 소반 위에 떠서 올리곤 하던 하얀 물 **사발**이 눈앞에 떠올랐다가 스러져 버리는 것이었다.

㉢나는 담배를 피워 물었다. 멀리 메마른 초겨울의 야산이 **혈뱀은 등을 까 내놓고 죽은 듯이** 었드려 있었다. 사위는 온통 **갯빛의 풍경**이었다. 피잉, 현기증이 일었다.

광주리를 머리에 인 어머니가 **모래밭**을 걸어오고 있었다. 돌돌거리며 흐르는 물소리를 거슬러 강변 모래밭을 어머니가 혼자 저만치서 다가오고 있었다. 모래밭은 하얗게 햇살을 되받아 쏘며 은빛으로 반짝였다. 허리띠를 질끈 동인 어머니의 치맛자락이 흐느적이며 바람결에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햇살에 부신 눈을 가늘게 오므리고 줄곧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때였다. 뚝에서 처럼 나는 그녀의 뒤를 바짝 따라오고 있는 한 **사내의 환영**을 보았다. 그건 아버지였다. ㉣언젠가 어머니의 **낡은 반달**이 **깊숙한 옷가지 밑에 숨겨져** 있던 액자 속에서 학생복 차림으로

서 있던 그대로 그건 **영락없는 그 사내**였다. 나를 어머니의 배 속에 남겨 놓은 채 어느 바람이 몹시 부는 날 밤, 산길을 타고 지리산인가 어디로 황황히 떠나가 버렸다는 사내. 창백해 보이는 뺨에 마른 몸집의 그 사내가 어머니와 함께 걸어오고 있는 것이었다. 놀란 눈으로 풀밭에 앉아 나는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윽고 어머니의 눈썹과 코, 입의 윤곽과 야윈 목 줄기까지 뚜렷이 드러날 만큼 가까워졌을 때 사내의 환영은 어느 틈에 사라져 버리고 없었다. 몇 번이나 눈을 비비고 보았으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하얗게 반짝이는 모래밭 위로 어머니가 찍어 내는 발자국만 윤행처럼 끈질기게 그녀의 발꿈치를 뒤따라오고 있을 뿐이었다.

우리는 관 대신에 신문지로 찢 **유해**를 맨 처음 그 자리에 다시 묻어 주었다. 도톰하니 봉분을 만들고 뗏장까지 입혀 놓고 보니 엉성한 대로 형상은 갖춘 듯싶었다. 노인은 술을 흠 위에 뿌려 주었다. 그리고 자신이 먼저 한 모금 마신 다음에 잔을 돌렸다. 오 일병이 노파가 준 복어를 내놓았고, 덕분에 작은 술판이 벌어졌다. **음복인 썸**이었다.

“아빠, 이런 느닷없는 장례식도 모두 너희 두 놈들 때문이니까, 자 한 잔씩 마셔라.”

“그래그래, 어쨌든 너희들은 좋은 일 했으니 천당 가도 되겠다.” 소대장이 병을 기울였고 다른 녀석들도 **낄낄대며** ㉤한마디씩 보태었다.

술이 가득 차오른 반합 뚜껑을 나는 두 손으로 받쳐 들었다. ㉥저것 **봐라**이. ㉦날짐승도 매가 되면 돌아올 줄 아는 법이다. 어머니가 말했다. 저만치 웬 사내가 서 있었다. 가슴과 팔목에 철사줄을 동여맨 채 사내는 이쪽을 응시하며 구부정하게 서 있었다. 쾅하니 열려 있는 그 사내의 눈은 잔뜩 겁에 질려 있는 채로였다. 애앵. 총성이 울렸고 그는 허물어지듯 **앞으로** 고꾸라지고 있었다. ㉧**불현듯** 시야가 부영계 **흐려** 왔다.

아아. 아버지는 지금 어디에 쓰러져 누워 있을 것인가. 해마다 머리맡에 무성한 ㉨**쑥부쟁이**와 **영경취**꽃을 지천으로 피워 내며 이제 아버지는 어느 버려진 밭고랑, 어느 웅덩이 산기슭에 무덤도 묘비도 없이 홀로 잠들어 있을 것인가.

- 임철우, 「아버지의 땅」 -

27. ㉠~㉨의 서술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나’의 지각 내용을 ‘나’가 서술하는 상황으로 인물과 서술자가 겹쳐 있다.
- ② ㉡: 서술의 주체를 알 수 있는 표지가 분명하게 제시되어 서술자와 지각의 주체가 뚜렷이 구분된다.
- ③ ㉢: ‘나’가 아니라 ‘나’가 지각하는 대상을 주어로 서술함으로써 지각의 대상을 부각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 ④ ㉣: 인용 부호 없이 서술된 발화에서 인물의 목소리가 드러난다.
- ⑤ ㉤: 지각의 주체를 알리는 표지가 나타나지 않아서 누가 지각한 바를 서술한 것인지 모호한 상황이 빚어진다.

28. 윗글에서 ㉠과 ㉡의 서사적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이 이야기의 심화된 주제를 구현하는 제재라면, ㉡는 이야기의 주제를 가늠하도록 하는 단서이다.
- ② ㉠이 이야기를 절정에 치달도록 하는 추진력이라면, ㉡는 이야기를 결말에 이르게 하는 원동력이다.
- ③ ㉠이 이야기의 긴장감이 형성되는 요인이라면, ㉡는 이야기의 긴장감이 완화됨을 드러내는 표지이다.
- ④ ㉠이 이야기의 위기감이 해소된 종착점이라면, ㉡는 이야기의 위기감이 고조된 정점이다.
- ⑤ ㉠이 이야기를 일으키는 시발점이라면, ㉡는 이야기의 전모가 드러나게 되는 귀결점이다.

29.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에 비해 능동적이므로 인물이 처한 문제 상황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 ② ㉠은 ㉡와 달리, 시간과 공간에 관여되면서 이야기의 배경에 실감을 더하게 된다.
- ③ ㉡는 ㉠과 달리, 희망적인 성격이 강하므로 인물이 원하는 바를 집약한 결과이다.
- ④ ㉡에서 연상되는 상황이 현실이 될 경우 ㉠에 투영된 염원은 실현 가능성이 사라진다.
- ⑤ ㉠과 ㉡ 모두, 관념적 의미가 부여됨으로써 인물이 이념에 편향되어 있음이 알려진다.

30.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부정적인 방향으로 응고된 기억을 돌이켜 긍정적인 방향으로 재편함으로써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 심리 요법의 일환으로 적용되는 ‘기억 재응고화’는 마음의 상처로 남은 기억을 재구성하여 다른 의미와 가치에 대응시킴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부정적 기억으로 빚어진 심리적 불안정에 대응할 힘을 회복하도록 돕는 원리이다.

- ① ‘낙인’과도 같은 유년의 기억을 성인이 되어서도 떨쳐 버리지 못했다는 고백에 비추어 보면, 응고된 기억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일이 쉽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겠군.
- ② ‘죄악감과 불길한 예감’을 유발한 동인을 추적해 보면, ‘아버지’에 관한 기억이 마음의 상처로 남음으로써 ‘나’의 심리적 불안정이 비롯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겠군.
- ③ ‘줄 묶음’을 ‘내던지’는 ‘노인’의 행위와 ‘물 사발’을 올리는 ‘어머니’의 행위가 이어지며 제시되는 부분을 보면, ‘나’의 기억을 재응고화하기 위한 이들의 노력을 확인할 수 있겠군.
- ④ ‘모래밭’에서의 ‘어머니’ 형상과 ‘사내의 환영’이 어우러지는 장면에서, ‘아버지’에 대해 굳어져 있던 기억이 재편될 수 있는 가능성이 시사된다고 할 수 있겠군.
- ⑤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유해’에 대응되면서 ‘나’의 정서적 반응에 변화가 생기는 것을 보면, 부정적인 기억을 재구성함으로써 심리적 안정을 회복해 가는 경위를 엿볼 수 있겠군.

[31~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25.06

(가)

손 흔들고 떠나갈 미련은 없다
 며칠째 청산에 와 발을 푸니
 ㉠ 호리던 산길이 잘 보인다.
 상수리 열매를 주우며 인가를 내려다보고
 쓰다 둔 편지 구절과 버린 칫솔을 생각한다.
 남방으로 가다 길을 놓치고
 두어 번 허우적거리는 여울물
 산 아래는 때까지들이 몰려와
 모든 야성을 버리고 들 가운데 순결해진다.
 길을 가다가 자주 뒤를 돌아보게 하는
 서른 번 다져 두고 서른 번 포기했던 ㉡ 관습들
 서쪽 마을을 바라보면 나무들의 잔숨결처럼
 ㉢ 가늘게 흩어지는 저녁 연기가
 한 가정의 고민의 양식으로 피어오르고
 생목 울타리엔 들거미줄
 맨살 ㉣ 비비는 돌들과 함께 누워
 실로 이 세상을 알아 보지 않은 것들과 함께
 잠들고 싶다.

- 이기철, 「청산행」 -

(나)

나는 차를 앞에 놓고
 고즈넉한 저녁에 호을로 마신다.
 내가 좋아하는 차를 마신다.
 그러나 이것은 다만 사실일 뿐,
 차의 짙은 향기와는 관계 없이
 이것은 물과 같이 담담한 사실일 뿐이다.

 누구의 시킴을 받아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누구의 손으로 들국화를 어여삐 가꾼 것도 아니다.
 차를 마시는 것은
 이와 같이 ㉤ 스스로 달갑고 가장 즐거울 뿐,
 이것은 다만 사실이며 또 ㉥ 관습이다.
 나의 고즈넉한 관습이다.

물에게 물은 물일 뿐
 소금물일 뿐,
 앞으로 남은 십년을 더 살든지 죽든지
 나에게게도 나는 나일 뿐,
 ㉦ 이제는 차를 마시는 나일 뿐,

이 짙은 향기와는 관계도 없이
 차를 마시는 사실과 관습은
 내가 아는 내게 대한 모든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한 모든 것도 된다.

- 김현승, 「사실과 관습: 고독 이후」 -

31.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인격화한 대상을 통해 화자의 심리를 내포하고 있다.
- ② (나)는 대상을 한정하는 어휘들을 사용하여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 ③ (가)는 (나)와 달리, 공간의 이동에 따라 포착된 사물을 통해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④ (나)는 (가)와 달리, 화자를 거듭 명시하면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자연물에 화자의 정서를 투영함으로써 대상에 대한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다.

32. ㉠,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길을 가다가 자주 뒤를 돌아보게’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그리움의 대상이다.
- ② ㉢은 ‘호을로’ 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행위 주체의 사회적 고립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은 바라봄의 대상인 ‘서쪽 마을’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피안에 대한 지향을, ㉢은 일과를 마친 ‘저녁’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안식에 대한 지향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은 ‘서른 번 다져 두고 서른 번 포기’한 것이라는 점에서 내면의 갈등을, ㉢은 ‘고즈넉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담담한 사실’이라는 점에서 내면의 평정함을 내포한다.
- ⑤ ㉠은 사물들을 ‘내려다보아’ 촉발된 것이라는 점에서 자기 연민의 성격을, ㉢은 ‘달갑고’, ‘좋아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자기 위안적 성격을 띠고 있다.

33.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대상이 이전에는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음을 드러내는 표현이다.
- ② ㉧은 ‘저녁 연기’의 형상으로 ‘한 가정’의 상황과 처지를 시각화한 표현이다.
- ③ ㉨은 ‘맨살’을 드러낸 ‘돌들이’ 부대끼는 형상으로 세파에 시달리는 모습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 ④ ㉩은 ‘차를 마시는 것’이 화자의 선호에 따른 주체적 행위를 드러내는 표현이다.
- ⑤ ㉪은 ‘나’에 대한 현재의 인식이 이전과는 달라졌음을 드러내는 표현이다.

34.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자연과 절대자는 각각 인간에게 안식을 주거나 인간과 세계를 규정하는 중요한 준거로 인식되어 왔다. (가)는 세속의 일상을 떠나 자연에 들어온 화자가 점차 자연에 동화되어 가는 과정과 심리 상태를 그리고 있다. (나)는 자신과 세계 인식의 준거였던 절대자와의 관계를 회의하고 자신이 경험한 사실에 기초하여 존재를 인식하겠다는 태도를 표명하고 있다.

- ① (가)의 ‘쓰다 둔 편지 구절과 버린 칫솔을 생각한다’는 것은 자연에 온전히 동화되지 못하는 화자의 심리를 보여 주는 것이겠군.
- ② (나)의 ‘차를 마시는’ 행위가 ‘내가 아는 내게 대한 모든 것’, ‘모든 것에 대한 모든 것’으로 확장되는 것은 경험적 사실을 ‘나’와 모든 존재들에 대한 인식의 유일한 근거로 삼겠다는 의식이 반영된 것이겠군.
- ③ (가)의 ‘발을 푸니’ ‘잘 보인다’는 것은 화자가 자연에 친숙해지는 심리 상태를, (나)의 ‘앞으로 남은 십년을 더 살든지 죽든지’는 절대자에 대해 회의하고 현실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겠군.
- ④ (가)의 ‘여울물’과 ‘때까치들’에는 자연에 들어와서 느끼는 화자의 심리가 투사되어 있음을, (나)의 ‘참새’의 떨어짐이 ‘누구’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데에서 절대자와의 관계에 대한 회의가 드러나 있음을 알 수 있겠군.
- ⑤ (가)의 ‘이 세상을 앓아 보지 않은 것들과 함께’는 자연에 동화되려는 태도를, (나)의 ‘물은 물일 뿐’은 경험적 사실로만 대상을 인식하겠다는 태도를 드러내는 것이겠군.

[18~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24.11

황상과 만조백관이 어찌할 줄 모르더니 좌장군 서경태가 급히 입직군을 동원하여 칼을 들고 내달아 크게 꾸짖길,
 “이 몸쓸 흉악한 놈아, 어찌 이런 변을 짓느냐?”
 하고 칼을 들어 치니 아귀가 몸을 기울여 피하고 입을 벌려 숨을 들이쉬니 서경태가 날리어 아귀 입으로 들어갔다. 상이 보시다가 크게 놀라,
 “짐이 여러 번 전장을 지내었되 이런 일은 보도 듣도 못하였으니 제신 중에 누가 이 짐승을 잡아 짐의 한을 씻으리오.”
 정서장군 한세충이 나와 아뢰길,
 “소장이 비록 재주 없으나 저것을 배어 황상께 바치리이다.”
 하고 황금 투구에 엄신갑을 입고 팔 척 장창을 들고 청룡마를 내달아 외쳐 말하길,
 [A] “흉적은 목을 늘여 내 칼을 받으라.”
 아귀가 크게 웃고 말하길,
 “아까는 내 숨을 들이쉬니 모기 같은 것도 삼켰으니 지금은 숨을 내쉴 것이니 네 눈을 부릅뜨고 자세히 보라.”
 하고 입을 벌려 숨을 내부니 황상과 만조백관이 오 리나 밀려갔다. 아귀가 궁중이 텅 빈 것을 보고 세 공주를 등에 업고 돌아갔다.
 이때 황상이 제신과 함께 정신을 겨우 차려 환궁하시니 세 공주가 다 없었다. 상께 이 연고를 아뢰니 상이 크게 놀라 하교하시되,
 “이런 해괴한 변이 천고에 없으니 경들의 소견이 어떠하뇨?”
 하고 용루를 흘러시니 조정에 모인 여러 신하가 감히 우러러 보지 못하였다.
 이우영이 아뢰길,
 “전 좌승상 김규가 지모 녀석하오니 불러 문의하심이 마땅할까 하나이다.”
 상이 깨달아 조서를 내려 김규를 부르셨다.
 이때 승상이 원을 데리고 평안히 지내더니 천만의외에 사관이 조서를 가지고 왔거늘 받자와 본즉,
 “전임 좌승상에게 부치나니 그사이 고향에서 무사한가. ㉠ 짐은 불행하여 공주를 잃고 종적을 모르니 통한함을 어찌 측량 하리오. 경에게 옛 벼슬을 다시 내리나니 바빠 올라와 고명한 소견으로 짐의 아득함을 깨닫게 하라.”
 하였다. 승상이 사관을 후대하고 ㉡ 국변을 물으니 아귀 작란하던 일과 세 공주 잃은 말을 대강 고하니 승상이 못내 슬퍼하며 상경하여 사은숙배하니, 상이 보시고,
 “경이 고향에 돌아갔은 짐이 불명한 탓이로다. 국운이 불행 하여 세 공주를 일시에 잃었으니 짐의 이 원을 어찌하리오? 경의 소견으로 이 일을 도모하면 평생의 한을 풀리리다.”
 승상이 엎드려 아뢰길,
 “소신이 자식이 있삽는데 창법 검술이 일세에 무쌍하와 매일 종적 없이 다니웁기 연고를 물으니 철마산에 가 무예를 익히다가 일일은 그 산에서 아귀라 하는 짐승을 만나 겨루고 그 뒤를 좇아 바위 구멍으로 들어감을 보았노라 하옵기 과연

허언이 아닌가 싶사오니 ㉢ 자식을 불러 들으심이 마땅하올까 하나이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 원은 황상을 뵈고 원수가 되어 철마산 아귀의 소굴로 들어간다.
 원수가 백계를 생각하다가 갑자기 깨달아 공주께 아뢰기를,
 “독한 술을 많이 빚어 좋은 안주를 장만하여야 계교를 베풀 리이다.”
 하고, 약속을 정해 여러 여자를 청하여 여차여차하게 계교를 갖추고 기다리라고 하였다.
 이때 아귀가 원의 칼에 상한 머리 거의 나오니 모든 시녀를 불러 말하기를,
 ㉣ “내 병이 조금 나았으니 사오일 후 세상에 나가 남두성을 잡아 죽여 이 원한을 풀리라. 너희는 나를 위하여 마음을 위로하라.”
 여자들이 이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각각 술과 성찬을 권하기를,
 “대왕의 상처가 나오시면 칩 등의 복인가 하나이다. ㉤ 수이 차도를 연사하면 남두성 잡기야 어찌 근심하리오? 주찬을 대령 하였사오니 다 드시어 칩 등의 우러르는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아귀가 가져오라 하거늘, 여러 여자가 일시에 한 그릇씩 드리니 아홉 입으로 권하는 대로 먹으니 그 수를 알 수 없었다. 술이 취하매 여러 여자가 거짓으로 위로하여,
 “장군은 잠깐 잠을 청하여 아픔을 잊으소서.”
 아귀가 듣고 잠을 자려 하거늘, 막내 공주가 곁에 앉아 말하길,
 “보검을 놓고 주무소서. 취중에 보검을 한번 휘둘러 치면 잔명이 죄 없이 상할까 하나이다.”
 아귀가 말하기를,
 “장수가 잠이 드나 칼을 어찌 손에서 놓으리오마는 혹 실수함이 있을까 하노니 머리말에 세워 두라.”
 하고 주거늘, 공주가 받아 놓고 잠들기를 기다렸다. 아귀가 깊이 잠들었거늘, 비수를 가지고 협실로 나와 원수에게 잠들었음을 이르고 함께 후원에 이르러 큰 기둥을 가리키며,
 “원수의 칼로 저 기둥을 쳐 보소서.”
 원수가 칼을 들어 기둥을 치니 반쯤 부러졌다. 공주가 크게 놀라 말하기를,
 “만일 그 칼을 썼더라면 성사도 못하고 도리어 큰 화가 미칠 뻔하였습니다.”
 아귀가 쓰던 비수로 기둥을 치니 썩은 풀이 베어지는 듯하였다.
 -작자 미상, 「김원전」-

18. [A]의 서술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서술자가 개입하여 인물에 대한 평가를 제시하고 있다.
 - ② 대화를 통해 인물 간의 위계나 관계를 보여 주고 있다.
 - ③ 현재와 과거를 교차하여 장면의 전환을 보여 주고 있다.
 - ④ 인물의 회상을 통해 인물 간 갈등의 원인을 암시하고 있다.
 - ⑤ 상황에 대한 인물의 반응을 과장되게 서술하여 사건의 비극성을 완화하고 있다.

19. ㉠과 관련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황상은 ㉠의 심각성을 이전의 '전장'과 비교하고, 그때의 경험에 근거하여 ㉠에 대한 대처 방안을 찾아낸다.
- ② 이우영은 ㉠의 해결을 위해 '조정'에서 황상의 질문에 답하며 ㉠에 대처할 방안을 찾아 줄 지모 있는 인물을 거명한다.
- ③ 황상은 ㉠의 여파가 미치지 않은 '고향'에서 편안히 지내던 승상에게 ㉠으로 인한 위기 상황을 알린다.
- ④ 승상은 ㉠의 원흉인 아귀를 원이 '철마산'에서 본 것을 황상에게 아뢰고, ㉠을 해결할 단서를 제공할 인물을 천거한다.
- ⑤ 원은 ㉠의 해결 방안을 떠올리고, '협실'에서 공주를 만나 ㉠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음을 알게 된다.

20.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에서는 상대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숨겨 온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와 ㉢에서는 자신의 위세를 드러내어, 상대의 복종을 이끌어 내고 있다.
- ③ ㉠에서는 자신의 감정을 상대에게 드러내고, ㉣에서는 자신들의 의도를 상대에게 숨기고 있다.
- ④ ㉡에서는 당위를 내세워 상대의 행위를 요구하고, ㉣에서는 상대의 안위를 우려하여 자제를 요청하고 있다.
- ⑤ ㉢에서는 상대에게 자신의 목표를 위해 행동할 것을 촉구하고, ㉣에서는 상대의 목표를 위해 행동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21.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김원전」은 당대의 보편적 가치인 충군을 주제로, 초월적 능력을 지닌 주인공과 기이한 존재인 적대자의 필연적 대결 관계를 보여 준다. 특히 적대자의 압도적 무력에 맞서는 과정에서 인물에 따라, 혹은 인물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른 대응 방식을 보여 줌으로써 독자의 흥미를 자극한다.

- ① 서경태가 입직군을 동원해 아귀와 맞서고 원수가 계교를 마련해 아귀를 상대하는 데서, 압도적 무력을 지닌 적대자에 대응하는 양상이 서로 다름을 알 수 있군.
- ② 한세충이 황상의 한을 씻고자 아귀에게 대항하고 승상이 황상의 불행에 슬피하며 상경하는 데서, 인물들이 충군의 가치를 지키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③ 원이 아귀의 머리를 상하게 한 것과 아귀가 남두성인 원에게 원한을 갚겠다고 다짐하는 데서, 주인공과 적대자의 대결이 피할 수 없는 것임을 알 수 있군.
- ④ 공주가 황상에게는 국운의 불행으로 잃은 대상이지만 원수에게는 약속대로 아귀를 잠들게 하는 인물인 데서, 여성 인물이 사건의 피해자이자 해결을 돕는 존재임을 알 수 있군.
- ⑤ 일세에 무쌍한 무예를 갖춘 원수가 아귀의 비수로 기둥을 베어 보는 데서, 주인공이 적대자를 처치하기 위해 자신의 계획대로 초월적 능력을 시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22~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24.11

(가)

흰 벽에는 —

어련히 해들 적마다 나뭇가지가 그림자 되어 떠오를 뿐이었다. 그러한 정밀*이 천년이나 머물렀다 한다.

단청은 연년(年年)이 빛을 잃어 두리기둥에는 틈이 생기고, 별과 바람이 쓰라리게 스며들었다. 그러나 험상궂어 가는 것이 서럽지 않았다.

기왓장마다 푸른 이끼가 앉고 세월은 소리없이 쌓였으나 ㉠ 문은 상기 닫혀진 채 멀리 지나가는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밤이 있었다.

주춧돌 놓인 자리에 가을풀은 우거졌어도 봄이면 돌아나는 푸른 짝이 살고, 그리고 한 그루 진분홍 꽃이 피는 나무가 자랐다.

유달리도 푸른 높은 하늘을 눈물과 함께 아득히 흘러간 별들이 총총히 돌아오고 사납던 비바람이 건넌 낡은 처마 끝에 찬란히 빛이 쏟아지는 새벽, 오래 닫혀진 문은 산천을 울리며 열리었다.

— 그림던 것발이 눈뿌리에 사무치는 푸른 하늘이었다.

- 김종길, 「문」 -

* 정밀: 교묘하고 편안함.

(나)

이름테면 수양의 늘어진 ㉡ 가지가 담을 넘을 때 그건 수양 가지만의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얼굴 한번 못 마주친 애먼 뿌리와 잠시 살 붙였다 적막히 손을 터는 꽃과 잎이 혼연일체 믿어주지 않았다면 가지 혼자서는 한없이 떨기만 했을 것이다

[A]

한 닷새 내리고 내리던 고집 센 비가 아니었으면 밤새 정분만 쌓던 도리 없는 폭설이 아니었으면 담을 넘는다는 게 가지에게는 그리 신명 나는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무엇보다 가지의 마음을 머뭇 세우고 담 밖을 가뉘두는 저 금단의 담이 아니었으면 담의 몸을 가로지르고 담의 정수리를 타 넘어 담을 열 수 있다는 걸 수양의 늘어진 가지는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다

[B]

그러니까 목련 가지라든가 감나무 가지라든가 줄장미 줄기라든가 담쟁이 줄기라든가 가지가 담을 넘을 때 가지에게 담은 무명에 획을 긋는 도박이자 도반*이었을 것이다

[C]

- 정결별, 「가지가 담을 넘을 때」 -

* 도반: 함께 도를 닦는 벗.

(다)

나는 이홍에게 이렇게 말했다.

“㉢ 너는 잇는 것이 병이라고 생각하느냐? 잇는 것은 병이 아니다. 너는 잇지 않기를 바라느냐? 잇지 않는 것이 병이 아닌 것은 아니다. ㉣ 그렇다면 잇지 않는 것이 병이 되고, 잇는 것이 도리어 병이 아니라는 말은 무슨 근거로 할까? 잇어도 좋을 것을 잇지 못하는 데서 연유한다. 잇어도 좋을 것을 잇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잇는 것이 병이라고 치자. 그렇다면 잇어서는 안 되는 것을 잇는 사람에게는 잇는 것이 병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 그 말이 옳을까?”

천하의 걱정거리의 어디에서 나오겠느냐? 잇어도 좋을 것을 잇지 못하고 잇어서는 안 될 것은 잇는 데서 나온다. 눈은 아름다움을 잇지 못하고, 귀는 좋은 소리를 잇지 못하며, 입은 맛난 음식을 잇지 못하고, 사는 곳은 크고 화려한 집을 잇지 못한다. 천한 신분인데도 큰 세력을 얻으려는 생각을 잇지 못하고, 집안이 가난하건만 재물을 잇지 못하며, 고귀한 데도 교만한 것을 잇지 못하고, 부유한데도 인색한 것을 잇지 못한다. 의롭지 않은 물건을 취하려는 마음을 잇지 못하고, 실상과 어긋난 이름을 얻으려는 마음을 잇지 못한다.

그래서 잇어서는 안 될 것을 잇는 자가 되면, 어버이에게는 효심을 잃어버리고, 임금에게는 충성심을 잃어버리며, 부모를 앓고서는 슬픔을 잃어버리고, 제사를 지내면서 정성스러운 마음을 잃어버린다. 물건을 주고받을 때 의로움을 잃고, 나아가고 물러날 때 예의를 잃으며, 낮은 지위에 있으면서 제 분수를 잃고, 이해의 갈림길에서 지켜야 할 도리를 잇는다.

㉥ 먼 것을 보고 나면 가까운 것을 잃고, 새것을 보고 나면 옛것을 잇는다. 입에서 말이 나올 때 가릴 줄을 잃고, 몸에서 행동이 나올 때 본받을 것을 잇는다. 내적인 것을 잇기 때문에 외적인 것을 잇을 수 없게 되고, 외적인 것을 잇을 수 없기 때문에 내적인 것을 더더욱 잇는다.

㉦ 그렇기 때문에 하늘이 잇지 못해 별을 내리기도 하고, 남들이 잇지 못해 질시의 눈길을 보내며, 귀신이 잇지 못해 재앙을 내린다. 그러므로 잇어도 좋을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잇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을 서로 바꿀 능력이 있다.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을 서로 바꾸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잇어도 좋을 것은 잃고 자신의 잇어서는 안 될 것은 잇지 않는다.”

- 유한준, 「잇음을 논함」 -

22.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명시적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화자의 감정을 드러낸다.
- ② (가)는 동일한 색채어를, (나)는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적으로 제시하며 시상을 전개한다.
- ③ (가)와 (나)는 모두, 사라져 가는 대상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을 드러낸다.
- ④ (나)는 사물을 관조함으로써, (다)는 세태를 관망함으로써 주제 의식을 부각한다.
- ⑤ (가), (나), (다)는 모두, 대상과 소통하며 문제 해결 과정을 연쇄적으로 제시한다.

23.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가)에서 순환하는 자연이 가진 변화의 힘은 인간 역사의 쇠락과 생성에 관여한다. 인간의 역사는 쇠락의 과정에서도 생성의 기반을 잃지 않고, 자연과 어우러지며 자연의 힘을 탐색하거나 수용한다. 이를 통해 ‘문’은 새로운 역사를 생성할 가능성을 실현하게 되고, 인간의 역사는 ‘깃발’로 상징되는 이상을 향해 다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 ① ‘흰 벽’에 나뭇가지가 그림자로 나타나는 것은, 천년을 쇠락해 온 인간의 역사가 자연의 힘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자연의 모습에 영향을 미친 결과를 보여 주는군.
- ② ‘두리기둥’의 틈에 별과 바람이 쓰라리게 스며드는 것을 서럽지 않다고 한 것은, 쇠락해 가는 인간의 역사가 자연이 가진 변화의 힘을 수용함을 드러내는군.
- ③ ‘기왓장마다’ 이끼와 세월이 덮여 감에도 멀리 있는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자연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자연이 가진 변화의 힘에서 생성의 가능성을 찾는 모습이겠군.
- ④ ‘주춧돌 놓인 자리’에 봄이면 푸른 싹이 돋고 나무가 자라는 것은, 생성의 기반을 잃지 않은 인간의 역사가 자연과 어우러져 생성의 힘을 수용하는 모습이겠군.
- ⑤ ‘달혀진 문’이 별들이 돌아오고 낡은 처마 끝에 빛이 쏟아지는 새벽에 열리는 것은, 순환하는 자연 속에서 인간의 역사를 다시 생성할 가능성이 나타남을 보여 주는군.

24. (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는 ‘얼굴 한번 못 마주친’ 상황과 ‘손을 터는’ 행위가 ‘한없이’ 떠는 가지의 마음으로 인한 것임을 드러낸다.
- ② [B]에서는 ‘고집 센’과 ‘도리 없는’을 통해 가지가 ‘꿈도 꾸지 못’하게 만든 두 대상의 성격을 부각한다.
- ③ [B]에서는 ‘가지의 마음을 머뭇 세우’는 대상을 ‘신명 나는 일’에 연결하여 ‘정수리를 타 넘’는 행위의 의미를 드러낸다.
- ④ [A]에서 ‘가지만의’와 ‘혼자서’에 나타난 가지의 상황은, [B]에서 ‘담 밖’을 가두어 [C]에서 ‘획’을 긋는 가지의 모습으로 이어진다.
- ⑤ [A]에서 ‘않았다면’과 [B]에서 ‘아니었으면’이 강조하는 대상들의 의미는, [C]에서 ‘목련’과 ‘감나무’ 사이의 관계에서도 나타난다.

25.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잇는 것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전개하기 위한 물음이다.
- ② ㉡: 잇음에 대한 ‘나의 생각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에 대한 답을 제시하기 위해 던지는 물음이다.
- ③ ㉢: 잇음에 대해 ‘나’가 제시한 가정적 상황이 틀리지 않았음을 강조하기 위한 물음이다.
- ④ ㉣: 잇지 못하는 것과 잊어버리는 것의 관계를 대비적 표현을 통해 제시하며 잇음에 대한 ‘나’의 생각을 드러내는 진술이다.
- ⑤ ㉤: 잇음의 대상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열거하여 잇음에 대한 ‘나’의 생각이 옳음을 강조하는 진술이다.

26.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주변 대상의 도움을 받으며 미래로 나아가고, ㉡은 주변 대상에게 도움을 주며 미래를 대비한다.
- ② ㉠은 자신의 자리를 지켜 내는, ㉡은 자신의 영역을 확장하는 모습을 보인다.
- ③ ㉠은 주변과 단절된 상황을 극복하려 하고, ㉡은 외부의 간섭을 최소화하려 한다.
- ④ ㉠과 ㉡은 외면의 변화를 통해 내면의 불안을 감추려 한다.
- ⑤ ㉠과 ㉡은 과거의 행위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27. <보기>를 참고하여 (나),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나)와 (다)에는 주체가 대상을 바라보고 사유하여 얻은 인식이 드러난다. 이는 대상에서 발견한 새로운 의미를 보여 주는 방식이나, 대상의 속성에 주목하여 얻은 깨달음을 제시 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 ① (나)는 ‘수양’을 부분으로 나눠 살피고 부분들의 관계가 ‘혼연 일체’라는 것을 발견해 수양이 하나의 통합된 대상이라는 인식을 드러내는군.
- ② (다)는 ‘잊어도 좋을 것’과 ‘잊어서는 안 될 것’에 대해 사유하여 타인과 자신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자세에 대한 깨달음을 드러내는군.
- ③ (다)는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을 서로 바꾸는 사람’의 특성에 주목해 잇음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이 바람직한 삶의 태도를 이끈다는 인식을 드러내는군.
- ④ (나)는 ‘담쟁이 줄기’의 속성에 주목해 담쟁이 줄기가 담을 넘을 수 있다는, (다)는 잊어서는 안 될 것을 잇는 데 주목해 ‘내적인 것’을 잇으면 ‘외적인 것’에 매몰된다는 인식을 드러내는군.
- ⑤ (나)는 담의 의미를 사유하여 담이 ‘도박이자 도반’이라는, (다)는 ‘예의’나 ‘분수’를 잊지 않아야 함에 주목해 ‘잊지 않는 것이 병이 아닌 것은 아니’라는 깨달음을 드러내는군.

[28~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24.11

한참 정이와 별의별 말이 다 오고 가고 하였을 때, ‘불단집’에서 마악 설거지를 하고 있던 갑순이 할머니가 뛰어나왔다. 갑득이 어미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들 모녀를 상대하여서도, 할 말에 궁하지는 않다고 은근히 마음에 준비가 있었던 것이나, 뜻밖에도 갑순이 할머니는 자기 딸의 역성을 들려고는 하지 않고,

㉠ “애최에 니가 말 실수헌 게 잘못이지, 남을 탄해 뭘 허니? 이게 모두 모양만 송업구……, 온, 글썸, 그만 허구 들어가야. 니가 잘못했어. 네 잘못이야.”

하고 도리어 딸을 나무라던 것을, 갑득이 어미는 그 당장에는, 귀에 솔깃하여,

“그렇지. 자계가 먼저 말을 냈지. 나야 그저 대꾸헌 죄밖엔 없으니까. 잘했든 잘못했든 자계가 시초를 낸 게니까——”

하고, 뽐내도 보았던 것이나, 나중에 깨달으니, 그것은 얼토당토 않은 생각으로, 갑순이 할머니가 그렇게 자기 딸을 꾸짖으며 한사코 집으로 데리고 들어간 것에는,

㉡ “아, 그 배지 못헌 행랑것허구, 씹이 무슨 씹이나?”

“똥이 무서워 피허니? 더러우니까 피히는 게지!”

하고, 그러한 사상이 들어 있었던 것이 분명하였다.

사실, 을득이 녀석이 나중에 보고하는데 들으니까, 저녁때 돌아온 집주름 영감이 그 얘기를 듣고 나자,

“개두 그만 분별은 있을 아이가, 그래 그런 상것허구 욕지 거리를 허구 그러다니…….”

쫂, 쫂, 쫂 하고 혀를 차니까, 늙은 마누라는 또 마주 앉아서, “그렇죠, 그렇구 말구요. 씹을 허드래두 같은 양반끼리 해야지, 그런 것허구 허는 건, 꼭 하늘 보구 침 뱉기지. 그 욕이 다야 내게 돌아오지, 소용 있나요.”

㉢ 그리고 후유우 하고 한순조차 내쉬는데, 방 안에서들 그러는 소리가 대문 밖까지 그대로 들리더라 한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 골목 안 아홉 가구가 공동변소처럼 쓰는 불단집 소유의 뒷간에 양 서방이 갇힌다.

그는 아무리 상고하여 보아도 도무지 나갈 도리가 없는 것에 은근히 울화가 올랐다.

‘제 집 뒷간두 아니구 남의 집 것을 그렇게 기가 나서 꼭꼭 잠그구 그럴 건 뭐 있누? 늙은이두 제엔장헐…….’

㉣ 인제는 할 수가 없으니, 소리를 한번 질러 볼까?—— 하기도 하였으나, 이러한 경우에 있어, 사람들은, 흔히 자기가 꼭 어떠한 수상한 인물인 듯싶게 스스로 느껴지는 경향이 있다. 그래, 그는 생각 끝에,

“아, 누가 문을 잠겼어어어?”

“문 좀 여세요오. 아, 누가…….”

하고, 그러한 말을 제법 외치지도 못하고 그저 중얼대며, 한참이나 문을 잡아, 흔들어 자물쇠 소리만 덜거덕거렸던 것이다.

을득이한테 저의 아버가 불단집 뒷간에 가 갇혀 있다는 말을 듣고, 어인 까닭을 모르는 채 그곳까지 뛰어온 갑득이 어미는, 대강 사정을 알자, 곧 이것은 평소에 자기에게 좋지 않은 생각을 품고 있는 갑순이 할머니가 계획적으로 한 일임에 틀림없다고 혼자 마음에 단정하고,

[A] “아아니, 그래, 애아범이 미우면 어떻게는 못 해서, 그 더러운 뒷간 속에다 글썸 가뉘야만 헌단 말예요? 그래 노인이 심사를 그렇게 부려야 옳단 말예요?”

하고, 혼자 흥분을 하였다. 갑순이 할머니는, 그것은 전혀 예기 하지 못하였던 억울한 말이라, 그래, 눈을 둥그렇게 뜨고, 손조차 내저어 가며,

[B] “그진, 괜한 소리유, 괜한 소리야. 이 늙은 사람이 미쳐서 남을 뒷간 속에다 가뉘? 모르구 그랬지, 모르구 그랬어. 난 꼭 아무두 없는 줄만 알구서, 그래, 모르구 자물쇠 쳤지. 온, 알구야 왜 미쳤다구 잠그겠수?”

발명을 하였으나,

[C] “모르긴 왜 몰라요. 다야 알구서 한 것이지. 그래 자물쇠 쳤 때, 안에서 말하는 소리두 못 들었던 말예요? 듣구두 모른 채했지. 듣구두 그냥 잠가 버린 거야.”

하고, 갑득이 어미는 덜어놓고 시비만 걸려는 것을, 구경 나온 이웃 사람들이,

“아무리기서루니 갑순이 할머니께서 아시구야 그러셨겠소?”

“노인이 되셔서 귀두 어두시구 그래 몰르셨지!”

하고 말들이 있었고, 정작, 양 서방이 또 머뭇거리다가, “자물쇠 채실 때, 내가 얼른 소리를 냈어두 아셨을 텐데, 미쳐 못 그래 그리 된 거야.”

하고, 그러한 말을 매우 겸연쩍게 하여, 갑득이 어미는 집주름집 마누라를 좀더 공박할 것을 단념하여 버릴 수밖에 없는 동시에,

㉤ “오오, 그러니까, 채, 무어, 말할 새두 없이 문이 잠겨져서, 그냥 갇힌 채, 누구 오기만 기대던 게로군?”

“그래, 얼마 동안이나 들어가 있었어?”

“뭇어 오래야 갇혔겠수? 동안이야 잠깐이겠지만…….”

- 박태원, 「골목 안」 -

* 불단집 : 집 밖에도 전등을 단, 살림이 넉넉한 집.

28.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집 안에서의 대화가 이웃에 노출되어 인물의 속내가 드러난다.
- ② 서로의 말실수에 대한 비난이 인물 간 다툼의 원인임이 드러난다.
- ③ 이웃의 갈등을 곁에서 지켜보고 있는 인물들의 냉담함이 드러난다.
- ④ 이웃을 무시하는 인물의 차별적 언행을 함께 견뎌 내려는 사람들의 결연함이 드러난다.
- ⑤ 곤경에 빠진 가족의 상황을 다른 가족에게 전한 것이 이웃 간 양금을 씻는 계기가 됨이 드러난다.

29. [A]~[C]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서 인물은 상대의 행위가 옳지 않다고 판단하여, 반복적으로 추궁하며 상대가 잘못했음을 분명히 한다.
- ② [B]에서 인물은 상대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모르고 그랬다는 말을 반복함으로써 자신의 억울함을 알린다.
- ③ [C]에서 인물은 추측을 바탕으로 상대의 발언이 신뢰하기 어렵다고 반박하고, 상대의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고 거짓으로 답했다며 몰아붙인다.
- ④ [A]에서 인물은 상대의 행위와 동기를 함께 비난하고, [B]에서 인물은 상대의 비난을 파악하지 못해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 ⑤ [A]에서 인물이 상대에게 화를 내자, [B]에서 인물은 당황하며 자신을 방어하지만, [C]에서 갈등 상황은 지속된다.

30. 집주름 영감과 양 서방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집주름 영감이 딸의 행동을 분별없다고 탓한 이유는 아내가 갑득이 어미 앞에서 딸을 나무란 뒤 남편에게 밝힌 생각과 같다.
- ② 집주름 영감은 아내와 갑득이 어미의 갈등이 드러나지 않게 하는, 양 서방은 결과적으로 이들의 갈등을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
- ③ 양 서방이 여러 궁리를 하면서도 뒷간을 빠져나오지 못한 이유는 아내에게 밝힌 사건의 경위와 무관하다.
- ④ 양 서방은 아내가 갑순이 할머니에게 한 말과 이에 대한 이웃들의 반응을 듣고도 아내에게 무덤덤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 ⑤ 양 서방이 자신의 상황을 갑순이 할머니에게 알리지 못했다고 말한 것은 누가 뒷간 문을 잠갔는지에 대한 의문이 풀려서 화가 누그러졌기 때문이다.

31. <보기>를 참고하여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서술자는 자신의 시선만으로 서술하기도 하고 인물의 시선으로 초점화하여 서술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 작품에서는 두 서술 방식이 겹쳐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서술자는 인물과 거리를 둬으로써 그들의 말이나 생각, 감정 등에 대한 태도를 드러낸다. 이 밖에도 쉽표의 연이어 사용은 시간의 지연이나 인물의 상황 등을 드러낸다. 이러한 서술 기법은 문맥 속에서 글의 의미를 다양하게 보충한다.

- ① ㉠: 말줄임표 이후 쉽표를 연이어 사용한 것은, 인물이 자신의 생각을 감추거나 다른 할 말을 떠올리면서 시간의 지연이 있음을 드러낸 것이겠군.
- ② ㉡: 서술자 시선의 서술과 인물의 시선으로 초점화한 서술이 겹쳐 나타난 것은, 상황을 잘못 인지한 채 상대의 생각을 추측하는 인물에게 서술자가 거리를 두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겠군.
- ③ ㉢: 말을 전하는 ‘~라 한다’의 주체가 인물일 수도 있고 서술자일 수도 있게 서술한 것은, 인물의 경험을 전하기만 하고 특정 인물의 편에 서지 않으려는 서술자의 태도를 드러낸 것이겠군.
- ④ ㉣: 인물의 생각에 대해 쉽표를 연이어 사용하며 설명한 것은, 인물이 생각을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망설이는 상황을 드러낸 것이겠군.
- ⑤ ㉤: 감탄사 이후 쉽표를 연이어 사용한 것은, 인물이 새로운 정보를 바탕으로 사건을 파악하는 상황을 드러낸 것이겠군.

[32~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24.11

(가)

장풍에 돛을 달고 육선이 함께 떠나
삼현과 군악 소리 해산을 진동하니
물속의 어룡들이 응당히 놀라리라
해구를 얼른 나서 오류도를 뒤 지우고
고국을 돌아보니 야색이 아득하여
아무것도 아니 뵈고 연해 각진포에
불빛 두어 점이 구름 밖에 별 만하다
배 방에 누워 있어 내 신체를 생각하니
가뜩이 심란한데 대풍이 일어나서
태산 같은 성난 물결 천지에 자욱하니
크나큰 만곡주가 나뭇잎 불리이듯
하늘에 올랐다가 지함에 내려지니
열두 발 쌍뿔대는 차아처럼 굽어 있고
선두 폭 초석 돛은 반달처럼 배불렀네

[A]

(중략)

날이 마침 극열하고 석양이 비치어서
 끓는 땅에 었디어서 말썽을 여쭙으니
 속에서 불이 나고 관대에 땀이 배어
 물 흐르듯 하는지라 나라께서 보시고서
 너희 더위 어려우니 먼저 나가 쉬라시니
 곡배하고 사퇴하니 친은이 망극하다
 더위를 장히 먹어 막힐 듯하는지라
 사신들도 못 기다려 하처로 돌아오니
 누이도 반겨하고 딸은 기뻐 우는지라
 일가 친척들이 나와서 위문하네
 여드레 겨우 쉬어 공주로 내려가니
 처자식들 나를 보고 죽었던 이 고쳐 본 듯
 기쁘기 극한지라 어리석은 듯 앓았구나
 사당에 현알하고 옷도 벗고 편히 쉬니
 풍도의 험하던 일 저승 같고 꿈도 같다
 손주 안고 어르면서 한가히 누웠으니
 강호의 산인이요 성대의 일반이로다

- 김인겸, 「일동장유가」 -

(나)

꼬아 자란 층석류*요 틀어 지은 고사매*라
 삼봉 괴석에 달린 솔이 늙었으니
 아마도 화암 풍경이 너뿐인가 하노라

<제1수>

막대 짚고 나와 거니니 양류풍 불어온다
 긴 파람 짧은 노래 뜻대로 소일하니
 어디서 초동과 목수(牧叟)는 웃고 가리키나니

<제6수>

맑은 물에 벼를 갈고 청산에 설을 친 후
 서림 풍우에 소 먹여 돌아오니
 두어라 야인 생애도 자랑할 때 있으리라

<제9수>

- 유박, 「화암구곡」 -

* 층석류: 석류나무로 만든 분재.

* 고사매: 매화를 고목에 접붙인 분재.

32. (가), (나)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과거를 회상하는 표현을 통해 현재 상황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 ② (가)는 사물의 형태가 변화한 모습을 묘사하여 외부 환경의 영향력을 부각하고 있다.
- ③ (나)는 계절을 나타내는 어휘를 활용해 애달픈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 ④ (나)는 두 인물의 행위를 대비하여 대상에 대한 평가를 드러내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영탄적 표현을 통해 대상에 대한 경외감을 드러내고 있다.

33. [A]~[C]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서는 선상에서 불빛 두어 점에 의지해, 떠난 곳을 가늠하는 행위를 통해 출항 후의 모습이 드러난다.
- ② [B]에서는 신하들의 고충을 헤아리는 임금의 배려에 감격한 마음이 드러난다.
- ③ [C]에서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무심하게 대응하는 가족들의 모습이 드러난다.
- ④ [A]에서는 포구를 돌아보지만 보고 싶은 것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 [B]에서는 격식을 갖추기 위해 뜨거운 땅에 었드려 있는 일을 힘겨워하는 상황이 드러난다.
- ⑤ [A]에서는 예기치 않게 맞닥뜨린 여정상의 위험이, [C]에서는 과거의 위험했던 경험에 대한 소회가 드러난다.

34.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조선 후기 시가에서는 경험과 외물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었다. 「일동장유가」는 사행을 다녀온 경험을 생생하게 표현하며 그에 대한 정서를 솔직하게 드러냈다. 「화암구곡」은 포착된 자연의 양상에 따라 강호에서의 자족감, 출사하지 못한 선비로서 생활 공간인 향촌에 머물 수밖에 없는 데 따른 회포, 취향이 반영된 자연물로 구성된 개성적 공간에서의 긍지를 드러냈다.

- ① (가)는 배가 '나뭇잎'처럼 파도에 휩쓸리고 하늘에 올랐다가 떨어지는 것 같다고 하여 대풍을 겪은 체험을 생동감 있게 드러내는군.
- ② (나)는 화암의 풍경이라 인정할 만한 것이 '너뿐'이라고 하여 자신이 기른 화훼로 조성한 공간에 대한 자긍심을 드러내는군.
- ③ (가)는 '육선'에 탄 사신단이 만물이 격동할 만한 '군악'을 들으며 떠나는 데 주목해 경험에 대한 관심을, (나)는 꼬이고 틀어진 모양으로 가꾼 식물에 주목해 외물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는군.
- ④ (가)는 배에서 '신세'를 생각하는 모습으로 사행길의 복잡한 심사를, (나)는 '청산'에서의 삶에서 느끼는 자랑스러움을 '야인 생애'로 표현하여 겸양의 태도를 드러내는군.
- ⑤ (가)는 집으로 돌아와 한가하게 지내며 '성대'를 누리는 삶에 대한 만족감을, (나)는 양류풍에 감응하며 '뜻대로 소일'하는 강호의 삶에 대한 자족감을 드러내는군.

MEMO

MEMO

[18~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24.09

선군이 한림원에 다녀온 후 편지 먼저 하는지라. 노복이 주야로 내려와 상공께 편지를 드리니, 한 장은 부모님께, 한 장은 낭자에게 부친 편지거늘, 부모님께 올린 편지를 상공이 열어 보니,

[A] “문안드립니다. 그사이 부모님께서서는 평안하셨나이까? 저는 부모님 덕분에 무탈하옵니다. 또한 천은을 입어 금번에 장원 급제하여 한림학사로 임조하여 도문*하니, 일자는 금월 망일이오니 잔치는 알아서 준비해 주옵소서.”

하였다.

낭자에게 온 편지를 부인 정 씨 **춘양**에게 주며,

“**㉔** 이 편지는 네 어머니께 부친 편지라. 네가 잘 간수하라.”

하고 부인 통곡하니 춘양이 그 편지를 받고 울며 동춘을 안고 방에 들어가 어미 시신 흔들고 울며, 편지 열어 낮에 대고 통곡 왈,

“어머님 일어나소. 아버님 편지가 왔나이다. 일어나소. 아버님 장원 급제하여 내려오시나이다.”

하며 편지로 낮을 덮으며,

“동춘은 연일 젖 먹자고 읍니다. 어머님 평시 글을 좋아하시더니 아버님 편지 왔사온데 어찌 반기지 아니하시나이까? 춘양은 글을 몰라 어머님 영전에 읽어 드리지 못하나니 답답하나이다.”

하고 할머니께 빌며,

“할머님께서 어머님 영전에 가 편지를 읽으시면 어머님 영혼이 감동할 듯하나이다.”

하니 정 씨 마지못해 방에 들어가 울면서 편지를 읽는지라.

[B] “낭자에게 문안 전하니, 애정 담은 편지 한 장 올리나이다. 우리의 태산 같은 정이 천리에 가림에, 낭자의 얼굴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고, 낭자를 생각하지 않아도 절로 생각이 납니다. 오사이 그대의 그림이 전과 빛이 달라 날로 변하나이다. 무슨 병이 들었는지 몰라 객창 등불 아래에서 수심으로 잠들지 못하니 답답합니다. 낭자의 지극한 정성으로 장원 급제하여 이 몸이 영화롭게 내려가니, 어찌 낭자의 뜻을 맞추지 아니하였으리오? 날짜는 금월 모일이니 바라건대 낭자는 천금 같은 옥체를 보존하소서. 내려가 반갑게 만나 사이다.”

정 씨 보기를 다함에 더욱 슬픈 마음을 진정치 못하여 통곡하며,

“**㉕** 슬프다, 춘양아! 가련타, 동춘아! 너희 어미 잃고 어찌 살라 하는가?”

[중략 줄거리] 선군은 숙영이 시아버지로부터 가문의 명예를 실추했다는 오해를 받고 자결한 것을 알게 된다. 숙영은 장례 중 부활해 선군과 집에 돌아온다.

상공과 정씨 부인 내달아 낭자를 붙들고 통곡하며,

“낭자는 어디를 갔다 왔느냐?”

하며 참혹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더라. 낭자 상공과 정씨 부인 앞에 가 절하고 사죄되,

“**㉖** 첩은 천상의 죄 있으니 천명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너무 한탄치 마옵소서.”

하며,

“**㉗** 옥황상제님이 우리를 올라오라 하시니 천명을 거스르지 못하여 올라가옵나이다.”

하니, 상공 부부 더욱 처량한 심사를 측량치 못할러라. 낭자 백학선과 약주 한 병을 드리며,

“**㉘** 이 백학선은 몸이 추우면 더운 바람이 나오니 천하 유명한 보배이옵고, 약주는 기운 불편하시거든 드십시오. 백학선과 약주를 몸에 지니시오면 백세 무양하오리다.”

하고,

“**부모님 돌아가실 때 연화궁의 세계로 모셔 가오이다. 천상 선관이 연화궁에 자주 다니오니 극락 연화궁으로 오시면 반가이 만나 뵈오리다.**”

하고 선군더러,

“우리 올라갈 때가 급하였으니, 하직하고 **올라가사이다.**”

하니 선군이 부모지정을 잊지 못하여 새로이 슬퍼하니, 선군과 낭자 **부모를 위로하여 나이가 없드려 고왈,**

“소자 등은 세상 연분이 다하였삽기로 오늘 하직하옵나이다.”

하고 인하여 **하직하며,**

“부모님 내내 평안하옵소서.”

하고 청사자 한 쌍을 몰아 한림은 동춘을 낭자는 춘양을 안고, 구름에 싸여 올라가는지라.

상공 부부 낭자와 선군이 천궁에 올라간 후로 망연해하며 **세간을 다 나누어 주고, 백세를 살다가 한달한시에 별세하더라.**

- 작자 미상, 「숙영낭자전」 -

*도문: 과거 급제하고 집에 오던 일.

18. ‘춘양’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아버지를 보고 싶은 심정을 어머니 영전에서 언급한다.
- ② 할머니로부터 아버지의 편지를 받아 어머니에게 읽어 준다.
- ③ 할머니와 함께 어머니 생전의 일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 ④ 동생이 어머니가 살아 있는 줄 알고 찾아가려 하자 동생을 막아선다.
- ⑤ 아버지의 소식을 어머니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을 행동으로 표출한다.

19. [A], [B]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는 자신의 안부를 전한 뒤 곧이어 받는 이의 안부를 묻는다.
- ② [B]에서는 받는 이를 만나고 싶지만 당장 그럴 수 없는 처지를 언급하며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낸다.
- ③ [B]에서는 받는 이의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하는 마음을 드러낸다.
- ④ [A]와 [B]에서 모두 자신이 뜻한 바를 이루었음을 전하고, 받는 이에게 그 공을 돌리며 감사해한다.
- ⑤ [A]와 [B] 모두 당부의 말을 전하는데, [A]에서는 받는 이가 글쓴이의 노력을 알아주길 바라고, [B]에서는 받는 이가 스스로 잘 처신하기를 바란다.

20. ㉠~㉣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편지의 수신인이 누구인지 말해 주며 상대가 편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고 있다.
- ② ㉡: 손주들을 호명하며 격해진 감정과 그들을 불쌍해하는 마음을 표출하고 있다.
- ③ ㉢: 자신의 운명은 하늘의 뜻이라고 함으로써 집에 온 자신을 책망하지 말 것을 부탁하고 있다.
- ④ ㉣: 옥황상제의 부름을 거절할 수 없다고 말함으로써 이별이 예정되어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 ⑤ ㉣: 백학선과 약주를 선물함으로써 상대를 걱정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21.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숙영낭자전」에서 승천은 인간 세상의 명분에 구속받지 않는 가족 사랑을 모색한다는 의의를 갖는다. 작품에서는 상공의 잘못이 개인의 문제이기 이전에 가문이라는 명분을 중시하는 인간 세상의 구조적 문제라고 보았다. 그래서 숙영 부부는 가문이라는 명분이 작동하지 않는 천상으로 보내고, 상공 부부는 가문의 무의미함을 깨닫게 하여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는 한 방식을 보여 주었다. 하지만 숙영 부부를 천상에 간 뒤에도 부모를 잘 섬기려는 모습으로 그려 낸 것은, 가족 사랑의 보편적 가치를 환기하기 위한 것이다.

- ① 숙영이 ‘부모님 돌아가실 때 연화궁’으로 모셔 가겠다고 하는 데에서, 연화궁에서 숙영과 부모를 만나게 하여 가족 사랑의 보편적 가치를 환기하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군.
- ② 숙영이 선군에게 천궁으로 ‘올라가사이다’라고 하는 데에서, 숙영 부부를 천상으로 보내 가문이라는 명분이 작동하지 않는 곳에서 살게 하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군.
- ③ 숙영 부부가 ‘부모를 위로하여 나아가 엎드려 고’하는 데에서, 승천을 망설이는 모습을 보여 주어 숙영 부부를 부모를 잘 섬기는 인물로 그려 낸 것을 확인할 수 있군.
- ④ 숙영 부부가 부모에게 ‘하직’ 인사를 하는 데에서, 숙영 부부로 하여금 부모를 떠나게 하여 인간 세상의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는 양상을 보여 준 것을 확인할 수 있군.
- ⑤ ‘상공 부부’가 ‘세간을 다 나누어 주’는 데에서, 가족을 잃어 허망해하는 상공 부부의 모습을 보여 주어 가문의 무의미함을 깨닫게 한 것을 확인할 수 있군.

[22~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24.09

(가)

척척산중에도 없는 마을이 여긴 있습니다. 앞 진 사잇길 저 모랫둑, 그 너머 강기슭에서도 보이진 않습니다. 허방다리* 들어내면 보이는 마을.

갯 속 같은 마을. ㉠ 꼴깍, 해가, 노루꼬리 해가 지면 집집마다 봉당에 불을 켜지요. 쿵깍지, 쿵깍지처럼 후미진 외딴집, 외딴집에도 불빛은 앓아 이속토록 창문은 모파빛입니다.

기인 밤입니다. 외딴집 노인은 홀로 잠이 깨어 출출한 나머지 무우를 깎기도 하고 고구마를 깎다, 문득 바람도 없는데 시나브로 풀려 풀려 내리는 짙단, 짙오라기의 설레임을 듣습니다. 귀를 모으고 들지요. ㉡ 후루룩 후루룩 처마 것에 나래 묻는 이름 모를 새, 새들의 온기를 생각합니다. 숨을 죽이고 생각하지요.

참 오래오래, 노인의 자리맡에 발은기침 소리도 없을 양이면 벽 속에서 겨울 귀뚜라미는 울지요. 때를 지어 읊니다, 벽이 무너지라고 읊니다.

어느덧 밖에는 눈발이라도 치는지, 펄펄 함박눈이라도 흩날리는지, 창호지 문살에 돋는 월훈(月暈).

- 박용래, 「월훈」 -

* 허방다리: 짐승 따위를 잡기 위해 풀 등을 덮어 위장한 구덩이.

(나)

내 어린 날!
이슬한 하늘에 뜬 연같이
바람에 깜박이는 연실같이
내 어린 날! 아슴풀하다*

하늘은 파랗고 끝없고
편편한 연실은 조매롭고*
오! 흰 연 그새에 높이
㉢ 아실아실* 떠 놀다 내 어린 날!

바람 일어 끊어지던 날
엄마 아빠 부르고 울다
㉣ 희끗희끗한 실날이 서러워
아침저녁 나무 밑에 울다

오! 내 어린 날 하얀 옷 입고
외로이 자랐다 하얀 뉘 담고
㉤ 조마조마 길가에 붉은 발자욱
자욱마다 눈물이 고이었던다

- 김영랑, 「연 1」 -

* 아슴풀하다: '아슴푸레하다'의 방언.
* 조매롭고: '조마롭다'의 방언. 보기에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하다.
* 아실아실: '아슬아슬'의 방언.

(다)

㉠ 신위가 자기 집 이름을 '문의당'이라 하고 ㉡ 나에게 편지를 보내 말했다.

“내 친성이 물을 좋아하는데, 도성 안이라 불만한 **샘이나 못**이 없어 비록 물을 보는 법을 알고 있어도 **씨 볼 데가 없는** 것이 늘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천하의 지도를 보고 깨우친** 점이 있었습니다.

넘실거리는 큰 바다 사이로 아홉 개 대륙, 일만 개 나라가 퍼져 있는데 큰 나라는 범선이 늘어선 듯하고, 작은 나라는 갈매기와 해오라기가 출몰하는 듯했습니다. 천하만국에 두루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물 가운데 있는 존재일 뿐입니다. 이것이 제 집의 이름을 '문의(文瀾)'라고 한 까닭입니다. 그대는 저를 위해 이 집의 기문을 지어 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편지를 보고 웃으며 말했다.
“세상에는 본래 그 실물은 없으면서도 이름을 차지하는 경우가 있으니, 지금 그대가 집에 이름을 붙인 것이 바로 그 실물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소. 비록 그러하나 그대도 이에 대해 할 말이 있을 것이요. 지금 **바다의 섬 가운데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사람들은 반드시 **물에 산다고** 하지 **산에 산다고** 하지 않겠지요. 섬사람 중에는 담장을 두르고, 집을 짓고, 문을 닫고 **들어앉아 사는 사람**도 있게 마련이니, 그가 날마다 파도와 깊은 물을 가까이 접하지는 않는다고 하여, 물에 사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옳지 않겠지요. 이와 같은 이치를 사람들이 모두 그렇다고 인정하는데, 어찌 유독 그대의 말에만 의심을 품겠소?

대지는 하나의 섬이고, 세상 사람들은 섬사람이요. 비록 **배를 집으로 삼아** 물 위를 떠다니면서 날마다 **물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형편상 눈을 한곳에 두고 꼼짝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고, 잠시 **눈길을 돌려서** 잠깐 동안이나마 물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반드시 있을 것이요. 이때에는 겨우 반걸음을 옮긴 것이나 천 리를 간 것이나 매한가지라 할 것이요.”

- 서영보, 「문의당기」 -

* 문의: 물결무늬.

22.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인물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 ② 묘사의 방식을 활용하여 대상의 특징을 구체화하고 있다.
- ③ 말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하여 주제 의식을 심화하고 있다.
- ④ 과거의 장면을 회상하여 현재 상황에 대한 원인을 포착하고 있다.
- ⑤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여 현실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이끌어 내고 있다.

23.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가)는 적막한 산골 마을을 배경으로 그곳에 사는 한 노인의 모습을 관찰하여 들려주는 시이다. 향토적인 정경 속에서 낯설게 느껴지는 일상에 감각적으로 집중하는 노인을 통해 점점 사라져 가는 것들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고, 노인의 삶이 마주한 깊은 정적 속 울음소리를 통해 인간의 쓸쓸함을 고조하고 있다. 이러한 노인의 모습은 외딴집 창호지 문살에 비친 달무리의 이미지로 형상화되고 있다.

- ① '첩첩산중에도 없는 마을'을 '여긴 있'다고 한 데서, 노인이 살아가는 곳은 쉽게 보기 어려울 것 같은 장소임을 짐작할 수 있겠군.
- ② '강기슭에서도 보이지 않는 '후미진 외딴집'이라는 배경 설정에서, 적막한 공간의 분위기를 추측할 수 있겠군.
- ③ '봉당에 불을 켜'는 분위기와 '콩깍지'의 이미지로 나타난 향토적 정경에서, 사라져 가는 것들에 대한 관심을 유추할 수 있겠군.
- ④ '짚오라기의 설레임'을 '귀를 모으고 듣'고 '새들의 온기'를 '숨을 죽이고 생각하'는 것은, 일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노인의 감각을 부각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⑤ '발은기침 소리도 없'는데 '겨울 귀뚜라미'가 우는 상황과 눈발이 치는 듯한 '뱀'의 달무리 이미지가 어우러져, 노인의 고독을 형상화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군.

24.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1연에서 '연'과 '연실'의 모습에 빗대어 '내 어린 날'의 기억을 '아스플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 ② 2연에서 '조매롭고'로 표현된 '연실'의 긴장은 3연에서 연실이 '바람 일어 끊어지던 날'의 정서를 고조하고 있다.
- ③ 3연에서 '올다'의 반복과 4연에서 '눈물이 고이었었다'를 통해 '내 어린 날'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게 하고 있다.
- ④ 4연에서 '외로이 자랐다'와 이어진 '하얀 뉘'은 '붉은 발자욱'에 함축된 정서와 상반되는 의미를 이끌어 내고 있다.
- ⑤ 1연과 4연의 '내 어린 날'은 2연의 '내 어린 날'의 기억을 통해 떠올린 유년 시절을 표상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25.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아주 짧은 순간에 해가 지는 모습을 나타낸 말로, 시간의 변화를 함축하고 있다.
- ② ㉡: 소리를 통해 연상되는 새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 ③ ㉢: 높이 날아오른 연을 동경하는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 ④ ㉣: 서러움을 느끼게 하는 대상인 실날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 ⑤ ㉤: 외롭고 슬픈 어린 시절의 정서를 함께 담아내고 있다.

26.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불만한 샘이나 못'이 없는 곳에 산다고 생각하다가, '천하의 지도를 보고' 깨달은 바에 따라 자신이 물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발상으로 사고를 전환한다.
- ② ㉡가 '자기 집'을 '문의'라고 한 것에 ㉠가 동의한 이유는 ㉡의 상황이 '배를 집으로 삼아' 사는 사람의 상황보다 집에 '들어 앉아 사는 사람'의 상황에 가깝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 ③ ㉡는 '바다의 섬'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의 삶에 주목하여, 바라보는 관점을 달리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섬에 살고 있다는 논리가 성립한다고 생각한다.
- ④ ㉡가 ㉠의 발상이 타당하다고 하는 이유는, '바다의 섬 가운데' 살더라도 그것을 가리켜 '물에 산다'고 보는 것이 ㉠의 생각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판단과도 일치하기 때문이다.
- ⑤ ㉡는 '물과 더불어' 사는 사람도 '눈길을 돌리는 순간이 있는 것과 ㉡가 '물을 보는 법'을 '씨 볼 데가 없다' 하는 것은 물을 보지 못할 때가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생각한다.

27. <보기>를 바탕으로 (가), (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문학 작품 속의 소재들은 연관성 속에서 서로 유사 혹은 대립의 관계를 이룸으로써 의미를 생성하거나 그 특징을 부각하는 효과를 드러낸다.

- ① (가)의 '허방다리 들어내면 보이는 마을', '깡 속 같은 마을'은 얕음과 깊음의 대비를 이루어 숨어 있는 두 공간의 차이를 부각하고 있군.
- ② (가)의 '무우'와 '고구마'는 차가움과 따뜻함의 대비를 이루어 밤에 출출함을 달래기 위해 먹는 다양한 음식의 속성을 부각하고 있군.
- ③ (다)의 '아홉 개 대륙'과 '일만 개 나라'는 바다 안의 육지라는 유사성으로 관계를 맺으며 '천하의 지도'라는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고 있군.
- ④ (다)의 '파도'와 '깊은 물'은 바다의 형상이라는 유사성으로 관계를 맺으며 물에 사는 사람이 살면서 만나게 되는 환경이라는 의미를 생성하고 있군.
- ⑤ (가)의 '창문은 모과빛'과 '기인 밤'은 밝음과 어둠의 대비를, (다)의 '갈매기'와 '해오라기'는 크고 작음의 대비를 이루어 각 소재가 가진 특징을 부각하고 있군.

[28~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24.09

몽달 씨 나이가 스물일곱이라니까 나보다 스무 살이나 많지만 우리는 엄연히 친구다. 믿지 않겠지만 내게는 스물일곱짜리 남자 친구가 또 하나 있다. 우리 집 옆, 형제슈퍼의 김 반장이 바로 또 하나의 내 친구인데 그는 원미동 23동 5반의 반장으로 누구보다도 씩씩하고 재미있는 사람이었다. 나는 매일같이 슈퍼 앞의 비치파라솔 의자에 앉아 그와 함께 낚길거리는 재미로 하루를 보내다시피 하였는데 요즘은 내가 의자에 앉아 있어도 진처럼 웃기는 소리를 해 주거나 쭈뼛바 따위를 건네주는 법 없이 다소 통명스러워졌다. ㉠ 그 까닭도 나는 환히 알고 있지만 모르는 척하는 수밖에. 우리 집 셋째 딸 선옥이 언니가 지난달에 서울 이모 집으로 훌쩍 떠나 버렸기 때문인 것이다. 김 반장이 선옥이 언니랑 좋아지내는 것은 온 동네가 다 아는 일이지만 선옥이 언니 마음이 요새 좀 싱숭생숭하더니 기어이는 이모네가 하는 옷 가게를 도와준다고 서울로 가 버렸다. 선옥이 언니는 얼굴이 아주 예뻐다. 남들 말대로 개천에서 용이 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지지리 궁상인 우리 집에 두고 보기로는 아까운 편인데, 그 지지리 궁상이 지켜워 맨날 똥하던 언니였다.

(중략)

집으로 가다 말고 문득 형제슈퍼 쪽을 돌아보니 음료수 박스들을 차곡차곡 쌓여 놓는 일에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몽달 씨가 보였다. ㉡ 실컷 두들겨 맞고 열흘간이나 누워 있었던 사람이라 안색이 차마 마주보기 어려울 만큼 헬썩했다. 그런데도 뭐가 좋은지 히죽히죽 웃어 가면서 열심히 박스들을 나르고 있는 게 아닌가. 그것도 김 반장네 가게에서.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보아도 몽달 씨가 분명했다. 저럴 수가. ㉢ 어쨌든 제정신이 아닌 작자임이 틀림없었다. 아무리 정신이 좀 헛갈린 사람이라도 그렇지, 그날 밤의 김 반장 행동을 끄그러 잊어버리지 않고서야 저럴 수가 없다는 게 내 생각이었다.

잇었을까. 그날 밤 머리의 어딘가를 세계 다쳐서 김 반장이 자기를 내쫓은 부분만큼만 감쪽같이 지워진 것은 아닐까. 전혀 엉뚱한 이야기만도 아니었다. 텔레비전에서도 보면 기억 상실증인가 뭔가로 자기 아들도 못 알아보는 연속극이 있었다. 그런 쪽의 상상이라면 나를 따라올 만한 아이가 없는 형편이었다. 내 머릿속은 기기괴괴한 온갖 상상들로 늘 모래주머니처럼 뻘뻘했으니까. 나는 청소부 아버지의 딸이 아니라 사실은 어느 부잣집의 버려진 딸이다, 라는 식의 유치한 상상은 작년도 못 되어 이미 졸업했었다. 요즘의 내 상상이란 외계인 아버지와 지구인 엄마와의 사랑, 뭐 그런 쪽의 의젓한 것이었다. ㉣ 아무튼 나의 기막힌 상상력으로 인해 몽달 씨는 부분적인 기억 상실증 환자로 결정되었다. 그렇다면 이제는 확인할 일만 남은 셈이었다. 오래 기다릴 필요도 없었다. 나는 김 반장네 가게 일을 거들어 주고 난 뒤 비치파라솔 밑의 의자에 앉아 뭔가를 읽고 있는 몽달 씨에게로 갔다. 보나 마나 주머니 속에 잔뜩 들어 있는 종잇조각 중의 하나일 것이었다. ㉤ 멀쩡한 정신도 아닌 주제에 이번엔 기억 상실증이란 병까지 얻어 놓고도 여태 시 따위나 읽고 있는 몽달 씨 꼴이 한심했다.

“㉠ 이거, 또 시예요?”

“㉢ 그래. 슬픈 시야. 아주 슬픈…….”

몽달 씨가 헬썩한 얼굴을 쳐들며 행복하게 웃었다. 슬픈 시라고 해 놓고선 웃다니. 나는 이맛살을 찡그리며 몽달 씨 옆에 앉았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 이제 다 나왔어요?”

“㉣ 응. 시를 읽으면서 누워 있었다니 금방 나왔지.”

금방은 무슨 금방. 열흘이나 되었는데. 또 한 번 나는 몽달 씨의 형편없는 정신 상태에 실망했다.

“그날 밤에 난 여기에 앉아서 다 봤어요.”

“무얼?”

“㉤ 김 반장이 아저씨를 쫓아내는 것…….”

순간 몽달 씨가 정색을 하고 내 얼굴을 쳐다보았다. 예전의 그 풀려 있던 눈동자가 아니었다. 까맣고 반짝이는 눈이었다. 그러나 잠깐이었다.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않을 작정인지 팬스레 팔뚝에 엉겨 붙은 상처 딱지를 떼어 내려고 애쓰는 척했다. 나는 더욱 바짝 다가앉았다.

“㉠ 김 반장은 나쁜 사람이야. 그렇지요?”

몽달 씨가 팔뚝을 탁 치면서 “아니야”라고 응수했는데도 나는 계속 다그쳤다.

“㉢ 그렇지요? 맞죠?”

그래도 몽달 씨는 못 들은 척 팔뚝만 문지르고 있었다. 바보 같이. 기억 상실도 아니면서……. 나는 자꾸만 약이 올라 견딜 수 없는데도 몽달 씨는 마냥 탄젠만 피우고 있었다.

- 양귀자, 「원미동 시인」 -

28.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몽달 씨는 김 반장이 자기를 매정하게 대했으나, 김 반장네 가게 일을 해 주고 있다.
- ② 김 반장은 선옥을 좋아했으나, 선옥이 서울로 가자 ‘나’를 통해 선옥과의 관계를 회복해 나갔다.
- ③ ‘나’는 김 반장을 좋은 친구라고 생각했으나, 김 반장이 빈둥거리며 실없는 행동을 해서 당황했다.
- ④ 선옥은 자신의 집안 형편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나’는 집안 형편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 ⑤ ‘나’는 몽달 씨를 친구라 여겼으나, 몽달 씨가 김 반장 가게에 다시 나온 것을 보고 그렇게 생각한 것을 후회했다.

29.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상대를 못마땅해하는 발언이지만, ㉢를 고려하면 상대의 상태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② ㉢와 ㉣의 시에 대한 인물의 태도를 고려하면, 인물이 시를 통해 위안을 얻었음을 알 수 있다.
- ③ ㉢는 ㉣를 듣고 실망하여, 상대의 새로운 반응을 기대하며 한 발언이라고 할 수 있다.
- ④ ㉣는 ㉤에 대한 상대의 반응이 예상을 벗어났지만, 상대가 보여 준 판단을 수용하기 위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다.
- ⑤ ㉤는 ㉣의 주장을 확인하는 질문으로, 상대의 태도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 마음이 반영된 발언이라고 할 수 있다.

30. [형제슈퍼]를 중심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인물의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나'가 '매일같이' 김 반장과 재미있게 낄낄거렸던 행위는 '그날'보다 앞선 시간대에 이루어지며, '그날'의 일을 지켜보기만 한 '나'의 부정적 자기 인식으로 이어지고 있다.
- ② 김 반장이 '나'를 통명스럽게 대하는 행위는 '요즘'보다 앞선 시간대에 이루어지며, '나'에게 반성을 유도하고 있다.
- ③ 몽달 씨가 '히죽히죽' 웃는 행위는 현재 '여기'에서 '나'에게 속내를 감추는 행위보다 앞선 시간대에 이루어지며, '나'에게 진심을 드러내어 보여 주고 있다.
- ④ '의자'에서 '뭔가'를 읽는 몽달 씨의 행위는 '여기'에서 환기된 '그날'의 경험보다 앞선 시간대에 이루어지며, '나'가 '그날' 느꼈을 긴박감과 대비되는 이완된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
- ⑤ '여기'에서 목격된 '그날' 김 반장의 행위는 '요즘'보다 이후의 시간대에 이루어지며, '나'가 김 반장을 이전과 다르게 평가하는 원인으로 기능하고 있다.

31. <보기>를 바탕으로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미성숙한 어린이이 서술자라도 합리적 정보를 제공하면 독자는 서술자를 신뢰하게 된다. 그러나 작가는 때로 합리성이 부족한 어린이의 특성을 강화하여 독자가 서술자를 의심하게 한다. 이때 독자는 서술자가 제공하는 정보가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서술자와 다른 각도에서 작품이 전하려는 의미를 탐색하게 된다. 이 경우에도 독자는 서술자가 제공하는 제한된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서술적 상황과 작품이 전하려는 의미가 서로 달라져 작품을 더욱 집중해서 읽게 된다.

- ① ㉠: 문제적 상황의 원인을 파악하여 이에 대응하고, 인물의 태도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정보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독자가 서술자를 신뢰하도록 유도하고 있군.
- ② ㉡: 인물이 처한 부정적 상황을 보여 주고, 인물의 안색과 그 이유에 대해 여러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독자가 서술자를 신뢰하도록 유도하고 있군.
- ③ ㉢: 논리적 연관을 무시하고, 추측에 근거하여 인물의 의식 상태를 단정하는 모습을 통해 독자가 작품에 더욱 집중하면서, 서술자와 다른 각도로 생각하도록 유도하고 있군.
- ④ ㉣: 인물에 대해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인물의 상태를 스스로 진단하여 그 정보를 제공하는 모습을 통해 독자가 서술자를 신뢰하도록 유도하고 있군.
- ⑤ ㉤: 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합당한 이유 없이 인물의 취향을 비난하는 모습을 통해 독자가 작품에 더욱 집중하면서, 서술자와 다른 각도로 생각하도록 유도하고 있군.

[32~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24.09

(가)

청강 녹초변에 소 먹이는 아이들이
 석양에 흥이 겨워 피리를 빗기 부니
 물 아래 잠긴 용이 잠 깨어 일어날 듯
 내 기운에 나온 학이 재 깃을 던져 두고 반공에 솟아 뜰 듯
 소선(蘇仙)* 적벽은 추칠월이 좋다 하되
 팔월 십오야를 모두 어찌 칭찬하는가
 구름이 걷히고 물결이 다 잔 적에
 하늘에 뜬 달이 술 위에 걸렸거든
 잡다가 빠진 줄이 적선(謫仙)*이 현사할사
 공산에 쌓인 잎을 삭풍이 거뒀 불어
 떼구름 거느리고 눈조차 몰아오니
 천공이 호사로워 옥으로 꽃을 지어
 만수천림을 꾸며곰 낼세이고
 앞 여울 가리 얼어 독목교(獨木橋) 비졌는데
 막대 맨 늙은 중이 어느 절로 간단 말고
 산옹의 이 부귀를 남더러 자랑 마오
 경요굴(瓊瑤窟)* 숨은 세계 찾을 이 있을세라
 산중에 벗이 없어 서책을 쌓아 두고
 만고 인물을 거슬러 헤여하니
 성현도 많거니와 호걸도 하도 활사
 하늘 삼기실 제 곧 무심할까마는
 어찌한 시운(時運)이 흥망이 있었는고
 모를 일도 하거니와 애달픔도 그지없다
 기산의 늙은 고블* 귀는 어찌 썼었던고
 박 소리 핑계하고 지조가 가장 높다
 인심이 낮 같아야 불수록 새롭거늘
 세사는 구름이라 험하기도 험하구나
 엇그제 빛은 술이 얼마나 익었느냐
 잡거니 밀거니 실컷 기울이니
 마음에 맺힌 시름 조금은 풀리나다

[A]

- 정철, 「성산별곡」 -

- * 소선: 소동파를 신선에 빗낸 말.
- * 적선: 이태백을 신선에 빗낸 말.
- * 경요굴: 눈 내린 성산의 모습을 빗낸 말.
- * 고블: 기산에 은거한 인물인 허유

(나)

생매 잡아 길 잘 들여 먼 산 두메로 꿩 사냥 보내고 흰 말
 구불구중* 갈기 술질 활활 활활 하여 임의 집 송정 뒤 잔디 잔디
 금잔디 밭에 말 말뚝 팡팡쌩쌩 박아 승마 바 고삐 길게 늘려
 매고

앞내 여울 고기 뒷내 여울 고기 오르는 고기 내리는 고기 지나
 굶으나 굶으나 지나 주섬주섬 낚아 내어 시내 동으로 뺨은 움버들
 가지 와지끈 딱딱 꺾어 거꾸로 잡고 일사귀 셋만 남기고 주루룩
 훑어 아가미 너슬너슬 꺾어 시내 잔잔 흐르는 물에 납작 실죽 청
 바둑돌로 입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게 가만히 살짝 자기자 장단
 맞춰 지근지지 눌러 놓고 동자야 이 뒤에 학 타신 선관이 날

찾거든 그물 낚시대 종이 종다래끼* 파리 밥풀통 고추장 술병
 까지 가지고 뒷내 여울로 오라고 일러만 주소
 아마도 산중호걸이 나쁜인가 하노라

- 작자 미상, 사설시조 -

- * 구불구중: 말 모는 하인.
- * 종다래끼: 작은 바구니.

32.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영탄적 표현을 통해 인물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 ② (나)는 음성 상징어를 통해 인물의 역동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③ (가)는 (나)와 달리 공간의 이동을 통해 다양한 대상의 면모를 드러내고 있다.
- ④ (나)는 (가)와 달리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인물의 심리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대구를 사용하여 대조적 대상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33.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삭풍’이 가을 잎을 쓸고 간 자리에 구름을 불려와 ‘공산’을 눈 세상으로 만들었다고 한 것에는, 인물이 거처한 공간의 아름다움에 대한 인식이 계절에 따른 자연의 변화를 통해 드러난다.
- ② ‘앞 여울’을 건너가는 노승을 발견하고 ‘경요굴’이 들키지 않기를 바라는 것에는, 빼어난 경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태도가, 숨어 있는 세계가 알려질 것에 대한 염려를 통해 드러난다.
- ③ 만족스러운 외적 풍경에서 눈을 돌려 벗이 없는 ‘산중’에서 ‘만고 인물’을 생각하는 것에는, 정신적 세계에 주목하는 태도가, 적절한 상황에 놓인 인물의 행위를 통해 드러난다.
- ④ 하늘의 이치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했음을 ‘시운’의 ‘흥망’에서 발견하고도 모를 일이 많다고 한 것에는, 인물의 담담한 태도가, 이상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수용하는 것을 통해 드러난다.
- ⑤ 세상을 등진 인물의 삶을 ‘기산’의 ‘고블’에 비유한 것에는, 험한 세사와의 단절과 은거 지향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인물의 선택에 대한 평가를 통해 드러난다.

34.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고전 시가에서 자연은 작품에 따라 다양하게 그려진다. (가)의 자연은 속세와 구별되는 청정한 이상 세계로 그려지며, 신선의 이미지를 통해 탈속적이고 고고한 가치를 추구하는 곳이다. (나)의 자연은 풍요롭게 그려지는 현실적 풍류의 장으로, 활달하고 흥겹게 놀이를 펼치는 곳이며, 신선의 이미지를 통해 멋이 고조된다.

- ① (가)의 ‘용’은 피리 소리로 조성된 탈속적 분위기를 환상적으로 표현하는 소재이고, (나)의 ‘생매’는 고고한 취향을 사실적으로 보여 주는 소재이군.
- ② (가)의 ‘학’은 이상적 세계의 아름다움을 구현하는 소재이고, (나)의 ‘고기’는 풍요롭고 생동하는 세계를 표현하는 소재이군.
- ③ (가)의 ‘소선’, ‘적선’은 청정한 강호의 세계에서 떠올린 인물의 이미지이고, (나)의 ‘선관’은 ‘나’가 현재의 행위를 함께 하고 싶은 인물을 멋스럽게 표현한 이미지이군.
- ④ (가)의 ‘산옹’은 계절에 따른 산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상 세계의 삶을 지향하는 인물이고, (나)의 ‘나’는 사냥과 고기잡이를 통해 현실의 즐거움을 향유하는 인물이군.
- ⑤ (가)의 ‘술’은 강호에서 세상에 대한 시름을 달래 주는 소재이고, (나)의 ‘술병’은 풍류의 장에 흥취를 더해 줄 소재이군.

[18~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24.06

십여 일이 지난 무렵 노비 막동이 눈물을 흘리며 물었다.
“낭군께선 늘 언행이 호방하시고 재주가 무리 중에 탁월해 거침없으시더니, 요즘에는 울적해 하시니 말 못할 근심이 있는 듯하옵니다. 사모하는 이라도 있으신지요?”

김생이 슬퍼하며 느낀 바를 사실대로 말하니 막동이 한참 생각하고 말했다.

“소인이 낭군을 위해 마루의 ㉠계책을 올릴 테니, 낭군께선 애태울 일이 없으십니다.”

“그게 무엇이더냐?”

“낭군께선 급히 주효(酒肴)를 성대히 마련하시고 바로 미인이 머문 집으로 가서서 손님을 전별(餞別)하려는 듯 하십시오. 방 하나를 빌려 잔치를 벌이시고 이놈을 불러 손님을 모셔 오라 하시면, 제가 명을 받들어 나갔다가 한 식경 후에 돌아와 ‘손님이 오십니다.’라 하지요. 낭군께서 다시 명하시면 제가 또 명을 받고 날이 저물 때쯤 돌아와, ‘손님께서 오늘은 송별객이 많아 심히 취해 갈 수 없으니 내일 꼭 가겠노라 하셨습니다.’라 하지요. 이때 낭군께선 주인을 불러 앉으라 하시고 그 주효를 먹게 하고, 기색을 드러내지 말고 물러나십시오. 다음 날도 그렇게 하고 그다음 날도 그렇게 하시면, 처음엔 고맙게 여길 것이요, 두 번째는 은혜에 감격할 것이며, 세 번째는 필히 의문을 품을 것입니다. 은혜를 느끼면 보답을 생각할 것이고, 은혜에 감격하면 죽음으로써 보답하고자 생각할 것이며, 의문이 생기면 하시고 싶은 바를 물어볼 것입니다. 이때 흥금을 털고 말하신다면 일은 거의 다 된 것이지요.”

생은 진정 그럴듯하다 여기고 기뻐하며 말했다.

“내 일이 잘 되겠구나!”

생은 그 계책에 따라 즉시 주효를 갖추어서 곧바로 그 집이 가 전별 자리를 마련하였다.

(중략)

생이 사모하는 이가 필시 이곳에 없는 줄 알고 낮빛을 바꾸며 말했다.

“이 몸이 할멈에게 후의(厚意)를 입었으니 어찌 사실대로 말하지 않겠나? 과연 모월 모일 모처에서 오다가 길에서 마침 한 남자를 보았다네. 나이는 대략 십오륙 세에 푸른 적삼에 붉은 치마를 입었고, 백룡버선에 자색 신을 신었지. 진주 비녀를 꽂고 새하얀 옥 반지를 끼고, 홍화문 앞길을 지나 가고 있었다네. 내 마음이 화사해지고 춘정을 이기지 못해 뒤따랐는데, 마지막에 이른 곳이 곧 할멈의 집이었네. 그날 이후로 마음이 혼미하여 만사가 흐릿하며, 오로지 그 남자만 생각했다네. 맑은 눈동자와 하얀 이가 자나 깨나 잊히지 않아 상심하며 애태우길 하루 이틀이 아니었네. 할멈이 나를 보고 낮빛이 파리하다 했는데 왜 그랬겠나? 그래서 손님을 전별한다며 할멈을 번거롭게 한 것이네.”

노파가 이 말을 듣고 몹시 애처로워했으나 생이 마음에 둔 사람이 누군지 몰랐다. 한동안 깊이 생각하다가 문득 깨닫고서 말했다.

“그런 애가 있습죠. 바로 죽은 제 언니의 딸이에요. 이름은 영영이고 자(字)는 난향이죠. 만약에 정말 그렇다면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참 어려운 일이에요!”

“왜 그러한가?”

“이 애는 회산군 맥 시비예요. 궁에서 나고 자라 문 앞길도 밟지 못한 지 오래랍니다. 자색(姿色)이 고운 것은 낭군께서 이미 보셨으니 굳이 말할 것 없지만 고운 마음이며 얹전한 몸가짐은 양반집 규수와 다를 게 없지요. 게다가 음률과 문장을 알아 나리께서 어여뻐 여기시고 장차 소실(小室)로 맞으려 하셨지만, 부인의 시샘이 하동의 사자후보다 심하여 그렇게 못 하고 있을 뿐이옵니다. 지난번 그 애가 올 수 있었던 것은 한식 때를 맞아 그 애가 어미의 제사를 이곳에서 지내려고 부인에게 말미를 얻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때마침 나리께서 외출하신 터에 올 수 있었지 그렇지 않았던들 낭군께서 어찌 얼굴을 볼 수 있었겠습니까? 아이고! 낭군께서 다시 만나시기는 참으로 어렵습죠. 참으로 어려워요!”

생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말했다.

“아, 끝난 것이로구나! 나는 필시 죽겠구나!”

노파가 안타까워 멍하니 서 있다가 다시 말했다.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죠. 단오가 꼭 한 달 남았습니다. 그때 이 몸이 죽은 언니를 위해 제사상을 차리고 부인에게 영영에게 반나절의 말미를 주도록 청한다면, 만에 하나 낭군의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낭군께선 돌아가시어 때를 기다렸다가 오시지요.”

생이 기뻐하며 말했다.

“할멈 말대로 된다면야 인간의 5월 5일이 천상의 7월 7일이 되겠소!”

생과 노파는 각각 만복을 기원하며 헤어졌다.

- 작자 미상, 「상사동기」 -

18. 윗글의 대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간 표지를 활용하여 사건의 추이를 드러낸다.
- ② 앞날의 일을 가정하여 인물 간 갈등의 심화를 암시한다.
- ③ 인물에 대한 논평을 활용하여 갈등의 해소 방안을 제시한다.
- ④ 인물의 내력을 요약적으로 제시하여 성격의 변화를 보여준다.
- ⑤ 인물의 성격을 고사에 빗대어 사건을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한다.

19.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막동은 생의 근심이 사모하는 마음 때문일 것이라 추측했다.
- ② 생이 노파의 집에서 손님을 전별하는 일을 벌인 데 대해 노파는 번거로움을 호소하였다.
- ③ 노파는 생이 찾는 자색이 고운 여인이 죽은 언니의 딸인 것을 깨달았다.
- ④ 노파는 생의 사연을 애처롭게 여기고 자신이 영영에 대해 아는 바를 알려 주었다.
- ⑤ 생은 천상의 일에 빚대어 영영을 만나는 일의 기쁨을 표현하였다.

20.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은 모두 생에게 실현 가능성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
- ② ㉠과 ㉡은 모두 생의 의도를 숨기기 위해 상황의 급박함을 부각하는 방식을 취한다.
- ③ ㉠은 막동의 제안을 생이 실행함으로써 이루어지고, ㉡은 생의 제안을 노파가 실행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 ④ ㉠이 이루어지면 생은 노파에게 숙내를 드러낼 기회를 얻게 되고, ㉡이 이루어지면 생이 영영과 만날 기회를 얻게 된다.
- ⑤ ㉠에서 생은 노파에게 접근하기 위해 가상의 존재를 내세우고, ㉡에서 생은 영영과의 만남을 위해 권력자의 위세를 내세운다.

21.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상사동기」는 남녀가 결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애정을 추구하는 서사라는 점에서, 애정 전기 소설의 전통을 따르면서도 전대 소설보다 현실성이 강화되었다. 감정에 충실하여 애정을 우선시하는 주인공의 성격, 서사 진행에 적극 개입하는 보조적 인물의 등장, 환상성을 벗어나 일상에 밀착된 배경의 설정 등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신분적 한계를 지닌 여성과의 결연 과정에서 애정 성취를 가로막는 사회적 관습으로 인한 갈등이 드러난다는 점에서 소설사적 의의가 있다.

- ① 생이 첫눈에 반한 영영과의 애정 추구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점에서, 감정에 충실한 인물의 성격을 확인할 수 있군.
- ② 막동과 노파가 생의 애정 성취를 돕기 위해 나서는 점에서, 사건에 적극 개입하는 보조적 인물의 등장을 확인할 수 있군.
- ③ 생이 길을 가다 우연히 영영을 마주치고 노파의 집까지 뒤따르는 것에서, 사건 전개가 일상적 공간 속에서 이루어짐을 확인할 수 있군.
- ④ 영영이 회산군 댁 시비인 까닭에 두 인물의 만남이 어려운 점에서, 여성 주인공의 신분적 한계로 인해 애정 성취에 곤란을 겪는 것을 확인할 수 있군.
- ⑤ 회산군 부인의 허락을 구하려는 노파에게 생이 동조하는 것에서, 사회적 관습 안에서 현실적인 애정 성취 방법을 찾는 인물의 내적 갈등을 확인할 수 있군.

[22~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24.06

(중략)

(가)

① 평생에 원하느니 다만 충효뿐이로다
이 두 일 말면 금수(禽獸)나 다르리야
마음에 하고자 하여 ㉠ 십재 황황(十載惶惶)*하노라

<제1수>

비록 못 이뤄도 임천(林泉)이 좋으니라
무심 어조(魚鳥)는 절로 한가하였나니
조만간 세상일 잊고 너를 좇으려 하노라

[A]

<제3수>

출(出)하면 치군택민* 처(處)하면 조월경운*
명철 군자는 이것을 즐기나니
하물며 부귀 위기라 가난하게 살리로다

<제8수>

날이 저물거늘 도무지 할 일 없어
소나무 문을 닫고 달 아래 누웠으니
세상에 티끌 마음이 일호말(一毫末)도 없다

[B]

<제13수>

성현의 가신 길이 ㉡ 만고(萬古)에 한가지라
은(隱)커나 현(見)커나 도(道)가 어찌 다르리
한가지 길이오 다르지 않으니 아무 덴들 어떠리

[C]

<제17수>

강가에 누워서 강물 보는 뜻은
세월이 빠르니 ㉢ 백세(百歲)인들 길겠느냐
㉣ 십 년 전 진세(塵世) 일념이 얼음 녹듯 한다

<제19수>

- 권호문, 「한거십팔곡」 -

* 십재 황황: 십 년을 허둥지둥함.

* 치군택민: 임금에게 충성하고 백성에게 혜택을 베풀.

* 조월경운: 달 아래 고기 낚고 구름 속에서 발을 닦.

(나)

몇 칸의 집을 수선하려 함에, 아내가 취서사로 들어가
겨름*을 구해 오길 권하였다. 유택은 안 된다고 하고, 유평은
해 보자고 하는데, 나도 스스로 생각해 보니, 절은 기와를
[D] 쓰기에 겨름은 그다지 아끼는 것이 아니고, 다만 민간의
요구와 요청에 응하는 것이기에, 이를 요구하더라도 의리를
심히 해치지 않을 듯하였다. 그래서 다시 의견을 널리 구해
보지 않았다.

마침 처숙부 상사공이 약을 지으려고 취서사로 가게 되었는데,
내가 가고자 함을 알고 따르게 하였다. 대개 공 또한 안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이윽고 취서사에 도착하니 근방 마을에서 모여든 자가 거의
승려들 수와 맞먹었는데, 모두 겨름 때문에 온 자들이었다. 좌우
에서 낚아채 가며 많이 가지려 다투고, 시끌벅적하게 뒤섞여
뺏아 대어 곧 시장판을 만들었으며, 가져감이 많고 적음은 그
힘의 강약에 따랐으나 승려들은 참견하는 바가 없었다. 그런데
늦게 도착하여 종도 없는 자는 승려들을 나무라며, 심지어
가혹한 일을 하기까지 했지만 또한 얻을 수 없었다.

나는 마음속으로 민망히 생각하였지만, 이미 그 속에 가 있었
기에 [의리]를 [이욕]에 빼앗겨서 초연히 버리고 돌아오지 못하
였다. 상사공의 힘으로 수십 묶음을 얻어 햇빛에 말려 보관할
수 있었으니, 다 상사공의 도움 덕분이었다.

「 스스로 헛걸음하지 않은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여겼는데,
[E] 집으로 돌아오자 멍하기가 마치 술에서 막 깨어난 사람이
「 잔뜩 취했을 때를 되짚어 생각하는 듯하였다.

내 아내는 비록 원대한 식견이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내가
항상 곤궁함 때문에 치욕을 입을까 걱정하였으니, 가령 이와
같을 줄 알았다면 반드시 나의 행차를 권하지 않았을 것이고,
유평도 또한 마땅히 찬동하지 않았을 것이다.

상사공은 청렴하고 정직하여 주고받음이 구차하지 않다. 거처
하는 집 아래채가 세 칸의 초가집이니, 마땅히 겨름이 필요하
였을 것이다. 그리고 막 삼계 서원 원장이 되었는데, 취서사가
바로 삼계 서원에 귀속된 절이었다. 그때 서원의 노비가 개인적
으로 취서사에 가서 머물고 있는 자가 서너 명 있었으니, 진실로
가지려고 하면 힘이 없을 걱정이 없었다. 그런데 담담하게 한
마디도 간섭함이 없었으니, 그 마음속으로 반드시 나를 비난
하였을 것이다. 그런데도 애써 나를 위하여 저와 같이 마음과
힘을 써 주신 것은 다만 나의 곤궁함을 불쌍히 여겨서일 뿐이
리라.

맹자는 “궁해도 의(義)를 잃지 않는다.” 하였고, 이극은 “궁할
때에 그 해서는 안 될 일을 살피본다.” 하였다. 나는 궁함 때문에
이미 스스로 의를 잃어서 평소에 하지 않던 행동을 했고, 또
어른에게까지 폐를 끼쳤으니 참으로 부끄러워할 일이다. 이미
뉘우칠 줄 알았으니, 이후에는 마땅히 조심해야겠기에 이를
갖추어 기록하고, 또 유택이 나를 아껴 약이 되는 유익한 말을
했음을 드러낸다.

- 김낙행, 「기취서행」 -

* 겨름: 껌질을 벗긴 삼대

22. [A]~[E]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자연물을 대상화하여 그 자연물에 역동성을 부여하고 있다.
- ② [B]는 근경에서 원경으로 시선을 이동하여 인간과 자연의 차이점을 강조하고 있다.
- ③ [C]는 성현의 말을 인용함으로써 화자가 지닌 궁금증을 드러내고 있다.
- ④ [D]는 점층적인 표현으로 앞으로 해야 할 일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있다.
- ⑤ [E]는 비유적 표현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는 글쓴이의 상태를 부각하고 있다.

23.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화자의 인생을 포괄한다는 점에서 충효를 중요하게 여겨 온 화자의 생각을 강조한다.
- ② ㉡은 화자가 돌이켜 보는 삶의 시간을 가리킨다는 점에서 충효를 실현하려고 애쓴 세월을 나타낸다.
- ③ ㉢은 유구한 세월이라는 의미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성현의 도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음을 강조한다.
- ④ ㉣은 흘러간 시간이 길다는 의미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세월이 빨리 지나가는 것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을 강조한다.
- ⑤ ㉣은 과거의 한때를 가리킨다는 점에서 현재 자연에서 여유를 느끼는 상황과 대비되는 시절을 나타낸다.

24.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권호문의 「한겨십팔곡」은 지향하는 삶을 실천하는 태도의 변화 과정을 형상화한 연시조로, <제1수>부터 <제19수>까지의 내용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 ① <제3수>의 ‘임천이 좋으니라’에는 <제1수>의 ‘마음에 하고자 하여’에 담긴 태도와는 다른 태도가 나타난다.
- ② <제3수>의 ‘너를 좇으려’ 했던 태도는 <제8수>에서 ‘출’하는 모습으로 실현되어 나타난다.
- ③ <제8수>의 ‘이것을 즐기나니’에는 <제1수>의 ‘이 두 일’을 더 이상 추구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드러난다.
- ④ <제13수>의 ‘달 아래 누운 모습에는 <제3수>에서 ‘절로 한가하였’던 삶으로 되돌아가고 싶어 하는 태도가 나타난다.
- ⑤ <제17수>에서 ‘아무 덴들’ 상관없다고 하는 화자의 생각은 <제19수>에서 ‘일념’으로 바뀌어 나타난다.

25. [의리]와 [이욕]을 중심으로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글쓴이는 겨릅을 얻은 것을 다행스럽게 여겼던 것은 자신이 ‘이욕’에 빠졌기 때문이라고 본다.
- ② 글쓴이는 아내가 자신에게 취서사에 가길 권한 것은 글쓴이가 ‘이욕’에 빠지게 될 줄 몰랐기 때문이라고 본다.
- ③ 글쓴이는 겨릅을 얻도록 상사공이 자신을 도와준 것은 글쓴이가 ‘의리’를 해칠 것을 걱정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 ④ 글쓴이는 취서사에 가는 것을 유택이 반대한 것은 글쓴이를 아껴 ‘의리’를 해치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이라고 본다.
- ⑤ 글쓴이는 겨릅을 구하려 가는 것에 유평이 동의한 것은 그 일이 ‘이욕’에 빠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26.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가)와 (나)에는 작가가 유학자로서의 신념을 바탕으로 자신이 선택한 가치를 추구하는 삶이 나타난다. (가)에는 출사와 은거 사이에서의 고민과 그 해소 과정이, (나)에는 경제적 문제로 인해 곤란을 겪은 상황에 대한 성찰이 나타난다. 한편 (나)는 세속적 가치를 떨치지 못해 과오를 저질렀던 상황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가)와 차이를 보인다.

- ① (가)의 ‘부귀 위기라 가난하게 살리로다’에서 자신이 선택한 가치를 추구하려는 작가의 태도를 엿볼 수 있군.
- ② (나)의 ‘궁해도 의를 잃지 않는다’에서 작가가 추구하는 유학자로서의 신념을 엿볼 수 있군.
- ③ (가)의 ‘세상에 티끌 마음이 일호말도 없다’에서 세속적 가치에 구애되지 않은 모습을, (나)의 ‘버리고 돌아오지 못하였다’에서 세속적 가치를 떨치지 못한 모습을 엿볼 수 있군.
- ④ (가)의 ‘도무지 할 일 없어’에서 출사하지 못한 것에 대해 고민하는 모습을, (나)의 ‘시끌벅적하게 뒤섞여 밝아 대’는 모습에서 경제적 문제로 곤란을 겪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군.
- ⑤ (가)의 ‘도가 어찌 다르리’에서 출사와 은거 사이에서의 고민이 해소되었음을, (나)의 ‘의를 잃’은 것에 대해 ‘이후에는 마땅히 조심’하겠다는 다짐에서 성찰적 태도를 확인할 수 있군.

[27~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24.06

[앞부분 줄거리]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귀향한 정일이는 용팔이에게 재산 상속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다.

아버지가 아직도 지키고 있는 그의 재산을 넘겨다보는 듯한 용팔이가 따지는 산판일이 거침없이 한 자리씩 올라가는 것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는 자신을 의식하며 보고 있을 때, 이렇게 대강만 놓아도, 하고 산판을 밀어 놓으며 쳐다보는 용팔이의 눈과 마주치게 되자 정일이는 흠칫 놀라게 되는 자신의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깨달았다. ㉠여기 대한 상속세만 해도 큰돈인데 안 물고 할 수 있는 이것은 제 말씀대로 하시지요. 이렇게 결정적으로 말하는 용팔이는 정일이의 앞에 위임장을 내놓으며 도장을 치라고 하였다.

정일이는 더욱 불쾌하여졌다. 잠이 부족한 신경 탓도 있었지만 자기의 눈을 기탄없이 바라보는 용팔이의 얼굴에 발라놓은 듯한 그 웃음이 말할 수 없이 미웠다. 이 소인 놈! 하는 의분 같은 ㉡심열이 떠오르며, 언제 내가 이런 음모를 하자고 너와 공모를 하였던가? 하고 그의 뺨을 갈기고 싶은 충동을 느끼었다. 그러나 정일이는 금시에 미끄러지는 듯한 웃음이 자기 얼굴에 흐름을 깨달았다. 이러한 심열은 신경 쇠약의 탓이 아닐까? 의분이랄 것도 없고 결백성도 아니고 그런 것을 공연히 이같이 한순간에 뒤집히는 자기 마음 한 모퉁이에 상식을 놓쳐 뿌린 결과가 어떤가? 해 보자 하는 농치기 쉬운 어떤 힌트같이 번쩍이는 생각을 보자 정일이는 조금씩 도장을 뒤져내며, 자 칠 대로 치우, 나는 어디다 치는 것도 모르니까 하였다. 이렇게 지껄이듯이 말하는 정일이는 자기가 실없이 웃기까지 하는 것을 들을 때 내가 지금 더 심한 심열에 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에 갑자기 말과 웃음과 표정까지 없어지고 말았다.

㉢도장을 치고 난 용팔이는 공손히 정일이에게 돌리며, 잔금은 제가 장인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일어선다. 중문으로 들어가는 용팔이의 뒷모양을 바라보던 정일이는 갑자기 불러내고 싶었다. 궁둥이를 들먹하고 부르는 손짓까지 하였으나 탄력 없이 벌어진 입에서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창출간에 용팔이를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몰라서 주저되는 것같이도 생각되었다. 중문 안으로 들어가는 용팔이의 뒷모양은 마치 심한 장난을 꾸미다가 용기를 못 내는 자기를 남겨 두고 ㉣그걸 못 해? 내 하마 하고 나서는 동무의 모양같이 아슬아슬한 것이었다. 종시 용팔이가 중문 안으로 사라져서 불러낼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고 후회하면서도 내가 정말 후회하는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따라가서 붙들 수도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 정일이는 용팔이가 이 말을 시작하였을 때부터 자기는 육감으로 벌써 예기하였던지도 모를 일이 지금 일어나리라는 기대가 앞서는 것을 느끼며 ㉤정일이는 실험의 결과를 기다리는 듯이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예사로운 말소리는 들리지 않는 거리이므로 긴장한 정일이의 귀에도 한참 동안은 아무런 말도 들리지 않았다. 아버지도 종시 죽음에 굴복하고 마는가? 이렇게 생각되어 정일이는 긴장하였더니만큼 허전한 실망에 담배를 붙이려고 성냥을 그었을 때 자기의 귀를 때리는 듯한 아버지의 격분한 고함 소리를 들었다.

(중략)

사실 이렇게 되어서까지도 죽기가 싫은가 하고 아버지를 눈 찌푸리고 바라보는 자기는 죽음의 공포를 해탈한 무슨 수양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애써 살려는 의지력이 없는 것뿐이다. ㉥아버지는 한 번도 자기의 생활을 회의하거나 죽음을 생각할 필요가 없었던 사람이므로 이같이 죽음과 싸울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였다. 그래서 정일이는 어떤 위대한 의지력을 우러러보는 듯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고통을 바라보고 있는 자기를 발견하는 때가 있었다.

그때 심한 구토를 한 후부터 한 방울 물도 먹지 못하고 헛바다를 축이는 것만으로도 심한 구역을 하게 된 만수 노인은 물을 보기라도 하겠다고 하였다. 정일이는 요를 독여서 병상을 돋우고 아버지가 바라보기 편한 곳에 큰 물그릇을 놓아 드렸다. 그러나 그 물그릇을 바라보기에 피곤한 병인은 어디나 눈 가는 곳에는 물이 보이기를 원하였다. 그래서 큰 어항을 병실에 가득 늘어놓고 물을 채워 놓았다. 병인은 이 어항에서 저 어항으로 ㉦서늘한 감각을 시선으로 활듯이 돌려 보다가 그도 만족하지 못하여 시원히

호르는 물이 보고 싶다고 하였다. 정일이는 아버지가 보기 편한 곳에 큰 물그릇을 놓고 대접으로 물을 떠서는 작은 폭포같이 들이 쏟고 또 떠서는 들이 쏟기를 계속하였다. 만수 노인은 꺼멓게 탄 혀를 벌린 입 밖에 내놓고 황홀한 눈으로 드리우는 물줄기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을 볼 때 정일이는 견잡을 사이도 없이 자기 눈에 눈물이 솟아 오름을 참을 수가 없었다. 정일이는 일찍이 그러한 눈을 본 기억이 없다고 생각하였다. 더욱이 아버지의 얼굴에서! 자기 아버지에게서 저러한 동경에 사무친 황홀한 눈을 보게 되는 것은 의외라고 할밖에 없었다.

- 최명익, 「무성격자」 -

27. 윗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회상 장면을 병치하여 사건의 흐름을 반전시킨다.
- ② 사물의 세부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장면의 현장성을 강화한다.
- ③ 중심인물의 반복적인 동작을 강조하여 내적 갈등을 표면화한다.
- ④ 서술자가 풍자적 어조를 활용하여 중심인물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드러낸다.
- ⑤ 서술자가 중심인물의 시선에 의존하여 사건의 양상을 제한적으로 나타낸다.

28.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정일이 주목하는 용팔이의 이해타산적인 태도를 드러낸다.
- ② ㉡는 용팔이 정일에게 예의를 갖추어야 하는 위치임을 드러낸다.
- ③ ㉢는 용팔이의 행위에 대한 정일의 실망스러운 마음을 드러낸다.
- ④ ㉣는 아버지와 용팔 간 대화의 결과를 정일이 주시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 ⑤ ㉥은 아버지가 보여 주는 삶의 태도에 대한 정일의 평가를 드러낸다.

29. [A], [B]를 고려하여 ㉠과 ㉡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용팔이 ‘웃음’에 대한 정일의 불쾌감으로 인해, ㉡은 아버지가 내비치는 ‘황홀한 눈’으로 인해 발생한다.
- ② ㉠은 정일이 갈등 끝에 ‘도장’을 찍음으로써, ㉡은 아버지가 사무치는 ‘동경’을 포기함으로써 지속된다.
- ③ ㉠은 정일의 ‘신경 쇠약’을 일으키는 원인이고, ㉡은 아버지가 ‘꺼멧게 탄 혀’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방편이다.
- ④ ㉠은 용팔이에 대한 미움이 ‘뺨을 갈기고 싶은 충동’으로 격화되는 정일의 마음을, ㉡은 ‘물그릇’에서 ‘어항’, ‘드리우는 물줄기’로 심화되는 아버지의 갈망을 함축한다.
- ⑤ ㉠은 용팔이의 ‘공포’ 요구로 인해 표면화된 정일의 물질 지향적인 태도를, ㉡은 ‘심한 구역’ 이후로 아버지가 ‘물’에서 얻고자 하는 육체적 안정에 대한 추구를 드러낸다.

30.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무성격자」의 정일은 자신을 구속하는 속물적 욕망을 경멸하고 현실에서의 적극적인 행동을 주저하는 한편, 자신과 주변에 관심을 집중한다. 그는 주변 대상을 관찰하여 그 의미를 파악하고, 파악한 내용에 반응하며, 그런 자신을 분석하기도 한다. 나아가 관찰과 분석을 수행하는 자신의 내면마저 대상화함으로써 인간 심리의 중층적 구조를 드러낸다.

- ① 산판알을 놓으며 이익을 따지는 상대를 경멸하면서도 산판알이 올라가는 것을 주목하는 데에서, 자신을 구속하는 속물적 욕망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모습을 찾을 수 있군.
- ② 상대의 웃음에서 공포 의사를 읽어 내자 얼굴에 흐르는 미끄러지는 듯한 웃음을 깨닫는 데에서, 상대에 대한 불쾌감을 웃음으로 무마하려는 자신을 의식하는 모습을 찾을 수 있군.
- ③ 중문 안으로 들어가는 상대를 불러내지는 못하고 자신이 그를 부르지 못한 이유를 생각하는 데에서, 행동을 주저하고 자신에게로 관심을 돌리는 모습을 찾을 수 있군.
- ④ 상대의 고통을 바라보며 의지력을 우러러보는 듯한 마음이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데에서, 상대와의 차이를 인식하는 스스로의 내면마저 대상화하는 모습을 찾을 수 있군.
- ⑤ 물줄기를 바라보는 상대로부터 이전에는 한 번도 보지 못한 눈을 확인하는 데에서, 주변 대상을 관찰하여 상대가 내비치는 생에 대한 강렬한 동경을 파악하는 모습을 찾을 수 있군.

[31~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24.06

(가)

만년(萬年)을 싸늘한 바위를 안고도
뜨거운 가슴을 어찌하리야

어둠에 창백한 꽃송이마다
깨물어 피터진 입을 맞추어

마지막 한방울 피마저 불어 넣고
해돋는 아침에 죽어가리야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모든 것 다 잃고라도
흰뺨이 되는 먼 훗날까지
그 뼈가 부활하여 다시 죽을 날까지

거룩한 일월(日月)의 눈부신 모습
입의 손길 앞에 나는 울어라.

마음 가난하거니 입을 위해서
내 무슨 자랑과 선물을 지니라

의로운 사람들이 피흘린 곳에
숫아 오른 대나무로 만든 피리뽀

흐느키는 이 피리의 **아픈 가락** 이
구천(九天)에 사모침을 입은 듣는가.

미워하는 것 미워하는 모든 것 다 잊고라도
붉은 마음이 숫이 되는 날까지
그 숫이 되살아 다시 재 될 때까지

못 잊힐 모습을 어이 하리야
거룩한 이름 부르며 나는 울어라.

- 조지훈, 「맹세」 -

(나)

저기 저 담벽, 저기 저 라일락, 저기 저 별, 그리고 저기 저 우리 집 개의 똥 하나, 그대 모두 이리 와 ㉠ 내 언어 속에 서라. 담벽은 내 언어의 담벽이 되고, 라일락은 내 언어의 꽃이 되고, 별은 반짝이고, 개똥은 내 언어의 뜰에서 굴러라. ㉡ 내가 내 언어에게 자유를 주었으니 너희들도 자유롭게 서고, 앉고, 반짝이고, 굴러라. 그대 봄이다.

봄은 자유다. 자 바라, 꽃피고 싶은 놈 꽃피고, 잎 달고 싶은 놈 잎 달고, 반짝이고 싶은 놈은 반짝이고, 아지랑이고 싶은 놈은 아지랑이가 되었다. ㉢ 봄이 자유가 아니라면 꽃피는 지옥이라고 하자. 그대 봄은 지옥이다. ㉣ 이름이 지옥이라고 해서 뿔 꽃이 안 피고, 반짝일 게 안 반짝이던가. 내 말이 옳으면 자, ㉤ 자유다 마음대로 뛰어라.

- 오규원, 「봄」 -

31.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1연과 6연에서 물음의 형식을 활용하여 화자의 상황 인식을 보여 준다.
- ② (가)는 4연과 9연에서 상황을 가정하는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의 의지를 강조한다.
- ③ (나)는 반복적인 표현을 제시하면서 선표를 사용하여 리듬감을 형성한다.
- ④ (가)는 대비되는 시어를 활용하여 대상의 양면성을 드러내고, (나)는 반복되는 행위를 제시하여 대상의 효용성을 드러낸다.
- ⑤ (가)는 같은 시구를 5연, 10연의 마지막에서 반복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나)는 1연 끝 문장의 시어를 2연 첫 문장으로 연결하며 그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32. **아픈 가락**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입에게 사랑스레 내보일 화자의 자부심을 포함한다.
- ② 의로운 사람들이 보여 준 희생과 설움을 담고 있다.
- ③ 대나무에 서린 입의 뜻을 잊으려는 화자를 질책한다.
- ④ 피리의 흐느낌에 호응하여 화자의 억울함을 해소한다.
- ⑤ 구천에 사무친 원망을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전달한다.

33. 다음에 따라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선생님: (가)는 부재하는 입을 기다리며 더 나은 세상에 대한 바람을 드러내고, (나)는 봄과 같은 세계에서, 대상들과 함께 자유를 누리려는 바람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가)는 대상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화자의 시선이 두드러짐에 비해, (나)는 화자가 주목하는 대상들의 모습이 두드러진다는 차이를 보여요. 이 차이가 주변 존재들을 대하는 태도나 바람을 실현하는 방식에 반영되기도 해요.

- ① (가)의 화자가 바라는 세상은 ‘해돋는 아침’과 같이 ‘어둠’을 벗어나 밝음을 회복한 세상일 거야.
- ② (나)의 화자가 지향하는 세계에서 대상들은 ‘자유롭게 서고, 앉고, 반짝이고,’ 구를 거야.
- ③ (가)의 화자는 ‘꽃송이’를 ‘창백한’ 대상으로 바라보고, (나)의 화자는 대상들 각각의 모습에 주목하여 그 개별성을 드러내고 있어.
- ④ (가)의 화자는 ‘피마저 불어 넣’는 희생적 태도를 보이고, (나)의 화자는 대상들이 원하는 바를 실현하게 하여 ‘자유’를 함께 누리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 ⑤ (가)의 화자는 ‘붉은 마음’을 바쳐 부재하는 ‘입’을 기다리고, (나)의 화자는 ‘담벽’ 안에서 ‘봄’과 같은 세계를 대상들과 공유하려 하고 있어.

34. <보기>를 참고하여 ㉠~㉣의 의미를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나)는 언어의 한계와 가능성에 대한 시인의 탐구를 보여 준다.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대상을 파악할 수 있지만 그 결과는 다시 언어에 구속된다는 필연적 한계를 갖는다. 그래서 시인은 기존의 언어 사용 방식을 벗어나려는 시도를 한다. 이를 통해 언어와 대상이 기존의 관습에서 벗어나 자유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한다.

- ① ㉠은 자신의 언어 속에서도 기존의 언어 사용 방식이 유지된다는 생각을 의미한다.
- ② ㉡은 대상을 파악하는 행위까지 포기하면서 자유를 얻고자 하는 의도를 나타낸다.
- ③ ㉢은 새로운 표현을 시도하여 언어와 대상이 자유를 얻을 가능성을 모색하는 과정을 나타낸다.
- ④ ㉣은 대상들을 구속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외부 상황에 변화를 주었음을 의미한다.
- ⑤ ㉣은 언어의 새로운 가능성을 실현하여 자신이 제한한 의미에 따라 대상들이 움직임을 의미한다.

[18~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23.11

혼례를 마친 후 최척이 아내와 함께 장모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오매 하인들이 기뻐했다. 대청에 오르자 **친척들이** 축하하여 온 집안에 기쁨이 넘쳤고, 이들을 기리는 소리가 사방의 이웃으로 퍼졌다. 시집에 온 옥영은 소매를 걷고 머리를 빗어 올린 채 손수 물을 길고 절구질을 했으며, 시아버지를 봉양하고 남편을 대할 때 효와 정성을 다하고, 윗사람을 받들고 아랫 사람을 대할 때는 성의와 예의를 두루 갖췄다. **이웃 사람들이** 이를 듣고는 모두 양홍의 처나 포선의 아내도 이보다 낫지 않을 것이라고 칭찬했다.

최척은 결혼한 후 구하는 것이 뜻대로 되어 재산이 점차 넉넉히 불었으나, 다만 일찍이 자식이 없는 것이 걱정이었다. 최척 부부는 후사를 염려하여 ㉠ **매월 초하루**가 되면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함께 만복사에 올라 부처께 기도를 올렸다. 다음 해 갑오년 ㉡ **정월 초하루**에도 만복사에 올라 기도를 했는데, 이날 밤 장육금불이 옥영의 꿈에 나타나 말했다.

“나는 **만복사의 부처**로다. 너희 정성이 가상해 기이한 **사내 아이**를 점지해 주니, 태어나면 반드시 특이한 징표가 있을 것이다.”

옥영은 ㉢ **그달**에 바로 잉태해 열 달 뒤 과연 아들을 낳았는데, 등에 어린아이 손바다만 한 **붉은 점**이 있었다. 그래서 최척은 아들 이름을 몽석(夢釋)이라고 지었다.

최척은 피리를 잘 불었으며, ㉣ **매양 꽃 피는 아침과 달 뜬 밤**이 되면 아내 곁에서 피리를 불곤 했다. 일찍이 날씨가 맑은 ㉤ **어느 봄날 밤**이었는데, 어둠이 깊어 갈 무렵 미풍이 잠깐 일며 밝은 달이 환하게 비쳤으며, 바람에 날리던 꽃잎이 옷에 떨어져 그윽한 향기가 코끝에 스며들었다. 이에 최척은 옥영과 술을 따라 마신 후, 침상에 기대 피리를 부니 그 여음이 하늘 거러며 퍼져 나갔다. 옥영이 한동안 침묵하다 말했다.

“저는 평소 여인이 시 읊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맑은 정경을 대하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군요.”

옥영은 마침내 절구 한 수를 읊었다.

왕자진이 피리를 부니 달도 내려와 들으려는데,
바다처럼 푸른 하늘엔 이슬이 서늘하네.
때마침 날아가는 푸른 난새를 함께 타고서도,
안개와 노을이 가득해 봉도 가는 길 찾을 수 없네.

최척은 애초에 자기 아내가 이리 시를 잘 읊는 줄 모르고 있던 터라 놀라 감탄하였다.

[**중략 줄거리**] 전란으로 가족과 이별한 최척은 명나라 배를 타고 안남에 이르러 처량한 마음에 피리를 불었다.

최척은 동방이 밝아 오자, 강둑을 내려가 **일본인 배에 이르러 조선말로** 물었다.

“어젯밤 시를 읊던 사람은 조선 사람 아닙니까? 나도 조선 사람이어서 한번 만나 보았으면 합니다. 멀리 **다른 나라를 떠도는 사람**이 비슷하게 생긴 **고국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어찌 그저 기쁘기만 한 일이겠습니까?”

옥영도 생각하기를 어젯밤 들은 **피리 소리**가 조선의 곡조인데다, 평소 익히 들었던 것과 너무나 흡사했다. 그래서 남편 생각에 감회가 일어 절로 시를 읊게 되었던 것이다. 옥영은 자기를 찾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는 황망히 뛰어나와 최척을 보았다. 둘은 서로 마주하고 놀라 **소리를 지르며 끌어안고** 백사장을 뒹굴었다. 목이 메고 기가 막혀 마음을 안정할 수 없었으며, 말도 할 수 없었다. 눈에서는 **눈물이 다하자 피가 흘러내려** 서로를 볼 수도 없을 지경이었다. 양국의 **백사람들이** 저잣거리 처럼 모여들어 구경했는데, 처음에는 친척이나 잘 아는 친구인 줄로만 알았다. 뒤에 그들이 부부 사이라는 것을 알고 서로 돌아보며 소리쳐 말했다.

“이상하고 기이한 일이다! 이것은 하늘의 뜻이요, 사람이 이를 수 있는 일이 아니로다. 이런 일은 옛날에도 들어 보지 못하였다.”

최척은 옥영에게 그간의 소식을 물었다.

“산속에서 붙들려 강가로 끌려갔는데, 그때 아버지와 장모님은 어찌 되었소?”

옥영이 말했다.

“날이 어두워진 뒤 배에 오른 데다 정신이 없어 서로 잃어버렸으니, 제가 두 분의 안위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두 사람이 손을 붙들고 통곡하자,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들도 슬퍼하며 눈물을 닦지 않는 이가 없었다.

- 조위환, 「최척전」 -

18.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를 삼입하여 인물 간의 갈등 양상이 구체화되는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인물의 행위가 연속적으로 나열된 장면을 통해 신분의 변화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주변 인물이 알고 있는 사례를 근거로 주요 인물에 대해 상반된 평가를 내리게 하고 있다.
- ④ 감각적인 배경 묘사를 통해 인물의 행동이 전개되는 상황의 낭만적 분위기를 부각하고 있다.
- ⑤ 인물 간 대화가 오가는 장면을 보여 주어 이전 사건에 따른 다른 인물들의 현재 행진지를 드러내고 있다.

19. 윗글의 인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백사람들’은 최척과 옥영의 관계가 자신들이 생각하던 것과 달라 놀라워했다.
- ② ‘최척’은 강둑을 내려가 자신을 ‘다른 나라를 떠도는 사람’이라 말하며 자신의 처지와 심정을 드러냈다.
- ③ ‘최척’은 옥영의 시에 대한 재능을 결혼 전에 알고 있었지만, 옥영이 시를 읊기 전까지 이를 모른 척했다.
- ④ ‘옥영’은 가정의 구성원들을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대했고, 옥영이 시집은 후 최척의 집안은 점차 부유해졌다.
- ⑤ ‘친척들’은 최척의 결혼을 경사로 받아들였고, ‘이웃 사람들’은 옥영의 행실을 칭찬했다.

20.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인물의 심리적 갈등이 발생하는, ㉣은 ㉠에서 발생한 갈등이 심화되는 시간의 표지이다.
- ② ㉡과 ㉢은 모두 과거의 행위를 통해 인물의 성격이 변화됨을 드러내는 시간의 표지이다.
- ③ ㉡은 인물의 행위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은 ㉡ 중 한 시점을 특징하는 시간의 표지이다.
- ④ ㉡은 ㉠에서부터 이어진 행위를 알려 주는, ㉢은 그 행위가 완결된 순간을 지시하는 시간의 표지이다.
- ⑤ ㉡과 ㉢은 인물의 소망이 실현되어 가는 과정에 포함되는, ㉣은 인물의 소망이 좌절된 시간의 표지이다.

21. <보기>를 바탕으로 밑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최척전」에는 하나의 문제 상황이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확인되는 서사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도움을 주는 신이한 존재를 나타나게 하거나, 예언의 실현을 보여주는 특이한 증거를 활용하거나, 문제 해결의 계기가 되는 소재를 제시하거나, 공간적 배경을 확장하여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을 등장시키는 등의 서사적 장치들이 확인된다. 이러한 서사 구조와 다양한 서사적 장치는 독자가 이야기에 흥미를 가지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수용하는 데 기여한다.

- ① 옥영의 꿈에 나타난 '만복사의 부처'는, 옥영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신이한 존재로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군.
- ② 몽석의 꿈에 나타난 '붉은 점'은, '사내아이'의 출생과 관련한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 특이한 증거로 활용된다고 볼 수 있겠군.
- ③ 최척이 '일본인 배에 이르러 조선말로 물'어보는 것과 '고국 사람을 만나려 하는 것은, 서사 전개 과정에서 공간적 배경을 조선뿐 아니라 다른 나라로도 확장한 것과 관련이 있겠군.
- ④ 옥영이 들은 '피리 소리'는, 옥영이 최척을 떠올리게 하여 이별의 상황을 해결하는 계기가 되는 소재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군.
- ⑤ 최척과 옥영이 '소리를 지르며 끌어안'는 것은 문제의 해결에 따른 기쁨과, '눈물이 다하자 피가 흘러내'리는 것은 또 다른 문제 확인에 따른 인물의 불안감과 관련이 있겠군.

[22~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23.11

(가)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료
초야우생(草野愚生)이 이렇다 어떠하료
하물며 천석고황(泉石膏肓)을 고쳐 모습하료 <제1수>

[A]

연하(烟霞)로 집을 삼고 풍월(風月)로 벗을 삼아
태평성대에 병으로 늙어 가네
이 중에 바라는 일은 허물이나 없고자 <제2수>

춘풍(春風)에 화만산(花滿山)하고 추야(秋夜)에 월만대(月滿臺)라
사시 가흥(佳興)이 사람과 한가지라
하물며 어악연비(魚躍鸞飛) 운영천광(雲影天光)이야 어느 끝이
있으리 <제6수>

- 이황, 「도산십이곡」 -

(나)

산가(山家) 풍수설에 동구 못이 좋다 할새
십 년을 경영하여 한 땅을 얻으니
형세는 좁고 굽은 암석은 많고 많다
옛 길을 새로 내고 작은 연못 파서
활수*를 끌어 들여 가는 것을 머물게 하니
맑은 거울 티 없어 산 그림자 잠겨 있다
천고(千古)에 황무지를 아무도 모르더니
일조(一朝)에 진면목을 내 혼자 알았노라
처음의 이 내 뜻은 물 머물게 할 뿐이더니
이제는 돌아보니 가지가지 다 좋구나
백석은 치치(齒齒)하여 은도로 새겨 있고
벽류는 칼칼 흘러 옥 술잔을 때리는 듯
침침한 산들은 좌우의 병풍이요
뻑뻑한 소나무는 전후의 울타리이다
구곡 상하대는 층층이 둘러 있고
삼경(三逕) 송국죽(松菊竹)은 줄지어 벌여 있다
하물며 바위 벼랑 높은 위에 노송이 용이 되어 구부러 누웠

[B]

거늘

운근(雲根)을 베어 내고 ㉠ 작은 정자 붙여 세워
떠 풀로 지붕 이고 자르지 않으니 이것이 어떤 집인가
남양의 제갈려인가 무이의 와룡암인가*
다시금 살펴보니 필경 위언의 그림의 것이로다
무릉도원을 예 듣고 못 봤더니
이제야 알겠구나 이 진짜 거기로다

- 김득연, 「지수정가」 -

* 활수: 흐르는 물.

* 남양의 제갈려, 무이의 와룡암: 옛 현인이 은거한 처처.

(다)

내 초로의 어느 가을날, 나는 겸재가 동해안을 따라 내려가면서
동해 승경을 화폭에 옮겼던 월송정, 망양정, 청간정, 성류굴을
일삼아 떠돌아다녔다. 망양정은 옛 기성면의 바닷가에서 지금의
근남면 산포리로 옮겨 세운 지가 140여 년이 넘어, 기성면의
㉠ 옛 망양정 자리는 도로 공사로 단애의 허리가 잘리워 나가,
바닷물은 단애 끝으로부터 멀찌감치 쫓겨났고 그 사이는 시멘트
칠갑이 되어 있었다. 정자 터는 사방이 깎여져 나갔고 화폭 속의
소나무 숲도 베어져 버린 채, 그 언덕은 그저 무의미한 흙더미로
변해 있었다. 마을의 고로(古老)들도 그곳에 들어서 있던 정자를
본 일은 없었고, 다만 그들의 증조나 고조로부터 전해 오는
구전에 의해 그 흙더미가 망양정 옛터였음을 옮길 뿐이었다.

겸재의 화폭을 마음속에 앞세우고 겸재 실경산수(實景山水)의
자리를 찾을 적에 그곳에 옛 정자가 이미 오래전에 없어져 버린
그 허전한 사태는 그다지 허전하지 않았다. 왜 그런가. 현실 속의
정자에 오르면 화폭 속의 정자는 보이지 않는다. 육신의 눈을
앞세워 정자를 찾아오는 자에게는 풍경 전체 속에서 인간세의
위치와 규모를 대표하는 상징으로서의 정자는 보이지 않는다.

(중략)

면 산을 그릴 때 그는 그 산과 인간 사이의 거리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 거리를 들여다보는 시선의 깊이를 그린다.
면 것들은 원근상의 거리에 의해 격리되는 것이 아니라,
깊이에 의해 자리 잡는다. 겸재의 화폭 속에서 풍경은 가깝
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성을 부여받지 않고 또 멀다는 이유만
[C] 으로 사실성을 박탈당하지 않는다. 대체로 그의 그림 속에
서는 인간과 인간에 직접 관련된 것들—정자, 집, 배, 나귀,
가마, 화분, 성곽 같은 것들이 비교적 명료한 사실성을
띠고 있지만, 그 사실성은 원근에 의해 정립되는 사실성이
아니라, 세계를 관찰하는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정립되는
사실성이다.

- 김훈, 「겸재의 빛」 -

22.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상에 주목하여 대상과 관련된 가치를 추구하는 자세를 나타내고 있다.
- ② 부정적인 현실을 비판하며 좌절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부각하고 있다.
- ③ 현실을 통찰하며 관용적 삶에 대한 지향을 보여 주고 있다.
- ④ 계절감을 활용하여 환경의 다양한 변화를 표현하고 있다.
- ⑤ 가상의 상황을 제시하여 환상적 분위기를 강화하고 있다.

23. [A],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의 <제1수> 초장은 유사한 어휘의 반복을 통해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② [A]의 <제2수> 초장은 <제1수> 종장의 지상을 이어받아 자연 친화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 ③ [B]에서는 ‘산 그림자’가 담긴 ‘작은 연못’의 경관을 묘사하여 깨끗한 자연의 형상을 보여 주고 있다.
- ④ [A]의 ‘집을 삼고’와 ‘벗을 삼아’는 화자와 대상의 가까운 관계를, [B]의 ‘끌어 들여’와 ‘머물게 하니’는 화자가 대상을 가까이 하려는 행동을 제시하고 있다.
- ⑤ [A]의 ‘허물이나 없고자’는 미래에 대한 화자의 바람을, [B]의 ‘티 없어’는 대상을 관찰하기 전에 나타난 화자의 심리를 표현하고 있다.

24.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도산십이곡」에서 강호는 자연의 이치와 인간이 지향하는 이치가 일치된 이상적 공간으로, 「지수정가」에서 강호는 자연에서 생활하면서 자연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공간으로 나타난다. 「도산십이곡」에서는 조화로운 자연과 합일하는 화자가 등장하며, 「지수정가」에서는 자연의 구체적인 모습을 묘사하며 자연의 가치를 확인한 화자가 등장한다.

- ① (가)의 ‘초야우생’은 인간이 지향하는 이치와 자연의 이치가 일치된 공간에 존재하는 화자가 스스로를 이르는 말이겠군.
- ② (나)의 ‘내 혼자 알았노라’는 자연에서 생활하면서 자연의 가치를 발견한 화자의 심정을 드러내는 말이겠군.
- ③ (가)의 ‘천석고황’은 이상적 공간에 다다르지 못한 것에 대한 화자의 아쉬움이, (나)의 ‘무릉도원’은 현실적 공간을 이상적 공간으로 바라보는 화자의 인식이 나타난 말이겠군.
- ④ (가)의 ‘사람과 한가지라’는 자연의 이치와 인간이 지향하는 이치가 다르지 않음을 확인한 화자의 인식이, (나)의 ‘가지가지 다 좋구나’는 자연의 가치를 확인한 화자의 심정이 나타난 말이겠군.
- ⑤ (가)의 ‘춘풍에 화만산하고 추야에 월만대라’는 계절의 양상을 통해 조화로운 자연을, (나)의 ‘벽류는 쿵쿵 흘러 옥 술잔을 때리는 듯’은 화자가 발견한 자연의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낸 말이겠군.

25. ㉠과 ㉡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화자가 노력을 기울여 만든 인공물이고, ㉡은 글쓴이가 의도하지 않게 찾아낸 장소이다.
- ② ㉠은 현실에서 명예를 실현하려는 의지를, ㉡은 현실에서 편의를 실현한 결과를 보여 준다.
- ③ ㉠은 화자에게 만족하며 머무르는 삶에 대해, ㉡은 글쓴이에게 허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 ④ ㉠은 화자에게 일상적인 유용성을 상실한 공간이고, ㉡은 글쓴이에게 본래적인 유용성을 상실한 공간이다.
- ⑤ ㉠은 화자에게 자신의 삶을 가다듬는 역할을 수행하고, ㉡은 글쓴이에게 자신의 삶을 비판하는 계기로 작용한다.

26. <보기>를 바탕으로 [C]를 읽은 독자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겸재는 산을 그리면서도 뺄 건 빼고 과장할 것은 과장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자리를 옮겨 가면서까지 자신이 생각하는 구도로 풍경을 재구성하였다. 한 폭의 그림 속에서 물과 바다, 하늘과 땅, 그리고 정자와 인간을 포함한 모든 대상이 화가의 시선에 의해 재구성되어 회화의 구도상 의미를 지닌 자리에 놓일 때야말로 진정한 그림의 요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겸재의 그림은 실물과 똑같이 그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고 있다.

- ① ‘뉘 산을 그릴 때’ 그 거리에 집착하지 않는 까닭은, 실물과 똑같이 그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이겠군.
- ② ‘그 거리를 들여다보는 시선의 깊이를 그린다’는 뜻은, 화가가 자신의 시선으로 풍경을 재구성하는 작업이 중요하다는 의미이겠군.
- ③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성을 부여받지 않’는 까닭은, 대상을 표현할 때 뺄 건 빼고 과장할 것은 과장할 수 있다는 화가의 생각 때문이겠군.
- ④ ‘인간과 인간에 직접 관련된 것들’을 ‘비교적 명료한 사실성을 띠’도록 그린다는 뜻은, 대상을 회화의 구도상 의미를 지닌 자리로 옮겨 풍경의 원근감을 보이는 그대로 실현해야 한다는 의미이겠군.
- ⑤ ‘세계를 관찰하는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사실성이 ‘정립’되는 까닭은, 화가의 의도에 따라 풍경을 재구성하는 창작 작업을 통해 그림의 요체가 드러나기 때문이겠군.

[27~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23.11

밤이 깊어지면, 시장 안의 가게들은 하나씩 문을 닫고, 길가에 리어카를 놓고 팔던 상인들은 제각기 과일이나 생선, 채소들을 끌고 다리 위로 올라오는 것이었다.

그 모양을 이만큼에 서서 흔들리는 버드나무 가지 사이로 [A] 바라보면, 리어카마다 켜져 있는 카바이트 불빛이, 마치 난간에 무슨 꽃 등불을 달아 놓은 것처럼 요요하였다.

돈이 없어도 염려가 안 되는 곳.

그 사람들은 대부분 어머니를 알았다.

모르는 사람들도 곧 알게 되었다.

벽오동집 아주머니.

[B] 오동나무 아주머니.

그렇게 어머니를 불렀다.

어느새 나무는 그렇게도 하늘 높이 자라서 저기만큼 걸린 매곡고 다릿목에서도 그 무성한 가지와 잎사귀를 올려다볼 만큼 되었던 것이다.

거기다가, 우리 집에서 날아간 오동나무 씨앗이 앞뒷집에 떨어져 싹이 나고, 어느 해 바람에 불려 갔는지 그보다 더 먼 건넌집에도, 심지 않은 오동나무가 저절로 자라나게 되었다. [C]

그래서 나는 속으로 우리 동네를 벽오동촌이라고 별명 지었다.

그것은 어쩌면 이 가난한 동네의 한 호사였는지도 모른다.

아버지가 어머니와 혼인하시고, 작천의 친정 어머니를 남겨 두신 채, 신형 후에 전주로 돌아와 맨 처음 터를 잡은 곳이 바로 이 천변이었다.

동네 뒤쪽으로는 산줄기가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고, 앞 쪽으로는 흰모래 둥근 자갈밭을 데불은 시냇물이 흐르며 거기다 시장까지 가까운 이곳은, 삼십 년 전 그때만 하여도, [D] 부성 밖의 한적하고 빈한한 동네였을 것이다.

물론 우리도 중간에 집을 고치고, 이어 내고, 울타리를 바꾸었으나, 그저 움막처럼 나뭇가지를 열기설기 엮은 뒤, 풍우나 피하자는 시늉으로 지은 집들도 많았을 것이다.

이 울타리 안에서 해마다 더욱더 무성하게 자라는 오동나무는 유월이면, 아련한 유백색의 비단 무늬 같은 꽃을 피웠다. 그윽한 꽃이었다.

그 나무는 나보다 더 나이가 많았다.

나를 낳으시던 해, 지팡이만 한 나무를 구해다가 앞마당에 심으시며

“기념.”

이라고 웃으셨다는 아버지.

“처음에는 저게 자랄까 싶었던단다. 그러던 게 이듬해는 키를 넘드라.”

해마다 이른 봄이면, 어린아이 손바닥만 하던 잎사귀가 어느 결에 손수건만 해지고, 그러다가 초여름에는 부채처럼 나무꾼이다.

그리고 가을에는 종이우산만큼이나 넓어지는 것 같았다.

하늘을 덮는 잎사귀, 그 무성한 잎사귀들…….

그 잎사귀 서걱거리는 소리가 골목 어귀 천변에까지 들리는 성실였다.

어머니는 물끄러미 냇물만 바라보고 계시더니, 문득 고개를 돌려, “영익이 언제 다녀갔지?”

하고 물으셨다.

“사흘 됐나? 그저께 아니었어요?”

[E] 어머니는 어둠 속에서 고개를 끄덕이셨다.

어머니의 고개는 무거워 보였다.

“참, 어머니 지금 저기, 불빛 보이는 저 산마루에 절, 저기가 영익이 있는 데예요?”

나는 동편 산마루의 깜박이는 불빛을 가리키며 무심한 듯 물었다.

“아니다. 그건 승암사라구 중바위산 아니냐. 그 애 공부하는 덴 이 오른쪽이지…… 기린봉 중턱에 있는 절이야. 여기서는 잘 보지도 않는구나.”

그러면서 어머니는 눈을 들어, 어두운 밤하늘에 뚜렷한 금을 굵고 있는 산줄기를 바라보셨다. 산은 검고 깊었다.

동생 영익이는 벌써 이 년째 그 산속의 절에서 사법 고시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는 말이 없고 우울한 때가 많았다.

그리고 그저께 집에 내려와, 이사 날짜가 결정되었다는 말을 듣고는 아무 말도 없이 고개를 떨어뜨리더니

“내가…….”

하고 무슨 말을 이르려다 말고 그냥 산으로 올라갔었다.

그때 영익이의 말끝에 멧한 숨소리는 ‘흙’ 하고 내 가슴에 얹혀 아직도 내려가지 않은 것만 같았다.

우리가 이사하기로 된 집의 구조는 지극히 천박하였다.

우선 대문이 변화한 도로변으로 나 있는 데다가 오래되고 낡아서 녹이 슨 철제였다. 그것은 잘 닫히지도 않아 비극하니 틀어진 채 열려 있었다.

그리고 마당은 거의 없다는 편이 옳았다. 그나마 손바닥만 한 것을 시멘트로 빈틈없이 발라 놓았고, 방들은 오밀조밀 붙어 있어 개수만 여럿일 뿐, 좁고 어두웠다.

그중에 한 방은 아예 전혀 채광 통풍조차도 되지 않았다.

그것도 원래는 창문이었는데, 아마 바로 옆에 가게를 이어 내느라고 막아 버린 모양이었다. 그 가게란 양품점으로, 레이스가 많이 달린 네글리제와 여자용 속옷, 스타킹 따위를 고무 인형에 입혀 세워 놓은 곳이었다.

뿐만 아니라 그 가게를 중심으로 앞뒤에 같은 양품점들이 늘어서 있고 그 옆에는 양장점, 제과소, 음식점, 식료품 잡화상들이 있었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불규칙한 마찰음, 무엇이 부딪쳐 떨어지는 소리, 어느 악기점에선가 쿵, 쿵, 울려 오는 스피커 소리…… 끼익, 하며 숨넘어가는 자동차 소리.

한마디로 그 집은, 아스팔트의 바둑판, 환락과 유행과 흥정의 경박한 거리에 금방이라도 쓸려 버릴 것처럼 위태해 보였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사 올 집이라고, 그 집 문간에 웅숭 그리고 서서 철제 대문 사이로 안을 기웃거리며 들여다보는 우리들은 어쩌지 잘못 날아든 참새들 같기만 하였다.

- 최명희, 「쓰러지는 빛」 -

27.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영익'은 가족의 상황을 알고서도 제 생각을 분명히 드러내지 않는다.
- ② '어머니'는 아들이 출가하여 소식이 끊긴 뒤 그의 근황을 궁금해 한다.
- ③ '나'는 동생의 말을 듣고서 그가 현재 어디에 머무르고 있는지 알게 된다.
- ④ '시장 안의 가게들'은 밤늦게 물건을 사기 위해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다.
- ⑤ '천변'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결혼할 때부터 사람들이 북적였던 변화한 동네이다.

28. [A]~[E]의 서술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 '이만큼에 서서'와 '바라보면'을 보면, 서술자가 대상을 지각할 수 있는 위치에서 서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B]: 호명하는 말을 각각 하나의 문단에 서술하여, 그 호칭이 두드러져 보이는 효과가 나타난다.
- ③ [C]: '나'와 '우리'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서술자가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이야기를 서술하면서 자신의 내면을 드러낸다.
- ④ [D]: '동네였을 것이다'를 보면, 서술자가 과거 상황에 대해 확정적으로 진술하지 않고 추측의 의미를 담아 서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E]: 누가 한 말인지 명시하지 않은 것을 보면, 대화 상황에서 말하는 이와 서술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9. 윗글의 '오동나무'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나'가 계절의 자연스러운 변화와 세월의 흐름을 느끼게 되는 경험적 대상이다.
- ② 가난한 마을이지만 사람들로 하여금 호사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경제적 기반이다.
- ③ '어머니'가 결혼 후에 심고 정성을 다해 키워 내어 무성해진 애착의 결실이다.
- ④ 동네 사람들이 마을의 특징에 부합한 별명을 자기 마을에 붙일 때 적용한 단서이다.
- ⑤ '아버지'가 자식을 얻은 기쁨을 이웃과 나눌 생각에 마을 곳곳에 심은 상징적 기념물이다.

30.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집에 대한 정서적 반응은 집의 구조, 주변 환경, 거주 기간 등의 요인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자신이 거주하는 집의 내·외부와 관계를 맺으며 충분한 시간 동안 쌓은 경험들은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대한 정서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주며, 다른 낯선 공간에 대한 정서적 반응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쓰러지는 빛」은 이사할 처지에 놓인 한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 집에 대한 '나'의 정서적 반응을 보여 준다.

- ① '나'가 '천변' 집에 살면서 추억을 형성해 온 시간들은, 이사할 처지에 놓인 현재의 상황을 불편하게 여기는 요인이 될 수 있겠군.
- ② '집을 고치'던 경험을 바탕으로 '구조'가 '천박'한 집의 여건을 살펴보는 것에서, 거주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여 낯선 공간에 친숙해지고자 하는 '나'의 생각을 확인할 수 있겠군.
- ③ '서걱거리는 소리'와 '불규칙한 마찰음'에서 드러나는 집 주변 환경의 차이는, 두 집에 대해 '나'가 느끼는 친밀감의 차이를 유발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겠군.
- ④ '창문'을 '막아 버린' 방은 '채광 통풍조차' 되지 않는 속성으로 인해,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대한 '나'의 정서적 반응과는 다른 정서적 반응을 일으키는 요인이 될 수 있겠군.
- ⑤ '우리들'의 상황이 '잘못 날아든 참새들 같'다고 한 것은, 변화될 거주 여건을 낯설어하는 심리를 비유적으로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겠군.

[31~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23.11

(가)

한여름 채전으로 ㉠가 보아라

수염을 드리운 몇 그루 옥수수에 가지, 고추, 오이, 토란, 그리고 울타리엔 덩불을 이룬 **넉출** 사이로 반질반질 윤기 도는 크고 작은 박이며 호박들!

이 ㉡지극히 범속한 것들은 제각기 타고난 바탕과 생김새로 주어서 아낌없고 반아서 아쉽 없는 황금의 햇빛 속에 일심으로 자라고 영글기에 숨소리도 들릴세라 적적히 여념 없나니

㉢과분하지 말라 의혹하지 말라 주어진 대로를 정성껏 충만 시킴으로써 스스로를 죽할 줄을 알라 오직 여기에 목숨의 유열과 천지와의 화합에 있거니

한여름 채전으로 가 보아라

나비가 심방 오고 풍뎡이가 찾아오고 잠자리가 왔다 가고 바람결에 스쳐 가고 **그늘**이 지나가고 비가 내리고 햇벌이 다시 나고 이같이 ㉣많은 손님들의 극진한 축복과 은혜 속에

이 지극히 범속한 것들의 지극히 충족한 ㉤빛나는 생명의 양상을 한여름 채전으로 와서 보아라

- 유치환, 「채전(菜田)」 -

(나)

우리는 썩어 가는 참나무 때
벌목의 슬픔으로 서 있는 이 땅
패역의 **골짜기**에서

「A」

서로에게 기댄 채 겨울을 난다
함께 썩어 갈수록

「B」

바람은 더 높은 곳에서 우리를 흔들고
이윽고 잠자던 **홀씨**들 일어나

「C」

우리 몸에 뚫렸던 상처마다 버섯이 피어난다
황홀한 **음지**의 꽃이어

「D」

우리는 서서히 썩어 가지만
너는 **소나기**처럼 후드득 피어나

「E」

그 고통을 순간에 멈추게 하는구나
오, 버섯이어

「F」

산비탈에 구르는 낙엽으로도
골짜기를 떠도는 바람으로도

덮을 길 없는 우리의 몸을
뿌리 없는 너의 독기로 채우는구나

「F」

- 나희덕, 「음지의 꽃」 -

3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사물의 모습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중심 제재에 대한 예찬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② 주어진 현실에 순응하는 모습을 통해 중심 제재를 바라보는 비판적 태도를 암시하고 있다.
- ③ 풍경을 관조적으로 응시하는 시선으로 중심 제재의 외적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다.
- ④ 인간의 행위에 대한 우호적 관점을 토대로 중심 제재의 심미적 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⑤ 장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화하여 중심 제재와의 정서적 거리를 부각하고 있다.

32. ㉠~㉤의 시적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을 반복하고 변주하여 ‘채전’에서 겪을 수 있는 경험의 소중함을 느끼게 하려는 화자의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② ㉡을 수식어로 반복하여 ‘범속한 것들’로부터 ‘충족한’ 느낌을 받는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 ③ ㉢에서 부정 명령형을 사용하여 ‘주어진 대로’ ‘죽할 줄을 알’아야 한다는 화자의 인식을 제시하고 있다.
- ④ ㉣에서 사물을 인격화하여 ‘극진한 축복과 은혜’와 대비되는 화자의 시선을 반영하고 있다.
- ⑤ ㉤에서 관념을 시각화하여 ‘목숨의 유열과 천지와의 화합’이 이루어진 대상에 대한 화자의 생각을 표현하고 있다.

33. [A]~[F]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 참나무가 벌목으로 썩어 가는 모습은, [B]에서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의 모습과 순환적 관계를 형성한다.
- ② [B]에서 참나무의 상태에 변화를 가져온 움직임은, [C]에서 버섯이 피어나는 상황과 순차적 관계를 형성한다.
- ③ [C]에서 참나무의 상처에 생명이 생성되는 순간은, [D]에서 나무의 고통이 멈추는 과정과 대립적 관계를 형성한다.
- ④ [D]에서 참나무의 모습에 일어난 변화는, [E]에서 낙엽이나 바람이 치한 상황과 인과적 관계를 형성한다.
- ⑤ [E]에서 참나무의 주변에 존재하는 사물들은, [F]에서 나무를 채워 주는 존재로 제시된 대상과 동질적 관계를 형성한다.

34.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생명 현상을 제재로 삼은 시는 대체로, 생명체들의 풍요로움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하거나, 생명 파괴의 현실을 극복하는 모습을 형상화한다. (가)는 만물의 조화로운 성장과 충만한 생명력에 자족하는 태도를, (나)는 인간의 욕망에 의한 상처와 고통으로 황폐화된 현실을 강인한 생명력이 피어나는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모습을 드러낸다. 이러한 두 양상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생명의 모습에서는 차이를 보이지만, 생명체들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지향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 ① (가)의 ‘한여름’은 생명체들의 풍요로움을 감각적으로 드러내는, (나)의 ‘겨울’은 생명 파괴의 현실을 이겨 내는 시간적 배경으로 설정되어 있군.
- ② (가)의 ‘울타리’는 만물이 함께 살아가는 공간을 드러내는 경계로, (나)의 ‘골짜기’는 인간의 욕망이 투영된 장소로 제시되어 있군.
- ③ (가)의 ‘넉출’은 어우러진 생명체들이 현실의 삶에 자족하게 되는, (나)의 ‘홀씨’는 공존하던 생명체들이 흩어지게 되는 계기를 드러내고 있군.
- ④ (가)의 ‘그늘’은 만물이 성장을 이루어 가는 배경으로서의, (나)의 ‘음지’는 현실의 고통을 극복하는 장소로서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군.
- ⑤ (가)의 ‘비’는 생명의 충만함과 조화로우움을 갖게 하는, (나)의 ‘소나기’는 황폐화된 현실에 생명력을 환기하는 대상으로 표상되어 있군.

[18~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23.09

이때 예부 상서 진량을 황제 가장 총애하시니 진량이 의기양양하고 교만 방자한지라, 정 상서 일찍 진량이 소인인 줄 알고 황제께 간하되 황제 중시 그렇지 않다 하심에, 진량이 이 일을 알고 정 상서를 해하려 하더라. 차시 황제의 탄생일이 되었는데, ㉠ 마침 정 상서 병이 있어 상소하고 참석지 못하였더니 황제 만조백관더러 묻기를,

“정 상서의 병이 어떠하더뇨?”

하시고 사관을 보내려 하시니 진량이 나아가 왈,

“정 상서는 간악한 사람이라 그 병세를 신이 자세히 아옵니다. 상서가 요사이 황제께 조회하는 것이 다르옵고 신이 상서의 집에 가오니 상서의 말이 수상하옵더니 오늘 조회에 불참하오니 반드시 무슨 생각 있는 줄 하나이다.”

황제 대경하여 처벌하려 하시거늘 중관이 아뢰길,

“정 상서의 죄 명백함이 없으니 어찌 벌로 다스리오리까?”

황제 듣지 않고 절강에 귀양을 정하시니 중관이 명을 듣고 정 상서의 집에 나아가 황명을 전하니, 상서 크게 울며,

“내 일찍 국은을 갚을까 하였더니 소인의 참언을 입어 이제 귀양을 가니 어찌 애달프지 않으리오.”

하고 칼을 빼어 서안을 치며 말하기를,

“소인을 없애지 못하고 도리어 해를 입으니 누구를 원망하리오.”

하며 눈물을 흘리니 부인은 애원 통도하고 친척 노복이 다 서러워하더라.

사관이 재촉 왈,

“㉡ 황명이 급하오니 수이 행장 차리소서.”

정 상서가 일변 행장을 준비하여 부인더러 이르기를,

“나는 천만 의외에 귀양 가거니와 부인은 여아를 데리고 조상 제사를 받들어 길이 무탈하소서.”

하고 즉시 발행할새, 모녀 가슴이 막혀 아무 말도 못하더라. 정 상서 여러 날 만에 귀양지에 이르니 절강 만호가 관사를 깨끗이 하고 정 상서를 머물게 하더라.

차설. 정 상서 적거한 후로 슬픔을 머금고 세월을 보내더니 석 달 만에 홀연 득병하여 마침내 세상을 영결하니 절강 만호 슬퍼 놀라 황제께 ㉢ 장계로 보고하고 부인에게 기별하니라. 이때 부인과 정수정이 정 상서를 이별하고 눈물로 세월을 보내더니 일일 문득 시비 고하되,

“절강에서 사람이 왔나이다.”

하거늘 부인이 급히 불러 물으니 답하기를,

“㉣ 정 상서께서 지난달 보름께 별세하셨나이다.”

하는지라. 부인과 정수정 이 말을 듣고 한마디 소리를 내며 혼절하니 시비 등이 창황망조하여 약물로 급히 구함에 오랜 후에야 숨을 내쉬며 눈물이 비 오듯 하더라.

[중략 부분의 줄거리] 남장을 한 정수정은 장원 급제한 뒤 복적을 물리친다. 이후 황제에게 자신이 여성임을 밝히고 정혼자인 장연과 혼인한다. 호왕이 침공하자 정수정은 대원수, 장연은 중군장으로 출전한다.

㉤ 대원수 호왕에 승리하여 황성으로 향할새 강서 지경에 이르러 한복더러 묻기를,

“진량의 귀양지가 여기서 얼마나 되는가?”

“수십 리는 되나이다.”

대원수 분부하되 철기를 거느려 결박하여 오라 하니 한복 등이 듣고 나는 듯이 가 바로 내실로 들어갈새 진량이 대경하여 연고를 묻거늘 한복이 칼을 들어 시종을 베고 군사를 호령하여 진량을 결박하여 본진으로 돌아와 대원수께 고하되, 대원수 이에 진량을 잡아들여 장하에 끌리고 노기 대발하여 부친 모해하던 죄상을 문초하니 진량이 다만 살려 달라 빌거늘, 대원수 무사를 호령하여 빨리 베라 하니 이윽고 무사 진량의 머리를 드리거늘, 대원수 제상을 차려 부친께 제사 지내더라.

황제께 ㉥ 첩서를 올려 승전을 알리고, 중군장 장연을 기주로 보내고 대군을 지휘하여 경사로 향하여 여러 날 만에 췌하에 이르니, 황제 백관을 거느려 대원수를 맞아 치하하시고 좌각로 평복후를 봉하시니 대원수 사은하고 청주로 가니라.

차설. 장연이 기주에 이르러 모친 태부인 뵈옵고 전후사연을 고하되 태부인이 듣고 통분 왈,

“너를 길러 벼슬이 공후에 이르니 기쁨이 측량없던 차에 전쟁터에서 부인에게 옥을 보고 돌아올 줄 어찌 알았으리오.”

장연의 다른 부인들인 원 부인과 공주가 아뢰기를,

“정수정 벼슬이 높으니 능히 제어치 못할 것이요, 저 사람 또한 대의를 알아 삼가 화복할 것이니 이제는 노하지 마소서.”

태부인이 그렇게 여겨 이에 시녀를 정하여 서찰을 주어 청주로 보내니라. 이때 정수정은 전쟁에서 장연 징계한 일로 심사 담당하더니 시비 문득 아뢰되 기주 시녀 왔다 하거늘 불러들여 ㉦ 서찰을 본즉 태부인의 서찰이라. 기뻐 즉시 회답하여 보내고 익일에 행장 차려 갈새, 흥군 취삼으로 봉관 적의에 명월패 차고 수십 시녀를 거느려 성 밖에 나오니, 한복이 정수정을 호위하여 기주에 이르러 태부인에게 예하고 두 부인으로 더불어 예필 좌정함에, 태부인이 지난 일에 조금도 거리낌이 없으니, 정수정 또한 태부인을 지성으로 섬기더라.

- 작자 미상, 「정수정전」 -

18. 앞글의 인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황제’는 자신이 총애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정 상서를 처벌하기로 결심한다.
- ② ‘중관’은 정 상서를 처벌하기에는 그 죄가 분명하지 않음을 황제에게 주장한다.
- ③ ‘정 상서’는 자신이 소인의 참언 때문에 뜻하지 않게 귀양을 가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 ④ ‘한복’은 대원수의 명령에 따라 진량의 귀양지로 가서 그의 죄를 묻고 처벌을 내린다.
- ⑤ ‘원 부인’과 ‘공주’는 정수정이 도리를 지켜 원만하게 지낼 것임을 내세워 태부인을 진정시킨다.

19.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으로 진량에게는 정 상서를 포함할 기회가 생긴다.
 - ② ㉡으로 정 상서는 비보가 전해질 것을 짐작하게 된다.
 - ③ ㉢으로 부인과 정수정은 충격을 받고 정신을 잃게 된다.
 - ④ ㉣로 정수정은 황제로부터 노고에 대한 보답을 받게 된다.
 - ⑤ ㉣으로 정수정은 걱정을 덜며 떠날 준비를 하게 된다.

20. ㉠,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자신의 귀양살이를 보고할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 ② ㉠은 황제와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 ③ ㉡은 호왕과 벌인 전쟁의 결과를 보고할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 ④ ㉡은 황제를 직접 만나 보고하는 것을 피할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 ⑤ ㉠과 ㉡에 담긴 소식은 황제 외의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다.

21.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정수정은 국가적 위기를 해결하는 영웅이자, 부친의 원수를 갚는 효녀이고, 부녀자로서의 덕목을 지녀야 하는 장씨 가문의 여성이다. 정수정은 주어진 상황과 조건에 따라 세 역할 사이에서 갈등하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든 역할에 충실하며 다양한 능력과 덕목을 갖춘 인물로 형상화된다.

- ① '진량의 귀양지가 여기서 얼마나 되는'지 묻는 '대원수'의 발언에서, '진량'을 찾아 부친의 한을 풀어 주려는 '정수정'의 효녀로서의 면모가 드러남을 알 수 있군.
- ② '제상을 차려 부친께 제사 지내'는 '대원수'의 모습에서, '정수정'은 부친의 원수를 갚는 효녀로서의 소임을 수행하여 죽은 부친의 넋을 위로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③ '장연'이 '전쟁터에서 부인에게 육을 보고 돌아'왔다고 통분하는 '태부인'의 모습에서, '태부인'은 '정수정'이 아내의 역할보다 대원수의 역할을 중시한 것에 대해 못마땅해함을 알 수 있군.
- ④ '장연' 징계한 일로 심사 담당한 '정수정'의 모습에서, '정수정'은 군대를 통솔했던 국가적 영웅으로 돌아가고 싶어 함을 알 수 있군.
- ⑤ '한복'의 '호위'를 받으며 기주로 가서 '태부인에게 예'하는 '정수정'의 모습에서, 국가적 영웅의 면모를 유지하는 '정수정'이 며느리로서의 역할도 수행함을 알 수 있군.

[22~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23.09

(가)

아아 아득히 내 첩첩한 산길 왔더니라. 인기척 끊이고 새도 짐승도 있지 않은 한낮 그 **화안한** 골 길을 다만 아득히 나는 머연 생각에 잠기어 왔더니라.

백화(白樺) 앙상한 사이를 바람에 백화같이 불리우며 물소리에 흰 돌 되어 씻기우며 나는 **총총히** 외롭도 있고 왔더니라

살다가 오래여 삭은 장목들 흰 팔 벌리고 서 있고 풍설(風雪)에 깎이어 날선 봉우리 **홀 홀 홀** 창천(蒼天)에 흰 구름 날리며 섰더니라

썩아—한종일내—쉬지 않고 부는 물소리 안은 바람소리 …… **구월** 고운 낙엽은 날리어 푸른 담(潭) 위에 호르르르 낙화 같이 지더니라.

어젯밤 잠자던 동해안 어촌 그 검푸른 밤하늘에 나는 장엄히 뿌리어진 허다한 **바다의 별들**을 보았느니,

이제 나의 이 **오늘밤** 산장에도 얼어붙는 바람 속 우러르는 나의 **하늘에 별들**은 쓸리며 다시 **꽃과 같이 난만(爛漫)하여라.**
- 박두진, 「별 - 금강산시 3」 -

(나)

사람들은 자기들이 길을 만든 줄 알지만
길은 순순히 **사람들의** 뜻을 좇지는 않는다 [A]
사람을 끌고 가다가 문득

벼랑 앞에 세워 **낭패** 시키는가 하면
큰물에 우정 제 허리를 동강 내어 [B]
사람이 부득이 저를 버리게 만들기도 한다

사람들은 이것이 다 사람이 만든 길이
거꾸로 사람들한테 세상 사는 [C]
슬기를 가르치는 거라고 말한다

길이 사람을 밖으로 불러내어
온갖 곳 온갖 사람살이를 구경시키는 것도
세상 사는 **이치**를 가르치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그래서 길의 뜻이 거기 있는 줄로만 알지
길이 사람을 밖에서 안으로 끌고 들어가 [D]
스스로를 깊이 들여다보게 한다는 것은 모른다

길이 밖으로가 아니라 안으로 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만 길은 고분고분해서 [E]
꽃으로 제 몸을 수놓아 향기를 더하기도 하고

그들을 드리워 사람들이 땀을 식히게도 한다
그것을 알고 나서야 **사람들은** 비로소 [F]
자기들이 길을 만들었다고 말하지 않는다

- 신경림, 「길」 -

(다)

고요하니 즐거운 이 밤 초롱초롱 맑게 고인 샘물 같은 눈으로 나는 지금 **당신**께서 보내 주신 맑고 고운 수선화 한 폭을 들여다 봅니다. 들여다보노라니 그윽한 향기와 새파란 꿈이 안개같이 오르고 또 노란 슬픔이 연기같이 오릅니다. 나는 이제 이 긴긴 밤을 당신께 이 **노란 슬픔의 이야기**나 해서 보내도 좋겠습니까.

남쪽 바닷가 어떤 낡은 항구의 처녀 하나를 나는 좋아하였습니다. 머리가 까맣고 눈이 크고 코가 높고 목이 꽤고 키가 호리 낭창하였습니다.

(중략)

어느 해 유월이 저물게 **실비 오는 무더운 밤**에 처음으로 그를 안 나는 여러 아름다운 것에 그를 건주어 보았습니다—당신께서 좋아하시는 산세에도 해오라비에도 또 진달래에도 그리고 산호에도……. 그러나 나는 어리석어서 아름다움이 닮은 것을 골라낼 수 없었습니다.

총명한 내 친구 하나가 그를 비겨서 수선이라고 하였습니다. 그제는 나도 기뻐서 그를 비겨 수선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한 나의 수선이 시들어 갑니다. 그는 스물을 넘지 못하고 또 **가슴의 병**을 얻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만하고 나의 노란 슬픔이 더 떠오르지 않게 나는 당신의 보내 주신 맑고 고운 수선화의 폭을 치워 놓아야 하겠습니까.

밤이 **아직 썩 때가** 멀고 또 복밥을 먹을 때도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나는 어머니의 바느질 그릇이 있는 데로 가서 무새 **헝겂**이나 언어다가 알록달록한 각지나 만들면서 **이 남은 밤**을 당신께서 좋아하실 내 시골 **육보름*** 밤의 이야기나 해서 보내도 좋겠습니까.

육보름으로 넘어서는 밤은 집집이 인간으로 사랑으로 옷간 에도 만웃간에도 다락방에도 허텅에도 고방에도 부엌에도 대문 간에도 외양간에도 모두 짜뚫하니 불을 켜 놓고 복을 맞이하는 밤입니다. 달 밝은 마을의 행길 어데로는 **복덩이가 돌아다닐 것도 같은** 밤입니다. 닭이 수잠을 자고 개가 밤물을 먹고 도야지 깃을 들썩이는 밤입니다. **새악시 처녀**들은 새 옷을 입고 복물을 길는다고 별을 건너기도 하고 고개를 넘기도 하여 부작집 우물로 가서 반동이에 웅푼기에 찰락찰락 물을 길어 오며 별 같은 이야기를 **자갈자갈** 하는 밤입니다. 새악시 처녀들은 또 복을 가져 오노라고 달을 보고 옷어 가며 살행이같이 여우같이 **부작집**으로 가서는 날째기도 하게 기왓골의 **기왓장을 벗겨 오고** 부엌의 솔뚜껑을 들어 오고 곱새담의 질날을 뽑아 오고……. 이렇게 **허물없는 즐거움** 속에 **끼득끼득** 하는 그들은 산에서 내린 무순 암짐승이 되어 버리는 밤입니다.

- 백석, 「편지」 -

* 육보름: 정월 대보름 다음날.

22.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빗대어 표현하는 방식으로 대상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② 과거를 회상하는 방식으로 현재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 ③ 엉뚱적인 어조로 대상에서 촉발된 인상을 표현하고 있다.
- ④ 예스러운 종결 표현으로 고풍스러운 느낌을 자아내고 있다.
- ⑤ 계절감을 드러내는 표현으로 시간의 경과를 보여 주고 있다.

23.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가)에서 화자는 금강산으로 가는 길에서 만난 자연의 모습을 자신의 내면에 투영하여 형상화하고 있다. 자연의 외적 모습을 바라보는 데 그치지 않고 주관적 대상으로 묘사하여, 화자와 자연의 정서적 교감을 드러낸다.

(나)에서 화자는 길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자신의 관점에만 치우쳐 있어서 내면의 길을 찾지 못하고 있음을 일깨우고 있다. '뱃'과 '안'을 대비하여 내적 성찰의 중요성을 이끌어 내는 길의 상징적 의미를 진술함으로써, 길에 대해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어 가는 과정을 보여 준다.

- ① (가)는 '화안한 골 길'과 '백화 앙상한 사이'를 통해, 화자가 여정 속에서 만난 자연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군.
- ② (가)는 '바다의 별들'과 '하늘에 별들'을 통해, 화자의 내면에 투영된 자연에 대한 주관적 인상을 형상화하고 있군.
- ③ (나)는 '벼랑 앞에서' '낭패'를 겪는 사람들의 상황을 보여 줌으로써, 자신의 관점으로만 길을 이해한 사람들을 일깨우려 하고 있군.
- ④ (나)는 '세상 사는 이치'에서, 내면의 길을 찾아내어 내적 성찰을 이끌어 낸 사람들의 생각을 담아내고 있군.
- ⑤ (가)는 '꽃과 같이 난만하여라'에서, (나)는 '꽃으로 제 몸을 수놓아 향기를 더하기도 하고'에서, 대상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인 태도를 엿볼 수 있군.

24. (가), (다)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의 '구월'은 화자의 고뇌가 심화되는 시간으로 볼 수 있다.
- ② (다)의 '고요하니 즐거운 이 밤'은 '당신'과의 재회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는 시간으로 볼 수 있다.
- ③ (가)의 '어젯밤'은 화자가, (다)의 '복덩이가 돌아다닐 것도 같은 밤'은 글쓴이가 고독감을 느끼는 시간으로 볼 수 있다.
- ④ (가)의 '오늘밤'은 화자가 고향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는, (다)의 '실비 오는 무더운 밤'은 글쓴이가 지난날을 후회하는 계기로 볼 수 있다.
- ⑤ (가)의 '인기척 끊긴 '한낮'은 화자가 생각에 잠길 만한, (다)의 '아직 썰 때가' 먼 '이 남은 밤'은 글쓴이가 이야기를 계속할 만한 시간으로 볼 수 있다.

25. (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1연에서 '아득히', '왔더니라'를 반복하여, '침침한 산길'과 '머연 생각에 잠기'는 화자의 내면을 조응시키고 있다.
- ② 2연의 '물소리에 흰 돌 되어 씻기우며'에서, 자연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③ 3연의 '오래여 삭은 장목들'과 '풍설에 깎이어 날신 봉우리'를 통해, 자연의 유구함에서 풍기는 분위기를 표상하고 있다.
- ④ 3연의 '홀 홀 홀', 4연의 '쌌아', '호르르르'와 같은 표현으로, 자연의 풍경을 생동감 있게 형상화하고 있다.
- ⑤ 5연의 '동해안'과 6연의 '산장'이라는 공간의 대조를 통해, 장소의 이동에 따른 화자의 태도 변화를 부각하고 있다.

26. [A]~[F]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서 '길'이 '사람들의 뜻'을 좇지 않는다는 진술의 구체적인 양상을 [B]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② [B]에서의 경험을 [C]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수용하는지를 밝히고 있다.
- ③ [C]의 '사람들이' 미처 깨닫지 못한 바가 무엇인지를 [D]에서 밝히고 있다.
- ④ [E]와 같이 제 뜻을 굽혀 '사람'에게 복종하는 '길'의 모습은 [B]와 대비되고 있다.
- ⑤ [F]에서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의 태도는 [A]의 '사람들'의 태도와 대비되고 있다.

27. <보기>를 참고하여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당신'에게 쓰는 편지 형식의 이 수필에서 글쓴이는 개인적 경험과 공동체적 경험으로 대비되는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 준다. 수선화에서 연상된 이야기가 글쓴이에게 슬픔을 환기하는 기억이라면, 고향의 풍속 이야기는 일탈이 용인되는 유쾌한 축제로 그려진다. 이를 통해 독자는 슬픔과 즐거움이 라는 삶의 양면성을 경험하게 된다.

- ① 글쓴이가 '당신'에게 말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 독자는 자신이 편지의 수신인이 된 것처럼 친근함을 느낄 수 있겠군.
- ② '노란 슬픔의 이야기'는 '가슴의 병'을 얻은 여인과 관련된 개인적 경험으로 볼 수 있겠군.
- ③ '육보름'에 대한 '당신'과 글쓴이의 경험을 대비한 것은 삶의 양면성을 보여 주려는 의도로 볼 수 있겠군.
- ④ '부잣집'의 '기왓장을 벗겨 오'는 '새악시 처녀들'의 행동은 축제 같은 분위기 속에 일시적으로 용인된 것이겠군.
- ⑤ '자갈자갈', '끼득끼득'과 같은 음성 상징어에서 '새악시 처녀들'의 '허물없는 즐거움'과 쾌감을 느낄 수 있겠군.

[28~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23.09

그런 일이 있는 지 한 달쯤 지나니 내 겨드랑에 생긴 이변의 전모가 대강 드러났다. 파마늘은 어김없이 밤 12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 솟구친다는 것. 방에 있으면 쭈시고 밖에 나가면 췌는 듯하다는 것. 까닭은 전혀 알 길이 없다는 것 등이었다. 의사는 나에게 전혀 이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시간에는 내 겨드랑은 멀쩡했기 때문이다. 그때부터 나의 괴로움은 비롯되었다. 파마늘은 전혀 불규칙한 사이를 두고 튀어나왔다. 연이틀을 쭈시는가 하면 한 일주일 소식을 끊고 하는 것이었다. 하루 이틀이지 이렇게 줄곧 밖에서 새운다는 것은 못 할 일이었다. 나는 제집이면서 꼭 도적놈처럼 뜰의 어느 구석에 숨어서 밤을 지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런 생활이 두 달째에 접어들었을 때 나는 견디다 못해서 담을 넘어서 밖으로 나가 보았다. 그랬더니 참으로 이상한 일도 다 있었다. 뜰에 나와 있어도 가끔 뜨끔거리고 손을 대 보면 미열이 있던 것이 거리를 거닐게 되면서는 아주 깨끗이 편한 상태가 되었다. 이렇게 되면서 독자들은 곧 짐작이 갔겠지만, 문제가 생겼다. 내가 의료적인 이유로 산책을 강요당하게 되는 시간이 행정상의 **통행 제한**의 시간과 우연하게도 겹치는 점이었다. 고민했다. 나는 부르주아의 썩은 미덕을 가지고 있었다. 관청에서 정하는 규칙은 따라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12시부터 4시까지 모든 **시민**은 밖에 나타나지 말기로 되어 있다. 모든 사람이 받아들이는 규칙이니까 **페어플레이**를 지키는 사람이면 이것은 소형(小型)의 도적놈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도적놈을 지키는 한 내 겨드랑은 요절이 나고 나는 죽을지도 모른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 '나'는 겨드랑이에 파마늘 같은 것이 돋으면 밤거리를 몰래 산책하곤 한다. '나'는 밤 산책 중 종종 다른 사람들과 마주친다.

오늘은 경관을 만났다. 나는 얼른 몸을 숨겼다. 그는 부산하게 내 앞을 지나갔다. 그 순간 나는 내가 레닌*인 것을, 안중근인 것을, 김구인 것을, 아무튼 그런 인물임을 실감한 것이다. 그가 지나간 다음에도 나는 ㉠ **은신처**에서 나오지 않았다. 공화국의 시민이 어찌하여 그런 엄청난 변모를 할 수 있었는지 모를 일이다. 나는 정치적으로 백치나 다름없는 감각을 가진 사람이다. 위에서 레닌과 김구를 같은 유(類)에 놓은 것만 가지고도 알 만한 것이다. 그런데 경관이 지나가는 순간에 내가 **혁명가**였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혁명가라고 자꾸 하는 것이 안 좋으면 **간첩**이라도 좋다. 나는 그 순간 분명히 간첩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내가 간첩이 아닌 것은 역시 분명하였다. 도적놈이래도 그렇다. 나는 분명히 도적놈이었으나 분명히 도적놈은 아니었다. 나는 아주 회미하게나마 혁명가, 간첩, 도적놈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알 만해지는 듯싶었다. 이 맛을 못 잊는 것이구나 하고 나는 생각하였다. 나도 물론 처음에는 치료라는 순전히 **공리적인** 이유로 이 산책에 나섰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다. 설사 내 겨드랑의 달같이 영원히 가 버린다 하더라도 이 금지된 산책을 그만둘 수 있을지는 심히 의심스럽다. 나의 산책의 성격은 **변질**되기 시작하였다. 누룩 반죽처럼.

기적(奇蹟). 기적. 경악. 공포. 웃음. 오늘 세상에도 희한한 일이 내 몸에 일어났다. 한강 근처를 산책하고 있는데 겨드랑이 간질간질해 왔다. 나는 속옷 사이로 더듬어 보았다. 털이 만져졌다. 그런데 닿임새가 심상치 않았다. 털이 괜히 뻗뻗하고 잘 묶여 있는 느낌이다. 빗자루처럼. 잘 만져 본다. 아무래도 보통이 아니다. 나는 ㉡ **바위**틀에 몸을 숨기고 윗옷을 벗었다. 속옷은 벗지 않고 들치고는 겨드랑을 들여다보았다. 나는 실소하고 말았다. 내 겨드랑에는 새끼 까마귀의 그것만 한 아주 치사하게 쪼끄만 **날개**가 돋아나 있었다. 다른 쪽 겨드랑을 또 들여다보았다. 나는 쿡 웃어 버렸다. 그쪽에도 장난감 몽당빗자루만 한 것이 달려 있는 것이었다. 날개가 보통 새들의 것과 다른 점이 그것털이 곱슬곱슬한 고수머리라는 것뿐이었다. 흙. 이놈이 나오려는 아픔이었구나 하고 나는 생각했다. 나는 그 날개를 움직이려고 해 보았다. **깃바퀴**가 말을 안 듣는 것처럼 그놈도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참말 부끄러워졌다.

- 최인훈, 「크리스마스 캐럴 5」 -

* 레닌: 러시아의 혁명가.

28.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간의 순서를 뒤바꾸어 이야기의 인과 관계를 재구성하고 있다.
- ② 유사한 사건을 반복해서 제시하며 서술의 초점을 분산시키고 있다.
- ③ 장면에 따라 서술자를 달리하여 사건의 의미를 입체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 ④ 공간의 이동에 따른 인물의 경험을 다른 인물의 시선을 통해 서술하고 있다.
- ⑤ 사건에 대한 중심인물의 내적 반응을 중심인물 자신의 목소리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29.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의사'가 '나'의 증상을 진단하지 못한 것은 '나'의 증상이 '의사' 앞에서는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 ② '나'는 자신의 집에서 '도적놈'과 비슷한 방식으로 행동하곤 했다.
- ③ '뜰'에서의 '나'의 고통은 '방'에서보다는 덜하지만 완전히 사라지는 않는다.
- ④ '나'는 '시민'이 정한 규칙을 준수해야 하는 '페어플레이'를 지키지 못하게 되어 고민한다.
- ⑤ '혁명가'와 '간첩'은 '나'가 자신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 자신과 비교해 보는 대상이다.

30.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정신적 안정을, ㉡은 신체적 회복을 위한 공간이다.
- ② ㉠은 윤리적인, ㉡은 정치적인 이유로 몸을 숨기는 공간이다.
- ③ ㉠은 ㉡과 달리, 타인의 출현으로 인해 몸을 감춘 공간이다.
- ④ ㉡은 ㉠과 달리,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이다.
- ⑤ ㉠과 ㉡은 모두, 과거의 자신을 긍정하는 공간이다.

31.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크리스마스 캐럴 5」는 자유가 억압된 시대적 상황에서 자유의 가능성과 한계를 묻는 작품이다. ‘나’의 거드랑이에 돋은 정체불명의 파마늘이 주는 통증은 자유에 대한 요구를, 그로 인한 밤 ‘산책’은 자유를 위한 실천을 의미한다. 작품은 처음에는 명료하지 않고 미약했던 자유를 향한 의지가 밤 산책을 거듭하면서 심화되는 모습과 함께 그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을 드러낸다.

- ① ‘통행 제한’으로 인해 산책의 자유가 제한된 상황은, 단순히 이동의 자유에 대한 억압만이 아니라 자유가 억압되는 시대적 상황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라고 할 수 있겠군.
- ② ‘파마늘’이 돋을 때의 극심한 통증은, 자유가 그만큼 절박하게 요구되었던 상황을 보여 주는 동시에 자유를 얻기 위해 필요한 고통을 암시하기도 하겠군.
- ③ ‘공리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산책이 점차 ‘누룩 반죽’처럼 ‘변질’되었다는 표현은, 자유의 필요성이 망각되어 자유를 위한 실천의 목적이 훼손되는 문제점에 대한 비판이겠군.
- ④ 정체불명의 파마늘이 ‘날개’의 형상으로 바뀐 것은, 처음에는 명료하지 않았던 자유를 향한 의지가 산책을 통해 심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겠군.
- ⑤ ‘날개’가 ‘콧바퀴’ 같다는 점에 대해 ‘나’가 느낀 부끄러움은, 여러 차례의 산책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의지대로 실현하기 어려웠던 한계에 대한 인식으로 볼 수 있겠군.

[32~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23.09

(가)

이 중에 시름없으니 어부(漁父)의 생애로다
일엽편주를 만경파(萬頃波)에 띄워 두고
인세(人世)를 다 잊었거니 날 가는 줄을 아는가 <제1수>

굽어보면 천심 녹수 돌아보니 만첩 청산
십장 홍진(十丈紅塵)이 얼마나 가렸는가 [A]
강호에 월백(月白)하거든 더욱 무심(無心)하여라] <제2수>

청하(靑荷)에 밤을 싸고 녹류(綠柳)에 고기 꿰어
노적 화총(蘆荻花叢)에 배 매어 두고
일반 청의미(一般淸意味)를 어느 분이 아실까 <제3수>

㉠ 산두(山頭)에 한운(閑雲) 일고 수중(水中)에 백구(白鷗) 난다
무심코 다정한 것 이 두 것이로다
㉡ 일생에 시름을 잊고 너를 좇아 놀리라 <제4수>
- 이현보, 「어부단가」 -

(나)

때마침 부는 추풍(秋風) 반갑게도 보이도다
말술이 다나 쓰나 술병 메고 벗을 불러
언덕 너머 어촌에 내 놀이 가자꾸나
흰 두건을 걸쳐 쓰고 소정(小艇)을 타고 오니
㉢ 바람에 떨어진 갈대꽃 갠 하늘에 눈이 되어
석양에 높이 날아 어지러이 뿌리는데
갈잎에 닳 내리고 그물로
잔잔한 강물 속 자린은순(紫鱗銀鬚)* 수없이 잡아내어
연잎에 담은 회와 향아리에 채운 술을
실컷 먹은 후에
태기 넓은 돌에 높이 베고 누웠으니
희황천지(羲皇天地)*를 오늘 다시 보는가
잠시 잠들어 뱃노래에 깨어 보니
추월(秋月)이 만강(滿江)하여 밤빛을 잃었거늘
반쯤 취해 시 읊으며 배 위로 건너오니
강물 아래 잠긴 달은 또 어인 달인 게오 [B]
달 위에 배를 타고 달 아래 앉았으니
문득 의심은 월궁(月宮)에 올랐는 듯
물외(物外)의 기이한 경관 넘치도록 보이도다
청경(淸景)을 다투면 내 분에 두라마는
즐거도 말리는 이 없으니 나만 둔가 여기노라
놀기를 탐하여 돌아갈 줄 잊었도다
㉣ 아이야 닳 들어라 만조(晩潮)에 띄워 가자
푸른 물풀 위로 강풍(江風)이 짐짓 일어
귀범(歸帆)을 재촉하는 듯
아득하던 앞산이 뒷산처럼 보이도다
잠깐 사이 날개 돌아 연잎배 탄 신선된 듯

연파(烟波)를 헤치고 월중(月中)에 돌아오니
㉤ 동파(東坡) 적벽유(赤壁遊)*인들 이내 흥(興)에 미치겠는가
강호 흥미(興味)는 나만 둔가 여기노라
- 박인로, 「소유정가」 -

* 자린은순: 물고기를 아름답게 표현하는 말.
* 희황천지:伏羲氏(伏羲氏) 때의 태평스러운 세상.
* 동파 적벽유: 중국 송나라 때 소식(蘇軾)이 적벽에서 했던 뱃놀이.

32.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대구를 통해 자연 경물의 모습을 제시함으로써 한적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② ㉡은 자연 경물을 ‘너’로 지칭하여 관계를 맺음으로써 이들과 동화하려는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
- ③ ㉢은 자연 경물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물가의 아름다운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
- ④ ㉣은 명령형 어미를 사용하여 ‘아이’가 해야 할 행동을 제시함으로써 자연 경물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 ⑤ ㉤은 유사한 놀이를 즐겼던 과거 인물과 비교함으로써 화자의 자긍심을 드러내고 있다.

33. [A],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 화자는 달을 절대적 존재로 인식하고 강호 자연에서 ‘무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원하고 있다.
- ② [A]에서 화자는 달에 인격을 부여하여 ‘녹수’와 ‘청산’으로 둘러싸인 강호 자연의 가을 달밤 정경을 묘사하고 있다.
- ③ [B]에서 화자는 하늘의 달과 강물에 비친 달 사이에 놓임으로써 ‘월궁’에 오른 듯한 신비로움을 표현하고 있다.
- ④ [B]에서 화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모양을 달리 하는 달의 특성을 활용하여 계절의 변화를 다채롭게 나타내고 있다.
- ⑤ [A]와 [B]에서 강호 자연에 은거한 화자는 달을 대화 상대 이면서 동시에 위안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

34.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어부’는 정치 현실과 거리를 둔 은자로 형상화된다. 이때 ‘어부 형상’은 어부 관련 소재, 행위, 정서 등의 어부 모티프와 연관하여 작품별로 공통적인 속성을 가지면서 다양한 변주를 보인다. (가)는 어부와 관련된 상황의 일부를 초점화하여 유유자적한 삶을 사는 어부를, (나)는 어부와 관련된 여러 상황을 이어 가며 흥취 있는 삶을 사는 어부를 형상화하고 있다.

- ① (가)의 ‘어부’는 ‘십장 흥진’으로 표현된 정치 현실에서 벗어나 뱃놀이를 즐기며 ‘인세’의 근심과 시름을 다 잊고 한가로움을 추구하려고 하는군.
- ② (나)의 ‘추풍’은 뱃놀이의 흥취를 북돋우는 자연 현상이고, ‘강풍’은 흥취의 대상을 강에서 산으로 옮겨 가는 자연 현상이라 볼 수 있군.
- ③ (가)의 ‘일엽편주’와 (나)의 ‘소정’은 화자가 소박한 뱃놀이를 즐기고 있다는 것을 알려 주는 어부 형상 관련 소재라고 할 수 있군.
- ④ (가)의 ‘늑류에 고기 께어’에는 어부의 삶과 관련된 일부 행위를 통해 유유자적한 삶이, (나)의 ‘그물로’, ‘수없이 잡아 내어’, ‘실컷 먹은’에는 뱃놀이의 여러 상황들이 연결되어 흥취를 즐기는 삶이 나타나고 있군.
- ⑤ (가)의 ‘어부’는 강호 자연의 삶 속에서 홀로 자족감을 표출하고 있고, (나)의 어부는 벗들과 함께한 흥겨운 뱃놀이를 통해 만족감을 표출하고 있군.

[18~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23.06

상서의 셋째 부인 여씨는 둘째 부인 석씨의 행실과 마음 씀이 매사 뛰어남을 보고 마음속에 불평하여 생각하되, ‘이 사람이 있으면 내게 상서의 총애가 오지 않으리라.’ 하여 좋은 마음이 없더라. 날이 늦어져 모임이 흩어진 후 상서의 서모(庶母) 석파가 청운당에 오니 여씨가 말하길,

“석 부인은 실로 적강선녀라. 상공의 총애가 가볍지 않으리도다.” 석파가 취해 실언함을 깨닫지 못하고 왈,
“석 부인은 비단 얼굴뿐 아니라 덕행을 겸비하여 시모이신 양 부인이 더욱 사랑하시나이다.”

이때 석씨가 석파를 칭하자 석파가 벽운당에 이르러 웃고 왈,
“나를 불러 무엇 하려 하느냐? 내 석 부인이 받는 총애를 여 부인에게 자랑하였나이다.”

석씨가 내키지 않아 하며 당부하되,

“㉠ 후일은 그런 말을 마소서.”

하니, 석파 웃더라.

여씨의 거동이 점점 아름답지 않으나 양 부인과 상서는 내색하지 않더라. 일일은 상서가 문안 후 청운당에 가니 여씨 없고, 녹운당에 이르니 희미한 달빛 아래 여씨가 난간에 었드려 화씨의 방을 엿듣는지라, 도로 청운당에 와 시녀로 하여금 청하니 여씨가 급히 돌아오니 상서가 정색하고 문 왈,

“부인은 깊은 밤에 어디 갔더뇨?”

여씨 답 왈,

“㉡ 문안 후 소 부인의 운취각에 갔더이다.”

상서는 본래 사람을 지극한 도로 가르치는지라 책망하며 왈,
“부인이 여자의 행실을 전혀 모르는지라. 무릇 여자의 행세 하나하나 몹시 어려운지라. 어찌 깊은 밤에 분주히 다니리오? 더욱이 다른 부인의 방을 엿듣음은 금수의 행동이라 전일 말한 사람이 있어도 전혀 믿지 않았더니 내 눈에 세 번 띄니 비로소 그 말이 사실임을 알지라. 부인은 다시 이 행동을 말고 과실을 고쳐 나와 함께 늙어갈 일을 생각할지이다.”

하며 기세가 엄숙하니, 여씨가 크게 부끄러워하더라.

이후 여씨 밤낮으로 생각하더니, 문득 옛날 강중이란 자가 저주로써 한 무제와 여 태자를 이간했던 일을 떠올리고, 저주의 말을 꾸며 취성전을 범하니 일이 치밀한지라 뉘 능히 알리오?

일일은 취성전에서 양 부인이 일찍 일어나 앉았으나 석씨가 마침 병이 나서 문안에 불참하매 시녀 계성에게 청소시키니, 계성이 짐짓 침상 아래를 쓸다가 갑자기 봉한 것을 얻어 내며,
“알지 못하겠도다. 누가 잃은 것이고? 필연 동료 중 잃은 것이니 임자를 찾아 주리라.”

하고 스스로 혼잣말 하거늘 부인이 수상히 여겨 가져오라 하여 풀어 보니, 그 끝에 품은 한이 흉악하여 차마 보지 못할 바이더라. 필적이 산뜻하니 완전히 석씨의 것이라 크게 괴히 여겨 다시 보니 그 언사의 흉함이 차마 바로 보지 못할지라. 양 부인이 불을 가져다가 사르고 시녀들을 당부하여 왈,
“너희들이 이 일을 누설한즉 죽을죄를 당하리라.”

좌우 시녀 듣고 송구하여 입을 봉하되, 홀로 계성은 누설치 못함을 조급해하고 양 부인은 이후 석씨와 자녀를 보나 내색하지 않더라.

[중략 부분의 줄거리] 석씨가 쫓겨난 후, 첫째 부인 화씨를 모함하려고 여씨가 여의개옹단을 먹고 화씨로 둔갑해 나타나자, 상서는 친누나 소씨, 의남매 윤씨, 석파를 불러 모아 함께 실상을 밝히려 여씨의 심복을 찾는다.

시녀가 여씨 심복 미양을 가리켜 아뢰니, 상서가 미양을 잡아 내어 엄하게 조사하더라. 미양이 혼비백산하여 사실대로 고하고 두 가지 약을 내어 드리니, 소씨 등이 다투어 보고 웃되, 상서는 홀로 눈을 들어 보지 않으니 사악한 빛을 보지 않으려 함이라. 석파가 그중 회면단을 물에 풀어 두 화씨에게 나누어 주니 진짜 화씨 노기 가득하여 먹고 왈,

“약을 먹더라도 부모님 남긴 몸이 달리 되랴? 네 굳이 내 얼굴이 되고자 하니, 이 무슨 괴이한 생각으로 쾌약을 떨려 하느냐?” 상서 왈,

“어지럽게 굴지 말라.”

진짜 화씨는 회면단을 마시되 용모 변치 않더라. 상서가 또 여씨에게 권하니, 여씨 먹지 않거늘 윤씨 웃고 왈,

“아니 먹는 죄 의심되도다.”

소씨 나아가 우김질로 들이붓더라. 여씨가 마지못하여 먹으니 화씨 변하여 여씨 되는지라. 좌우 사람들이 박장대소하더라. 상서 바야흐로 단정히 고쳐 앉으며 왈,

“군자 있는 곳에는 요사스러운 일이 없거늘 이 아우가 어질지 못하여 집안에 이런 변이 있으니 대장부 되어 자녀를 거느리지 못하여 이런 행동거지 있으니 어찌 부끄럽지 않으리오. 석씨를 모함함도 여씨의 일이니 누님은 따져 물으소서.”

석파가 먼저 나서며 미양을 붙들고 물으니 미양이 당초부터 여씨가 계교를 꾸뻤던 일들을 낱낱이 말하더라. 소씨, 윤씨 두 사람이 웃으며 왈,

“이제 보건대, 당초 우리 의심이 그르지 않았도다.”

석파가 몹시 좋아해 뛰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여씨는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하여 움직이지 못하고, 화씨는 꾸짖기를 마지않더라. 날이 새어 취성전에 들어가 어젯밤 일을 일일이 아뢰더라. 양 부인이 놀라고 여씨를 불러 마루 아래에 꿇리고 벌주니 가장 엄숙하여 언어 명백하며 들음에 모퉁이 송연하더라. 이에 여씨를 내치고 계성과 미양 등을 엄히 다스리고 집안을 평정하더라.

- 작자 미상, 「소현성록」 -

18.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배경 묘사를 통해 인물의 성격 변화를 암시하고 있다.
- ② 독백을 반복하여 내적 갈등의 해결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③ 과거와 현재를 교차하여 사건을 입체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 ④ 한 인물과 다른 인물들 간의 다면적 갈등 관계를 제시하고 있다.
- ⑤ 두 공간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을 병렬적으로 배치하고 있다.

19.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석파는 집안사람들과 교류하며 집안일에 관여한다.
- ② 상서는 남의 말의 진위를 직접 확인하여 판단한다.
- ③ 여씨는 상서의 책망에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 ④ 양 부인은 권위를 지니고 가족과 시녀들을 통솔한다.
- ⑤ 소씨는 여씨를 압박하여 의혹을 해소하려 한다.

20. 맥락을 고려하여 ㉠과 ㉡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석파의 독신을 질책하는 말이고, ㉡은 상서의 오해를 증폭시키는 말이다.
- ② ㉠은 석파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말이고, ㉡은 상서를 위협에 빠뜨리기 위한 말이다.
- ③ ㉠은 석파에 대한 호의를 표현하는 말이고, ㉡은 상서에 대한 불신을 표현하는 말이다.
- ④ ㉠은 석파의 경솔함을 염려하는 말이고, ㉡은 상서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한 말이다.
- ⑤ ㉠은 석파에게 얻은 정보를 불신하는 말이고, ㉡은 상서가 가진 정보를 몰라서 하는 말이다.

21.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음모 모티프는 인물이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음모를 실행하는 이야기 단위이다. 음모의 진행 과정에 환상적 요소가 사용되기도 하고 조력자가 등장해 음모자를 돕기도 한다. 음모가 실행되면서 서사적 긴장이 고조되는데, 음모자의 욕망 실현이 지연되면 서사적 긴장은 일시적으로 이완된다. 이때 음모자가 또 다른 음모를 꾸미나 결국 음모의 실체가 드러나며 죄상에 따라 처벌된다.

- ① 여씨가 자신을 석씨와 견주고 양 부인과 석씨를 ‘이간’하려는 데서, 석씨와의 경쟁 관계를 의식한 여씨의 욕망에서 음모가 비롯됨을 알 수 있군.
- ② 여씨가 꾸민 ‘봉한 것’이 계성을 통해 양 부인에게 건네진데서, 상하 관계에 있는 음모자와 조력자에 의해 서사적 긴장이 고조됨을 알 수 있군.
- ③ ‘그 글’이 불살라지고 시녀들의 누설이 금지된 데서, 양 부인에 의해 음모의 실행이 저지되어 서사적 긴장이 일시적으로 이완됨을 알 수 있군.
- ④ ‘회면단’을 먹고 여씨가 본래 모습으로 돌아오는 데서, 음모자가 욕망의 실현을 위해 준비한 환상적 요소가 음모의 실체를 드러내는 도구로 작용함을 알 수 있군.
- ⑤ 상서는 ‘금수의 행동’을 한 여씨를 교화하려 했지만 양 부인은 ‘어젯밤 일’로 여씨를 내친 데서, 처벌 방법을 두고 대립이 있음을 알 수 있군.

[22~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23.06

(가)

강호에 봄이 드니 이 몸이 일이 많다
나는 그물 낚고 아이는 밭을 가니
뒷 피에 얹기는 약을 언제 캐려 하나니 <제1수>

삿갓에 도롱이 입고 세우(細雨) 중에 호미 메고
산전을 흘메다가 녹음에 누웠으니
목동이 우양을 몰아다가 잠든 나를 깨와다 <제2수>

대추 불 붉은 골에 밤은 어이 떨어지며
벼 벤 그루에 게는 어이 내리르고
술 익자 체 장수 돌아가니 아니 먹고 어이리 <제3수>

피에는 새 다 긁고 들에는 갈 이 없다
외로운 배에 삿갓 쓴 저 늙은이
남대에 맛이 깊도다 눈 깊은 줄 아는가 <제4수>
- 황희, 「사시가」 -

(나)

건곤이 얼어붙어 삭풍이 몹시 부니
하루 켜다 한들 열흘 추위 어찌할꼬
은침을 빼내어 오색실 꿰어 놓고
임의 터진 옷을 입고자 하건마는
㉠ 천문구중(天門九重)에 갈 길이 아득하니
아녀자 깊은 정을 임이 언제 살피실꼬
㉡ 음력 선달 거의로다 새봄이면 늦으리라
동짓날 자정이 지난밤에 돌아오니
만호천문(萬戶千門)이 차례로 연다 하되
자물쇠를 굳게 잠가 동방(洞房)을 닫았으니
눈 위에 서리는 얼마나 녹았으며
뜰 거의 매화는 몇 송이 피었는고
㉢ 간장이 다 썩어 넘조차 그쳤으니
천 줄기 원루(怨淚)는 피 되어 솟아나고
반벽청등(半壁靑燈)은 빛조차 어두워라
황금이 많으면 매부(買贓)나 하련마는
㉣ 백일(白日)이 무정하니 뒤집힌 동이에 비칠쏘나
평생에 쌓은 죄는 다 나의 탓이로되
언어에 공교 없고 눈치 몰라 다닌 일을
풀어서 헤여 보고 다시금 생각거든
조물주의 처분을 누구에게 물으리오
사창 매화 달에 가는 한숨 다시 짓고
㉤ 은쟁(銀箏)을 꺼내어 원곡(怨曲)을 슬피 타니
주현(朱絃) 끊어져 다시 잇기 어려워라
차라리 죽어서 자규의 닢이 되어
밤마다 이화에 피눈물 울어 내어
오경에 잔월(殘月)을 섞어 임의 잠을 깨우리라
- 조우인, 「자도사」 -

(다)

그 집은 그 집 아이들에게 작은 우주였다. 그곳에는 많은 비밀이 있었다. 자연 속에는 눈에 보이는 것 말고도 눈에 보이지 않는 무한한 비밀이 감춰져 있었다. 그는 그 집에서 크면서 자연 속에 감춰진 **비밀들**을 깨달아 갔다.

석양의 북새, 혹은 낮게 깔리는 굴뚝 연기를 보고 그는 비설 거지를 했다. 그런 다음 날은 틀림없이 비가 올 것이므로. 비가 온 날 저녁에는 또 지렁이가 밤새 운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똑똑르 똑똑르 하는 지렁이 울음소리. 냄새와 소리와 맛과 색깔과 형태 들이 그 집에서는 선명했다. 모든 것들이 말이다. 왜냐하면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과 아침과 낮과 저녁과 밤이 그 집에서는 뚜렷했으므로. 자연이 그러한 것처럼 사람들의 삶이 명료했다.

이제 그 집을 떠난 그에게는 모든 것이 불분명하다. 아침과 저녁이 불분명하고 사계절이 불분명하고 오감이 불분명하다. 병원에서 태어나 수십 군데 이사를 다니고 나서 겨우 장만한 아파트. 그 사각진 콘크리트 벽 속에 살고 있는 그의 아이는 여름에 긴팔 옷을 입고 겨울에 반팔 옷을 입는다.

돈은 은행에서 나고 먹을 것은 슈퍼에서 나는 것으로 아는 아이는, 수박이 어느 계절의 과일인지 분간하지 못하는 아이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알지 못한다. 아침 저녁의 냄새와 소리와 맛과 형태와 색깔이 어떻게 다른지 알지 못한다.

어머니의 부음을 듣고 그는 그가 나고 성장한 그 노란 집으로 갔다. 팔 남매를 낳고 기르느라 조그마해질 대로 조그마해진 어머니는 바로 자신의 아이들을 낳았던 그 자리에 자신의 몸을 부려 놓고 있었다.

그 집, 노란 그 집에 탄생과 죽음이 있었다. 그 집 안주인의 죽음 이후 그 집은 적막해졌다. 아무도 그 집에 들어와 살지 않을 것이며 누구도 아이를 그 집에서 낳지 않을 것이며 그러므로 죽음 또한 그 집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 집의 역사는 그렇게 끝이 난 것이다.

우리들의 어머니의 죽음과 함께 조왕신과 성주신이 살지 않는 우리들의 집은 이제 적막하다. 더 이상의 탄생과 죽음이 없는 우리들의 집은 쓸쓸하다.

우리는 오늘 밤도 쓸쓸한 집으로 돌아들 간다.
- 공선옥, 「그 시절 우리들의 집」 -

22.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어조의 변화를 통해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 ② 자연과 인간의 대비를 통해 세태를 비판하고 있다.
- ③ 대상과의 문답을 통해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 ④ 초월적 공간을 설정하여 고조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을 활용하여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23. (가)의 시상 전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제1수>의 초장, 중장은 풍경 묘사이고, 종장은 이에 대한 감상의 표현이다.
- ② <제2수>의 초장, 중장은 인물의 행위가 순차적으로 나열된 것이다.
- ③ <제2수>의 초장과 중장에 있는 인물의 행위는 <제3수>의 초장에서 그 결과로 나타난다.
- ④ <제3수>의 초장의 장면은 중장과 인과적 관계로 연결된다.
- ⑤ <제4수>의 초장의 동적인 분위기는 중장의 정적인 분위기로 전환된다.

24. <보기>에 따라 (나)의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선생님: 이 작품의 제목에 쓰인 '자도(自悼)'는 '자신을 애도한다'는 뜻으로, 죽음에 전줄 만큼의 극단적인 슬픔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 점에 주목하여 작품을 읽어 봅시다.

- ① ㉠을 통해, 입과 만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비관적 인식이 자신을 애도하게 만든 배경임을 알 수 있어요.
- ② ㉡을 통해, 새봄을 맞이하여 이별의 슬픔을 극복하기 위해 마음을 다잡으려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 ③ ㉢을 통해, 입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이 너무나 커서 자신을 애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알 수 있어요.
- ④ ㉣을 통해, 무정한 입 때문에 자신의 처지가 바뀔 가능성이 없음을 깨닫고 좌절감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 ⑤ ㉣을 통해, 입을 향한 원망의 마음을 음악으로 표현하여 내면의 슬픔을 토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25. (가)와 (나)의 시어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의 '늑음'은 평온한 분위기의, (나)의 '동방'은 암울한 분위기의 장소이다.
- ② (가)의 '언제'는 미래의 어느 시기를, (나)의 '언제'는 과거의 어느 시기를 가리킨다.
- ③ (가)의 '새'와 (나)의 '차규'는 모두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대상물이다.
- ④ (가)의 '잠든 나'의 '잠'과 (나)의 '입의 잠'은 모두 꿈을 통해서라도 소망을 실현하기 위한 매개이다.
- ⑤ (가)의 '돌아가니'와 (나)의 '돌아오니'는 모두 화자가 새로운 상황에 기대감을 갖는 계기이다.

26. [비밀들]을 중심으로 (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그 집'을 떠난 후 그의 오감이 불분명한 것은 비밀들이 그의 '아파트'에 감춰져 있기 때문이다.
- ② '그 집 아이들'은 '그 집'에서 '낮게 깔리는 굴뚝 연기'에 감춰진 '비'에 관한 비밀들을 깨달을 수 있었다.
- ③ '그의 아이'가 '여름에 긴팔 옷을 입고 겨울에 반팔 옷을 입는' 것은 비밀들을 모르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 준다.
- ④ '그 집'의 역사가 어머니의 죽음 후 끝났다고 한 것은 비밀들과 함께할 사람들의 '탄생과 죽음'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 ⑤ '그 사각진 콘크리트 벽 속'에 사는 '그의 아이'는 비밀들을 알아차릴 줄 아는 감각을 익히지 못해 삶이 불분명하다.

27. <보기>를 참고하여 (가)~(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시조, 가사, 수필에서 작가는 대개 1인칭으로 나타나므로 작가 정보를 활용하면 작품을 더 풍부하게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작가는 자신을 다른 인물로 상징하여 표현하기도 한다. 이 경우에도 작가를 그 인물에 투영해서 읽을 수 있다. (가)는 작가가 나이 들어 벼슬에서 물러나 전원에서 생활하며 지은 시조라는 점, (나)는 작가가 임금에게 충언하는 시를 쓴 죄로 옥에 갇혔을 때 지은 가사라는 점, (다)는 작가가 시골에서 성장한 경험을 반영하여 쓴 수필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작품을 해석할 수 있다.

- ① (가)의 '저 늙은이'가 작가라면, 전체적으로 이 작품은 연로한 작가가 느끼는 전원생활의 흥취를 드러낸 것이겠군.
- ② (가)의 '저 늙은이'가 작가가 아니라면, <제4수>는 '남대'의 깊은 맛에 몰입하며 '나'와는 달리 한가롭게 지내는 인물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을 드러낸 것이겠군.
- ③ (나)의 '아녀자'가 작가라면, 이 작품은 '은침'과 '오색실'로 '입의 터진 옷'을 깎는 상황을 설정하여 임금에 대한 꿈은 충심을 표현한 것이겠군.
- ④ (다)의 '그'가 작가라면, 이 작품은 '그 집'에서 성장하고 떠났던 자신의 경험을 타인의 것처럼 전달함으로써 개인적인 경험에 거리를 두고 객관화하여 표현한 것이겠군.
- ⑤ (다)의 '우리들'에 작가 자신이 포함되므로, 이 작품은 작가 자신의 개인적 경험을 확장하여 유사한 경험을 가진 독자들의 공감을 이끌어 내려 한 것이겠군.

[28~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23.06

[**앞부분의 줄거리**] 해방 직후, 미군 소위의 통역을 맡아 부정 축재를 일삼던 방삼복은 고향에서 온 백 주사를 집으로 초대한다.

“서 주사가 이거 두구 갑디다.”

들고 올라온 각봉투 한 장을 남편에게 건네어 준다.

“어디?”

그러면서 받아 봉을 뜯는다. 소절수 한 장이 나온다. 액면만 원짜리다.

미스터 방은 성을 벌컥 내면서

“겨우 돈 만 원야?”

하고 소절수를 다다미 바다에다 휙 내던진다.

“내가 알우?”

“우랄질 자식 어디 보자. 그래 진, 걸 십만 원에 불하 맡아다, 백만 원 하난 냉겨 먹을 테문서, 그래 겨우 돈 만 원야? 엠병힐 자식, ㉠ 내가 엠피*한테 말 한마디문, 진 어느 지경 갈지 모를 줄 모르구서.”

“정중으루 가져와요?”

“내 말 한마디에, 죽을 높이 살아나구, 살 높이 죽구 허는 줄은 모르구서. 흥, 이 자식 경 줌 쳐 보라……. 증증 따근허게 데와. 날두 산산허구 허니.”

새로이 안주가 오고, 따끈한 정중으로 술이 몇 잔 더 오락가락하고 나서였다.

백 주사는 마침내, **진작부터 버르던 이야기를 꺼내었다.**

백 주사의 아들 ㉡ 백선봉은, 순사 임명장을 받아 취면서부터 시작하여 8·15 그 전날까지 칠 년 동안, 세 곳 주재소와 두 곳 경찰서를 전근하여 다니면서, 이백 석 추수의 토지와, 만 원짜리 저금통장과, 만 원어치가 넘는 옷이며 비단과, 역시 만 원어치가 넘는 여편네의 패물과를 장만하였다.

[A] 남들은 주린 창자를 졸라맬 때 그의 광에는 옥 같은 정백미가 몇 가마니씩 쌓였고, 반년 일 년을 남들은 구경도 못 하는 고기와 생선이 끼니마다 상에 오르지 않는 날이 없었다.

××경찰서의 경계계 주임으로 있던 마지막 이 년 동안은 더욱더 호화판이었다. 8·15 그날 밤, **군중이 그의 집을 습격하였을 때에 쏟아져 나온 물건이 쌀 말고도**

- [B] 광목 여섯 필
- 고무신 스물세 켤레
- 지카다비 여덟 켤레
- 빨랫비누 세 켤짜
- 양말 오십 타
- 정중 열세 병
- 설탕 한 부대

[C] 이렇게 **있었다**란다. 만 원어치 여편네의 패물과, 만 원어치의 옷감이며 비단과, 만 원짜리 저금통장은 고만두고 말이었다.

물건 하나 없이 죄다 빼앗기고, 집과 세간은 조각도 못 쓰게 산산 다 부수고, 백선봉은 팔이 부러지고, 첩은 머리가 절반이나 뽑히고, 겨우겨우 목숨만 살아, 본집으로 도망해 왔다.

[D] 일변 고을에서는, 백 주사가, 자식이 그런 짓을 해서 산 토지를 가지고, **동네 사람한테 거만히 굴고, 작인들한테 팔 할 가까운 도지를 받고, 고리대금을 하고 하였대서,** 백선봉이 도망해 와 눕는 그날 밤, 그의 본집인 백 주사네 집을 습격하였다.

[E] 집과 세간 죄다 부수고, 백선봉이 보낸 통제 배급 물자 술한 것 죄다 빼앗기고, **가족들은 죽을 매를 맞고, 백선봉은 처가로, 백 주사는 서울로 각기 피신하여 목숨만 우선 보전**하였다.

백 주사는 비싼 여관 밥을 사 먹으면서, 울적히 거리를 오락가락, 어떻게 하면 이 분풀이를 할까, ㉢ **어떻게 하면 빼앗긴 돈과 물건을 도로 다 찾을까** 하고 궁리를 하는 것이나, 아무런 묘책도 없었다.

그러자 오늘은 우연히 이 미스터 방을 만났다. 종로를 지향 없이 거니는데, 지나가던 자동차가 스톱 멈추면서, 서양 사람과 같이 탔던 신사 양반 하나가 내려서더니, 어찌다 눈이 마주치자

“아, 백 주사 아니신가요?”

하고 반기는 것이였었다.

자세히 보니, 무어 길바닥에서 신기료장수를 한다던 코빼퐁이 삼복이가 분명하였다.

“자네가, 저, 저, 방, 방…….”

“네, 삼복입니다.”

“아, 건네, 자네가…….”

“히, 살 때가 됐답니다.”

그러고는 ㉣ **내 집으루 갑시다, 하고 잡아끄는 대로 끌리어 온 것이였었다.**

의표하며, 집하며, 식모에 침모에 계집 하인까지 부리면서 사는 것하며, 신수가 흰히 트여 가지고, 말도 제법 의젓하여진 것 같은 것이며, ㉤ **진소위 개천에서 용이 났다고 할 것인**지.

옛날의 영화가 꿈이 되고, 일조에 몰락하여 가뜩이나 초상집 개처럼 초라한 자기가, ㉥ **또 한 번 어깨가 움츠러듦을 느끼지** 아니치 못하였다. 그런 데다 이 녀석이, 언제 적 저라고 무엄스럽게 굴어, 심히 불쾌하였고, 그래서 ㉦ **엔간히 자리를 털고 일어설** 생각이 몇 번이나 나지 아니한 것도 아니였었다. 그러나 참았다.

보아하니 큰 세도를 부리는 것이 분명하였다. 잘만 하면 그 힘을 빌려, 분풀이와, 빼앗긴 재물을 도로 찾을 여망이 있을 듯 싶었다.

- 채만식, 「미스터 방」 -

* 엠피(MP): 미군 현병.

28. 윗글의 대화를 중심으로 '방삼복'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신이 꾸미고 있는 일에 관심 없는 상대에게 자기 업무를 떠넘기는 뻔뻔함을 보이고 있다.
- ② 질문에 대꾸하지 않음으로써 상대가 같은 질문을 반복하도록 거드름을 피우고 있다.
- ③ 눈앞에 없는 사람을 비난하고 위협함으로써 함께 있는 상대에게 자신의 위세를 드러내고 있다.
- ④ 차에서 내려 상대에게 먼저 알은체하며 동승자에게 자신의 인맥을 과시하고 있다.
- ⑤ 상대가 이름을 제대로 말하기 전에 말을 가로채 상대에 대한 열등감을 감추고 있다.

29.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에는 모두 외세에 기대어 사익을 추구하는 인물의 부정적 모습이 드러난다.
- ② ㉠과 ㉡에는 모두 외세와 이를 돕는 인물 간의 권력 관계가 일시적으로 역전된 모습이 드러난다.
- ③ ㉠과 ㉡에는 모두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인물이 몰락하는 모습이 드러난다.
- ④ ㉠에는 권력을 향한 인물의 조바심이, ㉡에는 권력에 의한 인물의 좌절감이 드러난다.
- ⑤ ㉠에는 자신의 권위에 대한 인물의 확신이, ㉡에는 추락한 권위를 회복할 수 있다는 인물의 자신감이 드러난다.

30.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스스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한 상태임을 강조하여 인물의 답답한 처지를 보여 준다.
- ② ㉡: 방삼복의 제안에 엉겁결에 따라가는 모습을 통해 인물이 얼떨떨한 상태임을 보여 준다.
- ③ ㉢: 신수가 좋고 재력이 대단해 보이는 방삼복의 모습에 고향 사람에게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되었음을 보여 준다.
- ④ ㉠: 자신의 처지를 방삼복과 비교하면서 주눅이 들었음을 보여 준다.
- ⑤ ㉢: 방삼복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과 그에 대한 반감이 뒤섞여 있음을 보여 준다.

31. <보기>를 참고하여 [A]~[E]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진작부터 버르던 이야기’는 백 주사가 자신과 가족의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부분이다. 그런데 서술자는 그 ‘이야기’를 서술자의 시선뿐 아니라 여러 인물들의 시선으로 초점화하여 서술함으로써 독자와 작중 인물 간의 거리를 조절한다. 또한 세부 항목을 하나씩 나열하여 장면의 분위기를 고조하고 정서를 확장하는 서술 방법으로 독자에게 현장감을 전해 준다. 이때 독자는 백 주사와 그의 가족에게 고통받았던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 그들을 비판적으로 보게 된다.

- ① [A]: 백선봉의 풍요로운 생활을 ‘남들’의 굶주린 생활과 비교하여 서술함으로써 독자가 그를 비판적으로 보게 하고 있군.
- ② [B]: 부정하게 모은 많은 물건들을 하나씩 나열하여 습격 당시 현장의 들뜬 분위기를 환기함으로써 ‘군중’의 놀람과 분노를 독자에게 전하려 하고 있군.
- ③ [C]: ‘있었더라’를 통해 누군가에게 들은 것처럼 전하면서도, 전하는 내용을 ‘군중’의 시선으로 초점화하여 독자가 ‘군중’의 입장에 서도록 유도하고 있군.
- ④ [D]: ‘동네 사람’의 시선으로 초점화하여 백 주사의 만행을 서술함으로써 백 주사가 습격의 빌미를 제공한 것처럼 독자가 느끼게 하고 있군.
- ⑤ [E]: 백 주사 ‘가족’의 몰락을 보여 주는 사건들을 백 주사의 시선으로 일관되게 초점화하여 그들에게 고통받았던 사람들의 편에 선 독자가 통쾌함을 느끼게 하고 있군.

[32~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23.06

(가)

향아 너의 고운 얼굴 조석으로 우물가에 비취이던 오래지 않은 옛날로 가자

수수럭거리는 수수밭 사이 걸썩스런 웃음들 들려 나오며 호미와 바구니를 든 환한 얼굴 그림처럼 나타나던 석양……

구슬처럼 흘러가는 냇물가 맨발을 담그고 늘어앉아 빨래들을 두드리던 전설같은 풍속으로 돌아가자

눈동자를 보아라 향아 회올리는 무지갯빛 허울의 눈부심에 녀트 빼앗기지 말고

철따라 푸짐히 두레를 먹던 ㉠정자나무 마을로 돌아가자 미끈당한 기생충의 생리와 허식에 인이 배기기 전으로 눈빛 아침처럼 빛나던 우리들의 고향 병들지 않은 젊음으로 찾아가자구나

향아 허물어질까 두렵노라 얼굴 생김새 맞지 않는 **발돋움의 흉넛랑** 그만 내자

들국화처럼 소박한 목숨을 가꾸기 위하여 맨발을 벗고 콩바심 하던 차라리 그 미개지에도 가자 달이 뜨는 명절밤 비단치마를 나누끼며 **떼지어 춤추던** 전설같은 풍속으로 돌아가자 냇물 굽이치는 싱싱한 마음밭으로 돌아가자.

- 신동엽, 「향아」 -

(나)

이사온 그는 이상한 사람이었다 그의 집 담장들은 모두 빛나는 유리들로 세워졌다

골목에서 놀고 있는 부주의한 아이들이 잠깐의 실수 때문에 풍성한 햇빛을 복사해내는 그 유리 담장을 박살내곤 했다

그러나 애들아, 상관없다 우리는 또 같아 끼우면 되지 마음껏 이 골목에서 놀렴

유리를 깬 아이는 얼굴이 새빨개졌지만 이상한 표정을 짓던 다른 아이들은 아이들답게 곧 즐거워했다 견고한 송판으로 담을 쌓으면 어떨까 주장하는 아이는, 그 아름다운 골목에서 즉시 추방되었다

유리 담장은 매일같이 깨어졌다 필요한 시일이 지난 후, 동네의 모든 아이들이 충실한 그의 부하가 되었다

어느 날 그가 유리 담장을 떼어냈을 때, ㉡그 골목은 가장 햇빛이 안 드는 곳임이 판명되었다, 일렬로 선 아이들은 묵묵히 벽돌을 날랐다

- 기형도, 「전문가」 -

32.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과거를 회상하며 현실을 관망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② (나)는 상징성을 띤 사건의 전개를 통해 주제를 암시하고 있다.
- ③ (가)와 (나)는 모두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상상 세계의 경이로움을 나타내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모두 동일한 시구의 반복과 변주를 통해 시적 분위기를 고조하고 있다.
- ⑤ (가)는 위로하는 어조로, (나)는 충고하는 어조로 시적 청자에게 말을 건네고 있다.

33. ㉠과 ㉡을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향'에게 귀환이 금지된 공간이고, ㉡은 '아이들'에게 이탈이 금지된 공간이다.
- ② ㉠은 '향'이 자기반성을 수행하는 공간이고, ㉡은 '아이들'이 '그'의 요청을 수행하는 공간이다.
- ③ ㉠은 '향'이 본성을 찾아가는 낯선 공간이고, ㉡은 '아이들'이 개성을 박탈당한 상실의 공간이다.
- ④ ㉠은 '향'의 노동과 놀이가 공존하던 공간이고, ㉡은 '아이들'의 놀이가 사라지고 노동만 남은 공간이다.
- ⑤ ㉠은 '향'과 화자의 우호적 관계가 드러나는 공간이고, ㉡은 '아이들'과 '그'의 상생 관계가 드러나는 공간이다.

34.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가)와 (나)는 모두 부정적 현실을 비판한 작품이다. (가)는 물질문명의 허위와 병폐에 물들어 가는 공동체가 농경 문화의 전통에 바탕을 두고 건강한 생명력과 순수성을 회복하기를 소망하는 작가 의식을 담고 있다. (나)는 환영(幻影)을 통해 대중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대중을 획일적으로 길들이는 권력의 기만적 통치술에 대한 비판 의식을 담고 있다.

- ① (가)에서 '차라리 그 미개지에도 가자'라는 화자의 권유는 공동체의 타전을 확장하여 순수성을 지켜 나가려는 의식을 보여 주는군.
- ② (나)에서 골목이 '가장 햇빛이 안 드는 곳'으로 판명되었다는 것은 '우리 담장'이 대중을 기만하는 환영의 장치였음을 보여 주는군.
- ③ (가)에서 '기생충의 생리'는 자족적인 농경 문화 전통에 반하는 문명의 병폐를, (나)에서 '주장하는 아이'의 추방은 획일적으로 통제된 사회의 모습을 보여 주는군.
- ④ (가)에서 '발돋움의 흉내'를 낸다는 것은 물질문명에 물들어 가는 상황을, (나)에서 '곧 즐거워했다'는 것은 권력의 술수에 대중이 길들여지고 있는 상황을 보여 주는군.
- ⑤ (가)에서 '떼지어 춤추던' 모습은 농경 문화 공동체의 건강한 생명력을, (나)에서 '일렬로', '묵묵히' 벽돌을 나르는 모습은 권력에 종속된 대중의 형상을 보여 주는군.

[18~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22.11

(가)

구겨진 하늘은 묵은 얘기책을 편 듯
돌담 울이 고성같이 둘러싼 산기슭
박쥐 나래 밑에 황혼이 묻혀 오면
초가 집집마다 **호롱불**이 켜지고
고향을 그린 **묵화(墨畵)** 한 폭 zoom 쳐.

[A]

떡엄 떡엄 보이는 그림 조각은
앞발에 보리발에 말매나물 캐러 간
가시내는 가시내와 종달새 소리에 반해

[B]

빈 바구니 차고 오긴 너무도 부끄러워
술래잔 두 뺨 위에 모매꽃이 피었고.

그땃줄에 비가 오면 풍년이 든다더니
앞내강에 씨레나무 밀려 나리면
젊은이는 젊은이와 **뱃목**을 타고
돈 벌러 항구로 흘러간 몇 달에
서릿발 잎 저도 못 오면 바람이 분다.

[C]

피로 가꾼 이삭이 참새로 날아가고
꿈처럼 어린 놈이 북극을 꿈꾸는데
늙은이는 늙은이와 싸우는 입김도

[D]

벽에 서려 성에 끼는 한겨울 밤은
洞里(洞里)의 밀고자인 강물조차 얼붙는다.

[E]

- 이육사, 「초가」 -

(나)

오늘, **북창**을 열어,
장거릴 등지고 산을 향하여 앉은 뜻은
사람은 맨날 변해 쌓지만
태고로부터 푸르러 온 산이 아니냐.
고요하고 너그러워 수(壽)하는 데다가
보옥을 갖고도 자랑 않는 검허한 산.
마음이 본시 산을 사랑해
평생 산을 보고 산을 배우네.
그 품 안에서 자라나 거기에 가 또 묻히리니
내 이승의 낮과 저승의 밤에
아아라히 뻗쳐 있어 다리 놓는 산.
네 품이 내 고향인 그리운 산아
미역취 한 이파리 상긋한 산 내음새
산에서도 오히려 산을 그리며
꿈같은 산 정기(精氣)를 그리며 산다.

- 김관식, 「거산호 2」 -

(다)

온갖 꽃들이 요란스럽게 일제히 터트려져 광채가 찬란하다. 이때에 바람이 살짝 불어오면 향기가 코를 스친다. 때마침 풀베는 자가 낫을 가지고 와서 손 가는 대로 베어 내는데, 아쉬워 돌아보거나 거리끼는 마음도 없다. 나는 이에 환숨을 쉬며 탄식하여 말하였다.

“땅이 낡고 하늘이 기르느바, 만물이 무성히 자라며 모두가 광대한 은택을 입는구나. 이에 따스한 바람이 불어 갖가지 형상을 아로새기고 단비를 내려 온 들레를 물들이니, 천기(天機)를 함께 타고나 형체를 부여받음에 각기 그 자질에 따라 고운 자태를 드러낸다. 모란의 진귀하고 귀중함을 해당화의 곱고 아름다움에 건주어 보면, 비록 크고 작은 차이는 있겠으나, 어찌 **공교함과 즐렬함에** 다른 헤아림이 있었겠는가?”

(중략)

그런데도 **귀함이** 저와 같고 **천함이** 이와 같아, 어떤 것은 **부호가의 깊은 장막 안에서** 눈앞의 봄바람을 지키고, 어떤 것은 짧은 낮을 든 어리석은 종의 손아귀에서 가을 서리처럼 변한다. 이 어찌 된 일인가? **뜨락은** 사람 가까이에 있고 **교외의 땅은** 멀리 막혀 있어 가까운 것은 친하기 쉽고 멀리 있는 것은 저어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아니면 **요황과 위자***는 성씨가 존엄한데 범상한 화초는 이름이 없으며, 성씨가 존엄한 것은 곱게 빛나는데 이름 없는 것들은 먼 데서 이주해 온 백성 같은 존재이기 때문인가? 그도 아니면 뿌리가 깊은 것은 종족이 번성한데 **뻥뻥**이 늘어진 것들은 가늘고 작으며, 높고 큰 것은 높은 자리에 있고 가늘고 작은 것들은 들판에 있기 때문인가?

아! 낡는 것은 하늘에 달려 있으나 **영화롭게** 하는 것은 인간에 달려 있다. 하늘은 사사로움이 없기에 그 **조화(造化)가 균일**하지만, 인간은 널리 베풀지 못하므로 **소원함도** 있고 **친함도** 있는 것이다. 하늘이 이미 낡아 주었는데 또 어찌 사람이 영화롭게 하고 영화롭지 못하게 한다고 원망하겠는가? 나에게서는 비록 감정이 있지만 풀에는 감정이 없으니, 그것이 **소의** 목구멍을 채우는 것과 **나비**로 하여금 다투어 찾도록 하는 것을 어찌 달리 보겠는가?”

- 이육, 「담초(談艸)」 -

* 요황과 위자: 모란의 진귀한 품종을 일컫는 말.

18.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에서는 현실적인 문제 해결의 실마리로 조화로운 공동체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 ② (나)에서는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앞날에 대한 회의를 드러내고 있다.
- ③ (다)에서는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살펴 자연을 바라보는 인간의 태도에 대한 성찰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가), (다)에서는 모두 자연물이 쇠락하는 과정을 제시하여 인생에 대한 무상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가), (나), (다)에서는 모두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장소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이끌어 내고 있다.

19. <보기>를 참고할 때, [A]~[E]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이육사는 「초가」를 발표하면서 '유폐된 지역에서'라고 창작 장소를 밝혔다. 이곳에서 그는 오래전 떠나온 고향을 떠올려 시로 형상화했다. 계절의 흐름에 따라 낭만적인 봄에서 비극적인 겨울로 시상을 전개하여 악화되어 가는 일제 강점기의 현실을 묘사했다.

- ① [A]: 돌담 울에 둘러싸인 산기슭을 묘사하여 화자가 고향을 회상하는 장소의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다.
- ② [B]: 봄날의 보리밭 풍경을 제시하여 화자가 떠올리는 고향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③ [C]: 고향 사람들이 기대하던 앞내강 정경을 묘사하여 화자의 소망이 이루어진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 ④ [D]: 풍족한 결실을 거두지 못한 상황에서 자신이 처한 현실 너머의 세계를 꿈꾸는 소년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 ⑤ [E]: 강물이 얼어붙는 삭막한 겨울의 이미지로 일제 강점기의 가혹한 현실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20. '산'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중심으로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산'을 수시로 변하는 인간과 달리 태고로부터 본질을 잃지 않는 불변성을 지닌 것으로 인식하는군.
- ② '산'을 인간의 덕성을 표면화하는 데 집중하는 적극적 의지를 지닌 존재로 여기는군.
- ③ '산'을 삶과 죽음을 이어 줌으로써 죽음 이후에도 함께할 대상으로 여기는군.
- ④ '산'을 근원적 고향으로 인식함으로써 그리움의 대상으로 바라보는군.
- ⑤ '산'을 현재 함께하는 존재로 여기면서도 지속적으로 지향해야 할 궁극적인 존재로 인식하는군.

21. (다)의 '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꽃의 '공교함과 즐렐함'을 판단할 때는 꽃의 형체보다는 쓰임새에 기준을 두어야 함을 강조한다.
- ② 화초의 '귀함'과 '천함'에 대한 평가는 그 본성에 맞게 이름이 부여되었느냐에 달려 있다고 믿는다.
- ③ 풀을 '영화롭게' 만드는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하늘이어야 한다는 깨달음을 드러낸다.
- ④ 하늘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풀은 '조화가 균일'한 존재로서 가치의 우열을 가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 ⑤ 인간의 감정에는 '소원함'과 '천함'이 모두 있으므로 사사로움을 넘어 균형을 도모할 수 있다고 본다.

22. [목화]와 [복창]을 중심으로 (가)와 (나)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에서는 '목화'와 '박쥐 나라'의 이미지를 연결하여 고향의 어두운 분위기를, (나)에서는 '복창'에서 바라본 산의 '품'에 주목하여 산이 주는 아늑한 분위기를 드러낸다.
- ② (가)에서 '목화'는 '황혼'이 상징하는 현실적 상황에, (나)에서 '복창'은 '저승의 밤'이 의미하는 절망적 상황에 대응된다.
- ③ (가)에서 '목화'에 '잠이 쳐'라고 한 것은 화자가 고향에 대해 느끼는 세월의 깊이를, (나)에서 '복창'을 '오늘' 열었다고 한 것은 산을 대하는 화자의 인식이 변화된 시점을 드러낸다.
- ④ (가)에서 '목화'를 '그림 조각'이라고 한 것은 고향의 분절된 이미지를, (나)에서 '복창'을 '열어' 산을 보고 있다는 것은 선망하는 세계와 분리된 이미지를 나타낸다.
- ⑤ (가)에서는 '목화'에 그려진 '모매꽃'에 부끄러움의 정서를, (나)에서는 '복창'을 통해 본 '보옥'에 안타까움의 정서를 담아 낸다.

23. <보기>를 참고하여 (가)~(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문학적 표현에는 표현 대상을 그와 연관된 다른 관념이나 사물로 대신하여 나타내는 방법이 있다. 여기에는 사물의 속성으로 실체를 대신하거나 대상의 한 부분으로 전체를 대신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방법들은 서로 혼재되기도 하면서 구체적이고 생생한 이미지와 분위기를 환기한다.

- ① (가)에서 저녁이 오는 시간을 그와 연관된 사물인 '호롱불'이 켜진다는 것으로 나타냄으로써, 산골 마을의 저녁 풍경을 시각적 이미지로 보여 주는군.
- ② (가)에서 고향에 머무르지 못하고 객지로 떠나는 현실을 '뗏목'을 타고 흘러가는 것과 연관 지어 나타냄으로써, 삶의 불안정함을 구체적 이미지로 보여 주는군.
- ③ (나)에서 세속적인 삶의 공간 전체를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장거리'의 속성을 활용하여 나타냄으로써, 인심이 쉽게 변하는 세속 공간의 분위기를 환기하는군.
- ④ (다)에서 귀한 대우를 받는 삶을 그러한 속성을 가진 '부호가의 깊은 장막 안'으로 나타냄으로써, 인간과 가까운 공간의 적막한 분위기를 환기하는군.
- ⑤ (다)에서 풀의 가치를 '소'와 '나비'의 행위와 연관 지어 나타냄으로써, 하찮게 취급되는 풀과 귀하게 여겨지는 풀의 차이를 구체적 이미지로 보여 주는군.

[24~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22.11

김달채 씨는 퇴근하기 무섭게 뽀르르 집으로 달려가던 목은 습관을 버리고 밤늦도록 하릴없이 길거리를 배회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새로운 습관을 몸에 붙였다. 지하철이나 버스 혹은 공중변소나 포장마차 안에서, 백화점에서 사지도 않을 물건을 흥정하거나 정류장에서 토콘 아니면 올림픽복권을 사면서, 그리고 행인에게 담뱃불을 빌거나 더욱 과감하게는 파출소에 들어가 경찰관에게 길을 묻는 시늉을 하는 사이에 마주치는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상대로

[A] 달채 씨는 실수를 가장하기도 하고 때로는 또렷한 목적 의식을 드러내기도 해 가며 우산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갖가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다. 그런 다음 상대방의 눈에 과연 우산이 어떻게 비치는지, 그리하여 상대방이 우산 임자인 자기를 어떻게 대우하는지 반응을 떠보는 작업을 일삼아 계속해 나갔다. 참으로 긴장과 전율이 넘치는 빠근한 나날들이었다. 구청 호적계장의 직위에 오르기까지 여태껏 전혀 몰랐던 세계가 구청과 자기 집구석 바깥에 따로 있음을 그는 우산을 통해서 비로소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가 있었다. 그는 사람들의 반응을 종합해서 몇 가지 결론을 얻어내는 데 성공했다.

첫째는, 진짜 무전기에 익숙한 일부 극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한 거개의 서민들은 의외로 쉽사리 우산에 속아 넘어간다는 사실이었다.

둘째는, 상대방이 무전기를 지니고 있다고 알아차리는 그 순간부터 사람들의 태도가 확 달라진다는 사실이었다. 일껏 하던 이야기를 딱 그치거나 얼렁뚱땅 말머리를 돌리는 등으로 지은 죄도 없이 공연히 겁부터 집어먹고는 피죄죄한 물골의 자기한테 갑자기 저 자세로 구는 것이었다. 밤늦도록 수고가 많다면 한사코 술값을 받지 않으려 하던 어떤 포장마차집 주인의 경우가 단적인 예였다.

셋째는, 노골적으로 손에 쥐고 보여 줄 때보다 그냥 뒤꽂무니에 끼 찬 채 부주의한 몸가짐인 척하면서 웃웃 자락을 슬쩍 들어 ㉠ 케이스의 끝부분만 감질나게 보여 주는 편이 오히려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데 훨씬 더 효과적이고 반응도 민감하다는 사실이었다.

김달채 씨는 그러잖아도 짧은 머리를 더욱 짧게 깎았다. 옷차림도 낡은 양복에서 스포티한 잠바 스타일로 개비했는가 하면 구청 밖에서는 항상 선글라스를 끼고 다녀 버릇했다. 달채 씨는 것처럼 달라진 모습으로 짬만 생기면 하릴없이 길거리를 나다니며 청명한 가을날에 우산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떠보는 색다른 취미에 점점 깊숙이 빠져 들어가기 시작했다.

(중략)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뭔가 벌어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자 까닭 모를 흥분과 기대감이 그를 사로잡아 버렸다. 한 건 올리는 정도가 아니라 뭔가 이제껏 맛보지 못한 엄청난 보람을 느끼게 될 일대 사건을 만날 듯싶은 예감 때문이었다. 그는 다른 행인들이 종종걸음으로 달아나는 방향과는 정반대 편을 향해 정신 없이 달려가기 시작했다.

예상했던 그대로의 살벌한 풍경이었다. 깨진 보도블록 조각이나 돌맹이들이 인도와 차도 가릴 것 없이 사방에 흩어져 나뒹굴고 있었다. 시커먼 그늘음 연기를 피워 올리며 불타는 자동차와 창유리가 박살 난 건물도 보였다. 김달채 씨는 주체 못할 지경으로 쏟아지는 눈물 콧물도 돌볼 겨를 없이 여전히 선글라스를 착용한 채 최루 가스에 심하게 오염된 지역을 향해 가까이 접근했다. 중무장한 전경대에 의해 도로가 완전 차단되어 더 이상 접근이 불가능해지자 달채 씨는 구경꾼들 뒷전에서 작은 키를 한껏 발돋움하고는 시위 현장의 분위기를 살폈다. 어디선가 보이지 않는 저쪽 건물 모퉁이에서 어기찬 함성이 아직도 기세를 올리는 중이었다. 사복 경찰관들한테 붙잡혀 끌려오는 학생의 모습이 구경꾼들 어깨 너머로 내다보였다. 달채 씨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앞사람들 틈바귀를 비집고 전면으로 썩 나섰다.

“이봐요, 거기!”

김달채 씨는 창문마다 철망이 쳐진 버스 안으로 학생들을 마구 밀어 넣는 사복들을 향해 느닷없이 목청을 높였다.

“아직도 어린애야! 다치지 않게 살살 좀 다뤄!”

어디서 그런 용기가 솟아나는지 김달채 씨 자신도 깜짝 놀랄 지경이었다.

“당신 뭐야?”

옷깃에 비표를 단 사복 차림의 청년 하나가 달려와서 김달채 씨의 가슴을 때밀었다.

“나 이런 사람ियो.”

김달채 씨는 엉겁결에 잠바 자락 한끝을 슬쩍 들어 뒷주머니에 끼 찬 우산 케이스를 내보였다. 하지만 상대방 청년은 그런 물건 따위는 애당초 거들떠볼 생심조차 하지 않았다.

“당신도 저 차에 같이 타고 싶어? 여러 소리 말고 빨리 집이나 들어가 봐요!”

이른바 닭장차에 어린 학생들과 함께 실리고 싶은 생각은 물론 털끝만큼도 없었다. 옷깃에 비표를 단 청년이 우산을 ㉡ 우산 이상의 것으로 보아 주지 않는다면 그건 어쩔 도리 없는 노릇이었다. 김달채 씨는 남의 채마밭에서 무 뽑아 먹다 들킨 아이처럼 무르춘한 꼬락서니가 되어 맥없이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 윤홍길, 「매우 잘생긴 우산 하나」 -

24. [A]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중심인물이 알지 못하는 사건을 제시해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 ② 공간 이동에 따른 인물의 내면 변화를 회상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 ③ 동시적 사건들의 병치로 사건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 ④ 한 가지의 목적으로 수렴되는 인물의 의도적인 행위들을 나열하고 있다.
- ⑤ 상대를 달리하여 벌이는 인물의 행동을 서술하여 점진적으로 심화되는 갈등을 묘사하고 있다.

25.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거리를 배회하며 새로운 습관을 익히려는 김달채는 생활의 활기를 찾기 위해 비 오는 날을 기다린다.
- ② 피죄죄한 몰골의 김달채는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하는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 무전기를 보여 준다.
- ③ 흥미를 느낄 만한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짐작한 김달채는 달아나는 행인들과 달리 시위 현장으로 향한다.
- ④ 시위 진압의 영향으로 고통 받던 김달채는 전경대의 위세에 압도되어 구경꾼들 뒤로 물러선다.
- ⑤ 닭장차에 끌려가게 된 김달채는 건물 모퉁이에서 들려오는 함성에 안도감을 느낀다.

26.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김달채는 ㉠을 그 생각새로 인해 ㉡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 ② 김달채는 사복들로부터 기대하는 반응을 효과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의 사용법을 알게 된다.
- ③ ‘일부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는 ㉡을 가진 사람으로 보이려는 김달채의 의도가 실현되지 않는다.
- ④ 김달채는 ㉡에 익숙하지 않은 ‘거개의 서민들’이 ㉠을 ㉡으로 오인한다고 판단한다.
- ⑤ ‘사복 차림의 청년’은 ㉡에 익숙하여 ㉠을 이용하려는 김달채의 의도를 알아챈다.

27.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소시민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권력관계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권력관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타인의 승인이 요구되며, 이로 인해 힘의 우열 관계가 발생한다. 이 작품은 허구적 권력 표지를 통해 타인의 승인을 얻음으로써 자신감을 갖게 된 인물이, 승인을 거부하는 타인 앞에서는 소시민적 면모를 드러내는 상황을 그려낸다. 이를 통해 상황 논리를 따르는 소시민의 타산적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 ① 김달채가 각계각층 사람들의 반응을 떠보는 것은, 권력이 타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핀다는 점에서 김달채가 권력관계의 의식하는 인물임을 드러내는군.
- ② 김달채가 준 술값을 포장마차집 주인이 받지 않으려는 것은, 권력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권력이 인물 간의 우열 관계를 형성하는 요인임을 보여 주는군.
- ③ 김달채가 외양에 변화를 준 것은, 타인의 승인을 용이하게 받으려 한다는 점에서 허구적 권력 표지를 이용하는 데 더 적극적으로 나서려는 김달채의 의도를 나타내는군.
- ④ 김달채가 사복들에게 목청을 높이며 항의하는 것은, 자신도 모르게 용기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승인받은 경험들을 통해 얻게 된 김달채의 자신감을 보여 주는군.
- ⑤ 김달채가 비표를 단 청년 앞에서 돌아서는 것은, 학생들과 맺은 유대 관계를 단절하여 기득권을 지키려 한다는 점에서 상황 논리를 따르는 김달채의 타산적 태도를 드러내는군.

[28~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22.11

이때 태보 궐문 밖으로 나오니 그제야 정신없어 기절하거늘 좌우 제신이며 일가 제족이 구완하여 겨우 인사 차려 좌우를 돌아보며 왈,

“이 몸이 명재경각(命在頃刻)이라. 어찌 살기를 바라리오. 군 등은 태보가 죽거든 죽기로써 간하여 왕비를 내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한데 이때에 상소 중에 이름 올린 제원(諸員)이 모두 이로되,

[A] “그대는 죽기로써 간하다 어명을 입고 사경이 되었으나 우리도 역시 한 탓이로다. 막중한 충을 몰랐으니 무슨 낮이 있으리오. 일은 여럿이 참여하고 죄는 그대만 혼자 당하였으니 죄스럽고 민망하기 측량없노라.”

무수히 위로하다가 형옥(刑獄)으로 전송하더라. 이튿날에 형조 판서 마지못하여 위계를 갖추고 대강 직계(直啓)로 올렸더니 상(上)이 보시고 다시 하교하사,

“금부로 가두라.”

하시거늘 금부 옥졸이 응위하여 금부에 이르니 만조백관이며 장안 백성이 구름 피듯 하더라. 이때에 생가 친척이며 양가 제족이 애연 돌탄하거늘 태보 위로 왈,

[B] “인명이오면 재천이옵거늘 실마 무죄로 죽어 청춘 원혼이 되리오마는 나의 뜻은 정한 지 오래되었는지라.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변할 길이 없사오니 이 몸이 죽거든 영천수 흐르는 물에 훨훨 씻어 다른 곳에는 묻지 말고 남산하에 묻어 주오면 죽은 혼백이라도 쉼내를 향하여 우리 주상 심하에 복지하여 주야로 간하여 왕비를 다시 환궁하게 하옵 것이니 아무리 죽은 사람의 말이라 하옵고 저버리지 마시며 부디 명심하소서.”

금부에 수일 잡혀 간했더니, 상이 구태여 왕비는 내치시고 태보는 진도로 정배하라 하시니라.

[중략 부분의 줄거리] 박태보의 정배를 따라가려다 되돌아온 박태보의 부인은 꿈에서 남편을 만난다.

한림이 울어 왈,

“내 무죄하여 탕탕한 청천이 감동하사 사생풍진을 다 버리고 진고 충신을 따라 황성으로 구경 가나니, 슬프다! 부인은 기다리지 말고 만세 무양하옵소서.”

하되, 부인이 대경 왈,

“어디를 가시며 기다리지 말라 하시니까? 한림은 그다지 독하시오. 첩도 한가지로 가사이다.”

하며 한림의 소매를 잡고 못 가게 하니 한림이 왈,

“부인은 안심하소서. 구구한 사정을 어찌 잊으오리까? 일후 상봉할 날이 있으리다.”

하고 떨치고 나가거늘 부인 한림의 손을 잡고 따라가니 어떤 남자 십여 명이 의관을 정제하고 서 있거늘 겹연쩍어 방으로 들어앉으며 가만 보니 학발의관(鶴髮衣冠)을 갖춘 어린 제자 오륙 인이 분명하거늘 부인이 놀라 깨달으니 남가일몽이라.

부인이 몽사를 생각함에 심신이 산란하여 명월을 대하여 내념에

‘분명 한림이 기사하였도다.’

시비를 테리고 몽사를 설화하더니 이미 동방이 밝았거늘 시부모 당하에 문안차로 나가니, 이화춘에 개 짓으며 문밖에 울음소리 들리거늘 부인이 놀라 문을 열어 보니 한림의 하인 동일이라 하는 사람이 한림의 편지를 드리거늘 대감 부부와 부인이 망극하야 서로 붙들고 통곡하다가 기절하거늘 비복 등이 급히 구완하여 겨우 인사를 분별하는지라.

이때에 원근 제족과 만조백관이 다 조문 후에 장안 백성이 뉘 아니 낙무하리오. 이러구러 곡성이 진동하니 어찌 천신이 감동치 아니하리오. 그 편지를 떼어 보니 하였으되,

‘불효자 태보는 두어 자 문안을 부모 전에 올리나이다. 천 리 원정에 가다가 과천의 관에서 신명과 심회가 울적하거늘 구천에 들어가오니, 사람의 죄 삼천을 정하였으되 불효한 죄가 제일이라 하였으니 삼천 수죄(首罪) 지었으나 국은을 또한 갚지 못하옵고 중로 고훈이 되어 구천에 돌아가는 자식을 생각지 마옵고 말년 귀체를 안보하시다가 만세 후에 부자지정을 만분지일이나 바라나이다.’

하였더라.

이날 대감이 판서 노복 등을 거느리고 즉시 과천으로 행할새, 장안 백성이 다 애연하며 구름 피듯 하더라. 대감과 판서 애통함이 측량없더라. 초종례로 극진히 한 후에 체단으로 염습하고 도로 집으로 옮겨와 장사를 지내니 일문이 애통함을 차마 못 볼러다.

각설, 이때에 상이 민 중전을 내치시고 태보를 정배 후, 자연 심신이 산란하여 밤이면 성내 성의를 미복으로 순행하시더니 일일은 한 곳에 다다르니 명월은 명랑한데 어떤 아이 오륙 인이 월색 희롱하며 노래하야 즐거워하거늘 상이 몸을 은신하고 자세히 들으니 그 노래에 하였으되,

“저 달은 밝다마는 우리 주상은 불명하야 충신을 무슨 일로 천 리 원정에 내치시며, 무슨 일로 민 중전은 외관에 내치시고 군의신중 없었으니 이 부자자효 쓸데없다. 인심은 분명하건 마는 국운이 말세 되어 백성도 못할 일을 국가에서 행하고 한심하고 가련하다. 사백 년 사직을 뒤라서 불들랴. 이 애야, 저 애야. 흥망성쇠는 불관하다마는 당상 부모 모셨어라. 심산 궁곡에 들어가 초목으로 붓을 적시고, 금수로 벼를 삼아 세월을 보내다가 성군을 기다리자.”

서로 비기며 애연히 가거늘 상이 그 노래를 들으시매 심신이 산란하여 그 아이들 성명을 묻고자 하시니 아이들이 달아나는 지라 못내 애연하시며 곧 환궁하시니라.

- 작자 미상, 「박태보전」 -

28.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① 태보는 형옥에서 금부로 이송해 줄 것을 자청했다.
- ② 부인은 꿈에서 학발의관을 갖춘 사람들을 보고 놀라 꿈을 깬다.
- ③ 대감은 아들의 주검을 집으로 데려와 초종례를 극진히 지냈다.
- ④ 상은 노래의 내용을 알기 위해 아이들에게 이름이 무엇인지 물었다.
- ⑤ 형조 판서는 상의 명령대로 태보에 대한 조사 결과를 자세히 보고했다.

29. 윗글에 제시된 공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금부’는 임금이 권위를 실현하는 공간이고, ‘한 곳’은 임금이 권위를 내세우는 공간이다.
- ② ‘진도’는 임금에게 정배받은 태보가 향해야 하는 곳이고, ‘외관’은 임금에게 내쳐진 민 중전이 거쳐해야 하는 곳이다.
- ③ ‘이화촌’은 부인이 시부모에게 직접 문안하는 곳이자 태보가 하인을 보내 부모에게 문안하는 곳이다.
- ④ ‘과천’은 태보가 ‘진도’로 가는 경유지이자, 태보의 소식을 받은 대감이 ‘이화촌’을 떠나 향하는 지점이다.
- ⑤ ‘심산궁궐’은 ‘성내 성외’와 대비되어 임금을 피하려는 백성의 마음이 투영된 공간이다.

30.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 태보의 위기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는 제원들의 탄식은, [B]에서 그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는 태보의 자책과 대비된다.
- ② [A]에서 태보가 받은 제원들의 위로는, [B]에서 삶을 도모하여 무죄를 소명하겠다는 태보의 결심으로 이어진다.
- ③ [A]에서 제원들이 칭송하는 태보의 강직함은, [B]에서 소신을 지키겠다고 하는 태보의 다짐에서 확인된다.
- ④ [A]에서 제원들 간의 갈등으로 인한 태보의 심리적 상처는, [B]에서 가족과의 만남을 통해 해소된다.
- ⑤ [A]에서 제원들의 말을 통해 드러난 태보의 후회는, [B]에서 가족들을 향한 태보의 말에서 반복된다.

31.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박태보전」은 숙종 대의 실존 인물 박태보의 삶을 소설화한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 박태보는 임금의 부당함으로 드러나는 부도덕한 세계와의 대결에서 패배하여 숭고한 뜻을 이루지 못한다. 그럼에도 그는 가족과 국가에 윤리적 책무를 다하는 인물로 인정받음으로써 도덕적 영웅으로 고양된다. 이때 다양한 서사 장치들은 사건의 입체적 전개에 기여한다.

- ① 하늘이 태보를 무죄로 판명하여 전고 충신을 따르게 함을 몽사로 드러내어, 태보가 윤리적 명분 면에서 인정받은 도덕적 영웅임을 보여 주는군.
- ② 국운을 갚지 못하고 죽는다는 태보의 한탄을 편지로 제시하여, 태보가 임금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는 숭고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세계와의 대결에서 패배했음을 보여 주는군.
- ③ 만세 후에도 부자지정을 바라는 태보의 염원을 편지로 제시하여, 태보가 죽음에 이른 상황에서조차 부모에 대한 윤리적 책임을 다하려 한 인물임을 보여 주는군.
- ④ 주상이 밝은 달의 숙성과 대비되는 불명한 인물임을 노래를 통해 제시하여, 백성들이 주상을 부도덕한 인물로 평가하여 신임하지 않았음을 보여 주는군.
- ⑤ 태보에 대한 민심을 편집자적 논평을 통해 반복적으로 나타내어, 태보가 기우는 국운을 회복한 영웅으로 추대되어 백성들의 지지를 받았음을 보여 주는군.

[32~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22.11

(가)

춘일(春日)이 지지(遲遲)하여 빠꾸기가 보채거늘
 동린(東隣)에 쟁기 얻고 서사(西舍)에 호미 얻고
 집 안에 들어가 씨앗을 마련하니
 ㉠ 올벼 씨 한 말은 반 넘게 쥐 먹었고
 기장 피 조 팔은 서너 되 부쳤거늘
 한아(寒餓)한 식구 이리하여 어이 살리

(중략)

베틀 북도 쓸데없어 빈 벽에 남겨 두고
 ㉡ 술 시루 버려두니 붉은 빛이 다 되었다
 세시 삭망 명절 제사는 무엇으로 해 올리며
 원근 친척 내빈왕객(來賓往客)은 어이하어 접대할꼬
 ㉢ 이 얼굴 지녀 있어 어려운 일 하고 많다
 이 원수 궁귀(窮鬼)를 어이하어 여의려노
 술에 후량을 갖추고 이름 불러 전송하여
 길한 날 좋은 때에 사방으로 가라 하니
 웅얼웅얼 불평하며 원노(怨怒)하여 이른 말이
 어려서나 늙어서나 희로우락(喜怒哀樂)을 너와 함께하여
 죽거나 살거나 여윌 줄이 없었거늘
 어디 가 뉘 말 듣고 가라 하여 이르느뇨
 우는 듯 꾸짖는 듯 온가지로 험박거늘
 돌이켜 생각하니 네 말도 다 옳도다
 무정한 세상은 다 나를 버리거늘
 네 혼자 유신하여 나를 아니 버리거든
 위협으로 회피하며 잔피로 여윌려나
 하늘 삼긴 이내 궁(窮)을 설마한들 어이하리
 빈천도 내 분(分)이니 서러워해 무엇하리

[A]

- 정훈, 「탄궁가」 -

(나)

서산에 돌을별 비추고 구름은 느지막이 내린다
 비 온 뒤 묵은 풀이 뉘 밭이 우거졌던고
 ㉣ 두어라 차례 정한 일이니 매는 대로 매리라

<제1수>

면화는 세 다래 네 다래요 이른 벼의 패는 모가 곱난가
 오뉴월이 언제 가고 칠월이 반이로다
 아마도 하느님 너희 삼길 제 날 위하여 삼기셨다

[B]

<제7수>

아이는 뉘시질 가고 집사람은 절이채 친다
 새 밥 익을 때에 새 술을 걸러서라
 ㉤ 아마도 밥 들이고 잔 잡을 때에 흥에 겨워 하노라

<제8수>

- 위백규, 「농가」 -

32. (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계절의 변화에 조응하는 여러 자연물을 활용해 화자의 인식 전환을 보여 주고 있다.
- ② 계절감이 드러난 소재를 대등하게 나열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③ 특정 계절의 풍속을 화자의 시선 이동에 따라 묘사하고 있다.
- ④ 특정 계절을 배경으로 제시해 화자의 처지를 부각하고 있다.
- ⑤ 계절의 순환을 중심으로 자연의 섭리를 드러내고 있다.

33. [A], [B]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서 ‘술에 후량’을 갖춘 화자는 의례를 통해 ‘궁귀’에 대한 예우를 표하고 있다.
- ② [B]에서 화자는 시간의 경과를 의식하며 ‘세 다래 네 다래’ 열린 ‘면화’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③ [A]에서 화자는 ‘이내 궁’과의 관계를, [B]에서 화자는 ‘너희’와의 관계를 운명적인 것으로 여기는 관점을 취하고 있다.
- ④ [A]에서 화자는 ‘옳도다’라는 응답으로 ‘네 말’을 수용하는 태도를, [B]에서 화자는 ‘반이로다’라는 감탄으로 ‘패는 모’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A]와 [B]에서 화자는 각각 초월적인 존재인 ‘하늘’과 ‘하느님’을 예찬하는 어조를 취하고 있다.

34. <보기>를 참고할 때, ㉠~㉤의 문맥적 의미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탄궁가」는 향촌 공동체에서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사대부가 가정과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어려운 자신의 궁핍한 삶을 실감나게 그려 낸 작품이다. 한편 「농가」는 곤궁한 향촌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여러 방도를 모색한 사대부가 가난을 벗어난 이상화된 농촌상을 그려 낸 작품이다.

- ① ㉠은 파종할 벼씨를 쥐가 먹어 버린 상황을 제시해 가난한 향촌 사대부의 곤혹스러운 처지를 실감나게 그려 낸다.
- ② ㉡은 솔과 시루가 녹슨 상황을 제시해 끼니조차 잇지 못하는 생활이 지속되는 향촌 사대부 가정의 궁핍함을 부각한다.
- ③ ㉢은 체면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을 제시해 취약한 경제적 기반 때문에 사회적 책임을 내려놓는 향촌 사대부의 죄책감을 드러낸다.
- ④ ㉣은 밭을 땀 때 예정된 차례에 따라야 함을 나타내어 사회적 약속에 대한 존중을 향촌 공동체 발전의 방도로 여기는 관점을 드러낸다.
- ⑤ ㉤은 먹을거리에 부족함이 없이 즐거운 향촌 구성원의 모습을 통해 가난을 벗어난 이상화된 농촌상의 일면을 보여 준다.

[18~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22.09

[**앞부분의 줄거리**] 제주도에 간 배 비장은 애랑의 유혹에 넘어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는다. 창피를 당한 배 비장은 서울로 돌아 가려고 한다.

이때 배 비장은 떠나는 배가 어디 있냐 물어보려고 무서움을 억지로 참고,

“㉠ 여보게, 이 사람. 말씀 물어보세.”

그 계집이 한참 물끄러미 보다가 대답도 아니 하고 고개를 돌리니, 배 비장 그중에도 분해서 목소리를 돋우어 다시 책망 겸 물었다.

“㉡ 이 사람, 양반이 물으면 어찌하여 대답이 없노?”

“무슨 말이람나? 양반, 양반, 무슨 양반이야. 품행이 좋아야 양반이지. 양반이면 남녀유별 예의엄치도 모르고 남의 여인네 발가벗고 일하는 데 와서 말이 무슨 말이며, 싸라기밥 먹고 병풍 뒤에서 낮잠 자다 왔습나? 초면에 반말이 무슨 반말이여? 참 듣기 싫군. 어서 가소. 오래지 아니하여 우리 집 남정네가 물속에서 전복 따 가지고 나오게 되면 큰 탈이 날 것이니, 어서 바빠 가시라구! 요사이 세력이 빨랫줄 같은 배 비장도 কে 속 귀신이 될 뻔한 일 못 들었습나?”

배 비장이 구식적 습관으로 지방이라고 한 손 놓고 하대를 하다가 그 말을 들어 보니, 부끄럽고 분한 마음이 앞서져서 혼잣말로 자탄을 하겠다.

“허허 내가 금년 신수 불길하다! 우리 부모 만류할 제 오지나 말았더면 좋을 것을, 고집을 세우고 예 왔다가 경향에 유명한 웃음거리가 되고, 또 도처마다 망신을 당하니 섬이라는 데 참 사람 못 살 곳이로구!”

하며, 분한 마음에 그 계집과 다시 말싸움을 하고 싶지 않건 마는, 해는 점점 서산에 걸치고 앞길은 물을 사람이 없어 함경도 문자로 ‘붙은 데 붙으라’ 하는 말과 같이 ‘사과나 하고 다시 물을 수밖에 없다.’ 하여, 말공대를 얼마쯤 올려 다시 수작을 하겠다.

“㉢ 여보시오, 내가 참 실수를 대단히 하였소. 이곳 풍속을 모르코.”

“실수라 할 것이 왜 있사오리까? 그렇다 하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당신은 어디로 가시는 양반이십니까?”

“네, 나는 지금 급한 일이 있어 서울을 갈 터인데, 어느 배가 서울로 가는지 그것을 좀 묻고자 그리하오.”

“서울 양반이시면 무슨 일로 여기를 오셨으며, 또 성함은 뉘시오니까?”

“성명은 차차 아시지오마는, 내가 이곳에 불일이 있어서 왔다가, 부모 병환 기별을 듣고 급히 가는 길인데, 가는 배가 없어 이처럼 애절이오.”

“그러하면 가이없습나. 서울로 가는 배는 어제저녁에 다 떠나고, 인제는 다시 사오 일을 기다려야 있겠습나.”

“그러하면 이 노릇을 어찌하여야 좋소?”

“참 딱한 일이올시다.”

하더니,

“옳지! 가는 배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배에서 행인을 잘 태울는지 모르겠소. 저기 저편 언덕 밑에 포장 치고

[**조그마한 돛대 세운 배**]에 가서 물어보시오. 그 배가 제주 성내에 사는 부인 한 분이 친정이 해남인데 급한 일이 있어 비싼 값을 주고 혼자 빌려 저녁 물에 떠난다더니, 참 떠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배 비장이 그 말 듣고 좋아라고 허겁지겁 그 배로 뛰어가서 사공을 찾는다.

“㉣ 어이, 뱃사공이 누구여?”

사공이 반말에 비위가 틀려,

“어! 사공은 왜 찾아?”

“말 좀 물어보면…”

“무슨 말?”

“그 배가 어디로 가는 배여?”

“물로 가는 배여.”

원래 배 비장이 사공을 공손하게 대하기는 초라하고 ‘해라’ 하자니 제 모양 보고 받을는지 몰라, **어정정하게** 말을 내놓다가 사공의 대답이 한층 더 올라가는 것을 보고, 한숨을 휘이 쉬며, “허! 내가 그저 **춘몽을 못 깨고 또 실수를** 하였구나!”

어벌을 고쳐 입맛이 썩 들어붙게,

“여보시오, ㉤ 노형이 이 배 임자시오?”

사공은 목낭청*의 혼이 썩었던지 그대로 좇아가며,

“그렇습나. 내가 이 배 임자올시다.”

“들으니까 노형 배가 오늘 떠나 해남으로 간다지요?”

“예, 오늘 저녁 물에 떠납니다.”

“그러면 내가 서울 사는데 지금 가는 길이니 좀 타고 가옵시다.”

“좋은 말씀이올시다마는 이 배가 행객 신는 배가 아니옵고, 해남으로 가시는 부인 한 분이 혼자 빌려 가시는 터인즉, 사공의 임의로 다른 행객을 태울 수가 없습니다.”

“그는 그러하겠소마는, 내가 부모 병환 급보를 듣고 급히 가는 길인데, 달리 가는 배는 없고 이 배가 간다 하니, 아무리 부인이 타신 터이라도 이러한 정세를 말씀하시고, 한편 이물 구석에 중용히 끼어 가게 하여 주시면 그 아니 적시오?”

“당신 정경이 불쌍하오. 그러면 해 진 후에 다시 오시면, 부인 모르시게라도 슬며시 타고 가시게 하오리다.”

- 작자 미상, 「배비장전」 -

* 목낭청: 자기 주관 없이 응대하는 사람을 이르는 말.

18.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계집’은 ‘배 비장’의 문제점을 지적함으로써 양반답지 못한 태도에 대해 비판적 인식을 표출하고 있다.
- ② ‘배 비장’은 자신에게 이름을 묻는 ‘계집’의 질문에 즉답을 피함으로써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있다.
- ③ ‘계집’은 ‘배 비장’에게 배편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을 건넌으로써 그가 궁금해했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④ ‘사공’은 ‘부인’의 허락 없이 임의로 다른 행객을 태울 수 없다고 말함으로써 낯선 이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사공’은 ‘배 비장’의 다급한 상황을 듣고 해결책을 알려 줌으로써 상대방에 대한 연민의 감정을 보여 주고 있다.

19. ㉠~㉣ 중 ‘배 비장’이 상대의 기분을 풀어 주기 위해 사용한 표현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 ① ㉠, ㉡ ② ㉠, ㉢ ③ ㉡, ㉣
- ④ ㉢, ㉣ ⑤ ㉢, ㉣

20. [조그마한 돛대 세운 배]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주인공이 부모의 병환 소식을 듣게 되는 공간이다.
- ② 주인공을 태우고 서울로 가기 위해 급히 준비되었다.
- ③ 주인공이 당일에 제주도를 떠나기 위해 타려는 대상이다.
- ④ 주인공이 경제적 보상까지 내세우며 타고자 하는 것이다.
- ⑤ 주인공이 행객들을 데리고 제주도를 떠나기 위해 타려 한다.

21.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배비장진」에서 창피를 당해 제주도를 떠나려 했던 배 비장은 제주도에 남게 되고, 결말에 가서는 현감에 올라 사람들의 칭송을 받게 된다. 이와 같은 변화가 어떻게 가능했을까? 배 비장이 제주도를 떠나고자 할 때, 제주도 사람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 자신이 서울 양반이라는 우월감을 버리고 그들을 존중하는 경험을 했기 때문이다. 이는 비록 불가피한 선택이었지만, 이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게 된다. 서울 양반의 경직된 관념에 변화가 일기 시작한 것이다.

- ① ‘양반이’ 묻는데 ‘어찌하여 대답이’ 없냐고 계집을 책망한 배 비장의 행위에서, 그가 자신의 신분에 대해 우월감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② ‘지방이라고 한 손 놓고 하대를’ 한 배 비장의 태도에서, 그가 서울에서 온 양반이라는 이유로 제주도 사람을 알보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③ ‘물을 사람이 없어’ 계집에게 ‘사과나 하고 다시 물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배 비장의 생각에서, 그가 계집의 도움을 받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을 했음을 알 수 있군.
- ④ ‘이 노릇을 어찌하여야’ 좋겠냐고 묻는 배 비장의 모습에서, 그가 경직된 관념을 버리고 제주도 사람을 존중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⑤ ‘어정쩡하게’ 말하려다 ‘춘몽을 못 깨고 또 실수’했다고 한 배 비장의 발언에서, 그가 우월감을 가지고 있던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고 있음을 알 수 있군.

[22~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22.09

(가)

대부분의 사내들이 고기잡이로 떠난 갯마을에는 늙은이들이 어린 손자나 데리고 뱃그늘이나 바위 옆에 앉아 무언히 바다를 바라보고, 아낙네들이 썰물에 조개나 켈 뿐 한가하다.

사흘 째 되던 날, 윤 노인은 아무래도 수상해서 박 노인을 찾아갔다. 박 노인도 막 물가로 나오는 참이었다. 두 노인은 바위 옆 모래톱에 도사리고 앉았다. 윤 노인이 먼저 입을 뻗었다. “저 구름발 좀 보라니?” / “음!”

구름발은 동남간으로 해서 검은 불꽃처럼 서북을 향해 뻗어 오르고 있었다.

윤 노인이 또, “하하아 저 물빛 봐!”

박 노인은 보라기 전에 벌써 짐작이 갔다. ㉠아무래도 변의 징조였다.

과도 아닌 크고 느린 너울이 왔다. 그럴 때마다 매운 갯냄새가 풍겼다. 틀림없었다.

이번에는 박 노인이 뻗히 알면서도, “대마도 쪽으로 갔지?”

“고기 때를 찾아갔는데 울릉도 쪽이면 못 갈라고...”

두 노인은 더 말이 없었다. 그새 구름은 해를 덮었다. 바람도 딱 그쳤다. 너울이 점점 커 왔다. 큰 너울이 올 적마다 물결 갯냄새가 코를 찔렀다. 두 노인은 말없이 일어나 말없이 헤어졌다. ㉡그들의 경험에는 틀림이 없었다. 올 것은 기어코 오고야 말았다. 무서운 밤이었다. 캄캄한 칠야, ㉢비를 몰아치는 바람과 바다의 아우성, 보이는 것은 하늘로 부풀어 오른 파도뿐이었다. 그것은 마치 바다의 참고 참았던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흰 이빨로 물을 마구 물어뜯는 것과도 같았다. 파도는 이미 모래톱을 넘어 돌각 담을 삼키고 몇몇 집을 휩쓸었다. ㉣마을 사람들은 뒤 언덕배기 당집으로 모여들었다. 이러는 동안에 날이 섰다. 날이 새자부터 바람이 멎어 가고 파도도 낮아 갔다. 샌 날에 보는 ㉤마을은 그야말로 난장판이었다.

이날 밤 한 사람의 회생이 있었다. 윤 노인이었다. 그의 머느리 말에 의하면 돌각 담이 무너지고 파도가 축담 밑까지 [A] 들어밀자 윤 노인은 머느리와 손자를 앞세우고 담 밖까지 나오다가 무슨 일로선지 머느리는 먼저 가라고 하고 윤 노인은 다시 들어갔다고 한다. 그리고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다. ㉥바다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던가 하듯 잔물결이 안으로 굽은 모래톱을 찰싹대고, 별은 한결 뜨거웠고, 하늘은 남빛으로 더욱 짙었다.

그러나 고등어 배는 돌아오지 않았다. 마을은 더 큰 어두운 수심에 잠겼다. 이틀 뒤에 후리막 주인이 신문을 한 장 가지고 와서, 출어한 많은 어선들이 행방불명이 됐다는 기사를 읽어 주었다. 마을은 다시 수라장이 됐다. 집집마다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았다. 이들이 지났다. 울음에도 지쳤다. 울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

[B] — 설마 죽었을라고 —

이런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아낙네들은 다시 바다로 나갔다. 살아야 했다. 바다에서 죽고 바다로 해서 산다.

해순이는 성구가 돌아올 것을 누구보다도 믿었다. 그동안 세 식구가 먹고살아야 했다. 해순이도 물웃을 입고 바다로 나갔다.

해조를 따고, 조개를 캐다가도 문득 이마에 손을 하고 수평선을 바라보곤 아련한 듯배만 지나가도 괜히 가슴을 두근거리는 아낙네들이었다. 멀치 철이건만 후리*도 없었다. 후리막은 집 뚜껑을 송두리째 날려 버린 그대로 손볼 엄두를 내지 않았다.

- 오영수, 「갯마을」 -

(나)

S#14. 축항

시멘트로 만든 축항./윤 노인과 박 노인이 꼬니를 두고 있다.

윤 노인 거 왜 을축년 바람 때만 해도 그랬지... 용왕님만 노하시면 속절없는 거야.

박 노인 암 여부가 없지... (수평선을 보며) 여봐 저 구름 좀 보라나...

윤 노인 (침통하게) 음...

박 노인 아무래도 심상치 않아... 저 물빛도 좀 보라니까...

바람이 점점 세어진다.

S#15. 노목

성황당 뒤에 서 있는 노목이 불어오는 바람을 가누지 못하고 몹시 흔들린다.

S#16. 바위

점점 커 가는 파도가 바위에 부딪쳐 부서진다.

S#17. 축항

밀려온 파도는 축항을 뒤엎을 듯이 노한다.

S#18. 몽타주*

문을 열고, 하늘을 보는 가족들.

뛰어나와 바다를 보는 사람들.

분주하게 움직이는 아낙들.

S#19. 하늘

검은 구름이 몰려온다./번쩍이는 번개./천지를 진동하는 천둥.

S#20. 들판

폭우에 휩쓸리는 나무./무서운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벼락이 떨어지며 고목 하나에 불이 붙는다./쏟아지는 비! 비!/몰아치는 바람.

S#21. 길(밤)

돌각 담으로 된 골목길을 달리는 해순.

숨은 하늘에 치닿고/웃은 비에 젖어 나신이나 다름없고.../넘어지며 달린다./번개! 천둥...

S#22. 성황당(밤-비)

비틀거리는 해순이가 올라와서/당목 앞에 꿇어앉으며 원망스러운 눈초리로

해순 서낭님에... 서낭님에...

몇 번 부르더니 쏟아지는 빗속에서 몇 번이고 절을 한다./잠시 후 순임이가 올라와서 해순이와 같이 절을 한다.

S#23. 하늘(밤-비)

먹장 같은 구름에 뒤덮여 검기만 하다./파도 소리와 바람 소리 뿐이다./크게 번개가 친다.

S#24. 노한 밤바다

노도 속에서 비바람과 싸우는 선원들./치절한 성구의 얼굴./무엇인가 소리치지만 들리지 않는다./선미의 키를 잡으며 이를 악무는 성철./분주한 선원들의 모습./더욱더 거센 파도./흔들리는 뱃사람들.../파도에 쓰러지고/흔들림에 넘어지고.../이윽고 배는 나뭇잎처럼 덜렁 들렀다가 넘어간다.

S#25. 성황당(밤-비)

해순이와 순임이 외에도 몇몇 아낙이 모였다./제정신이 아닌 모습으로 절을 하는 아낙들.

S#26. 윤 노인의 집 앞(밤-비)

윤 노인이 나온다./순임이 따라 나오며

순임 아버지야. 이 빗속에 어디로 나가신다는 김니까...

윤 노인 마 퍼뜩 다녀올 거다...

순임 내일 아침에 가시면 안 될까요...

상수 (가며) 양이다. 거참 아무래도 무슨 일 내겠다...

나간다.

S#27. 축항(밤-비)

파도가 휘몰아치는 축항을 위협스럽게 걸어온다./빈 배에 걸려 있는 그물을 벗기려는 순간 윤 노인은 파도에 빨려 축항 밖으로 떨어진다./잠깐 허우적거리는 듯하더니 노도에 휩쓸려 버린다.

S#28. 성황당(밤-비)

더욱더 거센 비바람./아우성치듯 흔들거리는 당목. 가지가 꺾어진다./O.L.

S#29. 아침 바다

어젯밤의 폭풍우는 어디로 갔는지 자취도 없고 바다는 잔잔하다./모래밭을 적시는 잔잔한 파도.

- 오영수 원작, 신봉승 각색, 「갯마을」 -

* 후리: 그물의 한 종류.

* 몽타주: 따로따로 촬영된 장면을 결합하여 새로운 의미를 나타내는 편집 방식.

22. [A]의 서술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간접 인용을 통해 인물의 행적을 서술하고 있다.
- ② 이야기 내부 인물이 자신의 내면을 진술하고 있다.
- ③ 과거 회상을 통해 인물 간의 갈등을 심화하고 있다.
- ④ 인물의 외양 묘사를 통해 개성적 면모를 부각하고 있다.
- ⑤ 공간 변화에 따라 서술자를 달리하여 사건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23.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두 노인'은 우연히 만나 ㉠에 대해 대화를 나눈다.
- ② '두 노인'은 자연 현상을 지각함으로써 ㉠을 환기한다.
- ③ '두 노인'은 ㉠으로 인해 서로 다른 대처 방안을 제시한다.
- ④ '두 노인'은 예측이 빗나감에 따라 ㉠에 대해 회의감을 갖는다.
- ⑤ '두 노인'은 ㉠으로 인해 고깃배의 행선지에 대하여 무관심한 태도를 보인다.

24. <보기>를 참고하여 [B]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갯마을」은 시련이 연속되는 삶의 터전에서 그에 맞서는 인물들의 삶을 다룬다. 갯마을 사람들의 일상을 구성하는 사물, 장소, 일 등은 인물들의 시련과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나타내는 서사적 장치로 활용된다. 이를 통해 「갯마을」은 삶을 지켜 나가려는 의지와 희망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① '고등어 배'가 돌아오지 않은 일은 마을 사람들이 겪게 되는 시련에 해당하는군.
- ② '신문'은 마을 사람들이 상황을 더욱 심각하게 여기게 하는 매개물이군.
- ③ '바다'는 아낙네들에게 시련을 주지만 생활의 방편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중적인 의미를 지니는군.
- ④ '물옷'을 입고 바다로 나가는 것은 삶을 지켜 나가려는 해순의 의지를 보여 주는 행동이군.
- ⑤ '돛배'는 아낙네들에게 자신들의 희망이 실현될 것이라는 확신을 제공하는 대상이군.

25. (나)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S#21에서 '해순'이 달려가는 행위는 기상 악화로 인해 다급해진 속내를 보여 준다.
- ② S#22에서 '해순'이 비틀거리면서도 성황당에 오르는 것은 당혹을 지키려는 의무감을 나타낸다.
- ③ S#22에서 '순임'의 등장은 '해순'이 서낭님에게 기원하던 것을 멈추는 계기가 된다.
- ④ S#25에서 '해순'과 '순임'은 성황당에 모인 다른 아낙들과 갈등 관계를 형성한다.
- ⑤ S#26에서 '순임'은 '윤 노인'이 집을 나가는 이유를 제공한다.

26. (나)의 S#18과 S#24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S#18은 인물들의 행동을 보여 주는 장면들을 연결하여, 마을의 어수선한 분위기를 보여 주고 있다.
- ② S#18은 여러 장소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각각 보여 주어, 제시된 사건들이 갖는 상반된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 ③ S#24는 말소리가 들리지 않는 장면을 제시하여, 성구의 절박한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 ④ S#24는 행위와 표정을 하나의 장면으로 제시하여, 비바람에 맞서는 성철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 ⑤ S#24는 선원들의 위태로운 모습을 반복적으로 제시하여, 배안의 급박한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27. 다음은 (가)와 (나)에 대한 <학습 활동>이다. 과제를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학습 활동>

○ 과제: (나)는 (가)를 영상화하기 위해 변형한 시나리오이다. (가)의 ㉠~㉡를 다음과 같이 변형하여 각색했다고 할 때, 그 결과를 탐구해 보자.

(가)	(나)	(가)에서 (나)로의 각색 방향
㉠ ⇒	S#14	인물의 심리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 ⇒	S#15~S#17	비유적 표현을 시각적으로 나타내기
㉢ ⇒	S#22, S#25	하나의 사건을 여러 장면으로 제시하기
㉣ ⇒	S#28	사건의 결과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기
㉤ ⇒	S#28, S#29	하나의 상황을 O.L.(오버랩)을 활용하여 제시하기

- ① ㉠를 대화 상황에서의 “아무래도 심상치 않아...”라는 대사로 바꾸어 인물이 느끼는 위기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② ㉡를 갯마을과 바다에서 발생하는 상황으로 제시하여 자연의 위력을 부각하고 있다.
- ③ ㉢에서 성황당으로 마을 사람들이 모여드는 모습을 등장인물의 수가 다른 장면들로 나누어 구현하고 있다.
- ④ ㉣를 당목이 꺾이는 장면으로 변형하여 인물들 간의 믿음이 무너진 마을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 ⑤ ㉤에 나타난, 폭풍우가 물러간 상황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비바람이 거센 전날 밤과 파도가 잔잔해진 아침을 연결하여 제시하고 있다.

[28~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22.09

(가)

돌담으로 튼튼히 가려 놓은 집 안엔 검은 기와집 종가가 살고 있었다. 충충한 울 속에서 거미 알 터지듯 흩어져 나가는 이 집의 지손(支孫)*들. 모두 다 싸우고 찢고 헤어져 나가도 오래인 동안 이 집의 광영(光榮)을 지키어 주는 신주(神主)*들은 대머리에 곰팡이가 나도록 알려지지지는 않아도 종가에서는 무기처럼 아끼며 제삿날이면 갑자기 높아 제상(祭床) 위에 날름히 올라앉는다. 큰집에는 큰아들의 식구만 살고 있어도 제삿날이면 제사를 지내러 오는 사람들 오조 할머니와 아들며느리 손자 손주며느리 칠촌도 팔촌도 한데 얼리어 닝닝거린다. 시집갔다 쫓겨 온 작은딸 과부가 되어 온 큰고모 손꾸락을 뺨뺨 구경하는 이종 언니 이종 오빠. 한참 쪼쪼 울리던 옛날에는 오조 할머니 집에서 동원 뒷밥*을 먹어왔다고 오조 할머니 시아버니도 남편도 동네 백성들을 곧-잘 잡아들여다 모말골림*도 시키고 주릿대를 앵기었다고 지금도 종가 뒤란에는 중복사 나무 밑에서 대구리가 뺨뺨뺨들한 달걀귀신이 용용거린다는 마을의 풍설. 종가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 일을 안 해도 지내 왔었고 대대 손손이 아-무런 재주도 물리어받지는 못하여 종갓집 영감님은 근지 안경을 쓰고 눈을 꺾꺾거리며 먹을 궁리를 한다고 작인(作人)들에게 고리대금을 하여 살아 나간다.

- 오장환, 「종가」 -

- * 지손: 딸이 아닌 자손에서 갈라져 나간 파의 자손.
- * 신주: 죽은 사람의 위패.
- * 뒷밥: 고사나 제사를 지낸 후 객귀를 위해 차리는 상.
- * 모말골림: 곡식을 담은 그릇 위에 무릎을 꿇리는 형벌.

(나)

노래는 심장에, 이야기는 뇌수에 박힌다
 처용이 밤늦게 돌아와, 노래로써
 아내를 범한 귀신을 끌어 엎드리게 했다지만
 막상 목청을 떼어 내고 남은 가사는
 베개에 떨어뜨린 머리카락 하나 건드리지 못한다 [A]
 하지만 처용의 이야기는 살아남아
 새로운 노래와 풍속을 짓고 유전해 가리라
 정간보가 오선지로 바뀌고
 이제 아무도 시집에 약보를 그리지 않는다
 노래하고 싶은 시인은 말 속에 [B]
 은밀히 심장의 박동을 끌라 넣는다
 그러나 내 걱정의 상처는 노래에 쉬이 덧나
 다스리는 처방은 이야기일 뿐
 이야기로 하필 시를 쓰며
 뇌수와 심장이 가장 긴밀히 결합되길 바란다.

- 최두석, 「노래와 이야기」 -

28. (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이 집의 지손들이’ ‘거미 알 터지듯 흩어져 나’간다는 데서, 종가의 번성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낸다.
- ② ‘오래인 동안 이 집의 광영을 지키어 주는 신주들이’ ‘제삿날이면 갑자기 높아 제상 위에 날름히 올라앉는다’는 데서, 종가에 대한 풍자적 태도를 드러낸다.
- ③ ‘동네 백성들을 곧-잘 잡아들여다 모말골림도 시키고 주릿대를 앵기었다’는 데서, 종가의 위세에 대한 시기심을 드러낸다.
- ④ ‘종가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 일을 안 해도 지내 왔었고 대대 손손이 아-무런 재주도 물리어 받지는 못’했다는 데서, 종가의 내력을 존중하는 태도를 드러낸다.
- ⑤ ‘근지 안경을 쓰고 눈을 꺾꺾거리’는 ‘종갓집 영감님’이 ‘작인들’에게 고리대금을 하여 살아 나간다’는 데서, 종가에 대한 선망을 드러낸다.

29. [A], [B]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노래’와 ‘가사’의 융합이 가져온 결과를 보여 준 것이다.
- ② [A]는 ‘노래’와 ‘이야기’가 결합되었을 때 나타나는 단점을 설명한 것이다.
- ③ [B]는 시인의 ‘말’에 ‘이야기’가 직접 연결된 상황을 표현한 것이다.
- ④ [B]는 ‘노래’의 성격이 약화된 ‘말’에 ‘노래’가 주는 감동을 불어넣는 상황을 보여 준 것이다.
- ⑤ [A]는 ‘이야기’의 도입이 지닌 한계를, [B]는 ‘노래’의 회복이 지닌 의의를 설명한 것이다.

30.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쪼쪼 울리던 옛날’과 ‘달걀귀신이 용용거린다는 마을의 풍설’을 통해 ‘종가’에 대한 인상을 감각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 ② (가)는 ‘돌담으로 튼튼히 가려 놓은 집’과 ‘검은 기와집’을 통해 ‘종가’의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 ③ (나)는 ‘그러나’라는 시상 전환 표지를 활용하여 ‘노래’만으로는 화자가 바라는 ‘시’ 창작이 어렵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 ④ (나)는 ‘처용’이 부른 ‘노래’와 ‘처용’에 대한 ‘이야기’의 성격을 비교하여 주제를 구체화하고 있다.
- ⑤ (가)는 ‘지금도’를 통해 ‘종가’의 불변성을, (나)는 ‘이제’를 통해 ‘시’의 영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31.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가)에서 화자는 '종가'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서술함으로써 종가와 연관된 사람들의 상처를 드러내고, 이러한 종가의 이야기가 현재의 상황과 연결되도록 현재 시제를 주로 사용하여 생동감 있게 표현했다. (나)에서 화자는 '시'가 '노래'의 성격을 되찾아야 할 뿐만 아니라, 감정의 과잉으로 상처가 오히려 깊어지기도 하는 노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야기'가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가)는 종가에 대한 화자의 경험을 이야기한 산문 형식의 시이고, (나)는 「종가」와 같은, 이야기가 두드러진 시를 짓는 까닭을 제시한 시론 성격의 시이다.

- ① (가)는 종가 구성원들의 행동을 현재 시제로 생동감 있게 표현함으로써 종가의 이야기와 현실이 연관되도록 서술하고 있군.
- ② (가)는 '동네 백성들이 받은 상처를 보여 줌으로써 종가의 부정적 측면을 드러내려는 화자의 의도를 부각하고 있군.
- ③ (나)는 상처가 노래에 쉽게 덧난다고 말함으로써 시에서 노래의 성격이 분리된 결과를 보여 주고 있군.
- ④ (나)는 '뇌수'와 '심장'의 결합을 희망한다고 말함으로써 시에 이야기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담아내고 있군.
- ⑤ (가)는 종가에 얽힌 경험과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나)는 시 창작에서 이야기의 활용이 지니는 의미를 제시하고 있군.

[32~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22.09

(가)

공후배필은 못 바라도 군자호구 원하더니
삼생의 원업(怨業)이오 월하의 연분으로
장안유협(長安遊俠) 경박자(輕薄子)를 ㉠ 꿈같이 만나 있어
당시의 용심(用心)하기 살얼음 디디는 듯
삼오이팔 겨우 지나 천연여질 절로 이니
이 얼굴 이 태도로 백년기약하였더니
연광(年光)이 훌훌하고 조물이 다시(多猜)*하여
봄바람 가을 물이 배오리에 북 지나듯
설빈화안 어디 두고 면목가증(面目可憎)* 되거거나
내 얼굴 내 보거니 어느 임이 날 필요나

[A]

(중략)

옥창에 심은 매화 몇 번이나 피여 진고
겨울밤 차고 찬 제 자취는 셋거 치고
여름날 길고 길 제 굶은비는 무슨 일고
삼춘화류(三春花柳) 호시절(好時節)의 경물이 시름없다
가을 달 방에 들고 실솔(蟋蟀)이 상(床)에 울제
긴 한숨 지는 눈물 속절없이 험만 많다
아마도 모진 목숨 죽기도 어려울사
도로혀 풀쳐 헤니 이리하여 어이하리
청등을 돌려 놓고 녹기금(綠綺琴) 빗겨 안아
벽련화(碧蓮花) 한 곡조를 시름 좇아 셋거 타니
소상야우(瀟湘夜雨)의 댕소리 섯도는 듯
화표천년(華表千年)의 별학이 우니는 듯
옥수(玉手)의 타는 수단 옛 소리 있다마는
부용장(芙蓉帳) 적막하니 뉘귀에 들리소니
간장이 구곡되어 굵이굵이 끊쳤어라
차라리 잠을 들어 ㉡ 꿈에나 보려 하니
바람의 지는 잎과 풀 속에 우는 짐승
무슨 일 원수로서 잠조차 깨우는다

[B]

- 허난설헌, 「규원가」 -

* 다시: 시기가 많음.

* 면목가증: 얼굴 생김이 남에게 미움을 살 만한 데가 있음.

(나)

재 위에 우뚝 선 소나무 바람 불 적마다 흔들흔덕
개울에 섰는 버들 무슨 일 좇아서 흔들흔들
임 그려 우는 눈물은 옹거니와 입하고 코는 어이 무슨 일
좇아서 후루룩 비쪽 하나니

[C]

- 작자 미상 -

32. [A]~[C]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는 여성의 생활에 밀접한 소재를 활용하여 흘러가는 세월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시각적으로 표현하였다.
- ② [B]는 단어를 반복하는 구절을 행마다 사용하여 화자가 주목하는 각 계절의 특성을 강조하였다.
- ③ [C]는 두 대상을 발음이 비슷한 의태어로 표현하여 움직이는 모습의 유사성을 드러내었다.
- ④ [A], [B]는 계절적 배경을 알려 주는 시어를 활용하여 시간에 따라 화자의 처지가 달라졌음을 드러내었다.
- ⑤ [B], [C]는 대구를 활용하여 리듬감을 형성하였다.

33. ㉠,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흐릿한 기억 때문에 혼란스러운 화자의 심정을 나타낸다.
- ② ㉡은 현실에서는 화자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선택한 방법이다.
- ③ ㉠은 임과의 만남에 대한 기대에서, ㉡은 임과의 이별에 대한 망각에서 비롯된다.
- ④ ㉠은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 회상하고, ㉡은 곧 일어날 일에 대해 단정하고 있다.
- ⑤ ㉠은 인연의 우연성에 대한, ㉡은 재회의 필연성에 대한 화자의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34.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가), (나)는 이별에 대한 서로 다른 대처를 보여 준다. (가)의 화자는 외부와 단절된 채 자신의 쓸쓸한 내면에 몰입하고, 자신의 슬픔을 주변으로 확장한다. (나)의 화자는 외부 대상의 모습에서 자신과의 동질성을 발견하며 슬픔을 확인하면서도, 슬픔을 분출하는 자신의 우스운 외양에 주목한다. (가)는 슬픔을 확장하고 펼쳐 냄으로써, (나)는 슬프지만 슬픔과 거리를 둬으로써 이별에 대처한다.

- ① (가)에서 '실술이 상에 울 제'는 화자가 자신의 슬픔을 주변으로 확장한 것을 보여 주는군.
- ② (가)에서 '부용장 적막하니 뉘 귀에 들리소니'는 화자가 외부와의 교감을 거부하고 내면에 몰입하는 모습을 드러내는군.
- ③ (나)에서 화자는 '소나무'가 '바람 불 적마다 흔덕'거리는 모습에서 자신과의 동질성을 발견한 것이겠군.
- ④ (가)의 '삼춘화류'는, (나)의 '버들'과 달리 화자의 내면과 대비되어 외부와의 단절감을 강조하는군.
- ⑤ (나)의 '후루룩 비쭈'하는 '입하고 코'는, (가)의 '긴 한숨 지는 눈물'과 달리 화자가 자신의 우스운 외양에 주목하여 슬픔과 거리를 두는 것을 보여 주는군.

[18~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22.06

[**앞부분의 줄거리**] 나는 기범이 죽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기 위해, 그가 살았던 구천동을 찾아간다. 기범의 행적을 잘 알고 있는 '임 씨'를 만나 사연을 듣기 전에, 일규의 장례식 후에 있었던 기범과의 과거 일을 회상한다.

“네가 일규를 어떻게 아냐? 네간 게 뭘 안다구 감히 일규를 입에 올리냐?”

기범은 순간 잔을 던지고 미친 듯이 웃기 시작했다. 너무나 돌연한 웃음이어서 나는 그때 꽤나 놀랐다. 기범이 것처럼 미친 듯이 웃는 것을 나는 그날 처음 보았다.

“그래, 네 말이 맞다. 나는 그놈을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 하지만 누가 그놈을 진심으로 사랑한 줄 아냐? 너희냐? 너희가 그놈을 사랑한 줄 아냐?”

① 나는 긴장했다. 그의 눈에서 번쩍이는 눈물을 보았기 때문이다. “너는 그놈이 아깝다구 했지만 나는 그놈이 죽어 세상 살맛이 없어졌다. 나는 살기가 **울적할 때마다** 허공에서 그놈의 쌍판을 찾았다. 나는 그놈을 통해서만 살아가는 **재미와 기쁨**을 느꼈다. 그러나 그놈 역시 사정은 나하구 똑같았다. 나를 **발길로 걷어찼지만** 그놈은 나를 잊은 적이 없다. 우리는 **서로 사랑했지만** 사랑하는 방법이 달랐을 뿐이다.”

(중략)

“원래 그 사람은 도회지에서 살던 사람인데 왜 그때 도시를 버리구 **깊은 산골**을 찾았는지 모르겠군.”

“처음엔 저두 많이 궁금하게 생각했습니다. 뭔가 세상에 죄를 짓구 숨어 사는 분이 아닌가 했습니다. ㉠ 더구나 이리루 들어오자 머리를 깎구 수염까지 기르셨거든요. 그러나 오래 피시구 살다 보니 저대루 차츰 납득이 갔습니다.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세상에 뭔가 실망을 느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본인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소?”

“과거 얘기는 좀체 안 하시는 편이었는데 언젠가는 내게 그 비슷한 말씀을 하시더군요. 듣기에 따라서는 퀘번 같지만 그분은 남하구 다른 ㉡ **묘한 철학**을 지니구 계셨습니다.”

“그걸 한번 들려줄 수 없소?”

“그분은 세상이 어지럽구 더러울 때는 그것을 구하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다구 하셨습니다. 세상을 좀 더 썩게 해서 더 이상 그 세상에 썩을 것이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썩지 않게 고치려구 했다가는 공연히 사람만 상하구 힘만 배루 든다는 것입니다. ㉢ ‘모두 썩어라, 철저히 썩어라’가 **그분이 세상을 보는 이상한 눈**입니다. 제 나름의 어설픈 추측입니다만 그분은 **사람만이 지닌 이상한 초능력**을 믿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은 온갖 악행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를 송두리째 포기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철저히 썩어서 더 썩을 것이 없게 되면 사람은 살아남기 위해 언젠가는 스스로 자구책을 쓴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바로 그걸 믿으셨고, 이러한 자기 생각을 부정(不正)의 미학이라는 묘한 말루 부르시기두 했습니다.”

나는 순간 가슴 한구석에 뭔가가 미미하게 부딪쳐 오는 진동을 느꼈다. 진동의 진상은 확실치 않지만, 나는 그것이 기범을 이해 하는 어떤 열쇠가 아닌가 생각했다. 그의 온갖 기행과 퀘번 들이 어지러운 혼란 속에서 그제야 언뜻 한 가닥의 질서 위에 어렴풋이 들어서는 것이었다.

“헌테 세상에 대해 그런 생각을 지닌 사람이 갑자기 왜 세상을 등지구 이런 산속에 박혀 사는 거요?”

“당신께서 아끼시던 친구 한 분이 갑자기 세상을 버리셨다구 하시더군요. 그때 아마 **충격을 받으시구** 이리루 들어오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누구랍니까, 그 친구가?”

“이름은 말씀 안 하시구 그분을 언제나 ‘미련한 놈’이라구만 부르셨습니다.”

오일규다. 나는 그제야 오일규의 장례식 후에 기범이 격렬하게 지껄인 저 시끄럽던 요설들이 생각났다. 어쩌면 기범은 그때 이미 세상을 등질 결심을 했는지도 알 수 없다. ㉣ **아니 그는 그 얼마 후에 내 앞에서 정말로 깨끗하게 사라져 버린 것이다.**

“그래 그 친구가 죽은 후로 왜 세상을 등졌답니까?”

“**세상 살 재미가 없어졌다**구 하시더군요. 아마 친구분을 꽤나 좋아하셨던 모양입니다. 그 미련한 놈이 죽어 버렸으니 자기도 앞으로는 미련하게 살밖에 없노라구 하셨습니다. ㉤ **당신이 미련하다고 말씀하는 건 우습게 들리시겠지만 착한 일을 뜻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온 후 사람이 갑자기 달라진 거요?”

“진 그분의 과거를 몰라서 어떻게 달라졌는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곳에 오신 후로는 그분은 거의 남을 위해서만 사셨습니다. 제가 생명을 구한 것두 순전히 그분의 덕입니다.”

나는 다시 기범이 지껄었던 과거의 ㉥ **요설**들이 생각난다. 세상을 항상 역(逆)으로만 바라보던 그의 난해성이 또 한 번 나를 혼란 속에 빠뜨린다. 그는 어쩌면 이 세상을 역순(逆順)과 역행(逆行)에 의해 누구보다 열심으로 가장 솔직하게 살다 간 것 같다. 그에게 악과 선은 등과 배가 [A] 서로 맞붙은 동위(同位) 동질(同質)의 것이었는지도 알 수 없다. 그는 악과 선 중 아무것도 믿지 않았고 오직 믿은 것이라고는 세상에는 아무것도 믿을 것이 없다는 사실뿐이었다. 그와 오일규가 맞부딪쳤을 때 오일규가 해체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것은 가장 비열한 삶이 가장 올바른 삶을 해체시키는 역설적인 예인 것이다.

- 홍성원, 「무사와 악사」 -

18. [A]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이야기 내부의 서술자가 인물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 ② 이야기 내부의 서술자가 인물에 대한 평가를 관념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 ③ 이야기 외부의 서술자가 인물의 체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배경을 실감나게 서술하고 있다.
- ④ 이야기 외부의 서술자가 인물의 회상을 중심으로 사건의 전개를 지연시키며 서술하고 있다.
- ⑤ 이야기 외부의 서술자가 인물의 내면을 묘사하여 인물 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음을 서술하고 있다.

19. 서사의 흐름을 고려하여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돌연한 웃음을 보이다가 눈물을 보이는 식으로 갑작스러운 감정 변화를 보인 데 대한 반응이다.
- ② ㉡: 신원이 미심쩍다고 의심하는 상황에서 그 외모가 의심을 가중했다는 생각이 담긴 말이다.
- ③ ㉢: 세상에 대한 관점이 상식적이지 않아 일반적으로는 수긍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드러낸 판단이다.
- ④ ㉣: 약속을 곧바로 실행에 옮긴 행위에 대한 놀라움을 드러낸 표현이다.
- ⑤ ㉤: 말의 표면적인 뜻과 달리 그 속에 숨은 뜻을 파악한 우호적인 해석이다.

20.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에 대한 '나'의 이해는 기범에 대한 '나'의 인식이 전환되는 데에 기여한다.
- ② ㉡에 대한 얘기를 '나'가 꺼낸 것은 기범에 대한 '저'의 오해를 풀 목적에서이다.
- ③ '저'는 '나'가 기범에 대해 품은 의문이 ㉡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 ④ '저'가 ㉠로 인해 기범을 오해한다면, '나'는 ㉡에 의해 기범을 이해한다.
- ⑤ '저'는 기범이 선행을 베풀며 보인 변화가 ㉡에서 ㉠로 변화된 과정과 일치함을 알고 있다.

21. <보기>의 관점에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사람들은 존경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닮아 가며 그와 자신을 동일시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를 통해 심리적 위안이나 성취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그 상대로부터 외면받거나 그가 부재한 상황에서는 마음에 상처를 입는다. 이때 동일시의 상대를 부정하거나, 외면당하지 않았다고 자신의 처지를 합리화한다. 또는 관심을 다른 데로 돌려 그 상황에서 아예 벗어나고자 한다. 「무사와 악사」에서 '기범'이 보이는 기행과 궤변은 '일규'를 동일시하려는 상대로 의식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 ① 일규의 죽음에 '충격을 받'고 '세상 살 재미가 없어졌다'는 기범의 말이 사실이라면, 동일시하려던 상대의 부재가 가져오는 심리적 영향이 컸다는 것이겠군.
- ② 기범이 자신을 '발길로 걷어찼'던 일규로부터 외면받았다고 본다면, 일규와 '서로 사랑했'다고 믿는 기범의 진술은 외면당한 자신의 처지를 합리화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겠군.
- ③ '울적할 때마다' 일규를 떠올리며 삶의 '재미와 기쁨'을 얻었다는 기범의 고백을 동일시의 결과로 이해한다면, 일규를 통해 기범이 심리적 위안을 얻었음을 추측할 수 있겠군.
- ④ 일규의 죽음에 기범이 도시를 떠나 '깊은 산골'에 정착한 계기였다고 본다면, 이는 동일시하려던 상대가 사라진 상황에서 관심을 다른 데로 돌려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였겠군.
- ⑤ 기범이 일규를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는 것이 동일시의 대상에 대한 존경심의 표현이라면, '사람만이 지닌 이상한 초능력'에 대한 기범의 믿음은 동일시를 통한 성취감에 해당하겠군.

[22~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22.06

(가)

청평사의 나그네	有客清平寺
봄 산을 마음대로 노니네	春山任意遊
고요한 외로운 탑에 산새 지저귀고	鳥啼孤塔靜
흐르는 작은 내에 꽃잎 떨어지네	花落小溪流
좋은 나물은 때 알아 돌아나고	佳菜知時秀
향기로운 버섯은 비 맞아 부드럽네	香菌過雨柔
시 읊조리며 신선 골짜기 들어서니	行吟入仙洞
나의 백 년 근심 사라지네	消我百年愁

- 김시습, 「유객(有客)」 -

(나)

도연명(陶淵明) 죽은 후에 또 연명(淵明)이 나타나
밤마을 옛 이름이 때마침 같을시고
돌아와 수졸전원(守拙田園)*이야 그와 내가 다르라 <제1곡>

삼공(三公)이 귀하다 한들 이 강산과 바꿀쏘나
조각배에 달을 싣고 낚시대 흘던질 때
이 몸이 이 청흥(淸興) 가지고 만호후*인들 부러우라 <제8곡>

어지럽고 시끄러운 문서 다 주어 내던지고
필마(匹馬) 추풍에 채를 쳐 돌아오니
아무리 매인 새 놓였다고 이대도록 시원하라 <제10곡>

새버들 가지 꺾어 낚은 고기 꿰어 들고
주가(酒家)를 찾으려 낚은 다리 건너가니
은 곁에 살기꽃 저 쌓이니 갈 길 몰라 하노라 <제15곡>

최 행수 썩달임 하세 조 동갑 꽃달임 하세
닭찜 게찜 올려 점심은 날 시키소
매일에 이렇게 지내면 무슨 시름 있으랴 <제17곡>

- 김광욱, 「율리유곡(栗里遺曲)」 -

* 수졸전원: 전원에서 분수를 지키며 소박하게 살아감.

* 만호후: 재력과 권력을 겸비한 세도가.

(다)

오십이 넘은 판교(板橋)는 마음에 맞지 않는 관직을 버리고
거리낌 없는 자유로운 심경에서 여생을 보냈다.

“청수(淸瘦)한 한 폭 대를 그리어 추풍강상(秋風江上)에 낚
대나 만들까 보다.”

① 궁핍을 면할 양으로 본의 아닌 생활을 계속하느니보다
모든 속사(俗事)를 버리고 표연히 강상(江上)의 어객(漁客)이
되는 것이 운치 있는 생활이기도 하려니와 얼마나 자유를 사랑
하는 청고(淸高)한 마음이나, 고기를 낚는 취미도 실로 삼매경에
몰입할 수 있는 좋은 놀음이다.

푸른 물이 그득히 담긴 못가에서 흐느적거리는 낚싯대를 척
휘어잡고 바늘에 미끼를 물린다. 가장자리에는 물이끼들이 짙

어졌을 뿐 아니라 고기도 송사리 폐밖에 오지 않는지라, 팔 힘
자라는 대로 낚싯줄이 허(許)하는 대로 되도록 멀리 낚시를 던
져 조금이라도 큰 고기를 잡을 양으로 한껏 내던져도 본다. 풍
당 물결이 여울처럼 흔들리고 나면 거울 같은 수면에 찌만이
외롭고 슬프게 곧추서 있다.

① 한 점 찌는 객이 되고 나는 주인이 되어 알력과 모략과
시기와 저주로 팍 찬 이 풍진(風塵) 세상을 등 뒤로 두고 서로
무언의 우정을 교환한다.

내 모든 정열을 오로지 외로이 떠 있는 한 점 찌에 기울이고
있노라면, 가다가 ㉠ 별안간 이 한 점 찌는 술 취한 놈처럼 까딱
까딱 흔들리기 시작한다.

‘고기가 왔구나!’

다음 순간, 찌는 물속으로 자꾸 빨려 들어간다.

‘웁다, 큰 놈이 물린 게로군.’

잡아당길 때 무거운 것을 생각하면서 배꼽에 힘을 잔뜩
주고 행어나 낚대를 놓칠세라 두 손으로 팍 붙잡고 번쩍
치켜 올리면, 허허 이런 기막힌 일도 있을까. 큰 고기는커녕
[A] 어떤 때는 방계란 놈이 달려 나오고, 어떤 때는 개구리란
놈이 발버둥을 치는 수가 많다. 하면 되는 줄만 알았던
낚시질도 간대로 우리 따위까지 단번에 되란 법은 없나
보다.

세상일이란 모조리 그러한 것이리라마는 아무리 내 재주가
서툴다기로서니 개구리나 방계란 놈들도 염치가 있지,
속어에 이르기를 승어가 뛰니 망둥이도 뛰는 셈으로 나는
나대로 제법 강상의 어객인 양하고 나섰는 판에, 그래도
[B] 그럴 듯 미끈한 잉어까지야 못 물린다손 치더라도 고기도
체면은 알 법한지라, 하다못해 봉어 새끼쯤이야 안 물리라
하는 판에, 얼토당토않은 구역질 나는 놈들이 제가 체체
하고 가다듬은 내 마음을 더럽힐 줄 어찌 알았으랴.

㉠ 세상이 하 뒤숭숭하니 고요히 서재나 지키어 한묵(翰墨)*의
유희(遊戱)로 폭 박혀 있자는 것도 말처럼 쉽사리 되는 것은
아니라, 그렇다고 거리로 나가 성격 파산자처럼 공연스레 왔다
갔다 하기도 부질없고, 보이는 것 들리는 것이 모조리 심사 틀
리는 소식밖에 없어 그래도 죄 없는 곳은 내 서재니라 하여 며
칠만 틀어박혀 있으면 그만 속에서 울화가 터져 나온다.

위진(魏晉) 간에 심산벽촌(深山僻村)에 은거하여 청담(淸談)
이나 일삼던 그네의 심경을 한때는 욱을 한 적도 있었으나,
㉡ 막상 나 자신이 그런 심경에 처해 있고 보니 고인(古人)의
불우한 그 심정을 넉넉히 동감하게 된다.

- 김용준, 「조어삼매(釣魚三昧)」 -

* 한묵: 글을 짓거나 쓰는 것을 이르는 말.

22.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연물의 속성에 주목하여 교훈적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 ② 설의적 표현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삶의 태도를 제시하고 있다.
- ③ 먼 경치에서부터 가까운 곳으로 시선을 옮기며 심리의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 ④ 화자가 자신을 객관화하는 표현을 내세워 내적 갈등에 대한 공감을 유도하고 있다.
- ⑤ 계절을 드러내는 시어를 사용하여 시기에 부합하는 자연의 모습을 구체화하고 있다.

23.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제1곡>에서는 지명에 주목하여 화자의 지향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제8곡>에서는 자연의 가치를 부각하여 화자가 즐기는 흥취를 강조하고 있다.
- ③ <제10곡>에서는 화자의 현재 상황에 대한 만족감을 바탕으로 자연물에 대한 연민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제15곡>에서는 다양한 행위를 연속적으로 나열하여 화자가 누리는 생활의 일면을 제시하고 있다.
- ⑤ <제17곡>에서는 청자를 호명하며 즐거움을 함께하려는 화자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다.

24. 문맥을 고려하여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생활과 대비되는 낚시의 의의를 드러내고 있다.
- ② ㉡: 낚시 도구와 글쓴이의 관계를 설정하여 낚시에 몰입하는 태도를 표현하고 있다.
- ③ ㉢: 낚시에 집중했던 글쓴이의 기다림과 기대에 부응하는 순간을 부각하고 있다.
- ④ ㉣: 낚시의 대안으로 선택한 것으로서, 글쓴이에게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해 준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 ⑤ ㉣: 낚시를 해 본 후 달라진 글쓴이의 마음가짐으로서, 은거했던 옛사람들에 기대어 자신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25. (나)와 (다)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나)의 '도연명'과 (다)의 '판교'는 각각 화자와 글쓴이가 행적을 따르고자 하는 인물이다.
- ② (나)의 '삼공'과 (다)의 '성격 파산자'는 모두 세속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들을 가리킨다.
- ③ (나)의 '세버들 가지'와 (다)의 '청수한 한 폭 대'는 각각 화자와 글쓴이가 자신과 동일시하는 대상이다.
- ④ (나)의 '고기'와 (다)의 '송사리'는 각각 화자와 글쓴이가 자신을 보잘것없는 존재로 비유한 표현이다.
- ⑤ (나)의 '시름'과 (다)의 '육'은 각각 화자와 글쓴이가 자신을 억압하는 존재를 염두에 둔 표현이다.

26. [A]와 [B]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 나타난 글쓴이의 경이감은 [B]에서 인생에 대한 낙관적 기대로 확장된다.
- ② [A]에 나타난 글쓴이의 무력감은 [B]에서 과거의 삶에 대한 동경을 통해 해소된다.
- ③ [A]에 나타난 글쓴이의 실망감은 [B]에서 자신의 손상된 체면에 대한 한탄으로 이어진다.
- ④ [A]에 나타난 글쓴이의 상실감은 [B]에서 새로운 이상을 품도록 만드는 계기로 작용한다.
- ⑤ [A]에 나타난 글쓴이의 혐오감은 [B]에서 자신의 능력에 대한 겸손한 반성으로 전환된다.

27. <보기>를 바탕으로 (가)~(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문학 작품에서 공간에 대한 인식을 형상화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공간에 대한 인식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공간 내 특정 대상의 속성으로써 그 대상이 포함된 공간 전체를 표상하기도 한다. 또한 이러한 인식은 공간 간의 관계를 통해 표현되기도 한다. 이때 관계를 이루는 공간에는 작품에 명시된 공간은 물론 그 이면에 전제된 공간도 포함된다.

- ① (가)의 '신선 골짜기'는 화자가 지향하는 공간으로서, 이에 대립되는 곳으로 '백 년 근심'이 유발된 공간이 이면에 전제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 ② (나)의 '남은 다리'는 '주가'와 '온 골'이라는 대비되는 속성을 지닌 두 공간의 경계를 표현하여, 양쪽 모두에 미련을 버리지 못한 화자의 상황을 상징하고 있겠다.
- ③ (나)에서 화자가 돌아온 곳은 '어지럽고 시끄러운 문서'로 표상되는 공간과 대비되는 공간으로서, '이대도록 시원하랴'와 같은 반응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낸 것이겠다.
- ④ (다)에서 '푸른 물이 그득히 담긴 못가'는 글쓴이가 '삼매경'에 빠지기를 기대하는 곳으로, 글쓴이가 자신의 지향과 직결되는 공간을 직접적으로 드러낸 것이겠다.
- ⑤ (다)에서 '내 서재'는 '심사 틀리는 소식'을 피하기 위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속에서 울화가 터져 나온다'고 언급되었다는 점에서, 그 이면에는 새로운 공간에 대한 지향이 있음을 알 수 있겠다.

[28~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22.06

[**앞부분의 줄거리**] 김 진사의 딸 채봉은 선비 필성과 정훈하나, 우여곡절 끝에 스스로 기녀가 되어 송이로 이름을 바꾼다. 송이의 서화를 눈여겨본 감사가 송이를 데려와 관아에서 살게 한다.

송이는 감사가 있는 별당 건넌방에 가 홀로 살고 지내며 감사가 시키는 일을 처리하고 지내며 마음에 기생을 면함은 다행하나, 주야로 잊지 못하는 바는 부모의 소식과 장필성을 못 봄을 한하고 이 감사가 보는 데는 감히 그 기색을 드러내지 못하니, 혼자 있을 때에는 주야 탄식으로 지내더라.

장필성이 이 소문을 듣고 또한 다행하나, 이때 감사는 송이 있는 별당은 외인 출입을 일절 엄금하니, 다시 만날 길이 없어 수심으로 지내더니, 한 계책을 생각하되,

“나도 감사 앞에서 거행하는 관속이 된다면 채봉을 만나기가 쉬우리라.”

하고 여러 가지로 주선하더니, ㉠ **이때** 마침 감사가 문필이 있는 이방을 구하는지라. 필성이 한 길을 얻어 이방이 되어 감사에게 현신하니 감사가 일견 대희하여 칭찬하며 왈,

“가위 여옥기인(如玉其人)이로다. 필성아, 이방이라 하는 것은 승상접하(承上接下)하는 책임이 중대하니, 아무쪼록 일심봉공(一心奉公)하여 민원(民怨)이 없도록 잘 거행하라.”

필성이 국궁수명(鞠躬受命)*하고 차후로 공사 문첩(文牒)*을 가지고 매일 드나들며 송이의 소식을 알고자 하나 별당이 깊고 깊어 지척이 천 리라 어찌 알리오.

차시 송이는 별당에 있어 이 감사가 들어와 공문을 쓰라면 쓰고 판결문을 내라면 내고 하더니, ㉡ **하루는** ㉢ **공사 문첩 한 장을** 본즉, 필성의 글씨가 완연한지라, 속으로 생각하되,

‘이상하다. 필법이 장 서방님 필적 같으니, 혹 공청에를 드나 드나.’

하고 감사더러 묻는다.

“㉣ **요사이** 공사 들어온 것을 보면 전과 글씨가 다르오니 이방이 갈리었습니까?”

“응, 전 이방은 같고 장필성이란 사람으로 시켰다. 네 보아라, 글씨를 잘 쓰지 않느냐.”

송이가 이 말을 듣고 속으로 암암이 기꺼하며, 어떻게 하면 한번 만나 볼까, 그렇지 못하면 편지 왕복이라도 할까, 사람을 시키자니 만일 대감이 알면 무슨 죄벌이 내려올지 몰라 못 하고 무슨 기회를 기다리나 때를 타지 못하여 필성이나 송이나 서로 글씨만 보고 창연히 지내기를 ㉤ **이미** 반년이라. 자연 서로 상사병이 될 지경이더라.

이때는 추구월(秋九月) 보름 때라. 월색은 명량하여 남창에 비치었고, 공중에 외기러기 웅웅한 긴 소리로 짝을 찾아 날아가고, 동산의 송림 간에 두견이 슬피 울어 붙여귀를 화답하니, 무심한 사람도 마음이 상하거든 독수공방에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 송이야 오죽할까. 송이가 모든 심사 잊어 버리고 책상머리에 의지하여 잠깐 졸다가 기러기 소리에 놀라 눈을 뜨고 보니, 남창 밝은 달 발허리에 가득하고 쓸쓸한 낙엽성은 심회를 돕는지라. 잊었던 심사가 다시

[A] 가슴에 가득하여지며 눈물이 무심히 떨어진다.

송이가 남창을 가만히 열고 달빛을 내다보며 위연탄식하는데,

“달아, 너는 내 심사를 알리라. 작년 이때 뒷동산 명월 아래 우리 님을 만났더니, 달은 다시 보진마는 님은 어찌 못 보시고 그 옛날 심양강 거문고 뜬던 여인은 만고문장 백낙천(萬古文章白樂天)을 달 아래 만날 적에 마음속에 맺힌 말을 세세히 풀었건만, 나는 어찌 박명하여 명량한 저 달 아래서 부득설진심중사(不得說盡心中事)하니 가련하지 아니할까. 사람은 없어 말 못하나 차라리 심중사를 종이 위에나 그리리라.”

하고 연상을 내어 먹을 흙썬 갈고 청황모 무심필을 덩벽 풀어 백룡화주지를 책상에 펼쳐 놓고 섬섬옥수로 붓대를 곱게 쥐고 장우단탄(長吁短歎)에 맥맥히 앉았다가 고개를 돌리어 벽공의 높은 달을 두세 번 우러러보더니, 서두에 ‘추풍감별곡(秋風感別曲)’ 다섯 자를 쓰고, 상사가 생각 되고 생각이 노래 되고 노래가 글이 되어 붓끝을 따라 나오니 붓대가 설 새 없이 쓴다.

(중략)

아득한 정신은 기러기 소리를 따라 멀어지고 몸은 책상머리에 엎드렸더니, 잠시간에 잠이 들어 주사야몽(晝思夜夢) 꿈이 되어 장주(莊周)의 나비같이 두 날개를 떨치고 바람 좇아 중천에 떠다니며 사편을 살피니, 오매불망하던 장필성이 적막 공방에 혼자 몸이 전일의 답시(答詩)를 내놓고 보며 울고 울고 보며 전전반측 누웠거늘, 송이가 달려들어 마주 붙들고 울다가 꿈 가운데 우는 소리가 잠꼬대가 되어 아주 내쳐 울음이 되었더라.

사람이 늙어지면 상하물론(上下勿論)하고 잠이 없는 법이라.

㉥ **이때** 이 감사는 연광도 팔십여 세뿐 아니라, 일도방백(一道方伯)이 되어 밤이나 낮이나 어떻게 하면 백성의 원성이 없을까, 어떻게 하면 국은(國恩)에 보답할까 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고 누웠더니, 홀연히 송이의 방에서 흐느껴 우는 소리가 들리거늘, 깜짝 놀라 속으로 짐작하되,

‘지금 송이가 나이 십팔 세라. 필연 무슨 사정이 있어 저리하나 보다.’

하고 가만히 나와 보니, 남창을 열고 책상머리에 누웠는데 불을 돋우어 놓고 책상 위에 무엇을 써서 펼쳐 놓았거늘, 마음에 괴이하여 가만히 들어가 ㉦ **두루마리**를 펼치고 본즉 ‘추풍감별곡’이라.

- 작자 미상, 「채봉감별곡」 -

* 국궁수명: 존경하는 뜻으로 몸을 굽히며 분부를 받음.

* 공사 문첩: 관청에서 공무상 작성하는 문서.

28. 밑줄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송이는 부모의 소식으로 애태우다 감사의 걱정을 산다.
- ② 송이는 필성이 이방이 되었음을 감사를 통해 알게 된다.
- ③ 감사는 필성의 문필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기대를 건다.
- ④ 송이는 필성과 꿈속에서나마 일시적으로 만남을 이룬다.
- ⑤ 필성은 송이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감사에게 숨기고 있다.

29.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에 대해 대화하며 송이의 그리움을 눈치챈 감사는, ㉡를 읽으며 그 대상이 필성임을 알게 된다.
- ② ㉠을 작성한 사람에 대한 궁금증을 갖게 된 송이는, ㉡를 통해 자신의 궁금증을 필성에게 알린다.
- ③ ㉠을 본 송이는 필성이 가까운 곳에 있음을 알게 되고, ㉡에 필성을 만나지 못하는 마음을 풀어낸다.
- ④ ㉠을 감사로부터 전달받은 필성은 송이의 마음을 알게 되고, ㉡를 쓰면서 송이에 대한 자신의 그리움을 드러낸다.
- ⑤ ㉠을 보면서 필성이 자신을 찾고 있음을 알게 된 송이는, ㉡를 쓰면서 필성과 재회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낸다.

30. [A]의 '달'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송이가 필성의 안녕을 기원하는 마음을 의탁하는 대상이다.
- ② 자연물의 다양한 소리와 어울려 송이의 외로움을 심화한다.
- ③ 송이가 자신의 심사를 들추어내어 감정을 토로하는 인격화된 상대이다.
- ④ 송이의 처지와 대조되는 옛 이야기를 환기시켜 송이가 스스로에 대한 연민을 표하게 한다.
- ⑤ 송이에게 필성과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면서 재회를 기약할 수 없는 현재 상황을 부각한다.

31. <보기>를 참고하여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소설에서 시간 표지는 배경을 지시할 뿐 아니라, 우연하게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에 개연성을 부여하거나 사건의 전개나 장면의 전환 등에 관여된 서사적 정보를 제시하기도 한다. 또한 장면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 서로 다른 장면을 연결하거나, 사건이 요약적으로 제시되었음을 가늠하게 하는 등 서사의 주요 요소들을 보조하는 기능을 한다.

- ① ㉠은 우연으로 보이는 감사의 이방 선발이, 필성이 송이와 만나기 위해 애써 왔던 시간과 맞물려 있음을 드러냄으로써 필성의 관아 입성에 개연성을 부여한다.
- ② ㉡은 평범한 일상을 지내던 송이와 감사의 대화를 통해 중요한 서사적 정보가 드러난 시간을 부각하여, 필성과 재회하고자 하는 송이의 바람을 심화하게 되는 서사적 전환에 관여한다.
- ③ ㉢은 공청에서 일어난 최근의 변화에 송이가 주목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한편, 송이가 공청의 일을 돕게 되기까지의 과정이 요약적으로 제시되었음을 드러낸다.
- ④ ㉣은 송이와 필성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을 드러내면서, 송이와 필성이 가진 그리움의 깊이를 함축한 서사적 정보로 기능한다.
- ⑤ ㉣은 감사의 사람됨과 감사가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를 관련 짓게 하는 한편, 흐느껴 울던 송이를 감사가 발견하는 사건의 시간적 배경을 지시한다.

[32~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22.06

(가)

무너지는 꽃 이파리처럼
휘날려 발 아래 깔리는
서른 나문 해야

구름같이 피려던 뜻은 날로 굳어
한 금 두 금 곱다랗게 감기는 연륜(年輪)

갈매기처럼 꼬리 떨며
산호 핀 바다 바다에 내려앉은 섬으로 가자

비취빛 하늘 아래 피는 꽃은 맑기도 하리라
무너질 적에는 눈빛 파도에 적시우리

초라한 경력을 육지에 막은 다음
주름 잡히는 연륜마저 끊어버리고
나도 또한 불꽃처럼 열렬히 살리라

- 김기림, 「연륜」 -

(나)

제 손으로 만들지 않고
한꺼번에 싸게 사서
마구 쓰다가
망가지면 내다 버리는
플라스틱 물건처럼 느껴질 때
나는 **당장** 버스에서 뛰어내리고 싶다
현대 아파트가 들어서며
홍은동 사거리에서 사라진
털보네 대장간을 찾아가고 싶다
풀무질로 이글거리는 불 속에
시우쇠처럼 나를 달구고
모루 위에서 버리고
숫돌에 갈아
시퍼런 무쇠 낫으로 바꾸고 싶다
땀 흘리며 두들겨 **하나씩** 만들어 낸
꼬부랑 호미가 되어
소나무 자루에서 송진을 흘리면서
대장간 벽에 걸리고 싶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온통 부끄러워지고
직지사 배우소
아득한 나락으로 떨어져 내리는
똥덩이처럼 느껴질 때
나는 가던 길을 멈추고 문득
어딘가 걸려 있고 싶다

- 김광규, 「대장간의 유혹」 -

32.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나)와 달리 과정을 나타내는 시어들을 나열하여 시간의 급박한 흐름을 드러내고 있다.
- ② (나)는 (가)와 달리 자연물에 빗대어 화자의 움직임의 드러내고 있다.
- ③ (나)는 (가)와 달리 색채어를 활용하여 공간적 배경이 만들어 내는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모두 하강의 이미지가 담긴 시어를 활용하여 화자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표면에 드러난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33. (가), (나)의 시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에서 '열렬히'는 화자가 추구하는 삶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표방한다.
- ② (나)에서 '한꺼번에'와 '하나씩'의 대조는 개별적인 존재의 고유성을 부각한다.
- ③ (나)에서 '온통'은 화자의 성찰적 시선이 자신의 삶 전반에 걸쳐 있음을 부각한다.
- ④ (가)에서 '날로'는 부정적 상황의 지속적인 심화를, (나)에서 '당장'은 당면한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절박감을 강조한다.
- ⑤ (가)에서 '또한'은 긍정적인 존재와 화자의 동질성을, (나)에서 '마구'는 부정적으로 취급되는 대상과 화자 간의 차별성을 부각한다.

34.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시인은 결핍을 느끼는 상황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이를 통해 삶을 성찰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연륜」은 축적된 인생 경험에서, 「대장간의 유혹」은 현대인이 추구하는 편리함에서 결핍을 발견한 화자를 통해 일상에서 경험하는 것들이 재해석된다. 두 작품은 결핍된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의지를 구심점으로 삼아 시상을 전개한다.

- ① (가)에서 '서른 나문 해'를 '초라한 경력'으로 표현한 것은, 화자가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변변치 않은 경험으로 재해석한 것이겠군.
- ② (가)에서 '불꽃'을 긍정적인 이미지로 표현한 것은, '주름 잡히는 연륜'에 결핍되어 있는 속성을 끊을 수 있는 수단이라는 의미로 재해석한 것이겠군.
- ③ (나)에서 지금은 사라진 '털보네 대장간'을 '찾아가고 싶다'고 표현한 것은, 일상에서 결핍된 가치를 찾고자 하는 화자의 열망을 공간에 투영한 것이겠군.
- ④ (나)에서 '가던 길을 멈추고' '걸려 있고 싶다'고 표현한 것은, 화자가 추구하는 가치를 표상하는 사물의 상태가 되고 싶다고 진술함으로써 결핍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겠군.
- ⑤ (가)에서 '육지'를 지나간 시간을 막아 둘 공간으로, (나)에서 '머스'를 벗어나고 싶은 공간으로 표현한 것은, '육지'와 '머스'를 화자가 결핍을 느끼는 공간으로 재해석한 것이겠군.

[22~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21.12

나는 집에 도착한 그 첫 순간에 베일에 가린 듯이 ㉠ 모든 사물, 모든 사람으로부터 차단된 나 자신을 느꼈다. 집에서 맞는 첫날 아침을 나는 이상한 비현실감 속에서 맞았다. “이런 전선에서 두부 장수 종소리, TV에서 흘러나오는 노랫소리, 수돗물이 넘치는 소리가 웬일일까?”라고 중얼거리며 주위를 둘러보았던 것이다. ‘이런 전선에서’란 느낌은 어떤 긴박한 위기에 대처한 생생한 의지였다. 그것은 아직도 내 몸에 밴 전쟁 냄새였다. 그런데 두부 장수 종소리, 유행가 소리 따위를 의식했을 때 나는 뭔가 맥이 탁 풀리는 것 같았다. 나의 안에 있는 긴박감에 비해서 밖은 너무도 무의미하고 태평스럽고 어찌면 쾌덕스럽기까지 했다. 나미도, 학교 공부도, 또 나로부터 그토록 수많은 밤을 앓아 갔던 아틀리에에도 예외일 수는 없었다. 나는 그것들과의 관계를 다시 시작할 하등의 흥미도 관심도 없었다. 나날이 권태스럽고 짜증스럽기만 했다. 이따금 나는 내 안의 긴장에 대해서, 적어도 숨김없는 그 진실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말하려 애써 보았다. 그러나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렇다. 이제 생각이 난다. 며칠 전 다방에서의 일이. 실내엔 담배 연기가 짙 차 있었고 선정적인 허스키로 어떤 여자가 느린 곡조로 노래를 들려주고 있었다. 어찌다가 내가 나미에게 그 얘기를 들려주려고 했는지 알 수가 없다. 나는 다음과 같이 그 얘기를 시작했다.

나는 D고지에서 전투 중인 ○○연대 근처까지 물을 실어다 주라는 명령을 받았다. 음료수가 떨어져서 전 연대원이 전투는 고사하고 타는 듯한 갈증과 싸우고 있다는 소식이었어. T에서 거기까지 팔십 킬로 거리였지. 나와 한병장은 밤중에 급수차를 몰아 T를 떠났어. 한 치 앞도 가릴 수 없는 어둠과 정적. 목선 듯한 엔진 소리는 어둠과 정적의 벽에 부딪혀 바로 우리의 귓가에서 부서지고, 부챗살 모양으로 어둠이 지워진 헤드라이트의 반경 속에선 사물이 극도로 정밀해져 마치 입체 영화에서처럼 눈 속으로 뛰어들었지. 그 정밀함이란 길바닥에 똥구는 돌에 묻은 티, 풀포기에 매달려 잠자는 벌레 따위의 미세한 것들 까지도 죄다 눈에 잡히는 듯했어. 나는 온갖 사물들이 바로 내 심장에 맞닿아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이전엔 한 번도 가져 보지 못했어. 이따금씩 여우나 늑대 따위들이 길을 횡단하여 쏜살같이 사라지곤 했어. 어둠 속에서 한가로이 떠돌던 나방이 떼들은 갑작스런 불빛에 방향 감각을 잃고 윈도에 머리를 부딪혀 빗방울 처럼 떨어져 죽었고. 나는 운전하고 있는 한병장의 팔을 건드리며 유리창을 가리켰지. 그는 겁에 질린 해쓷한 표정으로 나를 힐끔 걸눈질했을 뿐이야. 그렇지, 혈관 속을 움직이는 피의 선회마저 느낄 듯한 이 비상한 감각, 그리고 심연에서 샘처럼 솟아 오르는 넘칠 듯한 생동감이 없이는, 저 유리창에 부딪혀 죽는 나방이 따위야 아무것도 신기할 것이 없지, 라고 생각하며 나는 혼자서 빙긋 웃었어.

한병장이 다시 얼굴을 힐끔 돌리며 잡아 늘이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차일병은 무섭지 않나?” “아뇨, 전연.” “대단하군. 여기서 적이 언제 어디서라도 나타날 수 있지.” “저는 적보다 진정으로 무서운 건 무감각이라고 깨달았습

니다.” “나는 제대하면 곧장 결혼할 거야.” “언젠니까, 제대가?” “석 달 남았지.” “저는 지금까지 마치 꿈을 꾸다가 깨어난 것 같아요. 이곳에 온 뒤론 바로 생명의 한가운데를 관통하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중간에서 엔진이 고장났지. 몇 시간 지체하고 나니 벌써 동이 트더군. 이제부터 정말 위험이 시작된 것이라 싶더군. 왜냐하면 적의 정찰 비행에 발견되면 공중 사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데다 불별 같은 폭염이 사정 없이 쏟아져 그도 또한 견디기 어려운 문제였지.

(중략)

아까부터 나는 창 옆에서 노인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도 그가 그토록 진지한 얼굴로 잃어버린 물건을 계속 찾을 것인지. 대체로 그렇지 못할 것이라고 나는 믿고 있다.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노인이 어제와 같은 모습으로 내 앞에 나타난다면 무료한 가운데서도 어떤 안정성을 획득하고 있던 나의 생활은 송두리째 무너질지도 모른다. 그가 창밖에서 뭔가 열심히 찾고 있는 한 나는 계속 도전을 받는 셈이기에. 때문에 사실을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노인이 찾고 있는 ㉡ 물건의 정체 가 무엇인지, 그런저런 것을 알아보노라면 노인의 그와 같은 숙연한 태도와 잃어버린 물건 사이의 상관관계도 알게 될 것이다. 아무튼 이제 나는 그와 한마디 얘기라도 나뉘 보지 않으면 못 견딜 것 같은 심정이다.

드디어 자전거에 짐을 싣고 공터 안으로 들어오는 노인의 모습이 눈에 잡힌다. 그 걸엔 개가 종종걸음으로 따르고 있다. 어제와 거의 같은 장소에서 노인은 자전거를 멈추고 짐을 내린다. 비치파라솔·케작·연탄불 따위들이 착착 있을 곳에 놓여진다. 그런데 얼마 후에 나를 놀라게 하는 일이 벌어진다. 준비를 끝낸 노인은 이내 포장 안에서 빠져나와 [B] 개를 데리고 물웅덩이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개는 하루 사이 아주 눈에 띄게 쇠약한 모습이고, 노인도 피곤하고 지친 모습이긴 하나 끈질긴 어떤 힘이 그의 전신에서 면면히 솟아 나오고 있는 듯하다. 나는 완전히 안정을 잃고 방 안을 오락가락했다. 믿어지지 않는다. 거짓말이다. 무엇이 노인에게 저토록 소중하게 여겨진단 말인가. 아니, 노인은 무슨 실없는 망상을 하고 있는 걸까. 나는 방에서 뛰쳐나왔다.

- 서영은, 「사막을 건너는 법」 -

22. [A]와 [B]의 서술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회상 장면을 삽입하여, [B]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을 서술하여 인물들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② [A]는 구어체를 활용하여 경험한 사실을, [B]는 현재형 시제를 활용하여 관찰하고 있는 사실을 생생하게 나타내고 있다.
- ③ [A]는 공간 이동에 따라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 [B]는 공간에 대한 묘사를 통해 인물들의 외적 갈등을 심화하고 있다.
- ④ [A]는 인물 간의 대화를 삽입하여, [B]는 인물들의 반복되는 행동을 제시하여 갈등 해소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 ⑤ [A]는 중심인물의 말을 제시하여, [B]는 주변 인물의 말을 제시하여 사건들의 인과 관계를 드러내고 있다.

23.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나'는 일상을 권태롭고 짜증스럽게 느끼는 상황에서 '나미'를 만나 전쟁의 경험담을 전한다.
- ② '나'는 D고지로 향하는 도중 유료수가 떨어져 곤란함이 가중된 상황에 처한다.
- ③ '나'와 '한병장'은 어둠을 밝히는 헤드라이트로 인해 적의 정찰 비행에 발견되어 공격을 받는다.
- ④ '나'는 임무 수행 중에 결혼할 계획을 밝히며 귀환 후의 꿈 같은 생활에 대한 기대를 갖는다.
- ⑤ '나'는 전장에서 귀환한 후 자신의 긴장감을 이해해 주는 사람들을 만난다는 사실에 생동감을 느낀다.

24.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는 '노인'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 ㉡를 찾는 '노인'의 행위가 중단될 것임을 예감한다.
- ② '나'는 ㉡의 정체와 '노인'이 ㉡를 찾는 태도 사이의 상관관계를 알고 싶어한다.
- ③ '나'는 '노인'이 ㉡를 가치 있는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고 판단한다.
- ④ '나'는 자신과 ㉠의 관계에 대해 타인들은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 ⑤ '나'는 ㉠로부터 소외된 상태에, '노인'은 ㉡를 상실한 상태에 있다.

25.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이 작품은 신체의 감각을 활용해 '나'의 체험을 다양하게 형상화한다. 청각을 통해 현실에 대한 타인과의 인식 차이를 나타내거나, 과거 경험을 후각화하여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시각을 통해서도 긴장 상태에서 극대화된 감각 체험을 보여주는 한편 전쟁의 실상을 체험하면서 갖게 된, 현실에 대한 체념을 드러낸다. 또한 체념 상태를 혼드는 사건을 주시하면서 생기는 번민을, 행동을 통해 제시한다. 이는 '나'가 사막 같은 현실에 발을 내딛는 계기로 작용한다.

- ① '집에서 맞는 첫날 아침'의 느낌을 '나'가 '전선에서' 느끼는 '전쟁 냄새'라고 지각하는 데에서, 과거의 경험이 상징적 감각으로 표현되고 있군.
- ② '두부 장수 종소리, 유행가 소리'를 듣고 '뿡'은 '무의미하고 태평스럽'다고 생각하는 데에서, '나'의 현실 인식이 타인과 다르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군.

- ③ '돌', '벌레' 같은 것들을 '입체 영화'처럼 보며 '심장에 맞닿아 있는 듯' 체감하는 데에서, 전장의 긴장 속에서 '나'의 감각이 극대화되고 있음이 나타나고 있군.
- ④ '방향 감각'을 잃은 '나방이 떼들'이 차창에 '부딪히' 죽는 것을 목격하는 데에서, '나'가 전쟁의 실상을 깨달음으로써 체념적 현실 인식을 갖게 된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군.
- ⑤ '믿어지지' 않는 '노인'의 행위를 지켜보고 '방 안을 오락가락' 하는 데에서, 현실 인식에 대한 '나'의 번민이 행동을 통해 제시되고 있군.

[31~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21.12

승상 나업은 딸 하나가 있었다. 재예(才藝)가 당대에 빼어났다. 아이는 이 말을 듣고 흰 옷으로 갈아입고 거울 고치는 장사라 속여 승상 집 앞에 가서 “거울 고치시오!”라 외쳤다. 소저는 이 말을 듣고 거울을 꺼내 유모에게 주어 보냈다. 소저는 유모 뒤를 따라 바깥문 안쪽까지 나가 문틈으로 엿보았다. 장사가 소저의 얼굴을 언뜻 보고 반해, 손에 쥐었던 거울을 일부러 떨어뜨려 깨뜨렸다. 유모가 놀라 화내며 때리자 장사가 울며 말했다.

“거울이 이미 깨졌거늘 때려 무엇 하세요? 저를 노비로 삼아 거울 값을 갚게 해 주세요.”

유모가 들어가 이를 승상께 아뢰니 허락하였다. 승상은 그의 이름을 거울을 깨뜨린 노비라는 뜻으로 파경노(破鏡奴)라 짓고 말 먹이는 일을 시켰다. 말들은 저절로 살찌 여윈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루는 천상의 선관들이 구름처럼 몰려와 말 먹일 꼴을 다투어 그에게 주었다. 이에 파경노는 말들을 풀어놓고 누워만 있었다. 날이 저물어 말들이 파경노가 누워 있는 곳에 와 그를 향해 머리를 숙이며 늘어서자 보는 자마다 모두 기이하게 여겼다. 승상 부인은 이 말을 듣고 승상에게 말했다.

“파경노는 용모가 기이하고 탄복할 일이 많으니 필시 비범한 사람일 것입니다. 마부 일도, 천한 일도 맡기지 마세요.”

승상이 율게 여겨 그 말을 따랐다. 이전에 승상은 동산에 꽃과 나무를 많이 심었는데, 파경노에게 이를 기르게 했다. 이때부터 동산의 화초가 무성하며 조금도 시들지 않아, 봉황이 쌍쌍이 날아들어 꽃가지에 깃들었다.

열흘이 지났다. 파경노는 소저가 동산의 꽃을 보고 싶으나 파경노가 부끄러워 오지 못한다는 말을 들었다. 이에 파경노는 승상을 뵈고 말했다.

“제가 이곳에 온 지 여러 해 지났습니다. 한 번도 노모를 뵈지 못했으니, 노모를 뵈고 올 말미를 주십시오.”

승상은 닳새를 주었다. 소저는 파경노가 귀향했다는 소식을 듣고 동산에 들어와 꽃을 보고,

“꽃이 난간 앞에서 웃는데 소리는 들리지 않네.”라고 시를 지었다. 파경노는 꽃 사이에 숨어 있다가,

“새가 숲 아래서 우는데 눈물 보기 어렵네.”라고 시로 화답했다. 소저가 부끄러워 얼굴을 붉히며 돌아갔다.

[중략 부분 줄거리] 중국 황제는 신라 왕에게 석함을 보내, 그 안에 있는 물건을 알아내 시를 지어 올리라 명한다. 신라 왕은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나업에게 과업을 넘긴다.

나업은 집으로 돌아와 석함을 안고 통곡했다. 파경노는 이 말을 듣고 사람들에게 왜 우는지를 물었다. 사람들이 모두 말해 주자, 자못 기쁨을 띠며 꽃가지를 꺾어 외청으로 갔다.

소저가 슬피 울다가 문득 벽에 걸린 거울에 비친 그림자를 보았다. 속으로 놀라 창틈으로 엿보니 파경노가 꽃을 들고 서 있었다. 소저가 이상히 여겨 문자, 시치미를 떼며 말했다.

“그대가 이 꽃을 보고 싶다 하여 그대를 위해 가져 왔소. 시들기 전에 받아 보시오.”

소저가 한숨을 크게 쉬니, 파경노가 위로하며 말했다.

“거울 속에 비친 이가 반드시 그대 근심을 없애 줄 것이요. 근심치 말고 꽃을 받으시오.”

소저가 꽃을 받고 부끄러워하며 안으로 들어갔다.

얼마 뒤 소저는 파경노의 말을 괴이히 여겨 승상께 말했다.

“파경노가 비록 어리지만 재주가 남보다 뛰어나고, 신인(神人)의 기운이 있어 석함 속의 물건을 알아내어 시를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승상이 말했다.

“너는 어찌 쉽게 말하느냐? 만약 파경노가 할 수 있다면 나라의 이름난 선비 가운데 한 명도 시를 짓지 못해 이 석함을 나에게 맡겼겠느냐?”

소저가 말했다.

“백새는 비록 작지만 큰 새매를 살린다 합니다. 그가 비록 노둔하나 큰 재주를 지니고 있는지 어찌 알겠습니까?”

이어서 파경노가 걱정하지 말라고 했음을 고했다.

“만약 그가 시를 지을 수 없다면 어찌 그런 말을 냈겠습니까? 원컨대 그를 불러 시험 삼아 시를 짓게 하소서.”

승상이 파경노를 불러 구슬리며 말했다.

“만약 이 석함 속의 물건을 알아내 시를 짓는다면 후한 상을 줄 것이며, 마땅히 네 뜻을 이루어 주겠다.”

파경노가 거절하며 말했다.

“비록 후한 상을 준다 한들 제가 어찌 시를 짓겠습니까?”

소저가 이 말을 듣고 승상에게 말했다.

“살고 싶고 죽기 싫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옛날에 어떤 이가 사형을 당하게 되었을 때, 그에게 ‘네가 만약 시를 짓는다면 내 마땅히 사면해 주겠다.’ 했습니다. 그 사람은 무식한 이였으나 그 명을 따랐습니다. 하물며 파경노는 문학이 넉넉해 시를 지을 수 있지만 거짓으로 못하는 체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버님께서 그를 겁박하시면 어찌 삶을 좋아하고 죽음을 싫어하는 마음이 없어 북중치 않겠습니까?”

승상이 그럴듯하다 여기고 파경노를 불렀다.

- 작자 미상, 「최고운전」 -

31.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간의 역전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있다.
- ② 서술자의 개입을 통해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있다.
- ③ 인물의 회화화를 통해 사건의 반전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 ④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사건 해결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⑤ 꿈과 현실의 교차를 통해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암시하고 있다.

32.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유모에게 주어 보낸 ‘거울’은 아이가 소저의 얼굴을 보게 되는 계기를 만들고, 벽에 걸린 ‘거울’은 파경노가 소저에게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계기를 만든다.
- ② 깨뜨린 ‘거울’은 아이가 파경노라는 이름을 얻고 승상의 집안으로 들어가는 계기가 되고, 파경노가 관리한 동산의 ‘화초’는 승상 부인으로부터 인정받는 계기로 작용한다.
- ③ 동산의 ‘꽃’은 소저가 보고 싶었으나 파경노로 인해 접근하기 어렵게 된 대상이고, 파경노가 들고 서 있던 ‘꽃’은 소저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한 수단이다.
- ④ 동산에서 화답한 ‘시’는 파경노가 소저와 교감하기 위해 읊은 것이고, 석함 속 물건에 대한 ‘시’는 파경노가 해결할 수 있다고 소저가 기대하는 과제이다.
- ⑤ 석함 속 물건에 대한 ‘시’는 나업에게 슬픔을 유발하는 과업이지만, 파경노에게는 소저의 슬픔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수단이다.

33.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최고운전」은 비범한 인물로서의 최치원을 형상화했다. 주인공은 문제 해결의 국면에서 치밀함, 기지, 당당함을 보인다. 또한 초월적 존재의 도움을 받으면서도 이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자신이 지닌 신이한 능력을 발휘하여 개인의 문제와 국가의 과제를 직접 해결한다. 이는 당대 독자들이 원했던 새로운 영웅상을 최치원에 투영하여 작품 속에서 구현한 것이다.

- ① 아이가 현 옷으로 바꾸어 입고 거울 고치는 장사라 속이는 장면은 최치원이 치밀한 면모를 지닌 인물임을 보여 주는군.
- ② 파경노에게 선관들이 물려와 말먹이를 가져다주는 장면은 최치원이 초월적 존재에게 도움을 받는 인물임을 보여 주는군.
- ③ 파경노가 기른 뒤로 화초가 시들지 않아 봉황이 날아드는 장면은 최치원이 신이한 능력을 지닌 인물임을 보여 주는군.
- ④ 파경노가 노모를 핑계 삼아 말미를 얻는 장면은 최치원이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 기지를 발휘하는 인물임을 보여 주는군.
- ⑤ 파경노가 승상의 제안을 거절하는 장면은 최치원이 보상을 추구하기보다 스스로 국가의 과제를 해결하려는 당당한 인물임을 보여 주는군.

[38~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21.12

(가)

이 몸 삼기실 제 님을 조차 삼기시니
 혼성 **연분(緣分)**이며 **하늘** 모를 일이런가
 나 **하나** **접어** **있고** 님 **하나** 날 괴시니
 이 마음 이 사랑 견줄 더 **노여** 업다
 평생(平生)애 원(願)호요디 혼디 네자 호얏더니
 늙거야 므스 일로 외오 두고 그리는고
 엇그제 님을 피셔 광한던(廣寒殿)의 올랐더니
 그 더디 엇디호야 하계(下界)에 내려오니
 올 저괴 비슨 머리 헛틀언 디 **삼** 년일쇠
 연지분(臙脂粉) 잇니마는 늘 위호야 고이 홀고
 마음의 미친 실음 텃텃(疊疊)이 빠져 이셔
 짓느니 한숨이오 디느니 눈물이라
인성(人生)은 **유한(有限)** 혼디 시름도 그지업다
무심(無心) 혼 **세월(歲月)**은 물 흐르듯 **호는고야**
염냉(炎涼)이 때를 아라 가는 듯 고테 오니
 듯거니 보거니 늦길 일도 하도 할사
 동풍이 건듯 부러 적설(積雪)을 헤터 내니
 창(窓) 맞괴 심근 **미화(梅花)** 두세 가지 피여세라
 갖득 냉담(冷淡) 혼디 암향(暗香)은 **므스** 일고
 황혼의 들이 조차 벼마터 빗최니
 늦기는 듯 반기는 듯 **님**이신가 아니신가
 더 미화 것거 내여 님 겨신 디 보내오져
 님이 너를 보고 엇더타 너기실고
 - 정철, 「사미인곡」 -

(나)

창 맞괴 위석버석 **님**이신가 니러 보니
혜란(蕙蘭) 혜경(蹊徑)*에 낙엽은 **므스** 일고
 어즈버 유한(有限) 혼 간장(肝腸)이 **다** 그츨가 **호노라**
 - 신희 -
 * 혜란 혜경: 난초 핀 지름길.

(다)

나는 예전에 장흥방의 길갯집에 살았다. 그 집은 저갯거리에
 제법 가까워서 소란스러웠다. 문 옆에 한 칸짜리 초당이 있어 벗짚
 으로 덮고 흙을 쌓았더니 그윽하고 조용해서 살 만했다. 그러나
 초당이 동쪽으로 치우쳐 햇볕을 받았기에 여름이면 너무 더웠다.
 그래서 '고요함이 더위를 이긴다[靜勝熱]'는 말을 당호(堂號)*로
 정해 문설주에 편액을 해 걸어 두고 위안을 삼았다.
 대저 고요함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몸의 고요함이요,
 다른 하나는 마음의 고요함이다. 몸이 고요한 사람은, 앉고 눕고
 일어나고 서는 등 모든 행동에 있어 편안함을 취할 뿐이다. 마음이
 고요한 사람은, 천하만사가 마치 촛불로 비취 보고 거북이로 짐을
 치는 듯하니 시원한 날씨가 더운 날씨가 무슨 상관인 있겠는가?
 그러므로 '고요함이 이긴다'고 한 지금의 말은 마음의 고요함을
 가리킨다.

그 집에서 이십 년을 살고 이사하였다. 그로부터 삼 년이 흐른
 뒤 옛집을 찾아가 보았다. 그새 주인이 바뀐 지 여러 번이지만
 집은 옛 모습 그대로였다.

은은하게 처마에 들어오는 산빛, 쿵쿵쿵쿵 담을 따라 도는
 골짜기 물, 밀랍으로 발라 번들번들한 살창, 쪽빛으로 물들여
 놓은 늘어진 천막.

(중략)

내가 여기에 살던 시절은 집안이 번성하던 때였다. 선친께서
 승명전에 봉직하실 때라, 퇴근하신 밤이면 우리 형제들이 모시고
 앉아 학문과 예술을 담론하고 옛일을 기록하거나, 시를 읽거나
 거문고를 들었으니 유중영의 옛일*과 비슷하였다. 그 즐거움을
 잊을 수는 없건마는 다시 되찾을 수는 없다!

『서경』에 '그릇은 새것을 찾고, 사람은 옛 사람을 찾는다.'라고
 했다. 집 역시 그릇과 같이 무언가를 담는 부류이긴 하나, 사람은
 집이 아니면 몸을 붙여 머물 데가 없고 집보다 더 거처를 많이
 하는 것은 없으므로, 집은 그릇보다는 사람에게 가깝다 하겠다.
 그러니 어찌 그리워하지 않을 수 있으랴!

그렇지만 인간사가 벌써 바뀌어, 사물에 닿을 때마다 슬픔만
 더하므로 이 집에 다시 살고 싶지는 않다. 마땅히 임원(林園)*에
 집터를 보아 집을 지어서 옛 이름의 편액을 걸어 옛집에서 지냈던
 뜻을 잊지 않으려 한다.

누군가는 '임원이 이미 고요하거늘, 지금 다시 '고요함이 이긴다'고
 하면 또한 군더더기가 아닌가?'라고 말할 수 있으리라. 나는 답
 하리라. '고요한데 또 고요하니, 이것이야말로 고요함이라네.'라고.

- 유분학, 「옛집 정승초당을 둘러보고 쓰다」 -

- * 당호: 집에 붙이는 이름.
- * 유중영의 옛일: 당나라 때 문신 유중영이 늘 책을 가까이하며 자식들을 가르치던 일.
- * 임원: 산림.

38.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의 '노여'와 (나)의 '다'라는 수식어는 모두 임에 대한 원망의 정서를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 것이다.
- ② (가)의 '호는고야'와 (나)의 '호노라'는 모두 화자의 의지를 단정적인 종결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 ③ (가)의 '미화'와 (나)의 '혜란'은 모두 화자와 동일시되는 자연물을 의인화하여 나타낸 것이다.
- ④ (가)의 '므스 일고'와 (나)의 '므스 일고'는 모두 뜻밖의 대상과 마주하게 된 반가움을 영탄적 어조로 표현한 것이다.
- ⑤ (가)의 '님이신가'와 (나)의 '님이신가'는 모두 임을 만나고 싶은 간절함을 독백적 어조로 드러낸 것이다.

39.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가)에는 천상의 시간과 지상의 시간이 모두 나타난다. 천상에서는 지상과 달리 생로병사의 과정 없이 끝없는 사랑이 지속된다. 이러한 시간적 질서는 지상에 내려온 화자를 힘겹게 하는데, 이 과정에서 화자는 지상의 물리적 시간을 심리적으로 변형하여 자신의 심경을 드러낸다.

- ① 임과의 '연분'을 '하늘'과 연결 짓는 것은, 임과의 사랑이 천상의 시간 질서처럼 끝없이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겠어.
- ② '점어 있고'와 '늡거야'를 통해 화자가 천상의 시간에서 벗어나 지상의 시간으로 편입되었음을 알 수 있겠어.
- ③ '삼 년' 전을 '엇그제'로 인식하는 것에서, 임과 함께한 기억이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 있어 지상의 물리적 시간이 심리적으로 압축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겠어.
- ④ '인성은 유훈'과 '무심흔 세월'을 통해 지상의 시간적 질서에 따라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시간이 줄고 있는 것에 대한 불안한 마음을 엿볼 수 있겠어.
- ⑤ '염냥'이 '가는 듯 고타' 온다는 인식에서, 임과의 관계 단절에 따른 절망감으로 인해 지상의 물리적 시간이 심리적으로 지연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겠어.

40. <보기>를 바탕으로 (나),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고요함은 소리나 움직임이 없이 잠잠한 상태인 외적 고요와 마음이 평온한 상태인 내적 고요로 구분할 수도 있다. 이에 주목하여 (나)를 감상할 때, 화자가 처한 상황과 그에 따른 심리는 고요함의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다)에서 필자는 고요함에 대한 통찰을 통해 자신이 처한 공간에서 내적 고요를 추구하려 하는데, 이를 통해 삶에서 느끼는 불편이나 슬픔을 이겨 내는 동력을 얻고 있다.

- ① (나)에서 '낙엽' 소리가 창 안에서 들린다는 것은 화자가 외적 고요의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겠군.
- ② (나)에서 '낙엽' 소리를 입이 오는 소리로 착각했다는 것은 화자의 심리가 내적 고요의 상태에 있지 못했기 때문이겠군.
- ③ (다)에서 '사물에 닿을 때마다 슬픔만 더'한다는 것은 옛집을 돌아본 경험이 필자로 하여금 내적 고요를 이루기 어렵게 만들었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겠군.
- ④ (다)에서 '옛집'의 '초당'에 붙었던 당호를 '임원'의 새집에서도 사용하겠다는 것은 필자가 외적 고요에 더해 내적 고요를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 ⑤ (다)에서 '누군가'가 '고요함이 이긴다'는 당호를 '굳더더기'로 본다는 것은 외적 고요만으로는 삶에서 느끼는 불편이나 슬픔을 이겨 내기 어렵다고 여겼기 때문이겠군.

41. (가)와 (다)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다) 모두 인간의 외양이 변화하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이 나타나 있다.
- ② (가)와 (다) 모두 오래된 것보다는 새로운 것을 더 중시하는 삶의 자세가 나타나 있다.
- ③ (가)와 (다) 모두 자신이 있는 공간에서 그 공간에 부재하는 대상을 떠올리는 상황이 나타나 있다.
- ④ (가)에는 인생의 허무함에 대한 순응적 태도가, (다)에는 인생의 허무함에 대한 극복 의지가 나타나 있다.
- ⑤ (가)에는 과거와 달라진 타인의 마음에 대한, (다)에는 과거와 달라진 자신의 마음가짐에 대한 아쉬움이 나타나 있다.

42. (다)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여름에 더웠던 경험을 바탕으로 옛집 초당의 당호를 정하게 된 내력을 서술하고 있다.
- ② 과거 인물의 행적에 비추어, 다시 찾은 옛집에서 떠올린 기억에 대한 감회를 드러내고 있다.
- ③ 새집에 붙이고자 하는 당호의 의미를 통해 옛집에서 다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 ④ 변함없는 옛집의 외양과 달리, 변해 버린 인간사로 인해 새집을 지으려는 마음을 갖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 ⑤ 집이 그릇과 같은 부류이지만 사람을 담고 있는 존재라는 점에 주목하여 옛집에 대한 그리움을 부각하고 있다.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21.12

(가)

눈이 오는가 북쪽엔
함박눈 쏟아져 내리는가

힘한 벼랑을 굽이굽이 돌아간
백무선 철길 위에
느릿느릿 밤새어 달리는
화물차의 검은 지붕에

연달린 산과 산 사이
너를 남기고 온
작은 마을에도 복된 눈 내리는가

잉크병 얼어드는 이러한 밤에
어찌자고 잠을 깨어
그리운 곳 차마 그리운 곳

눈이 오는가 북쪽엔
함박눈 쏟아져 내리는가

- 이용악, 「그리움」 -

(나)

왜 그곳이 자꾸 안 잊히는지 몰라
가름쟁이 사래 긴 우리 밭 그 건너의 논실 이젠 밭
가장자리에 키 작은 탱자 울타리가 처진.
훗날 나 중학생이 되어
아침마다 콩밭 이슬을 무릎으로 적시며
그곳을 지나다녔지
수수알이 ㉠ 팡팡 여무는 가을이었을까
깨꽃이 하얗게 부서지는 햇빛 밝은 여름날이었을까
아랫넷가 굽이치던 물길에 옆구리를 들이받아
별건 황토가 드러난 그곳
허리 굽은 논실택과 그의 딸 영자 영숙이 순임이가
밭 사이로 일어섰다 앉았다 하며 커다란 웃음들을 웃고
나 그 아래 넷가에 소고삐를 풀어놓고
어항을 놓고 있었던가 가재를 쫓고 있었던가
나를 부르는 소리 같기도 하고
㉡ 좌르르 좌르르 무엇이 물살을 헤치는 소리 같기도 하여
고개를 들면 아, ㉢ 칭칭히 푸르던 하늘
갑자기 무섭증이 들어 언덕 위로 달려 오르면서
들꽃 싸아한 향기 속에 두런두런 논실택의 목소리와
㉣ 까르르 까르르 밭 가장자리로 울려 퍼지던
영자 영숙이 순임이의 청량한 웃음소리
나 그곳에 오래 앉아
푸른 하늘 아래 가을 들이 ㉤ 또랑또랑 익는 냄새며
잔뜩에 호미 달그락거리는 소리 들었다
왜 그곳이 자꾸 안 잊히는지 몰라
소를 몰고 돌아오다가

혹은 객지로 나가다가 들어오다가
무엇이 나를 부르는 것 같아
나 오래 그곳에 서 있곤 했다
- 이시영, 「마음의 고향2-그 언덕」 -

43. (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오는가’를 ‘쏟아져 내리는가’로 변주하여 대상에 대한 화자의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② ‘돌아간’과 ‘달리는’의 대응을 활용하여 두 대상 간에 조성되는 긴장감을 묘사하고 있다.
- ③ ‘철길’에서 ‘화물차의 검은 지붕’으로 묘사의 초점을 이동하여 정적인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다.
- ④ ‘잉크병’이라는 사물이 ‘얼어드는’ 현상을 활용하여 화자가 처한 현실의 변화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
- ⑤ ‘잠을’ 깬 자신에게 ‘어찌자고’라는 의문을 던져 현재의 상황에서 느끼는 화자의 애달픈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44. ㉠~㉤의 의미를 고려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을 활용하여 유년의 화자가 경험한 가을이 단단한 결실을 맺는 시간임을 부각하고 있다.
- ② ㉡을 활용하여 냇가에서 놀던 유년의 화자가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물소리로 느낀 경험을 부각하고 있다.
- ③ ㉢을 활용하여 유년의 화자에게 순간적 감동을 느끼게 한 맑고 푸른 하늘의 색채를 부각하고 있다.
- ④ ㉣을 활용하여 무섭증에 언덕을 달려 오른 유년의 화자에게 또렷하게 인식된 이웃들의 밝은 웃음을 부각하고 있다.
- ⑤ ㉤을 활용하여 유년의 화자가 곡식이 익어 가는 들녘의 인상을 선명하게 지각한 경험을 부각하고 있다.

45.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이용악과 이시영의 시 세계에서 고향은 창작의 원천이 되는 공간이다. 이용악의 시에서 고향은 척박한 국경 지역이지만 언젠가 돌아가야 할 근원적 공간으로 그려지는데, (가)에서는 가족이 기다리는 궁벽한 산촌으로 구체화된다. 이시영의 시에서 고향은 지금은 상실했지만 기억 속에서 계속 되살아나는 공간으로 그려지는데, (나)에서는 이웃들과 함께했던 삶의 터전이자 생명이 살아 숨 쉬는 평화로운 농촌으로 구체화된다.

- ① (가)는 ‘함박눈’으로 연상되는 겨울의 이미지를 통해 ‘북쪽’ 국경 지역의 고향을, (나)는 ‘햇빛’을 받은 ‘깨꽃’에서 그려지는 여름의 이미지를 통해 생명력 넘치는 고향을 보여 준다.
- ② (가)는 ‘험한 벼랑’ 너머 ‘산 사이’라는 위치를 통해 산촌 마을인 고향의 궁벽함을, (나)는 ‘소고삐’를 풀어놓고 ‘가재를 쫓’는 모습을 통해 농촌 마을인 고향의 평화로움을 보여 준다.
- ③ (가)는 ‘남기고’ 온 ‘너’를 떠올림으로써 고향에서 기다리는 사람에 대한, (나)는 ‘밭 사이’에서 웃던 이웃들의 이름을 떠올림으로써 고향에서 함께 살아가던 이웃에 대한 기억을 보여 준다.
- ④ (가)는 ‘눈’을 ‘복된’ 것으로 인식함으로써 고향에 돌아갈 날에 대한, (나)는 ‘무엇’이 ‘부르는 것 같았던 언덕’을 회상함으로써 고향으로의 귀환에 대한 기대를 드러낸다.
- ⑤ (가)는 ‘차마 그리운 곳’이라는 표현을 통해 근원적 공간인 고향에 대한 애뜻함을, (나)는 ‘자꾸 안 잊히는지’라는 표현을 통해 내면에 존재하는 고향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을 드러낸다.

[16~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21.09

안승학은 원래 이 고을 읍내에서 살았다. 지금부터 이십 년 전만 해도 그는 다 찌그러진 오막살이에서 **콩나물죽으로 연명**하던 처지였다. 그러던 사람이 오늘은 수백 석 추수를 하고 서울 사는 민판서 집 **사음***까지 얻어서 이 동리로 옮겨 앉은 것이다.

그것은 안승학의 **근본**을 아는 사람은 누구나 놀랄 만한 일이었다. 그는 **지체도 없고** 형세도 없이 타관에서 떠들어온 [A] 사람이었다. 그러므로 이 고을에는 그의 일가친척이라고는 먼 서기를 다니는 아우 하나밖에 아무도 없다. 그의 부친은 경기도 죽산이라던가 어디서 호방 노릇을 하던 아전이었는데 승학이가 성년 되기 전에 별세하고 그의 모친도 부친이 돌아간 지 삼 년 만에 마저 세상을 떠났다 한다. 그래서 거기서는 살 수가 없어서 아내와 어린 동생 하나를 데리고 이 고장으로 들어왔다. 이 고을 읍내에는 그의 처가가 사는 터이므로.

처가도 역시 가난하였으나 그래도 처가 끝으로 웅대거리나마 다시 장만해 놓고 살림이라고 떠벌였다.

그런데 그 무렵이 마침 **경부선이 개통**한 직후이다. 이 근처 사람들은 생전 처음 보는 기차와 정거장과 전봇대를 보고 경이의 눈을 크게 떴다.

안승학은 지금도 그때 **목판차를 맨 처음으로** 먼저 타고 서울을 가 보았다는 것을 자랑삼아 말하였다. 그때 그는 어떤 **친구의 심부름**으로 혼수 흥정을 하러 따라간 것이었다.

그의 **자만(自慢)**은 그것뿐만 아니었다. 그는 경기도 출생이라고 이 지방에서는 제일 똑똑한 체를 하였다.

우편소가 새로 생긴 것을 보고 이웃 사람들은 그게 무엇인지 몰라서 겁을 잔뜩 집어먹고 있었다. 장승같이 늘어선 전봇대에는 노상 잉-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전신줄을 감은 사기 안에다 귀신을 잡아넣어서 그런 소리가 무시로 난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편소 안에는 무슨 이상한 기계를 해 얹히고 거기서는 무시로 괴상한 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이웃 사람들은 그것도 무슨 귀신을 잡아넣어서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것이라고 하였다.

[B] 그럴 때에 안승학은 마술사처럼 이 귀신을 부리는 재주를 그들 앞에서 시험해 보였다.

그는 엽서 한 장을 사서 자기 집 통호수와 자기 이름을 쓰고 편지 사연을 써서 우편통 안으로 집어넣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장담하기를 이것이 오늘 해전 안에 우리 집으로 들어갈 터이니 가 보자는 것이었다. 과연 그날 저녁때였다. 지옥사자 같은 누렁 옷을 입은 사람은 안승학의 집에 엽서 한 장을 던지고 갔다. 그것은 아까 써 넣던 그 엽서였다.

“참, 조촐속이다!”

하고 그들은 일시에 소리를 질렀다.

(중략)

안승학이는 사랑방에서 혼자 앉아서 금테 안경을 콧잔등에 걸고는 문서질을 하다가 인동이를 앞세우고 김선달 조침지 수동이가 아버지 희준이 이렇게 다섯 사람이 일시에 달려드는

것을 보고 적이 마음에 불안을 느꼈다.

그래 그는 붓을 놓고서 마당을 내려다보며

“무슨 일들인가? 식전 댓바람에 내 집을 이렇게 찾아오거든 문간에서 주인을 찾고 들어와야지.”

매우 **위엄스럽게** 하는 말이었다.

“아무도 없는데 누구보고 말하십니까? 대문 기둥에다 대고 말씀하십시오.”

김선달이 받는 말이다.

저런 쾌썸한 놈 말하는 것 좀 바라…… 그런데 행랑 놈은 어디를 갔기에 문간에 아무도 없었더람! 안승학은 속으로 분해했다.

그러나 **호령할 용기**는 생기지 않는다. 희준이와 인동이와 김선달은 신발을 벗고 마루에 올라가 앉았다.

조침지와 수동 아버지는 뜰아래서 올라갈까 말까 하는 눈치다.

“하여간 무슨 일들인가?”

안승학은 얼른 이야기나 들어보고 돌려보내자는 계획이다.

“저희들이 이렇게 댁을 찾아왔을 때는 무슨 별다른 소관사가 있겠습니까…… 지난번에도 왔다가 코만 떼우고 갔습니다만 대관절 어떻게 저희들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시겠습니까?”

희준이가 정식으로 말을 꺼냈다.

“그따위 이야기를 할 작정으로 이렇게들 식전 아침에 왔어? 못 들어주겠어! 발써 여러 번째 요구 조건은 들을 수 없다고 말했는데, 자꾸 조르지만 하면 될 줄 아는가? 어렵겠지…… 괜히 그러지들 말고 일찍이 **나락을 베는** 것이 당신들에게 유익할 것이야…….”

안승학이는 긴 장죽에 담배를 한 대 담아 가지고 불을 붙이기 위해서 성냥을 세 개비나 허비했건만 잘 붙지 아니하므로 그래 네 번째 불을 땡겨서는 실 새 없이 뼈끔뼈끔 빨다가 그만 입귀로 붉은 침을 주르르 흘리고서는 제 풀에 화가 나서 담뱃대를 탁 밀어 내던진다.

“웬스리 시간만 낭비하고 **피차의 물질상 손해**만 더 나게 하지 말고 어서 돌아가서 잘들 의논해서 오늘부터라도 일을 시작 하란 말이야! 나도 아침부터 바쁜 일이 있으니 어서들 가소.”

“그래 정녕코 요구 조건을 못 들어주시겠다는 말씀이지요.”

“암!”

- 이기영, 「고향」 -

* 사음: 마름. 지주를 대리하여 소작권을 관리하는 사람.

16. [A]의 서술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서술 대상에 대한 독백적 서술을 통해 서술 대상에 대한 정서적 반응이 제시되고 있다.
- ② 서술 대상에 대한 회고적 서술을 통해 서술 대상에 대한 성찰적 태도가 드러나고 있다.
- ③ 서술 대상에 대한 병렬적 서술을 통해 서술 대상에 관한 정보가 반복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 ④ 서술 대상에 대한 묘사적 서술을 통해 서술 대상에 관한 정보가 단계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 ⑤ 서술 대상에 대한 요약적 서술을 통해 서술 대상에 관한 정보가 개괄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17. [B]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새로운 문물의 도입이 사람들의 의식을 혼란스럽게 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 ② 새로운 문물이 실생활에 쓰이는 현장을 소개함으로써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 변해야 함을 알려 주고 있다.
- ③ 새로운 문물의 이용 방법을 알고 있는 인물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간에 문물에 대한 이해의 차이가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 ④ 새로운 문물을 접한 사람들의 반응이 직접적으로 드러남으로써 새로운 세상의 도래에 대한 정서적 충격을 표현하고 있다.
- ⑤ 새로운 문물에서 신이한 현상을 연상하는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 낯선 문물이 도입될 당시의 문화적인 환경을 보여 주고 있다.

18. [요구 조건]을 중심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요구 조건'을 관철시키러 온 '김선달'의 '안승학'에 대한 비아냥 거리는 태도가 표출되고 있다.
- ② '요구 조건'의 이행을 요청하는 '회준'에 대해 '안승학'의 거부 의사가 직접적으로 표출되고 있다.
- ③ '요구 조건'의 불이행 때문에 벌어질 일을 경고하는 '회준'에 대해 '안승학'이 염려하고 있음이 암시되어 있다.
- ④ '요구 조건'의 수락 여부를 둘러싸고 빚어진 '안승학'과 '다섯 사람' 간의 갈등 양상이 긴장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 ⑤ '요구 조건'에 대한 확답을 받기 원하는 '다섯 사람'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대한 '안승학'의 심리적인 동요가 제시되고 있다.

19.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1930년대 리얼리즘 장편 소설에는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 사회적 지위가 상승한 인물형이 등장한다. 이 유형의 인물들은 근대 문물에 발 빠르게 적응하면서도 소작제와 같은 전근대적 토지 제도에 편승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들은 근대 문물을 체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자신을 과시하지만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다. 이러한 인물들을 통해 1930년대 농촌 사회에 등장한 속물적 인물형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 ① '지체도 없'이 '콩나물죽으로 연명하'다가 '사음까지' 된 인물의 모습은, 소작제를 이용하여 지위가 변한 인물형을 보여 주는군.
- ② '경부선이 개통'할 '무렵'의 시대 변화에 적응하여 '근본'에서 벗어날 기회를 얻었던 인물의 모습은, 근대 문물이 유입되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 변모해 갈 수 있었던 인물형을 보여 주는군.
- ③ '친구의 심부름으로' '목판차를 맨 처음으로' 타 보고서 '자만'하는 인물의 행동은, 근대 문물을 경험했다는 점을 앞세워 자신을 과시하는 인물의 모습을 보여 주는군.
- ④ '위엄스럽게' 하대하면서도 '호령할 용기'를 내지 못하는 인물의 심리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이들에게 반감을 드러내는 인물의 모습을 보여 주는군.
- ⑤ '피차의 물질상 손해'를 강조하면서도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나락을 베풀는 것'을 중용하는 인물의 모습은, 다른 사람의 이익보다 사적인 이익을 우선시하는 인물형을 보여 주는군.

[31~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21.09

심청이 왓,
 “나는 이 동네 사람이러니, 우리 부친 앞을 못 봐 ‘공양미 삼백 석을 지성으로 불공하면 눈을 떠 보리라.’ 하되 가난하여 장만할 길이 전혀 없어 내 몸을 팔려 하니 어떠하뇨?”
 뱃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효성이 지극하나 가련하다.”
 하며 허락하고, 즉시 쌀 삼백 석을 몽운사로 보내고,
 “금년 삼월 십오 일에 배가 떠난다.”
 하고 가거늘 심청이 부친께,
 “공양미 삼백 석을 이미 보냈으니 이제는 근심치 마옵소서.”
 심봉사 깜짝 놀라,
 “너 그 말이 웬 말이나?”
 심청같이 타고난 효녀가 어찌 부친을 속이라마는 어찌할 수 없는 형편이라 잠깐 ㉠ 거짓말로 속여 대답하길,
 “장승상택 노부인이 일전에 저를 수양딸로 삼으려 하셨으나 차마 허락지 아니하였는데, 지금 공양미 삼백 석을 주신할 길이 전혀 없어 이 사연을 노부인에게 여쭙주 쌀 삼백 석을 내어 주시기에 수양딸로 가기로 했나이다.”
 하니 심봉사 물색 모르고 이 말 반겨 듣고,
 “그렇다면 고맙구나. 그 부인은 일국 재상의 부인이라 아마도 다르리라. 복이 많겠구나. 저러하기에 그 자제 삼 형제가 벼슬길에 나아갔으리라. 그러하나 양반의 자식으로 몸을 팔았던 말이 이상하다마는 장승상택 수양딸로 팔린 거야 관계하라. 언제 가느냐?”
 “다음 달 보름에 데려간다 하더이다.”
 “어, 그 일 매우 잘 되었다.”
 심청이 그날부터 곰곰이 생각하니, 눈 어두운 백발 부친 영영 이별하고 죽을 일과 사람이 세상에 나서 십오 세에 죽을 일이 정신이 아득하고 일에도 뜻이 없어 식음을 전폐하고 근심으로 지내더니 다시금 생각하되,
 ‘엷질러진 물이요, 쓰아 놓은 화살이다.’
 날이 점점 가까워 오니,
 ‘이러다간 안 되겠다. 내가 살았을 제 부친 의복 빨래나 하리라.’
 하고 춘추 의복 삼침 겹깃, 하절 의복 한삼 고이 박아 지어 들여 놓고, 동절 의복 솜을 넣어 보에 싸서 농에 넣고, 청목으로 갓끈 겹어 갓에 달아 벽에 걸고, 망건 꾸며 당줄 달아 걸어 두고, 행선 날을 세어 보니 하룻밤이 남은지라. 밤은 깊어 삼경인데 은하수 기울어졌다. 촛불을 대하여 두 무릎 마주 꿇고 머리를 숙이고 한숨을 길게 쉬니, 아무리 효녀라도 마음이 온전할쏘냐.
 ‘아버지 버선이나 마지막으로 지으리라.’
 하고 바늘에 실을 꿰어 드니 가슴이 답답하고 두 눈이 침침, 정신이 아득하여 하염없는 울음이 간장으로조차 솟아나니, 부친이 깰까 하여 크게 울지 못하고 흐느끼며 얼굴도 대어 보고 손발도 만져 본다.

(중략)

황후 반기시사 가까이 입시하라 하시니 상궁이 명을 받아 심봉사의 손을 끌어 별전으로 들어갈 새 심봉사 아무런 줄 모르고 겁을 내어 걸음을 못 이기어 별전에 들어가 계단 아래 섰으니 심 맹인의 얼굴은 몰라볼래라 백발은 소소하고 황후는 삼 년 용궁에서 지냈으니 부친의 얼굴이 가물가물 하여 물으시길,
 “처자 있으신가?”
 심봉사 땅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면서,
 “아무 연분에 상처하옵고 초칠일이 못 지나서 어미 잃은 딸 하나 있삽더니 눈 어두운 중에 어린 자식을 품에 품고 동냥젖을 얻어먹여 근근 길러 내어 점점 자라나니 효행이 출천하여 옛사람을 앞서더니 요망한 중이 와서 ‘공양미 삼백 석을 시주하오면 눈을 떠서 보리라.’ 하니 신의 여식이 듣고 ‘어찌 아버지 눈 뜨리란 말을 듣고 그저 있으리오.’ 하고 달리 마련할 길이 전혀 없어 신도 모르게 남경 선인 들에게 삼백 석에 몸을 팔아서 인당수에 제물이 되었으니 그때 십오 세라, 눈도 뜨지 못하고 자식만 잃었사오니 자식 팔아먹은 놈이 세상에 살아 쓸데없으니 죽여 주옵소서.”
 황후 들으시고 슬피 눈물 흘리시며 그 말씀을 자세히 들으심에 정녕 부친인 줄은 아시되 부자간 천륜에 어찌 그 말씀이 그치기를 기다리랴마는 자연 말을 만들자 하니 그런 것이었다. 그 말씀을 마치자 황후 버선발로 뛰어 내려와서 부친을 안고,
 “아버지, 제가 그 심청이어요.”
 심봉사 깜짝 놀라,
 “이게 웬 말이나?”
 하더니 어찌나 반갑던지 뜻밖에 두 눈에 딱지 떨어지는 소리가 나면서 두 눈이 활짝 밝았으니, 그 자리 맹인들이 심봉사 눈 뜨는 소리에 일시에 눈들이 ‘희번덕, 짹짹’ 까치 새끼 밥 먹이는 소리 같더니, 못 소경이 천지 세상 보게 되니 맹인에게는 천지 개벽이라.

- 작자 미상, 「심청전」 -

31.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심청’과 ‘뱃사람’의 대화 속에서, ㉠으로 감추려고 한 사건을 확인할 수 있다.
 - ② ‘심청’이 ㉠을 결심할 때 드러나는 생각에서, ‘심청’이 불가피하게 ㉠을 선택했음을 알 수 있다.
 - ③ ㉠을 전후하여 진행된 ‘심청’과 ‘심봉사’의 대화에서, ㉠에 등장하는 인물이 ‘심봉사’에게 낯설지 않은 존재임을 알 수 있다.
 - ④ ‘심봉사가’ ㉠을 듣고 보인 반응에서, ㉠이 ‘심봉사’에게 의심 없이 받아들여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⑤ ‘심봉사가’ ㉠을 듣고 한 말에서, ㉠이 ‘심청’과 ‘심봉사’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는 단초가 됨을 알 수 있다.

32.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황후'가 있는 별전에 '심봉사'가 들어가는 과정을 묘사함으로써 두 사람이 동일한 감정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 ② '심봉사'에게 가족에 관한 질문을 함으로써 '황후'가 '심봉사'의 정체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다.
- ③ '심봉사'가 부인과 일찍 사별하게 된 이유를 눈물을 흘리며 언급함으로써 '심봉사'의 기구한 삶이 드러나고 있다.
- ④ '심봉사'가 딸에게 그녀의 의지와는 무관한 선택을 강요함으로써 결국 영원히 이별하게 된 과정을 풀어내고 있다.
- ⑤ '심봉사'가 자신의 아버지임을 알아차린 '황후'가 '심봉사'의 발언이 끝나기 전에 자신이 딸임을 밝힘으로써 상봉의 기쁨을 강조하고 있다.

33. <보기>를 참고하여 밑줄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심청전」은 효의 실현 과정에서 다양한 양상의 모순적 상황이 발생한다. 심청이 효를 실천하기 위해 자기희생을 선택함으로써 정작 부친 곁에 남아 있지 못하게 되는 것은 심청의 효행으로 인한 모순적 상황이다. 그리고 심청의 자기희생의 목적이었던 부친의 개안(開眼)이 뒤늦게 실현되는 것은 결말의 지연을 위해 설정된 모순적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모순적 상황들로 인해 결말은 보다 극적인 양상을 띠게 되고 심청의 효녀로서의 면모가 더욱 강조된다.

- ① 심청이 '눈 어두운 백발 부친'과의 '영영 이별'을 근심하면서도 이를 '다시금 생각'하는 것으로 보아, 심청은 자신의 효행으로 인한 모순적 상황을 염려하면서도 결국은 이를 수용하려 함을 알 수 있군.
- ② 심청이 '이러다간 안 되겠다'며 '내가 살았을 제' 할 일을 생각 하는 것으로 보아, 심청은 자신의 효행으로 인한 모순적 상황을 걱정하며 이를 대비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③ 심청이 '어찌 아버 눈 뜨리란 말을 듣고 그저 있으리오'라고 말했다는 것으로 보아, 심청은 효행 그 자체보다는 효행으로 인한 모순적 상황을 걱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④ 심봉사가 '자식만 잃었사오니'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심봉사는 결말의 지연을 위해 설정된 모순적 상황에 직면하여 자책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⑤ 심봉사가 심청과의 상봉으로 인해 '뜻밖에 두 눈'을 뜨게 되는 것으로 보아, 모순적 상황으로 인한 결말의 지연이 극적인 효과를 자아내고 있음을 알 수 있군.

[38~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21.09

(가)

① 문학 작품의 의미가 생성되는 양상은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자기의 경험은 물론 자기 내면의 정서나 의식 등을 대상에 투영하여, 외부 세계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이다. 둘째는 외부 세계의 일반적 삶의 방식이나 가치관, 이념 등을 자기 내면으로 수용하여, 자신을 새롭게 해석함으로써 의미를 만들어 내는 경우이다. 셋째는 자기와 외부 세계를 상호적으로 대비하여 양자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통해 의미를 생성하는 경우이다.

문학적 의미 생성의 이러한 세 가지 양상은 문학 작품에서 자기와 외부 세계의 관계를 파악할 때 적용할 수 있다. 첫째와 둘째의 경우, 자기와 외부 세계와의 거리는 가까워지고 친화적 관계가 형성된다. 셋째의 경우는 자기가 외부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둘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져 친화적 관계가 형성되기도 하고, 그 거리가 드러나 소원한 관계가 유지되기도 한다.

(나)

산수 간(山水間) 바회 아래 뛰짐을 짓노라 하니
그 모른 늠들은 운는다 혼다마는
① 어리고 하얌의 뜻의는 내 분(分)인가 호노라 <제1수>

보리밥 풋는물을 알마초 머근 후(後)에
바회 곳 뭍의 슬크지 노니노라
그 나쁜 너나쁜 일이야 부를 줄이 이시라 <제2수>

잔 들고 혼자 안자 먼 뵈흘 바라보니
그리던 님이 오다 반가움이 이리하라
말슴도 우움도 아녀도 몰내 도하호노라 <제3수>

누고셔 삼공(三公)도곤 낫다 호더니 만승(萬乘)이 이만하라
이제로 헤어든 소부(巢父) 허유(許由) | 낙뎡터라
아마도 님천 한흥(林泉閑興)을 비길 곳이 업세라 <제4수>

내 성이 게으르더니 하눌히 아르실샤
인간 만스(人間萬事)를 혼 일도 아니 맛더
다만당 드토리 업슨 강산(江山)을 덕회라 호시도다 <제5수>

강산이 도타 혼들 내 분(分)으로 누언느나
님군 은혜(恩惠)를 이제 더욱 아노이다
아쁘리 갑고자 호야도 힘올 일이 업세라 <제6수>
- 윤선도, 「만흥(漫興)」 -

(다)

산림(山林)에 살면서 명리(名利)에 마음을 두는 것은 큰 부끄러움[大恥]이다. 시정(市井)에 살면서 명리에 마음을 두는 것은 작은 부끄러움[小恥]이다. 산림에 살면서 은거(隱居)에 마음을 두는 것은 큰 즐거움[大樂]이다. 시정에 살면서 은거에 마음을 두는 것은 작은 즐거움[小樂]이다.

작은 즐거움이든 큰 즐거움이든 나에게서는 그것이 다 즐거움이며, 작은 부끄러움이든 큰 부끄러움이든 나에게서는 그것이 다 부끄러움이다. 그런데 큰 부끄러움을 안고 사는 자는 백(百)에 반이요, 작은 부끄러움을 안고 사는 자는 백에 백이며, 큰 즐거움을 누리는 자는 백에 서넛쯤 되고, 작은 즐거움을 누리는 자는 백에 하나 있거나 아주 없거나 하니, 참으로 가장 높은 것은 작은 즐거움을 누리는 자이다.

나는 시정에 살면서 은거에 마음을 두는 자이니, 그렇다면 이 작은 즐거움을 가장 높은 것으로 말한 ㉠ 나의 이 말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과는 거리가 먼, 물정 모르는 소리일지도 모른다.

- 이덕무, 「우언(迂言)」 -

38. (나)의 시상 전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제1수>에서는 경험적 성격과 연결된 공간으로부터, <제6수>에서는 관념적 성격과 연결된 공간으로부터 시상이 전개된다.
- ② <제2수>에서는 구체성이 드러나는 소재로, <제3수>에서는 추상성이 강화된 소재로 시상이 시작된다.
- ③ <제2수>에서 설의적 표현으로 제기된 의문이 <제5수>에서 해소되었음이 영탄적 표현으로 드러난다.
- ④ <제3수>에서의 현재에 대한 긍정이 <제4수>에서의 역사에 대한 부정으로 바뀌며 시상이 전환된다.
- ⑤ <제3수>에 나타난 정서적 반응이 <제6수>에서 감각적 표현을 통해 구체화된다.

39. (가)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산수 간’에서 살고자 하는 마음과 이에 공감하지 못하는 ‘늠들’의 생각을 병치하여 화자와 ‘늠들’ 사이의 거리가 드러남으로써, 자기와 외부 세계 사이의 소원한 관계가 유지된다.
- ② ‘바회 곳 뭍’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삶과 ‘너나쁜 일’을 대비하여 세상일과 거리를 두려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남으로써, 자기와 외부 세계 사이의 소원한 관계가 유지된다.
- ③ ‘님’에 대한 ‘반가움’보다 더한 감흥을 불러일으키는 ‘뵈’의 의미를 부각하여 화자와 ‘님’ 사이의 거리가 드러남으로써, 자기와 외부 세계 사이의 소원한 관계가 유지된다.
- ④ ‘님천’에서의 ‘한흥’이 ‘삼공’이나 ‘만승’보다 더한 가치를 지닌다고 강조하여 화자와 ‘님천’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짐으로써, 자기와 외부 세계 사이의 친화적 관계가 형성된다.
- ⑤ ‘강산’ 속에서의 삶이 ‘님군’의 ‘은혜’ 덕택임을 제시하여 화자와 ‘님군’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짐으로써, 자기와 외부 세계 사이의 친화적 관계가 형성된다.

40. (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부끄러움'과 '즐거움'을 조화시킴으로써 더 나은 삶의 방식을 결정할 수 있다.
- ② '나'는 어디에 사느냐와 어디에 마음을 두느냐를 고려하여 삶의 유형을 나누고 있다.
- ③ '산림'에 사는 사람들 중에는 '즐거움'을 누리는 경우보다 '부끄러움'을 가진 경우가 더 많다.
- ④ '큰 부끄러움'과 '작은 즐거움'은 어디에 사느냐와 어디에 마음을 두느냐가 모두 서로 다르다.
- ⑤ '명리'를 '부끄러움'에, '은거'를 '즐거움'에 대응시킨 것으로 보아 '나'는 '은거'의 가치를 '명리'의 가치보다 높이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1.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자신의 처지를 남의 일을 말하듯이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문제를 회피하고 있다.
- ② ㉡은 자신의 행동을 냉철하게 성찰함으로써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있다.
- ③ ㉠은 ㉡과 달리, 자신의 처지를 자문자답 형식으로 말함으로써 자신의 생각을 일반화하고 있다.
- ④ ㉡은 ㉠과 달리, 자신의 생각을 남의 말을 인용하여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신념을 객관화하고 있다.
- ⑤ ㉠과 ㉡은 모두,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우회하여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삶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

42. ㉠을 바탕으로 (나), (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나)에서 부정물인 대상에 대해 호감을 표현한 것은 자신의 정서를 대상에 투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② (다)에서 자연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을 대상에 투영하여 세계를 해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③ (다)에서 삶의 방식을 상대적 기준에 따라 나누어 평가한 것은 자신의 가치관과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비교하여 세계의 의미를 새롭게 파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④ (나)에서는 선인들의 삶의 태도를 자기 내면으로 수용하는 과정을 거쳐, (다)에서는 대다수 사람들의 뜻을 자기 내면으로 수용하는 과정을 거쳐 새로운 의미를 생성한다고 볼 수 있다.
- ⑤ (나)에서 자기 본성을 하늘의 뜻에 연관 지은 것과, (다)에서 자기 삶의 방식을 일반적인 삶의 방식과 견준 것은 자기 삶의 가치를 새롭게 해석하여 의미를 만들어 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21.09

(가)

…… 활자(活字)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간간이
자유를 말하는데
나의 영(靈)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벗이여
그대의 말을 고개 숙이고 듣는 것이
그대는 마음에 들지 않겠지
마음에 들지 않아라

모두 다 마음에 들지 않아라
이 황혼도 저 돌벽 아래 잡초도
담장의 푸른 페인트빛도
저 고요함도 이 고요함도

그대의 정의도 우리들의 섬세도
행동이 죽음에서 나오는
이 욕된 교외에서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마음에 들지 않아라

그대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간간이
자유를 말하는데
우스위라 나의 영(靈)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 김수영, 「사령(死靈)」 -

(나)

한강물 열고, 눈이 내린 날
㉠ 강물에 붙들린 배들을 구경하러 나갔다.
㉡ 훈련받나봐, 아니야 발등까지 딱딱하게 얼었대.
우리는 강물 위에 서서 일렬로 늘어선 배들을
㉢ 비웃느라 시시덕거렸다.

㉣ 한강물 흐르지 못해 눈이 덮은 날
강물 위로 빙그르르, 빙그르르.
웃음을 참지 못해 나뉘굴며, 우리는
보았다. 얼어붙은 하늘 사이로 불박힌 말들을.

언 강물과 언 하늘이 맞붙은 사이로
저어가지 못하는 배들이 나란히
날아가지 못하는 말들이 나란히
숨죽이고 있는 것을 비웃으며, 우리는
빙그르르. ㉤ 울 겨울 몹시 춥고 얼음이 팡팡팡 열고.

- 김혜순, 「한강물 열고, 눈이 내린 날」 -

43. (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간적 표현을 열거하여, 시대에 대한 화자의 인식 변화를 드러낸다.
- ② 대상에 대한 호칭을 전환하여, 시적 대상에 대한 화자의 경외감을 표현한다.
- ③ 원근을 나타내는 지시어를 사용하여, 화자의 시선에 포착된 대상의 움직임을 표현한다.
- ④ 물음의 형식으로 종결하여, 시적 대상에 대한 화자의 깨달음이 부정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 ⑤ 동일한 구절을 반복하여, 시적 상황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정서가 심화되는 과정을 드러낸다.

44.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의 ‘붙들린 배’는 강이 얼었을 때 볼 수 있는 구경거리를 관심의 대상으로 표현한 것으로, 이를 통해 시상 전개에 계기가 형성된다.
- ② ㉡의 ‘아니야’는 배가 훈련을 받고 있다는 추측을 부정하는 표현으로, 배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배의 내부적 원인에서 기인하고 있음이 이를 통해 드러난다.
- ③ ㉢의 ‘시시덕거렸다’는 서로 모여 실없이 떠드는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배가 질서정연하게 정렬된 모습에 대한 ‘우리’의 냉소가 이를 통해 드러난다.
- ④ ㉣의 ‘흐르지 못해’는 강이 언 상황이 강물의 흐름을 막고 있다고 여기는 것으로, 강물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방해하는 외부의 힘이 이를 통해 강조된다.
- ⑤ ㉤의 ‘팡팡팡’은 강추위가 지속되는 현재의 상황을 감각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모든 것을 얼어붙게 하는 현실의 상황이 견고하다는 점이 이를 통해 강조된다.

45.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제한되는 사회에서 개인은 자신의 의사를 온전히 표현할 수 없어서 자유가 억압되고, 그 사회 또한 경직된다. 이런 맥락에서 (가)와 (나)를 해석할 수 있다.

(가)는 활발한 의사소통의 수단이어야 할 언어가 ‘활자’의 상태로만 존재한다고 표현함으로써 언어가 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에 주목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화자는 위축된 의사소통의 장애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여, 경직된 사회에 대응하지 못하는 자신을 성찰한다. (나)는 자유롭게 쓰여야 할 언어를 ‘불박힌 말’로 표현함으로써 개인의 언어 사용이 제한된 상황을 비판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말을 대체할 수 있는 웃음이나 몸짓과 같은 또 다른 의사소통의 방법을 보여 준다.

- ① (가)에서 ‘나의 영’에 대해 ‘우스위라’라고 자조한 것은 의사소통의 여지가 축소된 상황에서 자신의 참여만으로는 의사소통의 장애를 활성화할 수 없다는 성찰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군.
- ② (나)에서 ‘우리’가 ‘언 강물’ 위에서 비웃는 모습이나 ‘빙그르르’ 뒹구는 장면은 언어 사용이 제한된 상황에서 또 다른 의사소통의 방법을 모색함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군.
- ③ (가)의 ‘하늘 아래’는 ‘고요함’이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나)의 ‘맛볼은 사이’는 ‘배’와 ‘말’이 ‘숨죽이고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의사소통이 자유롭지 못한 경직된 사회를 엿볼 수 있군.
- ④ (가)에서 ‘자유를 말하’는 것이 ‘활자’로 한정된 것은 의사소통의 장애 위축된 상황을 나타내고, (나)에서 ‘말’이 ‘날아가지 못’한다는 것은 자유로워야 하는 언어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군.
- ⑤ (가)에서 주변 세계를 ‘마음에 들지 않’아 하는 것은 의사소통이 활발하지 못한 상황에 대한 생각을 드러낸 것이고, (나)에서 강물이 얼어 ‘배’를 ‘저어가지 못’하는 상황은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환경을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군.

[22~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21.06

(가)

높으디높은 산마루
 낡은 고목(古木)에 못 박힌 듯 기대어
 내 홀로 긴 밤을
 무엇을 간구하며 울어 왔는가.

[A]

아아 이 아침

시들은 핏줄의 구비구비로
 사늘한 가슴의 한복판까지
 은은히 울려오는 종소리.

이제 눈감아도 오히려
 꽃다운 하늘이거니
 내 영혼의 촛불로
 어둠 속에 나래 떨던 셋별아 숨으라.

환히 트이는 이마 우
 떠오르는 햇살은
 시월상달의 꿈과 같고나.

메마른 입술에 피가 돌아
 오래 잊었던 피리의
 가락을 더듬노니

새들 즐거이 구름 끝에 노래 부르고
 사슴과 토끼는
 한 포기 향기로운 싸릿순을 사랑하라.

여기 높으디높은 산마루
 맑은 바람 속에 옷자락을 날리며
 내 홀로 서서
 무엇을 기다리며 노래하는가.

[B]

- 조지훈, 「산상(山上)의 노래」 -

(나)

꽃이 피었다,
 도시가 나무에게
 반어법을 가르친 것이다
 이 도시의 이주민이 된 뒤부터
 속마음을 곧이곧대로 드러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나도 곧 깨닫게 되었지만
 살아 있자, 악착같이 들뜬 뿌리라도 내리자
 속마음을 감추는 대신
 비트는 법을 익히게 된 서른 몇 이후부터
 나무는 나의 스승
 그가 견딜 수 없는 건
 꽃향기 따라 나비와 벌이
 붕붕거린다는 것,
 내성이 생긴 사과리를
 벌레들이 변함없이 아삭아삭

뜯어 먹는다는 것
 도로변 시끄러운 가로등 곁에서 허구한 날
 신경증과 불면증에 시달리며 피어나는 꽃
 참을 수 없다 나무는, 알고 보면
 치욕으로 푸르다

- 손택수, 「나무의 수사학 1」 -

22.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계절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주변 풍경을, (나)는 공간의 이동에 따른 풍경 변화를 묘사하고 있다.
- ② (가)는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자연의 위대함을, (나)는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 자연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하고 있다.
- ③ (가)는 명령형 어조를 활용하여 대상의 행동을 유도하고, (나)는 단정적 진술을 활용하여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인격화된 사물을 청자로 하여 화자의 소망을 전달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도치된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가 처한 부정적 현실에 대한 극복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23. [A]와 [B]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의 '높으디높은 산마루'에서 화자를 올게 한 문제는 [B]의 '여기 높으디높은 산마루'에서의 기다림의 대상이 아니다.
- ② [A]의 '못 박힌 듯' 기댄 자세는 과거의 고통을, [B]의 '옷자락을 날리며' 서 있는 자세는 미래에 대한 기대를 드러내고 있다.
- ③ [A]의 '긴 밤'에 담긴 부정적 상황은 '이 아침' 이후 [B]의 '맑은 바람'을 동반하는 새로운 상황으로 변화하고 있다.
- ④ [A]의 '무엇'이 [B]의 '무엇'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나래 떨던 셋별'과 '향기로운 싸릿순'은 화자의 지향점으로 기능하고 있다.
- ⑤ [A]의 '간구'는 '사늘한 가슴'의 생명력 회복을 바라는 기원을, [B]의 '노래'는 '메마른 입술'에 생명력이 회복된 이후의 소망을 표출하고 있다.

24. <보기>를 바탕으로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나무의 수사학 1」의 화자는 도심 속 가로수를 관찰하며 도시를 비판적으로 조망한다. 도시의 가로수는 나무의 푸름이나 아름다운 꽃조차도 도구적 가치에 의해서 평가된다. 화자는 삭막한 도시 환경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참아 내며 꽃을 피우는 모습을 나무의 반어법으로 인식한다. 도시에 제대로 뿌리박지 못하면서도 도시 환경에 적응하여 꽃을 피우는 나무에서 치욕을 읽어 낸 것이다. 그것은 도시의 이주민인 화자가 나무에 대해 동질감을 느끼는 이유이기도 하다.

- ① ‘들뜬 뿌리’는 나무가 처한 상황에 대한 화자의 동질감을 반영하고 있군.
- ② ‘내성이 생긴 이파리’는 나무가 도시에 적응하면서 지니게 된 성질을 보여 주는군.
- ③ ‘시끄러운 가로등 곁’은 꽃을 피우며 참아 내야 할 삭막한 도시 환경을 드러내고 있군.
- ④ ‘신경증과 불면증’은 나무가 도시에 적응하기 위해 견뎌 내야 할 고통을 보여 주고 있군.
- ⑤ ‘치욕으로 푸르다’는 도구적 가치로 평가받아 그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나무에 대한 비판적 표현이군.

[34~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21.06

(앞부분 줄거리) 황만근은 마을 사람들에게 바보 취급을 받지만, 외지 출신인 민 씨는 달리 생각한다. 어느 날, 밤늦게 집에 가던 황만근은 토끼 고개에서 거대한 토끼를 만난다.

“그기 뭘 소리라? 내가 내 집에 내 발로 가는데 니가 뭐라고 집에 못 간다 카나. 귀신이마 썩 물러가고 토끼마 착 었디라라. 내가 너를 타고서라도 집에 갈란다.”

거대한 토끼는 황만근이 한 번도 받아 본 적이 없는 비린 냄새를 풍기면서 느릿하고 탁한 음성으로 다시 말했다.

“너는 ㉔여기서 죽는다. 너는 여기서 죽는다. 너는 여기서 죽는다. 너는 집에 못 간다.”

황만근은 온몸에 소름이 돋고 털이란 털은 모두 위로 곤두섰다. 그래도 있는 힘을 다해 토끼를 밀치며 “비키라!” 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런데 토끼를 밀친 황만근의 팔이 토끼의 털에 묻히는가 싶더니 진공청소기에 빨려 드는 파리처럼 쭈욱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이었다 ㉕(황만근이 한 말이 아니라 그 말을 들은 민 씨의 표현이다). 황만근은 한 팔로 옆에 있는 나무를 붙잡으면서 빨려 들어간 팔을 도로 빼려고 안간힘을 썼다. 황만근을 빨아들이려는 공간은 아무것도 잡히지 않을 정도로 넓었고 허전했고 또한 소름끼치도록 차가웠다. 토끼는 토끼대로 쉽게 끌려 들어오지 않는 황만근을 마저 끌어들이기 위해 온몸을 떨면서 뒷발을 든 채 버티고 있었다.

그런 상태로 시간이 하염없이 흘렀다. 어느새 동쪽 하늘이 부엌게 밝아 오기 시작했다. 그러자 토끼는 황만근을 향해 “너는 이제 살았다. 너는 이제 살았다. 너는 이제 살았으니 나를 놓아라” 하고 말했다. 황만근은 오기가 나서 “택도 없는 소리 말거라. 니를 탕으로 끓이서 어무이하고 나하고 마주 앉아서 먹어 치울 께다. 니 가족을 빗기서 어무이 목도리를 하고 내 토시를 하고 장갑을 할 께다. 나는 인자 죽었다, 자숙아” 하고 소리쳤다. 토끼는 다급하게 물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네 팔을 빼겠느냐.” 황만근은 팔을 안 빼는 게 아니라 못 빼고 있는데 토끼가 그렇게 물어 오자 할 말이 없었다. 그래서 되는 대로 “내 소원을 세 가지 들어주기 전에는 니가잇 거는 못 간다” 하고 말했다.

“네 소원이 뭐냐.”

“우리 어무이가 팔죽 할마이겘이 오래오래 사는 거다.”

㉖(팔죽 할마이란 팔죽을 파는 할머니, 혹은 늘 팔죽을 찌고 있는 할머니 같은데 그 할머니가 누구인지, 어째서 오래 산다고 하는지 민 씨는 모른다.)

토끼는 ㉗마을이 있는 서쪽으로 고개를 기울였다가 몸을 소스라치게 떨고 나서 힘겨운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들어주었다. 그 다음은?”

“어우 겘은 마누라가 생기는 거다.”

“송편을 세 번 먹으면 네 집으로 올 거다. 다음은 무엇이나?”

“떡두깨(떡두꺼비) 겘은 아들이다.”

“마누라가 들어오면 용왕이 와서 그렇게 해 준다. 이제 나를 놓아라.”

“내가 언제 니를 잡았다. 니가 가 뿌리만 되지, 바보 자숙아.”

그러자 토끼는 속았다는 걸 알았는지 얼굴을 무섭게 부풀리더니

황만근의 얼굴에 뜨겁고 매운 김을 내뿜었다. 황만근이 눈을 뜨지 못하고 찢찢매다가 간신히 떠 보니 어느새 자신의 팔이 돌아와 있는 것이었다. 황만근의 ㉘주변에는 토끼털이 무수히 떨어져 바늘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황만근은 제대로 숨 쉴 겨를도 없이 집으로 달려갔다. 동네 곳곳의 닭들이 헛대에서 소리쳐 울고 있었다. 황만근은 밖에서 “어무이, 어무이” 하고 소리치면서 ㉙마당으로 뛰어 들어갔지만 방 안에서는 아무 기척이 없었다. 방 안에 들어가 보니 그의 어머니는 그가 나갔을 때의 모습 그대로, 얼굴이 백지장처럼 변해 앉아 있었다.

“어무이, 어무이!”

그가 어깨를 흔들자 젊은 어머니는 모로 쓰러져 버렸다. 그러면서 “카악!” 하고는 목에서 주먹밥 덩어리를 토해 냈다. 황만근이 어머니를 껴안고 통곡을 하다가 손발을 주무르고 온몸을 어루만지자 어머니는 눈을 떴다.

“니 와 인자 왔노?”

“밤새도록 토끼이 귀신하고 씨름을 하다 왔다. 나는 꽤않나.”

“니 기다리다가 아까 해 뜰 녘에 닭이 울길래 밥 한 덩이를 입에 넣었다가 목이 맥히서 죽을 뻔했다. 움직였다가는 더 맥힐 거 같아서 손가락 하나 까딱 모하고 이래 니가 오기 기다리고 있었니라. 이 문디 겘은 놈의 자숙아, 와 밥만 해 놓고 물은 안 떠다 냈나!”

황만근은 울다가 웃다가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 그러고는 어머니에게 엉덩이를 채어 물을 뜨러 동네 ㉚우물로 달려갔다.

[A] 그날 우물가에서는 황만근의 기이한 체험이 여러 사람의 입으로 하루 종일 수십 번 되풀이되었고 종래 황만근이 우물가로 초청되어 입이 아프도록 같은 이야기를 늘어놓아야 했다.

[B] 송편을 세 번 빚을 만큼의 시간, 곧 세 해가 흐른 뒤에 토끼의 말대로 어떤 처녀가 그의 집으로 들어왔을 때 동네 사람들이 황만근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

- 성석제,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

34. ㉕, ㉖의 서술 효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㉕을 통해 민 씨가 황만근에게 들은 말을 그대로 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㉖을 통해 황만근의 말을 전하는 민 씨도 다른 인물들처럼 서술자의 서술 대상임을 알 수 있다.
- ③ ㉕과 ㉖을 삭제하면 황만근과 토끼의 대결 과정을 파악하기 어렵게 된다.
- ④ ㉕과 ㉖은 황만근과 토끼의 대결 과정 자체에 더 몰입하여 읽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한다.
- ⑤ ㉕과 ㉖을 통해 황만근이 민 씨로부터 전해 들은 이야기가 다시 서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5. ㉠~㉣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주인공이 기이한 체험을 하는 공간
 - ② ㉡: 주인공이 복귀해야 할 일상적 공간
 - ③ ㉢: 주인공의 지난밤 체험의 흔적이 남아 있는 공간
 - ④ ㉣: 주인공이 어머니에 대한 불안을 감지하는 공간
 - ⑤ ㉤: 주인공이 어머니의 요청을 동네 사람들에게 전하러 간 공간

36. [A],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마을 사람들이 ‘이야기’를 여러 차례 들었으나 여전히 흥미를 느끼지 못했음을 보여 준다.
 - ② [A]는 직접 경험한 사건이라도 반복적으로 전달되면서 ‘이야기’의 내용이 점차 달라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 ③ [B]는 새로운 등장인물의 ‘말’에 따라 ‘말’을 처음 전한 존재에 대한 평가가 달라졌음을 보여 준다.
 - ④ [B]의 ‘말’은 [A]의 ‘이야기’의 일부로, ‘말’의 실현이 ‘이야기’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음을 보여 준다.
 - ⑤ [B]는 [A]의 ‘이야기’가 삼 년 동안 전해질 수 있었던 이유가 ‘말’의 실현에 대한 공동체의 확신 때문임을 보여 준다.

37.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윗글은 민담적 요소를 적극 활용한 현대 소설이다. 바보 취급을 받는 황만근이 신이한 존재와 대면했으나 위기를 극복하며 의외의 승리를 거둔다는 비현실적 이야기는 민담적 특징을 잘 보여 준다. 또한 반복적이거나 위협적인 어구 사용, 구성진 입담 등에는 언어의 주술성과 해학성이 잘 드러난다.

- ① 황만근이 ‘거대한 토끼’와 겨루는 비현실적인 이야기 전개는 민담의 일반적 특성과 맞닿아 있는 것이겠군.
- ② 토끼가 ‘너는 여기서 죽는다.’라는 말을 세 번 반복한 것은 언어의 주술적 특성을 드러내는 것이겠군.
- ③ 황만근이 ‘나는 인자 죽었다.’라고 발언하며 위협한 것은 의외의 결과를 가져와 토끼가 황만근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하였겠군.
- ④ ‘바보 자숙아’라는 말은 황만근에 대한 신이한 존재의 우위가 변했음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 ⑤ 어머니가 ‘주먹밥 덩어리’를 토해 내는 것은 황만근에게 속은 것을 깨달은 토끼의 주술적 복수라 할 수 있겠군.

[38~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21.06

금강대 맨 우층의 선학(仙鶴)이 샷기 치니
 춘풍 옥적성(玉笛聲)의 첫잠을 깨듯던디
 호의현상*이 반공(半空)의 소소 뜨니
 서호 넷 주인*을 반겨서 넘노는 듯
 소향로 대향로 눈 아래 구버보고
 정양사 **진혈대** 고타 올라 안즌마리
 여산 진면목이 여괴야 다 보이는구나
 어와 조화옹이 현사토 현사할샤
 날거든 뛰디 마나 섰거든 솟디 마나
 부용(芙蓉)을 고갯는 듯 백옥(白玉)을 못갯는 듯
 동명(東溟)*을 박차는 듯 북극(北極)을 괴왔는 듯
 늣홀시키고 망고대 외로울샤 **혈방옹**이
 하늘의 추미러 뜨스 일을 사로려
천만겁(千萬劫) 지나도록 구뵐 줄 모르느냐
 어와 너여이고 너 가트니 또 잇는가

개심대 고타 올라 **중향성** 바라보며
 만이천봉을 녀녉(歷歷)히 혀여 하니
 봉마다 맏쳐 잇고 굻마다 서린 기운
 맑거든 조티 마나 조커든 맑디 마나
더 기운 흐터 내야 인걸을 만들고자
 형용도 그지업고 테세(體勢)도 하도 할샤
 천지 삼기실 제 **자연이** 되연마는
 이제 와 보게 되니 유정(有情)도 유정할샤

[A]

(중략)

그 알피 너러바회 **화룡소** 되어세라
 천년 노룡(老龍)이 구비구비 서려 이셔
 주야의 홀너 내여 창해(滄海)에 너어시니
 풍운을 언제 어더 삼일우(三日雨)를 디련느냐
 음애에 이온 플*을 다 살와 내어스라
 마하연 묘길상 안문जे 너머 디어
 외나모 씨근 다리 **불정대** 올라 하니
 천심(千尋) 질벽을 반공에 세여 두고
 은하수 한 구비를 춘춘이 버혀 내여
 실가티 플터 이셔 **베가티** 거러시니
 도경(圖經) 열두 구비 내 보매는 여러히라
 이적선 이제 이셔 고타 의논하게 되면
여산*이 여기도곤 낫단 말 못 하려니

- 정철, 「관동별곡」 -

* 호의현상: 흰 저고리에 검은 치마란 뜻으로 학을 가리킴.
 * 서호 넷 주인: 송나라 때 서호에서 학을 자식으로 여기며 살았던 은사(隱士) 임포.
 * 동명: 동해 바다.
 * 음애에 이온 플: 그늘진 벼랑에 시든 풀.
 * 여산: 당나라 시인 이백(이적선)의 시구에 나오는 중국의 명산.

38.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금강대’에서 ‘진혈대’로 이동하면서 자연에 대한 화자의 이중적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 ② ‘진혈대’와 ‘불정대’에서는 이미지의 대립을 통해 화자의 내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 ③ ‘개심대’에서는 선경후정의 방식으로 화자가 바라본 풍경과 그에 대한 감흥이 서술되고 있다.
- ④ ‘화룡소’에서는 화자의 시선이 원경에서 근경으로 이동하며 대상의 특징을 묘사하고 있다.
- ⑤ ‘화룡소’에서 ‘불정대’까지의 이동 경로를 드러내지 않아 시상이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39. [A]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봉우리를 ‘부용’을 꽃고 ‘백옥’을 묶은 듯한 시각적 형상으로 묘사하여 대상의 아름다움을 표현하였다.
- ② 봉우리를 ‘백옥’, ‘동명’과 같은 무생물에 빗대어 대상에서 느낄 수 있는 자연의 영속성을 표현하였다.
- ③ 봉우리를 ‘동명’을 박차고 ‘북극’을 받치는 듯한 모습에 빗대어 대상의 웅장한 느낌을 표현하였다.
- ④ ‘날거든 뛰디 마나 섰거든 솟디 마나’와 같이 행위를 부각하는 대구를 통해 봉우리의 역동적인 느낌을 표현하였다.
- ⑤ ‘고갯는 듯’, ‘박차는 듯’과 같이 상대나 동작을 보여 주는 유사한 통사 구조의 나열을 통해 봉우리의 다채로운 면모를 표현하였다.

40.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조선의 사대부들은 자연에 하늘의 이치[天理]가 구현된 것으로 보았으며, 그들 중 대부분은 자연의미를 관념적으로 형상화하였다. 한편 「관동별곡」의 작가는 자연의미를 현실에서 발견하여 사실감 있게 묘사함으로써 그들과의 차별성을 드러내었다. 또한 그는 자연을 바라보며 사회적 책무를 떠올리고 자연에 투사된 이상적 인간상을 모색하기도 하였다.

- ① ‘혈방옹’을 ‘천만겁’이 지나도록 굽히지 않는 존재로 본 것은, 작가가 지향하는 이상적 인간상을 자연에 투사한 것이군.
- ② ‘개심대’에서 ‘더 기운 흐터 내야 인걸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은, 작가가 자연을 바라보며 자신의 사회적 책무를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군.
- ③ ‘중향성’을 바라보며 천지가 ‘자연이 되’었다고 본 것은, 자연의미가 하늘의 이치가 구현된 인간 사회의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작가의 인식을 보여 주는군.
- ④ ‘불정대’에서 본 폭포의 아름다움을 ‘실’이나 ‘베’와 같은 구체적 사물을 활용하여 표현한 것은, 자연을 사실감 있게 나타내려는 작가의 태도를 반영한 것이군.
- ⑤ ‘불정대’에서 본 풍경을 중국의 ‘여산’과 비교하며 우리 자연의 아름다움을 강조한 것은, 관념이 아닌 현실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작가의 차별성을 보여 주는군.

[41~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21.06

(가)

〔앞부분 줄거리〕 전우치는 구미호로부터 천서를 빼앗아 술법을 배웠으나 구미호가 전우치를 속여 천서의 일부를 가져간다.

우치 대노 왈,

“홍악한 요물이 나를 업수이 여겨 이같이 속이니 내 이제 여우 굴에 가 책을 찾고 요괴를 소멸하리라.”

하고 방망이와 송곳을 가지고 여우 굴로 가니, 산천이 깊고 길이 아득하여 찾을 수 없어 도로 돌아와 생각하되, ‘이 요괴 변화가 예측하기 어려우니 가히 이곳에 오래 머물지 못하리라.’ 하고 서책을 수습하여 돌아오니, 대저 천서 상권은 부적을 붙인 까닭에 빼앗아 가지 못함이라.

우치 집에 돌아와 천서를 보아 못 할 술법이 없으며, 과거에 뜻이 없어 스스로 생각하되, ‘내 벼슬하여 모친을 봉양하려 하면 자연히 디디리라.’ 하고 이에 한 계교를 생각하여 몸을 흔들여 변하여 선관이 되어 오색구름을 타고 하늘에 올라 바로 갈래로 들어가 대명전에 자리하니 서기가 궁중에 어리었으니 궁중이 황홀했다. 이에 조정의 신하들이 당황하여 갈팡질팡하고 임금께 아뢰기를,

“고급에 드문 괴변이라.”

하니, 왕이 대경하사 여러 신하를 모아 의논하시더니, 우치가 운무 중에 서고 청의동자가 외쳐 왈,

“고려국 왕은 옥황상제 전교를 들으라.”

하거늘, 왕이 명하사 바닥에 깔 자리와 향로를 올려놓은 상을 갖춰 놓게 하고 나아가 보니 한 선관이 금관 홍포로 동자를 좌우에 세우고 오색구름 중에 싸여 단정히 섰거늘, 왕이 네 번 절한 후 땅에 엎드리시니, 우치 왈,

“하늘의 궁궐이 오래되어 낡고 험했기에 이제 수리하고자 하여 인간 여러 나라에 뜻을 전하여 모든 물건을 다 바쳤으나 다만 황금 들보 하나가 없는지라. 옥황상제께서 그대 나라에 황금이 유족함을 아시고 이제 뜻을 전하사 칠 월 칠 일 오시에 상량하리니, 그날 미처 대령하되 길이 십 척 오 촌이요, 너비 삼 척 이 촌, 만일 그날 미치지 못하면 큰 변을 내리우시리라.”

하고 말을 마치자 선악 소리 은은하며 오색구름이 남녘으로 향하여 가더라.

(중략)

우치 무안하여 달아나고자 하더니 **화답**이 알고 변신하여 삶이 되어 달려드니, 우치가 보라매 되어 날려 한 즉, 화답이 또한 청사자가 되어 우치를 물어 쓰러뜨리고 크게 꾸짖어 왈,

“너 같은 요술이 임금을 속이고 세상을 회롱하니 어찌 죽이지 아니하리오?”

우치 애걸 왈,

“선생의 도술이 높으심을 모르고 존엄을 범하였으니 죄당만사(罪當萬死)이오나, 소생에게 노모가 있사오니 원컨대 선생은 잔명을 빌리소서.”

화답 왈,

“내 이번은 살리거니와 다시 그런 버릇없는 일을 행치 말고 그대 모친을 봉양하다가 그대 모친이 돌아가신 후에 나와 영주산에 들어가 선도(仙道)를 닦음이 어떠하뇨?”

우치 왈,

“선생의 교훈대로 봉행하리이다.”

하고 인하여 하직한 후에 집에 돌아와 요술을 행치 아니하고 모친을 봉양하더니, 세월이 여류하여 우치 모부인이 졸하니 우치 예를 갖추어 선산에 안장하고 삼 년을 받들더니, 하루는 화답이 왔거늘, 우치가 황망히 나와 맞아 인사를 마치고 자리에 앉은 후에 화답 왈,

“그대와 약속한 일이 있으며 그대 상중에 있는 것을 알고 왔거늘, 이제 그 산에 있는 구미호를 잡아 돌상자에 가두고 그 굴에 불 지름이 어떠하뇨?”

우치 왈,

“이제 선생이 그 여우를 없이하시면 진실로 온 나라의 아주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까 하나이다.”

화답 왈,

“내 이제 그대를 데려가려 하나니, 행장을 꾸리거라.”

하거늘, 우치 크게 기뻐하며 재산을 흠어 노복을 주며 왈,

“나는 이제 영원히 이별하려 하니, 너희들은 탈 없이 있어 나의 조상의 제사를 받들라.”

하고 조상의 무덤에 하직한 후에 화답을 모시고 구름을 타고 영주산으로 향하니, 그 뒷일은 알지 못하니라.

- 작자 미상, 「전우치전」 -

(나)

S#1. 궁궐. 낮.

궁궐을 향해 날아 내려가는 오색구름. ㉠ **선녀와 천군 호위** 속에 전우치가 지상을 내려 본다.

왕: 옥황상제의 아드님께서 오신다. 예를 갖추라.

왕이 손짓하자, 궁중 악사들이 정악을 연주한다. 지상으로 내려온 구름. 전우치가 입을 연다. 찌렁찌렁한 목소리에 왕이 고개를 더 낮춘다.

전우치: 지상의 왕은 내가 시킨 대로 황금 1만 냥을 함경도 기근 지역에 보냈느냐?

왕: 그제 제 꿈에 나타나 하명하신 대로 한 치 틀림없이 그리 했습니다.

전우치: 하늘에서 그대의 덕을 높이 사 그대가 하늘로 돌아올 때 7배 70배 700배로 갚아 줄 것이다.

왕: 황송하옵니다. 왕가의 보물을 보자시길래 그것 역시 준비했습니다.

전우치: 지상의 왕이 보기보다 아주 푹푹하구나. 근데... 에이 가락이 맘에 안 드는구나.

전우치가 손짓하자, 궁중 악사들이 무엇에 홀린 듯 다른 음악을 연주한다. 맘에 안 드는지, 전우치가 손가락을 튕기자, 악사들은 음악을 바꾼다. 그제서야 맘에 든 전우치. 머리를 흔들여 박자를 느끼며, 보물이 늘어선 곳으로 걷는다. 보물을 발로 퓌 퓌 보고, 도자기는 관심 없어 깨고, 보고, 던지고, 보고, 깨는데,

(중략)

거울을 연신 깨던 전우치. ㉠ 한 거울에 눈이 멈춘다. 작고 투박하다. 앞면은 청동이라 탁하고 뒷면은 자개로 덮여 있다. 전우치가 슬쩍 주머니에 넣는다.

전우치: 왕은 고개를 들라.

왕: 예?

전우치: 내 본시 그림 그리기를 즐겨 해 나무를 그리면 나무가 점점 자라고 짐승을 그리면 그림에서 튀어나오니 내 재주가 아까워 그런데...

전우치가 품에서 두루마리를 꺼내 펼친다. 산수화. 궁녀 2 손에 들게 한다.

전우치: 어땠가?

왕: 지상의 풍경이 아닌 듯 살아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소인이 과문하여 묻는데 주인 없는 빈 말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전우치: 이 도사 전우치가 타고 갈 말이니라.

왕: ... 전우치? 망나니 전우치?

전우치가 대동하고 왔던 친군들을 보면, ㉡ 그저 허수아비에 불과하다.

전우치: 나를 아는가? 유명하면 아무리 이름을 숨진다고 숨겨 지는 것도 아니고 거 참.

왕: 감히 도사 님이 주상을 능멸해. 여봐라 이놈을 잡아라.

궁중 무관들이 들이닥치는데, 전우치는 태평하게 한 잔 더 걸치고는, 손가락을 튕겨 음악을 바꾼다. 음악은 점점 흥겨워진다. 진땀나는 궁중 악사들.

전우치: 도사 님이라? 예... 도사는 무엇이나? ㉢ 도사는 바람을 다스리고 (바람이 분다) 마른 하늘에 비를 내리고 (순식간에 장대비가 내린다) 땅을 접어 달리고 (술상을 향해 축지법으로 갔다가 돌아온다) 날카로운 검을 바람보다도 빨리 휘두르고 (검이 쇠- 하는 소리와 함께 허공을 가르고) 그 검을 꽃처럼 다룰 줄 아니 (검이 왕 얼굴 앞에서 꽃으로 변한다) 가련한 사람들을 돕는 게 바로 도사의 일이다. 무릇 생선은 대가리 부터 썩는 법! 왕과 대신들이 기근에 시달리는 백성을 보살 피지 않아 이 도사 전우치가 친히 백성들 심부름을 하고자 왔으니 공치사 받을 일도 아니고.

전우치를 에워싸는 궁중 무관들. 선불리 접근하지 못하는데, 전우치 천천히 붉은 붓을 들어 술병 모가지 테두리를 둘러 원을 그린다. 서로를 바라보다 자신의 목을 보는 무관들. 모두의 목에 붉은 테두리가 그려져 있다.

전우치: 내가 이 병 목을 치면 너희들은 어떻게 될 거 같으냐?

무관들, 슬렁거리며 주춤한다.

왕: 저놈을 잡는 자에게 황금 2천 냥을 주겠다.

전우치: 하하하... 돈을 막 쓰는구나. 하하하...

전우치가 그림 속으로 들어가 말을 타고 사라진다. ㉣ 웃음 소리는 오래도록 왕을 언짢게 한다.

- 최동훈, 「전우치」 -

41. (가)의 [화답]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전우치가 요술로 세상을 어지럽히지 않도록 이끈다.
- ② 전우치의 요청에 따라 선도를 닦기 위해 함께 간다.
- ③ 전우치의 공격을 받으나 도술로 전우치를 제압한다.
- ④ 전우치와 함께 구미호를 퇴치하여 나라를 안정시킨다.
- ⑤ 전우치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영주산에 갈 것을 재촉한다.

42. <보기>는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학생들이 (가)를 이해한 내용이다.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선생님: 일반적으로 영웅 소설에서 주인공은 고난을 겪지만 조력자를 만나 병서나 무기 등을 얻어 탁월한 능력을 갖게 됩니다. 이후 주인공이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는 공을 세워 이름을 떨치며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이때 주인공은 유교적 이념을 존중하는 인물입니다. 이와 같은 전형적인 영웅 소설과 「전우치전」이 어떻게 유사하고 다른지 이야기해 봅시다.

학생 1: 전우치가 천서를 익혀 뛰어난 능력을 얻게 된 것은 병서를 익혀 탁월한 능력을 갖게 된 일반적인 영웅 소설과 비슷해요. ㉠

학생 2: 전우치가 충을 다함으로써 효를 실천하는 것은 충효라는 유교적 이념을 중시하는 일반적인 영웅 소설과 비슷해요. ㉡

학생 3: 전우치가 임신양명의 길을 선택하지 않은 것은 나라에 공을 세워 이름을 널리 떨치는 일반적인 영웅 소설과는 달라요. ㉢

학생 4: 전우치가 옥황상제의 권위를 이용하여 나라의 재산을 취하려 한 것은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는 일반적인 영웅 소설과는 달라요. ㉣

학생 5: 전우치가 재산을 훔쳐 노복에게 주고 떠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것은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는 일반적인 영웅 소설과는 달라요. ㉤

- ① a ② b ③ c ④ d ⑤ e

43. (가)를 토대로 (나)가 창작되었다고 할 때, [A]와 (나)에 대한 비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전우치가 왕에게 말하는 태도는 [A]에서는 근엄하였으나, (나)에서는 거드름을 피우는 것으로 변화하였다.
- ② 전우치가 왕에게 황금을 요구한 까닭은 [A]에서는 모친 봉양을 위한 것이었으나, (나)에서는 백성을 보살피는 것으로 바뀌었다.
- ③ 전우치가 자신의 요구 실현에 대해 취한 조치는 [A]에서는 실행하지 않을 경우 변을 당하리라 위협하는 것으로, (나)에서는 실행한 것에 대해 보상을 약속하는 것으로 표현되었다.
- ④ 전우치가 왕과의 만남을 끝내는 모습이 [A]에서는 구름을 타고 남쪽으로 가는 것으로, (나)에서는 돌아올 것을 예고하며 말을 타고 산수화 속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 ⑤ 전우치가 왕에게 자신의 요구를 전하는 장면은 [A]에서는 왕에게 요구하는 모습이 자세히 서술되었으나, (나)에서는 꿈에 나타나 하명하였다는 왕의 대사로 간략히 처리되었다.

44. (나)에 나타난 갈등 양상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전우치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낸 것을 계기로 왕과의 갈등이 표출되어 상황이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된다.
- ② 전우치가 ‘생선은 대가리부터 썩는 법’이라고 말함으로써 왕과의 갈등이 부패한 지배층에 대한 비판으로 확장된다.
- ③ 왕이 전우치에게 속아 그를 최고의 예우로 대하는 것은 장차 전우치의 정체가 밝혀질 때 갈등이 증폭되는 요인이 된다.
- ④ 왕이 전우치를 ‘옥황상제의 아드님’에서 ‘도사 놈’으로 바꿔 부르는 것에서 전우치를 향한 왕의 적대적인 인식이 드러난다.
- ⑤ 왕과 전우치의 주문에 따라 연주되는 음악이 계속 바뀌으로써 왕과 전우치 간의 대결이 우열을 가리기 힘든 상황임이 드러난다.

45. (나)를 영화로 제작한다고 할 때, ㉠~㉤에 대한 연출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전우치의 권위와 위엄이 느껴지게 하려면, 지상을 내려 다보는 전우치를 올려다보며 촬영해야겠군.
- ② ㉡: 전우치가 거울에 관심을 갖고 있음을 강조하려면, 전우치의 얼굴이나 눈동자를 화면에 가득 담아야겠군.
- ③ ㉢: 천군들의 정체로 인한 왕의 당혹감을 표현하려면, 천군이 있던 자리에 놓인 허수아비를 왕의 시점으로 보여 주어야겠군.
- ④ ㉣: 전우치가 도사로서 가진 출중한 능력을 입체적으로 전달하려면, 여러 공간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각각의 장면을 번갈아 보여 주어야겠군.
- ⑤ ㉤: 왕이 전우치로 인해 불쾌감을 지속적으로 느끼고 있음을 감각적으로 표현하려면, 언짢아하는 왕의 표정을 보여 주며 전우치가 남긴 웃음소리를 효과음으로 길게 끌어야겠군.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22.예시문항

(가)

거미 새끼 하나 **방바닥**에 나린 것을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문 밖으로 쓸어 버린다

차디찬 밤이다

어니젠가* 새끼 거미 **쓸려 나간** 곳에 큰 거미가 왔다

나는 가슴이 짜릿한다

나는 또 큰 거미를 쓸어 문 밖으로 버리며

찬 밖이라도 새끼 있는 데로 가라고 하며 서러워한다

이렇게 해서 아린 가슴이 **짜기도*** 전이다

어데서 좁쌀알만 한 알에서 가제* 깨인 듯한 발이 채 서지도 못한 무척 작은 새끼 거미가 이번엔 **큰 거미 없어진** 곳으로 와서 아물거린다

나는 가슴이 메이는 듯하다

내 손에 오르기라도 하라고 나는 손을 내어 미나 분명히 울고 불고할 이 작은 것은 나를 무서우이 달아나 버리며 나를 서럽게 한다

나는 이 작은 것을 고이 보드러운 종이에 받아 또 문 밖으로 버리며

이것의 엄마와 누나나 형이 가까이 이것의 걱정을 하며 있다가 쉬이 만나거나 했으면 좋으련만 하고 슬퍼한다

- 백석, 「수라(修羅)*」 -

*어니젠가: 어느 사이엔가.

*짜기도: 삭기도. 긴장이나 화가 풀려 마음이 가라앉기도.

*가제: 잣. 방금.

*수라: 끊임없이 싸움이 일어나 고통이 지속되는 세계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나)

이런 돼지가 살았는지 반들거리는 검은 털에 날렵한 주둥이를 가진, 유난히 흙의 온기를 좋아하여 흙이랑 노는 일을 제일로 즐거워했다는군요 기른다는 것이 실은 서로 길드는 것이어서 이 지방 사람들은 ㉠ 통시라는 거처를 마련했다지요 인간의 배변 장소와 돼지우리가 함께 있는 아주 재미난 방인 셈인데요 지붕을 덮지 않은 널찍한 호를 파고 지푸라기 조금 깔아준 방 안에서 이 짐승은 눈비 맞고 흙과 똥과 뉘굴면서 비바람 햇볕을 고스란히 살 속에 아로새기게 되었다는데요 음식물 찌꺼기며 설거지물까지 버릴 것 없이 모아둔 큰 독 속에서 ㉡ 한때 빛나던 것들이 제 힘으로 다시 빛날 때 발효한 이 먹이를 돼지가 먹고 돼지의 배설물은 보리밭 거름으로 이쁜 보리들을 길렀다는데요 그래도 이 짐승의 주식이 사람의 똥이었던 것은 생명은 생명에게 공양되는 법이라 행여 남아 있을 ㉢ 산 것들의 온기가 더럽고 하찮은 것으로 취급될까 두려운 때문이 아니었는지 몰라

나라의 높은 분이 보기에 미개하여 시멘트 네 포대씩 무상 지급한 때가 있었다는데요 문명국의 지표인 변소를 개량하라고 그쳤다는데요 흔적이거나 통시가 아직 남아 내 몸 속의 방을 향해 손 내밀어주는 것은, ㉣ 똥누고 먹는 일이 한가지로 행해

지는 그곳을 신이 거주하는 장소라 여긴 ㉤ 하늘 가까운 섬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 김선우, 「신(神)의 방」 -

1.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모두 공감각적 표현을 통해 계절적 배경을 나타내고 있다.
- ② (가)와 (나)는 모두 반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의 비판적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 ③ (가)와 (나)는 모두 화자와 소재 사이의 대립적 관계를 바탕으로 주제 의식을 제시하고 있다.
- ④ (가)에서는 독백적 어조를, (나)에서는 대화적 어조를 사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⑤ (가)에서는 화자의 인식의 변화를 통해, (나)에서는 화자의 행위를 통해 대상의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2. 공간을 중심으로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방바닥’은 ‘나’가 거미 새끼를 감지함으로써 자신의 외로운 처지를 깨닫는 공간이다.
- ② ‘쓸려 나간 곳’은 큰 거미의 출현으로 인해 ‘나’가 심적 고통을 느끼게 되는 공간이다.
- ③ ‘새끼 있는 데’는 큰 거미가 도달하기를 바라는 지점으로 ‘나’의 상실감이 해소되는 공간이다.
- ④ ‘큰 거미 없어진 곳’은 거미에게 도움을 주려는 ‘나’의 행위로 인해 거미들의 고통이 해소되는 공간이다.
- ⑤ ‘문 밖’은 ‘방바닥’에 대비됨으로써 ‘나’가 거미들의 만남이 실현된다고 확신하는 공간이다.

3. (나)의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의 ‘거처를 마련했다’라는 표현에서, 돼지를 사육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는 존재로 생각했다는 점이 드러난다.
- ② ㉡의 ‘제 힘으로’라는 표현에서, 쓸모를 다한 것처럼 보이는 것들에도 생명력이 내재되어 있다는 점이 드러난다.
- ③ ㉢의 ‘두려운 때문’이라는 표현에서, 가장 두려운 것을 무겁게 여기는 인식이 허위임이 드러난다.
- ④ ㉣의 ‘한가지로 행해지는’이라는 표현에서, 배설하고 먹는 행위는 생명을 순환시킨다는 점에서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음이 드러난다.
- ⑤ ㉤의 ‘하늘 가까운 섬사람들’이라는 표현에서, 통시에 대한 섬사람들의 인식이 신의 섭리에 부합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4.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서정시의 하위 양식인 ‘이야기시’와 ‘산문시’는 현실 세계를 재현하려는 의도에서 출현했다. 전자는 화자와 세계의 관계 차원에서, 후자는 시적 진술의 방법 차원에서 서정시의 외연을 확장한다. 사건이나 사연 등의 이야기를 시적 구조의 기반으로 삼는 이야기시는 화자와 세계의 갈등을 담은 이야기를 제시함으로써, 세계와의 합일을 지향하는 서정시 일반의 특성에서 다소 벗어난다. 행을 구별하지 않고 줄글의 형태로 시적 진술을 전개하는 산문시는 지시하거나 설명하는 언어를 구사함으로써, 서정시의 압축성이 갖는 한계를 극복한다. 하지만 이야기시와 산문시는 여전히 함축성과 음악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서사나 산문과 구별된다.

- ① (가)와 (나)에서는 모두 중심 소재를 청각적으로 묘사하는 구절이 반복됨으로써 서정시의 음악성이 실현되고 있군.
- ② (가)와 (나)에서는 모두 화자가 인식하는 현실 세계가 비유적 의미를 지닌 제목을 통해 응축됨으로써 서정시의 함축성이 실현되고 있군.
- ③ (가)는 화자와 거미가 처한 상황을, (나)는 특정 지역 생활 양식의 변화를 제시함으로써 현실 세계를 재현하고자 하는군.
- ④ (가)는 행위의 연쇄를 담은 이야기를 시적 구조로 취하므로 이야기시에 해당하고, (나)는 줄글의 형태로 시적 진술을 전개하므로 산문시에 해당하는군.
- ⑤ (가)는 화자와 거미가 합일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서정시의 일반적인 특성을 벗어나고, (나)는 통시를 둘러싼 풍습에 대한 설명이 진술된다는 점에서 서정시의 압축성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는군.

[11~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22.예시문항

(가)

일일은 박씨가 계화를 불러 왈, “대감께 여쭙 말미 있으니 아뢰거라.”

하니, 계화 명을 받아 공께 아뢰니, 공이 즉시 ㉠내당에 들어가 묻기를, “무슨 말인지 듣고자 하노라.”

박씨 아뢰기를, “명일 종로에 각처 사람들이 말을 팔려고 모였을 것이니, 노복에게 그중에서 비루하고 파리하여 모양이 볼 것 없는 말을 삼백 냥을 주고 사 오게 하소서.”

공이 들음에 허황하나 자부가 범인과 다름을 알고 즉시 허락하며 근실한 노복들에게 분부 왈, “명일 종로에 가면 말 장사들이 있을 것이니, 그중에서 비루하고 파리한 말 하나를 삼백 냥을 주고 사 오라.”

하며 돈을 주니, 노복들이 받아 가지고 나와 서로 이르되, “대감께서 무슨 연고로 비루하고 파리한 말을 삼백 냥이나 주고 사 오라 하시느고?”

하고 서로 의혹해하며, 이튿날 삼백 냥을 가지고 ㉡종로에 나가 본즉 과연 여러 말이 있더라.

그중에 비루하고 파리한 말을 골라 입자를 찾아 값을 물으니 입자가 말하기를, “그 말 값은 닷 냥이오. 좋은 말이 많거늘 어찌 저런 용렬한 것을 사려 하시오?”

노복이 대왈, “우리 대감의 분부가 그러하오.”

하니 장사 왈, “그러면 닷 냥만 내고 가져가시오.”

하니 노복이 말하되, “우리 대감께서 삼백 냥을 내고 사 오라

[A] 하시니 삼백 냥을 받고 주시오.”

한테, 장사 왈, “본값이 닷 냥인데 어찌 비싼 값을 받으시오?”

하니 노복이 말하되, “대감 분부대로 주는 것이니 여러 말 말고 받으시오.”

하며 주거늘 장사가 사양하고 받지 않거늘 노복이 마지 못해 억지로 백 냥을 주고 이백 냥은 감추고 돌아오더라.

노복이 대감에게 말을 사 왔다 아뢰니, 공은 즉시 자부를 부르니, 박씨 노복에게 말을 가져오라 하며 말을 한참 보다가 말하기를, “말 값이 삼백 냥을 주어야 쓸 데 있거늘 무지한 노복이 말 장사에게 백 냥만 주고 이백 냥은 감추었으니 도로 주거라 하옵소서.”

공이 이 말을 듣고 박씨의 신명함을 탄복하고 즉시 ㉢외당에 나와 노복들을 불러 꾸짖기를, “너희들이 말 값을 제대로 주지 않고 백 냥만 주고 왔으니 상전을 기망한 죄는 나중에 중치 하려니와 감춘 돈은 말 주인에게 주고 오라. 만일 지체하면 목숨을 보전치 못하리라.”

하니 노복들이 사죄 왈, “이같이 명백하시니 어찌 기망하오리까? 과연 대감 분부대로 말 장사에게 삼백 냥을 준즉 말 값이 닷 냥이라 하고 받지 아니하옵기로 억지로 백 냥만 주고 이백 냥은 감추었으니, 이렇듯 신령하옵시면 소인들의 죄는 만사무석이로소이다.”

하고 즉시 ㉣종로에 나가 말 장사를 찾아 돈 이백 냥을 주며 왈, “이 사람이, 주는 돈을 고집하고 받지 아니하더니 우리 등이

상전에게 죄를 당하게 되니 어찌 통분치 아니리오?”

하며 이백 냥을 억지로 맡기고 돌아오더라.

박씨 말을 기른 지 삼년에 준총(駿驄)이 되어 걸음은 비호(飛虎) 같은지라. 박씨가 공께 왈, “모월 모일에 명나라 사신이 올 것이니, 그 말을 가져다 ㉤사신 오는 길에 놓으면 사신이 사려 할 것이며, 값은 삼만 냥이라 하고 팔아 오라 하소서.”

공이 듣고 자부 말대로 노복을 불러 분부한 후 사신 오기를 기다리더라.

과연 그날 사신 나오니, 사신이 말을 보고 파는가 묻거늘 노복 왈, “파는 말입니다.”

[B] 사신이 또 묻기를, “값을 얼마나 받으려 하느냐?”

노복이 답 왈, “값은 삼만 냥이로소이다.”

사신이 대희하여 삼만 냥을 아끼지 아니하고 사 가더라.

노복들이 받아 가지고 돌아와 공께 말 팔던 사연을 낱낱이 아뢰고, 공은 삼만 금을 얻음에 가산이 부요하니 박씨에게

물어 왈, “삼만 냥을 받았으나 아지 못게라. 어떤 연고인고?” 박씨 아뢰기를, “그 말은 곧 천리 준총마로 조신은 작고 조만

간 쓸 곳이 없으나, 사신은 준마를 알아보고 삼만 금을 아끼지 아니하고 사 갈 것이니 그런 고로 사신에게 팔았나이다.”

공이 듣고 왈, “너는 여자이나 명경만리하니 진실로 아깝도다. 만일 남자였던들 보국 충신이 될 것을 여자임이 한이로다.”

하며 탄식하더라. 박씨 무릎을 꿇고 왈, “소부의 원하는 바는 가군이 과거에 급제하여 부모에게 영화를 뵈옵고 입신양명하여 나라를 충성으로 돕고, 소부는 다만 유자유손하고 만수무강 하오면 죽어도 무한이로소이다.”

하거늘 공이 그 말을 들음에 못내 탄복하더라.

- 작자 미상, 「박씨전」 -

(나)

그녀는 늘 우하형에게 비변사 서리를 통하여 조보(朝報)*를 구입해 오게 하여 보는데, 대개 열흘 만에 도착했다. 그녀는 조보를 통해서 조정 일을 헤아리고 전관(銓官)*이 누가 될 것 인가를 미리 알아맞히는데 귀신같이 열에 하나도 틀림이 없었다. 그리하여 우하형으로 하여금 다음 전관이 될 사람에게 미리 손을 써 평안도 물화를 끌어모아 정성으로 바치니, 그 효험이 십분 나타나게 되었다. …(중략)… 봉급이 점차 불어서 위로 섬김도 더욱 풍부하여 앞길이 날로 양양해졌다. 그리고 순차로 승진하여 마침내 절도사에 이르렀다.

우하형은 나이 칠십이 되어 집에서 삶을 마쳤다. 그녀는 자식들을 위로하며, “영감께서는 시골 무관으로 지위가 절도사에 이르렀고 고희 가까이 사셨으니, 당신이 보아도 유감이 없을 것이요, 자식들은 과히 애통할 것이 없소. 나의 일을 두고 말하더라도 여자가 지아비를 섬김에 자기 공치사는 아니지만 오랫동안 벼슬길을 도와서 높은 지위에 이르시도록 했으니, 내 소임 역시 다한 셈이라 또 무엇을 슬퍼하겠소.”

하고 겨우 장례 기간이 지나자 그녀는, “영감이 살아 계실 때에는 내가 집안을 맡았지만 영감이 돌아가신 뒤에는 큰머느리가 마땅히 이 집의 주인이 되어야 하오. 나는 한 서모(庶母)에 불과하니 가정을 큰머느리에게 맡기겠소.”

하고는 창고에 저장하고 농 속에 담아둔 재물을 기록하여 열쇠와 함께 내주었다.

큰머느리가 울며 사양하기를, “서모님이 우리 집에서 얼마나 공로가 많으셨는지요. 아버님이 이제 별세하셨으니 저희는 아버님이 하셨던 것처럼 서모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집안일 모두를 예전 같이 하고 싶은데, 서모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요?”

그러나 그녀는 큰머느리에게 기어이 집안을 맡겼다.

- 작자 미상, 「조보」 -

* 조보: 승정원에서 재결 사항을 기록하여 반포하던 관보.

* 전관: 문무관을 선발하는 일을 맡아보던 벼슬아치.

11. (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계화는 박씨의 말을 듣고 자신이 짐작한 바를 공에게 전달하고 있다.
- ② 공은 말을 사라는 박씨의 말을 듣고 한탄하다가 제안을 받아들이고 있다.
- ③ 노복은 말을 사 오라는 공의 명을 받고 의심 없이 행동하고 있다.
- ④ 박씨는 노복이 사온 말을 관찰하면서 자기 안목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고 있다.
- ⑤ 노복들은 자신들이 돈을 감춘 죄가 드러나자 그 책임을 장사에게 전가하고 있다.

12.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에서 박씨가 공에게 요청한 바가 ㉡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음이 ㉢에서 확인된다.
- ② 박씨가 ㉠에서 공에게 받았던 신뢰는 ㉣에서 타당성이 확인된다.
- ③ ㉡에서 노복들이 공에게 보인 신뢰는 ㉢에서 행해진 공의 꾸밈음을 거치면서 동요된다.
- ④ 노복은 ㉡에서 한 거래로 인해 ㉢에서의 행위를 해야만 했다.
- ⑤ 박씨가 ㉡에서의 사건을 문제 삼은 이유는 ㉢에서의 사건을 가능하게 하기 위함이다.

13.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의 입자와 [B]의 공은 모두 팔린 말의 진가를 알지 못하고 있다.
- ② [A]의 노복과 [B]의 사신은 모두 말을 사려는 사유를 밝히고 있다.
- ③ [A]의 노복은 [B]의 사신과 달리 사려는 말의 진가를 알고 있다.
- ④ [B]의 사신은 [A]의 노복과 달리 상대의 의도에 대해 의혹을 품고 있다.
- ⑤ [A]에서는 입자가 받으려는 값대로, [B]에서는 사신이 지불하려는 값대로 말 값을 정했다.

14. (나)의 ‘그녀’에 대한 평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조보를 읽고 전관이 될 사람을 짐작했다는 점에서는, 정보의 가치를 인지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고 볼 수 있겠군.
- ② 공적 정보인 조보를 사익을 위해 이용했다는 점에서는, 조보의 공적 가치를 훼손했다고 볼 수 있겠군.
- ③ 굶어모은 물화로 청탁을 하여 남편을 절도사까지 이르게 했다는 점에서는, 인사 제도의 공정성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겠군.
- ④ 장례 중에는 자식들을 위로하고 장례 후에는 집안을 챙겼다는 점에서는, 서모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에게 귀감이 된다고 볼 수 있겠군.
- ⑤ 남편의 사후 집안일 모두를 남편이 살아 있을 때와 달리하려 했다는 점에서는, 신분의 한계를 뛰어넘으려 했다고 볼 수 있겠군.

15.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한글 고소설 「박씨전」이 신이한 능력을 지닌 여성을 허구적으로 보여 줌으로써 여성 독자들의 소망에 부응했다면, 한문 야담 「조보」는 현실적이면서 비범한 능력을 지녔던 실재의 여성을 제시함으로써 식자층 남성 독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박씨’는 남성보다 우월한 능력을 지녔지만 결국 전통적인 부인의 삶에 만족하고, ‘그녀’도 탁월한 해안을 지녔지만 서모로서의 삶에 만족한다. 두 작품은 잠재된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여 남성에게 종속된 존재로 간주되었던 여성상을 탈피하여 새로운 여성상을 모색했다. 그러나 「박씨전」은 새로운 여성상에 대한 자유로운 상상, 「조보」는 새로운 여성상에 대한 사회적 제한에 치중했다. 두 작품은 서로 주목하는 바를 달리하여 새로운 여성상을 형상화했다는 점에서 고소설과 야담의 상호 보완성을 잘 보여 준다.

- ① (가)에서 ‘공’이나 ‘노복’이 짐작하지 못하는 지략을 발휘한 ‘박씨’의 모습에서, 고소설의 여성 독자가 소망하였던 여성상을 확인할 수 있다.
- ② (나)에서 ‘그녀’가 ‘우하형’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에서, 비범한 능력을 지녔지만 그 능력을 가정의 웅성으로만 발휘하였던 실재 여성의 모습이 구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가)에서 ‘박씨’의 말을 ‘공’이 따르고, (나)에서는 ‘그녀’의 말을 ‘우하형’이 따르는 데에서, 남성에 종속되지 않는 새로운 여성상이 추구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④ (가)의 ‘박씨’는 신이한 능력을, (나)의 ‘그녀’는 남다른 수완을 지녔다는 점에서, 당대 여성의 사회적 제한에 대해 여성 독자가 남성 독자보다 현실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⑤ (가)에서 보국 충신이 될 만한 ‘박씨’가 유자유손을 원한다고 말하고, (나)에서 집안에 공로가 많았던 ‘그녀’가 ‘큰머느리’에게 가정을 맡기는 데에서, 전통적 부인의 삶과 서모의 삶이 형상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2~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22.예시문항

고전 시가의 세계에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애창되던 작품이 후대로 전승되다가, 창작 당시와는 다른 상황에 놓이면서 변모하는 사례가 종종 발견된다. ‘개’를 소재로 한 아래의 시조들이 이러한 사례에 해당한다.

국립중앙박물관에는 ‘하기야 키’라고 불리는 도자기 가운데 한 점이 소장되어 있다([사진]). ‘하기야키’는 진주 지방에서 도자기 비법을 이어 오다가 임진왜란 때에 일본으로 끌려간 도공 형제와 그 후손들이 일본 하기 지방에서 만든 도자기이다. [사진]의 도자기에는 한글로 (가)와 같은 시조가 써여 있다.



[사진] 추철희시문다원(萩鐵繪詩文茶碗)

(가)

개야 즈치 말라 밤 사름다 도듯가
즈목지 호고려 님 지슘 덩겨스라
그 개도 호고려 개로다 듯고 줌즘ㅎ느라

그런데 18세기의 가집인 『고금명작가』에 이와 유사하면서도 그보다 더 이른 시기에 창작된 작품 (나)가 수록되어 있어 주목된다.

(나)

개야 좃지 마라 밤 스람이 다 도적가
두목지* 호결이 님 휴심 단니노라*
그 개도 호결의 집 갠지 듯고 줌즘 ㅎ더라

* 두목지: 기생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당나라 시인 두목(杜牧).
* 휴심 단니노라: 찾으려 다니노라.

(가)와 (나)는, 일부 시어의 표기가 다르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구절과 표현이 일치하기 때문에 같은 작품으로 간주된다. (나)가 우리나라에 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오기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조선에서 오래전부터 전승되어 오던 (나)를 고국에서 익힌 도공들이 일본으로 끌려가 도자기를 구울 때 (가)를 기록해 넣은 것으로 판단된다. ㉠(나)는 화자를 여성으로 간주할 경우, 두목지 같은 남성이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한 여인의 마음을 노래한 것으로 해석된다.

임병양란 이후에 개를 소재로 한 작품은 기존 평시조의 틀을 벗고 다른 양식의 갈래인 사설시조로 다시 창작되었다. 사설시조(다)는 수많은 가집에 수록될 정도로 인기 있던 작품인데, 여기에서는 중심 소재가 개이고 화자가 여성인 점은 그대로 이어지고 있지만 이를 담아내는 양식은 달라졌다.

(다)

개를 여남은이나 기르되 요 개같이 알미우라
미운 임 오면은 꼬리를 회회 치며 치뽀락 내리뽀락 반겨서
내닫고 고운 임 오면은 뒷발을 버둥버둥 무르락 나으락 강강
짚어서 돌아가게 한다
쉴밥이 그릇그릇 난들 너 먹일 줄이 있으라

1907년 한일신협약이 체결된 이후, 개를 소재로 한 (다)는 그 조약의 조인에 찬성한 이완용 등의 정미칠적(丁未七賊)을 비판하기 위한 수단으로 다시 쓰였다. 작품이 창작된 시점을 고려할 때 (라)의 ‘일곱 마리 요 박살할 개’는 정미칠적을 비유한 것으로 해석된다. 제목 ‘살구(殺狗)’는 ‘개를 죽이다.’라는 뜻이다.

(라)

개를 여러 마리나 기르되 요 일곱 마리같이 알밋고 좃미우라
낮선 타처 사람 보게 되면 꼬리를 회회 치며 반겨라고 내달 아
요리 납작 조리 가웃하되 낮익은 집안사람 보면은 두 발을
뻘디디고 콧살을 찡그리고 이빨을 영성거리고 경경 짚는 일곱
마리 요 박살할 개야
보아라 근일에 새로 개 규칙 반포되어 개 입자의 성명을
개 목에 채우지 아니하면 박살을 당한다 하니 자연(自然) 박살
- 작자 미상, 「살구」 -

이상과 같은 변모의 사례들에서는 앞선 작품의 형식과 내용이 그대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표기·표현·주제·양식 등에서 다양한 변모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변모는 이본, 작품, 갈래의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본 차원의 변모는 앞선 작품의 표기나 표현 가운데 일부가 바뀌기는 하지만, 주제·양식 등은 대체로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를 말한다. ㉢작품 차원의 변모는 앞선 작품의 양식은 그대로 따르지만, 표현·주제 등이 바뀌어서 후속 작품을 새로운 작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갈래 차원의 변모는 새로운 작품이 앞선 작품과 다른 양식에 근거하여서 후속 작품을 새로운 갈래로 보아야 하는 경우를 말한다.

22. ㉠을 바탕으로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초장에서 화자가 개에게 ‘좃지 마라’라고 한 것은 ‘밤 스람’이 개가 짚는 소리에 발걸음을 되돌릴까 염려했기 때문이겠군.
 - ② 초장의 ‘도적’과 중장의 ‘두목지 호결’은 모두 화자가 기다리는 사람을 가리키는군.
 - ③ 중장의 ‘두목지 호결’은 ‘두목지 같은 호결’로 풀이되어 ‘호결’에 대한 화자의 호감을 드러내는군.
 - ④ 중장의 ‘줍즘ㅎ더라’는 ‘호결이 님 휴심’하기에 용이한 상황이 되었음을 암시하는군.
 - ⑤ 중장은 초장에서 화자가 개에게 ‘좃지 마라’라고 부탁한 이유를, 중장은 그 결과를 드러내는군.

23. ‘개’를 중심으로 (나)와 (다)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와 (다)의 개는 모두 화자의 기다림을 표현하는 매개물로 기능하고 있다.
- ② (나)와 (다)에서는 모두 지시어에 의해 개와 화자 간의 물리적 거리가 환기되고 있다.
- ③ (나)와 (다)에서는 모두 기다리는 사람에 대한 화자의 기대와 개의 반응이 다른 데서 시적 상황이 조성되고 있다.
- ④ (나)의 개는 화자와 교감이 가능한 대상으로, (다)의 개는 화자와 교감을 나누기 어려운 대상으로 간주되고 있다.
- ⑤ (나)의 개가 상황이 변해도 행동을 바꾸지 않는 존재라면, (다)의 개는 상황이 변하면 행동을 바꾸는 존재로 제시되고 있다.

24. (가)~(라) 사이에 이루어진 변모의 양상을 ㉠~㉢에 따라 적절하게 구별한 것은?

㉠	㉡	㉢
---	---	---

- | | | |
|-----------|---------|---------|
| ① (가)→(나) | (나)→(다) | (다)→(라) |
| ② (가)→(나) | (다)→(라) | (나)→(다) |
| ③ (나)→(가) | (나)→(다) | (다)→(라) |
| ④ (나)→(가) | (다)→(라) | (나)→(다) |
| ⑤ (다)→(라) | (나)→(다) | (가)→(나) |

25. (가), (다), (라)의 향유 양상에 대한 추론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가)가 일본으로 끌려간 도공들이 기록한 것이라면, 한글 표기를 통해 그들이 고국에 대한 기억을 간직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겠군.
- ② (가)가 일본에서 태어난 도공들의 후손이 기록한 것이라면, 그들이 조선인임을 잊지 않으려 노력했음을 알 수 있겠군.
- ③ (다)가 만나지 못하는 ‘고운 입’에 대한 원망(怨望)을 표현한 것이라면, 개는 ‘고운 입’ 탓에 부당하게 대접받고 있는 셈이겠군.
- ④ (라)가 한일신협약을 비판하기 위해 지어진 것이라면, ‘개 규칙’은 한일신협약을 비유적으로 가리키는 표현이겠군.
- ⑤ (라)가 정미칠적에 대한 비판의 의도로 지어진 것이라면, ‘타쳐 사람’과 ‘집안사람’은 일본과 조선을 대조하는 표현이겠군.

[26~2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22.예시문항

[**앞부분의 줄거리**] 박영채와 혼인하고자 했던 이형식은 영채가 죽은 줄로만 알고 김 장로의 청을 수락하여 김선형과 약혼한다. 그런데 선형과 미국으로 유학을 가기 위해 우선과 함께 올라탄 기차에서 형식은 영채를 만나고 충격을 받는다.

“나는 미국 가기를 중지할라네.”

“응?”

하고 우선도 놀라며,

“어째?”

“㉠ 미국 가기를 중지할 테여…… 그것이 옳은 일이지……

응, 그리할라네.”

하면서 우선의 손을 놓고 차실로 들어가려 한다. 우선은 손을 잡아 형식을 끌어당기며,

“자네 미쳤단 말인가. 이리 좀 오게.”

형식은 떨거니 섰다.

“㉡ 자네 지금 정신이 산란하였네. 미국 가기를 중지한다는 것이 무슨 소리여.”

“아니! 저편은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려고 하는데 나는 이게 무슨 일인가. 나는 선형 씨한테 이 뜻을 말하고 약혼을 파하겠네. 그것이 옳은 일이지.”

“그러면 영채하고 혼인한다 말이지?”

“㉢ 응, 그렇지. 그것이 옳지.”

“영채는 자네와 혼인을 한다던가.”

“그런 말은 없어.”

“만일 영채가 자네와 혼인하기를 싫다 하면 어쩔 텐가.”

형식은 한참 생각하더니,

“그러면 일생 혼인 말고 지내지…… 절에 가서 중이 되든지.”

우선은 마침내 껄껄 웃으며,

“지금 자네가 좀 노보세(上氣)했네*. 참 자네는 어린아이일세. 세상이 무엇인지를 모르네그러. 행여 꿈에라도 그런 생각 내지 말고 어서 미국이나 가게.”

“㉣ 그러면 저 사람을 버리고?”

“버리는 것이 아니지. 일이 이미 그렇게 되었으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 무엇 하나. 또 영채 씨도 동경에 유학도 하게 되었고, 하니까 ㉤ 피차에 공부나 잘하고 장래에 서로 남매 삼아 지내게그러. 그런 어림없는 미친 소리는 다 집어치고……”

하면서 형식의 등을 툭 친다.

팔에 붉은 형깁 두른 차장이 지나가다가 두 사람을 슬쩍 본다. 형식은 자리에 돌아와 뒤에 몸을 기대고 가만히 눈을 감았다. 선형은 조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런 듯이 기대어 앉았다.

형식의 가슴속에는 새로운 의문 하나가 일어난다.

[A] 대체 자기는 누구를 사랑하는가. 선형인가, 영채인가. 영채를 대하면 영채를 사랑하는 것 같고, 선형을 대하면 선형을 사랑하는 것 같다. 아까 남대문에서 차를 탈 때까지는 자기는 오직 선형에게 몸과 마음을 다 바친 듯하더니, 지금 또 영채를 보매, 선형은 둘째가 되고 영채가 자기의 사랑의 대상인 듯도 하다. 그러다가 또 앞에 앉은 선형을 보매 ‘이야말로 내 아내, 내 사랑하는 아내’라는 생각도 난다.

자기는 선형과 영채를 둘 다 사랑하는가. 그렇다 하면 동시에 두 사람을 다 같이 사랑할 수가 있을까. 남들이 하는 말을 듣거나, 자기가 지금껏 생각하여 온 바로 보건대, 참된 사랑은 결코 동시에 두 사람 이상에 향할 수 없는 것이어늘, 지금 자기의 마음은 어떠한 상태에 있다.

(중략)

그는 사랑이란 것을 인류의 모든 정신 작용 중에 가장 중하고 거룩한 것의 하나인 줄을 믿는다.

그러므로 자기가 선형을 사랑하는 것은 자기에게 대하여서는 극히 뜻이 깊고 거룩한 일이고, 자기의 동포에게 대하여서는 큰 정신적 혁명으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형식의 사랑에

[B] 대한 태도는 종교적으로 진실하고 경건한 것이었다. 사랑을 인생의 전체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랑에 대한 태도로 족히 인생에 대한 태도를 결정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이제 생각하여 보건대 자기의 선형에게 대한 사랑은 너무 유치한 것이었다. 너무 근거가 박약하고 내용이 빈약한 것이었다.

형식은 오늘 저녁에 이것을 깨달았다. 깨달으매 슬펐다. 마치 자기가 인생 경력을 다 들여서 하여 오던 사업이 일조에 헛된 것인 줄을 깨달은 듯한 실망을 맛보았다. 그와 함께 자기의 정신의 발달한 정도가 아직도 극히 유치함을 깨달았다. 자기는 아직 인생을 깨달을 때도 아니요, 따라서 사랑을 의논할 때도 아님을 깨달았다.

그러므로 자기가 오늘날까지 여러 학생에게 문명을 가르치고, 인생을 가르친 것이 극히 외람된 일인 줄도 깨달았다. 자기는 아직도 **어린아이**다. 마침 **어른** 없는 사회에 처하였으므로 스스로 어른인 체하던 것인 줄을 깨달으매 스스로 부끄러운 생각도 난다.

형식은 생각에 이어 생각을 한다.

나는 조선의 나갈 길을 분명히 알았거니 하였다. 조선 사람의 품을 이상과, 따라서 교육자의 가질 이상을 확실히 잡았거니 하였다. 그러나 이것도 필경은 어린애의 생각에 지나지 못하는 것이다.

- 이광수, 「무정」 -

* 노보세했네: 일본어를 차용한 표현으로 ‘흥분했네’의 뜻임.

26.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의 자기 주도적 사랑의 가치는 [B]의 자기희생적 사랑에 의해 부인되고 있다.
- ② [A]에서는 사랑의 대상을 고민하고 있고, [B]에서는 사랑의 근거를 반성하고 있다.
- ③ [A]에서는 사랑에 대한 이성적 접근이, [B]에서는 사랑에 대한 감성적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 ④ [A]에서는 사랑의 현재적 상황에, [B]에서는 사랑의 미래에 대한 전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⑤ [A]에서 사랑의 가치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것과 달리, [B]에서는 사랑의 가치에 대해 확신을 표현하고 있다.

27.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영체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미국행을 포기하는 것이 옳다는 인식이 드러나고 있다.
- ② ㉡: 영체에 대한 의리를 지키기 위해 선형과의 혼인 약속을 깨는 것이 비상식적이라는 인식이 드러나고 있다.
- ③ ㉢: 영체와 혼인하기 위해서는 선형과의 약혼을 유지할 수 없으므로, 약혼을 파하는 것이 옳다는 인식이 드러나고 있다.
- ④ ㉣: 영체를 버리고 미국행을 선택하는 것과 선형과 혼인하는 일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인식이 드러나고 있다.
- ⑤ ㉣: 영체는 동경으로, 형식은 미국으로 유학 가서, 미래에는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이 낫겠다는 인식이 드러나고 있다.

28. [어린이]와 [어른]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어린이가 윤리적으로 순결한 자라면, 어른은 윤리적으로 타락한 자이다.
- ② 어린이가 권력에 복종하는 사회적 약자라면, 어른은 약자를 지배하는 권력자이다.
- ③ 어린이가 새로운 풍습에 적응하는 자라면, 어른은 기존의 풍습에 얽매인 자이다.
- ④ 어린이가 외부 세계의 충격에 위축되는 자라면, 어른은 외부 세계의 충격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자이다.
- ⑤ 어린이가 공동체의 이상을 관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자라면, 어른은 공동체의 이상을 체득한 자이다.

29. <보기>를 바탕으로 밑줄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연애’라는 말은 20세기 초 조선에서 영어 ‘LOVE’의 번역어로 처음 등장했다. 연애는 단순히 남녀의 교제라는 행위가 아니라, 감정의 주체로서 개인을 전제한 근대적인 관념이었다. 따라서 연애는 개인에게는 자아를 자각하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했고, 사회에는 자유로운 배우자 선택의 근거로 작용함으로써 가족 제도의 변혁을 유도했다. 「무정」이 창작될 무렵, 연애를 고민하고 실천하는 일은 근대적 삶의 실천으로 인식되었고, 소설은 ‘연애에 기초한 혼인’을 형상화함으로써 계몽성을 드러냈다. 나아가 「무정」에서는 ‘형식’이 연애와 관련된 개인적 경험을 통해 자기만의 새로운 진실을 발견한다. 사랑의 갈등을 겪는 가운데 스스로를 민족 계몽의 선각자로 자부했던 ‘형식’은 자신의 내면에서 결핍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 ① 사랑의 대상을 혼인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고민하는 형식의 모습은, 연애에 기초한 혼인의 문제를 고민하는 개인을 형상화한 결과이겠군.
- ② 사랑의 대상이 누구인지 자문하는 형식의 모습은, 감정의 주체로서의 개인을 통하여 근대적 관념으로서의 연애를 서사화한 결과이겠군.

- ③ 사랑을 개인의 일로만 국한하지 않고 민족에 대한 정신적 혁명의 일환으로 생각하는 형식의 모습은, 근대적 삶의 실천으로서의 연애가 계몽성을 지녔음을 보여 주는군.
- ④ 인생의 사업이 하루아침에 헛된 것임을 깨닫고 실망하는 형식의 모습은, 연애의 실천에서 겪는 어려움이 근대적 자아의 자각에도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드러내는군.
- ⑤ 사랑의 진실을 확인함으로써 인생에 대한 자신의 깨달음을 성찰하는 형식의 모습은, 연애를 고민하는 개인적 경험을 통해 내면의 결핍이라는 새로운 진실에 접근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군.

[21~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20.11

(가)

동녘 두던 밧기 크나큰 너븐 들히
만경(萬頃) 황운(黃雲)이 혼 빗치 되야 있다
 중앙이 거의로다 **내노리** **호자스라**
 불근 게 여물고 **눌은** 둥기술저시니
 술이 니글선정 버디야 업술소나
 전가(田家) 흥미는 날로 기퍼 가노매라
 살여홀 긴 몰래에 **밤불이** **불가시니**
 ㉠ **게** **잡는** **아희들이**그들 을 **훗터** **있고**
 호두포* 엔 구벽에 **아적물이** **미러오니**
 ㉡ **돛든** **비** **애내성(欸乃聲)*이** **고기** **뜯는** **당시**로다
 경(景)도 **도커니와** **생리(生理)라** **괴로오라**

[A]

(중략)

어와 이 청경(淸景) 감시 이실 거시런들
 적막하다든문에 **내** **분으로** **드러오라**
 사조(私照)* 엽다 호미 거즌말 아니로다
 ㉢ **모재(茅齋)*에** **빗친** **빗치** **옥루(玉樓)라** **다를소나**
 청준(淸樽)을 **밧싸** **열고** **큰** **잔의** **꺄** **브어**
 ㉣ **죽엽(竹葉)** **꺄** **술** **들** **뵈** **초차** **거후**로니
 표연흥(逸興)이 저기면 놀리로다
 이적선(李謫仙) 이려하야 **들** **보고** **밧치** **닷다**
 춘하추동에 **경물이** **아름** **답고**
 주야조모(晝夜朝暮)에 **완상**이 **새로** **오니**
 ㉤ **몸이** **한가** **흐나** **귀** **눈은** **겨** **늘** **업다**
 여생이 언마치리 **백발이** **날로** **기니**
 세상 공명은 **계** **특이나** **다** **를** **소나**
 ㉥ **강호** **어조(魚鳥)에** **새** **밍** **세** **깁** **퍼** **시니**
 옥당금마(玉堂金馬)*의 **몽혼(夢魂)*이** **섯** **괴** **였다**
 초당연월(草堂煙月)의 **시** **름** **업** **시** **누** **위** **이** **셔**
 촌주강어(村酒江魚)로 **장** **일** **취(長日醉)를** **원(願)호** **노** **라**
 이 **몸이** **이** **러** **구** **름** **도** **역** **군은(亦君恩)이** **샷** **다**

- 신계영, 「월선헌십육경가」 -

- * 호두포: 예산헌의 무한천 하류.
- * 애내성: 어부가 노를 저으면서 부르는 노랫소리.
- * 사조: 사사ροι 비춤.
- * 모재: 띠로 지붕을 이어 지은 집.
- * 옥당금마: 관직 생활.
- * 몽혼: 꿈.

(나)

어촌(漁村)은 나의 벗 **공백공**의 자호(自號)다. 백공은 나와 태어난 해는 같으나 생일이 뒤이기 때문에 내가 **아우**라고 한다. 풍채와 인품이 소탈하고 명랑하여 사랑할 만하다. **대과**에 **급** **제** **하고** **좋은** **벼슬**에 **올라**, **갓** **끈**을 **나** **부** **끼고** **인** **끈**을 **두** **르고** **필** **기** **를** **위** **한** **붓**을 **귀**에 **꽂고** **나** **라**의 **옥** **새** **를** **주** **관** **하** **니**, **사** **라** **들** **은** **진** **실** **로** **그** **에** **게** **원** **대** **한** **기** **대** **를** **하** **였** **으나**, **답** **답** **하** **게** **강** **호**의 **취** **미** **를** **지** **니** **고** **있** **다**. **가** **끔** **흥**이 **무** **르** **익** **으면**, 「어부사」를 노래한다. 그 음성이

맑고 밝아서 천지에 가득 찰 것 같다. 증자가 상송(商頌)을 노래 하는 것을 듣는 듯하여, 사람의 기쁨으로 하여금 멀리 강호에 있는 것 같게 만든다. 이것은 그의 **마음에 사욕이 없어** 사물에 초탈하였기 때문에 소리의 나타남이 이와 같은 것이다.

하루는 나에게 말하기를,
 “나의 뜻은 어부(漁父)에 있다. 그때는 어부의 즐거움을 아는가. **강태공**은 성인이니 **내가** **감히** **그가** **주** **문** **왕**을 **만** **난** **것** **과** **같**은 **그** **런** **만** **남**을 **기** **약** **할** **수** **없** **다**. **엄** **자** **릉**은 **현** **인** **이** **니** **내** **가** **감** **히** **그** **의** **깨** **끗** **함**을 **바** **랄** **수** **없** **다**. ㉠ **아이** **와** **어** **른** **들**을 **데** **리** **고** **갈** **매** **기** **와** **백** **로** **를** **벗** **하** **며** **어** **떤** **때** **는** **남** **짓** **대** **를** **잡** **고**, ㉡ **외** **로** **운** **배** **를** **노** **저** **어** **조** **류** **를** **따** **라** **오** **르** **고** **내** **리** **면** **서** **가** **는** **대** **로** **말** **겨** **두** **고**, **모** **래** **가** **깨** **끗** **하** **면** **뱃** **줄**을 **매** **어** **두** **고** **산** **이** **좋** **으면** **그** **가** **운** **대** **를** **흘** **러** **간** **다**. ㉢ **구** **운** **고** **기** **와** **신** **선** **한** **생** **선** **회** **로** **술** **잔** **을** **들** **어** **주** **고** **받** **다** **가** **해** **가** **지** **고** **달** **이** **떠** **오** **르** **며** **바** **람** **은** **잔** **잔** **하** **고** **물** **결** **이** **고** **요** **한** **때** **에** **는** **배** **에** **기** **대** **어** **길** **게** **휘** **파** **람**을 **불** **며**, **뿔** **대** **를** **치** **고** **큰** **소** **리** **로** **노** **래** **를** **부** **른** **다**. ㉣ **흰** **물** **결** **을** **일** **으** **키** **고** **맑** **은** **빛** **을** **헤** **치** **면**, **멀** **고** **멀** **어** **서** **마** **치** **성** **사*** **를** **타** **고** **하** **늘** **에** **오** **르** **는** **것** **같** **다**. **강** **의** **연** **기** **가** **자** **욱** **하** **고** **질** **은** **안** **개** **가** **내** **리** **면**, **도** **롱** **이** **와** **샷** **갓** **을** **걸** **치** **고** **그** **물** **을** **걸** **어** **올** **리** **면** **금** **빛** **같** **은** **비** **늘** **과** **옥** **같** **이** **흰** **꼬** **리** **의** **물** **고** **기** **가** **제** **멋** **대** **로** **펼** **떡** **겨** **리** **며** **뛰** **는** **모** **습** **은** ㉤ **넉** **넉** **히** **눈** **을** **즐** **겉** **게** **하** **고** **마** **음** **을** **기** **쁘** **게** **하** **다**. **밤** **이** **깊** **어** **구** **름** **은** **어** **둑** **고** **하** **늘** **이** **감** **감** **하** **면** **사** **방** **은** **아** **득** **하** **기** **만** **하** **다**. **어** **촌** **의** **등** **불** **은** **가** **물** **거** **리** **는** **데** **배** **의** **지** **붕** **에** **밧** **소** **리** **는** **울** **어** **느** **리** **다** **가** **빠** **르** **다** **가** **우** **수** **수** **하** **는** **소** **리** **가** **차** **갑** **고** **도** **슬** **프** **다**. …(중략)… **여** **름** **날** **뜨** **겨** **운** **햇** **빛** **에** **더** **위** **가** **쏟** **아** **질** **적** **엔** **버** **드** **나무** **늘** **어** **진** **남** **시** **터** **에** **미** **풍** **이** **불** **고**, **겨** **울** **하** **늘** **에** **눈** **이** **날** **릴** **때** **면** **차** **가** **운** **강** **물** **에** **서** **홀** **로** **남** **시** **를** **드** **리** **운** **다**. **사** **계** **절** **이** **차** **레** **로** **바** **뀌** **건** **만** **어** **부** **의** **즐** **거** **움** **은** **없** **는** **때** **가** **없** **다**.

저 영달에 얽매어 벼슬하는 자는 구차하게 **영화**에 매달리지만 나는 만나는 대로 편안하다. 빈궁하여 고기잡이를 하는 자는 구차하게 **이익**을 계산하지만 나는 스스로 유유자적(유유자적)을 즐긴다. 성공과 실패는 운명에 맡기고, 진퇴도 오직 때를 따를 뿐이다. 부귀 보기를 뜯구름과 같이 하고 공명을 헌신짝 벗어 버리듯 하여, 스스로 세상의 물욕 밖에서 방랑하는 것이니, 어찌 시세에 영합하여 이름을 남기려 하고, 벼슬길에 빠져들어 생명을 가볍게 여기며 이익만 취하다가 스스로 함정에 빠지는 자와 같겠는가. ㉠ **이것이** **내가** **몸** **은** **벼** **슬** **을** **하** **면** **서** **도** **뜻** **은** **강** **호** **에** **두** **어** **매** **양** **노** **래** **에** **의** **탁** **하** **는** **것** **이** **니**, **그** **대** **는** **어** **떻** **게** **생** **각** **하** **는** **가**?” 하니 내가 듣고 **즐거워** **하며** **그** **대** **로** **기** **록** **하** **여** **백** **공** **에** **게** **보** **내** **고**, 또한 나 자신도 살피고자 한다. 을축년 7월 어느 날.

- 권근, 「어촌기」 -

* 성사: 옛날 장군이 타고 하늘에 다녀왔다고 하는 배.

21.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에는 전원에서의 생활상이, ㉡에는 자연과 동화되는 삶이 나타난다.
- ② ㉢에는 한가로운 자연 속 흥취가, ㉣에는 고독을 해소하려는 의지가 나타난다.
- ③ ㉡에는 자연현상에서 연상된 그리움의 대상이, ㉢에는 배의 움직임에 따른 청아한 풍경이 나타난다.
- ④ ㉡에는 운치 있는 풍류의 상황이, ㉢에는 자연에서 누리는 흥겨운 삶의 모습이 나타난다.
- ⑤ ㉡에는 변화하는 자연에서 얻는 즐거움이, ㉢에는 생동감 넘치는 자연에서 느끼는 만족감이 나타난다.

22. <보기>를 바탕으로 [A]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17세기 가사 「월선헌십육경가」는 월선헌 주변의 16경관을 그린 작품으로 자연에서의 유유자적한 삶을 읊으면서도 현실적 생활 공간으로서의 전원에 새롭게 관심을 두었다. 그에 따라 생활 현장에서 볼 수 있는 풍요로운 결실, 여유로운 놀이 장면, 그리고 생업의 현장에서 느끼는 정서 등을 다양한 표현 방법을 통해 현장감 있게 노래했다.

- ① 전원생활에서 목격한 풍요로운 결실을 ‘만경 황운’에 비유해 드러냈군.
- ② 전원생활 가운데 느끼는 여유를 ‘내노리 흐자스라’와 같은 청유형 표현을 통해 드러냈군.
- ③ 전원생활의 풍족함을 여문 ‘블근 계’와 살진 ‘놀은 돛’과 같이 색채 이미지에 담아 드러냈군.
- ④ 전원생활에서의 현장감을 ‘밤불이 불가지니’와 ‘아적물이 미러오니’와 같은 묘사를 활용해 드러냈군.
- ⑤ 전원생활의 여유를 즐기면서도 생업의 현장에서 느끼는 고단함을 ‘생리라 괴로오랴’와 같은 설의적인 표현으로 드러냈군.

23. (나)의 ‘공백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간에 따른 공간의 다채로운 모습을 제시하며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상대의 말과 행동이 불일치함을 언급하여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고 있다.
- ③ 상대에 대해 심리적 거리감을 느껴 자신의 생각 표현을 자제하고 있다.
- ④ 질문에 답변하며 현실에 대처하는 자신의 태도를 밝히고 있다.
- ⑤ 대상과 관련된 행위를 열거하며 자신의 무력감을 깨닫고 있다.

24.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어촌기」의 작가는 벗의 말을 인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작가는 벗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근거를 벗과의 관계와 그의 성품에 대한 평을 통해 마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작가는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방향성과 가치관을 드러내며 벗의 생각에 공감하고 있다.

- ① 벗이 ‘영화’와 ‘이익’을 중시하는 삶을 거부한다는 것을 통해 벗의 가치관을 알 수 있군.
- ② 작가가 벗의 말을 ‘즐거워하며’ 자신도 살피려 하는 것을 통해 작가는 벗의 생각에 공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③ 작가가 벗을 ‘아우’로 삼고 있다는 것을 통해 벗이 추구하는 삶의 자세가 작가로부터 전해 받은 것임을 알 수 있군.
- ④ 벗이 ‘강태공’과 ‘엄자릉’을 들어 ‘내가 감히’라는 말을 언급한 것을 통해 그들의 삶에 미치지 못함을 스스로 인정하는 벗의 겸손한 성품을 알 수 있군.
- ⑤ 작가가 벗이 ‘대과에 급제’하여 기대를 받고 있는데도 ‘마음이 사욕이 없다’고 평한 것을 통해 벗의 말이 기록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김을 알 수 있군.

25. ㉠과 ㉡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내가 ‘강호’에서의 은거를 긍정하지만 정치 현실에 미련이 있음’, ㉡는 ‘공백공’이 정치 현실에 몸담고 있지만 ‘강호’에 은거하려는 지향을 나타낸다.
- ② ㉠은 ‘내가 ‘강호’에서의 은거를 마치고 정치 현실로 복귀하려는 의지를’, ㉡는 ‘공백공’이 정치 현실에서 신뢰를 잃어 ‘강호’에 은거하려는 소망을 나타낸다.
- ③ ㉠은 ‘내가 ‘강호’에서 경치를 완상하며 정치 현실의 번뇌를 해소하려는 자세를’, ㉡는 ‘공백공’이 정치 현실과 갈등하여 ‘강호’에 은거하려는 자세를 나타낸다.
- ④ ㉠은 ‘내가 ‘강호’에서 늙어감에 체념하면서도 정치 현실을 지향함’, ㉡는 ‘공백공’이 정치 현실을 외면하면서 ‘강호’에 은거하려는 염원을 나타낸다.
- ⑤ ㉠은 ‘내가 ‘강호’에서 임금께 맹세하며 정치 현실의 이상을 실현하려는 태도를’, ㉡는 ‘공백공’이 정치 현실의 폐단에 실망하며 ‘강호’에 은거하려는 희망을 나타낸다.

[30~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20.11

한 평도 채 안 되는 구멍가게는 증풍으로 쓰러져 정상적 건강 상태가 아니었던 아버지의 유일한 수입원이자 **생존 이유**였다. 때문에 ㉠ 그 구멍가게에 대한 아버지의 몰두와 자존심은 각별했다.

한번은 내가 아버지가 가게를 잠깐 비운 사이에 곁에 허연 인공 설탕 가루를 묻힌 ‘미키대장군’이라는 **캐러멜**을 하나 아무 생각 없이 널름 집어먹은 적이 있었다. 하나에 이 원, 다섯 개에 십 원이었다. 잠시 뒤에 돌아온 아버지는 단박에 그 사실을 알아 채고는 불같이 화를 내며 내 목덜미에 당수를 한 대 세게 내려 쫓는 것이었다. 그 캐러멜 갑 안에 미키대장군이 몇 개 들어 있는지도 차 훤히 꿰차고 있는 아버지였다.

—이런 민한 중간나라! 양생이처럼 기러케 쏠라닥질을 허자면 이 가게 안에 뭐이가 하나 제대로 남아나겠니, 응?

그리고 나서는 좀 머쓱했는지 입이 한 발췌 튀어나와 뽀로통 해서 서 있는 내게 미키대장군 네 개를 집어 내미는 거였다. 어차피 짝이 맞아야 파니까니, 하면서 억지로 내 손아귀에 쥐어 주었다. ㉡ 나는 그 무허가 불량 식품인 캐러멜 네 개가 끈끈하게 녹아내릴 때까지 먹지 않고 쥌 채 서 있었다.

— 널름 털어 놓지 못하겠니, 으잉?

목덜미에 아버지의 가벼운 당수를 한 대 더 얹은 다음에야 한입에 털어 넣고 돌아서 나왔다. 아버지도 가게 일을 수월하게 보려면 잔심부름꾼인 나를 무시하고는 아쉬울 때가 많을 터였다. 워낙 짧은 밀천으로 가게를 꾸려 가자니 아버지는 물건 구색을 맞추느라 하루에도 많을 때는 세 번까지 시장통 도매상으로 정부미 포대를 거머쥐고 종종걸음을 쳐야 했고, 막내인 나는 번번이 아버지의 뒤로 **팔을 늘어뜨린 채** 졸졸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땠 그제 죽도록 싫었다. 하마 **시장통**에서 야구 글러브를 끼거나 조립용 신형 무기 장난감 상자를 든 **반 친구**를 만나거나, 심지어 과외나 주산 학원을 가는 여자 아이들을 만나는 날에는 정말 그 자리에서 허를 빼물고 죽고 싶은 생각뿐이었다.

(중략)

어느 날이었다. 아버지와 나는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면서 그 정부미 자루를 날라 왔다. 그런데 집에 도착해 한숨을 돌린 뒤 자루를 풀고 물건을 정리해 보니 스무 병이 와야 할 소주가 두 병이 모자란 채 열여덟 병만 온 것이었다.

㉢ 아버지의 얼굴은 맞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금세 하얗게 질렸다. 왜냐하면 그 덜 온 두 병을 빼고 나면 나머지 것들을 몽땅 팔아 봤자 결국 본전치기일 뿐이었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내 등을 때밀어 물건을 받아 온 수도상회의 흑부리 영감한테 내려보냈다. 아버지는 말주변도 말주변이었지만 **증풍 후유증** 때문에 약간의 **언어 장애**가 있어 일부러 나를 보냈던 것이다.

— 뭐 하러 왔네?

가게 안에 북적거리는 손님들에게 썸을 치러 주느라 몇 번이고 주판알을 고르는 데 바쁜 흑부리 영감의 눈길을 잡아 두는 데 성공한 나는 더듬더듬 자초지종을 말했다. 그러나 컷등에 연필을 꽂은 채 심술이 덕지덕지 모여 이뤄진 듯한 왼쪽 이마뺨의 눈갈 사탕만 한 흑을 어루만지며 듣던 ㉣ 흑부리 영감은 풍기 때문에

왼쪽으로 힐끗 돌아간 두터운 입술을 떠들쳐 굵은 침방울을 내 얼굴에 마구 튀겼다. 애초 자기 눈앞에서 까 보이지 않은 것은 인정할 수 없다며 막무가내였다. 나중엔 아버지까지 함께 내려 가서 하소연을 해 봤지만 돌아온 대답은 정 그렇게 우기면 거래를 끊겠다는 협박성 경고뿐이었다. 거래가 끊긴다면 아버지한테는 큰 타격이 아닐 수 없었다.

흑부리 영감은 아버지한테 무슨 큰 특혜를 내려 주듯이 거래를 터 준다고 허락을 놓았었다. 같은 함경도 동향이기 때문이라는 말을 덧붙이면서. 하긴 흑부리 영감한테는 매번 소주 열 병 안짜 에다 새우깡 열 봉지, 껌 대여섯 개, 빵 예닐곱 개 등 일반 소매 가격 구매자보다 더 많은 물건을 떼어 가지도 않으면서 부득부득 도매통으로 해 달라고 통사정을 해 쌓는 아버지 같은 사람 하나쯤 **거래를 끊어도** 장부상 거의 표가 나지 않을 것이었다.

결국 아버지는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 당신의 자그마한 구멍가게로 돌아와 나머지 열여덟 병의 소주를 닛 나간 사람처럼 쓰다듬던 아버지는 기어코 아들인 내 앞에서 눈물을 보이고 말았다. 아! 아버지…….

- 김소진, 「자전거 도둑」 -

30.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흑부리 영감의 위협적인 경고 때문에, 아버지는 흑부리 영감의 주장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 ② 아버지는 소주 두 병을 덜 받아 왔기 때문에 곤란했지만, ‘나’에게 당황한 내색을 하지 않았다.
- ③ 아버지는 ‘나’의 잘못을 묵인했지만, 흑부리 영감과 의 잘못된 거래는 바로잡으려 노력했다.
- ④ 흑부리 영감이 가게 일로 바빴지만, ‘나’의 자초지종을 듣고 마지못해 ‘나’의 염려를 덜어주었다.
- ⑤ 아버지는 ‘나’의 도움이 필요했기에, 친구들의 시선을 의식하여 우울해 하는 ‘나’를 기분 좋게 하려 노력했다.

31. 밑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한 평도 채 안 되는 구멍가게’를 각별한 애정으로 운영하던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나’에게 아버지의 ‘생존 이유’를 짐작하게 했겠어.
- ② ‘캐러멜’을 먹었다고 화를 냈다가 남은 ‘캐러멜’을 ‘나’의 손에 쥐어 준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나’에게 아버지가 속마음을 드러내는 데 서툰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했겠어.
- ③ ‘팔을 늘어뜨린 채’ 아버지를 따르던 ‘나’가 ‘시장통’에서 ‘반 친구’를 만났던 경험은, ‘나’에게 궁핍으로 인한 내면의 상처로 남은 기억이겠어.
- ④ ‘중풍 후유증’ 때문에 ‘언어 장애’가 있는 아버지 대신 흑부리 영감을 상대하게 된 경험은, ‘나’에게 어린 나이에 이해타산적인 어른들의 세계를 느끼게 한 기억이겠어.
- ⑤ ‘거래를 끊어도’ 표가 나지 않을 사람이었던 아버지와 거래를 끊지 않은 흑부리 영감에 대한 기억은, ‘나’에게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간의 유대감을 느끼게 했겠어.

32. <보기>를 참고할 때, ㉠~㉥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이 소설의 서술자인 성인 ‘나’는 주로 세 가지 서술 방식을 활용한다. 첫째는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내면 심리나 사건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 경우 독자는 서술자의 해석을 통해 사건을 이해하게 된다. 둘째는 서술자가 인물의 외양이나 행위만을 묘사하는 것이다. 이 경우 독자는 그 묘사가 갖는 의미를 스스로 해석해야 한다. 셋째는 서술자가 유년 ‘나’로 시선을 제한하여 유년 ‘나’의 눈에 보이는 다른 인물의 외양이나 행위를 묘사하는 것이다. 이 경우 독자는 사건의 현장을 직접 보는 듯한 느낌을 가질 수 있으며, 둘째 방식에서처럼 그 묘사에 대해 해석해야 한다. 셋째 방식에 유년 ‘나’의 심리가 함께 서술되면 독자는 인물의 심리에 쉽게 공감하게 된다.

- ① ㉠: 서술자가 아버지의 내면을 설명하여 독자는 서술자의 해석을 통해 상황을 이해하겠군.
- ② ㉡: 서술자가 유년 ‘나’의 행위를 묘사하여 독자는 그 행위가 갖는 의미를 스스로 해석하겠군.
- ③ ㉢: 유년 ‘나’로 시선을 제한하여 아버지의 내면이 직접적으로 서술되지 않았다고 생각한 독자라면 아버지의 내면을 스스로 해석하겠군.
- ④ ㉣: 유년 ‘나’로 시선을 제한하여 흑부리 영감의 모습과 행동을 묘사했다고 생각한 독자라면 장면을 직접 보는 듯한 느낌을 받겠군.
- ⑤ ㉤: 유년 ‘나’로 시선을 제한하여 아버지의 행위와 표정을 묘사하면서 유년 ‘나’의 심리를 함께 제시하여 독자는 그 심리에 공감하겠군.

[33~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20.11

〔앞부분의 줄거리〕 아들 유세기가 부모의 허락 없이 백공과 혼사를 결정했다고 여긴 선생은 유세기를 집에서 내쫓는다.

백공이 왈,

“혼인은 좋은 일이라 서로 헤아려 잘 생각할 것이니 어찌 **이같이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가? 내가 한림의 재모를 아껴 이같이 기별해 사위를 삼고자 하였더니 선생 형제는 도학 군자라 예가 아닌 것을 문책하시는데도. 내가 마땅히 곡절을 말하리라.”

이에 백공이 유씨 집안에 이르러 선생 형제를 보고 인사를 하고 나서 혼쾌히 웃으며 가로되,

“제가 두 형과 더불어 죽마고우로 절친하고 또 아드님의 특출함을 아껴 제 딸의 배필로 삼고자 하여, 어제 세기를 보고 여차여차하니 아드님이 단호하게 말하고 돌아가더이다. 제가 더욱 흠모하여 염치를 잊고 거짓말로 일을 꾸며 구혼하면서 ‘정약’이라는 글자 둘을 더했으니 이는 진실로 저의 희롱함이외다. 두 형께서 과도히 곤이듣고 아드님을 엄히 꾸짖으셨다 하니, 혼사에 도리어 훼방이 되었으므로 어찌 우습지 않으리까? 원컨대 두 형은 아드님을 용서하여 아드님이 저를 원망하게 하지 마오.”

선생과 승상이 바야흐로 아들의 죄가 없는 줄을 알고 기뻐하면서 사례하여 왈,

“저희 자식이 분에 넘치게 공의 극진한 대우를 받으니 마땅히 그 후의를 받들 만하되, 이는 선조로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가법이 아니기에 감히 채취를 허락하지 못하였소이다. 저희 자식이 방자함이 있나 통탄하였더니 그간 곡절이 이렇듯 있었소이다.”

백공이 화답하고 이윽고 돌아가서 다시 혼사말을 이르지 못하고 딸을 다른 데로 시집보냈다. 선생이 백공을 돌려보낸 후에 한림을 불러 앞으로 더욱 행실을 닦을 것을 훈계하자 한림이 절을 하면서 명령을 받들었다. 차후 더욱 예를 삼가고 배우기를 힘써 학문과 도덕이 날로 숙연하고, 소 소저와 더불어 백수해로 하면서 여덟 아들, 두 딸을 두고, 집안에 한 명의 첩도 없이 부부 인생 희로를 요동함이 없더라.

승상의 둘째 아들 세형의 자는 문희이니, 형제 중 가장 빼어났으니 산천의 정기와 일월의 조화를 타고 태어나 아름다운 얼굴은 운택한 옥과 빛나는 봄꽃 같고, 호탕하고 깨끗한 풍채는 용과 호랑이의 기상이 있으며, 성품이 호기롭고 의협심이 강하여 맑고 더러움의 분별을 조금도 잃지 않으니, 부모가 매우 사랑하여 머느리를 널리 구하더라.

(중략)

화설, 장 씨 ㉠이화정에 돌아와 긴 단장을 벗고 난간에 기대어 하늘가를 바라보며 평생 살아갈 계획을 골똘히 헤아리자, 한이 눈썹에 맺히고 슬픔이 마음속에 가득하여 생각하되,

‘내가 재상가의 귀한 몸으로 유생과 백년가약을 맺었으니 마음이 흡족하고 뜻이 즐거울 것이거늘, 천자의 귀함으로 한 부마를 뽑는데 어찌 구태여 나의 아름다운 낭군을 빼앗

아가 위세로써 나로 하여금 공주 저 사람의 아래가 되게 하셨는가? 도리어 저 사람의 덕을 찬송하고 은혜를 읊어 한없는 영광은 남에게 돌려보내고 구차한 자취는 내 일신에 모이게 되었도다. 우주 사이는 우러러 바라보거나 하려니와 나와 공주의 현격함은 하늘과 땅 같도다. 나의 재주와 용모가 저 사람보다 떨어지는 것이 없고 먼저 혼인 예물까지 받았는데 이처럼 남의 천대를 감심할 줄 어찌 알리오? 공주가 덕을 베풀수록 나의 몸엔 빛이 나지 않으리니 제 짐짓 능활하여 아버지, 어머니나 시누이를 제 편으로 끌어들이었다면 낭군의 마음은 이를 좇아 완전히 달라질지라. 슬프다, 나의 앞날은 어이 될고?’

[A]

생각이 이에 미치지 북받쳐 오르는 한이 마음 속에 가득 쌓이기 시작하니 어찌 좋은 뜻이 나리오? 정히 눈물을 머금고 마음을 붙일 곳 없어하더니, 문득 세형이 보라색 두건과 녹색 도포를 가볍게 나부끼며 이르러 장 씨의 참담한 안색을 보고 옥수를 잡고 어깨를 비스듬히 기대게 하며 물어 왈,

“그대 무슨 일로 슬픈 빛이 있나뇨? 나를 좇음을 원망하는가?” 장 씨가 잠시 동안 탄식 왈,

“낭군은 부질없는 말씀 마옵소서. 제가 낭군을 좇는 것을 원망했다면 어찌 깊은 규방에서 홀로 늙는 것을 감심하였사오리까? 다만 제가 귀택에 들어온 지 오륙일이 지났으나 좌우에 친한 사람이 없고 오직 우러르는 바는 아버지, 어머니와 낭군뿐이라 어린 여자의 마음이 편안하지 못한 바이옵니다. 공주가 위에 계셔 온 집의 권세를 오로지 하시니 그 위와 덕택이 저로 하여금 변변찮은 재주 가진 하졸이 머릿수나 채워 우물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것 같게 만드옵니다. 제가 감히 항거할 뜻이 있는 것이 아니나 평생의 신체가 구차하여 슬프고, 진양궁에 나아가면 궁비와 시녀들이 다 저를 손가락질하며 비웃어 한 가지 일도 자유롭게 하지 못하게 하옵고, 제 입에서 말이 나면 일천여 시녀가 다 제 입을 가리니, 공주의 은덕에 의지하여 겨우 실례를 면하고 돌아왔사옵니다.”

[B]

부마가 바야흐로 장씨의 외로움을 가련하게 여기고 공주의 위세가 장 씨를 억누르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고 있다가 장 씨의 이렇듯 애원한 모습을 보자 크게 불쾌하여 장 씨를 위한 애정이 샘솟는 듯하였다. 은근하고 간곡하게 장 씨를 위로하고 그 절개와 외로움에 감동하여 이날부터 발자취가 ㉠이화정을 떠나지 않았다. 연리지와 같은 신흠의 정은 양왕의 꿈에 빠진 듯 어지럽고, 낙천의 마음이 취한 듯 기쁘고 즐거워 바라던 바를 다 얻은 듯한 마음은 세상에 비할 데가 없더라.

- 작자 미상, 「유씨삼대록」 -

33. 이같이 좋지 않은 일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백공의 거짓말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 ② 백공이 한림을 곤경에 처하게 한 일이다.
- ③ 선생과 승상 사이에서 의견 대립이 심화된 일이다.
- ④ 한림이 선생과 승상으로부터 꾸짖람을 당한 일이다.
- ⑤ 백공이 한림을 자신의 딸과 혼인시키려다 일어난 일이다.

34.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와 [B]는 모두 과거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② [A]와 [B]는 모두 비유적 진술을 통해 자신이 처한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 ③ [A]는 [B]와 달리 타인에 대한 자신의 원망을 의문형 표현을 활용하여 드러내고 있다.
- ④ [B]는 [A]와 달리 대화 상대의 환심을 사기 위해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드러내고 있다.
- ⑤ [A]는 앞으로의 일을 추정하는, [B]는 지난 일을 토로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우려를 제시하고 있다.

35. '장 씨'를 중심으로 ㉠과 ㉡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학문을 연마하는 공간이고, ㉡은 덕행을 닦는 공간이다.
- ② ㉠은 불신을 드러내는 공간이고, ㉡은 조소를 당하는 공간이다.
- ③ ㉠은 한탄을 드러내는 공간이고, ㉡은 애정을 확인하는 공간이다.
- ④ ㉠은 계획을 꾸미는 공간이고, ㉡은 외로움을 인내하는 공간이다.
- ⑤ ㉠은 선후 시비를 따지는 공간이고, ㉡은 오해를 해소하는 공간이다.

36.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유씨삼대록」은 유씨 3대 인물들의 이야기들을 연결한 국문 장편 가문 소설이다. 각 이야기는 그 자체로 완결성을 갖추고 있어 독립적이지만, 혼사나 그로부터 파생된 각각의 갈등이 동일한 가문 내에서 전개된다는 점에서 연결된다. 이러한 갈등은 가법이나 인물의 성격에서 유발된다. 가문의 구성원들은 혼사를 둘러싼 갈등이 가문의 안정과 번영을 저해한다고 여겼기에, 가문 차원에서 이를 해결해 간다.

- ① 유세기 이야기와 유세형 이야기를 보니, 각각의 갈등이 한 가문의 혼사를 중심으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두 이야기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군.
- ② 유세기의 혼사 문제에 선생과 승상이 관여한 것을 보니, 혼사를 둘러싼 갈등 해결이 가문 구성원들의 문제로 다루어짐을 알 수 있군.
- ③ 유세기가 혼사와 관련한 곤욕을 치른 것과 유세형이 공주를 멀리한 것을 보니, 가법과 인물의 성격 간의 대립이 갈등의 원인임을 알 수 있군.
- ④ 백공이 유세기를 사위 삼으려는 것과 친자가 유세형을 부마 삼은 것을 보니, 혼사가 혼인 당사자 개인의 문제에 그치지 않음을 알 수 있군.
- ⑤ 유세기가 평생 첩을 두지 않고 소 소저와 해로했다는 것을 보니, 유세기를 둘러싼 혼사 갈등이 해소되며 이야기 하나가 마무리됨을 알 수 있군.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20.11

(가)

바람이 어디로부터 불어와
어디로 불려 가는 것일까,

㉠ 바람이 부는데
내 괴로움에는 이유가 없다.

내 괴로움에는 이유가 없을까,

단 한 여자를 사랑한 일도 없다.
시대를 슬퍼한 일도 없다.

㉡ 바람이 자꾸 부는데
내 발이 반석 위에 섰다.

강물이 자꾸 흐르는데
내 발이 언덕 위에 섰다.

- 윤동주, 「바람이 불어」 -

(나)

새는 새장 밖으로 나가지 못한다.
매번 머리를 부딪치고 날개를 상하고 나야 보이는,
창살 사이의 간격보다 큰, 뭉뚱어리.
하늘과 산이 보이고 ㉢ 울음 실은 공기가 자유로이 드나드는
그러나 살랑거리며 날개를 굳게 다리에 매달아 놓는,
그 적당한 간격은 슬프다.
그 창살의 간격보다 넓은 몸은 슬프다.
넓게, 힘차게 뻗을 날개가 있고
㉣ 날개를 힘껏 떠받쳐 줄 공기가 있지만
새는 다만 네 발 달린 짐승처럼 걷는다.
부지런히 걸어 다리가 굽어지고 튼튼해져서
닭처럼 날개가 귀찮아질 때까지 걷는다.
새장 문을 활짝 열어 놓아도 날지 않고
닭처럼 모이를 향해 달려갈 수 있을 때까지 걷는다.
㉤ 걸으면서, 가끔, 창살 사이를 채우고 있는 바람을
부리로 쪼아 본다, 아직도 벽이 아니고
공기라는 걸 증명하려는 듯.
우리보다도 더 환하고 선명하게 전망이 보이고
울음 소리 숨내음 자유롭게 움직이도록 고안된 공기,
그 최첨단 신소재의 부드러운 질감을 음미하려는 듯.

- 김기택, 「새」 -

43. (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불려 가는’이라는 피동 표현을 통해 자신이 처한 현실에 순응하려는 화자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 ② ‘이유가 없을까’라는 물음의 형식으로 화자의 정신적 고통에 타당한 이유가 없음을 단정하고 있다.
- ③ ‘사랑한 일’과 ‘슬퍼한 일’을 병치하여 화자의 개인적 불행이 시대에 대한 무관심의 원인임을 암시하고 있다.
- ④ ‘없다’의 반복을 활용하여 자신의 삶과 내면을 응시하는 화자의 반성적 자세를 드러내고 있다.
- ⑤ ‘흐르는데’와 ‘섰다’의 대비를 통해 변함없는 자연에서 깨달음을 얻으려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44. 다음에 제시된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공기와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물의 움직임을 통해 지각되고, 계속 움직이며 대상에 영향을 주는 힘으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이런 속성이 시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아봅시다.

- ① ㉠에서는 움직임이라는 ‘바람’의 속성을 ‘괴로움’이라는 내면의 흔들림을 지각하는 계기로 활용하고 있다.
- ② ㉡에서는 끊임없이 움직이는 ‘바람’의 속성을 활용해 ‘내 발’을 ‘반석 위’로 이끄는 힘을 보여 주고 있다.
- ③ ㉢에서는 자유롭게 창살 사이를 이동하는 ‘공기’의 속성을 ‘새’가 처한 상황을 부각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 ④ ㉣에서는 ‘날개’를 ‘힘껏’ 떠받치는 ‘공기’의 속성을 활용해 ‘새’의 ‘날개’가 ‘공기’의 힘을 이용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 ⑤ ㉤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바람’의 속성을 활용해 ‘창살 사이’의 빈 공간을 쪼는 ‘새’의 동작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45. <보기>를 바탕으로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새」에서 ‘새장에 갇힌 새’는 일상의 안온함에 길들어 자유를 억압하는 일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현대인의 알레고리이다. ‘새’의 행동에 대한 묘사는 일상에 충실할수록 잠재된 힘과 본질을 잃어 가는 아이러니와, 일상에 만족하며 자유로운 삶의 가능성을 외면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 준다.

- ① 몸이 창살에 부딪치고 나서야 창살의 간격이 보이는 새는, 일상에 갇힌 자신을 의식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 주는군.
- ② 바깥 풍경이 보일 정도로 적당한 간격의 창살로 된 새장은, 안온함과 억압성이라는 양가성을 지닌 일상을 보여 주는군.
- ③ 닭처럼 날개가 귀찮아질 때까지 부지런히 걷는 새는, 성실한 생활이 잠재력의 상실로 이어지는 아이러니를 보여 주는군.
- ④ 새장 문이 열려도 날지 않고 모이를 향해 달려갈 수 있을 때까지 걷는 새는, 자신의 본질에 충실하다 보니 오히려 자유를 상실하게 되는 상황을 보여 주는군.
- ⑤ 하늘을 자유롭게 날도록 날개를 밀어 올리는 공기를 음미할 대상으로만 여기는 듯한 새는, 자유로운 삶의 가능성을 외면하고 일상에 안주하려는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 주는군.

[16~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20.09

(가)

① 홍진(紅塵)에 못친 분네 이 내 생애 엇더흔고
 넷사름 풍류를 미출가 못 미출가
 천지간 남자 몸이 날만 혼 이 하건마는
 산림에 못쳐 이셔 지락(至樂)을 므를 것가
 ㉠ 수간모옥(數間茅屋)을 벽계수(碧溪水) 얹피 두고
 송죽 울울리*에 풍월주인 되여셔라
 엇그제 겨울 지나 새봄이 도라오니
 도화행화(桃花杏花)는 석양리(夕陽裏)에 휘여 있고
 녹양방초(綠楊芳草)는 세우(細雨) 중에 프르도다
 칼로 물 아 낸가 붓으로 그려 낸가
 조화신공(造化神功)이 물물마다 현스롭다
 수풀에 우는 새는 춘기(春氣)를 못내 계워 소리마다 교태로다
 물아일체(物我一體)어니 흥이인 다름소냐
 시비에 거러 보고 ⑤ 정자에 안자 보니
 소요음영*하야 산일(山田)이 적적흔디
 한중진미(閒中眞味)를 알 니 업시 호재로다
 ① 이바 니웃드라 산수 구경 가자스라
 답청(踏靑)으란 오늘 호고 욱기(浴沂)란 내일 호새
 아춤에 채산(採山)호고 나조히 조수(釣水)호새
 꺾 괴여 닉은 술을 갈진(葛巾)으로 밧타 노코
 곳나모 가지 것거 수 노코 먹으리라
 화풍(和風)이 건듯 부러 녹수(綠水)를 건너오니
 청향(清香)은 잔에 지고 낙홍(落紅)은 옷새 진다
 ⑤ 준중(樽中)이 뷔엇거든 날드려 알외여라
 소동 아히드려 주가에 술을 물어
 얼운은 막대 집고 아히는 술을 메고
 미음완보(微吟緩步)하야 ③ 시냇그의 호자 안자
 명사(明沙) 조흔 물에 잔 시어 부어 들고
 청류(清流)를 굽어보니 씨오느니 도화(桃花) | 로다
 무릉이 갓갑도다 저 미이 권 거인고

- 정극인, 「상춘곡」 -

* 울울리: 뽕뽕하게 우거진 숲.
 * 소요음영: 자유로이 천천히 걸으며 시를 읊조림.

(나)

④ 고산구곡담(高山九曲潭)을 사름이 모로더니
 주모부거(誅茅卜居)하니 벗님니 다 오신다
 어즈버 무이를 상상호고 학주자(學朱子)를 흐리라 <1수>
 일곡은 어디미오 ⑥ 관암에 히 비친다
 평무(平蕪)에 너 거드니 원산(遠山)이 그림이로다
 송간(松間)에 녹준*을 노코 벗 오는 양 보노라 <2수>
 이곡은 어디 미 오 화암에 춘만(春晚)커다
 벽파*에 곱을 띄 워 야외로 보니 노라
 ② 사름 이 승지(勝地)를 모로니 알게 혼들 엇더리 <3수>

오곡은 어디미오 은병(隱屏)이 보기 도타
 수변(水邊) 정사는 소쇄흡*도 ㄱ이 엇다
 이 중에 강학(講學)도 흐려니와 영월음풍 흐리라 <6수>

칠곡은 어디미오 ① 풍암에 추색(秋色) 도타
 청상(淸霜) 얹게 치니 절벽이 금수(錦繡) | 로다
 한암(寒巖)에 혼즈셔 안자 집을 잇고 잇노라 <8수>

구곡은 어디미오 문산에 세모(歲暮)커다
 기암괴석이 눈 속에 무쳐세라
 ㉡ 유인(遊人)은 오지 아니호고 볼 것 엇다 흐더라 <10수>
 - 이이, 「고산구곡가」 -

* 녹준: 술잔 또는 술동이.
 * 벽파: 푸른 물결.
 * 소쇄흡: 기운이 맑고 깨끗함.

16.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거를 회상하며 현실의 덧없음을 환기하고 있다.
- ② 음성 상징어의 사용으로 생동감을 부각하고 있다.
- ③ 점층적인 표현으로 대상과의 거리감을 강조하고 있다.
- ④ 역사적 인물들을 호명하여 회고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⑤ 자연물을 통하여 시간적 배경을 시각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17. <보기>를 참고하여 ㉠~㉡을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조선 전기의 시조와 가사는 노래로 향유되며, 사대부들이 서로의 문화적 동질성을 확인하는 데 활용되었다. 이러한 갈래적 특성으로 인해 사대부 시가에는 대화 상황이 연상되는 여러 표현으로 공감을 유도하는 방식이 관습화되었다.

- ① ㉠에서는 청자와 화자가 서로 동질적인 삶을 살고 있음을 질문하기를 통해 확인하고 있다.
- ② ㉡에서는 청자를 불러들여 함께했던 지난날의 경험을 상기시키며 동질성 회복을 권유하고 있다.
- ③ ㉠에서는 화자가 상대의 부탁을 수용하며 자신과 뜻을 같이 할 것을 청자에게 명령하고 있다.
- ④ ㉡에서는 사람들을 일깨우려는 화자의 생각을 청자에게 묻는 방식으로 제시해 공감을 유도하고 있다.
- ⑤ ㉠에서는 눈으로 확인한 사실만을 믿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의 말을 청자에게 전하며 조언을 구하고 있다.

18. (가)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자신의 삶을 옛사람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풍월주인이라 여기는 데에서 화자의 자부심이 드러나는군.
- ② 붓으로 그린 듯한 숲 속에서 봄의 흥을 노래하는 새를 바라보는 데에서 새에 대한 화자의 부러움이 드러나는군.
- ③ 오늘과 내일, 아침과 저녁에 할 일들을 나열하는 데에서 하고 싶은 일에 대한 화자의 기대감이 드러나는군.
- ④ 맑은 향이 담긴 술잔과 옷에 떨어지는 꽃잎을 주목하는 데에서 자연과 화자의 일체감이 드러나는군.
- ⑤ 시냇물에 떠내려오는 도화를 보며 이상향을 연상하는 데에서 화자의 고조되는 감흥이 드러나는군.

19. ㉠~㉦를 중심으로 (가)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의 화자는 거처인 ㉠를 나와 ㉡와 ㉢의 장소들로 옮겨 다니고 있다.
- ② (나)의 화자가 소개하는 ㉣와 ㉤는 ㉥를 구성하는 장소들이라는 점에서 서로 대등한 관계에 있다.
- ③ (가)와 (나)의 화자는 각각 ㉡와 ㉢를 주위에서 가장 빼어난 경치를 볼 수 있는 곳이라고 예찬하고 있다.
- ④ (가)의 화자는 ㉠에 인접한 맑은 풍경을, (나)의 화자는 자신이 ㉠에 터를 정함으로써 생긴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 ⑤ (가)의 화자는 ㉣에서 주변으로 시선을 보내고 있고, (나)의 화자는 ㉦를 향해 시선을 보내고 있다.

20. <보기>를 활용하여 (나)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이이의 생애를 기록한 연보에는, 그가 고산구곡에 정사를 건립한 일이 주자가 무이구곡의 은병에서 후학을 양성한 것을 본받았다는 점과 「고산구곡기」의 창작 이후 이곳을 찾는 이들이 더 많아졌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한편 그가 고산구곡의 곳곳에서 지인들과 교유한 경험을 소개한 「송애기」에는 욕심 없는 마음으로 자연과 인간이 별개가 아님을 느끼고, 자연으로부터 마음을 바르게 하는 도리를 찾으려 군자의 참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는 그의 생각이 나타나 있다.

- ① 고산구곡에서의 생활에 대한 「송애기」의 기록을 참고할 때, 고산구곡이 작자와 '벗님'들의 교유 장소로도 활용되었음을 추리할 수 있겠군.
- ② 작품 창작 이후와 관련한 연보의 기록을 참고할 때, '학주자'를 하려는 작자의 선택에 대한 사람들의 긍정적 반응을 추측할 수 있겠군.
- ③ 정사에 대한 연보의 기록을 참고할 때, '은병'이 주자를 학문적으로 계승하기 위해 선택된 공간이기도 했음을 짐작할 수 있겠군.
- ④ 참된 즐거움과 관련한 「송애기」의 기록을 참고할 때, '강학'과 '영월음풍'이 모순 없이 서로 어울릴 수 있는 행위임을 유추할 수 있겠군.
- ⑤ 자연의 감상에 대한 「송애기」의 기록을 참고할 때, 바위를 덮은 '눈'에서 자연과 합일을 이루려는 인간의 의지를 엿볼 수 있겠군.

[32~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20.09

‘콩알 하나 없으니 주린 처자를 어이할꼬? 어쨌든 협사촌의 서대주가 도적들과 아래위 낭청을 다니며 함께 도적하여 부유하다 하니 찾아가 얻어 보리라.’

하고 협사촌을 찾아간다. 허위허위 이 산 저 산 어정어정 걸어 가며 생각하되,

‘이놈이 본디 큰 쥐로 도적질하는 놈이니 무엇이랴 부를꼬? 쥐라 해도 좋지 않고, 서대주라 해도 좋지 않으니, 이놈 부르기 어렵구나. 어쨌든 대접함이 으뜸이라.’

길을 재촉해 협사촌을 찾아 서대주 집 문 앞에서 장끼 큰기침 두 번 하고,

“서동지 계시오?”

하며 찾으니, 이윽고 시비 쥐 나오거늘 장끼 문왈,

“이 맥이 아래위 낭청으로 다니며 관리하시는 서동지 맥이오?”

물으니 시비 답왈,

“어찌 찾으시오?”

장끼 가로되,

“잠깐 뵈오리다.”

이때 서대주 자녀의 재미 보며 아내와 함께 있더니, 시비 와서 왈,

“문전에 어떤 객이 왔도되 위풍이 현양(軒昂)*하고 빛갓 쓰고 옥관자 붙이고 여차여차 동지 님을 뵈러 왔다 하나이다.”

서대주 동지란 말을 듣더니 대희하여 외현으로 칭하고, 정주(頂珠) 탕건 모자 쓰고 평복으로 나아가 장끼를 맞아 예하고 자리를 정하니, 장끼 하는 말이,

“맥이 서동지라 하시오? 나는 양지촌 사는 화충이라고도 하고 세상에서 부르기를 장끼라고도 혹 평이라고도 하는데, 귀맥을 찾아 금일 만나니 구면처럼 반갑소이다. 한 번도 뵈 적 없으나 평안하시었소?”

서대주 맹랑하다, 탕건을 어루만지며 답왈,

“존객의 이름은 높히 들었더니 나를 먼저 찾아 누지에 와 주시니 황공 감사하오이다.”

장끼 답왈,

“서로 찾기에 선후가 있는 것 아니니 아무커나 반갑다 못하여 진저리 나노라.”

하거늘 서대주 웃으며 온갖 음식으로 대접하고 고급사를 문답하며 장끼를 조롱하며 베티더니, 장끼 콧소리를 내며 말하기를,

“서동지게 청할 말이 있노라. 내 본시 넉넉지 못해 오늘까지 먹지 못하다가 처음 청하온데 양이 이천 석만 빌려주시면 내년 가을에 갚으리니 동지 님 생각에 어떠시오?”

서대주 웃으며 하는 말이,

“속담에 ‘우마(牛馬)도 초분식(草分食)하고, 산저(山猪)도 갈분식(葛分食)이라.’ 하였거든 우리 사이에 무엇이 어려우리오?”

(중략)

장끼 감사함을 칭사하고 양지촌으로 돌아가니라. 이때 서대주 노비 쥐를 명하여 창고를 열고 이천 석 콩을 배로 옮겨 양지촌으로 보내니라.

각설. 이때 동지촌에 딱부리란 새가 있도되 주먹뵈에 흑공단 두루마기, 홍공단 끝동이며, 주둥이는 두 자나 하고 위풍이 현양한 짐승이라. 양지촌 장끼를 찾아가 오래 못 본 인사하고 하는 말이,

“자네는 어찌하여 양식이 저리 풍족하여 쌓아 두었는가?”

장끼가 협사촌 서대주를 찾아가 양식 빌린 사연을 자세히 말하니, 딱부리 놈이 고개를 끄덕이며,

“자네 마음이 녹녹지 아니하거늘 미천한 도적놈을 무엇이랴 찾았는가?”

장끼 답왈,

“나도 생각이 있으나 옛글에 ‘교만한 자는 집이 망한다.’ 했고, ‘남을 대접하면 내가 대접을 받는다.’ 했고, 내 가난하여 빌리러 갔기로 저를 대접하여 서동지라 존칭하였더니 대희하여 후대하고 종일 문답하며 여차여차하였노라.”

하거늘 딱부리 하는 말이,

“자네 일정 간사하도다. 만일 입신양면하면 충신을 험담하여 귀양 보내고 조정을 농권하며 임금을 어둡게 하리도다. 나는 그놈을 찾아가서 서대주라 하고 도적질한 말을 하면 그놈이 겁내어 만석이라도 추심(推尋)*하리라.”

장끼 답왈,

“자네 재주를 몰랐더니 오늘에야 알리도다.”

딱부리 웃으며 나와 협사촌을 찾아가, 구멍 앞에 나가서 생각은 많으나 이를 같고 “서대주, 서대주” 찾으니 이윽하여 시비 쥐 나오며 하는 말이,

“뉘 집을 찾아오시니까?”

딱부리 하는 말이,

“네 명색이 무엇이냐? 이 집이 아래위 낭청으로 다니며 도적질하는 서대주 집이냐? 나는 동지촌 사는 딱장군이니 와 계시다 일러라.”

하거늘 쥐란 놈이 꼴을 내어 대답하고 들어가 고하니, 서대주 크게 성내고 분부하는 말이,

“어떤 놈이든지 잡아들이라.”

하니 수십 명 범 같은 쥐들이 명을 듣고 딱부리를 에워싸고 결박하고 이 뺨 치고 저 뺨 치며 몰아가니 딱부리 애걸하며 비는 말이,

“내 무슨 잘못이 있다 이리하시오? 내 손주 노릇할 터이니 놓아주고 달아났다 하시오.”

한데 듣지 않고 잡아들여 서대주 앞에다 꿇리니 서대주 호령하되,

“이놈! 너는 어인 놈이기에 주인 찾을 때 근본을 해하여 찾으니 그중에 너 같은 놈은 만단을 내리라.”

하며 매우 치라 하니 딱부리 머리를 조아리고 애걸하며 빌더라.

- 작자 미상, 「장끼전」 -

* 현양: 풍채가 좋고 의기가 당당함.

* 우마도 초분식하고, 산저도 갈분식이라: 소와 말도 풀을 나눠 먹고, 산돼지도 짐을 나눠 먹는다.

* 추심: 찾아내어 가지거나 받아 냄.

32.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세밀한 외양 묘사를 통해 인물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서술자가 개입하여 인물의 행동에 대해 호감을 보이고 있다.
- ③ 속담과 옛글을 삽입하여 인물의 내적 갈등을 강조하고 있다.
- ④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인물의 초월적 능력을 부각하고 있다.
- ⑤ 공간적 배경을 자세히 묘사하여 인물의 심리 변화를 암시하고 있다.

33. '장끼'와 '딱부리'가 '서대주'를 각각 방문하는 상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서대주를 방문하기 전에, 장끼와 딱부리는 서대주의 정체에 대해 알고 있었다.
- ② 서대주를 방문하기 전에, 장끼와 딱부리는 각자의 생각에 따라 서대주를 대할 방식을 계획했다.
- ③ 서대주를 방문하여, 장끼는 시중 일관된 태도를 보였고 딱부리는 상황의 변화에 따라 자신의 태도를 바꾸었다.
- ④ 서대주의 거처를 확인하면서, 장끼는 서대주의 환심을 살 만 하게, 딱부리는 서대주의 반감을 살 만하게 표현했다.
- ⑤ 서대주를 방문하는 목적을, 장끼는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는 데에 두었고 딱부리는 도적질을 벌로 다스리고 교화하는 데 두었다.

34.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장끼전」은 '까투리'를 중심으로 남존여비와 여성의 개가 금지 같은 가부장제 사회의 문제를, '장끼'를 중심으로는 몰락 양반의 삶과 조선 후기 향촌 사회의 다양한 변화상을 형상화했다. 이 대목은 가족의 생계 문제를 걱정하는 몰락 양반의 출현과 향촌 사회에 새롭게 등장한 신흥 부호의 생활상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신흥 부호의 위세로 인해 빚어지는 신흥 부호와 몰락 양반의 갈등, 그리고 신흥 부호를 둘러싼 몰락 양반 간의 불화를 그려 내고 있다.

- ① 장끼가 양식이 떨어져 굶주리는 처자식을 위해 부유한 서대주를 찾아가 양식을 빌리는 장면에서, 가장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려는 몰락 양반의 면모를 알 수 있군.
- ② 서대주가 '시비 쥐'를 부리고 복색을 갖추어 손님을 '외현'에서 맞이하는 장면에서, 신흥 부호의 생활상을 알 수 있군.
- ③ 서대주를 대접하여 양식을 빌린 장끼에게 딱부리가 '간사하도다'라고 언급하는 장면에서, 신흥 부호에 대한 처신을 놓고 몰락 양반 간에 의견 차이가 있었음을 알 수 있군.
- ④ 서대주의 '시비 쥐'가 딱부리에게 꼴을 내는 장면에서, 몰락 양반의 경제적 곤궁함을 엿신여기는 신흥 부호의 모습을 알 수 있군.
- ⑤ 서대주가 '수십 명 범 같은 쥐들'에게 명령하여 딱부리를 결박하는 장면에서, 향촌 사회에서의 신흥 부호의 위세를 알 수 있군.

[35~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20.09

(가)

호르 호르르 호르르르 가을 아침
취어진* 청명을 마시며 거닐면
① 수풀이 호르르 벌레가 호르르르
청면은 내 머릿속 가슴속을 짚어 들어
발끝 손끝으로 새어 나가나니

온 살결 터럭 끝은 모두 눈이요 입이라
나는 수풀의 정을 알 수 있고
벌레의 예지를 알 수 있다
그리하여 나도 이 아침 청명의
가장 고읍지 못한 노래꾼이 된다

수풀과 벌레는 자고 깨인 어린애라
밤새워 빨고도 이슬은 남았다
남았거든 나를 주라
나는 이 청명에도 주리라니
방에 문을 달고 벽을 향해 숨 쉬지 않았노뇨
② 햇발이 처음 쏟아오아
청명은 갑자기 으리으리한 관을 쓴다
그때에 토록 하고 동백 한 알은 빠지나니
오! 그 빛남 그 고요함
간밤에 하늘을 쫓긴 별살의 흐름이 저러했다.

온 소리의 앞 소리요
온 빛깔의 비릇이라
③ 이 청명에 포근 취어진 내 마음
감각의 낯익은 고향을 찾았노라
평생 못 떠날 내 집을 들었노라

- 김영랑, 「청명」 -

* 취어진: 계절의 정취에 젖어 든,

(나)

뒷동산 청솔잎을 빗질해주던 바람이
무어라 무어라 하는 솔나무의 속삭임을 듣고
④ 푸른 햇살 요동치는 강변으로 달려갔다 하자.
달려가선, 거기 미루나무에게 전하니
알았다 알았다는 듯 나무는 잎새를 흔들어
강물 위에 짹짹 구슬알을 쏟아냈다 하자.
그 의중 알아챈 바람이 이젠 그 누구보단
앞들 보리밭에서 물결치듯 김을 매다
이마의 구슬땀 씻어올리는 여인에게 전하니,
여인이야 이윽고 아픈 허리를 곧게 펴곤
눈앞 가득 일어서는 마을의 정자나무를 향해
고개를 끄덕끄덕, 무언가 일별을 보냈다 하자.

⑤ 아무려면 어떤가, 산과 강과 들과 마을이
한 초록으로 질어가는 오월도 청청한 날에,
소쩍새는 또 바람결에 제 한 목청 다 실는 날에.
- 고재중, 「초록 바람의 전언」 -

35.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가정의 진술을 활용하여 현실과 이상의 거리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② (가)와 (나)는 각각 동일한 종결 어미의 반복을 활용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③ (가)와 (나)는 화자의 시선이 화자 내면에서 외부 세계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④ (가)는 여정에 따른 공간의 이동을 통해, (나)는 계절의 흐름에 따른 대상의 변화를 통해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
- ⑤ (가)는 종교적 관념에 대한 사색을 바탕으로, (나)는 일상생활에서 깨달은 바를 바탕으로 주제를 구체화하고 있다.

36.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청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산뜻한 가을 아침에 대한 화자의 인상을 표현하고 있다.
- ② ㉡은 청명한 날이 으리으리한 관을 쓴다는 비유를 활용하여 햇빛이 쏟아지는 순간의 아름다운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 ③ ㉢은 청명한 가을날에 느끼는 마음을 고향의 낯익음에 비유하여 지나가는 가을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은 역동적인 이미지를 활용하여 바람이 부는 강변의 풍경을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⑤ ㉣은 청청한 날의 정경에 대한 화자의 반응을 제시하여 시적 상황에 대한 정서를 집약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37.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자연은 시인에게 상상력의 주요한 원천이 되어 왔다. 그중 생태학적 상상력은 생태계 구성원 간의 관계에 주목한다. 생태학적 상상력은 모든 생태계 구성원을 평등한 존재로 보는 데에서 출발하여, 서로 교감·소통하며 유대감을 느끼는 관계로, 나아가 영향을 주고받는 순환의 관계로 인식한다. 생태학적 상상력을 통해 시인은 자연의 근원적 가치와,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관계를 드러내며 궁극적으로는 이들을 하나의 생태 공동체로 형상화한다.

- ① (가)에서 화자가 ‘온 살결 터럭 끝’을 ‘눈’과 ‘입’으로 삼아 자연을 대하는 것은 인간과 자연 간의 교감을, (나)에서 ‘바람’이 ‘뒤틀린 산 청솔잎을 빗질’하는 것은 자연과 자연 간의 교감을 드러내는군.
- ② (가)에서 화자가 ‘수풀의 정’과 ‘벌레의 예지’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것과 (나)에서 ‘솔나무’가 ‘무어라’ 하고 ‘미루나무’가 ‘알았다’고 하는 것은 구성원들이 서로 소통하는 조화로운 생태계의 모습을 보여 주는군.
- ③ (가)에서 화자가 ‘수풀’과 ‘벌레’의 소리를 듣고 ‘나도’ 청명함의 ‘노래꾼이 된다’고 하는 것과 (나)에서 ‘솔나무의 속삼잎’을 ‘바람’이 ‘미루나무’에게 전하고, 이를 ‘여인’도 ‘정자나무’에게 전하는 것은 자연과 인간 간의 유대감을 드러내는군.
- ④ (가)에서 화자가 ‘동백 한 알’이 떨어지는 모습에서 ‘하늘’의 ‘별살’을 떠올린 것과 (나)에서 화자가 ‘잎새’의 흔들림에서 반짝이는 ‘구슬알’을 떠올린 것은 생명의 탄생을 계기로 순환하는 생태계의 질서를 보여 주는군.
- ⑤ (가)에서 자연을 ‘온 소리의 앞 소리’와 ‘온 빛깔의 비룻’이라고 표현한 것은 근원적 존재로서의 자연의 가치를, (나)에서 ‘오월’에 ‘산’과 ‘마을’이 ‘한 초록으로 질어’ 간다고 표현한 것은 인간과 자연이 하나가 되어 가는 생태 공동체를 형상화하는군.

[42~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20.09

지옥은 차츰 선생의 그런 신념이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지옥의 이해와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무거운 **압박감**이 그를 못 견디게 짓눌러 왔다. 믿음이 논리를 초월할 수도 있다고는 했지만 그러나 논리적인 이해가 불가능한 **신념**은 맹목적인 아집에 그칠 위험성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그 자신감이 넘치고 있는 선생의 신념은 털끝만큼 한 자기 회의마저 용납을 하지 않고 있었다. 회의가 없는 신념은 맹목적인 **자기 독단**에 흐를 위험 또한 큰 것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것은 지옥이 그에게 소망해 온 어떤 **감동적인 자서전적 인물상**으로는 치명적인 결함일 수 있었다. **회의가 없는 자서전**이야말로 영락없이 한 거인의 동상에 불과할 뿐이었다. 지옥이 최상윤의 신념을 두려워한 것은 그 자신 최상윤 선생에게서와 같은 어떤 **의식의 경화** 현상을 싫어해 온 성격 이외에도, 그와 같은 위험성을 어슴푸레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 그보다도 지옥이 더더욱 그 선생의 신념을 두려워한 것은 그의 너무나도 일상불란한 언동이나 생활 방식에서 오히려 어떤 셋을 수 없는 가식의 냄새를 맡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람이 도대체 이럴 수가 있을까. 한 인간의 생애에서 이처럼이나 말끔하게 후회나 의구가 없을 수 있던 말인가. 이 칸칸하고 **결백**스런 노인에게서라도 어찌 따뜻한 아랫목과 좋은 음식에 대한 바람이 전혀 없을 수 있던 말인가. 아무리 **엄격한** 국기의 세월이었던들 그것이 어찌 감히 사람의 가장 사람다운 욕망까지를 송두리째 근멸시켜 버릴 수가 있던 말인가. 이 노인은 어찌 하여 그것을 끝끝내 시인하려 들지 않고 있는 것인가. 그것이 진실로 그의 **부끄러움**이 될 수는 없단 말인가—

(중략)

“이거 아무리 맘에 없는 옷을 팔아먹고 사는 무식쟁이라고 누구한테 지금 설교를 하려는 거야 뭐야, 건방지게. 그래 내가 지금 당신 같은 위인의 신세 하소연이나 듣자고 이런 텔 찾아 온 줄 알아? 그렇게 내가 한가한 사람으로 보이느냐 말야. 왜 내 일을 안 하겠다는 건지 그걸 말해 보라는 거야. 이유를……”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갑자기 **만발 투로** **옥박**질러 오는 피문오 씨의 어조에 지옥은 새삼 가슴이 내려앉는 표정이었으나, 이미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한 피문오 씨의 행패는 견잡을 수가 없을 지경이었다.

“그게 아니라니? 아니 이거 당신 정말 이런 식으로 날 바보 취급하고 나설 테야? 당신 눈엔 정말로 내가 그렇게 얼렁뚱땅 되잖은 소리로도 그냥 넘어갈 것 같아 보인 모양이지? 그래, 뭐가 어째? 내 일을 하지 않게 된 게 내 탓이 아니구 당신의 그 **알량한 양심** 때문이라구? 내가 그래 그 알량한 당신의 양심에 **들러리**라도 서야 한다는 거야 뭐야. 업어치나 메치나 그게 그놈 아들놈 같은 소릴 가지고, 정 내게 ㉠ **말재간을 한번 부러 보고 싶어서** 이래? 당신 눈엔 이 피문오가 그래 그만 ㉡ **말귀도 못 알아들을 바보 멍청이**로만 보이느냐 말야? 내 아까부터 참자 참자 하다 보니 이 친구 아주 형편없이 맹랑한 데가 있는 작자로구만 그래.”

피문오 씨는 이제 스스로도 분을 참을 수 없게 된 것 같았다.

벌건 얼굴에 튀어나올 듯 두 눈알을 부러려 대면서 장갑을 몰아 쥔 한쪽 손을 피스톤처럼 마구 지옥의 턱 앞으로 내질러 대고 있었다.

지옥은 그만 기가 확 질리고 말았다. ㉢ **무슨 말을 할래도 목이 말라 소리가 되어 나오질 않았다.** 그는 부들부들 떨려 오는 두 다리를 간신히 버티고 선 채 절망적인 눈초리로 피문오 씨의 폭풍우 같은 수모를 고스란히 견디고 있었다.

불현듯 최상윤 선생의 일이 이 처참스런 곤욕을 견뎌 낼 수 있는 어떤 서광처럼 머릿속으로 떠올라 왔다. 최상윤 선생과의 약속이 그의 참을성에는 상당한 힘을 보태기 시작했다. 이런 자의 자서전 따위 대필하려 했더니! 최상윤 선생과 같은 분에게조차 내 주관을 굽힐 수 없었던 이 지옥이 아닌가. 이런 자의 책을 쓰면서 그의 밑구멍을 활느니 차라리 선생의 발밑에라도 나가 엎드려 선생의 신념을 찬미함이 낫지 않으나. 참자! 작자의 일을 피하자면 이쯤 굴욕은 즐거이 참아 넘기자. 참아서 넘겨야 한다—

하지만 피문오 씨는 그 정도로는 물론 분통이 풀릴 수가 없는 모양이었다.

“어디 선생! ㉣ **말씀을 좀 해 보시라구.** 아니 글에서는 것처럼 잘난 체 말이 많더니, 제 잘난 소리나 시부렁거릴 줄 알았지 선생도 남의 말을 알아듣는 덴 귀가 딱 떨어 버리셨나. 왜 통대답이 없으셔? 그렇담 내가 좀 더 수고를 해 주실까? 어째서 내 일을 하지 않게 되었느냐, 내 일을 하기가 싫어졌느냐…… 그 이율 좀 더 솔직하게 말해 달라 이거야. 이 무식한 놈도 좀 분명하게 알아듣고 납득이 가게끔 말씀이야. 알아들어? 그래도 못 알아들으시겠다면 ㉤ **내 좀 더 똑똑히 말을 해 줄까?**”

묵묵히 입을 다물고 있는 지옥을 마음 내키는 대로 매도해 대다 말고 피문오 씨는 무슨 생각을 해 냈는지 갑자기 목을 잔뜩 가다듬었다. 그리고는 청승맞도록 능청스런 목소리로 허공을 향해 외쳐 대기 시작했다.

㉥ **“고장 난 시계나 라디오들 고칩시다야—채권 삽니다야—부서진 우산이나 빈 병 삽니다야—자서전이나 회고록들 쓰십시오야—”**

고저단속(高低斷續)을 적당히 조화시켜 가며 길게 외쳐 대고 난 피문오 씨가 이제 좀 알아들었느냐는 듯 여유만만한 표정으로 지옥을 이윽히 건너다보았다.

- 이청준, 「자서전들 쓰십시오」 -

42.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장면의 빈번한 교차를 통해 인물 간의 갈등을 입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② 서술자가 중심인물의 내면을 묘사하며 인물이 처한 갈등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 ③ 이야기 내부의 서술자가 인물의 행위를 묘사하며 사건의 원인을 추리하고 있다.
- ④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인물이 겪은 사건의 비현실적인 면모를 드러내고 있다.
- ⑤ 공간의 이동에 따라 서술자를 달리하여 사건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서술하고 있다.

43. 문맥상 의미를 고려할 때,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피문오가 지옥의 말을 무시하고자 하는 경멸의 감정을 담고 있다.
 - ② ㉡: 지옥에게서 무시당하고 있다고 여기는 피문오의 성난 감정을 담고 있다.
 - ③ ㉢: 피문오에게서 수모를 당하는 지옥이 항변도 못하고 주눅이 든 상태를 나타낸다.
 - ④ ㉣: 피문오가 지옥의 해명을 요구하면서 뉘달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 ⑤ ㉤: 침묵하는 지옥에게 피문오가 자신에 대한 의구심을 풀 것을 독촉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44. <보기>를 참고할 때, **감동적인 자서전적 인물상**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자서전들 쓰십시다」의 주인공은 자서전 대필 작가로서의 글쓰기에 환멸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글쓰기는 의뢰인의 삶을 미화하여 결국 의뢰인에게 아첨하는 것일 뿐이기 때문이다. 어떤 의뢰인들은 자신의 요구를 강요하는 일까지 서슴지 않아 주인공을 괴롭히기도 한다. 주인공이 바라는 의뢰인은 작가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삶을 거짓 없이 성찰하는 사람이다. 또한 주인공은, 후회나 의문이 없는 확신에 찬 태도로 독자를 사로잡는 주장을 하는 사람보다는 타인의 삶에 기여할 수 있는 정직한 고백을 하는 사람을 원한다.

- ① 작가에게 ‘압박감’이 느껴질 정도로 ‘자기 독단’이 강할 뿐만 아니라 확신에 찬 태도로 ‘신념’을 내세우는 것은 독자를 사로잡는 자기주장을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감동적인 자서전적 인물상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겠군.
- ② 스스로 ‘회의’하며 ‘의식의 경화’를 경계할 줄 아는 것은 삶을 거짓 없이 성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감동적인 자서전적 인물상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겠군.
- ③ ‘엄격한 극기’로 ‘부끄러움’ 없이 ‘결백’하게 사는 것은 독자에게 후회나 의문이 없는 삶을 주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감동적인 자서전적 인물상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겠군.
- ④ 자서전을 쓰라고 ‘반말 투로’ 작가를 ‘욕박’지르는 것은 자서전을 통해 자신에게 아첨하기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감동적인 자서전적 인물상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겠군.
- ⑤ 작가의 ‘양심’을 ‘알량’하다고 여기고 자신은 ‘들러리’가 아님을 주장하는 것은 작가를 존중하지 않고 삶을 미화하도록 요구한다는 점에서 감동적인 자서전적 인물상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겠군.

45.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피문오는 지옥이 생각하는 자서전의 가치를 폄하하여 지옥을 우롱하고 있다.
 - ② 피문오가 자서전을 상품으로 팔기 위한 방법을 지옥에게 직접 보여 주고 있다.
 - ③ 피문오가 ‘잘난 소리’를 하는 지옥에게 자신은 ‘무식한 놈’이 아님을 과시하고 있다.
 - ④ 피문오가 자서전 쓰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권해야 한다고 지옥에게 요청하고 있다.
 - ⑤ 피문오는 지옥의 자서전 쓰기에 소재를 제공하고자 ‘맘에 없는 웃음을 팔아먹어’ 왔던 자신의 직업적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16~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20.06

[앞부분 줄거리] 조준구와 아내 흥 씨는 서희가 물려받아야 할 최 참판가의 재산을 가로채고, 하인 삼수를 내세워 마을 사람들을 착취한다. 한편, 윤보는 의병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최 참판가 습격을 준비하는데 삼수가 찾아온다.

“아무리 그리 시치미를 떼 쌓아도 알 만치는 나도 알고 있지 않겠어요. 며 내가 횡방을 놓자고 찾아온 것도 아니었고, 나는 나대로 생각이 있어서 온 건데 너무 그러지 마소. 한마디로 딱 찢라서 말하겠소. 왜놈들하고 한통속인 조가 놈을 먼저 치고 시작하라 그 말이오. 고방에는 곡식이 썩을 만큼 쌓여 있고 안팎으로 쌓인 기이 재물인데 큰일을 하자 카른 빈손으로 우찌 하겠소. 그러니 왜놈과 한통속인 조가부터 치고 보든 ㉠ 꿩 목고 알 목는 거 아니겠소.”

“아이가 참 제정신이 아니구마는.”
“하기사 전력이 있으니께 나를 믿지 않는 것도 무리는 아니겠소. 하지마는 두고 보든 알 거 아니오?”

“야, 야 정신 산란하다. 나는 원체 입이 무겁고 또 초록은 동색 이더라도 내 안 들은 거로 해 둘 기니 어서 돌아가거라. 공연히 신세 망칠라.”

윤보는 삼수 등을 민다.
“이거놓으소. 누가 안 가까 바 이려요? 지내 놓고 보든 알기 니게요. 내가 며 염탐이라도 하러 온 줄 아요? 흥, ㉡ 그랬을 양이든 벌써 조가 놈한테 동네 소문 고해바쳤일 기고 읍내서 순사가 와도 몇 놈 왔일 거 아니오.”

큰소리로 지껄이며 삼수는 언덕을 내려간다.
‘벌어목을, 이거 다 된 죽에 코 빠지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날을 다가가겠다.’

[A] 삼수가 왔다 간 다음 날 밤, 자정이 넘었다. 철혹의 밤을 타고 덩어리 같은 침목을 지키며 타작마당에 장정들이 모여 들었다. 마을에서는 개들이 짖는다. 불은 켜지 않았지만 집집 에선 인적기가 난다. 언덕 위의 최 참판택은 어둠에 묻혀 위엄에 찬 그 형태는 보이지 않는다. 타작마당에서는 윤보의 그 우렁우렁한 목소리가 평소보다 알게 울리고, 이윽고 횃불이 한 개 두 개 또 세 개, 계속하여 늘어나고 그 횃불은 움직이기 시작한다.

[종략 부분 줄거리] 윤보 일행이 습격하자 조준구와 흥 씨는 사당 마루 밑에 숨어 있다가 삼수의 도움을 받는다. 윤보 일행이 떠나고 날이 밝았다.

“서희이, 이년! 썩 나오지 못할까?”
나오길 기다릴 흥 씨는 아니다. 방문을 박차고 들어가서 서희를 끌어 일으킨다.

“네년 소행인 줄 뉘 모를 줄 알았더냐? 자아! 내 왔다! 이제 죽여 보아라! ㉢ 화적 놈 불러들일 것 없이!”
나오지 않는 목청을 뽑으며, 거품이 입가에 묻어 나온다.

“자아! 자아! 못 죽이겠냐?”
손이 뺄 위로 날았다. 앞기슴을 잡고 외락외락 흔들어댄다. 서희 얼굴이 흙빛으로 변한다. 울고 있던 봉순이,
“왜 이리시오!”

달려들어 서희 몸을 잡아당기니 실 뜰어지는 소리와 함께 흥 씨 손에 웃고름이 남는다.
“감히 누굴! 감히!”

[B] 하다가 별안간 방에서 뛰쳐나간다. 맨발로 연못을 향해 몸을 날린다. 그는 죽을 생각을 했던 것이다.

“애기씨!”
울부짖으며 봉순이 뒤쫓아 간다.
“죽어라! 죽어! 잘 생각했어! 어차피 너는 산목숨은 아니란 말이야! 죽고 남지 못할 거란 말이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다. 서희는 연못가에서 걸음을 뚝 멈춘다. 돌아본다. 흙빛 얼굴에 웃음이 지나간다.

“내가 왜 죽지? 누구 좋아하라고 죽는단 말이나?”
나직한 음성이다. 흥 씨 눈을 똑바로 주시한다.

“㉣ 사람 영악한 것은 범보다 더 무섭다는 말 못 들으셨소?”
여전히 나직한 음성이다.
“무서우면 어떻게 무서워! 우리 내외한테 비상을 먹이겠다 그 말이나?”

아이고! 아이고! 눈물도 안 나오는 헛웃음을 울더니 이번에는 봉순에게 달려들어 머리끄덩이를 꺼두르고 한 소동을 피운다. 읍내서 헌병, 순사들이 왔다는 말에 흥 씨는 겨우 본체로 돌아갔다. 서희는 찢겨진 저고리를 내려다본다.

“길상이 놈이 날 죽으라고 내버리고 갔다.”
눈이 부어오른 봉순이는,
“마지막까지 남아서 찾았지마는 사당 마릿장 밑에 숨은 줄이 야우, 우찌 …… 으흐흐흐.”

되풀이 입술을 떨면서 서희는 말했다.
“길상이 놈이 날 죽으라고 내버리고 갔다.”
달려온 헌병들에게 맨 먼저 당한 것은 삼수다.

“나, 나오리! 이, 이기이 우찌 된 영문입니까!”
헌병이 총대를 들이대자 겁에 질린 삼수는 그러나 무엇인가 잘못 되었거니 믿는 구석이 있어서 조준구를 향해 도움을 청하였다.

“이놈! 이 찢어 죽일 놈 같으니라구!”
무섭게 눈을 부릅뜬 조준구를 바라본 삼수 얼굴은 일순 백지장으로 변한다.

“예? 며, 며, 머라 켜십니까?”
“이놈! 네 죄를 몰라 하는 말이나? ㉤ 간밤에 감수한 생각을 하면 네놈을 내 손으로 타살할 것이로되 으음, 능지처참할 놈 같으니라구. 이놈! 어디 한번 죽어 봐라!”

“나, 나오리! 꾸, 꿈을 꾸시는 겁니까? 이, 이 목심을 건지 디린 이, 이 삼수 놈을 말입니다!”

그러나 조준구는 바로 저놈이 폭도의 앞잡이었다고 이미 한 말을 다시 강조할 뿐이다. 물론 이 경우 폭도란 의병을 일컫는 것이다.

- 박경리, 「토지」 -

16.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는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인물의 은밀한 행동 양상을 드러낸다.
 - ② [B]는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행동의 격렬함을 강조한다.
 - ③ [A]는 장면에 대한 관찰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B]에는 인물의 내면에 대한 직접적 서술이 나타난다.
 - ④ [A]는 시제가 과거형에서 현재형으로 바뀌면서 장면에 긴장감을 더하고, [B]는 현재형 진술을 활용하여 인물 간 갈등을 더욱 생생하게 전달한다.
 - ⑤ [A]는 시간적 배경을 통해 장면의 분위기를 드러내고, [B]는 공간적 배경의 변화를 통해 인물 간 대립의 원인을 드러낸다.

17.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삼수는 자신의 말대로 하면 '조가'도 제거할 수 있고 윤보의 계획도 숨길 수 있음을 알리고 있다.
 - ② ㉡: 삼수는 자신이 윤보의 계획을 이미 알고 있어 이를 동네에 알리겠다고 하며 윤보를 협박하고 있다.
 - ③ ㉢: 흥 씨는 자신을 습격했던 무리를 '화적놈'이라 부르며 서희가 그들과 공모했다고 몰아가고 있다.
 - ④ ㉣: 서희는 흥 씨에게 흥 씨의 뻔뻔함과 영악함이 도를 넘었음을 경고하고 있다.
 - ⑤ ㉣: 조준구는 지난밤 자신을 습격했던 삼수의 행동에 분노하고 있다.

18. <보기>를 바탕으로 밑줄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토지」는 개화기부터 해방 무렵까지 우리 민족의 수난과 저항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 근대 이전까지 비교적 안정적이었던 신분 질서와 사회적 관계는 이 시기를 거치며 큰 변화를 겪는데, 「토지」에서는 몰락한 양반층, 친일 세력, 저항 세력, 기회주의자 등 다양한 인물들이 때로 협력하고 때로 대립하면서 복잡한 관계망을 형성한다.

- ① 최 참판가 습격을 준비하던 윤보가 삼수의 제안을 듣지 않은 것으로 하겠다는 내용으로 보아, 윤보는 삼수와 협력 관계를 거부한 것이군.
- ② 타작마당에 모인 장정들이 햇불을 들고 윤보와 함께 움직이는 것으로 보아, 이들은 조준구로 대표되는 친일 세력과 대립하고 있군.
- ③ 봉순이가 달려들어 서희 몸을 잡아당기는 것으로 보아, 이전까지 비교적 안정적이었던 신분 질서가 흔들리며 봉순이와 서희의 협력 관계가 약화되고 있군.
- ④ 흥 씨의 모욕에 죽을 생각을 했던 서희가 흥 씨의 눈을 똑바로 주시한 것으로 보아, 흥 씨와 서희는 대립 관계를 이어 가겠군.
- ⑤ 윤보에게 조준구를 치라고 했던 삼수가 조준구의 목숨을 구해줬다는 것으로 보아, 조준구와 삼수의 관계는 상황에 따라 변하는군.

[23~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20.06

[앞부분 줄거리] 조웅은 송나라 회복을 위해 태자를 구해 함께 위국으로 가던 중 서번국 병사가 매복한 함곡을 향한다.

이적에 원수가 여러 날 만에 연주에 도달하여 군마를 다 쉬게 하고 원수도 노곤하여 사관에서 쉬고 있었는데,

[A] 한 나비가 침상에 날아들거늘 원수도 자연스럽게 날개를 얻어 그 나비를 따라 공중에 날아 한 곳에 이르니, 첩첩한 산중에 수목이 뿔뿔한 곳을 깊이 들어가니 그 가운데 광활하여 완연한 별세계라. 또 한 곳을 들어가니 아름다운 궁궐이 하늘에 닿았거늘, 나아가 보니 문에 현판을 붙였으며, ‘만고총렬문’이라 뚜렷이 쓰여 있었다.

궁궐 위를 바라보니 한 노인이 앉았으며 얼굴은 관옥 같고 머리에 황금관을 쓰고 몸에 용포를 입고 뒷자리에 높이 앉았는데, 무수한 사람들이 열좌하여 [큰 잔치]를 배설하고 술과 음식이 가득한 중에 절대 가인이 차례로 앉았으니, 그 아름다움이 측량 없더라. 좌석에 가득 앉은 사람들이 여러 왕의 흥망성쇠와 만고 역대를 역력히 이르는지라. 맨 뒷자리에 앉은 제왕은 어찌 된 줄을 모르매 분부 왈,

“그대 등은 각각 공을 밝히어 올리라.”

하니 좌석에 가득 앉은 사람들이 각각 공을 밝히는 글을 올리니 그 공적에 왈,

“저는 본래 한나라 신하로 깊은 뜻이 많지 아니하리로다. 옛 일을 살펴보니 복이 복두칠성과 일월에 찬란하리로다.”

또한 공적에 왈,

“칼을 잡아 흉적을 소멸하니 제후 될 만하도다. 천하를 성처럼 막았으니 문호 세상에 진동하는도다.”

하였더라.

그 남은 공적은 어찌 다 기록하리오. 좌중의 여러 사람들이 각각 소회를 다하고, 혹 노기 등천하며, 혹 칼을 빼들고 매우 성을 내고, 어떤 자는 땅에 섰고, 어떤 자는 깡충깡충 뛰며, 어떤 자는 노래하고, 어떤 자는 춤추기도 하는지라. 이러한 좋은 장면을 세밀히 구경할새, 한 사람이 좌중에 나와 앉으며 왈,

“우리 각각 소회는 옛일이라. 한하여도 미치지 못하려니와 알지 못하겠노라. 대승이 역적에 망하니 인하여 멸성이 되었으면 언제 회복되오리까?”

하니 한 사람이

“송나라의 복은 아직 길고 멀었는지라. 어찌 회복이 없사 오리까?”

한데, 또 한 사람이,

“그대 등은 알지 못하는도다. 하늘이 송나라 왕실을 회복하고자 조웅을 명하였더니, 불쌍하도다 조웅이여! 일시가 극난하여 명일 미명에 서번 적의 간계에 걸려들어 죽을 듯하니 불쌍하도다. 조웅의 일도 우리와 같을지라. 정해진 나이를 못 마치고 전쟁의 패한 혼이 될 듯하니 불쌍코 가련하다.”

이러할 제 문 지키는 군사 급히 고하기를,

“송나라 문제 들어오시나이대.”

하니, 여러 사람이 일시에 뜰로 내려와 영접하여 상좌한 후에 여러 사람이 아뢰기를,

“오늘날 만날 약속을 정하옵고 어찌 늦게 도착하시나이까?”

문제 왈,

“송나라 왕실을 회복할 신하는 조웅이라. 오다가 한 곳을 보니 불측한 서번이 조웅을 잡으려고 이러저러하였거늘, 행여 그러할까 하여 시운일수를 통치 못하여 죽을 듯함에, 도사를 찾아가 구하라 하고 부탁하고 오노라.”

하시니, 좌중이 외쳐 왈,

“우리는 분명 조웅이 죽으리라 하고 불쌍한 공문을 하였더니, 대운이 막히지 아니하였사오니 천수를 어찌 하오리까?”

원수가 깨달으니 남가일몽이라.

(중략)

원수 꿈속의 일을 생각하니 저절로 마음이 비참하여 슬픔을 머금고 종일 행군할 동안에 염려가 끊이지 않았다.

[B] 이날 함곡에 도달하니 해는 서쪽 산 위로 떨어지고 달은 동쪽 고개 위로 떠올랐는데, 무심한 잔나비는 달빛 아래에서 슬피 울고, 그윽한 두견성은 불여귀를 일삼았다. 갈 길은 험악한데 동쪽은 험한 산이고 서쪽은 깊은 골짜기여서 층층이 험한 산봉우리는 가슴을 찌르는 듯하고 야광은 희미하기만 했다.

선봉을 재촉하여 함곡으로 들어가는데 문득 바라보니 동편 작은 골짜기에 갈포로 만든 두건과 베옷을 입은 한 노옹이 있어 푸른 나귀를 재촉하며 백우선으로 원수를 만류하거늘 원수가 그 노옹을 바라보니 정신이 황홀하였다. 원수가 말을 머물게 하고 잠깐 기다리니 그 노옹이 묻기를,

“연주로부터 오십니까?”

원수가 답 왈,

“그러하오이다.”

노옹이 왈,

“위국으로 가는 조 원수를 혹 보셨습니까? 보시면 바빠 알려 주소서.”

하였다. 원수는 마음속으로 의심하고 한편으로 이상하게 여겨 왈,

“내가 바로 조웅이거니와 무슨 일로 긴히 찾습니까?”

하니, 노옹이 크게 기뻐하며 왈,

“나는 떠돌아다니는 나그네라. 성품이 남과 달라 빼어난 산천과 명승지지를 즐겨 구경하고 두루 다녔는데, 오로봉에 들어 갔다가 천명 도사를 만나 수삼 일을 머물렀더니 출발할 때 한 서찰을 주며 왈, ‘그대에게 오늘 오시에 전하라’ 하여 나귀를 바빠 몰아 진시에 도착하려고 했으나 피곤한 나귀 탓으로 시간을 넘겨 버렸기에 행여 못 만날까 염려하였더니 이곳에서 만나니 어찌 즐겁지 아니하겠습니까?”

하며, 소매 속에서 한 통 편지를 내어 주고는 팔을 들어 하직 하거늘 원수 다시 노옹을 바라보니 행색이 아득하였다. 마음속으로 신기하게 여겨 그 편지를 급히 떼어 보니 다른 말은 없고 ‘함곡에 들어가지 말고 성중으로 먼저 들어가서 포를 한번 쏘라’ 고만 쓰여 있었다. 원수가 편지를 다 보고는 대경실색하여 좌장군 위홍창을 불러 왈,

“장졸을 함곡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 홍창이 급히 아뢰길,

“선봉이 이미 함곡에 들어갔습니다.”

하거늘 원수가 크게 놀라며 왈,
 “너는 급히 들어가 선봉을 데려오라. 데려올 때 조금도 어수선
 하게 하지 말고 그곳에 진을 치고 있는 것처럼 하면서 한들씩
 숨어 나오되 빨리 데리고 나오너라.”
 홍창이 원수의 명을 듣고는 급히 함곡에 들어가서 전하니
 선봉이 군사를 물려 돌아왔다. 원수가 편지를 얻어 기뻐하며
 진을 쳤다.
 - 작자 미상, 「조웅전」 -

23.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송 문제는 서번 적의 간계에 빠져 사람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 ② 원수는 함곡에서 연주로 가는 도중에 사관에서 쉬려고 군마를 멈추었다.
- ③ 노옹은 자신의 계획보다 늦게 도착했음에도 조웅을 만나게 되어 기뻐했다.
- ④ 위홍창은 역적에게 망한 송나라를 구하고자 선봉을 이끌고 함곡에 들어갔다.
- ⑤ 황금관을 쓴 노인은 모임의 상석에 앉아 있다가 뜰로 내려와 여러 사람을 맞이했다.

24.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는 공간의 광활함을 통해 인물의 진취적인 기상이 드러나고 있다.
- ② [B]에서는 시간의 흐름을 통해 인물의 낙관적 태도가 드러나고 있다.
- ③ [A]에서는 낭만적인 사건에 의한 환상성이, [B]에서는 구체적 시대적 상황에 의한 현실성이 부각되고 있다.
- ④ [A]에서는 공간적 변화에서 비롯되는 긴장감이, [B]에서는 계절적 상황에서 비롯되는 쓸쓸함이 강조되고 있다.
- ⑤ [A]에서는 비현실적 공간에서 느껴지는 신비로움이, [B]에서는 현실 공간에서 느껴지는 불길함이 드러나고 있다.

25. **큰 잔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참석자들은 서로의 공적을 평가하며 소회를 드러내고 있다.
- ② 참석자들은 특정 인물에 대한 염려와 기대를 드러내고 있다.
- ③ 참석자들은 대화를 통해 국가의 흥망성쇠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참석자들은 소회를 다한 후 여러 행위를 통해 각자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⑤ 많은 참석자와 가득한 음식 차림을 통해 풍성한 잔치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26.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조웅전」에서 꿈은 초월적 세계의 뜻을 주인공에게 전달하는 기능을 한다. 꿈속 경험을 통해 주인공은 자신에게 부여된 천명과 현실 세계에서의 위기, 자신에 대한 초월적 세계의 비호 등을 알게 된다. 이러한 초월적 세계의 뜻에 대해 주인공은 확신하지 못하지만, 전달자와 구체적 증거물을 통해 초월적 세계의 뜻을 확인하게 된다. 주인공은 이와 같이 초월적 세계의 뜻을 확인하고 실천하여 영웅적 면모를 드러낸다.

- ① 꿈속에서 송 문제가 조웅을 구하려 하는 것은, 조웅에 대한 초월적 세계의 비호를 보여 주는 것이겠군.
- ② 조웅이 행군 중에 슬피하는 것은, 전쟁에 패한 혼이 될 것이라는 꿈속의 말에 대해 확신하지 못한 것이겠군.
- ③ 꿈속에서 송나라 왕실을 회복할 신하로 조웅이 거론되는 것은, 조웅에게 주어진 천명을 알게 하려는 것이겠군.
- ④ 조웅이 노옹을 통해 전달 받은 편지의 지시에 따른 것은, 조웅이 꿈속 경험에서 알게 된 초월적 세계의 뜻을 신뢰한 것이겠군.
- ⑤ 노옹이 천명 도사의 부탁을 받아 편지를 전하고 떠나는 것은, 노옹이 초월적 세계의 뜻을 조웅에게 전달하는 사람임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32~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20.06

(가)

문장(文章)을 흐자 하니 인생식자(人生識字) 우환시(憂患始)*오
공맹(孔孟)을 비호려 하니 도약등천(道若登天) 불가급(不可及)*
이로다

이 내 몸 쓸 더 업스니 성대농포(聖代農圃)* 되오리라
<제1장>

홍진(紅塵)에 절교(絶交) 하고 백운(白雲)으로 위우(爲友) 하야
녹수(綠水) 청산(靑山)에 시름 업시 늘거 가니
이 둥의 무한지락(無限至樂)을 현스홀가 두려웨라
<제3장>

인간(人間)의 벗 잇단 말가 나는 알기 슬회여라
물외(物外)에 벗 업단 말가 나는 알기 즐거웨라
슬커나 즐겁거나 내 분인가 호노라
<제6장>

유정(有情)코 무심(無心)홀 손 아마도 풍진(風塵) 봉우(朋友)
무심(無心)코 유정(有情)홀 손 아마도 강호(江湖) 구로(鷓鴣)
① 이제야 작비금시(昨非今是)*을 썬드룬가 호노라
<제8장>

도팽택(陶彭澤) 기관거(棄官去)*홀 제와 태부(太傅) 걸해귀
(乞骸歸)*홀 제
호연(浩然) 행색(行色)을 뉘 아니 부러호리
알고도 부지지(不知止)*하니 나도 몰나 호노라
<제9장>

인간(人間)의 풍우(風雨) 다(多)하니 므스 일 머므노노
물외(物外)에 연하(煙霞) 족(足)하니 므스 일 아니 가리
이제는 가려 정(定)하니 일흥(逸興) 계워 호노라
<제11장>

- 안서우, 「유원십이곡」 -

- *인생식자 우환시: 사람은 글자를 알게 되면서부터 근심이 시작됨.
- *도약등천 불가급: 도는 하늘로 오르는 것과 같아 미치기 어려움.
- *성대농포: 태평성대에 농사를 지음.
- *작비금시: 어제는 그르고 지금은 옳음.
- *도팽택 기관거: 도연명이 벼슬을 버리고 떠남.
- *태부 걸해귀: 한나라 태부 소광이 사직을 간청함.
- *부지지: 그만두어야 할 때를 알지 못함.

(나)

어느 날 나는 잠이 들었는데 비몽사몽간이었다. 정신이 산란
하고 병이 아닌데 병이 든 듯하여 그 원기가 상했다. 가슴이
돌에 눌린 것처럼 답답한 게 게으름의 귀신이 든 것이 틀림
없었다. 무당을 불러 귀신에게 말하게 했다.

“내가 내 속에 숨어들어서 큰 병이 났다. …(중략)… 게을러서
집을 수리할 생각도 못하며, 솔밭이 부러져도 게을러서 고치지

않고, 의복이 해저도 게을러서 깎지 않으며, 종들이 죄를
지어도 게을러서 묻지 않고, 사람들이 시비를 걸어도 게을러서
화를 내지 않아서, 마침내 날로 행동은 굼뎠고 가고, 마음은
바보가 되며, 용모는 날로 여위어 갈 뿐만 아니라 말수조차
줄어들고 있다. 이 모든 허물은 내가 내게 들어와 멋대로 함
이라. 어찌서 다른 이에게는 가지 않고 나만 따르며 귀찮게
구는가? 너는 어서 나를 떠나 저 낙토(樂土)로 가거라. 그러면
나에게는 너의 피해가 없고, 너도 너의 살 곳을 얻으리라.”
이에 귀신이 말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화를 입히겠습니까?
운명은 하늘에 있으니 나의 허물로 여기지 마십시오. 굳센
쇠는 부서지고 강한 나무는 부러지며, 깨끗한 것은 더러워지기
쉽고, 우뚝한 것은 꺾이기 쉽습니다. 굳은 돌은 고요함으로
이지러지지 않고, 높은 산은 고요함으로 영원한 것입니다. 움직
이는 것은 쉽게 요절하고 고요한 것은 장수합니다. 지금
당신은 저 산처럼 오래 살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세상의
근면은 화근이, 당신의 게으름은 복의 근원이 될 수도 있지요.
세상 사람들은 세력을 좇다 우왕좌왕하여 그때마다 시비의
소리가 분분하지만, 지금 당신은 물러나 앉았으니 당신에 대한
시비의 소리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또 세상 사람들은 물욕에
휘둘러서 이익을 얻기 위해 날뛰지만, 지금 당신은 걱정이
없어 제정신을 잘 보존하니, 당신에게 어느 것이 흉하고 어느
것이 길한 것이겠습니까? 당신이 이제부터 유지(有知)를 버
리고 무지(無知)를 이루며, 유위(有爲)를 버리고 무위(無爲)에
이르며, 유정(有情)을 버리고 무정(無情)을 지키며, 유생(有生)
을 버리고 무생(無生)을 즐기면, 그 도는 죽지 않고 하늘과
함께 아득하여 태초와 하나가 될 것입니다. 내가 앞으로도
당신을 도울 것인데, 도리어 나를 나무라시니 자신의 처지를
아십시오. 그래서야 어디 되겠습니까?”

이에 나는 그만 말문이 막혔다. 그래서 ㉠ 앞으로 나의 잘못을
고칠 터이니 그대와 함께 살기를 바란다고 했더니, 게으름은
그제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있기로 했다.

- 성현, 「조용(嘲慵)」 -

32.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조적 소재를 통해 삶에 대한 글쓴이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② 명령적 어조를 통해 세태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진술하고 있다.
- ③ 공간의 이동을 통해 주어진 삶에 순응해야 함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구체적인 청자를 설정하여 자연에서 얻은 깨달음을 진술하고 있다.
- ⑤ 계절의 변화를 통해 과거와 대비되는 현재의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33.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유원십이곡」은 강호에서의 삶을 추구하는 노래지만, 화자는 강호에 머문 뒤에도 강호와 속세 사이에서 갈등을 반복한다. 이는 강호에서의 만족한 삶이라는 이상에 도달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화자가 갈등을 반복하면서도 항상 강호를 선택하는 모습은, 결국 자신의 결정이 가치 있는 것임을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① <제1장>의 초장에는 화자가 강호를 선택하게 되는 동기가 드러난다.
- ② <제3장>의 중장에는 강호를 선택한 삶의 모습이 긍정적으로 드러난다.
- ③ <제6장>의 중장에는 화자 자신이 분수에 맞는 선택을 했음이 드러난다.
- ④ <제9장>의 중장에는 속세에 미련을 갖게 하는 가치를 언급함으로써 화자의 갈등이 드러난다.
- ⑤ <제9장>의 중장에는 갈등하는 화자의 모습이, <제11장>의 중장에는 자신의 선택에 만족하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난다.

34. [절교]와 [위우]를 중심으로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화자가 '절교'하고자 하는 대상은 '인간의 벗'으로 볼 수 있다.
- ② 화자는 '봉우'를 '절교'하고자 하는 대상으로 인식한다고 볼 수 있다.
- ③ 화자는 '백운'과의 '위우'를 통해 '무한지락'을 느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④ 화자가 '위우'하고자 하는 '구로'는 '물외에 연하 족'한 곳이라고 볼 수 있다.
- ⑤ 화자가 '물외에 벗'과 '위우'하고자 하는 이유는 '유정코 무심'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35. ㉠과 ㉡을 참고하여 (가)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의 화자는 '공맹을 비호'기 위해 '성대농포'의 길을 가야 함을 알게 되었다.
- ② ㉡의 '나'는 '태초와 하나가' 되게 하는 상대방의 제안을 수용하며 '군센 쇠'와 같은 변치 않는 삶을 다짐하고 있다.
- ③ ㉠의 화자는 '녹수 청산'에서의 삶을 즐거워하고, ㉡의 '나'는 '깨끗한 것'을 '길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 ④ ㉠의 화자는 현재의 삶이 옳음을 '찌드론가'로 밝히고, ㉡의 '나'는 반성의 태도를 '고칠 터이니'로 드러내고 있다.
- ⑤ ㉠의 화자는 '풍우 다'한 현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의 '나'는 '시비의 소리'에 흔들렸던 자신의 잘못을 고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36.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조용」에서 필자는 '나'와 '게으름 귀신'의 대화라는 구조를 활용하여 게으름에 대한 사색의 결과를 담아내고 있다. 필자는 게으름의 양면성을 드러내어 게으름의 부정적 측면을 경계하는 한편 게으름의 긍정적 측면을 통해 세태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보여 준다.

- ① '나'가 무당을 내세워 '귀신'에게 말을 건네는 것에서, 자신의 게으른 생활에 대해 살펴보려는 필자의 모습을 알 수 있겠군.
- ② '나'가 집안의 대소사를 해결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는 행위를 나열하는 것에서, 게으름의 폐단을 드러내려는 필자의 생각을 알 수 있겠군.
- ③ '나'가 '멋대로' 행동하는 게으름을 탓하면서도 게으름은 자신의 '허물'이라 여기는 것에서, 게으름의 양면성을 드러내려는 필자의 의도를 알 수 있겠군.
- ④ '나'가 게으름 덕분에 '물욕'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귀신'의 말에서, 게으름의 긍정적 측면을 보여 주려는 필자의 의도를 알 수 있겠군.
- ⑤ '나'가 게으름 덕분에 세상 사람들과 달리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는 '귀신'의 말에서, 이익을 얻기 위해 다투는 사람들에 대한 필자의 비판적 시각을 알 수 있겠군.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20.06

(가)

낙엽은 폴-란드 망명정부의 지폐
 포화(砲火)에 이르러진
 도룬 시(市)의 가을 하늘을 생각해 한다
 길은 한 줄기 구겨진 넥타이처럼 풀어져
 일광(日光)의 폭포 속으로 사라지고
 조그만 담배 연기를 내어 뿜으며
 새로 두 시의 급행차가 들을 달린다
 포플라 나무의 근골(筋骨) 사이로
 공장의 지붕은 흰 이빨을 드러내인 채
 한 가닥 구부러진 철책이 바람에 나부끼고
 그 위에 세로광지(紙)로 만든 구름이 하나
 자욱-한 풀벌레 소리 발길로 차며
 호을로 황량한 생각 버릴 곳 없어
 허공에 띄우는 돌팔매 하나
 기울어진 풍경의 장막 저쪽에
 고독한 반원을 굶고 잠기어 간다

- 김광균, 「추일서정」 -

(나)

담쟁이덩굴이 가벼운 공기에 **업혀** 허공에서
 허공으로 이동하고 있다

새가 푸른 하늘에 **놀려** 납작하게 날고 있다

들쨍레가 길 밖에서 하얀 꽃을 **버리며**
 빈자리를 만들고

사방이 몸을 비워놓은 마른 길에
 하늘이 내려와 누런 돌맹이 위에 **엎힌다**

길 한편 모래가 바위를 **들어올려**
 자기 몸 위에 놓아두고 있다

- 오규원, 「하늘과 돌맹이」 -

43. (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수미상관의 기법을 활용하여 구조적 안정감을 얻고 있다.
- ② 유사한 문장 형태를 변주하여 시간의 흐름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의도적으로 변형한 시어를 통해 현실 극복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④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을 통해 대상에 대한 회의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자연물을 인공물에 빗대어 풍경에 대한 화자의 인상을 드러내고 있다.

44. 다음은 (나)에 대한 <학습 활동> 과제이다. 이를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학습 활동>				
「하늘과 돌맹이」는 사물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을 버리고 새로운 시각으로 사물들을 바라보려고 시도한다. 각 연의 서술어에 주목하여, 이 시에 나타난 새로운 관점을 사물에 대한 고정관념과 비교하여 탐구해 보자.				
	사물	사물에 대한 고정관념	서술어	새로운 관점
1연	담쟁이덩굴	담쟁이덩굴은 벽에 붙어 자란다.	업혀	㉠
2연	새	새는 자유롭게 하늘을 난다.	놀려	㉡
3연	들쨍레	들쨍레의 꽃이 떨어진다.	버리며	㉢
4연	하늘	하늘은 땅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엎힌다	㉣
5연	모래	모래가 바위 밑에 깔려 있다.	들어올려	㉤

- ① ㉠: ‘업혀’에 주목하면, 담쟁이덩굴은 벽에 붙어 자라는 것이 아니라 공기를 누르며 수직 상승하는 강인한 존재로 볼 수 있다.
- ② ㉡: ‘놀려’에 주목하면, 새가 아무 제약 없이 하늘을 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무게를 견디며 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 ‘버리며’에 주목하면, 꽃이 저절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들쨍레가 스스로 꽃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④ ㉣: ‘엎힌다’에 주목하면, 하늘은 땅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길에 가깝게 내려와 돌맹이 위에 닿는 존재로 볼 수 있다.
- ⑤ ㉤: ‘들어올려’에 주목하면, 모래는 바위 밑에 깔려 있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거대한 바위를 지탱할 수 있는 존재로 볼 수 있다.

45. 이미지의 활용을 중심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낙엽’을 ‘망명정부의 지폐’에 연결하여 낙엽의 이미지에서 연상되는 무상감을 드러내고 있군.
- ② (가)는 ‘돌팔매’가 땅으로 떨어지는 이미지를 ‘고독한 반원’으로 표현하여 외로움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군.
- ③ (나)는 ‘빈자리’를 ‘들쨍레’가 의도적으로 만들어 낸 대상인 것처럼 표현하여 비어 있는 공간의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도록 의미를 부여하고 있군.
- ④ (가)는 ‘길’을 ‘구겨진 넥타이’의 이미지와 연결하여 도시에서 느껴지는 소외감을 표현하고, (나)는 ‘길 밖’과 ‘길 한편’처럼 중심에서 벗어난 공간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대상들 간의 거리감을 드러내고 있군.
- ⑤ (가)는 ‘허공’을 ‘황량한 생각’이 드러나는 공허한 이미지로 활용하고, (나)는 ‘담쟁이 덩굴’의 움지임을 활용하여 ‘허공’을 감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대상으로 묘사하고 있군.

[21~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9.11

(가)

그 골목이 그렇게도 짧은 것을 그가 처음으로 느낄 수 있었을 때, 신랑의 몸은 벌써 차 속으로 사라지고, 자기와 차 사이에는 물려든 군중이 몇 겹으로 길을 가로막았다. 이쁜이 어머니는 당황하였다. 그들의 틈을 비집고,

‘이제 가면, 네가 언제나 또 온단 말이나?……’

딸이 이제 영영 돌아오지 못하기나 하는 것같이, 그는 막 자동차에 오르려는 딸에게 달려들어,

“이쁜아.”

한마디 불렀으나, 다음은 목이 메어, 얼마를 병하니 딸의 옆 얼굴만 바라보다가, 그러한 어머니의 마음을 알아줄 턱없는 운전수가, 재촉하는 경적을 두어 번 울렸을 때, 그는 또 소스라치게 놀라며, 그저 입에서 나오는 대로,

“모든 걸, 정신 채려, 조심해서, 해라……”

그러나 ㉠ 자동차의 문은 유난히 소리 내어 닫히고, 다시 또 경적이 두어 번 운 뒤, 달리는 자동차 안에 이쁜이 모양을, 어머니는 이미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는 실신한 사람같이, 얼마를 그곳에 서 있었다. 깨닫지 못하고, 눈물이 뺨을 흐른다. 그 마음속을 알아주면서도, 아낙네들이, 경사에 눈물이 당하나고, 그렇게 책망하였을 때, 그는 갑자기 조금 웃고, 그리고, 문득,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그대로 그곳에서 혼돈해 버리고 말 것 같은 극도의 피로와, 또 이제는 이미 도저히 구할 길 없는 마음속의 공허를, 그는 일시에 느꼈다.

제6절 몰락

한편에서 이렇게 경사가 있었을 때—(그야, 외딸을 남을 주고 난 그 뒤에, 홀어머니의 외로움과 슬픔은 컸으나 그래도 아직 그것은 한 개의 경사라 할 밖에 없을 것이다)—, 또 ㉡ 한편 개천 하나를 건너 신전 집에서, 바로 이날에 이제까지의 서울에서의 살림을 거두어, 마침내 애달프게도 온 집안이 시골로 내려갔다.

[A] 독자는, 그 수다스러운 점령이 어머니가, 이미 한 달도 전에, 어디서 어떻게 들었던 것인지, 쉬이 신전 집이 낙향을 하리라고 가장 은근하게 빨래터에서 하던 말을 기억하고 계실 것이다. 이를테면 그것이 그대로 실현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다만 그들의 가는 곳은, 강원도 춘천이라든가 그러한 곳이 아니라, 경기 강화였다.

이 봄에 대학 의과를 마친 둘째 아들이 아직 취직처가 결정되지 않은 채, 그대로 서울 하숙에 남아 있을 뿐으로—(그러나, 그도 그로써 얼마 안 되어 충청북도 어느 지방의 ‘공의’가 되어 서울을 떠나고 말았다)—, 신전 집의 온 가족은, 아직도 장가를 못 간 주인의 처남까지도 바로 어디 나들이라도 가는 것처럼, 별로 남들의 주의를 끄는 일도 없이, 스무 해를 살아온 이 동리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한번 기울어진 가운은 다시 어찌는 수 없어, 온 집안사람은, 언제든 당장이라도 서울을 떠날 수 있는 준비 아래, 오직 주인 영감의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므로, 동리 사람들도 그것을 단지 시일 문제로 알고 있었던 것이나, 그래도 이 신전 집의 몰락은, 역시 그들의 마음을 한때, 어렵게 해 주었다.

그러나 오직 그뿐이다. 이 도회에서의 패잔자는 좀 더 남의 마음에 애달픔을 주는 일 없이 무심한 이의 눈에는, 참말 어디 불일이라도 보러 가는 사람같이, 그곳에서 얼마 안 되는 작은 광고 차부에서 강화행 자동차를 탔다. 천변에 일어나는 온갖 일에 관찰을 게을리하지 않는 이발소 소년^이, 용하게도 막, 그들의 이미 오래 전에 팔린 집을 나오는 일행을 발견하고 그래 이발소 안의 모든 사람이 그것을 알았을 뿐으로, 그들이 남부끄럽다 해서, 고개나마 변변히 못 들고 빠른 걸음걸이로 천변을 걸어 나가, 그대로 큰길로 사라지는 뒷모양이라도 흘깃 본 이는 몇 명이 못 된다. ㉢ 얼마 있다, 원래의 신전은 술집으로 변하고, 또 그들의 살던 집에는 좀 더 있다, 하숙옥 간판이 걸렸다.

- 박태원, 「천변풍경」 -

(나)

#68. 산비탈 길

뚜벅뚜벅 걷고 있는 철호.

#69. 피난민 수용소 안(회상)

담요바지 철호의 아내가 주워 모은 널빤지 조각을 이고 들어와 부엌에 내려놓고 흠어진 머리칼을 치키며 숨을 돌리고 있다.

철호[◎]: 저걸 저토록 고생시킬 줄이야.

담요바지 아내의 모습 위에 —O·L*—

여학교 교복을 입고 강당에 서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그 시절의 아내. 또 O·L되며 신부 차림의 아내가 노래를 부르고 있다. 그 옆에 상기되어 앉아 있는 결혼 피로연 석상의 철호. 노래는 ‘돌아오라 소렌토’.

#70. 산비탈

철호가 멍하니 시가지를 내려다보고 섰다. 황홀에 묻힌 거리.

#71. 자동차 안

해방촌의 골목길을 운전수가 땀을 뺀다 빠져나와서 뒤를 돌아 보고

운전수: 손님! 이상 더 올라가지 못하겠는데요.

영호: 그럼 내립니다. 시시한 동네까지 물구 오느라고 수고했소. 천 환짜리 한 장을 꺼내 준다.

운전수: (공손히) 감사합니다.

#72. 철호의 방 안

철호의 아내가 만삭의 배를 안고 누더기를 꿰매고 있다. 옆에서 쿵쿵 자고 있는 혜옥.

영호: (들어오며) 혜옥아!

(중략)

#73. 철호의 집 부엌 안

민호가 팔다 남은 신문을 끼고 들어와 신들메를 끌르며

민호: 에이 날씨도 꼭 겨울 같네.

철호[◎]: 어쨌든 너도 인젠 정신을 차려야지! 군대에서 나온 지도 이태나 되잖니.

영호[◎]: 정신 차려야죠. 그렇잖아도 금명간 판결이 날 겁니다.

철호[◎]: 어디 취직을 해야지.

#74. 철호의 집 방 안

영호 : 취직이요. 형님처럼 전차 값도 안 되는 월급을 받고 남의 살림이나 계산해 주란 말예요? 싫습니다.

철호 : 그럼 뭐 뽀족한 수가 있는 줄 아니?

영호 : 있지요. 남처럼 용기만 조금 있으면.

철호 : 용기?

영호 : 네. 분명히 용기지요.

철호 : 너 설마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

영호 : 엉뚱하긴 뭐가 엉뚱해요.

철호 : (버럭 소리를 지르며) 영호야! 그렇게 살자면 이 형도 벌써 잘살 수 있었던 말이다.

영호 : 저도 형님을 존경하지 않는 건 아녜요. 가난하더라도 깨끗이 살자는 형님을……. 하지만 형님! 인생이 저 골목에서 십 환짜리를 받고 코 흘리는 어린애들에게 보여 주는 요지경 이라면야 가지고 있는 돈값만치 구멍으로 들여다보고 말 수도 있죠. 그렇지만 어디 인생이 자기 주머니 속의 돈 액수만치만 살고 그만둘 수 있는 요지경인가요? 형님의 **어금니**만 해도 푹푹 썩히고 아픈 걸 견뎌내고 절악이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 비극이 시작되는 거죠. 지긋지긋하게 살아야 하니까 문제죠. 왜 우리라고 좀 더 넓은 테두리까지 못 나가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영호는 반쯤 끌려 왔던 벡타이를 풀어서 방구석에 푹 던진다. 철호가 무겁게 입을 연다.

철호 : 그건 억설이야.

영호 : 억설이요?

철호 : 네 말대로 꼭 잘살자면 양심이구 율리구 버려야 한다는 것 아니야.

영호 : 천만예요.

#75. 철호의 집 골목

스카프를 두르고 핸드백을 걸친 명숙이가 엿듣고 있다.

철호Ⓜ : 그게 바로 억설이란 말이다. 마음 한구석이 어딘가 비틀려서 하는 억지란 말이다.

영호Ⓜ : 비틀렸죠. 분명히 비틀렸어요. 그런데 그 비틀리기가 너무 늦었던 말입니다.

- 이범선 원작, 이종기 각색, 「오발탄」 -

* Ⓜ : 효과음(effect). 화면에 삽입된 음향.

* O·L(overlap) : 하나의 화면이 끝나기 전에 다음 화면이 겹치면서 먼저 화면이 차차 사라지게 하는 기법.

2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물 간의 대결 의식을 통해 사건의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 ②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특정 인물의 생각과 행동을 희화화하고 있다.
- ③ 인물의 회상 장면을 통해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과거에서 찾고 있다.
- ④ 인물 간의 갈등을 다각적으로 조명하여 사건 전개 of 양상을 다면화하고 있다.
- ⑤ 인물의 내면을 행위로 제시하여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심리를 보여 주고 있다.

22. (가)의 **이팔소 소년**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주변을 관찰하여 일상의 변화를 포착한다.
- ② 특정 가족이 몰락하게 된 이유를 분석한다.
- ③ 새로운 사건을 모으고 그 진위를 논평한다.
- ④ 천변의 소식을 타 지역 주민에게 전해 준다.
- ⑤ 천변 주민들 사이에 발생하는 문제를 중재한다.

23.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독자가 가진 정보를 상기시키고 있다.
- ② 정보를 제공한 인물을 독자에게 환기시키고 있다.
- ③ 독자를 언급하여 서술자의 개입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정보가 실현되지 못한 원인을 독자의 망각에서 찾고 있다.
- ⑤ 인물의 행선지와 관련한 정보를 독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24. (가)와 (나)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의 짧게 느껴지는 ‘골목’은 어머니의 아쉬움을, (나)의 빠져 나오기 힘든 ‘골목길’은 ‘시시한 동네’의 열악함을 보여 주고 있다.
- ② (가)는 딸이 멀리 떠나는 모습을 통해, (나)는 명숙이 집 밖에서 엿듣는 모습을 통해 가족들 간의 갈등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
- ③ (가)의 ‘눈물’은 가족을 떠나보내는 자의 아픔을, (나)의 ‘어금니’는 가족의 생계를 꾸려 나가는 자의 견뎌움을 보여 주고 있다.
- ④ (가)는 주인 영감의 명령만을 기다리는 신진 집 가족들을 통해, (나)는 만삭의 몸에도 누더기를 껴매는 아내의 모습을 통해 가족이 처한 불우한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
- ⑤ (가)는 ‘도회에서의 패잔자’가 낙향하는 모습을 통해, (나)는 영호가 취직을 거부하는 모습을 통해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는 인물의 처지를 보여 주고 있다.

25. (나)의 '#68~#71'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68의 장면이 이어지는 #69에서 '철호㉔'를 삽입하여 회상의 주체가 철호임을 알려 주고 있다.
- ② #69에서 '철호㉔'를 삽입하여 아내에 대한 연민을 드러내고 있다.
- ③ #69에서 '노래'를 활용하여 학창 시절 아내의 화면을 결혼 피로연장 아내의 화면으로 전환하고 있다.
- ④ #70에서 침묵하는 철호의 모습과 시가지의 분위기를 대비하여, 거리를 바라보는 철호의 심리를 암시하고 있다.
- ⑤ #70의 침묵과 #71의 대화를 상호 대비하여 영호의 소심함을 드러내고 있다.

26. <보기>를 바탕으로 (가)의 ㉠~㉣과 (나)의 '#71~#75'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작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타나는 모든 상황을 서술하지는 않는다. 일련의 상황이나 사건들 중 작가의 시선에 의해 특정한 부분이 부각되어 서술되는 것이다. 즉, 서사는 시간과 공간을 배경으로 하는 사건의 선택과 결합을 통해 구성된다. 선택이란 시간과 공간을 분할한 후 의미 있는 부분을 선택하는 것을, 결합이란 이렇게 선택된 시간과 공간을 다양한 방식으로 연결하여 새롭게 사건을 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서사는 다양한 사건 구성의 방식을 통해 인간의 문제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고민을 담고 있다.

- ① ㉠에서는 두 인물 사이에서 발생한 여러 상황에서 몇 개의 상황만을 선택적으로 제시하여 그 상황에 대한 인물의 심리를 암시하고 있고, #71과 #72에서는 서로 다른 두 공간을 동일 인물의 등장으로 연결하여 인물의 공간 이동을 나타내는군.
- ② ㉡에서는 같은 날에 서로 다른 공간을 배경으로 하는 사건이 일어났음을 밝혀 ㉠의 공간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의 공간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결합하고 있고, #73과 #74의 서로 다른 공간은 동일한 인물들의 이어지는 대화를 통해 서로 결합하고 있군.
- ③ ㉢에서는 일련의 상황을 선택적으로 제시하면서 인물들에 대한 감정을 서술하고 있고, #73~#75에서는 두 인물의 대화를 매개로 서로 다른 공간을 결합함으로써 #73과 #75의 장면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74의 상황을 공유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군.
- ④ ㉠과 ㉡의 연결은 같은 날에 서로 다른 공간에서 발생하는 사건의 연결이라는 점에서는 #74와 #75의 연결과 유사하지만, 인물의 목소리를 활용하는 #74와 #75의 연결과 비교하면 연결 방식에서 구별되는군.
- ⑤ ㉣은 시간의 흐름을 분할하고 대상의 특징적인 변화를 선택하여 제시한다는 점에서 #75와 유사하지만, 서로 다른 두 공간의 결합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75와 구별되는군.

[33~3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9.11

(가)

검정 포대기 같은 까마귀 울음소리 고을에 떠나지 않고
 밤이면 부엉이 괴괴히 울어 [A]
 남쪽 먼 포구의 백성의 순탄한 마음에도
 상서롭지 못한 세대의 어둔 바람이 불어오던
 - 율희(隆熙) 2년!

그래도 계절만은 천 년을 다채(多彩)하여
 지붕에 박닌출 남풍에 자라고 [B]
 푸른 하늘엔 석류꽃 피 뻗은 듯 피어
 나를 잉태한 어머니는
 짐짓 어진 생각만을 다듬어 지니셨고 [C]
 젊은 의원인 아버지는
 밤마다 사랑에서 저릉저릉 글 읽으셨다

왕고못택 제삿날 밤 열나홀 새벽 달빛을 밟고
 유월이가 이고 온 제삿밥을 먹고 나서 [D]
 희미한 등잔불 장지 안에
 번문육례 사대주의의 욕된 후예로 세상에 떨어졌나니

신월(新月)같이 슬픈 제 족속의 태반을 보고
 내 스스로 고고(呱呱)*의 곡성(哭聲)*을 지른 것이 아니련만 [E]
 명(命)이나 길라 하여 할머니는 돌메라 이름 지었다오
 - 유치환, 「출생기(出生記)」 -

* 고고: 아이가 세상에 나오면서 처음 우는 울음소리.
 * 곡성: 사람이 죽어 슬퍼서 크게 우는 소리.

(나)

샤갈의 마을에는 삼월에 눈이 온다.
 봄을 바라고 섰는 사나이의 관자놀이에
 새로 돋은 정맥이
 바르르 편다.
 바르르 떠는 사나이의 관자놀이에
 새로 돋은 정맥을 어루만지며
 눈은 수천수만의 날개를 달고
 하늘에서 내려와 샤갈의 마을의
 지붕과 굴뚝을 덮는다.
 삼월에 눈이 오면
 샤갈의 마을의 쥐똥만 한 겨울 열매들은
 다시 올리브빛으로 물이 들고
 밤에 아낙들은
 그해의 제일 아름다운 불을
 아궁이에 지핀다.
 - 김춘수,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 -

33.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간과 관련된 표지를 제시하여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② 과거 시제를 사용하여 서사적 사건을 들려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 ③ 시적 상황의 객관적 관찰에 초점을 둠으로써 주관적 의미의 서술을 배제하고 있다.
- ④ 암울하고 비관적인 정서를 내포한 시어를 사용하여 비극적 상황을 고조하고 있다.
- ⑤ 자연물을 살아 있는 대상으로 묘사하여 화자가 느끼는 이국적인 세계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다.

34. [A]~[E]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A]: 청각의 시각화를 통해 음산한 시적 상황을 조성하고 있다.
- ② [B]: 시대 상황과 대비되는 자연의 모습을 통해 생명력을 표현하고 있다.
- ③ [C]: 대구 형식을 활용하여 화자의 출생을 앞둔 집안의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 ④ [D]: 화자가 태어난 날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출생에 대한 감격을 드러내고 있다.
- ⑤ [E]: 울음소리에서 연상되는 상반된 의미와 연결하여 화자의 이름이 지어진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35.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김춘수는 샤갈의 그림 「나와 마을」에서 받은 느낌을 시로 표현함으로써 상호 텍스트성을 구현했다. 올리브빛 얼굴을 가진 사나이와 당나귀가 서로 마주 보고 있는 그림에서 영감을 받은 시인은,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커다란 당나귀의 눈망울이었고, 그 당나귀의 눈망울 속에 들어앉아 있는 마을이었다.”라고 느낌을 말했다. 또한 밝고 화려한 색감을 지닌 이질적 이미지들의 병치로 이루어진 샤갈의 초현실주의적 그림에 대한 감각적 인상을, 자신의 고향 마을에 투사하여 다양한 이미지의 병치로 변용했다. 이는 봄을 맞이한 생동감과 고향 마을의 따뜻한 풍경에 대한 그리움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① '샤갈의 마을'은 시인이 그림 속 마을 풍경에서 받은 인상을 자신의 고향 마을에 투사하여 표현한 것이군.
- ② '삼월에 눈', '봄을 바라고 섰는 사나이', '새로 돋은 정맥' 등은 시인이 그림 속 이질적 이미지들의 병치를 다양한 이미지들의 병치로 변용하여 봄의 생동감을 형상화한 것이군.
- ③ '날개', '하늘', '지붕과 굴뚝' 등은 시인이 밝고 화려한 색감을 지닌 그림 속 마을의 모습을 공감각적 이미지의 풍경으로 변용한 것이군.
- ④ '올리브빛'은 시인이 그림 속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겨울 열매들'을 물대이는 따뜻한 봄의 이미지를 표상한 것이군.
- ⑤ '아낙', '아궁이' 등은 시인이 초현실주의적 그림 속 풍경에 대한 감각적 인상을 고향 마을을 떠올리게 하는 이미지로 전이시킨 것이군.

[36~3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9.11

자점이 심복을 보내 거짓 조서를 전하고 옥에 가두니, 경업이 옥에 갇혀 생각하되,
 ‘제자와 대군이 어찌 내 일을 모르고 구치 아니시는고?’
 하며 주야번민하여 목이 말라 물을 찾는데, 옥졸이 자점의 부축(咐囑)*을 들은 고로 물도 주지 아니하여 경업이 더욱 한 하더니, 전옥(典獄) 관원은 강직한지라 경업의 애매함을 불쌍히 여겨 경업더러 왈,
 “장군을 역적으로 잡음이 다 자점의 흉계니, 잘 주선하여 누명을 벗으라.”
 경업이 그제야 자점의 흉계로 알고 통분을 이기지 못하여 바로 몸을 날려 옥문(獄門)을 깨치고 궐내에 들어가 상을 뵈고 청죄한데, 상이 경업을 보시고 반겨 가로되,
 “경이 만리타국에 갔다가 이제 돌아오매 반가움이 끝이 없거늘 무삼 일로 청죄하느뇨?”
 경업이 돈수사죄 왈,
 “신이 무인년에 북경에 잡혀가다가 중간에 도망한 죄는 만사 무석이나, 대명(大明)과 함께 호왕을 베어 병자년 원수를 갚고 세자와 대군을 모셔오고자 하였더니, 간인에게 속아 북경에 잡혀갔다가 천행으로 살아 돌아옴더니, 의주(義州)에서 잡혀 아무 연고인 줄 알지 못하옵고 오늘을 당하와 천안(天顏)을 뵈오니 이제 죽어도 한이 없사옵니다.”
 상이 들으시고 대경하사 신하더러 왈,
 “경업을 무슨 죄로 잡아온고?”
 하시고 자점을 패초(牌招)*하사 실사를 물으시니, 자점이 속이지 못하여 주왈,
 “경업이 역적이웁기로 잡아 가두고 계달코자 하였나이다.”
 경업이 대로하여 고성대매 왈,
 “이 뽕쓸 역적아! 들으라. 벼슬이 높고 국록이 족하거늘 무엇이 부족하여 모반할 마음을 두어 나를 해코자 하느뇨?”
 자점이 듣고 무언이거늘, 상이 노하여 왈,
 “경업은 삼국의 유명한 장수요, 또한 만고충신이거늘 네 무슨 일로 죽이려 하느뇨?”
 하시고,
 “자점과 함께한 자를 금부에 가두고 경업은 물러가 쉬게 하라.”
 하시다.
 [A] 경업이 사은하고 퇴궐할새, 자점은 궐문 밖에 나와 심복 수십 명을 매복하였다가, 경업이 나음을 보고 불시에 달려 들어 난타하니, 경업이 아무리 용맹한들 손에 촌철이 없는 지라. 여러 번 맞아 중상하매 자점이 용사들을 분부하여 경업을 옥에 가두고 금부로 가니라.
 이때 대군이 시자(侍者)더러 문왈,
 “임 장군이 입성하였으나 지금 어디 있느뇨?”
 시자가 대왈,
 “소인 등은 모르나이다.”
 대군이 의심하여 바빠 입궐하여 경업의 거처를 묻되, 상이 수말을 이르시니 대군이 주왈,
 “자점이 이런 만고충신을 해하려 하오니 이는 역적이라. 엄치

하소서.”
 하고, 명일을 기다려 친히 경업을 가 보려 하시더라.
 [B] 차시, 경업이 자점에게 매를 많이 받아 천명이 진하게 되매 분기대발하여 신음하다 죽으니, 시년 사십팔 세요, 기축(己丑) 9월 26일이라.
 (중략)
 자점이 반심을 품은 지 오래다가 절도(絶島)에 안치되매 더욱 앙양(愴愴)하여* 불측지심이 나타나거늘, 우의정 이시백이 자점의 일을 아뢰니, 상이 놀라 금부도사를 보내 엄형 국문하신 후 옥에 가두었더니, 이날 밤 한 꿈을 얻으시니, 경업이 나아와 주왈,
 “흉적 자점이 소신을 죽이고 반심을 품어 거의 일이 되었사오니 바빠 국문하옵소서.”
 하고 울며 가거늘, 상이 놀라 깨달으시니 경업이 앞에 있는 듯 한지라. 상이 슬픔을 이기지 못하시고 날이 밝으며 자점을 올려 국문하시니, 자점이 자복하여 역심을 품은 일과 경업을 모해한 일을 승복하거늘, 상이 노하여 자점의 삼죽을 다 내어,
 “저자 거리에서 죽이라.”
 하시고,
 “그 동류를 다 문죄하라.”
 하시며, 경업의 자식들을 불러 하고 왈,
 “너희 아버가 자결한 줄로 알았더니, 꿈에 와 ‘자점의 모해로 죽었다.’ 하기로 내어 주나니 원수를 갚으라.”
 하시다.
 - 작자 미상, 「임장군전」 -
 *부축: 부탁하여 맡김.
 *패초: 임금의 승지를 시켜 신하를 부름.
 *앙양하여: 매우 마음에 차지 아니하거나 야속하여.

36.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인물들의 대립 구도를 통해 서사적인 흥미를 높이고 있다.
 - ② 주인공의 죽음을 제시하여 작품의 비극성을 고조하고 있다.
 - ③ 대화의 내용을 통해 이전에 일어난 사건의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 ④ 악인의 횡포를 징벌함으로써 권선징악의 세계관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적대자와의 지략 대결을 통해 주인공의 초월적 능력을 보여 주고 있다.
37.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경업은 옥에 갇히기 전부터 거짓 조서 때문에 자점의 흉계를 알고 있었다.
 - ② 옥졸은 자점의 부탁을 받고 경업의 죄를 상에게 밀고했다.
 - ③ 대군은 자점을 의심하며 경업에게 옥에 갇힌 경위를 물었다.
 - ④ 우의정 이시백은 경업이 옥에 갇힐 만한 정보를 상에게 제공했다.
 - ⑤ 상은 꿈에 나타난 경업의 발언 이후 자점의 자복을 받아 내었다.

38. <보기>를 참고할 때, [A]와 [B]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임장군전」을 읽은 당시 독자층은 책의 여백과 말미에 특정 대목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적은 다양한 필사기를 남겼다. '식자층'은 "㉠ 대역 김자점의 소행이 혐오스러워 붓을 멈춘다."라는 시각을 나타내거나 "㉡ 잡혔으니 가히 아프고 피로우며 애석하네."라며 경업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한편 '평민층'은 "㉢ 슬프다, 임 장군이여. 남의 손에 죽으니 어찌 천운이 아니라."라며 숙명론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 조회하고 나오는 것을 문외의 무사로 박살하니 그 아니 가엾지 아니리오."라는 안타까운 반응을 남기거나, "㉤ 사람마다 알게 하기는 동국충신의 말입에 혹 만민이라도 깨달아 본받게 합이라."라는 필사기를 남겼다. ㉠, ㉡, ㉢은 경업이 죽는 대목에, ㉣과 ㉤은 경업이 자점에겐 피습되는 대목에 남아 있는 필사기이다.

- ① [B]를 읽은 식자층은, ㉠을 통해 자점의 행위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군.
- ② [A]를 읽은 식자층은, ㉡을 통해 경업의 시련에 대한 안타까움을 나타내고 있군.
- ③ [B]를 읽은 평민층은, ㉢을 통해 경업의 죽음이 자점 때문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의 죽음에 대해 운명론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군.
- ④ [A]를 읽은 평민층은, ㉣을 통해 자점을 비판하면서도 그의 행위에 대한 연민을 드러내고 있군.
- ⑤ [B]를 읽은 평민층은, ㉤을 통해 충신의 이야기가 널리 알려지기를 바라고 있군.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9.11

배 방에 누워 있어 내 신세를 생각하니
 가뜩이 심란한데 대풍(大風)이 일어나서
 태산(泰山) 같은 성난 물결 천지에 자욱하니
 크나큰 만곡주가 나뭇잎 불리이듯
 하늘에 올랐다가 지함(地陷)*에 내려지니
 열두 발 쌍뿔대는 차아*처럼 굽어 있고
 천두 폭 초석(草席) 돛은 만달처럼 배불렀네
 굽은 우레 잔 벼락은 등[背] 아래서 진동하고
 성난 고래 동(動)한 용(龍)은 물속에서 희롱하니
 방 속의 요강 타구(睡具) 자빠지고 엎어지며
 상하좌우 배 방 널은 앞일이 우는구나
 이윽고 해 돋거늘 장관(壯觀)을 하여 보세
 일어나 배 문 열고 문설주 잡고 서서
 사면(四面)을 돌아보니 어와 장할시고
 인생 천지간에 ㉠ 이런 구경 또 있을까
 구만리 우주 속에 큰 물결뿐이로다

(중략)

그중에 전승산이 글 쓰는 양(樣) 바라보고
 필담(筆談)으로 써서 퇴되 전문(傳聞)에 퇴석(退石) 선생
 쉬 짓기가 유명(有名)터니 선생의 빠른 재주
 일생 처음 보았으니 었디어 묻잡나니
 필연코 귀한 별호(別號) 퇴석인가 하나이다
 내 웃고 써서 퇴되 늙고 병든 둔한 글을
 포장(褒獎)을 과히 하니 수괴(羞愧)*키 가이 없다
 승산이 다시 하되 소국(小國)의 천한 선비
 세상에 났삽다가 ㉡ 장(壯)한 구경 하였으니
 저녁에 죽사와도 여한이 없다 하고
 어디로 나가더니 또다시 들어와서
 아롱보(裸)에 무엇 싸고 삼목궤(杉木櫃)에 무엇 넣어
 이마에 손을 얹고 었디어 들어거늘
 받아 놓고 피봉(皮封)* 보니 봉(封)한 위에 쓰였으며
 각색 대단(大緞) 삼단(三單)이요 사십삼 냥 은자(銀子)로다
 놀랍고 어이없어 종이에 써서 퇴되
 그대 비록 외국이나 선비의 몸으로서
 은화를 갖다 가서 글 값을 주려 하니
 그 뜻은 감격하나 의(義)에 크게 가하지 않아
 못 받고 도로 주니 허물하지 말지어다

[A]

[B]

[C]

[D]

[E]

- 김인겸, 「일동장유가」 -

* 지함: 땅이 움푹하게 주저앉은 곳.
 * 차아: 줄기에서 번어 나간 곁가지.
 * 수괴: 부끄럽고 창피함.
 * 피봉: 결봉.

43.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동물의 역동성을 통해 공간의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바꾸고 있다.
- ② 거대한 자연물에 비유하여 악화된 기상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
- ③ 식물의 연약한 속성을 활용하여 화자의 위태로운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상승과 하강의 이미지를 대비하여 목전에 닥친 위기감을 강조하고 있다.
- ⑤ 인물의 행동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열거하여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44.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은 모두 화자의 고난 극복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② ㉠과 ㉡은 모두 화자가 구경하는 대상의 실체를 은폐하고 있다.
- ③ ㉠은 자연의 풍광에 대한 감탄을, ㉡은 인물의 능력에 대한 감탄을 표현하고 있다.
- ④ ㉠은 화자의 관찰력에 대한, ㉡은 화자의 창조력에 대한 타인의 평가를 담고 있다.
- ⑤ ㉠은 대상에 대한 화자의 만족을, ㉡은 대상에 대한 화자의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45.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사행 가사인 「일동장유가」에는 화자와 일본인 문인 사이의 필담 장면이 기술되어 있는데, 필담을 통한 문답 형식은 일종의 대화의 성격을 지닌다. 필담 속에는 대화가 시작되는 상황, 문답의 주요 내용, 의사소통의 심층적 의미, 선비로서의 예법 등이 자연스럽게 포함되어 있다.

- ① [A]는 [B]~[D]의 필담이 시작되는 계기를 보여 주는군.
- ② [B]의 ‘빠른 재주’는 ‘나’의 글에 대한 상대의 평가를, [C]의 ‘늙고 병든 둔한 글’은 자신의 글에 대한 ‘나’의 입장을 보여 주는군.
- ③ [B]의 ‘필담으로 써서 퇴되’와 [C]의 ‘내 웃고 써서 퇴되’를 통해, 문답의 형식을 활용하여 의사소통 장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군.
- ④ [B]의 ‘귀한 별호 퇴석’과 [D]의 ‘소국의 천한 선비’는 선비의 예법을 동원하여 동일한 사람을 다르게 지칭한 표현이군.
- ⑤ [D]에는 ‘나’의 글에 대한 상대의 찬사가 나타나 있고, [E]에는 상대의 글 값에 대한 ‘나’의 거절이 드러나 있군.

MEMO

MEMO

[16~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9.09

(가)

생평(生平)에 원(元)하니 다만 충효(忠孝)뿐이로다
이 두 일 말면 금수(禽獸) | 나 다르리야
마음에 호(好)고져 호(好)야 십재황황(十載皇皇)* 호(好)노라 <제1수>

계교(計校)* 이렇더니 공명(功名)이 늦었어라
부급동남(負笈東南)* 호(好)야 여공불급(如恐不及)* 호(好)는 뜻을
세월이 물 흐르듯 하니 못 이룰까 호(好)야라 <제2수>

강호(江湖)에 놀자 하니 성주(聖主)를 버리겠고
성주를 섬기자 하니 소락(所樂)에 어긋나네
호(好)운자 기로(岐路)에 서서 갈 데 몰라 호(好)노라 <제4수>

출(出)호(好)면 치군택민(致君澤民) 처(處)호(好)면 조월경운(釣月耕雲)
명철군자(明哲君子)는 이틀사 즐기느니
하물며 부귀(富貴) 위기(危機) | 라 빈천거(貧賤居)를 호(好)오리라 <제8수>

행장유도(行藏有道)* 호(好)니 버리면 구태 구(舊)하라
산지남(山之南) 수지북(水之北) 병들고 늙은 나를
위(危)라서 회보미방(懷寶迷邦)* 호(好)니 오라 말라 호(好)노노 <제16수>

성현(聖賢)의 가신 길이 만고(萬古)에 호(好)가지라
은(隱)커나 현(見)커나 도(道) | 어찌 다르리
일도(一道) | 오 다르지 아니커니 아무 텐들 어머리 <제17수>
- 권호문, 「한거십팔곡」 -

- * 십재황황: 급한 마음에 십 년을 허둥지둥함.
- * 계교: 견주어 헤아림.
- * 부급동남: 책을 짊어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함.
- * 여공불급: 이르지 못할까 두려워하듯 함.
- * 행장유도: 쓰이면 세상에 나아가 도(道)를 행하고 버려지면 은둔하는 것을 자신의 상황에 따라 알맞게 함.
- * 회보미방: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서 은둔하는 것은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과 같음.
- * 현: 세상에 나아감.

(나)

진주 장터 생어물전에는
바닷말이 깔리는 해 다 진 어스름을,

울 엄마의 장사 끝에 남은 고기 몇 마리의
빛 발(發)하는 눈깔들이 속절없이
은전(銀錢)만큼 손 안 닿는 한(恨)이던가
울 엄마야 울 엄마,

별 발은 또 그리 멀리
우리 오누이의 머리 맞댄 골방 안 되어
손 시리게 떨던가 손 시리게 떨던가,

진주 남강 맑다 해도
오명 가명
신새벽이나 밤빛에 보는 것을,
울 엄마의 마음은 어머했을까,
달빛 받은 옹기전의 옹기들같이
말없이 글썽이고 반짝이던 것인가.

- 박재삼, 「추억에서」 -

(다)

시의 원심력을 담당하는 비유와 달리 리듬은 시의 구심력을 담당한다. 글자의 개수이건 음의 보폭이건 동일 요소의 반복은 시에 질서를 부여하고 리듬을 형성한다. 그런데 고전 시가의 리듬에는 외적 규율이 전제되어 있는 반면 현대 시의 리듬은 내적 규범을 창출한다. 가령 시조는 4음보를 기본으로 종장 첫 음보는 3음절을 유지하고, 둘째 음보는 그보다 길게 하는 규율을 따른다. 현대 시에서는 따라야 할 규율이 없는 대신 말소리, 휴지(休止), 고전 시가에 없던 쉼표나 마침표 등 모든 요소들의 책임이 더 커졌다. 이들의 반복은 내적 규범을 형성하여 시의 고유한 의미를 만들어 낸다.

“떨위랑 / 드래랑 / 먹고”와 같은 고려 속요의 3음보, “동짓들 / 기나긴 밤을 / 한 허리를 / 버혀 내어”와 같은 시조의 4음보 등 고전 시가의 리듬은 현대에 이르러 해체되었다기보다는 배후로 물러나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약하게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어떤 시는 고전 시가의 리듬이 강하게 감지되어 친숙하지만 어떤 시는 리듬이라고 할 만한 부분이 거의 감지되지 않아 낯설다. 우리는 앞의 예를 김소월의 시에서, 뒤의 예를 이상의 시에서 찾을 수 있다. 한국의 현대 시는 김소월과 이상 사이에서 각각의 좌표를 찍는다.

16.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의문형 어미를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 ② 특정 대상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 ③ 시적 공간의 탈속성이 시상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 ④ 계절적 배경을 소재로 하여 시적 분위기를 고조하고 있다.
- ⑤ 의성어와 의태어를 구사하여 화자의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17.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제2수>의 ‘부급동남’은 <제4수>의 ‘성주를 섬기기’ 위해 화자가 행한 일이다.
- ② <제2수>의 ‘공명’을 이루기 위해 화자는 <제17수>의 ‘성현의 가신 길’을 따르고자 한다.
- ③ <제4수>의 ‘강호’를 화자가 선택한 이유 중 하나는 <제8수>의 ‘부귀 위기’이다.
- ④ <제4수>의 ‘기로’가 <제17수>의 ‘일도’로 나타난 데에서 화자의 내적 갈등이 해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 ⑤ <제8수>의 ‘빈천거를 호’면서도 화자는 <제17수>의 ‘도’를 실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18. <보기>를 통해 (가)를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조선 시대에 과거 급제는 개인이 입신양명하는 길이자 부모에게 효도하고, 임금을 보필할 수 있는 주된 통로였다. 권호문 역시 이를 위해 과거에 여러 번 응시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모친 사후, “뜻을 얻으면 그 은택을 백성들에게 베풀고, 뜻을 얻지 못하면 자신을 수양한다.”라는 유교적 출처관(出處觀)에 따라 은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던 그는 42세 이후 줄곧 조정에 천거되어 정치 현실로 나올 것을 권유받았으나 매번 이를 거절했다. 「한거십팔곡」에는 권호문의 이러한 삶과 생각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① <제1수>의 ‘충효’는 화자가 이루고자 했던 삶의 덕목으로 볼 수 있겠군.
- ② <제1수>에서 화자가 ‘십재황황’하는 모습은 과거에 여러 차례 응시했으나 급제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겠군.
- ③ <제16수>의 ‘행장유도흐니’는 화자가 유교적 출처관을 따르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군.
- ④ <제16수>의 ‘병들고 늙은 나를’은 화자가 정치 현실로 나오려는 권유를 거절하는 표면적 이유라고 할 수 있겠군.
- ⑤ <제16수>의 ‘회보미방’은 조정의 권유에 대한 화자의 답변으로 볼 수 있겠군.

19. (나)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해 다 진 어스름’은 어둠이 깔리는 파장 무렵 ‘생어물전’의 분위기를 보여 주는군.
- ② ‘빛 발하는 눈깔’은 ‘손 안 닿는’ ‘은전’과 연결되어 ‘한’의 정서를 유발하는군.
- ③ ‘손 시리게 떨던가’에서는 추운 밤 ‘별발’ 아래의 ‘글방’ 속에서 느꼈던 행복감이 드러나는군.
- ④ ‘진주 남강’은 공간적 구체성을 보여 주는 한편 낮에 강을 보지 못할 정도로 바빠 생계를 꾸려 가던 ‘울엄매’를 떠올리게하는군.
- ⑤ ‘글썩이고 반짝이던’은 달빛이 비친 ‘옹기’의 표면과 ‘울 엄매’의 눈물을 함께 환기하는군.

20. (다)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에서 각 수의 종장 첫째 음보를 3음절로 한 것은 내적 규범을 따른 것이다.
- ② (가)에서 각 수의 종장 둘째 음보의 글자 수가 첫째 음보의 글자 수보다 많은 것은 따라야 하는 규칙을 위반한 것이다.
- ③ (나)에서 ‘울 엄매야 울 엄매’는 울림소리의 반복으로 리듬을 창출하고 화자의 정서를 표출한 것이다.
- ④ (나)에서 ‘오명 가명’은 외적 규율에 따라 ‘ㅇ’을 반복하여 일터의 무료한 삶에 생동감을 불어넣은 예이다.
- ⑤ (나)에서 1년부터 3년까지 쉽표로 연을 마무리한 것은 고전 시가의 리듬을 계승한 예이다.

[26~2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19.09

길동이 대회하여 채문 안에 들어가니 비단 병풍을 치고 영웅 호걸 수백이 앉았는지라. ㉠그중에 상좌(上座)의 사람을 보니, 청포운삼에 자금관을 쓰고 팔을 가볍게 들며 용력을 자랑하니, 길동이 거만하게 들어가 길게 읊만 하고 절하지 않으며, 좌우 중인을 하찮게 여기고 뒷자리에 앉으니, 청포 입은 사람이 먼저 문왈,

“소년은 어디로 오며, 성명은 뭐라 하느뇨?”

길동이 대왈,

“나는 다른 사람이 아니요, 서울 장안에 있는 홍 정승의 아들이러니, 들은즉 활빈당에 천하 역사(力士) 모여 용맹을 자랑한다 하기로 내 한번 찾아와 힘을 자랑코자 왔나니, 그대 등은 무슨 재주와 용력이 있으며, 나와 ㉡시험할쏘냐?”

그 사람들이 길동의 말을 듣고 서로 바라볼 뿐 답을 못 하더니, 상석에 앉은 사람이 방목(榜目)을 지어 가지고 쓴 ㉢글을 내어 왈,

“그대는 이 세 가지를 행할쏘냐?”

[가] 하거늘 길동이 받아 보니,

“제일은 이 앞에 초부석(樵夫石)이란 돌이 있되 무게 천 근이라, 능히 그 돌을 들면 우리 우두머리를 삼을 것이요, 제이는 무쇠로 철관을 만들었으니 무게 오백 근이라, 그 철관을 쓰고 이 앞 돌문 삼백 단을 세웠으니 그 돌문을 뛰어넘으면 가히 그 용맹을 알 것이요, 또한 해인사라 하는 절이 있되 재물이 누거만(累巨萬)이요, 그 절 중의 용맹이 과인하기로 우리 등이 마음대로 못하는 고로, 우두머리에게 지략과 술법을 배우고 이후에 ㉣상장군 자리에 모시려 하나이다.”

길동이 한 번 보고 대소 왈,

“이 세 가지를 어렵다 하니, 어찌 가소롭지 아니하리오?”

하고, 모든 역사를 테리고 초부석 있는 곳에 나아가 혼연히 소매를 걷고 그 돌을 잡아 공중에 던지니, 그 돌이 미처 땅에 떨어지기 전에 발로 돌을 차니 수십 보 밖에 내려지는지라. 중인이 대경하여 또 돌문 앞에 나아가니, 길동이 또한 ㉤철관 오백 근을 쓰고 돌문 삼백 단을 넘어가니, 모든 무리 일시에 고함하여 왈,

“천하장사로다!”

하고 용력을 칭찬하고, 길동을 장군 자리로 모신 후에 여러 도적 천여 명이 일시에 자리 아래 엎드려 군례(軍禮)를 마친 후에 그 용맹을 치하하더라.

(중략)

상이 하교하사 왈,

“경은 자식을 분명히 알지라. 저 많은 길동 중에 경의 자식을 잡아내라.”

하신대, 홍 의정 주왈,

“신의 자식 길동은 왼쪽 다리의 붉은 기미, 용의 비늘 같은 일곱 점이 있사오니, 그를 보면 알리이다.”

상이 그리 여겨,

“빨리 잡아들여 수검(搜檢)하여 보라.”

하신대, 홍 의정이 물러나와 길동을 바라보고 왈,

“내 자식 길동은 빨리 나와 나를 보라.”

한대, 무수한 길동이 홍 의정을 보고 다 나와 절하여 왈,

“부친께선 강녕하시나이까?”

하거늘, 홍 의정 왈,

“내 자식은 왼쪽 다리에 검은 일곱 점이 있으니, 일곱 점 있는 자 길동이라.”

하니, 많은 길동이 홍 의정 말을 듣고 일시에 다리를 걷고 보이니 각각 일곱 점이 있는지라. 홍 의정이 할 수 없어 상께 주왈,

“신의 역자(逆子)를 조사하여 밝힐 수 없사오니, 황공 대죄 하나이다.”

상이 진노하사 길동을 보시고 왈,

“너희 등은 물러가 임의로 하라.”

하시고 금부도사를 명하여 다 물러 보내라 하시니, 모든 길동 등이 나올새 종일토록 나오더니, 그제야 참 길동이 다시 췌내에 들어가 명을 받들고 절하며 슬피 통곡하여 왈,

“신의 아버 대대로 국을 입었거늘 신이 어찌 나라를 저버리리까? 신의 몸이 천비(賤婢)에서 나와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하옵고 형을 형이라 못하여 제 몸이 천대를 받으며, 여의주 없는 용이요 날개 부러진 봉이라, 어찌 장부의 힘을 갖고 속절없이 집안에서만 늙으리까? 그러므로 한번 재주를 시험코자 ㉥각 읍 각 관을 치고 군기를 탈취하기는 신의 책략을 자랑 함이요, 상의 어위대장 이흠을 속임도 재주를 보임이요, 또 신의 기슭에 경서와 병서와 음양조화며 세상을 다스릴 재주를 지녔사오니 어찌 속절없이 세월만 보내오리까? 복걸 ㉦상께서 신에게 병조판서 삼 년만 재수하시면 남의 천대를 면하옵고 충성을 다하여 상을 받들리다.”

상이 길동의 아뢰을 듣고 탄식하여 왈,

“난세의 영웅이로다. 어찌 쓰지 아니 하리요?”

즉시 공부상서를 명해 홍길동에게 병조판서를 제수하니,

㉧뒷일은 어찌 된고? 다음 권을 불지어다.

- 「홍길동전」 -

26.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청포 입은 사람’은 길동의 정체를 궁금해한다.
- ② 길동은 활빈당 무리에게 자기를 소개하며 자신감을 드러낸다.
- ③ 홍 의정은 ‘참 길동’을 찾으라는 상의 명령에 유보적 태도를 보인다.
- ④ 무수한 길동이 홍 의정 앞에서 동일한 언행을 보이고 있다.
- ⑤ 상에게 길동은 자신이 저지른 행위의 이유를 밝히고 있다.

27. [가]의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길동이 활빈당 무리와 한편이 될 수 없음을 보여 준다.
- ② ㉡는 길동에게 활빈당이 세워진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려준다.
- ③ ㉢는 길동이 활빈당에서 ㉡에 제시된 과제를 통과하면 차지할 지위이다.
- ④ ㉠은 길동이 활빈당에서 자아를 실현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와 ㉢는 이를 방해하는 역할을 한다.
- ⑤ ㉠은 길동이 활빈당에서 무리들과 갈등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와 ㉢는 이를 심화하는 역할을 한다.

28. <보기>를 참고하여 ㉠~㉣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홍길동전」은 19세기에 오면 특정 대목을 확대·변형한 이본이 여럿 등장한다. 윗글은 이러한 이본 중 하나로, 이전에는 길동이 용력을 과시하는 장면이 바위를 드는 것으로만 제시되었으나 윗글에서는 철관을 쓰고 돌문을 넘는 장면이 추가되었다. 또한 활빈당의 우두머리가 되는 장면에서는 활빈당을 이끌던 수령을 새롭게 등장시켜 자신의 자리를 길동에게 넘겨주는 것으로 흥미를 높였다. 특히 이전에는 왕이 길동을 잡기 위한 계략으로 병조판서를 제수하였지만 윗글에서는 길동이 왕에게 직접 요구하여 원하던 바를 얻는 것으로 변형하였다. 이는 자신의 능력에 따라 신분 상승이 가능하기를 바라던 당대 독자들의 욕망을 작품에 반영한 것이다. 단, 이 과정에서 군신 관계를 바탕으로 한 조선의 유교적 질서에 대한 부정으로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 한편, 특정 장면에서 서술을 중단한 것은 다음 권을 보게 하려는 소설업자들의 상업적 전략에서 나온 것이다.

- ① ㉠은 추가된 인물을 통해서 작품의 흥미를 높이려는 것이겠군.
- ② ㉡은 길동의 용력을 보여 주는 장면이 더해진 것이겠군.
- ③ ㉢은 군신 관계를 바탕으로 한 유교적 질서를 무너뜨리고자 한 시도이겠군.
- ④ ㉣은 주인공의 신분 상승을 바라는 독자의 욕망이 반영된 것이겠군.
- ⑤ ㉣은 독자들의 궁금증을 유발하여 돈을 벌려는 소설업자의 전략으로 볼 수 있겠군.

[39~4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19.09

[앞부분 줄거리] 공동 경비 구역에서 근무하는 국군 이수혁 병장, 남성식 일병(수정의 오빠)과 인민군 오경필 중사, 정우진 전사 사이에 총격 사건이 일어난다. 중립국 감독 위원회는 소피 소령을 파견하여 보타 소장 관할 아래 사건을 조사하게 한다.

㉠ S#79. 팔각정 (낮)

팔각정에서 본 판문각 근처 부감* 전경 — 대질 심문을 받고 나온 수혁, 경필 일행이 회담장 앞에서 각각 차를 타고 현장을 떠난다. 카메라, 후진하면서 팔각정 내부로 초점 이동하면 보타의 손이 쑥 들어와 서류 봉투를 내민다.

소피: (영어) (봉투를 받아 들고) 뭐죠?

보타, 대답 대신 관측경을 들여다본다.

보타: (영어) 한국이 처음이었지?

㉡ 보타의 관측경으로, 판문각 앞에서 쌍안경을 들고 이쪽을 관찰하는 북한 군인이 보인다.

보타: (영어) (목소리) 그래 ‘아버지’ 나라가 마음에 들던가?

㉢ 판문각 쪽에서 북한 군인의 쌍안경 시점으로, 사진을 보고 있는 소피의 모습이 잡힌다.

보타의 설명 사이사이, 한국전 당시 거제도 포로수용소의 생활과 좌우 투쟁, 종전 후 공산 포로 복송, 반공 포로 석방 및 제3국행 포로의 출발과 도착 장면들이 사진과 기록 영화 화면으로 편집된다.

보타: (영어) (목소리) ㉣ 한국전 당시 거제도에는 인민군 포로 수용소가 있었지. 그 속에서 공산주의자와 반공주의자, 두 무리 간엔 처참한 살육이 계속됐어. 종전되고 그들에게 선택권이 주어졌어. 남으로의 귀순이나, 북으로의 귀환이나... 그 17만 포로 중 76명은 둘 다를 거부했어. 그들 중 지금도 행방이 묘연한 사람이 있네. 바로... 자네 아버지 장연우 같은 사람이지.

소피, 놀란 얼굴로 손에 든 다른 사진을 내려다보면 거제 포로 수용소에서 포로들, 결박당한 채 쪼그리고 앉아 있다. ㉤ 그중 동그라미가 처진 사람 얼굴로 zoom in*.

보타: (영어) 표 장군이 매우 쩌빠게 움직였더군. 국방부, 외무부, 인도, 아르헨티나, 스위스 대사관... 며칠 사이 정보란 정보는 다 모았어. 표 장군으로선 ㉥ 전 인민군 장교의 딸인 자네에게 사진을 맡길 수 없었겠지.

소피: (영어) (흥분해서) 3일이면 돼요. 곧 이 병장의 자백을 받아낼 수 있다가요.

(중략)

㉦ S#81. 소피의 숙소 (낮)

침대에 가방을 올려놓고 짐을 싸는 소피. 사진 액자를 가방에 넣으려다 말고 들여다본다. 어린 시절의 소피와 스위스인 엄마 사진. 액자 뒤를 열어 가족사진을 꺼낸다. 접힌 부분을 펴자 숨겨진 아버지의 모습이 온전히 나타난다. 물끄러미 사진을 바라보는 소피.

S#82. 수사본부 (낮)

문이 열리고 들어오는 수혁, 목발을 짚었다. 사진을 바라보고 앉아 있는 소피.

소피: (수혁을 돌아보며) 오라고 해서 미안해요. 몸도 불편한데.

영문을 모르고 불러 온 수혁이 가만히 지켜보는 가운데, 탁자에 놓인 서류 봉투를 집어 들고 출입구 앞으로 가는 소피, 과녁판에서 다트 화살을 뽑아 든 다음 서류 한 장을 훑아 고정 시킨다.

소피: 내일 자정을 기해 나를 제이에스에이 근무에서 해제한다는 명령서예요.

수혁: 들었습니다, 아버지 얘기.

소피: 그래, 내가 인민군 장교의 딸이란 얘길 듣고 기분이 어떻게 된가요?

수혁: (주저 없이) 친근감이 들었습니다.

㉧ 소피, 당황한 듯 잠시 침묵했다가 군복 안에 반쳐 입은 터틀넥 스웨터의 목을 걸쳐 보인다. 목에 나 있는 피명 자국.

소피: 난 아직 흔적이 남아 있는데 이 병장은 깨끗하네요. 이 병장이 오 중사보다 힘이 센가 보지요?

당황하는 수혁, 대답 없다.

소피: 자, 진짜 재미난 쇼는 이제부터예요. 잘 봐요.

수정의 얼굴이 프린트된 출력물을 과녁판에 꽂는 소피. 당황하는 수혁.

소피: 수정 씨를 만나자마자 전에 본 적이 있는 얼굴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내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죠.

이번에는 수정의 초상화를 과녁판에 꽂는 소피. 놀라는 수혁.

소피: 정우진이 그린 초상화예요. 그리고 이걸 (찢어져 너털 너털한 얼굴 없는 사진을 과녁판에 꽂으며) 정우진의 시신에서 나온 사진이에요.

과녁판에 나란히 부착된 ㉨ 석 장의 이미지. 충격받은 표정의 수혁.

소피: ‘사라진 탄환’이 남 일병의 알리바이를 깨는 증거였다면... (얼굴이 찢겨 나간 사진을 가리키며) ‘사라진 얼굴’은 네 명의 병사가 오랫동안 친하게 지냈다는 걸 뜻하는 증거죠.

수혁, 애써 외면하고 걸어간다.

수혁: 그래서요?

㉔ 노란색과 빨간색 디스켓 두 개를 꺼내 보이는 소피.

소피: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수사 보고서예요. 내가 뭘 제출하느냐는 이 병장한테 달렸어요. 진실을 말해 준다면 난 후임자에게 어떤 증거나 추리도 제공하지 않겠어요.

수혁: 협박입니까?

소피: 거래죠.

수혁: 영창을 가둔 훈장을 받든 전 관심 없습니다. 그렇다면 ㉕ 진실의 대가로 소령님이 저한테 해 줄 수 있는 게 뭐니까?

소피: 이 병장이 끝까지 보호하려고 하는 사람... 오경필의 안전이에요.

- 박상연 원작, 박찬욱 외 각색, 「공동 경비 구역 JSA」 -

* 부감: 카메라가 인물의 시선보다 높은 곳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며 촬영하는 것.

* 줌인: 피사체의 크기를 점점 확대 촬영하는 것.

39. 윗글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소피'의 아버지는 전쟁이 끝나자 북으로 귀환한다.
- ② '소피'는 사건의 진실에 대해 조사 의지가 없다.
- ③ '수혁'은 '소피'의 아버지의 진력을 듣고 '소피'를 경계한다.
- ④ '소피'는 '사라진 얼굴'이 누구인지 짐작하지 못한다.
- ⑤ '소피'는 '수혁'이 '오경필'의 안전을 염려한다고 생각한다.

40. ㉑~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㉑의 공간 범위는 팔각정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도 포함한다.
- ② ㉒는 '소피'가 직무에서 해제되는 원인이 된다.
- ③ ㉓는 '소피'가 네 병사의 관계를 짐작하게 된 단서이다.
- ④ ㉔는 '수혁'이 진실을 밝히느냐에 따라 어느 것이 제출될지가 정해질 것이다.
- ⑤ ㉕는 '수혁'이 수사본부에 있는 '소피'를 만나러 온 이유이다.

41. 윗글을 영상화한다고 가정할 때, ㉑~㉕에 해당하는 감독의 연출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㉑과 ㉒은 각각 관측경과 쌍안경으로 상대측을 바라보는 장면을 설정하여 남북한 대치 국면에 있는 S#79 공간의 특수성을 그려야겠어.
- ② ㉓은 인물에 초점을 맞추는 촬영과 달리 사진이나 기록 영상물을 제시하여 당시 상황을 보여 주어야겠어.
- ③ ㉔은 동그라미 처진 얼굴을 확대 촬영하여 '소피'의 아버지가 포로 중 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환기해야겠어.
- ④ ㉕은 대사 없이 인물의 행동과 소품으로 인물의 심리를 간접적으로 표현해야겠어.
- ⑤ ㉕은 사건의 맥락이 관객에게 인지될 수 있도록 실내 전체를 한 화면에 담아야겠어.

[42~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19.09

도시의 발전은 옛 성벽을 깨트리고, 아직도 초평(草坪)이 남아 있는 이 성 밖으로 뛰여 나오기 시작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아직도 자리 잡히지 않은 이 거리의 누렁던 길이 매연과 발걸음에 나날이 짙어서 ㉠꺼멧게 멧들기 시작한 이 거리를 지나면 얼마 안 가서 옛 성문이 있었다. 그 성문을 통하여 이 신작로의 수직선으로 뚫린 시가가 바라보이는 것이었다. 그 성문 밖을 지나치면 신흥상공 도시라는 이 도시의 공장 지대에 들어서게 된다. 병일이가 봉직하고 있는 공장도 그곳에 있었다. 병일이는 이 길을 2년간이나 걸었다. 아침에는 집에서 공장으로, 저녁에는 공장에서 집으로 가는 가장 가까운 길이므로 이 길을 걷는 것이었다.

병일이는 취직한 지 2년이 되도록 신원 보증인을 얻지 못하였다. 매일 저녁마다 병일이가 장부의 시재(時在)를 막아 놓으면, 주인은 금고의 현금을 헤었다. 병일이가 장부에 적어 놓은 숫자와 주인이 헤인 현금이 맞맞아떨어진 후에야 그날 하루의 일이 끝나는 것이었다. 주인이 금고 문을 잠근 후에 병일이는 모자를 집어 들고 사무실 문밖에 나선다. 한 걸음 앞서 나섰던 주인은 곧 사무실 문을 잠가 버리는 것이었다. 사무실 마루를 쓸고, 흙치고, 손님에게 차와 점심 그릇을 나르고, 수싯 장의 편지를 쓰고, 장부를 정리하는 등 ㉢소사와 급사와 서사의 일을 한 몸으로 치르고 난 뒤에 하숙으로 돌아가는 병일의 다리와 머리는 물병과 같이 무거웠다.

주인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공장 문밖을 나서면 하루의 고역에서 벗어났다는 시원한 느낌보다도 작은 별들이 반짝이는 하늘 아래 말할 수 없이 호젓해짐을 금할 수 없었다. 그는 주인 앞에서 참고 있었던 담배를 가슴 속 깊이 빨아 들이켜며, ㉣2년 내로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신원 보증인을 다시금 궁리하여 보는 것이었다. 현금에 손을 대지 못하고, 금고에 들어 있는 서류에 참견을 못 하는 것이 책임 문제로 보아서 무한히 간편한 것이지만 ㉤취직한 첫날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변함없이 자기를 감시하는 주인의 꾸준한 태도에 병일이라도 꾸준히 불쾌한 감을 느껴온 것이었다. 주인의 이러한 감시에 처음 얼마 동안은 신원 보증이 없어서 그같이 못 미더운 자기를 그래도 써 주는 주인의 호의를 한없이 감사하고 미안하게 여겼다. 그다음 얼마 동안은 병일이가 스스로 믿고 사는 자기의 담박한 성정을 그리도 못 미더워하는 주인의 태도에 원망과 반감을 가지게 되었다.

(중략)

근자에 병일이는 사무실에서 장부 정리를 할 때에도 혹시 후원에서 성내 소와 같이 거닐고 있던 니체가 푸른 이끼 돋친 바위를 붙안고 이마를 부딪치는 것을 상상하고 작은 신음 소리가 나오려는 것을 깨닫고는 몸서리를 치기도 하였다. 그럴 때마다 곁에서 담배를 피우며 신문물 뒤적이고 있는 주인을 바라볼 때 ㉥신문 외에는 활자와 인연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들의 생활이 부럽도록 경쾌한 것 같았다. 사실 ㉦월급에서 하숙비를 제하고 몇 푼 안 남는 돈으로 탐내어 사들인 책들이 요즈음에는 무거운 짐같이 거웠다. 활자로 박힌 말의 퇴적이 발호하여서 풍겨 오는 문학의 자극에 자기의 신경은 확실히 피곤하여졌다고 병일은 생각하였다.

피곤한 병일이는 사무실에서 돌아올 때마다 이 지루한 ㉧장마는 언제까지나 계속할 셈인가고 중얼거렸다. 지금부터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의 시간'이라고 생각하며 돌아가는 길에 언제나 발을 멈추고 바라보는 성문을 요즈음에는 우산 속에 숨어서 그저 지나치는 때가 많았다. 혹시 생각나서 돌아볼 때에는 수 없는 빗발에 씻기며 서 있는 ㉨누각을 박쥐조차 나들지 않았다. 전날 큰 구멍이가 기왓장을 떨어쳤다는 말이 병일에게는 육친의 시체를 보는 듯한 침울한 인상을 주는 것이었다. 모기 소리와 반대 뱀새와 반들거리다가 새침히 뛰어오르는 벼룩이가 기다릴 뿐인 바람 한 점 없는 ㉩하숙방에서 활자로 시꺼멧게 메워진 책과 마주 앉을 용기가 없어진 병일이는 어떤 유혹에 끌리듯이 ㉪사진관으로 찾아가게 되었다.

사진사도 병일이를 환영하였다. 그리고 거기는 술과 한담이 있었다. 아직껏 취흥을 향락해 본 경험이 없던 병일이는 자기도 적지 않게 마시고 제법 사진사와 같이 한담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것이 만족하게 생각되기도 하였다. 사진사가 수다스럽게 주위 섬기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동안에 병일이는 ㉫문득 자기를 기다릴 듯한 어젯밤 띄놓은 대로 있을 책을 생각하고 시계를 쳐다보기도 하였으나 문밖에 빗소리를 듣고는 누구에 대한 것인지도 모른 송구한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이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이야기에 신이 나서 있고 있는 사진사의 잔을 집어서 거꾸 마셨다.

밤 12시가 거진 되어서 하숙으로 돌아가는 병일이는 비를 맞는 것이 오히려 마음이 편하였다. '이것이 무슨 것이냐!' 하는 반성은 갈라진 검은 구름 밖으로 보이는 별 밑에 한층 더하므로 '이 생활은 일시적이다. 장마의 탓이다.' 하는 생각을 오는 비에 핑계 하기가 편하였던 것이다. 책상 앞에 돌아온 병일이는 '내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이 모두 없어진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고 있는 자기를 발견하는 것이었다. 이른 아침 시간을 위하여 자야할 병일이는 벌써 깊이 잠들었을 사진사의 ㉬코 고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여 잠이 오지 않았다.

- 최명익, 「비 오는 길」 -

42.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풍자적 어조를 통해 세태를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 ② 상황에 대한 인물의 주관적인 판단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다.
- ③ 인물의 과장된 말과 행동을 통해서 비극적인 분위기에 반전을 피하고 있다.
- ④ 자연에 대한 감각적인 묘사를 중심으로 환상적인 분위기를 그려내고 있다.
- ⑤ 빈번하게 장면을 전환하여 인물들 사이에 조성된 긴장감을 해소하고 있다.

43.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변화하고 있는 주변 환경을 말하고 있다.
- ② ㉡는 '병일'이 '사무실'에서 하는 반복적인 일이다.
- ③ ㉢는 피곤한 '병일'에게 지루함을 더하는 요인 중 하나이다.
- ④ ㉣는 노동에서 벗어난 '병일'이 '나의 시간'을 보내는 곳이다.
- ⑤ ㉤는 '병일'의 휴식을 방해하는 상상의 소리이다.

44. <보기>를 참고하여 ㉠~㉣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소망이나 욕구가 충족되지 못해서 갈등을 겪는 개인은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빠진다. 특히 사회적으로 불안정한 처지에 놓여 있는 개인은 긴장과 갈등 상황에 과민하게 반응하며 현실에 적응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 과정에서 불쾌감, 고독, 우울, 불면 같은 심리적 불안 증세가 표출된다. 이 같은 증세를 보이는 개인은 불안을 야기하는 요소를 차단하기 위해 자기만의 세계에 몰두하려고 한다. 그렇다고 자기만의 세계에 만족하는 것은 아니며 타인의 삶에 대한 관심과 실망을 오가는 이중적 감정을 드러낸다.

- ① ㉠은 사회적으로 불안정한 처지에 놓여 있는 '병일'의 상태를 보여 주는군.
- ② ㉡는 자신이 의심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병일'의 심리적 불안이 드러난 예이군.
- ③ ㉢에서는 자신의 세계에 만족하지 못하는 '병일'이 타인의 세속적 삶에 관심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④ ㉣에서는 자신이 몰두하던 세계에서 '병일'이 더 이상 만족을 찾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⑤ ㉤에서는 '병일'이 타인의 삶에 대한 관심과 실망을 오가고 있음을 알 수 있군.

45. 하숙방과 사진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하숙방은 '병일'이 자신을 대면하는 고독한 곳이고, 사진관은 삶에 지친 '병일'이 일시적으로 도피하는 곳이다.
- ② 하숙방은 '병일'이 '니체'에 관한 상상을 하였던 곳이고, 사진관은 '사진사'에 대한 '병일'의 동정이 드러나는 곳이다.
- ③ 하숙방은 '병일'이 자신의 사회적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곳이고, 사진관은 '병일'에게 위안을 주는 곳이다.
- ④ 하숙방은 '주인'의 감시가 계속되는 곳이고, 사진관은 '병일'이 이전에 해 보지 못한 경험을 하는 곳이다.
- ⑤ 하숙방은 '병일'이 '고역'을 지속하는 곳이고, 사진관은 '병일'이 자신의 과거를 긍정하는 곳이다.

[27~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9.06

(가)

산과 산이 마주 향하고 믿음이 없는 얼굴과 얼굴이 마주 향한
항시 어둠 속에서 꼭 한 번은 **천동 같은 화산**이 일어날 것을
알면서 요런 자세로 꽃이 되어야 쓰는가.

저어 서로 응시하는 쌀쌀한 풍경. 아름다운 풍토는 이미 고구려
같은 정신도 신라 같은 이야기도 없는가. **별들이 차지한 하늘**은
끝끝내 하나인데 …… 우리 무엇에 불안한 얼굴의 의미는 여기에
있었던가.

모든 **유헐(流血)**은 꿈같이 가고 지금도 나무 하나 안심하고서
있지 못할 광장. 아직도 **정맥**은 끊어진 채 휴식인가 아위어가는
이야기뿐인가.

언제 한 번은 불교야 말 독사의 혀같이 **징그러운 바람**이어.
너도 이미 아는 모진 겨우살이를 또 한 번 겪으려는가 아무런
죄도 없이 피어난 꽃은 지방의 자리에서 얼마를 더 살아야
하는가 아름다운 길은 이뿐인가.

산과 산이 마주 향하고 믿음이 없는 얼굴과 얼굴이 마주 향한
항시 어둠 속에서 꼭 한 번은 **천동 같은 화산**이 일어날 것을
알면서 **요런 자세**로 꽃이 되어야 쓰는가.

- 박봉우, 「휴전선」 -

(나)

듣음은 못하고, 그저 시골장이나 떠돌던
소리꾼이 있었다, 신명 한 가락에
막걸리 한 사발이면 그만이던 흰 두루마기의 그 사내
꿈속에서도 폭포 물줄기로 내리치는
한 대목 절창을 찾아 떠돌더니
오늘은, **왓새*** 울음 되어 우항산 솔밭을 다 적시고
우포늪 둔치, 그 눈부신 봄빛 위에 **자운영** 꽃불 질러 놓는다
살아서는 근본마저 알 길 없던 **혈혈단신**
털털한 얼굴에 달빛 같은 슬픔이 엉켜 수염을 흔들곤 했다
늙은 **고수**라도 만나면
어깨 들썩 산 하나를 흔들었다
필생 동안 그가 찾아 헤맸던 소리가
적막한 늪 뒷산 **솔바람** 맑은 가락 속에 있었던가
소목 장재 **토펽마** 양파들이 시퍼런 물살 몰아칠 때
일제히 깃을 치며 **동편제*** 넘어가는
저 **왓새**들
완창 한 판 잘 끝냈다고 하늘 선회하는
그 소리꾼 **영혼**의 심연이
우포늪 **꽃잔치**를 자지러지도록 무르익힌다

[A]

[B]

[C]

[D]

[E]

- 배환봉, 「우포늪 왓새」 -

* 왓새: 왜가리의 별명.
* 동편제: 판소리의 한 유파.

(다)

그 바위를 가리켜 어느 건방진 옛사람이 오심암(吾心岩)이라고
이름을 지어 주었다 한다. 그보다도 조금 겸손한 누구는 세심암
(洗心岩)이라고 불렀다 한다.

기운차게 일어선 산밭이 이곳에 이르러 오심암의 절경을
남기기 위하여 한 둥근 골짜기를 이루어 놓고 다시 다물어졌다.

질은 단풍 빛에 붉게 누렇게 물든 **검은 절경**의 성장(盛裝), 그
것을 선을 두른 동해보다도 더 푸른 하늘빛, 천사가 흘러고 간 형
깊인 듯 봉우리 위에 가볍게 비낀 백옥보다도 흰 얇은 구름 조각.

이것은 분명히 자연이 흘려 놓은 예술의 극치다. 그러나 겸손한
자연은 그의 귀한 예술이 홍진(紅塵)에 물들 것을 염려하여
그것을 이 깊은 산골짜기에 감추었던 것인가 보다.

어귀까지 '버스'를 불러오고 이곳까지 2등 도로를 끌어 오는
것은 본래부터 그의 뜻은 아니었을 게다. 오직 사람만이 장하
지도 아니한 그들의 예술을 천하에 뽐낼 기회만 엿보나 보다.

둘러보건대 이 골짜기에는 일찍이 먼지를 품은 **미친 바람**과
같은 것은 지나가 본 일이 아주 없었나 보아서 **아득히 쳐다
보이는 높은 하늘** 아래 티끌을 품은 듯한 아무것도 없다. 잠깐
내 자신을 굽어보니 허영케 먼지 낀 의복, 그 밑에 숨은 먼지
낀 내 똥똥어리, 그리고 또 그 속에 얹드린 먼지 낀 내 마음,
나는 그 텃기 모르는 순결한 자연 속에 쓰레기처럼 동떨어진
내 몸의 더러움을 새삼스럽게 부끄러워하였다.

(중략)

차디찬 **바위** 위에 신발을 벗고 모자를 던지고 외투를 벗어
팽개치고 반듯이 누워서 눈을 감으니 인생도 예술도 다 어디로
사라지고 오직 끝없는 **망각**이 내 마음을 아니 우주를 채우며
온다. 그러나 몸을 식히며 스며드는 **찬기**는 어느새 거리에서
멀리 떨어진 우리들의 위치를 깨닫게 한다. 우리는 채 씻기지
않은 마음을 거두어 가지고 잠시나마 정을 들인 오심암을 두 번
세 번 돌아다보면서 간 길을 다시 내려오기 시작하였다. 좋은
벗 떠나기란 싫은 것처럼, 좋은 자연에도 석별의 정은 마찬가
진가 보다. 또한 좋은 음식을 만났을 때 벗을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떠나고 싶지 않은 자연을 앞에 두고는 멀리
있는 벗들이 갑자기 그리웁다. 나는 마음속으로 어느새 오심암
에게 무언(無言)의 약속을 주어 버렸다.

'내년에는 벗을 데리고 또 찾아오마고.'

- 김기림, 「주을운천행」 -

27.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간의 삶과 공간의 의미를 연결 지어 주체 의식을 구체화하고 있다.
- ② 갈등과 대립이 없는 화합의 세계를 보여 줌으로써 희망적인 미래를 예견하고 있다.
- ③ 역사적 상황을 직시함으로써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려는 참여 의식을 표방하고 있다.
- ④ 자연이 인간에게 미친 긍정적인 영향을 강조함으로써 사물에 대한 예찬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⑤ 특정한 장소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인간의 교만한 태도에 대한 비판을 이끌어 내고 있다.

28.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설의적 표현으로 현실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 ② (나)는 청각의 시각화를 통해 소재의 생동감을 부각하고 있다.
- ③ (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는 시선의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④ (가)는 동일한 시구를 반복하여, (나)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활용하여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화자의 인식을 자연물에 투영하여 시적 정서를 환기하고 있다.

29. (가)와 (다)에 대한 감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의 '천둥 같은 화산'은 신뢰를 잃은 상황이 초래한 불안한 현실을, (다)의 '검은 절경'은 아름다움을 잃은 풍경에서 느껴지는 암울한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② (가)의 '별들이 차지한 하늘'은 하나로 이어진 세계를, (다)의 '이득히 쳐다보이는 높은 하늘 아래'는 흠결 없는 세계를 그려내고 있다.
- ③ (가)의 끊어진 '정맥'은 '유혈'을 이겨낸 삶의 의지를, (다)의 엄습하는 '찬기'는 정든 곳을 떠나야 하는 절망감을 환기하고 있다.
- ④ (가)의 '징그러운 바람'은 미래에 닥칠지 모를 모진 상황을, (다)의 '미친 바람'은 삶에서 지켜야 할 소중한 존재를 상징하고 있다.
- ⑤ (가)의 '꽃'은 죄 없이 '요런 자세'로 삶에 순응하는 존재를, (다)의 '바위'는 지나온 과거를 '망각'하며 삶을 회회하는 존재를 표현하고 있다.

30. <보기>를 참고하여 [A]~[E]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이 시의 화자는 '우포늪'에서 왓새 울음소리를 들으며, 득음을 못한 채 생을 마감했던 한 '소리꾼'을 상상적으로 떠올리고 있다. 화자는 왓새 울음소리에서 고단하고 외로웠던 소리꾼이 평생을 추구했던 절창을 연상함으로써, 우포늪의 생명력이 소리꾼의 영혼을 절창으로 이끌었음을 표현하고자 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세계에서 창조되는 예술의 경지와 우포늪의 아름다움을 조화롭게 형상화한 것이다.

- ① [A]: 화자는 왓새 울음소리와 우포늪의 풍경을 연결 지어 소리꾼이 추구했던 절창을 상상적으로 떠올리고 있다.
- ② [B]: 득음의 경지를 찾아 떠돌았던 소리꾼의 얼굴에 묻어가는 삶의 비애를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③ [C]: 소리꾼이 평생 추구했던 절창을 우포늪에서 찾아낸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④ [D]: 화자가 상상적으로 떠올린 세계를 우포늪 일대의 현실적 공간과 결부하고 있다.
- ⑤ [E]: 날아가는 왓새와 완창을 한 소리꾼을 대비하여 자연과 인간이 통합된 예술의 형상을 사실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31. <보기>는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학생들이 (다)를 감상한 내용이다. ㉠~㉥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선생님: 수필은 글쓴이의 성찰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반성적이고, 깨달음을 전한다는 점에서 교훈적이며, 인생과 사회에 대한 인식과 판단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비판적인 특징을 갖습니다. 글쓴이의 발상과 통찰은 제재에서 새로운 의미를 이끌어 내고, 글쓴이의 문체는 내용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데 활용되지요. 그러면 이 작품에 드러난 수필의 특징을 확인해 봅시다.

학생 1: 가을의 풍경을 효과적으로 그려 내기 위해 감각적인 문체를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

학생 2: '예술의 극치'와 '장하지도 아니한' 예술을 대비하는 데에서, 인간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엿볼 수 있어요. ㉡

학생 3: '오심암'의 경치에서 '겸손한 자연', '순결한 자연'을 이끌어 내는 데에서, 대상의 새로운 의미에 대한 통찰을 엿볼 수 있어요. ㉢

학생 4: 인간의 삶에서 자연이 '티끌'처럼 작아 보인다고 한다는 점에서, 사색을 통해 교훈을 얻는 수필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어요. ㉣

학생 5: '먼지 낀 의복'을 보고 '몸뚱어리'와 '마음'에 대한 부끄러움을 떠올린 데에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반성적인 태도를 확인할 수 있어요. ㉤

- ① ㉠ ② ㉡ ③ ㉢ ④ ㉣ ⑤ ㉤

[32~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19.06

(가)

서경(西京)이 아즐가 서경(西京)이 서울히마르는
 위 두어렁성 두어렁성 다렁디리
 닷곤디 아즐가 닷곤디 쇼성경 고외마른
 위 두어렁성 두어렁성 다렁디리
 여히프론 아즐가 여히프론 질삼뵈 브리시고
 위 두어렁성 두어렁성 다렁디리
 괴시란디 아즐가 괴시란디 우리곶 좃니노이다
 위 두어렁성 두어렁성 다렁디리

<제1연>

구스리 아즐가 구스리 바회에 디신들
 위 두어렁성 두어렁성 다렁디리
 긴히쑤 아즐가 긴히쑤 그즈리잇가 나는
 위 두어렁성 두어렁성 다렁디리
 즘른 히를 아즐가 즘른 히를 외오곶 너신들
 위 두어렁성 두어렁성 다렁디리
 신(信)잇든 아즐가 신(信)잇든 그즈리잇가 나는
 위 두어렁성 두어렁성 다렁디리

[A]

<제2연>

- 작자 미상, 「서경별곡」 -

(나)

이 몸이 녹아져도 옥황상제 처분이요
 이 몸이 식여져도 옥황상제 처분이라
 녹아지고 식여지어 혼백(魂魄)조차 흠어지고
 공산(空山) 축루(觸樓)*같이 임자 업시 구닐다가
 곤륜산(崑崙山) 제일봉의 만장송(萬丈松)이 되어 이서
 바람비 뿌린 소리 님의 귀에 들리거나
 윤회(輪廻) 만겁(萬劫)하여 금강산(金剛山) 학(鶴)이 되어
 일만 이천봉에 므음껏 솟아올라
 ㄱ을 들 볼근 밤에 두어 소리 슬피 우리
 님의 귀에 들리기도 옥황상제 처분이로다
 혼(恨)이 뿌리 되고 눈물로 가지 삼아
 님의 집 창밧기 외나모 매화(梅花) 되어
 설중(雪中)에 혼자 피어 침변(枕邊)*에 시드는 듯
 월중(月中) 소영(疎影)*이 님의 옷에 빗춰어든
 어엿븐 이 얼굴을 너로다 반기실가
 동풍이 유정(有情)하여 암향(暗香)을 불어 올려
 고결(高潔)혼 이내 생애 죽림(竹林)에나 부치고저
 빈 낙대 빗기 들고 빈 비를 혼자 띄워
 백구(白溝) 건네 저어 건덕궁(乾德宮)에 가고지고

- 조위, 「만분가」 -

* 공산 축루: 텅 빈 산의 해골.
 * 침변: 베갯머리.
 * 월중 소영: 달빛에 언뜻언뜻 비치는 그림자.

32.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의 '서울'과 (나)의 '건덕궁'은 모두 화자가 현재 머무르고 있는 공간이다.
- ② (가)의 '질삼뵈'와 (나)의 '빈 낙대'는 모두 화자가 현재 회피하고 싶은 대상이다.
- ③ (가)의 '우리곶'과 (나)의 '슬피 우리'는 모두 임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가)의 '좃니노이다'와 (나)의 '빗춰어든'은 모두 임의 곁에 있고 싶은 화자의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 ⑤ (가)의 '그즈리잇가'와 (나)의 '반기실가'는 모두 미래 상황에 대한 의혹을 드러내고 있다.

33. (나)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임자 업시 구닐'던 '이 몸'이 '학'이 되어 솟아오르게 함으로써 상승의 이미지를 구현하고 있다.
- ② '만장송'과 '매화'라는 소재를 활용하여 임을 향한 화자의 마음을 표상하고 있다.
- ③ '바람비 뿌린 소리'와 '두어 소리'의 청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임에게 알리고 싶은 화자의 심정을 나타내고 있다.
- ④ '매화'의 '뿌리'와 '가지'를 활용하여 '혼'의 정서를 형상화하고 있다.
- ⑤ 'ㄱ을 들 볼근 밤'과 '월중'이라는 시간적 배경을 통해 임과 재회한 순간을 드러내고 있다.

34. <보기>를 참고할 때, (가)의 [A]와 <보기>의 [B]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서경별곡」의 제2연에서 여음구를 제외한 부분은 당시 유행하던 민요의 모티프를 수용한 것으로, 「정석가」에도 동일한 모티프가 나타난다. 고려 시대의 문인 이제현도 당시에 유행하던 민요를 다음과 같이 한시로 옮긴 적이 있다.

비록 구슬이 바위에 떨어져도	縱然巖石落珠璣
끈은 진실로 끊어질 때 없으리.	纓縷固應無斷時
낭군과 천 년을 이별한다고 해도	與郎千載相離別
한 점 붉은 마음이야 어찌 바뀌리오?	一點丹心何改移

- ① [A]와 [B]에서 '구슬'은 변할 수 있는 것을, '긴'이나 '끈'은 변하지 않는 것을 비유하는 소재로 활용하였군.
- ② [A]에서는 '신'을, [B]에서는 '붉은 마음'을 굳건한 '바위'로 형상화 하였군.
- ③ [A]와 [B] 모두에서 변하지 않는 마음을 소중한 가치로 여기는 화자의 태도가 나타나는군.
- ④ [A]와 [B]를 보니 동일한 모티프가 서로 다른 형식의 작품으로 수용되었군.
- ⑤ [A]와 [B]를 보니 여음구의 사용 여부에 차이가 있군.

MEMO

MEMO

[39~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19.06

[앞부분 줄거리] 옹고집은 성격이 고약한 부자이다. 어느 날 옹고집 앞에 가짜 옹고집이 나타나, 서로가 자신이 진짜라고 주장한다.

두 옹고집이 송사 가는 제, 읍내를 들어가니 짚옹고집 거동 보소. 주저 없이 제가 앞에 가며 읍의 촌가인 하나와 만나 보면 깡깡 반겨 두 손을 잡고, “나는 가변을 송사하러 가는 지라. 자네와 나와 아무 연분에 서로 알아 죽마고우로 지냈으니 나를 몰라볼쏘냐.”

또 하나를 보면, “자네 내게서 아무 연분에 돈 오십 냡을 취하여 갔으니 이참에 못 주겠느냐. 노жат든 보테 쓰게 하라.”

또 하나 보면, “자네 쥐꼴뿔 논 두 섬지기 이때까지 소작할 제, 거년 선자(先資)* 스물닷 말을 어찌 아니 보내는가.”

이처럼 하니 참옹고집이 짚옹고집을 본즉 낱낱이 내 소견대로 내가 할 말을 제가 먼저 하니 기가 질려 뒤에 오며, [A] 실성한 사람같이, 아는 사람도 오히려 짚옹고집같이도 모르는 지라.

짚옹고집이 노변에서 지나가는 사람 데리고 하는 말이, “가운이 불길하여 어떠한 놈이 왔으되 용모 나와 비슷해 제가 내라 하고 자칭 옹고집이라 하기로, 억울한 분을 견디지 못하여 일체 구별로 송사하러 가는지라. 뒤에 오는 사람이 기네. 자네들도 대소간 눈이 있거든 흑 흑백을 가릴쏘냐.”

참옹고집이 뒤에 오면서 기가 막히고 얼척도 없어 말도 못하고 울음 울 제, 행인들이 이어 보고 하는 말이, “누가 알아보리오. 뉘 아들인지 알 수가 없다. 아마도 상동이란 말밖에 또 하리오.”

(중략)

짚옹고집 반만 웃고 집으로 돌아와서 바로 내정으로 들어가니 처자 권숙이 내달아 잡고 들어가니, “하늘도 무심치 아니하기로 내 좋은 형세와 처자를 빼앗기지 아니하였다.”

송사를 이긴 내력을 말하니 처자 권숙이며 상하 노복 등이 참옹고집으로 알고, 마누라는, “㉠ 우리 서방님이 그런 고생이 또 있을까.”

못 아들 나서며, “그런 자식에게 아버지가 큰 봉채를 보았다.” 노복 중이며 마을 사람들이 다 칭찬하거늘, 짚옹고집이, “내가 혈혈단신으로 자수성가하였기로 전곡을 과연 아낄 줄만 알았더니 내빈 왕객 접대 상과 만가 동냥 거지들을 독하게 박대하였더니 인심부득 절로 되어 이런 재변이 난 듯싶으니, 사람 되고 개과천선 못할쏘냐. 오늘부터 재물과 곡식을 흠어 활인구제(活人救濟)하리라.”

전곡을 흠어 사망에 구차한 사람을 구제한다 말이 낭자하니 팔도 거지들과 각 절 유결승들이 구름 모이듯 모여드니 백 냡 돈 천 냡 돈을 흠어 주니 옹고집은 인심 좋단 말이 낭자하더라.

하루는 주효를 낭자케 장만하고 원근에 모모한 친구며 사방 사람을 청좌하여 대연을 배설할 제, 이때의 참옹고집 전전결식하다가 맹랑촌 옹고집 활인구제한다 말 듣고 분심으로 하는 말이,

“㉡ 남의 재물 갖고 제 마음대로 쓰는 놈은 어떤 놈의 팔자 인고. 찾아가서 내 집 망종 보고 죽자.”

하고 죽장망해로 찾아갈 제, ㉢ 짚옹고집 도술 보고 근처에 참 옹고집 온 줄 알고 사환을 분부하되,

“오늘 큰 잔치에 음식도 낭자하고 걸인도 많을 제, 타일 천 하케 다투던 거짓 옹가 놈이 배도 고프고 기한(飢寒)을 견디지 못하여 전전결식 다닐 제, 잔치 소문을 듣고 마을 근처에 왔으나 차마 못 들어오는가 싶으니 너희 등은 가서 데려오라. 일변 생각하면 되도 못할 일 하다가 중장(重杖)만 맞았으니 불쌍하다.”

사환 등이 영을 듣고 사방으로 나가 보니 ㉣ 과연 마을 뒷산에 앉아 잔치하는 데를 보고 눈물을 흘리고 앉았거늘 사환들이 바로 가서 영겁결에 배례하고 문안하니, 슬프다. 참옹고집이 대성 통곡 절로 난다.

사환들이 가자 하니, “㉤ 갈 마음 전혀 없다.”

여러 놈이 부축하여 들어가서 좌상에 앉히니 짚옹고집 일어서며 인사 후에,

“네 들어라. 형세 있어 좋다 하는 것이 활인구제하여 만인 적선이 으뚱이거늘 천여 석 거부로서 첫째로는 부모 박대 하니 세상에 용납지 못할 놈이요, 둘째는 유결산승 욕보이니 불도가 어찌 허사리오. 우리 절 도승이 나를 보내어 묘하신 불법으로 가르쳐서 너의 죄목을 잡아 아주 죽여 세상에 영영 자취 없게 하여 세상 사람에게 모범이 되게 하라 하시거늘 너를 다시 세상에 내어 보내기는 나의 어진 용심으로 살린 것이니, 이만해도 후생에게 너 같은 행실을 징계한 사례가 될 듯싶으니 이후는 아무쪼록 개과하라.” 하고, 좌상에 나왔으며 문득 자빠지니 허수아비 찰벼 짚 묶음이라.

[B]

이로 좌상이 다 놀라 공고를 하고 옹고집이 이날부터 개과 천선하여 세상에 전하여 일가친척이며 원근친고 사람에게 인심을 주장하니 옹고집의 인심을 만만세에 전하더라.

- 작자 미상, 「옹고집전」 -

* 선자: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드는 돈.

39.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송사 원인이 금전적 이해관계에 있음이 밝혀진다.
- ② 송사 결과에 대한 행인들의 상반된 예측이 제시된다.
- ③ 송사 가는 이의 답답한 심정이 서술자에 의해 드러난다.
- ④ 송사 가는 이들 간에 서로를 비방하는 대화가 이어진다.
- ⑤ 송사 가는 길에 새롭게 등장한 인물의 외양이 묘사된다.

40.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마누라’는 집에 돌아온 이를 ‘참옹고집’으로 알고 있다.
- ② ㉡: ‘참옹고집’은 ‘짚옹고집’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다.
- ③ ㉢: ‘짚옹고집’은 ‘참옹고집’의 거동을 수상히 여기고 있다.
- ④ ㉣: ‘참옹고집’은 집에 들어가지 못한 채 서러워하고 있다.
- ⑤ ㉣: ‘참옹고집’은 ‘사환들’에게 거절의 의사를 표하고 있다.

41. <보기>를 참고하여 밑줄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옹고집전」은 주인공 ‘참옹고집’이 소외를 경험하도록 그와 똑같이 생긴 ‘짚옹고집’을 등장시켜 그를 대신하게 하는 독특한 인물 관계를 설정하였다. 이는 ‘참옹고집’으로 형상화된 조선 후기 향촌 사회의 부유층에게 요구되는 사회적 책무와도 연결된다. 부유하게 살면서도 가난한 이들을 구제하지 않고 외면하면 공동체로부터 소외될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기 때문이다.

- ① ‘내 좋은 형세와 처자를 빼앗기지 아니하였다’고 말한 데에서, ‘참옹고집’이 송사 이전부터 가족에게 소외되어 온 정황이 ‘짚옹고집’을 통해 드러남을 알 수 있군.
- ② ‘만가 동냥 거지들을 독하게 박대’하였다고 말한 데에서, 가난한 이들을 외면했던 ‘참옹고집’의 행적이 ‘짚옹고집’을 통해 언급됨을 알 수 있군.
- ③ ‘전곡을 훔어 시방에 구차한 사람을 구제’한다는 데에서, 가난한 이들을 구제해야 하는 ‘참옹고집’의 책무가 ‘짚옹고집’을 통해 이행됨을 알 수 있군.
- ④ ‘짚옹고집’이 ‘백 냥 돈 천 냥 돈을 훔어’ 줄 수 있을 만큼 ‘참옹고집’의 재물이 많았다는 데에서, 조선 후기 향촌 사회의 부유층을 연상시키는 ‘참옹고집’의 모습이 확인되는군.
- ⑤ ‘참옹고집’이 ‘짚옹고집’에게 자리를 빼앗기고 ‘전전걸식’하며 살아가는 데에서, 공동체로부터 소외되어 고통을 겪는 ‘참옹고집’의 처지가 확인되는군.

42. <보기>는 「옹고집전」 이본의 일부이다. [B]와 <보기>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참옹고집 듣기를 다하여 천방지방 도사 앞에 급히 나아가 함장배례하며 공손히 하는 말이, “이놈의 죄를 생각하면 천사(千死)라도 무석(無惜)이요 만사라도 무석이나 명명하신 도덕하에 제발 덕분 살려 주오. 당상의 늙은 모친 규중의 어린 처자 다시 보게 하옵소서. 원건지 하온 후 지하에 돌아가도 여한이 없을까 하나이다. 제발 덕분 살려 주옵소서.”

만단으로 애걸하니 도사 하는 말이, “천지간에 몹쓸 놈아. 인제도 팔십 당년 늙은 모친 냉돌방에 구박할까, 불도를 능멸할까. 너 같은 몹쓸 놈은 응당 죽일 것이로되 정상(情狀)이 불쌍하고 너의 처자 가여운 고로 놓아주니 돌아가 개과천선하라.”

부적을 써 주며 왈, “이 부적을 몸에 붙이고 네 집에 돌아가면 괴이한 일 있으리라.”

하고 홀연 간데없거늘 참옹고집 즐겨 돌아와서 제집 문전 다다르니 고루거각 높은 집에 청풍명월 맑은 경은 옛 놀던 풍경이라.

- ① ‘참옹고집’을 살려 두는 이유로 [B]는 ‘나의 어진 용심’을, <보기>는 ‘정상이 불쌍함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아, [B]에서는 용서하는 이의 마음을 고려했고, <보기>에서는 용서받는 이의 처지까지도 고려했군.
- ② ‘참옹고집’을 살려 두는 이유로 [B]는 ‘이만해도 후생에게’ ‘징계한 사례가 됨을, <보기>는 ‘너의 처자 가여’움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아, [B]에서는 징계의 사회적 효용이, <보기>에서는 징계로 인한 가족의 피해가 고려되었군.
- ③ ‘참옹고집’의 악행으로 [B]는 ‘부모 박대’를, <보기>는 ‘모친’ ‘구박’을 거론하는 것으로 보아, [B]와 <보기>에서 모두 ‘참옹고집’의 비인륜적 행위가 징계의 사유에 포함되었군.
- ④ ‘참옹고집’에게 개과천선하라는 요청이 [B]와 <보기> 모두 인물의 발화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B]와 <보기>에서 모두 인물의 발화는 ‘참옹고집’이 용서를 구하기 시작하는 계기에 해당하는군.
- ⑤ ‘참옹고집’을 훈계하던 존재가 [B]에서는 ‘허수아비’로 변하고, <보기>에서는 ‘홀연’ 사라지는 것으로 보아, [B]와 <보기>에서 모두 신이한 사건이 벌어지는군.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19.06

(앞부분 줄거리) 어린 시절의 친구 은자를 주인공으로 한 소설을 발표했던 '나'는 어느 날 오랫동안 소식을 몰랐던 은자로부터 연락을 받는다.

다음날 아침 어김없이 은자의 전화가 걸려 왔다. 토요일이었다. 이제 오늘 밤과 내일 밤뿐이었다. 은자도 그것을 강조하였다.

“설마 안 올 작정은 아니겠지? 고향 친구 한번 만나 보려니까 되게 힘든데. 야, 작가 선생이 밤무대 가수 신세인 옛 친구 만나려니까 체면이 안 서데? 그러지 마라. 네 보기엔 한심할지 몰라도 오늘의 미나 박이 되기까지 참 술하게도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했으니까.”

그렇게 말할 만도 하였다. 고상한 말만 골라서 신문에 내고 이렇게 해야 할 것이 아니라, 저렇게 되면 곤란하다, 라고 말하는 게 능사인 작가에게 밤무대 가수 친구가 웬 말이냐고 불멘소리를 해 볼 만도 하였다. 나는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다. 박은자에서 미나 박이 되기까지 그 애는 수없이 넘어지고 또 넘어진 모양이었다. 누군들 그러지 않겠는가. 부천으로 옮겨 와 살게 되면서 나는 그런 삶들의 윤기 없는 목소리를 많이 듣고 있었다. 딱히 부천이어서가 아니라 내가 부천 사람이어서 그랬을 것이었다. 창가에 붙어 앉아 귀를 모으고 있으면 지금이라도 넘어져 상처 입은 원미동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또 넘어지는 실패의 되풀이 속에서도 그들은 정상을 향해 열심히 고개를 넘고 있었다. 정상의 면적은 좁디좁아서 아무나 디딜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엄연한 현실도 그들에게는 단지 속임수로밖에 남득되지 않았다. 설령 있는 힘을 다해 기어올랐다 하더라도 결국은 내리막길을 마주해야 한다는 사실 또한 수긍하지 않았다. 부딪치고, 아등바등 연명하며 기어나가는 삶의 주인공들에게는 다른 이름의 진리는 아무런 소용도 없는 것이었다. 그들에게 있어 인생이란 탐구하고 사색하는 그 무엇이 아니라 몸으로 밀어 가며 안간힘으로 두들겨야 하는 굳건한 쇠문이었다. 혹은 멀리 보이는 높은 산봉우리였다.

(중략)

일 년에 한 번씩 타인의 낯선 얼굴을 확인하러 고향 동네에 가는 일은 쓸쓸함뿐이었다. 이제는 그 쓸쓸함조차도 내 것으로 남지 않게 될 것이었다. 누구라 해도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었다. 고향은 지나간 시간 속에 있을 뿐이니까. 누구는 동구 밖의 느티나무로, 갯마을의 짠 냄새로, 동네를 끼고 흐르는 긴 강으로 고향을 확인하며 산다고 했다. 내게 남은 마지막 표지판은 은자인 셈이었다. 보이는 것들은, 큰오빠까지도 다 변하였지만 상상 속의 은자는 언제나 같은 모습이었다. 은자만 떠올리면 옛 기억들이, 내게 남은 고향의 모든 숨소리가 손에 잡힐 듯이 다가오곤 하였다. 허물어지지 않은 큰오빠의 모습도 그 속에 온전히 남아 있었다. 내가 새부천 클럽에 가서 은자를 만나 버리고 나면 그때부터는 어떤 표지판에 기대어 고향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인지 정말 알 수 없었다.

은자의 지금 모습이 어떤지 나는 전혀 떠올릴 수가 없다. 설령 클럽으로 찾아간다 하여도 그 애를 알아볼 수 있을지 자신할

수도 없었다. 내 기억 속의 은자는 상고머리에, 때 낀 목덜미를 물들인 박 씨의 역센 손자국, 그리고 터진 겨드랑이 사이로 내보이던 낡은 내복의 계집아이로 붙박여 있었다. 서론도 훨씬 넘은 중년 여인의 그 애를 어떻게 그려 낼 수 있는가. 수십 년간 가슴에 품어 온 고향의 얼굴을 현실 속에서 만나고 싶지는 않다, 라고 나는 생각하였다. 만나 버린 뒤에는 내게 위안을 주었던 유년의 소설도, 소설 속의 한 시대도 스러지고야 말리라는 불안감을 떨쳐 버릴 수가 없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현실로 나타난 은자를 외면할 수 있을는지 그것만큼은 풀 수 없는 숙제로 남겨 둔 채 토요일 밤을 나는 원미동 내 집에서 보내고 말았다.

일요일 낮 동안 나는 전화 걸을 떠나지 못하였다. 이제 은자가 가지 돌친 음성으로 나의 무심함을 탓할 것이었다. 그녀의 질책을 나는 고스란히 받아들일 작정이었다. 나는 그 애가 던져 올 말들을 하나하나 상상해 보면서 전화를 기다렸다. 오전에는 그러나 한 번도 전화벨이 울리지 않았다.

- 양귀자, 「한계령」 -

43.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독백적 진술을 중심으로 인물의 내면 심리를 드러낸다.
- ② 동시에 벌어진 사건들을 삽화처럼 나열하여 이야기의 흐름을 지연시킨다.
- ③ 이야기 외부의 서술자가 인물의 행위를 해설하고 사건의 의미를 직접 제시한다.
- ④ 서술자가 다양한 인물로 바뀌면서 인물 간의 갈등을 다각적으로 조명한다.
- ⑤ 서술자가 의문과 추측의 진술을 통하여 다른 인물에 대한 반감을 드러낸다.

44. 윗글의 '나'와 '은자'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자'는 가수로서의 성공을, '나'는 작가로서의 성공을 확신하고 있다.
- ② '나'는 '은자'의 전화로부터 심리적 위안을 얻으며 갈등을 해소하고 있다.
- ③ '은자'는 '나'와의 재회를 기대하고 있고, '나'는 '은자'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하고 있다.
- ④ '나'는 '은자'가 도도하다고 여기고 있고, '은자'는 '나'가 체면을 차린다고 여기고 있다.
- ⑤ '은자'는 현재의 자신을 '나'에게 보여 주려 하고 있고, '나'는 '은자'를 통해 옛 기억을 돌아보고 있다.

45.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아이러니는 흔히 말하는 반어보다 넓은 개념이다. 소설에서는 어떤 인물의 행위나 내면, 그리고 그가 살고 있는 세계에서 대립적인 두 의미를 동시에 찾을 수 있을 때에 아이러니가 발견될 수 있다. 이때 대립적인 의미는 양면성을 생성한다. 『한계령』에서는 인물이 바라보는 대상, 인물의 행위와 의식의 대립, 인물의 심리 등에서 이러한 양면성을 발견할 수 있다.

- ① ‘결국은 내리막길을 마주해야’ 하는데도, ‘있는 힘을 다해 기어 오르고 있는 ‘그들’에게서 ‘나’는 양면성을 발견하는군.
- ② ‘몸으로 밀어 가야 할 ‘굳건한 쇠문’을 ‘탐구하고 사색’하려 하는 ‘그들’에게서 ‘나’는 양면성을 발견하는군.
- ③ ‘일 년에 한 번씩’ ‘고향 동네에 가’면서도, ‘누구라 해도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나’의 모습에서 양면성이 나타나는군.
- ④ ‘변해’ 버린 ‘큰오빠’와 ‘온전히 남아’ 있는 ‘큰오빠’가 ‘나’의 생각 속에 공존하고 있는 것에서 양면성이 나타나는군.
- ⑤ ‘은자’를 ‘만나고 싶지는 않다’고 생각하면서도, 만나자는 ‘은자’의 ‘전화를 기다리는 ‘나’의 모습에서 양면성이 나타나는군.

[20~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18.11

(가)

선달에도 보름께 달 밝은 밤

㉠ 앞내강 쨍쨍 얼어 조이던 밤에

내가 부른 노래는 강 건너 갔소

㉡ 강 건너 하늘 끝에 사막도 닿은 곳

내 노래는 제비같이 날아서 갔소

못 잇을 계집에 집조차 없다가에

가기는 갔지만 어린 날개 지치면

㉢ 그만 어느 모래불에 떨어져 타서 죽겠소.

사막은 끝없이 푸른 하늘이 덮여

㉣ 눈물 먹은 별들이 조상* 오는 밤

㉤ 밤은 옛일을 무지개보다 곱게 짜내나니

한 가락 여기 두고 또 한 가락 어디인가

내가 부른 노래는 그 밤에 강 건너 갔소

-이육사, 「강 건너간 노래」-

* 조상: 남의 죽음에 대하여 슬퍼하는 뜻을 드러내어 위문함.

(나)

한 줄의 시(詩)는커녕

단 한 권의 소설도 읽은 바 없이

그는 한평생을 행복하게 살며

많은 돈을 벌었고

높은 자리에 올라

이처럼 훌륭한 비석을 남겼다

그리고 어느 유명한 문인이

그를 기리는 묘비명(墓碑銘)을 여기에 썼다

비록 이 세상이 잿더미가 된다 해도

불의 뜨거움 곳곳이 견디며

이 묘비는 살아 남아

귀중한 사료(史料)가 될 것이니

역사는 도대체 무엇을 기록하며

시인(詩人)은 어디에 무덤을 남길 것이냐

- 김광규, 「묘비명(墓碑銘)」-

(다)

[A] 시는 인간의 삶을 반영한다. 시에서 반영은 현실과 인생을 모방한다는 의미에서 외부 현실을 시 속에 담아내는 것으로, 역사와 현실의 상황을 시를 통해 어떻게 재현할 것인가에 초점을 둔다. 여기서 반영은 '있는 그대로의 현실'로서의 반영과 '있어야 하는 현실'로서의 반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역사와 현실의 모습을 사실 그대로 보여주는 일상적 진실을 반영하는 것을 말하고, 후자는 일상적 현실을 넘어 화자가 지향하는 당위적 진실을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시에 대한 시 쓰기'라는 형식을 통해 시 그 자체를 반영하는 특수한 경우도 있다. 이때 반영의 대상은 외부 현실이 아니라 시 쓰기 상황이나 시를 쓰는 시인이 된다. 이 경우 시는 그 자체로 시론 혹은 시인론의 성격을 지닌다. 이러한 성격의 작품에서 시는 노래나 기타 여러 갈래의 글로 표상되기도 한다.

이처럼 시인들은 시 속에 형상화된 세계를 통해 인간이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삶의 방향을 모색한다. 이를 통해 시는 무엇을 말해야 하고, 시인은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자기 성찰의 태도를 드러내는 것이다.

20.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청자를 명시적으로 설정하여 풍자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 ② 유사한 시구를 반복함으로써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 ③ 시적 대상에 생명력을 부여하여 의지를 지닌 존재로 나타내고 있다.
- ④ 다양한 이미지를 통해 자연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⑤ 반어적 어조를 활용하여 현실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21. [A]의 관점에서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극한의 추위를 드러내는 시간적 배경을 제시하여, 화자나 인물이 처한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 ② ㉡: 현실의 모습을 사막으로 표상하여, 화자나 인물이 직면하게 될 공간적 배경을 드러내고 있다.
- ③ ㉢: 죽음의 상황을 가정하여, 화자에게 닥친 일상적 현실이 절망적인 상황임을 노래에 투영하여 드러내고 있다.
- ④ ㉣: 자연물에 대한 화자의 태도 변화를 통해, 일상적 현실이 희망적으로 바뀌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
- ⑤ ㉤: 밤과 무지개의 이미지를 대응시켜, 화자가 추구하는 당위적 진실에 대한 소망을 담아내고 있다.

22. (다)를 참고하여, (가)의 노래와 (나)의 묘비명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노래'가 시를 표상한다면, 이 '노래'는 (가)를 쓴 시인 자신이 추구하는 바람직한 삶의 방향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군.
- ② '노래'가 시를 표상한다면, 이 '노래'는 시가 '집조차 없'는 처지에 있는 이의 삶에 다가서야 한다는, (가)를 쓴 시인의 관점을 드러내고 있겠군.
- ③ '묘비명'이 시를 표상한다면, 이 '묘비명'은 (나)를 쓴 시인 자신이 추구하는 삶과는 거리가 있는 사람의 인생을 반영하고 있겠군.
- ④ '묘비명'이 시를 표상한다면, 이 '묘비명'은 (나)를 쓴 시인이 시 쓰기를 통해 '무엇을 기록'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기 성찰을 하게 되는 계기라 할 수 있겠군.
- ⑤ '묘비명'이 시를 표상한다면, 이 '묘비명'은 한 줄의 시조차 읽지 않아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나)를 쓴 시인의 관점을 드러내는 소재라 할 수 있겠군.

MEMO

MEMO

[23~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18.11

왕비가 웃으며 말했다.
 “부인이 이곳에 오긴 오겠지만 아직 때가 멀었소. 남해 도인이 그대와 인연이 있으니 잠깐 의탁하게 될 것이요. 이 또한 하늘의 뜻이니라.”
 사 씨가 여쭙었다.
 “남해라면 바다 끝으로 알고 있습니다. 첩에게는 탈 것이 없고 돈도 없는데 어찌 갈 수 있겠나이까?”
 왕비가 말했다.
 “조만간 길을 인도하는 자가 있을 것이니 조금도 염려 마라.”
 이윽고 좌우에 앉아 있는 부인들을 하나하나 소개했다. 위국 부인 장강*, 한나라의 반첩여* 등이 있었다. 사 씨가 다소곳이 일어나 머리를 조아리고 말했다.
 “뜻밖에도 모든 부인님의 얼굴을 오늘 뵈게 되니 크나큰 영광입니다.”
 드디어 하직을 하고 여동의 인도를 받아 내려오는데, 걸었던 ㉠ 주렴을 내리는 소리가 요란하였다. 이 소리에 놀라 몸을 일으키니 유모와 시비가 부인이 깨신다 하고 부르거늘 사 씨가 일어나 앉으니 이미 날이 저물었다. 멍한 정신이 한참 만에야 진정 되었다. 입에서는 향기로운 냄새가 났고 왕비께서 하시던 말씀이 뚜렷했다. 유모에게 물었다.
 “내가 어디 갔다 왔느냐?”
 유모와 시비가 대답했다.
 “부인께서 기절하는 바람에 소인들이 간호하여 이제야 깨어나셨는데 어디를 가셨단 말입니까?”
 사 씨가 조금 전에 있었던 일을 다 말하고 ㉡ 대나무 수풀을 가리키며 말했다.
 “분명히 저 길로 갔다 왔으니 어찌 꿈이라 하리오. 믿지 못 하겠다면 나를 따라오라.”
 그러고는 길을 찾아 대나무 수풀 뒤쪽으로 가니 사당이 하나 있었다. 현판이 걸려 있는데 황릉묘*라고 쓰여 있었다. 분명 아황과 여영, 두 왕비의 묘로 ㉢ 꿈에서 본 것과 같았다. 사당 안으로 들어가 살펴보니 두 왕비의 ㉣ 초상화가 걸려 있는데 꿈에서 본 것과 같았다. 이에 사 씨가 향을 피우고 절하며 말했다.
 “첩이 왕비의 가르치심을 입어 훗날 좋은 시절을 만나서 영화를 누리게 된다면 어찌 그 은혜를 잊으리까?”
 분향을 마친 후 앉아서 신세를 생각하니 슬픔이 밀려왔다. 시비를 시켜 묘지기 집에 가서 밥을 구해 와서는 세 사람이 나누어 먹었다. 이윽고 사 씨가 말했다.
 “의지할 곳이 없으니 신령이 나를 놀리시는구나.”
 앞길이 막막하여 어쩔 줄 모르는 중 벌써 달이 밝았다. 세 사람이 방황하고 있는데 묘문으로 두 사람이 들어와 물었다.
 “어려움을 만나 물에 빠지려 하시는 부인이 아니옵니까?”
 사 씨가 눈을 들어 자세히 보니 한 명은 여승이고 다른 한명은 여동이였다. 크게 놀라며 말했다.
 “어찌 우리를 아는가?”
 여승이 합장하고 말했다.
 “우리는 동정 군산에 사는 사람인데 조금 전 꿈결에 관음보살

께서 어진 여자가 화를 만나 날이 저물어 갈 곳을 몰라 방황 하니 급히 황릉묘로 가서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 배를 저어 와서 부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중략)
 한편 한림학사 유연수는 유배지에 도착하니 바람이 거세고 인심이 사나워 갖은 고초를 겪게 되었다. 외로운 가운데 이러한 고생을 하니 예전의 충명함이 점점 돌아와 누우치며 말했다.
 “사 씨가 동청을 꺼렸는데 이제 와서 생각하니 그 말이 옳도다. 어진 아내를 의심했으니 무슨 면목으로 조상을 대하리오.”
 밤낮 이런 생각을 하면서 탄식하니 병에 걸리고 말았다. 이곳에는 마땅한 의약이 없었다. 병세는 날로 심해져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하루는 흰 옷 입은 노파가 ㉥ 병(甁)을 들고 와서 말했다.
 “상공의 병이 위독하니 이 물을 먹으면 좋아지리라.”
 한림이 물었다.
 “그대는 누구인데 유배당한 사람의 병을 구하시오?”
 노파가 말했다.
 “나는 동정 군산에 사는 사람이다.”
 그러고는 병을 뜰 가운데 놓고 사라졌다. 한림이 놀라 일어나니 ㉦ 풀이었다.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다음 날 아침 하인이 뜰을 청소하다가 들어와 고했다.
 “뜰에서 물이 솟아나옵니다.”
 한림이 이상하게 여겨 창을 열고 보니 꿈에 노파가 병을 놓았던 자리였다. 물을 한 그릇 떠오라고 해서 마시니 맛이 달고 상쾌한 것이 마치 단 이슬을 먹은 것 같았다. 원래 행주는 수질이 좋지 않은 곳이다. 한림의 병도 그렇게 좋지 않은 물 때문에 생긴 것이었다. 그런데 이 물을 먹은 즉시 병세가 사라지고 예전의 얼굴과 기력을 회복하였다. 그것을 본 사람들이 모두 신기하게 여겼다. 이후로도 그 샘은 마르지 않아 마을 사람들이 나누어 마셨다. 이로 인해 물로 인한 병이 없어지자 사람들이 그 샘을 학사정이라고 하였는데 지금까지 전해진다.
 - 김만중, 「사씨남정기」 -
 *장강: 춘추 전국 시대 위나라 장공의 아내.
 *반첩여: 한나라 성제의 후궁.
 *황릉묘: 순임금의 두 왕비인 아황과 여영을 추모하기 위해 세운 사당.

23.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 씨’는 꿈에서 ‘왕비’로부터 ‘남해 도인’과 인연이 있어 바다 끝으로 향할 여정이 예비되어 있음을 들었다.
- ② ‘사 씨’가 기절한 사이 ‘유모’는 황릉묘에 가서 ‘사 씨’를 깨울 방도를 찾아 왔다.
- ③ ‘사 씨’는 묘에서 만난 ‘여승’의 말을 통해 여승 일행이 찾아온 연유를 알게 되었다.
- ④ ‘유 한림’은 전에 ‘동청’을 꺼렸던 ‘사 씨’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 씨’를 의심했다.
- ⑤ ‘마을 사람들’은 ‘유 한림’의 사례를 보고 수질 탓에 생긴 병을 없앨 방도를 찾을 수 있었다.

24.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사 씨’가 꿈에서 깨게 되는 소리로, ‘사 씨’가 비현실 세계에서 현실 세계로 돌아오게 되는 계기이다.
- ② ㉡: ‘사 씨’가 꿈에서 보았던 곳과 같은 장소로, 비현실적 상황과 현실적 상황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드는 공간이다.
- ③ ㉢: ‘사 씨’가 꿈에서 보았던 왕비의 모습을 환기하는 물건으로, 초월적 존재에 대한 ‘사 씨’의 믿음을 드러내는 소재이다.
- ④ ㉣: ‘사 씨’가 꿈에서 계시를 받아 사전에 준비한 수단으로, ‘사 씨’가 두 왕비와 재회할 수 있도록 돕는 매개체이다.
- ⑤ ㉣: ‘유 한림’이 꾸 꿈에 등장한 물건으로, ‘유 한림’이 처한 위급한 상태를 호전시킬 방도가 생기게 하는 단초이다.

25.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에는 모두 꿈을 꾸 주체를 돕는 역할을 하는 존재가 출현한다.
- ② ㉠과 ㉡에는 모두 꿈을 꾸 주체가 만나고 싶어 하던 역사적 인물이 등장한다.
- ③ ㉠과 ㉡에는 모두 꿈을 꾸 주체가 처한 고난이 심화될 것임을 암시하는 징표가 제시된다.
- ④ ㉠에는 ㉡에서와 달리, 꿈을 꾸 두 주체가 공유하고 있는 과거의 기억이 나타나고 있다.
- ⑤ ㉡에는 ㉠에서와 달리, 꿈을 꾸 주체의 출생 내력이 제시되어 있다.

26.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18세기의 선비인 이양오는 「사씨남정기」를 읽고 「사씨남정기 후서」를 썼다. 그는 이 소설이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는 ‘복선화음’의 이치를 담고 있다고 평가한다. 다만 과오가 있는 사람이라도 잘못을 깨닫고 착한 데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재앙이 상서로움으로 바뀌는 경우에도 주목한다. 한편 꿈속에서 벌어지는 일이나 기이한 만남이 나타나는 등 허구적인 이야기라도 사람의 일에 연관된다면 이를 두고 괴이하거나 맹랑한 것이라고 치부할 수만은 없다고 평한다. 그러면서 “말이 교화에 관련되면 괴이해도 해롭지 않고 일이 사람을 감동시키면 괴이하고 헛되어도 기뻐할 만하네.”라는 김시습의 시 구절을 인용하였다.

- ① 유 한림이 유배지에서 얻은 질병이 ‘단 이슬’과 같은 몰로써 치료된다는 설정에서, 유 한림의 재앙이 상서로움으로 전환되는 양상을 엿볼 수 있겠군.
- ② 유 한림이 유배지에서 고초를 겪는 가운데 ‘예전의 총명함’을 회복하는 장면에서, 과오가 있는 사람이라도 잘못을 깨닫고 착한 데로 나아가는 과정을 엿볼 수 있겠군.
- ③ 사 씨의 꿈에서 예견된 인도자와의 인연이 ‘여승’의 꿈에서 계시된 바와 조응하여 ‘여승’ 일행이 사 씨를 찾은 장면에서, 기이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양상을 엿볼 수 있겠군.
- ④ 학사정이 생기게 된 유래가 신이하지만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져 ‘지금까지 전해진다’고 한 점에서, 허구적인 이야기일지라도 사람의 일에 연관되므로 괴이한 것만으로는 볼 수 없겠군.
- ⑤ 유 한림에게 갖은 고초를 줄 만큼 ‘인심이 사나웠던 행주’ 사람들이 썩어 엷힌 이야기를 듣고 복선화음의 이치를 깨달은 데서, 그 이야기를 맹랑한 것으로 치부해서는 곤란하다는 점을 알 수 있겠군.

[33~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8.11

(가)

반(半) 밤중 혼자 일어 문노라 이내 꿈아
만 리(萬里) 요양(遼陽)*을 어느덧 다녀온고
반갑다 학가(鶴駕)* 선객(仙客)을 친히 뵈 듯허여라

<제1수>

박제상* 죽은 후에 님의 시름 알 이 업다
이역(異域) 춘궁(春宮)을 뒤라서 모셔 오리
지금에 치술령 귀혼(歸魂)을 못내 슬허호노라

<제4수>

조정을 바라보니 무신(武臣)도 하 만하라
신고(辛苦)한 화친(和親)을 누를 두고 혼 것인고
슬프다 조구리(趙廐吏)* 이미 죽으니 참승(參乘)홀*이 업세라

<제6수>

구중(九重) 달 밝근 밤의 성려(聖慮)* 일정 만호려니
이역 풍상(風霜)에 학가인들 이즐쏘나
이 밖에 억만창생(億萬蒼生)을 못내 분별호시도다

<제7수>

구렁에 났는 ㉠ 풀이 봄비에 절로 길어
아는 일 업스니 꾀 아니 조홀쏘나
우리는 너희만 못호야 시름겨워 호노라

<제8수>

조그만 이 한 몸이 하늘 밖에 떨어지니
오색 구름 깊은 곳에 어느 것이 서울인고
바람에 지나는 ㉡ 검불* 갖호야 갈 길 몰라 호노라

<제9수>

- 이정환, 「비가(悲歌)」 -

- * 요양: 청나라의 십양.
- * 학가: 세자가 탄 수레. 또는 세자. 여기서는 병자호란에서 패배하여 십양에 잡혀간 소현 세자를 가리킴.
- * 박제상: 신라의 충신. 왕의 아우가 왜에 볼모로 잡히자 그를 구하고 자신은 희생됨.
- * 조구리: 조씨 성을 가진 마부. 충신을 가리킴.
- * 참승홀: 높은 이를 호위하여 수레에 같이 탈.
- * 성려: 임금의 염려.
- * 검불: 마른 나뭇가지나 낙엽 따위.

(나)

이전 서울 계동 흥술햇골에서 살 때 일이었다. 휘문 중학교의 교편을 잡고, 독서, 작시(作詩)도 하고, 고서도 사들이고, 그 틈으로써 난을 길렀던 것이다. 한가롭고 자유로운 맛은 몹시 바쁜 가운데에서 깨닫는 것이다. 원고를 쓰다가 밤을 새우기도 왕왕 하였다. 그러하면 그러할수록 난의 위안이 더 필요하였다. 그 푸른 잎을 보고 방렬(芳烈)한 향을 맡을 순간엔, 문득 환희의 별유세계(別有世界)에 들어 무아무상의 경지에 도달하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조선어 학회 사건에 피검되어 흥원·함흥서 2년 만에 돌아와 보니 난은 반수 이상이 죽었다. 그해 여산으로 돌아와서 십여 분을 간신히 살렸다. 갑자기 8·15 광복이 되자 나는 서울로

또 가 있었다. 한 겨울을 지내고 와 보니 난은 모두 죽었고, 겨우 뿌리만성한 것이 두어 개 있었다. 그걸 서울로 가지고 가 또 살려 잎이 돋어나게 하였다. 건란(建蘭)과 춘란(春蘭)이다. 춘란은 중국 춘란이 진기한 것이다. 꽃이나 보려 하던 것이, 또 6·25 전쟁으로 피란하였다가 그 다음 해 여름에 가 보니, 장독대 옆 풀밭 속에 그 고해(枯骸)만 엉성하게 남아 있었다.

그 후 전주로 와 양사재에 있으며, 소공(素空)이 건란 한 분을 주었고, 고경선 군이 제주서 풍란 한 등걸을 가지고 왔다. 풍란에 웅란(雄蘭)·자란(雌蘭) 두 가지가 있는데, 자란은 이왕 안서(岸曙) 집에서 보던 것으로서 잎이 넓적하고, 웅란은 잎이 좁고 빼어났다. 물을 자주 주고, 겨울에는 특히 옹호하여, 자란은 네 잎이 돌고 웅란은 다복다복하게 길었다. 벌써 네 해가 되었다.

십여 일 전 나는 바닷게를 먹고 중독되어 광란(霍亂)이 났다. 5, 6일 동안 미음만 마시고 인삼 몇 뿌리 달여 먹고 나왔으며, 그래도 병석에 누워 더 조리하였다. 책도 보고, 시도 생각해 보았다. 풍란은 곁에 두었다. 하얀 꽃이 몇 송이 벌었다. 방렬·청상(清爽)한 향이 움직이고 있다. 나는 밤에도 자다가 깨었다. 그 향을 맡으며 이렇게 생각을 하여 등불을 켜고 노트에 적었다.

잎이 뾰뾰하고도 오히려 영롱(玲瓏)하다
씩은 향나무 꺾질에 옥(玉) 같은 뿌리를 서려 두고
청량(淸涼)한 물기를 머금고 바람으로 사노니

[A]

꽃은 하양고도 여린 자연(紫煙) 빛이다
높고 조출한 그 품(品)이며 그 향(香)이
숲속에 숨겨 있어도 아는 이는 아노니

완당 선생이 한묵연(翰墨緣)이 있다듯이 나는 난연(蘭緣)이 있고 난복(蘭福)이 있다. 당외자, 계수나무도 있으나, 이 웅란에는 백중(伯仲)할 수 없다. 이 웅란은 난 가운데에도 가장 진귀하다.

‘간죽하수문주인(看竹何須問主人)’이라 하는 시구가 있다. 그도 그럴듯하다. 나는 어느 집에 가 그 난을 보면, 그 주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겠다. 고서도 없고, 난도 없이 되짚은 서화나 붙여 놓은 방은, 비록 화려 광활하다 하더라도 그건 한 요릿집에 불과하다. 두실 와옥(瓦室蝸屋)*이라도 고서 몇 권, 난 두어 분, 그리고 그 사이 술이나 한 병을 두었다면 삼공(三公)을 바꾸지 않을 것 아닌가! 빵은 육체나 기를 따름이지만 난은 정신을 기르지 않는가!

- 이병기, 「풍란」 -

* 간죽하수문주인: ‘대숲을 봤으면 그만이지 그 주인이 누구인지 물을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뜻.

* 두실 와옥: 몹시 작고 누추한 집.

33.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에는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적 상황에 당면하여 고뇌하는 태도가 드러나 있다.
- ② (가)에는 시대적 고난에 맞서지 못하는 자신의 나약함을 극복하고자 하는 태도가 드러나 있다.
- ③ (나)에는 인간의 유한한 삶에 대해 한탄하는 태도가 드러나 있다.
- ④ (나)에는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절망적 현실에 대한 냉소적인 태도가 드러나 있다.
- ⑤ (가)와 (나)에는 이상과 현실의 괴리에서 비롯된 삶에 대한 회의적 태도가 드러나 있다.

34. (가), (나)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가)는 ‘학가 선객’을 ‘꿈’에서나마 본 일을 언급함으로써 그를 만나고 싶어 하는 화자의 소망을 드러내고 있군.
- ② (가)는 ‘박제상’이 살았던 시대와 대비함으로써 그와 같은 충신을 찾기 어려운 시대적 상황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군.
- ③ (가)는 자신의 ‘몸’이 하늘 밖에 떨어진 상황을 설정하여 현실의 문제를 떠나 고통을 잠시라도 잊으려는 화자의 지향을 드러내고 있군.
- ④ (나)는 역사적 상황에 따른 작가의 행적과 ‘난’의 생사를 관련 지어 언급함으로써 ‘난’에 대한 작가의 애착을 드러내고 있군.
- ⑤ (나)는 ‘두실 와옥’에 사는 사람이라도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는 ‘난’을 통해 작가가 지향하는 정신적 가치를 드러내고 있군.

35. ㉠과 ㉡을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은 모두 화자가 경외감을 가지고 바라보는 소재이다.
- ② ㉠과 ㉡은 모두 세월의 흐름을 나타내어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게 하는 소재이다.
- ③ ㉠은 화자의 울분을 심화하는 소재로, ㉡은 화자의 울분을 완화하는 소재로 활용되고 있다.
- ④ ㉠은 현재의 상황에 대한 인식의 계기가, ㉡은 과거의 사건에 대한 회고의 계기가 된 소재이다.
- ⑤ ㉠은 화자의 처지와 대비되는 소재로, ㉡은 화자의 처지와 동일시되는 소재로 제시되고 있다.

36.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임병양란 이후의 사대부들 사이에서는 긴 사연을 담을 수 있는 연시조 양식을 활용해 전란 후 현실의 문제를 다루려는 경향이 나타났다. 병자호란 직후 지어진 「비가」에도, 잡혀간 세자를 그리는 마음, 임금을 향한 충정, 전란 후 상황에 대한 견해 등 여러 내용이 복합되어 있다. 각 수의 시어를 연결하여 이해할 때 그 같은 내용들이 올바르게 파악될 수 있다.

- ① <제1수>의 ‘어느덧 다녀온고’와 <제4수>의 ‘뉘라서 모셔 오리’라는 진술에는 잡혀간 세자를 그리는 화자의 마음이 투영되어 있다.
- ② <제4수>의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님의 시름’에 대해, <제6수>의 ‘조구리’와 같은 인물이 없는 현실에 처한 화자는 애석함을 느끼고 있다.
- ③ <제6수>에서 조정에 많은 ‘무신’이 남아 있음에도 ‘신고훈 화친’을 맺은 결과로 <제7수>에서 세자가 ‘이역 풍상’을 겪는다고 화자는 판단하고 있다.
- ④ <제7수>에서 근심에 싸여 있는 ‘구중’의 임금을 떠올렸던 화자는 <제9수>에서는 ‘서울’을 찾기 못해 애타우고 있다.
- ⑤ <제7수>의 ‘달 발근 밤’과 <제8수>의 ‘봄비’에는 부정적 현실이 개선되리라는 화자의 전망과 기대가 담겨 있다.

37. (나)의 맥락을 고려하여 [A]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의 ‘썩은 향나무 꺾질’과 대조적인 의미를 지니는 ‘옥 같은 뿌리’는 ‘화려 광활’한 이미지를 지닌다고 볼 수 있겠군.
- ② [A]의 ‘높고 조출한 그 품이며 그 향은 ‘풍란’의 속성을 드러낸 것으로, 작가가 ‘풍란’을 곁에 두고자 하는 이유로 볼 수 있겠군.
- ③ [A]의 ‘아는 이’는 ‘풍란’의 가치를 볼 수 있는 안목을 갖춘 사람으로, ‘난연’과 ‘난복’이 있다고 생각하는 작가도 이에 해당 된다고 볼 수 있겠군.
- ④ [A]는 평소 ‘난’을 통해 ‘위안’을 얻던 작가가 ‘병석’에 누워 조리할 때 ‘풍란’에서 영감을 얻어서 창작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⑤ [A]는 ‘난’과 함께한 작가의 정신세계를 함축적으로 제시하는 한편, ‘풍란’에 대한 예찬적 태도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겠군.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18.11

조무래기들은 도깨비불만 보면 네 그르니 내 옳으니 하며 짜그락거리기 일쑤였고, 그러면 나이 좀 있는 사람이 얼른 쉬쉬하면서, 도깨비가 들겠다고 나무라 주게 마련이었던 것이다. 도깨비가 들으면 무엇이 어떻다고 불똥 끄듯 서두르며 말리려 들었을까. 그것은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다. 알면서도 짐짓 모르는 시늉을 해 보이려 했지만, 그네들도 어려서부터 가르쳐 준 이가 없어 **이렇다 하게 내놓지 못하는 눈치가 역연하던** 것이다. 그것은 바지랑대에 등을 매달고 멍석에 둘러앉아 삼을 삼거나 태모시를 뿜던* **늘그막의 아낙네들도** 마찬가지로 기늬를 못 해, **도깨비불에 손가락질하면 도깨비가 쫓아온다**는 것밖에 다른 말은 할 줄 모르고 있었다. **그네들은** 낮춘말로, **도깨비들이 별거벗고 산다**더라고 귀뽀해 주었으며, 그것은 그것들이 여름내 왕대피 자드라키나 갯가에 나와 불놀이를 하다가도, ㉠ **기러기 그림자에** **논두렁 콩노릇***이 지고 오려논에 **자마구***가 일며부터는 아무도 **모르게** **간곳없이** 사라지던 것을 보아 믿을 만한 말이라고 우길 따름이었다.

된내기* 빛에 두엄이 허영계 쉼 위로 난초 치던 붓끝 같은 마늘 싹이 솟고, 보리밭 머리에 장끼가 내리기 시작하여 이듬해 구렁찰 논배미에서 뜬— 뜬— 뜬부기 짝 찾는 소리로 개구리 논두렁 넘기 바쁘던 여름까지는 도깨비들이 감못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아직 학령기에도 이르지 않았던 나는 정말 알지 못했다. 차지던 바람이 메저지고 개펄에 성에 엉기듯 허영계 소금기가 끼는 철이 되면, 음습한 바람이 맴돌아야 난동하던 인화(燐火)가 전혀 일지 않던 것을.

어른들이 눈을 꿈적이며 먹탕곳 개펄계를 그만 보라고 타이른 밤이면 ㉡ **달 밑에 반딧불만 자주 날아도, 촛불 불이려 혼자 사당(祠堂) 문을 열 때처럼** **뿔뿔미가 선포하고 떨떠름하여** **담 밑에도 가지 못할 만큼이나** 그 도깨비불은 여간 두려운 존재가 아니었다. 그러므로 그런 날은 **아무리 무더위도** 모기가 떼메어 간다는 핑계로 **마실 마당에서 일찍 물러나곤** 하였다.

(중략)

복산이가 자리를 만들 동안 나는 변소를 찾아 나갔다. 농가라면 흔히 그렇듯 그곳은 저만치 밭마당 구석에 따로 나와 있었다. ㉢ **나는** **마당을 가로질러** **가면서** **무심결에** **개펄 쪽을** **둘러보다가** **소스라쳐** **놀라며** **그 자리에** **굳어 버리고** **말았다.**

아— 나는 참으로 오랜만에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도깨비불— 그렇다. 왕대피 밑 먹탕곳 개펄에 푸른빛을 내뿜는 도깨비불이 준비하게 늘어서 있던 것이다.

하나 둘 서이 너이…… 나는 어느새 도깨비불들을 손가락으로 헤아려 나가고 있었다. 변치 않은 것이 한 가지 더 있다는 반가움, 반가움과 즐거움에 들떠 그것들을 차곡차곡 빠뜨리지 않고 세어 나갔다.

“마흔다섯…….”

하고 중얼거리며 나는 손가락을 떨었다. ㉣ **내일 새벽엔** **안개도** **볼 수 있으리라고** **믿어,** **가슴의** **설렘에** **손가락마저** **떨린** **거였다.** **모를** **일이였다.** **옛날로** **돌아가** **혹시** **길 잃은** **여우가** **울부짖게** **될는지도.**

“게서 뭇 허나?”
 복산이가 같은 용무로 나오면서 허탕지거리를 했다.
 “아, 도깨비불…… 생전 못 볼 줄 알았다가 보니 좋은데. 멋 있는걸.”
 나는 건너편을 손가락질하면서 들뜬 소리로 말했다.
 “무엇이?”
 “저 도깨비불…….”
 “무엇 불?”
 “옛날에 보던 도깨비불, 그거 아녀?”
 “무슨 불? 허어 참, 그렇게 장가를 가라구.”
 “…….”
 “도깨비불 좋아허네…… 저게? 술고래라서 안주두 고루 먹어 헛소리는 안 험 중 알았더니…….”
 “그럼 모르겠는데…….”
 “뭘 몰라? 저전 서울서 온 낚시꾼들의 간드레 불이여. 명색 문화인이라면서 밤낚시 한 번두 못 해 봤구먼.”
 나는 무엇에 반혀 하늘 높이 떠올랐다가 거꾸로 떨어진 기분이었다. 오랜 꿈결에서 순간적으로 깨어난 것처럼 허망하고 민망했다.

“이리 죽 늘어앉은 디는 물길이구, 저쪽 저리 둘러앉은 디가 유수지여. 갯물이 들어오면 수문을 막았다가 쓸물 때 열어 물을 빼는디 민물고기 갯물 고기가 섞이구 해서 씨알두 게가 굶구, 물길에서는 잔챙이래두 붕어만 문다네. 남포, 청라 담에는 여기를 친다는 겨.”

그제서야 나는 늘어앉은 불빛들이 제자리에 죽어 있음을 비로소 깨달았다. ㉤ **무등** **타기와** **습바꼭질을** **하던** **살아** **있는** **불이** **아니란** **것만** **진작** **알았어도** **마흔다섯까지** **수효를** **헤아리지는** **않았을** **터였다.** 나는 무슨 **재산불이**를 어둠 속에 잃고 찾지 못한 투로 **무거워진** **가슴을** **안고** **복산이** **따라** **방으로** **들어갔다.**

- 이문구, 「관촌수필」 -

- * 뿜던: 끝을 가늘고 부드럽게 하려고 톱으로 훑던.
- * 콩노릇: 콩의 꽃.
- * 자마구: 곡식의 꽃가루.
- * 된내기: 된서리.
- * 감못하기도: 보이던 것이 전연 보이지 않아 찾을 곳이 감감하기도.

43.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반복되는 사건을 제시하여 인물들의 갈등을 심화하고 있다.
- ② 빈번하게 장면을 교차하여 상황의 긴박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③ 과거와 현재를 매개하는 경험을 제시하여 인물이 겪는 인식의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 ④ 공간의 이동에 따라 서술자를 달리하여 사건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 ⑤ 시간의 역전을 통해 인과 관계를 재구성한 서사를 함께 제시하여 사건의 내막을 감추고 있다.

44.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에는 어른들의 말을 온전하게 받아들이지는 않는 ‘나’의 미심쩍음이 드러난다.
- ② ㉡에는 착각으로 인해 연상된 상황을 궁금해 하는 ‘나’의 호기심이 나타난다.
- ③ ㉢에는 우연히 발견한 대상에 대한 ‘나’의 반가움이 담겨 있다.
- ④ ㉣에는 예측하는 상황이 일어날 것이라는 짐작에서 비롯된 ‘나’의 기대감이 나타난다.
- ⑤ ㉣에는 대상의 실체를 확인하기 전에 했던 자신의 행동에 대한 ‘나’의 허무감이 드러난다.

45.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금기란 어떤 대상을 꺼리거나 피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금기를 위반하면 그 대상에 의해 공동체 혹은 그 구성원이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을 공유한다. 일반적으로 금기를 설정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알려지지 않지만, 금기와 그 대상에 대한 추측은 구전의 방식을 통해 은밀하게 전파되어 구성원들 간에 회자된다. 이를 통해 금기와 금기의 대상이 환기하는 의미는 세대를 거쳐 전달됨으로써 서로 다른 세대 간에 공동체의 체험을 공유하는 데에 기여하기도 한다.

- ① ‘짜그락’거리는 ‘조무래기들’을 말리던 어른들이 그 이유를 ‘이렇다 하게 내놓지 못하는 눈치가 역연’하였던 것은, 금기가 설정된 근본적 이유가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겠군.
- ② ‘늘그막의 아낙네들’이 아이들에게 ‘도깨비불에 손가락질하면 도깨비가 쫓아온다’고 말하는 것은, 공동체의 금기를 서로 다른 세대가 공유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군.
- ③ ‘그네들’이 ‘낫춘말’로 ‘도깨비들이 별거벗고 산다’고 ‘귀땀’을 해 주는 행위는, 구전의 방식을 통해 금기의 대상에 대한 추측이 은밀하게 전파되는 정황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 ④ ‘아무리 무더위도’ 핑계를 대고 ‘마실 마당에서 일찍 물러나곤’ 한 것은, 금기를 위반한 ‘나’가 자신에게 닥칠 어른들의 처벌이 두려워서 한 행동이겠군.
- ⑤ ‘재산불이’를 잃은 듯 ‘무거워진 가슴을 안고’ 방으로 들어가는 행동은, 공동체에서 공유되던 금기에 관련된 일들이 추억으로만 남게 된 상황에 대한 ‘나’의 심리를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겠군.

[20~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8.09

(가)

꿈을 아느냐 네게 물으면,
플라타너스,
너의 머리는 어느덧 파아란 하늘에 젖어 있다.

너는 사모할 줄을 모르나,
플라타너스,
너는 네게 있는 것으로 그늘을 늘인다.

먼 길에 올 제,
㉠ 홀로 되어 외로울 제,
플라타너스,
너는 그 길을 나와 같이 걸었다.

이제 너의 뿌리 깊이
나의 영혼을 불어넣고 가도 좋으련만,
플라타너스,
나는 너와 함께 신이 아니다!

수고론 우리의 길이 다하는 어느 날,
플라타너스,
너를 맞아 줄 검은 흙이 먼 곳에 따로이 있느냐?
나는 오직 너를 지켜 네 이웃이 되고 싶을 뿐,
그곳은 아름다운 별과 나의 사랑하는 창이 열린 길이다.
- 김현승, 「플라타너스」 -

(나)

선뜻! 뜨인 눈에 하나 차는 영창
달이 이제 밀물처럼 밀려오다.

미욱한 잠과 베개를 벗어나
부르는 이 없이 불려 나간다.

한밤에 ㉡ 홀로 보는 나의 마당은
호수같이 둥긔이 차고 넘치노나.

쫘그리고 앉은 한옆에 흰 돌도
이마가 유달리 합초롬 고와라.

연연된 녹음, 수묵색으로 짙은데
한창때 곤한 잠인 양 숨소리 설키도다.

비둘기는 무엇이 궁거워* 구구 우느뇨,
오동나무 꽃이야 못 견디게 향그럽다.

- 정지용, 「달」 -

* 궁거워: 궁급하여.

20. (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반복적 호명을 통해 중심 대상으로 초점을 모으고 있다.
- ② 반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대상의 이중성을 부각하고 있다.
- ③ 색채어를 활용하여 대상의 고풍스러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 ④ 현재형 진술을 통해 대상의 역동적 성격을 보여 주고 있다.
- ⑤ 상승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사물의 변화 과정을 표현하고 있다.

21.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화자의 관조적 자세를, ㉡은 화자의 반성적 자세를 보여 준다.
- ② ㉠은 화자가 경험한 시련을, ㉡은 화자가 간직한 추억을 환기한다.
- ③ ㉠은 화자의 무기력한 태도를, ㉡은 화자의 담담한 태도를 표현한다.
- ④ ㉠은 화자의 적막한 처지를, ㉡은 화자를 둘러싼 고즈넉한 분위기를 드러낸다.
- ⑤ ㉠은 현실에 대한 화자의 회의감을, ㉡은 앞날에 대한 화자의 기대감을 부각한다.

22.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가)와 (나)는 특정한 공간에서 사물과 교감하는 화자의 내면을 보여 준다. (가)의 화자는 삶의 여정이자 구도적 공간인 ‘길’에서 이상 세계인 ‘하늘’을 지향하는 소망을 드러낸다. (나)의 화자는 달밤의 조화로운 풍경을 포착하는 심미적 공간인 ‘마당’에서 사물의 아름다움에 대한 충만한 정서를 드러낸다.

- ① (가)의 화자는 ‘플라타너스’와 ‘같이’ 걷는 모습에서, (나)의 화자는 ‘흰 돌’의 ‘유달리’ 고운 ‘이마’를 알아채는 모습에서 사물과의 교감을 보여 주는군.
- ② (가)의 화자는 ‘어느 날’에 이르는 과정을 통해 삶의 여정을 드러내고, (나)의 화자는 ‘한밤’에 ‘밀물’처럼 밀려온 달빛을 통해 조화로운 풍경을 포착하는군.
- ③ (가)의 ‘창’은 화자와 ‘하늘’을 잇는 매개체로서 이상 세계의 완전함을, (나)의 ‘영창’은 화자의 내면과 외부 세계를 잇는 매개체로서 화자의 만족감을 상징하는군.
- ④ (가)는 반짝이는 ‘별’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화자가 지향하는 세계의 아름다움을, (나)는 차고 넘치는 ‘호수’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화자가 느끼는 ‘마당’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군.
- ⑤ (가)의 화자는 ‘플라타너스’와 ‘이웃’이 되어 구도의 ‘길’을 함께하고자 하는 소망을, (나)의 화자는 오동 꽃이 ‘못 견디게 향그럽다’고 표현하여 자연에 대한 감흥을 드러내는군.

MEMO

MEMO

[23~26]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18.09

최 노인: (화단 쪽을 가리키며) 저기 심어 놓은 화초며 고추 모가 도무지 자라질 않는단 말이야! 아까도 들여다보니까 고추 모에서 꽃이 핀 지는 벌써 오래전인데 열매가 열리지 않잖아! 이상하다 하고 생각을 해 봤더니 저 멧없는 것이 죄우로 탁 들어 막아서 햇볕을 가렸으니 어디 자라날 재간이 있어야지! 이러다간 땅에서 풀도 안 나는 세상이 될 게다! ㉠ 말세야 말세!

이때 경제 제복을 차려 입고 책을 들고 나와서 신을 신다가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는 깔깔대고 웃는다.

경재: 원 아버지두……

최 노인: 이놈아 뭐가 우스워?

경재: 지금 세상에 남의 집 고추 밭을 넘어다보며 집을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최 노인: ㉡ 옛날엔 그렇지 않았어!

경재: 옛날 일이 오늘에 와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오늘은 오늘이지. ㉢ (옹변 연사의 흥을 내며) 역사는 강처럼 쉴 새 없이 흐르고 인생은 뜬구름처럼 변화무쌍하다는 이 엄연한 사실을, 이 역사적인 사실을 똑바로 볼 줄 아는 사람만이 자신의 운명을 개척할 수 있다는 사실을 최소한도로 아셔야 할 것입니다! 에헬!

(중략)

경수: 여보 영감님! 여긴 종로 한복판입니다. 게다가 가게와 살림집이 붙었는데 그래 겨우 이백오십만 환이라구요? ㉣ 그런 당치도 않은 거짓말은 공동묘지에서나 하시오.

복덕방: 뭐 뭐요? 공동묘지에서라고? 예끼 버릇없는 놈 같으니까!

경수: 아니 이 영감님이……

복덕방: 그래 이놈아 너는 애비도 에미도 없는 놈이기에 나이 먹은 늙은이더러 공동묘지에 가라구? 이 천하에.

최 노인: 여보 김 첩지. 젊은 애들이 말버릇이 나빠서 그런 걸 가지고 닦할 게 뭐요?

복덕방: 그래 내가 집 거간이나 놓고 다니니까 뭐 사고무친한 외도토리 쥘 아느냐? 이놈아! 나도 장성 같은 아들에게다 딸이 육 남매여!

경수: 아니 제가 뭐라고 했길래……

어머니: 넌 잠자코 있어! 용서하지우. 요즘 젊은 놈들이란 아무 생각 없이 말을 하니까요…… 게다가 술을 마셨다우.

복덕방: 음 이놈이 한낮부터 술 치먹고 어른에게 행패구냐! 이놈아! 내가 그렇게 만만하니?

최 노인: 김 첩지! 글썽 진정하시라니까…… 내가 대신 이렇게 사죄하겠소 원!

복덕방: 그러고 이백오십만 환이 터무니없는 값이라고? 이놈아 누군 돈이 바람 맞은 대추알이러던? 응? 그것도 잘 생각해서야! 음! 이런 분한 일이 있나!

최 노인: 글썽 참으시고 이리 앉으세요.

복덕방: 난 그만 가 보겠소이다. 이런 일도 기분 문제니까요! 다른 사람 골라서 공동묘지로 보내구려! 예잇.

최 노인: 아 ㉤ 김 첩지! 김 선생! (하며 뒤를 쫓아 나간다.)

경수: 제길 무슨 놈의 영감이 저래?

어머니: 내가 잘못이지 뭐니……

경수: 집을 팔지 말라고 했는데……

이때 최 노인 쉼근거리면서 등장하자 이 말을 듣고는 성을 더 낸다.

최 노인: 이놈아! ㉥ 누가 이 집을 판다고 했어? 응?

경수: 아니 그럼 이 집을 파시는 게 아니면 뭇 허러 복덕방은……

최 노인: 저런 쓸개 빠진 녀석 봤나! 아니 내가 뭇 때문에 이 집을 팔아? 응? 옳아 네놈 취직 자본을 대기 위해서? 응?

어머니: 아니 그럼 이백오십만 환이란 무슨 얘깁니까?

최 노인: 네 따위 놈을 위해서 하나 남은 집마저 팔아야만 속이 시원하겠니? 전세로 육 개월만 내놓겠다는 거야!

경수: 예? 전세라구요?

㉦ (어머니와 경운은 서로 얼굴을 바라본다.)

최 노인: 왜 아주 안 파는 게 양에 안 차지? 이놈아! 이 애비가 집도 절도 없는 거지가 되어서 죽는 꼴이 그렇게도 보고프냐?

경수: (당황하며) 아버지 아니예요! 저는……

최 노인: 아니면 껌질이나?

어머니: ㉧ 여보 그럼 집을 전세로 줘서 뭇 하시게요?

최 노인: 글썽 아까 어떤 친구 얘기가 요즘 그 실내에서 하는 그 뭐더라 ‘샤플보드’이라든가……

경운: ‘샤플보드’ 말씀이에요?

최 노인: 그래 ‘샤플보드’ 말이다! 그건 차리는 데 돈도 안 들고 수입이 괜찮다고 하면서 4가에 적당한 집이 있다기에 그걸 해 볼까 하고 이 집을 보였지. 그래 얘기가 거이 익어 가는 판인데 글썽 다 되어 간 음식에 코 빠치기로 저 녀석이……

어머니: 아니 그럼 전세로 이백오십만 환이란 말인가요?

최 노인: 그렇지! 저 가게만 해도 백만 환은 받을 수 있어!

어머니: 그런 걸 가지고 나는 괜히……

최 노인: 뭐가 괜히야?

경운: ㉨ 아버지께서 이 집을 팔으실 줄만 알았어요.

최 노인: 흥! 너희들은 모두 한숨이 되어서 어찌든지 내 일을 안 되게 하고 이 집을 날려 버릴 궁리들만 하고 있구나! 이 천하에 못된 것들! (하며 불쑥 일어선다.)

어머니: 그럴 리가 있겠어요! 다만……

최 노인: 듣기 싫어! (화초밭으로 나오며) 이 집안에서는 되는 거라곤 하나도 없어! 흔한 햇볕도 안 드는 집이 뭇이 된단 말이야! 뭇이 돼! (하며 화초밭을 함부로 작신작신 짓밟고 뽀아 헤친다.)

어머니: ㉩ (맨발로 뛰어내리며) 여보! 이게 무슨 짓이요!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가꾼 것들을…… 원…… 당신도……

최 노인: 내가 정성을 안 들인 게 뭐가 있어…… 나는 모든 일에 정성을 들였지만 안 되지 않아! 하나도 씨도 말야!

- 차범석, 「불모지」 -

* 샤플보드(shuffleboard): 오락의 한 종류.

23.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언어유희를 통해 인물 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 ② 장면의 전환을 통해 각 인물의 내면이 부각되고 있다.
- ③ 인물들의 복장을 통해 인물들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 ④ 인물의 등퇴장을 통해 인물의 성격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 ⑤ 실제 지명의 노출을 통해 극중 상황에 사실감을 부여하고 있다.

24.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주변 환경의 변화에 대한 ‘최 노인’의 부정적 인식이 드러나 있다.
- ② ㉡: ‘경재’의 말에 주목하게 하는 효과를 드러내고 있다.
- ③ ㉢: 호칭을 달리하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최 노인’의 노력이 드러나 있다.
- ④ ㉣: 두 인물이 ‘경수’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동시에 확인하고 있다.
- ⑤ ㉣: ‘어머니’의 다급한 심리를 행동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25. <보기>와 ㉠~㉣를 관련지어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발견’이란 인물이 극의 전개 과정에서 사건의 숨겨진 측면을 알아차리는 계기를 드러내는 기법이다. ‘발견’의 대상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 물건이 될 수도 있고 몰랐던 사실이나 새로운 가치, 인물의 다른 면 등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발견’을 통해 사건은 새로운 국면으로 바뀌기도 하고 인물들의 갈등 양상이 변모되기도 한다.

- ① ‘경재’는 ㉠를 통해 ‘최 노인’이 예전과 달라진 현실을 부정적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발견함으로써, ‘최 노인’에게 변화를 수용하는 태도가 필요함을 드러내는군.
- ② ‘복덕방’은 ㉡를 통해 ‘경수’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것을 발견함으로써, ‘최 노인’과의 흥정을 중지하게 되는군.
- ③ ‘경수’는 ㉢를 통해 ‘최 노인’이 집을 팔 의도가 없다는 것을 발견함으로써, ‘최 노인’에 대한 오해가 풀리게 되는군.
- ④ ‘최 노인’은 ㉣를 통해 자신의 계획을 ‘어머니’가 못마땅해 한다는 것을 발견함으로써, 자신의 계획을 변경하게 되는군.
- ⑤ ‘최 노인’은 ㉣를 통해 집 문제에 대한 자신의 의도를 ‘경운’이 잘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함으로써, 가족들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는군.

26. [화초밭]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경제적 안정에 대한 가족들의 희망이 드러나는 장소이다.
- ② 중심인물이 집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꿈을 포기하는 장소이다.
- ③ 두 인물의 상반된 행동을 통해 인물 간의 갈등이 해소되는 장소이다.
- ④ 중심인물이 현재의 고통이 자신에게서 비롯되었음을 자책하는 장소이다.
- ⑤ 자신의 노력이 결실을 맺지 못하여 허망해하는 중심인물의 감정이 드러나는 장소이다.

[33~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18.09

(가)

만금 같은 너를 만나 백년해로하잖더니, 금일 이별 어이 하리! 너를 두고 어이 가잔 말이냐? 나는 아마도 못 살겠다! 내 마음에는 어르신네 공조참의 승진 말고, 이 고을 풍헌(風憲)만 하신다면 이런 이별 없을 것을, 생눈 나올 일을 당하니, 이를 어이한단 말이고? 귀신이 장난치고 조물주가 시기 하니, 누구를 탓하겠느냐는 속절없이 춘향을 어찌할 수 없네! 네 말이 다 못 될 말이니, 아무튼 잘 있거라!

[A]

춘향이 대답하되, 우리 당초에 광한루에서 만날 적에 내가 먼저 도련님더러 살자 하였소? 도련님이 먼저 나에게 하신 말씀은 다 잊어 계시오? 이런 일이 있겠기로 처음부터 마다 하지 아니하였소? 우리가 그때 맺은 금석 같은 약속 오늘날 다 허사로세! 이리해서 분명 못 데려가겠소? 진정 못 데려가겠소? 떠보려고 이리하시오? 끝내 아니 데려가시려 하오? 정 아니 데려가실 터이면 날 죽이고 가오!

그렇지 않으면 광한루에서 날 호리려고 ㉠ 명문(明文) 써 준 것이 있으니, ㉡ 소지(所志) 지어 가지고 본관 원님께 이 사연을 하소연하겠소. 원님이 만일 당신의 귀공자 편을 들어 폐소시키시면, 그 소지를 덧붙이고 다시 글을 지어 전주 감영에 올라 가서 순사또께 소장(訴狀)을 올리겠소. 도련님은 양반이기에 ㉢ 편지 한 장만 부치면 순사또도 같은 양반이라 또 나를 폐소시키거든, 그 글을 덧붙여 한양 안에 들어가서, 형조와 한성부와 비변사까지 올리면 도련님은 사대부라 여기저기 청탁하여 또다시 송사에서 지게 하겠지요. 그러면 그 ㉣ 판결문을 모두 덧붙태어 뽕뽕 말아 품에 품고 팔만장안 억만가호마다 걸식하며 다니다가, 돈 한 푼씩 빌어 얻어서 동이전에 들어가 바리 뚜껑 하나 사고, 지전으로 들어가 장지 한 장 사서 거기에다 언문으로 ㉤ 상언(上言)을 쓸 때, 마음속에 먹은 뜻을 자세히 적어 이월이나 팔월이나, 동교(東郊)로나 서교(西郊)로나 임금님이 능에 거동하실 때, 문밖으로 내달아 백성의 무리 속에 섞여 있다가, 용대기(龍大旗)가 지나가고, 협연군(挾輦軍)의 자개창이 들어서며, 붉은 양산이 따라오며, 임금님이 가마나 말 위에 당당히 지나 가실 제, 왈각 뛰어 내달아서 바리뚜껑 손에 들고, 높이 들어 땡땡하고 세 번만 쳐서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격쟁(擊鐙)을 하오리다! 애고애고 설운지고!

그것도 안 되거든, 애쓰느라 마르고 초조해하다 죽은 후에 넘이라도 삼수갑산 험한 곳을 날아다니는 제비가 되어 도련님 계신 처마에 집을 지어, 밤이 되면 집으로 들어가는 체하고 도련님 품으로 들어가 볼까! 이별 말이 웬 말이오?

이별이란 두 글자 만든 사람은 나와 백 년 원수로다! 진시황이 분서(焚書)할 때 이별 두 글자를 잊었던가? 그때 불살랐다면 이별이 있을쏘냐? 박랑사(博浪沙)*에서 쓰고 남은 철퇴를 친하장사 항우에게 주어 힘껏 둘러메어 이별 두 글자를 깨치고 싶네! 옥황전에 솟아올라 억울함을 호소하여, 벼락을 담당하는 상좌가 되어 내려와 이별 두 글자를 깨치고 싶네!

- 작자 미상, 「춘향전」 -

* 박랑사: 중국 지명. 장량이 진시황을 암살하려 했던 곳.

(나)

이별이라네 이별이라네 이 도령 춘향이가 이별이로다 춘향이가 도련님 앞에 바짝 달려들어 눈물짓고 하는 말이 도련님 들으시오 나를 두고 못 가리다 나를 두고 가겠으면 홍로화(紅爐火) 모진 불에 다 사르겠으면 사르고 가시오

날 살려 두고는 못 가지리다
잡을 데 없으시면 ㉠ 삼단같이 좋은 머리를 휘휘칭칭 감아쥐고라도 날 데리고 가시오

[B]

살려 두고는 못 가지리다
날 두고 가겠으면 용천검(龍泉劍) 드는 칼로다 요 내 목을 베겠으면 베고 가시오

날 살려 두고는 못 가지리다
두어 두고는 못 가지리다
날 두고 가겠으면 ㉡ 영천수(潁川水) 맑은 물에다 던지겠으면 던지고나 가시오

날 살려 두고는 못 가지리다
이리 한참 험난하다 할 수 없이 도련님이 떠나실 때 방자 놔 분부하여 나귀 안장 고이 지으니
도련님이 나귀 등에 올라앉으실 때
춘향이 기가 막혀 미칠 듯이 날뛰다가
우르르 달려들어 나귀 꼬리를 부여잡으니

㉢ 나귀 네 발로 동동 굴러 춘향 가슴을 찰 때 안 나던 생각이 절로 나

그때에 이별 별(別) 자 내인 사람 나와 한백 년 대원수로다 깨치리로다 깨치리로다 박랑사 중 쓰고 남은 철퇴로 친하장사 항우 주어 이별 두 자를 깨치리로다 할 수 없이 도련님이 떠나실 때

향단이 준비했던 주안을 갖추어 놓고
뽕고추 겨리김치 문어 전복을 곁들여 놓고
잠수시오 잠수시오 이별 낭군이 잠수시오
언제는 살자 하고 화촉동방(華燭洞房) 긴긴 밤에 청실홍실로 인연을 맺고 백 년 살자 언약할 때 물을 두고 맹세하고 산을 두고 증삼(曾參)* 되자더니

㉣ 산수 증삼은 간 곳이 없고

이제 와서 이별이란 웬 말이오

잘 가시오

잘 있거라

산첩참(山疊疊) 수중중(水重重)한데 부디 편안히 잘 가시오

나도 ㉤ 명년 양춘가절*이 돌아오면 또다시 상봉할까나

- 작자 미상, 「춘향이별가」 -

* 증삼: 공자의 제자. 고지식하여 약속을 반드시 지킴.

* 양춘가절: 따뜻하고 좋은 봄절.

33. (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도련님’은 이별의 상황이 자신의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것임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춘향’은 ‘도련님’을 처음 만날 때부터 이별의 상황을 우려하였음을 말하고 있다.
- ③ ‘춘향’은 ‘도련님’ 곁에 머물고 싶은 마음을 자연물에 의탁하여 드러내고 있다.
- ④ ‘춘향’은 고사를 활용하여 자신의 상황이 역사적 사건과 관련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다.
- ⑤ ‘춘향’은 천상의 존재에게 억울함을 전하는 상황을 설정하여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34.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도련님’의 마음을 확인하고자 ‘춘향’이 쓴 글이다.
- ② ㉡: ‘도련님’이 자신의 무고함을 밝히는 내용이 담길 것이다.
- ③ ㉢: ‘춘향’과의 친밀감을 강화하려는 ‘도련님’의 마음을 전하는 내용이 담길 것이다.
- ④ ㉣: ‘도련님’에게는 약속 파기의 책임을 물을 수 없음을 밝히는 내용이 담길 것이다.
- ⑤ ㉤: ‘춘향’이 ‘순사또’의 힘을 빌려 ‘임금’에게 자신의 입장을 전하는 내용이 담길 것이다.

35.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인물이 지닌 자부심을 환기하여 좌절감을 완화하는 소재이다.
- ② ㉡는 초월적 공간에 대한 지향을 드러내어 현재의 고통과 대비하기 위한 소재이다.
- ③ ㉢는 부정적인 상황을 회화화함으로써 당면한 현실을 풍자하는 표현이다.
- ④ ㉣는 기대가 어긋나 버린 사정을 부각하여 비애감을 심화하는 표현이다.
- ⑤ ㉤는 미래에 대한 전망을 바탕으로 대상과의 재회를 확신하는 표현이다.

36.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여러 작품에서 ‘춘향’은 다양한 면모를 지닌 인물로 형상화되었다. ‘춘향’은 원치 않는 상황을 받아들이는 수용적 면모를 보이기도, 목표를 이루려 단호하게 행동하는 적극적 면모를 보이기도 한다. 신세를 한탄하며 절규하는 걱정적 면모를 드러내는가 하면, 문제를 숙고하여 대응책을 모색하는 치밀한 면모를 표출하기도 한다. 한편 ‘춘향’은 당대 민중의 시각을 대변하는 면모를 지니기도 한다.

- ① (가)에서 양반들이 한통속이어서 ‘도련님’을 두둔할 것이라고 언급하는 모습을 통해, 민중의 입장을 취하는 ‘춘향’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 ② (가)에서 구걸하고 다니면서도라도 자신의 상황을 알리겠다는 모습을 통해, 뜻한 바를 성취하려는 ‘춘향’의 적극적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 ③ (나)에서 이별 후 자신이 겪을 고난을 말하며 ‘도련님’의 마음을 돌리려는 모습을 통해, 문제 해결책을 강구하는 ‘춘향’의 치밀한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 ④ (나)에서 ‘도련님’에게 주안을 울리며 어쩔 수 없이 이별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통해, 서글픈 현실을 감내하려는 ‘춘향’의 수용적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 ⑤ (가), (나)에서 ‘이별’이라는 두 글자를 철퇴로 깨뜨리고자 하는 모습을 통해, 북받친 감정을 토로하면서 탄식하는 ‘춘향’의 걱정적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37. <보기>를 바탕으로 [A], [B]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조선 후기에 책을 대여하고 값을 받는 세책업자는 「춘향전」을 (가)와 같은 세책본 소설로, 유흥적 노래를 지은 잡가의 담당층은 「춘향전」의 대목을 (나)와 같은 잡가로 제작했다. 세책업자는 과장되고 재치 있는 표현을 활용하여 흥미를 높이거나 특정 부분의 분량을 늘려 이윤을 얻으려 했다. 잡가의 담당층은 노래의 내용을 단시간에 전달하기 위해 상황을 집약해 설명하고 인물의 감정을 드러내는 가사를 반복해 청중의 공감을 끌어냈다. 연속되지 않은 장면들을 엮어 노래를 구성할 때에는 작품 속 화자의 역할이 바뀌기도 하였다.

- ① [A]에서 ‘생는 나올 일’이라는 과장된 표현을 쓴 것은 작품의 흥미를 높이려는 취지와 관련되었군.
- ② [A]에서 ‘도련님’에게 거듭하여 묻는 형식을 사용한 것은 분량을 늘리려는 의도와 관련되었군.
- ③ [B]에서 첫 행에 작품의 상황을 제시한 것은 청중을 작품의 내용에 빠르게 끌어 들이려는 전략과 관련되었군.
- ④ [B]에서 ‘못 가시리다’라는 구절을 반복하여 인물의 감정을 강조한 것은 청중의 공감을 유발하려는 목적과 관련되었군.
- ⑤ [B]에서 화자가 해설자에서 인물로 역할을 바꾸는 것은 연속되지 않은 장면들이 엮여 작품이 구성되었음을 알게 해 주는 단서이겠군.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18.09

㉠ 그렇게…… 그렇게도 배가 고프디야.

그 넓은 운동장을 다 걸어 나올 때까지 불현듯 어머니의 입에서 새어 나온 말은 꼭 그 한마디였다. 하지만 그것은 반드시 그를 향해 묻는 말이라기보다는 닳두리에 더 가까웠다. 교문을 나선 어머니는 집으로 가는 길을 제쳐 두고 웬일인지 곧장 다릿목에서 왼쪽으로 꺾어 드는 것이었다. 저만치 구호소 식당이 눈에 들어왔을 때 그는 까닭 모를 두려움과 수치심으로 뒷걸음질을 쳤다. 그런 그를 어머니는 별안간 무서운 힘으로 잡아끌었다.

㉡ 가자. 아무리 없어서 못 먹고 못 입고 살더라도 나는 절대로 내 새끼를 거지나 도둑놈으로 키울 수는 없으께. 시상에…… 시상에, 돌아가신 그 아버지가 이런 꼴을 보시면 똬이라고 그러시끄나이.

어머니의 음성은 돌연 냉랭하게 변해 있었다. 끝내 그는 외양 울음을 터뜨려 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어머니는 기어코 구호소 식당 안의 때 묻은 널빤지 의자 위에 그를 끌어다가 앉혀 놓았다.

잠시 후 어머니가 손바닥에 받쳐 들고 온 것은 ㉢ 한 그릇의 국수였다. 긴 대나무 젓가락이 찢어져 있는 그것을 어머니는 그의 앞으로 밀어 놓으며 말했다.

㉣ 먹어라이. 어서 먹어 보란 말다이…….

어머니의 음성에는 어느새 아까의 냉랭함이 거의 지워져 있었다. 그는 몇 번 망설이다가는 젓가락을 뽑아 들고 무 조각 하나가 덩그러니 떠 있는 그 구호용 가락국수를 먹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문득 고개를 들었던 그는 그만 젓가락을 딸각 놓아 버리고 말았다. 마주 앉아서 그때까지 그를 줄곧 지켜보고 있었을 어머니의 눈에는 소리도 없이 눈물이 그득히 피어오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탁자 밑에 가지런히 모아져 있는 어머니의 낡은 먹고무신을 내려다보며 그는 갑자기 목구멍이 빠근해져 움을 느껴야 했다.

그 후, 그는 두 번 다시 그 빈민 구호소 식당 앞에서 얼쩡 거리지 않았다. 아마도 그런 기억 때문이었는지는 몰라도,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된 지금까지도 국수는 그에게 여전히 싫어하는 음식으로 남아 있었다.

(중략)

어머니한테 뭔가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조짐을 처음으로 느끼기 시작한 것은 두 달 전쯤부터였다. 그날따라 겨울이 전에 없이 일찍 앞당겨 찾아온 듯한 늦가를 날썰로 밝은 유난히 썰렁했다. 젓가락으로 밥알을 헤아리듯 하며 맛없는 아침상을 받고 있노라니까 아내가 심상찮은 기색으로 곁에 쫓그려 앉는 것이었다. 그녀가 미처 입을 열기도 전에 그는 짐짓 신경질적인 표정부터 준비했다. 그즈음은 마침 지난달의 봉급을 받지 못한 데다가 그달 봉급마저도 벌써 며칠째 넘기고 있던 참이었으므로, 이번에도 또 아내의 입에서 보나마나 궁색한 소리가 튀어나오리라고 지레짐작했던 때문이었다. 급료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직장을 뗫 하러 나다녀야 하느냐는 당연한 투정 때문에 얼마 전에도 한바탕 말다툼을 벌였던 적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날 아침은 그게 아니었다.

여보. 나가시기 전에 어머니 좀 잠시 들여다보세요. 암만 해도…….

아니 왜. 감기약을 지어 드렸는데도 여전히 차도가 없으시대?

며칠 전부터 몸이 편찮으시다고 누워 계시는 줄은 그도 알고 있었다. 병원에 가 보는 게 어땠겠느냐고 물었더니, 특별히 아픈 데는 없노라고, 아마도 고혈인 것 같으니까 누워 있으면 곧 괜찮아질 거라고 하며 어머니는 손을 내젓던 것이었다.

그게 아니라, 저어, 암만해도 어머니 좀 이상해지신 것 같단 말예요.

그,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아내는 뭔가 숨기고 있는 듯한 어정쩡한 표정으로 그의 눈치를 살피고 있었다. 문득 불길한 예감이 뒤통수를 때렸다.

아무리 봐도 예전 같지가 않으시다구요. 그렇게 정신이 총총하시던 분이 별안간 무슨 말인지도 모를 헛소리를 하시기도 하고……. 어찌다가는 또 말짱해 보이시는 것 같다가도 막상 물어 보면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처음엔 일부러 그러시는가 했는데, 글썽 그게 아니예요.

도대체 난데없이 무슨 소릴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설마 어머니가 그럴 리가 있을까 싶으면서도 웬지 섬뜩한 예감이 그는 숟가락을 놓고 곧장 건넌가 보았다.

어머니는 이불을 덮고 누워 무얼 생각하는지 멀거니 천장만 올려다보고 있었다. 의외로 안색이 나아 보였으므로 그는 적이 맘을 놓았다. 하지만 어머니는 두 번씩이나 부르는 아들의 목소리에도 대답이 없었다. 그저 꼼짝도 하지 않고 망연한 시선을 천장의 어느 한 점에 멈춰 두고 있을 뿐이었다. 한동안 멍청하게 앉아 있던 그가 자리에서 마악 일어서려 할 때였다.

㉤ 찬우야이!

어머니의 입에서 불쑥 그 한마디가 튀어나오는 순간 그는 가슴이 철렁했다. 직감적으로 어떤 불길한 예감이 전신을 휩싸 안는 것 같았다. 아직까지 어머니는 한 번도 그렇게 아들의 이름을 직접 부르는 적이 없었다. 적어도 그가 결혼한 후로는 그랬다. 하지만 그보다도 더 그가 놀랐던 것은 어머니의 음성에서였다. 그것은 이미 예전의 귀에 익은 음성이 아니었다. 언제나 보이지 않는 따뜻함과 부드러움으로 흘러나오곤 하던 그 목소리에는 대신 어딘가 냉랭하면서도 들떠 있는 듯한 건조함이 배어 있었다. 그 음성을 듣는 순간 그가 내심 섬찟했던 것은 바로 그 생경한 이질감 때문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는 놀란 눈으로 황급히 어머니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 찬우야이. 어서 꼬두메로 돌아가자이. 그 아버지랑 찬세가 얼매나 기다리겠냐아. 더 추워지기 전에 싸게싸게 집으로 가야 한단 말다이.

어머니는 나직하게, 그러나 힘이 서린 목소리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그가 너무 당황하여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얼른 섭사리 가려낼 수가 없었다.

- 임철우, 「눈이 오면」 -

43.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특정 인물의 회상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 ② 계절의 변화를 통해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드러나고 있다.
- ③ 공간적 배경에 대한 상세한 묘사를 통해 사건 전개를 지연시키고 있다.
- ④ 서술자가 관찰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전달함으로써 객관성을 높이고 있다.
- ⑤ 서술의 초점을 다양한 인물로 옮겨 가며 갈등을 다각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44.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어머니’와 ‘그’의 갈등을 지속시키는 매개물이다.
- ② ‘그’가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게 하는 매개물이다.
- ③ ‘그’가 ‘어머니’의 속마음을 깨닫게 하는 매개물이다.
- ④ ‘어머니’에 대한 ‘그’의 배려를 드러내는 매개물이다.
- ⑤ 어려운 처지의 ‘어머니’에게 위안을 주는 매개물이다.

45. <보기>를 참고하여 ㉠~㉣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눈이 오면」에서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발화 내용과 어우러져 ‘그’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그 목소리는 ‘그’에게 수치심, 죄책감, 불길함, 섬찝함, 당혹감 등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거나 특정한 행동을 야기한다.

- ① ㉠에서 ‘어머니’가 넋두리에 가까운 말로 아들의 배고픔을 언급한 것은 ‘그’가 구호소 식당을 보았을 때 느낀 까닭 모를 두려움과 수치심으로 이어지는군.
- ② ㉡에서 ‘어머니’가 냉랭한 음성으로 ‘아버지’를 언급한 것은 ‘그’에게 죄책감을 불러일으켜 결국 ‘그’로 하여금 울음을 터뜨리게 하는군.
- ③ ㉢에서 ‘어머니’가 냉랭함이 사라진 음성으로 ‘그’에게 국수를 먹으라고 권하는 것은 ‘그’에게 불길함을 느끼게하여 젓가락을 딸각 놓는 행동에 영향을 주는군.
- ④ ㉣에서 ‘어머니’가 생경한 이질감이 느껴지는 음성으로 ‘그’의 이름을 부른 것은 ‘그’에게 ‘어머니’의 변화를 인식하게 하여 섬찝함을 느끼게 하는군.
- ⑤ ㉤에서 ‘어머니’가 힘이 서린 목소리로 돌아가신 아버지가 있는 집으로 가자고 하는 것은 과거와 현재를 구분하지 못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드러내어 ‘그’에게 당혹감을 갖게 하는군.

[26~2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8.06

(가)

문학적 시간은 작가의 체험이나 의식에 따라 자연적 시간을 의도적으로 재구성하여 미적 효과를 드러낸다. 삶의 과정과 시간의 흐름을 담은 사건은 주로 과거형으로, 대상의 특징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하는 이미지는 주로 현재형으로 표현한다.

하지만 과거형과 현재형의 적용은 작품 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과거의 사건이나 동작의 변화를 실감나게 드러내기 위해 현재형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이미지 묘사를 시간의 흐름이 드러나도록 과거형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A] 특히 서정시는 현재의 순간에 과거의 경험들이 공존해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시간의 모호성이 두드러진다. 즉 서정시는 과거와 현재를 분리하지 않고 시적 현재로 통합하는 시간의 의도적 변형을 드러내는 것이다.

(나)

하늘로 날을 듯이 길게 뽑은 부연* 끝 풍경이 운다
치마 끝 곱게 늘어난 주름에 반월(半月)이 숨어
아른아른 봄밤이 ㉠ 두견이 소리처럼 깊어 가는 밤
㉡ 곱아라 고아라 진정 아름다운지고

파르란 구슬빛 바탕에 자춧빛 호장*을 받친 호장저고리
호장저고리 하얀 동정이 환하니 밝도소이다
살살이 퍼져나린 곱은 선이 스스로 돌아 곡선을 이루는 곳
열두 폭 기인 치마가 사르르 물결을 친다
초마* 끝에 곱게 감춘 운혜(雲鞋) 당혜(唐鞋)
㉢ 발자취 소리도 없이 대청을 건너 살며시 문을 열고
그대는 어느 나라의 고전(古典)을 말하는 한 마리 호접(蝴蝶)
호접인 양 사뭇이 춤을 추라 아미(蛾眉)를 숙이고……
나는 ㉣ 이 밤에 옛날에 살아 눈 감고 거문곶줄 골라 보리니
㉤ 가는 버들인 양 가락에 맞추어 흰 손을 흔들어지이다

- 조지훈, 「고풍 의상」 -

(다)

어머님,
제 예닐곱 살 적 겨울은
목조 적산 가옥 이층 다다미방의
별거숭이 유리창 깨질 듯 울어 대던 외풍 탓으로
한없이 추웠지요, 밤마다 나는 벌벌 떨면서
아버지 가래가 사이로 시린 발을 밀어 넣고
그 가슴팍에 벌레처럼 파고들어 얼굴을 묻은 채
겨우 잠이 들곤 했었지요.

[B] 요즈음도 추운 밤이면
결에서 잠든 아이들 이불깃을 덮어 주며
늘 그런 추억으로 마음이 아프고,
나를 품어 주던 그 가슴이 이제는 한 줌 뻗가루로 삭아
붉은 흙에 자취 없이 뒤섞여 있음을 생각하면
옛날처럼 나는 다시 아버지 곁에 눕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오늘은 영하(零下)의 한강교를 지나면서 문득
나를 품에 안고 추위를 막아 주던
예닐곱 살 적 그 겨울밤의 아버지가
이승의 물로 화신(化身)해 있음을 보았습니다.
품 안에 부드럽고 여린 물살은 무사히 흘러
바다로 가라고,
팡 팡 얼어붙은 잔등으로 흑한을 막으며
하얗게 얼음으로 엮드려 있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 이수익, 「결빙(結氷)의 아버지」 -

* 부연(附椽): 긴 서까래 끝에 덧엮는 네모지고 짧은 서까래.
* 호장: 회장(回裝). 여자 저고리를 색갈 있는 형식으로 꾸민 것.
* 초마: '치마'의 방언.

26. (가)를 바탕으로 (나)의 ㉠~㉤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자연적 시간이 작가의 의식에 의해 문학적으로 재구성된 경우에 해당한다.
- ② ㉡은 과거형과 현재형의 적용이 작품 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진 경우에 해당한다.
- ③ ㉢은 서정시에서 동작의 변화를 현재형으로 묘사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 ④ ㉣은 과거와 현재를 통합적으로 인식함으로써 시간의 정확성을 드러낸 경우에 해당한다.
- ⑤ ㉤은 시간의 흐름이 드러나도록 과거형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27. [A]를 중심으로 (다)를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화자가 '아버지'와 겪었던 유년 시절을 '어머님'에게 들려주는 시상 전개 방식으로 과거와 현재의 시간을 이어 준다.
- ② '목조 적산 가옥 이층 다다미방'이라는 현재 위치에서 화자가 과거의 이야기를 전해 주는 방식으로 시적 현재의 의미를 생성해 낸다.
- ③ '옛날처럼 나는'에서 현재의 순간에 과거의 경험들이 공존해 있는 시적 상황을 설정하고 있다.
- ④ '예닐곱 살 적 그 겨울밤'을 '영하의 한강교를 지나면서' 떠올리는 데서 과거와 현재의 통합이 드러난다.
- ⑤ '그 겨울밤의 아버지'가 '이승의 물로 화신'했다고 표현함으로써 과거와 현재를 분리하지 않는 시간의 모호성을 드러낸다.

28. (나)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의도적으로 변형한 시어를 통하여 리듬감에 변화를 주고 있다.
- ② 전통적인 소재와 예스러운 말투로 고전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③ 시적 상황에 등장하는 인물의 행위를 자연물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 ④ 색채어를 활용하여 시적 대상의 아름다움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 ⑤ 말줄임표를 사용하여 시적 대상의 정적인 상태와 동적인 상태가 충돌하는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

29. [B]를 중심으로 (다)를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결에서 잠든 아이들 이불깃을 덮어 주’는 모습이 ‘나를 품에 안고 추위를 막아 주던’ 모습과 호응하여, 자식을 걱정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시적 화자에게로 이어짐을 보여 주는군.
- ② ‘늘 그런 추억으로 마음이 아프’다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아버지, 아버지……’에서 아버지의 부재에 대한 시적 화자의 애뜻함을 여운으로 남기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③ ‘한 줌 뺏가루’의 이미지와 ‘하얗게 얼음으로 얹드려 있’는 강의 이미지를 연관시켜, 아버지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군.
- ④ ‘나를 품어 주던 그 가슴’과 ‘팡 팡 얼어붙은 잔등’의 대비를 통하여, 내면의 의도와 반대되는 행동을 보여 주셨던 아버지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군.
- ⑤ ‘다시 아버지 곁에 눕고 싶’은 현재와 ‘아버지 가랑이 사이로 시린 발을 밀어 넣’었던 과거를 연결하여,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담아내고 있군.

[35~3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18.06

“이곳은 서방 세계(西方世界)라, 속객이 어찌 오시니잇가?”
 성의가 공손히 답례하고 가로되,
 “나는 안평국 사람이러니 천성금불 보탑존자를 뵈러 왔사오니
 어디 계시니잇가?”
 화상이 왈,
 “보탑존자는 금강천불대사라. 인간 육신으로 이곳을 들어
 왔으니 정성을 가히 알지라. 그대 정성을 신령이 감동함이나
 마음이 부정(不淨)하면 대사를 보지 못할지라. 물러가 칠 일
 재계(齋戒) 후에 대사를 보소서.”

하거늘 성의가 슬프게 눈물 흘리며 재배 왈,
 “소자 무변광해를 주유하와 천신만고하여 왔삽거늘 어찌
 물러가 칠 일을 머물리잇가? 바라건대 스님은 살피사 일각이
 삼추 같사온 성의 마음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면 차라리
 이곳에서 죽어 사부의 어엿비 여기심을 바라나이다.”

하니 화상이 왈,
 “이곳을 한 번 보면 삼재팔난이 소멸되나니 귀객의 효성이
 창천에 사무치느니라. 작일에 존자 분부하시되, ‘명일 유시에
 안평국 왕자 내게 올 것이니 오는 즉시 아뢰라.’ 하시더니,
 생각건대 그대를 이르심이라.”

하고,
 “잠깐 머무소서.”
 하며 들어가더니 이윽고 나와 청하거늘 성의 따라 들어가니
 칠층 전각의 일위 존자 머리에 누른 송라를 쓰고 칠건 가사를
 메고 좌수에 금강경을 쥐고 우수로 백팔염주를 두르며 경문을
 외우니, 좌편의 오백 나한이며 우편의 칠백 중들이 합송하니
 송경 소리 반공에 사무치느니라. 성의 칠보대 아래에서 재배하
 는데, 존자 왈,

“내 일찍 수도하여 천하제국 중생의 선악을 보느니라. 이제
 네 효도하여 위친지성(爲親至誠)이 지극하여 극락서역이 창해
 누만 리거늘 부모에게 효도함에 위친지성으로 길을 삼아 금일로
 올 줄을 알았더니 과연 오도다.”

하며 환약 일봉을 주며 왈,
 [A] “이 약이 일영주니 바베 돌아가 모환을 구하라. 너는 본디
 하계(下界) 사람이 아니라. 전세에 묘일성신과 혐의*
 있더니, 금세에 형제 됴에 곤액(困厄)*이 있으나 필경에
 원한을 풀 날이 있으리라.”

[중략 줄거리] 일영주를 구해 돌아오던 중 성의는 왕위를 이어
 받는 데 위협을 느낀 형 항의에게 공격을 당해 일영주를 빼앗기고
 눈이 먼다.

각설, 이때 성의 한 조각 판자를 의지하였으니 어찌 가련치
 아니하리오. 두 눈이 어두웠으니 천지일월성신이며 만물을 어찌
 알리오. 동서남북을 어찌 분별하며 흑백장단을 어이 알리오. 다만
 바람이 차면 밤인 줄 알고 일기가 따스한즉 낮인 줄 짐작하나
 만경창파에 금수 소리도 없는지라.

삼일 삼야 만에 판자 조각이 다다른 곳이 있는지라.
 놀래어 손으로 어루만지니 큰 바위라. 기어 올라가 정신을
 수습하여 바위를 의지하고 앉아 탄식 왈,
 “사형(舍兄)*이 어찌 이다지 불량하여 무죄한 인명을 창과
 중에 원혼이 되게 하고, 나로 하여금 이 지경이 되게
 하였으니 이제는 부모가 곁에 계신들 얼굴을 알지 못하게
 되었으니 어찌 통한치 아니하리오. 그러나 모친 환우가
 어떠하신지, 일영주를 썼는지 알지 못하니 어찌 원통치
 아니하며, 인자하신 우리 모친이 속절없이 황천에 돌아
 가시겠도다.”

[B] 하고 슬피 통곡하니 창천이 옥열하고 일월이 무광한지라.
 사고무인(四顧無人) 적막한데 십이 세 적공자가 불량한 사형
 에게 두 눈을 상하고서 일시에 맹인이 되어 외로운 암석 상에
 홀로 앉아 자탄하니 그 아니 처량한가. 적적무인(寂寂無人) 야
 삼경의 추풍은 삼삼하여 원객의 수심을 자아내고, 강수동류원
 야성(江水東流猿夜聲)의 잔나비 슬피 울고, 유의한 두견성과 창과
 만경의 백구들은 비거비래(飛去飛來) 소리 질러 자탄으로 겨우 든
 잠을 놀라 깨니 찻찻원한 무궁리라. 하늘을 우러러 탄식을 마지
 아니하더니 문득 ㉠ 청아한 소리 들리거늘 귀를 기울여 들으며
 헤아리되, ‘이는 분명한 대 소리로다. 이 같은 대해 중에 어찌
 대밭이 있는고’ 하며 ‘이는 반드시 축나라 땅이로다.’ 하고 소리를
 쫓아 내려가고저 하더니, 문득 ㉡ 오작(烏鵲)이 우지지며 손에
 자연 짚이는 것이 있거늘 이는 곧 실과라. 먹으니 배 부르지라
 정신이 상쾌하거늘, 오작에게 사례하고 인하여 바위에 내려 죽림을
 찾아가니 울밀한 죽림이라. 들으니 그중에 ㉢ 한 대가 금풍을
따라 스스로 응하여 우느니라. 여러 대를 더듬어 우는 대를 찾아
 잡고 주머니에서 칼을 내 대를 베어 단저*를 만들어서 한 곡조를
 부니 ㉣ 소리 처량하여 산천초목이 다 우짖는 듯하더라.

차시에 성의 오작에게 밥을 부치고 단저로 벼를 삼아 심회를
 덜며 일본도 그 형을 원망치 아니하고, 주야에 부모를 생각하니
 그 천성대효(天性大孝)를 천지신명이 어찌 돕지 아니하리오.

각설, 이때 중국에 호마령이라 하는 재상이 있으니 벼슬이
 승상에 오른지라. 황명을 받자와 남일국에 사신 갔다가 삼 삭 만에
 돌아오더니 이곳에 이르러 일행을 쉬더니 청풍은 서래하고
 수과는 고요한데, ㉤ 처량한 피리 소리 풍편에 들리거늘 호 승상이
 헤오되, ‘이곳은 무인지경(無人之境)이라. 분명 선동(仙童)이
 옥저를 불어 속객을 희롱하는도다.’ 하고 시동(侍童)을 명하여,
 “피리 소리 나는 곳을 찾아보라.”

하시되 시동 승명하고 피리 소리를 따라 한곳에 이르니 한 동자
 죽림 암상에 비껴 앉아 단저를 처량하게 불거늘 시동이 왈,
 “그대 신동인가? 선동인가?”

하니 성의 놀라더라.

- 작자 미상, 「적성의전」 -

* 혐의: 꺼리고 미워함.
 * 곤액: 몹시 딱하고 어려운 사정과 재앙이 겹친 불운.
 * 사형: 자기의 형을 겸손하게 이르는 말.
 * 단저: 짧은 피리.

35.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화상은 인간 육신으로 서방 세계에 온 성의를 의심하여 그의 능력을 시험하였다.
- ② 성의는 죽어서라도 대사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화상에게 전했다.
- ③ 보탑존자는 성의가 찾아올 것이라고 화상에게 미리 알려 두었다.
- ④ 호 승상은 남일국에 사신으로 가는 길에 선동에게 희롱당하고 일행과 함께 자리를 떴다.
- ⑤ 시동은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혼자 나서는 것을 두려워하여 호 승상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36. [A]를 바탕으로 [B]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 존자는 성의에게 ‘모환을 구하라’고 했는데, [B]를 보면 성의는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한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A]에서 존자는 성의가 ‘본디 하계 사람이 아니라’고 했는데, [B]를 보면 성의가 황천으로 돌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A]에서 존자는 성의에게 ‘전세에 묘일성신과 혐의 있더니, 금세에 형제 뒀에’라고 했는데, [B]를 보면 성의는 형과의 전세 악연을 이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A]에서 존자가 성의에게 ‘곤액이 있’다고 했는데, [B]를 보면 성의는 이제 부모의 곁에 있게 되었지만 그 얼굴을 알지도 못하게 된 고통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A]에서 존자가 성의에게 ‘필경에 원한을 풀 날이 있으리라’고 했는데, [B]를 보면 성의는 탄식을 통해 자연물의 공감을 얻음으로써 형에 대한 통한을 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7. ㉠~㉣에 드러나는 소리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표류하던 성의가 자신이 있는 위치를 가늠할 수 있게 하는 정보다.
- ② ㉡: 먹을 것이 주위에 있다는 것을 성의에게 알려 주는 신호다.
- ③ ㉢: 성의가 피리의 재료로 쓸 대나무를 발견하는 계기가 된다.
- ④ ㉣: 성의가 자신의 피리 부는 재능이 탁월함을 천상계에 알리는 신호다.
- ⑤ ㉤: 고립되어 있던 성의가 타인과 만나는 계기가 된다.

38.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불교 설화를 근원으로 하고 있는 「적성의전」은 소설로 형성되는 과정에서 유교적 덕목인 효행이 강조된다. 또한 대결 구도를 근간으로 하면서 초월적 존재 혹은 천상계가 설정되는 특징을 보여 준다. 특히 형제 갈등이라는 가족 내의 문제를 다루면서 권선징악적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 ① 성의가 원래 하계 사람이 아니라는 존자의 말로 보아 천상계가 설정된 이 소설의 특징을 알 수 있군.
- ② 금강경, 백팔염주, 보탑존자 등의 불교적 소재를 취한 것으로 보아 불교 설화의 흔적이 남아 있음을 알 수 있군.
- ③ 천하제국 중생의 선악을 볼 수 있는 존자가 부정한 성의를 만나지 않겠다고 한 것으로 보아 권선징악적 성격을 알 수 있군.
- ④ 형에 의해 두 눈이 멀고 홀로 암석 위에서 자탄하고 있는 성의의 모습으로 보아 인물 간의 갈등이 가족 내의 문제임을 알 수 있군.
- ⑤ 성의가 어머니를 위한 지극한 효성으로 창해 누만 리 떨어진 곳까지 일영주를 얻기 위해 갔다는 것으로 보아 유교적 덕목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군.

[39~4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18.06

뒤야 알았지만 아침에 그런 일이 있고 난 그날 밤에 아내는 그 **고무신** 짝을 들고 골목길을 이리저리 기웃거리다가 길가의 아무 집이건 가림이 없이 여느 집 담장으로 횡 던졌던 모양이었다. 물론 아내는 제 자존심도 있었을 터여서 그런 얘기를 나에게서 입 밖에도 내기는커녕 전혀 내색조차 하지 않았다. 나도 아침에 그런 일이 있고, 그 고무신 짝은 대문 앞의 멧대거리 없게 생긴 시멘트 덩어리 쓰레기통에 버린 뒤, 그런 일은 없었던 셈으로 졌다. 우리는 미심한 대로 그 일을 그렇게 처결해 버렸던 것이다. 그러나 아내는 그 미심한 점이 역시 미심했던 모양이었다. 나는 하루 종일 거리로 나와 있었지만 아내는 종일토록 집에만 있었으니까, 그 미심한 느낌도 나보다도 훨씬 더했을 것이다. 그렇게 아내는 이미 그 **고무신** 짝의 논리 속에 흠뻑 빠져 들어가고 있었다. 그리하여 어두울 무렵에 혼자 나갔을 것이다. 쓰레기통 속에서 회끄무레한 남자 고무신 짝을 끄집어냈을 것이다. 골목길을 오르내리며 마땅해 보이는 장소를 물색했을 것이다. 그러다가 **아무 집이건 담장 너머로** 횡 던져버렸을 것이다. 그렇게 그쯤으로 **액뺨**을 했다고 자처해 버렸을 것이다.

그 며칠 뒤, 정확하게 열흘쯤 지나서였다.

아침에 자리에서 눈을 뜨자 먼저 일어나 밖으로 나갔던 아내가, “아빠아, 눈 왔다가, 눈 왔어어.”

호들갑을 떨듯이 소리를 질러서, 나도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 내의 바람으로 달려 나갔다.

아내는 뜰 한가운데 파자마 바람으로 싱글벙글 웃고 서 있었다. 수북하게 눈이 와 있었다. 게다가 하늘은 활짝 개고 해는 금방 떠오를 모양이었다.

“밤새 왔던 모양이지요.”

“그걸 말이라고 하나. 당연하지.”

“아이, 야박스러. 좀 그렇다고 맞장구를 쳐 주면 어때요.”

“나는 합리적인 사람이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소린 싫거든.”

“흥, 이치 좋아하시네.”

하며 아내는 입을 비시시 웃고 눈은 알뜰하게 나를 흘겨보듯 하더니, 다시 **장난스러운 표정**이 되며 물었다.

“하늘에 갑부 구름이 차 있다가, 가장 빠른 시간 안으로 이렇게 온 하늘이 깨끗이 개어 오르려면 몇 분이나 걸리는지 알아요?”

나는 잠시 무슨 뜻인지 몰라서 뚱하게 아내를 쳐다보았다.

“그건 하늘 나름일테지.”

“하늘 나름이라뇨?”

“넓은 하늘도 있고 좁은 하늘도 있지 않겠어. 그건 어쨌든, 당신은? 당신은 아냐?”

“몰라요, 모르니까 묻죠.”

하고 아내는 낭랑한 목소리로 한바탕 또 웃었다.

눈 내린 겨울 아침과 저 낭랑한 웃음. 이 눈 내린 겨울 아침이 훨씬 더 눈 내린 겨울 아침으로 느껴지도록 하고 있는 저 웃음. 또한 저 웃음으로 하여금 더욱더 저 웃음이도록 해주고 있는 이 활짝 개어 오른 눈 내린 겨울 아침.

그러나 무엇인가 빠져 있다. 나는 문득 고향의 그 큰 산이 떠오르려고 하는 것을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며 지워 버렸다.

그리고 보니, 비나 눈이 오다가 개어 오를 때는 대개 바람이 불면서 스스로를 견히는데, 어느새 눈 깜짝할 사이에 온 하늘은 활짝 개어 있곤 하는 것이다. 선들바람이 지나가면서 두꺼운 하늘 한복판에 파아란 구멍 하나가 깊숙하게 뿜 뿜했다 싶으면 스스로를 구름이 날아간다. 다음 순간 눈 깜짝할 사이에 어느새 온 하늘은 끝까지 활짝 개어 있곤 한다. 그렇다, 늘 ‘어느새’다. ‘어느새’라는 낱말 하나로 간단히 처리되지만, 간단히 처리 안 될 수도 없게 그렇게 ‘어느새’다. 하늘 끝에서 끝까지 완전히 개어 오르는 그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지켜본 사람이 있을까. 온 하늘의 구름 조각 하나하나가 한꺼번에 스러져 가는 것을 완전히 본 사람이 있을까. 설령 보았대도 마찬가지로 일 것이다. 정신이 번쩍 들듯이 정신을 차려 보니까 ‘어느새’ 온 하늘이 활짝 개어 있기는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렇게 눈이 내려서, 게다가 하늘이 개어 올라서 아내는 저렇게도 단순하게 기분이 좋은 모양이었다. 눈을 밝으며 사뿐 사뿐 큰 문 쪽으로 달려 나갔다. 그러더니 뜰 끝에서 멈춰 섰다. 일순 여들여들하게 유연하던 아내의 뒷등이 무언가 현실적인 분위기로 굳어지고 있었다.

“어마, 저게 뭐유?”

헛간 쪽의 블록 담 밑을 꾸부정하게 들여다보았다.

“뭔데?”

나도 가슴이 철렁해지며 문득 열흘쯤 전의 그 일이 떠올라 그쪽으로 급하게 다가갔다.

동시에 좀 전의 그 환하던 겨울 아침은 대뜸 우리 둘 사이에서 음산한 분위기로 둔갑을 하고 있었다.

“고무신 짝이에요, 또 그, 그 고무신 짝.”

아내의 목소리는 **완전히 떨고** 있었다. 거의 헛떡거리듯 하였다. 맞다. 고무신 짝이었다. 그 새하얗게 씻은 **남자 고무신** 짝.

“.....”

나는 마치 머릿속의 저 아득한 맨 끝머리에 찌어스런 깊고 빈 들판이 있다가, 그것이 또 확 열려 오는 듯한 공포 속으로 휘어 잠겼다.

- 이호철, 「큰 산」 -

39.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다른 장소에서 동시에 벌어진 사건을 병치하여 서사의 진행을 지연시키고 있다.
- ② 작중 인물이 아닌 서술자가 등장하여 인물 간의 갈등을 새 국면으로 이끌고 있다.
- ③ 연상을 통해 새로운 공간을 제시하여 시대 상황의 이념적 성격을 구체화하고 있다.
- ④ 사건에 개입되지 않은 이의 객관적 관점을 통해 인물의 위선적 면모를 표면화하고 있다.
- ⑤ 추측을 포함한 요약적 진술로 사건의 경과를 드러내어 현재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40. [눈 내린 겨울 아침]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눈 내린 겨울 아침의 활짝 갠 하늘을 보고 '나'는 '아내'의 자존심을 세워 주겠다고 다짐한다.
- ② 눈 내린 겨울 아침의 밝은 분위기가 '나'와 '아내'의 불안감으로 인해 음산한 분위기로 바뀐다.
- ③ 눈 내린 겨울 아침에 '나'와 '아내'는 '열흘쯤 전의' 일에 대한 대화를 나누며 상실감에 젖는다.
- ④ 눈 내린 겨울 아침에 '아내'는 감정에 들떠 한때 '나'에 대해 가졌던 '미심한 느낌'을 떨쳐 버린다.
- ⑤ 눈 내린 겨울 아침에 '나'는 '고향의 그 큰 산'에서 겪은 일에 대한 기억을 날날이 되살리려 애쓴다.

41.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큰 산」에는 도시화로 인한 가치관의 변화와 과도기적 상황이 드러난다. 도시화 과정에서 도시인들은 공동체의 이익보다 개인의 이익을 중시하고, 남을 배려하기보다 자신의 안위를 보장받는 데 더 관심을 둔다. 또한 미신과 같은 주술적인 사고방식이 남아 있는가 하면 합리적인 사고방식으로 사태에 대처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이렇듯 상이한 가치관 사이에서 사람들은 혼란을 겪는다.

- ① '고무신 짝의 논리'가 '액땀'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주술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인식하는 태도를 엿볼 수 있겠군.
- ② '아내'가 '아무 집이건 담장 너머로' '고무신 짝'을 던져 버렸다는 점에서 자신의 안위를 앞세우는 태도를 엿볼 수 있겠군.
- ③ '아내'가 '완전히 떨고 있'는 목소리로 무엇인가를 염려하는 듯한 모습에서, 사태를 합리적 방식으로 파악하는 데 익숙하지 않은 과도기적 상황을 엿볼 수 있겠군.
- ④ '나'가 '이치에 닿지 않는 소린 싫'다고 하면서도 '남자 고무신 짝'에 대해서는 '공포'를 느끼며 합리적으로 사고하지 못한다는 설정에서, 가치관이 혼재된 상황을 짐작할 수 있겠군.
- ⑤ 스스로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강조하는 '나'에게 '아내'가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응대하는 대화 내용에서, 합리적 자세로 남을 배려하는 새로운 가치관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겠군.

[42~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8.06

(가)

사람 사람마다 이 말삼 드러사라
이 말삼 아니면 **사람이라도 사람 아니니**
이 말삼 잇디 말고 배우고야 마로리이다 <제1수>

아바님 날 나호시고 어마님 날 기르시니
부모(父母) 곧 아니시면 내 몸이 업실랏다
이 덕(德)을 갓호려 하니 하늘 가이 업스랏다 <제2수>

종과 주인과를 뉘라셔 삼기신고
벌과 개미가 이 뜻을 묻져 아니
한 마암에 두 뜻 업시 속이지나 마옵사이다 <제3수>

지아비 밭 갈라 간 데 밭고리 이고 가
반상을 들오되 눈썹에 마초이다
진실로 고마오시니 손이시나 다르실가 <제4수>

형님 자신 젓을 내 조처 먹나이다
어와 우리 **아우야** 어마님 너 사랑이야
형제(兄弟)가 불화(不和)하면 **개돼지**라 하리라 <제5수>

늙은이는 부모 같고 **어른은 형** 같으니
같은데 불공(不恭)하면 어디가 다르고
나이가 많으시거든 절하고야 마로리이다 <제6수>
- 주세붕, 「오륜가」 -

(나)

나는 집이 가난해서 말이 없기 때문에 간혹 남의 말을 빌려서 댔다. 그런데 **노둔하고 아원** 말을 얻었을 경우에는 일이 아무리 급해도 감히 채찍을 대지 못한 채 금방이라도 쓰러지고 넘어질 것처럼 **전전공공**하기 일쑤요, 개천이나 도랑이라도 만나면 또 말에서 내리곤 한다. 그래서 후회하는 일이 거의 없다. 반면에 발굽이 높고 귀가 쫑긋하며 잘 달리는 **준마**를 얻었을 경우에는 **의기양양**하여 방자하게 채찍을 갈기기도 하고 고삐를 놓기도 하면서 언덕과 골짜기를 모두 평지로 간주한 채 매우 유쾌하게 질주하곤 한다. 그러나 간혹 위험하게 말에서 떨어지는 환란을 면하지 못한다.

아,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이 어찌면 이렇게까지 달라지고 뒤바뀔 수가 있단 말인가. 남의 물건을 빌려서 잠깐 동안 쓸 때에도 오히려 이와 같은데, 하물며 진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우야 더 말해 무엇 하겠는가.

그렇긴 하지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남에게 빌리지 않은 것이 또 뭐가 있다고 하겠는가. 임금은 백성으로부터 힘을 빌려서 존귀하고 부유하게 되는 것이요, 신하는 임금으로부터 권세를 빌려서 총애를 받고 귀한 신분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자식은 어버이에게서, 지어미는 지아비에게서, 비복(婢僕)은 주인에게서 각각 빌리는 것이 또한 심하고도 많은데, 대부분 자기가

본래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기기만 할 뿐 끝내 돌이켜 보려고 하지 않는다. 이 어찌 **미혹된** 일이 아니겠는가.

그러다가 혹 잠깐 사이에 그동안 빌렸던 것을 돌려주는 일이 생기게 되면, 만방(萬邦)의 **임금도 독부(獨夫)**가 되고 백승(百乘)의 대부(大夫)도 고신(孤臣)이 되는 법인데, 더군다나 미천한 자의 경우야 더 말해 무엇 하겠는가.

맹자(孟子)가 말하기를 “오래도록 차용하고서 반환하지 않았으니, 그들이 자기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겠는가.” 라고 하였다. 내가 **이 말**을 접하고서 느껴지는 바가 있기에, 「차마설」을 지어서 그 뜻을 부연해 보노라.

- 이곡, 「차마설」 -

42. (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영탄적 표현을 통해 대상의 속성을 예찬하고 있다.
- ② 상반된 세계관이 대구의 형식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 ③ 바람직하지 않은 인간에 대한 연민의 시선을 담고 있다.
- ④ 삶의 태도에 대한 경계와 권고의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⑤ 이상향에 대한 의식을 역설적 표현을 통해 진술하고 있다.

43.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관념적 덕목을 열거하여 각각이 지닌 모순점을 밝히고 있다.
- ② (가)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의식하지 않는 삶의 모습을 옹호하며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③ (나)는 개인적 체험에서 얻은 깨달음을 사회적 차원으로 일반화하고 있다.
- ④ (나)는 인물의 내면 심리를 형상화하여 욕망의 실현을 돕는 자연적 질서에 대한 경이감을 표출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자연물이 지닌 덕성을 부각하여 인간적 삶에 대한 긍지를 드러내고 있다.

44.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교훈적 내용의 시조에는 설득력을 높이기 위한 몇 가지 특징적인 표현 전략이 있다. 우선 윤리적 덕목을 실천해야 하는 인물을 화자로 설정하여 대화 형식을 취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비유나 상징, 유추, 다른 인물이나 사물과의 대비 등을 통해 화자가 개인 윤리는 물론 가정과 사회의 윤리를 실천하는 주체로서 추구해야 하는 가치를 정당화하기도 한다.

- ① <제3수>에서는 ‘별과 개미’의 생태로부터 윤리적 실천의 주체가 추구해야 하는 가치를 유추하고 있다.
- ② <제4수>에서는 화자로 내세운 ‘지아비’와 지어미의 문답 방식을 통해 아내가 추구해야 할 윤리적 가치를 정당화하고 있다.
- ③ <제5수>에서 어머니의 ‘젖’은 어머니의 사랑을 상징하는 표현으로서, ‘형님’과 ‘아우’가 이를 화제로 삼아 대화를 나누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 ④ <제5수>의 ‘개돼지’는 <제1수>의 ‘사람이라도 사람 아니니’의 의미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화자가 추구하는 가치를 따르는 윤리적 주체와 대비되고 있다.
- ⑤ <제6수>에서 ‘부모’와 ‘형’은, <제2수>의 ‘부모’와 <제5수>의 ‘형님’과는 달리, ‘늙은이’와 ‘어른’에 빗대어져 쓰임으로써 사회 윤리가 가정 윤리와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45. (나)의 ‘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나’는 ‘노둔하고 야윈 말’을 빌리는 경우 ‘전전공궁’하다가 위험에 처하기 때문에 후회하게 된다고 여기고 있다.
- ② ‘나’는 ‘준마’를 빌려 탈 때의 ‘의기양양’한 감정이 그것을 소유할 때에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 ③ ‘나’는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 천한 사람들을 ‘미혹’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 ④ ‘나’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권력이 빌린 것임을 돌아보는 ‘입금’의 모습을 ‘독부’로 표현하고 있다.
- ⑤ ‘나’는 ‘맹자의 ‘이 말’에서, 빌린 것을 소유했다고 여기는 사람들에 대한 문제의식을 떠올리고 있다.

[21~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17.11

(가)

전쟁을 다룬 소설 중에는 실재했던 전쟁을 제재로 한 작품들이 있다. 이런 작품들은 허구를 매개로 실재했던 전쟁을 새롭게 조명하고 있다. 가령, 「박씨전」의 후반부는 패전했던 병자호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조선 사람들의 욕망에 따라, 허구적 인물 박씨가 패전의 고통을 안겼던 실존 인물 용골대를 물리치는 장면을 중심으로 허구화되었다. 외적에 휘둘린 무능한 관군 탓에 병자호란 당시 여성은 전쟁의 큰 피해자였다. 「박씨전」에서는 이 비극적 체험을 재구성하여, 전화를 피하기 위한 장소인 피화당(避禍堂)에서 여성 인물과 적군이 전투를 벌이는 장면을 설정하고 있다. 이들 간의 대립 구도 하에서 전개되는 이야기는 조선 사람들의 슬픔을 위로하고 희생자를 추모함으로써 공동체로서의 연대감을 강화하였다. 한편, 「시장과 전장」은 한국 전쟁이 남긴 상흔을 직시하고 이에 좌절하지 않으려던 작가의 의지가, 이념 간의 갈등에 노출되고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인물을 통해 허구화되었다. 이 소설에서는 전장을 재현하여 전쟁의 폭력에 노출된 개인의 연약함이 강조되고, 무고한 희생은 목도한 인물의 내면이 드러남으로써 개인의 존엄이 탐색되었다.

우리는 이런 작품들을 통해 전쟁의 성격을 탐색할 수 있다. 두 작품에서는 외적의 침략이나 이념 갈등과 같은 공동체 사이의 갈등이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 전쟁이 폭력적인 것은 이 과정에서 사람들이 죽기 때문만은 아니다. 전쟁의 명분은 폭력을 정당화하기에, 적의 죽음은 불가피한 것으로, 우리 편의 죽음은 불의한 적에 의한 희생으로 간주된다. 전쟁은 냉혹하게도 아군이나 적군 모두가 민간인의 죽음조차 외면하거나 자신의 명분에 따라 이를 이용하게 한다는 점에서 폭력성을 띠는 것이다. 두 작품에서 사람들이 죽는 장소가 군사들이 대치하는 전선만이 아니라라는 점도 주목된다. 전쟁터란 전장과 후방, 가해자와 피해자가 구분되지 않는 혼돈의 현장이다. 이 혼돈 속에서 사람들은 고통 받으면서도 생의 의지를 추구해야 한다는 점에서 전쟁은 비극성을 띤다. 이처럼, **전쟁의 허구화**를 통해 우리는 전쟁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다.

(나)

문득 나무들 사이에서 한 여인이 나와 크게 꾸짖어 왈, “무지한 용골대야, 네 아우가 내 손에 죽었거든 너조차 죽기를 재촉하느냐?” 용골대가 대로하여 꾸짖어 왈, “너는 어떠한 계집이완데 장부의 마음을 둔우느냐? 내 아우가 불행하여 네 손에 죽었지만, 네 나라의 화친 언약을 받았으니 이제는 너희도 다 우리나라의 신첩(臣妾)이라. 잔말 말고 바빠 내 칼을 받아라.”

계화가 들은 체 아니하고 크게 꾸짖어 왈, “네 동생이 내 칼에 죽었으니, 네 또한 명이 내 손에 달렸으니 어찌 가소롭지 아니리오.” 용골대가 더욱 분기등등하여 군중에 호령하여, “일시에 활을 당겨 쏘라.” 하니, 살이 무수히되 감히 한 개도 범치 못하는지라. 용골대 아무리 분한들 어찌하리오. 마음에 탄복하고 **조선 도원수** 김자점을 불러 왈, “너희는 이제 내 나라의 신하라. 내 영을 어찌 어기리오.” 자점이 황공하여 왈, “분부대로 거행 하오리다.”

용골대가 호령하여 왈, “네 군사를 몰아 박 부인과 계화를 사로잡아 들리라.” 하니, 자점이 황겁하여 방포일성에 군사를 몰아 피화당을 에워싸니, 문득 팔문이 변하여 백여 길 함정이 되는지라. 용골대가 이를 보고 졸연히 진을 깨지 못할 줄 알고 한 피를 생각하여, 군사로 하여금 피화당 사방 십 리를 깊이 파고 화약 염초를 많이 붓고, 군사로 하여금 각각 불을 지르고, “너희 무리가 아무리 천변만화지술이 있은들 어찌하리오.” 하고 군사를 호령하여 일시에 불을 놓으니, 그 불이 화약 염초를 범하매 벽력 같은 소리가 나며 **장안 삼십 리에 불길**이 **충천**하여 죽는 자가 무수하더라.

박씨가 주렴을 드리우고 부채를 쥐어 불을 부치니, 불길이 오랑캐 진을 덮쳐 오랑캐 장졸이 타 죽고 밟혀 죽으며 남은 군사는 살기를 도모하여 다 도망하는지라. 용골대가 할 길 없어, “이미 화친을 받았으니 대공을 세웠거늘, 부질없이 조그만 계집을 시험하다가 공연히 장졸만 다 죽었으니, 어찌 분한(憤恨)치 않으리오.” 하고 회군하여 발행할 제, **왕대비**와 세자 대군이며 **장안 미색**을 데리고 가는지라.

박씨가 시비 계화로 하여금 외쳐 왈, “무지한 오랑캐야, 너희 왕 놈이 무식하여 **은혜지국(恩惠之國)**을 침범하였거니와, 우리 왕대비는 데려가지 못하리라. 만일 그런 뜻을 두면 너희들은 본국에 돌아가지 못하리라.” 하니 오랑캐 장수들이 가소롭게 여겨, “우리 이미 화친 언약을 받고 또한 인물이 나의 **장중(掌中)**에 매었으니 그런 말은 생심(生心)도 말라.” 하며, 혹 욕을 하며 듣지 아니하거늘, 박씨가 또 계화로 하여금 다시 외쳐 왈, “너희가 일양 그리하려거든 내 재주를 구경하라.” 하더니, 이윽고 공중으로 두 줄기 무지개 일어나며, 모진 비가 천지를 뒤덮게 오며, 음풍이 일어나며 백설이 날리고, 얼음이 얼어 군마의 발굽이 땅에 붙어 한 걸음도 옮기지 못하는지라. 그제야 오랑캐 장수들이 황겁하여 아무리 생각하여도 모두 함몰할지라. 마지 못하여 장수들이 투구를 벗고 창을 버려, 피화당 앞에 나아가 꿇어 엎드려하기를, “오늘날 이미 화친을 받았으나 왕대비는 아니 피서 갈 것이니, 박 부인 덕택에 살려 주옵소서.”

박씨가 주렴 안에서 꾸짖어 왈, “너희들을 모두 죽일 것이로되, 천시(天時)를 생각하고 용서하거니와, 너희 놈이 본디 간사하여 외람된 죄를 지었으나 이번에는 아는 일이 있어 살려 보내나니, 조심하여 들어가며, 우리 세자 대군을 부디 태평히 모셔 가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내 오랑캐를 써도 없이 멸하리라.”

이에 오랑캐 장수들이 백배 사례하더라.

- 작자 미상, 「박씨전」 -

(다)

“피란 안 갔다고 야단맞지 않을까요?”

윤씨가 격정스럽게 묻는다. 김씨 덕 이주머니의 얼굴도 잠시 흐려진다. 그러나 이내 쾌활한 목소리로,

“쌀 배급을 주는데 야단을 치려구요? 세상에 불쌍한 백성을 더 이상 어찌겠어요?”

“그래도 덕은…… 우린 애아범이 그래 놔서…… 전에도 배급을 못 타 먹었는데.”

“이 마당에서 그걸 누가 알겠어요? 어지간히 시달려 놔서 이젠 그렇게들 안 할 거예요.”

독길을 건너서 인도교 가까이 갔을 때 노랑진 쪽에서 사람들이 몰려온다. 어느 구석에 끼여 있었던지 용케 죽지도 않고, 스무 명가량의 사람들이 떼 지어 간다. 김씨 덕 이주머니는,

“여보시오! 어디서 배급을 줍니까?”

하고 물었으나 그들은 미친 듯 뛰어갈 뿐이다.

“여보, 여보시오! 어디서 배급을 줍니까?”

다시 물었으나 여전히 그들은 뛰어간다. 윤씨와 김씨 덕 이주머니도 이제 더 이상 묻지 않고 그들을 따라 뛰어간다. 그들이 간 곳은 한강 모래밭이었다. 강의 얼음은 아직 풀리지 않았다. 그곳에는 여남은 명가량의 사람들이 몰려 있었다. 사실은 배급이 아니었다. 밤사이에 **중공군**과 **인민군**이 후퇴하면서 미처 날라 가지 못했던 **식량**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던 것이다. 사람들은 **갈가마귀**처럼 몰려들어 가마니를 열었다. 그리고 악을 쓰면서 자루에다 쌀과 수수를 집어넣는다. 쌀과 수수가 강변에 흩어진다. 사람들은 **뚝뚝** 이리떼처럼 눈에 핏발이 서서 자루에 곡식을 넣어 짊어지고 일어섰다. 쌀자루를 짊어지고 강변을 따라 급히 도망쳐 가는 사나이들, 쌀자루에 쌀을 옮겨 넣는 아낙들, 필사적이다. 그야말로 전쟁이다. 김씨 덕 이주머니와 윤씨도 허겁지겁 달려들어 쌀을 퍼낸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자루 끝을 여민 뒤 머리에 이고 일어섰다. 그 순간 하늘이 진동하고 땅이 꺼지는 듯 고탈 소리, 총성과 함께 윤씨가 폭 쓰러진다. 윤씨는 외마디 소리를 지르며 쌀자루 위에 얼굴을 처박는다. 거무죽죽한 피가 모래밭에 스며든다.

(중략)

김씨 부인이,

“애기 엄마…….”

하고 소리쳐 부른다. 지영은 그냥 쫓아간다.

“큰일 나요! 큰일 나, 지금 가면 안 돼요! 애기를 어찌려고 그러는 거요.”

지영은 언덕길을 미끄러지는 듯 달려간다. 독길을 넘었다.

강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강물도 하늘도 강 건너 서울도 회색빛 속에 싸여 있었다. 지영은 윤씨를 내려다본다. 쌀자루를 꼭 껴안고 있다. **쌀자루**는 피에 젖어 거무죽죽하다. 지영은 윤씨를 안아 일으킨다. 그리고 들춰 엿는다. 그는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음을 옮긴다. 윤씨를 업고 **벼랑을 기어오른다**. 아무것도 기억할 수가 없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얼마나 오랜 시간이 흘렀는지 그는 독길까지 나왔다. 독길에서 저 멀리 과천으로 뻗은 길을 바라본다. 길은 외줄기…… 멀리멀리 뻗어 있다. 지영은 집으로 돌아왔다.

- 박경리, 「시장과 전장」 -

21. (가)의 '전쟁의 허구화'를 바탕으로 (나), (다)를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는 실재했던 전쟁을 다루면서도 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욕망에 따라 허구화가 이루어졌다.
- ② (나)는 박씨 등의 여성 인물과 용골대 등의 가해 세력 간의 대립 구도를 통해 전쟁을 조명하고 있다.
- ③ (다)는 실재했던 전쟁을 다루면서도 그 상흔을 직시하려는 의지에 따라 허구화가 이루어졌다.
- ④ (다)는 윤씨와 지역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대립 구도를 통해 전쟁을 조명하고 있다.
- ⑤ (나)와 (다)는 '용골대'나 '중공군'과 같은 단어를 통해 실재했던 전쟁이 환기되도록 했다.

22. (가)를 바탕으로 (나)에 대해 <학습 활동>을 수행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학습 활동>

○ 병자호란에 대한 백성들의 욕망을 담은 「박씨전」과 다음의 「임장군전」을 읽고 전쟁 체험이 소설에 반영된 양상을 살펴봅시다.

상께서 왈, “길이 막혀 인적이 통하지 못하니 경업이 어찌 알리오. 목진의 형세가 여차하여 아무리 생각하여도 항복할 밖에 다른 묘책이 없으니 경들은 다시 말 말라.” 하시고, 양천통곡하시니 산천초목이 다 슬퍼하더라. 병자년 12월 20일에 상이 항서를 닦아 보내시니, 그 망극함을 어찌 측량하리오.

용골대가 송파장에 걸진하고 승전고를 울리며 교만이 자심하여 승전비를 세워 거드럭거리며, 왕대비와 중궁을 돌려보내고 세자 대군을 잡아 북경으로 가려 하더라.

- 작자 미상, 「임장군전」 -

- ① (나)에서 용골대를 꾸짖는 계화와 박씨가 등장하는 것에는 병자호란 때에 있었으면 좋았을 인물에 대한 백성들의 소망이 반영되었겠군.
- ② 「임장군전」에서 항서를 보낸 것에 대해 서술자도 슬픔을 토로하는 것은 패전한 나라의 백성이라는 연대감이 반영된 것이겠군.
- ③ (나)와 「임장군전」에서 모두 용골대가 부정적인 모습으로 그려진 데에는 백성들이 겪었던 패전의 고통이 반영되었겠군.
- ④ (나)에서는 박씨의 용서를 통해, 「임장군전」에서는 용골대의 승전비 건립을 통해, 조선 백성들의 희생에 대한 추모 의식이 반영되었겠군.
- ⑤ 「임장군전」과 달리 (나)에서 박씨의 승전을 통해 왕대비가 불모로 가지 않게 된 과정이 형상화된 것은 패전의 상실감을 위로하고자 하는 백성들의 욕망이 반영된 결과이겠군.

23. (가)를 바탕으로 (나)를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장안 삼십 리에 불길이冲天하고 장안 미색이 끌려가는 장면은 조선 백성들의 비극적 체험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용골대에게 조선 도원수가 복종하여 명령을 따르는 장면은 관군의 무능함을 허구를 매개로 조명하고 있다.
- ③ 박씨의 재주에 오랑캐 장수들이 황급해 하는 장면에서, 패전의 고통이 허구적 인물의 활약을 통해 위로받고 있다.
- ④ 오랑캐군의 침략이 은혜지국에 대한 침범이라는 박씨의 비난은 용골대를 비롯한 오랑캐군이 불의한 존재임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용골대가 장졸들의 죽음에 탄식하는 장면에서, 죽음의 책임을 폭력적인 방식으로 박씨에게 돌리려는 오랑캐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24. (가)를 바탕으로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식량'을 얻으려다가 인물이 죽게 되는 것은 전장과 후방이 구분되지 않는 혼돈의 현장을 보여 주는 것이로군.
- ② '갈가마귀떼'는 전쟁으로 인해 기본적인 존엄성마저 상실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상기하게 하는군.
- ③ '끓주린 이리떼'는 사람들이 전쟁의 폭력에 노출되어 이웃의 죽음조차 외면하는 냉혹한 존재로 변해 버렸음을 드러내는군.
- ④ 피에 젖은 '쌀자루'는 전쟁의 폭력이 무고한 인물에게 끼친 전쟁의 상흔을 나타내는군.
- ⑤ '벼랑을 기어오른다'는 전쟁 속에서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인물의 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군.

25. (나), (다)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나)에서 용골대는 화공이 실패하자 화살로 피화당을 공격하였다.
- ② (나)에서 박씨는 오랑캐군이 화친 언약을 맺었다는 것을 몰랐기에 회군하는 오랑캐군을 공격했다.
- ③ (다)에서 지역은 윤씨 때문에 김씨 부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강변으로 나갔다.
- ④ (다)에서 윤씨가 식량을 마련하기 위해 사람들을 따라 도착한 곳은 인도교였다.
- ⑤ (다)에서 김씨 맥 아주머니는 피란 갔던 것을 걱정하는 윤씨를 안심시키려 하였다.

26. (다)의 서술상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물의 회상을 통해 인물 간 갈등의 원인을 제시하고 있다.
- ② 시간적 배경을 묘사하여 인물의 성격 변화를 암시하고 있다.
- ③ 인물의 경험을 관념적으로 서술하며 사건의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 ④ 대화를 통해 과거로 돌아가려 하는 인물들의 심리를 보여 주고 있다.
- ⑤ 인물의 연속적인 행위를 제시하여 인물이 처한 긴박한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27~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7.11

(가)

만약에 나라는 사람을 유심히 들여다본다고 하자
그러면 나는 내가 시와는 반역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것이다

먼 산정에 서 있는 마음으로 나의 자식과 나의 아내와
그 주위에 놓인 잡스러운 물건들을 본다

그리고

나는 이미 정해진 물체만을 보기로 결심하고 있는데
만약에 또 어느 나의 친구가 와서 나의 꿈을 깨워 주고
나의 그릇됨을 꾸짖어 주어도 좋다

함부로 흘리는 피가 싫어서
이다지 낱아빠진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리라
먼지 낀 잠초 우에
잠자는 구름이여
고생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세상에서는
철 늦은 거미같이 존재 없이 살기도 어려운 일

방 두 칸과 마루 한 칸과 말쑥한 부엌과 애처로운 처를
거느리고
외양만이라도 남과 같이 살아간다는 것이 이다지도 씩스
러울 수가 있을까 [A]

시를 배반하고 사는 마음이여
자기의 나체를 더듬어 보고 살펴볼 수 없는 시인처럼 비참한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
거리에 나와서 집을 보고 집에 앉아서 거리를 그리던 어리
석음도 이제는 모두 사라졌나 보다
날아간 제비와 같이

날아간 제비와 같이 자국도 꿈도 없이
어디로인지 알 수 없으나
어디로이든 가야 할 반역의 정신

나는 지금 산정에 있다 —
시를 반역한 죄로
이 매마른 산정에서 오랫동안 꿈도 없이 바라보아야 할 구름
그리고 그 구름의 파수병인 나.

- 김수영, 「구름의 파수병」 -

(나)

함이정: 처녀 때 난 생각했었지. 영리하고 듩직한 아들 하나 있
으면 얼마나 좋을까…… 기쁜 일 슬픈 일 뭐든지 의논할 수
있는 내 아들…… 그러다가 너를 느꼈고…… 네 느낌과 이야
기하길 즐겼다. 사람들은 나 혼자 중얼중얼거린다고 괴상하게
보더라. 사실은 나와 나, 둘이서 함께 말하고 있었는데…….

조승인: 처음부터 다시 이야기해 주세요, 어머니.
함이정: 처음부터……?
조승인: 네. 제가 태어나기 전, 어머니의 처녀 시절부터요. 그때
두 분 아버지의 관계는 어땠죠?
함이정: 그땐 좋았다. 두 분 다 우리 집에서 가족처럼 살면서,
우리 아버님한테 불상 제작을 배우는 제자였지. 그런데 어느
날, 스승인 아버님이 불상 제작장에 가 보니까 두 제자들이
자릴 비우고 없었어. 몹시 화가 난 아버님은 집 안으로 들어와
제자들의 이름을 부르셨지. “동연아! 서연아!” 아버님 목소리가
어찌나 찌렁찌렁 울렸는지, 천 리 밖까지 들릴 것 같더라.

(조명, 밝게 변화한다. ㉔ 한가운데 펼쳐 있던 천막이 접혀지면서
무대 천장 위로 올라간다. 함묘진의 집. 함묘진이 성난 모습으로
등장한다. 함이정과 조승인은 서연의 관, 촛대, 향로 등을 무대
밖으로 갖고 나간다.)

함묘진: 동연아! 서연아! 어디 있느냐?
함이정: (무대 밖에서) 여긴 없어요, 아버지.
함묘진: 여기 집 안에도 없다……?
함이정: (무대 밖에서) 내가 나가서 찾아올까요?
함묘진: 넌 가만 있거라. (다시 외쳐 부른다.) 동연아! 서연아!

(㉕ 상복을 벗고 밝은 색 옷을 입은 함이정과 조승인, 무대 안
으로 나온다.)

조승인: 할아버지 목청은 왜 저렇게 커요?
함이정: 귀머거리도 들을 정도야. 그치?
함묘진: 동연아! 서연아!

(동연과 서연, 등장한다. 그들은 당황한 모습으로 함묘진 앞에
선다.)

동연, 서연: 부르셨습니까?
함묘진: 작업장엔 너희들이 없더구나!
동연: 죄송합니다. 잠깐 밖에 나가 있었습니다.
함묘진: 밖에는 왜?
동연: 말다툼 때문에…… 서로 의견이 달라서요.
함묘진: 말다툼?
동연: 네.
함묘진: 서연아, 네가 다툼 이유를 말해 보라.

서연: 송구스럽습니다…….
함묘진: 너흰 생각도 행동도 똑같았다. 그런 너희들이 말다툼을
하다니, 도대체 다르다면 뭐가 달랐더냐?

서연: 동연은 부처의 모습을 만들면, 그 모습 속에 부처의 마
음도 있다고 했습니다.

함묘진: 그런데, 너는?
서연: 그런데 저는…… 부처의 모습을 만들어도, 부처의 마음이
그 안에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했습니다.

동연: 사부님, 서연을 꾸짖어 주십시오. 서연은 쓸데없는 주장
으로 저를 괴롭힙니다.

(중략)

(서연과 함이정, 일어선다. 돌부처를 만들면서 길을 따라간다. 물 흐르는 소리가 점점 가깝게 들려온다. ㉠ 조명, 개울물의 흐름을 나타낸다.)

함이정: 개울물이에요, 서연 오빠. 여기서 길은 끊겼어요.

서연: (개울가로 다가가서 두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시며) 너도 마시렴. 목마를 텐데…….

함이정: (서연 곁으로 가서 개울물을 바라본다.) 물 위에
비쳐 보여요, 우리 얼굴이……. 얼굴 뒤편 구름이……. 구름 [B]
뒤편 하늘이……. (물을 떠서 마신다.) 물이 맑고 시원해요.

(서연, 장난스럽게 개울물을 마치 눈덩이처럼 뭉치는 동작을 한다.)

함이정: 오빠…… 뭘 하는 거죠?

서연: 돌부처를 만든다.

함이정: 돌부처요?

서연: 돌로도 부처님을 만드는데, 물이라고 안 될 건 없지.

(서연, 흐르는 물 속으로 들어가 물로 만든 부처를 세워 놓는다. 부처의 느낌은 남고 형태는 사라진다.)

함이정: 오빠, 이쪽으로 나와요.

서연: (개울물을 건너가며) 난 이제 저쪽으로 간다.

함이정: 서연 오빠…….

서연: 넌 나중에 건너와.

함이정: (손을 흔든다.) 그래요, 오빠…… 먼저 가요. 나는 나중에…….

(서연과 함이정, 잠시 개울물 양쪽에서 서로를 바라본다. ㉡ 조승인이 피아노 앞에 앉아 건반을 두드리며 작곡 중이다. 개울물 건너 쪽, 눈부시도록 밝아진다. 때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 함묘진이 다급하게 휠체어 바퀴를 굴리면서 들어온다. 그는 피아노 옆을 지나 개울물을 건너간다./코러스(돌부처)들, 개울물을 건너가는 서연을 배웅하듯이, 따라가듯이, 마중하듯이, 서연과 함께 어우러져 춤을 추며 간다. 개울 저쪽, 눈부시도록 빛이 밝다. ㉢ 함묘진이 다급하게 휠체어 바퀴를 굴리면서 들어온다.)

조승인: 할아버지, 어딜 그렇게 급히 가세요?

함묘진: 극락문이 열렸다! 극락문이 열렸어!

(함묘진, 휠체어에서 일어난다. 그는 서연의 뒤를 따라 빛 안으로 들어간다. 무대 조명, 변화한다. 동연, 등장한다. 그는 조승인에게 다가와서 전보 용지를 내놓는다.)

- 이강백, 「느낌, 극락같은」 -

27.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화자는 자신과 가족뿐만 아니라 '주위'의 '물건들'까지 살펴 보면서 자기의 생활을 성찰하고 있다.
- ② 화자는 '나의 친구'가 방문한 뒤에야 비로소 자신의 삶이 '그릇됨'을 자각하고 있다.
- ③ 화자는 '고생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세상'에서 '존재 없이'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고 느끼고 있다.
- ④ 화자는 자신을 '자기의 나체를 더듬어 보고 살펴볼 수 없는' 비참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
- ⑤ 화자는 '시와는 반역된 생활'을 '죄'로 받아들이면서 자신을 '구름의 파수병'으로 규정하고 있다.

28. <보기>를 고려하여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구름의 파수병」에는 시와 생활 사이에서 갈등하는 화자의 진솔한 자기 성찰이 드러난다. 화자는 ㉠ 생활에 몰두하려는 자아와 이러한 자아를 극복하고자 하면서 ㉡ 시를 새롭게 지향하려는 자아를 등장시킨다. ㉢은 시선을 고정하려는 태도나 움츠러들어 있는 이미지로 나타나는데, ㉣에서 벗어나 ㉤으로 변모하고자 하는 화자는 '날아간 제비'를 떠올리다가 '반역의 정신'을 추구하는 데 이른다.

- ① '내가 시와는 반역된 생활을 하고 있다'에서는 화자의 진솔한 성찰의 어조가 느껴지는군.
- ② '나는 이미 정해진~결심하고'는 ㉢과 ㉤의 갈등을 해소한 화자의 심정을 드러낸 것이겠군.
- ③ 화자가 자신을 '어디로이든 가야 할' 존재로 여기는 것은 ㉢에서 ㉤으로 나아가려는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겠군.
- ④ 화자가 '메마른 산정'에서 지향하는 '반역의 정신'은 ㉤이 추구하는 것이겠군.
- ⑤ '구름의 파수병'은 두 자아의 갈등 속에서 시를 새롭게 지향하려는 화자의 의식이 반영된 이미지이겠군.

29.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대상을 나열함으로써 화자의 정서가 촉발된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 ② [B]는 의미가 확장되는 대상들의 연쇄를 통해 인물의 혼란스러운 내면을 보여 주고 있다.
- ③ [A]의 대상들은 화자의 만족을, [B]의 대상들은 인물의 불만을 드러내는 기능을 하고 있다.
- ④ [A]에서는 화자와 대상들 간의 연속성이 드러나고, [B]에서는 인물 간의 단절감이 암시된다.
- ⑤ [A]와 [B]는 대상의 속성을 반어적으로 표현함으로써 화자나 인물의 심리적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30. 무대 상연을 전제로 하는 희곡의 특성을 고려할 때, ㉠~㉣를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무대 장치의 이동으로 극중 공간을 좌우로 분리시킨다.
- ② ㉡: 등장인물들의 의상 교체로 장면 전환을 나타낸다.
- ③ ㉢: 조명 변화를 통해 등장인물들의 갈등 해소를 보여 준다.
- ④ ㉣: 등장인물이 무대 밖에서 피아노로 음향 효과를 낸다.
- ⑤ ㉤: 소품을 이용해서 극적 긴장감을 완화시킨다.

31.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가)의 공간이 화자의 내면이 투영된 상징적 공간이라면, (나)의 공간은 제한된 시간 내에 인생을 압축해서 보여 줘야 하는 극의 특성상 극중 인물의 현실이 상징화된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가)와 (나)에서, 공간들은 때로 대비되면서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 ① (가)의 ‘집’과 ‘거리’는 삶의 방향을 정하지 못했던 화자에게 대비적으로 인식되었던 공간이군.
- ② (가)에서 생활공간과 대비되는 ‘먼 산정’은 화자가 자신의 현실을 응시하기 위해 상징한 공간이군.
- ③ (나)에서 ‘작업장’은 불상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동연과 서연의 예술관이 부딪치는 공간이군.
- ④ (나)의 ‘돌부처’를 만들며 가는 ‘길’은 ‘하늘’과 대비되는 곳으로 서연의 예술관이 조승인에게 전수되는 공간이군.
- ⑤ (나)의 개울물 ‘저쪽’은 개울물 ‘이쪽’과 대비되는 곳으로 예술의 본질을 추구하던 서연이 도달하게 되는 공간이군.

32. (나)의 등장인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그런데 어느 날, 스승인 아버님이~두 제자들이 자릴 비우고 없었어.”라는 대사에서 함이정은 극 중의 사건을 현재에서 과거로 전환시키는 기능을 한다.
- ② “동연아! 서연아! 어디 있느냐?”라는 대사에서 함모진은 ‘어머니의 처녀 시절’ 이야기 속의 인물들을 무대로 등장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
- ③ “할아버지 목청은 왜 저렇게 커요?”라는 대사에서 조승인은 등장인물의 행동을 평하면서 다른 인물들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기능을 한다.
- ④ “서연은 쓸데없는 주장으로 저를 괴롭힙니다.”라는 대사에서 알 수 있듯 동연은 ‘어머니의 처녀 시절’ 이야기 속 갈등의 한 축으로서 기능한다.
- ⑤ “돌로도 부처님을~안 될 건 없지.”라는 대사에서 알 수 있듯 서연은 작품의 주제 의식을 전달하는 인물 중 하나로 기능한다.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7.11

좌우에 탁자 놓아 만권 서책 쌓아 놓고
 ㉠ 자명종과 자명악은 절로 울어 소리하며
 좌우에 당진(唐氈) 깔고 담방석과 백전요며
 ㉡ 이편저편 화류교의(樵榴交椅) 서로 마주 걸터앉고

거기 사람 처음 인사 차 한 그릇 갖다 준다
 화차중에 대를 받쳐 가득 부어 권하거늘
 파르스름 노르스름 향취가 만구하네
 저희들과 우리들이 언어가 같지 않아
 말 한마디 못 해 보고 덤덤하니 앉았으니
 [A] 귀머거리 병어린 듯 물끄러미 서로 보다
 천하의 글은 같아 필담이나 하오리라
 당연(唐硯)에 먹을 갈아 양호수필(羊毫鬚筆) 덤뻑 찍어
 시전지(詩箋紙)를 빼어 들고 글씨 써서 말을 하니
 묻는 말과 대답함을 글귀 절로 오락가락
 간담을 상응하여 정곡(情曲) 상통(相通)하는구나

(중략)

황상이 상을 주사 예부상서 거행한다
 삼 사신과 역관이며 마두와 노자(奴子)까지
 은자며 비단 등속 차레로 받아 놓고
 삼배(三拜)에 구고두(九叩頭)*로 사례하고 돌아오니
 상마연* 잔치한다 예부에서 지휘하기로
 삼 사신과 역관들이 예부로 나아가니
 대청 위에 포진하고 상을 차려 놓은 모양
 [B] 메밀떡에 밀다식에 걸밤 머루 비자(櫃子) 등물(等物)
 푸닥거리 상 벌이듯 좌우에 떠벌였다
 다 각기 한 상씩을 앞에다 받아 놓으니
 비위가 뒤집혀서 먹을 것이 전혀 없네
 삼배주를 마시는 듯 연파(宴罷)하고 일어서서
 뜰에 내려 북향하여 구고두 사례한 후
 관소로 돌아와서 회환(回還) 날짜 택일하니

㉢ 사람마다 짐 동이느라 각 방은 분분하고
 흥정 외상 셈하러 주주리는 지저귀다
 ㉣ 장계(狀啓)를 발정(發程)하여 선래 군관(先來軍官) 전송하고
 추칠월 십일일에 회환하여 떠나오니
 한 달 닷새 유하다가 시원하고 상연(爽然)하구나
 천일방(天一方) 우리 서울 창망하다 갈 길이어
 풍진이 분운(紛紜)한데 집 소식이 돈절하니
 사오 삭(朔) 타국 객이 귀심(歸心)이 살 같구나
 승문문 내달아서 통주로 향해 가니
 ㉤ 올 적에 심은 곡식 추수가 한창이요
 서풍이 샅샅하여 가을빛이 쾌히 난다

- 홍순학, 「연행가」 -

* 구고두: 공경하는 뜻으로 머리를 땅에 아홉 번 조아림.
 * 상마연: 일을 마치고 떠나가는 외국 사신들을 위하여 베푼던 잔치.

43.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연의 경이로운 풍광에 대한 감상을 장황하게 서술하고 있다.
- ② 학문과 관련된 사물을 나열하여 입신양명에 대한 화자의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 ③ 객지에서 낯선 풍물 및 경험에 대한 정서를 드러내고 회환할 때의 심정을 서술하고 있다.
- ④ 공식적인 행사에 참여한 다양한 사람들의 외양과 감정을 개성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⑤ 구체적인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을 제시하여 귀국까지의 여정이 마무리되었음을 알려 주고 있다.

44. ㉠~㉤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청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대상이 지닌 슬픔을 표현하고 있다.
- ② ㉡: 지시적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와의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③ ㉢: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이동을 앞둔 여유로운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 ④ ㉣: 대구적 표현을 사용하여 새로운 계획을 마련한 기쁨을 드러내고 있다.
- ⑤ ㉤: 계절감을 드러내는 표현을 사용하여 시간의 경과를 보여 주고 있다.

45. [A], [B]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A]에서 '간담을 상응하여'는 상대방에 대한 경계심을, [B]에서 '뜰에 내려 북향하여'는 상대방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내는군.
- ② [A]에서 '우리들'은 '거기 사람'에게 인사로 차를 대접받고, [B]에서 '삼 사신' 일행은 '예부상서'를 통해 황상의 상을 하사 받고 있군.
- ③ [A]에서 '필담'은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수단을, [B]에서 '구고두'는 의례적 상황에서 감사를 표하는 공식적 예법을 나타내는군.
- ④ [A]에서 '글귀 절로 오락가락'은 난처한 상황이 해소되고 있음을, [B]에서 '비위가 뒤집혀서'는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음을 드러내는군.
- ⑤ [A]의 '귀머거리 병어린 듯'은 대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을, [B]의 '메밀떡에 밀다식에 걸밤' 등은 여러 가지 음식을 차려 놓은 상황을 알려 주는군.

[16~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7.09

(가) 산촌(山村)에 눈이 오니 돌길에 못쳐세라
 시비(柴扉)를 여지 마라 날 츠즈리 뉘 이스리
 밤등만 일편명월(一片明月)이 괴 벗인가 흐노라 <1수>

(나) 셋7래 기나 츠르나 기동이 기우나 트나
 수간모옥(數間茅屋)*을 죽은 줄 웃지 마라
 어즈버 만산 나월(滿山蘿月)*이 다 니 거신가 흐노라 <8수>

(다) 한식(寒食) 비 온 밤에 봄빛치 다 피졌다
 무정(無情)흔 화류(花柳)도 쎄를 아라 피엿거든
 엇더타 우리의 님은 가고 아니 오노고 <17수>

(라) 어지밤 비 온 후(後)에 석류(石榴)꽃치 다 피엿다
 부용 당반(芙蓉塘畔)*에 수정렴(水晶簾)을 거더 두고
 늘 향한 김흔 시름을 못내 푸러 흐노라 <18수>

(마) 창(窓)맞기 워석머석 님이신가 이러 보니
 헤란 혜경(蕙蘭蹊徑)*에 낙엽(落葉)은 무스 일고
 어즈버 유한흔 간장(肝腸)이 다 끈칠까 흐노라 <19수>
 - 신희, 「방옹시여(放翁詩餘)」 -

* 수간모옥: 방이 몇 칸 되지 않는 작은 초가.
 * 만산 나월: 산에 가득 자란 덩굴 풀에 비친 달.
 * 부용 당반: 연꽃이 피어 있는 연못가.
 * 헤란 혜경: 난초가 자라난 지름길.

16. 윗글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에서는 대상과의 문답을 통해 시상을 심화하고 있다.
- ② (나)에서는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화자의 삶의 태도를 암시하고 있다.
- ③ (다)에서는 신경후정의 전개 방식을 통해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 ④ (라)에서는 대상에 감정을 이입하여 심리적 변화를 우회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 ⑤ (마)에서는 대상을 의인화하여 대상이 지닌 속성들을 점층적으로 나열하고 있다.

17. <보기>의 ㉠, ㉡를 고려하여 (가)~(라)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방옹시여」는 선조(宣祖) 사후에 정계에서 밀려난 신희이 은거 상황을 배경으로 창작한 시조 작품을 모아 놓은 것이다. 여기에 수록된 30수는 몇 개의 작품군으로 분류될 수 있다. 예컨대 ㉠은 자로서의 자족감이나 자긍심을 표현한 작품군, ㉡ '님'으로 표상되는 선왕에 대한 그리움과 연모의 정을 표현한 작품군 등이 있다.

- ① (가)의 '눈'은 ㉠과 연관된 시어로, 화자의 은거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려 주는 단서이다.
- ② (나)의 '수간모옥'은 ㉠과 연관된 시어로, 화자의 답답한 심정이 투영되어 있는 대상이다.
- ③ (나)의 '만산 나월'은 ㉡와 연관된 시어로, '님'이 부재한 상황을 절감하게 하는 소재이다.
- ④ (다)의 '봄빛'은 ㉡와 연관된 시어로, '님'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을 촉발하는 계기이다.
- ⑤ (라)의 '부용 당반'은 ㉡와 연관된 시어로, 화자가 연모하는 대상과 함께 지내는 공간이다.

18. (마)와 <보기>를 비교하여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벽사창(碧紗窓)이 어른어른켜늘 님만 너겨 풀썩 니러나 썩썩
 나서 보니
 님은 아니오 명월(明月)이 만정(滿庭)흔디 벽오동(碧梧桐)
 저즌 님히 봉황(鳳凰)이 느려안자 긴 부리를 휘여다가 두
 느래에 너허 두고 슬금슬금 깃 다듬는 그림자 | 로다
 모쳐로 밤일시만정 행여 닳이런들 님 우일 번혀려라
 - 작자 미상 -

- ① (마)의 초장과 <보기>의 초장에서는 모두 감각적 자극이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군.
- ② (마)의 초장과 <보기>의 초장에서는 모두 창밖의 변화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화자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군.
- ③ (마)의 중장과 <보기>의 중장에서는 모두 화자의 착각을 불러 일으킨 대상이 확인되고 있군.
- ④ (마)의 중장에서는 착각을 야기한 대상에 대한 묘사가, <보기>의 중장에서는 착각을 야기한 대상에 대한 비판이 제시되고 있군.
- ⑤ (마)의 중장에서는 화자의 내면적 고통을 토로하고 있고, <보기>의 중장에서는 타인의 평가와 조소를 의식하고 있군.

[19~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17.09

(가)

살구나무 그늘로 얼굴을 가리고, 병원 뒤뜰에 누워, 젊은 여자가 흰옷 아래로 하얀 다리를 드러내 놓고 일광욕을 한다. 한 나절이 기울도록 가슴을 앓는다는 이 여자를 찾아오는 이, 나비 한 마리도 없다. 슬프지도 않은 살구나무 가지에는 바람조차 없다.

나도 모를 아픔을 오래 참다 처음으로 이곳에 찾아왔다. 그러나 나의 늙은 의사는 젊은이의 병을 모른다. 나한테는 병이 없다고 한다. 이 지나친 시련, 이 지나친 피로, 나는 성내서는 안 된다.

여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깃을 여미고 화단에서 금잔화 한 포기를 따 가슴에 꽂고 병실 안으로 사라진다. 나는 그 여자의 건강이 —아니 내 건강도 속히 회복되기를 바라며 그가 누웠던 자리에 누워 본다.

- 윤동주, 「병원」 -

(나)

유성에서 조치원으로 가는 어느 들판에 우두커니 서 있는 한 그루 늙은 나무를 만났다. 수도승일까. 묵중하게 서 있었다.

다음날은 조치원에서 공주로 가는 어느 가난한 마을 어귀에 그들은 때를 저 물려 있었다. 멍청하게 물려 있는 그들은 어설플 과객일까. 몹시 추워 보였다.

공주에서 온양으로 우회하는 뒷길 어느 산마루에 그들은 멀리 서 있었다. 하늘 문을 지키는 파수병일까, 외로워 보였다. 온양에서 서울로 돌아오자, 놀랍게도 그들은 이미 내 안에 뿌리를 펴고 있었다. 묵중한 그들의. 침울한 그들의. 아아 고독한 모습. 그 후로 나는 뽑아낼 수 없는 몇 그루의 나무를 기르게 되었다.

- 박목월, 「나무」 -

19.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모두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여 사물의 역동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② (가)와 (나)는 모두 일상을 벗어난 공간과 대비하여 일상의 공간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 ③ (가)는 (나)와 달리, 사물의 속성을 분석하여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 ④ (나)는 (가)와 달리,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을 변주하여 사물이 연상시키는 의미를 심화하고 있다.
- ⑤ (가)는 현재형 시제로 계절의 상징성을, (나)는 과거형 시제로 시간에 따른 사물의 변화상을 보여 주고 있다.

20. <보기>의 관점에서 (가), (나)의 ‘화자와 대상의 관계’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가), (나)의 화자는 특정한 대상에 대한 인식을 통해 자신을 성찰하고 대상에 공감한다. (가)의 화자는 병원에서 본 ‘여자’의 모습에 주목하고 ‘여자’의 아픔에 비추어 자신의 처지를 성찰하며 ‘여자’가 지닌 치유에 대한 소망에 공감한다. (나)의 화자는 여행 중에 만난 ‘나무’들의 모습에 주목하고 ‘나무’들에 비추어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며 ‘나무’들의 모습에서 드러나는 정서에 공감한다. 이를 통해 (가), (나)의 화자는 대상과의 동질성을 확인한다.

- ① (가)의 화자는 ‘병원 뒤뜰’에 누워 있는 ‘여자’를 관찰함으로써, (나)의 화자는 여로에서 만난 ‘나무’를 반복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대상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 ② (가)의 화자는 찾는 이가 없는 ‘가슴을 앓는다는 이 여자’의 처지에, (나)의 화자는 ‘나무’에게서 본 ‘수도승’, ‘과객’, ‘파수병’의 모습에 자신을 비추어 보고 있다.
- ③ (가)의 화자는 ‘젊은이의 병’을 모르는 ‘늙은 의사’에 대한 원망을 ‘여자’와 공유함으로써, (나)의 화자는 ‘멀리 서 있는 ‘나무’들의 위치를 확인함으로써 대상과 자신의 거리를 좁히려 하고 있다.
- ④ (가)의 화자는 ‘금잔화 한 포기’를 꺾고 병실로 들어가는 ‘여자’에게서 ‘회복’에 대한 소망을 읽어냄으로써, (나)의 화자는 ‘나무’들이 ‘외로워 보였다’고 표현함으로써 대상에 공감하고 있다.
- ⑤ (가)의 화자는 ‘그가 누웠던’ 곳에 ‘누워 본다’고 함으로써, (나)의 화자는 ‘뽑아낼 수 없는’ ‘나무를 기르게 되었다’고 함으로써 대상과 자신의 동질성을 드러내고 있다.

[21~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17.09

(가)

#124. 뜬막 안

자리에 누운 송 영감. 나직히 신음한다. 처가 와서 약그릇을 놓는다.

옥 수: 약 잡수셔야죠 ……

송 영감: (눈을 뜨며) 음?!

옥수 일어나려는 송 영감을 부축하며 약그릇을 대 준다. 약을 마시는 송 영감.

송 영감: (걱정스럽게) 가만 어떻게 됐지?

옥 수: ㉠ 저녁때 독을 끌어내야죠……

송 영감: 음!

그의 시선은 구석에 놓인 백자기에 가 있다. 햇볕을 받아 더욱 고담한 백자기의 형체. - DIS* -

#125. 가마 앞(황혼)

마당에 놓인 중용, 통용, 반용 등 갖가지 독들. 그런데 그 형태가 모두 고르지 않다. 비틀어진 독, 밑이 내려앉은 독, 거미줄처럼 금이 간 독들.

웁손이, 석현이 걱정스럽게 본다. 그러자 송 영감이 비실거리며 달려온다. 독을 하나하나 살핀다.

송 영감: (혼잣말처럼) 이럴 수가 …… 지금까지 이런 일은 없었는데 …… 이게 내가 만든 독이야! (절망) 아냐. 이진 독이 아냐. (계속 보며) 이것두! 이것두 …… (비통하게) 이진 흙덩이다! 가마 앞에 달려가 망치를 든다.

웁손이: ㉡ 아니 여보게! 무슨 짓인가!

송 영감: 비켰! (뿌리친다)

나가떨어지는 웁손이

석 현: ㉢ (잡으며) 안됩니다! 성한 것두 있어요!

송 영감: 닥쳤! 이진 부정을 탕어! 모두 쳐부셔야 했!

밀어붙이며 달려가 미친 사람처럼 ㉣ 독을 박살 내기 시작한다.

㉤* 뚜왕! 뚜왕!

박살 나는 독들. 마치 자기 심장이 박살 나는 것처럼 느껴지는 옥수.

웁손이: (비통 혼잣말같이) 자네 환장했구먼!

석현이 매섭게 보다가 웅하니 간다. 옥수 몹시 불안하게 그를 바라본다.

㉥ 뚜왕! 뚜왕!

송 영감 그만 숨이 턱에 닿는다. 풀썩 주저앉고 만다. 목구멍에서 차츰 오열이 새어 나온다.

㉦ 뚜왕! 뚜왕! 뚜왕!

옥수 귀엔 언제까지나 확대되어 가는 박살 나는 독 소리. 송 영감 조각난 독을 쓸어안고 오열해 운다. 석양에 물든 하늘.

- DIS -

- 황순원 원작, 여수중 각색, 「독 짓는 늙은이」 -

* DIS: 화면이 서서히 사라지면서 그 위로 다음 화면이 나타남.

* ㉥: 효과음.

(나)

차차 송 영감의 숨씨에는 틈이 생기기 시작했다. 더구나 조마구와 부채마치*로 두드려 올릴 때, 퍼뜩 눈앞에 아내와 조수의 환영이 떠오르면 짓던 독을 때리는지 아내와 조수를 때리는지 분간 못 하는 새, 독이 그만 얇게 못나게 지어지곤 했다. 그리고 전*을 잡는 손이 떨려, 가뜩이나 제일 힘든 마무리의 전이 잘 잡히지를 않았다. 열 때문도 있었다. 송 영감은 ㉠ 쓰러지듯이 짓던 독 옆에 눕고 말았다.

송 영감이 정신이 들었을 때는 저녁때가 기울어서였다. 웁손이도 흙 몇 덩이를 이겨 놓고 가고 없었다. 언제부터인가 바깥 저녁 그늘 속에 애가 ㉡ 남쪽 장길을 향해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 어머니를 기다리는 거리라. 언제나처럼 장 보러 간 어머니가 언제나처럼 저녁때면 조수에게 장감을 지워 가지고 돌아올 줄로만 아직 아는가 보다.

밖을 내다보던 송 영감은 제힘만이 아닌 어떤 힘으로 벌떡 일어나 다시 ㉢ 독 짓기를 시작하는 것이었으나, 이번에는 겨우 한 개를 짓고는 다시 쓰러지듯이 눕고 말았다.

다음에 송 영감이 정신이 든 것은 아주 어두운 속에서 애가 흔들어 깨워서였다. 울먹이던 애가 깨나는 아버지를 보고 그제야 안심된 듯이 저쪽에서 밤그릇을 가져다 아버지 앞에 놓았다. 웬 거냐고 하니 애가, 앵두나뭇집 할머니가 주더라고 한다. 송 영감은 확 분노가 치밀어, 누가 거랑질해 오라더냐고 밤그릇을 밀쳐 놓자 애가 훌쩍훌쩍 울기 시작 [A] 했다. 송 영감은 아침에 어제의 저녁밥 남은 것을 조금 뜨는 것처럼 하고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은 것을 생각하고는, 애도 아직 저녁을 못 먹었는지 모른다고 밤그릇을 도로 끌어다 한 술 입에 떠넣으며 이번에는 애보고, 맛있으니 너도 먹으라는 것이었으나, 자신은 입맛을 잃은 탓만도 아닌 무엇이 밥 넘기려는 목을 치밀어 올라오곤 해, 좀처럼 밥을 넘길 수가 없었다.

다음날 아침에는 송 영감이 죽인지 밥인지 모를 것을 끓였다. 여전히 입맛은 없었으나 어제 저녁처럼 목이 메어 오르는 것은 없었다.

오늘은 또 지어 올리는 독을 말리느라고 처음에는 독 밖에 피워 놓았다가 독이 한 반쯤 지어지면 독 안에 매달아 놓은 숯불의 숯내까지가 머리를 더 무겁게 했다. 사십 년래 없이 숯내를 다 먹는 듯했다.

송 영감은 어제보다 더 쓰러져 넘어지는 도수가 많았다. 흙이던 웁손이가 이래서는 도무지 한 가마 채우지 못하리라고 송 영감에게 내년엔 마저 지어 찻 가마에 넣도록 하는 게 어떠냐고 몇 번이고 권해 보았으나 송 영감은 일어났다가는 쓰러지고, 일어났다가는 쓰러지고 하면서도 독 짓기를 그만두려고 하지는 않았다.

- 황순원, 「독 짓는 늙은이」 -

* 조마구와 부채마치: 용기를 제작할 때 사용하는 한 쌍의 도구.

* 전: 용기 등 물건의 위쪽 가장자리가 조금 넓적하게 된 부분.

21. <보기>의 관점에서 ㉠, ㉡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장인(匠人)’을 소재로 한 문학 작품에서 ‘장인’은 실용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술자의 모습과 미적 가치를 추구하는 예술가의 모습을 모두 지닌 존재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 오랜 시간의 숙련 과정에서 다양한 갈등을 극복하며 경지에 이른 장인은 자신이 제작하는 작품을 통해 예술가적 집념과 열의를 보여 준다.

- ① ‘아냐! 이견 독이 아냐!’는 ㉠의 원인이 되는 장인의 엄격한 미적 기준을 드러내며, ‘일어났다가는 쓰러지고, 일어났다가는 쓰러지고’는 ㉡를 향한 장인의 예술가적 집념을 보여 준다.
- ② ‘흙덩이다!’는 장인의 가치 판단으로 ㉠의 동기를 드러내고, ‘흙뭉텅이’는 ㉡에서 장인이 자신의 작품을 제작할 때 사용하는 소재를 지칭한다.
- ③ ‘매섭게 보다가 웅하니 간다’는 ㉠로 인해 벌어지는 장인과 주변 인물의 갈등을 보여 주고, ‘조수의 환영’은 ㉡의 과정에서 장인의 고뇌에 영향을 미치는 갈등 요인을 드러낸다.
- ④ ‘폴짝 주저앉고 만다’는 ㉠를 계기로 예술가의 집념이 좌절됨을, ‘사십 년래 없이 숯내를 다 먹는 듯했다’는 ㉡의 과정에서 부딪힌 장인으로서의 능력의 한계를 드러낸다.
- ⑤ ㉠의 행동 이후 ‘조각난 독을 쓸어안고 오염하는’ 것은 미적 가치 추구의 어려움을, ㉡를 ‘그만두려고 하지는 않는’ 것은 미적 가치의 실현에 대한 열의를 드러낸다.

22.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옥수’의 걱정이 ‘송 영감’보다는 독에 가 있음을 알려 준다.
- ② ㉡: ‘앵손이’가 ‘송 영감’의 행동을 오만함에서 비롯한 것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알려 준다.
- ③ ㉢: ‘석현’이 독의 완성도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기준이 ‘송 영감’의 기준과 다름을 보여 준다.
- ④ ㉣: ‘송영감’이 독을 제대로 구워 내지 못하는 가마에 불만을 품고 있음을 드러낸다.
- ⑤ ㉣: ‘애’가 언제나처럼 ‘앵손이’가 아버지를 모시고 올 것이라 믿고 있음을 나타낸다.

23. [A]의 서술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간의 흐름을 단계적으로 보여 줌으로써, 갈등이 해소되는 과정을 부각하고 있다.
- ② 인물 간의 대화에 서술자가 개입함으로써, 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평가를 제시하고 있다.
- ③ 새로운 인물이 다른 인물의 발화를 통해 등장함으로써, 인물 간의 대립 구도가 전환되고 있다.
- ④ 서술자가 인물의 분노를 직접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상황에 대한 인물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⑤ 인물들의 심리 상태를 공간적 거리와 결부하여 서술함으로써, 인물 간의 심리적 거리감을 보여 주고 있다.

24.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시나리오 「독 짓는 늙은이」는 원작과 달리, 인물의 관점에서 사건을 재구성하고 인물들의 행동과 대사를 통해 인물의 성격을 드러냄으로써 개연성을 높였다. 또한 영화 기법 용어들의 사용과 지시문을 통한 시각적 묘사는 현실감을 높이고 현장성을 강화하고 있다.

- ① (가)에서는 ‘백자기의 형체’가 ‘햇볕을 받아 더욱 고담’하다고 함으로써 이를 바라보는 행위에 개연성을 더하고 있다.
- ② (가)에서는 ‘나가떨어지는’과 같은 사실적인 행위를 통해 갈등 상황을 현실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 ③ (가)에서는 ‘뚜왕 뚜왕 뚜왕’의 효과음을 이용하여 현장성을 강조하고 인물의 내면적 반응을 드러내고 있다.
- ④ (나)의 ‘못나게 지어지곤 했다’와 같이 진술되는 내용이 (가)에서는 ‘비틀어진 독’과 같은 구체적인 사물에 대한 시각적 묘사로 현실감을 높이고 있다.
- ⑤ (나)의 ‘체힘만이 아닌 어떤 힘으로 벌떡 일어나’와 (가)의 ‘마치 자기 심장이 박살 나는 것처럼 느껴지는’은 모두 시각적 묘사를 통해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40~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17.09

(가)

우리나라 전기소설(傳奇小說)은 중국의 전기(傳奇)와 우리의 설화 등 다양한 서사 갈래의 영향을 받아 성립했다. 중국의 전기기는 기이한 사건을 다채로운 문체로 엮은 서사 양식이다. 이는 당나라 문인들이 자신의 글 솜씨가 담긴 작품집을 출세의 수단으로 삼았던 관습에서 유래했다. 기이한 사건은 흥미를 끌기 위한 소재로만 쓰여서, 서사 구조가 유기적이지 못했고 결말의 양상도 다양했다. 이에 비하면 우리의 전기소설에서 기이한 사건은 작가의 불우함을 위로하기 위한 창작 동기에 걸맞게 유기적으로 짜였다. 작가의 분신으로서 불우한 처지에 놓인 전기소설의 남주인공은 기이한 사건을 겪으면서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고 위로받지만, 결국 비극적 종결을 맞이하는 전형성을 보인다. 이처럼 우리의 전기소설은 중국 전기의 영향을 받아 기이한 사건을 다루면서도, 비극적 종결을 통해 전기와 구별되는 독자성을 보인다.

우리 전기소설의 성립에는 민담과 전설 등 설화도 영향을 끼쳤다. 구전되던 설화를 기록하면서 작가의 역량이 발휘되었고, 이 과정에서 새로운 유형의 인물이 등장하여 전기소설의 갈래적 성격을 드러내었다. 전기소설 주인공의 특질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외로움이다. 주인공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존재이거나 짝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실의에 빠져 있는 존재이다. 외로운 주인공은 현실에서의 소외를 부당하다고 느껴 온갖 금기를 넘어서 사랑을 하거나 용궁과 같은 이계(異界)에 가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둘째는 내면성이다. 주인공은 풍부한 감성을 지녀서 외로움을 토로하거나 시를 자주 짓고 시를 통해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거나 서로 소외감을 나누고 싶어 한다. 셋째는 소극성이다. 남주인공은 소심하고 나약한 존재로서 자신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나 모순된 현실에 대해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는다. 사랑에 몰두하거나 세상을 등지는 등 세상과 소통하지 않으려는 폐쇄성을 통해 모순된 현실에 대한 비극적 인식을 보여 줄 뿐이다. 이처럼 전기소설의 주인공은 서사 문학사에서 새로운 인물이었다. 이런 주인공을 내세운 작품들은 설화로부터 분기되어 '소설'로 접근하게 되었고 동시에 다른 작품들과 달리 '전기소설'로 구분되었다.

물론 전기소설의 정립은 점진적으로 진행되어서, 「조신」, 「김현감호」, 「최치원」 등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설화와 전기소설 중 어느 한쪽만으로 갈래적 성격을 규정할 수 없는 작품들로 평가받는다. 이들 작품은 남녀의 기이한 만남과 파국을 그린다는 점에서 전기소설의 성격을 지녔지만, 기이한 사건으로써 환기되는 현실에 대한 이해는 전설의 성격을 띤다. 전설에서 인물은 특정한 시공간에서 현실의 문제에 부딪히지만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경이로운 세계의 일부분으로 다루어진다. 가령 「김현감호」는 벼슬에 대한 김현의 간절함에 부처가 감동하여 범의 희생으로 응답하고, 김현이 이를 기린다는 이야기이다. ㉠ 개인의 욕망을 포용하는 부처의 진능함을 형상화한 것이다. 전설과 달리 소설에서 인물은 구체적인 사회현실에서 현실의 문제에 부딪히고 갈등함으로써 인간과 세계는 서로 맞서는 관계로 다루어진다. 가령 「이생규장전」은

사랑하는 남녀가 전쟁 때문에 이별했다가 기이한 방식으로 다시 결연하지만 결국 비극적으로 종결되는 이야기이다. 생사를 초월한 사랑을 통해 개인과 세계의 갈등 관계를 형상화한 것이다. 전기소설은 『금오신화』를 통해 소설사에 안착했고, 『금오신화』는 현실의 문제를 드러내는 ㉡ 다양한 소설적 면모를 보였다. 그리고 이는 후대로 계승되었다. 사대부 남성이 이계를 체험하고 돌아오는 구도는 몽유록 소설로, 이원적 공간 구도는 적강한 영웅의 일생을 다룬 영웅 소설로 계승되었다. 금기에 도전하는 애정 추구의 구도와 능동적인 여인상 그리고 애정 교류의 매개로써의 시의 활용은 애정 소설로 이어졌다. 이렇게 보면 전기소설은 우리나라 최초의 소설 양식인 것이다.

(나)

김현이 말하기를, “사람과 사람의 사귀는 인륜의 도리이지만 다른 유와 사귀는 것은 대개 정상이 아닙니다. 이미 조용히 만난 것은 진실로 천행이라고 할 것인데, 어찌 차마 배필의 죽음을 팔아서 일생의 벼슬을 바랄 수 있겠소?”라고 하였다.

처녀가 말하기를, “낭군은 그런 말 마십시오. 지금 제가 일찍 죽는 것은 천명이며, 또한 저의 소원이요, 낭군의 경사요, 우리 일족의 복이요, 나라 사람들의 기쁨입니다. 한 번 죽어 다섯 이로움이 갖춰지니 어떻게 그것을 어길 수 있겠습니까? 다만 저를 위하여 절을 짓고 불경을 강하여 불법(佛法)을 얻도록 도와 주시면 낭군의 은혜는 더없이 클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드디어 서로 울면서 헤어졌다.

다음 날 과연 사나운 범이 성 안으로 들어왔는데, 매우 사나워 감당할 수가 없었다. 원성왕이 이 소식을 듣고 범을 잡은 자에게는 벼슬 2급을 주라고 하였다. 김현이 대궐로 들어가서, “소신이 잡을 수 있습니다.”라고 아뢰자, 임금의 우선 벼슬을 주어 그를 격려하였다. 김현이 단도를 지니고 숲 속으로 들어갔다. 범이 처녀로 변하여 반갑게 웃으면서, “간밤에 낭군과 함께 마음속 깊이 정을 맺던 일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내 발톱에 상처를 입은 사람들은 모두 홍룡사의 간장을 바르고 그 절의 나팔 소리를 들으면 나올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처녀가 김현의 칼을 뽑아 스스로 목을 찔러 쓰러지니 곧 범이었다. 김현이 숲 속에서 나와, “지금 범을 쉽게 잡았다.”라고 소리쳤다. 그 사정은 누설하지 않았다. 일러 준 대로 상한 사람들을 치료하니 그 상처가 모두 나았다. 지금도 세간에서는 그 방법을 쓰고 있다.

김현은 등용된 뒤 서천(西川)에 절을 세워 호원사(虎巖寺)라고 하고 항상 『범망경』을 강설하여 범의 저승길을 인도하고, 범이 제 몸을 죽여서 자기를 성공시켜 준 은혜에 보답하였다.

- 작자 미상, 「김현감호」 -

(다)

“장차 백년해로의 낙을 누리려 했는데 어찌 횡액(橫厄)을 만나 구렁에 넘어질 줄 알았겠습니까? 이리 같은 놈들에게 정조를 잃지는 않았으나, 육체는 진흙탕에서 찢겨사웁니다. 절개는 중하고 목숨은 가벼워 해골은 들판에 던져졌으나, 혼백을 의탁할 곳이 없었습니다. 가만히 옛일을 생각하면 원통한들 어찌하겠습니까? 당신과 그날 깊은 산골짜기에서 헤어진 뒤

속절없이 짝 잃은 새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저의 환신은 이승에 돌아와 남은 인연을 맺어 옛날의 굳은 맹세를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려 하는데 당신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생은 매우 기뻐하고 감사히 여기며, “그것이 원래 나의 소원이오.”라고 대답했다. 둘은 말을 주고받았다.

이생은, “모든 가산은 어떻게 되었소?”라고 물었다.

“하나도 잃지 않고 어떤 골짜기에 다 묻어 두었습니다.”

“그럼 양가 부모님의 유골은 어찌되었소?”

“하는 수 없이 어떤 곳에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이야기를 마치고 함께 취침하니 기쁜 정은 옛날과 조금도 다름이 없었다. 이튿날 부부는 가산을 묻어 둔 곳을 찾아갔다. 그곳에는 금은 몇 덩이와 약간의 재물이 있었다. 그들은 양가 부모의 유골을 거두고 금은, 재물을 팔아 각각 오관산 기슭에 합장하고는 나무를 세우고 제사를 드려 모든 예를 다 마쳤다.

그 후 이생은 벼슬을 구하지 않고 최낭과 함께 살았고, 피란 갔던 노복들도 찾아왔다. 이생은 이제 세상사를 완전히 잊은 채 친척의 길흉사에도 가 보지 않고 집에서 늘 최낭과 함께 시를 지어 주고받으며 즐거이 세월을 보냈다.

어느덧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밤에 최낭은, “세 번 가약을 맺었던만, 세상일은 뜻대로 되지 않나 보이다. 즐거움도 다하기 전에 슬픈 이별이 닥쳐왔습니다.”라고 말하고는 오열하였다.

(중략)

“나도 부인과 함께 황천으로 갔으면 하오, 어찌 무료히 홀로 여생을 보내겠소. 지난번에 난리를 겪어 친척들과 노복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부모님의 유골이 들판에 버려졌을 때, 부인이 아니었다라면 누가 능히 장사를 지내 주었겠소. 옛사람 말씀에,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에 예의를 다하여 섬기고 돌아가신 뒤에 예의를 다하여 장례 지낸다.’ 했는데, 부인이 이를 실천했소. 그것은 부인의 천성이 순효하고 인정이 두터운 때문이니, 감격해 마지않았으며 스스로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하였소. 이승에서 함께 오래 살다가 백 년 후에 같이 세상을 떠날 수는 없겠소?”

최낭은, “낭군의 수명은 아직 남아있으나 저는 이미 저승의

[A] 명부에 이름이 올라 있어 더 이상 머물 수 없습니다. 만일 제가 인간 세상을 그리워해 미련을 가지면 저승의 법에 위반되고, 죄가 제계만이 아니라 낭군님께도 미칠 것입니다. 다만 제 유골이 아무 곳에 흩어져 있으니 은혜를 베풀어 유골을 거두어 비바람 맞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였다.

두 사람은 서로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낭군님 부디 안녕히 계십시오.” 말을 마치자 점점 사라져서 마침내 자취를 감추었다. 이생은 아내가 말한 대로 그녀의 시신을 거두어 부모의 무덤 곁에 묻어 주었다.

그 후 이생은 최낭을 지극히 생각한 나머지 병이 나서 두어 달 만에 세상을 떠났다.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슬퍼하고 탄식하면서 그들의 절개를 사모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 김시습, 「이생규장전」 -

40. (가)에서 설명한 중국의 전기와 우리의 전기소설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전기에서 작가는 현실적 사건을 통해 독자들의 관심을 유도했다.
- ② 전기와 전기소설의 결말은 모두 유기적인 서사 구조 속에서 전형성을 보여 주었다.
- ③ 전기소설은 작가가 자신의 글 솜씨가 담긴 작품집을 출세의 수단으로 삼기 위해 창작하였다.
- ④ 전기는 전기소설의 영향을 받아 다채로운 문체를 활용하면서도 서사적 독자성을 지향했다.
- ⑤ 전기소설의 작가는 불우한 처지에 놓여 있는 자신의 삶을 작품 속 주인공을 통해 위로받고자 했다.

41. (가)를 바탕으로 (나), (다)의 인물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나)의 김현은 배필의 죽음을 결국 막지 못하는 나약한 모습을 보인다는 점에서 ‘소극성’을 지닌 인물임을 알 수 있다.
- ② (나)의 범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 불법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김현에게 부탁한다는 점에서 (나)에서 갈등 해결은 종교적 차원에서 모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다)의 이생은 최낭의 환신과 더불어 지낼 뿐 벼슬을 구하려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폐쇄성’을 지닌 인물임을 알 수 있다.
- ④ (다)의 최낭은 혼백을 의탁할 곳이 없어서 기이한 방식으로 이생과 인연을 이어 가려 한다는 점에서 ‘외로움’을 지닌 인물임을 알 수 있다.
- ⑤ (다)의 최낭이 이생의 말을 따르지 않고 자취를 감춘다는 점에서 (다)에서 현실의 문제는 서로 대등하게 맞서는 개인 사이의 갈등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2. (나)와 [A]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나)의 남주인공은 여주인공이 스스로 희생을 선택한 것을 안타까워하고, [A]의 남주인공은 여주인공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 마음을 드러낸다.
- ② (나)의 여주인공은 자신의 죽음이 서로에게 이로운 일이라며, [A]의 여주인공은 자신의 죽음이 저승의 법을 어긴 대가라며 남주인공을 설득한다.
- ③ (나)의 여주인공은 남주인공에게 타인과의 관계에서 맺힌 한을 풀어달라는, [A]의 여주인공은 생전에 자신에게 맺힌 한을 풀어달라는 부탁을 한다.
- ④ (나)의 남주인공은 여주인공의 부탁을 실현함으로써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고, [A]의 남주인공은 여주인공의 부탁을 실현함으로써 사회로부터의 소외감을 해소한다.
- ⑤ (나)의 남주인공은 세속적 삶에 회의를 느끼며 속세를 등지고, [A]의 남주인공은 세속적 삶의 무의미함을 견디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다.

43. ㉠을 참고하여 (나)를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처녀가 자신의 죽음을 '낭군의 경사'라고 말하는 장면은 김현에 대한 부처의 응답을 암시한다.
- ② 배우 '사나운 범'이 사람들을 해치는 장면은 김현 개인의 욕망 실현을 가로막는 현실의 경이로움을 보여 준다.
- ③ 김현이 임금에게 범을 '잡을 수 있다'고 아뢰는 장면은 김현과 범 사이의 긴장감이 해소됨을 보여 준다.
- ④ 임금이 김현에게 '벼슬을 주어' 격려하는 장면은 부처의 진능함을 실현하려는 임금 개인의 의지를 드러낸다.
- ⑤ 범이 김현 앞에서 '치녀로 변하여 반갑게 웃'는 장면은 부처가 남녀의 기이한 만남에 감동하는 계기를 드러낸다.

44. (다)에 나타난 주인공들의 사랑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최낭이 '횡액을 만나 구렁에' 넘어졌다고 하는 것에서, 주인공들의 사랑이 외부적 요인에 의해 좌절되었음을 알 수 있군.
- ② 최낭이 '깊은 산골짜기에서' 이생과 이별한 자신을 '짜 잃은 새'로 표현하는 것에서, 사랑을 잃은 여주인공의 슬픔을 알 수 있군.
- ③ '굳은 맹세'를 지키자는 최낭의 말에 이생이 '그것이 원래 나의 소원'이라고 대답하는 것에서, 사랑을 지속하고 싶었던 남녀 주인공의 마음을 알 수 있군.
- ④ 최낭이 이생에게 '세 번 가약을 맺었건만, 세상일은 뜻대로 되지 않나 봅니다'라고 하는 것에서, 현세에서 좌절된 사랑을 저승에서 완성하고자 하는 여주인공의 의지를 알 수 있군.
- ⑤ 최낭이 자신의 '죄'가 이생에게도 미칠 것을 염려하는 것에서, 남주인공의 안위를 우선시하는 여주인공의 사랑에 대한 인식을 알 수 있군.

45. (다)에서 구현된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대부 남성이 이생을 체험하고 돌아오는 구도는 이생이 '가산을 묻어 둔 곳'을 찾아가 금은과 재물을 가져오는 데에서 나타나고 있다.
- ② 능동적 여인상은 최낭의 '환신'이 이생에게 '남은 인연'을 맺자고 제안하는 데에서 나타나고 있다.
- ③ 금기에 도전하는 애정 추구는 이생이 최낭의 '환신'과 옛날과 다름없이 '기쁜 정'을 누리는 데에서 나타나고 있다.
- ④ 이원적 공간 구도는 최낭의 '환신'이 '이승'에 있음에도 '저승의 법'을 따라 '황천'으로 가야 한다는 데에서 나타나고 있다.
- ⑤ 시가 애정 교류의 매개로 활용되는 것은 이생과 최낭이 '시를 지어 주고 받'는 데에서 나타나고 있다.

MEMO

MEMO

[25~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7.06

(가)

고려 속요는 고려 시대 궁중에서 형성되어 조선 시대까지 궁중 연향(宴饗)에서 전승되어 불린 노래를 가리킨다. 고려 속요의 기원과 형성에는 민간의 노래가 관여되었다.

민간의 노래가 궁중 잔치의 노래로 사용된 연원은 중국의 오래된 시집인 『시경(詩經)』의 ‘풍(風)’에서 찾을 수 있다. ‘풍’에는 민간의 노래가 실려 있는데 사랑 노래가 대부분이다. ‘풍’에 실린 노래는 중국은 물론 고려와 조선의 궁중 잔치에서도 불렸다. 또한 조선의 궁중에서는 이를 참고하여 연향 악곡을 선정하였다.

남녀 간의 사랑 노래를 포함한 민간의 노래가 궁중악으로 수용될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일까? 왕을 정점으로 하는 통치 구조에서는 왕권을 공고히 하고 풍속을 교화(教化)하는 수단이 필요했는데, 예법(禮法)과 음악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때 그 과정에서 민중의 생활상을 진솔하게 반영한 노래 가운데 인륜의 차원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는 노래들은 통치 질서를 구현하기에 적합한 노래로 여겨져 궁중악으로 편입되었다. 특히 남녀 간의 사랑 노래는 그 화자와 대상이 ‘신하’와 ‘임금’의 구도로 치환되기 용이했기 때문에 궁중악으로 편입될 수 있었다. 이처럼 민간 가요의 궁중 악곡으로의 전환은 하층에서 상층으로의 편입·흡수 과정을 통해 상·하층이 노래를 함께 향유한 화합의 차원으로 볼 수 있다.

[A]	關關雎鳩(관관저구)	꾸욱꾸욱 우는 물수리 한 쌍
	在河之洲(재하지주)	하수(河水)의 모래톱에 있다.
	窈窕淑女(요조숙녀)	요조숙녀는
	君子好逑(군자호구)	군자의 좋은 짝이로다.

위의 시는 ‘풍’에 실린 「관저(關雎)」편 첫째 작품으로 작품의 짜임은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미 짝을 지은 물수리 암수의 모습과 앞으로 짝을 이룰 요조숙녀와 군자의 모습이 상응하면서 자연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조화로우름을 노래한 것으로 해석되어 왔다. 문왕(文王)과 후비(后妃)*의 덕을 읊은 것, 부부 간의 화락(和樂)과 공경(恭敬)을 읊은 것, 풍속 교화의 시초 등이 노래에 대한 평(評)이 이를 짐작하게 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 노래는 궁중에서 불렸을 때 국가적 차원의 의미까지 담겨될 여지를 갖게 된다.

한편, 고려 속요와 「시경」의 ‘풍’은 공통점이 있지만 고려 속요는 ‘풍’과 구별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 고려 속요는 민간의 사랑 노래가 궁중악으로 정제되어 편입되는 과정에서 변화를 겪기도 했다. 즉 작품의 특정 부분에 긴밀한 유기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형식적 장치를 마련하여 한 작품이 구성될 때 ㉠ 작품 전체에 통일성을 부여하는 기능을 더하였다. 그리고 궁중 연향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특정한 부분이 덧붙여지기도 했다. 예컨대, 전체적으로 애뜻한 그리움의 정서를 보이는 작품에 ㉡ 송축의 내용을 담거나 ㉢ 이별의 상황과 동떨어진 시어를 붙이기도 한다. 「동동」과 「가시리」는 이러한 변화를 비교적 잘 보여 주고 있다.

(나)

덕(德)이란 곰비에 받들고 복(福)이란 림비에 받들고
 덕(德)이여 복(福)이라 호놀 나스라 오소이다
 아으 동동(動動)다리 <서사>

정월(正月)스 나릿므른 아으 어저 녹저 흐논디
 누릿 가운데 나곤 몸하 흐올로 널셔
 아으 동동(動動)다리 <정월령>

이월(二月)스 보로매 아으 노피 현 등(燈)스불 다호라
 만인(萬人) 비취실 즈시샏다
 아으 동동(動動)다리 <이월령>

삼월(三月) 나며 개(開)흐 아으 만춘(滿春) 들릿고지여
 늬미 브롤 즈을 디너 나샏다
 아으 동동(動動)다리 <삼월령>
 - 작자 미상, 「동동」 -

(다)

가시리 가시리잇고 나는
 브리고 가시리잇고 나는
 위 증즐가 대평성디(太平盛代)

날러는 엇디 살라 흐고
 브리고 가시리잇고 나는
 위 증즐가 대평성디(太平盛代)

잡스와 두어리마는
 선희면 아니 올세라
 위 증즐가 대평성디(太平盛代)
 설은 님 보내옵노니 나는
 가시는 듯 도셔 오쇼셔 나는
 위 증즐가 대평성디(太平盛代)

- 작자 미상, 「가시리」 -

* 문왕과 후비: 고대의 이상적인 성인 군주와 그의 부인인 태사.

25.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고려 속요는 조선 시대까지 궁중 연향에서 사용되었다.
- ② 「시경」의 ‘풍’은 조선의 궁중악에 영향을 주기도 하였다.
- ③ 「시경」의 ‘풍’에 실린 노래에는 민중의 삶이 반영되어 있다.
- ④ 「시경」의 ‘풍’과 고려 속요는 모두 상층 노래가 하층 문화에 영향을 준 결과물이다.
- ⑤ 궁중악에서는 남녀의 사랑이 군신 간의 관계로 확장, 전환 되어서 해석될 수 있었다.

26. ㉠~㉣을 바탕으로 (나)와 (다)를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나)의 ‘아으 동동다리’는 ㉠의 예로 볼 수 없다.
- ② (나)의 <서사>에서 ‘아으 동동다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의 예로 볼 수 있으나, ㉣의 예로는 볼 수 없다.
- ③ (나)의 <서사>에서 ‘아으 동동다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의 예로 볼 수 있다.
- ④ (다)의 ‘위 증증가 대평성터’는 ㉡의 예로 볼 수 있으나, ㉣의 예로는 볼 수 없다.
- ⑤ (다)의 제1연에서 ‘위 증증가 대평성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의 예로 볼 수 있다.

27. (가)를 참고하여 [A], (나), (다)를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A]에서는 자연과 인간 간의 조화로움이, (나)의 <정월령>에서는 남녀 간의 사랑으로 인한 외로움이 드러나 있군.
- ② [A]의 ‘물수리 한 쌍’과 (나)의 ‘만춘 들릿꽃’은 생활 속에서 민중이 긍정적 가치를 부여하는 대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군.
- ③ [A]에서는 화락의 상황을, (다)에서는 이별의 상황을 보여 주고 있군.
- ④ [A]에서는 제1행과 제2행이, (다)에서는 제1연과 제2연이 대상의 변화에 따른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군.
- ⑤ [A]에서는 풍속을 교화할 만한 이상적인 사랑을, (나)에서는 모두가 우러러볼 만한 ‘덕’을, (다)에서는 ‘님’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읊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군.

[34~3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17.06

(가)

아랫도리 다박솔 깔린 산(山) 넘어 큰 산(山) 그 넘엇 산(山) 안 보이어 내 마음 똥똥 구름을 타다.

우뚝 솟은 산(山), 묵중히 엮드린 산(山), 골골이 장송(長松) 들어섰고, 머루 다랫넝쿨 바위 엉서리에 엮혔고, 살살이 떡갈 나무 역새풀 우거진 데 너구리, 여우, 사슴, 산(山)토끼, 오소리, 도마뱀, 능구리 등(等), 실로 무수한 짐승을 지니인,

산(山), 산(山), 산(山)들! 누거만년(累巨萬年) 너희들 침묵(沈默)이 흠뻑 지리함즉 하매,

산(山)이여! 장차 너희 솟아난 봉우리에, 엮드린 마루에, 확 확 치밀어 오를 화염(火焰)을 내 기다려도 좋으랴?

핏내를 잊은 여우 이리 등속이 사슴 토끼와 더불어 짜릿순 침순을 찾아 함께 즐거이 뛰는 날을 믿고 길이 기다려도 좋으랴?
- 박두진, 「향현(香峴)」 -

(나)

우리가 물이 되어 만난다면
가문 어느 집에선들 좋아하지 않으랴.
우리가 키 큰 나무와 함께 서서
① 우르르 우르르 비 오는 소리로 흐른다.

흐르고 흘러서 저물녘엔
저 혼자 깊어지는 강물에 누워
죽은 나무뿌리를 적시기도 한다면.
아아, 아직 처녀인
부끄러운 바다에 닿는다면.

그러나 지금 우리는
불로 만나려 한다.
벌써 숲이 된 뼈 하나가
세상에 불타는 것들을 쓰다듬고 있나니

만 리 밖에서 기다리는 그대여
저 불 지난 뒤에
흐르는 물로 만나자.
② 푸시시 푸시시 불 꺼지는 소리로 말하면서
올 때는 인적 그친
넓고 깨끗한 하늘로 오라.
- 강은교, 「우리가 물이 되어」 -

(다)

③ 눈은 따뜻하다. 오버를 걸치고 눈길을 걸을 때 이마를 적시는 함박눈은 가슴속까지 따뜻하게 한다. 작은 산 너머 거의 눈에 파묻힌 초가집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가 삶의 짙은

온도를 체험케 한다. 눈이, 함박눈이 쏟아지는 저녁, 잊고 있던 친구들의 얼굴이 각별히 그리워지고 마치 두터운 옷 속에 간직된 체온처럼 그들을 생각하는 따뜻한 정이 조용히 피어남을 느낀다. 안부 편지를 쓰고 싶어지고 어디선가 정다운 전화를 받고 싶은 것이다. 이웃 동네와 교통이 단절된 자기 집에 식구들과 모여 앉아 따뜻한 온돌에 발을 뻗고 옛 이야기를 나누는 삶의 따뜻함을 느낀다.

눈은 조용하다. 사뭇 쏟아지는 함박눈은 한 송이 한 송이가 무한한 이야기를 도란거리는 것 같으면서도 모든 것을 더욱 고요하게 한다. 그것은 고요한 가락들로 이루어진 웅장한 교향곡이라는 인상을 준다. 특히 어두운 밤중에 창밖으로 그칠 줄 모르고 내리는 함박눈을 바라보면 온 세상 아니 온 우주가 무한히 깊은 고요 속에 파묻혀 가는 듯하다.

눈이 쌓이는 밤은 고요하다. 그러기에 고독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그 고독은 삭막하거나 허전하기보다는 호뜻한 내용을 갖게 한다. 고요 속에서 나는 나 자신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새삼 의식하게 되고, 오랫동안 잊혀졌던 스스로를 다시금 발견하고 생각하게 된다. 나의 삶, 나의 위치, 우리와 자연의 관계를 그 본연의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눈은 명상적이다. 눈이 소리 없이 쌓이는 밤, 혼자 방 안에 앉아 있으면 책상 위의 전깃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어 가지 않는다. 각별한 무슨 사무적인 일이나 공부 때문이 아니다. 어느덧 명상에 잠기게 되기 때문이다. 이런 밤 누가 사색가가 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누가 철학가로 변하지 않겠는가. 무한히 고요하고 거룩할 만큼 순수한 시간이다. 사색이 날개를 펴고 자유로운 명상에 잠긴다. 눈이 쌓이는 깊은 밤 혼자 앉아 있는 서재는 사색의 보금자리요, 책상 위에 밝혀 놓은 램프불은 사색의 꽃이다. 눈 내리는 밤늦게까지 책상 앞에 앉아 있는 철학가의 모습은 자연스럽다.

- 박이문, 「눈」 -

34.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대구 표현을 통해 회고적인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② (나)는 대립적 이미지를 통해 계절의 변화를 부각하고 있다.
- ③ (가)와 (나)는 청자를 명시적으로 드러내어 화자의 바람을 표출하고 있다.
- ④ (가)와 (다)는 비유적 표현의 반복을 통해 과거의 체험을 드러내고 있다.
- ⑤ (나)와 (다)는 특정 어구를 점층적으로 나열하여 긴박감을 조성하고 있다.

35. (가), (나)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가)는 산이 ‘누겨만년’ 동안 ‘침묵’하고 있는 것을 ‘지리함축 하’고 말함으로써 화자가 마주한 현실이 지향하는 세계와 거리가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 ② (가)의 ‘내 기다려도 좋으랴’와 관련하여 볼 때 ‘화염’이 치밀어 오르는 것은 화자가 기대하는 산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겠군.
- ③ (나)에서 ‘만나다면’, ‘좋아하지 않으랴’라고 말하는 화자는 자신이 소망하는 만남이 앞으로 실현되기를 바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겠군.
- ④ (가)의 ‘내 마음’이 ‘둥둥 구름을 타’는 것은 ‘큰 산’, ‘그 넘었 산’을 바꾸려는 화자의 바람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나)의 ‘키 큰 나무와 함께 서서’는 화자가 현실에서 벗어나 자연과 하나가 되고 싶은 마음을 표현한 것이겠군.
- ⑤ (가)의 ‘핏내를 잊은 ~즐거이 뛰는 날’은 평화로운 세계를, (나)의 ‘넓고 깨끗한 하늘’은 화자가 ‘그대’와 만나 진정한 합일을 이루려는 세계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36.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물의 결핍감을, ㉡은 불의 충족감을 비유한다.
- ② ㉠은 비의 부정적 의미를, ㉡은 소리의 긍정적 의미를 함축한다.
- ③ ㉠은 비에 대한 불안감을, ㉡은 소리에 대한 불안감을 반영한다.
- ④ ㉠은 물의 생동하는 힘을, ㉡은 불이 소멸하는 상황을 형상화한다.
- ⑤ ㉠은 상승하는 물의 움직임, ㉡은 하강하는 불의 움직임을 구체화한다.

37. (다)에 드러나는 글쓴이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글쓴이는 ‘온 세상’이 ‘깊은 고요’ 속에 파묻혀 가는 듯한 모습을 보며 스스로에게 연민을 느끼고 있다.
- ② 글쓴이는 ‘눈이 쌓이는 깊은 밤’에 ‘서재’에 앉아 ‘철학가’의 경지에 미치지 못하는 자신을 성찰하고 있다.
- ③ 글쓴이는 자아를 재발견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눈이 쌓이는 밤’에 체험하는 ‘고독’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 ④ 글쓴이는 ‘눈이 소리 없이 쌓이는 밤’에 ‘사무적인 일이나 공부’와 같은 일상적인 일들에 새롭게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 ⑤ 글쓴이는 ‘옛 이야기를 나누는 삶의 따뜻함’을 떠올리면서 유대감이 ‘단절’된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다.

38. (다)를 바탕으로 <보기>에 제시된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은 ㉡ 감각과 정서를 동시에 드러내는 단어인 ‘따뜻하다’를 사용하여 ‘눈’이라는 사물의 속성을 개성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 정서는 글쓴이가 ㉢ 그 사물과 함께 떠올린 기억 속의 정경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와 ㉤를 모두 포함하는 짧은 글을 두 문장으로 지어 봅시다.

- ① 현재는 없다. 지나간 과거와 끝없는 미래만 있을 뿐이다.
- ② 우리는 둘이 아니다. 너와 나는 한길을 걷는 영원한 벗이다.
- ③ 시간은 모순이다. 힘겨운 시간은 천천히, 즐거운 시간은 빨리 지나간다.
- ④ 지식은 차갑다. 지혜의 따뜻함이야말로 인간의 마음에 생기를 북돋아 준다.
- ⑤ 자갈밭은 포근하다. 자갈밭에서 어머니가 예쁜 자갈들을 내 손에 쥐어 주시던 모습에서 포근함을 느낀다.

[39~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17.06

“누가 돈 쓰는 것을 아랑곳하랴? 누가 저더러 돈을 쓰라니 걱정인가? 내 돈 가지고 내가 어떻게 쓰든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에…….”
 조금 뜸하여지며 부친이 씹지를 풀어서 담배를 담은 동안에 상훈이는 나직이 말을 꺼냈다.
 “……돈 쓰신다고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공연한 일을 만들어 내는 사람들이 첫째 잘못이란 말씀입니다.”
 “무에 어찌 공연한 일이란 말이나?”
 부친의 어기는 좀 낮추어졌다.
 “대동보소만 하더라도 족보 한 질에 오십 원씩으로 매었다 하니 그 오십 원씩을 꼭꼭 수봉하면 무엇 하자고 삼사천 원이 가외로 들겠습니까?”
 “삼사천 원은 누가 삼사천 원 썼다던?”

[A]

① 영감은 아들의 말이 옳다고는 생각하였으나 실상 그 삼사천 원이란 돈이 족보 박이는 데에 직접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 조씨로 무후(無後)한 집의 계통을 이어서 일문일죽에 끼려 한즉 군식구가 늘면 양반에 진국이 뭉어 질까 보아 반대를 하는 축들이 많으니까 그 입들을 씻기기 위하여 쓴 것이다. 하기 때문에 난봉자식이 난봉 피운 돈 액수를 줄이듯이 이 영감도 실상은 한 천 원 썼다고 하는 것이다. 중간의 협잡배는 이런 약점을 노리고 우려 쓰는 것이지만 이 영감으로서 성한 돈 가지고 이런 병신 구실 해 보기는 처음이다.

“그야 얼마를 쓰셨던지요 그런 돈은 좀 유리하게 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재하자 유구무언(在下者 有口無言)’의 시대는 지났다 하더라도 노친 앞이라 말은 공손했으나 속은 달았다.
 “어떻게 유리하게 쓰란 말이나? 너같이 오류친 원씩 학교에 디밀고 제 손으로 가르친 남의 딸자식 유인하는 것이 유리하게 쓰는 방법이나?”

아까부터 상훈이의 말이 화롯가에 앉아서 폭발탄을 만지작 거리는 것 같아서 위태위태하더라니 겨우 간정되려던 영감의 감정에 또 불을 붙여 놓고 말았다.

상훈이는 어이가 없어서 얼굴이 벌게진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 조 의관(덕기의 조부)이 죽고, 덕기가 재산 상속자가 된다. 조 의관의 유산 목록에 정미소가 없었다는 것을 안 상훈은 정미소를 차지하려고 한다. 한편 상훈은 세간 값을 적은 종이들을 덕기에게 보내 값을 치르라고 한다.

“어제 그건 봤니?”
 부친이 비로소 말을 붙이나 아들은 다음 말을 기다리고 가만히 앉았다.
 “치를 수 없거든 거기 두고 가거라.”
 역정스러운 목소리나 여자 손들이 많은데 구차스럽게 세간 값으로 부자 충돌을 하는 꼴을 보이기 싫기 때문에
 ㉠ 아들의 입을 미리 막으려는 것이다.
 “안 치러 드린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덕기는 너무 오래 잠자코 있을 수 없어서 말부리만 따고 또 가만히 고개를 떨어뜨리고 앉았다. 그러나 북통이 터져서 속은 끓었다. 속에 있는 말이나 시원스럽게 하고 싶으나 부친 앞에서, 더구나 조인광좌(稠人廣座)* 중에서 그럴 수도 없다.

“이 판에 용이 이렇게 과하시면 어떡합니까. 여간한 세간 나부랭이야 저 집에 안 쓰고 굴리는 것만 갖다 놓으셔도 넉넉할 게 아닙니까?”

안방 치장 하나에 천여 원 돈을 묶어서 들인다는 것은 생돈 잡아먹는 것 같고, 누가 치르든지 간에 어려운 일이다.

“이 판이 무슨 판이란 말이나? 그 따위 아니꼬운 소리 할 테거든 그거 내놓고 어서 가거라. 안 쓰고 굴리는 세간은 너나 쓰렴!”

영감은 자식에게라도 좀 접해서* 그런지 화만 버럭버럭 내고 호령이다.

“할아버지께서 산소에 돈 쓰신다고 반대하시던 걸 생각 하시기로…….”

“무어 어찌? 널더러 먹여 살리라니? 걱정 마라. 아니꼽게 네가 무슨 총찰이나? 그러나 정미소 장부는 이따라도 내게로 보내라.”

부친은 이 말을 하려고 트집을 잡는 것이었다.

“정미소 아니라 모두 내놓으려서도 못 드릴 것은 아닙니다마는, 늘 이렇게만 하시면야 어디 드릴 수 있겠습니까?”

[B]

“드릴 수 있고 없고 간에, 내 거는 내가 찾는 게 아니냐?”

“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게 두시면 어디 갑니까?”

“이놈 불한당 같은 소리만 하는구나? 돈 천도 못 되는 것을 치러 줄 수 없다는 놈이 무어 어찌?”

부친은 신경질이 일어났는지 별안간 달려들더니 주먹으로 뺨을 갈기려는 것을 덕기가 벌떡 일어나서 주먹이 어깨에 맞았다. 병적인지 벌써 망녕인지는 모르겠으나 점점 흥분하게 해서는 아니 되겠다 하고 마루로 피해 나와 버렸다. 그러나 금시로 정이 떨어지는 것 같고 그 속에 앉은 부친은 탄 세상 사람같이 생각이 들었다. ① 신앙을 잃어버리고 사회적으로 활약할 야심이나 희망까지 길이 막히고 보면야, 생활이 거칠어 가는 수밖에는 없을 것이라고 동정도 하는 한편인데, 이미 신앙을 잃어버린 다음에야 가면을 벗어 버리고 파탈하고 나서는 것도 오히려 나은 일이라고도 하겠으나, 노래(老來)에 이렇게도 생활이 타락하여 갈까 하고, 덕기는 부친에게 반항하기보다도 다만 혼자 탄식을 하는 것이었다.

- 염상섭, 「삼대」 -

* 조인광좌: 여러 사람이 뻐뻐하게 많이 모인 자리.

* 접해서: 부끄럽고 미안해서.

39.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상훈의 부친은 죽보를 만드는 데에 ‘한 천 원’이 들었다며 다행이라 여기고 있다.
- ② 상훈의 부친은 상훈이 ‘오륙천 원’을 학교에 ‘디밀’었던 것은 돈을 ‘유리하게’ 쓴 것이 아니라고 본다.
- ③ 상훈은 자신의 부친이 ‘산소’에 ‘돈’을 쓰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
- ④ 덕기는 ‘세간값’으로 치려야 하는 돈을 낭비라고 생각한다.
- ⑤ 덕기는 집안의 재산이 낭비되지 않게 하기 위해 ‘정미소 장부’를 내놓지 않으려 한다.

40. 윗글의 맥락을 고려할 때, ㉔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아들에게 말을 돌려서 하려는 것이다.
- ② 아들의 말에 놀라움을 표시하려는 것이다.
- ③ 아들과 자신의 의견을 같게 하려는 것이다.
- ④ 아들에게 하고자 했던 말을 참으려는 것이다.
- ⑤ 아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못 하게 하려는 것이다.

41. [A], [B]에서 각각 드러나는 부자간의 갈등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B]와 달리 [A]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의 치부를 들추어내며 책망한다.
- ② [A]와 달리 [B]에서는 아들이 아버지를 동정한다.
- ③ [A]와 달리 [B]에서는 아버지가 자신의 잘못을 아들의 탓으로 돌린다.
- ④ [A]와 [B] 모두에서 아버지는 아들의 간섭을 못마땅해한다.
- ⑤ [A]와 [B] 모두에서 아들은 자신과 생각이 다른 아버지의 행위를 문제 삼는다.

42. <보기>를 바탕으로 ㉠과 ㉡을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 보 기 —

「삼대」의 서술자는 대체로 특정 인물의 시각에 의존하여 다른 인물을 서술 대상으로 포착한다. 이때 그 특정 인물은 장면에 따라 선택되며, 서술자는 특정 인물의 시각을 통해 서술 대상이 되는 인물들의 심리를 보여 준다. 이러한 서술 방식으로 서술자는 특정 인물이 지닌 의식과 행동 사이의 인과관계, 다른 인물과의 관계에서 겪는 심리적 갈등을 통해 인물의 성격과 그에 대한 평가를 복합적으로 드러낸다.

- ① ㉠에서는 서술자가 선택한 특정 인물이 영감에서 아들로 달라지는 반면, ㉡에서는 덕기로 고정되어 있다.
- ② ㉠에서는 서술 대상인 상훈의 의식과 행동 사이의 인과관계가, ㉡에서는 덕기가 포착한 상훈의 심리적 갈등이 드러난다.
- ③ ㉠에서는 영감의, ㉡에서는 덕기의 시각에서 서술 대상인 상훈을 낮게 평가하며 그와의 심리적인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에서는 서술 대상인 상훈에 대한 영감의 평가가 달라지는 반면, ㉡에서는 서술 대상인 상훈에 대한 덕기의 평가가 달라지지 않는다.
- ⑤ ㉠에서는 서술자가 선택한 특정 인물인 영감의 성격이, ㉡에서는 서술자가 선택한 특정 인물인 덕기와 서술 대상인 상훈의 성격이 드러난다.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17.06

경자년(庚子年, 1600년) 늦봄, 최척(崔陟)은 주우(朱佑)*와 함께 배를 타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차(茶)를 팔다가 마침내 안남*에 이르게 되었다. 이때 일본인 상선(商船) 10여 척도 강어귀에 정박하여 10여 일을 함께 머물게 되었다.

날짜는 어느덧 4월 보름이 되어 있었다.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고 물은 비단결처럼 빛났으며, 바람이 불지 않아 물결 또한 잔잔하였다. 이날 밤이 장차 깊어 가면서 밝은 달이 강에 비치고 열은 안개가 물 위에 어리었으며, 뱃사람들은 모두 깊은 잠에 빠지고 물새만이 간간히 울고 있었다. 이때 문득 일본인 배 안에서 엽불하는 소리가 은은히 들려왔는데, 그 소리가 매우 구슬뿔다. 최척은 홀로 선창에 기대어 있다가 이 소리를 듣고 자신의 신세가 처량하게 느껴졌다. 그래서 즉시 행장에서 피리를 꺼내 몇 곡을 불어서 가슴속에 맺힌 회한을 풀었다. 때마침 바다와 하늘은 고요하고 구름과 안개가 걷히니, 애절한 가락과 그윽한 흐느낌이 피리 소리에 뒤섞이어 맑게 퍼져 나갔다. 이에 수많은 뱃사람들이 놀라 잠에서 깨어났으며, 그들은 처연하게 앉아 피리 소리에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격분해서 머리가 곤추선 사람도 피리 소리에 분을 가라앉힐 정도였다.

잠시 후에 일본인 배 안에서 조선말로 칠언절구(七言絶句)를 읊었다.

왕자진*의 피리 소리에 달마저 떨어지려 하는데, [王子吹簫月欲底]
바다처럼 푸른 하늘엔 이슬만 서늘하구나. [碧天如海露凄凄]

시를 읊는 소리는 처절하여 마치 원망하는 듯, 호소하는 듯 하였다. 시를 다 읊더니, 그 사람은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최척은 그 시를 듣고 크게 놀라서 피리를 땅에 떨어뜨린 것도 깨닫지 못한 채, 마치 실성한 사람처럼 멍하니 서 있었다. 이를 보고 주우가 말했다.

“어디 안 좋은 곳이라도 있는가?”

최척은 대답을 하고 싶었으나 목이 메고 눈물이 떨어져 말을 할 수 없었다. 시간이 조금 흐른 뒤에 최척은 기운을 차려 말했다.

“조금 전에 저 배 안에서 들려왔던 시구는 바로 내 아내가 손수 지은 것이라네. 다른 사람은 평생 저 시를 들어도 절대 알아내지 못할 것일세. 게다가 시를 읊는 소리마저 내 아내의 목소리와 너무 비슷해 절로 마음이 슬퍼진 것이라네. 하지만 어떻게 내 아내가 여기까지 와서 저 배 안에 있을 수 있겠는가?”

이어서 온 가족이 왜군에게 포로로 잡혀간 일을 말하자, 배 안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 비탄에 젖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그 가운데는 두홍(杜洪)*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젊고 용맹한 장장이었다. 그는 최척의 말을 듣더니, 얼굴에 의기를 띠고 주먹으로 노를 치면서 분연히 일어나며 말했다.

“내가 가서 알아보고 오겠소.”

주우가 저지하며 말했다.

“깊은 밤에 시끄럽게 굴면 많은 사람들이 동요할까 두렵네.

내일 아침에 조용히 물어보아도 늦지 않을 것일세.”

주위 사람들이 모두 말했다.

“그렇시다.”

최척은 앓은 채로 아침이 되기를 기다렸다. 동방이 밝아 오자, 즉시 강둑을 내려가 일본인 배에 이르러 조선말로 물었다.

“어젯밤에 시를 읊었던 사람은 조선 사람 아십니까? 나도 조선 사람이기 때문에 한번 만나 보았으면 합니다. 멀리 다른 나라를 떠도는 사람이 비슷하게 생긴 고국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어찌 그저 기쁘기만 한 일이겠습니까?”

옥영(玉英)*도 어젯밤에 들려왔던 피리 소리가 조선의 곡조인데다 평소에 익히 들었던 것과 너무나 흡사하여서 남편 생각에 감회가 일어 저절로 시를 읊게 되었던 것이다. 옥영은 자기를 찾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는 황망하게 뛰어나와 최척을 보았다. 두 사람은 서로 마주 바라보고는 놀라서 소리를 지르며 끌어안고 모래밭을 뒹굴었다. 목이 메고 기가 막혀 마음을 안정할 수가 없었으며, 말도 할 수 없었다. 눈에서는 눈물이 다하자 피가 흘러내려 서로를 볼 수도 없을 지경이었다. 두 나라의 뱃사람들이 저잣거리처럼 모여들어 구경하였는데, 처음에는 단지 친척이나 잘 아는 친구인 줄로만 알았다. 뒤에 그들이 부부 사이라는 것을 알고 사람마다 서로 돌아보며 소리쳐 말했다.

“이상하고 기이한 일이로다! 이것은 하늘의 뜻이요, 사람이 이를 수 있는 일이 아니로다. 이런 일은 옛날에도 들어 보지 못하였다.”

최척은 옥영에게 그간의 소식을 물으며 말했다.

“산 속에서 붙들려 강가로 끌려갔다는데, 그때 아버님과 장모님은 어떻게 되었소?”

옥영이 말했다.

“날이 어두워진 뒤에 배에 오른 데다 정신이 없어 서로 잃어버리게 되었으니, 제가 두 분의 안위를 어찌 알 수 있었겠습니까?”

두 사람이 손을 붙들고 통곡하자,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들도 슬퍼하며 눈물을 닦지 않는 이가 없었다.

주우는 돈우(頓于)*를 만나 백금 세 덩이를 주고 옥영을 사서 데려 오려고 하였다. 그러자 돈우가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내가 이 사람을 얻은 지 이제 4년 되었는데, 그의 단정하고 고운 마음씨를 사랑하여 친자식처럼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침식을 함께하는 등 잠시도 떨어진 적이 없었으나, 지금까지 그가 아낙네인 것을 몰랐습니다. 오늘 이런 일을 직접 보니, 이는 친친신명도 오히려 감동할 일입니다. 내가 비록 어리석고 무디기는 하지만 진실로 목석은 아닙니다. 그런데 차마 어떻게 그를 팔아서 먹고살 수 있겠습니까?”

돈우는 즉시 주머니 속에서 은자(銀子) 10냥을 꺼내어 전별금(餞別金)으로 주면서 말했다.

“4년을 함께 살다가 하루아침에 이별하게 되니, 슬픈 마음에 가슴이 저리기만 하오. 온갖 고생 끝에 살아남아 다시 배우자를 만나게 된 것은 실로 기이한 일이며, 이 세상에는 없었던 일일 것이요. 내가 그대를 막는다면 하늘이 반드시 나를 미워할 것이요. 사우(沙于)*여! 사우여! 잘 가지게! 잘 가지게!”

- 조위환, 「최척전(崔陟傳)」 -

- * 주우, 두홍: 최척과 함께 장사를 하는 중국인들.
- * 안남: 베트남.
- * 왕자진: 주나라 영왕의 태자로, 죄를 입어 서인이 되었음.
- * 돈우: 옥영을 데리고 장사를 하는 일본인.
- * 사우: 돈우가 옥영에게 붙여 준 이름.

43. 최척과 옥영의 재회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타국에서 만난 동포의 도움을 통해 우연히 이루어진다.
- ② 두 인물이 공유하고 있는 과거의 기억을 매개로 하여 이루어진다.
- ③ 두 인물이 평소에 주변 사람들에게 베푼 자비로 인해 이루어진다.
- ④ 주변 사람들의 오해로 인해 우여곡절을 겪다가 기적적으로 이루어진다.
- ⑤ 주변 인물들 중 대다수에게는 환영을 받지만 일부에게는 의구심을 유발한다.

44. 윗글의 ‘밤’과 ‘아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밤은 주인공이 초월적 존재와 교감하고, 아침은 주인공이 현실적 문제와 대결하는 시간이다.
- ② 밤은 운명과의 대결을 통해 주인공이 위기에 처하고, 아침은 조력자의 등장으로 그 위기에서 벗어나는 시간이다.
- ③ 밤은 폐쇄적인 공간에서 새로운 계획이 구상되고, 아침은 개방적인 공간에서 그 계획을 실행할지 논의하는 시간이다.
- ④ 밤은 인물의 내면적 갈등이 점진적으로 심화되고, 아침은 그 내면적 갈등이 새로운 인물들 간의 갈등으로 비화되는 시간이다.
- ⑤ 밤은 주인공이 새로운 상황을 맞이하면서 서사적 긴장이 조성되고, 아침은 극적 장면이 펼쳐지면서 그 긴장이 해소되는 시간이다.

45.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임진왜란(1592~1598년) 등 16세기 말~17세기 초 동아시아에서 발생한 전쟁들은 각국 백성들의 삶에 심대한 수난을 초래했다. 이러한 역사를 반영한 대표적인 작품이 조위한의 「최척전」이다. 최척에게서 체험의 진말을 전해 듣고 이 작품을 썼다는 후기로 보면 이 작품이 실제 체험에 바탕을 둔 인물들의 이산(離散)과 귀향의 과정을 그린 유랑의 서사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서사 공간이 조선을 포함하여 아시아 여러 국가에 걸쳐 있고 국가 간 갈등을 넘어선 개인 간의 인간적 배려 및 전쟁의 참상에 대해 각국 백성들이 보인 인류애적 연민의 모습도 형상화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 ① ‘경자년’, ‘4년’ 등은 최척과 옥영이 겪어야 했던 전란과 유랑 체험이 역사적 실제성을 지닌 것임을 알려 주는군.
- ② 처절하게 시를 읊고 한숨까지 내린 것은 시가 옥영 자신의 이산과 유랑 체험을 계기로 지어진 것임을 알려 주는군.
- ③ ‘조선말’, ‘조선의 곡조’ 등이 사건 전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최척 부부의 재회가 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겠군.
- ④ 최척 가족의 이산의 사연을 듣고 주변 사람들이 눈물 흘린 것은 전쟁의 참상에 대한 인류애적인 연민을 보여 준 사례이겠군.
- ⑤ 돈우가 백금을 받고 옥영을 파는 대신 오히려 옥영에게 전별금을 주며 안타까이 보낸 것은 국가 간 갈등을 넘어선 인간적 배려를 보여 주는 사례이겠군.

[31~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6.11B

불을 끈 다음에 아내가 다시 소곤거려 왔다.
 “당신두 보셨죠? 오늘사 말고 영기 엄마 배가 유난히 더 불러 보였어요. 혹시 쌍둥이나 아닌가 싶어서 남의 일 같잖아요. 여덟 달밖에 안 된 배가 그렇게 만삭이니 원…….”
 “당신더러 대신 낳으라고 떠맡기진 않을 거야. 걱정 마.”
 ㉠ 나는 그날 밤 디킨즈와 램의 궁둥이를 번갈아 걷어차는 꿈을 꾸었다. 내가 권 씨의 궁둥이를 걷어차고 권 씨가 내 궁둥이를 걷어차는 꿈을 꾸었다.
 아내가 권 씨네에 대해서 갑자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좀 더 정확히 얘기해서 권 씨 부인의 그 금방 쏟아질 것만 같은 아랫배에 관한 관심이었다. 말투로 볼 때 남자들이 집을 비우는 낮 동안이면 더러 접촉도 가지는 모양이었다. ㉡ 예정일로 모르더라면서 아내는 킬킬킬 웃었다. 임신부가 자기 분만 예정일로 몰라서야 말이 되느냐고 핀잔했더니, 까짓것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 어차피 때가 되면 배 아프며 낳기는 마찬가지라면서 태평으로 있더라는 것이었다.
 권 씨는 여전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채였다. 일정한 직장이 없으면서도 아침만 되면 출근 복장을 차리고 뺨질나게 밖으로 나가곤 했다. 몸에 붙인 기술도, 그렇다고 타고난 똑심도 없으면서 계속해서 공사판 같은 데 나가 막일을 하는 눈치였다. “동주운아, 노을자야!” 하고 둘이 합창하듯이 길게 외치면서 일단 안방까지 들어오는 데 성공한 권 씨의 아이들은 끼니때가 되어도 막무가내로 버티면서 문간방으로 돌아가지 않는 적이 자주 있게 되었다. 문간방의 사정이 심상치 않다는 징조였다. 그렇다고 권 씨나 권 씨 부인이 우리에게 터놓고 도움을 청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 다만 우리로 하여금 그런 꼴을 목격하고도 도울 마음을 먹지 않으면 도무지 인간이 아니게서리 상황을 최악의 선까지 잠자코 몰고 갈 뿐이었다. 애당초 이순경이 기대했던 그대로 산타클로스 비슷한 꼴이 되어 쌀이나 연탄 따위를 슬그머니 문간방 부엌에다 넣어 주고 온 날 저녁이면 아내는 분하고 억울해서 밥도 제대로 못 먹었다. 임부나 철부지 애들을 생각한다면 그까짓 알량한 선심쯤 아무렇지도 않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제게 딸린 처자식조차 변변히 건사 못 하는 한 열간이 사내한테까지 자기 선심의 일부나마 미칠 일을 생각하면 껄찜해서 잠이 안 올 지경이라고 생명을 앓았다. 권 씨가 여간내기 아니라고 속삭이던 게 엇그제인 걸 벌써 잊고 아내는 셋방 잘못 내줬다고 두고두고 자탄하는 것이었다.
 남편이 여전히 별이가 시원찮은 상태에서 권 씨 부인은 어언 해산의 날을 맞게 되었다. 진통이 시작된 지 꽤 오래되는 모양이었다. 아내의 귀땀으로는 점심 무렵이 지나서부터 그런다고 했다. 학교에서 돌아와 저녁을 먹다가 나는 문간방에서 울리는 괴상한 소리를 들었다. 처음에는 되게 몸살을 하듯이 퐁퐁 앓는 소리로 시작되었다. 그러다가 느닷없이 몸의 어딘가에 깊숙이 칼이라도 받는 양 한 차례 치절하게 부르짖고는 이내 도로 잠잠해지곤 하면서 이러기를 몇 번이고 되풀이하는 것이었다. 나로서는 그것이 방을 세내 준 이후로 처음 듣는 권 씨 부인의 목소리였다.

“당신이 한번 권 썰 설득해 보세요. 제가 서너 번 애길 했는 데두 무슨 남자가 실실 웃기만 하문서 그저 염려 없다구만 그러네요.”
 병원 애기였다.
 “권 씨가 거절하는 게 아니고 돈이 거절하는 거겠지.”
 아내는 진즉부터 해산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음을 더러는 흥보고 또 더러는 우려해 왔었다.
 “남산만이나 한 배를 갖구서 요즘 세상에 그래 앨 집에서, 그것도 산모 혼잣힘으로 낳겠다니, 아무래두 꼭 무슨 일이 터질 것만 같애요. 달이 다 차도록 기저귀감 하나 장만 얹는 여편네나 조산원 하나 부를 돈도 마련이 없는 사내나 어쩔 그리 짹짹인지!”
 서둘러 식사를 끝내고 나서 나는 권 씨를 마당으로 불러냈다. 든든 대로 권 씨는 대뜸 아무 염려 말라면서 실실 웃었다. 마치 곤경에 빠진 나를 극진히 위로해 주는 투였다.
 “들썩 때도 마누라 혼자서 거뜬히 해치웠거든요.”
 “우리가 염려하는 건 권 선생네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서요. 물론 그럴 리야 없겠지만 만의 일이라도 일이 잘못될 경우 난 권 선생을 원망하겠소.”
 작자가 정도 이상으로 느물거린다 싶어 나는 엔간히 모진 소리를 남기고는 방으로 들어와 버렸다.
 - 윤홍길, 「아홉 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

31.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아내’는 ‘권 씨네’에게 선심을 베푸는 것을 비판하는 ‘나’로 인해 생명을 앓는다.
- ② ‘아내’는 ‘권 씨’가 ‘권 씨네’의 경제적 상황을 해결하고 있다는 이유로 여간내기가 아니라고 간주한다.
- ③ ‘아내’는 ‘권 씨 부인’의 진통이 시작된 것을 ‘나’를 통해 알게 된다.
- ④ ‘아내’의 불안감과 우려는 ‘나’로 하여금 ‘권 씨’를 불러내게 하는 계기가 된다.
- ⑤ ‘나’를 위로하는 ‘권 씨’의 행동은 ‘권 씨’에 대한 ‘아내’의 원망을 누그러뜨린다.

32.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나’의 경험에 대한 분석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 ② ㉡은 ‘아내’의 말을 통해 다른 인물의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 ③ ㉢은 ‘나’가 관찰하고 있는 인물들의 내면을 묘사하고 있다.
- ④ ㉠과 ㉢은 ‘나’와 인물들 간의 외적 갈등을 제시하고 있다.
- ⑤ ㉡과 ㉢은 인물들을 바라보는 ‘나’의 긍정적 시선을 드러내고 있다.

33.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1970년대 한국 소설에는 산업화 과정에서 공동체적 유대감이 파괴되고 개인주의가 팽배하면서 그 사이에서 고민하게 되는 소시민이 나타난다. 물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세태가 심화되고 계층 분화가 일어나면서 주변부로 밀려난 도시 빈민과 같은 소외 계층이 등장하는데, 이들도 소설의 주요한 제재로 반영되고 있다.

- ① '나'가 '권 씨네'를 의식하면서도 '권 씨네'의 상황에 거리를 두려는 것은 소시민의 내적 갈등을 보여 주는군.
- ② '권 씨'가 일정한 직업 없이 막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계층이 분화하면서 생겨난 도시 빈민의 처지를 나타내는군.
- ③ '아내'가 '권 씨네'를 대하는 이중적 태도는 공동체 의식과 개인주의 사이에 놓인 소시민의 모습을 반영하는군.
- ④ '권 씨 부인'이 혼자 힘으로 해산을 하려는 모습은 궁핍한 삶에 내몰린 소외 계층의 처지를 반영하는군.
- ⑤ '나'가 '권 씨네'에 대해 염려하며 '우리를 위해서'라고 말한 것은 공동체적 유대감을 회복하려는 소시민의 욕망을 드러내는군.

[34~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16.11B

최 씨 : ㉠ 네 외할아버지도 그날 그러니까 그게 바로 구월 구일날 오늘이다. 오늘 오후[正午]나 되어서 촌에서 갱혀 온 다른 동학꾼 둘하고 같이 셋을 한꺼번에 총으로 쏘아 죽인다고 사정(射亭)으로 끌고 나와서는.

(㉠ 무대 급히 암전. 다시 서서히 밝아지면 제2장)

제2장

[무대] 정면으로 '정기정(正己亭)'이라는 현판이 붙은 사정. 좌우는 들을 건너 단풍 든 먼 산. 무대가 밝아지면 사정 마루에 앞으로 수령이 좌정하고 뒤와 좌우로는 각방 이속이 나열. 대뜰에는 없드린 급창. 대뜰 밑으로 바로 김성배 외에 두 사람의 동학당원이 결박을 진 채로 꿇어앉았고, 그 뒤로 언지시 참령이 거느린 병정 일 지대가 정렬해 서 있다. 사정 좌우로는 겁먹은 남녀노소들이 묵묵히 서서 있고 김성배의 모친도 남의 부축을 받아 그중에 섞여 있다.

수령 : 너희들을 죄상에 의지해서 지금 처형을 하거니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거든 말을 해라.

급창 : (칭을 내어) 너희들을 죄상에 의지해서 지금 처형을 하거니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거든 아뢰옵신다 —.

사령 : (죄수들을 들여다보고) 아뢰라.

죄수들 : (끔찍 아니 한다)

사령 : (김성배의 풀상투를 잡아 제치면서) 아뢰라.

성배 : (눈을 감고 입술을 깨문다)

모친 : (옆의 사람에게 부축을 받고 서서 치맛자락으로 눈물을 씻는다)

사령 : (상투를 놓아주고 동학당원 갑의 풀상투를 잡아 제치면서) 아뢰라.

동학당원 갑 : (우는소리로) 살려 주시오.

사령 : (상투를 놓아준다)

급창 : 살려 달라고 아뢰오 —.

사령 : (동학당원 을의 풀상투를 잡아 제치면서) 아뢰라.

동학당원 을 : (우는소리로) 살려 주시오.

사령 : (상투를 놓아준다)

급창 : 살려 달라고 아뢰오 —.

수령 : 처형해라.

급창 : 처형하옵신다 —.

참령 : (병정들더러) 형장(刑場)으랏!

(병정들 달려들어 죄수 하나에 3, 4인씩 붙어서 좌우로 끼고 뒤에서 밀고 나머지 병정들과 참령은 그 뒤를 따라 상수로 퇴장. 상수에 모여선 구경꾼들은 와 — 헤어지고, 그중 김성배의 모친은 김성배에게로, 영감 하나는 동학당원 갑에게로, 여인 하나는 동학당원 을에게로 제각기 달려들다가 병정들에게 밀어박질러 물러서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한다.

㉡ 무대 급히 암전. 다시 밝아지면 도로 전경*)

영오 : 그럼 할머니는 그때 어데 있었수?

최 씨 : 나는 집에 있었지, 못 나가고. 애기 뻐 여편네가 관가

행차나 병정들 행군하는 데 나서면 담박 총으로 쏘아 죽인다고 너희 외증조할머니가 어데 나가게 하시드냐, 그래서 나가지는 못하고 울타리 구멍으로 내어다 보기만 했지.

영오 : 그런데 참 할머니.

최 씨 : 오-냐.

영오 : 외할아버지를 그렇게 잡아갔으니까 그럼 외, 외, (더듬다가) 외증조할아버지는 내놓아 주어예지?

최 씨 : 글썄, 경우는 그래야 할 것이지만 어데 바루 내놓아 주드냐! 그런 뒤에도 훨씬 한 달이나 있다가 뇌물을 흙썩 먹고 그러고도 자식을 잘못 가르쳤다는 죄로 곤장을 사십 대나 때려서 내놓더라. 야속한 일도 다 있지! 글썄 그러니 그 노인이 몸이 성하셨겠니? 옥에서 나오시자 보름 만엔지 돌아가신걸. 그래서 네 외증조할아버지 제향은 바루 시월 열사흘 날이란다.

영오 : 그러고 그날 외할아버지는? 그렇게 병정들이 끌고 가서?

최 씨 : ㉢ 그래 그렇게 사정 마당에서 앞뒤로 웅위해 가지고 사정 바루 건너편 과녁 있는 데로 끌고 가더니 (한숨, 사이) 도망가지 못하게 하느라고 제각금 다리까지 친친 동여서 과녁 앞에다가 일자로 세워 놓고는 병정들은 열댓 걸음이나 이쪽으로 물러서더니마는, 아마 한 이십 명이나 되지? 그런 병정들이 죽 — 늘어서서는 총을 고누더구나, 그래 방금 총 소리가 나는 줄 알고 나는 울타리 구멍으로 내어다보다가 눈을 감었더니 이제나 저제나 기다려도 총소리가 나지를 않겠지! 그래 웬일인가 하고 눈을 다시 떠보니까.

(㉢ 무대 급히 암전. 다시 밝아지면 제3장)

제3장

[무대] 정면은 들을 건너 단풍 든 먼 산. 상수로는 나직한 언덕이 있고 언덕 앞으로 과녁. 하수는 흑막(黑幕). 무대가 급히 밝아지면 과녁에서 언지시 떨어져 김성배와 두 동학당원이 결박을 지고 다리를 묶여 하수를 향해서 서서 있고 그 옆에는 둘둘 말아 놓은 한 무더기의 섬거적. 병정 한 사람 손에 흰 무명 가드락을 들고 하수로 급히 등장.

병정 : 흥! 이놈들 평양 감사를 나갑네 순천 부사를 나갑네 하더니 겨우 섬거적 한 닢씩을 지고 영라국으로 가니?

- 채만식, 「제향날」 -

* 전경 : 앞 장면. 여기서는 2장의 앞 장을 의미함.

34. ㉠과 ㉢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최 씨와 영오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 ② 최 씨는 자신의 행동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
- ③ 최 씨가 영오에게 과거의 사연을 들려주고 있다.
- ④ 영오가 듣고 있지 않으므로 최 씨의 넋두리에 해당한다.
- ⑤ 최 씨는 목격하지 않은 사실을 추정을 통해 짐작하고 있다.

35.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무대 막을 여닫지 않고도 장면을 전환하는 효과를 수반한다.
- ② ㉡는 ‘모친’과 함께 ‘최 씨’가 등장하는 이유를 제시해 준다.
- ③ ㉢는 퇴장했던 ‘죄수들’이 다시 등장하는 시간을 확보해 준다.
- ④ ㉡ 직전 장면과 ㉣ 직후 장면은 상호 연계되어 순차적인 시간의 흐름을 형성한다.
- ⑤ ㉡ 직전 장면과 ㉣ 직후 장면은 상호 연계되어 사건 전개에 따른 공간의 변화를 보여 준다.

36.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할 때, 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채만식은 「자작 안내」에서 동학 농민 운동을 1부로, 기미(3·1운동) 전후를 2부로, 그 뒤에 온 시대를 3부로 하여 「제향날」을 구상했다고 밝힌 바 있다. 1937년에 발표된 「제향날」의 1~3장(1막)은 1894년의 동학 농민 운동을 역사적 소재로 활용하고 있으며, 「극중 현재(제향날)」에서 43년이라는 시간 격차를 지닌 회상된 과거 장면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이중적 시간 구조는 과거와 현재의 동일성을 암시하고 있다.

- ① 작가는 독자들의 의문을 대신하기 위하여 극중 현재에서 영오의 질문을 제기하고, 회상 기법을 통해 그 답변을 보여 주려 했겠구나.
- ② 작가는 「제향날」이라는 제목을 붙이고 그날을 시간적 배경으로 삼아, 극중 현재에 찾아온 제향날의 의미를 독자들이 상기하도록 유도하려 했겠구나.
- ③ 작가는 과거 사건으로 정기정 재판을 구상하고, 관부의 권위에 억눌린 민중의 모습을 묘사하여, 독자에게 동학 농민 운동의 역사적 소재로 인식시키고자 했겠구나.
- ④ 최 씨 가족의 수난에 집중하는 독자는, 작품의 이중적 시간 구조를 매개하는 최 씨 역할에 주목하고, 최 씨의 신중한 대응을 비판해야 한다는 작가의 입장을 파악할 수 있겠구나.
- ⑤ 1937년에 이 작품을 읽은 독자는, 1894년이 회상되는 방식을 통해 43년의 시간 격차를 자각하고, 동학 농민 운동이라는 과거와 일제 강점기라는 현재가 긴밀하게 상관된다는 창작 의도를 이해할 수 있겠구나.

[37~3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6.11B

자라가 기막혀 우는 말이,
 “㉠ 못 보겠네, 못 보겠네, 병든 용왕 못 보겠네. 나의 충성 부족던가, 나의 정성 부족던가? 객사 신세 자라 팔자, 이 아니 불쌍한가? 명천 감동하와 백호를 죽여 주오, 애고애고 설운 지고.”

이렇듯이 슬피 우니 호랑이 듣더니,
 “이놈, 무슨 내게 해로운 소리만 하느냐?”

자라 생각하되,
 ‘왕명을 피와 만 리 밖에 나와 이 지경을 당하니 일사(一死)면 도무사(都無死)라. 무이불식(無以不食)이라, 모조리 먹는다 하니 내 한번 고기 값이나 하리라.’

하고 모진 마음을 굳게 먹고,
 “어따, 네가 내 근본을 알려느냐?”

하며 호랑이 앞턱을 냅다 물고 매어 달리니, 호랑이가,
 “애고, 놓아. 아니 먹으마.”

자라 놓고 나왔으며 움쳐 든 목을 길게 빼어 염려 없이 기를 보이니, 호랑이 보더니,
 “이크, 장사 갑주 속의 방망이 총 나온다.”

하며 저마만치 물러앉으니, 자라 호랑이 질리는 기색을 알고,
 “게서 내 근본을 자세히 아는가? 나는 수국 충신 간의대부 겸 시랑 별주부, 별나라라 하네.”

호랑이 무식하여 자라 별자 몰라듣고 무수히 새겨,
 “별나리, 별나리, 그저 나리도 무섭다 하되 별나리 더 무섭다. 생긴 모양보다는 직품은 높고 찬란한데, 그러면 목은 어찌 그리 되었으며, 이곳엔 어찌 나왔는가?”

자라 대답하되,
 “이곳 나오고 목이 이리 된 근본을 알려느냐?”
 “어디 좀 알아봅세.”

“㉡ 우리 수궁이 퇴락하여 새로 다시 지은 후에 친여 개기와를 내 손으로 이어갈 제, 추녀 끝에 돌아가다 한 발길 미끄러져 공중 뚝 떨어져 빙빙 돌아 내려오다 목으로 찢겨 내려 박혀 목이 이리 되었기로 명의더러 물어본즉 호랑이 쓸개가 약이 된다 하기에 벽력 장군 앞세우고 도로랑 귀신 잡아타고 호랑 사냥 나왔으니 게가 호랑이면 쓸개 한 보 못 주겠나. 도로랑 귀신 게 있느냐? 어서 급히 빨리 나와 용천검 드는 칼로 이 호랑이 배 갈라라, 도로랑!”

하고 달려드니 호랑이 깜짝 놀라 물똥을 와락 싸고, ㉢ 초가성중(楚歌聲中) 놀란 폐왕 포위 뚫고 남쪽으로 달아나듯, 적벽강 불 싸움에 폐군장 위왕 조조 정옥 따라 도망하듯, 북풍에 구름 단듯, 편전살 달아나듯, 왜물 초중 철환 단듯, 녹수를 얼른 건너 동림(東林)을 헤치면서 꾸루꾸루 달아나 만첩청산 바위틈에 혼자 앉아 장담하고 하는 말이,

“내 재주 아니런들 도로랑 귀신 피할손가? 하마터면 죽을 뻔 하였구나.”

(중략)

한창 이리 춤을 출 제, 대장 범치 토끼 옆에 섰다가,
 “이크, 토끼 뱃속에 간이 출랑출랑하느고.”

토끼 깜짝 놀라,
 ‘어떤 게 간이라고? 뱃속에 물똥이 들어 출랑거리는 걸 간이라 하겠다. 아뵘새, 김새를 보아 떠나라고 하였거니 즉시 가는 것만 못할지고.’

이리할 제 별주부 연석에 참여하였다가 눈을 부릅떠 토끼를 보며 가만히 꾸짖어 왈,

“내 듣기에도 출랑출랑하는 것이 분명한 간인 듯하거든 네 저러한 피로 우리 대왕을 속이려 하느냐?”

토끼 마음에 분하여 파연(罷宴) 후에 왕께 주왈,
 “소토 세상에서 약간 의서를 보았거니와 음허화동(陰虛火動)의 병에 원기 회복하옵기는 왕배탕이 제일 좋다 하오니 왕배는 곧 자라라, 오래 묵은 자라를 구하여 쓰면 기운 자연 회복하 올 것이요, 그 다음에 소토의 간을 쓰면 병세 불일내(不日內) 평복(平復)하오리다.”

왕이 이때 토끼 말이라 하면 지록위마(指鹿爲馬)라도 믿고 듣는지라. 즉시 하령하되,

“출세(出世)하였던 별주부 오래 묵은지라. 법을 좇아 잡아들 이라.”

하니 현의도둑 거북이 아뢰되,

“㉣ 옛 말씀에 ‘토끼를 다 잡으면 사냥개를 삶아 먹고 높이 뜬 새 없어도 좋은 활이 습는다.’ 하였사오니 선생 말씀이 옳사 오나 주부는 만리타국의 정성을 다하여 공을 이루고 왔살 거늘 제후로 봉하기는 고사하고 죽이는 것은 불가사문어 인국(不可使聞於隣國)*이라. 특별히 권도(權道)를 좇아 암자라로 대용하심을 바라나이다.”

왕 왈,
 “윤희하노라.”

하시니.

이때 주부 천지 망극하여 집에 돌아와서 부부 서로 손을 잡고 통곡하다가 문득 생각하여 왈,

“내 일시 경솔한 말로 음해를 만나 무죄한 부인을 이 지경을 당하게 하였거니와 천 리 동행한 정분이 적지 아니하고 제 마음이 악독하여 고집스럽지 않으니 우리 정성을 다하여 빌면 다시 측은히 생각하여 구하리라.”

하고, ㉤ 즉시 별당을 소쇄(掃灑)하고 잔치를 배설하여 토끼를 정으로 청하여 상좌에 앉히고 주부 내외 당하에 꿇어 백배 애걸 하는 말이,

“오늘날 우리 양인(兩人) 목숨이 선생께 달렸으니 넓으신 도량으로 짐작하여 잔명을 구하여 주옵소서.”

토끼 수염을 만작이며 웃어 왈,

“네 당초에 날 죽을 곳으로 유인함도 심장에 고이하거늘 하물며 없는 간을 있다 하여 기어이 죽이려 함은 무슨 일이며, 위태한 때에 이르러 애걸하는 것은 나를 조롱함이나?”

- 작자 미상, 「토끼전」 -

* 불가사문어인국: 이웃 나라에 알려져서는 안 됨.

37.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별주부가 호랑이 앞에서 고기 값이나 하겠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상대에 맞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 ② 호랑이가 별주부의 외양에서 떠올린 갑주와 방망이 등은 상대와 맞설 의지를 갖게 하는 것이다.
- ③ 호랑이가 바위틈에서 자기 채주를 장담하는 것은 패배를 설욕 하려는 의지를 다지는 것이다.
- ④ 토끼가 김새를 보아 떠나라는 말을 떠올리고 즉시 가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용왕의 믿음을 저버릴 수 없다는 의지 때문이다.
- ⑤ 별주부가 부인이 대신 죽게 된 것을 자신의 경솔한 말과 음해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아내가 아니라 자신이 죽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38.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유사한 어구의 반복과 대구를 통해 인물의 심경을 드러 내고 있다.
- ② ㉡: 의태어를 활용하여 대상의 움직이는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 주고 있다.
- ③ ㉢: 동일 행위에 대한 다양한 묘사를 통해 대상이 처한 긴박한 상황을 역동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 ④ ㉣: 고사를 활용하여 상대에게 화자의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 ⑤ ㉣: 편집자적 논평을 통해 인물의 행위에 대한 서술자의 시각을 보여 주고 있다.

39.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토끼전」은 자신이 알고 있는 바를 적절히 활용하여 상대를 설득하거나 공박하는 지혜의 대결을 서사의 기초로 한다. 인물 들은 상대가 모르거나 상대에게 불리한 화제로 대화를 이끄는 것 같은 방법을 통해 대결에서 우위를 점하려 하며, 불리한 국면에서는 제삼자를 끌어들이거나 대결을 회피하기도 한다.

- ① 별주부는 호랑이가 모르는 별주부 자신의 근본으로 화제를 이끌어 자신의 우위를 확보해 나가고 있군.
- ② 호랑이는 별나리에 대한 자신의 무지를 드러내어 별주부에게 자신을 공략할 빌미를 제공하고 있군.
- ③ 별주부는 범치가 토끼의 간에 대해 말한 바를 가지고 토끼를 회유하여 토끼와의 대결을 회피하고 있군.
- ④ 토끼는 용왕의 병과 관련하여 자신으로부터 별주부로 화제를 옮김으로써 불리한 상황을 벗어나려 하고 있군.
- ⑤ 토끼는 별주부가 자신을 유인했던 과거의 일을 화제로 끌어 들여 자신의 우위를 강화하고 있군.

[40~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6.11B

(가)

어와 동량재(棟梁材)*를 더리 혀야 어이 홀고
헐쓰더 기운 집의 의논(議論)도 하도 할샤
뭇 목수 고자(庫子) 자* 들고 허둥대다 말려느다

- 정철 -

(나)

바깥 별감* 많이 있어 ㉠ 바깥 마를 달화주*도
제 소임 다 바리고 몸 쓰릴 뿐이로다
비 시여 서근 집을 뒤라셔 곳쳐 이며
옷 버셔 문허진 담 뒤라셔 곳쳐 쏘고
㉡ 불한당 구멍 도적 아니 멀니 단이거든
화살 춘 수하상직(誰何上直)* 뒤라셔 힘써 홀고
큰나큰 기운 집의 마누라* 혼자 안자
명령을 뒤 드르며 논의(論議)를 놀라 홀고
낮 시름 밤 근심 혼자 맛다 계시거니
옥 갓튼 얼굴리 편호실 적 몇 날이리
이 집 이리 되기 뒤 타시라 홀셔이고
헐 업는 종의 일은 못도 아니 혀려니와
도로혀 헤여히니 마누라 타시로다
㉢ 닌 주인 외다 혀기 종의 죄 만컨마는
그러타 세상 보려 민망햐 사되나이다
㉣ 새끼 쏘기 마르시고 내 말슴 드로쇼셔
집일을 곳치거든 종들을 휘오시고
종들을 휘오거든 상벌을 밝히시고
㉤ 상벌을 밝히거든 어른 종을 미드쇼셔
진실노 이리 혀시면 가도(家道) 절노 날니이다

- 이원익, 「고공답주인가(雇工答主人歌)」 -

- * 동량재: 건축물의 마룻대와 들보로 쓸 만한 재목.
- * 고자 자: 창고지기가 쓰는 작은 자.
- * 별감: 사내 하인끼리 서로 존대하여 부르던 말.
- * 달화주: 주인집 밖에서 생활하는 종들에게서 주인에게 내야 할 대가를 받아오는 일을 맡아 보던 사람.
- * 수하상직: “누구냐!” 하고 외치는 상직군.
- * 마누라: 상전, 마님 등을 이르는 말.

40. (가), (나)의 표현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달리 (나)에서는 연쇄와 반복을 통해 리듬감이 나타나고 있다.
- ② (나)와 달리 (가)에서는 설의적인 표현을 통해 안타까움의 정서가 강조되고 있다.
- ③ (나)와 달리 (가)에서는 직유의 방식을 통해 대상의 이미지가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 ④ (가), (나)에서는 모두 색채어를 통해 대상의 면모가 강조되고 있다.
- ⑤ (가), (나)에서는 모두 과거와 현재의 대비를 통해 시상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41.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직분을 망각하여 화자에 의해 비판을 받고 있는 존재
- ② ㉡: 가까운 곳에 있으며 화자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는 세력
- ③ ㉢: 잘못된 일을 고치도록 화자가 설득하고 있는 청자
- ④ ㉣: 화자가 청자에게 당부하는 시급하고 중요한 행위
- ⑤ ㉤: 화자가 공정하고 엄중하게 시행되기를 바라고 있는 일

42.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유학 이념에서는 국가를 가족의 확장된 형태로 본다. 집안의 화목을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자기 역할에 충실해야 하듯, 국가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서는 군신(君臣)이 본분을 다해야 한다. 조선 시대 시가에서는 이러한 이념을 담아 국가를 집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 ① (가)의 ‘동량재’와 (나)의 ‘어른 종’은 모두 국가의 바람직한 경영을 위해 요구되는 중요한 요소를 뜻하겠군.
- ② (가)의 ‘기운 집’은 위태로운 상태에 놓인 국가를, (나)의 ‘기운 집’은 되돌릴 길 없이 기울어 패망한 국가를 나타내겠군.
- ③ (가)의 ‘의논’과 (나)의 ‘논의’는 모두 국가 대사를 위해 임금과 신하가 합의하여 도출해 낸 올바른 대책을 뜻하겠군.
- ④ (가)의 ‘뭇 목수’는 조정의 일에 무관심한 신하들을, (나)의 ‘헐 업는 종’은 조정의 일에 지나치게 관여하는 신하를 나타내겠군.
- ⑤ (가)의 ‘고자 자’와 (나)의 ‘문허진 담’은 모두 외세의 침입에 협조하며 국익을 저버리고 사익을 추구하는 마음을 뜻하겠군.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16.11B

(가)

어둠은 새를 낳고, 돌을
 낳고, 꽃을 낳는다.
 아침이면,
 어둠은 온갖 물상(物象)을 돌려주지만
 스스로는 땅 위에 굴복한다.
 무거운 어깨를 털고
 물상들은 몸을 움직이어
 노동의 시간을 즐기고 있다.
 즐거운 지상의 잔치에
 금(金)으로 타는 태양의 즐거운 울림.
 아침이면,
 세상은 개벽을 한다.

- 박남수, 「아침 이미지 1」 -

(나)

- ┌ 텔레비전을 끄자
- [A] 풀벌레 소리
 - ┌ 어둠과 함께 방 안 가득 들어온다
 - 어둠 속에서 들으니 벌레 소리들 환하다
 - 별빛이 묻어 더 낭랑하다
- ┌ 귀뚜라미나 여치 같은 큰 울음 사이에는
- [B] 너무 작아 들리지 않는 소리도 있다
 - ┌ 그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한다
- ┌ 내 귀에는 들리지 않는 소리들이 드나드는
- [C] 까맣고 좁은 통로들을 생각한다
 - ┌ 그 통로의 끝에 두근거리며 매달린
 - 여린 마음들을 생각한다
 - 발뒤꿈치처럼 두꺼운 내 귀에 부딪혔다가
 - 되돌아간 소리들을 생각한다
- ┌ 브라운관이 뿜어낸 현란한 빛이
- [D] 내 눈과 귀를 두껍게 채우는 동안
 - ┌ 그 울음소리들은 수없이 나에게 왔다가
 - ┌ 너무 단단한 벽에 놀라 되돌아갔을 것이다
 - 하루살이들처럼 전등에 부딪혔다가
 - 바닥에 새카맣게 떨어졌을 것이다
- ┌ 크게 밤공기 들이쉬니
- [E] 허파 속으로 그 소리들이 들어온다
 - ┌ 허파도 별빛이 묻어 조금은 환해진다

- 김기택,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한다」 -

43. (가), (나)의 ‘어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에서 ‘어둠’은 ‘물상’을 돌려주는 행위의 주체로 표현되고 있다.
- ② (나)에서 ‘어둠’은 ‘풀벌레 소리’를 도드라지게 하고 있다.
- ③ (가)에서는 ‘어둠’이 사라져 가는 시간을, (나)에서는 ‘어둠’이 지속되는 시간을 배경으로 삼고 있다.
- ④ (가)에서는 ‘어둠’이 물러나면서 상황이 변화하고, (나)에서는 ‘어둠’이 들어오면서 ‘방 안’의 분위기가 변화한다.
- ⑤ (가)에서는 ‘어둠’의 생산력을, (나)에서는 ‘어둠’의 포용력을 앞세워 ‘어둠’이 밝음에 순응하는 모습을 부각하고 있다.

44. (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무거운 어깨를 털고’는 지상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사물들이 몸부림치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 ② ‘노동의 시간을 즐기고’는 노동의 고단함을 잊기 위해 사물들이 경쾌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 ③ ‘즐거운 지상의 잔치’는 기존의 사물들이 새로 태어난 사물들을 반갑게 맞이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 ④ ‘태양의 즐거운 울림’은 하늘의 태양이 지상에 있는 사물들과 서로 어울려 생기를 띠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 ⑤ ‘세상은 개벽을 한다’는 사물들이 새로운 형태로 변화하면서 혼란을 겪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45. (나)의 [A]~[E]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서 화자는 ‘텔레비전’을 끈 후 평소 관심을 두지 못했던 ‘풀벌레 소리’를 지각하고 있어.
- ② [B]에서 화자는 ‘큰 울음’뿐만 아니라 ‘들리지 않는 소리’도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화자의 인식 범위가 확장되고 있어.
- ③ [C]에서 화자는 ‘들리지 않는 소리’의 주체들이 화자 자신 때문에 서로 소통할 수 없게 된 것에 대해 미안함을 느끼고 있어.
- ④ [D]에서 화자는 자신이 의식하지 못했던 ‘그 울음소리들’을 떠올리며, 그 소리를 간과했던 삶을 성찰하고 있어.
- ⑤ [E]에서 화자는 ‘그 소리들’을 귀로만 듣지 않고 내면 깊숙이 받아들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고 있어.

[31~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6.11A

나는 숨을 죽이고 지그시 아픔을 견디며, 또 하나의 이픈 날을 회상한다. 꼭 이만큼이나 아팠던 날을.

그것은 아마 나의 고가(古家)가 헐리던 날이었을 게다.

남편은 결혼식을 치르자 제일 먼저 고가의 철거를 주장했다.

터무니없이 넓은 대지에 불합리한 구조로 서 있는 **음침한 고가**는 불필요한 방들만 많고 손댈 수 없이 퇴락했으니, 깨끗이 헐어내고 대지의 반쯤을 처분해서 쓸모 있는 **견고한 양옥**을 짓자는 것이었다.

너무도 당연한 소리였다. 반대할 이유라곤 없었다.

고가의 철거는 신속히 이루어졌다. 나는 그 해체를 견딜 수 없는 아픔으로 지켰다.

우아한 추녀와 드높은 용마루는 흰 기왓장으로 해체되고, 웅장한 대들보와 길들은 기둥목, 아른거리던 바둑마루는 허술한 장작더미처럼 나자빠졌다.

술한 애환을 가려 주던 <연>자 창들이 문짝 장사의 손구루마에 난폭하게 실렸다.

① 남편은 이런 장사꾼들과 몇 푼의 돈 때문에 큰소리로 샅대질까지 해 가며 영악하게 흥정을 했다.

남편 하나는 참 잘 만났느니라고 사돈댁-지금의 동서-은연신 빼드러진 이를 드러내고 내 등을 쳤다.

이렇게 해서 나의 고가는 완전히 해체되어 몇 푼의 돈으로 바뀌었나 보다.

아버지와 오빠들이 그렇게도 사랑하던 집, 어머니가 임종의 날까지 그렇게도 집착하던 고가. 그것을 그들이, 생면부지의 낯선 사나이가 산산이 해체해 놓고 만 것이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고가의 해체는 행랑체에 구멍이 뚫린 날부터 이미 비롯된 것이었고 한번 시작된 해체는 누구에 의해서고 끝막음을 보아야 할 것 아닌가.

다시는, 다시는 아침 햇살 속에 기왓골에 서리를 이고 서 있는 **숙연한 고가**를 볼 수 없더니.

그러나 나는 나 자신의 육신이 해체되는 듯한 아픔을 의연히 견디었다. 실상 나는 고가의 해체에 곁들여 나 자신의 해체를 시도하고 있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남편이 쓸모없이 불편한 고가를 해체시켜 우리의 새 생활을 담은 새 집을 설계하듯이, ② 나는 아직도 그의 아내로서 편치 못한 나를 해체시켜, 그의 아내로서 편한 나로 뜯어 맞추고 싶었다.

쓸모 있고 견고한, 그러나 속되고 네모난 집이 남편의 설계대로 이루어졌다. 현대식 시설을 갖춘 부엌과, 잔디와 조그만 분수까지 있는 정원이 있는 아담하고 밝은 집. 모두가 남편의 뜻대로 되었다.

③ 다만 나는 후원의 은행나무들만은 그대로 두기를 완강히 고집했다. 넓지 않은 정원에 안 어울리는 거목들이 때로는 서늘한 그늘을 주었지만 때로는 새 집을 너무도 침침하게 뒤덮었다.

그러나 나는 아직도 그것들의 빛, 그것들의 속삭임, 그것들의 아우성을 가끔가끔 필요로 했다.

④ 그리고 보니 아직도 해체되지 않은 한 모퉁이가 내 은밀한

곳에 남아 있는지도 몰랐다.

“옥회도 씨 유작전이 있군.”

남편도 지금 그 기사를 읽고 있는 모양이다.

“죽은 후에 유작전이나 열어 주면 뭘 해. 살아서는 개인전 한 번 못 가져 본 분을.”

“...”

“흥, 그분 그림이 외국 사람들 사이에 꽤 인기가 있는 모양인데 모를 일이야.”

‘흥, 잡종의 상판을 헐값으로 그려 준 대가를 제법 받는 셈인가.’

“죽은 후에 치켜세우는 것처럼 싱거운 건 없더라. 아마 어떤

⑤ 비평가의 농간이겠지...”

‘흥, 당신이 생각해 낼 만한 천박한 추측이군요.’

“에이 모르겠다. 예술이니 나발이니. 살아서 잘 먹고 편히 사는 게 제일이지.”

‘암, 몰라야죠. 당신 따위가 알 게 뭐예요. 그분은 그렇게밖에 살 수 없었다는 걸 당신 따위가 알 게 뭐예요.’

남편은 신문을 떨구고 기지개를 늘어서게 됐다.

⑥ 나는, 젖힌 그의 얼굴에서 동굴처럼 뚫린 콧구멍과 그 속을 무성하게 채운 코털을 보며 잠깐 모멸과 혐오를 느꼈다.

(중략)

옆에 앉은 남편도 풍선을 쫓았던가 고개를 젖힌 채 눈이 함박 하늘을 담고 있다.

그러나 그뿐, 이미 그의 눈엔 10년 전의 옛된 갈망은 없다. 그뿐이라. 여자를 소유하고 가정을 갖고 싶다는 세속적인 소망 외에는 한 번도 야망이나 고뇌가 깃들어 보지 않은 눈. 부스스한 머리가 늘어진 이마에 어느새 굵은 주름이 자리 잡기 시작한 중년의 그가 나는 또다시 낯설다.

저만치서 고등학생들이 배드민턴을 친다. 공이 나비처럼 경쾌하게 날아와 라켓에 부딪치는 소리가 마치 젊은 연인들의 찰나적인 키스의 파열음처럼 감각적으로 들린다.

⑦ 나는 충동적으로 그의 이마의 주름진 곳에 그런 키스를 퍼부었다.

그가 낯선 게 견딜 수 없어서였다. 그가 아주 타인처럼 낯선 게 견딜 수 없어서였다.

- 박완서, 「나목(裸木)」 -

31.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의 '남편'의 행동은 ㉣에서 '나'가 지키고자 했던 대상을 보존하기 위한 '남편'의 배려심이 반영된 것이다.
- ② ㉠에는 '남편'의 행동 묘사를 통해 '남편'의 성격이 드러나 있고, ㉣에는 '남편'의 외양 묘사를 통해 '나'의 심리가 드러나 있다.
- ③ ㉣에서 '나'는 '남편'의 삶에 동화되고자 하지만, ㉡에서 여전히 '남편'에게 동화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다.
- ④ ㉣에는 '남편'에 대한 '나'의 태도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심리가 드러나 있고, ㉢에는 '남편'을 낯설어하는 '나'의 감정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돌발적 행위가 드러나 있다.
- ⑤ ㉣에서 드러나는 '은행나무들'에 대한 '나'의 집착은 ㉡에서 나타나는 '나'의 잠재의식과 연결된다.

32. <고가>를 중심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고가>의 철거 결정에는 '남편'의 실용적인 가치관이 작용하고 있다.
- ② <고가>의 철거를 주장한 '남편'은 '견고한 양옥'의 설계에서도 자신의 뜻을 반영하였다.
- ③ <고가>의 철거는 '나'와의 친밀감을 회복하고자 하는 '남편'의 의지가 좌절된 사건을 의미한다.
- ④ <고가>는 과거의 '나'가 투영된 대상으로 '나'의 의식 속에 환기되어 내면의 갈등상태를 드러내고 있다.
- ⑤ <고가>를 '남편'은 '음침한 고가'로, '나'는 '숙연한 고가'로 표현하여 인물에 따른 관점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33. <보기>를 ㉠에 대한 '남편'의 속말이라고 가정할 때,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생전에는 주목하지 않던 옥회도를 사후에 높이 평가하는 것에는 원칙이 있다고 볼 수 없으니, ㉠(이)라는 말이 생각나는군.

- ① 모래 위에 쌓은 성
- ② 고양이 쥐 사정 보듯
- ③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 ④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 ⑤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34~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6.11A

소장수 A:가만 계세요. 만약 내가 이 소를 샀다가두 나중에 탄로가 나면.....

개똥이: 멍텅구리 같으니라구! 그런 걱정은 여기서 험 게 아나! 자네가 입을 다치구 있구 내가 입을 딱 씻어 버리구 있으면 누가 알아. 어느 개아들 늠이 안단 말야? 그렇지? 응?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아예 말어.

이때에 울타리 바깥 행길에 발에 갔다 오는 말뚱이 나타난다. 말뚱이는 빈 지게를 졌다. 개똥이와 소장수를 보고 무루청한다.*

말뚱이: (길에서) 개똥아 너 거기서 뭘 해? 그 사람은 누구야?
 개똥이:허긴 뭘 해. 아모것두 아니야. 소에 꼴 주고 있어.....

3장

이때에 또 국서와 마름이 헛간으로 들어오는 기척이 난다. 소장수와 개똥이는 슬슬 나가 버린다. 말뚱이는 소 옆에 와서 좀 ㉠ 이상한 공기를 예감한 듯이 살핀다. 이상 없음을 보고 소를 도로 매어 둔다. 마름 앞서고 그 뒤에 국서, 그리고 그 처 헛간으로 들어온다.

마름:그러면 저 벗섬은 오늘 저녁나절까지 신작로 돌다리 곁에 있는 논입자 곳간으로 저 내어다 두게.

국서: 네.

마름: 그러면 한 번 더 일러두고 갈 테니 잘 명심해 두게! 작년치 떨어진 게 두 섬 여섯 말, 재작년치 떨어진 게 석 섬 두 말, 도합 닷 섬 여덟 말이 떨어졌는데 그중에서 금년에 와서 갇어진 것을 덜면 꼭 너 섬 일곱 말이 떨어져 있던 말야!

말뚱이: (옆에서 듣고 섰다가 통명스럽게) 그걸 어째야 한단 말요?

마름: 금명간에 다 해다 갇으란 말야! 이늠이 왜 어른 말하는 데 쌍지팽이를 짚고 나서? 원 버르장머리 없게.국서 잘 듣게. 대관절 이번 봄부터 내가 몇 번을 타일른 줄 알아? 명년부터서는 새로 농지령이란 게 실시된다구.그런 게 되면 실상 작인들은 살기가 좀 나아져. 그렇지만 그 대신 이번 추수 까지에는 여태 묵은 것은 다 맡겨 놔야지. 그렇잖으면 내년에 가서 피차에 귀찮스럽게 된단 말야. 도지가 묵었느니, 떨어졌느니 허구 법정에 내걸더라도 말썽스럽게 되거든!

국서: 그러니까 나도 여태 여쭙 게 아닙니까? 보시다시피 우리는.....

마름: 지금 와서 그런 소릴 해두 소용없다니까! 나는 그저 논 입자가 하라는 대로 허는 사람이야. 만일 이번에 묵은 것을 못 갖다 갇으면 좋지 못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사정없이 딱 잘라서 ㉡ 최후 결단을 지어 버리고 말 거란 말야! 잘 알아 생각해!

말뚱이: 아니 뼈가 빠지게 농사지어 놓은 것 막 다 가져갔죠. 그러구 그제 무슨 말유? 올해가 풍년이래두 우리 집에 어디 쌀 한 톨 남었나 봐요! 막 뒤져 봐요!

국서:이늠 말뚱아!
 마름: 이 망할 자식 보게. 늠은 사람 앞에 막 샷대질을 허구 이늠이 덤비지! 에이, 고약한 늠 같으니! (지팡이로 때린다.)

말뚱이: (악을 쓰고)아버지 좀 봐요. 노.....농지령이란 건 뭘야요? 그저 사람을 골릴려구! 최후 결단을 하면 어쩔 테야요? 어디 할 대루 해 봐요! 흥! 할래야 할 거나 있어야 말이지.....

국서: (말리다가 못해 말뚱이를 헛간 밖으로 끌어낸다.) 저리 나가! 이늠, 버릇없어!

마름: 이런 분할 일이 있나! 그럼 못할 거라구! 두고 봐! 기둥 이라두 뼈어 가두 뼈어 가구 솔이라두 떼어 갈 테니까.흥 저늠의 소는 못 몰고 갈 줄 아나?

(중략)

국서: (말뚱이더러 노하여) 이늠아 나가거라! 소는 그예 너 늠 때문에 날려 버리고 말었다! 이 빌어먹을 늠! 왜 아까 마름한테는 덤뵈어?

처: 이늠아, 너는 허는 짓짓이 미련스럽더라. 이 일을 어떡하나? 이 일을.

말뚱이: 아니야, 가만 있어. 내 소 팔어먹은 늠은 알어요. 저 그 쇠똥치란 소장수가 어떻게 생겼수?

소장수 B: 짧은 머리 짙은 녀석이지. 좀 똥똥허구.

말뚱이: 똥똥허구 머리를 깎구..... 음! 그렇지! 이늠을 내가 죽여 버릴 테야.

국진: 네가 아니?

말뚱이: 인제 알았어요. 아까 개똥이란 녀석이 웬 똥똥허구 짧은 사람을 데리고 왔겠지요. 그래 가지구 이 감낭구 밑에다가 소를 몰아 내놓구 한참 동안이나 뭐라구 쭈근거렸어요. 그리고 나를 보고는 그만 도망을 했어!

소장수 B: 그럼 그건가 봅네다. 아무려면 불 안 땀 굴뚝에서 연기 날려구요. (퇴장)

국서: 저런! 육싹힐!

처: 이늠아. 똑똑이 못 본 일이지든 아예 입에 담지 말어라. 왜 그늠을 소도적늠으로 몰라구 그래?

국서:아냐. 그늠일지도 몰라. 그늠이 소 팔어서 만주 보내 달라구 좀 성화를 부렸어야지.

- 유치진, 「소」 -

* 무루청하다: '무르춤하다'의 잘못. 뜻밖의 사실에 놀라 뒤로 물러서려는 뜻이 하여 행동을 잡자기 멈추다.

34. 윗글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말뚝이’는 ‘개똥이’와 ‘국서’ 사이를 이간질함으로써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고 있다.
- ② ‘국서’와 ‘말뚝이’는 이해관계를 공유하면서도 ‘마름’에 대해서로 다르게 대응하고 있다.
- ③ ‘국서’는 ‘개똥이’의 예전 행동을 근거로 ‘말뚝이’의 판단에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 ④ ‘말뚝이’는 ‘소장수 B’가 제공한 정보에 의지하여 ‘개똥이’가 ‘소장수 A’에게 소를 넘겼다고 믿고 있다.
- ⑤ ‘마름’은 도지 갯기를 독촉하는 자신의 행동이 논임자의 지시에 따른 것임을 내세워 ‘국서’ 부자의 불만이 자신에게 향하는 것을 회피하고 있다.

35.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으로 인해 생긴 ‘말뚝이’와 ‘마름’ 간의 불화 때문에 ‘마름’이 ㉡과 같은 조치를 취하려 한다.
- ② ㉠은 ‘마름’이 헛간으로 들어오는 것을 눈치 채고 ‘말뚝이’가 ㉡을 대비하면서 조성한 것이다.
- ③ ㉠으로 인해 ‘개똥이’는 ‘말뚝이’에 대한 증오심을, ㉡으로 인해 ‘마름’은 ‘국서’ 부부에 대한 불만을 갖게 된다.
- ④ ㉠으로 인해 ‘국서’와 ‘말뚝이’ 사이의 갈등이 시작되고, ㉡으로 인해 ‘국서’와 ‘말뚝이’ 사이의 갈등이 고조된다.
- ⑤ ㉠으로 인해 ‘말뚝이’는 소의 상태를 확인하고, ㉡이라는 말을 듣고 ‘국서’는 ‘마름’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36. <보기>를 참고할 때, 윗글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소」는 1935년에 발표된 유치진의 초기 사실주의 극이다. 사실주의 극은 다양한 연극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대 공간을 현실의 일부인 것처럼 꾸민다. 「소」는 시대를 짐작하게 하는 용어의 사용, 치밀하게 계산된 행동과 대화 상황의 제시, 생동감 있는 구어체의 사용 등을 통해 당대 농촌 사회의 계층 간 위계 관계나 관습 그리고 농촌 사회에 내재된 갈등 상황을 충실히 재현하고 있다.

- ① ‘소’, ‘울타리’, ‘빈 지계’, ‘헛간’ 등을 연극적 장치로 이용하여 무대 공간을 현실의 일부인 것처럼 꾸미고 있군.
- ② 인물의 감정이 격앙되어 있음을 보여 주는 행동과 생동감 있는 구어체의 말투를 통해 갈등 상황을 실감 나게 제시하고 있군.
- ③ ‘마름’의 뒤를 따라가는 ‘국서’의 행동과 ‘국서’에게 지지하는 ‘마름’의 행동을 통해 농촌 사회의 계층 간 위계 관계를 보여 주고 있군.
- ④ ‘농지령’, ‘작인’, ‘도지’ 등 농민과 관련된 법령 및 용어를 사용하여 무대 위의 상황이 당대의 농촌 현실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 주는군.
- ⑤ ‘늙은 사람 앞에 ~ 고약한 늙 같으니!’, ‘나를 보고는 그만 도망을 했어!’ 등의 대사를 통해 계층 간 위계 관계를 중시하는 당대 농촌 사회의 관습을 보여 주는군.

[40~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6.11A

(가)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될새 꽃 좋고 열매 많나니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아니 그칠새 내가 일어 바다에 가나니
 <제2장>

천세(千世) 전에 미리 정하신 한강 북녘에 누인개국(累仁開國)
 하시어 복년(卜年)*이 가없으시니

성신(聖神)*이 이으셔도 경천근민(敬天勤民)하셔야 더욱 굳은
 시리이다

임금하 아소서 낙수(洛水)에 사냥 가 있어 조상만 믿겠습니까*
 <제125장>

- 정인지 외,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 -

(나)

강호(江湖)에 봄이 드니 미친 흥(興)이 절로 난다
 탁료계변(濁醪溪邊)에 금린어(錦鱗魚)가 안주로다
 이 몸이 한가(閑暇)하옵도 역군은(亦君恩)이샷다
 <제1수>

강호에 여름이 드니 초당(草堂)에 일이 업다
 유신(有信)한 강파(江波)는 보내나니 바람이로다
 이 몸이 서늘하옵도 역군은이샷다
 <제2수>

강호에 가을이 드니 고기마다 살찌 있다
 소정(小艇)에 그물 실어 흘러피워 던져두고
 이 몸이 소일(消日)하옵도 역군은이샷다
 <제3수>

강호에 겨울이 드니 눈 깊이 한 자가 넘네
 샷갓 빗기 쓰고 누역으로 옷을 삼아
 이 몸이 춥지 아니하옵도 역군은이샷다
 <제4수>
 - 맹사성, 「강호사시가(江湖四時歌)」 -

* 복년 : 하늘이 주신 왕조의 운수.
 * 성신 : 훌륭한 임금의 자손.
 * 낙수에~믿겠습니까 : 중국 하나라의 태강왕이 정사를 돌보지 않고 사냥을 갔다가 폐위당한 일을 가리킴.

40.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제2장>에서는 유사한 자연의 이치가 내포된 두 사례를 나란히 배열하고 있다.
- ② <제125장>에서는 행에 따라 종결 어미를 달리하고 있다.
- ③ <제2장>과 달리, <제125장>은 전언의 수신자를 명시하고 있다.
- ④ <제2장>과 달리, <제125장>은 한자어를 배제하고 순 우리말의 어감을 살리고 있다.
- ⑤ <제2장>과 <제125장>은 모두 자연 현상과 인간의 삶을 대조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41. <보기>는 (나)의 글쓴이가 창작을 위해 세운 계획을 가상적으로 구성한 것이다. <제1수>~<제4수>에 공통적으로 반영된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 ㄱ. 각 수 초장의 전반부에는 계절적 배경을 제시하며 시상의 단서를 드러내야겠군.
- ㄴ. 각 수 초장의 후반부에서는 내면적 감흥을 구체적 사물을 통해 표현해야겠군.
- ㄷ. 각 수 중장에서는 주변의 자연 풍광을 묘사하여 내가 즐기고 있는 삶의 모습을 제시해야겠군.
- ㄹ. 각 수 종장의 마지막 어절에는 동일한 시어를 배치하여 전체적 통일성을 확보해야겠군.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42.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용비어천가」는 새 왕조에 대한 송축, 왕에 대한 권계 등 정치적 목적으로 왕명에 따라 신하들이 창작하여 궁중 의례에서 연행된 작품이고, 「강호사시가」는 정계를 떠난 선비가 강호에서 누리는 개인적 삶을 표현한 작품이다. 두 작품 모두 사대부들에 의해 창작되었다. 사대부들은 수신(修身)을 임무로 하는 사(士)와 관직 수행을 임무로 하는 대부(大夫), 즉 선비와 신하라는 두 가지 정체성을 지니고 있었다. 이로 인해 사대부들이 향유한 시기는 정치적인 성격을 띠기도 한다.

- ① (가)에서 ‘뿌리 깊은 나무’와 ‘샘이 깊은 물’은 기반이 굳건하고 기원이 유구하다는 뜻을 내세워 왕조를 송축하는 표현이겠군.
- ② (가)에서 ‘경천근민’의 덕목을 부각하여 왕에 대해 권계한 것은 ‘대부’로서의 정치적 의식을 드러낸 것이군.
- ③ (나)에서 ‘한가’하게 ‘소일’하는 개인적 삶도 임금의 은혜 덕분이라고 표현한 데서 정치적 성격을 엿볼 수 있군.
- ④ (나)에서 ‘강파’, ‘바람’ 등의 자연물과 ‘소정’, ‘그물’ 등의 인공물의 대립은 ‘사’와 ‘대부’라는 정체성 사이에서 고뇌하는 모습을 드러내는군.
- ⑤ (가)의 ‘한강 북녘’은 새 왕조의 터전이라는 정치적 의미를 지니고, (나)의 ‘강호’는 개인적, 정치적 의미를 모두 지니고 있겠군.

[31~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16.09B

㉠ 양파(陽坡)*의 풀이 기니 봄빛치 느껴 있다
 소원(小園) 도화(桃花)는 밤비에 다 피거다
 아히야 쇼 도히 머겨 논밭 갈게 햏야라 <제2수>

㉡ 잔화(殘花) 다 딛 후에 녹음이 기피 간다
 백일(白日) 고촌(孤村)에 낫둑의소리로다
 ㉢ 아히야 계면도 불러라 긴 조롭 씨오자 <제3수>

동리(東籬)에 국화 피니 중양(重陽)이 거에로다
 자채(自蔡)*로 비즌 술이 햏마 아니 니것느냐
 ㉣ 아히야 자해(紫蟹)* 황계(黃鷄)로 안주 장만 햏야라 <제6수>

북풍이 노피 부니 압 피혜 눈이 딛다
 ㉤ 모침(茅簷)* 존 빗치 석양이 거에로다
 아히야 두죽(豆粥) 니것느냐먹고자라 햏로라 <제7수>

┌ 이바 아히들아새히 온다 즐겨 마라
 [A] 현스현 세월이 소년(少年)* 아사 가느니라
 └ 우리도 새히 즐겨 햏다가 이 백발이 되얏노라 <제9수>
 - 신계영, 「전원사시가(田園四時歌)」-

* 양파: 벌이 잘 드는 언덕.
 * 자채: 울벼. 철 이르게 익은 벼.
 * 자해: 꽃게.
 * 모침: 초가지붕의 처마.
 * 소년: 젊은 나이.

31.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화자가 지향했던 초월적인 삶의 세계가 회고된다.
 - ② ㉡: 꽃이 떨어진 것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운 심정이 제시된다.
 - ③ ㉢: 시름을 일시적으로나마 잊고자 하는 화자의 의도가 포출된다.
 - ④ ㉣: 미각을 돋우는 소재들을 통해 화자의 흥취가 드러난다.
 - ⑤ ㉤: 세속과 타협하지 않으려는 화자의 의지가 집약되어 나타난다.

32. <보기>와 [A]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늘그니 늘그니를 만나니 반가고 즐겁고야
 반가고 즐거오니 늘근 줄을 모롤로다
 진실노 늘근 줄 모르거니 밋일 만나 즐기리라
 - 김득연, 「산중잡곡(山中雜曲)」 제49수 -

- ① [A]와 <보기>는 모두 젊음과 늙음을 대조적으로 제시하여 주제를 표출하고 있다.
- ② [A]와 <보기>는 모두 자신의 현재 모습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③ [A]와 <보기>는 모두 세월의 흐름이 빠르다는 점을 구체적인 대상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 ④ [A]에서는 현재의 자신과 다른 태도를 보이는 상대에 대한 훈계가, <보기>에서는 같은 처지에 있는 상대를 만난 기쁨이 드러난다.
- ⑤ [A]에서는 과거에 대한 책임을 상대에게 전가하는 태도가, <보기>에서는 상대를 통해 현재 삶에 대한 깨달음을 얻는 태도가 드러난다.

33. <보기>를 참조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사시가(四時歌)는 사계절의 추이에 맞추어 시상을 전개하는 시가를 일컫는다. 사시가에서는 계절에 관한 시상이 드러나는 연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해 동일한 어휘나 유사한 표현을 연마다 반복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자연을 묘사하기 위한 시어 및 구절을 먼저 제시한 후 화자의 반응이나 정취를 덧붙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작품에 따라서는 일상의 풍경을 도입하여 계절의 변화에 따른 세상살이의 모습을 조명하거나, 어김없이 순환하는 자연의 이치와 무상한 인간사를 대비하기도 한다.

- ① 사계절의 추이가 나타난다는 점에서 사시가의 요건을 갖추고 있군.
- ② ‘아히야’가 반복적으로 등장하여 연 사이의 유기성을 부여하고 있군.
- ③ 계절이 다루어진 연은 자연의 모습이 먼저 묘사되고 화자의 반응이 이어지는 방식으로 구성되는군.
- ④ 봄에 소를 먹여 논밭을 가는 것과 가을에 울벼로 빗은 술을 찾는 것은 일상의 풍경을 그려 낸 사례이겠군.
- ⑤ 각 연에서는 일정하게 순환하는 자연의 이치와, 그러한 이치를 삶에 구현하지 못하는 인간을 대비하고 있군.

[34~3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6.09B

(가)

태양을 의논하는 거룩한 이야기는
㉠ 항상 태양을 등진 곳에서만 비롯하였다.

달빛이 흡사 비 오듯 쏟아지는 밤에도
우리는 헐어진 성터를 헤매이면서
언제 참으로 그 언제 우리 하늘에
오롯한 태양을 모시겠느냐고
가슴을 쥐어뜯으며 이야기하며 이야기하며
가슴을 쥐어뜯지 않았느냐?

그러는 동안에 영영 잃어버린 벗도 있다.
그러는 동안에 멀리 떠나버린 벗도 있다.
그러는 동안에 몸을 팔아버린 벗도 있다.
그러는 동안에 맘을 팔아버린 벗도 있다.

㉡ 그러는 동안에 드디어 서른여섯 해가 지나갔다.

다시 우러러보는 이 하늘에
㉢ 겨울밤 달이 아직도 차거니
오는 봄엔 분수처럼 쏟아지는 태양을 안고
그 어느 언덕 꽃땀물에 아늑히 안겨 보리라.

- 신석정, 「꽃땀불」 -

(나)

㉣ 사랑한다는 것은

열매가 맺지 않는 과목은 뿌리째 뽑고
그 뿌리를 썩힌 흙 속의 해충은 모조리 잡고
그리고 새 묘목을 심기 위해서
깊이 파헤쳐 내 두 손의 땀을 섞은 흙
그 흙을 깨끗하게 실하게 하는 일이다.

그리고

㉤ 아무리 모진 비바람이 삼킨 어둠이어도
바위 속보다도 어두운 밤이어도
그 어둠 그 밤을 새워서 지키는 일이다.
흰한 새벽 햇살이 퍼질 때까지
그 햇살을 뚫고 마침내 새 과목이
샘물 같은 그런 빛 뿌리면서 솟을 때까지
지키는 일이다. 지켜보는 일이다.

사랑한다는 것은.

- 전봉건, 「사랑」 -

(다)

1

㉥ 보리. 너는 차가운 땅속에서 온 겨울을 자라 왔다. 이미 한 해도 저물어, 벼도 아무런 곡식도 남김없이 다 거두어들인 뒤에, 해도 짧은 늦은 가을날, 농부는 밭을 갈고 눈을 잘 손질 하여서, 너를 차디찬 땅속에다 깊이 묻어 놓았었다. 차가움에 응결된 흙덩이들을 호미와 고무레로 날날이 부숴 가며, 농부는 너를 추위에 얼지 않도록 주의해서 굳고 차가운 땅속에 깊이 심어 놓았었다. “씨도 제 키의 열 길이 넘도록 심어지면, 움이 나오기 힘이 든다.”는 옛 가르침을 잊지 않으며, 농부는 너를 정성껏 땅속에 묻어 놓고, 이에 늦은 가을의 짧은 해도 서산을 넘은 지 오래고, 날개를 자주 저어 까마귀들이 깃을 찾아간 지도 오랜, 어두운 들길을 걸어서 농부는 희망의 봄을 머릿속에 간직 하며, 굳어진 허리도 잊으면서 집으로 돌아오곤 했다.

2

물도 흐르지 않고, 다 말라 버린 갯강변 발둑 위에는 앙상한 가지덤불 밑에 늦게 핀 들국화들이 찬 서리를 맞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눈독 위에 깔렸던 잔디들도 푸른빛을 잃어버리고, 그 맑고 높던 하늘도 검푸른 구름을 지니어 찌푸리고 있는데, 너, 보리만은 차가운 대기 속에서 솔잎과 같은 새파란 머리를 들고, 하늘을 향하여 솟아오르고만 있었다. 이제, 모든 화초는 지심(地心) 속에 따스함을 찾아서 다 잠자고 있을 때, 너, 보리만은 억센 팔들을 내뻗치고, 셋말간 얼굴로 **생명의 보금자리**를 깊이 뿌리박고 자라 왔다. 날이 갈수록 해는 빛을 잃고 따스함을 잃었어도 너는 꿈쩍도 아니하고 그 푸른 얼굴을 잃지 않고 자라 왔다. 칼날같이 매서운 바람이 너의 등을 밀고, 얼음같이 차디찬 눈이 너의 온몸을 덮어 억눌러도, 너는 너의 푸른 생명을 잃지 않았었다. 지금, 어둡고 차디찬 눈 밑에서도, 너, 보리는 장미꽃 향내를 풍겨 오는 그윽한 유월의 훈풍과 노고지리 우짚는 새파란 하늘과, 산 밑을 흰히 비추어 주는 태양을 꿈꾸면서, 오로지 기다림과 희망 속에서 아무 말이 없이 참고 견디어 왔으며, 삼월의 맑은 하늘 아래서 아직도 짹짹한 바람에 자라고 있었다.

3

쭙고 어두운 겨울이 오랜 것은 아니었다. 어느덧 남향 언덕 위에 누렁던 잔디가 파아란 속잎을 날리고, 들판마다 민들레가 웃음을 웃을 때면, 너, 보리는 논과 밭과 산등성이에까지, ㉦ 이미 푸른 바다의 물결로써 온 누리를 뒤덮는다. 낮은 논에도, 높은 밭에도, 산등성이 위에도 보리다. 푸른 보리다. 푸른 봄이다. 아지랑이를 몰고 가는 봄바람과 함께 온 누리는 푸른 봄의 물결을 이고, 들에도, 언덕 위에도, 산등성이 위에도, **봄의 춤**이 벌어진다. 푸르른 생명의 춤, 셋말간 봄의 춤이 흘러넘친다. 이윽고 봄은 너의 얼굴에서, 또한 너의 춤 속에서 노래하고 또한 자라난다. 아침 이슬을 머금고, 너의 푸른 얼굴들이 새날과 함께 빛날 때에는, 노고지리들이 쌍쌍이 짝을 지어 너의 머리 위에서 봄의 노래를 자지러지게 불러 대고, 또한 너의 **깊고 아늑한 품속**에 깃을 들이고, 사랑의 보금자리를 틀어 놓는다.

- 한홍구, 「보리」 -

34.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공간의 대조를 통해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드러내고 있다.
- ② 색채어를 통해 새롭게 나타난 것들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 ③ 역설적 표현을 활용하여 지향하는 세계에 대한 강력한 열망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자연물을 소재로 하여 서로 대립하던 것들이 타협에 이른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 ⑤ 시련과 고난을 드러내는 표현을 사용하여 기대가 실현되기 이전의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35. ㉠~㉣에 나타난, 말하는 이의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일상을 권태롭게 여기는 태도가 '항상'을 통해 부각되고 있다.
- ② ㉡: 불행했던 시절이 되돌아올 것에 대비하려는 태도가 '드디어'를 통해 부각되고 있다.
- ③ ㉢: 부정적 상황이 온전히 극복되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여기는 태도가 '아직도'를 통해 부각되고 있다.
- ④ ㉣: 적대적인 것들로 인해 당황하는 태도가 '아무리'를 통해 부각되고 있다.
- ⑤ ㉣: 예상과는 다른 결과를 실망스럽게 여기는 태도가 '이미'를 통해 부각되고 있다.

36.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사랑이 이루어진 상황을 사랑의 결실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랑을 이루기 위해 지극한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사랑하기로 마음먹는 것만으로 사랑의 결실을 얻을 수는 없다. 사랑하는 대상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쏟아야 하고, 그 대상을 빼앗으려 하거나 위협하는 것들에 맞서야 한다. 이는 연인은 물론 다른 대상을 향한 사랑에서도 마찬가지이다.

- ① (가)에서 '혈어진 성터'를 헤매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관심을 잃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 ② (가)에서 '뭉'과 '땀'을 팔아버린 뱃들의 삶은 사랑하는 대상을 되찾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의미한다.
- ③ (나)에서 '흙 속의 해충'을 제거하는 것은 사랑하는 대상을 위협하는 것들에 맞서려는 노력을 의미한다.
- ④ (나)에서 '뱃'을 새우는 것은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관심을 지속하고 위협적인 상황으로부터 그 대상을 지키려는 노력을 의미한다.
- ⑤ (가)의 '어느 언덕 꽃덤불'에 안기는 것과 (나)의 '새 과목'이 솟는 것은 노력을 통해 얻으려 하는 사랑의 결실을 의미한다.

37.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시상 전개 of 단서로서 마지막 연과 대응되어 작품의 주제를 강조한다.
- ② ㉡는 글의 첫머리에 제시되어, 이어질 내용이 자연 친화적 이념의 역사를 포함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 ③ ㉠은 사물에 비유됨으로써 경외감을, ㉡는 다른 대상과 비교됨으로써 비장감을 자아낸다.
- ④ ㉠은 시행 하나로 연이 구성되어, ㉡는 낱말 하나로 문장이 구성되어 이후 드러날 인간 소외의 양상을 압축적으로 제시한다.
- ⑤ ㉠, ㉡는 모두 존재의 생성에서 소멸에 이르는 과정을 보여 주기 위한 출발점이 된다.

38. <보기>를 참고할 때, (다)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보리」에서 글쓴이는 파종된 보리가 자라는 과정을 인간의 삶에 접목하여 그 인격적 속성을 제시함으로써 보리의 모습에서 알 수 있는 다양한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 ① '차가운 땅속'에서 추위를 견디는 보리의 모습을 통해, 어려운 상황을 견디는 인내심을 드러내고 있군.
- ② '하늘'을 향해 솟아오르는 보리의 모습을 통해, 강인한 의지와 진취적 자세를 드러내고 있군.
- ③ '생명의 보금자리'를 깊이 뿌리박고 자라나는 보리의 모습을 통해, 끈질긴 생명력을 드러내고 있군.
- ④ '봄의 춤'으로 표현된 보리의 모습을 통해, 성숙해질수록 겸손함을 잃지 않는 자세를 드러내고 있군.
- ⑤ 노고지리에게 '깊고 아늑한 품속'을 내어 주는 보리의 모습을 통해, 포용과 배려로 주위와 조화를 이루려는 자세를 드러내고 있군.

[39~4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6.09B

내가 태어난 날임을 상기시키는 아무런 특별함은 없다. 그해 봄날 바람이 불었는지 비가 내렸는지 맑았는지 흐렸는지, 이제는 층계를 오르는 일조차 잊어버린 치매 상태의 노모에게 묻는 것은 의미 없는 일이다. 다산의 축복을 받은 농경민의 마지막 후예인 그녀에게 아이를 낳는 것은, 밤송이가 벌어 저절로 알밤이 툭 떨어지는 것, 봉숭아 여문 씨들이 바람에 화려르 흐트러지는 것처럼 자연스럽고 범상한 일이었을 것이다.

나는 막냇동생이 태어나던 때를 기억하고 있다. 깨끗한 바가지에 쌀을 담고 그 위에 마른 미역을 한 잎 걸쳐 안방 시렁에 엮어 삼신에게 바친 다음 할머니는 또다시 깨끗한 짚을 한 다발 안방으로 들여갔다. 사람도 짐승처럼 짚북데기 깔자리에서 아기를 낳나? 누구에게도 물을 수 없었던 마음속의 의문에 안방 쪽으로 가는 눈길이 자꾸 은밀하고 유심해졌다.

할머니는 아궁이가 미어지게 나무를 처넣어 부엌의 무쇠솥에 물을 끓였다. 저녁 내내 어둡고 웅숭깊은 부엌에는 설설 물 끓는 소리와 더운 김이 가득 서렸다. 특별히 누군가 말해 준 적은 없지만 아이들은 무언가 분주하고 소란스럽고 조심스러운 쉬쉬함으로 어머니가 아기를 낳으려 한다는 눈치를 채게 마련이었다.

할머니는 언니에게, 해지기 전에 옛우물에서 물을 길어 와 독을 채워 놓으라고 말했다. 머리카락 빠뜨리지 마라. 쓸데없이 수다 떨다 침 떨구지 마라. 부정 탄다. 할머니는 엄하게 덧붙였다.

(중략)

한 사람의 생애에 있어서 사십오 년이란 무엇일까. 부자도 가난뱅이도 될 수 있고 대통령도 마술사도 될 수 있는 시간일 뿐더러 이미 죽어서 물과 불과 먼지와 바람으로 흩어져 산하에 분분히 내리기도 충분한 시간이다.

나는 창세기 이래 진화의 표본을 찾아 적도 밀 일천 킬로미터의 바다를 건너 갈라파고스 제도로 갈 수도, 아프리카에 가서 사랑의 의술을 펼칠 수도 있었으리라. 무인도의 로빈슨 크루소도, 광야의 선지자도 될 수 있었으리라. 피는 꽃과 지는 잎의 섭리를 노래하는 근사한 한 권의 책을 쓸 수도 있었을 테고 맨발로 춤추는 풀밭의 무희도 될 수 있었으리라. 질량 불변의 법칙과 영혼의 문제, 환생과 윤회에 대한 책을 쓸 수도 있었을 것이다. 납과 쇠를 금으로 만드는 연금술사도 될 수 있었고 밤하늘의 별을 보고 나의 가야 할 바를 알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지금 작은 지방 도시에서, 만성적인 편두통과 임신 중의 변비로 인한 치질에 시달리는 중년의 주부로 살아가고 있다. 유행하는 시와 에세이를 읽고 티브이의 뉴스를 보고 보수적인 것과 진보적인 것으로 알려진 두 가지의 일간지를 동시에 구독해 읽는 것으로 세상을 보는 창구로 삼고 있다. 한 달에 한 번씩 아들의 학교 자모회에 참석하고 일주일에 두 번 장을 보고 똑같은 거리와 골목을 지나 일주일에 한 번 축탕에 가고 매주 목요일 재활 센터에서 지체 부자유자들의 물리 치료를 돕는 자원 봉사의 일을 하고 있다. 잦은 일은 아니지만 이름난 악단이나 연주자의 순회공연이 있을 때면 남편과 함께 성장을 하고 밤 외출을 하기도 한다.

갈라파고스를 떠올린 것도 엇그제, 벌써 한 주일 이상이나 화재가 계속되어 회귀 생물의 희생이 걱정된다는 티브이 뉴스에 비친 광경이 의식의 표면에 남긴 잔상 같은 것일 테고 더 먼저는 아들이, 자신이 사용하는 물건들에 붙여 놓은, '도도'라는 말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 [도도]가 무엇인가를 묻자 아들은 4백 년 전에 사라진, 나는 기능을 잃어 멸종된 새였다고 말했었다. 누구나 젊은 한 시절 자신을 전설 속의, 멸종된 종으로 여기지 않겠는가. 관습과 제도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두려움과 항거를 그렇게 나타내지 않겠는가.

우리 삶의 풍속은 그만큼 빈약한 상상력에 기대어 부박하다. 삶이 내게 도태시킨 가능성에 대해 별반 아쉬움도 없이 잠깐 생각해 본 것은 내가 새로 보태어진 나이에 대해 잠깐 발이 걸렸다는 뜻일 게다. 그러나 나는 이제 혼례에나 장례에 꼭 같은 한 가지 옷으로 각각 알맞은 역할을 연출할 줄 알고 내 손으로 질서 지워지는 일들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 마늘과 생강이 어우러져 내는 맛을 알고 행주와 걸레의 질서를 사랑하지만 종종 무질서 속으로 피신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 오정희, 「옛우물」 -

39.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사진에 대한 객관적 진술을 통해 사진의 전모를 제시하고 있다.
- ② 이야기 내부 서술자의 자기 고백적 진술을 통해 내면을 제시하고 있다.
- ③ 인물의 행적을 요약적으로 진술하여 갈등의 해결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 ④ 의문과 추측의 진술을 통하여 다른 인물에 대한 반감을 제시하고 있다.
- ⑤ 감각적인 묘사를 통해 혼란스러운 시대적 분위기를 입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40. [도도]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나는 기능'을 상실한 '도도'와 스스로를 가능성이 도태된 존재로 여겼던 주인공을 연관 짓는다는 점에서, '도도'는 주인공이 자신을 비추어 보는 대상이다.
- ② 주인공의 아들이 자기 물건들에 '도도'라는 이름을 붙이고 멸종된 종이라고 말한다는 점에서, '도도'는 주인공 아들의 불행한 미래를 암시하는 대상이다.
- ③ 주인공이 '도도'에 대해 '멸종된 새'로서 진화의 표본으로 남아 있다는 것을 떠올리는 점에서, '도도'는 주인공이 과학을 깊이 탐구했던 이력을 알려 주는 대상이다.
- ④ '도도'를 통해 바다 건너 외딴 '갈라파고스' 섬의 회귀종을 연상하는 점에서, 주인공에게 '도도'는 외롭게 살아가는 현대인의 단절된 인간관계를 환기하는 대상이다.
- ⑤ '도도'가 인간 앞에 '항거'하지 못하고 희생되어 '전설 속'의 존재로 여겨진다는 점에서, '도도'는 주인공이 두려움을 느끼는 현실 사회의 '관습과 제도'를 상징하는 대상이다.

41. <보기>를 참고할 때, 윗글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인간은 일생 동안 출생·성년·결혼·죽음의 과정을 겪는데, 이 과정에서 일상적 경험 세계와 현실 너머의 상상의 세계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탐색한다. 이때 두 세계의 어느 편에도 온전히 편입되지 못하고 경계에 선 인간은 정체성의 혼란을 겪기도 한다.

「옛우물」에서는 경계 상황에 놓인 중년 여성 인물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정체성을 탐색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그 탐색의 과정에서 출생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삶의 다양한 양상에 대해 성찰한다. 이를 통해, 생명과 죽음이 서로 대립되고 분리된 것이 아니라 자연의 순환 원리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이 부각된다.

- ① 주인공이 주기적으로 학교나 재활 센터 등에 오가면서도 밤 외출을 하는 행위에서, 일상 세계에서 안정된 삶을 영위하지 못하는 경계 상황에 놓여 있음을 읽을 수 있겠군.
- ② 죽음을 물과 불과 바람과 먼지로 산하에 흩어져 내리는 것으로 보는 주인공의 생각에서, 생명과 죽음이 자연의 순환 원리를 바탕으로 연결된 것이라는 인식을 엿볼 수 있겠군.
- ③ 막냇동생이 태어나던 때에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준비하는 장면을 주인공이 떠올리는 것에서, 출생이라는 생의 첫 과정에 주목하며 정체성을 탐색하려는 모습을 볼 수 있겠군.
- ④ 한 사람의 생애에서 사십오 년의 의미를 묻는 주인공이 아프리카나 광야를 상상하는 장면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일상과는 다른 세계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군.
- ⑤ 질서 지워지는 일들에 자부심을 가지면서도 무질서 속으로 피신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질서와 무질서 사이를 오가며 정체성을 탐색할 수 있음을 알 수 있겠군.

[42~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16.09B

(중략)

그 이전에 진 공이 병부에서 벼슬을 살던 때였다. 엄송의 가자(假子) 조문화는 진 소저가 아름답다는 말을 듣고 제 자식을 위해 진 공에게 혼인을 청한 적이 있었다. 그때 진 공이 엄한 말로 거절하자, 조문화는 매우 노하여 엄송에게 사주해 공을 노안부 제독으로 내쫓게 했다. 그 무렵에 다시 양식을 시켜 '진 공이 사사로이 태원의 돈 삼십만 냥을 훔쳤다.'고 무고하게 했다. 그리고 금위옥에 가둔 뒤 온갖 방법으로 죄를 조작하게 했다. 조문화는 오 부인과 진 소저가 옛집으로 올라왔다는 말을 듣고는 부인의 종형 오 낭중이라는 자를 불러 놓고 말했다.

[A] “진형수는 죽어 마땅한 죄를 지었지. 그렇지만 내가 진실로 한번 입을 연다면 죽히 목숨은 구할 수 있을 것이니라. 지난날에 형수가 나를 지나치게 무시하여 혼인을 박탈하게 거절한 적이 있었다. 이제 와서 내가 그 원한을 물어 둔 채로 덕을 베풀어 주지는 못하겠다. 들으니 그대는 형수와 인척이 된다 하더군. 만일 형수가 살아서 옥문을 나서게 하고 싶다면 시험 삼아 나를 위해 형수의 딸에게 내가 한 말을 전해 주어 보거라. 그녀가 만일 효녀라면 스스로 거취할 방도를 필시 깨우치게 될 것이니라.”

오 낭중은 본시 권세를 두려워하여 예에 하고 대답만 할 줄 아는 위인이었다. 그는 공손하게 손을 모은 채 명을 받은 뒤 오 부인을 찾아가 조문화가 한 말을 그대로 전했다.

㉠ 오 부인은 크게 노했다.

“조가 도적놈이 감히 우리 딸에게 욕을 보이려 한다고?”

그러자 진 소저가 분연히 고했다.

“옛날 효녀 중에는 스스로 관비가 되기를 청하여 제 아버지의 죽음을 면하게 한 자가 있었으며, 또한 자신을 팔아 제 부모의 장사를 치르게 한 자도 있었습니다. 소녀의 신체발부는 모두 부모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제 부친께서 중죄를 받을 형편에 놓이신 마당에 자식 된 자로서 ㉡ 어느 겨를에 일신의 욕과 불욕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오 부인은 평소 소저의 빙옥 상설 같은 지조를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그 말을 듣고는 깜짝 놀라 말도 하지 못한 채 한동안 눈물만 흘리다가 마침내 탄성을 발했다.

[B] “슬프다! 총계정에서 학을 읊은 시가 죽히 너의 성안(成案)이 되고 말겠구나. 내가 어찌 네 마음을 의심할리 있겠느냐? 그러나 딸을 죽여서 그 아버리를 구한다면, 산 사람의 마음이 오죽이나 하겠느냐? 옛 사람이 이르기를, ‘황금을 걸어 놓고 도박을 벌이면 그 지혜가 더욱 어두워진다.’고 했지. 지금 내 마음은 황금을 건 것에 비할 바가 아니로구나. 네 스스로 잘 생각해서 현명하게 처신하거라.”

진소저는 ㉢ 추호도 망설이는 기색이 없이 친히 오 낭중을 향해 혼인을 허락했다. 오 낭중은 몹시 기뻐하며 조문화에게 돌아가 그녀의 말을 전했다. 조문화는 미칠 듯이 기뻐하더니 그 이튿날 다시 엄송을 사주해 진 공의 옥사를 천자에게 아뢰게 했다. 이윽고 천자는 진 공의 사형을 감하는 대신 운남으로 귀양을 보내게 했다.

마침내 진 공은 오 부인과 함께 길을 떠났다. 그 뒤 진 소저는 침실로 돌아가 자리에 누운 채 밤낮없이 영영 울고 있었다. 그때 조문화의 가인(家人)들이 속속 찾아와 진 소저에게 혼인을 재촉했다. 진 소저는 유모로 하여금 말을 전하게 했다.

“방금 부모님을 작별했으므로 정회가 망극하기 그지없습니다. 앞으로 수십 일 정도를 보내면서 마음을 조금 진정시킨 연후에 성례하면 좋을 듯합니다.”

조문화의 가인이 돌아가 진 소저의 말을 전했다. 그러나 조문화의 아들은 다급하게 서둘러 마지않았다. 조문화가 말했다. “인정상 본디 그럴 것이니 그 말대로 따르도록 하거라. 또한 저 아이는 이미 주머니 속에 든 물건이나 다름이 없게 되었다. 서두르지 않는다고 달아날 곳이 있겠느냐?”

사오일 뒤 조문화는 시비로 하여금 진 소저를 찾아가 살펴보게 했다. 진 소저는 머리를 풀어 얼굴을 가린 채 이불을 덮고 신음하고 있다가 희미한 목소리로 유모를 불러 놓고 일렀다.

“슬픔으로 심란하던 차에 다시 감기에 걸리고 말았네. 이제는 마음도 추스르고 병도 조섭하여 속히 쾌차한 후에 부모님을 살려 주신 ㉣ 큰 은혜를 보답하러 하네. 그런데 지금 바깥 사람들이 자주 왔다 갔다 하니 내 마음이 편하질 않구려.”

그 사람이 돌아가 진 소저의 말을 조문화에게 그대로 전했다. 그러자 조문화는 몹시 기뻐했다.

“진실로 뛰어난 효녀로서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사람이로구나. 이제 그 뜻에 순종하여 화를 돌우게 하지 마라. 앞으로도 모름지기 매일 문밖에서 동정을 살피되 집 안에는 다시 함부로 들어가지 말거라.”

다시 10여 일이 지난 뒤 진 소저는 공의 행차가 이미 멀리까지 갔으리라 짐작하고 유모 및 시녀 운섬 등과 함께 야밤에 간단하게 행장을 꾸렸다. 그리고 모두 남장을 한 뒤 나귀 한 필을 끌고 회남을 향해 떠나갔다.

그 이튿날에도 조문화의 가인이 소저를 찾아갔더니 ㉤ 빈집만 황량할 뿐 다시는 인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 사람은 몹시 놀랍고도 의아하여 마을 사람에게 물어보았다.

“저 집 소저가 어디로 갔습니까?”

마을 사람은 쌀쌀하게 대답했다.

“소저고 대저고 나는 모릅니다.”

그 사람은 무안만 당하고 돌아가 조문화에게 고했다.

- 작자 미상, 「창선감의록」 -

42. 윗글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진 소저가 부모님과 이별한 뒤 집 안에 머문 것은 혼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 ② 조문화의 아들은 진 소저와의 혼인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조금혜하며 혼인을 서두르고 싶어 했다.
- ③ 조문화는 진 소저의 부모가 떠났다고 하여 아들과 진 소저의 혼사가 무산될 것이라고는 여기지 않았다.
- ④ 운섬은 진 소저와 함께 밤중에 행장을 꾸려 길을 떠났다.
- ⑤ 마을 사람은 진 소저의 행방에 대해 조문화의 가인이 원하는 답을 주지 않았다.

43. [A]와 [B]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청자와의 동등한 관계를 전제로, [B]는 청자와의 상하 관계를 이용하여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자 한다.
- ② [A]는 지난 일을 들어 청자에 대한 원한을 드러내고, [B]는 이전에 쓰인 글을 떠올려 청자에 대한 원망을 표출한다.
- ③ [A]는 청자에게 선택 가능한 여러 방안을 제시하여, [B]는 선택 가능성을 제한하여 청자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자 한다.
- ④ [A]는 가정할 수 있는 상황을 들어 자신의 의중을 청자에게 전하고, [B]는 비교할 만한 상황을 들어 자신의 의중을 청자에게 드러낸다.
- ⑤ [A], [B] 모두 이상적 가치를 내세워 자신의 결정을 청자가 따르도록 유도하고 있다.

44.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조선 후기에 들어 가문을 둘러싼 갈등과 정치적 대립이 서사화되는 양상이 두드러진다. 임금과 신하의 권력 관계가 역전된 정치적 구조에서 권세 있는 신하가 정치를 좌우하는 현실이 소설에 반영된다. 이러한 정치적 문제는 가문의 문제에 연결되면서 가족 구성원이 고난을 겪는 서사 구성으로 드러난다. 이때 자신의 판단과 지략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적극적 인물들이 나타난다. 이들은 사리 판별을 돕는 인물이나 주변 인물의 도움을 받기도 한다.

- ① 오 낭중이 가문 사이를 매개하는 것을 보니, 사리 판별을 하여 가족 구성원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게 하는 모습을 알 수 있군.
- ② 진 공이 옥에 갇히고 귀양을 가게 되는 과정을 보니, 권력을 가진 신하가 정치를 좌우하는 현실의 문제를 추측할 수 있군.
- ③ 진 소저가 길을 떠나기까지의 과정을 보니, 자신의 판단에 따라 지혜롭게 문제 상황을 해결해 가는 적극적 인물의 면모를 알 수 있군.
- ④ 조문화가 성사시키려 한 혼인 문제로 진 공의 가족이 고난을 겪게 되는 과정을 보니, 정치적 문제와 가문의 문제가 연결될 수 있음을 알 수 있군.
- ⑤ 유모가 조문화의 가인과 시비에게 말을 전하고 진 소저와 함께 남장을 하는 정황을 보니, 주변 인물이 적극적 인물에게 도움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45. 문맥을 고려할 때, ㉠~㉥을 표현하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나중에 보자는 사람 무섭지 않다.
- ② ㉡: 없는 자가 찬밥 더운밥을 가리랴.
- ③ ㉢: 만사가 욕심대로라면 하늘에다 집도 짓겠다.
- ④ ㉣: 산이 높아야 옥이 난다.
- ⑤ ㉤: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운다.

[31~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6.09A

이혈룡이 어이가 없어서,
 “오냐, 내가 너를 친구라고 찾아왔다가 통지를 할 수 없어 한 달이나 지나서 노자도 떨어지고 기갈을 견디지 못하여 문전 걸식하고 다니다가 오늘에야 이 자리에서 너를 보니 죽어도 한이 없다. 나는 너를 친구라고 찾아왔는데 어찌 이같이 팔시 한단 말이나? ㉠ 오랜 친구도 쓸데없고 결의형제도 쓸데없구나. 내가 네 처지라면 이같이는 팔시하지 않을 거다. 다만 돈백이라도 준다면 모친과 처자를 먹여 살리겠다.”
 하면서 대성통곡하였다. 이혈룡은 다시 울먹이는 말로,
 “이 몸쓸 김진희야, 내가 지금 푼전의 노자가 없으니 멀고 먼 서울 길을 어찌 돌아가랴.”
 하니, 김 감사는 노발대발,
 “이 미친놈 봤나.”
 호통을 치면서 사공을 불러 엄명하였다.
 “이놈을 배에 싣고 가서 강물 한가운데 던져라.”
 이에 사공들이 영을 받고 물러 나와 이혈룡을 묶어서 배에 실을 때에 연회장에 있던 옥단춘이 넋지시 보니, 비록 의복은 남루하나 얼굴이 비범한 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고 감사에게 거짓말하여 고하기를,
 “소녀 지금 오한이 일어나며 온몸이 괴로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니 감사가,
 “그러면 물러가서 치료하라.”
 하였다. 옥단춘이 물러 나와서 사공을 급히 불렀다.
 “저기 가는 저 사공들, 잠깐 기다리시오.”
 하니 사공들이 머무르거늘 옥단춘이 하는 말이,
 “내 이 양반의 몸값을 후하게 줄 것이니 이 양반을 죽이지 말고 죽인 듯이 모래를 덮어서 숨겨 두고 오시오.”
 하였다.
 옥단춘의 부탁을 받은 사공들이,
 ㉡ “아무리 사또 영이 지중하지만 어찌 우리 손으로 죄 없는 사람을 죽이겠는가.”
 하고 사공들이 이혈룡을 배에 싣고 만경창과 깊은 물에 둥기둥실 떠나갔다. 혈룡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속절없이 죽는 줄로만 알고 하늘을 우러러 방성통곡하였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 이혈룡은 옥단춘의 기지로 목숨을 구한 후 그녀의 집에 머물게 된다. 이후 이혈룡은 과거 시험을 치르라는 옥단춘의 권유로 서울로 돌아와 가족을 만나고 그간의 사정을 이야기한다.

그러자 모친과 부인은 그 사실을 듣고 혈룡의 죽을 고생을 생각하고 서로 슬픈 눈물을 흘렸다. 동시에 옥단춘이 혈룡을 구제한 전후 사실을 듣고, 그 은혜를 서로 치사하여 마지않았다.

오래간만에 만난 가족들은 그동안의 회포를 서로 다 이야기하여 풀고 다시 원만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다. ㉢ 모친도 죽었던 자식 다시 본 듯, 부인도 잃었던 남편 다시 본 듯 잠시도 서로 떠날 마음이 없이 행복하게 살게 되었다.

이때에 과거 날이 되었으므로 혈룡이 모친의 슬하를 떠나서

대궐 안 과거장에 들어가니 팔도에서 글 잘한다는 선비들이 구름 같이 모여 있었다.

이윽고 글제를 살펴보니 ㉣ 천하태평춘(天下泰平春)이라 걸려 있었다. ㉤ 글을 지을 생각을 가다듬은 후에 용벼루에 먹을 갈아 조맹부의 필체로 단숨에 일필휘지하여 바쳤는데, 전하께서 보시고는 글자마다 비점(批點)이요 글귀마다 관주(貫珠)를 치는 것이었다.

전하께서 칭찬하시는 말씀이,
 “참으로 신묘하다. 이 글씨와 글 지은 사람은 범상치 않은 사람이다.”

하시고, 알성시(調聖試) ㉥ 장원급제로 한림학사를 제수하시고, 곧 어전입시(御前入侍)하라는 분부를 내리셨다. 이한림이 입시하여 천은을 사례하자 전하께서 칭찬하시기를,
 “충신의 자식은 충신이요, 소인의 자식은 소인이다. 용모를 살펴보니 용안호두(龍顔虎頭)요, 묵묵지인(穆穆之人)이로다.”
 하고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다.

이한림은 어전에 이르러,
 ㉦ “소신과 같이 무재무능한 자를 이처럼 충신지자충신(忠臣之子忠臣)이라 하시오니 황공무지하오며, 또한 한림을 제수 하시니 더욱 황공하옵습니다.”

하고, 수없이 치사하고 물러 나와 집에 큰 잔치를 베풀고 향당과 친지를 청하여 경사를 축하하였다. 그리고 한편으로,
 ‘평양 감사 김진희의 불의무도한 소행을 나만 당하였으랴. 무고한 백성들은 무슨 죄로 한 사람의 ㉧ 학정으로 평양 일대에서 어육(魚肉)이 된다는 말인가. 곰곰 생각하니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마땅히 성상께 여쭙지 않을 수 없다.’
 생각하고, 전후 사실을 일일이 밀록(密錄)하여 전하께 바쳤다.

전하께서는 그 ㉨ 밀록을 받아 보시고 수없이 탄식한 뒤에 ㉩ 봉서(封書)삼장을 내리셨다. 또 친히 하교하시기를,
 “첫 봉서는 새문 밖에 가서 뜯어보고, 둘째 봉서는 평양에 가서 뜯어보고, 셋째 봉서는 그 후에 뜯어보라.”

하시고, 조심하여 다녀오라 하셨다. 이한림이 사은숙배하고 바로 나와서 모친과 부인에게 하직하였다. 새문 밖에 나가서 첫째 봉서를 뜯어보니, ‘평안도 암행어사 이혈룡’이라는 사령장과 마패가 들어 있었다.

- 작자 미상, 「옥단춘전」 -

31. 윗글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반복을 통해 상대방에 대한 배신감을 드러내고, 역지사지를 가정하여 상대방을 질책하고 있다.
 - ② ㉡: 옥단춘의 회유로 ‘사또 영’을 따르지 않기로 한 사공들의 생각이 설의적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다.
 - ③ ㉢: 이혈룡과 재회한 기쁨을 모친과 부인 각자의 입장에 어울리는 비유를 통해 표현하고 있다.
 - ④ ㉤: 이혈룡의 글 짓는 과정을 행동의 순차적 내열로 보여 주고, 타인의 평가를 통해 이혈룡의 재능이 확인되고 있다.
 - ⑤ ㉦: 이혈룡은 겸양의 어조를 통해 상대방이 내린 지위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드러내고 있다.

32. 윗글의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이혈룡은 ㉠라는 과제에 탁월한 답안을 제출하여 임금으로부터 ㉡에 합당한 인재로 인정받았다.
- ② ㉡는 이혈룡이 공적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음을 뜻하고, 임금에게 ㉠를 올릴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한다.
- ③ ㉢는 이혈룡이 평양에서 겪었던 일을 반어적으로 표현하며 ㉠가 구현되는 것을 방해한다.
- ④ ㉠는 ㉢를 계기로 작성되었으며 현재 ㉠가 완전하게 실현되지 않았음을 보여 준다.
- ⑤ ㉢는 임금이 이혈룡에게 ㉢를 바로잡는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33. <보기>를 참조하여 윗글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옥단춘전」에서 옥단춘은 인물의 비범함을 알아보는 지인 지감(知人之鑑)의 소유자이자 기지를 발휘하여 위기에 빠진 인물을 구해 내는 적극적인 조력자로 그려진다. 그녀는 자신의 조력을 통해 대상 인물의 사회적 지위를 상승시키고, 애정의 대상을 주체적으로 선택하는 인물이다.

- ① 옥단춘이 오한을 핑계로 김 감사의 허락을 받은 후 연회장을 빠져나온 것에서 그녀의 기지를 엿볼 수 있군.
- ② 옥단춘이 이혈룡을 구해 줄 수 있는 인물로 김 감사를 선택한 것에서 여성으로서의 주체적 판단이 작용했음을 알 수 있군.
- ③ 옥단춘이 김 감사에게 괘시받던 남루한 행색의 이혈룡이 비범한 인물임을 발견한 데서 그녀의 지인지감을 엿볼 수 있군.
- ④ 가족들이 어려움에 처했던 이혈룡을 구해 준 옥단춘의 은혜에 감사한 것에서 조력자인 옥단춘의 역할을 인정할 것임을 알 수 있군.
- ⑤ 옥단춘이 사공들에게 이혈룡의 몸값을 후하게 제시하고 구체적 방안을 알려 준 것에서 그녀의 적극적인 조력 의지를 엿볼 수 있군.

[39~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16.09A

[**앞부분의 줄거리**] 해방 후 ‘나’는 벗인 ‘방方’과 함께 장춘에서 서울에 이르는 귀로에 오른다. 회령에서 우연히 ‘방’과 헤어진 ‘나’는 수성에 이르러 뱀장어를 잡아 파는 한 소년을 만난다. 이후 ‘나’는 ‘방’과 재회하기 위해 청진에 도착하여 어느 국밥집 할머니를 만나게 된다.

노인은 대 끝으로 국 술을 가리키며,

“이런 걸 하던 것도 아니요, 어려서부터 배운 것도 아니지마는 그 애가 돌아가던 해 여름, 처음 얼마 동안은 어쩔 줄을 모르고 어리둥절해 있다가 늘 그러구 있을 수도 없고, 또 아이 몇 잃어버리는 동안에 생긴 잠 안 오는 나쁜 버릇이 다시 도져서 몇 해 만에 다시 남의 고궁 살이*를 들어갔지요.”

[A] “네에, 그러세요.”

“그 긴 다섯 해 동안을 그저 모진 일과 고단한 잠만으로 지어 나아오다가, 하루아침은 문득 그것이 죽었으니 찾아가라는 기별이 감옥에서 나왔을 때에야 얼마나 앞이 아득 하였겠어요.”

“그러셨겠습니까.”

“사람의 가족은 질기다고 했습니다. 병과 액으로 앞서도 자식새끼 몇 되던 것 하나씩 돌씩 이리저리 다 때우기는 하였지마는, 그런 팬들 왜 안 그럴 수가 있었겠나요마는, 이제는 힘을 줄 데라고는 하나 남지 않고 없어지고, 그것 하나만 믿고 산다 한 그놈마저 죽어 없어졌는데도 사람의 목숨은 이렇게 모진 것이니.”

마음이 제법 단단해 보이던 그도 한 번 내달으니 비로소 젊은이 앞에서 긴 한숨을 견잡지 못하였다. 여기서 처음으로

[B] 나는 그를 위로할 기회를 얻었으므로,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그리고 가는 사람도 다 제 명이 아십니까.”

하여 드리니까 그는,

“하기야 명이지요. 하지만 명이란들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해방이 되었다 해서 갇혀있던 사람들은 이제 살인강도 암질*이라든 다 옥문을 건어차고 훨훨 튀어서 세상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였다.

“부질없는 말로 이가 어찌 안 갈리겠습니까— 하지만 내 새끼를 갖다 가두어 죽인 놈들은 자빠져서 다들 무릎을 꿇었지만, 무릎 꿇은 놈들의 꼴을 보면 눈물밖에 나는 것이 없이 되었습니다. 애비랄 것 없이 남편이랄 것 없이 잃어버릴 건 다 잃어버리고 못 먹고 굶주리어 피골이 상접해서 흰 너클때기에 강통을 들고 앞뒤로 허친거리며*, 엮고 안고 끌고 주추 끼고 다니는 꼴들— 어디 매가 잡니까. 별거벗겨놓고 보니 매 갈테가 어딴니까.”

“.....”

“만주서 오셨다니깐 혹 못 보셨는지 모르지마는, 낮에 보면 이 조그만한 장터에도 그 햇볕은 굶주린 것들이 뜨문뜨문 바다에 깔리곤 합니다. 그것들만 실어서 보내는 고무산*인가 아오지*

인가 간다는 차가 저기 와 선 채 저 차도 벌써 나 알기에 닷새도 더 되는가 봅니다만. 참다 참다 못해 자원해 나오는 것들이 한 차 되기를 기다려 떠나는 것인데, 닷새 동안이면 닷새 동안 긴내 굶은 것인들 그 속에 어찌 없겠어요.”

그러지 아니하여도 나는 할머니의, 아까 그것들이 엮고, 안고, 끼고 다닌다는 **측은한 표현**을 한 것으로부터, 낮에 수성서 들어오는 길로 맞닥뜨린 사람이 복작거리는 **㉠ 좁은 행상로 위에 일어난 한 장면의 짙막한 씬을 연상**하기 시작하는 중이었는데, 노인은 이려고는 말을 끊고 호흡 깊은 한숨을 들여 쉬었다.

[가] 참으로 그 일본 여자는 엮고, 달고 또 하나는 손을 잡고, 아마 아오지 가기를 기다리는 차에서 기어 내려온 듯 폼 가까운 행상로 위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허영게 통통 부어 오른 낮에 기름때에 전 걸레 같은 형질 조각으로 머리를 질끈 동이고, 엮고, 달리우고, 잡힌 채, 길 바추에 비켜 서 있었다. 머리를 동인 것만으로는 휘둘러우는 몸을 어찌할 수 없다는 모양으로, 골살을 몇 번 찌푸렸다가는 펴서, 하늘을 쳐다보고, 또 찌푸렸다가는 펴서 쳐다보고 하기를 한참이나 하며 애를 쓰는 것을 자기는 유심히 건너다보고 있었던 것이다.

이윽고 그는 정신이 들었는지 지척지척 걸어 들어와 광주리며 함지며, 채두랭이 같은 데에 여러 가지 먹을 것을 담아 가지고 나와, 혹은 샐기도 하고, 혹은 앓았기도 한, 여인 행상꾼들 앞을 지나쳐오다가 문득 한 여인 앞에 서서 발부리에 놓인 광주리의 속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것이었다.

“한 개에 오 원씩.”

행상의 여인네는 허리를 꾸부러어 광주리에서 속에 담기었던 배 한 개를 집어 들고 다른 한 손을 활짝 펴서 **일본인 아낙네** 눈앞을 가리우매, 아낙네는 실심한 사람 모양으로 한참 동안이나 자기 눈앞을 가리운 활짝 편 그 손가락을 떨거니 바라만 보고 있었다.

뒤에 달린 여덟 살 난 **사넬미***가 엉것바치를 움켜잡고 비어 틀듯이 앞으로 떠밀고 그보다 두어 살이나 덜 먹었을, 손을 잡혀 나오던 **어린 계집아이**가 어미의 손을 끌어당기었다. 그리고 **엮힌 것이** 떴던 띠개*에서 넘나와 두 손을 내어 뻗으며 어미의 어깨 너머를 솟아오르려고 한다.

“이것들이 이렇게 야단이야요.”

세 어린것의 어머니는 참다 못하여 일본말로 이리며 고개를 개우뚝하고는 **행상** 여인의 눈동자를 들여다보는 것이었다.

애걸이 없었다기로서니 이것들이 어찌 그것만으로 덜 비참할리가 있을 정경이었을 것이나.

- 허준, 「잔등(殘燈)」 -

* 고궁살이: 고궁살이. 남의 집 살이.
* 암질(暗質): 어리석은 천성이나 성질.
* 허친거리며: 발을 헛디더 균형을 잡지 못해 이리저리 쏠리며.
* 고무산, 아오지: 함경북도에 있는 곳으로, 고무산은 농산물과 목재의 집산지였고 아오지는 석탄 산업 시설이 있었음.
* 사넬미: 사내아이의 방언.
* 띠개: 주로 아이를 업을 때 쓰는, 너비가 좁고 기다란 천을 이르는 방언.

39. 윗글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노인’은 ‘그 애’가 죽기 전에는 고공살이를 경험한 적이 없다.
- ② ‘아이 몇 잃어버리는’ 슬픔에도 불구하고 ‘노인’은 불면의 고통을 겪지 않았다.
- ③ ‘행상의 여인네’는 ‘일본인 아낙네’에게 돈을 받지 않고 과일을 주었다.
- ④ ‘노인’은 마지막까지 살아남았던 자식이 옥중에서 죽는 순간을 보지 못했다.
- ⑤ ‘사넬미’, ‘어린 계집아이’, ‘엄한 것’ 등 ‘세 어린것’은 ‘행상의 여인네’에게 구걸하고 있었다.

40. 다음의 학습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학습활동 다음을 작가가 작성한 창작 노트의 일부분이라고 가정하자.
㉠~㉣이 [A], [B]에 실현된 양상을 파악해 보자.

- ㉠ 대화를 통해 인물 간의 관계를 드러낼 것.
- ㉡ 비유적 표현을 사용할 것.
- ㉢ 서술과 대화를 결합해 사용할 것.
- ㉣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는 표현을 활용할 것.
- ㉤ 대상을 지칭하는 표현을 다양화할 것.

- ① ㉠은 [A]에서 ‘노인’과 ‘나’의 갈등을 해소하는 장치로 실현되었군.
- ② ㉡은 [B]에서 ‘사람의 가족은 질기다고 했습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실현되었군.
- ③ ㉢은 [B]의 ‘마음이 ~ 하였다’에서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기 위해 서술과 대화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실현되었군.
- ④ ㉣은 [B]에서 ‘긴 한숨을 견잡지 못하였다’를 통해 실현되었군.
- ⑤ ㉤은 [A]와 [B]에서 동일 인물을 ‘그 애’, ‘그것’, ‘그놈’으로 바꾸어 부르는 방법으로 실현되었군.

41. ㉣를 참고할 때, [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나의 회상을 통해 떠오른 인물의 외양과 행동을 묘사하고 있다.
- ② 나의 회상 속에는 ‘자기’와 인물들 간의 외적 갈등이 드러나고 있다.
- ③ 나의 회상을 통해 현재의 ‘자기’가 과거 속의 자이를 부정하고 있다.
- ④ 나의 회상을 통해 인물이 처한 실제의 상황을 환상적 분위기로 그려 내고 있다.
- ⑤ 나의 회상 속에는 인물의 현재의 처지와 미래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42.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잔등」에서 서술자인 ‘나’는 해방 전후 우리 사회의 모습을 냉정하게 인식하기 위해 대상과의 객관적인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다. 「잔등」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제삼자의 정신’이란 말은 이를 암시한다. 또한 귀로에서 접한 인물들을 통해 같은 인간으로서 지니는 측은지심을 드러냄으로써 관용의 정신을 발휘하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노인이나 잔류 일본인 등과의 만남은 주목할 만하다.

- ① ‘일본인 아낙네’의 아이들이 ‘아담’인 모습을 ‘비참’하다고 한 것에서, ‘나’의 객관적 태도에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어.
- ② ‘일본인 아낙네’가 자신의 아이들과 함께 행상로 위에서 있는 모습을 떠올린 것에서, ‘나’가 ‘노인’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었음을 알 수 있어.
- ③ ‘노인’이 자신의 자식을 죽인 사람들의 처지가 바뀐 것을 보고 ‘눈물’이 난다고 한 말에서, ‘노인’이 그들에 대해 연민을 느꼈음을 알 수 있어.
- ④ 잔류 일본인에 대한 ‘노인’의 마음을 ‘측은한 표현’이라 한 것에서, ‘나’가 제 삼자의 정신에서 벗어나 관용의 자세까지 보여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어.
- ⑤ ‘일본인 아낙네’가 ‘실심한 사람 모양으로’, ‘행상의 여인네’의 ‘손가락을 멀거니 바라만 보고 있’는 모습에서, 두 사람이 서로를 위로하며 격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6.09A

[A] 하늘이 만드심을 일정 고루 하련마는
어찌 된 인생이 이다지도 괴로운고
삼십 일에 아홉 끼니 얻거나 못 얻거나
십 년 동안 갓 하나를 쓰거나 못 쓰거나
안표(顔瓢)*가 자주 빈들 나같이 비었으며
원헌(原憲)*의 가난인들 나같이 극심할까
봄날이 따뜻하여 뼈꾸기가 보채거늘
동편 이웃 쟁기 얻고 서편 이웃 호미 얻고
집 안에 들어가 씨앗을 마련하니
[가] 올벼 씨 한 말은 반 넘게 쥐 먹었고
기장 피 조 팔은 서너 되 부쳤거늘
춡고 주린 식구 이리하여 어이 살리
① 이봐 아이들아 아무쪼록 힘을 쓰라
죽 옷물 상전 먹고 건더기 건져 종을 주니
눈 위에 바늘 짓고 코로는 휘파람 분다
올벼는 한 발 뜯고 조 팔은 다 묵히니
짜리피 바랭이*는 나기도 싫지 않던가
환곡 장리는 무엇으로 장만하며
② 부역 세금은 어찌하여 차려 낼꼬
이리저리 생각해도 견딜 수가 전혀 없다
장초(蔞楚)의 무지(無知)*를 부러워하나 어찌하리
시절이 풍년인들 아내가 배부르며
③ 겨울을 덥다 한들 몸을 어이 가릴꼬
베를 북도 쓸 데 없어 빈 벽에 남겨 두고
④ 술 시루도 버려두니 붉은빛이 다 되었다
세시 삭망 명일 기제는 무엇으로 제사하며
⑤ 원근 친척 손님들은 어이하어 접대할꼬
이 얼굴 지너 있어 어려운 일 하고 많다
이 원수 가난귀신 어이하어 여의려뇨
술에 음식을 갖추고 이름 불러 전송하여
길한 날 좋은 때에 사방으로 가라 하니
웅얼웅얼 불평하며 화를 내어 이른 말이
어려서 지금까지 회로애락을 너와 함께하여
[나] 죽거나 살거나 여윌 줄이 없었거늘
어디 가 뉘 말 듣고 가라 하여 이르느뇨
우는 듯 꾸짖는 듯 온가지로 험박거늘
돌이켜 생각하니 네 말도 다 옳도다
무정한 세상은 다 나를 버리거늘
네 혼자 신의 있어 나를 아니 버리거든
위험으로 회피하며 잔피로 여윌려나
[B] 하늘 만든 이내 가난 설마한들 어이하리
빈천도 내 분수니 서러워해 무엇하리
- 정훈, 「탄궁가(嘆窮歌)」 -
* 안표: 안회(顔回)의 표주박. 안회는 한 소쿠리 밥과 한 표주박 물로 누향에 살면서도 즐거워하였음.
* 원헌: 공자의 제자로 궁핍함 속에서도 청빈하게 살았음.
* 짜리피, 바랭이: 잡초의 일종.
* 장초의 무지: 『시경』에 나오는 말. 부역으로 고통 받던 백성들이, 무지하여 근심 없는 장초 나무를 부러워하였음.

43.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모두 설득적 어조로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② [가]와 [나]는 모두 추상적 소재를 열거하여 대상을 묘사하고 있다.
 - ③ [가]는 과거 상황에 대한 그리움이, [나]는 현재 상황에 대한 비판이 나타나 있다.
 - ④ [가]는 관념적인 문제를, [나]는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제시되어 있다.
 - ⑤ [가]는 현실 타개의 어려움과 그로 인한 탄식이, [나]는 의인화된 대상과의 대화가 나타나 있다.
44.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열심히 일해 달라는 부탁으로, 현실의 어려움을 벗어나려는 마음이 투영되어 있다.
 - ② ㉡: 부역과 세금을 감당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것으로,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모면하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
 - ③ ㉢: 겨울이 따뜻하다고 해도 몸을 가리기 어렵다는 것으로, 겨울나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옷가지도 부족함을 보여 준다.
 - ④ ㉣: 술 시루를 방치해 두어 녹이 슬었다는 것으로, 떡과 같은 음식을 해 먹을 형편이 아님을 보여 준다.
 - ⑤ ㉤: 친척들과 손님들을 접대할 방도가 없다는 것으로, 도리를 다할 수 없을 것에 대한 염려가 반영되어 있다.
45. [A]와 [B]에 주목하여 윗글을 감상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의 ‘일정 고루 하련마는’에 나타난,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화자의 신념이 [B]의 ‘하늘 만든 이내 가난’에 이르러서 강화되어 있군.
 - ② [A]의 ‘어찌 된 인생이’에 나타난 화자의 비관적 인생관이 ‘짜리피 바랭이’에 이르러서는 낙관적 세계관으로 변화되어 있군.
 - ③ 화자의 가난한 삶이 [A]의 ‘이다지도 괴로운고’에서는 탄식의 대상이지만 [B]의 ‘서러워해 무엇하리’에 이르러서는 체념적 수용의 대상으로 변모되어 있군.
 - ④ ‘부러워하나 어찌하리’에 나타난 화자의 열등감이 [B]의 ‘설마한들 어이하리’에 이르러서는 우월감으로 극복되어 있군.
 - ⑤ ‘이 얼굴 지너 있어’에서는 화자가 자신의 능력에 대해 자신감을 보이나 [B]의 ‘빈천도 내 분수니’에 이르러서는 그 자신감이 약화되어 있군.

[31~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16.06B

(가)

어이 못 오던다 무슨 일로 못 오던다

너 오는 길 위에 무쇠로 성(城)을 쌓고 성 안에 담 쌓고
담 안에란 집을 짓고 집 안에란 뒤주* 놓고 뒤주 안에 궤를
놓고 궤 안에 너를 결박하여 놓고 쌍비목* 외걸새에 용거복
즈물쇠로 수기수기 잠갔더냐 네 어이 그리 아니 오던다

흔 들이 설흔 놀이여니 날 보라 올 하루 업스라

-작자 미상-

*뒤주: 쌀 따위의 곡식을 담아 두는 세간의 하나.

*쌍비목: 쌍으로 된 문고리를 거는 쇠.

(나)

청천(靑天)에 떠서 울고 가는 외기리기 날지 말고 니 말 들어
한양성 내에 잠간 들러 부디 니 말 잊지 말고 웨웨터* 불러
이르기를 월황혼 계위 갈 제 적막 공규(空闕)에 던져진 듯 홀로
안져 님 그려 츠마 못 살네라 호고 부디 한 말을 전하여 주렴
우리도 님 보러 빗비 그웁는 길이오매 전홀동 말동 하여라

-작자 미상-

*웨웨터: 외쳐.

(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아리랑 고개 고개로 나를 넘겨 주게

아우라지 뱃사공아 배 좀 건너 주게
짜리꿀 울동백이 다 떨어진다

[A] 민동산 고비 고사리 다 늙었지마는
이 집에 정든 임 그대는 늙지 마세요

[B] 서산에 지는 해는 지고 싶어 지나
정 들이고 가시는 임은 가고 싶어 가나

[C] 성님 성님 사춘 성님 시집살이가 어떻던가
삼단 같은 요 내 머리 비사리춤* 다 되었네

[D] 오늘 갔다 내일 오는 건 해 달이지만
한 번 가신 우리 임은 그 언제 오나

[E] 당신이 날만침만* 생각을 한다면
가시밭길 천 리라도 신발 벗고 오리라

-「정선 아리랑」 중에서-

*비사리춤: 벗겨 놓은 짜리 껍질의 묶음.

*날만침만: 나만큼만.

31.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에서는 임이 장애물을 극복하고 화자를 찾아오기에는 하루라는 시간이 짧음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 ② (가)에서는 화자가 처한 상황의 책임을 화자 자신에게 돌리며 자책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③ (나)에서는 의인화된 자연물을 통해 자신의 처지를 임에게 알리고자 하는 화자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④ (나)에서는 화자가 제삼자와 더불어 임과의 추억을 회상하며 임을 기다리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⑤ (가), (나) 모두에서는 임이 거주하는 공간의 특징을 묘사하여 화자의 고독감을 강조하여 드러내고 있다.

32. [A]~[E]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 임이 자연의 섭리에 영향을 받지 않기를 기원하는 말로 임에 대한 애정을 나타내고 있어.
- ② [B]: 임이 떠나가는 것을 자연현상에 빗대어 임을 이해하려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어.
- ③ [C]: 묻고 답하는 방식을 빌려 여성의 고단한 삶을 표현하고 있어.
- ④ [D]: 임이 떠나간 것은 자연의 순환적 질서에 따른 것이므로 돌아오지 않는 것도 그 질서에 따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어.
- ⑤ [E]: 기대만큼 자신을 충분히 사랑해 주지 않는 임에 대한 서운함을 표현하고 있어.

33. (가)~(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가)에서는 ‘무쇠로 성을 쌓고 성 안에 담 쌓고’ 등에서 구절들이 연쇄적으로 이어진 것을 알 수 있다.
- ② (나)의 ‘한양성 내에 잠간 들러’, ‘적막 공규에 던져진 듯 홀로 안져’에서 시간의 순차적 흐름에 따라 시상이 전개된 것을 알 수 있다.
- ③ (가)의 ‘집’, ‘뒤주’, ‘궤’ 등과 (다)의 ‘고비’, ‘고사리’ 등을 보면 생활에 밀접한 사물을 이용하여 시적 상황을 표현한 것을 알 수 있다.
- ④ (가)의 ‘어이 못 오던다 무슨 일로 못 오던다’와 (다)의 ‘성님 성님 사춘 성님’을 보면 단어와 구절을 반복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나)의 ‘전하여 주렴’과 (다)의 ‘건너 주게’를 보면 작품 내에 청자를 설정하여 말을 건네는 형식이 활용된 것을 알 수 있다.

[34~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6.06B

정작 문제가 터진 건 손님들이 돌아가고 난 후였다. 아들은 민 노인을 하얗게 질린 얼굴로 다잡았다. 아버지는 왜 제 체면을 판관이 우그러뜨리냐는 게 항변의 줄거리였다. 그 녀석들은 아버지의 북소리를 꼭 듣고 싶어서 칭찬 것이 아니라, 그 북을 통해 자기의 면목이나 위치를 빈정대기 위해서 그러는 것임을 왜 모르냐고, 민 노인의 괜찮은 기분을 구석으로 폐미어 조각을 내었다. ㉠ 아들 옆에서 입을 꼭 다물고 있는 며느리는, 차라리 더 많은 힐난을 내쏘고 있음을 민 노인은 모르지 않았다. 아들 내외는 요컨대 아버지가 그냥 보통 노인네로 머물러 있기를 바랐다.

아버지의 북이 상징하는 아버지의 허랑방당한 한평생이, 일단은 **세련된 입신(立身)**으로 평가되는 아들의 내력에 중요한 흠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도 그랬다. ㉡ 하라는 공부는 작파하고, 북을 메고 떠돌아다니며 아내와 자식을 모른 체한 민익태, 한때는 아편쟁이로 세상을 구른 민익태, 그러면서도 북을 놓지 않은 그와 아들의 단절은, 따라서 오래 지속될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시아버지의 그런 생애와 전적으로 무관한 며느리가, 떼어 버릴 수도 없는 인연으로 맺어지고 있을지언정, 자기를 울곧게만은 대할 수 없는 형편임을 민 노인은 이해하고 있었다. 심지어 다 늦게 아들네 집을 찾아온 영감을 대하던 마누라의 눈에도, 당장은 증오가 앞섰으니까 더 할 말이 없다. ㉢ 그래도 할망구가 살아 있던 시절은, 미움과 연민을 골고루 섞어 가면 서도 어지간히 바람막이 구실을 해 주어 견디기가 쉬웠는데, 외톨이로 남으면서 운신하기가 수월찮았다. 그러나 아들이 결정적으로 자기의 **날선한 생활** 속에서 아버지를 격리시키고자 하는 까닭은, 부담의 차원보다는 아버지를 접함으로써 세삼스럽게 확인하게 되는, 자신의 고통과 낭떠러지의 세월을 떠올리기 때문이 아닌가 하였다.

(중략)

“너는 할아버지와 나와의 관계에 대해, 특히 내가 취하고 있는 입장에 대단히 불만이지?”

“그럴 것도 없습니다. 아버지의 할아버지에 대한 처지를 이해하면서도, 그 논리를 그대로 저와 연결시키고 싶지도 않고, 그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 기특하구나. 그러니까 너만이라도 할아버지에게 화해의 제스처를 보이겠다는 거냐 뭐냐. 지금까지의 네 행동을 보면 그런 추측을 가능케 하더라만.”

“그것도 맞지 않는 말이에요. 도대체 할아버지와 저와는 갈등이 있었어야 말이죠. 처음부터 갈등이 없었는데 화해의 제스처를 보이고 말고가 어디 있습니까. 할아버지와 갈등이 있었다면, 그건 아버지의 몫이지 저와는 상관없는 겁니다. 오히려 전 세대끼리의 갈등이 다음 세대에서 쾌적한 만남으로 이어진다면, 그건 환영할 만한 일이고, 그게 또 **역사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뭐야, 이놈의 자식, 네가 나를 혼계하는 거야!”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아버지의 손바닥이 성규의 볼때기를 후려쳤다. 옆에 있던 어머니의 섯소리가 그의 뺨에 달라붙었다.

㉣ “또박또박 말대답하는 것 좀 봐.”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아버지의 생각 속으로만 저를 챙겨 넣으려고 하지 마세요.”

성규는 언어맞은 자리를 어루만지지도 않고, 되레 풀죽은 목소리가 되었다.

“네가 알긴 뭘 알아. 네가 내 속을 어떻게 알아.”

“그런 말씀은 이제 그만 좀 하셨으면 해요. 안팎에서 듣는 그 말에 물릴 지경이거든요. ‘너는 아직 모른다. 너도 내 나이가 되어 봐라…….’ 고깝게 듣지 마세요. 그때 가서 그 뜻을 알지 언정, 지금부터 제 사고와 행동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할아버지를 우리 모임에 초청한 사실을 후회하지 않을뿐더러,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할아버지를 심리적으로 격리시키려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해하려는 모순을 저도 이해합니다. 노상 이기적인 현실에의 집착이 그걸 누르는 데 대한, 어쩔 수 없는 **생활인의 감각**까지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고 건방지게 들릴지 모르지만, 제 나이는 또 할아버지의 생애를 이해합니다. 북으로 상징되는 할아버지의 삶을 놓고, 아버지와 제가 감정적으로 갈라서는 **걸 비극의 차원**에서 파악할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할아버지가 자신의 광대 기질에 철저하여 가족을 버린 건 비난받아야 할 일이나, 예술의 이름으로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나름대로의 예술을 완성했니?”

아버지의 입가에 냉소가 머물렀다.

“그건 인식하기 나름입니다. 다만 할아버지에게서 북을 뺀건, 할아버지의 한(恨)을 배가시키고, 생의 마지막 의지를 짓밟는 것에 다름 아니라는 생각만은 갖고 있습니다.”

- 최일남, 「호르는 북」 -

34.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특정 인물의 시선을 통해 다른 인물의 심리를 해석하여 보여 준다.
- ② ㉡: 인물의 행적을 요약적으로 제시하여 다른 인물과의 갈등을 짐작하게 한다.
- ③ ㉢: 현재의 상황을 과거의 상황과 대비하여 인물의 처지를 강조한다.
- ④ ㉣: 인물의 반어적인 발화를 제시하여 다른 인물의 의견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드러낸다.
- ⑤ ㉣: 새로운 인물의 발화를 제시하여 갈등이 발생한 근본적 원인을 보여 준다.

35. 윗글의 구절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세련된 입신'은 '성규'의 아버지가 방황하는 삶을 그만두고 세속적인 삶을 지향하기를 바라는 '민 노인'의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 ② '날씬한 생활'은 새로운 세대인 '성규'가 지향하는 삶에 대한 '아버지'의 비판적 시선을 보여 주고 있다.
- ③ '역사의 의미'는 '민 노인'의 자유로운 삶이 자신에게로 이어지는 것에 대한 '성규'의 두려움을 반영하고 있다.
- ④ '생활인의 감각'은 현실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는 '아버지'를 바라보는 '성규'의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 ⑤ '비극의 차원'은 '민 노인'과 '아버지'가 감정적으로 갈라선 상황에 대한 '성규'의 판단을 드러내고 있다.

36. 다음 <학습 활동 과제>를 해결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학습 활동 과제 최일남의 「흐르는 북」은 산업화 시대에 전통 예술을 둘러싼 세대 간의 가치관 대립과 갈등, 그리고 화해의 문제를 다룬 소설이다. 다음을 참고하여 작품을 감상해 보자.

소통은 경험이나 가치관의 공유를 전제로 하는데, 인간은 다양한 방식의 소통을 통해 사회적 관계 속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으려 한다. 그런데 산업화 시대에는 가치관이 급격히 변하고 세대 간에 서로가 경험을 공유하지 못하여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예술가의 삶에도 영향을 미쳤다.

- ① '성규'의 아버지가 '민 노인'과 소통할 수 없는 것은 예술에 대한 가치관을 '민 노인'과 공유하지 못한 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겠군.
- ② '성규'가 자신의 아버지와 소통할 수 없는 것은 '민 노인'의 예술가로서의 삶에 대한 두 사람의 가치관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겠군.
- ③ '민 노인'이 자신의 아들에게서 예술가로서의 삶을 이해받지 못하고 격리된 것은 아버지로서 존재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이겠군.
- ④ '성규'가 '민 노인'에게서 예술적 재능을 인정받으려 한 것은 자신의 아버지와 '민 노인' 간의 화해를 이끌어 내려는 노력으로 해석할 수 있겠군.
- ⑤ '성규'의 아버지가 '민 노인'이 평범한 노인으로 살기를 바라는 것은 사회적 관계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는 데 '민 노인'의 예술가로서의 삶이 방해가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겠군.

[37~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6.06B

이때 함경도 가달산에 한 도적이 있어 재물을 노략하며 인민을 살해하며 본읍 원이 관군을 발하여 잡으려 하되 능히 잡지 못하고 나라에 장계(狀啓)하니, ㉠상이 크게 근심하사 조정에 전지(傳旨)하사 도적을 칠 계책을 의논하라 하시니, 우치 아뢰길,

“도적의 형세 심히 크다 하오니 신이 홀로 나아가 적세를 보온 후 잡을 묘책을 정하리이다.”

㉡상이 크게 기뻐하사 어주(御酒)와 인검을 주서 왈, “적세 심히 크거든 이 칼로 사졸을 호령하라.”

하시니, 우치 사은하고 물러 나와 즉시 말에 올라 장졸을 거느리고 여러 날 만에 가달산 근처에 다다라 보니 큰 산이 하늘에 닿은 듯하고 수목이 뻗뻗하며 기암괴석이 첩첩하니 가장 험악한 지라, 우치 군사를 산하에 머무르고 스스로 하사하신 인검을 가지고 몸을 흔들며 변하여 솔개 되어 가달산을 바라고 가니라.

원래 가달산 산중에 수천 명 적당 중에 한 괴수가 있으니, 성은 엄이요 명은 준이라. 용맹이 절륜하고 무에 출중하더라.

이때 우치 궁중에서 두루 살피더니, 엄준이 엄연히 홍일산*을 받고 천리백총마(千里白驄馬)를 타고 채의홍상(彩衣紅裳)한 시녀를 좌우에 벌이고 종자 백여 인을 거느리고 바야호로 사냥을 하거늘, 우치 자세히 살펴보니 기골이 장대하고 신장이 팔 척 이요 낮빛이 붉고 눈이 방울 같으며 수염은 바늘을 묶어 세운 듯하니 곧 일대 결물이라라. 엄준이 추종들을 거느리고 이 골 저 골로 한바탕 사냥하다가 분부하되,

“오늘은 각처에 갔던 장수들이 다 올 것이니 마땅히 소 열 필만 잡고 잔치하리라.”

하는 소리 쇠북을 울림 같더라.

이때 우치 일계를 생각하고 나뭇잎을 훑어 신병을 만들어 창검을 들리고 기치를 벌여 진을 이루고, 머리에 쌍봉투구를 쓰고 몸에 황금 갑옷에 황색 비단 전포를 겹쳐 입고 천리오추마(千里烏騅馬)를 타고 손에 청사양인도(靑蛇兩刃刀)를 들고 깃쳐 들어가니, 성문을 굳게 닫았거늘 우치 문 열리는 진언을 엄하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들어가며 좌우를 살펴보니 장려한 집이 두루 펼쳐졌고 사방 창고에 미곡이 가득하며 차차 전진하여 한 곳에 이르니, 전각이 굉장하여 주란화동*이 반공에 솟았거늘, 우치 이윽히 보다가 몸을 변하여 솔개 되어 날아 들어가 보니, 으뜸 도적이 황금 교자에 높이 앉고 좌우에 제장을 차례로 앉히고 크게 잔치하며 그 뒤에 대청이 있으니 미녀 수백 인이 열좌하여 상을 받았거늘, 우치 하는 양을 보려 하고 진언을 엄하니, 무수한 수리가 내려와 모든 장수의 상을 건어 치워 가지고 중천에 높이 떠오르며 광풍이 대작하여 눈을 뜨지 못하고 그러한 운문차일과 수놓은 병풍이 움직여 공중으로 날아가니, ㉢엄준이 정신을 진정치 못하여 뜰 아래 나뭇등걸을 붙들고 모든 군사가 차반을 들고 바람에 떠서 구르더라.

(중략)

이때 우치 문사낭청*으로 임금을 모시고 있더니, 불의에 이름이 역도(逆徒)의 진술에 나오는지라. ㉣상이 크게 노하사 왈, “우치의 역모를 짐작하되 나중을 보려 하였더니, 이제 발각 되었으니 빨리 잡아 오라.”

하시니, 나졸이 명을 받아 일시에 달려들어 관대를 벗기고 옥계 하에 꿇리니, ㉤상이 진노하사 형틀에 올려 매고 죄를 추궁 하며 왈,

“네 전일 나라를 속이고 도처마다 작난함도 용서치 못할 바 이거늘, 이제 또 역모를 꾸몄으니 변명하나 어찌 면하리오?” 하시고, 나졸을 호령하사 한 매에 죽이라 하시니, 집장과 나졸이 힘껏 치나 능히 또 매를 듣지 못하고 팔이 아파 치지 못하거늘, 우치 아뢰되,

“신이 전일 죄상은 죽어 마땅하오나, 금일 일은 만만 애매 하오니 용서하옵소서.”

하고, 심중에 생각하되 ‘주상이 필경 용서치 않으시리라.’ 하고 다시 아뢰길,

“신이 이제 죽사올진대 평생에 배운 재주를 세상에 전하지 못하올지라. 지하에 돌아가오나 원혼이 되리니 원컨대 성상은 원을 풀게 하옵소서.”

㉥상이 헤아리시되, ‘이놈이 재주가 능하다 하니 시험하여 보리라.’ 하시고 왈,

“네 무슨 능함이 있어 이리 보체느냐?”

우치 아뢰길,

“신이 본시 그림 그리기를 잘하니, 나무를 그리면 나무가 점점 자라고 짐승을 그리면 짐승이 기어가고 산을 그리면 초목이 나서 자라오매 이러므로 명화라 하오니, 이런 그림을 전하지 못하옵고 죽사오면 어찌 원통치 않으리잇고?”

㉦상이 가만히 생각하시되, ‘이놈을 죽이면 원혼이 되어 괴로움이 있을까.’ 하여 즉시 맨 것을 끌러 주시고 지필을 내리사 원을 풀라 하시니, 우치 지필을 받자와 산수를 그리니 천봉만학파 만장폭포가 산 위로부터 산 밖으로 흐르게 그리고 시냇가에 버들을 그려 가지 늘어지게 그리고 밑에 안장 엮은 나귀를 그리고 붓을 던진 후 사은하되, 상이 물어 왈,

“너는 방금 죽을 놈이라. 사은함은 무슨 뜻이뇨?”

우치 아뢰길,

“신이 이제 폐하를 하직하옵고 산림에 들어 여년을 마치고자 하와 아뢰나이다.”

하고 나귀 등에 올라 산 동구에 들어가더니, 이윽고 간 데 없거늘 상이 크게 놀라사 왈,

“내 이놈의 꾀에 또 속았으니 이를 어찌하리오?”

하시고 그 죄인들은 내어 베라 하시고 친국을 파하시니라.

- 작자 미상, 「전우치전」 -

* 홍일산: 붉은 양산.

* 주란화동: 단청을 곱게 하여 아름답게 꾸민 집.

* 문사낭청: 임금의 심문 내용을 기록하고 낭독하는 직분.

37.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함경도 고을 원이 도적을 잡지 못해 우치가 토벌할 기회를 얻었다.
- ② 임금은 우치에게 어주와 인검을 내려 그동안의 수고를 치하하였다.
- ③ 엄준은 성 안의 큰 전각에서 장수들과 미녀들을 데리고 잔치를 벌였다.
- ④ 집장과 나졸이 우치를 한 매에 죽이라는 명령을 수행하지 못하는 동안 우치는 임금에게 용서를 청했다.
- ⑤ 우치는 과거의 죄와 역모의 혐의가 함께 거론되는 것을 듣고 임금에게서 용서받지 못하리라고 생각했다.

38.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을 유발한 우치에 의해서 야기되고 있다.
- ② ㉡은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것에 대한, ㉢은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사라진 것에 대한 반응을 보여 준다.
- ③ ㉢으로 인해 형성된 임금과 우치의 갈등에 제삼자가 개입하여 ㉣을 촉발하고 있다.
- ④ ㉢에서 ㉣으로의 변화는 임금과 우치의 갈등 원인이 제거되어 사건이 해결되는 과정을 보여 준다.
- ⑤ ㉢과 ㉣은 우치의 의도대로 상황이 전개되고 있음을 드러낸다.

39.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전우치전」은 전우치가 사건 해결을 주도하는 ‘전우치 설화’를 토대로 다양한 삽화가 결합된 소설이다. 각각의 삽화들은 서로 긴밀하지는 않지만 주인공의 도술 사용을 연결 고리로 하여 결합된다. ㉠엄준 토벌 삽화와 ㉡역모 누명 삽화가 그 예로서 주인공이 조력자 없이 도술로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은 그에게 신비감을 부여하고 이야기에 환상성을 더한다. 또한 다양한 도술 사용은 다음 삽화에 대한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지속적인 흥미를 제공한다.

- ① ㉠과 ㉡는 사건 해결을 우치가 주도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군.
- ② ㉠과 ㉡에서 삽화마다 각기 다른 도술이 사용된 것은 독자에게 지속적인 흥미를 제공하는군.
- ③ ㉠과 ㉡는 주인공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술을 사용한다는 것을 연결 고리로 하여 결합되는군.
- ④ ㉠과 ㉡에서 주인공이 초월적 존재와 교감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이야기에 환상성을 더하는군.
- ⑤ ㉠에서 술개로 변하는 장면과 ㉡에서 그림 속으로 들어가는 장면은 주인공에게 신비감을 부여하는군.

40. ㉠의 상황을 나타내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기호지세(騎虎之勢)
- ② 방약무인(傍若無人)
- ③ 우후죽순(雨後竹筍)
- ④ 풍수지탄(風樹之嘆)
- ⑤ 혼비백산(魂飛魄散)

[41~4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16.06B

(가)

아버지. 아직 남북통일이 되지 않았습니다.

일제 시대 소금 장수로

㉠ 이 땅을 떠도신 아버지.

아무리 아버지의 두만강 압록강을 생각해도

눈 안에 선지가 생길* 따름입니다.

아버지의 젊은 시절

두만강의 회령 수양버들을 보셨지요.

국경 수비대의 칼날에 비친

저문 압록강의 붉은 물빛을 보셨지요.

그리고 아버지는

모든 남북의 마을을 다니시면서

하얀 소금을 한 되씩 팔았습니다.

때로는 서도* 노래도 흥얼거리고

꽃 피는 남쪽에서는 남쪽이라

밀양 아리랑도 흥얼거리셨지요.

한마디로, 세월은 흘러서

멈추지 않는 물인지라

젊은 아버지의 추억은

㉡ 이 땅에 남지도 않고

아버지는 하얀 소금이 떨어져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남북통일이 되면

또다시 ㉢ 이 땅에 태어나서

남북을 떠도는 청청한 소금 장수가 되십시오.

“소금이여”, “소금이여”

그 소리, 멀어져 가는 그 소리를 듣게 하십시오.

- 고은, 「성묘」 -

(나)

외할머니네 집 뒤편에는 장판지 두 장만큼한 먹오뎅빛 뿔마루가 깔려 있습니다. 이 뿔마루는 외할머니의 손때와 그네 딸들의 손때로 날이날마다 칠해져 온 것이라 하니 내 어머니의 처녀 때의 손때도 꽤나 많이 묻어 있을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은 하도나 많이 문질러서 인제는 이미 때가 아니라, 한 개의 거울로 번질번질 닦이어져 어린 내 얼굴을 들이비칩니다.

그래, 나는 어머니한테 꾸지람을 되게 들어 따로 어디 갈 곳이 없이 된 날은, 이 외할머니네 때거울 뿔마루를 찾아와, 외할머니가 장독대 옆 뿔나무에서 따다 주는 오디 열매를 약으로 먹어 숨을 바로 합니다. 외할머니의 얼굴과 내 얼굴이 나란히 비치어 있는 이 뿔마루에까지는 어머니도 그네 꾸지람을 가지고 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서정주, 「외할머니의 뒤편 뿔마루」 -

* 눈 안에 선지가 생길: 눈에 핏발이 설.

* 서도: 황해도와 평안도를 통틀어 이르는 말.

4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유사한 시구를 점층적으로 변주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② 부정적 현실에 대해 거리를 두어 관조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 ③ 어린 화자의 목소리를 활용하여 동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④ 색깔을 드러내는 시어를 활용하여 대상을 선명한 이미지로 제시하고 있다.
- ⑤ 역설적 표현을 사용하여 모순적인 상황에 대한 반성적인 자세를 보여 주고 있다.

42. <보기>를 참고하여 (가)의 ㉠~㉢을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구체적인 장소는 사람과 그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갖는다. 「성묘」에서도 ‘이 땅’은 실제로는 같은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적 배경이 변함에 따라 그것의 의미는 다양하게 드러난다.

- ① 한곳에 머물지 않고 ‘떠도신’ 아버지의 삶을 화자가 떠올리고 있다는 점에서 ㉠은 화자에게 아버지에 대한 원망스러운 감정을 느끼게 하는 장소이다.
- ② 화자가 ㉠과 관련하여 ‘국경 수비대의 칼날에 비친/저문 압록강의 붉은 물빛’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화자에게 ㉠은 복원된 민족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는 장소이다.
- ③ ‘젊은 아버지의 추억’이 사라지고 없다는 점에서 ㉡은 화자가 세대교체를 통하여 미래지향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장소임을 알 수 있다.
- ④ 아버지가 ‘소금 장수’로 다시 태어나기를 바라는 모습을 통해 ㉢은 화자가 가업을 이어 아버지의 꿈을 실현하려는 장소임을 알 수 있다.
- ⑤ ‘멀어져 가는 그 소리를 듣게’ 하라는 표현을 통해 ㉢은 화자가 자신의 바람이 현실화되기를 희망하는 장소임을 알 수 있다.

43.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집 뒤편’은 화자가 뿔마루에 담겨 있는 유년 시절과 단절되었음을 보여 준다.
- ② ‘거울’은 손때가 뿔마루에 쌓여 있는 오랜 세월의 흔적을 환기한다.
- ③ 뿔마루는 ‘꾸지람’을 들은 뒤 찾아가 위안을 얻었던 화자의 경험을 환기한다.
- ④ 뿔마루를 찾아온 화자에게 외할머니가 건네 준 ‘오디 열매’는 외할머니의 사랑을 드러낸다.
- ⑤ 뿔마루에 비치는 ‘외할머니의 얼굴’은 화자와 외할머니 사이의 친밀감을 드러낸다.

[44~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16.06B

남자: 마침내 그 짧은 사기꾼의 소망은 이루어졌습니다. 정원이 있는 최고급 저택, 모자와 벵타이, 호사스러운 의복, 그리고 이 건장한 하인까지 빌렸던 것입니다. 단,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 저택은 사십오 분 동안만 그가 주인이며 다음엔 되돌려줘야 합니다. 벵타이는 이십팔 분, 모자는 십구 분 오십 초, 그 밖에 다른 물건에도 제각기 정해진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짧은 사기꾼은 매우 만족했습니다. 그래서 즉시 여성 잡지를 뒤져 사교란에 주소를 낸 여자에게 전보를 쳤습니다. 여자로부터 즉각 답신이 왔습니다. 맞선을 볼 의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이쪽이 바라는 바이기도 했습니다. (혼잣말처럼) 왜 아직 안 온담? (다시 책을 낭독한다.) 오겠다 약속한 시간이 벌써 지났습니다. (하인, 시계를 본 채 손가락 다섯 개를 펼친다.) 딱 오 분 지났습니다. 그는 초조해했습니다. 책을 읽어 마음을 달래 보려 하였으나 초조해지기만 했습니다.

(㉠ 하인, 아무 말 없이 책을 빼앗아 버린다. 감정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사무적인 동작이다. ㉡ 남자가 항의하려 하자 하인은 무뎠듯 하게 자기의 회중시계를 내밀어 보일 뿐이다. 그러고는 남자가 미처 수긍하기도 전에 돌아서더니 빼앗은 물건을 가지고 나간다. 잠시 후, 하인은 돌아와서 남자 곁에 서서 부동자세를 취한다.)

(중략)

여자: (악의적인 느낌이 없이) 당신은 사기꾼이에요.
남자: 그래요, 난 사기꾼입니다. 이 세상 것을 잠시 빌렸었죠. 그리고 시간이 되니까 하나 둘씩 되돌려 줘야 했습니다. 이제 난 본색이 드러나 이렇게 빈털터리입니다. 그러나 덤,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누구 하나 자신 있게 이젠 내 것이다, 말할 수 있는가를.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없다가요. 모두들 덤으로 빌렸지요. 언제까지나 영원한 것이 아닌, 잠시 빌려 가진 거예요. (누구든 관객석의 사람을 붙들고 그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가리키며) 이제 당신 겁니까? 정해진 시간이 얼마지요? 잘 아꼈다가 그 시간이 되면 돌려주십시오. 덤, 이제 알겠어요?

(㉢ 여자, 얼굴을 외면한 채 걸어 나간다. 하인, 서서히 그 무서운 구둣발을 이끌고 남자에게 다가온다. 남자는 뒷걸음질을 친다. 그는 마지막으로 절규하듯이 여자에게 말한다.)

남자: 덤, 난 가진 것 하나 없습니다. 모두 빌렸던 겁니다. 그런데 덤, 당신은 어떻게습니까? 당신이 가진 건 뭡니까? 무엇이 정말 당신 겁니까? (㉣ 벵타이를 빌렸었던 남성 관객에게) 내 말을 들어 보시오. 그럼 당신은 나를 이해할 거요. 내가 당신에게서 벵타이를 빌렸을 때, 그때 내가 당신 물건을 어떻게 다뤘었소? 마구 험하게 했었소? 어딜 망가뜨렸소? 아니요, 그렇진 않았습시다. 오히려 빌렸던 것이니까 소중하게 아꼈다간 되돌려 드렸지요. 덤, 당신은 내 말을 듣고 있어요? 여기 증인이 있습니다. 이 증인 앞에서 약속하지만, 내가 이

세상에서 덤 당신을 빌리는 동안에, 아끼고, 사랑하고, 그랬다가 언젠가 끝나는 그 시간이 되면 공손하게 되돌려 줄 테요. 덤! 내 인생에서 당신은 나의 소중한 덤입니다. 덤! 덤! 덤!

(남자, 하인의 구둣발에 걸려차인다. ㉤ 여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다급하게 되돌아와서 남자를 부축해 일으키고 포옹한다.)

- 이강백, 「결혼」 -

44. [A]를 참고하여 ㉠~㉤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빌린 것이며 정해진 시간이 되면 되돌려줘야 하는 것임을 보여 주는군.
- ② ㉡: 누구도 물건을 영원히 소유할 수 없음을 상기시키고 있군.
- ③ ㉢: 남자가 소유한 모든 것이 사실은 빌린 것이라는 말을 듣고도 그 말을 거짓이라 생각하여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군.
- ④ ㉣: 자신이 빌린 것을 소중히 아끼듯이 여자도 아끼고 사랑하겠다는 마음을 여자에게 전하는 데에 관객을 증인으로 삼고 있군.
- ⑤ ㉤: 하인의 폭력적인 행동에 무기력하게 당하는 남자를 외면하지 않으므로써 빈털터리가 된 남자에 대한 연민을 드러내는군.

45.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일반적으로 희곡은 무대화를 전제로 창작된다. 작가는 무대의 제약을 고려하여 관객의 눈앞에 드러나는 무대 공간을 중심으로 극중 사건을 전개하고 무대 위에서 보여 줄 수 없거나 보여 주지 않아도 되는 사건은 무대 밖의 공간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처리한다. 인물의 등퇴장은 이 두 공간을 연결하여 무대 공간에서의 사건 전개에 영향을 미친다. 현대극에서는 무대 공간과 관객석의 경계를 허물고 관객석까지 무대 공간으로 설정하여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

- ① 남자가 여자에게 전보를 치는 행동은 현재의 무대 공간에서 인물의 대사를 통해서 제시된다.
- ② 하인의 등퇴장은 남자가 빌린 물건들이 하나 둘씩 없어지는 사실과 결부되어 남자의 초조함을 고조시킨다.
- ③ 무대 공간을 벗어난 하인이 잠시 후 되돌아오는 것은 무대에서 보여 주지 않는 공간이 있음을 알려 준다.
- ④ 남자는 관객들을 극중 사건 진행으로 끌어 들임으로써 관객석과 무대 공간의 경계를 허문다.
- ⑤ 남자와 하인만 있던 무대 공간에 여자가 등장함으로써 사건의 전개에 영향을 미쳐 남자와 하인 사이에 조성된 갈등이 해소된다.

[31~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6.06A

(가)

㉠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지리 우지진다
소 칠 아이는 상기 아니 일었느냐
재 너머 사래 긴 밭을 언제 갈려 하나니

- 남구만 -

(나)

㉡ 도롱이에 호미 걸고 빨 굵은 검은 소 물고
고동풀 뜯기면서 개울물 가 내려갈 제
어디서 품 진* 벗님 함께 가자 하시고

<제2수>

둘러내자* 둘러내자 우거진 고랑 둘러내자

㉢ 바랭이 여뀌 풀을 고랑마다 둘러내자
쉬 짙은 긴 사래는 마주 잡아 둘러내자

<제3수>

땀은 듣는 대로 듣고 별은 쫓 대로 쫓다
청풍에 옷깃 열고 긴 휘파람 흘러 불 제
어디서 길 가는 손님네 아는 듯이 머무는고

<제4수>

- 위백규, 「농가(農歌)」 -

(다)

사월이라 초여름 되니 입하 소만 절기로다
㉣ 비 온 끝에 별이 나니 날씨도 화창하다

떡갈잎 퍼질 때에 삐죽새 자주 울고
보리 이삭 패어 나니 피꼬리 노래한다

농사도 한창이요 누에치기 한창이라
남녀노소 몰두하니 집에 있을 틈이 없어

㉤ 적막한 사립문을 녹음(綠陰) 속에 닫았도다
목화를 많이 가꾸소 길쌈의 근본이라

수수 동부 녹두 참깨 부룩*을 적게 하소
갈 꺾어 거름할 제 풀 베어 섞어 하소

물 댄 눈을 썩레질하고 이른모를 내어 보세

- 정학유, 「농가월령가(農家月令歌)」 -

* 품 진: 품앗이를 한.

* 둘러내자: 휘감아서 견어 내자.

* 부룩: 곡식이나 채소를 심은 사이사이에 다른 농작물을 심는 일.

31.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에서는 근경에서 원경으로, (다)에서는 원경에서 근경으로 시선이 이동하고 있다.
- ② (나)의 <제2수>에는 생성의 이미지가, (다)에는 소멸의 이미지가 나타나 있다.
- ③ (나)의 <제3수>와 (다)에서는 화자의 심경 변화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 ④ (나)의 <제4수>와 (다)에는 반어적 표현이 활용되고 있다.
- ⑤ (가), (나), (다)에는 모두 청각적 심상이 나타나 있다.

32.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밝아 오는 '동창'과 '노고지리'의 지지권을 통해 '아이'가 일어나야 할 때임을 알려 주고 있다.
- ② ㉡: '호미'를 챙기고 '소'를 직접 물고 가는 모습을 통해 농사일 일을 하러 가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 ③ ㉢: '고랑'의 풀을 '마주 잡아' 견어 내는 것을 통해 농사일을 함께 하려는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 ④ ㉣: '비 온 끝에 별'이 나는 '화창'한 날씨를 통해 좋은 때에 일을 해야 하는 괴로움을 드러내고 있다.
- ⑤ ㉤: '사립문'이 '녹음 속'에 닫혀 있는 모습을 통해 농번기에 집이 비어 있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33. (나)와 (다)를 비교하여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에는 (다)와 달리, 특정 시기에 재배해야 하는 작물이 제시되어 있군.
- ② (나)에는 (다)와 달리, 농사일 중에 휴식을 즐기는 여유로움이 그려져 있군.
- ③ (다)에는 (나)와 달리, 먹고 입는 것과 관련한 농사일이 다양하게 나타나 있군.
- ④ (나)와 (다)의 화자는 모두 노동의 현장을 주목하고 있군.
- ⑤ (나)와 (다)의 배경은 모두 농부들의 일상적인 삶을 보여주는 공간으로 볼 수 있군.

MEMO

MEMO

[34~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6.06A

우리 장인님은 약이 오르면 이렇게 손버릇이 아주 못됐다. 또 사위에게 이 자식 저 자식 하는 이놈의 장인님은 어디 있느냐. 오죽해야 우리 동리에서 누굴 물론하고 그에게 옥을 안 먹는 사람은 명이 짜르다, 한다. 조그만 아이들까지도 그를 둘러세 놓고 옥필이 ㉠(본 이름이 봉필이니까), 옥필이, 하고 손가락질을 할 만치 두루 인심을 잃었다. 허나 인심을 정말 잃었다면 옥보다 읍의 배참봉 맥 마름으로 더 잃었다. 번이 마름이란 옥 잘 하고 사람 잘 치고 그리고 생김 생기길 호박개 같아야 쓰는 거지만 장인님은 외양이 똑 됐다. 작인이 닭 마리나 좀 보내지 않는다 든가 애벌논 때 품을 좀 안 준다든가 하면 그해 ㉡[가을]에는 영락없이 땅이 푹푹 떨어진다. 그러면 미리부터 돈도 먹이고 술도 먹이고 안달채신으로 돌아치던 놈이 그 땅을 슬쩍 돌려 안는다. 이 바람에 장인님 집 빈 외양간에는 눈깔 커다란 황소 한 놈이 절로 영금영금 기어들고, 동리 사람들은 그 옥을 다 먹어 가면서도 그래도 굶신굶신하는 게 아닌가—

그러나 내겐 장인님이 감히 큰소리할 계제가 못 된다. 뒷생각은 못 하고 뺨 한 개를 딱 때려 놓고는 장인님은 무척 해서 덤덤히 쓴침만 삼킨다. 난 그 속을 펴 잘 안다. 조금 있으면 갈도 꺾어야 하고 모도 내야 하고, 한창 바쁜 때인데 나 일 안 하고 우리 집으로 그냥 가면 고만이니까. 작년 이맘때도 트집을 좀 하니까 늦잠 잔다고 돌맹이를 집어 던져서 자는 놈의 발목을 빼게 해 놨다. 사날씩이나 건승 콩, 콩, 앓았더니 종당에는 거반 울상이 되지 않았는가—

“애, 그만 일어나 일 좀 해라. 그래야 울갈에 벼 잘 되면 너 장가들지 않니.”
그래 귀가 번쩍 피어서 그날로 일어나서 남이 이틀 품 들일 ㉢[돈]을 혼자 삶아 놓으니까 장인님도 눈깔이 커다랗게 놀랐다. 그럼 정말로 가을에 와서 혼인을 시켜 줘야 원 경우가 옳지 않겠나. 벼섬을 척척 들어 쌓아도 다른 소리는 없고 물동이를 이고 들어오는 점순이를 담배통으로 가리키며,
“이 자식이 미처 커야지. 조결 데리고 무슨 혼인을 한다고 그러니 원!” 하고 남 낮짜만 붉게 해 주고 고만이다.

(중략)

그 전날 왜 내가 새고개 맞은 봉우리 ㉣[화전밭]을 혼자 갈고 있지 않았느냐. 밭 가생이로 돌 적마다 야릇한 꽃내가 물컹물컹 코를 찌르고 머리 위에서 벌들은 가끔 붕, 붕, 소리를 친다. 바위 틈에서 샘물 소리밖에 안 들리는 산골짜기니까 맑은 하늘의 봄볕은 이불 속같이 따스하고 꼭 꿈꾸는 것 같다. 나는 몸이 나른하고 몸살 ㉤(을 아직 모르지만 병)이 나려고 그러는지 가슴이 울렁울렁하고 이랬다.

“어러이! 말이! 맘 마 마…….”
이렇게 노래를 하며 소를 부리면 여느 때 같으면 어깨가 으쓱 으쓱한다. 웬일인지 ㉥[밭] 반도 갈지 않아서 온몸의 맥이 풀리고 대고 짜증만 난다. 공연히 소만 들읍다 두들기며—
“안야! 안야! 이 망할 자식의 소 ㉦(장인님의 소니까) 데리를 꺾어 줄라.”

그러나 내 속은 정말 안야 때문이 아니라 점순이를 이고 온 점순이의 키를 보고 울화가 났던 것이다.

점순이는 뭐 그리 썩 이쁜 계집애는 못 된다. 그렇다구 또 개떡이나 하면 그런 것도 아니고, 꼭 내 아내가 돼야 할 만치 그저 툭툭하게 생긴 얼굴이다. 나보다 십 년이 아래니까 올해 열여섯인데 몸은 남보다 두 살이나 덜 자랐다. 남은 잘도 흰칠 히들 크건만 이진 위아래가 몽푹한 것이 내 눈에는 혈없이 감참외 같다. 참외 중에는 감참외가 쟈 맛 좋고 이쁘니까 말이다. 둥글고 커단 눈은 서글서글하니 좋고 좀 지쳐 찢어졌지만 입은 밥술이나 흑흑이 먹음직하니 좋다. 아따 밤만 많이 먹게 되면 팔자는 고만 아니냐. 현대 한 가지 파가 있다면 가끔가다 몸이 ㉧(장인님은 이걸 채신이 없이 듣까분다고 하지만) 너무 빨리 빨리 논다. 그래서 밥을 나르다가 때 없이 풀밭에서 깨박을 쳐서 흙투성이 밥을 곧잘 먹인다. 안 먹으면 무안해질까 봐서 이걸 씹고 앉았노라하면 으적으적 소리만 나고 돌을 먹는 겐 지 밥을 먹는 겐지—

그러나 ㉨[이날]은 웬일인지 성한 밥채로 밭머리에 곱게 내려 놓았다. 그리고 또 내외를 해야 하니까 저만큼 떨어져 이쪽으로 등을 향하고 웅크리고 앉아서 그릇 나기를 기다린다.

내가 다 먹고 물러섰을 때 그릇을 와서 챙기는데 그런데 난 깜짝 놀라지 않았느냐. 고개를 푹 숙이고 밥함지에 그릇을 포개면서 날더러 들으라는지 혹은 제 소린지,

“밤낮 일만 하다 말 텨가!” 하고 혼자서 종알거린다. 고대 잘 내외하다가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난 정신이 얼떨떨했다. 그러면서도 한편 무슨 좋은 수나 있는가 싶어서 나도 공중을 대고 혼잣말로,

“그럼 어떻게?” 하니까,
“성례시켜 달라지 뭘 어떻게.” 하고 되알지게 쏘아붙이고 얼굴이 발개져서 산으로 그저 도망질을 친다.

나는 잠시 동안 어떻게 되는 셈판인지 맥을 몰라서 그 뒷모양만 덤덤히 바라보았다.

봄이 되면 온갖 초목이 물이 오르고 싹이 트고 한다. 사람도 아따 그런가 보다, 하고 며칠 내에 부쩍 ㉩(속으로) 자란 듯 싶은 점순이가 여간 반가운 것이 아니다.

- 김유정, 「봄·봄」 -

34.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동시에 일어나는 두 개의 사건을 병치하여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 ② 과거 사건을 현재 상황에 끌어 들여 인물들의 관계를 드러내고 있다.
- ③ 현학적 표현을 사용하여 등장인물들의 긍정적 성격을 강조하고 있다.
- ④ 작중 인물이 관찰자의 입장에서 작중 세계를 객관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 ⑤ 다른 사람의 체험을 듣고 독자에게 전해 주는 액자식 구성을 취하고 있다.

35. 윗글의 인물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점순이'는 성례를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을 취하지 않는 '나'에게 불만을 표시한다.
- ② '나'는 '점순이'와의 갈등을 회피하기 위해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갈 것을 결심한다.
- ③ '나'와 '장인'이 갈등을 일으키는 이유는 '점순이'에게 함부로 일을 시키는 '장인'의 태도 때문이다.
- ④ '동리 사람들'에게 '장인'이 인심을 잃게 된 주된 이유는 '나'와 '점순이'의 혼례를 치러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 ⑤ '나'는 '동리 사람들'이 '장인'에게 보여 주는 태도와 상반된 입장을 보임으로써, '나'는 '장인'이 '동리 사람들'에게 취하는 행동을 옹호한다.

36.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인물의 이름과 별명의 연관성을 제시하고 있다.
- ② ㉡: 괄호를 제거해도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도록 서술자의 진술이 이루어지고 있다.
- ③ ㉢: 소의 주인과 소를 동일시하여 '장인'에 대한 서술자의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④ ㉣: '너무 빨리빨리 논다'라는 행동에 대한 '장인'의 평가를 첨가하고 있다.
- ⑤ ㉣: '점순이가 부쩍 자란 사실을 숨겨 온 '장인'의 속셈을 알아내고 반가워하는 '나'의 태도를 제시하고 있다.

37. <보기>를 참조할 때, ㉠~㉣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봄·봄」은 시·공간의 이동을 통해 사건들이 전개된다. 소설 속 사건이 일어나는 배경은 단순히 물리적 시·공간을 제시하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인물을 둘러싼 구체적 환경은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거나 태도에 변화를 줄 뿐만 아니라 사건의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한다. 그리고 인물이 처한 사회적 환경을 환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인물의 심리 상태에 영향을 미친다.

- ① ㉠: 대부분의 마름들이 장인과 같이 행동하였다면, '가을'에 많은 소작농들은 불안감에 시달렸겠군.
- ② ㉡: '논'은 '장인'의 회유에 넘어간 '나'가 일꾼으로서의 면모를 발휘하는 장소로군.
- ③ ㉢: '화전밭'에서 '나'는 생기 있는 봄의 분위기에 취해 정서적으로 반응하고 있군.
- ④ ㉣: '밭'에서 '나'는 '장인' 때문에 생긴 울화를 '소'와 '점순이'에게 한껏 터트리고 있군.
- ⑤ ㉣: '이날'은 '점순이'의 평소와 다른 말과 행동을 통해 '나'가 '점순이'의 본심을 알아채는 날이겠군.

[38~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16.06A

여공이 물러 나오자 위공과 정렬 부인이 다시 일어나 칭찬하기를,

“어지신 덕택으로 계월을 구하사 친자식같이 길러 입신양명 하게 하시니 은혜가 백골난망이로소이다.”

하며 슬픈 감회를 금치 못하거늘 여공이 더욱 감사하며 공손히 응답하더라. ㉠ 평국과 보국이 또한 엇드려 먼 길에 평안히 행차 하심을 치하하더라. 위공과 정렬 부인이며 기주후와 공렬 부인과 춘랑도 또한 자리에 참례하고 양윤이 또한 마음에 기꺼함을 헤아리지 못할지라. 이날 큰 잔치를 배설하고 삼 일을 즐기 나라.

이때 천자 신하들을 돌아보고 이르기를,
“평국과 보국을 한 궁궐 안에 살게 하리라.”

하시고, 종남산 아래에 터를 닦고 집을 지을새, 천여 칸을 불일 성지(不日成之)*로 지으니, 그 장함을 헤아리지 못할지라. 집을 다 지은 후에 노비 천 명과 수성군 백 명씩 내려 주시고 또 채단과 보화를 수천 바리를 상으로 내려 주시니, 평국과 보국이 황은을 축수하고 한 궁궐 안에 침소를 정하고 거처하니 그 궁궐 안 넓이가 십 리가 남은지라 위 의와 거동이 천자나 다름이 없더라.

이때 평국이 전장에 다녀온 후로 자연 몸이 곤하여 ㉡ 병이 침중하니 집안이 경동하여 주야 약으로 치료하니, 천자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매우 놀라사 명의를 급히 보내어,

“병세를 자세히 보고 오라. 만일 위중하면 짐이 친히 가 보리라.”

하시고 어의(御醫)를 명하사 보내시니, 어의 황명을 받자와 평국의 침소에 와 병세를 진맥하니 병세 위중하지 아니한지라. 속히 약을 가르쳐 쓰라 하고 돌아와 천자에게 사실을 아뢰더라.

어의 다녀와 아뢰기를,
“평국의 병세는 위중하지 아니하옵기로 약을 가르쳐 쓰라 하옵고 왔사오나 또한 괴이한 일이 있어 수상하여이다.”

하더라. 천자 놀라 묻기를,

“무슨 연고가 있더냐?”

어의 땅에 엇드려 아뢰기를,
“평국의 맥을 보오니 남자의 맥이 아니오매 이상하여 이다.”

천자 그 말을 들으시고 이르기를,
“평국이 여자면 어찌 적진에 나가 적진 십만 대병을 소멸 하고 왔으리오. 평국의 얼굴이 도화색(桃花色)이요, 체격이 작고 약하여 혹 미심하거니와 아직은 누설하지 말라.”

하시고 자주 문병하시니라.

이때 평국이 병세 점점 나옴에 생각하되,
‘어의가 나의 맥을 보았으니 필시 본색이 탄로날지라 이제는 할 일 없이 되었으니, 여복을 갈아입고 규중에 몸을 숨어 세월을 보낼이 옳다.’

하고, 즉시 남복을 벗고 여복을 입고 ㉢ 부모 앞에 뵈어 느끼며 뺨에 두 줄기 눈물이 중횡하거늘 부모 또한 눈물을 흘리며 위로 하더라.

[중략 줄거리] 이후 홍계월(평국)은 천자의 주선으로 보국과 혼인을 하게 되는데, 군영 및 집안에서의 사건 등으로 남편 보국과 갈등을 겪으면서 남편과 떨어져 홀로 지내게 된다.

각설. 이때 남관장이 장계(狀啓)*를 올리거늘 천자 즉시 뜬어 열어 보시니 하였으되,

‘오왕(吳王)과 초왕(楚王)이 반하여 지금 장안을 범하고자 하옵나이다. 오왕은 구덕지를 얻어 대원수를 삼고, 초왕은 장맹길을 얻어 선봉을 삼아 장수 천여 명과 군사 십만을 거느려 호주 복지 십여 성을 항복 받고 형주자사 완태를 베고 짓쳐오매 소장의 힘으로는 방비할 길이 없사와 감히 아뢰오니 엇드려 바라옵건대 황상은 어진 명장을 보내어 막으소서.’

하였거늘, 천자 보시고 크게 곤란하사 온 조정의 신하들을 모아 의논하시되 우승상 명연태 아뢰기를,

“이 도적을 좌승상 평국을 보내어 방비하옵 것이니 급히 영을 내려 부르옵소서.”

천자 들으시고 한참 뒤에,

“평국이 전일에는 출세하였기로 불러 국사를 의논하였거니와 ㉣ 지금은 규중 여자라 어찌 영으로 불러 들여 전장에 보내 리오.”

하시되 신하들이 아뢰기를,

“평국이 지금 규중에 처하오나 이름이 조야에 있삽고 또한 작록이 영구하오니 어찌 혐의하오리오.”

하거늘, 천자 마지못하여 급히 평국을 영으로 부르시니라.

이때 평국이 규중에 홀로 있어 매일 시비를 데리고 장기와 바둑으로 세월을 보내더니 사관이 나와 천자가 부르는 명을 전하거늘, 평국이 크게 놀라 급히 여복을 벗고 조복으로 사관을 따라 어전에 엇드리니 천자 크게 기뻐하며 이르기를,

“㉤ 경이 규중에 처한 까닭에 오래 보지 못하여 주야로 사모 하더니 이제 경을 보매 기쁘기 헤아릴 수 없거니와 짐이 덕이 없어 지금 오조 양국이 반하여 호주 복지를 항복 받고 남관을 넘어 황성을 범하고자 한다 하니 경은 마땅히 출사하여 사직을 안보하게 하라.”

하시되 평국이 엇드려 아뢰기를,

“신첩이 외람하와 폐하를 속이옵고 공후 작록을 받자와 영화로 지내옵기 황공하온데 죄를 사하시고 이토록 사랑하옵시니 신첩이 비록 우매하오나 힘을 다하여 폐하의 성은을 만분의 일이나 갚을까 하오니 근심하지 마옵소서.”

하더라.

- 작자 미상, 「홍계월전」 -

* 불일성지: 며칠 안 되어 일이 이루어짐.
* 장계: 신하가 임금에게 올리는 일이나 문서.

38.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와 [B]는 모두 정황을 전달하는 주체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나타나 있다.
- ② [A]는 대화를 통해, [B]는 요약적 제시를 통해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③ [A]는 인물의 외양 묘사를 통해, [B]는 과장된 표현을 통해 장면을 극대화하고 있다.
- ④ [A]와 [B]는 모두 여러 가지 사건이 동시에 발생하여 긴박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⑤ [A]에는 문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해야 할 상황이, [B]에는 문제 해결을 유보해야 할 상황이 제시되어 있다.

39.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홍계월과 보국이 멀리서 온 여공에게 고마움을 표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 ② ㉡: 홍계월이 병이 나자 집안사람들이 많이 놀라며 지극한 정성으로 치료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 ③ ㉢: 홍계월이 부모 앞에서 울음을 터트리며 서러움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여 준다.
- ④ ㉣: 천자가 조정에서 물러나 있는 홍계월을 다시 전쟁터로 보내야 하는지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 ⑤ ㉣: 천자가 집안일에 매달려 있는 홍계월을 오랫동안 보지 못해 그리워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40.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홍계월전」은 비범한 능력을 가진 여성 영웅 홍계월의 활약상을 그린 작품이다. ‘고난 - 위기 - 극복’의 영웅 소설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여성 영웅의 형상을 그려 낸다. 특히 주인공은 여러 차례 위기를 겪게 되는데, 어린 시절에 겪는 1차 위기에서는 조력자의 도움으로 고난을 극복하게 된다. 2차 위기에서는 여성에 대한 사회적 제약으로 인해 개인적 고난을 겪게 되는데, 그런 중에 국가의 위기가 발생함으로써 모든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 ① 신하들이 나라의 위기를 해결할 인물로 홍계월을 적극 추천하는 것에서 홍계월의 뛰어난 능력을 짐작할 수 있군.
- ② 홍계월이 정체가 탄로 나면 나랏일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에서 여성의 사회적 참여에 제약이 따랐음을 짐작할 수 있군.
- ③ 홍계월이 궁궐에서 천자에 못지않은 생활을 하여 천자의 노여움을 사게 된 것은 2차 위기의 빌미가 되었음을 알 수 있군.
- ④ 여공이 어린 홍계월을 구하여 입신양명하게 한 것에서 주인공이 1차 위기를 조력자의 도움으로 극복했음을 확인할 수 있군.
- ⑤ 홍계월이 천자의 부름을 받아 사직을 보전하라는 명을 받은 것에서 국가의 위기와 개인적 고난을 동시에 극복할 기회를 얻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군.

[31~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5.11B

(가)

비로봉 상상두(上上頭)의 올라 보니 괴 뒤신고
 동산(東山) 태산(泰山)이 어느냐 놉듯던고
 ㉠ 노국(魯國) 조분 줄도 우리는 모르거든
 넘거나 넘은 천하 엇찌하야 적닷 말고
 ㉡ 어와 더 디위를 어이하면 알 거이고
 오르디 못하거니 느려가미 고이홀가
 원통골 7는 길로 사자봉을 츠자가니
 그 알피 너러바회 화룡(化龍)쇠 되어세라
 천 년 노룡(老龍)이 구비구비 서려 이서
 주야의 흘너내어 창해(滄海)에 니어시니
 ㉢ 풍운(風雲)을 언제 어더 삼일우(三日雨)를 디련는다
 음애(陰崖)에 이온 풀을 다 살와 내어스라
 ㉣ 마하연(摩訶衍) 묘길상(妙吉祥) 안문(雁門)재 너머 디어

[A] 외나모 빠근 드리 불정대(佛頂臺) 올라호니
 친심(千尋) 절벽을 반공(半空)에 세여 두고
 은하수 한 구비를 촌촌이 버혀 내어
 실7티 플터이서 뵈7티 거러시니
 도경(圖經) 열두 구비 내 보매는 여러히라
 이적선(李謫仙)이 이제 이서 고터 의논호게 되면
 여산(廬山)이 여기도곤 낫단 말 못하려니
 산중을 띠양 보라 동해로 가자스라
 ㉤ 남여(籃輿) 완보(緩步)하야 산영루(山映樓)의 올라호니
 영롱벽계(玲瓏碧溪)와 수성제조(數聲啼鳥)는 이별을 윈(怨)호는 듯
 - 정철, 「관동별곡」 -

(나)

얼마 후 검은 안개가 몰려오더니 서쪽에서 동쪽으로 산등성이를 휘감았다. 나는 괴이하게 여겼지만, 이곳에까지 와서 한라산의 진면목을 보지 못한다면 이는 바로 산을 쌓는 데 아홉 길의 흙을 쌓고도 한 삼태기의 흙을 엮지 못해 완성하지 못하는 것이 되어, 섬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마음을 굳게 먹고 곧장 수백 보를 전진해 북쪽 가의 오목한 곳에 당도하여 굽어보니, 상봉이 여기에 이르러 갑자기 가운데가 터져 구덩이를 이루었는데 이것이 바로 백록담이었다. 주위가 1리 남짓하고 수면이 담담한데 반은 물이고 반은 얼음이었다. 홍수나 가뭄에도 물이 줄거나 불지 않는데, 얇은 곳은 무릎에, 깊은 곳은 허리에 찻으며 맑고 깨끗하여 조금의 먼지 기운도 없으니 은연히 신선이 사는 듯하였다. 사방을 둘러싼 봉우리들도 높고 낮음이 모두 균등하니 참으로 천부의 성곽이었다.

석벽에 매달려 백록담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털썩 주저앉아 잠깐 휴식을 취했다. 일행은 모두 지쳐서 남은 힘이 없었지만 서쪽의 가장 높은 봉우리가 최고봉이었으므로 조심스럽게 조금씩 올라갔다. 그러나 따라오는 자는 겨우 세 명뿐이었다.

최고봉은 평평하게 퍼지고 넓어서 그리 아찔해 보이지는 않았으나, 위로는 별자리에 닿을 듯하고 아래로는 세상을 굽어보며, 좌로는 부상(扶桑)*을 돌아보고 우로는 서쪽

[B] 바다를 접했으며, 남으로는 소주와 항주를 가리키고 북으로는 내륙을 끌어당기고 있었다. 그리고 웅기종기 널려 있는 섬들이 큰 것은 구름 조각 같고 작은 것은 달걀 같아 놀랍고 괴이한 것들이 천태만상이었다.

「맹자」의 “바다를 본 자에게는 다른 물이 물로 보이지 않으며 태산에 오르면 천하가 작게 보인다.”라는 말에 담긴 성현의 역량을 이roso 가히 상상할 수 있다. 또 소동파에게 당시에 이 산을 먼저 보게 하였다면 그의 이른바, “허공에 떠 바람을 다스리고 신선이 되어 하늘에 오른다.”라는 시구가 적벽에서만 알맞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어서 “낭랑하게 읊조리며 축융봉을 내려온다.”라는 주자의 시구를 읊으며 백록담 가로 되돌아오니, 하인들이 이미 정성스럽게 밥을 지어 놓았다.

- 최익현, 「유한라산기」 -

* 부상: 해가 뜨는 동쪽 바다.

31.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여행에 대한 경륜과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음을 반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② ㉡: 정치적 포부를 펼칠 만큼 높은 지위에 이르지 못한 데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③ ㉢: 자신에게 험난한 역경이 다가오고 있음을 자연현상에 비유하여 표현하고 있다.
- ④ ㉣: 거쳐 온 곳을 열거하면서 행위를 나타내는 서술어를 최소화하여 여정을 압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⑤ ㉤: 이동하는 모습을 과장되게 묘사하여 자신의 권위를 강조하고 있다.

32.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기상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등정을 계속하려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 ② 객관적인 사실에 자신의 소감을 추가하여 백록담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 ③ 일행 중 낙오한 이들이 있었음을 밝혀 등정 과정이 힘들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최고봉에서 백록담으로 내려오는 과정을 등정 과정에 비해 간략하게 제시하고 있다.
- ⑤ 시구를 낭송하는 모습을 통해 등정 과정에서 있었던 일행들 사이의 갈등이 해소되었음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33. <보기>는 (가) 작품의 다른 부분이다. <보기>와 [A], [B]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천근(天根)을 못내 보와 망양정(望洋亭)의 올은말이
 바다 맞근 하늘이니 하늘 맞근 뜨서시고
 굵득 노훈 고래 뒤라서 놀내판디
 불거니 썸거니 어즈러이 구는디고
 은산(銀山)을 것거 내여 육합(六合)의 느리는 듯
 오월(五月) 장천(長天)의 백설(白雪)은 뜨스 일고

- ① [A]와 <보기>는 모두 자연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 ② [A]는 지상의 자연물을 천문 현상에 비유하고, <보기>는 천문 현상을 지상의 자연물에 비유하고 있다.
- ③ [B]와 <보기>는 모두 인간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자연의 냉혹함을 드러내고 있다.
- ④ [B]는 자연물을 의인화하여 제시하고, <보기>는 자연물의 움직임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⑤ [A]와 [B]에서는 자연의 모습을 관조하고 있고, <보기>에서는 자연을 통해 자신을 반성하고 있다.

34. <보기>를 참조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선비들의 산수 유람에는 와유(臥遊)와 원유(遠遊)가 있다. 와유는 일상에서 산수화나 산수 유람의 글 등을 감상하며 국내외의 여러 경치를 간접적인 방식으로 즐기는 것을 말한다. 이와 달리 원유는 이름난 경치를 직접 찾아가 실제의 자연을 즐기는 흔치 않은 체험으로, 유교에서 강조하는 호연지기를 기르는 기회가 되기도 하였다.

- ① (가)의 화자가 ‘화룡소’를 보고 감상한 부분은 다른 이들이 같은 장소를 와유할 때 활용될 수 있겠군.
- ② (가)의 화자는 와유를 통해 상상하던 ‘여산’의 모습과 원유를 통해 실제로 바라본 ‘여산’의 모습을 비교하며 와유의 가치를 확인하고 있군.
- ③ (나)의 글쓴이는 원유를 통해 ‘백록담’에서 실감한 자연의 형세를 묘사하고 있군.
- ④ (나)의 글쓴이가 정상에 올라 ‘성현’의 호연지기를 상상하는 데서 원유가 호연지기를 기르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군.
- ⑤ (나)의 글쓴이는 ‘소동파’의 시를 통해 와유했던 적벽의 모습과 원유를 통해 확인한 한라산의 모습을 비교하여 한라산의 아름다움을 강조하고 있군.

[35~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15.11B

① 산은 첩첩하고 물은 중중한데, 잠자려는 새들은 숲으로 들어가 객회(客懷)를 자아내니 숙향이 갈 데 없어서 앉아서 울고 있었다. 문득 파랑새가 꽃봉오리를 물고 손등에 앉거늘 숙향이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 꽃봉오리를 먹으니 눈이 맑아지고 배가 불러 정신이 상쾌하며 몸에 향내 진동하더라.

일어나서 ㉠ 파랑새가 가는 대로 따라 두어 고개를 넘어가니 산골짜기에 한 궁궐이 있는데, 그 새가 큰 문으로 들어가거늘 숙향이 따라 들어갔다. 한 계집이 마중 나와 숙향을 안고 들어가 큰 전각(殿閣) 앞에 놓으니 한 부인이 머리에 화관(花冠)을 쓰고 황금 의자에 앉아 있다가 숙향을 맞아 팔을 밀어 동편 백옥 의자에 앉기를 청하거늘 숙향이 어찌할 줄 모르고 다만 울 뿐이었다.

부인 왈,
“선녀께서 인간 세상에 내려와 더러운 물을 많이 먹었으니 정신이 바뀌어 전생 일을 모르나이다.”

선녀에게 명해 경액(瓊液)*을 드리라 한대 선녀가 만호잔에 호박대를 받쳐 이슬 같은 것을 부어 드리거늘 숙향이 받아먹으니 맛은 젓맛 같고 매우 향기롭더라. ㉡ 먹은 후에 천상의 일과 인간 세상에 내려와 부모 잃고 헤매며 고생한 일을 일일이 알게 되니 몸은 비록 아이나 마음은 어른이라. 즉시 일어나 부인에게 예를 표해 왈,

[A] “첩은 천상에 득죄(得罪)하여 인간 세상에 내려와 고초가 심하거늘 이다지도 불쌍히 여겨 대접하시니 지극히 감격 하나이다.”

“선녀께서는 저를 알아보시겠나이까?”
“인간 세상에 내려와 정신이 바뀌었사오니 자세히 아옵지 못 하나이다.”

“이 땅은 명사계(冥司界)요, 저는 후토 부인이니이다. 선녀께서 인간 세상에 내려와 고생을 겪었으며 접때 잔나비와 황새를 보내 도와 드렸고 이번에는 파랑새를 보내었삽더니 보셨나이까?”

“다 보았사오니 부인의 하늘 같은 은혜를 갚을 길이 없사오니 부인의 시비나 되어 만분지일이나 갚아올까 바라나이다.”

부인이 정색하고 왈,
[B] “저는 한낱 조그마한 신령이요, 그대는 월궁의 으뜸 선녀라. 비록 천상에서 지은 죄로 인간 세상에 내려와 일시 고생을 겪었으나 그런 말씀을 어찌 하시나이까? 선녀 가실 곳이 또한 머으니 그 사이에 고생을 많이 겪을 것이 오매 쉬어 내일 가소서.”

하고, 잔치를 배설하여 환대하니 음식과 보배 등이 극히 화려 하더라.

숙향이 부인에게 왈,
“첩이 전일 듣사오니 명사계는 시왕(十王)이 계신 데라 하더니 그러하오이까?”
“그러하여이다.”
“그러하면 시왕전이 어디오이까?”
“멀지 아니하오이다.”

“인간 세상의 부모가 난중에 죽었으면 시왕전에 왔사을 것이니 반가이 만나 볼 수 있겠나이까?”

[C] “그대 부모는 인간 세상에 반석같이 계시고 그들도 원래 인간 세상 사람이 아니요, 봉래산 선관 선녀로서 인간 세상에 귀양 왔사오니 기한이 차면 봉래로 돌아갈 것이요, 이곳은 오지 아니하리이다.”

(중략)

이선이 숙향이 보내 온 혈서를 보고 크게 놀라 통곡하고 그 편지를 숙모께 드리고 낙양 옥중에 가서 숙향과 함께 죽으려 하더니 숙부인 왈,

“아직 자세히 알지도 못하는데 성급히 굴지 마라.”
하며 하인을 불러 할미 집에 가 보고 오라 하고, 그 고을의 이방 원통을 불러서 그 연고를 물으니 원통이 고하기를,

“㉢ 상서께서 명을 내리시어 숙향을 잡아다가 죽이라 하신 고로 원님이 상서 명을 거역하지 못하여 어젯밤에 숙향을 잡아다 죽이려고 큰 매로 치라 하되 집장 사령이 매를 들지 못하여 죽이지 못하였사오나 원님이 오늘 죽이려 하옵고 큰 칼을 씌워 옥에 가두었나이다.”

숙부인이 듣고 크게 놀라 왈,
“신이 비록 상서의 아들이나 내가 양자로 들었으며 선과 숙향이 혼사를 치르도록 했거늘, 내게 묻지 아니하고 나를 과부라 업신여겨 이리하니 내 황성에 들어가 상서에게 일러 듣지 아니 하면 황후께 아뢰어 황제께서 아시게 하리라.”

하고 즉시 행장을 차려서 장안으로 가니라.
한편 이선은 집에 들어가 울며 숙향이 죽었으면 함께 죽으리라고 하더라.

이튿날 김전이 숙향을 올리라 하니 이때 낭자가 옥 같은 두 귀 밑에 흐르나니 눈물이라. ㉣ 연약한 몸이 큰칼 쓰고 여러 사람에 붙들려 가니 반은 죽은 사람이라. 이를 보는 사람이 눈물 아니 짓는 이가 없더라.

김전이 왈,
“네 고향은 어디며 이름은 무엇이며 나이는 몇이나 되며 누 집 딸이라 하나뇨?”

낭자 왈,
“오 세에 부모를 난중에 잃고 사방에 유리(流離)하옵다가 겨우 의탁한 몸 되었사오니 고향과 부모의 성명은 모르오되 나이 찬 후에 혹 듣사오니 김 상서의 딸이라 하오며 이름은 숙향이요 나이는 십육 세로소이다.”

김전의 아내 장 씨가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김전에게 왈,
“그 여자의 얼굴을 보오니 죽은 우리 딸과 같삽고 연치(年齒) 또한 같사오되 다만 김 상서의 딸이라 하니 그 근본을 자세히 모르오나 이름도 같고 나이도 같으니 혹 죽은 자식이 살아서 돌아다니는지 마음이 자연 비창(悲愴)하오니 아직 죽이지 말고 상서께 기별하여 스스로 처치하게 하오소서.”

김전이 부인의 말을 옳게 여겨 숙향을 도로 하옥하라 하고, 이 사연을 이 상서에게 회보(回報)하니라.

- 작자 미상, 「숙향전」 -

* 경액: 신선이 마신다는 신비로운 약물.

35. 윗글의 인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후토 부인’은 ‘숙향’을 명사계로 인도하여 전생에서의 ‘숙향’의 정체를 깨닫게 해 주고 있다.
- ② ‘이선’은 ‘숙향’이 처한 상황을 알고서 ‘숙향’과 생사를 같이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 ③ ‘숙부인’은 ‘숙향’과 ‘이선’의 혼사가 이루어지도록 ‘이 상서’로 하여금 ‘황후’에게 아뢰게 하고 있다.
- ④ ‘김전’은 ‘장 씨’의 말을 수용하여 ‘숙향’에 대한 형 집행을 미루고 있다.
- ⑤ ‘장 씨’는 ‘숙향’을 보고서 자신의 딸을 떠올리며 ‘숙향’에게 연민을 느끼고 있다.

36.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에서는 인물이 처한 힘든 상황을 나타내는 시공간적 배경을 제시하고 있다.
- ② ㉡에서는 인물이 현실의 경계를 넘어 초현실의 공간으로 진입해 가는 장면을 서술하고 있다.
- ③ ㉢에서는 인물에게 갑자기 일어난 변화를 서술자가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④ ㉣에서는 인물의 발화를 통해 이전 사건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⑤ ㉤에서는 인물의 외양 묘사를 통해 그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37. <보기>를 참고하여 [A]~[C]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고전 소설 중에는 ‘천상’과 ‘선계’를 포함하는 ‘천상계’와 인간 세상인 ‘지상계’가 인과응보의 원리에 의해 연결되어 서사가 진행되는 작품들이 많다. 이 원리는 ‘천상계-지상계-천상계’의 순환 구조를 기반으로 하여 천상계에서 죄를 지으면 지상계에서 벌을 받는 것으로 구현된다. 이 원리를 토대로 하여 인물에게 주어지는 처벌과 보상, 인물이 겪는 고난의 정도와 기한이 결정된다.

- ① [A]에는 지상계에서 고초를 겪게 되는 원인이 천상계에서 지은 죄에 있다는 생각이 드러나 있군.
- ② [B]에는 천상계에서 지은 죄의 대가를 지상계에서 모두 치르면 천상계의 신분이 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러나 있군.
- ③ [B]에는 천상계에서 높은 신분인 인물이라도 죄를 지으면 지상계에 내려와 고난을 겪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러나 있군.
- ④ [C]에는 지상계가 천상계에서 죄를 지은 자들의 귀양지라는 생각이 드러나 있군.
- ⑤ [C]에는 천상계에서 지은 죄의 대가를 지상계에서 치르는 인물은 이미 정해진 고난의 기한이 차야만 천상계로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러나 있군.

[38~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5.11B

[**앞부분의 줄거리**] 화랑도를 숭상하는 '유종'과 당나라를 숭상하는 '금지'는 내심 서로 못마땅해한다. 이런 가운데 '금지'는 아들 '금성'과 '유종'의 딸 '주만'과의 혼사를 진행하려 한다.

설령 금성이가 출중한 재주와 인물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유종은 이 혼인을 거절할밖에 없었으리라. 첫째로 금지는 당학과의 우두머리가 아니냐. 나라를 쪼먹게 하는 그들의 소위만 생각해 도 뼈가 저리거든 그런 가문에 내 딸을 들여보내다니 될 뻔이나 한 수작인가. 도대체 당학*이 무에 그리 좋은고 그 나라의 바로 전 임금인 당 명황(唐明皇)만 하더라도 양귀비란 계집에게 미쳐서 정사를 다스리지 않은 탓에 필경 안녹산(安祿山)의 난을 빚어 내어 오랑캐의 말굽 아래 그네들의 자랑하는 장안이 쑥밭을 이루고 천자란 빈 이름뿐, 축나라란 두메 속에 오류 년을 갇히어 있지 않았는가. 금지가 당대 제일 문장이라고 추어올리는 이백이만 하더라도 제 임금이 성색에 빠져 헤어날 줄을 모르는 것을 죽음으로 간하지는 못할지언정 몇 잔 술에 감지덕지해서 그 요망한 계집을 칭찬하는 글을 지어 도리어 임금을 부추겼다 하니 우리네로는 꿈에라도 생각 밖이 아니냐. ㉠ 그네들의 한문이란 난신적자를 만들어 내기에 꼭 알맞은 것이거늘 이것을 좋아라고 배우려 들고 퍼뜨리려 드니 참으로 한심한 노릇이 아니냐. 이 당학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가는 우리나라에도 오래지 않아 큰 난이 일어날 것이요, 난이 일어난다면 누가 감당해 낼 자 이랴.

“한 나이나 젊었더면!”

유종은 이따금 시들어 가는 제 팔뚝의 살을 어루만지면서 한탄한다. 몇 해 전만 해도 자기와 뜻을 같이하는 이가 조정에 더러는 있었지만 어느 결엔지 하나씩 둘씩 없어지고 인제는 ㉡ 무 밑둥과 같이 동그랗게 자기 혼자만 남았다. 속으로는 그의 주의에 찬동하는 이가 없지도 않으려만 당학과의 세력에 밀리어 감히 발설을 못 하는지 모르리라. 지금이라도 젊은이 축 속으로 뛰어 들어가면 동지를 얼마든지 찾아낼는지 모르리라. 아직도 이 나라의 명맥이 끊어지지 않은 다음에야 방방곡곡을 뒤져 찾으면 몇 천 명 몇만 명의 화랑도를 닮는 이를 모을 수 있으리라. 그러나 아들이 없는 그는 젊은이와 접촉할 기회조차 없었다. 이런 점에도 그는 아들이 없는 것이 원이 되고 한이 되었다. ㉢ 이 늙은 향도(香徒)에게 남은 오직 하나의 희망은 자기의 주의 주장에 공명하는 사윗감을 구하는 것이었다. 벌써 수년을 두고 ㉣ 그럴 만한 인물을 내심으로 구해 보았지만 그리 쉽사리 눈에 띄이지 않았다. 고르면 고를수록 사람 구하기란 하늘에 별따기보담 더 어려웠다. 유종은 기대고 있던 서안에서 쭉 미끄러지는 듯이 털요 바닥 위에 누웠다. 금지의 청혼을 그렇게 거절한 다음에는 하루바삐 사윗감을 구해야 된다. 금지로 하여금 다시 입을 열지 못 하도록 ㉤ 다른 데 청혼을 해 놓아야 한다. 그러면 신라를 두 손으로 떠받들고 나아갈 인물이 누가 될 것인가. 삼한 통일 당년의 늙름하고 씩씩한 기풍(氣風)이 당학에 지질리고 문약(文弱)에 흐르는 이 나라를 바로잡을 인물이 누가 될 것인가.

[**중략 부분의 줄거리**] '유종'이 사위를 구하는 가운데, '주만'이 부여의 천민 석공 '아사달'을 사모하고 있음이 알려진다. 한편 '아사달'은 자신을 찾아온 아내 '아사녀'가 끝내 자신을 만나지 못하고 그림자못에서 죽은 사실을 알게 되자, 그 못 독에서 '아사녀'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등에 담아 새겨 내는 작업에 몰입한다.

그러나 어느 결엔지 아사녀의 환영은 깜박 사라져 버렸다. 아까까지는 어렴풋이라도 짐작되던 그 흔적마저 놓치고 말았다. 아무리 눈을 닦고 돌 얼굴을 들여다보았으나 눈매까지는 그럴싸하게 드러났지마는 그 아래로는 캄캄한 밤빛이 쌓인 듯 아득할 뿐. 돌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골머리만 부질없이 헛헛 내어 돌리었다. 그러자 문득 그 돌 얼굴이 굵실 움직이는 듯하며 주만의 얼굴이 부시도록 선명하게 살아났다. 마치 어젯밤의 아사녀의 환영 모양으로.

그 눈동자는 떠들떠들 애원하듯 원망하듯 자기를 쳐다보는 것 같다.

[A] “이 등에 나를 새겨 주세요. 네, 아사달님, 네, 마지막 청을 들어주세요.”

그 입술은 달싹달싹 속살거리는 것 같다.

아사달은 정을 권 채로 머리를 털고 눈을 감았다. 돌 위에 나타난 주만의 모양은 그의 감은 눈시울 속으로 기어들어 오고야 말았다. 이 몇 달 동안 그와 지내던 가지가지 정경이 그림등 모양으로 어른어른 지나간다. 초파일 탐돌이할 때 맨 처음으로 마주치던 광경, 기절했다가 정신이 돌아날 제 코에 풍기던 야릇한 향기, 우레가 울고 악수가 쏟아질 적 불꽃을 날리는 듯한 그 뜨거운 입김들……. 아사달은 고개를 또 한 번 흔들었다. 그제야 저 멀리 돈짜만 한 아사녀의 초라한 자태가 아른거린다. 주만의 모양을 구름을 헤치고 뚱뚱 떠오르는 햇발과 같다 하면, 아사녀는 샬넛의 하늘에 반짝이는 별만 한 광채밖에 없었다.

[B] 물동이를 이고 치마꼬리에 그 빨간 손을 씻으며 배시시 웃는 모양, 이별하던 날 밤 그린 듯이 도사리고 남편을 기다리던 앓음앓음, 일부러 자는 척하던 그 가늘게 떨던 눈시울, 버드나무 그늘에서 숨기던 눈물들…….

아사달의 머리는 점점 어지러워졌다. 아사녀와 주만의 환영도 흔들린다. 휘슬레를 돌리듯 핑핑 돌다가 소용돌이치는 물결 속에서 조각조각 부서지는 달그림자가 이내 한 곳으로 합하듯이, 두 환영은 마침내 하나로 어우러지고 말았다. 아사달의 캄캄하던 머릿속도 갑자기 환하게 밝아졌다. 하나로 녹아들어 버린 아사녀와 주만의 두 얼굴은 다시금 거룩한 부처님의 모양으로 변하였다.

아사달은 눈을 번쩍 떴다. 설레던 가슴이 가을 물같이 맑아지자, 그 돌 얼굴은 세 번째 제 원불(願佛)로 변하였다. 선도산으로 뒤엎뉘었 기우는 햇발이 그 부드럽고 찬란한 광선을 던질 제 못물은 수멸수멸 금빛 춤을 추는데 흥에 겨운 마차와 정 소리가 자지러지게 일어나 저녁나절의 고요한 못 독을 울리었다.

새벽만 하여 한가위 밝은 달이 홀로 정 자리가 새로운 돌부처를 비칠 제 정 소리가 그치자 은물결이 잠깐 헤쳐지고 풍하는 소리가 부근의 적막을 한순간 깨트렸다.

- 현진진, 「무영탑」 -

* 당학: 당나라의 학문.

38.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물의 의식이 내적 갈등에 초점을 둔 서술 방식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 ② 인물들 간의 대화를 통해 특정 인물의 생각과 행동을 회화화하고 있다.
- ③ 미래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신분이 낮은 인물의 발언을 통해 제시되고 있다.
- ④ 물질주의에 빠진 세대가 탈속적 세계를 지향하는 인물의 비판을 통해 제시되고 있다.
- ⑤ 권력과 사랑을 동시에 쟁취하여 신분 상승을 도모하는 소외된 개인의 욕망이 구체적인 일화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39.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신라를 '문약'하게 하는 요인으로 '유종'이 인식하고 있는 대상이다.
- ② ㉡은 '유종'의 외로운 처지를 보여 주는 비유이다.
- ③ ㉢은 현재의 주류적 '기풍'을 거부하는 '유종'을 지칭하는 표현이다.
- ④ ㉣은 '유종'이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원하는 대상이다.
- ⑤ ㉣은 '유종'이 자신과 대립하는 세력과의 연대를 위한 방도이다.

40. [A], [B]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는 떠나는 '아사달'에 대한 '주만'의 걱정이 나타나 있다.
- ② [B]에는 '아사달'과 '아사녀'의 이별의 원인이 제시되어 있다.
- ③ [B]에는 훗날의 만남에 대한 '아사달'과 '아사녀'의 기억이 나타나 있다.
- ④ [A]와 [B] 모두에서, 이별한 대상인 '주만'과 '아사녀'를 잊고자 하는 '아사달'의 의지가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다.
- ⑤ [A]의 '주만'의 모습과 [B]의 '아사녀'의 모습은 모두 '아사달'이 그들의 환영을 보는 방식으로 제시되어 있다.

41.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무영탑」은 작가 현진건의 예술관, 민족주의적 태도, 현실 인식 등을 드러낸 작품이다. 이 작품은 석가탑 조성에 얽힌 인물들의 이야기를 펼쳐 내면서 숭고한 예술적 성취의 과정을 잘 보여 준다. 이러한 예술적 성취는 석공 아사달이 자신의 고뇌를 극복하며 예술품을 만들어 가는 과정, 특히 사랑과 예술혼이 하나로 융합되어 신앙의 궁극이라는 새로운 경지에 이르는 데에서 잘 드러난다.

- ① '유종'이 '이백'을 칭송하는 '금지'를 비판하고 화랑도 사윗감을 구하려 하는 장면에서, 작가의 민족주의적 태도를 엿볼 수 있군.
- ② '아사달'이 '아사녀'의 환영을 등에 담아내려고 하는 장면에서, 주인공의 사랑과 예술혼을 융합해 내려는 작가의 의도를 엿볼 수 있군.

- ③ '금지'와 같은 '당학과'를 '나라를 좀먹게 하는' 집단으로 간주하는 장면에서, 외세를 추종하는 현실을 비판하려는 작가의 태도를 엿볼 수 있군.
- ④ '아사녀'와 '주만'의 환영이 하나로 어우러져 '부처님의 모양'으로 변한 장면에서, 신앙의 세계로 나아갈 수 없어 절망하는 인물의 내면이 나타나 있군.
- ⑤ '아사달'이 '아사녀'를 '별만 한 광채'로, '주만'을 '떠오르는 햇발'로 떠올리며 갈등하는 장면에서, 새로운 예술적 경지에 이르는 과정에서 빚어진 '아사달'의 고뇌가 드러나 있군.

42.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아사달과 아사녀의 이야기는 조선 후기의 설화(「서석가탑」) 뿐만 아니라, 현진건의 기행문(「고도 순례 경주」, 1929)과 그의 소설(「무영탑」, 1939)에도 나타난다.

[자료 1]
 불국사 창건 시 당나라에서 온 석공에게 아사녀라는 여인이 있었다. 아사녀가 잡자기 와서 석공과 만나기를 요구하였으나, 큰 공사가 끝나지 않았고 아사녀가 비무한 몸이라는 이유로 허락되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 아사녀가 남서쪽 십 리쯤에 있는 연못을 내려다보면 석공이 보일 듯하여, 가서 살펴보니 정말 석공의 모습이 비쳤다. 그러나 탑의 그림자는 비치지 않았다. 그래서 무영탑이라 불렀다.
 - 「서석가탑」 -

[자료 2]
 제 환상에 떠오른 사랑하는 아내의 모양은 다시금 거룩한 부처님의 모양으로 변화였다. 그는 제 예술로 죽은 아내를 살리고 아울러 부처님에게까지 천도(薦度)하려 한 것이다. 이 조각이 완성되면서 자기 역시 못 가운데 몸을 던져 아내의 뒤를 따랐다. 불국사 남서방에 영치(影池)란 못이 있으니 여기가 곧 아사녀와 당나라 석공이 빠져 죽은 데다.
 - 현진건, 「고도 순례 경주」 -

- ① 윗글은 [자료 1]과 같은 설화를 차용하여 소설로 변용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작품이군.
- ② 윗글은 [자료 2]처럼 '아내'의 죽음을 종교적 상징으로 승화하고 있는 관점을 이어 간 작품이군.
- ③ 윗글은 [자료 1]과 [자료 2]의 이야기에 '유종'과 '주만' 등의 서사를 추가하고 있군.
- ④ 윗글과 [자료 2]의 '못'은 [자료 1]의 '연못'이 부부간의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를 환기하는 공간으로 변용된 것이군.
- ⑤ 윗글의 '새로운 돌부처' 형상에 석공의 얼굴이 새겨진 것은 윗글이 [자료 1]과 [자료 2]의 서사 모티프를 이어받은 것으로 볼 수 있군.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15.11B

(가)

흙이 풀리는 내음새

강바람은

산짐승의 우는 소릴 불러

㉠ 다 녹지 않은 얼음장 울멍울멍 떼내려간다.

진중일

나룻가에 서성거리다

행인의 손을 쥐면 따듯하리라.

고향 가차운 주막에 들러

㉡ 누구와 함께 지난날의 꿈을 이야기하라.

양귀비 꿰여다 놓고

주인집 늙은이는 공연히 눈물지운다.

간간이 쟈나비 우는 산기슭에는

아직도 무덤 속에 조상이 잠자고

설레는 바람이 가랑잎을 휩쓸어간다.

예제로* 떠도는 장꾼들이여!

상고(商賈)하며 오가는 길에

㉢ 혹여나 보셨나이까.

전나무 우거진 마을

집집마다 누룩을 디디는 소리, 누룩이 뜨는 내음새……

- 오장환, 「고향 앞에서」 -

(나)

귀향이라는 말을 매우 어설피하며 마당에 들어서니 다리를 저는 오리 한 마리 유난히 허둥대며 두엄자리로 도망간다. ㉣ 나의 부모인 농부 내외와 그들의 딸이 사는 슬레이트 흙담집, 겨울 헤어틈의 ㉤ 집 안엔 아무도 없고 방바닥은 선뜩한 냉돌이다. 여덟 자 방구석엔 고구마 뒤주가 여전하며 벽에 메주가 매달려 서로 박치기한다. 허리 굽은 어머니는 냇가 빨래터에서 오셔서 콩깍지로 군불을 피우고 동생은 면에 있는 중학교에서 돌아와 반가워한다. 닭똥으로 비료를 만드는 공장에 나가 일당 서울 광주 간 차비 정도를 버는 아버지는 한참 어두워셔야 귀가해 장남의 절을 받고, 가을에 이웃의 텃밭에 나갔다 팔매질 당한 다리병신 오리를 잡는다.

- 최두석, 「낡은 집」 -

* 예제로: 여기저기로.

43. (가), (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의 화자는 낯선 행인에게서 친근감을 기대하고 있고, (나)의 화자는 익숙했던 공간에 들어서며 낯선 느낌을 받는다.
- ② (가)의 화자는 아직도 조상의 권위가 지속되는 공간을, (나)의 화자는 여전히 가난이 지속되는 공간을 벗어나고자 한다.
- ③ (가)의 화자는 세상이 변해도 각박한 인심이 여전함에 좌절하고 있고, (나)의 화자는 세상이 변해도 인심은 변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 ④ (가)의 화자는 떠돌아다니는 자신의 처지를 통해, (나)의 화자는 공장 노동자로 전락한 농민의 처지를 통해 삶의 무상함을 드러내고 있다.
- ⑤ (가)의 화자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농촌의 모습이 보존되기를 희망하고, (나)의 화자는 산업화를 통해 농촌의 모습이 변화되기를 희망한다.

44.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계절이 바뀌면서 얼음이 풀리는 강변 풍경을 시각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 ② ㉡: 꿈이 있던 시절을 함께 회상할 사람이 없는 아쉬움을 설의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③ ㉢: 이리저리 떠돌며 고향에 가지 못하는 장꾼들의 설움을 독백조로 토로하고 있다.
- ④ ㉣: 가족의 일원이면서도 자신의 가족을 객관화하여 지칭하고 있다.
- ⑤ ㉤: 썰렁한 집 안의 정경 묘사를 통해 화자가 느끼는 심정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45.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감상한 학생들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고향을 각박하고 차가운 현실과 대비되는 공간으로 인식하고, 그곳으로 복귀하려는 것을 귀향 의식이라고 한다. 이때 고향은 공동체의 인정과 가족애가 살아있는 따뜻한 공간으로 표상된다. 이들의 기억 속에서 고향은 평화로운 이상적 공간으로 남아 있기도 하다. 그러나 고향으로 돌아가더라도 고향이 변해 있거나 고향이 고향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 귀향은 미완의 형태로 남게 된다.

- ① (가)에서 주인공 늙은이의 슬픔에 공감하는 것을 보니, 화자는 타인과의 조화를 통해서 현실을 따뜻한 공간으로 만들어 귀향을 완성하려 하겠군.
- ② (가)에서 전나무가 울창하고 집집마다 술을 빚고 있는 모습으로 고향을 묘사한 것을 보니, 화자의 의식 속에서 고향은 평화로운 공간으로 기억되고 있겠군.
- ③ (나)에서 고향의 가족들이 궁핍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본 화자는 현재의 고향을 이상적인 공간이라고 생각하지 않겠군.
- ④ (나)에서 어머니가 군불을 피우고 아버지가 오리를 잡아 주는 것을 본 화자는 고향에 와서 가족애를 느낄 수 있겠군.
- ⑤ (가)에서는 고향을 앞에 두고도 고향 근처 주막에 머물고 있고 (나)에서는 고향에 와서도 마음이 편치 않아 보인다는 점에서, 화자의 귀향이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겠군.

[31~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15.11A

(가)

해사살 피여
이윅한* 후,

머홀 머홀
꿀을 옮기는 구름.

길경(桔梗)* 꽃봉오리
흔들려 씻기우고

차돌부리
축 축 죽순(竹筍) 돋듯.

물 소리에
이가 시리다. ㉠

앉음새 갈히여
양지 쪽에 쫓그리고,

서러운 새 되어
흰 밥알을 쫓다.

- 정지용, 「조찬(朝餐)」 -

*이윅한: 시간이 지난.
*길경: 도라지.

(나)

파초는 언제 보아도 좋은 화초다. 폭염 아래서도 그의 푸르고 싱그러운 그들은, 눈을 씻어 줌이 물보다 더 서늘한 것이며 비 오는 날 다른 화초들은 입을 다문 듯 우울할 때 파초만은 은은히 빗방울을 통기어 주렴(珠簾) 안에 누웠으며 듣는 이의 마음 위에까지 비는 뿌리기도 남는다. ㉡가슴에 비가 뿌리되 옷은 젖지 않는 그 서늘함, 파초를 가꾸는 이 비를 기다림이 여기 있을 것이다.

오늘 앞집 사람이 일찍 찾아와 보자 하였다. 나가니
“거 저 큰 파초 파십시오.” 한다.
“팔다니요?”
“저거 이제 팔아 버려야 합니다. 저렇게 꽃이 나온 건 다 큰 표구요, 내년엔 영락없이 죽습니다. 그건 제가 많이 당해 본 걸입쇼.” 한다.
“죽을 때 죽더라도 보는 날까진 봐야지 않소?”
“그까짓 인제 뭐 달 더 보자구 그냥 두세요? 지금 팔면 올엔 파초가 제가 나 저렇게 큰 건 오 원도 더 받습니다…… 누가 마침 큰 걸 하나 구한다뇨 그까짓 슬쩍 팔아 버리시죠.”
생각하면 고마운 말이다. 이왕 죽을 것을 가지고 돈이라도 한 오 원 만들어 쓰라는 말이다.
그러나 나는 마음이 얼른 풀리지 않는다.
“그까짓 거 팔아 뭘 허우.”

“아, 오 원쯤 받으셔서 미닫이에 비 뿌리지 않게 챙*이나 해 다시죠.”

그는 내가 서재를 짓고 챙을 해 달지 않는다고 자기 일처럼 성화하던 사람이다.

나는, 챙을 하면 파초에 비 맞는 소리가 안 들린다고 몇 번 설명하였으나 그는 종시 객쩍은 소리밖에 안 듣는 모양이었다.

그는 오늘 오후에도 다시 한 번 와서
“거 지금 좋은 작자가 있는덴쇼…….” 하고 입맛을 다시었다.

정말 파초가 꽃이 피면 열대 지방과 달라 한번 말랐다가는 다시 소생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내 마당에서, 아니 내 방 미닫이 앞에서 나와 두 여름을 냐고 이제 그 발육이 절정에 올라 꽃이 핀 것이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 이태준, 「파초」 -

*챙: 햇빛이나 비를 막기 위해 처마 끝에 덧붙이는 좁은 지붕.

31.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선경후정의 방식을 활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② 모든 연을 2행으로 구성하여 형태적 통일성을 추구하고 있다.
- ③ 제2연에서는 명사로 연을 마무리하여 사물의 정적인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 ④ 제2연에서 제3연으로 전개되면서 화자의 시선이 원경에서 근경으로 이동하고 있다.
- ⑤ 제4연에서는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사물에 동적인 이미지를 부여하고 있다.

32. ㉠과 ㉡을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청각을 촉각으로, ㉡은 촉각을 시각으로 전이시키고 있다.
- ② ㉠은 화자가 ‘구름’을, ㉡은 ‘나’가 ‘폭염’을 기다리는 이유를 나타내고 있다.
- ③ ㉠은 화자의, ㉡은 ‘나’의 감각적 경험이 정서를 자극하는 양상을 표현하고 있다.
- ④ ㉠은 ‘물’과 화자의 공통점을, ㉡은 ‘파초’와 ‘다른 화초’의 공통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은 화자가, ㉡은 ‘나’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미래를 기대하는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33.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정지용과 이태준은 자연에 대한 관심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다. 정지용은 「조찬」 같은 후기 시에서 자연을 초월과 은둔을 꿈꾸는 이상적 세계로 묘사하고 그에 대한 지향을 드러낸다. 하지만 자연은 현실의 번뇌와 억압으로 인해 그러한 지향이 좌절되는 공간으로도 나타난다. 한편 이태준은 「파초」 같은 수필에서 자연물과의 교감을 시도한다. 그에게 자연물은 속물적인 현실과 거리를 두게 하는 대상이며, 그는 그것들에 대해 심미적 감상의 태도를 드러낸다.

- ① (가)에 제시된 서러움이라는 정서는 현실의 번뇌로 인해 초월의 어려움을 자각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② (나)에서 ‘나’가 ‘앞집 사람’의 제안을 거절하는 이유는 ‘나’가 파초를 통해 얻는 경제적 이득보다 파초 자체를 감상하는 데 더 큰 가치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겠군.
- ③ (가)의 화자는 ‘새’를 통해 자신의 서러운 처지를 드러내고 있고, (나)의 ‘나’는 파초를 자신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여김으로써 자연물과의 교감을 드러내고 있군.
- ④ (가)의 ‘흰 밥알’은 자연 속에서도 떨쳐 버릴 수 없는 현실의 무게를 나타내고, (나)의 ‘챙’은 ‘나’에게 속물적인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하는 대상이군.
- ⑤ (가)에서 풍경 묘사는 화자가 지향하는 이상적 세계를 보여 주고 있고, (나)에서 파초가 비 맞는 장면에 대한 감각적 서술은 자연물에 대한 ‘나’의 심미적 감상의 태도를 보여 주고 있군.

[34~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5.11A

일일은 승상이 술에 취하시어 ㉠책상에 의지하여 잠깐 졸더니 문득 봄바람에 이끌려 한 곳에 다다르니 이곳은 승상이 평소에 고기도 낚으며 풍경을 구경하던 조대(釣臺)*라. 그 위에 상서로운 기운이 어렸거늘 나아가 보니 청룡이 ㉡조대에 누웠다가 승상을 보고 고개를 들어 소리를 지르고 반공에 솟거늘, 깨달으니 일장춘몽이라.

심신이 황홀하여 죽장을 짚고 월령산 ㉢조대로 나아가니 나무 베는 아이가 나무를 베어 시냇가에 놓고 버들 그늘을 의지하여 잠이 깊이 들었거늘, 보니 의상이 남루하고 머리 털이 흩어져 귀밑을 덮었으며 검은 때 줄줄이 흘러 두 뺨에 가득하니 그 추레함을 측량치 못하나 그 중에도 은은한 기쁨이 때 속에 비치거늘 승상이 깨우지 않으시고, 옷에

[A] 무수한 이를 잡아 죽이며 잠 깨기를 기다리더니, 그 아이가 돌아누우며 탄식 왈,

“㉣형산백옥이 돌 속에 섞였으니 누가 보배인 줄 알아 보랴. 여상의 자취 조대에 있건마는 그를 알아본 문왕의 그림자 없고 와룡은 남양에 누웠으며 삼고초려한 유황 속의 자취는 없으니 어느 날에 날 알아줄 이 있으리오.”

하니 그 소리 웅장하여 산천이 울리는지라.

탈속한 기운이 소리에 나타나니, 승상이 생각하되, ‘영웅을 구하더니 이제야 만났도다.’ 하시고, 깨우며 물어 왈,

“봄날이 심히 곤한들 무슨 잠을 이리 오래 자느냐? 일어났으면 물을 말이 있노라.”

“어떤 사람이관데 남의 단잠을 깨워 무슨 말을 묻고자 하는가? 나는 배고파 심란하여 말하기 싫도다.”

아이 머리를 비비며 군말하고 도로 잠이 들거늘, 승상이 왈, “네 비록 잠이 달지만 어른을 공경치 아니하느냐. 눈을 들어 날 보면 자연 알리라.”

그 아이 눈을 뜨고 이윽히 보다가 일어났으며 고개를 숙이고 잠잠하거늘, 승상이 자세히 보니 두 눈썹 사이에 천지조화를 갈무리하고 가슴속에 만고홍망을 품었으니 진실로 영웅이라. 승상의 ㉤명감(明鑑)*이 아니면 그 누가 알리오.

[중략 부분의 줄거리] 승상은 아이(소대성)를 자기 집에 묵게하고 딸과 부부의 연을 맺도록 하지만, 승상이 죽자 그 아들들이 대성을 제거하려고 한다. 이에 대성은 영보산으로 옮겨 공부하다가 호왕이 난을 일으킨 소식에 산을 나가게 된다.

한 동자 마중 나와 물어 왈,
“상공이 해동 소상공 아니십니까?”
“동자, 어찌 나를 아는가?”
소생이 놀라 묻자, 동자 답 왈,
“우리 노야의 분부를 받들어 기다린 지 오래입니다.”
“노야라 하시는 이는 뉘신고?”
“아이 어찌 어른의 존호를 알리이까? 들어가 보시면 자연 알리이다.”

생이 동자를 따라 들어가니 청산에 불이 명랑하고 한 노인이 자줏빛 도포를 입고 금관을 쓰고 책상을 의지하여

앉았거늘 생이 보니 학발 노인은 청주 이 승상일러라. [B] 생이 생각하되, ‘승상이 별세하신 지 오래이거늘 어찌 ㉠이곳에 계신가?’ 하는데, 승상이 반겨 손을 잡고 왈,
“내 그대를 잊지 못하여 줄 것이 있어 그대를 청하였나니 기쁘고도 슬프도다.”

하고 동자를 명하여 저녁을 재촉하며 왈,
“내 자식이 무도하여 그대를 알아보지 못하고 망령된 의사를 두었으니 어찌 부끄럽지 아니하리오. 하나 그대는 대인군자로 허물치 아니할 줄 알았거니와 모두 하늘의 뜻이라. 오래지 아니하여 공명을 이루고 용문에 오르면 딸과의 신의를 잊지 말라.”

하고 감주 한 벌을 내어 주며 왈,
“이 감주는 보통 물건이 아니라 입으면 내게 유익하고 남에게 해로우며 창과 검이 뚫지 못하니 천하의 얻기 어려운 보배라. 그대를 잊지 못하여 정을 표하나니 전장에 나가 대공을 이루라.” 생이 자세히 보니 쇠도 아니요, 편갑도 아니로되 용의 비늘 같이 광채 찬란하며 백화홍금포로 안을 대었으니 사람의 정신이 황홀한지라. 생이 매우 기뻐 물어 왈,

“이 옷이 범상치 아니하니 근본을 알고자 하나이다.”

“이는 천공의 조화요, 귀신의 공역이라. 이름은 ‘보신갑’이니 그 조화를 헤아리지 못하리라. 다시 알아 무엇 하리오?”

승상이 답하시고, 차를 내어 서니 잔 마신 후에 승상 왈,
“이제 칠성검과 보신갑을 얻었으니 만 리 청충마를 얻으면 그대 재주를 펼칠 것이나, 그렇지 아니하면 당당한 기운을 건잡지 못하리라. 하나 적을 가며이 여기지 말라. 지금 적장은 천상 나타의 제자 익성이니 북방 호국 왕이 되어 중원을 침노 하니 지혜와 용맹이 범인과 다른지라. 삼가 조심하라.”

“만 리 청충마를 얻을 길이 없으니 어찌 공명을 이루리까?”

생이 묻자, 승상이 답 왈,
“동해 용왕이 그대를 위하여 이리 왔으니 내일 오시에 얻을 것이니 급히 공을 이루라. 지금 싸움이 오래되었으나 중국은 익성을 대적할 자 없으며 황제 지금 위태한지라. 머물지 말고 바삐 가라. 할 말이 끝없으나 밤이 깊었으니 자고 가라.”

하시고 책상을 의지하여 누우시니 생도 잠깐 졸더니, 홀연 찬 바람, 기러기 소리에 깨달으니 승상은 간데없고 누웠던 자리에 갑옷과 투구 놓였거늘 좌우를 둘러보니 ㉥소나무 밑이라.

- 작자 미상, 「소대성전」 -

* 조대: 낚시터.
* 명감: 사람을 알아보는 뛰어난 능력.

34. [A]와 [B]에 나타난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묘사를 통해 인물의 외양을, [B]는 발화를 통해 인물의 감회를 드러내고 있다.
 - ② [A]와 달리, [B]는 대구적 표현을 통해 인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③ [B]와 달리, [A]는 요약적 서술을 통해 시대적 배경을 제시하고 있다.
 - ④ [A]와 [B]는 모두 인물들 간의 대화를 통해 인물들 사이의 갈등을 제시하고 있다.
 - ⑤ [A]와 [B]는 모두 과거 사건에 대한 회상을 통해 현재 사건의 원인을 제시하고 있다.

35. 윗글의 ‘승상’에 대한 감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곤히 잠든 ‘아이’를 깨우지 않고 이를 잡아 주며 기다리는 모습에서 따뜻한 인정을 느낄 수 있군.
 - ② 나이 어린 ‘소생’에게 자신이 범한 과오를 시인하고 부끄러워하는 모습에서 자신을 비우고 낮추는 겸허함을 볼 수 있군.
 - ③ ‘소생’에게 ‘딸과의 신의’를 잊지 않아야 공명을 이룰 수 있다고 당부하는 모습에서 신의를 중시하는 가치관을 볼 수 있군.
 - ④ ‘청총마’를 이미 얻고 ‘동해 용왕’의 도움까지 얻은 ‘소생’에게 적을 가버이 여기지 말라고 하는 모습에서 신중한 자세를 볼 수 있군.
 - ⑤ 살아서는 ‘소생’을 도왔지만 죽은 몸으로 ‘소생’을 도울 수 없어 안타까워하는 모습에서 남을 도우려는 한결같은 성품을 느낄 수 있군.

36. <보기>를 참고할 때, ㉠~㉣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고전 소설에서 공간은 산속이나 동굴 등 특정 현실 공간에 초현실 공간이 겹쳐진 것으로 설정되기도 한다. 이 경우, 초현실 공간이 특정 현실 공간에 겹쳐지거나 특정 현실 공간에서 사라지는 것은 보통 초월적 존재의 등·퇴장과 관련된다. 한편 어떤 인물이 꿈을 꿀 때, 그는 현실의 어떤 공간에서 잠을 자고 있지만, 그의 정신은 꿈속 공간을 경험한다. 이 경우, 특정 현실 공간이 꿈에 나타나면 이 꿈속 공간은 특정 현실 공간에 근거하면서도 초현실 공간의 성격을 지니기도 한다.

- ① ‘승상’은 ㉠에 몸을 의지하고 있지만 정신은 봄바람에 이끌려 ㉡로 나아갔으니, 그는 현실의 한 공간에서 잠들어 꿈속 공간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군.
- ② ㉢는 ㉣에 근거를 둔 꿈속 공간으로, ㉢에서 본 ‘청룡’은 ㉣에서 자고 있는 ‘아이’를 상징하는군.
- ③ ㉢와 ㉣는 모두 초현실 공간으로, ㉢는 ‘승상’을 ‘아이’에게로 이끌기 위해, ㉣는 ‘소생’과 초월적 존재인 ‘승상’의 만남을 위해 설정된 곳이군.
- ④ ㉢는 ‘승상’의 정신이 경험하는 꿈속 공간이고, ㉣는 ‘소생’이 자기 경험이 꿈이었음을 확인하는 공간이군.
- ⑤ ‘승상’이 ‘누웠던 자리’에 ‘갓옷과 투구’가 놓여 있는 것으로 보아, ㉢에 ㉣가 겹쳐져 있었지만 ‘승상’이 사라지면서 ㉣도 함께 사라졌군.

37. ㉠의 화자에게 ㉡를 지닌 ‘승상’이 격려해 줄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굽벙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라고 하듯이, 네 재주로도 할 일은 있을 터이니 너무 낙담하지 마라.
 - ② ‘자루 속의 송곳’이라고 하듯이, 앞으로 너의 진가가 반드시 드러나 많은 사람이 너를 우러러 보게 될 거야.
 - ③ ‘장마다 풀뿌기가 나올까’라고 하듯이, 운수가 좋아야만 성공할 수 있으니 좋은 때가 오기를 기다려 보아라.
 - ④ ‘차면 넘친다’라고 하듯이, 지금 너의 피로움은 욕심이 지나쳐서 생기는 것이니 욕심을 줄이면 나아질 거야.
 - ⑤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라고 하듯이, 너의 용기는 무모하니 현실을 직시하면 성공할 날이 곧 올 거야.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5.11A

천지간에 어느 일이 남들에겐 서러운가
아마도 서러운 건 임 그리워 서럽도다
양대(陽臺)에 구름비는 내린 지 몇 해인가
반쪽 거울 녹이 슬어 티끌 속에 묻혀 있다
청조(靑鳥)도 아니 오고 백안(白鴈)도 그쳤으니
소식도 못 듣거늘 임의 모습 보겠는가
㉠ 화조월석(花朝月夕)에 울며 그리워할 뿐이로다
그리워해도 못 보기에 그리워하지도 말리라 여겨
나도 장부(丈夫)로서 모진 마음 지어 내어
이제나 잇자 한들 눈에 절로 밟히거늘 설워 아니 그리워할쏘나
㉡ 그리워해도 못 보니 하루가 삼 년 같도다
원수(怨讎)가 원수 아니라 못 잇는 게 원수로다
사택망치(徙宅忘妻)는 그 어떤 사람이고
그 있는 곳 알고자 진초(秦楚)*엔들 아니 가라
무심하고 쉽게 잇기 배워나 보고 싶구나
어리석은 분수에 무슨 재주가 있을까마는
임 향한 총명*이야 사광(師曠)인들 미칠쏘나
총명도 병이 되어 날이 갈수록 짙어 가니
㉢ 먹던 밥 덜 먹고 자던 잠 덜 자인다
수척한 얼굴이 시름 겨워 검어 가니
취한 듯 흐릿한 듯 청심원 소합환 먹어도 효험 없다
고황(膏肓)에 든 병을 편작(扁鵲)인들 고칠쏘나
목숨이 중한지라 못 죽고 살고 있노라
㉣ 처음 인연 맺을 적에 이리되자 맺었던가
비익조(比翼鳥) 부부 되어 연리지(連理枝) 수풀 아래
나무 엮어 집을 짓고 나무 열매 먹을망정
이승 동안은 하루도 이별 세상 안 보기를 원했건만
동과 서에 따로 살며 그리워하다 다 늙었다
예로부터 이른 말이 견우직녀를
천상(天上)의 인간 중에 불쌍하다 하건마는
그래도 저희는 한 해에 한 번을 해마다 보건마는
㉤ 애달프구나 우리는 몇 은하가 가려서 이토록 못 보시고
- 박인로, 「상사곡(相思曲)」 -

*진초: 진나라, 초나라 지역. 매우 먼 곳을 말함.
*총명: 듣거나 본 것을 오래 기억하는 힘이 있음.

43.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문자답의 방식으로, 임에 대한 그리움을 부각하고 있다.
- ② 풍자의 기법으로, 떠나간 임에 대한 서운함을 나타내고 있다.
- ③ 언어유희를 통해, 이별의 현실을 수용하는 담담한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④ 의태어를 나열하여, 임의 부재로 인한 외로움을 시각적 이미지로 제시하고 있다.
- ⑤ 반어적 표현으로, 임에 대한 애정이 식어 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다.

44.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꽃피는 아침과 달 밝은 밤, 즉 경치가 좋은 시절을 뜻하는 '화조월석'이라는 시어를 통해 임과 함께 좋은 때를 누리지 못하는 서러움을 표현하고 있다.
- ② ㉡은 짧은 동안을 나타내는 '하루'와 긴 시간을 나타내는 '삼 년'이라는 시어의 대비를 통해 임을 기다리는 간절한 정서를 표출하고 있다.
- ③ ㉢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 필수적인 요소인 '밥'과 '잠'이라는 시어를 통해 임에 대한 그리움으로 인한 고통을 나타내고 있다.
- ④ ㉣은 인연을 맺었던 때를 가리키는 '처음'과 현재의 상황을 나타내는 '이리되자'라는 시어를 통해 임과의 예정된 이별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은 임과의 만남을 가로막는 존재를 나타내는 '은하'라는 시어를 통해 임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한 슬픔을 표현하고 있다.

45. <보기>는 윗글에서 사용한 고사를 정리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 ㉠ 청조: 신녀 서왕모를 위해 음식물을 가져오고 소식을 전해 주는 신화 속의 푸른 새.
- ㉡ 사택망치: 노나라 애공과 공자의 대화에 나오는 말로, 이사할 때 아내를 깜박 잊고 두고 가는 것.
- ㉢ 사광: 춘추 시대 진(晉)나라 악사로, 청각 능력이 우수하여 음률을 이해하고 기억하는 것에 뛰어났음.
- ㉣ 편작: 전국 시대의 명의로, 환자의 오장을 투시하는 경지에 도달하였다고 함.
- ㉤ 비익조: 암수가 각각 눈 하나와 날개 하나만 있어서 짝을 지어야만 날 수 있다는 전설 속의 새.

- ① ㉠을 활용한 것은, '청조가 소식을 전하지 못하는 것과 같이 화자와 임 사이에 소식이 끊겼음을 말하려는 것이군.
- ② ㉡를 활용한 것은, '사택망치'한 이가 차라리 부러울 정도로 화자가 임을 잇기 어려워하고 있음을 말하려는 것이군.
- ③ ㉢를 활용한 것은, 화자가 임에 대한 기억을 떨쳐 낼 수 없음을 '사광'의 기억력에 견주어 말하려는 것이군.
- ④ ㉣를 활용한 것은, 임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이 '편작'마저 고칠 수 없는 병처럼 매우 깊음을 말하려는 것이군.
- ⑤ ㉤를 활용한 것은, 화자와 임이 이별하더라도 결국에는 '비익조'처럼 재회할 운명임을 말하려는 것이군.

[31~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5.09B

(가)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인 설움에 잠길 테요
 오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덤덤 날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 버리고는
 천지에 모란은 자취도 없어지고
 뻗쳐오르던 내 보람 서운케 무너졌느니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
 삼백예순 날 하냥 섭섭해 우웁네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
 - 김영랑, 「모란이 피기까지는」 -

(나)

북한산이
 다시 그 높이를 회복하려면
 다음 겨울까지는 기다려야만 한다.

밤사이 눈이 내린,
 그것도 백운대나 인수봉 같은
 높은 봉우리만이 열은 화장을 하듯
 가볍게 눈을 쓰고

윈 산은 차가운 수묵(水墨)으로 젖어 있는,
 어느 겨울날 이른 아침까지는 기다려야만 한다.

신록이나 단풍,
 골짜기를 피어오르는 안개로는,
 눈이라도 윈 산을 뒤덮는 적설(積雪)로는 드러나지 않는,

심지어는 장밋빛 햇살이 와 닿기만 해도 변질하는,
 그 ㉡ 고고(孤高)한 높이를 회복하려면

백운대와 인수봉만이 가볍게 눈을 쓰는
 어느 겨울날 이른 아침까지는
 기다려야만 한다.
 - 김종길, 「고고(孤高)」 -

31. (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공간의 이동을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② 수미상관의 구조를 통해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 ③ 어순의 도치를 통해 상황의 긴박감을 표현하고 있다.
- ④ 흑백의 대비를 통해 회화적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다.
- ⑤ 가상의 상황을 통해 자기반성의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32.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김영랑의 「모란이 피기까지는」과 김종길의 「고고」는 대상이 지닌 특정 속성을 통해 화자가 경험한 아름다움을 드러낸다. 「모란이 피기까지는」에서는 봄이라는 계절에 소멸을 앞둔 대상을 통해, 「고고」에서는 겨울날 대상의 고고함이 드러나는 순간을 통해 대상의 아름다움이 경험되고 있다. 한편, 전자는 대상 자체보다는 대상에서 촉발된 주관적 정서의 표현에, 후자는 정서의 직접적 표현보다는 대상 자체의 묘사에 중점을 두고 있다.

- ① (가)에서는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주체를 직접 노출하여 정서를 표현하고 있군.
- ② (가)에서는 한정된 시간 동안 존속하는 속성이 대상의 아름다움을 강화하고 있군.
- ③ (나)에서는 대상의 높이가 고고한 아름다움을 결정하는 유일한 조건이군.
- ④ (나)는 대상의 고고한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순간과 그렇지 않은 때의 모습을 대비하고 있군.
- ⑤ (가)와 (나)는 각각 특정한 계절적 배경을 통해 대상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군.

33. ㉠, ㉡과 관련지어 (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의 '설움'은 ㉠을 경험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요인을 나타낸다.
- ② (가)의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는 ㉠의 경험이 화자의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큼을 나타낸다.
- ③ (가)의 '찬란한 슬픔'은 ㉠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강렬한 정서를 나타낸다.
- ④ (나)의 '어느 겨울날 이른 아침'은 ㉡을 경험할 수 있는 특정 시간을 나타낸다.
- ⑤ (나)의 '가볍게 눈을 쓰는'은 ㉡을 경험하기 위한 대상의 요건을 나타낸다.

[34~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5.09B

죽음을 거부하면서도 삶답지 못한 생존의 늪을 허우적거릴 때, 이 도시의 생활환경이 왜 자연을 파손시키느냐의 또 다른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와 동시에 나는 동진강 하구의 삼각주 개펄에서 새 떼를 만난 것이다. 실의의 낙향 생활로 술만 죽여 내던 내 갇힌 생활 안으로 나그네새의 울음소리가 화듯불처럼 살아나기 시작했다. 새가 내 머릿속으로 자유자재 날아다녔다. ㉠ 수백 마리로 떼를 이루어 의식의 공간을 무한대로 휘저었다. 새 중에서도 동진강 하구에서 자취를 감춘 도요새였다. 나는 도요새를 찾아 헤매었다. 그중 중부리도요를 발견하기 위해 휴일에는 정배형과 함께, 그 외의 날은 나 혼자서 동남만 일대의 습지와 못과 개펄을 싸돌았다. 그러나 봄은 짧았고 곧 초여름으로 접어들었다. 그때는 이미 물떼새목의 도요새과에 포함된 그 무리는 우리나라 남단부를 거쳐 휴전선 하늘을 질러 북상한 뒤였다. ㉡ 다시 도요새 무리가 도래할 시절을 만해의 임처럼 기다렸다. 그래서 시베리아 알래스카 캐나다의 툰드라에서 편도 일만 킬로미터를 날아 남으로 남으로 내려오는 그 작은 새 떼의 길고 긴 여정에 밤마다 동참했던 것이다. 나의 일상이 너무 권태스러울 정도로 자유스러우면서, ㉢ 전혀 자유스럽지 못한 내 사과의 굳게 닫힌 문을 도요새가 그 날카로운 부리로 쪼며 밀려들었다. 그리고 떠남의 자유와 고통에 대해 여러 말을 재잘거렸다.

— 우리는 여름에 그 한대의 추운 지방에서 번식하여 가을이면 지구의 반을 가로지르는 여행길에 오른다. 우리는 떠나야 할 때를 안다. 얇은 햇살 아래 파르스름하게 살아 있던 이기류와 작은 떨기나무가 잿빛으로 시들고, 긴 밤이 저 북빙의 찬바람을 몰아올 때쯤이면 우리는 여정의 채비를 차린다. 여름 동안 부쩍 큰 새끼들도 날개를 손질하며 출발의 한때를 기다린다. 우리의 여행은 자유를 찾기 위한 고통의 길고 긴 도정이다. 처음 떠날 때, 우리는 무리를 이룬다. 그러나 창공을 가로질러 쉬지 않고 날 때는 다만 혼자 날 뿐이다. 마라톤 선수가 사십이 점 일구오 킬로를 완주할 때는 오직 자기 자신의 극기와의 싸움이라고 말했다. 작은 심장으로 숨 가빠 하며 열심히 열심히 혼자 날아간다. 그렇다고 방향이나 길을 잃는 법은 없다. 혼자 날지만 결코 혼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각각 떨어진 개체의 몸이지만 나는 속도가 일정하고 행로가 분명하므로 우리는 낙오되거나 결코 헤어지지 않는다. 오백만 년 전 신생대부터 우리 조상들은 그런 고통의 긴 여행을 터득해 왔다. 인간 으로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바다와 하늘이 맞물려 있는 무공 천지에 길을 열어 봄 가을 두 차례를 대이동으로 장식해 온 것이다. 오직 생활환경에 적응키 위해서라는 한마디로 치부해 버린다면 인간도 거기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 오히려 인간은 거기에 적응하기 위해 사악하고 간사하고 탐욕하고 음란하고 권력욕에 차 있어, 자연의 환경을 파괴하고 끝내 너희들 스스로까지 파멸시키기 위해 기계와 조직의 노예가 되고 있지 않은가…….

㉣ 나는 여름 내내 도요새의 이런 재잘거림을 꿈을 통해, 또는 환청으로 들어 왔다. 가을이 왔다. 그러나 이제 동진강 하류의 삼각주에서 중부리도요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 아니, 중부리도요보다 몸집이 좀 큰 마도요, 등이 불그스름한 민물도요도 볼 수가 없었다. 동진강은 이미 공장 지대에서 흘러내린 폐수로 수질이 크게 오염되고 말았다. 그래서 그 많은 철새와 나그네새 중에 이제는 공해에 비교적 강한 몇 종류의 철새와 나그네새만이 도래할 뿐이다. 바다쇠오리 청둥오리 등의 오리 무리와, 흰목물떼새 꼬마물떼새 등의 물떼새 무리가 그것이다. 나는 열 개의 미터글라스가 꽃힌 시험관꽃이를 들고 동진강의 지류로 수질 오염도가 아주 높은 석교천 독 위를 걷고 있었다.

(중략)

나는 시험관꽃이를 들고 자갈밭으로 되돌아 걷기 시작했다. 이제 석교천은 살아 있는 물이라 부를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석교천 물은 이미 죽어 버렸다. 아니, 악마의 혼으로 살아 있다. 이 폐유가 결국 동진강으로 흘러들어 가지 않는가. 그렇다면 강폭이 팔십 미터에 가까운 동진강은 몰라도 이 석교천에는 분명 인체에 절대적인 영향을 줄 만큼의 크롬산이나 수은을 함량하고 있을 것이다. 또 석교천 주민 중 십 년이나 이십 년 뒤 육가 크롬화로 알지 않는다고 누가 감히 장담할 수 있을 것인가. 나는 자갈밭에 앉아 양말을 신었다. “두고 봐라. 내가 기필코 석교천은 물론 동진강까지 예전의 자연수 상태로 만들고 말 테니.” 누가 들으란 듯 내가 말했다. ㉤ 나 자신도 수천 번을 반복하여 이미 자기 최면에 걸린 말이였다. 누가 이 말을 듣는다면 그것은 터무니없는 헛된 집념이라고 나를 비웃을지도 몰랐다. 아니 미쳤다고 손가락질할 것이다. 그러나 지구의 절반을 한 해에 두 번씩이나 건너다니는 그 작은 도요새의 고통보다는 그 일이 내게 결코 어렵게 생각되지 않았다.

- 김원일, 「도요새에 관한 명상」 -

34. 윗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어리숙한 인물을 서술자로 내세워 진술의 해석성을 강화하고 있다.
- ② 주변 인물이 서술자가 되어 주인공의 행동과 심리를 제시하고 있다.
- ③ 서술자가 자신의 체험을 진술하여 현실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서술자가 관찰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전달함으로써 객관성을 높이고 있다.
- ⑤ 작중 인물이 아닌 서술자의 전지적 시점을 통해 갈등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35.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인물의 의식이 대상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 ② ㉡: 인물이 대상과의 만남을 간절하게 염원하고 있다.
- ③ ㉢: 인물의 의식이 대상에 의해 작성되고 있다.
- ④ ㉣: 인물이 대상의 존재를 의도적으로 부인하고 있다.
- ⑤ ㉤: 인물의 의지가 확고해진 상태에 이르렀다.

36. [A]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도요새들 간의 논쟁적 상황을 설정하여 도요새의 지혜로움을 부각하고 있다.
- ② 도요새의 말이라는 우화적 장치를 통해 인간 세계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 ③ 도요새의 이동에 따른 공간 변화를 통해 도요새 무리의 갈등 해소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 ④ 도요새의 비행경로에 관한 관찰 결과를 제시하여 인간 문명의 발전 과정을 비유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⑤ 도요새의 습성과 인간의 특성을 비교하여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며 공존하고 있는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37. 윗글의 [도요새]와 <보기>의 [매화]에 대하여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어리고 성긴 [매화] 너를 믿지 않았더니
 눈 기약(期約) 능(能)히 지켜 두세 송이 피었구나
 축(燭) 잡고 가까이 사랑할 제 암향부동(暗香浮動)*하더라
 - 안민영, 「매화사」 제2수 -

* 암향부동: 그윽한 향기가 은근히 떠돌음.

- ① '도요새'는 인물에게 자신감을 주고, '매화'는 화자에게 자존감을 상실하게 한다.
- ② '도요새'는 인물의 욕망을 대리 표현하고, '매화'는 화자가 극복해야 할 존재를 의미한다.
- ③ '도요새'는 인물에 종속된 존재를 표상하고, '매화'는 화자에게서 독립된 존재를 상징한다.
- ④ '도요새'는 작지만 인물에게 교훈을 주고, '매화'는 어리지만 화자에게 경이로움을 느끼게 한다.
- ⑤ '도요새'는 현실의 문제를 회피하고자 하는 인물의 태도를 표상하고, '매화'는 화자가 추구하는 이념을 상징한다.

[38~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15.09B

이때 천자가 옥새*를 목에 걸고 향서*를 손에 든 채 진문 밖으로 나오다가 보니, 뜻밖에 호통 소리가 나며 어떤 한 대장이 적장 문걸의 머리를 베어 들고 중군으로 들어가거늘, 매우 놀라고 또 기뻐서 말하기를,

“적장 벤 장수 성명이 무엇이나? 빨리 모시고 들어오라.”

충렬이 말에서 내려 천자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천자 급히 물어 말하기를,

“그대는 뉘신데 죽을 사람을 살리는가?”

충렬이 부친 유심의 죽음과 어려서 홀로 된 자신을 길러준 장인 강희주의 죽음을 몹시 원통하고 분하게 여겨 통곡하며 여쭙되,

[A] “소장은 동성문 안에 살던 유심의 아들 충렬입니다. 사방을 떠돌아다니면서 빌어먹으며 만 리 밖에 있다가 아버지의 원수를 갚으려고 여기 왔습니다. 폐하께서 정한담에게 퍽박을 당하리라곤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예전에 정한담과 최일귀를 충신이라 하시더니 충신도 역적이 될 수 있습니까? 그자의 말을 듣고 충신을 멀리 귀양 보내어 죽이고 이런 환난을 만나시니, 천지가 아득하고 해와 달이 빛을 잃은 듯합니다.”

하고, 슬피 통곡하며 머리를 땅에 두드리니, 산천초목이 슬퍼하며 진중의 군사들도 눈물을 흘리지 않는 이가 없더라. 천자도 이 말을 들으시고 후회가 막급하나 할 말 없어 우두커니 앉아 있더라.

한편 적진에 잡혀갔던 태자는, 본진에서 문걸의 목을 베는 것을 보고 급히 도주해 와서 천자 곁에 앉아 있다가, 충렬의 말을 듣고 버선발로 내려와서 충렬의 손을 붙들고 말하였다.

[B] “경이 이게 웬 말인가? 옛날 주나라 성왕도 관속과 채숙의 말을 듣고 주공을 의심하다가 잘못을 깨닫고 스스로 꾸짖어 훌륭한 임금이 되었으니, 충신이 죽는 것은 모두 다 하늘에 달린 일이다. 그런 말을 말고 온 힘으로 충성을 다하여 천자를 도우시면, 태산 같은 그대 공로는 천하를 반분하고, 하해 같은 그 은혜는 죽은 뒤에라도 풀을 맺어 갚으리라.”

충렬이 울음을 그치고 태자의 얼굴을 보니, 천자의 기상이 뚜렷하고 한 시대의 성군이 될 듯하여 투구를 벗어 땅에 놓고 천자 앞에 사죄하여 말하였다.

“소장이 아버지의 죽음을 한탄하여 분한 마음이 있는 까닭에 격절한 말씀을 폐하께 아뢰었으니 죄가 무거워 죽어도 안타깝지 아니합니다. 소장이 죽을지언정 어찌 폐하를 돕지 아니하겠습니까?”

천자가 충렬의 말을 듣고 친히 계단 아래로 내려와서 투구를 씌우고 대원수를 명하며 손을 잡고 하는 말이,

“과인은 보지 말고 그대 선조의 입국 공업을 생각하여 나라를 도와주면, 태자가 말한 대로 그대의 공을 갚으리라.”

[중략 부분의 줄거리] 유충렬은 남적의 선봉장이 된 정한담과의 대결에서 승리하고, 다시금 위기에 처했던 천자·황후·태후·태자를 구출한다. 이후, 유심과 강희주를 구하고 모친과 부인을 찾은 후 장안으로 돌아온다.

이때 장안의 온 백성들이 남적에게 잡혀갔던 며느리며 딸이며 동생들이 본국으로 돌아온다는 말을 듣고, 호산대 십 리 뜰에 빈틈없이 마중 나와 손과 치마를 부여잡고 그리던 마음 못내 즐거워하는지라, 이들의 울음소리가 공중에 뒤섞이어 호산대가 떠나갈 듯하였으며, 원수 유충렬과 모친 장 부인을 치사하는 소리 낭자하고 요란하였다.

금산성에 이르러 천자와 태후가 가마에서 바빠 내려 장막 밖으로 나오는지라, 원수가 감옥과 투구를 갖추고 군사 의 예로써 천자에게 인사를 올리니, 천자와 태후가 원수의 손을 잡고 못내 치사하며 말하였다.

“과인의 수족을 만리타국에 보내고 밤낮으로 염려하였는데, 이렇듯 무사히 돌아오니 즐거운 마음을 어찌 다 말로 하겠는가. 옥문관으로 귀양 간 승상 강희주를 찾아 구하고 더불어 남적을 물리친 일과, 돌아오는 길에 그간 죽은 줄 알았던 그대의 모친과 부인 강 낭자를 만나 데려온 일은 모두 천추에 드문 일이다. 그대의 은혜는 죽어도 잊기 어려운지라, 입이 열 개라도 어떻게 그 말을 다 하리오.”

태후가 유 원수를 치사한 후에 조카 강 승상을 부르시니, 강 승상이 바빠 들어와 땅에 엎드리는지라, 태후가 강 승상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야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으리오. 천자가 내려와 강 승상의 손을 잡고 위로하며 말하였다.

“과인이 현명하지 못하여 역적의 말을 듣고 충신을 먼 지방으로 귀양을 보내어 가족들과도 이별을 했으니, 무슨 면목으로 경을 대면하리오. 그러나 이미 지나간 일이니 잘잘못을 따지지 말기 바라오.”

한편 이미 장안으로 돌아와 연왕이 된 유심은 장 부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공중에 떠서 충렬이 나오기를 고대하였다. 원수가 천자에게 물러 나와 연왕 앞에 엎드려 아뢰기를, “불효자 충렬이 남적을 소멸하고 오는 길에 회수에 와 모친을 기리는 제사를 지내다가, 천행인지, 뜻밖에도 죽은 줄 알았던 모친을 만나 모시고 왔습니다!”

하니, 연왕이 반가움을 ㉠이기지 못하여 말하였다.

“너의 모친이 어디 오느냐?”

이때 장 부인이 이미 휘장 밖에 있다가 남편 유심의 말소리를 듣고 반가운 마음을 어찌하지 못하고 미친 듯이 취한 듯이 들어가니, 연왕이 부인을 붙들고 말하였다.

“멀고 먼 황천길에 죽은 사람도 살아오는 법 있는가? 백골이 된 당신을 어떤 사람이 살려 왔느냐. 뉘 집 자손이 모셔왔느냐. 충렬아, 네가 분명 살려 왔느냐? 간신의 모함으로 유배를 가게 된 내가 북방 천리만리 호국 일당에 잡혀 죽을 줄 알았더니, 십 년 전에 헤어진 부인을 다시 만나고, 일곱 살에 부모와 이별하여 갓은 고난을 겪은 충렬을 이렇듯이 다시 만나 영화를 볼 줄이야 꿈속에서나 생각할 수 있었겠는가!”

- 작자 미상, 「유충렬전」 -

* 옥새: 옥으로 만든, 나라를 대표하는 도장.

* 향서: 항복을 인정하는 문서.

38.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간적 배경을 묘사하여 사건의 사실성을 높인다.
- ② 꿈과 현실을 교차하여 사건을 입체적으로 구성한다.
- ③ 초월적 공간을 설정하여 사건을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한다.
- ④ 서술자의 개입과 인물의 발화를 통해 인물의 심리를 드러낸다.
- ⑤ 전쟁 장면의 구체적인 묘사를 통해 사건의 긴박감을 고조한다.

39.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천자'가 '장수'에게 "그대는 낚신데 죽을 사람을 살리는가?" 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천자'는 '장수'의 능력에 놀라움을 표하고 있다.
- ② '유충렬'이 '천자' 앞에서 '유심'이 죽었다며 원통해하는 것으로 보아, '유충렬'은 부친이 죽은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
- ③ '군사들' 중에 '유충렬'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지 않는 이'가 없는 것으로 보아, '군사들'은 '유충렬'의 심정에 공감하고 있다.
- ④ '유충렬'이 '천자'를 도와 전쟁에 나가겠다고 약속하는 것으로 보아, '유충렬'은 '태자'의 말과 기상에 감화되어 스스로를 반성하고 있다.
- ⑤ '천자'가 '유충렬'에게 '과인은 보지 말고' 나라를 구하라고 권유하는 것으로 보아, '천자'는 '유심'의 귀양에 대한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40. [A], [B]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서는 자신의 정체를 밝히면서 상대방에 대한 원망을 드러낸다.
- ② [A]에서는 비유적 표현을 통해 상대방에게 자신의 심경을 토로한다.
- ③ [B]에서는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로 하여 상대방의 견해를 옹호한다.
- ④ [B]에서는 보답의 의지를 표명하여 상대방의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
- ⑤ [B]에서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역할과 본분에 충실할 것을 강조한다.

41.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유충렬전」에서 유충렬은 가족의 위기로 인해 두 차례의 시련을 겪는다. 그런데 첫 번째 시련은 충신인 부친 유심과 간신의 정치적 갈등이, 두 번째 시련은 충신인 장인 강희주와 간신의 정치적 갈등이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가족의 위기는 국가의 위기와 관련된다. 이로 인해 유충렬은 가족의 위기와 국가의 위기를 모두 해결해야 하는 과업을 부여받게 되는데, 이 두 과업이 함께 해결되는가 하면 우연한 계기로 연이어 해결되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유충렬은 영웅으로 귀환한다.

- ① 유충렬이 일곱 살에 부모와 이별하여 고난을 겪은 것에서, 유충렬의 첫 번째 시련은 '유심'의 유배로 인한 가족의 이산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군.
- ② '천자'가 '역적'의 말을 듣고 '충신'을 귀양 보낸 것에서, 유충렬의 두 번째 시련은 '역적'과의 정치적 갈등으로 인한 '강희주'의 유배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군.
- ③ 유충렬이 '강희주'를 구하고 더불어 '남적'을 물리친 것에서, 유충렬이 가족의 위기와 국가의 위기를 함께 해결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④ 유충렬이 '남적'을 소멸하고 오는 길에 '모친'을 만난 것에서, 우연한 계기에 가족 위기의 해소가 국가 위기의 해소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⑤ '남적'을 소탕하고 금의환향하는 유충렬을 백성들이 환대하는 것에서, 유충렬이 영웅으로 귀환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42. ㉠의 문맥적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나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 ② 친구는 제 몸을 이기지 못하고 비틀거렸다.
- ③ 형은 온갖 역경을 이기고 마침내 성공했다.
- ④ 우리 팀이 상대를 큰 차이로 이기고 우승했다.
- ⑤ 삼촌은 병을 이기고 마침내 건강을 회복하였다.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5.09B

천상(天上) 백옥경(白玉京) 십이루(十二樓) 어디매오
 오색운(五色雲) 깊은 곳에 자청전(紫淸殿)이 가렸으니
 천문(天門) ㉠ 구만 리(九萬里)를 꿈이라도 갈동 말동
 차라리 식어지어 억만(億萬) 번 변화(變化)하여 [A]
 남산(南山) 늦은 봄에 두견(杜鵑)의 녀이 되어
 이화(梨花) 가지 위에 밤낮을 못 울거든
 삼청동리(三清洞裡)*에 저문 하늘 ㉡ 구름 되어
 ㉢ 바람에 홀리 날아 자미궁(紫微宮)에 날아올라
 옥황(玉皇) 향안 전(香案前)의 지척(咫尺)에 나아 앉아
 흉중(胸中)에 쌓인 말씀 쓸커시 사뢰리라 [B]
 어와 이 내 몸이 천지간(天地間)에 늦게 나니
 황하수(黃河水) 맑다마는
 ㉣ 초객(楚客)*의 후신(後身)인가 상심(傷心)도 끝이 없고
 가 태부(賈太傅)*의 녀이런가 한숨은 무슨 일고
 형강(荊江)은 고향(故鄉)이라 십 년(十年)을 유락(流落)하니
 ㉤ 백구(白鷗)와 벗이 되어 함께 놀자 하였더니
 어루는 듯 피는 듯 남의 없는 입을 만나
 금화성(金華省) 백옥당(白玉堂)의 꿈이조차 향기롭다
 오색(五色)실 이음 짙아 입의 웃을 못 하여도
 바다 같은 입의 은(恩)을 추호(秋毫)나 갇으리라 [C]
 백옥(白玉) 같은 이 내 마음 입 위하여 지키더니
 장안(長安) 어젯밤에 무서리 섞여 치니 [D]
 일모 수죽(日暮脩竹)*에 취수(翠袖)도 냉박(冷薄)할사* [E]
 유란(幽蘭)을 꺾어 쥐고 입 계신 데 바라보니 [F]
 약수(弱水) 가려진 데 구름 길이 험하구나

- 조위, 「만분가(萬憤歌)」 -

- *삼청동리: 신선이 사는 동네 안.
- *초객: 초나라의 시인 굴원.
- *가 태부: 한나라의 태부 가의.
- *일모 수죽: 해 질 녘 긴 대나무.
- *취수도 냉박할사: 푸른 옷소매도 차디차구나.

43.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연물을 활용하여 화자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② 반어적 표현을 반복하여 상대방을 회화화하고 있다.
- ③ 의성어와 의태어를 사용하여 생동감을 높이고 있다.
- ④ 풍자적 기법을 활용하여 교훈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 ⑤ 구체적인 묘사를 통해 경물의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44. ㉠~㉤의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화자와 대상 사이의 거리
- ② ㉡: 화자와 대상 사이를 가로막는 방해물
- ③ ㉢: 화자와 대상의 만남을 도와주는 매개
- ④ ㉣: 화자가 동질감을 느끼는 존재
- ⑤ ㉤: 화자가 교감을 나누는 존재

45. <보기 1>을 참고하여 윗글과 <보기 2>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1>

「만분가」는 유배를 간 작가가 천상의 옥황에게 호소하는 형식으로 연군(戀君)의 마음을 표현한 유배 가사의 효시이며 이후 여러 작품에 영향을 주었다. 가사 문학의 대표작인 「속미인곡」 역시 탄핵을 받아 조정에서 물러나게 된 작가가 임금에 대한 그리움을 「만분가」의 형식을 계승하여 표현한 작품이다.

<보기 2>

모첩(茅簷) 찬 자리에 밤중만 돌아오니 [가]
 반벽청등(半壁靑燈)은 늘 위하여 밝았는고
 오르며 내리며 헤매며 바장이니
 저근덧 역진(力盡)하여 풋잡이 잠깐 드니
 정성이 지극하여 꿈에 입을 보니
 옥(玉) 같은 얼굴이 반(半)이 넘게 늙으셨네 [나]
 마음에 먹은 말씀 슬카장 삶자 하니 [다]
 눈물이 바라 나니 말씀인들 어이 하며
 정(情)을 못 다하여 목이조차 메었으니
 방정맞은 계성(鷄聲)에 잠은 어찌 깨었는고
 어와 허사(虛事)로다 이 입이 어디 간고
 곁에 일어나 앉아 창(窓)을 열고 바라보니 [라]
 어여쁜 그림자 날 좇을 뿐이로다
 차라리 식어지어 낙월(落月)이나 되어 있어 [마]
 입 계신 창(窓) 안에 번듯이 비추리라

- 정철, 「속미인곡(續美人曲)」 -

- ① [A]와 [마]에는 죽어서 다른 존재가 되어서라도 자신의 소망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다.
- ② [B]와 [다]에는 마음에 담아 둔 말을 실컷 전하고 싶어 하는 화자의 바람이 담겨 있다.
- ③ [C]와 [나]에는 임금에 대한 자신의 마음이 옥처럼 순수하다는 뜻이 담겨 있다.
- ④ [D]와 [가]에는 임금과 떨어져 있는 고독한 시·공간에서 느끼는 화자의 쓸쓸함이 담겨 있다.
- ⑤ [E]와 [라]에는 먼 곳에 있는 임금을 향한 화자의 그리움이 담겨 있다.

[31~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5.09A

나무는 자기 몸으로
 나무이다
 자기 온몸으로 나무는 나무가 된다
 자기 온몸으로 헐벗고 영하 13도
 영하 20도 지상에
 온몸을 뿌리 박고 대가리 쳐들고
 무방비의 나목(裸木)으로 서서
 두 손 올리고 벌받는 자세로 서서
 아 벌받은 몸으로, 벌받은 목숨으로 기립하여, 그러나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온 혼(魂)으로 애타면서 속으로 몸속으로 불타면서
 버티면서 거부하면서 영하에서
 영상으로 영상 5도 영상 13도 지상으로
 밀고 간다, 막 밀고 올라간다
 온몸이 으스스지도록
 으스스지도록 부르터지면서
 터지면서 자기의 뜨거운 혀로 짝을 내밀고
 천천히, 서서히, 문득, 푸른 잎이 되고
 푸르른 사월 하늘 들이받으면서
 나무는 자기의 온몸으로 나무가 된다
 아아, 마침내, 끝끝내
 꽃 피는 나무는 자기 몸으로
 꽃 피는 나무이다

- 황지우, 「겨울-나무로부터 봄-나무에로」 -

[A]

[B]

31. 윗글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말을 건네는 방식을 통해 대상과의 친밀감을 높이고 있다.
- ② 반복과 점층적 표현으로 대상의 역동적 측면을 드러내고 있다.
- ③ 근경에서 원경으로 시선을 이동하면서 대상을 포착하고 있다.
- ④ 토속어를 통해 화자의 자연 친화적인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 ⑤ 의성어와 의태어를 구사하여 화자의 심정을 선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32. [A]와 [B]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는 겨울-나무의 상승적 이미지가, [B]에서는 봄-나무의 하강적 이미지가 나타난다.
- ② [A]의 ‘뿌리 박고’는 겨울-나무의, [B]의 ‘부르터지면서’는 봄-나무의 좌절감을 드러낸다.
- ③ [A]의 ‘대가리 쳐들고’는 겨울-나무가, [B]의 ‘들이받으면서’는 봄-나무가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는 속성을 드러낸다.
- ④ [A]의 ‘두 손’은 겨울-나무의 외양을, [B]의 ‘뜨거운 혀’는 봄-나무의 열정을 비유한 표현이다.
- ⑤ [A]의 ‘벌’은 겨울-나무의, [B]의 ‘ 짝’은 봄-나무의 고통을 상징한다.

33.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이 시는 나무의 변화가 자기 부정을 통해서 일어나고, 생성은 나무 스스로의 내적인 힘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즉 겨울에서 봄으로의 변화는 단지 외부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나무 내부의 변화와 생성을 위한 전면적인 노력과 관련된 것임을 의미하고 있다.

- ①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는 나무가 변화를 지향하며 자기 부정을 하는 장면으로 볼 수 있다.
- ② ‘밀고 간다, 막 밀고 올라간다’는 나무의 의지로 나무가 내적인 힘을 쏟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온몸이 으스스지도록’은 나무가 변화와 생성을 위해 기울이는 전면적인 노력을 강조하는 것이다.
- ④ ‘마침내, 끝끝내’는 겨울-나무가 마지막까지 겨울-나무이고자 하는 의지를 표현한다.
- ⑤ ‘꽃 피는 나무’는 나무가 스스로의 변화를 거쳐 새로운 단계로 성장했음을 표상하는 것이다.

[34~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15.09A

(가)

버스의 덜컹덜컹거림이 좀 덜해졌다. 버스의 덜컹덜컹거림이 더 하고 덜하는 것을 나는 턱으로 느끼고 있었다. 나는 몸에서 힘을 빼고 있었으므로 버스가 자갈이 깔린 시골길을 달려오고 있는 동안 내 턱은 버스가 경중거리는데 따라서 함께 덜그럭거리고 있었다. 턱이 덜그럭거리릴 정도로 몸에서 힘을 빼고 버스를 타고 있으면, 긴장해서 버스를 타고 있을 때보다 피로가 더욱 심해 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열린 차창으로 들어와서 나의 밖으로 드러난 살갓을 사정없이 간지럽히고 불어 가는 유월의 ㉠바람이 나를 반수면 상태로 끌어넣었기 때문에 나는 힘을 주고 있을 수가 없었다. 바람은 무수히 작은 입자(粒子)로 되어 있고 그 입자들은 할 수 있는 한 욕심껏 수면제를 품고 있는 것처럼 내게는 생각되었다. 그 바람 속에는 신선한 햇살과 아직 사람들의 땀에 밴 살갓을 스쳐보지 않았다는 천진스러운 저온(低溫), 그리고 지금 버스가 달리고 있는 길을 에워싸며 버스를 향하여 달려오고 있는 산줄기의 저편에 바다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소금기, 그런 것들이 이상스레 한데 어울리면서 녹아 있었다. 햇빛의 신선한 밝음과 살갓에 탄력을 주는 정도의 공기의 저온, 그리고 해풍(海風)에 섞여 있는 정도의 소금기, 이 세 가지만 합성해서 수면제를 만들어 낼 수 있다면 그것은 이 지상(地上)에 있는 모든 약방의 진열장 안에 있는 어떠한 약보다도 가장 상쾌한 약이 될 것이고 그리고 나는 이 세계에서 가장 돈 잘 버는 제약회사의 전무님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조용히 잠들고 싶어 하고 조용히 잠든다는 것은 상쾌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런 생각을 하자 나는 ㉡쓴웃음이 나왔다. 동시에 무진이가 가까웠다는 것이 더욱 실감되었다. 무진에 오기만 하면 내가 하는 생각이란 항상 그렇게 엉뚱한 공상들이었고 뒤죽박죽이었던 것이다. 다른 어느 곳에서도 하지 않았던 엉뚱한 생각을 나는 무진에서는 아무런 부끄럼 없이, 거침없이 해내곤 했던 것이다. 아니 무진에서는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어찌고 하는게 아니라 어떤 생각들이 나의 밖에서 제멋대로 이루어진 뒤 나의 머릿속으로 밀고 들어오는 듯했다.

“당신 안색이 아주 나빠져서 큰일 났어요. 어머니의 산소에 다녀온다는 핑계를 대고 무진에 며칠 동안 계시다가 오세요. ㉢주주 총회에서 일은 아버지하고 저하고 다 꾸며 놓을게요. 당신은 오랜만에 신선한 공기를 쐬고 그리고 돌아와 보면 대회생 제약회사의 ㉣전무님이 되어 있을 게 아니에요?”라고 며칠 전날 밤, 아내가 나의 파자마 깃을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리며 나에게 ㉤진심에서 나온 권유를 했을 때 가기 싫은 심부름을 억지로 갈 때 아이들이 불평을 하듯이 내가 몇 마디 입안엿소리로 투덜댄 것도 무진에서는 항상 자신을 상실하지 않을 수 없었던 과거의 경험에 의한 조건반사였었다.

내가 나이가 좀 든 뒤로 무진에 간 것은 몇 차례 되지 않았지만 그 몇 차례 되지 않은 무진행이 그러나 그때마다 내게는 서울에서의 실패로부터 도망해야 할 때거나 하여튼 무언가 새 출발이 필요할 때였었다. 새 출발이 필요할 때 무진으로 간다는

그것은 우연이 결코 아니었고 그렇다고 무진에 가면 내게 새로운 용기라든가 새로운 계획이 술술 나오기 때문도 아니었다.

- 김승옥, 「무진기행」 -

(나)

S#4. 윤기준의 방 안 (저녁) (현재)

여행용 케이스에 화사한 남성용 의류와 세면도구 등이 차곡 차곡 담겨진다. 챙겨 넣는 손, 잠깐 사라졌다가 다시 담겨지곤 하던 중 액자에 든 남녀 사진 한 틀. (인서트*) 의젓하고 여유 있어 보이는 아내와 윤기준의 나란한 사진. 방에 붙은 욕실에서 나오는 윤기준, 로우브*를 벗는다. 넥타이를 매어 주는 아내의 손에 맡기고 목을 길게 하고 있는 윤기준의 상반신.

윤기준: 하필 무진에서 쉬어야 하나? 원…….

아 내: ㉞* 당신 요즘 안색 보면 제가 바싹바싹 마르는 것 같아요. 어머니 성모도 하실 겸 좋지 않아요? 저도 같이 갔으면 좋겠지만 이번 주주 총회 작전에는 아버님 옆에 제가 꼭 붙어서 다녀야 할 것 같으니……. 꼭 쉬시다 오시면 대회생제약주식 회사의 전무이사님 자리가 기다리구 있을 테구…….

S#5. 같은 방 창밖 풍경 (저녁) (현재)

가로등이 일제히 켜지고 집집마다 불이 켜진 아름다운 저녁 풍경.

(중략)

S#11. 시골 자동차길 (낮) (현재)

도망하듯이 시골의 자갈길을 달리고 있는 버스.

S#12. 버스 안 (낮) (현재)

버스 차창에서 내다보이는 풍경이 주마등 같다. 가로수와 논, 밭 등을 뒤로 훑훑 보낸다. 산 틈으로 지저분한 바다가 보인다.

- 김승옥, 「안개」* -

*인서트(Insert): 삽입된 장면. 장면과 장면 사이에 신문이나 편지, 사진 등이 끼이는 것.

*로우브: 길고 품이 넓은 겹옷. 여기서는 목욕 가운.

*㉞: 효과음(Effect). 주로 화면 밖에서의 음향이나 대사에 의한 효과를 말함.

*「안개»: 「무진기행」을 각색한 시나리오임.

34. (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내면 의식의 서술을 통해 주인공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인물 간의 대화를 빈번히 제시하여 갈등을 해소시키고 있다.
 - ③ 간결한 문체를 사용하여 중심 사건의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 ④ 역사적인 사건을 회고적으로 서술하여 시대 배경을 부각시키고 있다.
 - ⑤ 장면의 잦은 전환을 통해 인물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35.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나'에게 긴장을 풀고 공상에 빠지게 하는 존재이다.
 - ② ㉡: 엉뚱한 공상을 하던 '나'에 대해 자조하는 모습이 엿보인다.
 - ③ ㉢: '나'의 무진행의 계기 중 하나로 작용한다.
 - ④ ㉣: '나'에게 기대하는 '아내'의 욕망이 드러나고 있다.
 - ⑤ ㉤: '아내'의 말을 긍정하며 그녀의 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나'의 태도를 드러낸다.

36. (나)는 (가)를 각색한 시나리오다.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에서는 서사 진행을 시간 순서대로 서술하고 있는 데 비해, (나)에서는 회상의 방식으로 보여 주고 있다.
 - ② (가)에서는 '아내'에 대한 주인공의 반응을 비유적 표현으로 서술한 데 비해, (나)에서는 대사로 처리하여 전달하고 있다.
 - ③ (가)에서는 '아내'의 말을 인용하여 서술하고 있는 데 비해, (나)에서는 '아내'의 말을 효과음으로 처리하여 보여 주고 있다.
 - ④ (가)에서는 공간의 변화를 서술하여 제시하는 데 비해, (나)에서는 '윤기준의 방 안', '시골 자동차길', '버스 안'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 ⑤ (가)는 버스의 덜컹거림이 주는 느낌을 서술자가 직접 서술해 주는 데 비해, (나)는 그 느낌을 버스가 자갈길을 달리는 모습으로 보여 줌으로써 전달하고 있다.

37.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장면(scene)은 시나리오를 이루는 기본 단위로 일정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행동을 뜻한다. 장면은 주로 시간이나 공간이 변할 때 나뉜다. 구분된 장면들은 서로 연결되면서 행동의 연속성이나 카메라의 위치에 따른 시선의 변화를 통해 영화의 내용을 담아내게 된다. 장면 속에 담긴 여러 표현들은 영상을 구성하는 요소와 의도를 나타내기도 한다.

- ① S#4에서 인서트된 사진은 인물의 분열된 의식을 보여 주기 위해 선택된 요소이다.
- ② S#4에서 등장하는 공간과 소품들은 주인공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선택된 요소들이다.
- ③ S#5의 창밖 풍경은 S#4의 공간과 대조되어 인물 간의 갈등을 강화시키고 있다.
- ④ S#4에서 S#5로의 전환은 방 안의 우울한 분위기가 도시 전체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 ⑤ S#11에서 S#12로의 전환은 카메라의 시선이 버스의 내부에서 외부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 준다.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15.09A

(가)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천 년을 ㉣외따로이 살아간들
㉤천 년을 외따로이 살아간들
믿음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제6연>

- 작자 미상, 「정석가」 -

(나)

입이 오마 하거늘 저녁밥을 일찍 지어 먹고
중문(中門) 나서 대문(大門) 나가 지방 위에 올라가 앉아 손을
이마에 대고 오나가 가는가 건넌 산 바라보니 거머희뚝* 서
있거늘 저것이 입이로구나. 버선을 벗어 품에 품고 신 벗어 손에
쥐고 콤비임비* 임비곰비 천방지방* 지방천방 진 데 마른 데를
가리지 말고 워렁통탕 건너가서 정(情)앳말 하려 하고 결눈으로
홀깃 보니 작년 칠월 사흔날 꺾질 벗긴 주추리 삼대*가 살뜰히도
날 속였구나.

모쳐라 밤이기에 망정이지 행여나 낮이런들 남 웃길 뻔하였
어라.

- 작자 미상 -

- * 거머희뚝: 검은빛과 흰빛이 뒤섞인 모양.
- * 콤비임비: 거둬거둬 앞뒤로 계속하여.
- * 천방지방: 몹시 급하게 허둥대는 모양.
- * 삼대: 삼[麻]의 줄기.

43.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나)에 비해 시간과 공간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 ② (나)는 (가)에 비해 설의적 표현이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 ③ (가)와 (나) 모두 대조와 연쇄를 통해 생동감을 드러낸다.
- ④ (가)와 (나) 모두 걱정적 어조를 통해 고요한 분위기를 드러낸다.
- ⑤ (가)는 상황의 가정에서, (나)는 행동의 묘사에서 과장이 드러난다.

44. ㉠~㉤ 중 <보기>의 ㉡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보 기>

고려 시대에는 민간의 노래 가운데 풍속을 교화하는 데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노래를 궁중의 악곡으로 편입시켰다.
궁중 연회에서 사랑 노래가 많이 불린 것은 사랑 노래가 잔치
분위기와 잘 어울리면서도 남녀 간의 사랑을 ㉡**군신 간의**
충의로 그 의미를 확장하여 수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민간
에서 널리 불린 「정석가」가 궁중 연회의 노래로 정착된 것
역시 이런 맥락에서 볼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45. <보기>를 참고할 때, (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사설시조에서의 해학성은 독자가 화자와 거리를 두되 관용의
시선을 보내는 데서 발생한다. 화자의 착각, 실수, 급한 행동과
그로 인한 낭패가 웃음을 유발하지만 독자는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화자의 행동 이면에 있는 절실함, 진지함,
진솔함, 애뜻함, 간절함을 느끼면서 화자와 공감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다.

- ① 화자가 '저녁밥'을 짓다가 '입'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혼잣말
하는 모습에서 독자는 웃음 지으면서도 그 속에 담긴 진솔함을
공감한다.
- ② 화자가 '입'이라 여긴 '거머희뚝'한 것을 향해 '워렁통탕' 건너
가는 모습에서 독자는 웃음 지으면서도 그 속에 담긴 절실함을
공감한다.
- ③ 화자가 집 안 마당에서 서성대며 '건넌 산'을 느긋하게 바라
보는 모습에서 독자는 웃음 지으면서도 그 속에 담긴 애뜻함을
공감한다.
- ④ 화자가 처음 보는 '삼대'를 '입'으로 착각하여 '입'을 원망하는
모습에서 독자는 웃음 지으면서도 그 속에 담긴 간절함을 수용
한다.
- ⑤ 화자가 '입'이 오지 못하게 된 이유를 '밤' 탓으로 돌리는 모습
에서 독자는 웃음 지으면서도 그 속에 담긴 진지함을 수용한다.

[31~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5.06B

(가)

㉠ 차단—한 등불이 하나 비인 하늘에 걸려 있다.
내 호올로 어딜 가라는 슬픈 신호냐.

긴—어름해 황망히 나래를 잡고
늘어선 고층(高層) 창백한 묘석(墓石)같이 황혼에 젖어
찬란한 야경 무성한 잠초인 양 형클어진 채
사념(思念) 병어리 되어 입을 다물다.

㉡ 피부의 바깥에 스미는 어둠
낮설은 거리의 아우성 소리
까닭도 없이 눈물겹고나

공허한 군중의 행렬에 섞이어
내 어디서 그리 무거운 비애를 지니고 왔기에
㉢ 길—게 늘인 그림자 이다지 어두워

내 어디로 어떻게 가라는 슬픈 신호기
차단—한 등불이 하나 비인 하늘에 걸리어 있다.
- 김광균, 「와사등」 -

(나)

머리가 마늘쪽같이 생긴 고향의 소녀와
한여름을 알몸으로 사는 고향의 소년과
같이 낮이 설어도 사랑스러운 들길에 있다

그 길에 ㉣ 아지랑이가 피듯 태양이 타듯
제비가 날듯 길을 따라 물이 흐르듯 그렇게
그렇게

㉤ 천연(天然)히

울타리 밖에도 화초를 심는 마을이 있다
오래오래 잔광(殘光)이 부신 마을이 있다
밤이면 더 많이 별이 뜨는 마을이 있다.
- 박용래, 「울타리 밖」 -

31. (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수미상관의 방법을 통해 정서의 변화를 강조하고 있다.
- ② 영탄적 표현을 통해 대상에 대한 경외감을 표출하고 있다.
- ③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공간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어둠과 밝음의 대조를 통해 긍정적 미래의 도래를 암시하고 있다.
- ⑤ 화자를 작품의 표면에 나타내어 주제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 내고 있다.

32.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적막한 배경에 놓인 하나의 사물에 주목하여 화자의 쓸쓸한 처지를 환기하고 있다.
- ② ㉡: 공감각적 표현을 활용하여 현실과 이상의 거리감을 좁히고 있다.
- ③ ㉢: 특정 시어를 장음으로 읽도록 유도하여 시어의 의미와 낭송의 호흡을 조화시키고 있다.
- ④ ㉣: 동일한 연결 어미를 반복하여 다양한 소재의 동질적 속성을 부각하고 있다.
- ⑤ ㉤: 하나의 시어로 독립된 연을 구성하여 대상의 상태를 강조하고 있다.

33.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1930년대 모더니즘을 주도했던 김광균은 감성보다 지성을 중시하는 이미지즘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소화했다. 그는 상실감과 소외감 등의 정서에 회화적 이미지를 결합하여 현대 문명에 대한 태도를 보여 주었다. 1950년대 후반의 시적 경향을 보여 주는 박용래는 모더니즘의 기법에 전통과 자연에 대한 관심을 결합했다. 그는 사라져 가는 재래의 것들을 회화적 이미지로 복원하여 토속적 정취를 환기하고, 소박한 자연의 이미지를 병치하여 자연의 지속성과 인간과 자연의 조화에 대한 바람을 드러냈다.

- ① (가), (나) 모두 주로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풍경을 묘사함으로써 회화성을 잘 살리고 있군.
- ② (가)는 시간의 순환적 흐름을 통해 도시의 황폐함을, (나)는 시간의 순차적 흐름을 통해 자연의 지속성을 강조하고 있군.
- ③ (가)의 '무성한 잠초'는 인간과 문명의 불화에 따른 상심을, (나)의 '화초'는 인간과 자연의 조화에 대한 바람을 함축하고 있군.
- ④ (가)는 (나)와 달리 감정을 노출하는 시어를 빈번하게 사용하여 현대 문명으로 인한 소외감을 제시하고 있군.
- ⑤ (나)는 (가)와 달리 토속적 정취를 자아내는 시어를 활용하여 전통적 세계에 대한 지향을 드러내고 있군.

[34~3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15.06B

나는 미안스런 생각으로 건우 어머니가 따라 주는 술잔을 받았다. **[손]**이 유달리 작아 보였다. 유달리 자그마한 손이 상일에 거칠어 있는 양이 보기에 더욱 안타까울 정도였다.

기어이 저녁까지 대접하겠다고 부엌으로 가 버린 뒤, 나는 건우를 앞에 두고 잔을 들면서, 그녀의 칠칠한 인사법절에 새삼 생각되는 바가 있었다.

나는 모든 것을 다시 보았다. 농삿집치고는 유난히도 말끔한 마루청, 먼지를 뒤집어쓰고 있지 않은 장독대, 율타리 너머로 보이는 길찬 장다리꽃들…… 그 어느 것 하나에도 그녀의 손이 안 간 곳이 없으리라 싶었다. 이러한 집 안팎 광경들을 통해서 나는 건우 어머니가 꽤 부지런하고 친절할 여성이라는 것을 고대 짐작할 수가 있었다. 젊음이 한창인 열아홉부터 약지 세계 혼자서 살아왔다는

[A] 것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외아들 건우를 나룻배를 태워 가면서까지 먼 **[일류 중학]**에 보내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농촌 아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건우의 입성이 항상 깨끗했다는 사실들이 어련히 안 그러리 싶어지기도 했다. 얼핏 보아서는 어리무리한 여인 같기도 하지만 유난히 볼가진 듯한 이마라든가, 역시 건우처럼 짙은 눈썹 같은 데선 그녀의 심상치 않을 의지랄까, 정열 같은 것을 읽을 수가 있었다.

나는 술상을 물리고서, 건우의 공부방을—어머니의 방일테지만—잠깐 들여다보았다. 사과 껍질 같은 것에 종이를 발라 쓰는 **[책상]** 위에는 몇 권 안 되는 책들이 나란히 꽂혀 있었다. 그 가운데서 <섬 얘기>라고, 잉크로써 굵직하게 등마루에 씌어진 두툼한 책 한 권이 특별히 눈에 띄었다.

“섬 얘기? 저건 무슨 책이지?”

나는 건우를 돌아보고 물었다.

“암것도 아닙니다.”

“소설?”

“아닙니다.”

“어디 가져와 봐!”

건우는 싫어도 무가내라 뽑아 오면서,

“일기랑 또 책 같은 거 보고 적은 김더.”

부끄러운 내색을 하였다.

“일기는 남의 비밀이니까 읽을 수가 없고, 어디 **[책 읽는 소감]**이나 배 주세요.”

나는 책을 도로 돌려다. 건우는 마지못해 여기저길 뒤적거리다가 한 군데를 펴 주었다. 또박또박 깨알같이 박아 쓴 글씨였다.

○○○ 여사는 어머니처럼 혼자 사시는 분이려 그런지 그 분의 글에는 한결 감동되는 바가 있었다. 「내가 본 국토」 속의 한 구절—그래도 선거 때가 되면 소속 육지에서 똑딱선을 가지고 섬 백성을 모시러 오는 알뜰한 정당이 있어, 이들은 다만, 그 배로 실려 가서 실상 자기네 실생활과는 무연한 정치를 위하여 지정해 주는 기호 밑에 도장을 찍어 주고 그 배에 실려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중략)

건우 할아버지와 윤춘삼 씨가 들려준 조마이섬 이야기는 언젠가 건우가 써냈던 <섬 얘기>에 몇 가지 기막히는 일화가 붙은 것이었다.

“우리 조마이섬 사람들은 지 땅이 없는 사람들이요. 와 처음부터 없기짜 없었겠소마는 죄다 뺏기고 말았지요. 옛적부터 이 고장 사람들이 젓줄같이 믿어 오던 낙동강 물이 맨들어 준 우리 조마이섬은 ……”

건우 할아버지는 처음부터 개탄조로 나왔다.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땅, 자기들 것이라고 믿어 오던 땅이 자기들이 겨우 철 들락말락할 무렵에 별안간 왜놈의 동척* 명의로 둔갑을 했더라란 것이었다.

“이완용이란 놈이 ‘을사 보호 조약’이란 걸 맨들어 낸 뒤라 카더만!”

윤춘삼 씨의 통방울 같은 눈에도 증오의 빛이 이글거리기 시작했다.

[B] 1905년—을사년 겨울, 일본 군대의 포위 속에서 뺏어진 ‘을사 보호 조약’이란 매국 조약을 계기로, 소위 ‘조선 토지 사업’이란 것이 전국적으로 실시되던 일, 그리고 이태 후인 정미년에 가서는 “한국 정부는 시정 개선에 관하여 통감의 지도를 수할 사”란 치욕적인 조목으로 시작된 ‘한일 신탁약’에 따라, 더욱 그 사업을 강행하고 역둔토(驛屯土)의 대부분과 삼림원야(森林原野)들을 모조리 국유로 편입시키는 등 교묘한 구실과 방법으로써 농민으로부터 빼앗은 뒤, 다시 불하*하는 형식으로 동척과 일인(日人) 수중에 옮겨 놓던 그 해괴망측한 처사들이 문득 내 머리 속에도 떠올랐다.

“칙일 놈들.”

건우 할아버지는 그렇게 해서 다시 국회의원, 다음은 하천 부지의 매립 허가를 얻은 유력자 …… 이런 식으로 소유자가 둔갑되어 간 사연들을 죽 들먹거리더니,

“이 꼴이 되고 보니 선조 때부터 **[둑]**을 맨들고 물과 싸워가며 살아온 우리들은 대관절 우찌 되는지요?”

그의 꺾꺾한 목소리에는, 건우가 지각을 하고 꾸중을 듣던 날 “나룻배 통학생입더.” 하던 때의, 그 무엇인가를 저주하듯한 감정이 꿈틀거리고 있는 것 같았다. ③ 얼마나 그들의 땅에 대한 원한이 컸던가를 가히 짐작할 수가 있었다.

- 김정환, 「모래톱 이야기」 -

* 동척: 일제 강점기 ‘동양척식주식회사’의 준말.
* 불하: 국가 또는 공공 단체의 재산을 개인에게 팔아넘기는 일.

34. [A]의 서술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공간적 배경을 활용하여 주제를 암시적으로 드러낸다.
- ② 일상적 소재를 열거하여 인물의 복잡한 심리를 보여 준다.
- ③ 서술자의 논평을 통해 인물의 성격 변화의 양상을 드러낸다.
- ④ 구체적 묘사와 서술자의 판단을 통해 인물의 성격을 제시한다.
- ⑤ 현재와 과거의 사실을 교차하여 향후 전개될 사건의 단서를 제공한다.

35.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손’은 어머니가 고된 생활을 감당해 왔음을 알려 준다.
- ② ‘일류 중학’은 건우 모자의 불화가 교육관의 차이에서 비롯되었음을 알려 준다.
- ③ ‘책상’은 넉넉하지 못한 살림살이의 단면을 보여 준다.
- ④ ‘책 읽은 소감’은 정치 현실에 대한 건우의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 ⑤ ‘독’은 조마이섬 사람들의 삶의 내력을 담고 있다.

36. [B]를 <보기>의 시나리오로 각색했다고 할 때, 고려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S#98. 강독 위 (오후, 길게 펼쳐진 조마이섬 모습 후) E.L.S.*
 건우 증조부: (손에 권 종이를 움켜쥐고 부르르 떨며) 대명천지에 이럴 수는 없는 기다!
 소년(건우 할아버지): 이기 무슨 소립니까? 인자 우리 땅이 아니라니요, 조마이섬이 왜놈 땅이 됐다 카는 기 무슨 말씀 입니까? (건우 증조부, 손에 권 종이를 갈기갈기 찢고, 집으로 달려간다. 소년 뒤따라간다.) O.L.

S#99. 나루터 선술집 (저녁)
 건우 선생님: (놀랍다는 듯이) 그러니까 일제 때 토지 조사 사업 한답시고 국유지로 편입시켰다가, 그걸 다시 팔아먹었던 거군요?
 건우 할아버지: (증오의 눈빛으로) 거서 끝이 아니라고. 아마 건우 애비 중학 졸업하던 땐가 해방 났다고 만세 부르고 와 보니, 이번엔 국회의원 손에 넘어갔다 카이.
 윤춘삼: 얼마 전부터는 하천 부지를 매립한다나 어쩐다나…….
 건우 할아버지: 오늘은 시커먼 놈들이 우르르 몰려와서는 종이 쪼각을 배 주며 그럽디다, 섬에서 나가는 기 좋을 끼라고, 내일은 결판을 낼 끼라고. (입술을 깨물었다가 무슨 결심이라도 한 듯이) 대명천지에 이럴 수는 없는 기다!

*E.L.S.: 익스트림 룽 솟. 아주 멀리서 넓은 지역을 조망하는 촬영 기법.

- ① S#98에서 조마이섬의 지형적 특징을 보여 주기 위해 멀리서 섬을 조망하는 촬영 기법을 도입해야겠어.
- ② S#99에서 관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인물의 대사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야겠어.
- ③ S#99에서 관객의 긴장을 유발하기 위해 이후 벌어질 갈등 상황을 인물의 대사 속에 넣어야겠어.
- ④ S#98~99에서 인물 간 갈등을 부각시키기 위해 조마이섬의 소유권 이전에 찬동하는 등장인물을 넣어야겠어.
- ⑤ S#98~99에서 억울한 상황이 되풀이됨을 강조하기 위해 서로 다른 인물이 동일한 특정 대사를 구사하도록 해야겠어.

37.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모래톱 이야기」에서 작가는 땅을 둘러싼 권력의 횡포를 비판하고 ‘뿌리 뽑힌 사람들’의 삶을 서술자와 등장인물을 통해 증언한다. 이 과정에서 등장인물들은 절망의 나락에 빠지지 않는 저항적 주체의 모습으로 형상화된다. 작가는 공동체의 고통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하여 부조리한 현실을 전달하고 증언하기 위해 서술자 ‘나’의 이야기를 창조하였다. 이는 작가의 적극적인 현실 참여 의식이 가미된 결과이다.

- ① 건우 할아버지와 윤춘삼의 이야기에 대한 ‘나’의 태도로 보아, ‘나’의 이야기는 조마이섬 사람들에 대한 공감을 담아낸 것임을 알 수 있어.
- ② 조마이섬 사람들에 대한 ‘나’의 이야기가 건우의 <섬 얘기>와 관련된 것으로 보아, 건우는 땅의 소유권이 바뀌어 온 현실을 증언하는 인물임을 알 수 있어.
- ③ 건우 할아버지와 윤춘삼의 이야기가 건우의 <섬 얘기>에 원천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아, ‘나’의 이야기는 건우를 저항적 주체들의 중심인물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어.
- ④ ‘나’의 이야기가 조마이섬과 관련된 몇 가지 기막힌 일화를 다루는 것으로 보아, ‘나’의 이야기는 현실의 이면에 감춰진 부조리한 실상을 증언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어.
- ⑤ 건우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대대로 땅을 빼앗겨 온 조마이섬 사람들에 관한 것으로 보아, ‘나’의 이야기는 ‘뿌리 뽑힌 사람들’에 대한 권력의 횡포를 비판하는 것임을 알 수 있어.

38. 문맥상 ㉠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은?

- ① 각골통한(刻骨痛恨)
- ② 노심초사(勞心焦思)
- ③ 전전반측(輾轉反側)
- ④ 풍수지탄(風樹之嘆)
- ⑤ 후회막급(後悔莫及)

[39~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15.06B

호왕이 대로하여

“네 목숨이 내게 달렸거늘 끝까지 굴하지 아니하느냐? 네가 항복하면 왕을 봉하리라.”

경업이 왈

㉠ “병자년에 우리 주상께서 종사를 위하여 내게 항복하여 계시거니와, 내 어찌 목숨을 위하여 내게 항복하리오.”

호왕이 대로하여 무사를 명하여

“내어 배어라.”

하니, 경업이 크게 꾸짖어 왈

“내 목숨은 하늘에 있거니와, 네 머리는 열 걸음 안에 있느니라.”

하고 안색을 불변하여 무사를 보며

“바빠 죽이라.”

하니, 호왕이 경업의 강직함을 보고 탄복하며 맨 것을 풀고 손을 이끌어 올려 앉히고,

“장군이 내게는 역신(逆臣)이나 조선에는 충신이라. 내 어찌 충절을 해하리오. 장군의 소원대로 하리라. 즉시 세자와 대군을 놓아 보내라.”

이때 세자와 대군이 별궁에 계서 임 장군을 주야로 기다리시더니, 문 지키는 관원이 들어와 고하되

“임 장군이 친자께 청하여 세자와 대군을 놓았다.”

하거늘, 세자와 대군이 기꺼워하사 궁문 밖에 나와 기다리시더니, 경업이 나와 울며 절하니, 세자와 대군이 경업의 손을 잡고 함께 들어가 호왕을 보더라.

호왕이

“경들을 임경업이 생사를 돌아보지 않고 구하여 돌아가려 하기로, 내 경업의 충절에 감동하여 경들을 보내나니, 각각 소원을 말하면 내가 정을 표하리라.”

하거늘, 세자는 금은을 구하고, 대군은 조선에서 잡혀 온 인물을 청하여 어서 돌아가기를 원하니, 호왕이

“각각 소원대로 하라.”

하고 대군을 기특히 여기더라.

(중략)

세자와 대군이 급히 궐내에 들어가 대전께 뵈운데, 주상이 반기사 왈

“너희는 무사히 돌아왔거니와, 경업은 언제나 오리오.”

하시고 탄식하시며 또 가라사대

“세자는 무슨 탐욕으로 금은을 구하여 오느냐?”

하시고 버루로 내리쳐 치시고 둘째 대군으로 세자를 봉하시니, 이때는 을유년이러라.

이때에 호왕의 딸 숙모공주가 있으니 천하절색이라. 부마를 구하더니, 호왕이 경업을 유의하여 공주더러 이르니, 공주가 관상 보기를 잘하여 경업의 관상 보기를 청하거늘, 경업이 부마에 뽕힐까 두려워하여 신발 속에 솜을 넣어 키를 세 치를 돌우고 들어갔더니, 공주가 엿보고 왈

“들어오는 걸음은 사자 모양이요 나가는 걸음은 범의 형용이니 짐짓 영웅이로되, 다만 키가 세 치 더한 것이 애달다.”

하거늘, 호왕이 마음에 서운하나 그와 방불한 자가 없느니라.

이에 장군더러 왈

“장군이 부마가 되어 부귀를 누리미 어떠하뇨?”

장군이 사례하기를,

㉡ “어찌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지극히 황궁하며 하물며 조강지처가 있사오니, 존명을 받들지 못하리이다.”

호왕이 재삼 권유하되 경업이 죽기로써 좃지 아니하니, 호왕이 안타까워하더라.

경업이 돌아감을 청하니, 호왕이 미루고 허락하지 아니하거늘 여러 신하들이 아뢰기를,

“절개 높고 충심이 깊은 사람을 두어 무익하고, 보내어도 해로움이 없사오니, 의로써 보내면 조선이 또한 의로써 섬길 것이니 보냄이 마땅하니이다.”

호왕이 그 말을 따라 큰 잔치를 벌여 대접하고 예물을 갖추어 보낼새, 의주까지 호송하니라.

이때 김자점의 위세가 조정에 진동하는지라. 경업이 돌아오는 패문이 왔거늘, 자점이 해오되, ‘경업이 돌아오면 나의 계교를 이루지 못하리라.’ 하고 상계 아뢰기를,

“경업은 반역 죄인이라, 황명을 거역하고 도망하여 남경에 들어가 우리 조선을 치고자 하다가, 하늘이 무심치 아니하사 북경에 잡힌 바 되어 계교를 이루지 못하매, 하는 수 없어 세자와 대군을 청하여 보내고 뒤쫓아 나오니, 어찌 이런 대역 죄인을 그저 두겠나이까!”

상이 크게 놀라 왈

“무슨 연고로 만고 충신을 해하려 하는가? 경업이 비록 과인을 해롭게 하여도 아무도 그를 해치지 못하리라.”

하시고, 자점을 엄히 꾸중하사

“나가라!”

하시니, 자점이 나와 그 무리와 의논하여 왈

“경업이 의주에 오거든 역적으로 잡아 오라.”

하더라.

이때 경업이 데려갔던 격군과 호국 사신을 데리고 의주에 이르니, 사자(使者)가 와 이르되,

“장군이 반역했다 하여 역률(逆律)로 잡아 오라 합니다.”

하고 칼을 씌우며 재촉하니, 의주 백성들이 울며,

“우리 장군이 만리타국에서 이제야 돌아오거늘, 무슨 연고로 잡혀가는고?”

하거늘, 경업 왈

“모든 백성은 나의 형상을 보고 조금도 놀라지 말라. 나는 죄 없이 잡혀가노라.”

하니 남녀노소 없이 무슨 연고인 줄 모르고 슬피하더라.

- 작자 미상, 『임경업전』 -

39.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대군은 호왕의 배려에 따라 소원을 말하였다.
 - ② 호왕은 적국의 임금인데도 강직한 임경업을 살려 보냈다.
 - ③ 호국 신하들은 임경업을 귀국시켜도 호국에 무해하다고 아뢰었다.
 - ④ 김자점은 세자와 대군을 귀국시키려는 임경업의 소원을 방해하였다.
 - ⑤ 주상은 세자와 대군은 돌아오고 임경업은 함께 오지 못했음을 안타까워했다.

40. '임경업 부마 삼기'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이 사건이 성사되지 않음으로써 조선에서 호왕의 나라로 공간적 배경이 전환될 수 있는 계기가 무산된다.
 - ② 이 사건의 주요 과정인 관상 보기에 대해 공주가 수동적 태도로 일관함으로써 공주의 내적 갈등이 심화된다.
 - ③ 이 사건의 당사자인 임경업이 천하절색이라는 공주의 외모에 관심을 둬으로써 그가 세속적 인물임이 드러난다.
 - ④ 이 사건의 당사자인 공주가 임경업의 비범함을 인정했지만 혼사는 여전히 호왕이 주도하면서 왕실 내부의 갈등이 심화된다.
 - ⑤ 이 사건은 임경업의 소원을 들어준 앞의 사건과 마찬가지로 임경업에 대한 호왕의 호감에서 비롯됨으로써 사건 전개에 연속성을 강화한다.

41. 임경업이 말한 ㉠, ㉡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에서는 회유에 대해 대응하고, ㉡에서는 권유에 대해 반응한다.
 - ② ㉠에서는 충신의 도리를, ㉡에서는 남편의 도리를 지키고자 한다.
 - ③ ㉠에서는 과거의 사실을, ㉡에서는 현재의 처지를 언급하여 거절한다.
 - ④ ㉠에서는 상대를 적으로 간주하고, ㉡에서는 상대의 권위를 인정한다.
 - ⑤ ㉠에서는 죽음을 걱정하고, ㉡에서는 역류를 의도하여 상대에 저항한다.

42.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읽은 학생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조선 후기 사대부 심노승의 문집 『효전산고』를 보면, 종로의 담배 가게에서 「임경업전」을 낭독하는데, 김자점이 장군에게 죄를 씌워 죽이는 데 이르자 분노한 어떤 이가 “네가 자점이 더냐?”라고 외치며 벌떡 일어나 낭독자를 해쳤다고 한다. 여기서 보듯 실감나는 낭독은 청중에게 작중 인물이 직접 말하는 것 같은 극적 환상을 일으킨다. 인물의 심리가 즉각 전달되고 사건은 보다 생생해져서, 청중은 낭독자의 안내에 따라 작품을 수용하고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을 키우게 된다. 이 사건은 청에 대한 적대감, 임경업에 대한 흠모 의식에 바탕을 둔 「임경업전」에 청중이 얼마나 몰입했는지 보여준다.

- ① '임경업'이 '호왕'을 꾸짖는 장면을 낭독할 때, 장군의 기개가 '호왕'을 압도하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청에 대한 적대감을 지닌 청중은 통쾌해하겠군.
- ② 칼을 쓰고 잡혀가는 '임경업'을 보며 '의주 백성들'이 우는 장면을 낭독할 때, '임경업'을 흠모하는 청중은 무슨 연고인 줄 몰라서 분노를 표출하겠군.
- ③ '주상'이 '세자'를 꾸짖는 장면을 낭독할 때, 세자답지 못한 행동을 꾸짖는 '주상'의 분노가 느껴지면서 청중은 '세자'를 내리치는 사건을 더욱 생생하게 받아들일겠군.
- ④ '사자'가 '임경업'에게 잡아가겠다고 말하는 장면을 낭독할 때, 이야기에 몰입한 청중에게는 마치 작중 인물이 되어 그 대화를 직접 듣는 듯한 극적 환상이 조성되겠군.
- ⑤ 임금과 백성이 지지함에도 불구하고 '김자점'에 의해 '임경업'이 모해를 입는 장면을 낭독할 때, 간신에 대한 청중의 반감이 커지면서 현실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겠군.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5.06B

이런들 엇더흐며 저런들 엇더흐료
 초야우생(草野愚生)이 이러타 엇더흐료
 흐믈며 천석고황(泉石膏肓)을 고쳐 므슴 흐료 <제1수>

연하(煙霞)로 집을 삼고 풍월(風月)로 벗을 사마
 태평성대(太平聖代)에 병(病)으로 늘거 가네
 이 중에 브라는 일은 허물이나 업고자 <제2수>

순풍(淳風)*이 죽다 하니 진실(眞實)로 거짓말이
 인성(人性)이 어지다 하니 진실(眞實)로 올흔 말이
 천하(天下)에 허다영재(許多英才)를 소겨 말슴홀가 <제3수>

유란(幽蘭)이 재곡(在谷)하니 자연(自然)이 듯디 조해
 백운(白雲)이 재산(在山)하니 자연(自然)이 보디 조해
 이 중에 피미일인(彼美一人)*을 더욱 닛디 못흐애 <제4수>

산전(山前)에 유대(有臺)흐고 대하(臺下)에 유수(有水) | 로다
 때 많은 갈매기는 오명가명 흐거든
 엇더타 교교백구(皎皎白駒)*는 멀리 므슴두는고 <제5수>

춘풍(春風)에 화만산(花滿山)흐고 추야(秋夜)에 월만대(月滿臺)라
 사시가흥(四時佳興)이 사롭과흔가지라
 흐믈며 어약연비(魚躍鸞飛) 운영천광(雲影天光)*이야 어찌 끝이
 있으리 <제6수>
 - 이항, 「도산십이곡(陶山十二曲)」 -

* 순풍: 순박한 풍속.
 * 피미일인: 저 아름다운 한 사람. 곧 임금을 가리킴.
 * 교교백구: 현자(賢者)가 타는 흰 망아지. 여기서는 현자를 가리킴.
 * 어약연비 운영천광: 대자연의 우주적 조화와 오묘한 이치를 가리킴.

43.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제1수에서는 화자가 자신을 드러내고 삶의 지향을 제시함으로써 주제 의식을 환기한다.
- ② 제2수에 나타난 화자 자신에 대한 관심을 제3수에서는 사회로 확대하면서 시상을 전개한다.
- ③ 제3수의 시적 대상을 제4수에서도 반복적으로 다룸으로써 주제 의식을 강화한다.
- ④ 제4수와 제5수에서는 화자의 시선에 포착된 장면들을 배치하여 공간의 입체감을 부각하며 시상을 심화한다.
- ⑤ 제6수에서는 화자의 인식을 점층적으로 드러내어 주제 의식을 집약한다.

44. 윗글의 시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연하’와 ‘풍월’은 화자가 자신의 삶에 대해 자족감을 갖도록 하는 소재이다.
- ② ‘순풍’과 어진 ‘인성’은 화자가 바라는 세상의 모습을 알려주는 표지이다.
- ③ ‘유란’과 ‘백운’은 화자가 심미적으로 완상하는 대상이다.
- ④ ‘갈매기’와 ‘교교백구’는 화자의 무심한 심정이 투영된 상징적 존재이다.
- ⑤ ‘화만산’과 ‘월만대’는 화자의 충만감을 자아내는 정경의 표상이다.

45. 윗글과 <보기>를 비교하여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그곳(부친에게 물려받은 별장)에는 씨 뿌려 식량을 마련할 만한 밭이 있고, 누에를 쳐서 옷을 마련할 만한 뽕나무가 있고, 먹을 물이 충분한 샘이 있고, 땀감을 마련할 수 있는 나무들이 있다. 이 네 가지는 모두 내 뜻에 흡족하기 때문에 그 집을 ‘사가(四可)’라고 이름을 지은 것이다.

녹봉이 많고 벼슬이 높아 위세를 부리는 자야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지만, 나같이 곤궁한 사람은 백에 하나도 가능한 것이 없었는데 뜻밖에도 네 가지나 마음에 드는 것을 차지하였으니 너무 분에 넘치는 것은 아닐까? 기름진 음식을 먹는 것도 나물국에서부터 시작하고, 천 리를 가는 것도 문 앞에서 시작하니, 모든 일은 점진적으로 되는 것이다.

내가 이 집에 살면서 만일 전원의 즐거움을 얻게 되면, 세상일 다 팽개치고 고향으로 돌아가 태평성세의 농사짓는 늙은이가 되리라. 그리고 밭을 갈고 배(腹)를 두드리며 성군(聖君)의 가르침을 노래하리라. 그 노래를 음악에 맞춰 부르며 세상을 산다면 무엇을 더 바랄 게 있으랴.

- 이규보, 「사가재기(四可齋記)」 -

- ① 윗글과 <보기>는 모두 지배층의 뽕밭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해 선택한 자연 은둔의 삶을 제시하고 있다.
- ② 윗글과 <보기>는 모두 불우한 처지에서 점진적으로 벗어날 수 있으리라는 낙관적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 ③ 윗글과 <보기>는 모두 유교적 가치를 존중하면서 한 개인으로서의 소망을 이루려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윗글은 <보기>와 달리 삶의 물질적 여건이 마련된 후에야 자연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 ⑤ 윗글은 속세에 있으면서 자연을 동경하는 인간을, <보기>는 자연에 있으면서 속세를 그리워하는 인간을 형상화하고 있다.

[31~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5.06A

너무도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진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 [A]
 나는 웬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흰꽃과 분홍꽃을 나란히 피우고 서 있는 그 나무는 아마
 사람이 앓지 못할 그늘을 가졌을 거라고 [B]
 멀리로 멀리로만 지나쳤을 뿐입니다
 흰꽃과 분홍꽃 사이에 수천의 빛깔이 있다는 것을
 나는 그 나무를 보고 멀리서 알았습니다 [C]
 눈부셔 눈부셔 알았습니다
 피우고 싶은 꽃빛이 너무 많은 그 나무는
 그래서 외로웠을 것이지만 외로운 줄도 몰랐을 것입니다 [D]
 그 여러 겹의 마음을 읽는 데 참 오래 걸렸습니다

 흩어진 꽃잎들 어디 먼 데 닿았을 무렵
 조금은 심심한 얼굴을 하고 있는 그 복숭아나무 ㉠그늘에서 [E]
 가만히 들었습니다 저녁이 오는 소리를
 - 나희덕,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 -

31. 윗글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경어체를 사용하여 웅장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 ② 지시어를 반복하여 중심 소재로 초점을 모으고 있다.
- ③ 도치된 문장으로 마무리하여 상황의 긴박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④ 의인법을 사용하여 현실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나타내고 있다.
- ⑤ 색채어를 활용하여 신화적 세계에 대한 동경을 드러내고 있다.

32. [A]~[E]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는 대상에 대한 태도가 드러나며 시상이 촉발되는 부분으로, 그중 '너무도 여러 겹의 마음'은 화자가 대상에 대해 거리감을 가지게 되는 이유를 나타낸다.
- ② [B]는 대상에 대한 감정이 행동으로 구체화되는 부분으로, 그중 '멀리로 멀리로만'은 화자가 대상을 피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 ③ [C]는 대상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는 부분으로, 그중 '눈부셔 눈부셔'는 화자가 깨달음을 얻는 과정에서 '수천의 빛깔'을 발견하는 순간을 강조한다.
- ④ [D]는 대상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나타나는 부분으로, 그중 '피우고 싶은 꽃빛'은 화자가 외로움을 이겨 낸 상황을 나타낸다.
- ⑤ [E]는 대상에 대한 깨달음 이후의 상황이 나타나는 부분으로, 그중 '조금은 심심한 얼굴'은 화자가 가까이에서 발견한 대상의 또 다른 모습을 나타낸다.

33. 윗글의 ㉠과 <보기>의 ㉡를 비교하여 감상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내 창작도 태반은 여기서 되었다. 직접 이 철학자를 두고 짜여진 것은 아직 한 편도 없으나, 이 철학자와 벗하여 상(想)이 닳았던 것만은 사실이다. 상이 막히어 붓대가 내키지 않을 때, 나는 나도 모르게 책상을 떠나 이 철학자의 그늘 밑으로 나왔다. 그리하여 그 밑에서 고요히 눈을 감고 뒷짐을 지고 거닐면서 매듭진 상을 골라서 풀곤 했다. 생각이 옹색해도 이 그늘을 찾았고 독서와 붓놀음에 지친 피로가 몸에 미칠 때에도 이 그늘을 찾았다. 실로 이 늙은 철학자 밤나무는 나에게 있어 내 생명의 씨를 밝혀 주는 씨앗터였다.

이러한 씨앗터를 내 이제 떠나 살게 되니 해마다 버들잎에 기쁨이 지면 이 늙은 철학자의 그늘 밑이 더할 수 없이 그리워진다. 인제 그 밤나무에도 잎이 아마 푸르렀겠지. 비바람에 고삭은 가지들은 어떻게 됐을까 그 안부가 지극히 알고 싶어지고, 그 밑에서 고요히 눈을 감고 사색에 잠겨보고 싶어진다. 더욱이 생각의 가난에 원고를 자꾸만 찢게 될 땐, 어쩐지 그 ㉡그늘 밑 자연석 위에 잠깐만 앉아 눈을 감아 보아도 매듭진 상의 눈앞은 흰히 트여질 것만 같게 그 품속이 생각난다.

- 계용목, 「울정기(栗亭記)」 -

- ① ㉠은 화자의 기대에 어긋나는 장소이고, ㉡는 필자의 휴식을 방해하는 장소이다.
- ② ㉠은 화자가 복숭아나무의 영향을 받았던 장소이고, ㉡는 필자가 밤나무에 영향을 주었던 장소이다.
- ③ ㉠은 화자가 복숭아나무에 대해 사색에 잠겼던 장소이고, ㉡는 필자가 밤나무에 대한 글을 썼던 장소이다.
- ④ ㉠은 복숭아나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장소이고, ㉡는 밤나무에 대한 필자의 고민이 저절로 해소되는 장소이다.
- ⑤ ㉠은 곁에 있는 복숭아나무에 대한 화자의 친밀감을, ㉡는 떠나온 밤나무에 대한 필자의 그리움을 강화하는 장소이다.

[39~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15.06A

홍부 마음 인후하여 청산유수와 곤륜옥결이라. 성덕을 본받고 악인을 저어하며 물욕에 탐이 없고 주색에 무심하니 마음이 이러하매 부귀를 바랄조나? 홍부 아내 하는 말이,
 “애고 여복소. 부질없는 청렴 맘소. 안자의 가난함은 주린 염치로 서른에 일찍 죽고, 백이숙제는 주린 염치로 청루 소년이 웃었으니, 부질없는 청렴 말고 저 자식들 굶겨 죽이겠으니, 아주버님네 집에 가서 쌀이 되나 벼가 되나 얻어 읍소.”
 홍부가 하는 말이,
 “형님이 음식 끝을 보면 사촌을 몰라보고 똥 싸도록 때리는데, 그 매를 뉘 아들놈이 맞는단 말이오?”
 “애고 동냥은 못 준들 쪽박조차 깨칠조나. 맞으나 아니 맞으나 쏘아나 본다고 건너가 봅소.”

홍부 이 말을 듣고 형의 집에 건너갈 제, 치장을 불작시면, ㉠ 편자 없는 현 망건에 박쫂가리 관자 달고 물렛줄로 당끈 달아 대가리 터지게 동이고, 깃만 남은 중치막, 동강 이은 현 술 띠를 흥복통에 눌러 띠고, 떨어진 현 고의에 칩 노끈 대님 매고, 현 짚신 감발하고, 세살 부채 손에 쥐고, 서 홉들이 오망자루 꿈무니에 비숙 차고, 바람맞은 병인 같이, 잘 쓰는 대비같이, 어숙 비숙 건너 달아 형의 집에 들어가서 전후좌우 바라보니, 앞노적, 뒷노적, 멍에 노적 담불담불 쌓였으니, 홍부 마음 즐거우나 놀부 심사 무거하여 형제거리 내외하여 구박이 태심하니 홍부가 하릴 없어 뜰아래서 문안하니 놀부가 묻는 말이,

“네가 된고?”
 “내가 흥부요.”
 “홍부가 뉘 아들인가?”
 “애고 형님, 이것이 웬 말이오? 비읍니다. 형님 전에 비읍니다. 세 끼 굶어 누운 자식 살려 낼 길 전혀 없으니 쌀이 되나 벼가 되나 양단간에 주시면 품을 판들 못 값으며 일을 한들 못 값을까. 부디 옛일을 생각하여 사람을 살려 주오.”

[B] 애걸하니, 놀부 놈의 거동 보소. 성난 눈을 부릅뜨고 불을 치며 호령하되,
 “너도 염치없다. 내 말을 들어 보아라. ‘하늘은 녹 없는 사람을 내지 않으며, 땅은 이름 없는 풀을 내지 않는다.’ 네 복을 누굴 주고 나를 이리 보케느냐? 쌀이 있다 한들 너 주자고 노적 혈며, 벼가 많이 있다 한들 너 주자고 섬을 혈며, 돈이 많이 있다 한들 께에 가득 든 것을 문을 열랴.”

[중간 줄거리] 어렵게 살던 홍부는 어느 날 구렁이의 습격을 받아 다리가 부러진 제비 새끼를 구해 주고 박씨를 얻어 큰 부자가 된다.

놀부 놈의 거동 보소. 동지선달부터 제비를 기다린다. 그물 막대 둘러메고 제비를 몰러 갈 제, 한 곳을 바라보니 한 짐승이 떠서 들어오니 놀부 놈이 보고,
 “제비 인제 온다.”

하고 보니, 태백산 갈가마귀 차들도 못 얻어먹고 주려 청천에 높이 떠 갈곡갈곡 울고 가니, 놀부 눈을 멀게 뜨고 보다가 하릴없이 동네 집으로 다니면서 제비를 제 집으로 몰아들이되 제비가 아니 온다.

그달 저 달 다 지내고 삼월 삼일 다다르니 강남서 나온 제비 옛집을 찾으려 하고 오락가락 넘놀 적에 놀부 사면에 제비집을 지어 놓고 제비를 들이모니, 그중 팔자 사나운 제비 하나가 놀부 집에 흙을 물어 집을 짓고 알을 낳아 안으려 할 제, 놀부 놈이 주야로 제비 집 앞에 대령하여 가끔가끔 만져 보니 알이 다 꿍고 다만 하나 깨었는지라. 날기 공부 힘쓸 제 구렁 배암 아니 오니 놀부 민망 답답하여 ㉡ 제 손으로 제비 새끼를 잡아 내려 두 발목을 자른 부러뜨리고 제가 깜짝 놀라 이른 말이, “가련하다. 이 제비야.” 하고 조기 꺾질을 얻어 찬찬 동여 뱃놈의 닳줄 감듯 삼층 열레 연줄 감듯 하여 제 집에 엮어 두었다니, 십여 일 뒤에 그 제비가 구월 구일을 당하여 두 날개를 펼쳐 강남으로 들어 가니 강남 황제 각처 제비를 점고할 제, 이 제비가 다리 절고 들어와 복지하니, 황제 제신으로 하여금,

“그 연고를 사실하여 아뢰라.”
 하시니, 제비 아뢰되,
 “작년에 웬 박씨를 내어 보내어 홍부가 부자 되었다 하여 그 형 놀부 놈이 나를 여차여차하여 절뚝발이가 되게 하였사오니, 이 원수를 어찌하여 값고자 하나이다.”
 황제가 이 말을 들으시고 대경하사 가라사대,
 “이놈 이제 전담 재물이 여유롭되 동기를 모르고 오류에 벗어난 놈을 그저 두지 못할 것이요, 또한 네 원수를 값아 주리라.”

하고 박씨 하나를 ‘보수표(報讐瓢)’라 금자로 새겨 주더라.
 -작자 미상, 『홍부전』 -

* 보수표: 원수를 갚는 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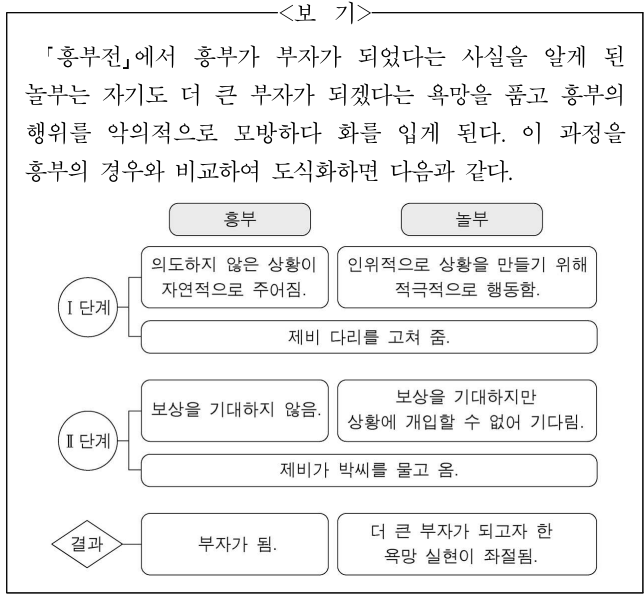
39.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운문체를 사용하여 인물 사이의 갈등을 부각하고 있다.
- ② 현재와 과거를 교차하여 장면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 ③ 열거의 방식으로 인물의 외양을 해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④ 배경 묘사를 통해 밝고 역동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⑤ 사건을 요약적으로 제시하여 서사를 빠르게 전개하고 있다.

40. [A]~[C]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서는 서술자의 서술과 등장인물의 대화를 통해 홍부의 처지와 성품을 드러내고 있다.
- ② [B]에서 놀부를 ‘놀부 놈’으로 서술하는 부분에는 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평가가 드러나 있다.
- ③ [C]에서 동물들이 대화하는 장면은 우화적 공간에서 서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 ④ [A]에서 홍부와 홍부 아내의 대화는 [B]에서 일어나는 홍부와 놀부의 갈등 상황을 예고하고 있다.
- ⑤ [B]에 나타난 놀부의 언행은 [C]에서 제비가 황제에게 놀부를 고발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41.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동지선달'부터 올 리 없는 제비를 찾는 놀부의 행동은 <보기>의 'I 단계'에 속하는 것으로, 욕망 실현을 위한 놀부의 조급성을 보여 주는군.
- ② '갈가마귀'를 제비로 착각하는 놀부의 모습은 <보기>의 'I 단계'에 속하는 것으로, 제비가 아닌 다른 새들을 몰아내는 놀부의 적극적 행동을 보여 주는군.
- ③ '삼월 삼일'에 제비를 들이모는 놀부의 행위는 <보기>의 'I 단계'에 속하는 것으로, 인위적으로 상황을 만들어 가는 악의적인 모방자의 모습을 보여 주는군.
- ④ '구월 구일'에 제비가 강남으로 들어가는 상황은 <보기>의 'II 단계'에 속하는 것으로, 상황에 개입할 수 없는 놀부가 욕망 실현을 위해서 기다릴 수밖에 없음을 보여 주는군.
- ⑤ '보수표'가 제비에게 주어지는 상황은 <보기>의 'II 단계'에 속하는 것으로, 놀부의 기대와는 달리 그의 욕망 실현이 좌절될 것임을 보여 주는군.

42. ㉠에 대한 독자의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기가 제비 다리를 부러뜨려 놓고 깜짝 놀라다니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는 격이군.
- ② 자기 실수로 제비 다리가 부러졌는데 저런 말을 하다니 방귀 편 높이 성내는 격이군.
- ③ 자기가 구렁이를 대신하여 제비 다리를 부러뜨린 것을 보니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 격이군.
- ④ 자기가 제비 다리를 부러뜨려 놓고 치료를 해 주며 구해 주는 척하다니 병 주고 약 주는 격이군.
- ⑤ 자기가 제비 다리를 부러뜨리고 도리어 위로하는 말을 하는 것을 보니 말 한마디에 천 냥 빚을 갚는 격이군.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5.06A

(가)

국화(菊花)야 너는 어이 삼월동풍(三月東風) 다 지내고
낙목한천(落木寒天)*에 네 홀로 피었느냐
아마도 오상고절(傲霜孤節)은 너뿐인가 하노라

- 이정보 -

(나)

이화(梨花)에 월백(月白)하고 은한(銀漢)*이 삼경(三更)인 제
일지춘심(一枝春心)을 자규(子規)*야 알라마는
다정(多情)도 병(病)인 양하여 잠 못 들어 하노라

- 이조년 -

(다)

[A]	쓸쓸하게 황량한 밭 곁에	寂寞荒田側
	탐스러운 꽃이 여린 가지 누르고 있네.	繁花壓柔枝
[B]	향기는 매우(梅雨)* 지나 희미해지고	香經梅雨歇
	그림자는 맥풍(麥風)* 맞아 기우뚱하네.	影帶麥風欹
[C]	수레나 말 탄 사람 그 누가 보아 줄까?	車馬誰見賞
	벌이나 나비들만 엇볼 따름이네.	蜂蝶徒相窺
[D]	태어난 곳 비천하니 스스로 부끄럽고	自慚生地賤
	사람들이 내버려 두니 그저 한스럽네.	堪恨人棄遺

- 최치원, 「축규화(蜀葵花)」 -

- * 낙목한천: 나뭇잎이 떨어지는 때의 추운 하늘.
- * 은한: 은하수.
- * 자규: 두견새.
- * 매우: 매실이 누렇게 익을 무렵의 장맛비.
- * 맥풍: 보리가 익어 가는 시절에 부는 바람.
- * 축규화: 접시꽃.

43. (가)~(다)의 공통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설의적 표현으로 냉소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② 청각적 심상을 통해 화자의 처지를 부각하고 있다.
- ③ 계절감을 주는 어휘로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④ 직유법을 사용하여 대상과의 친밀감을 나타내고 있다.
- ⑤ 영탄적 표현으로 화자의 단호한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

44. (가)~(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의 '네 홀로'에는 다른 꽃들과 대조되는 국화의 속성이 드러나 있다.
- ② (나)에서는 밝은 달빛을 받는 '이화'에서 환기된 화자의 정서가 '자규'를 통해 심화되고 있다.
- ③ (가)에서는 '동풍'이 불어오는 '삼월'이, (나)에서는 '은한'이 기우는 '삼경'이 화자가 대상과 이별하는 시간적 배경으로 제시되어 있다.
- ④ (가)의 '오상고절'에는 굳건한 절개가, (나)의 '다정'에는 애상적 정서가 표현되어 있다.
- ⑤ (가)의 '너뿐인가 하노라'에는 대상을 예찬하는 화자의 태도가, (나)의 '잠 못 들어 하노라'에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화자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45. <보기>를 참고할 때, (다)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최치원의 「축규화」는 삶의 현실이나 인식 태도를 사물에 투사하여 그 사물과 자아의 동일성을 이룬 한문 서정시의 하나이다. 최치원의 삶을 고려할 때, 그는 탁월한 능력을 갖추고 있었지만 출신상의 한계로 인해 세상에 크게 쓰이지 못한 채 평범한 사람들 속에서 살아야 할 때가 많았다. 최치원은 이 작품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화자'를 통해 이와 같은 자신의 처지를 '축규화'에 투사하여 표현하고 있다.

- ① [A]에서 화자는 자신의 출신상의 한계와 탁월한 능력을 대비하여 말하고 있어.
- ② [B]에서 화자는 자신의 탁월한 능력을 조만간 펼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명하고 있어.
- ③ [C]에서 화자는 자신을 크게 써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지 못하고 평범한 이들 속에서 살아야 하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어.
- ④ [D]에서 화자는 자신의 출신과 처지에 대한 부끄러움과 한스러움을 표현하고 있어.
- ⑤ [A]에서는 '축규화'의 외양 묘사를 통해, [D]에서는 '축규화'의 내면 서술을 통해 화자 자신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어.

MEMO

MEMO

[31~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14.11B

[**앞부분의 줄거리**] 천상에서 별을 받은 문창성은 꿈을 꾸어 인간 세상에 양창곡으로 다시 태어난다. 천상에 함께 있었던 제방옥녀, 천요성, 홍란성, 제천선녀, 도화성도 인간 세상에서 윤 소저, 황 소저, 강남홍, 벽성선. 일지련으로 다시 태어나 양창곡과 결연을 맺는다. 양창곡은 벼슬하고 공을 세워 연왕에 오른다. 그 뒤 부친 양현, 모친 허 부인, 다섯 아내, 자식들과 영화로운 삶을 살게 된다.

이날 밤에 강남홍이 취하여 취봉루에 가 의상을 풀지 아니하고 책상에 ㉠ **의지하여** 잠이 들었더니 홀연 정신이 황홀하고 몸이 정처 없이 떠돌아 일처에 이르매 한 명산이라. 봉우리가 높고 험준하거늘 강남홍이 가운데 봉우리에 이르니 한 보살이 눈썹이 푸르며 얼굴이 백옥 같는데 비단 가사를 걸치고 석장(錫杖)을 짊고 있다가 웃으며 강남홍을 맞아 왈,

“강남홍은 인간지락(人間之樂)이 어떠한가?”

강남홍이 ㉡ **망연히** 깨닫지 못하여 왈,

“도사는 누구시며 인간지락은 무엇을 이르는 것입니까?”

보살이 웃고 석장을 공중에 던지니 한 줄기 무지개 되어 하늘에 닿았거늘 보살이 강남홍을 ㉢ **인도하여** 무지개를 밟아 공중에 올라가더니 앞에 큰 문이 있고 오색구름이 어리었는지라, 강남홍이 문 왈,

“이는 무슨 문입니까?”

보살 왈,

“남천문이니 그대는 문 위에 올라가 보라.”

강남홍이 보살을 따라 올라 한 곳을 바라보니 일월(日月)광채 ㉣ **휘황한데** 누각 하나가 허공에 솟았거늘 백옥 난간이며 유리 기둥이 영롱하여 눈이 부시고 누각 아래 푸른 난새와 붉은 봉황이 쌍쌍이 ㉤ **배회하며** 몇몇 선동(仙童)과 서너 명의 시녀가 신선 차림으로 난간머리에 섰으며 누각 위를 바라보니 한 선관과 다섯 선녀가 난간에 의지하여 취하여 자는지라. 보살께 문 왈,

“이곳은 어느 곳이며 저 선관, 선녀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보살이 미소 지으며 왈,

“이곳은 백옥루요 제일 위에 누운 선관은 문창성(文昌星)이요 차례로 누운 선녀는 제방옥녀(諸方玉女)와 천요성(天妖星)과 홍란성(紅鸞星)과 제천선녀(諸天仙女)와 도화성(桃花星)이니, 홍란성은 즉 그대의 전신(前身)이니라.”

강남홍이 속으로 놀라 왈,

“저 다섯 선녀는 다 천상에서 입도(入道)한 선관이라. 어찌 저다지 취하여 잠을 잡니까?”

보살이 홀연 서쪽을 보며 함장 하더니 시 한 구를 외워 왈,

정이있으면 인연이 생기고
인연이 있으면 정이 생기도다.
정이 다하고 인연이 끊어지면
만 가지 생각이 함께 텅 비는구나.

강남홍이 듣고 정신이 상쾌하여 문득 깨달아 왈,
“나는 본디 천상의 별인데 인연을 맺어 잠깐 하계(下界)에 내려온 것이로다.”

(중략)

강남홍 왈,
“그러하면 저도 또한 천상의 별이라, 이미 여기 왔으니 다시 인간 세상에 돌아갈 마음이 없나이다.”

보살이 웃으며 왈,

“하늘이 정한 인연을 인력으로 할 바 아니다. 그대 인간 인연을 마치지 못하였으니 빨리 돌아가라. 사십 년 후에 다시 와 옥황상제께 조회하고 천상지락(天上之樂)을 누릴지이다.”

강남홍이 문 왈,

“보살은 누십니까?”

보살이 웃으며 왈,

“빈도(貧道)는 남해 수월암 관세음보살이라. 부처의 명을 받아 그대를 지도하러 왔노라.”

보살이 말을 마치고 석장을 공중에 던지니 오색 무지개 일어나며 홀연 우렛소리 울리거늘 강남홍이 놀라 깨어 보니 몸이 취봉루 책상 앞에 누웠는지라.

강남홍은 꿈속 일이 의아하여 연왕과 윤 부인, 황 부인, 벽성선, 일지련에게 낱말이 말하니 그들 또한 같은 꿈을 꾸었는지라. 서로 탄식하며 의아해 하더니 허 부인이 듣고 강남홍더러 왈,

“내 고향에 있을 적 늦도록 무자(無子)하여 옥련봉 돌부처에게 기도하고 연왕을 낳았으니 그 돌부처가 곧 관세음보살이라. 그 한량없는 공덕을 갚지 못하였더니 이제 너의 꿈에 나타나 불사(佛事)를 권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듣자 하니 벽성선의 부친 보조국사께서 자개봉 대승사에 계신데 불법(佛法)에 정통하다 하니 청하여 옥련봉 돌부처를 위하여 일개 암자를 짓고 한편으로 대승사에 백일 동안 재(齋)를 올려 관세음보살의 자비로운 공덕을 갚고자 하노라.”

벽성선이 크게 기뻐하며 즉시 보조국사를 청하여 재 올리기를 시작하고 재물을 후히 보내어 옥련봉에 암자를 창건하였더니, 과연 그 후 사십 년을 부귀를 누리다가 양현과 허 부인은 수(壽)를 팔십여 세 하고, 연왕은 다시 출장입상하여 또한 수를 팔십을 하고, 윤 부인 삼자 이녀(三子二女)에 수 칠십이요, 황 부인은 이자 일녀에 수 육십을 넘기고, 강남홍은 오자 삼녀에 수 칠십이요, 벽성선, 일지련은 각각 삼자 이녀에 수를 또한 칠십 세를 하니, 연왕의 자녀 합 이십육에 아들 십육 인은 각각 입신 양명 부귀영화를 누리고 딸 십 인은 왕공 부인이 되어 다자 다복(多子多福)하더라.

- 남영로, 「옥루몽」 -

31.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서술자가 개입하여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예고하고 있다.
- ② 대립적인 두 인물을 배치하여 인물 간 갈등을 구체화하고 있다.
- ③ 순간적으로 장면을 전환하여 사건의 환상적 면모를 부각하고 있다.
- ④ 내적 독백을 활용하여 난관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 ⑤ 인물의 외양을 묘사하여 인물의 혼란스러운 심리 상태를 드러내고 있다.

32.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강남홍'은 '명산'에서 '보살'을 처음 만났다.
- ② '보살'은 '석장'을 이용하여 '남천문'에 당도하였다.
- ③ '강남홍'은 선관, 선녀들과 '남천문'에서 재회하였다.
- ④ '보살'은 '강남홍'이 천상의 존재였음을 알려 주었다.
- ⑤ '허 부인'은 '옥련봉 돌부처'에게 기도하여 '양창곡'을 낳았다.

33.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옥루몽」의 환몽(幻夢) 구조는 독특하다. 천상계에서 꿈을 통해 속세로 진입한 남녀 주인공들은 속세에서 다시 꿈을 꾸어 천상계를 경험하는데, 이때 신이한 존재에 의해 자신의 정체를 깨달으며 꿈에서 깨어나게 된다. 꿈에서 깨어난 남녀 주인공들은 속세로 돌아와 천수를 누리 뒤에야 천상계에 복귀한다.

- ① '강남홍'이 '취봉루'에서 꿈에 드는 것으로 보아, '취봉루'는 천상계에서 속세로 입몽하는 공간이군.
- ② '강남홍'이 '백옥루'를 보며 자신의 정체를 깨닫는 것으로 보아, '백옥루'는 속세에서의 입몽을 통해 자신의 정체를 깨닫게 되는 천상계의 공간이군.
- ③ '보살'이 '강남홍'에게 인간 세상의 인연이 끝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보살'은 천상계에서 속세로의 각몽을 유도하는 신이한 존재이군.
- ④ '허 부인'이 '보살'을 '옥련봉 돌부처'와 연관 짓는 것으로 보아, '암자'를 창건한 것은 신이한 존재에 대한 속세에서의 보답이군.
- ⑤ '양창곡' 일가가 속세에서 천수를 누리고 일생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보아, 이 작품은 주인공이 속세에서 연을 다한 후 천상계로 복귀하는 구조로 이루어졌군.

34. 문맥상 ㉠~㉤과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기대어
- ② ㉡: 멍하니
- ③ ㉢: 이끌어
- ④ ㉣: 눈부신데
- ⑤ ㉤: 어울리며

[35~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14.11B

“도대체 박준은 어째서 꼭 불을 밝혀 놓아야 잠이 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전깃불을 보고는 왜 갑자기 발작을 일으킨 것입니까?”

“중요한 걸 물으시는군요.”

잠시 입을 다물고 있던 김 박사는 그 동안 나에게서 그런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기라도 한 듯 이번에는 박준의 버릇에 대해 다시 설명을 시작했다.

“글쎄, 나 역시도 어젯밤 우연히 그런 발작이 나기 전까지는 환자가 특히 어둠을 싫어하는 이유를 알아 내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야 물론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그것도 다른 환자들에게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병증의 하나인엔 틀림없지요. 하지만 이제까지의 관찰로는 영 그 원인을 분석해 낼 재간이 없었던 말입니다. 한테 어젯밤 발작을 보고는 비로소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환자가 그토록 어둠을 싫어하게 된 것은 직접적으로 그 어둠 자체를 싫어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어둠으로부터 연상되는 어떤 다른 공포감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를테면 그 전깃불 같은 것이 바로 그런 거지요. 환자가 진짜 발작을 일으키도록 심한 공포감을 유발시킨 것은 어둠이 아니라 그 어둠 속에 나타난 전깃불이었던 말씀입니다. 환자에게 그 어둠이라는 것이 늘 전깃불을 연상시키는 공포의 촉매물이었지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문제는 박준이 무엇 때문에 그 전깃불에 공포를 느끼게 되는지 그걸 알아내는 것이겠군요. 그게 바로 박사님께서 자주 말씀하신 최초의 갈등 요인이 아니겠습니까?”

“옳은 말씀이에요. 전깃불의 비밀이야말로 박준 씨의 치료에는 무엇보다 중요한 열쇠가 되고 있지요.”

“하지만 어젯밤 박준이 전깃불을 보고 놀랐던 것만으론 그가 어째서 그것에 대해 공포감을 지니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전깃불의 공포라는 것이 박준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인지 아직 설명하실 수가 없으신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셈이지요.”

“역시 그의 소설에 대해 관심을 좀 가져 보시는 게 어떨까요?”

나는 필시 박준의 소설들과 전깃불 사이엔 뭔가 썩 깊은 상관성이 있는 듯한 예감에 사로잡히며 은근히 김 박사를 권해 보았다. 그러나 김 박사는 박준의 소설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심을 보이려 하지 않았다.

“역시 그럴 필요는 없어요. 별로 기본 좋은 방법이 아니기는 하지만, 이제 최소한 환자로 하여금 전깃불의 내력을 포함한 모든 비밀을 털어놓게 할 마지막 방법은 찾아 놓고 있는 셈이니까요.”

(중략)

— 이 달의 화제작, 화제 작가.

신문지는 벌써 이태쯤 전에 발간된 어떤 주간지의 한 조각이었는데, 거기엔 우선 그런 제호가 크게 눈에 띄었다. 그리고 그 제호 한쪽으로 그 달에 발표된 박준의 소설이 한 편 몇몇 평론가들로부터 합평되어 있고, 다른 한쪽엔 그 달의 화제 작가로서 박준을 인터뷰한 기사가 실려 있었다.

나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신문지 조각을 못에서 빼어 냈다. 그러나 금세 실망이 되고 말았다. 기사는 별로 입을 만한 곳이 남아 있지 않았다. 대부분의 기사가 다른 조각으로 찢어져 나가 버리고 없었다. 찢어져 나간 조각들은 찾아낼 수가 없었다. 이미 휴지로 사용이 되고 만 모양이었다. 남아 있는 것은 그의 인터뷰 기사 중의 몇 마디뿐이었다. 나는 그것이나마 찢어지다 남은 데서부터 기사를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 당신은 아까 내가 위험한 질문이라고 한 말의 뜻을 아직 잘 알아듣지 못한 모양이다. 그렇다면 내가 좀 더 설명을 하겠다…….

아마 기자의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부연하고 있는 모양이었다. 박준은 이야기를 꽤 길게 계속하고 있었다.

— 어렸을 때 겪은 일이지만 난 아주 기본 나쁜 기억을 한 가지 가지고 있다. 6·25가 터지고 나서 우리 고향에는 한동안 우리 경찰대와 지방 공비가 뒤죽박죽으로 마을을 찾아드는 일이 있었는데, 어느 날 밤 경찰인지 공인지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또 마을을 찾아 들어왔다. 그리고 그 사람들 중의 한 사람이 우리 집까지 찾아 들어와 어머니하고 내가 잠 들고 있는 방문을 열어젖혔다. 눈이 부시도록 밝은 전깃불을 얼굴에다 내리비추며 어머니더러 당신은 누구의 편이냐는 것이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때 얼른 대답을 할 수가 없었다. 전깃불 뒤에 가려진 사람이 경찰대 사람인지 공비인지를 구별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대답을 잘못했다가는 지독한 복수를 당할 것이 뻔한 사실이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상대방이 어느 쪽인지 정체를 모른 채 대답을 해야 할 사정이었다. 어머니의 입장은 절망적이었다. 나는 지금까지도 그 절망적인 순간의 기억을, 그리고 사람의 얼굴을 가려 버린 전깃불에 대한 공포를 생생하게 간직하고 있다.

그런데 나는 요즘 나의 소설 작업 중에도 가끔 그 비슷한 느낌을 경험하곤 한다. 내가 소설을 쓰고 있는 것이 마치 그 얼굴이 보이지 않는 전깃불 앞에서 일방적으로 나의 진술만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말이다. 문학 행위란 어떻게 보면 한 작가의 가장 성실한 자기 진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나는 지금 어떤 전깃불 아래서 나의 진술을 행하고 있는지 때때로 엄청난 공포감을 느낄 때가 많다. 지금 당신 같은 질문을 받게 될 때가 바로 그렇다…….

박준의 말은 거기서 일단 끝나고 있는 듯 보였다. 그리고 신문이 찢어져 나가 버린 것도 거기서부터였다.

- 이창준, 「소문의 벽」 -

35.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김 박사’는 ‘박준’이 느끼는 공포감의 비밀을 밝힐 방법을 찾았다고 믿는다.
- ② ‘김 박사’의 말을 들은 ‘나’는 그의 치료 방안에 대해 전적으로 신뢰하게 된다.
- ③ ‘박준’이 어둠 때문에 발작을 일으킨 일이 있음을 ‘김 박사’는 알지 못하고 있다.
- ④ ‘어머니’의 입장이 절망적인 것은 아들의 안전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괴감 때문이다.
- ⑤ 신문지 조각을 읽은 ‘나’는 궁금해 하는 사실과 기사의 내용이 거리가 있어서 실망한다.

36. [A]의 서사적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특정 지역을 배경으로 설정하여 공간의 상징적 의미를 부각한다.
- ② 인물의 행동을 객관적 시점에서 묘사하여 인물의 성격을 짐작하게 한다.
- ③ 주인공의 두 경험을 연관 지어 사건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단서를 제공한다.
- ④ 동일한 사건을 다각적으로 구성하여 사건에 대한 해석의 여지를 열어 놓는다.
- ⑤ 이질적인 시선을 대비해 가며 역사적인 사건의 전모가 총체적으로 드러나도록 한다.

37. <보기>를 참고하여 밑줄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정신적 외상(trauma)은 충격적 경험의 기억이 무의식에 잠재되었다가 정신적 병증의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모습을 드러낸다. 그 기억은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러울 수 있는데, 이를 들추어 '말문'을 트게 하는 것은 정신적 병증의 치유에서 중요한 과정이다.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공동체의 위기 상황으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외상에 대해 '말문 트기'가 요구된다. 이런 점에서 소설은 개인의 아픔은 물론 사회적 병증을 치유해 주는 개인적·사회적 말문 트기의 하나라 할 수 있다.

- ① '전짓불의 공포'를 강하게 느끼는 '박준'은, 일방적 진술을 강요하는 듯한 사회적 상황에 직면하여 고통 받는 이들을 상징하는 인물이겠군.
- ② '전짓불의 공포'와 '소설 작업'의 관계에 주목해 보면, 소설 쓰기를 통한 '박준'의 '자기 진술'은 치유 방법으로서의 말문 트기에 상응하는 것이겠군.
- ③ '자기 진술'을 어렵게 만드는 상황에 직면했다는 '박준'의 고백은, 일방적일 수밖에 없는 '자기 진술'의 상황 속에서 정신적 외상이 환기된다는 점을 드러내는 것이겠군.
- ④ 유년의 '기분 나쁜 기억'이 전쟁으로 인한 공동체의 위기 상황과 관련되었다는 설정을 통해, '박준'의 정신적 외상이 사회적 차원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겠군.
- ⑤ 정신적 외상의 최초 원인을 밝히기 위해 '김 박사'가 '박준'의 과거 기억을 진술하게 할 계획을 세웠다면, 이는 '위험한 질문'을 회피하기 위한 말문 트기 방법을 모색한 결과이겠군.

[38~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14.11B

(가) 천만리(千萬里) 머나먼 길히 고은 님 여희웁고
 니 므음 둘 디 업셔 냇²의 안자시니
 저 물도 니 은 곳²혀여 우러 밤길 네눗다
 - 왕방연 -

(나) 청초(靑草) 우거진 골에 자는다 누어는다
 홍안(紅顔)*을 어디 두고 백골(白骨)만 무쳤는다
 잔(盞) 자바 권(勸)홀 이 업스니 그를 슬허 호노라
 - 임제 -

(다) 흥망(興亡)이 유수(有數)하니 만월대(滿月臺)*도 추초(秋草) | 로다
 오백 년(五百年) 왕업(王業)이 목적(牧苗)*에 부쳐시니
 석양(夕陽)에 지나는 객(客)이 눈물계워 호노라
 - 원천석 -

* 홍안: 젊어서 혈색이 좋은 얼굴.
 * 만월대: 고려의 왕궁 터.
 * 목적: 목동의 피리.

38. (가)~(다)의 공통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상의 부재에서 느끼는 안타까움이 드러나 있다.
- ② 자신의 궁핍한 처지로 인한 좌절감이 표출되어 있다.
- ③ 예기치 않은 이별로 인한 서러운 심정이 나타나 있다.
- ④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섭리에 대한 경외감이 드러나 있다.
- ⑤ 자신의 이념과 배치되는 현실에서 느끼는 실망감이 표출되어 있다.

39. (가),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의 '천만리(千萬里) 머나먼 길히 고은 님 여희웁고'는 과장된 표현을 통해 '님'과 이별한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 ② (가)의 '저 물도 니 은 곳²혀여'는 인간과 자연물의 동일시를 통해 화자의 슬픔을 표현하고 있다.
- ③ (가)의 '밤길 네눗다'는 캄캄한 '밤'의 속성을 통해 화자의 암담한 심경을 표현하고 있다.
- ④ (나)의 '홍안(紅顔)을 어디 두고 백골(白骨)만 무쳤는다'는 시어의 대비를 통해 화자의 무상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나)의 '잔(盞) 자바 권(勸)홀 이 업스니'는 각박한 세태의 제사를 통해 속세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염원을 드러내고 있다.

40. (다)와 <보기>를 비교해서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홍진(紅塵)에 못친 분네 이내 생애(生涯) 엇더호고
 냇사를 풍류(風流)를 미출가 못 미출가
 천지간(天地間) 남자(男子) 몸이 날 만흔 이 하건마는
 산림(山林)에 못쳐 이셔 지락(至樂)을 므릴 것가
 수간모옥(數間茅屋)을 벽계수(碧溪水) 얹피 두고
 송죽(松竹) 울울리(鬱鬱裏)에 풍월주인(風月主人) 되여서라
 엇그제 겨을 지나 새 봄이 도라오니
 도화행화(桃花杏花)는 석양리(夕陽裏)에 꺾여 잇고
 녹양방초(綠楊芳草)는 세우중(細雨中)에 프르도다
 칼로 몰아넉가 붓으로 그려넉가
 조화신공(造化神功)이 물물(物物)마다 현스롭다
 - 정극인, 「상춘곡」 -

- ① (다)와 <보기>는 동일한 음보율을 사용하여 리듬감을 살리고 있군.
- ② (다)는 <보기>와 달리 이질적 공간을 대비하여 주제를 드러내고 있군.
- ③ (다)에서는 침울한 분위기를, <보기>에서는 들뜬 분위기를 느낄 수 있군.
- ④ (다)의 '석양'은 화자의 정서를 심화하는 배경으로, <보기>의 '석양'은 경치를 돋보이게 하는 배경으로 기능하고 있군.
- ⑤ (다)는 화자가 혼잣말을 하는 방식으로, <보기>는 화자가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군.

[41~4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14.11B

(가)
 외로이 흘러간 한 송이 구름
 이 밤을 어디에서 쉬리라던고.

성긴 빗방울
 파초 앞에 후두기는* 저녁 어스름

창 열고 푸른 산과
 마주 앉아라.

들어도 싫지 않은 물소리기에
 날마다 바라도 그리운 산아

온 아침 나의 꿈을 스쳐간 구름
 이 밤을 어디에서 쉬리라던고.

- 조지훈, 「파초우(芭蕉雨)」 -

* 후두기는: 후두둑 떨어지는.

(나)

막차는 좁처럼 오지 않았다
 대합실 밖에는 밤새 송이눈이 쌓이고
 흰 보라 수수꽃 눈시린 유리창마다
 톱밥난로가 지퍼지고 있었다

[A] 그뭍처럼 벗은 줄고
 벗은 감기에 쿨럭이고
 그리웠던 순간들을 생각하며 나는
 한줌의 톱밥을 불빛 속에 던져 주었다

내면 깊숙이 할 말들은 가득해도
 청색의 손바닥을 불빛 속에 적셔두고
 모두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산다는 것이 때론 술에 취한 듯
 한 두름의 굴비 한 광주리의 사과를
 만지작거리며 귀향하는 기분으로

[B] 침묵해야 한다는 것을
 모두들 알고 있었다
 오래 앓은 기침소리와
 쓴 약 같은 입술 담배 연기 속에서
 싸룩싸룩 눈꽃은 쌓이고
 그래 지금은 모두들
 눈꽃의 화음에 귀를 적신다

자정 넘으면
 낮설음도 뼈아픔도 다 설원인데
 단풍잎 같은 몇 잎의 차창을 달고
 밤열차는 또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리웠던 순간들을 호명하며 나는
 한 줌의 눈물을 불빛 속에 던져 주었다.

- 광재구, 「사평역(沙平驛)에서」 -

41. (가), (나)의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나)와 달리 비유를 통해 사물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드러낸다.
- ② (나)는 (가)와 달리 시상이 전개되면서 역동적인 분위기가 정적인 분위기로 바뀐다.
- ③ (가)는 하강의 이미지를, (나)는 상승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화자의 현실적 관심을 타나낸다.
- ④ (가)는 현재 마주하고 있는 대상에 대한, (나)는 과거의 순간들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이 드러난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을 반복하여 독백적 어조에 변화를 준다.

42.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파초우」는 조지훈이 스스로 ‘방랑시편’이라고 했던 작품들 중의 하나이다. 이 작품의 화자는 자연을 떠돌면서 자연과 교감하는 자로, 저녁에도 소리를 매개로 자연과 교감하면서 자신을 성찰한다. 그의 이런 태도는 자연과 하나가 되려는 것이지만, 현실에서 벗어나 자연에 은둔하려는 것이기도 하다.

- ① 제1연: ‘이 밤을 어디에서 쉬리라던고’는 화자가 ‘한 송이 구름’에 방랑자로서 자신의 심정을 투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② 제2연: ‘성긴 빗방울’이 ‘후두기는’ 소리가 ‘저녁 어스름’과 어우러져, 화자의 성찰이 이루어지는 배경이 감각적으로 제시된다.
- ③ 제3연~제4연: 화자가 ‘푸른 산’을 대하는 태도에서 화자가 자연 세계를 지향하고 있음이 잘 드러난다.
- ④ 제4연: ‘들어도 싫지 않은 물소리’는 화자와 자연과의 교감이 자연의 소리를 통해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 ⑤ 제5연: ‘어디메’는 자연 세계를 방랑하는 화자가 벗어나고자 했던 현실 공간을 가리킨다.

43.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사평역에서」의 화자는 대합실에서 막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공감 어린 시선으로 바라본다. 화자는 이런 시선으로 불빛, 눈 등을 바라보며 고단한 삶을 견디어 내는 사람들의 속내에 주목한다. ‘한 줌의 눈물’은 그들을 위해 화자가 바치는, 작지만 진심 어린 하나의 선물이라 할 수 있다.

- ① [A]의 ‘한 줌의 톱밥’이 불을 피우는 데 쓰여 추위를 견디게 해 주는 것처럼, ‘한 줌의 눈물’은 사람들이 자신의 힘든 상황을 견디는 데 위로가 된다고 할 수 있겠어.
- ② [B]에서 화자가 사람들의 속내를 잘 이해하는 것을 보면, ‘한 줌의 눈물’은 할 말이 있는데도 침묵하는 사람들의 속내에 화자가 공감하여 흘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어.
- ③ [B]에서 화자는 ‘눈꽃의 화음’이 열악한 상황을 드러낸다고 보고 있으므로, ‘한 줌의 눈물’은 그러한 상황을 극복해 내려는 화자의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어.
- ④ [C]에서 화자가 지난날을 ‘호명’하며 ‘한 줌의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면, ‘한 줌의 눈물’은 고단한 현재를 견디어 내게 해주는 힘이 과거의 추억처럼 소박한 데 있음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겠어.
- ⑤ [A]에서 [C]로 전개되면서 화자가 ‘불빛 속에 ‘한 줌의 눈물’을 던지는 것을 보면, ‘한 줌의 눈물’은 삶의 고단함을 견디어 내는데 힘을 보태고자 하는 화자의 진심이 담긴 것이라고 할 수 있겠어.

[44~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4.11B

암소의 뿔은 수소의 그것보다도 한층 더 겹쳐있다. 이 애상적인 뿔이 나를 받을 리 없으니 나는 마음 놓고 그 곁 풀밭에 누워도 좋다. 나는 누워서 우선 소를 본다.

소는 잠시 반추(反芻)를 그치고 나를 응시한다.

‘이 사람의 얼굴이 왜 이리 창백하냐, 아마 병인인가 보다. 내 생명에 위협을 가하려는 거나 아닌지 나는 조심해야 되지.’

이렇게 소는 속으로 나를 심리(審理)하였으리라. 그러나 오 분 후에는 소는 다시 반추를 계속하였다. 소보다도 내가 마음을 놓는다.

소는 식욕의 즐거움조차 냉대할 수 있는 지상 최대의 권태자다. 얼마나 권태에 지질렀길래 이미 위에 들어간 식물을 다시 게워 그 시금털털한 반소화물(半消化物)의 미각을 역설적으로 향락하는 체해 보임이리오?

소의 체구가 크면 클수록 그의 권태도 크고 슬프다. 나는 소 앞에 누워 내 세균같이 사소한 고독을 겸손하면서 나도 사색의 반추는 가능할는지 불가능할는지 몰래 좀 생각해 본다.

(중략)

그렇건만 내일이라는 것이 있다. 다시는 날이 새지 않은 것 같기도 한 밤 저쪽에 또 내일이라는 نوم이 한 개 버티고 서 있다. 마치 흥명한 형리(刑吏)처럼 — 나는 그 형리를 피할 수 없다. 오늘이 되어 버린 내일 속에서 또 나는 질식할 만치 심심해 해야 되고 기막힐 만치 답답해 해야 된다.

그럼 오늘 하루를 나는 어떻게 지냈던가, 이런 것은 생각할 필요가 없으리라. 그냥 자자! 자다가 불행히 — 아니 다행히 또 깨거든 최 서방의 조카와 장기나 또 한판 두지, 웅덩이에 가서 송사리를 볼 수도 있고 — 몇 가지 안 남은 기억을 소처럼 — 반추하면서 끝없는 나태를 즐기는 방법도 있지 않으나.

불나비가 달려들어 불을 쫓다. 불나비는 죽었는지 화상을 입었으리라. 그러나 불나비라는 نوم은 사는 방법을 아는 نوم이다. 불을 보면 뛰어들 줄을 알고 — 평상에 불을 초조히 찾아다닐 줄도 아는 정열의 생물이니 말이다.

그러나 여기 어디 불을 찾으려는 정열이 있으며 뛰어들 불이 있느냐, 없다. 나에게서는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내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암흑은 암흑인 이상 이 좁은 방 것이나 우주에 꼭 찬 것이나 분량상 차이가 없으리라. 나는 이 대소 없는 암흑 가운데 누워서 숨 쉴 것도 어루만질 것도 또 욕심나는 것도 아무것도 없다. 다만 어디까지 가야 끝이 날지 모르는 내일 그것이 또 창밖에 등대(等待)*하고 있는 것을 느끼면서 오들오들 떨고 있을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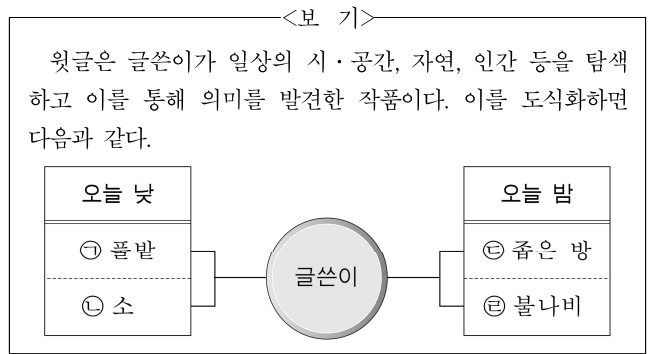
- 이상, 「권태」 -

* 등대: 미리 준비하고 기다림.

44.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비유를 활용하여 대상의 속성과 관련된 상념을 표현하고 있다.
- ② 우화를 제시하여 글쓴이가 처한 부정적인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 ③ 설의적 표현을 통해 자연과 조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 ④ 과거의 삶과 현재의 삶을 대비하여 현대 사회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⑤ 글쓴이의 생각을 타인의 생각과 비교하여 글쓴이가 삶에서 깨달은 진리를 전달하고 있다.

45. <보기>을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이 권태에 빠진 글쓴이에게 충족감을 주는 안식처라면, ㉡은 나태한 삶을 피해 은신한 글쓴이에게 도피처를 의미하겠군.
- ② 글쓴이는 ㉠에서 자신의 무기력한 삶의 원인을 찾아 고뇌하다가 마침내 그 원인을 ㉢에서 찾고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있군.
- ③ 글쓴이는 ㉣이라는 삶의 공간에서 ㉡에 주목하여 아무런 목표 없이 살아가는 자신의 현실 대응 방식을 반성하고 이를 개선하겠다고 다짐하고 있군.
- ④ 글쓴이는 ㉢을 통해 자신이 권태에 빠진 고독한 존재임을, ㉡을 통해서도 열정 없이 살아가는 존재임을 확인하고는 권태가 지속될 내일을 두려워하고 있군.
- ⑤ 글쓴이는 의미 없는 일상을 반복하고 있는 자신이 ㉢, ㉣과 다를 바 없다고 규정하고 권태에서 벗어나려는 의욕마저 갖지 못하게 하는 현실에 대해 안타까워하고 있군.

[31~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4.11A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봄 한철
 ㉡ 걱정을 인내한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분분한 낙화……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싸여
 지금은 가야 할 때,

㉢ 무성한 녹음과 그리고
 ㉣ 머지않아 열매 맺는
 가을을 향하여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

헤어지자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
 하롱하롱 꽃잎이 지는 어느 날

나의 사랑, 나의 결별,
 ㉤ 샴티에 물 고이듯 성숙하는
 내 영혼의 슬픈 눈.

- 이형기, 「낙화」 -

31. 윗글의 표현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조적 표현을 통해 삶의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의성어를 활용하여 경쾌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 ③ 영탄과 독백의 어조를 통해 화자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대상의 불변성을 부각하고 있다.
- ⑤ 동일한 문장 형태를 반복하여 순환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32.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이별에 직면한 화자가 겪고 있는 내적인 방향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은 이별을 감내하면서도 지나간 사랑에 연연하고 있는 화자의 회한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은 이별의 고통으로 인하여 삶의 목표를 상실하고 빈민에 가득 차있는 화자의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
- ④ ㉣은 이별의 경험이 내적 충만으로 이어지리라는 화자의 기대감을 계절의 의미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 ⑤ ㉤은 이별로 인한 상실감을 잊고 과거의 삶으로 회귀하는 화자의 태도를 표현하고 있다.

33.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낙화」는 인간사의 이별은 꽃의 떨어짐에 비유함으로써 청춘기 자아의 성장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자이는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성장의 가능성을 발견한다. 이 과정에서 자이는 시련에 부딪혀 자신이 갖고 있던 정체성의 변화를 겪게 되고, 그러한 변화를 인정하고 수용하면서 새로운 자아상을 확립해 나가게 된다.

- ① 제1연과 제3연의 '가야 할 때'는 이전과 달라진 상황을 인식한 때라는 점에서, 새로운 자아의 모습을 찾게 되는 계기라고 할 수 있겠군.
- ② 제2연의 '봄 한철'과 제5연의 '꽃답게 죽는다'는 청춘기의 열정을 비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련에 부딪혀 열정을 잃어 가는 자아의 모습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겠군.
- ③ 제3연의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싸여'는 이별의 결과에 대한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변화의 수용이 자아 성장의 과정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제6연의 '헤어지자/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는 이별을 수용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세계와의 관계가 변화되었음을 인정하려는 자아의 태도를 보여 준다고 할 수 있군.
- ⑤ 제7연의 '내 영혼의 슬픈 눈'은 화자가 자신을 성찰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시련을 통해 새로워지는 자아상을 확립해 나가는 것임을 알 수 있군.

[34~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14.11A

어머니는 조각마루 끝에 앉아 말이 없었다. 벽돌 공장의 높은 굴뚝 그림자가 시멘트 담에 꺾어지며 좁은 마당을 덮었다. 동네 사람들이 골목으로 나와 뭐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통장은 그들 사이를 비집고 나와 방죽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어머니는 식사를 끝내지 않은 밥상을 들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어머니는 두 무릎을 곧추세우고 앉았다. 그리고, 손을 들어 ㉠ 부엌 바닥을 한 번 치고 가슴을 한 번 쳤다. 나는 동사무소로 갔다. ㉡ 행복동 주민들이 잔뜩 몰려들어 자기의 의견들을 큰 소리로 말하고 있었다. ㉢ 들은 사람은 두셋밖에 안 되는데 수십 명이 거의 동시에 떠들어대고 있었다. 쓸데없는 것이었다. 떠든다고 해결 될 문제는 아니었다.

나는 바깥 게시판에 적혀 있는 공고문을 읽었다. 거기에는 아파트 입주 절차와 아파트 입주를 포기할 경우 탈 수 있는 이주 보조금 액수 등이 적혀 있었다. 동사무소 주위는 시장바닥과 같았다. 주민들과 아파트 거간꾼들이 한데 뒤엉켜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했다. 나는 거기서 아버지와 두 동생을 만났다. 아버지는 도장포 앞에 앉아 있었다. 영호는 내가 방금 물러선 게시판 앞으로 갔다. 영희는 골목 입구에 세워놓은 검정색 승용차 옆에 서 있었다. 아침 일찍 일들을 찾아 나섰다가 ㉣ 철거 계고장이 나왔다는 소리를 듣고 돌아온 것이었다. 누군들 이런 날 일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아버지 옆으로 가 아버지의 공구들이 들어 있는 부대를 둘러메었다. 영호가 다가오더니 나의 어깨에서 그 부대를 내려 옮겨 메었다. 나는 아주 자연스럽게 그것을 넘겨 주면서 이쪽으로 걸어오는 영희를 보았다. 영희의 얼굴은 발갛게 상기되어 있었다. 몇 사람의 거간꾼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아파트 입주권을 팔라고 했다. 아버지가 책을 읽고 있었다. 우리는 아버지가 책을 읽는 것을 처음 보았다. 표지를 찢기 때문에 무슨 책을 읽는지도 알 수 없었다. 영희가 허리를 굽혀 아버지의 손을 잡아끌었다. 아버지는 우리들의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난장이가 간다”고 처음 보는 사람들이 말했다.

어머니는 대문 기둥에 붙어 있는 ㉤ 알루미늄 표찰을 떼기 위해 식칼로 못을 뽑고 있었다. 내가 식칼을 받아 반대쪽 못을 뽑았다. 영호는 어머니와 내가 하는 일이 못마땅한 모양이었다. 그러나 마음에 드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 주기를 바랄 수는 없는 일이었다. 어머니는 무허가 건물 번호가 새겨진 알루미늄 표찰을 빨리 떼어 간직하지 않으면 나중에 괴로운 일이 생길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어머니는 손바닥에 놓인 표찰을 말없이 들여다보았다. 영희가 이번에는 어머니의 손을 잡아끌었다.

[중략 줄거리] 아버지는 병들고 지쳐 일을 할 수 없게 되고 ‘나’, ‘영호’, ‘영희’는 학교를 그만두게 된다. 어느 날 아버지는 말 없이 집을 나간다.

나는 아버지가 놓고 나간 책을 읽고 있었다. 그것은 『일만 년 후의 세계』라는 책이었다. 영희는 온종일 팬지꽃 앞에 앉아 줄 끊어진 기타를 쳤다. ‘최후의 시장’에서 사온 기타였다. 내가 방송 통신교의 강의를 받기 위해 라디오를 사러 갈 때 영희가

따라왔었다. 쓸 만한 라디오가 있었다. 그런데, 영희가 먼지 속에 놓인 기타를 들어 통겨 보는 것이었다. 영희는 고개를 약간 숙이고 기타를 쳤다. 긴 머리에 반쯤 가려진 열얼굴이 아주 예뻐다. 영희가 치는 기타 소리는 영희에게 아주 잘 어울렸다. 나는 먼저 골랐던 라디오를 살 수 없었다. 좀 더싼 것으로 바꾸면서 영희가 든 기타를 가리켰다. 그 라디오가 고장이 나고 기타는 줄이 하나 끊어졌다. 줄 끊어진 기타를 영희는 쳤다. 나는 아버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일만 년 후의 세계』라는 책을 아버지는 개천 건너 주택가에 사는 젊은이에게서 빌렸다. 그의 이름은 지섭이었다. 지섭은 밝고 깨끗한 주택가 삼층집에서 살았다. 지섭은 그 집 가정교사였다. 아버지와 그는 서로 통하는 데가 있었다. 지섭이 하는 말을 나는 들었었다. 그는 이 땅에서 우리가 기대할 것은 이제 없다고 말했다.

“왜?”

아버지가 물었다.

지섭은 말했다.

“사람들은 사랑이 없는 욕망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 한 사람도 남을 위해 눈물을 흘릴 줄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만 사는 땅은 죽은 땅입니다.”

“하긴!”

“아저씨는 평생 동안 아무 일도 안 하셨습니까?”

“일을 안 하다니? 일을 했지. 열심히 일했어. 우리 식구 모두가 열심히 일했네.”

“그럼 무슨 나쁜 짓을 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법을 어긴 적 없으세요?”

“없어.”

“그렇다면 기도를 드리지 않으셨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지 않으셨어요.”

“기도도 올렸지.”

“그런데, 이게 뭐니까? 뭐가 잘못된 게 분명하죠? 불공평하지 않으세요? 이제 이 죽은 땅을 떠나야 됩니다.”

“떠나다니? 어디로?”

“달나라로!”

“애들이!”

어머니의 ㉥ 불안한 음성이 높아졌다. 나는 책장을 덮고 밖으로 뛰어나갔다. 영호와 영희는 엉뚱한 곳을 찾아 헤매고 있었다. 나는 방죽가로 나가 곧장 하늘을 쳐다보았다. 벽돌 공장의 높은 굴뚝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그 맨 꼭대기에 아버지가 서 있었다. 바로 한 걸음 정도 앞에 달이 걸려 있었다.

- 조세희,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

34.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서술자의 시각을 통해 상황에 대한 비관적 인식이 드러나고 있다.
- ② 인물의 과장된 행동을 통해 비극적 분위기에 반전을 피하고 있다.
- ③ 현학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사건을 보는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 ④ 액자 구조를 통해 상이한 이야기가 갖는 유사한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⑤ 동시에 벌어진 사건들을 나란히 배치하여 이야기의 흐름을 지연시키고 있다.

35. ‘어머니’와 관련하여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사건에 대한 ‘어머니’의 심리적 반응을 행동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 ② ㉡: ‘어머니’가 처한 현실과 상반된 지명이 현실의 모순을 부각하고 있다.
- ③ ㉢: ‘어머니’에게 닥친 문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드러내고 있다.
- ④ ㉣: 생활의 의지마저 포기한 ‘어머니’의 절망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 ⑤ ㉤: ‘어머니’의 고조된 음성이 상황의 절박함을 암시하고 있다.

36.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이 작품은 등장인물인 ‘지섭’을 통해 ‘죽은 땅’과 ‘달나라’라는 상징적 공간을 설정하여 ‘난장이’ 일가가 직면한 현실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죽은 땅’은 ‘욕망’과 ‘불공평’이라는 속성으로 ‘달나라’는 ‘사랑’과 ‘남을 위한 눈물’이라는 속성으로 구체화된다. 이를 통해 이 작품은 산업 사회의 이면에 대한 비판과 이상 세계를 향한 낭만적 동경을 보여 주고 있다.

- ① ‘불공평’을 ‘죽은 땅’의 속성으로 볼 때, ‘공고문’은 불평등한 현실의 문제를 들춰내는 소재이겠군.
- ② ‘욕망’을 ‘죽은 땅’의 속성으로 볼 때, ‘난장이’ 가족의 어려움은 ‘욕망’으로 가득한 현실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겠군.
- ③ 달나라가 ‘죽은 땅’과 대조되는 것으로 볼 때, ‘달나라’에 대한 동경은 ‘죽은 땅’에 대한 ‘지섭’의 비판적 인식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겠군.
- ④ ‘사랑’을 ‘달나라’의 속성으로 볼 때, ‘지섭’은 자신의 욕망만 앞세우는 사람들이 사는 ‘죽은 땅’에서는 ‘사랑’을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하겠군.
- ⑤ ‘남을 위한 눈물’을 ‘달나라’의 속성으로 볼 때, ‘지섭’은 ‘난장이’가 주어진 현실의 삶에 충실하지 못했기에 그를 위해 눈물을 흘려 줄 사람을 만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하겠군.

37. ㉠의 상황을 나타내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유구무언(有口無言) ② 일구이언(一口二言)
- ③ 중구난방(衆口難防) ④ 진퇴양난(進退兩難)
- ⑤ 횡설수설(橫說豎說)

[41~4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4.11A

〔앞부분의 줄거리〕 흥 판서와 시비 춘섬 사이에서 서자로 태어난 길동은 자신의 처지를 괴로워하다가 부친께 호부호형을 허락받고, 집을 나와 활빈당 활동을 벌여 조정과 대립하다가 병조판서 벼슬을 받는다.

음력 구월 보름에 임금이 달빛을 받으며 후원을 걸으실새, 문득 맑은 바람이 일어나며 공중에서 피리 소리가 청아한 가운데 한 소년이 내려와 주상 앞에 엎드렸다. 임금이 놀라 묻기를,

“선동(仙童)이 어찌 인간 세상에 내려왔으며 무슨 일을 말하고자 하나뇨?”

소년이 땅에 엎드려 아뢰기를,

“신은 전임 병조판서 흥길동이옵니다.”

상이 또 놀라 묻기를,

“네가 어찌 심야에 왔느냐?”

길동이 대답해 가로되,

“신이 전하를 받들어 만세를 모실까 했으나, 천한 종의 몸에서 태어났기에 문(文)으로는 흥문관 벼슬이 막히고 무(武)로는 선전관 벼슬이 막혔습니다. 이런 까닭에 활빈당으로 더불어 사방을 멋대로 떠돌아다니며 관청에 폐를 끼치고 조정에 죄를 지었던 것이온데, 이는 전하로 하여금 아시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이제 벼슬을 내리어 신의 소원을 풀어 주셨으니 전하를 하직하고 조선을 떠나가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는 만수무강하소서.”

하더니 공중에 올라 아득히 날아가거늘, 임금이 그 재주를 못내 칭찬하였다. 그 후로는 길동의 폐단이 없으니 사방이 태평하였다.

길동은 조선을 하직하고 남경 땅 제도라는 섬으로 들어가, 수천 호의 집을 짓고 농업에 힘쓰고 무기 창고를 지으며 군법을 연습하니, 병사는 잘 훈련되고 양식은 풍족하게 되었다.

(중략)

상주 인형이 자세히 보니, 곧 길동이라 붙잡고 통곡하며, “아우야, 그 사이 어디 갔느냐? 아버지께서 평소애 유언이 간절하셨는데, 이제 오니 어찌 자식의 도리이겠느냐?”

하며, 손을 이끌고 내당에 들어가 모부인(母夫人)을 뵈옵고 춘섬을 상면하여 한바탕 통곡하였다.

“네가 어찌 중이 되어 다니느냐?”

하니, 길동이 대답했다.

“소자가 조선을 떠나 머리 깎고 중이 되어 지술(地術)을 배웠습니다. 이제 부친을 위하여 좋은 터를 구했으니, 모친은 염려 마소서.”

인형이 크게 기뻐하며 말하였다.

“너의 재주 기이한지라, 좋은 터를 얻었으면 무슨 염려가 있으리오.”

[A] 다음날 길동이 운구하여 제 모친을 모시고 서강 강변에 이르니, 지휘해 놓은 대로 배가 기다리고 있었다. 배에 올라 화살같이 빨리 저어 한 곳에 다다르니, 여러 사람이 수십 척의 배를 대어 놓고 있었다. 서로 반기며 호위하여 가니 그 광경이 대단하였다. 어언간 산 위에 다다르매, 인형이

자세히 본즉 산세가 웅장한지라, 길동의 지식을 못내 탄복하였다. 일을 마치고 함께 길동의 처소로 돌아오니, 백씨와 조씨가 시어머니와 시숙을 맞아 뵈옵는 한편, 인형과 춘섬은 못내 길동의 지식을 탄복하였다.

여러 날이 되자, 인형은 길동과 춘섬을 이별하면서 산소를 극진히 모시라 당부한 후, 산소에 하직하고 출발했다. 본국에 이르러 모부인을 뵈옵고 전후 사실을 고하니, 부인이 신기하게 여겼다. 길동이 제사를 극진히 받들어 삼년상을 마치매 모든 영웅을 모아 무예를 익히며 농업에 힘쓰니, 병사는 잘 훈련되고 양식도 풍족했다.

남쪽에 울도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으니, 기름진 평야가 수천 리나 되며 덕화(德化)가 행해지니 실로 살기 좋은 나라라, 길동이 매양 생각해 오던 바였다. 모든 사람을 불러 말하기를,

“내가 이제 울도국을 치고자 하니 그대들은 정성을 다하라.”

하고는 그날로 진군하였다. 길동은 스스로 선봉장이 되고 마속으로 후봉장을 삼아, 정예병 오만을 거느리고 울도국 철봉산에 다다라 싸움을 걸었다. 울도국 태수 김현충이 난데없는 군사가 이름을 보고 크게 놀라 왕에게 보고하는 한편, 한 부대의 군사를 거느리고 내달아 싸웠다. 길동이 이를 맞아 싸워 한 번에 김현충을 베고 철봉을 얻어 백성을 달래어 위로하였다. 정철로 철봉을 지키게 하고, 대군을 지휘하여 바로 도성을 칠새, 격서(檄書)를 울도국에 보냈으니, 내용은 이러하였다.

“의병장 흥길동은 글을 울도왕에게 부치나니, 대저 임금은 한 사람의 임금이 아니요 천하 사람의 임금이라. 내 하늘의 명을 받아 병사를 일으키매, 먼저 철봉을 깨뜨리고 물밀듯 들어오니, 왕은 싸우고자 하거든 싸우고, 그렇지 않으면 일찍 항복하여 살기를 도모하라.”

왕이 보기를 마치자 크게 놀라,

“우리나라가 철봉을 굳게 믿었거늘, 이제 잃었으니 어찌 대항 하리오.”

하고는, 모든 신하를 거느리고 항복했다.

길동이 성중에 들어가 백성을 달래어 안심시키고 왕위에 오른 후, 울도왕을 의령군에 봉했다. 마속과 최철로 각각 좌의정과 우의정을 삼고, 나머지 여러 장수에게도 각각 벼슬을 내리니, 조정에 가득 찬 신하들이 만세를 불러 하례하였다. 왕이 나라를 다스린 지 삼 년에 산에는 도적이 없고 길에 떨어진 물건도 주어 갖지 않으니, 태평세계라고 할 만하였다.

- 허균, 「흥길동전」 -

41.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길동이 하늘에서 내려오자 임금은 그를 선동으로 오해했다.
- ② 인형은 부친의 장례식에 나타난 길동을 동생으로 대했다.
- ③ 길동은 잘 훈련된 정예병을 이끌고 울도국을 공격했다.
- ④ 울도국 태수는 길동이 보낸 격서에 놀라 항복했다.
- ⑤ 길동은 부하들에게 벼슬을 주고 울도국을 다스렸다.

42. [A]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부친의 삼년상을 길동이 영웅들을 모아 함께 치르는 과정에서, 길동과 부하들 간의 유대감이 공고해지고 있다.
- ② 부친의 생전에 호부호형을 허락받았던 길동이 부친의 사후에는 산소를 모시게 됨으로써, 자식으로서의 지위가 강화되고 있다.
- ③ 부친을 운구하는 일에 많은 사람들이 엄숙하게 참여함으로써, 부친의 평소 넓은 인간관계가 사회적 차원에서 확인되고 있다.
- ④ 부친을 산소에 모시는 자리에 모부인이 참석하였다는 점에서, 부친 사후 모부인을 중심으로 길동의 가족 관계가 재편되고 있다.
- ⑤ 부친을 위해 좋은 터를 마련하고자 지술을 배운 길동을 모친이 염려하는 데서, 주술을 용인하지 않으려는 가족의 태도가 드러나고 있다.

43. <보기>를 참고하여 밑줄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서자 홍길동의 인생은 신분의 한계를 극복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당대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뿐만 아니라 개인의 이기적 욕망에서 비롯되는 문제도 드러난다. 즉 신분의 한계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길동은 부당한 사회와 충돌하기도 하고, 개인적 욕망 성취를 위해 사회 부조리와 타협하거나 명분과 괴리되는 행위를 하여 스스로 모순에 빠지기도 하는 것이다.

- ① 비범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천한 종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길동의 벼슬길이 막히는 것을 보면, 당대 사회가 인재를 등용하는 데에 폐쇄적이었음을 알 수 있어.
- ② 신분 차별에 저항했던 길동이 벼슬을 받자 자신의 행적을 '죄'라고 부르는 것을 보면, 길동이 욕망 성취 과정에서 당대의 사회 제도와 타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 ③ 봉건 체제의 상징인 임금이 당대 사회 제도의 부당함에 공감하여 길동의 재주를 칭찬하는 것을 보면, 당대 사회가 개인의 이기적인 욕망을 제도적으로 승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 ④ 분란을 일으킨 길동에게 임금이 벼슬을 내려 길동의 불만을 달랠 뿐 그 근본 원인은 해소하지 않는 것을 보면, 당대 사회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음을 알 수 있어.
- ⑤ 길동이 울도국을 침략하여 '살기 좋은 나라'를 위기에 빠뜨리면서도 스스로를 '의병장'이라 부르며 침략을 정당화하는 것을 보면, 길동의 욕망 성취 과정에서 행위와 명분 사이에 괴리가 있음을 알 수 있어.

[31~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4.09B

매영(梅影)이 부드러운 창(窓)에 옥인금차(玉人金釵)* 비겨신저
이삼(二三) 백발옹(白髮翁)은 거문고와 노리(樂)로다
이윽고 잔(斝) 드러 권(勸)하랴(樂) 달이 또한 오르더라 <제1수>

빙자옥질(氷姿玉質)*이여 눈 속에 네로구나
가만이 향기(香氣) 노아 황혼월(黃昏月)을 기약(期約)하니
아마도 아치고절(雅致高節)*은 너뿐인가 흐노라 <제3수>

바람이 눈을 모라 산창(山窓)에 부딪치니
찬 기운(氣運) 시여 드러 즈는 매화(梅花)를 침노(侵擄)하니
아무리 일우려 허인들 봄(春)뜻이야 아슬소나 <제6수>

동각(東閣)에 숨은 솟치(躑躅)인가 두견화(杜鵑花)인가
건곤(乾坤)이 눈이여늘 제(此) 엇지 감히 뒤리
알패라 백설양춘(白雪陽春)*은 매화(梅)맛게 뉘 이시리 <제8수>
- 안민영, 「매화사」 -

- * 옥인금차: 미인의 금비녀.
- * 빙자옥질: 얼음같이 맑고 깨끗한 살결과 옥같이 아름다운 성질.
- * 아치고절: 우아한 풍치와 높은 절개.
- * 백설양춘: 흰 눈이 날리는 이른 봄.

31. 윗글의 표현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반어적 표현을 통해 시적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 ② 매화의 형식을 통해 대상과의 친밀감을 나타내고 있다.
- ③ 다양한 감각적 심상을 사용하여 대상을 예찬하고 있다.
- ④ 대상에 감정을 이입하여 화자의 애상감을 심화하고 있다.
- ⑤ 명령적 어조를 통해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32.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제1수는 시적 화자를 둘러싼 상황을 제시하여 시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 ② 제3수는 제1수와 달리 대상을 의인화하여 대상의 면모를 강조하고 있다.
- ③ 제6수는 대상이 시련을 겪는 상황을 제시하여 대상의 속성을 부각하고 있다.
- ④ 제8수는 다른 자연물과 대상의 비교를 통해 공통된 특성을 부각하고 있다.
- ⑤ 제6수와 제8수는 의문의 형식을 통해 대상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33.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안민영의 「매화사」에는 매화를 감상하는 여러 가지 태도가 나타나 있다. 기본적으로 시흥(詩興)을 불러일으키는 자연물로서의 속성에 초점을 맞춰 매화를 감상하는 태도가 바탕이 된다. 여기에 당대의 이념과 관련하여 매화에 규범적 가치를 부여하여 감상하는 태도, 매화에 심미적으로 접근하여 아름다움을 음미하는 태도, 매화의 흥취를 즐기는 풍류적 태도 등이 덧붙여지기도 한다.

- ① ‘거문고와 노리’는 매화가 불러일으킨 시흥을 즐기기 위한 풍류적 요소이다.
- ② ‘잔 드러 권하랴’는 고조된 흥취를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을 드러낸다.
- ③ ‘황혼월’은 매화를 심미적으로 감상할 때 매화의 아름다움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 ④ ‘아치고절’은 자연물인 매화에 부여된 심미적이면서도 규범적인 가치이다.
- ⑤ ‘봄뜻’은 매화를 당대 이념에 국한하여 감상해야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시어이다.

MEMO

MEMO

[34~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4.09B

[A] 국순(麴醇)의 자(字)는 자후(子厚)이다. 그 조상은 농서(隴西) 출신이다. 90대(代) 선조였던 모(牟)가 후직(后稷)을 도와 백성들을 먹여 공이 있었다. 『시경』에 ‘내게 밀과 보리를 주다’라고 한 것이 그것이다. 모(牟)가 처음에는 숨어 벼슬하지 않고 말하기를, “나는 반드시 받을 갈아 먹으리라.” 하며 밭이랑에서 살았다. 임금이 그의 자손이 있다는 말을 듣고 수레를 보내 부르며 각 고을에 명하여 후한 예물을 보내라 하고, 신하를 시켜 친히 그 집에 찾아가도록 해 결국 절구와 절구공이 사이에서 귀천 없는 교분을 맺고, 자신을 덮어 감추고 세상과 더불어 화합하게 되었다.

(중략)

순은 그릇과 도량이 크고 깊었다. ① 출렁대고 넘실거림이 만경창파(萬頃蒼波) 같으며, 맑게 하려 해도 더는 맑아질 수 없고 뒤흔든대도 흐려지지 않았다. 그런 풍류 취향이 한 시대를 풍미하여 자못 사람의 기운을 일으켜 주었다.

일찍이 섭법사(藥法師)에게 나아가 온종일 담론하였는데,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이 탄복하여 쓰러지자, 드디어 이름이 알려지게 되었다. 호를 ‘국(麴) 처사’라 하며 공경대부로부터 머슴에 이르기까지 그 향기로운 이름을 접하는 이마다 모두 그를 흠모하였으며, 성대한 모임이 있을 때마다 순이 오지

[B] 아니하면 모두 슬퍼하여 말하기를, “국 처사가 없으면 즐겁지 않다.” 했다. 그가 당시 세상에서 사랑받음이 이와 같았다.

산도(山濤)라는 이는 감식안이 있었는데, 일찍이 순을 보고는 감탄하여 말했다.

② “어떤 늙은 활미가 이토록 잘난 기린아를 낳았을까? 하지만 천하의 백성들을 가르치는 자도 필경 이 아이일 것이다.”

관부(官府)에서 순을 불러 청주종사(靑州從事)*를 삼았으나, 마땅한 벼슬자리가 아니라 하여 다시 평원독우(平原督郵)*를 시켰다. 얼마 후 탄식하기를,

③ ‘내가 이 얼마 되지 않는 녹봉을 받고, 이 따위 시골 아이들에게 허리를 굽힐 수 없다. 내 마땅히 술잔과 술상 사이에 곧추 서서 담론하리라.’

그 무렵 관상을 잘 보는 이가 있어 말했다. “그대의 얼굴엔 불그레한 기운이 감돌고 있소. 뒤에 반드시 귀하게 되어 높은 벼슬을 얻게 될 것이니, 마땅히 좋은 자리를 기다렸다가 벼슬에 나아가시오.”

진 후주(陳後主) 때에 임금이 그의 그릇을 남다르게 여겨 장차 크게 쓸 뜻이 있다 하여 광록대부 예빈경의 자리로 옮겨 주었고, 공(公)의 작위에 오르게 하였다. 그리고 무릇 군신의 회의에는 임금이 꼭 순으로 참여케 하니, 그 나아가고 물러남과 그 수작이 거슬림이 없이 뜻에 들어맞았다.

④ 순이 권세를 얻게 되자, 어진 이와 사귀고 손님을 대접하며, 종묘에 제사를 받드는 등의 일을 앞장서서 맡아 주관하였다. 임금이 밤에 잔치를 열 때도 오직 그와 궁인만이 곁에서 모실 수 있었을 뿐, 아무리 임금과 가까운 신하여도

참여할 수 없었다.

[C] 이후로 임금은 곧드레만드레 취하여 정사를 폐하게 되었다. 그러나 순은 ⑤ 입을 곧게 다문 채 그 앞에서 간언할 줄 몰랐다. 그리하여 예법을 지키는 선비들은 그를 마치 원수 처럼 미워하게 되었다. 그러나 임금은 매양 그를 감싸고돌았다.

순은 또 돈을 거둬들여 재산 모으기를 좋아하므로, 사람들이 그를 천하게 여겼다. 임금이 묻기를,

“경은 무슨 버릇이 있소?”

하니, 순이 대답하기를,

“신(臣)은 돈을 좋아하는 습성이 있나이다.”

했다. 임금이 크게 웃고 그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한번은 조정에 들어가 임금 앞에 마주 대하고 아뢰었는데, 순이 분다 입에서 나는 냄새가 있었고, 이에 임금이 싫어하며 말했다.

“경이 나이 들고 기운도 없어 나의 부림을 못 견디는구료!” 그러자 순은 마침내 관을 벗고 물러나면서 아뢰었다.

⑥ “신(臣)이 높은 벼슬을 받고 남에게 물려주지 아니하면 망신이 될까 두렵습니다. 부디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신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왕의 명으로 좌우의 부축을 받아 집에 돌아온 순은 갑자기 병이 나 하룻밤 사이에 죽고 말았다.

[D] 자식은 없고 먼 친척 가운데 아우뻘 되는 청(淸)이, 훗날 당 나라에 출사(出仕)*하여 벼슬이 내공봉에 이르렀으며, 그 자손이 다시 중국에서 번성하였다.

사신(史臣)은 이렇게 말했다. “국 씨의 조상이 백성에게 공로가 있고, 청백한 기상을 자손에게 물려주었다. 울창주(鬱鬱酒)는 주나라에서 칭송이 하늘에 닿을 듯했으니, 가히 그 조상의 기풍이 있다 하겠다.

[E] 순이 가난한 집안에서 자라나 높은 벼슬에 오르는 영광을 얻게 되어 술 단지와 술상 사이에 서서 담론하게 되었다. 그러나 옳고 그름을 변론하지 못하고, 왕실이 어지러워 저도 붙들지 못하여 마침내 천하의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산도(山濤)의 말을 족히 믿을 만하다.”

- 임춘, 「국순전」 -

- * 청주종사: 배꼽 밑까지 시원하게 넘어가는 좋은 술. ‘높은 벼슬’을 뜻함.
- * 평원독우: 명치 위에 머물러 숨이 막히는 좋지 않은 술. ‘낮은 벼슬’을 뜻함.
- * 출사: 벼슬에 나아감.

34. 뒷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서술자가 자신의 체험을 직접 서술하고 있다.
- ②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시·공간적 배경이 드러나고 있다.
- ③ 예화를 열거하는 방식으로 인물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
- ④ 과거와 현재를 교차시켜 사건을 유기적으로 구성하고 있다.
- ⑤ 권위 있는 인물의 중재를 통해 인물 간의 갈등이 해소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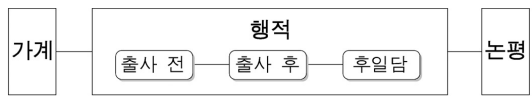
35.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국순의 성품을 바다에 비유한 것으로, 넓고 깊은 국순의 마음을 의미한다.
- ② ㉡은 국순의 장래를 예언한 것으로, 국순이 세상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임을 경고한다.
- ③ ㉢은 불만족스러운 처지와 이를 넘어서려는 심경을 표현한 것으로, 국순의 자존심을 나타낸다.
- ④ ㉣은 국순이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맡았던 소임을 기술한 것으로, 친교 모임이나 공식적 행사에서 능력을 인정받은 국순의 면모를 부각한다.
- ⑤ ㉣은 퇴임하면서 국순이 한 말로, 신조의 뜻을 받들어 자신의 순수했던 성품을 되찾고자 스스로 물러난 국순의 의지를 드러낸다.

36. <보기>를 참고하여 [A]~[E]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가전(假傳)은 사물을 의인화하여 그 일생을 전(傳)의 형식으로 서술한 글로서 인물의 가계와 성품, 생애, 공과(功過) 등을 ‘가계-행적-논평’이라는 틀 속에 담아내었다. 내용상으로는 인간 세태를 풍자하고 세상을 경계(警戒)하려는 성격이 강해 교훈성을 지닌다.



- ① [A]는 가문 내력을 소개하는 가계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주인공이 유서 깊은 가문 출신임을 알려 주고 있군.
- ② [B]와 [C]는 주인공의 행적을 구분하여 [B]에서는 주로 주인공의 파오를, [C]에서는 주로 훌륭한 업적을 기술하고 있군.
- ③ [C]에서 형상화된 주인공의 행적으로부터 작가가 전하고자 하는 교훈을 [E]에서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군.
- ④ [D]는 후대의 가문 내력을 기술하여 국순 가문이 세상에 널리 퍼져 나갔음을 보여 주고 있군.
- ⑤ [E]는 사신(史臣)이 논평하는 객관적 형식을 활용하여 인간 세태에 대한 작가 자신의 견해를 나타내고 있군.

37. ㉠을 나타낸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함구무언(緘口無言) ② 중언부언(重言復言)
- ③ 중구난방(衆口難防) ④ 이실직고(以實直告)
- ⑤ 어불성설(語不成說)

[38~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4.09B

(가)

나의 지식이 독한 회의를 구하지 못하고
내 또한 삶의 애증을 다 짐지지 못하여
㉠ 병든 나무처럼 생명이 부대길 때
저 머나먼 아라비아의 사막으로 나는 가자

거기는 한번 뜬 백일(白日)이 불사신같이 작열하고
일체가 모래 속에 사멸한 ㉡ 영겁의 허적(虛寂)*에
오직 알라의 신만이
밤마다 고민하고 방황하는 열사(熱沙)의 끝

그 ㉢ 열렬한 고독 가운데
웃자락을 나부끼고 호을로 서면
운명처럼 반드시 '나'와 대면케 될지니
하여 '나'란 나의 생명이란
그 ㉣ 원시의 본연한 자태를 다시 배우지 못하거든
차라리 나는 어느 사구(沙丘)에 ㉤ 회한(悔恨) 없는 백골을
쫓아리라

- 유치환, 「생명의 서·일장(一章)」 -

* 허적: 아무것도 없이 적막함.

(나)

— 징이 울린다 막이 내렸다
오동나무에 전등이 매어달린 가설 무대
구경꾼이 돌아가고 난 텅빈 운동장
[A] 우리는 분이 얼룩진 얼굴로
학교 앞 소꿉집에 몰려 술을 마신다
㉠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

— 뽕과리를 앞장세워 장거리로 나서면
따라붙어 악을 쓰는 건 쫓무래기들뿐
치녀애들은 기름집 담벽에 붙어 서서
철없이 킬킬대는구나
[B] 보름달은 밝아 어떤 너석은
끼정이처럼 울부짖고 또 어떤 너석은
서림이처럼 해해대지만 ㉡ 이까짓
산구석에 처박혀 발버둥 친들 무엇하랴

— 비료 값도 안 나오는 농사 따위야
아예 여편네에게나 맡겨 두고
쇠전을 거쳐 도수장 앞에 와 돌 때
[C]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
㉢ 한 다리를 들고 날나리를 불거나
고갯길을 하고 어깨를 흔들거나

- 신경림, 「농무」 -

38.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계절을 드러내는 시어를 사용하여 분위기를 조성한다.
- ② (나)는 밤에서 낮으로의 시간 변화를 통해 대상의 이면을 보여 준다.
- ③ (가)는 (나)와 달리 청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사물의 속성을 표출한다.
- ④ (나)는 (가)와 달리 대구의 방식으로 지상을 마무리하면서 여운을 강화한다.
- ⑤ (가), (나)는 모두 시적 공간의 탈속성을 내세워 이상향에 대한 화자의 동경을 드러낸다.

39. (가)의 '나'와 ㉠~㉤의 관련성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화자가 극복해야 할 자신의 모습을 빗대어 표현한 것으로, '나'와는 대비되는 표상이다.
- ② ㉡은 어떤 것도 존재하지 못하는 극한 상태로, 화자가 '나'와 대면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한다.
- ③ ㉢은 절대적 고독을 나타낸 것으로, 화자가 그 절대적 고독에서 벗어남으로써 '나'에 도달할 수 있음을 알려 준다.
- ④ ㉣은 생명이 본래적으로 존재하는 모습을 가리키는 것으로, '나'가 원시적 생명력을 지닌 존재임을 보여 준다.
- ⑤ ㉤은 죽음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는 것으로, '나'를 통해 생명을 회복하려는 화자의 의지를 담아낸 표현이다.

40.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시 「농무」는 1970년 전후의 농촌의 실상과 농민들의 정서를 잘 담아낸 작품이다. 당시 우리 사회는 산업화와 도시화에 힘을 기울였는데, 이로 인해 농촌이 도시와는 다르게 폐쇄적 감으로써 삶의 터전을 도시로 옮긴 농민들이 적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인은 농촌에서 농민들이 삶의 활력과 신명을 얻기 위해 집단적으로 추는 '농무'를 소재로 하여 현실의 암울함을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한편, 농촌 공동체의 소중함을 독자들에게 일깨워 주었다.

- ① [A]에서 화자는 농무를 통해 활력을 얻기보다 오히려 무력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
- ② [B]에서 '악을 쓰는', '킬킬대는구나', '울부짖고', '해해대지만' 등은 화자가 농무를 흥겨운 축제로 대하지는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 줬.
- ③ [C]에서 화자가 신명을 느끼는 것은 농무의 신명에 힘입어 농촌 현실의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농민들의 태도를 잘 보여 줬.
- ④ ㉠과 ㉡를 통해 당시의 농민들이 도시로 떠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어느 정도 감지할 수 있어.
- ⑤ ㉢에서 화자의 물음은 앞날을 낙관하지 못하는 농촌 사람들이 던지는 자조적 물음으로도 이해될 수 있어.

MEMO

MEMO

[41~4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14.09B

“지식인일수록 불만이 많은 법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제 몸을 없애 버리겠습니까? 중기가 났다고 말이지요. 당신 한 사람을 잃는 건, 무식한 사람 열을 잃는 것보다 더 큰 민족의 손실입니다. 당신은 아직 젊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할 일이 태산 같습니다. 나는 당신보다 나이를 약간 더 먹었다는 의미에서, 친구로서 충고하고 싶습니다. 조국의 품으로 돌아와서, 조국을 재건하는 일꾼이 돼 주십시오. 낯선 땅에 가서 고생하느니, 곁쪽이 당신 개인으로서도 행복이라는 걸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나는 당신을 처음 보았을 때, 대단히 인상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뭐 어떻게 생각지 마십시오. 나는 동생처럼 여겨 졌다는 말입니다. 만일 남한에 오는 경우에, 개인적인 조력을 제공할 용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명준은 고개를 쳐들고, 반듯하게 된 천막 천장을 올려다본다. 한층 가락을 낮춘 목소리로 혼잣말 외듯 나직이 말할 것이다.
“중립국.”

설득자는, 손에 들었던 연필 꼭지로, 테이블을 툭 치면서, 곁에 앉은 미군을 돌아볼 것이다. 미군은, 어깨를 추스르며, 눈을 찡긐하고 웃겠지.

나오는 문 앞에서, 서기의 책상 위에 놓인 명부에 이름을 적고 천막을 나서자, 그는 마치 재채기를 참았던 사람처럼 몸을 벌떡 뒤로 젖히면서, 마음껏 웃음을 터뜨렸다. 눈물이 찢끔찢끔 번지고, 침이 걸려서 캐켜거리면서도 그의 웃음은 멎지 않았다.

준다고 바다를 마실 수는 없는 일. 사람이 마시기는 한 사발의 물. 준다는 것도 허황하고 가지거나 함도 철없는 일. 바다와 한 잔의 물. 그사이에 놓인 골짜기와 눈물과 땀과 피. 그것을 생할 줄 모르는 데 잘못이 있었다. 세상에서 뒤진 가난한 땅에 자란 지식 노동자의 슬픈 환상. 과학을 믿은 게 아니라 마술을 믿었던 게지. 바다를 한 잔의 영생수로 바꿔 준다는 마술사의 말을. 그들은 빨리 알면서 권력이라는 약을 팔려고 말로 속인 꼬임을. 어리석게 신비한 술잔을 찾아 나섰다가, 김새를 차리고 항구를 돌아보자, 그들은 항구를 차지하고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참을 알고 돌아온 바다의 난파자들을 그들은 감옥에 가둘 것이다. 못된 균을 옮기지 않기 위해서. 역사는 소결음으로 움직인다. 사람의 커다란 모순과 업(業)에 비기면, 아무 자국도 못 낸 것이나 마찬가지다. 당대까지 사람이 만들어 낸 물질 생산의 수확을 고르게 나누는 것만이 모든 시대에 두루 맞는 가능한 일이다. 마찬가지로 아닌가. 벌써 아득한 옛날부터 사람 동네가 알아낸 슬기. 사람이라는 조건에서 비롯하는 슬픔과 기쁨을 고루 나누는 것. 그래 봐야, 사람의 조건이 아직도 풀어나가야 할 어려움의 크기에 대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이 이루어 놓은 것에 눈을 돌리지 않고, 이루어야 할 것에만 눈을 돌리면, 그 자리에서 그는 삶의 힘을 잃는다. 사람이 풀어야 할 일을 한눈에 보여 주는 것 — 그것이 ‘죽음’이다. 은혜의 죽음을 당했을 때, 이명준 배에서는 마지막 돛대가 부러진 셈이다. 이제 이루어 놓은 것에 눈을 돌리면서 살 수 있는 힘이 남아 있지 않다. 팔자소관으로 빨리 늙는 사람도 있는 법이었다. 사람마다 다르게 마련된 몸의 길, 마음의 길, 무리의 길. 대일 언덕 없는

난파꾼은 항구를 잊어버리기로 하고 물결 따라 나선다. 환상의 술에 취해 보지 못한 섬에 당기를 바라며. 그리고 그 섬에서 환상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무서운 것을 너무 빨리 본 탓으로 지쳐 빠진 몸이, 자연의 수명을 다하기를 기다리면서 쉬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결정한, 중립국행이었다.

중립국. 아무도 나를 아는 사람이 없는 땅. 하루 종일 거리를 싸다닌대도 어깨 한번 치는 사람이 없는 거리. 내가 어떤 사람이었던지도 모를뿐더러 알려고 하는 사람도 없다. 병원 문지기 라든지, 소방서 감시원이라든지, 극장의 매표원, 그런 될 수 있는 대로 마음을 쓰는 일이 적고, 그 대신 똑같은 움직임을 하루 종일 되풀이만 하면 되는 일을 할 테다. 수위실 속에서 나는 몸의 병을 고치러 오는 사람들을 바라본다. 나는 문간을 깨끗이 치우고 아침저녁으로 꽃밭에 물을 준다.

- 최인훈, 「광장」 -

41. 앞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장면의 빈번한 전환을 통해 긴박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② 인물의 의식에 초점을 맞추어 현실에 대한 관념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실제 공간의 실감 있는 묘사를 통해 시대적 상황을 구체화하고 있다.
- ④ 회상을 통해 대조적 체험을 병렬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주제를 강화하고 있다.
- ⑤ 인물 간의 갈등을 다각적으로 조명하여 사건 전개에 양상을 다면화하고 있다.

42. 난파꾼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거에 집착하는 존재이다.
- ② 정주할 곳에 도달한 존재이다.
- ③ 환상이 허황됨을 알아차린 존재이다.
- ④ 속세를 떠난 구도자가 되려는 존재이다.
- ⑤ 현실 변화에 민첩하게 적응하는 존재이다.

43.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4·19 직후에 발표된 최인훈의 「광장」은 당대에 금기시되던 이념 대립의 문제를 정면으로 파헤친 점에서 전후 분단 소설의 대표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남북한 간 이념의 이분법적 구도로 인해, 한반도의 분단만이 아니라 각 체제 내의 사회적 모순과 문제점을 비판하고 고발하는 것조차 이념의 이름으로 은폐하거나 호도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광장」은 그러한 시대적 상황에 문제를 제기하고 이념적 대립을 극복할 비판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 ① 이념적 선택을 강요하는 억압적 상황에 처한 이의 심정이 드러나 있어. 주인공이 중립국 선택을 마치고 난 후에 보인 반응에서 이를 엿볼 수 있지.
- ② 개인의 이익보다 이념을 택하는 당대 지식인의 실천적 의지가 드러나 있어. 개인의 행복한 삶을 마다하고 낯선 땅으로 가려는 주인공의 선택에서 이를 엿볼 수 있지.
- ③ 현실의 문제를 감추거나 왜곡하기에 급급한 체제에 대한 냉소적 태도가 드러나 있어. 미래에 대한 환상으로 사람들을 피는 마술사의 속임수를 비꼬듯 이야기한 데에서 이를 엿볼 수 있지.
- ④ 사회적 모순을 직시하는 이들을 격리하려는 권력을 비판하고자 하는 의식이 드러나 있어. 항구를 차지한 이들이 바다에서 돌아온 이들을 감금하려 한다는 대목에서 이를 엿볼 수 있지.
- ⑤ 이념적 대립 구도에 갇힌 현실에 대한 대안으로, 일상적 삶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사회가 드러나 있어. 주인공이 중립국에서 누리하고자 하는 삶의 모습을 기술한 데에서 이를 엿볼 수 있지.

[44~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14.09B

장남: 전 이 집 장남입니다. 이쪽 높은 방은 저하고 누이동생이 생활하는 곳입니다. 아버지를 소개하기 전에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부모는 자식들에게 맡은 바 책임을 다하면 됩니다. 밤 세 끼도 제대로 못 먹고, 학비도 제대로 못 주는 부모들이 아들딸이 결혼할 때가 되면 아주 귀찮게 간섭을 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버릇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집이 비교적 행복한 것도 우리 부모의 열렬한 책임감 때문입니다. (자기 손목시계를 보며) 지금이 저녁 일곱 시 반이니 아마 아버지가 곧 돌아올 것입니다. 아버지는 늘 쾌활한 얼굴에다 발걸음은 참새처럼 가볍지요.

줄음이 오는 **지루한 음악**과 더불어 철문 도어가 무겁게 열리며 교수 등장. 아래위 **양복**이 원고지를 덧붙여 만든 것처럼 이것도 **원고지 칸 투성**이다. 손에는 큼직한 낡은 가방을 들고 있다. 허리에 쇠사슬을 두르고 있는데 허리를 돌고 남은 줄이 마루에 줄줄 끌려 다닌다. 쇠사슬이 도어 밖까지 나가 있어 끝이 없다. 도어를 닫고 소파에 힘들게 앉는다. 여전히 쇠사슬을 끌고 다니면서 가방은 자기 옆에 놓고 처음으로 전면을 바라본다. 중년에 펴 마른 얼굴, 이마에는 주름살이 가고 찌푸린 얼굴은 돌 모양 변화가 없다. 잠시 후 피곤하다는 듯이 두 손을 옆으로 뻗치면서 크게 기지개를 한다. ‘아아’ 하고 토하는 큰 하품은 무엇에 두들겨 맞아 죽는 **비명**같이 비참하게 들려 오하려 관객 들을 놀라게 한다. 장녀가 플랫폼에 나타난다.

장녀: 저의 아버지랍니다. 밖에서 돌아오시면 늘 이렇게 **달콤한 하품**을 하신답니다. (교수는 머리를 기대고 잠을 자고 있다. 코를 고는데 흡사 고양이 우는 소리다.) 인제 어머니가 돌아 오세요. 어머니은 늘 아버지의 건강을 염려하세요.

적당한 곳에서 처가 나타난다. 과거에는 살도 찢었지만 현재는 몸이 거의 형클어져 있다. 퇴색한 옷을 입고 있다. 소리를 안 내고 들어와 잠자는 교수의 주머니를 살살이 툄다. 돈을 한 주먹 쥐고 이어 교수의 가방을 툄다. 돈 부스러기를 몇 장 찾아내고 그 액수가 적음에 실망을 한다. 잠시 후 교수를 흔들며 깨운다.

장녀: 제 말이 맞았지요?

플랫폼 방 불이 서서히 꺼진다.

처: 여보, 여기서 그냥 주무시면 어떡해요. 옷도 안 갈아입으시고
교수: 깜빡 잠이 들었군.

교수 일어선다.

처: 어서 옷을 갈아입으세요. (처는 교수 허리에 칭칭 감긴 **철쇄**를 풀어 헤치고 소파 뒤의 막대기에 감겨 있는 또 하나의 굵은 줄을 풀어 교수 허리에 다시 감아 준다.) 옷을 갈아입으

시니 한결 시원하지 않아요?

교수: 난 잘 모르겠어.

- 이근삼, 「원고지」 -

44.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지루한 음악’을 삽입하여 장남의 말과 배치되는 극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② ‘원고지 칸투성이’인 ‘양복’을 제시하여 교수가 처한 상황과 교수의 신분을 관객이 인지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 ③ 교수의 ‘비명’ 같은 하품을 ‘달콤한 하품’이라고 말하는 장녀의 대사를 통해 가족 간 소통이 원활하지 않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④ ‘플랫폼 방 불’이 서서히 꺼지는 효과를 활용하여 관객의 시선을 교수와 처의 연기에 집중시키고 있다.
- ⑤ ‘철쇄’를 풀어 주는 처의 행위를 통해 교수가 자율성을 회복했음을 강조하고 있다.

45.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해석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이근삼 희곡에는 극중 배역에서 일시적으로 빠져나와 관객에게 직접 발화하는 ‘해설자’가 빈번하게 등장한다. 해설자는 관객들에게 인물·사건·배경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무대에서 배우의 연기를 지지하거나 설명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해설자는 기본적으로 관객들을 극중 상황으로 자연스럽게 인도하는 매개자 역할을 하지만, 관객들이 극중 상황에 몰입하는 것을 차단하는 효과를 유발하기도 한다.

- ① 장남의 대사는 처의 극중 행동을 설명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 ② 장남은 극중 인물과의 대화를 통해 다른 인물의 등장을 예고한다.
- ③ 장녀는 직접적인 발화를 통해 관객들에게 시·공간적 배경을 명시적으로 알려 준다.
- ④ 장녀는 해설자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교수·처와 분리된 공간에 위치한다.
- ⑤ 장녀는 관객들에게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여 관객들이 이를 의심 없이 수용하고 극중 상황에 몰입하도록 인도한다.

[31~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4.09A

상한 갈대라도 하늘 아래선 한 계절 너넉히 흔들리거 뿌리 깊으면야 밀둥 잘리어도 새순은 돋거니 충분히 흔들리자 상한 영혼이어 충분히 흔들리며 고통에게로 가자	[A]
뿌리 없이 흔들리는 부평초 잎이라도 물 고이면 꽃은 피거니 이 세상 어디서나 개울은 흐르고 이 세상 어디서나 등불은 켜지듯 가자 고통이여 살 맞대고 가자 외롭기로 작정하면 어딘들 못 가라 가기로 목숨 걸면 지는 해가 문제라	[B]

고통과 설움의 땅 훨훨 지나서
 ㉠ 뿌리 깊은 별판에 서자
 두 팔로 막아도 바람은 불듯
 영원한 눈물이란 없느니라
 영원한 비탄이란 없느니라
 캄캄한 밤이라도 하늘 아래선
 마주잡을 손 하나 오고 있거니
 - 고정희, 「상한 영혼을 위하여」 -

31. 윗글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구적 표현을 통해 시상을 강조하고 있다.
- ② 계절의 흐름을 통해 대상의 특성을 부각하고 있다.
- ③ 사물의 의인화를 통해 냉소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④ 공감각적 심상을 통해 관념적인 대상을 묘사하고 있다.
- ⑤ 과거 회상을 통해 반성적으로 화자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

32. [A]와 [B]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① [A]의 '밀둥'과 [B]의 '개울'은 실존적 위기감을 상징한다.
- ② [A]의 '한 계절'과 [B]의 '지는 해'는 극한 상황을 비유한다.
- ③ [A]의 '새순'과 [B]의 '등불'은 고난 극복의 가능성을 환기한다.
- ④ [A]와 [B]에는 모두 현실 부정의 비판적인 어조가 반복되고 있다.
- ⑤ [A]에서 [B]로 전개되면서 화자의 태도가 소극적으로 변화되고 있다.

33. 다음 학습 활동의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학습 활동>

활동 목표: 시에 쓰인 어구의 다양한 의미를 파악해 보자.

활동 1: 시상을 고려하여 ㉠과 관련된 어구를 시에서 찾아 표에 넣어 보자.

활동 2: 위의 어구들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를 적어 보자.

활동 3: 위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의 다양한 시적 의미를 해석해 보자.

활동 1의 탐구 결과	활동 2의 탐구 결과	활동 3의 탐구 결과
갈대	흔들리는 존재	㉠
하늘	초월적인 공간	㉡
바람	막을 수 없음	㉢
밤	부정적인 상황	㉣
손	만남의 대상	㉤

- ① ㉠: 1연의 '갈대'처럼 흔들리는 존재도 뿌리를 내릴 수 있음을 보면, ㉠은 굳건한 삶의 공간이 될 수 있음을 뜻하겠군.
- ② ㉡: 1연과 3연에서 '하늘'의 아래를 반복하여 표현한 것을 보면, ㉡은 초월적인 공간에 대응되는 현실적인 공간을 뜻하겠군.
- ③ ㉢: 3연에서 '바람'은 막을 수 없다고 한 것을 보면, ㉢은 영원한 운명의 구속을 벗어날 수 없는 공간을 뜻하겠군.
- ④ ㉣: 3연에서 '밤'이라는 부정적인 상황이 닥쳐오는 것을 보면, ㉣은 피할 수 없는 시련에 맞서야 하는 공간을 뜻하겠군.
- ⑤ ㉤: 3연에서 '손'과의 만남을 기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은 희망이 예비된 공간을 뜻하겠군.

[34~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4.09A

그의 고객은 왜정 시대는 주로 일본인이었고 현재는 권력층이 아니면 재벌의 썸속에 드는 측들이어야만 했다.

㉠ 그의 일과는 아침에 진찰실에 나오자 손가락 끝으로 창틀이나 탁자 위를 훑어 무테안경 속 움푹한 눈으로 응시하는 일에서 출발한다.

이때 손가락 끝에 먼지만 묻으면 불호령이 터지고, 간호원은 하루 종일 원장의 신경질에 부대껴야만 한다.

아무튼 단골 고객들은 그의 정결한 결백성에 감탄과 경의를 표해 마지않는다.

1·4후퇴 시 청진기가 든 손가방 하나를 들고 일남한 이인국 박사다. 그는 수복되자 재빨리 셋방 하나를 얻어 병원을 차렸다. 그러나 이제는 평당 오십만 환을 호가하는 도심지에 타일을 바른 이층 양옥을 소유하게 되었다. 그는 자기 전문의 외과 외에 내과, 소아과, 산부인과 등 개인 병원을 집결시켰다. ㉡ 운영은 각자의 호주머니 썸속이었지만 종합 병원의 원장 자리는 의적이 자기가 차지하고 있다.

이인국 박사는 양복 조끼 호주머니에서 십팔금 회중시계를 꺼내어 시간을 보았다.

두 시 사십 분!

미국 대사관 브라운 씨와의 약속 시간은 이십 분밖에 남지 않았다. 이 시계에도 몇 가닥의 유서 깊은 이야기가 숨어 있다. 이인국 박사는 시계를 볼 때마다 참말 ‘기적’임에 틀림없었던 사태를 연상하게 된다.

왕진 가방과 함께 38선을 넘어온 피란 유물의 하나인 시계. 가방은 미군 의사에게서 얻은 새것으로 갈아매어 흔적도 없게 된 지금, 시계는 목숨을 걸고 삶의 도피행을 같이한 유일품이요, 어찌 보면 인생의 반려이기도 한 것이다.

밤에 잘 때에도 그는 시계를 머리맡에 풀어 놓거나 호주머니에 넣은 채로 버려두지 않는다. 반드시 풀어서 등기 서류, 저금통장 등이 들어 있는 비상용 캐비닛 속에 넣고야 잠자리에 드는 것이었다. 거기에는 또 그럴 만한 연유가 있었다. 이 시계는 제국 대학을 졸업할 때 받은 영예로운 수상품이다. 뒤 쪽에는 자기 이름이 새겨져 있다.

그 후 삼십여 년, 자기 주변의 모든 것은 변하여 갔지만 시계만은 옛 모습 그대로다. 주변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은 얼마나 변한 것인가. 이십 대 흥안을 자랑하던 젊음은 어디로 사라진 것인지 머리카락도 반백이 넘었고 이마의 주름은 깊어만 간다. 일제 시대, 소련군 점령하의 감옥 생활, 6·25 사변, 38선, 미군 부대, 그동안 몇 차례의 ㉢ 아슬아슬한 죽음의 고비를 넘긴 것인가.

‘월삼* 십칠 석.’

우여곡절 많은 세월 속에서 아직도 제 시간을 유지하는 것만도 신기하다. 시간을 보고는 습성처럼 째각째각 소리에 귀 기울이는 때의 그의 가느다란 눈매에는 흘러간 인생의 측도가 서리는 것이었고, 그 속에서는 각모(角帽)와 쓰메에리(목단이) 학생복을 벗어 버리고 신사복으로 갈아입던 그날의 감회를 더욱 새롭게 해 주는 충동을 금할 길 없는 것이었다.

(중략)

“아마 소련군이 들어오나 봐요. 모두들 야단법석이에요…….” 숨을 헐레벌떡이며 이야기하는 혜숙의 말에 이인국 박사는 아무 대꾸도 없이 눈만 껌벅이며 도로 앉았다. 여러 날째 라디오에서 오늘 입성 예정이라고 했으니 인제 정말 오는가 보다 싶었다.

혜숙이 내려간 뒤에도 이인국 박사는 ㉣ 한참 동안 아무 거동도 못 하고 바깥쪽을 내려다보고만 있었다.

무엇을 생각했든지 그는 움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벽장문을 열었다. 안쪽에 손을 뻗쳐 액자들을 끄집어내었다.

國語常用(국어*상용)의 家(가).

해방되던 날 떼어서 집어넣어 둔 것을 그동안 깜박 잊고 있었다.

그는 액자들 뒤를 열어 음식점 면허장 같은 두터운 모조지를 빼내어 ㉤ 글자 한 자도 제대로 남지 않게 손끝에 힘을 주어 꼼꼼히 찢었다.

이 종잇장 하나만 해도 일본인과의 교제에 있어서 얼마나 땀땀한 구실을 할 수 있었던 것인가. 야릇한 미련 같은 것이 섬광처럼 머릿속에 스쳐갔다.

환자도 일본말 모르는 측은 거의 오는 일이 없었지만 대외 관계는 물론 집 안에서도 일체 일본말만을 써 왔다. 해방 뒤 부득이 써 오는 제 나라 말이 오히려 의사 표현에 어색함을 느낄 만큼 그에게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마누라의 술선수범하는 내조지공도 컸지만 애들까지도 곧잘 지켜 주었기에 이 종잇장을 탄 것이 아니던가. 그것을 탄 날은 온 집안이 무슨 큰 경사나 난 것처럼 기뻐들 했었다.

“잠포대까지 국어로 할 정도가 아니면 이 영예로운 기회야 얻을 수 있겠소.”

하던 국민총력연맹 지부장의 웃음 띤 치하 소리가 떠올랐다.

㉥ 그 순간 자기 자신은 아이들을 소학교부터 일본 학교에 보낸 것을 얼마나 다행으로 여겼던 것인가.

- 전광용, 「꺼삐딴 리」 -

* 월삼: 미국 시계 회사 ‘월삼’.

* 국어: 일본어를 가리킴.

34. 윗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화의 빈번한 사용을 통해 현장감을 높이고 있다.
- ② 인물 간의 대결 의식을 중심으로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 ③ 역전적 시간 구성을 통해 인물의 과거 행적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감각적인 수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공간적 배경을 제시하고 있다.
- ⑤ 현학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비판적인 지성인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35.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 사소한 일도 쉽게 지나치지 않는 빈틈없고 까다로운 인물임을 보여 준다.
- ② ㉡: 다른 사람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인물의 사려 깊은 자세를 보여 준다.
- ③ ㉢: 일이 뜻대로 이루어진 기쁜 마음을 감춘 채 사태를 주시하는 주인공의 침착한 태도를 보여 준다.
- ④ ㉣: 시류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워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의지를 보여 준다.
- ⑤ ㉤: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아이들을 염려하는 아버지의 자상한 모습을 보여 준다.

36.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전광용의 「꺼삐딴 리」는 일제 강점기부터 6·25 한국전쟁 이후까지 격동기를 살아온 인물을 주인공으로 한다. 이 소설에 등장하는 소재들은 작품의 시·공간적 배경을 제시하거나 사건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독자에게 인물에 대한 부가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작품 이해를 심화시키는 기능을 한다.

- ① '왕진 가방'은 38선을 넘어온 피란 유물로서 유랑 생활의 고단함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의 의미를 형상화한 소재이다.
- ② 인생의 반대로 비유된 '시계'는 역사적 흐름을 한 인물의 삶에 담아 표현해 줄 수 있는 작품 구성의 주요한 장치이다.
- ③ '비상용 캐비닛'은 주인공의 성격을 형상화해 주는 소재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는 주인공의 주도면밀함을 보여 주는 사물이다.
- ④ '신사복'은 주인공이 사회생활의 시작 단계에서 가졌던 희망찬 기대를 표상하는 소재이다.
- ⑤ '라디오'는 소련군의 입성이라는 시대적 상황을 전달하는 소재로, 주인공이 새롭게 직면하게 된 변화된 정세를 제시해 준다.

37. ㉠을 가장 잘 나타낸 것은?

- ① 고진감래(苦盡甘來)
- ② 내우외환(內憂外患)
- ③ 맥수지탄(麥秀之嘆)
- ④ 사생결단(死生決斷)
- ⑤ 생사기로(生死岐路)

[41~4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4.09A

백선군이 잠깐 주막에서 조는데 ㉠ 문득 숙영낭자가 몸에 피를 흘리며 방문을 열고 들어와 선군의 곁에 앉아 슬프게 울며 말하기를,

“낭군이 입신양명하여 영화롭게 돌아오시니 기쁘기 측량 없사오나, 첩은 시운이 불행하여 세상을 버리고 황천객이 되었습니다. 전에 낭군의 편지 사연을 듣사온즉 낭군이 첩에게 향한 마음에 감격하오나, 첩은 천생연분이 천박하여 [A] 벌써 유명을 달리하였으니 구친의 혼백이라도 한스럽습니다. 첩이 원혼이 된 사연을 아무쪼록 깨끗이 풀어 주시기를 낭군께 부탁하오니, 낭군은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억울한 누명을 벗겨 주시면, 죽은 혼백이라도 깨끗한 귀신이 될까 합니다.”

하고 간 데 없었다. ㉡ 선군이 놀라 깨어 보니 온몸에 식은땀이 나고 심신이 떨려 진정할 수가 없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 곡절을 헤아리지 못하여 인마를 재촉하여 여러 날 만에 풍산촌에 이르러 숙소를 정하였으나, 식음을 전폐하고 앉아 밤이 새기를 기다렸다. 문득 하인이 와서,

“상공(相公)께서 오셨습니다.”

하고 알렸다. 선군이 즉시 밖에 나가 부친께 문안을 드리고 방으로 되시고 들어가서 가내 안부를 여쭙었다. 상공이 주저하며 가족들이 잘 지낸다고 알리고, 선군이 장원하여 높은 벼슬을 하게 됨을 물어 기뻐하다가 이윽고 선군에게 은근한 말로,

“㉢ 장부가 출세하면 두 부인을 두는 것은 예부터 혼한 일이 었다. 내 들으니 이 마을 임 진사의 딸이 매우 현숙하다 하기로 내가 이미 구혼하여 임 진사에게 허락을 받았다. 이왕 이곳에 왔으니 내일 아주 성례하고 집으로 돌아감이 좋지 않겠느냐?”

하고 권하였다. 선군은 숙영낭자가 꿈에 나타난 뒤로 반신반의 하여 마음을 진정치 못하던 차에 부친의 이런 말을 듣고 생각 하되, ‘㉣ 낭자가 죽은 것이 분명하구나. 그래서 나를 속이고 임 낭자를 취하게 하여 훗날을 도모하고자 함이로다.’ 하고 이에 아뢰되,

“아버님 말씀은 지당하시나, 제 마음이 아직 급하지 아니합니다. 나중에 성혼하여도 늦지 아니하오니 그 말씀은 다시 이르지 마옵소서.”

하였다. 상공은 아들이 변심치 아니할 줄 알고 다시 말하지 못하고 밤을 지냈다. 첫닭이 울자마자 선군은 인마를 재촉하여 곁에 올랐다.

(중략)

㉤ 선군이 소매를 걷고 빈소에 들어가 이불을 헤치고 보니, 낭자의 용모가 산 사람 같아서 조금도 변함이 없었다. 선군이 부촉하여 이르기를,

“백선군이 왔으니, 이 칼이 빠지면 원수를 갚아 낭자의 원혼을 위로하리라.”

하고 몸에서 칼을 빼니, 칼이 문득 빠지며, 그 구멍에서 파랑새 한 마리가 나오며,

“매월이다, 매월이다, 매월이다.”

세 번 울고 날아갔다. 다시 파랑새가 한 마리가 또 나오며,

“매월이다, 매월이다, 매월이다.”

세 번 울고 날아갔다. 그제야 선군이 시비 [매월]의 소행인줄 알고, 화를 이기지 못하여 급히 밖에 나와 형구를 벌이고 모든 노복을 차례로 신문하였다. 간악한 매월이 매를 견디지 못하여 승복하여 울며 가로되,

“상공께서 숙영낭자를 의심하시기로 제가 마침 원통한 마음 이 있던 차에 매를 타서 감히 간계를 행하였으니, 함께 일을 꾸민 놈은 돌이로소이다.”

하거늘, 선군이 크게 노하여 돌이를 또 때리니 돌이가 매월의 돈을 받고 시키는 대로 했노라 승복하였다. 선군이 이에 매월을 죽여 숙영낭자를 위한 제물로 삼고 제문을 읽었다.

[B] “성인도 속세에 노닐고, 숙녀도 험한 구설을 만남은 예부터 없지 않았으나, 낭자같이 지극 원통한 일이 어디 다시 있리오. 슬프다! 모두 나 선군의 탓이니 누구를 원망하리오. 오늘날 매월의 원수는 갚았으나 낭자의 화용윤택을 어디 다시 보리오. 다만 선군이 죽어 지하에 가 낭자를 좇을 것이니, 부모에게 불효가 되어도 어찌할 수 없으리로다.”

제문 읽기를 마치매 신체를 어루만지며 통곡한 후 돌이를 본음에 넘겨 먼 절도로 귀양 보내게 하였다.

이때 상공 부부는 선군에게 바로 이르지 아니하였다가 일이 이같이 탄로 남을 보고 도리어 무색하여 아무 말도 못하거늘 선군이 화평한 얼굴로 재삼 위로하였다.

- 작자 미상, 「숙영낭자전」 -

41. [A]와 [B]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는 ‘꿈’이라는 상황을 활용하여 원혼의 간절한 염원을 드러내고 있다.
- ② [B]는 ‘제문’이라는 형식을 활용하여 위로의 진정성을 강화하고 있다.
- ③ [A]는 원혼이 산 자에게 보내는 전언이고, [B]는 산 자가 원혼에게 보내는 응답이다.
- ④ [A]와 [B]는 상대방의 처지를 환기하는 표현으로 시작하고 있다.
- ⑤ [A]와 [B]는 자신의 희생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마무리 하고 있다.

42. 윗글의 [매월]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매월이 죄를 자백한 것은 선군의 회유 때문이다.
- ② 매월에 대한 신문은 비현실적 사건에서 비롯되었다.
- ③ 매월은 숙영낭자가 누명을 쓰게 되는 간계를 꾸렸다.
- ④ 매월이 간계를 꾸미게 된 배경에는 자신의 원통함이 자리잡고 있다.
- ⑤ 매월이 돌이를 사주하여 꾸민 일은 상공의 집안에 갈등을 초래하였다.

43. <보기>를 참조하여 밑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고전소설에서 주인공은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과제는 여러 단계를 거쳐 수행된다. 처음에 과제를 부여받은 주인공은 왜 자신에게 그런 과제가 주어졌는지 의심한다. 더구나 방해자가 나타나 주인공의 과제 수행을 방해하기도 한다. 그러나 오히려 이 과정에서 주인공은 과제 수행자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사명감을 갖게 된다. 결국 주인공은 과제 해결에 요구되는 행위를 적극 실행하여 과제를 완수한다. 이로써 주인공은 새로운 정체성을 획득한다.

- ① ㉠은 과제를 부여받게 되는 단계에 해당하는데, 이를 통해 숙영남자와 선군의 관계가 과제 수행의 전제임을 알 수 있어.
- ② ㉡은 과제 제시의 까닭을 의심하는 단계에 해당하는데, 이를 통해 숙영남자가 나타나게 된 원인을 선군이 꿰뚫어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어.
- ③ ㉢은 과제 수행이 방해받는 단계에 해당하는데, 이를 통해 부자간의 갈등과 화해가 외부 세력에 의해 주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 ④ ㉣은 과제에 대한 사명감을 갖게 되는 단계에 해당하는데, 이를 통해 아버지의 의사에 부응하여 도리를 다하려는 선군의 태도를 알 수 있어.
- ⑤ ㉤은 과제 해결이 완수된 단계에 해당하는데, 이를 통해 숙영남자의 원한이 해소되었음을 알 수 있어.

[31~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4.06B

형님 온다 형님 온다 분고개로 형님 온다.
 형님 마중 누가 갈까 형님 동생 내가 가지.
 형님 형님 사촌 형님 시집살이 어땠댕까.
 ㉠ 이에 이에 그 말 마라 시집살이 개집살이.
 앞밭에는 당추 심고 뒷밭에는 고추 심어,
 고추 당추 맵다 해도 시집살이 더 맵더라.
 등글등글 수박 식기(食器) 밥 담기도 어렵더라.
 도리도리 도리소반(小盤) 수저 놓기 더 어렵더라.
 ㉡ 오 리(五里) 물을 길어다가 십 리(十里) 방아 짙어다가,
 아홉 솔에 불을 때고 열두 방에 자리 견고,
 외나무다리 어렵대야 시아버니같이 어려우랴.
 나뭇잎이 푸르대야 시어머니보다 더 푸르랴.
 ㉢ 시아머니 호랑새요 시어머니 꾸중새요
동새 하나 할림새요 시누 하나 뽕죽새요
시아지비 뽕죽새요 남편 하나 미련새요
 자식 하난 우는 새요 나 하나만 썩는 썰새.
 ㉣ 귀먹어서 삼 년이요 눈 어두워 삼 년이요
말 못해서 삼 년이요 석 삼 년을 살고 나니,
 ㉤ 배꽃 같던 요내 얼굴 호박꽃이 다 되었네.
 삼단 같던 요내 머리 비사리춤이 다 되었네.
 백옥 같던 요내 손길 오리발이 다 되었네.
 열새 무명 반물치마 눈물 씻기 다 젖었네.
 두 폭 불이 행주치마 콧물 받기 다 젖었네.
 울었던가 말았던가 베갯머리 소(沼) 이뤘네.
 그것도 소이라고 거위 한 쌍 오리 한 쌍
 쌍쌍이 때 들어오네.
 - 작자 미상, 「시집살이 노래」 -

[A]

31. 윗글의 시상 전개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감탄과 반성의 어조를 교차하여 복잡한 감정을 나타내고 있다.
- ② 상황을 부정적으로 규정하고 나서 다양한 예들을 나열하고 있다.
- ③ 처음과 끝을 동일한 내용으로 상응시켜 시상 전개에 안정감을 부여하고 있다.
- ④ 근경에서 원경으로 시선을 확대해 가면서 심리의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 ⑤ 외부 세계와 내면을 대비해 가며 이상적 세계에 대한 동경을 드러내고 있다.

32.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물음에 대한 답변을 유보하며 사촌 동생의 결혼을 만류하고 있다.
- ② ㉡: 과장된 표현을 통해 며느리가 수행해야 하는 가사 노동의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 ③ ㉢: 시집 식구들을 일일이 지목하여 시집 식구들에 대한 화자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 ④ ㉣: 며느리가 감당해야 하는 제약을 제시해 며느리의 처지를 보여 주고 있다.
- ⑤ ㉤: 결혼 전후의 용모 변화를 자연물에 빗대어 시집살이의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33. [A]와 <보기>를 비교하여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저기 가는 저 각시, 본 뜻도 하구나.
 천상(天上) 백옥경(白玉京)을 어찌하여 이별하고
 해 다 저 저문 날에 누굴 보러 가시는가.
 어와, 너로구나. 이내 사실 들어 보오.
 내 얼굴 이 거동이 입이 사랑함직 한가마는
 어쩐지 날 보시고 너로다 여기시매
 나도 입을 믿어 딴 생각 전혀 없어
 아양이며 교태며 어지럽게 하였던지
 반기시는 날빛이 예와 어찌 다르신가.
 - 정철, 「숙미인곡」 -

- ① [A]와 <보기> 모두 시어의 반복을 통해 리듬감을 살리고 있다.
- ② [A]와 <보기> 모두 화자 자신의 문제 상황에 대한 책임을 제삼자에게 전가하고 있다.
- ③ [A]와 <보기> 모두 예전에 알고 지내던 인물과의 만남을 계기로 하여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
- ④ [A]에서는 계절의 변화를, <보기>에서는 공간의 변화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심화하고 있다.
- ⑤ [A]에서는 반어적 표현을, <보기>에서는 다양한 비유적 표현을 통해 자신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

MEMO

MEMO

[34~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4.06B

조옹이 었드려 불효한 죄를 청하니 부인이 대경(大驚) 왓,
 “우리 모자는 죄인이라 마음이 늘 숲에 앉은 새 같거늘, 네
 나가서 무슨 죄를 짓기라도 한 것이냐?”

하니, 웅이 두려워하여 일어나 위로 왓,
 “어찌 남에게 죄를 지었겠나이까? 모자시간에 불효막심한
 일이 있삽나이대.”

하고, 강호에 다다라 장 소저를 취한 곡절을 아뢰니 부인이 대희
 (大喜) 왓,

“죄 지은 자는 살지 못한다는 말이 옳구나. 본디 겁먹은
 마음에 무슨 죄라도 지었는지 미리 겁을 먹고 놀랐구나.”

하고 다시 물어 왓,
 “장 소저를 내가 보지 못하였으나 네 말을 들으니 진정 네
 짝이로다. 그 또한 하늘이 시키심이니 어찌 인력으로 취하였
 으리오? 그러나 우리 형세가 이러하니 어찌 예절을 기다리
 겠느냐? 죄 될 것이 없으니 조금도 두려워 마라.”

하며 다시 그 동안의 일과 장 소저 가문을 물으니 웅이 일일이
 아뢰니, 부인과 계승(諸僧)이 다 듣고 기이히 여겨 칭하(稱賀) 왓,
 “하늘이 인도하심이라, 어찌 기특지 아니하리오?”

월경 대사 왓,
 “부인은 소승이 전에 드린 말씀을 이제야 증험한 줄을 아시
 나이까?”

부인이 칭찬 왓,
 “우매한 소견으로 어찌 대사의 신기함을 알겠나이까?”

하고 대사에게 항복함을 마지아니하더라.

이때 대사가 웅을 데리고 신통한 술법을 의논하더니
 이러구러 삼 년이 되었는지라.
 일일은 웅이 부인에게 여쭙되,
 “소자 처음에 이리로 올 적에 선생께 기약을 정하고
 왔사오니, 이제 슬하를 잠깐 떠나 선생께서 실망하시는
 탄식이 없게 하겠나이대.”

하니, 부인이 새로이 슬퍼 왓,
 “여러 해 그리던 마음을 다 펴지 못하고 또 가려 하니,
 네 말은 당연하나 정리(情理)에 절박하고 또 사람의 일을
 알지 못하니 네 회환(回還)이 더딜진대 네 거처를 어디
 가서 찾으리오?”

월경 대사 왓,
 “부인은 추호도 염려치 마소서. 공자의 거처는 소승이
 알고 있나이대.”

부인이 이미 대사의 신기함을 아는지라, 부인 왓,
 “만일 대사가 아니면 객지에서 어찌 우리 모자가 서로
 의지하리오?”

하고 웅에게 왓,
 “부디 네 선생을 보고 속히 돌아오라.”

당부하니, 웅이 하직하고 말을 달려 수일 만에 관산에
 이르니 이전에 보던 산천이 모두 받기는 듯하더라.

[중략 줄거리] 조옹은 이후 군대의 원수가 되어 황위를 찬탈한
 이두병 세력과 전쟁을 벌이며 아버지의 원한을 갚고 황실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원수가 창으로 춤추며 삼대의 우편으로 달려들며 접전하니
 삼대는 항상 왼손으로 칼을 날리며 좌편으로 달려들거늘 원수가
 계속 피하여 우편을 범하니, 이날 팔십여 합에 승부를 정하지
 못하고 각각 본진으로 돌아오니라. 삼대가 크게 의심 왓,
 “조옹이 필연 무슨 아는 일이 있는가 싶으니 괴이하다.”

하고 행여 천기를 누설할까 두려워하더라. 원수가 본진으로
 돌아와 강백더러 왓,
 “삼대는 용맹이 실로 범상한 장수가 아니라, 쉽사리 잡지
 못할 것이니 내일은 강장이 먼저 나아가 싸우라. 내 기세를
 타 함께 싸우리라.”

또 이르되,
 “삼대의 좌편을 범치 말고 부디 경적(輕敵)*지 말라.”

하더라.
 이튿날 삼대가 창을 들고 말을 내달아 크게 외치며 왓,
 “오늘은 맹세코 네 머리를 베어 분함을 씻으리라.”

하고 진전(陣前)에 횡행하거늘 강백이 또 창을 들고 진전에
 나서며 크게 외치 왓,
 “무지한 삼대는 들어라. 네 두 형의 혼백이 우리 진중에
 갇히어 나가지 못하고 주야로 울며 애통하되 ‘소장의 동생
 삼대의 머리를 마저 바치울 것이니 가공한 혼백을 놓아
 주옵소서.’ 하며 주야로 가공한 소리 진중에 낭자하거늘 네
 아무리 살리고자 한들 어찌 살리리오?”

달려들어 바로 삼대의 우편을 쳐들어가니 삼대가 아무리
 왼손으로 칼을 잘 쓴들 우편으로 범하니 기운이 줄어드는
 지라. 삼십여 합에 승부를 결지 못하였으나 강장의 형세가
 급한지라, 원수가 진전에서 두 장수의 싸움을 보고 칼을
 들고 내달아 삼대의 우편을 쳐들어가니 삼대가 아무리
 재주가 용한들 어찌 창을 한 손으로 쓰리오. 이십여 합에
 승부를 가리지 못하더니 문득 강장의 창이 번뜻대며 삼대의
 탄 말을 찢러 말이 거꾸러지니 삼대도 땅에 떨어지는지라.
 원수가 달려들려 하니 삼대가 공중으로 솟아 달려들어
 싸울새, 원수가 강백과 더불어 급히 치니 삼대가 견디지
 못하여 달아나더라. 원수가 말을 달려 급히 따르며 칼을
 들어 삼대의 창 든 손을 치니 삼대가 놀라 창을 버리고 공중
 으로 날아 달리거늘 원수가 솟아올라 삼대의 목을 치더라.
 일진광풍이 일어나며 문득 진전에 푸른 안개 일어 나고 두
 줄 무지개가 공중에 뻗치거늘, 원수가 괴이하게 여겨 살펴
 보니 삼대의 왼팔 밑에 날개가 돋쳐 있더라.

삼대의 죽음을 보고 ㉠ 적진이 대경 황망하여 일시에 도망하거늘
 원수와 강장이 본진에 돌아와 승전고를 울리니 여러 장수와
 군졸이 치하하며 모두 즐기더라.

[B] 원수가 달려들려 하니 삼대가 공중으로 솟아 달려들어
 싸울새, 원수가 강백과 더불어 급히 치니 삼대가 견디지
 못하여 달아나더라. 원수가 말을 달려 급히 따르며 칼을
 들어 삼대의 창 든 손을 치니 삼대가 놀라 창을 버리고 공중
 으로 날아 달리거늘 원수가 솟아올라 삼대의 목을 치더라.

일진광풍이 일어나며 문득 진전에 푸른 안개 일어 나고 두
 줄 무지개가 공중에 뻗치거늘, 원수가 괴이하게 여겨 살펴
 보니 삼대의 왼팔 밑에 날개가 돋쳐 있더라.

삼대의 죽음을 보고 ㉠ 적진이 대경 황망하여 일시에 도망하거늘
 원수와 강장이 본진에 돌아와 승전고를 울리니 여러 장수와
 군졸이 치하하며 모두 즐기더라.

- 작자 미상, 「조옹전」 -

* 경적: 적을 알부.

34. [A], [B]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사건의 압축적 제시와 대화 장면의 제시를 통해 사건 전개에 완급을 조절하고 있다.
- ② [B]는 장면 묘사를 통해 인물의 상상과 현실 사이의 대립을 부각하고 있다.
- ③ [A], [B] 모두 회상을 통해 사건의 면면을 제시하고 있다.
- ④ [A], [B] 모두 편집자적 논평을 통해 현실의 비극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⑤ [A]는 세속적 공간을, [B]는 초월적 공간을 통해 인물의 내적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35. 윗글의 인물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강백’은 의도적으로 ‘삼대’의 감정을 자극했다.
- ② ‘조웅’은 신의보다는 자식으로서의 도리에 이끌렸다.
- ③ ‘삼대’는 자신의 약점을 위장하여 ‘조웅’의 방심을 유도했다.
- ④ ‘부인’은 ‘조웅’이 고백하기 전에 그의 불효한 죄를 알고 있었다.
- ⑤ ‘월경 대사’는 ‘조웅’의 정해진 운명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했다.

36.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조웅전」에는 흥미를 이끌어내는 요소로 ‘결연’ 모티프와 ‘군담’ 모티프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결연’ 모티프는 개인적 욕망과 사회적 규범의 긴장 관계 속에서 남녀간의 인연이 맺어지는 과정을 그린 이야기 단위인데, 천명에 따르거나 주체적 의지에 따라 결연하는 주인공, 결연에 반대하거나 동의하는 부모, 결연을 합리화하는 장치 등으로 구성된다. ‘군담’ 모티프는 개인의 영웅적 능력이 국가적 위기에서 발현되는 과정을 묘사한 이야기 단위인데, 조력자의 개입, 강력한 적수의 등장, 역동적 전투 장면 등으로 구성된다.

- ① ‘조웅’은 ‘부인’의 뜻을 먼저 묻지 않고 결연을 주체적으로 결정한 것이겠군.
- ② ‘부인’은 ‘조웅’의 개인적 욕망보다는 사회적 규범을 중시하여 아들의 결연을 합리화하고 있군.
- ③ ‘월경 대사’는 ‘조웅’의 수련을 돕는 것으로 보아 조력자의 역할을 하고 있군.
- ④ ‘조웅’이 지략과 용맹을 발휘하여 싸우는 역동적 장면은 서사적 흥미를 더하는 장치이겠군.
- ⑤ ‘삼대’에게 날개가 돋쳐 있는 모습을 서술하여 ‘삼대’가 ‘조웅’의 강력한 적수였음을 보여 주고 있군.

37. ㉠을 가장 잘 나타낸 것은?

- ① 혼비백산(魂飛魄散) ② 경거망동(輕舉妄動)
- ③ 동분서주(東奔西走) ④ 분기탱천(憤氣撐天)
- ⑤ 적반하장(賊反荷杖)

[38~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4.06B

(가)

차디찬 아침인데
 묘향산행 승합자동차는 텅 하니 비어서
 ㉠ 나이 어린 계집아이 하나가 오른다
 옛말속같이 진진초록 새 저고리를 입고
 ㉡ 손잔등이 밧고랑처럼 뭍시도 터졌다
 계집아이는 자성(慈城)으로 간다고 하는데
 ㉢ 자성은 예서 삼백오십 리 묘향산 백오십 리
 묘향산 어디에서 삼촌이 산다고 한다
 ㉣ 새하얗게 얼은 자동차 유리창 밖에
 내지인 주재소장 같은 어른과 어린아이 둘이 내임*을 낸다
 계집아이는 운다 느끼며 운다
 ㉤ 텅 비인 차 안 한구석에서 어느 한 사람도 눈을 씻는다
 계집아이는 몇 해고 내지인 주재소장 집에서
 밥을 짓고 걸레를 치고 아이보개를 하면서
 이렇게 추운 아침에도 손이 뽕뽕 얼어서
 찬물에 걸레를 쳤을 것이다
 - 백석, 「팔원(八院)-서행시초(西行詩抄) 3」 -
 * 내임: 냄. '배웅'의 평안 방언.

(나)

국철 타고 앉아 가다가
 문득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들려 살피니
 아시안 젊은 남녀가 건너편에 앉아 있었다
 늦은 봄날 더운 공휴일 오후
 나는 잔무 하러 사무실에 나가는 길이었다
 저이들이 무엇 하려고
 국철을 탔는지 궁금해서 쳐다보면
 서로 마주 보며 떠들다가 웃다가 꺾속말할 뿐
 나를 쳐다보지 않았다
 모자 장사가 모자를 팔러 오자
 천 원 주고 사서 번갈아 머리에 써 보고
 만년필 장사가 만년필을 팔러 오자
 천 원 주고 사서 번갈아 손바닥에 써 보는 저이들
 문득 나는 천박한 호기심이 발동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황급하게 차창 밖으로 고개 돌렸다
 국철은 강가를 달리고 너울거리는 수면 위에는
 깃털 색깔이 다른 새 여러 마리가 물결을 타고 있었다
 나는 아시안 젊은 남녀와 천연하게
 동승하지 못하고 있어 낯짝 부끄러웠다
 국철은 회사와 공장이 많은 노선을 남겨 두고 있었다
 저이들도 일자리로 돌아가는 중이지 않을까
 - 하종오, 「동승」 -

38. (가), (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대상에 대한 관찰을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② 인간과 자연을 대비하여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 ③ 일상적 삶에 대한 반성을 역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④ 계절적 배경을 통해 애상적 분위기를 환기하고 있다.
 - ⑤ 부정적 현실을 포용하려는 여유로운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39.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에서 '어린', '하나'는 화자가 계집아이에게 주목하게 된 계기를 나타낸다.
 - ② ㉡에서 '밧고랑'에 비유된 '손잔등'은 계집아이의 고달픈 삶을 드러낸다.
 - ③ ㉢에서 '삼백오십 리', '백오십 리'는 계집아이의 여정이 고단할 것임을 나타낸다.
 - ④ ㉣에서 '유리창 밖'은 안과 대비되어 육친과 이별하는 계집아이의 슬픔을 강조한다.
 - ⑤ ㉤에서 '눈을 씻는다'는 계집아이에 대한 연민의 정서를 드러낸다.

40. <보기>를 참고할 때, (나)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현대 사회의 인간관계에서 시선은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닌다. 시선은 관심을 표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가치 평가의 의미를 띠는 경우 상대방에게 부담감을 줄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시선을 보내지 않는 것은 긍정적인 무관심으로 이해된다. 조화로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때로 가치 평가적 시선을 거두는 지혜가 필요하다.

- ① '국철'은 서로 다른 성격의 시선들이 드러나는 공간이겠군.
- ② '나'의 쳐다보는 행위는 '아시안 젊은 남녀'에게 부담감을 줄 수 있겠군.
- ③ '저이들'은 '서로'에게 긍정적인 무관심을 가지고 있겠군.
- ④ '나'가 황급히 '고개 돌렸'던 것은 가치 평가적 시선을 거두는 행위겠군.
- ⑤ '동승'은 조화로운 공동체를 만들자는 뜻이 담긴 것이겠군.

MEMO

MEMO

[41~4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4.06B

천대를 받아도 얻어맞는 것보다는 낫다! 그도 그럴 것이다. 미친 채하고 떡목판에 엮드러진다는 셈으로 미친 채하고 어리광 비슷한 수작을 하거나, 스라스니 행세를 하거나 하여, 어쨌든 저편의 호감을 사고 저편을 웃기지만 하면 목전에 닥쳐오는 핍박은 면할 것이다. 속으로는 요놈 하면서라도 얼굴에만 웃는 빛을 띠면 당장의 급한 욕은 면할 것이다. 공포(恐怖), 경계(警戒), 미봉(彌縫), 가식(假飾), 굴복(屈服), 도회(韜晦)*, 비굴(卑屈)…… 이러한 모든 것에 숨어 사는 것이 조선 사람의 가장 유리한 생활 방도요, 현명한 **치세술**이다. 실상 생각하면 우리의 이러한 **생활 철학**은 오늘에 터득한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본건적** 성장과 관료전제 밑에서 더께가 앉고 굳어 빠진 껍질이지마는, 그 껍질 속으로 점점 더 파고들어 가는 것이 **지금의 우리 생활**이다.

“어떻든지 그저 내지인과 동등한 대우만 해 주면 나중엔 어찌 되든지 살아갈 수 있겠죠.”

청년은 무엇에 쫓겨 가는 사람처럼 차 안을 휘휘 둘러다 보고 나서 목소리를 한층 낮추어서 다시 말을 잇는다.

“가령 공동묘지만 하더라도 내지에도 그런 법률이 있다 하면 싫든 좋든 우리도 따라가는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우리에게도 또 우리의 유풍이 있지 않습니까? 대관절 내지에도 그런 법이 있나요?”

의외에 이 장돌뱅이도 공동묘지 이야기를 꺼낸다. 나는 아까 형님한테 한참 설법을 듣고 오는 길에 또 이러한 질문을 받고 보니, 언제 규정이 된 것이요 어떻게 시행하라는 것인지는 나로서는 알고 싶지도 않고, 그까짓 것은 아무렇거나 상관없는 일이지마는, 아마 요사이 경향에서 모여 앉으면 께들 문젯거리, **화젯거리**가 되는 모양이다. 나는 한번 꺾꺾 웃어 주고 싶었으나 그리할 수는 없었다.

“일본에도 공동묘지가 있더우.”

나 역시 누가 듣지나 않는가 하고 아까부터 수상쩍게 보이던 저편 뒤로 킁킁한 구석에 금테를 한 동 두른 모자를 쓴 채 외투를 뒤집어쓰고 누웠는 일본 사람과, 김천서 나하고 같이 오른 양복쟁이 편을 둘러다 보았다. 나의 말이 조금이라도 총독 정치를 비방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중에서 무슨 오해가 생길지 그것이 나에게도 염려되는 것이었다.

“정말 내지에도 공동묘지가 있어요? 하지만 행세하는 사람야 좀 다르겠죠?”

“그야 좀 다르겠지만, 어떻게든 일본에서는 주로 화장을 지내기 때문에 타고 남은 …… 아마 목구멍 빠라든가를 갖다가 묻고 목패든지 비석을 세운다우. 그러지 않아도 살아 있는 사람도 터전이 좁아서 땅 조각이 금 조각 같은데, 죽는 사람 마다 넓은 터전을 차지하다가 이 세상에는 무덤만 남고 말지 않겠소, 허허허.”

나는 이러한 소리를 하면서도 묘지를 간략하게 하여 지면을 축소하고 남은 땅은 누구의 손으로 들어가고 마누 하는 생각을 하여 보았다.

“그리구서니 자기의 부모나 처자를 죽었다구 금세루 살라야 버릴 수가 있습니까? 더구나 대대로 내려오는 제 집 산소

까지를.”

이 사람은 나의 말이 옳다는 모양으로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서도 그래도 반대를 한다.

“화장을 지낸다기루 상관이 뭐겠소. 예전에 애굽이라는 나라에서는 왕후장상의 시체는 방부제를 쓰고 나무 관에 넣은 시체를 다시 석관까지에 튼튼히 넣어서 피라미드라는 큰 굴 속에 묻어 두었지만, 지금 와서는 미이라밖에 되지 않고 만 것을 보면 죽은 송장에게 능라주의(綾羅紬衣)*를 입히고 백 평, 천 평 되는 땅에다가 아무리 굳게 파묻기로 그것이 무엇이란 말이오. 동상을 세우면 무얼 하고 송덕비를 세우면 무엇에 쓴다는 말이오.”

내 앞에 앉았는 장꾼은 무슨 소리인지 귀에 자세히 들어오지 않는 모양이다.

“네에, 그런 것이 있어요?”

하고 떨거니 앉았다.

“하여간 부모를 생사장제(生事葬祭)에 예(禮)로써 받들어야 할 거야 더 말할 것 없지만, 예로 하라는 것은 결국에 공경하는 마음이나 정성을 말하는 것 아니겠소? 그러니 공동묘지 법이란 난 아직 내용도 모르지만, 그것은 별문제로 치고라도, 그 근본정신은 생각지 않고 부모나 선조의 산소 치례를 해서 외화(外華)나 자랑하고 음덕(蔭德)이나 바란다는 것도 우스운 수작이란 것을 알아야 할 거 아니겠소. 지금 우리는 공동묘지 때문에 못살게 되었소? 염통 밑에 쉬스는 줄은 모른다구, 깡살릴* 것 다 깡살리고 뱃속에서 쪼르르 소리가 나다 죽은 뒤에 파묻힐 곳부터 염려를 하고 앉았을 때인지? 너무나 얼빠진 늙둥이 수작이 아니오? 허허허.”

나는 형님에게 하고 싶던 말을 장돌뱅이로 돌아다니는 이 자를 붙들고 한참 꾸짖음을 하였다.

- 염상섭, 「만세전」 -

* 도회: 재능이나 학식 따위를 숨겨 감춤.

* 능라주의: 비단옷과 명주옷.

* 깡살리다: 재물이나 기회 따위를 호지부지 다 없애다.

41.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상징적 배경을 통해 갈등이 해소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 ② 냉소적 어조를 통해 세태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③ 빈번한 장면 전환을 통해 인물들 사이의 긴장감을 고조하고 있다.
- ④ 동시에 진행되는 사건을 병렬하여 이야기를 입체적으로 구성하고 있다.
- ⑤ 인물들의 체험을 삽화 형식으로 나열하여 주제를 다각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42. ‘공동묘지 법’과 관련한 인물들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나’는 ‘공동묘지 법’ 시행에 따른 ‘화장’의 제도화를 우려하고 있다.
- ② ‘나’는 ‘공동묘지 법’의 시행 전에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 ③ ‘나’는 ‘공동묘지 법’과 관련한 자신의 발언이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염려하고 있다.
- ④ ‘장돌뱅이’는 ‘공동묘지 법’의 목적이 묘지를 없애 집터를 넓히는 데 있다고 믿고 있다.
- ⑤ ‘장돌뱅이’는 ‘공동묘지 법’이 ‘애급’의 관습을 따른 것이라는 사실에 흥미로워 하고 있다.

43.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1920년대 문학의 전개 과정에서, 염상섭은 개인의 발견과 현실 인식이라는 소설의 근대적인 특성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일인칭 시점을 적용한 소설을 통해 개인의 내면을 드러내는 방식을 모색하여, 개성의 표현으로서의 문학에 대한 인식을 구체화하였다. 나아가 그는 생활 현실에 근거한 문학으로 관심을 확장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문에는 생활의 기록이요, 흔적이요, 주장이다. 생활에 대한 염상섭의 새로운 인식은 생활의 표현을 통해 삶의 문제를 총체적인 시각에서 조망하려는 근대 문학의 정신에 접근하고 있다.

- ① 시속의 ‘처세술’에 대해 성찰하여 평가한 점을 통해, 생활의 문제에 대한 작가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겠군.
- ② ‘생활 철학’을 터득하려는 개개인의 의지를 옹호한 점을 통해, 개인의 발견에 관한 작가의 의식을 이해할 수 있겠군.
- ③ ‘지금의 우리 생활’을 ‘봉건적’ 의식과 문화에 견주어 문제 삼은 점을 통해, 삶의 문제를 총체적으로 조망하려는 작가의 시각을 엿볼 수 있겠군.
- ④ 일상적 관심사로 오르내리는 ‘화쟁거리’를 이야기한 점을 통해, 생활의 흔적을 기록하려는 작가의 노력을 살필 수 있겠군.
- ⑤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나’가 서술하도록 설정한 점을 통해, 개성을 표현하는 문학의 방식을 모색하는 작가의 관심을 찾아볼 수 있겠군.

[44~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4.06B

사랑을 노래하는 청춘의 봄은 화려하고 찬란한 봄이지만, 그것을 바라보고 느끼는 봄은 인생의 끝없는 봄이다. 누가 봄을 젊은이의 것이요, 늙은이의 것이 아니라 하던가. 젊은이의 봄은 기쁨으로 차 있는 흘겁의 봄이지만 **늙은이의 봄**은 기쁨과 슬픔을 아울러 지닌 겹겹의 봄이다. 과거란 귀중한 재산, 과거라는 재산이 호수에 가득 찬 물결같이 고이고 고여서 오늘을 이루고 있는 것, 물 위에 호수가 따로 없듯이 과거를 떠나서 오늘이 따로 없는 것. 그러므로 물이 많을수록 호수가 아름답고 과거가 길수록 오늘이 큰 것이다.

늙어서 봄을 맞으며 봄을 앞으로 많이 못 볼까 슬퍼할 필요는 없다. 그동안 많이 가져본 **봄이 또 하나** 느는 것을 **대견하게** 생각할 일이다. 산에 오르거나 먼 길을 걸을 때, 십 리고 이십 리고 가서 뒤를 돌아다보고는 내가 저기를 걸어왔구나 하며, 흐뭇하고 **자랑스러운 때**도 있다. 그리고 돌아다보는 경치가 걸어들 때보다 놀랍게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때도 있다. 다만 지나온 추억을 더듬어 한 개의 진주를 발견하지 못하고 거친 모래알만 쥐어질 때, 그것이 슬프다. 보잘것없는 내 과거가 항상 오늘을 슬쁘게 할 뿐이다.

뜰 앞에 한 그루 밀감나무가 서 있다. **동쪽 가지** 끝에 파릇 파릇 싹이 움 돋기 시작한다. 굵은 가지에서도 푸른 생기가 넘쳐 흐른다. 미구에 잎이 피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힐 것이다. 집안사람들의 기대가 사뭇 크다. 그러나 서쪽 가지에서는 소식이 없다. 나무의 절반은 죽은 가지다. 죽은 가지에 봄이 올 리 없다. 지난겨울에 잎이 다 떨어지고 검은 등걸만 남았을 때, 혹 죽지 아니했나 염려도 했고, 봄이 되면 살아나겠지 믿기도 했었다. 그러나 같은 나무 한 등걸에서 한 가지는 살고 한 가지는 죽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하지만, 눈보라 추운 속에서도 한 가지는 생명을 기르며 겨울을 살아왔고, 한 가지는 그 속에서 자기를 살리지 못했던 것이다. 저 동쪽 가지의 싹싹하고 발랄한 **생의 의지**. 지난겨울 석 달 동안, 마음속으로의 안타까운 저항. 그리고 남모르는 분투와 인내! 이에 대한 무한한 경의와 찬사를 보내고 싶다. 봄이 가면 봄이 없다고 슬퍼함은 일 년을 사는 곤충의 슬픔이다. 교목은 봄이 열 번 가면 열 개의 봄을, 가을이 백 번 가면 백 개의 가을을 지낸다.

생활에 따라서는 인류 역사 **억만 년의 봄이 다 내 봄**에 간직된 봄이요, **생각**에 따라서는 잊지 못할 뚜렷한 봄이란 또 몇 날이 못 될 것이다. 그러므로 오래 세상에 머물러 **봄을 여러 번 보는** 것이 귀한 게 아니라, 봄을 봄답게 느끼고 지나온 모든 봄을 회상하며 과거를 잃지 않고 되새기는 것도 우리의 생활을 풍부하게 해 줄지언정 섭섭할 것은 없다.

- 윤오영, 「봄」 -

44.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일상에서 보고 들은 바를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② 분석의 방법을 사용하여 대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 ③ 자연을 상대로 대화하면서 자신의 관점을 합리화하고 있다.
- ④ 타인의 견해를 인용하여 글쓴이의 주장을 일반화하고 있다.
- ⑤ 소재에 대한 일상적인 통념에서 출발하여 삶의 의미를 찾아내고 있다.

45. 윗글에 대한 감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늙은이의 봄’을 물의 속성에 비유한 것으로 보아, 글쓴이는 흐르는 세월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어.
- ② ‘봄이 또 하나 느는 것을 대견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보아, 글쓴이는 과거를 부정하고 미래를 지향하고 있어.
- ③ 과거를 ‘자랑스러운 때’로 추억하는 것으로 보아, 글쓴이는 화려한 청춘의 봄으로 회귀하려 하고 있어.
- ④ 겨울을 이겨 낸 ‘동쪽 가지’를 주목한 것으로 보아, 글쓴이는 ‘생의 의지’에 따라 저마다 다른 봄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 보고 있어.
- ⑤ ‘생활’에 따라 ‘억만 년의 봄이 다 내 봄’에 간직된다고 한 것으로 보아, 글쓴이는 ‘봄을 여러 번 보는 것’에서 봄의 진정한 가치를 찾고 있어.

[31~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4.06A

접동
 접동
 아우래비 접동

진두강 가람 가에 살던 누나는
 진두강 앞마을에
 와서 읍니다.

옛날, 우리나라
 먼 뒤쪽의
 진두강 가람 가에 살던 누나는
 의붓어미 시샘에 죽었습니다

누나라고 불러 보랏
 오오 불설워
 시새움에 몸이 죽은 우리 누나는
 죽어서 접동새가 되었습니다

아홉이나 남아 되던 오랩동생을
 죽어서도 못 잊어 차마 못 잊어
 야삼경(夜三更) 남 다 자는 밤이 깊으면
 이 산 저 산 훑아가며 슬피 읍니다.

- 김소월, 「접동새」 -

[A]

31. 윗글에 나타난 표현상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애상적 어조를 통해 비극적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 ② 명령형의 문장을 사용하여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 ③ 구체적 지명을 활용하여 향토적 정서를 환기하고 있다.
- ④ 행의 길이에 변화를 주어 리듬의 완급을 조절하고 있다.
- ⑤ 동일한 시구를 반복하여 두 연을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있다.

32.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2연에서 '누나'의 울음은 '누나'의 이야기를 떠오르게 한다.
- ② 2연에서 3연으로 전개되면서 '누나'에 대한 화자의 태도가 부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 ③ 3연에서는 2연의 '누나'와 관련된 사연이 제시되고 있다.
- ④ 4연에서는 '누나'에 대한 화자의 정서가 직설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 ⑤ 4연에서는 '우리'라는 시어를 통해 화자와 '누나'의 관계가 강조되고 있다.

33.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김소월의 시에서 한(恨)은 서로 모순을 이루는 두 감정이 갈등을 일으키고, 그 갈등이 끝내 풀리지 않을 때 생긴다. 예컨대 한은 체념해야 할 상황에서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거나, 자책과 상대에 대한 원망(怨望)이 충돌하여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 수 없을 때 맺힌다.

- ① '차마' 못 잊는다는 것으로 보아, '누나'의 한은 죽어서도 동생들에 대한 미련을 풀어내지 못하여 생긴 것 같아.
- ② '시샘'이 '시새움'으로 변주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누나'의 한은 의붓어미와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을 때 맺힌 것 같아.
- ③ '이 산 저 산' 떠도는 새의 모습으로 보아, '누나'의 한은 모든 희망을 버리고 방황하며 체념하고 있을 때 맺힌 것 같아.
- ④ '야삼경'에도 잠들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누나'의 한은 자신의 심정이 어떤 상태인지 파악하지 못하여 생긴 것 같아.
- ⑤ '오랩동생'과 이별하는 심경이 표현된 것으로 보아, '누나'의 한은 홀로 가족을 떠나는 행위를 자책하고 있을 때 맺힌 것 같아.

[34~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4.06A

1945년 8월 15일, 역사적인 날.
 이날도 신기료장수 방삼복은 종로의 공원 건너편 응달에 앉아서, 구두 정을 박으면서, 해방의 날을 맞이하였다. 그러나 삼복은 감격한 줄도 기쁜 줄도 모르겠었다. 지나가는 행인이, 서로 모르던 사람끼리면서 덩씩 서로 껴안고 기뻐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는 것이, 삼복은 속을 모르겠고 차라리 축스러 보일 따름이었다. ㉠ 몰려 단은 군중이 오히려 성가시고, 만세 소리가 귀가 아파 이맛살이 지푸러질 지경이었다.
 몰려다니고 만세를 부르고 하기에 미처 날뛰느라고 정신이 없어, 손님이 없어, 손님이 부쩍 줄었다.
 “우랄질! 독립이 배부른가?”
 이렇게 그는 두런거리면서 반감이 솟았다.
 이삼 일 지나면서부터야 삼복에게도 삼복에게다운 해방의 혜택이 나누어졌다.
 십 전이나 십오 전에 박아 주던 정을, 오십 전을 받아도 눈을 부라리는 순사를 볼 수가 없었다. ㉡ 순사가 없어졌다면야, 활개를 쳐 가면서 무슨 짓을 하여도 상관이 없고 무서울 것이 없던 것이었었다.
 “옳아, 그렇다면 독립도 할 만한 건가 보다.”
 삼복은 징 열 개를 박아 주고 오 원을 받아 넣으면서 이렇게 속으로 중얼거리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며칠이 못 가서 삼복은 다시금 해방을 저주하여야 하였다. 삼복이 저 혼자만 돈을 더 받으며, 더 받아 상관인 없는 것이 아니라, 첫째 도가(都家)들이 제 맘대로 재료 값을 올리던 것이었었다. 징, 가죽, 고무, 실 모두가 오곱 십곱 비싸졌다. 그러니 ㉢ 신기료장수는 손님한테 아무리 비싸게 받는댔자 재료를 비싼 값으로 사야 하니, 결국 도가만 살찌울 뿐이지 소득은 전과 크게 다를 것이 없었다.
 “이런 엠병힐! 그놈에 경제겐 다 어디루 가 뉘졌어. 독립은 우라진다구 독립을 헌담.”
 석양 때 신기료 퀘짜 어깨에 멘 채 햇김에 막걸리청으로 들어가, 서너 사발 들이켜고는 그는 이렇게 게걸거렸다.
 [중략 줄거리] 영어 실력 덕에 미군 통역관이 된 방삼복은 권력을 얻는다. 친일 행위로 모은 재산을 해방 이후에 모두 빼앗긴 백 주사는 방삼복을 만나 자신의 재산을 되찾아 달라고 부탁한다.
 ㉣ 옛날의 영화가 꿈이 되고, 일보에 몰락하여 가뜩이나 초상 집 개처럼 초라한 자기가 또 한번 어깨가 움츠러들을 느끼지 아니치 못하였다. 그런데다 이 녀석이, 언제 적 저라고 무덤 스텝게 굴어 심히 불쾌하였고, 그래서 엔간히 자리를 털고 일어설 생각이 몇 번이나 나지 아니한 것도 아니었었다. 그러나 참았다.
 보아 하니 큰 세도를 부리는 것이 분명하였다. 잘만 하면 그 힘을 빌려, 분풀이와 빼앗긴 재물을 도로 찾을 여망이 있을 듯 싶었다. ㉤ 분풀이를 하고, 더구나 재물을 도로 찾고 하는 것이라면야 코빼퐀이 삼복이는 말고, 그보다 더한 놈한테라도 머리 숙이는 것쯤 상관할 바 아니었다.

“그러니, 여보게 미씨다 방…….”
 있는 말 없는 말 보태 가며 일장 경과 설명을 한 후에, 백 주사는 끝을 맺기를,
 “어쨌든지 그놈들을 말이네, 그놈들을 한 놈 냉기지 말구섬 죄다 붙잡아다가 말이네, 괴수놈들일랑 목을 썰어 죽이구, 다른 놈들일랑 백다구가 부러지두록 두들겨 주구. 꿍어얏히구 항복 반구. 그리구 빼앗긴 것 일일이 도루 다 찾구. 집히구 세간 쳐부신 것 말끔 다 몰리구…… 그렇게만 해 준다면, 내, 내, 재산 절반 노나 주문세, 절반. 응, 여보게 미씨다 방.”
 “열려 마슈.”
 미스터 방은 선뜻 쾌한 대답이었다.
 “진정인가?”
 “머, 지금 당장이래두, 내 입 한 번만 떨어진다 치면, 기관총 들면 엠피가 백 명이구 천 명이구 들끓어 내려가서, 들이 쑥밭을 만들어 놓니다, 쑥밭을.”
 “고마우이!”
 백 주사는 복수하여지는 광경을 서연히 연상하면서, 미스터 방의 손목을 덩씩 잡는다.
 “백골난망이겠네.”
 “놈들을 깡그리 죽여 놀 테니, 보슈.”
 “자네라면야 어렵하겠나.”
 “흰말이 아니라 참 ○○○ 박사두 내 말 한마디면 고만 다 제바리유.”
 미스터 방은 그리고는 냉수 그릇을 집어 한 모금 물고 꿀쩍 꿀쩍 양치를 한다. ㉥ 웬 버릇인지, 하여간 그는 미스터 방이 된 뒤로, 술을 먹으면서 양치하는 버릇이 생겼었다.
 양치한 물을 처치하려고 휘휘 둘러보다, 일어서서 노대로 성큼성큼 나간다.
 - 채만식, 「미스터 방」 -

34.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서술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 ② 서술자를 작중 인물로 설정하여 사건의 현장감을 높이고 있다.
- ③ 서술자가 작중 상황과 사건을 전지적 시점으로 전달하고 있다.
- ④ 서술자가 회상을 통해 외부 이야기에서 내부 이야기로 이동하고 있다.
- ⑤ 서술자는 과거와 현재를 반복적으로 교차시켜 사건에 입체감을 부여하고 있다.

35.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 새로운 국가의 미래를 비관적으로 전망하는 인물의 복잡한 심정을 표현한다.
- ② ㉡: 치안 부재의 상황으로 인해 야기된 인물의 슬픔과 분노를 표현한다.
- ③ ㉢: 물가 상승으로 대표되는 경제 상황에 대한 인물의 불편한 심경을 표현한다.
- ④ ㉣: 전통 윤리를 회복해 타락한 세태를 견뎌내고자 하는 인물의 의지를 표현한다.
- ⑤ ㉣: 새로운 생활 문화를 체험하며 나타나는 인물의 혼란스러운 내면을 표현한다.

36. 다음 <학습 활동>에서 [A]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학습 활동>

감상의 길잡이 이 소설을 감상하기 위해서는 인물과 시대 현실을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1. 작품의 시·공간적 배경을 알아보자.
 - 해방 직후의 서울
2. 작중 인물의 태도를 살펴보자.
 - 방삼복은 해방된 사회의 현실에 대해 일관성 없는 태도를 보임.
 - 백 주사는 몰락을 가져온 현실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보임.
 - 백 주사는 갑자기 출세한 방삼복에 대해 이중적 태도를 보임.
3. 작중 인물과 시대 현실을 중심으로 작품을 감상해 보자.

[A]

- ① 방삼복의 출세를 통해 해방 직후 사회의 부정적 단면을 비판적으로 드러낸다.
- ② 백 주사의 몰락을 통해 개인을 억압하는 시대 변화의 부당함을 비판적으로 드러낸다.
- ③ 현실에 대한 백 주사의 부정적 태도를 통해 그의 시대착오적 역사 인식을 비판적으로 드러낸다.
- ④ 현실에 대한 방삼복의 일관성 없는 태도를 통해 그의 현실 인식에 나타난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드러낸다.
- ⑤ 방삼복에 대한 백 주사의 이중적 태도를 통해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기회주의적인 모습을 비판적으로 드러낸다.

37. ㉠의 상황을 나타내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꿩 먹고 알 먹는다.
- ②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 ③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 ④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
- ⑤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긴다.

[41~4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14.06A

“사부는 어느 곳으로부터 오셨나이까?”
 노승이 웃으며 대답하기를,
 “평생 알고 지낸 사람을 몰라보시니 일찍이, ‘귀인은 잇기를 잘한다.’는 말이 옳소이다.”
 양 승상(양소유)이 자세히 보니 과연 얼굴이 익숙한 듯하였다.
 문득 깨달아 능과 낭자를 돌아보며 말하기를,
 “㉠ 내가 지난날 토변을 정벌할 때 꿈에 동정 용궁의 잔치에 참석하고 돌아오는 길에, 한 화상이 법좌(法座)에 앉아서 경을 강론하는 것을 보았는데 노승이 바로 그 노화상이냐?”
 노승이 박장대소하고 가로되,
 “옳도다, 옳도다. 비록 그 말이 옳으나 꿈속에서 잠깐 만난 일은 기억하고 십 년 동안 같이 살았던 것은 기억하지 못하니 누가 양 승상을 총명하다 하였는가?”
 승상이 망연자실하여 말하기를,
 “소유는 십오륙 세 이전에는 부모의 슬하를 떠난 적이 없고, 십육 세에 급제하여 곧바로 직명을 받아 관직에 있었으니, 동으로 연나라에 사신으로 가고 토변을 정벌하러 떠난 것 외에는 일찍이 경사(京師)를 떠나지 아니하였거늘, 언제 사부와 함께 십 년을 상종하였으리요?”
 노승이 웃으며 말하기를,
 “상공이 아직도 춘몽을 깨지 못하였도다.”
 승상이 말하기를,
 “사부는 어찌하면 저로 하여금 춘몽을 깨게 하실 수 있나이까?”
 노승이 이르기를,
 “이는 어렵지 않다.”

하고 손에 잡고 있던 지팡이를 들어 돌난간을 두어 번 두드렸다. 갑자기 네 골짜기에서 구름이 일어나 누각 위를 뒤덮어 지척을 분별하지 못하였다. 승상이 정신이 아득하여 마치 꿈속에 있는 듯하다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사부는 어찌하여 정도(正道)로 소유를 인도하지 아니하고 환술(幻術)로써 회롱하시나이까?”

승상이 말을 마치지 못하여 구름이 걷히는데 노승은 간 곳이 없고 좌우를 돌아보니 팔 낭자도 간 곳이 없었다. 승상이 매우 놀라 어찌할 바를 모르는 중에 높은 대와 많은 집들이 한순간에 없어지고 자기의 몸은 작은 암자의 포단 위에 앉았는데, 향로에 불은 이미 사라지고 지는 달이 창가에 비치고 있었다.

자신의 몸을 보니 백팔 염주가 걸려 있고 머리를 손으로 만져 보니 갓 깎은 머리털이 가칠가칠하였으니 완전히 소화상의 몸이요 전혀 대승상의 위위가 아니니, 정신이 황홀하여 오랜 후에야 비로소 제 몸이 연화도량의 성진(性眞) 행자(行者)임을 깨달았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처음에 스승에게 책망을 듣고 풍도옥(鄧都獄)*으로 가서 인간 세상에 환도하여 양가의 아들이 되었다가, ㉡ 장원급제를 하여 한림학사를 한 후 출장입상(出將入相)*, 공명신퇴(功名身退)*하여 두 공주와 여섯 낭자로 더불어 즐기던 것이 다 하룻밤의 꿈이로다. 이는 필연 사부가 나의 생각이 그릇됨을 알고 나로 하여금 그런 꿈을 꾸게 하시어 인간 부귀와

남녀 정욕이 다 허무한 일임을 알게 한 것이로다.’
 성진이 서둘러 세수하고 의관을 정제하여 처소에 나아가니, 제자들이 이미 다 모여 있었다.
 육관 대사가 큰 소리로 묻기를,
 “성진아, 인간 부귀를 겪어 보니 과연 어떠하더냐?”
 “㉢ 성진이 이미 깨달았나이다. 제자가 불초하여 생각을 그릇 되게 하여 죄를 지었으니 마땅히 인간 세상에서 윤회하는 벌을 받아야 하거늘, 사부께서 자비하시어 하룻밤 꿈으로 제자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사부의 은혜는 천만 겁이 지나도 갚기 어렵나이다.”
 대사가 말하기를,
 “네가 흥을 타고 갔다가 흥이 다하여 돌아왔으니 내가 무슨 간여할 바가 있겠느냐? 또 네가 말하기를, ‘인간 세상에 윤회한 것을 꿈에 꾸었다.’고 하니, 이는 꿈과 세상을 다르다고 하는 것이니, 네가 아직도 꿈을 깨지 못하였도다. 옛말에 ‘㉣ 장주(莊周)가 꿈에서 나비가 되었다가 다시 나비가 장주가 되었다.’고 하니, 어느 것이 거짓 것이고 어느 것이 참된 것인지 분별하지 못하니, 이제 성진과 소유에 있어 어느 것이 참이며 어느 것이 꿈이냐?”
 성진이 이에 대답하기를,
 “제자 성진은 아득하여 꿈과 참을 분별하지 못하겠사오니, ㉤ 사부는 설법(說法)을 베풀어 제자로 하여금 깨닫게 하소서.”
 - 김만중, 「구운몽」 -

* 풍도옥: 지옥을 이르는 말.
 * 출장입상: 나가서는 장수가 되고 들어와서는 재상이 됨.
 * 공명신퇴: 공을 세워서 자기의 이름을 널리 드러낸 후 물러남.

4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내적 독백을 통해 극적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 ② 대화를 통해 인물 간 대립의 양상이 심화되고 있다.
- ③ 묘사의 방식을 통해 장면이 전환되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구체적 시대 상황을 설정하여 내용의 사실성을 높이고 있다.
- ⑤ 서술자가 개입하여 과거의 사건을 압축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42. 윗글의 인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성진은 육관 대사의 가르침을 따르려 한다.
- ② 노승은 양소유가 자각하도록 도와주고 있다.
- ③ 성진은 꿈속의 노승이 육관 대사임을 알게 된다.
- ④ 양소유는 팔 낭자와 함께 꿈에서 깨어나고자 한다.
- ⑤ 성진은 양소유로서의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있다.

43.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구운몽」은 ‘회의(懷疑)와 부정(否定)’의 과정을 통해서 서사가 구성된다. 작품 초반에 성진이 세속에 호기심을 갖는 모습은 불교적 가치관에 대한 ‘회의와 부정’에서, 결말에 이르러 다시금 불교적 삶을 택하는 모습은 세속적 삶에 대한 ‘회의와 부정’에서, 마지막 육관 대사의 성진에 대한 가르침은 참·거짓의 이분법적 구분에 대한 ‘회의와 부정’에서 기인한 것이다. 이러한 세 번의 ‘회의와 부정’은 작품에 순차적으로 등장하여 「구운몽」의 주제를 한층 심화시킨다.

- ① ㉠은 ‘첫 번째 회의와 부정’을 경험하기 전의 일이다.
- ② ㉡은 ‘첫 번째 회의와 부정’과 ‘두 번째 회의와 부정’ 사이에 일어난 일이다.
- ③ ㉢은 ‘두 번째 회의와 부정’을 경험한 직후의 일이다.
- ④ ㉣은 ‘세 번째 회의와 부정’ 단계의 핵심 내용을 보여 주는 비유적인 표현이다.
- ⑤ ㉤은 ‘두 번째 회의와 부정’에서 ‘세 번째 회의와 부정’으로 나아가고자 함을 의미한다.

[13~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13.11

막 씨 졸연 복통이 있어 마치 태중에 아이 놀 듯하여 점점 불러오거늘 심히 괴이히 여겨 행여 남이 알까 근심하더니, 십 삭에 미치는 산점*이 있어 ㉠ 초막(草幕)에 엎드렸더니, 해산하고 돌아보니 아이는 아니요, 금방울 같은 것이 금광이 찬란하거늘, 막 씨 대경하여 괴이히 여기며 손으로 누르되 터지지 아니하고 돌로 깨쳐도 깨어지지 아니하거늘, 이에 집어다가 멀리 버리고 돌아보니 금방울이 굴러 따라오는지라. 더욱 의심하여 집어다가 깊은 물에 들이치고 돌아오니 금방울이 물 위에 가볍게 떠다니다가 막 씨의 가는 양을 보고 여전히 굴러 따라오는지라.

막 씨 헤아리되,

‘나의 팔자 기구하여 이 같은 괴물을 만나 타일에 이로 인하여 반드시 큰 화근이 되리도다.’

하고 불 땀 때에 아궁이에 들이쳤더니, 닷새 후에 헤쳐 본즉 금방울이 뛰어나오되 상하기는커녕 새로이 금빛이 더욱 짙어지고 ㉡ 향내 진동하거늘, 막 씨 하릴없이 두고 보니 밤이면 품속에 들어 자고 낮이면 굴러다니며 혹 칩때 나는 새도 잡고 나무에 올라 과일도 따 가지고 와 앞에 놓으니, 막 씨 자세히 본즉 속에서 실 같은 것이 온갖 것을 묻혀 오되 그 털이 출입이 있어 평시에는 반반하고 뵈지 아니하거늘, 추위를 당하여도 방울이 굴러 품에 들면 조금도 춥지 아니하여 엄동설한에 한테서 남의 방이를 찢어 주고 저녁에 초막으로 돌아오니 방울이 굴러 막에서 내달아 반기는 듯 뛰놀거늘 막 씨 추위를 견디지 못하여 막 속으로 들어가니 그 속이 놀라게 더우며 방울이 빛을 내어 밝기 낮 같거늘, 막 씨 기이히 여겨 남이 알까 저어하여 낮이면 막 속에 두고 밤이면 품속에 품고 자더니, 방울이 점점 자라매 산에 오르기를 평지같이 다니며 진 데와 마른 데 없이 굴러다니되 몸에 흡이 묻지 아니하더라.

[종략 줄거리] 금방울을 탐내다 뜻을 이루지 못한 자가 금방울이 요괴롭다고 비방한다. 이에 고을 수령인 장 공은 막 씨를 잡아서 금방울을 제압하고자 하나, 오히려 금방울이神通력을 발휘하여 장 공은 먹고 자는 것조차 여의치 않게 된다.

부인이 막 씨 놓음을 원하니 장 공이 깨닫고 즉시 막 씨를 놓으니 그날부터 침식이 여전한지라. 장 공이 막 씨의 효행을 듣고 크게 뉘우쳐 초막을 헐고 그 터에 크게 집을 지으며 ㉢ 정문(旌門)*을 세워 잡인을 금하고 달마다 월음*을 주어 일생을 편안케 하니라.

차설. 장 공이 뇌양에 온 후로 몸이 평안하나 주야 해룡을 생각하고 부인으로 더불어 슬퍼하더니, 부인이 이로 인하여 침식에 위독하여 백약이 무효하매 공이 주야 병측을 떠나지 아니하더니, 일일은 부인이 공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려 왈, “침의 팔자 기박하여 한 날 자식을 난중(亂中)에 잃고 지금 보전함은 요행 생전에 만나 볼까 하였더니 십여 년 존망을 모르매 병입골수하여 명이 오늘뿐이라. ㉣ 구천에 돌아간들 어찌 눈을 감으리오? 바라건대 공은 길이 보중 하소서.”

[A] 하고 인하여 명이 진하니, 장 공이 낮을 대고 애통하여 자로 기절하매 좌우가 붙들어 구호하더니, 밖에서 방울이 굴러 부인 시신 앞으로 들어가거늘, 모두 보니 풀잎 같은 것을 물어다 놓고 가는지라. 급히 집어 보니 나뭇잎 같은 것이 로되 가늘게 썼으되 ‘보은초(報恩草)라 하였거늘, 공이 대희 왈, “이는 막 씨가 보은한 것이로다.”

하고, 그 풀을 부인 입에 넣으니, 식경 후에 부인이 몸을 운동하여 돌아눕거늘, 좌우가 울음을 그치고 수족을 주무르니 그제야 부인이 숨을 길게 쉬는지라. 공이 병을 물은 때, 부인이 자고 나매 정신이 썩었다고 대답하니, 공이 대열하여 방울의 수말*을 다하고 못내 기뻐하더라.

그 후로 부인의 병세 과연 평복되니 부인이 친히 막 씨의 ㉤ 집에 가 재생지은(再生之恩)을 만만사레하고 뱃어 형제 되매, 그 후로는 방울이 굴러 부인 앞에 오거늘 장 공 부부 사랑하여 손에 놓지 아니하니, 방울이 아는 듯 이리 안기며 저리 품기어 영민함이 사람 뜻대로 하는지라, 이름을 ㉥ ‘금령(金鈴)’이라 했다.

- 작자 미상, 「금방울전」 -

* 산점 : 해산의 기미.

* 정문 : 충신·효자·열녀들을 표창하기 위해 집 앞에 세우던 붉은 문.

* 월음 : 매달 주는 돈이나 물품.

* 수말 : 일의 처음부터 끝.

13. [A]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서술자가 주인공으로 등장하여 자신의 체험을 사실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 ② 요약적 서술과 등장인물의 말을 통해 사건의 경과를 드러내고 있다.
- ③ 인물 간의 갈등 양상을 통해 불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 ④ 배경 묘사를 통해 인물의 내면 심리를 표출하고 있다.
- ⑤ 부정적 인물에 대한 비판 의식을 표현하고 있다.

14.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막 씨의 당시 처지를 보여 주는 공간이다.
- ② ㉡: 금방울의 신이한 면모를 보여 준다.
- ③ ㉢: 막 씨의 효행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상징한다.
- ④ ㉣: 막 씨와 장 공 부인의 갈등이 심화되는 공간이다.
- ⑤ ㉣: 금방울이 존재 가치를 인정받았음을 보여 준다.

15. <보기>를 참고하여 밑줄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금방울전」은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태어난 주인공이 온갖 고난과 시련을 극복한 후, 방울을 깨고 사람으로 변신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금방울은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로부터 시련을 겪지만, 방울의 모습을 한 채로 자신의 의지를 지니고 다양한 능력을 발휘한다. 또 주인공이면서도 타인을 돕는 조력자로서의 모습을 강하게 지닌다.

- ① 막 씨가 금방울을 ‘손으로 누르’고 ‘돌로 깨’는 것은 금방울의 변신을 돕기 위한 행동이다.
- ② 막 씨가 금방울을 ‘깊은 물’과 ‘아궁이’에 들이치는 행위는 어머니에 의한 금방울의 시련을 형상화한 것이다.
- ③ 막 씨가 금방울을 거둬 버려도 ‘여전히 굴러 따라오는’ 것은 금방울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 ④ 금방울이 ‘나는 새도 잡고’ ‘산에 오르기를 평지같이 다니’는 것 등은 금방울의 다양한 능력을 보여 준 것이다.
- ⑤ 금방울이 ‘보은초’를 구해 와 장 공의 부인을 살려 내는 것은 조력자로서의 성격을 보여 주는 것이다.

16. ㉠의 상황을 나타내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각골통한(刻骨痛恨) ② 구사일생(九死一生)
- ③ 사필귀정(事必歸正) ④ 순망치한(唇亡齒寒)
- ⑤ 연목구어(緣木求魚)

[17~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13.11

소년은 한길 한복판을 거의 쉼 사이 없이 달리는 전차에, 신기하기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싶게 올라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에, 머리에, 등덜미에, 잠깐 동안 부러움 가득한 눈을 주었다.

“아버지. 우린, 전차, 안 타요?”

“아, 바로 저인데, 전차 밧 하러 타니?”

아무리 ‘바로 저기’라도, 잠깐 좀 타 보면 어떠냐고, 소년은 적이 불평이었으나, 다음 순간, 그는 언제까지든 그것 한 가지에만 마음을 주고 있을 수 없게, 이제까지 시골구석에서 단순한 모든 것에 익숙해 온 그의 어린 눈과 또 귀는 어지럽게도 바꿨다.

전차도 전차려니와, 웬 자동차며 자전거가 그렇게 쉼 새 없이 뒤를 이어서 달리느냐. 어디 ‘장’이 선 듯도 싶지 않다. [A] 건만, 사람은 또 웬 사람이 그리 거리에 넘치게 들끓느냐. 이 층, 삼 층, 사 층…… 웬 집들이 이리 높고, 또 그 위에는 무슨 간판이 그리 유난스레도 많이 걸려 있느냐. 시골서, ‘영리하다’ ‘뚝뚝하다’, 바로 별명 비슷이 불러 온 소년으로도, 어느 틈엔가, 제풀에 딱 벌려진 제 입을 어찌는 수 없이, 마분지 조각으로 고깔을 만들어 쓰고, 무엇인지 종잇조각을 둘러고 있는 사나이 모양에도, 그의 눈은, 쉽사리 놀라고, 수많은 깃대잡이 아이들의 앞장을 서서, 몽당수염 난 이가 신나게 부는 날라리 소리에, 어린이의 마음은 견장을 수 없게 들떴다.

(중략)

그는 눈을 들어, 이번에는 빨래터 바로 위 천변의, 나뭇장간판이 서 있는 곳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이미 웃을 놀지 않는 젊은이들이, 철팔 친 그 앞에 앉아서들 잡담을 하고, 더러는 몸들을 유난스러이 전후좌우로 돌려 가며, 그것은 또 무슨 장난인지, 서로 주먹을 들어 때리는 시늉을 한다. 그것이 ‘권투’라는 것의 연습임을 배운 것은 그로부터 며칠 뒤의 일이거나, 그러한 장난도 창수의 눈에는 껍이나 재미스러웠다.

[B] 그러한 소년의 눈에, 천변을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 모두가, 한결같이 잘나만 보이는 것도 또한 어찌할 수 없는 일이 아니냐. 임바네스* 입은 민 주사며, 중산모 쓴 포복전 주인이며, 인력거 위에 날아갈 듯이 앉아 있는 취옥이며, 그러한 모든 사람은 이를 것도 없거니와 다리 밑에 모여서들 지껄대고, 툭 치고, 아무렇게나 거적 위에서 뒹굴고, 그러는 각정이* 때들도, 이곳이 결코 시골이 아니라 서울 일진댄, 그것들은 그만큼 행복일 수 있지 않느냐.

더구나, 소년은, 즐창, 이곳에만 있어, 오직 이곳 풍경만 사랑하지 않아도 좋을 것이다.

‘암만 좋은 구경이래두, 밤낮 본다면 물리고 만다……’

그러나 이제 창수는 ‘화신상’도 가 볼 수 있고, ‘전차’도 탈 수 있고, 읍지, 또 가만히 서만 있어도 삼 층 꼭대기, 사 층 꼭대기로 데려다 준다는 ‘승강기’라는 것이 있다지 않나. 수길의 말을 들으면, 머리가 어쩔하게 현기증이 나더라도, 그것은

타는 법을 몰라 그럴 것이다.

‘눈을 꼭 감고만 있으면 아무 상관이 없다……’

창수는, 말로만 들었지 정작 눈으로 본 일은 없는 ‘승강기’라는 물건을, 잠깐 머릿속에 아무렇게나 만들어 보느라 골몰이었으나, 어느 틈엔가 제 곁에 서너 명의 아이들이 모여 선 것을 깨닫고, 그들을 둘러보았다.

“애가 시골 아이야, 시골 아이야.”

철팔 세나 그밖에 더 안 된 아이가, 옆에 있는 아이들을 둘러보고 그렇게 말하니까, 모두 고만고만한 또래의 판 아이들이,

“그래, 시골 아이야, 시골 아이……”

저마다 연방 고개를 끄덕이고, 열한두 살이나 그렇게 된 계집아이 등에 업혀 있는 두세 살 된 갓난애조차, 잘 안 돌아가는 허끝을 놀리어,

“시구라, 시구라.”

하고, 뻔히 저를 쳐다보는 것에, 소년은 그러한 것에도 쉽사리 붙어지는 제 얼굴을 아무렇게도 하는 수 없이, 문득, 등 뒤에서 요란스러이 울린 **자전거 종소리**에, 그만 질겁을 하여 한옆으로 허둥대며 비켜서는 꼴을 보고, 그 결코 그렇게는 놀라는 일이 없는 ㉠ ‘서울 아이’들이, “하, 하, 하” 하고 가장 재미있는 듯싶게 한바탕을 웃었을 때, 소년은 귀밑까지 새빨개가지고 마음 속에 끝없는 모욕을 느끼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 **저를 비웃은 아이**는, 옆에 모여 선 그 애들뿐이 아니다. 개천 건너 이발소 창 앞에 앉아, ㉢ **저보다 좀 큰 아이**가 아까부터 제 편만 지켜보고 있었던 듯싶어,

“하, 하, 하…… 녀석, 놀라기는……”

하고, 그러한 말을 하더니, 눈이 마주치자,

“너, 약국에, 오늘 들왔구나?”

아주 **어른같이** 그러한 것을 묻는다. ㉣ **창수**는 또 번번히 못하게 얼굴을 붉히며, 가까스로 고개를 한 번 끄떡하고, 문득, 부모를 떠나 외따로이 이러한 곳에서 이제 어떻게 지내 가나 겁이 부쩍 나며, 그저 아버지가 ‘전차’나 태워 주고, ‘화신상’이나 구경시켜 주고, 또 ‘승강기’ 있다는 데로 데리고 가 주고, 그러한 다음에, 같이 **집으로나 다시 내려갔으면**, 그러면 펍 좋겠다고 침을 몇 덩어리나 삼키며, 저 혼자 속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 박태원, 「천변풍경」 -

* 임바네스: 남자용 외투의 일종.

* 각정이: 거지.

17.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여러 인물의 내면을 서술하여 인물들의 다양한 특성을 보여 주고 있다.
- ② 심표를 활용한 긴 문장으로 여러 대상과 장면을 서술하고 있다.
- ③ 인물 간 대화를 통해 인물의 분열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사건을 입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 ⑤ 빈번한 장면 전환을 통해 긴박한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18. <보기>의 관점에서 [A], [B]의 의미를 탐구하기 위한 구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문학 작품을 사회·문화적 맥락과 관련지어 해석한다.

- ① [A]: 소년의 의식과 행동의 특징에 주목하여, 이 작품의 인물 유형을 분류해 본다.
- ② [A]: 소년과 아버지의 갈등에 주목하여, 그 갈등이 작품 전체의 주제로 발전될 가능성을 추론해 본다.
- ③ [A]: 여러 인물이 한 공간에 등장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 작품의 구조적 특성을 이해하는 단서로 삼는다.
- ④ [B]: 작품 속 인물들의 외양에 주목하여, 인물들의 성격을 드러내는 창작 기법에 대해 알아본다.
- ⑤ [B]: 천변의 생활상에 주목하여, 당시 서울의 세태가 작품에 반영된 양상을 살펴본다.

19. ㉠~㉢의 관계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과 함께 ㉢, ㉢을 조롱하고 있다.
- ② ㉠은 ㉡과 달리 ㉢을 무시하고 있다.
- ③ ㉢은 ㉡에 기대어 ㉢에게 조언하고 있다.
- ④ ㉢은 ㉡이기는 하지만 ㉢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
- ⑤ ㉢은 ㉠, ㉡, ㉢ 사이의 갈등을 중재하고 있다.

20.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도시에 처음 입성한 이들은 자신의 꿈과는 다른 현실에 직면하여 심리적 혼돈 속에서 크게 위축된다. 도시는 문명의 화려함을 내세워 그들을 매혹하지만 안정된 삶의 장소를 내주지는 않는다. 도시 문명에 가려진 도시의 이면적 풍경, 인정이 베풀린 도시인의 초상, 그리고 도시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의식 등이 어우러져 도시 소설의 한 줄기를 이룬다.

- ① ‘창수’가 ‘다리 밑’ 풍경조차도 ‘행복일 수 있지 않느냐’고 여기는 데서, 도시의 이면적 실상을 직시하지 못하는 인물의 의식을 엿볼 수 있군.
- ② ‘창수’가 도시의 풍경에 대해 ‘밤낮 본다면 물리고 만다’고 한 데서, 혼돈에서 벗어나 도시 문명을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모습을 읽을 수 있군.
- ③ ‘창수’가 ‘자전거 종소리’에 허둥대는데도 계속 놀림을 당하는 장면에서, 도시에 입성한 인물이 현실에 직면하여 처하는 불안정한 상황을 짐작할 수 있군.
- ④ ‘창수’가, ‘어른같이’ 묻는 물음에 선뜻 답하지 못하는 장면에서, 도시에 처음 입성한 인물이 겪는 심리적 위축 상태를 볼 수 있군.
- ⑤ ‘창수’가 ‘집으로나 다시 내려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대목을 통해, 꿈과 현실 사이의 괴리에서 오는 혼란을 겪는 이의 마음을 엿볼 수 있군.

[32~3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3.11

(가)

폭포는 곧은 절벽을 무서운 기색도 없이 떨어진다

규정할 수 없는 물결이

무엇을 향하여 떨어진다는 의미도 없이

㉠ 계절과 주야를 가리지 않고

고매한 정신처럼 쉴 사이 없이 떨어진다

금잔화도 인가도 보이지 않는 밤이 되면

폭포는 곧은 소리를 내며 떨어진다

곧은 소리는 소리이다

곧은 소리는 곧은

소리를 부른다

번개와 같이 떨어지는 물방울은

취할 순간조차 마음에 주지 않고

㉡ 나타(懶惰)와 안정(安定)을 뒤집어 놓은 듯이

높이도 폭도 없이

떨어진다

- 김수영, 「폭포」 -

(나)

살아 있는 것은 흔들리면서

튼튼한 줄기를 얻고

있는 흔들려서 스스로

살아 있는 몸인 것을 증명한다.

바람은 오늘도 분다.

수만의 잎은 제각기

몸을 엮는 하루를 가누고

들판의 슬픔 하나 들판의 고독 하나

들판의 고통 하나도

다른 곳에서 바람에 쓸리며

자기를 헤집고 있다.

피하지 마라

㉢ 빈 들에 가서 깨닫는 그것

우리가 늘 흔들리고 있음.

- 오규원, 「살아 있는 것은 흔들리면서 - 순례 11」 -

(다)

내 마음의 고향은 이제

참새 떼 왁자히 내려앉은 대숲 마을의

노오란 초가을의 초가지붕에 있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고향은 이제

토란 잎에 후두둑 빗방울 스치고 가는

여름날의 ㉣ 고요 적막한 뒤란에 있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고향은 이제

추수 끝난 빈 들판을 쿵쿵 울리며 가는

서늘한 뜨거운 기적 소리에 있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고향은 이제

빈 들길을 걸어 걸어 흰 옷자락 날리며

서울로 가는 순이 누나의 파르라한 웃고름에 있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고향은 이제

아늑한 상큼한 짙벼늘에 파묻혀

나를 부르는 소리도 잊어버린 채

까닭 모를 붉은 눈물 흘리던 그 어린 저녁 무렵에도 있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마음의 고향은

짜락눈 홀로 이마에 받으며

내가 그 어둑한 신작로 길로 나섰을 때 끝났다

눈 위로 막 얼어붙기 시작한

작디작은 ㉤ 수레바퀴 자국을 뒤에 남기며

- 이시영, 「마음의 고향 6- 초설」 -

32.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도치의 방식으로 시상을 마무리하여 주제 의식을 드러낸다.
- ② 명령적 어조를 활용하여 화자의 강한 의지를 표출한다.
- ③ 색채의 선명한 대조를 통해 시적 분위기를 환기한다.
- ④ 영탄법을 사용하여 화자의 고조된 감정을 나타낸다.
- ⑤ 유사한 어구를 반복하여 시적 상황을 부각한다.

33.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김수영은 한때 자유를 이상으로 내세우면서 생활인으로서의 자신을 뛰어넘으려고 했고, 오규원은 '순례' 연작시에서 생성과 변화를 중시하면서 사물에 대한 고정된 인식이나 관념에서 탈피하려고 했다. 오규원에게는 그것이 자유를 추구하는 일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김수영은 위대성에 주목하면서 대상의 숭고한 면이나 뛰어난 점을 발견하려 했고, 오규원은 구체적 언어에 주목하여 대상의 동적 이미지와 몸의 이미지를 포착하려 했다.

- ① (가)의 '고매한 정신처럼'에서는, 생활인으로서 시인이 지녔던 고뇌와 대비되는 대상의 위대성을 느낄 수 있어.
- ② (나)의 '슬픔 하나', '고독 하나', '고통 하나'가 '자기를 헤집고 있다'는 것에서는, 몸의 이미지를 통해 관념에서 탈피하려는 화자의 태도를 느낄 수 있어.
- ③ (가)의 '소리'와 (나)의 '바람'은 자유의 의미와 대비되는 소재 들로서, 화자는 이에 부정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
- ④ (가)에 비해 (나)의 화자는 흔들리는 현상을 바탕으로 자신을 대상과 동일시하고 있어.
- ⑤ (가)의 대상이 지닌 숭고한 면모와, (나)의 대상이 지닌 동적인 속성은 자유와 관련하여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있어.

34. (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고향에서의 삶과 관련된 소재들을 열거하고 있다.
- ② 감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③ 고향의 특정 인물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면서 시상을 반전시키고 있다.
- ④ 고향을 떠나올 때의 장면으로 시상을 마무리하면서 시적 여운을 남기고 있다.
- ⑤ 고향에 대한 상실감을 내세워 고향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을 담아내고 있다.

35.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 '폭포'의 낙하가 지닌 항상성을 나타낸다.
- ② ㉡: '폭포'가 지닌 긍정적 속성들이다.
- ③ ㉢: 화자와 공동체가 화합을 이루는 공간이다.
- ④ ㉣: 화자의 절망적인 상황을 드러낸다.
- ⑤ ㉤: 화자가 지향하는 미래를 표상한다.

[46~5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13.11

(가)

산중에 벗이 없어 **한기(漢紀)***를 쌓아 두고
 만고 인물을 거슬러 헤아리니
성현도 많거니와 **고절도** 많고 많다
 하늘 삼기실 제 곧 무심할까마는
 어찌하여 **시운(時運)**이 **일락배락*** 하였는가
 모를 일도 많거니와 애달픔도 그지없다
 기산(箕山)의 늙은 **고불** 귀는 어찌 썼었던가*
 박 소리 핑계하고 **조장(操狀)***이 가장 높다
 인심이 날 같아서 볼수록 새롭거늘
 ㉠ **세사(世事)**는 구름이라 험하기도 험하구나
 엇그제 빛은 술이 얼마큼 익었나니
 잡거니 밀거니 실컷 기울이니
 마음에 맺힌 시름 적게나 하리로다
 거문고 줄을 엮어 **풍입송(風入松)*** 이었구나
 손인지 주인인지 다 잊어버렸구나
 장공(長空)에 뜬 학이 이 골의 **진선(眞仙)**이라
 요대 월하(瑤臺月下)*에 행여 아니 만나신가
 손이 주인더러 이르되 그대 그인가 하노라

- 정철, 「성산별곡」 -

- * 한기: 책.
- * 일락배락: 흥했다가 망했다가.
- * 기산의~썼었던가: 기산에 숨어 살던 허유가 임금의 자리를 주겠다는 요임금의 말을 듣자, 이를 거절하고 귀를 썼었다는 고사.
- * 박 소리 핑계하고: 허유가 표주박 하나도 귀찮다고 핑계하고.
- * 조장: 기개 있는 품행.
- * 풍입송: 악곡 이름.
- * 요대 월하: 신선이 사는 달 아래.

(나)

벗님네 ㉡ **남산**에 가세 좋은 기약 잊지 마오
 익은 술 점점 쉬고 지진 화전 상해 가네
 자네가 아니 간다면 내 혼자인들 어떠리

<제1수>

어허 이 미친 사람이 날마다 **흥동(興動)***일까
 어제 곡성 보고 또 어디를 가자는 말이고
 우리는 ㉢ **중시(重試)** 급제하고 좋은 일 하여 보려네

<제2수>

저 사람 믿을 형세 없다 우리끼리 놀아 보자
 복건 망혜(幘巾芒鞋)로 실컷 다니다가
 돌아와 ㉣ **승유편(勝遊篇)*** 지어 후세 유전(後世流傳)하리라

<제3수>

우리도 갈 힘 없다 숨차고 오금 아파
 ㉤ **찰** 단고 더운 방에 마음껏 퍼져 있어
 배 위에 아기들을 치켜 올리며 사랑해 보려 하노라

<제4수>

벗이야 있고 없고 남들이 웃거나 말거나
 ㉥ **양신 미경(良辰美景)***을 남이 말한다고 아니 보라
 평생의 이 좋은 회포를 실컷 펼치고 오리라 <제5수>
 - 권섭, 「독자왕유희유오영(獨自往遊戲有五詠)」 -

- * 흥동: 흥에 겨워 다님.
- * 승유편: 즐겁게 잘 놀았던 일을 적은 글.
- * 양신 미경: 좋은 시절과 아름다운 경치.

(다)

나는 오늘도 나의 문법*이 끝나자 큰 무거운 짐이나 벗어 놓은 듯이 옷을 훨훨 털며 본관 서쪽 숲 사이에 있는 **나의 자리**를 찾아 올라간다. 나의 자리래야 솔밭 사이에 있는, 겨우 걸터앉을 만한 조그마한 소나무 그루터기에 지나지 못하지마는 오고 가는 여러 동료가 나의 자리라고 명명(命名)하여 주고 또 나 자신이 소나무 그루터기에 앉아 솔잎 사이로 흐느끼는 하늘을 우러러 볼 때 하루 동안에도 가장 기쁜 시간을 가질 수 있으므로 시간의 여유 있는 때마다 나는 한 큰 특권이나 차지하는 듯이 이 자리를 찾아 올라와 하염없이 앉아 있기를 좋아한다.

물론 나에게 멀리 군속(群俗)을 떠나 **고고(孤高)**한 가운데 처하기를 원하는 선골(仙骨)이 있다거나 또는 나의 성미가 남달리 괴팍하여 사람을 싫어한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역시 사람 사이에 처하기를 즐거워하고 사람을 그리워하는 겁남을 너의 하나요, 또 사람이란 모든 결점에도 불구하고 역시 가장 아름다운 존재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또 사람으로서도 아름다운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사람 사이에 살고 사람 사이에서 울고 웃고 부대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때 — 푸른 하늘과 찬란한 태양이 있고 황홀한 신록이 모든 산 모든 언덕을 덮는 이때 기쁨의 속삭임이 하늘과 땅, 나무와 나무, 풀잎과 풀잎 사이에 은밀히 수수되고, 그들의 **기쁨의 노래**가 금시에라도 우렁차게 터져 나와 산과 들을 흔들 듯한 이러한 때를 당하면, 나는 곁에 비록 친한 동무가 있고 그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자연에 결눈을 팔지 아니할 수 없으며, 그의 기쁨의 노래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사람이란 — 세속에 얽매어 머리 위에 푸른 하늘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주머니의 돈을 세고 지위를 생각하고 명예를 생각하는 데 여념이 없거나, 또는 오욕 칠정에 사로잡혀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는 데 마음의 **영일***을 갖지 못하는 우리 사람이란 어떻게 비소하고 어떻게 저속한 것인지 결국은 이 대자연의 거룩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조화를 깨뜨리는 한 오점 또는 한 잡음 밖에 되어 보이지 아니하여, 될 수 있으면 이러한 때를 타 잠깐 동안이나마 **사람을 떠나 사람의 일을 잊고, 풀과 나무와 하늘과 바람과 한가지로 숨 쉬고 느끼고 노래하고 싶은 마음**을 억제할 수가 없다.

- 이양하, 「신록 예찬」 -

- * 문법: 문법 강의 시간.
- * 영일: 일이 없이 평화스러운.

46.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선경후정의 방식으로 화자의 애상적 정서를 고조하고 있다.
- ② (가)와 (다)는 대상들의 속성을 대비하여 화자가 지향하는 삶을 드러내고 있다.
- ③ (나)와 (다)는 시간적 배경에 의미를 부여하여 삶의 무상함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가)~(다)는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여 환상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⑤ (가)~(다)는 과거의 기대와 다른 현재의 모습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47. (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화자는 '한기'에서 '성현', '호걸'과 같은 역사적 인물들을 헤아려 보고 있다.
- ② '시운'이 '일락배락' 하는 것에서 화자는 역사의 영광과 고난을 깨닫고 있다.
- ③ 고사를 들어 '고불'의 '조장'이 높다고 하면서 화자는 세상에 초연했던 '고불'의 인생관을 긍정하고 있다.
- ④ '손'과 '주인'이 어울려 '풍입송'을 연주하는 장면에서 화자의 소외감이 심화되고 있다.
- ⑤ 화자는 '손'의 말을 빌려 '주인'을 '진신'에 비유하며 '주인'의 흥취 있는 삶을 흠모하고 있다.

48. (가)의 화자의 관점에서 볼 때, ㉠~㉣ 중 시적 의미가 ㉠과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 ② ㉡ ③ ㉢ ④ ㉣ ⑤ ㉤

49.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나)는 작자가 문관(文官) 등과 남산에 놀이 가기로 약속했으나 그들이 모두 약속을 지키지 않자 결국 혼자 가게 된 경위와 심정을 노래한 것이다. 제1수부터 제5수까지 '작자 - 문관 - 작자 - 또 다른 인물 - 작자' 순으로 인물이 달리 등장하고 있다. 회곡에서 등장인물들이 대화를 주고받는 것처럼 각각 자신의 생각과 입장을 묻고 답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으며, 일상적 시어를 사용하여 당시의 생활상을 사실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 ① 제1수에서 제5수까지 화자를 바꿔 가며 극적 요소를 가미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② 제1수의 요청과 제2수의 불응, 제3수의 요청과 제4수의 불응이 반복되어 서로의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 ③ 제1수의 화자의 의도를 제5수에서도 드러내면서 주제를 강조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 ④ 제3수의 종장과 제4수의 초장에서는 일상적 관용 어구를 사용하여 엄숙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 ⑤ 제4수의 중장과 종장에서는 생활 속 삶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50. (다)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특권'은 신록을 누리는 글쓴이의 기쁨을 단적으로 나타낸 표현으로 생각할 수 있군.
- ② 신록이 '고고'한 모습을 지닌다는 점에서, '나의 자리'는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초월적 공간으로 보아야겠군.
- ③ '기쁨의 노래'는 신록의 속성을 비유한 것으로,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한 글쓴이의 인식을 부각한 것이군.
- ④ 글쓴이는 사람 곁을 떠나 살 수 없다고 하면서도, '사람을 떠나 사람의 일을 잊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군.
- ⑤ '한가지로 숨 쉬고 느끼고 노래하고 싶은 마음'은 대상과 동화하려는 글쓴이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군.

[20~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13.09

┌ “여보 장모! 춘향이냐 좀 보아야제?”
 [A] “그러지요. 서방님이 춘향을 아니 보아서야 인정이라 하오
 └ 리까?”
 향단이 여짜오되,
 “지금은 문을 닫았으니 바라를 치거든 가사이다.”
 이때 마침 바라를 탕탕 치는구나. 향단은 미음상 이고 등롱
 들고 어사또는 뒤를 따라 옥문간 당도하니 인적이 고요하고
 사정에도 간곳없네.
 이때 춘향이 비몽사몽간에 서방님이 오셨는데, 머리에는 금관
 (金冠)이요 몸에는 홍삼(紅衫)이라. 상사일념(相思一念) 끝에 만단
 정회(萬端情懷)하는 차라,
 “춘향아.” 부른들 대답이나 있을쑈냐. 어사또 하는 말이,
 “크게 한번 불러 보소.”
 “모르는 말씀이오. 예서 동헌이 마주치는데, 소리가 크게 나면
 사또 염문(廉問)할 것이니, 잠깐 지체하옵소서.”
 “무어 어때, 염문이 무엇인고? 내가 부를게 가만있소! 춘향아!”
 부르는 소리에 깜짝 놀라 일어나며,
 [B] “허허, 이 목소리, 잠결인가, 꿈결인가? 그 목소리 괴이하다.”
 어사또 기가 막혀 “내가 왔다고 말을 하소.”
 “왔단 말을 하게 되면 기절담락(氣絕膽落)할 것이니, 가만히
 계시옵소서.”
 춘향이 저의 모친 음성 듣고 깜짝 놀라,
 ┌ “어머니, 어찌 와 계시오? 몹쓸 딸자식을 생각하와 천방지방
 [C] (天方地方) 다니다가 낙상(落傷)하기 쉽소. 이홍랑은 오실라
 └ 마옵소서.”
 “날랑은 염려 말고 정신을 차리어라. 왔다.”
 “오다니 누가 와요?”
 “그저 왔다.”
 “갑갑하여 나 죽겠소! 일러 주오. 꿈 가운데 입을 만나 만단
 정회하였더니, 혹시 서방님께서 기별 왔소? 언제 오신단 소
 식 왔소? 벼슬 띠고 내려온단 노문(路文) 왔소? 애고, 답답하
 여라!”
 [D] “너의 서방인지 남방인지, 결인 하나 내려왔다!”
 “허허, 이게 웬 말인가? 서방님이 오시다니 몽중에 보던 입을
 생시에 본단 말가?”
 문틈으로 손을 잡고 말 못하고 기색하며,
 “허허, 이게 누구시오? 아마도 꿈이로다. 상사불견(相思不見)
 그런 입을 이리 쉬이 만날쏜가? 이제 죽어 한이 없네. 어찌
 그리 무정한가? 박명하다, 나의 모녀. 서방님 이별 후에
 ㉠ 자나 누우나 임 그리워 일구월심(日久月深) 한(恨)일러니,
 이내 신세 이리 되어 매에 감겨 죽게 되니, 날 살리려 와계
 시오?”
 한참 이리 반기다가 임의 형상 자세 보니, 어찌 아니 한심하라.
 ┌ “여보 서방님, 내 몸 하나 죽는 것은 설운 마음 없소마는
 [E] 서방님 이 지경이 웬일이오?”
 “오냐 춘향아, 설위 마라. 인명이 재천인데 설만들 죽을쑈냐?”
 춘향이 저의 모친 불러,

“한양성 서방님을 칠 년의 큰 가물에 백성들이 비 기다린들
 나와 같이 자진(自盡)터가. 심은 나무 꺾어지고 공든 탑이 무
 너졌네. 가련하다, 이내 신세, 하릴없이 되었구나. 어머니, 나
 죽은 후에라도 원이나 없게 하여 주옵소서. (중략) 만수운환
 (漫垂雲鬢) 흐트러진 머리 이렇저렇 걷어 엮고 이리 비틀 저리
 비틀 들어가서 매 맞아 죽거들랑, 샅군인 척 달려들어 둘러
 엮고 우리 둘이 처음 만나 놀던 ㉡ 부용당(芙蓉堂)의 적막하고
 요적한 데 누워 놓고 서방님 손수 염습(殮襲)하되, 나의 혼백
 위로하여 입은 옷 벗기지 말고 양지 끝에 묻었다가, 서방님
 귀히 되어 청운에 오르거든 일지도 둘라 말고 육진장포(六鎭
 長布) 다시 염하여 조출한 상여 위에 덩그렇게 실은 후에
 북망산천 찾아갈 제, 앞 남산 뒤 남산 다 버리고 한양으로
 올려다가 ㉢ 선산(先山)발치에 묻어 주고, 비문에 새기기를,
 ‘수절원사(守節冤死)* 춘향지묘(春香之墓)’라 여덟자만 새겨
 주오. 망부석이 아니 될까. 서산에 지는 해는 내일 다시 오련
 마는 불쌍한 춘향이는 한번 가면 어느 때 다시 올까. 신원
 (伸冤)*이나 하여 주오. 애고 애고, 내 신세야.”

- 작자 미상, 「열녀춘향수절가」 -

* 수절원사: 절개를 지키다 원통하게 죽음.
 * 신원: 가슴에 맺힌 원한을 풀어 버림.

20.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꿈의 삽입을 통해 환상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② 서술자의 직접 개입으로 인물의 성격을 회화화하고 있다.
- ③ 순차적 사건 진행으로 갈등이 해소되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
- ④ 우의적 소재를 활용하여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 ⑤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주인공이 처한 상황과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21. <보기>를 참고하여 ㉠, ㉡에 대해 토의하였다. 토의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춘향전」은 춘향과 이몽룡의 신분을 초월한 사랑 이야기를 중심으로 여성의 정절 및 신분 상승의 문제를 다루면서 당대 사회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① ㉠은 춘향과 어사또의 사랑이 싹튼 곳이니까 두 사람의 추억이 어린 공간이라 할 수 있어.
- ② ㉡은 춘향의 혼백이 위로받는 장소로 본다면 춘향이 어사또의 사랑을 다시 확인받고자 하는 공간이라 할 수 있어.
- ③ ㉢은 수절원사라는 표현으로 보아 춘향의 정절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라 할 수 있어.
- ④ ㉣은 춘향의 한이 풀어지는 장소이자 신분 상승을 상징하는 공간이라 할 수 있어.
- ⑤ ㉤은 춘향에게 정절을 강요하는 당대 사회에 대한 춘향의 비판 의식이 투영된 공간이라 할 수 있어.

22. [A]~[E]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 ① [A]: '어사또'와 '춘향 모친'은 높임말로 서로에게 존대하고 있다.
- ② [B]: '춘향'은 자책하는 말로 '어사또'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 ③ [C]: '춘향'은 불평하는 말로 '모친'에 대한 원망(怨望)을 드러내고 있다.
- ④ [D]: '춘향 모친'은 비꼬는 말로 '어사또'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나타내고 있다.
- ⑤ [E]: '춘향'은 자문자답하는 말로 '어사또'에 대한 믿음을 드러내고 있다.

23. ㉠의 상황을 나타내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동병상련(同病相憐) ② 오매불망(寤寐不忘)
- ③ 이심전심(以心傳心) ④ 조변석개(朝變夕改)
- ⑤ 풍수지탄(風樹之嘆)

[27~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3.09

(가)

고향에 돌아온 날 밤에
내 백골이 따라와 한방에 누웠다.

어둔 방은 우주로 통하고
하늘에선가 소리처럼 바람이 불어온다.

어둠 속에 곱게 풍화작용하는
백골을 들여다보며
눈물짓는 것이 내가 우는 것이나
백골이 우는 것이나
아름다운 혼이 우는 것이나

지조 높은 개는
밤을 새워 어둠을 짓는다.

어둠을 짓는 개는
나를 쫓는 것일 게다.

가자 가자
쫓기우는 사람처럼 가자
백골 몰래
아름다운 또 다른 고향에 가자.

- 윤동주, 「또 다른 고향(故郷)」 -

(나)

전신이 검은 까마귀,
까마귀는 까치와 다르다.
마른 가지 끝에 높이 앉아
먼 설원을 굽어보는 저
형형한* 눈,
고독한 이마 그리고 날카로운 부리.
얼어붙은 지상에는
그 어디에도 낯알 한 톨 보이지 않지만
그대 차라리 눈발을 뒤지다 굽어 죽을지언정
겉코 까치처럼
인가의 안마당을 넘보진 않는다.
검을 테면
철저하게 검어라. 단 한 개의 깃털도
남기지 말고……
겨울 되자 온 세상 수북이 ㉠ 눈은 내려
저마다 하얗게 하얗게 분장하지만
나는
빈 가지 끝에 홀로 앉아
말없이
먼 지평선을 응시하는 한 마리
검은 까마귀가 되리라.

- 오세영, 「자화상·2」 -

* 형형한: 광채가 반짝반짝 빛나며 밝은.

(다)

- [A]
 - 굳어지기 전까지 저 딱딱한 것들은 물결이었다
 - 파도와 해일이 쉬고 있는 바닷속
 - 지느러미의 물결 사이에 끼어
 - 유유히 흘러 다니던 무수한 갈래의 길이었다
- [B]
 - 그물이 물결 속에서 멸치들을 떼어냈던 것이다
 - 햇빛의 곳곳한 직선들 틈에 끼이자마자
 - 부드러운 물결은 팔딱거리다 길을 잃었을 것이다
 - 바람과 햇볕이 달라붙어 물기를 빨아들이는 동안
 - 바다의 무늬는 빠다귀처럼 남아
- [C]
 - 멸치의 등과 지느러미 위에서 딱딱하게 굳어갔던 것이다.
 - 모래 더미처럼 길거리에 쌓이고
 - 건어물집의 푸석한 공기에 풀리다가
 - 기름에 튀겨지고 접시에 담겨졌던 것이다
- [D]
 - 지금 젓가락 끝에 깎두기처럼 딱딱하게 집히는 이 멸치에는
 - 두껍고 뻣뻣한 공기를 뚫고 흘러가는
 - 바다가 있다 그 바다에는 아직도
 - 지느러미가 있고 지느러미를 흔드는 물결이 있다
- [E]
 - 이 작은 물결이
 - 지금도 멸치의 몸통을 뒤틀고 있는 이 작은 무늬가
 - 파도를 만들고 해일을 부르고
 - 고깃배를 부수고 그물을 찢었던 것이다

- 김기택, 「멸치」 -

27.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영탄법을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표출하고 있다.
- ② 동일한 시행의 반복을 통해 운율감을 자아내고 있다.
- ③ 공간의 대비를 통해 지향하는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 ④ 과거에 대한 회상을 통해 그리움의 정서를 환기하고 있다.
- ⑤ 반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현실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28.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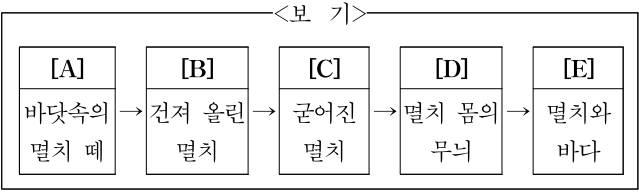
자아 성찰의 주제를 담은 현대시에서는 시적 자아가 분열된 모습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 (가)와 (나)의 화자는 자아 성찰을 통해 자아의 부정적인 모습과 단절하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려 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하지만 (가)의 화자는 시선을 자신의 내면으로 돌려 자아의 부정적, 긍정적 면모를 발견한 후 이들을 상징적 시어로 표현하고 있고, (나)의 화자는 시선을 바깥으로 돌려 자신의 삶의 태도를 외부의 상징적 존재에 투영하여 표현하고 있다.

- ① (가)의 ‘들여다보며’에서는 ‘백골’로 상징화된 부정적 자아를 향한 화자의 내면의 시선을 확인할 수 있군.
- ② (가)의 ‘지조 높은 개’는 자아의 부정적인 모습과 대비되어 화자를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하는군.
- ③ (나)에서 먼 설원을 굽어보는 ‘형형한 눈’은 바람직한 삶을 지향하는 화자의 태도를 떠올리게 하는군.
- ④ (나)에서 인가의 안마당을 넘보는 ‘까치’는 화자가 단절하고자 하는 삶의 태도를 나타내는군.
- ⑤ (가)의 ‘방’은 화자의 어두운 내면을, (나)의 ‘먼 지평선’은 화자가 처한 부정적 현실을 상징하는군.

29. (나)의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충만한 느낌을 통해 평온한 삶을 드러낸다.
- ② 본질을 가리는 속성을 통해 세상의 허위를 암시한다.
- ③ 색채 이미지를 통해 화자의 순결한 정신을 드러낸다.
- ④ 하강 이미지를 통해 화자가 연약한 존재임을 보여 준다.
- ⑤ 역동적 이미지를 통해 미래에 대한 화자의 소망을 나타낸다.

30. <보기>를 바탕으로 (다)의 시상 전개를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서 멸치 떼의 유유한 움직임은 ‘무수한 갈래의 길’과 연결되어 바닷속의 자유로운 분위기를 보여 주고 있다.
- ② [B]에서 ‘그물’, ‘햇빛의 곳곳한 직선들’은 멸치의 생명을 앗아 가려는 외부 세계의 폭력성을 환기하고 있다.
- ③ [C]는 멸치가 본래의 속성을 잃어 가는 과정을 순차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 ④ [D]는 바다 물결의 실제 움직임을 사실적으로 묘사하여 마른 멸치의 몸에 남은 무늬에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다.
- ⑤ [E]는 ‘파도’와 ‘해일’의 움직임을 통해 멸치가 본래 지녔던 생명력을 환기하며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35~3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13.09

(가)

강호 한 꿈을 꾸 지도 오래러니
 입과 배가 누가 되어 어즈버 잊었도다
 저 물을 바라보니 푸른 대도 하도 할사
 홀룡한 군자들이 낚대 하나 빌려스라
 갈대꽃 깊은 곳에 명월 청풍 벗이 되어
 임자 없는 **풍월 강산**에 절로절로 늙으리라
 무심한 백구(白鷗)야 오라 하며 말라 하라
 다들 이 없을 건 다만 이젠가 여기노라
 이제는 소 빌 이* 맹세코 다시 말자
 무상한 이 몸에 무슨 지취(志趣) 있으면만
 두세 이랑 밭 논을 다 목혀 던져두고
 있으면 죽이요 없으면 굶을망정
 남의 집 남의 것은 전혀 부러워 말겠노라
 내 빈천 싫게 여겨 손을 저어 물러 가며
 남의 부귀 부럽게 여겨 손을 친다고 나아오라
 인간 어느 일이 명(命) 밖에 생겼으리
 빈이무원(貧而無怨)*을 어렵다 하건마는
 내 생애 이러하되 설운 뜻은 없노매라

[A]

- 박인로, 「누항사(陋巷詞)」 -

* 소빌이: 소 빌리는 일.

* 빈이무원: 가난해도 원망하지 않음.

(나)

천심절벽(千尋絕壁) 첫난 아래 일대 장강(一帶長江) 흘러
간다.

백구(白鷗)로 벗을 삼아 어조 생애(漁釣生涯)* 늘거가니
두어라 **세간** 소식(世間消息) 나는 몰라 하노라.

[B]

<제2곡>

공산리(空山裏) 저 가는 달에 혼자 우는 저 두견(杜鵑)아.
낙화 **광풍**(落花狂風)에 어느 가지 의지하리.

백조(百鳥)*야 한(恨)하지 말아 내곳* 설워 하노라.

[C]

<제4곡>

- 권구, 「병산육곡(屏山六曲)」 -

* 어조 생애: 물고기 잡으며 살아가는 생활.

* 백조: 모든 새.

* 내곳: 내가.

(다)

세상일이란 모조리 그러한 것이리라. 아무리 내 재주가 서툴기
 로서니 개구리나 방게란 놈들도 염치가 있지 속어에 이르기를
 승어가 뛰니 망둥이도 뛰는 셈으로 나는 나대로 제법 강상
 (江上)의 어객인 양하고 나선 판에 그래도 그럴듯 미끈한 잉어
 까지야 못 물린다손 치더라도 고기도 체면은 알 법한지라 하다
 못해 붕어 새끼쯤이야 안 물리랴 하는 판에, 얼토당토않은 구역질
 나는 놈들이 제가 쟁취하고 가다듬은 내 마음을 더럽힐 줄 어찌
 알았으랴.

세상이 하도 뒤숭숭하니 고요히 서재나 지켜 한묵(翰墨)*의
 유희로 푹 박혀 있자는 것도 말처럼 쉽사리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거리로 나가 성격 파산자처럼 공연스레 왔다 갔다
 하기도 부질없고 보이는 것 들리는 것이 모조리 심사 틀리는
소식밖엔 없어 그래도 죄 없는 곳은 내 서재니라 하여 며칠만
 들어박혀 있으면 그만 속에서 율화가 터져 나온다.

(중략)

하도 답답하여 후시 틈을 내어 강상의 어별(魚鱗)로 벗이나
 삼을까 하여 틀에 어울리지 않는 낚싯대를 둘러메고 나가는 날
 이면 기껏해야 이따위 봉욕(逢辱)이나 당하고 돌아오기가 일쑤다.

예부터 지금까지 세상이란 언제나 이러한 것인가? 개구리
 까지도 망둥이까지도 나를 멸시하는 아니 그 더러운 멸시를
 받고도 꼼짝달싹할 수 없는 세상이란 원래 이러한 것인가.

아아!

잉어가 보고 싶다. 그 희멀건 눈을 번뜩거리며 깨긋한 신사의
 체구를 가진 잉어가, 연잎과 연잎 사이로 자유스럽게 유유히
 왕래하는 현명한 신사 **잉어**가 보고 싶다.

- 김용준, 「조어삼매(釣魚三昧)」 -

* 한묵: 문翰(文翰)과 필묵(筆墨)이라는 뜻으로, 글을 짓거나 쓰는
것을 이르는 말.

35.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풍자의 기법을 활용하여 대상을 조롱하고 있다.
- ② (나)는 정중한 어조로 절대자에 대한 귀의를 다짐하고 있다.
- ③ (다)는 의인화된 대상을 통해 세태를 비판하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선경후정의 구조를 통해 삶에 대한 회의를 드러
내고 있다.
- ⑤ (나)와 (다)는 감정을 절제한 표현으로 서정적 분위기를 조성
하고 있다.

36. (가)~(다)의 소재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의 '죽'은 화자의 궁핍한 생활을 나타내는 소재이다.
- ② (나)의 '백구'는 화자가 긍정적 가치를 부여하는 대상이다.
- ③ (다)의 '잉어'는 고상하고 순결한 존재를 의미한다.
- ④ (가)의 '풍월 강산'과 (나)의 '세간'은 풍류의 공간이다.
- ⑤ (나)의 '광풍'과 (다)의 '소식'은 화자를 번민하게 한다.

37. [A] 부분에 <보기>의 내용이 들어 있는 이본(異本)이 있다. <보기>가 추가됨으로써 나타나는 효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가난타 이제 죽으며 부유하다 백년 살라
 원헌(原憲)*이는 몇 날 살고 석송(石崇)*이는 몇 해 살았나

* 원헌: 춘추 시대에 청빈(淸貧)하게 산 학자.
 * 석송: 진(晉)나라 때의 큰 부자.


- ① 여러 인물을 등장시켜 대화 상황으로 전환하고 있다.
- ② 새로운 공간을 더하여 사건의 선후 관계를 짐작하게 한다.
- ③ 이질적인 이야기를 삽입하여 새로운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 ④ 구체적인 단서를 제공하여 인물 간의 심리적 거리를 드러내고 있다.
- ⑤ 역사 속 인물을 끌어와 화자의 삶에 대해 독자의 공감을 이끌어 내고 있다.

38. [B]와 [C]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B]의 초장은 수직과 수평 이미지를 통해 공간을 묘사하고 있다.
- ② [B]의 중장은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하여 자연과의 일체감을 강조하고 있다.
- ③ [C]의 초장은 시각과 청각 이미지를 통해 애상적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 ④ [C]의 중장은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대상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⑤ [B]와 [C]의 종장은 화자가 직접 등장하여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39. <보기>를 바탕으로 '어옹'과 (다)의 화자를 비교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이 그림은 바위에 앉아 낚시하고 있는 어옹(漁翁)을 그린 것이다. 어옹은 물고기를 잡겠다는 생각으로 낚시를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세상사를 넘어서서 홀로 자연 속의 한가로움을 즐기고 있다. 그래서 이 어옹은 세속의 명리(名利)를 떠나 자연 속에서 초연한 삶을 살아가는 선비를 떠올리게 한다.

「한암조어(寒巖釣魚)」

- ① (다)의 화자는 '어옹'과 달리 현실의 고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② (다)의 화자는 '어옹'과 달리 고기잡이를 통해 생계의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 ③ (다)의 화자와 '어옹'은 모두 잡으려는 대상에 대해 집착하고 있다.
- ④ (다)의 화자와 '어옹'은 모두 자신의 부족한 능력으로 인해 괴로워하고 있다.
- ⑤ (다)의 화자와 '어옹'은 모두 자연 속에서 함께 풍류를 즐길 벗을 원하고 있다.

[47~5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13.09

(앞의 줄거리) 아들 성기가 역마살 때문에 떠돌이가 될까 봐 걱정하던 옥화는 그를 정착시키기 위해 체 장수 영감의 딸 계연과 맺어주려 하지만, 계연이 자기 동생이라는 것을 알고는 그녀를 떠나보내기로 한다.

계연의 시뻘겍게 상기한 얼굴은, 옥화와 그의 아버지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도 잊은 듯이 성기의 얼굴만 일심으로 바라보고 있었으나, 버드나무에 몸을 기댄 성기의 두 눈에 다만 불꽃이 활활 타오를 뿐, 아무런 새로운 명령도 기적도 나타나지 않았다.

“오빠, 편히 사시오.”

하고, ㉠ 거의 울음이 다 된, 마지막 목소리를 남기고 돌아선 계연의 저만치 가고 있는 향라 적삼*을, 고운 햇빛과 늘어진 버들가지와 산울림처럼 울려오는 삐꾸기 울음 속에, 성기는 우두커니 지켜보고 있을 뿐이었다.

성기가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게 된 것은 이듬해 우수(雨水)도 경칩(驚蟄)도 다 지나, 청명(淸明) 무렵의 비가 질금거릴 무렵이었다. 주막 앞에 늘어진 버들가지는 다시 실같이 푸르러지고 살구, 복숭아, 진달래 등이 골목 사이로 산기슭으로 울긋불긋 피고 지고 하는 날이었다.

아들의 미음상을 차려 들고 들어온 옥화는 성기가 미음 그릇을 비우는 것을 보자 이렇게 물었다.

“아직도, 너, 강원도 쪽으로 가 보고 싶냐?”

“.....”

성기는 조용히 고개를 돌렸다.

“여기서 장가들어 나랑 같이 살겠냐?”

“.....”

성기는 역시 고개를 돌렸다.

그해 아직 봄이 오기 전, 보는 사람마다, 성기의 회춘을 거의 다 단념하곤 하였을 때 옥화는, 이왕 죽고 말 것이라면, 어미의 맘속이나 알고 가라고, 그래, 그 체 장수 영감은, 서른여섯 해 전 남사당을 꾸며 와 이 화개 장터에 하룻밤을 놓고 갔다는 자기의 아버지임에 틀림이 없었다는 것과, 계연은 그 왼쪽 콧바퀴 위의 사마귀로 보아 자기의 동생임이 분명하더라는 것을, 통정*하노라면서, 자기의 같은 왼쪽 콧바퀴 위의 검정 사마귀까지를 그에게 보여 주었다.

“나도 처음부터 영감이 ‘서른여섯 해 전’이라고 했을 때 가슴이 섬뜩하긴 했다. 그렇지만 설마 했지 그렇게 남의 간을 뒤집어 놀 줄이야 알았다. 하도 아슬해서 이튿날 악양*로가 명도*까지 불러 봤더니, 요것도 남의 속을 뻘히 들여다나 보는 듯이 재잘대는구나, 차라리 망신을 했지.”

옥화는 잠깐 말을 그쳤다. 성기는 두 눈에 불을 켜듯 한 형형한 광채를 띠고, 그 어머니의 얼굴을 쳐다보고 있었다.

“차라리 몰랐으면 또 모르지만 한번 알고 나서야 인륜이 있는터 어찌겠냐.”

그리고 ㉡ 부디 어미 야속타고나 생각지 말라고, 옥화는 이들의 뼈만 남은 손을 눈물로 씻었다.

옥화의 이 마지막 하직같이 하는 통정 이야기에 의외로도 성기는 도로 힘을 얻은 모양이었다. 그 불타는 듯한 형형한 두 눈으로 천장을 한참 바라보고 있던 성기는 무슨 새로운 결심이나 하듯 입술을 지그시 깨물고 있었다.

아버지를 찾아 강원도 쪽으로 가 볼 생각도 없다, 집에서 장가 들어 살림을 할 생각도 없다, 하는 아들에게 그러나, 옥화는 이제 전과 같이 고지식한 미련을 두는 것도 아니었다.

“그럼 어쩔라냐? 너 졸 대로 해라.”

“.....”

성기는 아무런 말도 없이 도로 자리에 드러누워 버렸다.

그리고 나서 한 달포나 넘어 지난 뒤였다.

성기가 좋아하는 여러 가지 산나물이 화갯골에서 연달아 자꾸 내려오는 이른 여름의 어느 장날 아침이었다. 두릅회에 막걸리 한 사발을 쭉 들이켜고 난 성기는 옥화더러,

“어머니, 나 옛판 하나만 맞춰 주.”

하였다.

“.....”

옥화는 갑자기 무엇으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이 성기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 지도 다시 한 보름이나 지나, ㉢ 삐꾸기는 또다시 산울림처럼 건드러지게 울고, 늘어진 버들가지엔 햇빛이 젖어 흐르는 아침이었다. 새벽녘에 잠깐 가는 비가 지나가고, 날은 다시 유달리 맑게 갠 화개 장터 삼거리 길 위에서, 성기는 그 어머니와 하직을 하고 있었다. 갈아입은 옥양목 고의적삼에, 명주수건까지 머리에 잘끈 동여매고 난 성기는, 새로 맞춘 새하얀 나무 옛판을 걸빵해서 느직하게 엉덩이 즈음에다 걸었다. 위목판에는 새하얀 가락엿이 반나마 들어 있었고, 아래 목판에는 팔다 남은 이야기책 몇 권과 간단한 방물이 좀 들어 있었다.

그의 발 앞에는, 물과 함께 갈려 길도 세 갈래로 나 있었으나, 화갯골 쪽엔 처음부터 등을 지고 있었고, 동남으로 난 길은 하동, 서남으로 난 길이 구례, 작년 이맘때도 지나 그녀가 울음 섞인 하직을 남기고 체 장수 영감과 함께 넘어간 산모퉁이 고갯길은 퍼붓는 햇빛 속에 지금도 환히 장터 위를 굽이돌아 구례 쪽을 향했으나, 성기는 한참 뒤, 몸을 돌렸다. 그리하여 그의 발은 구례 쪽을 등지고 하동 쪽을 향해 천천히 옮겨졌다.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옮겨 놓을수록 그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져, 멀리 버드나무 사이에서 그의 뒷모양을 바라보고 서 있을 어머니의 주막이 그의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져 갈 무렵해서는, 육자배기 가락으로 제법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가고 있는 것이었다.

- 김동리, 「역마」 -

* 향라 적삼: 명주, 모시, 무명실 따위로 된 한 겹의 윗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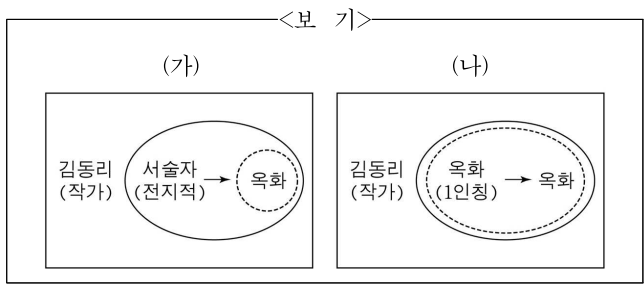
* 통정: 통사정. 딱하고 안타까운 형편을 털어놓고 말함.

* 명도: 마마를 앓다가 죽은 어린 계집아이의 귀신.

47.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과거 장면을 삽입하여 인물들의 관계를 드러내고 있다.
- ② 다른 장소에서 동시에 벌어진 사건들을 병치하고 있다.
- ③ 의식의 흐름을 통해 사건을 요약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 ④ 상상적 공간을 배경으로 삼아 허구성을 강화하고 있다.
- ⑤ 등장인물의 독백을 직접 인용하여 내면을 보여주고 있다.

48. ㉠은 <보기> (가)의 시점으로 서술되어 있다. ㉡을 (나)의 시점으로 바꾸어 썼을 때,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부디 나를 야속타고나 생각지 말라고, 나는 나의 뼈만 남은 손을 눈물로 씻었다.
- ② 부디 나를 야속타고나 생각지 말라고, 나는 아들의 뼈만 남은 손을 눈물로 씻었다.
- ③ 부디 나를 야속타고나 생각지 말라고, 옥화는 아들의 뼈만 남은 손으로 눈물로 씻었다.
- ④ “부디 나를 야속타고나 생각지 마라.”라고 말하며, 나는 나의 뼈만 남은 손을 눈물로 씻었다.
- ⑤ “부디 어미 야속타고나 생각지 마라.”라고 말하며, 엄마는 나의 뼈만 남은 손을 눈물로 씻었다.

49. ㉠과 ㉡에 대한 해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의 ‘항라 적삼’과 ‘고운 햇빛’은 모두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의 ‘목소리’는 ‘뼈꾸기 울음’과 대조를 이루며 비극성을 약화시키고 있다.
- ③ ㉡의 ‘햇빛’은 ‘유달리 맑게 갠’과 함께 분위기를 새롭게 전환하고 있다.
- ④ ㉡의 ‘뼈꾸기’는 ‘화개 장터’와 연결되어 시대적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 ⑤ ㉡의 ‘버들가지’는 ‘또다시’와 연결되어 갈등이 재현될 것을 예고하고 있다.

50.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김동리는 「역마」의 인물들을 통해, 운명을 수용하는 것이 운명에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와 조화되는 것이며, 이는 우리 민족의 전통적 삶의 방식이라고 여겼다.

㉡. 「역마」의 인물들이 보여 주는 생각과 행동은 적극적이지 않고 비합리적이어서, 주체적으로 자기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현대인들이 공감하기 힘들다는 비판이 있다.

- ① ㉠에 따르면, 성기와 계연의 이별 장면은 한국인의 전통적 삶의 방식을 보여 주는 장면이군.
- ② ㉠에 따르면, 옛장수가 되어 떠나는 성기의 행동은 세계와 조화를 이루는 행동이군.
- ③ ㉡에 따르면, 성기를 떠난 계연은 전통적 인물이면서도 삶의 방향을 스스로 결정하는 주체적인 인물이군.
- ④ ㉡에 따르면, 명도를 불러 보고 그가 한 말을 받아들이는 옥화는 비합리적인 인물이군.
- ⑤ ㉡에 따르면, 하동 쪽으로 발을 옮겨 놓는 성기는 소극적 삶의 자세를 보여 주는 인물이군.

[13~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13.06

(가)

바람도 없는 공중에 수직의 파문을 내이며 고요히 떨어지는
오동잎은 ㉠ 누구의 발자취입니까

지리한 장마 끝에 서풍에 몰려가는 ㉡ 무서운 검은 구름의
터진 틈으로 언뜻언뜻 보이는 푸른 하늘은 누구의 얼굴입니까
꽃도 없는 깊은 나무에 푸른 이끼를 거쳐서 옛 담 위의 고요한
하늘을 스치는 ㉢ 알 수 없는 향기는 누구의 입김입니까

근원은 알지도 못할 곳에서 나서 돌부리를 울리고 가늘게
흐르는 작은 시내는 구비구비 누구의 노래입니까

연꽃 같은 발꿈치로 가이없는 바다를 밟고 옥 같은 손으로
㉣ 끝없는 하늘을 만지면서 떨어지는 날을 곱게 단장하는 저녁
놀은 누구의 시입니까

타고 남은 재가 다시 기쁨이 됩니다 그칠 줄을 모르고 타는
나의 가슴은 누구의 밤을 지키는 ㉤ 약한 등불입니까
- 한용운, 「알 수 없어요」 -

(나)

아무 소리도 없이 말도 없이
등 뒤로 털썩
밧줄이 날아와 나는
뛰어가 밧줄을 잡아다 배를 맨다
이주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배는 멀리서부터 닿는다

사랑은,
호젓한 부뚜막에 우연히,
별 그럴 일도 없으면서 닛 놓고 앉았다가
배가 들어와
던져지는 밧줄을 받는 것
그래서 어찌할 수 없이
배를 매게 되는 것

잔잔한 바닷물 위에
구름과 빛과 시간과 함께
떠 있는 배

배를 매면 구름과 빛과 시간이 함께
매어진다는 것도 처음 알았다
사랑이란 그런 것을 처음 아는 것

[A]

빛 가운데 배는 울렁이며
온종일을 떠 있다

- 장석남, 「배를 매며」 -

(다)

동풍이 건듯 불어 적설을 헤쳐 내니 창밖에 심은 매화 두세
가지 피었어라. 가뜰 냉담한데 암향(暗香)은 무슨 일고. 황혼에

달이 좇아 베개 밑에 비치니 흐느끼는 듯 반기는 듯 임이신가
아니신가. 저 매화 꺾어 내어 임 계신데 보내고져. 임이 너를
보고 어떻게 여기실꼬.

꽃 지고 새 잎 나니 녹음이 깔렸는데 나위(羅幃) 적막하고
수막(繡幕)이 비어 있다. 부용(芙蓉)을 걷어 놓고 공작(孔雀)을
둘러 두니 가뜰 시름 많은데 날은 어찌 길딘고. 원앙금(鴛鴦錦)
배어 놓고 오색선 풀어 내어 금자에 겨누어서 임의 옷 지어 내니
수품(手品)은 물론이고 제도(制度)도 갖출시고 산호수 지게 위에
백옥함에 담아 두고 임에게 보내려고 임 계신 데 바라보니 산
인가 구름인가 험하기도 험하구나. 천리만리 길에 뉘라서 찾아
갈꼬. 가거든 열어 두고 나인가 반기실까.

하룻밤 서리 기운에 기러기 울어 엘 제 위루(危樓)에 혼자
올라 수정렴(水晶簾) 걷으니 동산에 달이 나고 북극에 별이 보니
임이신가 반기니 눈물이 절로 난다. 청광(淸光)을 쥐어내어
봉황루(鳳凰樓)에 부치고져. 누 위에 걸어 두고 팔황(八荒)에
다 비추어 심산공곡(深山窮谷) 한낫같이 만드소서.

건곤이 얼어붙어 백설이 한 빛인 때 사람은 물론이고 나는
세도 그쳐 있다. 소상남반(蕭湘南畔)도 추위가 이렇거늘 옥루고처
(玉樓高處)야 더욱 일러 무엇 하리. 양춘(陽春)을 부쳐내어 임
계신데 쓰이고져. 초가 처마 비친 해를 옥루에 올리고져. 홍상
(紅裳)을 여며 입고 푸른 소매 반만 걷어 해 저문 대나무에 생각도
많고 많다. 짧은 해 쉬이 지고 긴 밤을 곳곳이 앉아 청등 걸어
둔 곁에 공후를 놓아 두고 꿈에나 임을 보려 턱 만치고 기대니
앙금(鴛衾)*도 차도 찰샤 이 밤은 언제 썰꼬.

- 정철, 「사미인곡」 -

*앙금: 원앙을 수놓은 이불. 혹은 부부가 함께 덮는 이불.

13.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대화의 상대로 삼고 있다.
- ② 대화체와 독백체를 교차하여 극적 효과를 높이고 있다.
- ③ 색채어를 활용하여 시의 분위기를 다채롭게 조성하고 있다.
- ④ 소재에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여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 ⑤ 의성어와 의태어를 구사하여 화자의 상황을 구체화하고 있다.

14. (가)와 (나)의 시상 전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구조가 유사한 문장을 반복적으로 제시하여 시상에 통일성을 부여하고 있다.
- ② (나)는 화자의 시선이 자신의 내면에서 외부 세계로 이동하면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 ③ (가)는 제5행에서, (나)는 제3연에서 시상의 흐름이 전환되고 있다.
- ④ (가)와 (나) 모두 화자의 현재 상황을 자연 현상과 대비하며 시상을 이끌어 내고 있다.
- ⑤ (가)와 (나) 모두 수미상관의 방식으로 시상을 완결하여 구조적 안정감을 얻어 내고 있다.

15. <보기>를 참고하여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알 수 없어요」를 비롯한 한용운의 시는 '절대자'라는 궁극적 존재를 탐구하는 시이다. 동시에 그것은 역설에 의한 구도자로서의 자기 정립 또는 자기 극복의 시이기도 하다. 「알 수 없어요」에서는 이런 점이 물음의 방식을 통해 강화되어 나타난다.

- ① ㉠: '바람도 없는~오동잎'의 이미지와 결합되어, '누구'로 표현된 절대자의 존재 방식을 알려 주는군.
- ② ㉡: '푸른 하늘'과 대조되는 것으로, 화자와 절대자 사이의 만남을 가로막는 번뇌와도 같은 것이군.
- ③ ㉢: '꽃도 없는 깊은 나무'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절대자의 존재에 대한 화자의 회의적 태도를 드러내는군.
- ④ ㉣: '가이없는 바다를 밟고'와 짝을 이루어, 무한 공간에 걸쳐 있는 절대자의 면모를 드러내는군.
- ⑤ ㉤: '타고남은~됩니다'와 관련되면서, 구도자로서의 자기 정립에 대한 화자의 열망을 역설적으로 드러내는군.

16. [A]에 대한 감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사랑을 갈구하는 화자의 행동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어.
- ② 사랑의 덧없음을 인정하는 화자의 고백이 나타나고 있어.
- ③ 배를 매는 행위의 의미가 사랑임이 비로소 드러나고 있어.
- ④ 사랑의 운명적 면모가 자연의 섭리를 통해 제시되고 있어.
- ⑤ 사랑의 속성에 대한 화자의 심화된 인식이 나타나고 있어.

17. (나)의 '부뚝가'와 (다)의 '수막'을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부뚝가'는 이별과 만남이 반복되는 시련의 공간, '수막'은 이별 후에 정착한 도피의 공간이다.
- ② '부뚝가'는 익명의 타인들과 어울리는 공동체적 공간, '수막'은 타인들로부터 은폐된 개인적 공간이다.
- ③ '부뚝가'는 화자가 회귀하고자 하는 과거의 공간, '수막'은 화자가 벗어나고자 하는 현재의 공간이다.
- ④ '부뚝가'는 사랑하는 대상이 화자를 기다리는 공간, '수막'은 화자가 사랑하는 대상을 기다리는 공간이다.
- ⑤ '부뚝가'는 화자가 사랑에 대한 깨달음을 얻는 공간, '수막'은 사랑하는 사람의 부재를 확인하는 공간이다.

18. <보기>를 바탕으로 (다)를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남성 작가가 자신의 분신으로 여성 화자를 내세우는 방식은 우리 시가의 한 전통이다. 궁궐을 떠난 신하가 임금에 그리워 하면서 지은 「사미인곡」도 이 전통을 잇고 있다.

- ① '옷'을 지어 '백옥함'에 담아 임에게 보내려 하는 것은 임금에 대한 신하의 정성과 그리움을 드러내는 행위이다.
- ② 지상의 화자가 천상의 '달'과 '별'을 매개로 임을 떠올린 것은 군신 사이의 수직적 관계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청광'을 보내고자 염원하는 이유에서 시적 화자와 청자가 실제로는 신하와 임금의 관계임을 감지할 수 있다.
- ④ 추운 날씨에 '초가처마'에 비친 해는 임금의 자애로운 은혜가 신하가 머물고 있는 곳까지 미치고 있음을 암시한 것이다.
- ⑤ 긴긴 겨울밤을 배경으로 차가운 '앙금'을 통해 외로운 처지를 표현한 것은 군신 관계를 남녀관계로 치환한 결과이다.

[26~2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3.06

(가)

그맘쯤에 웬 난데없는 비렁뱅이 가객(歌客) 하나이 구부러진 등에 거문고 엇비슷이 메고 진창에 맨발을 축축 담그면서, 제가 아직 어찌 될 줄 모르고서 저자의 가운데길로 하염없이 내려왔던 것이었다. 거문고를 베었으니 노래라도 할 줄 알겠구나 싶었으며, 꼬락서니가 내 사촌이 틀림없었다. 나는 다리 아래 쪼그리고 앉아 이제 막 살얼음이 풀리기 시작한 또랑물 속으로 싸락눈이 떨어져 녹아 사라지는 모양을 내려다보는 중이었다. 나는 무슨 소리인가를 들었으며, 이상한 가락이 내 어깨 위에 미풍같이 나부끼며 얹히고, 다시 목덜미로 깊숙이 꽂히더니 정수리에서 발뽀꿈치로 뚫고 들어와 맨돌아 나가는 것이 아닌가.

나직하고 힘찬 목소리가 가락 위에 툇 걸쳐서는 이 씨늘하고 구죽죽한 저자를 따듯하게 덤히는 것만 같았다. 나만 일어섰는가? 아니다. 내가 뒤가 급해진 느낌으로 안달을 온몸에 싣고서 다리 위로 올라갔을 때에, 저자의 술집 창문마다 가게 빈지문마다 사람들의 머리가 하나 둘씩 끄집어내어지는 중이었다. 다리 위에서 비렁뱅이 가객은 거문고를 무릎에 올려놓고 앉아서 고개를 푹 숙여 머리가 없는 자처럼 땅속이다 소리를 심고 있었다. 술 먹던 사람들과 수다쟁이 떡장수 아낙네며 나들이 나온 처자들이 모두 한두 발짝씩 모여들어 다리 위에는 음률에 끌린 사람들로 가득 찼었다.

“사람을 못 견디게 하는 소리로우나. 저런 소리는 이 저자가 생겨난 이래로 처음 들었다.”

한 곡조가 끝나자마자 사람들은 제각기 허리춤을 끄르고 돈을 내던지는 것이었다. 돈이 떨어지는 소리가 잦아질 제 나는 새암과 선망으로 이를 악물었고 다음에는 저 신묘한 소리로 돈을 벌게 하는 거문고를 박살 내 버리고 싶었다.

“하나 더 해라.”

“이번에는 긴 것을 해 보아라.”

사람들이 제각기 아우성을 치는데, 가객은 고개를 가슴팍에 콧 처박고 잠잠히 앉아 있었다. 그는 부지깽이처럼 길고도 여인 손을 뻗쳐서 무릎 근처에 흩어진 돈을 긂어모아서는 제 자리 밑에다 쓸어 넣는 것이었다.

“노래를 한 가지밖에 모르느냐.”

“얼굴을 들고 해라, 안 보인다.”

“고개를 들어라.”

내던진 밀친을 뿔으려고 주변에 웅기중기 모여 앉은 사람들은 비렁뱅이 가객의 얼굴을 보려고 자꾸만 재촉했다. 고개를 처박고 있던 그가 작심했다는 듯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러고는 제 앞에 모인 사람들을 한 바퀴 휘이 둘러보았던 것이다.

나는 그의 얼굴을 본 순간 어쩐지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회가 동했을 때처럼 속이 뒤틀리고 구역질이 날 지경이었다. 가객은 이 세상에서는 어디서든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추한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일어났는데, 가객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자 그 더러운 얼굴은 더욱 흉하게 일그러져 가락의 신묘한 아름다움은 그 추한 얼굴에 띄워 사그라지고 말았다. 눈도 코도 입도, 제자리에 붙어 있건만, 어쩐지

얼굴이 자아내는 분위기가 사람들의 가슴속에 깊은 증오를 불러일으키고, 증오는 곧 심한 역증이 나게끔 했다.

[중략 줄거리] 가객 '수추'는 저자를 떠나 강을 건너간 뒤, 시냇가에서 음률을 완성했던 과거를 떠올린다.

(나)

그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다. 수추는 물을 마구 헤쳐 놓고는 다시 들여다보았지만, 음률을 완성한 자의 얼굴이 아니었다. 그는 그 얼굴을 미워하였다. 따라서 ㉠ 시냇물도 미워하였다. 미워할 수록 그의 얼굴은 추악하게 떠올랐다. 수추는 그럴수록 노래를 끝없이 부르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자가 되어 버렸던 것이다.

그러나 수추는 강 건너편 광야에서 몇 날 몇 밤을 짐승들이 일시에 몸서리치면서 달아났다가, 다시 밤이 되면 그의 노래를 들으려고 모여들고, 또 해가 떠오르면 그의 곁에서 달아나는 일을 헤일 수도 없이 겪었다. 그는 이러한 애증(愛憎)에 시달려서 자꾸만 여위어 갔다.

어느 날 그는 아무도 찾아와 주지 않는 흰한 대낮에 혼자서 노래를 불렀다. 그의 노래가 이제 막 거문고의 가락에 얹히려는 참에 줄이 탁 끊어졌다. 이 끊긴 줄이 울어 대는 무참한 소리가 그의 노래를 산산이 으스러뜨리고 말았으며, 그는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서 거문고를 계단 위에 내동댕이치고 말았다. 자르릉 하는 괴상한 소리를 내면서 악기가 부서지고 그의 노래마저 함께 부서져 버렸다. 그의 발밑에는 살해된 가락의 시체만이 즐비하게 널려 있을 뿐이었다. 그는 노래를 부를 수가 없었다.

수추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밤 가운데서 진실로 오랜만에 평화로운 잠을 잤다. 그는 노래로부터 놓여난 것이다. 수추는 파괴된 악기와 버려진 노래를 회상할 뿐이었다. 수추는 이 죽음과 같은 휴식 안에서 비로소 노래만을 사랑하고 모든 것을 미워했던 제 모습이 이제는 변화된 것을 알았다.

그가 물을 마시려고 ㉡ 시냇물에 구부렸을 적에 수추는 환희의 얼굴을 만났다. 그의 눈은 삶의 경이로움이 가득 차있었고, 그의 입은 웃고 있었고, 뺨에는 땀이 구슬처럼 매달려 있었다. 그는 모든 산 것들이 그러하듯 이 만물의 소멸에 대하여 겸손하였다.

- 황석영, 「가객」 -

26.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대적 배경을 드러내는 소재를 통해 시간의 역전을 보여 주고 있다.
- ② 동일한 사건을 여러 번 서술하여 그 사건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③ 서술자가 사건을 이야기 속에서 전달하다가 이야기 밖에서 전달하고 있다.
- ④ 인물의 표정 변화와 내면 변화를 반대로 서술하여 그 인물의 특성을 부각하고 있다.
- ⑤ 서술자가 관찰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객관적으로 전달함으로써 사실성을 높이고 있다.

27.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가)에서는 두 인물 간의 대립을 통해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 ② (나)에서 인물이 겪는 갈등은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해결되고 있다.
- ③ (가)와 (나)에 내재되어 있는 인물의 내적 갈등이 (나)에서 해소되고 있다.
- ④ (나)에 비해 (가)에서 인물의 성격 변화가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다.
- ⑤ (가)의 저자 사람들과 (나)의 집승들은 서로 다른 이유로 모여 들고 있다.

28. ㉠과 ㉡의 공통적 기능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수추의 자기 확인을 매개한다.
- ② 수추가 처한 고난을 상징한다.
- ③ 수추의 과거 회상을 유도한다.
- ④ 수추를 세상으로부터 격리한다.
- ⑤ 수추의 불가피한 운명을 암시한다.

29.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 속의 ‘예술가·작품·사회·수용자’의 관계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예술 작품 수용은 예술가와 작품, 예술가와 수용자, 작품과 사회, 작품과 수용자 사이의 관계와 작품 자체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통해 이루어진다.

- ① 다리 아래에서 ‘수추’의 첫 노래를 들은 ‘나’는 수용자로서 작품 자체에 자극받아 예술가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군.
- ② ‘수추’의 첫 노래를 듣고 저자 사람들이 돈을 내던지는 것을 본 ‘나’는 작품이 수용자에게 끼치는 영향력을 깨닫고 있군.
- ③ ‘수추’의 얼굴을 보고 난 뒤에 그의 두 번째 노래를 들은 저자 사람들은 작품을 예술가와 연계하여 수용하고 있군.
- ④ 강을 건너간 뒤에 노래를 부르는 ‘수추’는 자기 작품 속에 형상화된 사회에 대해 수용자가 보인 반응을 의식하고 있군.
- ⑤ 강을 건너간 뒤에 거문고를 부숴 버린 후, ‘수추’는 예술가인 자신의 용모와 자기 작품의 관계에 집착하지 않게 되었군.

[34~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13.06

이때 동래 부사 송정이 사신 온다는 공문을 보고 웃으며 왈,
 “조정에 사람이 무수하거늘 어찌 구태여 중을 보내리오. 이는 더욱 패망할 징조라.”
 하더니 하인이 보하되,
 “사명당 행차 온다 하오니 어찌 접대하리이까.”
 송정이 분부 왈,
 “상례로 대접하라. 제 비록 부처라 한들 어찌 곧이들으리오.”
 하고 심상히 여기거늘, 하인 분부를 듣고 나와 부사의 말을 이르고 왈,
 “지방관의 도리에 봉명 사신(奉命使臣)*을 가버이 여기거니와 반드시 화를 면치 못하리로다.”
 하더니 자연 삼일 만에 이르렀는지라. 대접하는 도리와 수응하는 일이 가장 소홀하거늘 사명당이 대로하여 객사에 좌기하고 무사에게 명하여 송정을 잡아 계하에 꿇게 하고 이르되,
 “네 벼슬이 비록 옥당이나 지방관이요, 내 비록 중이나 일국 대사마대장군이요 봉명 사신이어늘 네 한갓 벼슬만 믿고 국명을 심상히 여겨 방자함이 태심하니 내어 베어 국법을 엄히 하라.”
 하고 즉시 나라에 장문하여 선참후계(先斬後啓)*하고 인하여 길을 떠날 새 순풍을 만나 행선하니라.

[중략 부분 줄거리] 사명당이 일본에 도착하자 왜왕은 사명당의 신통력을 여러 가지로 시험한다.

채만홍이 주왈,
 “신의 소견은 철마를 만들어 불같이 달구고 사명당을 태우면 비록 부처라도 능히 살지 못하리이다.”
 왜왕이 그 말을 옳게 여겨 즉시 풀무를 놓고 철마를 지어 만든 후 백탄을 뿔같이 쌓고 철마를 그 위에 놓아 불같이 달군 후에 사명당을 청하여 가로되,
 “저 말을 능히 타면 부처 법력을 가히 알리라.”
 사명당이 심중에 망극하여 납관을 쓰고 조선 향산을 향하여 사배하더니 문득 서녘에서 오색구름이 일어나며 천지가 희미하거늘 사명당이 마지못하여 정히 철마를 타려 하더니 홀연 백력 소리 진동하며 천지 뒤늦는 듯하고 태풍이 진작하여 모래 날리고 돌이 달음질하고 비 바가지로 담아 붓듯이 와 사람이 지척을 분변치 못하는지라. 경각 사이에 성중에 물이 불어 넘쳐 바다가 되고 성 외의 백성들이 물에 빠져 죽는 자 수를 아지 못하되 사명당 있는 곳은 비 한 방울이 아니 젖는지라. 왜왕이 경황실색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천위를 안정하리오.”
 예부상서 한자경이 주왈,
 “처음에 신의 말씀을 들었사오면 어찌 오늘날 환이 있으리이까. 방금 사세를 생각하옵건대 조선에 항복하여 백성을 평안히 함만 같지 못하나이다.”
 ㉠ 왜왕이 자경의 말을 듣고 마지못하여 항서를 써 보내니 사명당이 높이 좌하고 삼해 용왕을 호령하더니 문득 보하되,
 “네 나라 행복받기는 내 손아귀에 있거니와 왜왕의 머리를

베어 상에 받쳐 들이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일본을 멸하여 산 것을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리라. 네 돌아가 왜왕에게 자세히 이르라.”
 사자 돌아가 전말을 고하니 왜왕이 이 말을 듣고 머리를 숙이고 능히 할 말을 못하거늘 관백이 주왈,
 “전하는 모름지기 옥체를 진중하소서.”
 왕이 정신을 차려 살펴보니 남은 백성이 살기를 도모하여 사면 팔방으로 헤어져 우는 소리, 유월 염천에 큰비 오고 방초 중의 왕머구리 소리 같은지라. 왕이 이 광경을 보니 만신이 떨려 능히 진정치 못하거늘 관백이 다시 가지고 들어가 사명당께 드리니 사명당이 항서를 보고 대책 왈,
 “네 왕이 항복할진대 일찍이 항서를 드릴 것이어늘 어찌 감히 나를 속이려 하느냐.”
 하고 용왕을 불러 이르되,
 “그대는 얼굴을 드러내어 일본 사람을 보게 하라.”
 용왕이 공중에서 이 말을 듣고 사람의 머리를 베어 들고 소리를 벽력같이 지르고 운무 중에 몸을 드러내니 사명당이 관백에게 왈,
 “네 빨리 돌아가 왜왕에게 일러 용의 거동을 보게 하라.”
 관백이 돌아가 그대로 고하니 왜왕이 창황 중 눈을 들어 하늘을 치밀어 보니 중천에 삼룡이 구름을 피우고 사람의 머리를 베어 들었으니 형세 산악 같고 고기비늘이 어지러이 번쩍여 일광을 바수고 소리 벽력같이 천지진동하는지라. 이진걸이 주왈,
 “본국 보화를 다 바치고 항표(降表)를 올려 애걸하소서.”
 왕이 즉시 이진걸을 명하여 항표를 올린대 사명당이 대로 왈,
 “네 나라 임금의 머리를 베어 들이라 한대 마침내 거역하니 일본을 무찔러 혈천을 만들리라.”
 하고 인하여 육환장을 들어 공중을 향하여 축수하더니 문득 뇌성벽력이 진동하여 산악이 무너지는 듯 천지 컴컴한지라. 왜왕이 이때를 당하여 삼혼(三魂)이 흩어지며 칠백(七魄)이 달아나니라.
 - 작자 미상, 「입진록」 -

* 봉명 사신: 임금의 명령을 받들고 외국으로 가던 사신.
 * 선참후계: 군율을 어긴 자를 먼저 처형한 뒤에 임금에게 아뢰던 일.

34.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갈등이 해결되고 있다.
- ② 인물의 외양을 묘사하여 성격을 제시하고 있다.
- ③ 과장된 비유를 활용하여 상황의 급박함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전기적(傳奇的) 요소를 활용하여 비현실적 장면을 부각하고 있다.
- ⑤ 공간이 국내에서 국외로 바뀌면서 서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35. '사명당'과 '송정' 사이의 갈등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① 제삼자를 통한 의사소통 과정에서 생긴 오해에서 비롯된다.
 - ② 외교적 문제의 핵심 사안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 ③ 사대부의 사회적 소임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에서 비롯된다.
 - ④ 사명당의 종교적 신념과 송정의 윤리적 신념의 충돌에서 비롯된다.
 - ⑤ 사명당은 명분과 직위를, 송정은 신분을 중시하는 데에서 비롯된다.

36.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임진록」은 임진왜란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소재로 한 역사 군담 소설로서, 역사에 허구를 더해 전란으로 인해 상처받은 민족적 자존감을 보상하면서 전란의 피해와 책임에 대한 민중들의 생각과 정서를 반영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신이한 능력을 지닌 주인공을 통해 조선인의 우월성을 드러내거나 때로는 역사적 근거가 부족한 가공의 사건을 형상화하기도 했다.

- ① 사명당의 복수를 통해, 국토가 유린되는 과정에서 받은 민중들의 고통을 보상하고 있군.
- ② 초인적 능력을 지닌 사명당의 모습을 부각하여, 왜에 대한 조선인의 우월성을 드러내고 있군.
- ③ 부사에 대한 하인의 비판적인 발언을 통해, 전란 후 지배층에 대한 민중들의 인식을 엿볼 수 있군.
- ④ 왜왕이 항복하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 주어, 전란으로 훼손된 민족적 자존감의 회복을 꾀하고 있군.
- ⑤ 양반 대신 승려 사명당을 주인공으로 설정하여, 전란 후 종교를 중심으로 상하층이 단결하는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군.

37. ㉠의 상황을 나타내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울며 겨자 먹기
 - ② 옆구리 찔러 절 받기
 - ③ 울려는 아이 뺨 치기
 - ④ 미련한 사람 곰 잡기
 - ⑤ 뱀이 용 되어 큰소리하기

[38~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13.06

[**앞부분의 줄거리**] 광산에서 갱도가 무너지는 매물 사고가 발생한다. 마침 현장에 있던 흥 기자는 특종을 예감하며 보도에 나선다.

9. 현장

흥 기자: 여기는 동진 광업소 사고 현장입니다. 지난 10월 22일 갱구 매물로 11명의 광부의 목숨을 빼앗은 광산 사고는 올해 두 번째 큰 사고로 지금 유일한 생존자인 김창호 씨가 무려 열하루째 지하 1천5백 미터 아래서 구출의 손길이 닿기를 애타게 기다리며 갇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부분이 사고가 난 동5 갱구입니다. 먼저 김창호 구조 위원회 회장이시며 동진 광업소 소장이신 권오창 선생님께 구조 현황을 알아보겠습니다.

갱구 입구 필름, 인터셉트된 구경꾼의 얼굴들. 손을 흔들며 웃어대는 필름들.

소장: (마이크 앞에 선다) 예헴,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 구조대는 지주공 2명, 조수 2명, 감독 1명, 신호수 1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6시간씩 교대하여 불철주야 김창호 씨 구출에 온갖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흥 기자: 앞으로 구출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소장: 애초 예상과 달리 갱목 철근 등의 장애물이 많은 데다 갱내에 물이 쏟아져 작업에 지장이 많습니다. 앞으로 2, 3일 더 걸릴 전망입니다. 그러나 우리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흥 기자: 감사합니다.

비서관, 수행원과 경찰의 호위를 받으며 등장한다. 비서관, 소장의 안내로 사무실에 들어가기 전 카메라에 포즈를 취한다. 기자들의 접근을 막는 수행원, 경찰.

흥 기자: (기자에게) 어떻게 보십니까? 각계각층에서 이 사건에 지대한 관심을 쏟고 있는데요.

기자 1: 대단합니다. 전 국민의 성원이 이렇게 뜨겁고 클 줄은 몰랐습니다.

기자 2: 현지 주민들이 기자 숙소로 옥수수와 감자들을 삶아 갖고 와서 김창호 씨를 꼭 구해 달라고 호소할 땐 눈물이 핑 돌더군요.

흥 기자: 이런 국민의 여망에 보답하는 뜻으로도 꼭 살아 나와야겠습니다. (감격해서) 생명은 존엄한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인간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에 젖어 왔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인간에 대해 다시 한 번 그 존엄성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건 현장에서 흥성기 기자 말씀드렸습니다. (쪽지 보며) 이 방송은 여성의 미를 창조하는 몽셀 느그르 화장품 제공입니다.

10. 사무소와 갱내

전화벨 울리며 갱내를 비춘다. 지친 듯 쓰러져 있던 김창호, 간신히 몸을 움직여 전화를 받는다. 사무실엔 비서관, 수행원, 의사, 경찰 서장이 전화 거는 것을 지켜본다.

김창호: 네?

소장: 나 소장입니다. 지금 회장님께서 김창호 씨의 건강을 염려하여 비서관님을 보내셨습니다. 받아 보시오.

비서관: (전화 바꾼다) 김창호 씨, 나 신난다 비서관입니다. 회장님께서 김창호 씨가 어서 구출되어 나오길 바라고 계십니다. 용기를 잃지 마시고 끝까지 견디십시오. 꼭 구출될 겁니다.

김창호: ㉠ (기운 없이) 감사합니다.

비서관: 뭐 부족한 거 없습니까?

(중략)

14. 기자 회견 석상

김창호, 주치의의 호위하에 단상에 앉는다. 기자들, 카메라맨, 카메라를 들이대자 김창호, 얼굴을 가린다.

카메라맨: 김창호 씨, 얼굴 좀.

주치의: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시력이 약화돼서 카메라 플래시에 견디질 못합니다. (주머니에서 선글라스를 꺼내 김창호에게 씌운다) 참으세요, 곧 끝납니다. ㉡ 전 국민에게 김창호 씨를 알려야 합니다.

플래시 터진다. ㉢ 김창호, 움찔거리지만 참고 견딘다.

흥 기자: 김창호 씨, 우리 기자단을 대표해서 김창호 씨의 생환을 환영하는 바입니다. 제가 사고 첫날부터 현장에서 김창호 씨가 구출되기까지 꼭 지켜보았던 한일 매스컴센터의 흥성기 기자입니다. 먼저 이렇게 살아 나오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창호: ㉣ (당황)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난 집에 가고 싶습니다!

주치의, 귀에 대고 뭐라고 한다.

김창호: ㉤ 저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

기자 1: 16일 동안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 견디셨는데 어디서 그런 인내력이 나셨는지요?

김창호: 예?

주치의, 쉽게 설명해 준다.

- 윤대성, 「출세기」 -

* 인터셉트: 화면에 다음 화면을 끼워 넣음.

38. 밑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고 당사자 대신 다른 인물들을 통해 사고의 의미가 부여되고 있다.
- ② 사건에 대한 인물들의 상반된 견해를 드러내어 극적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 ③ 영상을 통해 구경꾼들의 태도를 드러내어 사건의 심각성과 대비하고 있다.
- ④ 서로 다른 두 공간을 동시에 보여 주며 상황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⑤ 상황에 맞지 않는 대사와 작위적인 이름으로 극적 긴장감을 이완시키고 있다.

39. 윗글의 등장인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① 흥 기자는 사건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전달하고 있군.
- ② 소장은 취재 활동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보여 주고 있군.
- ③ 비서관은 현장에 등장하면서 언론을 의식하고 있군.
- ④ 기자들은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부담스러워하고 있군.
- ⑤ 주치의는 기자 회견에 대해 소극적 태도를 취하고 있군.

40. <보기>를 바탕으로 ㉠~㉣을 이해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이 글의 제목 「출세기」의 ‘출세’는, 갇혀 있던 사람이 세상에 나오게 된다는 의미의 ㉠출세이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오르거나 유명하게 된다는 의미의 ㉡출세이기도 하다.

- ① ㉠에는 ㉡뿐만 아니라 ㉢를 확산하는 주인공의 기대가 표현되어 있다.
- ② ㉡에는 주인공이 ㉠를 계기로 ㉢로 나아가는 상황에 대한 주변 인물의 인식이 투영되어 있다.
- ③ ㉢에는 ㉠에 대한 주인공의 갈등이 드러나 있다.
- ④ ㉣에는 ㉢를 추구하는 주인공의 의지가 담겨 있다.
- ⑤ ㉣에는 ㉠를 계기로 ㉢에 이르고자 하는 주인공의 집념이 드러나 있다.

[31~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14.예비 시행B

놀부가 생난리를 한바탕 치르고 정신을 차려 또 동산으로 치달아 보니 박 두 통이 그저 남았거늘 한 통을 또 따 가지고 내려와 쟈보를 달래는 말이,

“이에 쟈보야, 내 일을 불쌍히 여겨라. 재물을 얻으려 하다가 많은 가산을 탕진하고 거지가 되었구나. 설마 박통마다 그러 하랴. 이번은 무슨 수가 있을 듯하니 아무 말도 말고 켜 보자.” 쟈보 응낙하고 박을 켜다.

“㉠ 슬근슬근 툽질이야. 당겨 주소 툽질이야. 이 박은 켜거든 금은보화가 함부로 나와 흥부같이 살아 보리라.”

놀부 계집이 섰다가 하는 말이,

“다른 보화는 많이 나오되 흥부 아주머니같이 첩은 행여나 오지 마옵소서.”

놀부 꾸짖는 말이,

“가산 탕진하고 상거지가 된 인물이 썸이 어디서 나오느고? 소사스러이* 굴지 말고 한편 구석에 가 있으라.”

하고 밀거니 당기거니 슬근슬근 타며 귀를 기울이고 들으니 이번은 아무 소리도 없는지라 놀부가 대희(大喜)하여 쟈보더러 왈,

“이번은 다 켜도 아무 소리가 없으니 아마 수가 있는 박이라.”

하고 급히 타며 보니 박 속에 아무것도 없고 다만 평평한 박뿐 이어늘 놀부 대희할 즈음에 쟈보가 생각하니,

‘여러 통마다 탈이 났으니 이 박인들 어찌 무사하랴.’

하고 소피하러 가는 채하고 도망질하니 놀부가 쟈보를 기다리다 못하여 박통을 도끼로 쪼개 놓고 보니 아무것도 없고 허연 박속이 먹음직하게는 제 아내를 불러 왈,

“이 박은 먹음직하니 우선 배고픈데 국이나 끓여 집안 식구들과 먹고 기운 나거든 남은 박은 우리 둘이 타 봄세. ㉡ 옛사람이 이르기를 고진감래(苦盡甘來)라 하였으니 그만치 꺾기었으니 필경은 좋은 일이 있지 하늘 뜻이 무심할 리가 있나. 술한 재물을 얻을진대 초년고생은 면하기 어려운 것이니 어서 국이나 끓이소.”

놀부 계집이 기뻐하여 박속을 승덩승덩 썰고 양념을 갖추어 큰 솥에 물을 넉넉히 붓고 통장작을 지피어 쇠옹두리* 고듯이 반나절을 무르녹게 끓인 후 온 집안 식구대로 한 사발씩 달게 먹은 후 놀부는 ㉢ 배가 붕긋하여 게트림*을 하며 계집더러 하는 말이,

“그 국맛이 매우 좋다 당동.”

놀부 계집이 대답하되,

“글쎄요. 그 국이 매우 유명하오 당동.”

놀부 자식들이 어미를 부르면서,

“이 국맛이 좋소 당동.”

놀부 하는 말이,

“㉣ 그 국을 먹더니 말끝마다 당동당동 하니 가장 고이하도다 당동.”

놀부 처가 대답하되,

“글쎄요. 나도 그 국을 먹더니 당동 소리가 절로 나오 당동.”

놀부 자식이,

“여보 어머니, 우리들도 그 국을 먹더니 당동 소리가 절로

나오 당동.”

“오나, 글쎄 그러하다 당동.”

놀부가 꾸짖어 왈,

“너는 요망시리 구지 마라 당동. 무슨 국을 먹었다고 당동 하리 당동.”

놀부 계집은,

“그 말이 옳소 당동.”

놀부 딸도 당동, 아들도 당동, 머슴아이도 당동, 놀부 아주미도 당동, 온 집안이 모두 당동당동, 무슨 ㉤ 가야금 뜯고 풍류하는 것처럼 그저 당동당동, 서로 나무라며 당동당동, 이렇듯이 당동당동 하니 담 너머 왕 생원이 들으즉 놀부 집에서 별별 야릇한 풍류 소리가 나거늘 왕 생원이 곧 놀부를 불러 묻는 말이,

“여봐라 놀부야. 너희가 무엇을 먹었길래 그런 소리를 하느냐?”

놀부가 여쭙기를,

“소인의 집에서 박을 심었더니 박이 열리어 국을 끓여 먹었더니 그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당동.”

생원이 믿지 아니하여 왈,

“네 말이 터무니없도다. 박국을 먹었기로 무슨 그러할 리가 있으랴. 그 국 한 사발만 떠 오너라.”

놀부 국 한 그릇을 떠다주니 생원이 받아 맛을 보매 국맛이 가장 아름다운지라. 그 국을 달게 먹고,

“여봐라 놀부야. 그 국맛이 유명하구나 당동. 아차 나도 당동, 어찌서 당동 하느냐? 당동.”

하며 또 당동당동 소리가 절로 나거늘 생원이 국 먹은 것을 뒤우쳐 놀부를 꾸짖고 당동당동 하며 제 집으로 돌아간 후 놀부 역시 신세를 생각하니,

‘부자가 될 양으로 박을 심었다가 많은 재산을 다 없애고 전후에 없는 고생과 매 맞은 일이며 끝에 와서는 온 집안사람이 당동 소리로 병신이 되니 이런 분하고 원통한 일이 어디 있으리오.’

- 작자 미상, 「흥부전」 -

* 소사스럽다: 보기에 행동이 줌스럽고 간사한 데가 있다.

* 쇠옹두리: 소의 정강이뼈.

* 게트림: 거만스럽게 거드름을 피우며 하는 트림.

31. 윗글의 인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놀부’는 타인을 대할 때와 달리 가족에게 권위적인 자세를 취한다.
- ② ‘놀부 처’는 가족의 의견에 동조적이지만 불편한 속내를 비치기도 한다.
- ③ ‘놀부 자식들’은 어머니의 의견에 동조하여 차별화된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
- ④ ‘쟁보’는 기회주의적 인물로서 주인을 배반할 만큼 탐욕스럽다.
- ⑤ ‘왕 생원’은 궁금함을 견디지 못하고 남의 일에 참견하다가 봉변을 당한다.

32. ㉠~㉣의 표현상 특징과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 리듬감 있는 표현으로 인물들의 기대감을 노출시켜 흥겨운 분위기를 조성한다.
- ② ㉡: 관용적인 표현으로 상황을 받아들이는 인물의 태도를 쉽게 이해하게 한다.
- ③ ㉢: 사실적인 인물 묘사로 친근감을 유도하여 인물에 대한 동정심을 자아낸다.
- ④ ㉣: 인물이 제어할 수 없는 표현이 반복되어 상황을 희화화한다.
- ⑤ ㉣: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비유로 반어적인 효과를 낳아 웃음을 유발한다.

33. 윗글을 <보기>와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17세기 초반에 창작된 「돈키호테」에서, 주인공 돈키호테는 중세의 기사도 이야기에 빠져 세상의 부정을 바로잡고 학대 당하는 사람을 돕겠다고 모험에 나선다. 이 작품을 통해 작가는 16세기 서구 사회에 유행한 기사도 이야기에서 사랑에 빠지고 모험에 나선던 기사를 패러디하고 있다. 여기서 돈키호테는 과대망상에 사로잡혀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만을 고집하는 인물로 그려진다.

- ① 돈키호테와 놀부는 각각 중세 기사와 양반 지배층의 전형적 인물이다.
- ② 돈키호테와 놀부는 환상에 빠져 이상적 세계의 재건을 모색하는 인물이다.
- ③ 돈키호테는 사회의 혁신을 추구하고, 놀부는 개인의 변혁을 추구하는 인물이다.
- ④ 돈키호테는 시대착오적 행태를 보여, 놀부는 세속적 욕망에 빠져 풍자의 대상이 된다.
- ⑤ 돈키호테는 세속적 가치를 내세워, 놀부는 정신적 가치를 거부하여 현실과 대립한다.

[34~3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4.예비 시행B

㉠ 우는 거시 벽구기가 프른 거시 버들숲가
 이어라 이어라
 어촌(漁村) 두어 집이 닛* 속의 나락들락
 지국총(至芻兪) 지국총(至芻兪) 어스와(於思臥)
 말가흔 기픈 소희 온간 고기 뛰노느다
 <춘(春) 4>

년넝희 밤 싸 두고 반찬으란 장만 마라
 달 드러라 달 드러라
 청약림(靑筊笠)은 씨 잇노라 녹사의(綠蓑衣) 가져오나
 지국총(至芻兪) 지국총(至芻兪) 어스와(於思臥)
 ㉡ 무심(無心)흔 빅구(白鷗)는 내 좃는가 제 좃는가
 <하(夏) 2>

㉢ 슈국(水國)의 ㄱ을히 드니 고기마다 슬져 인다
 달 드러라 달 드러라
 만경딩파(萬頃澄波)*의 슬크지 용여(容與)흐자*
 지국총(至芻兪) 지국총(至芻兪) 어스와(於思臥)
 인간(人間)을 도라보니 머도록 더욱 도타
 <추(秋) 2>

㉣ 물ㄱ의 외로운 술 혼자 어이 석석흐고
 비 미여라비 미여라
 머흔* 구름 흥(恨)티 마라 세상(世上)을 ㄱ리온다
 지국총(至芻兪) 지국총(至芻兪) 어스와(於思臥)
 ㉤ 파랑성(波浪聲)*을 엮(厭)티* 마라 딘훤(塵喧)*을 막는또다
 <동(冬) 8>
 - 윤선도, 「어부사시사(漁父四時詞)」 -

* 닛: 내의. '내'는 바닷가에 자주 나타나는 안개와 같은 현상.
 * 만경딩파: 넓게 펼쳐진 맑은 물결.
 * 용여흐자: 느긋한 마음으로 여유 있게 놀자.
 * 머흔: 험하고 사나운.
 * 파랑성: 물결 소리.
 * 엮티: 싫어하지.
 * 딤훤: 속세의 시끄러움.

35.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① ㉠: '벽구기'의 울음소리는 봄의 애상감을, '버들숲'의 푸르름은 깊어가는 봄을 보여 준다.
- ② ㉡: 세속에 '무심'한 '빅구'를 동경하여 화자와 대상 사이에 거리감이 있음을 보여 준다.
- ③ ㉢: 살 오른 '고기'는 자연의 풍성함과 화자의 여유롭고 넉넉한 정신세계를 보여 준다.
- ④ ㉣: 외로운 '술'을 씩씩하다고 반어적으로 표현하여 화자의 내면적 갈등을 보여 준다.
- ⑤ ㉤: '파랑성'과 '딘훤'을 대비하여 속세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보여 준다.

34.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여음을 사용하여 흥취를 북돋우고 있다.
- ② 과거와 미래를 대비하여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 ③ 음보를 규칙적으로 사용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④ 시적 배경이 되는 공간을 이상적 세계로 형상화하고 있다.
- ⑤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대상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있다.

MEMO

MEMO

[36~3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14.예비 시행B

차가 남대문에 닿았다. 아직 다 어둡지는 아니하였으나 사방에 반작반작 전기등이 켜졌다. 전차 소리, 인력거 소리, 이 모든 소리를 합한 ‘도회의 소리’와 넓은 플랫폼에 울리는 나막신 소리가 합하여 지금까지 고요한 자연 속에 있던 사람의 귀에는 썩 소묘하게 들린다. ‘도회의 소리!’ 그러나 그것이 문명의 소리다. 그 소리가 요란할수록에 그 나라가 잘된다. 수레바퀴 소리, 증기와 전기 기관 소리, 쇠마차 소리……. 이러한 모든 소리가 합하여서 비로소 찬란한 문명을 낳는다. 실로 현대의 문명은 소리의 문명이라. 서울도 아직 소리가 부족하다. 종로나 남대문동에 서서 서로 말소리가 아니 들리리만큼 문명의 소리가 요란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불쌍하다. 서울 장안에 사는 삼십여 만 흰옷 입은 사람들은 이 소리의 뜻을 모른다. 또 이 소리와는 상관이 없다. 그네는 이 소리를 들을 줄을 알고, 듣고 기뻐할 줄을 알고, 마침내 제 손으로 이 소리를 내도록 되어야 한다. 저 플랫폼에 분주히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나 이 분주한 뜻을 아는지, 왜 저 전등이 이렇게 많이 켜지며, 왜 저 전보 기계와 전화 기계가 저렇게 불분주야하고 매각거리며, 왜 저 흉물스러운 기차와 전차가 주야로 달아나는지……. 이 뜻을 아는 사람이 몇몇이나 되는가.

Ⓐ 이렇게 복잡복잡하는 속에 영채는 행여나 누가 자기의 얼굴을 볼까 하여 가만히 고개를 숙이고 앉았다. 병욱은 혹 자기의 동창 친구나 만날까 하고 플랫폼에 내려서 이리저리 거닐다가 아무도 만나지 못하고 도로 차실로 들어오려 할 적에 누가 어깨를 치며,
 “병욱 언니 아니야요?” 한다.
 병욱은 놀라 돌아서며 자기보다 이태를 떨어졌던 동창생을 보았다.
 “에그, 얼마 만이여!”
 “그런데 어디로 가요?”
 “지금 동경으로 가는 길인데…….”
 “왜, 어느 새에…… 여보, 그런데 좀 만나 보고나 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무정하오.” 하고 썩 돌아서더니, “아무려나 내립시오. 우리 집으로 갑시다.” 한다.
 “아니오. 동행이 있어서…… 그런데 누구 작별 나왔소?”
 “응, 아니, 언니 모르세요?”
 “무엇을?”
 “에그, 저런! 저 선형이 알지요 선형이가 오늘 미국 떠난다오”
 “선형이가 미국?” 하고 놀란다. 그 여학생은 저편 이등실 앞에 사람들이 모여선 것을 가리키며,
 “저기갔는데…… 이번에 혼인해 가지고 양주가 미국 공부하러 간다오. 잘들 한다. ㉠ 다 미국을 가느니 일본을 가느니 하는데 나 혼자 이렇게 썩는구먼!”
 병욱은 여학생을 따라 선형이가 탔다는 차 앞에까지 갔으나 너무 사람이 많아서 곁에 갈 수가 없다. ㉡ 선형은 하얀 양복에 맨머리로 창 밑에 서서 전승 나온 사람들의 인사를 대답하고, 그 곁 창에는 어떤 양복 입은 젊은 신사가 그 역시 연해 고개를

숙여 가며 무슨 인사를 한다. 전승인은 대개 두 께로 갈려서 한편에는 여자만 모이고, 한편에는 남자만 모여 섰다. 그 남자들은 모두 다 서울 장안의 문명하였다는 계급이다. 병욱은 한참이나 그것을 보고 섰다가 종로에서 선형을 찾아볼 양으로 그 차실 바로 뒤에 달린 자기의 차실에 올라왔다. 영채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앉았다. 아까 탔던 사람은 거의 다 내리고 새로운 승객이 거의 만원이라 하리만큼 많이 올랐다. 어떤 사람은 옷을 벗어 걸고, 어떤 사람은 창에 붙어서 작별을 하며, 또 어떤 사람은 벌써 신문을 들고 앉았다. 그러나 흰옷 입은 사람은 병욱과 영채 둘뿐이다. 병욱은 자리에 앉아서 방 안을 한번 둘러 보고 영채더러,
 “왜 그렇게 고개를 숙이고 앉었니?”
 “㉢ 어째 남대문이라는 소리에 마음이 이상하게 혼란하여 집니다그러. 어서 차가 떠났으면 좋겠다.” 할 때에 벌써 종 혼드는 소리가 나고, “사요나라, 고기젠요우.” 하는 소리가 소낙비 같이 들리더니 차가 움직이기를 시작한다. ㉣ 어디서, “만세, 이형식 군 만세!” 하는 소리가 들린다. 두 사람은 깜짝 놀라 귀를 기울인다. 또 한 번, “이형식 군 만세!” 하는 소리가 들린다. 지금 만세를 부르던 사람들이 두 사람의 창밖으로 얼른 한다. 그것은 모시 두루마기에 파나마 쓴 께였다. ㉤ 병욱은 아까 선형의 곁에 있던 사람이 형식인 것과, 형식이 선형의 지아빈 줄도 짐작하였다. 그러나 아무 말도 아니하였다.
 영채는 형식이란 소리를 듣고 문득 가슴이 덜렁함을 깨달았다. 지금까지 아무쪼록 형식을 잊어버리려 하였으나 방금 같은 기차에 형식이 탄 것을 생각하매 알 수 없는 눈물이 자연히 떨어진다.
 - 이광수, 「무정」 -

36.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보수적인 관점에서 동시대의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비판하고 있다.
- ② 비유법과 열거법 등 다양한 표현법을 통해 주제 의식을 표출하고 있다.
- ③ 소리와 관련된 다양한 소재를 활용하여 변모된 시대상을 보여주고 있다.
- ④ 서술자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작가 자신의 주장을 직접 제시하고 있다.
- ⑤ 일상적 구어체에 가까운 산문적인 서술을 통해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다.

37.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① ㉠: '여학생'은 상황 판단에 대한 무지로 자신이 희생양이 되었음을 한탄하고 있다.
- ② ㉡: '선형'은 현실 도피를 꿈꾸는 자유로운 정신의 소유자로 묘사되고 있다.
- ③ ㉢: '영체'는 구시대적인 권위나 특권에 대해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④ ㉣: '형식'은 개화된 젊은이들이 선망하는 인물로 형상화되고 있다.
- ⑤ ㉣: '병욱'은 타인의 일에는 관여하기를 싫어하는 냉정한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

38. <보기>를 참고할 때, 밑줄에 나타나 있는 '기차'의 서사적 기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일제 강점기에 기차는 우리 민족에게 과거와 미래를 가르는 경계선으로 다가온다. 또한 기차는 공포와 동경의 대상이 된다. 민중들이 기차를 탄다는 것은 생활 터전으로서의 고향 상실이라는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행위였다. 반면 문명개화에 앞선 특권 계층들은 기차를 통해 당시 사람들이 동경하던 외국 유학을 하거나 서구 문물을 수용할 수 있었다. 김동인도 지적하였듯이 이광수의 소설에서는 '기차에서의 우연한 만남'이 빈번하게 나타나며, 「무정」에서도 기차는 작품 구성의 주요한 장치로 활용되고 있다.

- ① 인물들의 사회적 계층과 위상을 보여 주는 수단
- ② 인물들에게 고향 상실감을 환기시켜 주는 매개체
- ③ 인물들의 만남을 통해 내적 갈등을 유발하는 장소
- ④ 인물들이 지향하는 서구적인 근대 문명개화의 상징물
- ⑤ 인물들이 과거에서 벗어나서 새 출발을 하게 해 주는 장치

39. ㉠에 나타난 인물의 심리를 설명하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좌불안석(坐不安席) ② 간담상조(肝膽相照)
- ③ 전전반측(輾轉反側) ④ 침소봉대(針小棒大)
- ⑤ 절치부심(切齒腐心)

[40~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14.예비 시행B

(가)

지금은 ㉠ 남의 땅—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A]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은 곳으로

가르마 같은 눈길을 따라 꿈속을 가듯 걸어만 간다.

[B]

입술을 다문 하늘아 돌아

내 맘에는 나 혼자 온 것 같지를 앓구나

네가 끝었느냐 누가 부르더냐 답답워라 말을 해 다오.

바람은 내 귀에 속삭이며

한 자옥도 썼지 마라 옷자락을 흔들고

종다리는 울타리 너머 아씨같이 구름 뒤에서 반갑다 웃네.

고맙게 잘 자란 ㉢ 보리밭아

간밤 자정이 넘어 내리던 고운 비로

너는 삼단 같은 머리를 감았구나 내 머리조차 가뿐하다.

혼자라도 가쁘게나 가자

마른 눈을 안고 도는 착한 도랑이

젖먹이 달래는 노래를 하고 제 혼자 어깨춤만 추고 가네.

[C]

나비 제비야 꺾치지 마라

맨드라미 들마꽃에도 인사를 해야지

이주까리기름을 바른 이가 지심매던 그 들이라 다 보고 싶다.

내 손에 ㉣ 호미를 쥐어 다오

살찐 짓가슴 같은 부드러운 이 흙을

발목이 시도록 밟아도 보고 좋은 땀조차 흘리고 싶다.

강가에 나온 아이와 같이

짬도 모르고 끝도 없이 달는 내 혼아

무엇을 찾느냐 어디로 가느냐 우스웁다 답을 하려무나.

[D]

나는 온몸에 풋내를 띠고

㉤ 푸른 웃음 푸른 설움이 어우러진 사이로

다리를 절며 하루를 걷는다 아마도 봄 신령이 지렸나 보다.

그러나 지금은—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E]

- 이상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

(나)

새벽 시내버스는

차창에 웬 찬란한 치장을 하고 달린다

업동 흑한일수록

선연히 피는 성에꽃

어제 이 버스를 탔던

처녀 총각 아이 어른

미용사 외판원 파출부 실업자의

입김과 숨결이

간밤에 은밀히 만나 피워낸

번뜩이는 기막힌 아름다움

나는 무슨 전람회 에 온 듯

자리를 옮겨 다니며 보고

다시 꽃이파리 하나, 섬세하고도

차가운 아름다움에 취한다

어느 누구의 막막한 한숨이던가

어떤 더운 가슴이 토해낸 정열의 숨결이던가

일없이 정성스레 입김으로 손가락으로

성에꽃 한 잎 지우고

이마를 대고 본다

덜컹거리는 창에 어리는 푸석한 얼굴

오랫동안 함께 길을 걸었으나

지금은 면회마저 금지된 친구여.

- 최두석, 「성에꽃」 -

40. (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역설적 관점에서 사물을 통찰하여 초월적 진리를 이끌어 낸다.
- ② 계절적 배경을 통하여 분위기와 주제 의식의 연관성을 높인다.
- ③ 여정에 따른 공간 변화를 바탕으로 화자의 정서를 다양하게 드러낸다.
- ④ 명사나 명사형으로 된 시어를 일부 행들의 끝에 배치하여 운율감을 자아낸다.
- ⑤ 직유적 표현을 여러 번 사용하여 대상의 모양이나 속성을 선명하게 제시한다.

41. <보기>를 참고하여, (가)의 [A]~[E]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1920년대 중반에 일부 시인들은 민중의 참담한 상황, 그리고 노동에 기반한 민중의 생명력에 주목하면서 민중의 생활을 노래하였다. 이런 점은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에도 잘 반영되어 있다.

- ① [A]의 ㉠은 당시 민중의 참담한 상황을 나타낸 표현이군.
- ② [C]의 ㉡에는 민중의 생명력이, ㉢에는 노동을 중시하는 화자의 태도가 함의되어 있군.
- ③ [B]와 [D]의 비교에서 드러나는 태도의 변화로 보아, [C]에는 민중의 실상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도 내재되어 있군.
- ④ [B]의 ㉣에는 화자의 이상이, [D]의 ㉤에는 화자의 현실 인식이 투영되어 있군.
- ⑤ [A]와 [E]의 연관으로 보아, [B]~[D]에서의 화자의 행위는 민중의 처지를 바꿔 보려는 적극적 의지의 소산이군.

42. '성애꽃'에 대한 화자의 심미적 태도를 중심으로 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성애꽃'은 새벽 차창에 피어나 있어. 화자는 시간과 공간이 지닌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해.
- ② '성애꽃'은 시내버스를 탔던 사람들이 함께 피워 낸 것이야. 화자는 서민들의 공동체적 어울림에서 아름다움의 바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
- ③ '성애꽃'은 은밀히 피어나는 것이야. 화자는 현실 상황에서는 아름다움이 은밀한 방식으로 탄생해야 한다고 생각해.
- ④ '성애꽃'에는 누군가의 막막한 한숨이 담겨있어. 화자는 사람들의 고통이 현실에서는 극복될 수 없는 것이기에 아름답다고 생각해.
- ⑤ '성애꽃'의 한 잎을 지우고 화자는 친구를 떠올려. 화자는 회상을 통해 성애꽃의 아름다움을 완성할 수 있다고 생각해.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14.예비 시행B

[앞부분의 줄거리] 30대 중반의 정원은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 사진사이다. 이제는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던 어느 날, 정원은 단속 사진을 인화하러 온 주차 단속원 다림을 만나면서 그녀에게 서서히 끌리게 된다.

S#56. 사진관 촬영실

사진기의 까만 프레임 내부에 다시 네모난 공간을 만들고 그 안에 거꾸로 상이 맺혀 있는 다림의 모습이 보인다. ㉠ 화면 밖에서 정원의 소리가 들린다.

정원 얼굴을 조금 왼쪽으로, 조금만 더, 턱 좀 내리고 …….

그때마다 다림은 조금씩 움직인다.

정원 살짝 웃으면 더 예쁘겠는데.

다림, 애써 웃으려 하지만 잘 안 되고 어색하다. 그래도 잠시 동안 화면을 보고 웃는데 정원 놓치지 않고 셔터를 누른다.

S#57. 상가 거리 (밤)

화장품 가게 안의 다림. 화장품을 고르고 있다. 이것저것을 신중하게 고르다 주인에게 값을 묻고는 선택을 망설인다. 끝내는 아무것도 사지를 못하고 화장품 가게를 나온다. 길가에 늘어선 옷가게들의 쇼윈도를 보면서 걷는 다림. 신사복을 파는 가게 앞에서 발길을 멈춘다. ㉡ 남자 옷을 바라다보는 다림. 그녀는 누군가를 생각하고 있다.

S#78. 사진관 안 (저녁)

다림 문을 열고 들어오면 텅 빈 사진관. 소파에 앉은 다림. ㉢ 곧 일어서서 테이블을 정리하고 바닥을 쓸기 시작한다. 정원이 비닐 봉투를 들고 들어온다. 다림을 보고 놀라는 정원. 다림이는 평소의 옷차림과는 다른 모습이다.

정원 화장했네?

다림 왜, 보기 싫어요?

정원 아니.

다림 …….

잠시 둘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흐른다.

(중략)

다림 내가 얘기 안 했었나? ○○월드에서 일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정원 …….

다림 도널드 인형 쓰고 애들하고 놀아주는 애예요.

정원 그거 굉장히 더울 텐데 …….

다림 ○○월드 가면 개가 공짜로 표 얻어다 준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

정원 근데?

다림 그냥 그렇다구요. 언제 한번 가진 해야 되는데 시간이 나아 말이죠.

정원과 다림 잠시 말이 없다.

S#79. 놀이 공원 - 롤러코스터 (낮)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정원과 다림. 정원과 다림의 아우성치는 모습.

㉣ 정원의 시점으로 달리는 롤러코스터에서 보이는 풍경. 심하게 흔들리며 빠르게 지나가는 풍경이 고속 촬영으로 흔들림과 속도가 서서히 줄어들며 화면도 어두워진다.

S#80. 벤치 (낮)

정원과 다림은 하드를 먹으며 말없이 앉아 있다. ㉤ 사이를 두고 앉은 둘의 모습은 어색해 보인다.

S#81. 학교 운동장 (낮)

멀리 텅 빈 운동장을 가로질러 뛰어가는 정원과 다림의 모습이 보인다. 운동장을 달리고 있는 다림과 정원. 정원은 얼마를 못 가서 자리에 멈춰 서 가쁜 숨을 고르고 있다. 정원을 뒤에 두고 달리는 다림. 혼자서 운동장을 달리는 다림. 운동장 나무 그늘에 앉아 있는 정원. 다림, 정원 앞으로 숨을 헐떡이며 다가온다.

- 오승욱 · 허진호 · 신동환 각본, 「8월의 크리스마스」 -

43.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사진이라는 매개물이 두 인물의 관계 형성의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 ② 연속된 장면들을 인과적 관계로 배열하여 갈등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 ③ 사진관, 상가 등 일상적 공간을 활용하여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④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진을 배치하여 그에 따른 인물의 내면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 ⑤ 행위나 표정 등에 집중하게 하기 위하여 대사에 비해 지시문의 비중을 높이고 있다.

44.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화면 속 '다림'의 모습과 화면 밖 '정원'의 목소리의 병치를 통해 인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제시된다.
- ② ㉡: '다림'의 행동 묘사를 통해 인물 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고 있음이 암시된다.
- ③ ㉢: '다림'의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 '정원'을 향한 친밀감이 형성되고 있음이 나타난다.
- ④ ㉣: '정원'의 시선에 포착된 풍경을 통해 인물의 혼란스러운 심리가 드러난다.
- ⑤ ㉣: '정원'과 '다림'의 물리적 거리를 통해 서로에 대한 감정 표현을 주저하는 인물의 태도가 드러난다.

45. S#81을 윗글에 제시된 대로 영화화한다고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학교 운동장 장면과 인물의 과거 회상 장면이 겹쳐지도록 공간을 설정한다.
- ② 활기찬 '다림'과 병약해 보이는 '정원'이 대비될 수 있도록 화면을 구성한다.
- ③ 조연들이 운동장을 함께 뛰는 가운데 주인공들의 모습이 부각될 수 있도록 한다.
- ④ '다림' 역을 맡은 배우는 흐트러짐 없이 여유 있는 모습으로 달리기를 마치도록 한다.
- ⑤ 화면 속 날씨는 '흐린 날'로 설정하여 두 인물의 우울한 상황이 드러나도록 한다.

[31~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14.예비 시행A

하루는 유 한림이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석 낭중이란 사람이 편지를 보내 남쪽 지방이 고향인 동청이란 자를 천거했다. 동청이란 사람은 일찍 부모를 여의고 세상에 떠돌며 무뢰배와 어울려 주색잡기를 일삼았다. 그나마 있던 재산을 탕진하고 생계가 막연하여 객지로 나와 대갓집에 빌붙어 살았다. 잘생긴 얼굴에 말주변과 글재주가 있으니 이름난 선비들이 처음에는 이 사람을 받아들여 잘 대해 주었다. 그러나 그 자제들을 유혹하여 나쁜 짓을 같이 하는 바람에 결국 쫓겨나게 되었다. 그러다가 석 낭중의 집까지 오게 되었고, 낭중도 동청의 정체를 알고는 괴로워하던 중이었다. 낭중이 마침 외직으로 부임하는 차에 동청의 허물을 감추고 유 한림에게 소개한 것이다. 유 한림은 마침 마땅한 사람을 구하던 차였다. 동청을 만나 보니 말하는 것이 흐르는 물과 같고 품모도 반듯하여 흔쾌히 서사(書士)*의 직분을 맡겼다. 동청은 재주가 있고 눈치가 빨라 매사를 한림의 뜻대로 쟁기니 신임이 두터웠다. 이를 본 사씨가 한림에게 말했다. “침이 듣기로 동청은 정직하지 않아 여러 곳에서 배척을 받았을 하옵니다. 그러니 머무르게 하지 말고 빨리 내보내소서.” 유한림이 말했다. “동청을 머물게 하는 것은 단지 글을 구함이지 벼를 삼으려는 것이 아니오. 무슨 상관이 있겠소?” 사씨가 말했다. ㉠ “비록 벼는 아니지만 좋지 않은 사람과 같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집안에 두어 법도가 잘못될까 걱정하는 것이옵니다.” 한림이 말했다. “부인의 말씀이 옳지만 남을 비방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소. 혹 동청도 그런 사람들 때문에 억울하게 비방을 받았을 수 있으니 두고 보면 자연스럽게 알리라. 부인은 걱정 말고 집안 하인들이나 잘 다스려 법도가 어지럽지 않게 하오.” 한편 교씨는 사씨가 동청을 배척하는 것을 알고 남매와 함께 동청과 은밀히 만나면서 계책을 의논하였다. 자고로 여자가 나쁜 마음을 먹으면 못할 일이 없는 법이라. 십량은 교씨를 위해 남자를 유혹하는 방법을 알려 주었다. 이후로는 한림이 교씨에게 폭 빠져 종전의 모습을 잃었다. 사씨는 미심쩍은 구석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별 수 없어 그냥 두고 보았다. 교씨는 사씨를 시기하여 한림에게 여러 번 비방을 했지만 여의치 못하자 조바심이 들어 다시 십량을 불러 물었다. “나의 이러한 재주와 용모로 남의 침이 되어 장차 앞길이 어떻게 될지 기약할 수 없는 신세가 되었다. 그러니 나를 위하여 사씨를 없애면 은혜를 후하게 갚으리라.” 십량이 한참 만에 말했다. “이 일이 참으로 난처하니 다른 묘책이 없는지라. 장주 공자가 병들기를 기다려 여차여차 하옵소서. 다급하니 서둘러야 합니다.” 교씨가 이 말을 듣고 매우 기뻐하면서 십량이 만들어 준 방자*에 쓰이는 요망한 물건들을 사방에 두루 묻고 남매를 불러 음모의 절차를 자세히 일러 주었다. 은밀하게 일을 진행하니 집안에서는

세 사람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다. 몇 달이 지나 가을이 되었다. 장주가 감기에 걸려 때때로 토하며 놀라는 증세를 보였다. 십량이 말한 계책을 실행할 때가 온 것이다. 장주가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한림이 백자당에 오자 교씨가 울며 말했다. “장주가 갑자기 병에 걸려 크게 앓으니 이것은 심상치 않은 일이옵니다. 증세를 보니 예사 병이 아니라 분명 집안 누군가가 장주를 저주하여 생긴 병인가 하나이다.” 한림이 교씨를 위로하고 나서 장주의 병세를 보니 증세가 가볍지 않았다. 매우 걱정하면서 약을 지어 먹었지만 별 차도가 없었다. 한림은 걱정하고 교씨는 곁에서 즐기치게 울었다. 한림은 교씨의 유혹에 빠져 총명이 점점 흐려져 사태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니 어찌 안타깝지 아니하라. - 김만중, 「사씨남정기」 - * 서사: 문서를 정리하거나 필사하는 일을 하는 사람. * 방자: 남이 못되거나 재앙을 받도록 귀신에게 빌어 저주하는 술법.

3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한 집안을 배경으로 하여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 ② 서술자가 개입하여 주관적 판단이나 감정을 노출하고 있다.
- ③ 시간의 역전적 구성을 통해 사건을 입체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 ④ 등장인물의 선악 대결과 삼각 관계를 통해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 ⑤ 앞으로 전개될 사건의 단서를 제시하여 갈등의 심화를 예고하고 있다.

32. [A]의 인물 제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다양한 체험의 나열을 통해 인물의 성격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 ② 인물의 외양 묘사를 통해 인물 간의 갈등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③ 비유적 진술을 통해 인물이 처한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 ④ 작중 인물의 시각을 통해 인물의 미래를 제시하고 있다.
- ⑤ 요약적 서술을 통해 인물의 삶의 내력을 드러내고 있다.

33.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문학 작품은 시대적 이념이나 당대 사회상과의 관련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 우리는 문학 작품을 통해 당대의 세태와 관습뿐 아니라 인간관계나 사회적 위계, 지배적 이념 등에 대한 가치관을 다각도로 확인할 수 있다.

- ① '석 낭중'이 '유 한림'에게 '동청'을 소개한 정황으로 보아 입신 양명을 추구하는 당시의 세태를 확인할 수 있군.
- ② '사씨'가 '동청'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것으로 보아 도덕성과 평판을 중시하는 당시 가치관을 짐작할 수 있군.
- ③ '유 한림'이 '사씨'를 대하는 태도로 보아 남녀의 역할과 위계에 대한 사회적 관념을 확인할 수 있군.
- ④ '교씨'가 신분 불안을 느낀다며 악행을 모의하는 것으로 보아 축첩 관행이라는 사회적 문제가 환기되는군.
- ⑤ '교씨'가 요망한 물건들을 음모에 이용하는 것으로 보아 주술에 대한 사회적 믿음이 존재했군.

34. ㉠에서 '사씨'가 '한림'에게 하려는 말과 그 뜻이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뱀새가 황새 따라가면 다리가 찢어진다'고 하니 그와 어울리지 마세요.
- ②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고 하니 악인을 가까이 하지 마세요.
- ③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고 하니 좋은 말로 거절 하세요.
- ④ '동냥치가 동냥치 꺼린다'고 하니 그를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 ⑤ '가재는 게 편'이라고 하니 '석 낭중'을 보아 그를 믿으세요.

[37~3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4.예비 시행A

집에서 나온 것이 아홉 시쯤, 그래서 김 반장도 가갯방에 놓은 흑백텔레비전으로 저녁 뉴스를 시청하느라고 내가 나온 것도 모르고 있었다. 장가들면 색시가 컬러텔레비전을 해줄 것이므로 굳이 바꿀 필요 없다고 고물 텔레비전으로 건디어 내는 김 반장의 등허리를 훑길 쳐다보고 나는 신발까지 벗고 의자 위에 뺨을 올라앉았다. 잠이 오면 탁자에 엎드려 한숨 즐고 있어 볼 생각으로 나는 가물가물 감기는 눈을 비비며 이리저리 몸을 뒤척이고 있었다. 거리는 그날따라 유난히 한산했고 지물포나 사진관도 일찌감치 아르킬 간판에 불을 꺼 둔 채였다. 우리정육점은 휴일인지 셔터까지 내려져 있었다. 그 옆의 서울미용실은 경자 언니가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아홉 시만되면 어김없이 불을 꺼 버린 채였다. 형제슈퍼에서 공단 쪽으로 난 길은 공터가 드문드문 박혀 있어서 원래 칠흑같이 어두웠다. 한 블록쯤 가야 세탁소가 내비치는 불빛이 짙끔 새어 나올 뿐이고 포장도 안 된 울퉁불퉁한 소방 도로 옆으로는 자갈이며 벽돌 파위가 쌓여 있었다.

[A] 바로 그때 공단 쪽으로 가는 어두운 길에서 뭔가 비명 소리도 같고 욱지기를 참는 안간힘 같기도 한 소리가 들려왔다. 아니, 그때 나는 비몽사몽 졸음 속에서 헤매고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소리를 들은 것은 아니었다. 이제 생각하면 그 순간에는 분명 잠에 흠뻑 취해 있었음이 분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를 들었던 것처럼 생각된 것은 꿈속에까지 쫓아와 악다구니를 벌이고 있는 엄마와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있었던 탓인지도 몰랐다. 하여간 허공을 가르는 비명 소리가 꿈속이었거나 생시였거나 간에 들려 왔던 것은 사실이었다. 움짤 놀라며 눈을 떴을 때는 이미 누군가가 어둠을 뚫고 뛰쳐나와 필사적으로 가게를 향해 덮쳐 오는 중이었다. 그리고 그 뒤엔 덮에서 뛰쳐나온 노루새끼를 붙잡으러 온 것이 확실한 젊은 사내 둘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쫓아오고 있었다.

(중략)

가게 앞에 서서, 씩씩 가쁜 숨을 몰아쉬며 이마의 땀을 훔치고 있는 사내는 두 개의 웃저고리를 한 손에 거머쥐고 있었다. 그도 당연히 러닝셔츠 바람이었지만 소매도 달린, 점잖은 흰색이었으므로 빨간 셔츠에 비해 훨씬 온순하게 보여졌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나는 가게 옆구리의 섯문을 통해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새 사내의 발길에 차여 버린 도망자가 바다에 엎어져 있었고 김 반장이 만약을 위해 사내 주변의 맥주 박스를 방 안으로 저 나르면서 뭐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김 형, 김 형 …… 도와주세요.”

쓰러진 남자의 입에서 이런 말이 가느다랗게 흘러나온 것은 그 순간이었다. 그와 동시에 빨간 셔츠의 사내가 다시 쓰러진 자의 등허리를 발로 짹 짹 찌어 눌렀다.

“이 새끼, 아는 사이요? 그러면 당신도 한번 맛 좀 볼 텐가?”

맥주병을 거꾸로 쳐들고 빨간 셔츠가 소리 질렀다. 김 반장의 얼굴이 대변에 하얗게 질려 버렸다.

“무, 무슨 소리요? 난 몰라요! 상관없는 일에 말려들고 싶지 않으니까 나가서들 하시오.”

그때 바다에 쓰러져 버둥거리던 남자가 간신히 몸을 비틀고 일어섰다. 코피로 범벅이 된 얼굴이 슬쩍 드러나 보였는데 세상에, 그는 몽달 씨임이 분명하였다. 그리고 보니 빛바랜 바지와 물들인 군용 점퍼 밑에 노상 끼입고 다니던 우중충한 남방셔츠가 틀림없는 몽달 씨였다. 아까는 위낙 눈 깜짝할 사이에 가게 안으로 뛰어들었기 때문에 얼굴을 볼 겨를이 없었다.

“이 짜식, 어디로 토끼는 거야! 너 같은 놈은 좀 맞아야 돼.”

흰 이를 드러내며 빨간 셔츠가 으르렁거렸다. 순간 몽달 씨가 텔레비전이 왕왕거리고 있는 가갯방을 향해 튀었다. 방은 따로이 바깥쪽으로 난 출입구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몽달 씨보다 더 빠른 동작으로 방문을 가로막아 버린 사람이 있었다. 바로 김 반장이었다.

“나가요! 어서들 나가요! 싸우든가 말든가 장사 망치지 말고 어서 나가요!”

빨간 셔츠가 몽달 씨의 목덜미를 확 낚아챘다. 개처럼 질질 끌려나오는 몽달 씨를 보더니 밖에 있던 흰 러닝셔츠가 찌익, 이빨 새로 침을 뱉어 냈다. 두 사람 다 술기운이 별경게 오른, 번들거리는 눈자위가 징그러웠다. 나는 재빨리 불빛이 닿지 않는 구석으로 몸을 피했다. 무섭고 또 무서웠다. 저렇게 질질 끌려가는 몽달 씨를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다. 도무지 가슴이 떨려 숨도 크게 쉬지 못할 지경이었는데도 김 반장은 어지러진 가게를 치우면서 밖을 내다보지도 않았다.

- 양귀자, 「원미동 시인」 -

37. [A]의 서술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전지적 시점을 유지하여 서술의 일관성을 확보한다.
- ② 자기 경험을 직접 서술하여 사건의 전모를 드러낸다.
- ③ 관찰자 시점으로 전환하여 상황을 실감나게 묘사한다.
- ④ 제삼자의 시점에서 사건에 대해 치우침 없는 판단을 제시한다.
- ⑤ 현재 ‘나’의 시각으로 과거의 사건을 서술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38. ‘김 반장’에 대한 평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세태에 휩쓸리지 않는 주체적 인물이다.
- ② 사태를 공정하게 판단하는 중립적 인물이다.
- ③ 공동체의 가치를 파괴하는 부도덕한 인물이다.
- ④ 상황을 모면하는 데 급급한 이해타산적 인물이다.
- ⑤ 모두의 입장을 공평하게 수용하는 개방적 인물이다.

39.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양귀자의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세상과의 불화 속에서 고통을 겪고 상처를 입은 채, 시대에 뒤쳐진 도시의 변두리로 내몰려 살아간다. 작가는 그들의 소외된 삶을 연민의 시선으로 포착하여 이야기함으로써 그들의 상흔을 어루만진다. 이러한 경향은 「원미동 시인」에서도 나타나는데, 현실과의 불화로 소외된 ‘몽달 씨’가 비정한 현실을 견디는 모습을 우의적으로 제시한 점이 특징적이다.

- ① ‘흑백텔레비전’ 등의 소재는 시대에 뒤쳐진 도시 변두리의 현실을 시사한다.
- ② 공단 주변의 황량한 공간 구도는 도시 변두리의 소외된 공간 구도를 형상한다.
- ③ 한산한 동네 풍광은 고통을 인내하며 여유를 잃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정경을 드러낸다.
- ④ 어둠 속에서 들려온 ‘비명 소리’는 소외된 사람들의 상흔에 상응하는 설정이다.
- ⑤ 인물이 폭행당하는 장면은 현실에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의 상황을 우의적으로 제시한 장면에 해당한다.

[40~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14.예비 시행A

어느 날 당신과 내가
 날과 씨로 만나서
 하나의 꿈을 엮을 수만 있다면
 우리들의 꿈이 만나
 ㉠ 한 쪽의 비단이 된다면
 나는 기다리리, ㉡ 추운 길목에서
 오랜 침묵과 외로움 끝에
 한 슬픔이 다른 슬픔에게 ㉢ 손을 주고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의
 ㉣ 그윽한 눈을 들여다볼 때
 어느 겨울인들
 우리들의 사랑을 축게 하리
 ㉤ 외롭고 긴 기다린 끝에
 어느 날 당신과 내가 만나
 하나의 꿈을 엮을 수만 있다면
 - 정희성,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에게」 -

40.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기다리리', '축게하리' 등의 서술어로 화자의 의지나 신념을 표현하고 있다.
- ② '~다면', '~끝에' 등의 반복적 사용으로 운율의 효과를 얻고 있다.
- ③ 반어적 어조를 활용하여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④ 불완전한 문장으로 작품을 마무리하여 여운을 주고 있다.
- ⑤ 수미상관의 방법으로 작품 전체에 안정감을 주고 있다.

41. <보기>의 맥락에서 윗글을 해석한다고 할 때, 시어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가) 서로 사랑하면서도 맺어지지 못하는 사연으로 고민하는 연인들이 많다.
 (나) 해방과 더불어 한반도는 분단 시대의 극복이라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 ① '꿈'의 경우 (가)와 (나) 모두에서 현실 도피의 의도를 발견하기 쉽다.
- ② '슬픔'의 경우 (나)보다는 (가)에서 민족적 한의 정서에 연결되기 쉽다.
- ③ '그리움'의 경우 (가)보다는 (나)에서 역사적 전망에 연결되기 쉽다.
- ④ '겨울'의 경우 (나)보다는 (가)에서 억압적 현실을 발견하기 쉽다.
- ⑤ '사랑'의 경우 (가)보다는 (나)에서 개인적 욕망에 연결되기 쉽다.

42. ㉠~㉤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은 화자의 긍정적 지향점을, ㉡은 화자가 처한 부정적 상황을 드러내고 있어.
- ② ㉢과 ㉣은 화자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시련의 내용을 보여 주고 있어.
- ③ ㉢과 ㉣은 '내가 '당신'과 정서적으로 연대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어.
- ④ ㉤에서 표현된 행위가 ㉤에 나타난 화자의 내적 갈등을 심화하고 있어.
- ⑤ ㉤에서 표현된 행위는 ㉠을 완성하기 위한 과정으로 볼 수 있어.

MEMO

MEMO

[13~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12.11

남을 주면 땅을 버린다고 여간 근실한 자국이 아니면 소작을 주지 않았고, 소를 두 필이나 매고 일꾼을 세 명씩이나 두고 적지 않은 전답을 전부 자농(自農)으로 버티어 왔다. 실속이 타작만 못하다는 등, 일꾼 셋이 저희 농사 해 가지고 나간다는 등 이해만을 따져 비평하는 소리가 많았으나 창섭의 아버지는 땅을 위해서는 자기의 이해만으로 타산하려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임자를 가진 땅들이라 곡식은 거둔 뒤 그루만 남은 논과 밭이 되, 그 바닥들의 고름, 그 언저리들의 바름, 흙의 부드러움이 마치 시루떡 모판이나 대하는 것처럼 누구의 눈에나 탐스럽게 흐뭇해 보였다.

이런 땅을 팔기에는, 아무리 수입은 몇 배 더 나은 병원을 늘리기 위해서나 아버지께 미안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잡히거나 해 가지고는 삼만 원 돈을 만들 수가 없었고, 서울서 큰 양관(洋館)을 손에 넣기란 돈만 있다고도 아무 때나 될 일이 아니었다.

(중략)

“웬일인데 어찌 혼자만 오느냐?”

어머니는 손자 아이들부터 보이지 않음을 물으신다.

“오늘루 가야겠어서 아무도 안 데리구 왔습니다.”

“오늘루 갈 걸 뭘 허 오누?”

“인전 어머니서건 서울로 모셔 갈 채벌 허러 왔다우.”

“서울루! 제발 아이들허구 한테서 살아 봤음 원이 없겠다.”

하고 어머니는 땅보다, 조상님들 산소나 사당보다 손자 아이들에게 더 마음이 끌리시는 눈치였다. 그러나 아버지만은 것처럼 단순히 들떠질 마음이 아니었다.

아버지는 아들의 뒤를 쫓아 이내 개울에서 들어왔다.

아들은, 의사인 아들은, 마치 환자에게 치료 방법을 이르듯이, 냉정히 차근차근히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외아들인 자기가 부모님을 진작 모시지 못한 것이 잘못된 것, 한집에 모이려면 자기가 병원을 버리기보다는 부모님이 농토를 버리시고 서울로 오시는 것이 순리인 것, 병원은 낱알이 환자가 늘어 가나 입원실이 부족되어 오는 환자의 삼분지 일밖에 수용 못 하는 것, 지금 시국에 큰 건물을 새로 짓기란 거의 불가능의 일인 것, 마침 교통 편한 자리에 삼층 양옥이 하나 난 것, 인쇄소였던 집인데 전체가 콘크리트여서 방화 방공으로 가치가 충분한 것, 삼층은 살림집과 직공들의 합숙실로 꾸미었던 것이라 입원실로 변장하기에 용이한 것, 각층에 수도·가스가 다 들어온 것, 그러면서도 가격은 저렴한 것, 염하기는 하나 삼만 이천 원이라, 지금의 병원을 팔면 일만 오천 원쯤은 받겠지만 그것은 새 집을 고치는 데와, 수술실의 기계를 완비하는 데 다 들어갈 것이니 집값 삼만 이천 원은 따로 있어야 할 것, 시골에 땅을 둔대야 일 년에 고작 삼천 원의 실리가 떨어질지 말지 하지만 땅을 팔아다 병원만 확장해 놓으면, 적어도 일 년에 만 원 하나씩은 이익을 뽑을 자신이 있는 것, 돈만 있으면 땅은 이담에라도, 서울 가까이이라도 얼마든지 좋은 것으로 살 수 있는 것…….

아버지는 아들의 의견을 끝까지 잠잠히 들었다. 그리고, “점심이나 먹어라. 나두 좀 생각해 봐야 대답허겠다.” 하고는 다시 개울로 나갔고, 떨어졌던 다릿돌을 올려놓고야 들어와 그도 점심을 받았다.

점심을 자기면서였다.

“원, 요즘 사람들은 힘두 줄었나 봐! 그 다리 침 놀 제 내가 어려서 봤는데 불과 여남은이서 거들던 돌인데 장정 수십 명이 한나잘을 씨름을 허다니!”

“나무다리가 있는데 건 왜 고치시나요?”

“너두 그런 소릴 허는구나. 나무가 돌만 허다든? 너 그 다리서 고기 잡던 생각두 안 나니? 서울루 공부 갈 때 그 다리 건너서 떠나던 생각 안 나니? 시쳇사람들은 모두 인정이란 게 사람한테만 쓰는 건 줄 알드라! 내 할아버님 산소에 상돌을 그 다리로 건네다 모셨구, 내가 천잘 끼구 그 다리루 글 읽으러 댕겼다. 네 어미두 그 다리루 가말 타구 내 집에 왔어. 나 죽건 그 다리루 건네다 물어라……. 난 서울 갈 생각 없다.”

“네?”

“친금이 쏟아진대두 난 땅은 못 팔겠다. 내 아버님께서 손수 이룩하시신 걸 내 눈으루 본 밭이구, 내 할아버님께서 손수 피땀을 흘려 모신 돈으루 장만하신 논들이야. 돈 있다고 어디가 느르지는 같은 게 있구, 독시장발 같은 걸 사? 느르지논독에 선 느르나문 할아버님께서 심으신 거구, 저 사랑 마당의 은행 나무는 아버님께서 심으신 거다. 그 나무 밑에를 설 때마다 난 그 어른들 동상(銅像)이나 닮없이 경건한 마음이 솟아 우러러보군 한다. 땅이란 걸 어떻게 일지 이해를 따져 사구 팔구 허느냐? 땅 없어 봐라, 집이 어딴으며 나라가 어딴는 줄 아니? 땅이란 천지만물의 근거야. 돈 있다구 땅이 뭇지두 모르구 욕심만 내 문서 쪽으로 사 모기만 하는 사람들, 돈놀이 처럼 변리만 생각허구 제 조상들과 그 땅과 어떤 인연이란 건 도시 생각지 않구 헌신짝 버리듯 하는 사람들, 다 내 눈엔 괴이한 사람들루밖엔 보지 않드라.”

“…….”

- 이태준, 「돌다리」 -

13. 윗글의 사건을 일어난 순서대로 정리할 때, 다음 중 가장 뒤에 올 것은?

- ① '창섭'이 '아버지'에게 계획을 말한다.
- ② '아버지'가 다시 개울로 나가다.
- ③ '장정'들이 다릿돌을 올려놓다.
- ④ '어머니'가 '창섭'을 맞이하다.
- ⑤ '아버지'가 점심상을 받다.

14.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소설 속의 모든 인물은 자아이면서 동시에 세계의 일부이다. 자아를 작품 속에서 행동하는 주체라고 하면, 그 주체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은 세계가 된다. 이러한 자아와 세계의 대립과 갈등으로 전개되는 것이 서사의 본질이다.

- ① '창섭'은 자아로서의 논리를 통해 세계와의 갈등을 해소하는 인물이다.
- ② '아버지'는 자아로서의 완고한 성격을 세계에 대해서도 유지하고 있는 인물이다.
- ③ 자아로서의 '창섭'은 세계의 부정적 속성들을 들추어 고발하고 있다.
- ④ 자아로서의 '아버지'는 '창섭'과 '어머니'의 대립과 갈등을 중재하고 있다.
- ⑤ 자아로서의 '어머니'는 자신 속에 존재하는 또 다른 자아와 갈등하고 있다.

15. [A]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부모님을 서울로 모시려는 계획을 통해,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는 '창섭'의 진심이 드러난다.
- ② 땅을 팔아야 하는 이유를 나열함으로써, '창섭'의 계획이 일목요연하게 전해지는 효과가 생긴다.
- ③ 시국 탓에 건물 신축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통해, '창섭'이 현실을 대하는 태도의 원인이 드러난다.
- ④ 건물의 일부에 직원 합숙실을 두려는 계획을 통해, 배려심 많은 '창섭'의 성격에 개연성이 더해진다.
- ⑤ 자신의 의사를 전하는 '창섭'의 말투를 실감 나게 표현하여, '아버지'를 대하는 '창섭'의 태도를 제시한다.

16.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해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장소에(場所愛)'는 인간의 안정된 삶을 보호하는 터전인 장소에 애착하는 심성이다. 근대 이전에는 '땅'과 '집'이 대표적인 장소애의 대상이었으나, 근대 이후 도시 사회에서는 이들이 도구적 대상이나 교환의 대상으로 변질되었다.

- ① '창섭'에게 집은 도구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장소애의 대상이 아니다.
- ② '아버지'에게 돌다리인 삶의 추억과 애환이 투영된 장소애의 대상이다.
- ③ 마당의 은행나무는 '아버지'에게 장소애의 대상인 집의 성격을 강화하고 있다.
- ④ 땅에 애착하는 '아버지'의 생각과 행동은 땅에 대한 장소애의 의미를 부각하고 있다.
- ⑤ 땅을 장소애의 대상으로 여기는 의식이 두루 퍼져 있는 당시 상황이 전제되어 있다.

[25~2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12.11

(가) 정(鄭)나라 어느 고을에 벼슬에 뜻이 없는 선비가 살았으니, 북곽 선생이라 했다. 나이 마흔에 손수 교정해 낸 책이 만 권이었고, 또 구경(九經)의 뜻을 풀어서 다시 지은 책이 일만 오천 권이었다. 천자가 그의 행의(行義)를 가상히 여기고, 제후가 그 이름을 사모했다.

그 고을 동쪽에는 동리자라는 미모의 과부가 있었다. 천자가 그 절개를 가상히 여기고 제후가 그 현숙함을 사모하여, 그 고을 몇 리의 땅을 봉하여 ‘동리과부지려(東里寡婦之間)’라 했다. 이처럼 동리자는 수절을 잘하는 과부였다. 그런데 그녀는 아들 다섯을 두었으니, 그들은 저마다 다른 성(姓)을 지냈다.

(나) 어느 날 ㉠밤, 다섯 아들이 서로 말했다.

“강 북쪽에선 닭이 울고 강 남쪽에선 별이 반짝이는데, ㉠밤 안에서 흘러나오는 말소리는 어찌 그리도 북곽 선생의 목소리를 닮았을까.”

다섯 형제가 차례로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동리자가 북곽 선생에게 청하고 있었다.

“오랫동안 선생님의 덕을 사모했사오는데 오늘 밤엔 선생님의 글 읽는 소리를 듣고자 하옵니다.”

북곽 선생이 옷깃을 바로잡고 점잖게 앉아서 시를 지어 읊었다.

“병풍에는 원앙새요 반딧불이는 반짝반짝,
가마솥과 세발솥은 무얼 분뻗 만들었나.
흥(興)이라.”

(다) 이에 다섯 아들이 서로 수군댔다.

“예법에 ‘과부의 문에는 함부로 들지 않는다.’고 했으니, 북곽 선생은 어진 이라 그런 일이 없을 거야.”

“내 들으니, 우리 고을의 성문이 헐었는데 여우 굴이 있다고 하더군요.”

“내 들으니, 여우란 놈은 천 년을 묵으면 둔갑하여 사람 시늬를 할 수 있다 하니, 저건 틀림없이 여우란 놈이 북곽 선생으로 둔갑한 것일 게다.”

그러고서 함께 의논했다.

“내 들으니, 여우의 갓을 얻으면 큰 부자가 될 수 있고, 여우의 신발을 얻으면 대낮에 그림자를 감출 수 있으며, 여우의 꼬리를 얻으면 애교를 잘 부려서 누구라도 그를 좋아한다더라. 우리 저 여우를 잡아 죽여서 나눠 갖는 게 어떨까?”

(라) 이에 다섯 아들이 같이 어미의 방을 둘러싸고 쳐들어가니 북곽 선생이 크게 놀라서 도망쳤다.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볼까 겁이 나 한 다리를 목덜미에 얹고 귀신처럼 춤추고 킬킬거리며 문을 나가서 내닫다가 그만 들판의 구덩이 속에 빠져 버렸다. 그 ㉡구덩이에는 똥이 가득 차 있었다.

(마) 간신히 기어올라 머리를 내밀고 바라보니 한 범이 길을 막고 있었다. 범이 오만상을 찌푸리고 구역질을 하며 코를 짜쥐고 머리를 왼편으로 돌리며 한숨을 쉬고 말했다.

“어허, 유자(儒者)여! 구리도다.”

북곽 선생이 머리를 조아리고 영금영금 기어 나와서 세 번 절하고 꿇어앉아 우러러 말했다.

“범님의 덕은 지극하시지요. 대인은 그 변화를 본받고 제왕은 그 걸음을 배우며, 자식 된 자는 그 효성을 본받고 장수는 그 위엄을 취합니다. 범님의 이름은 신룡(神龍)의 짝이 되는지라, 한 분은 바람을 일으키시고 한 분은 구름을 일으키시니, 저 같은 하토(下土)의 천한 신하는 감히 아랫 자리에 서옵니다.”

범이 꾸짖었다.

“내 앞에 가까이 오지 마라. 앞서 내 듣건대, 유(儒)*란 것은 유(諛)**라 하더니 과연 그렇구나. 내가 평소에 천하의 악명을 모아 망령되게 내게 덮어씌우더니, 이제 사정이 급해지자 면전에서 아침을 떠니 누가 끝이들겠느냐. 천하의 원리는 하나다. 범의 본성이 악한 것이라면 인간의 본성도 악할 것이요, 인간의 본성이 선한 것이라면 범의 본성도 선할 것이다.”

(중략)

(바) 북곽 선생이 자리에서 물러나 한참 엎드렸다가 일어나 엉거주춤하더니, 두 번 절하고 머리를 거듭 조아리며 말했다.

“『맹자』에 이르기를, 비록 악한 사람이라도 목욕재계를 한다면 상제(上帝)라도 섬길 수 있다 하였사오니, 이 하토에 살고 있는 천한 신하가 감히 아랫자리에 서옵니다.”

숨을 죽이고서 가만히 들어 보았다. 오래도록 아무런 분부가 없으므로 실로 황송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여 손을 맞잡고 머리를 조아리며 우러러보니 동녘이 밝았는데, 범은 벌써 가고 없었다.

마침 ㉢아침에 밭 갈러 온 농부가,

“선생님, 무슨 일로 이 꼭두새벽에 ㉣들판에 대고 절을 하시옵니까?”

라 물으니, 북곽 선생이 말했다.

“내 일찍이 들으니

‘하늘이 높다 하되 머리 어찌 안 굽히며,
땅이 두텁다 하되 어찌 조심스레 걷지 않겠는가.’
하였네그러.”

- 박지원, 「호질」 -

* 유(儒): 선비.

** 유(諛): 아첨하다.

25. (가)~(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달리 (나)에서는 인물 간의 대립 관계가 드러나 있다.
- ② (나)에 비해 (다)는 서술자의 서술 위주로 사건이 진행된다.
- ③ (다)는 (라)의 사건이 발생하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 ④ (라)는 행위에 의해, (마)는 주로 대화에 의해 갈등이 해결된다.
- ⑤ (마)는 (가)와 구조 면에서 호응하여 작품의 완결성을 높여 준다.

26.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북곽 선생과 동리자의 본색이 드러나는 시간이다.
- ② ㉡: 북곽 선생의 욕망이 표출되는 공간이다.
- ③ ㉢: 북곽 선생의 타락을 상징하는 공간이다.
- ④ ㉣: 북곽 선생의 위선을 재확인하는 시간이다.
- ⑤ ㉣: 북곽 선생이 자신을 성찰하는 공간이다.

27. <보기>를 참고하여 (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이 작품에서 다섯 아들은 북곽 선생을 여우로 여기고 있다. 이는 북곽 선생의 위선을 풍자하기 위하여 작가가 마련한 설정으로, 그들이 여우에 대해 하는 말과 행동은 북곽 선생의 성격과 행위를 암시한다.

- ① ‘여우가 사람 시늉을 한다’는 말은 북곽 선생이 진정한 선비가 아님을 암시한다.
- ② ‘여우의 갓을 얻으면 부자가 된다’는 말은 북곽 선생이 부를 이용하여 높은 벼슬을 얻었음을 암시한다.
- ③ ‘여우의 신발을 얻으면 그림자를 감출 수 있다’는 말은 북곽 선생이 농부 앞에서 자신의 치부를 감추는 행위를 예고한다.
- ④ ‘여우의 꼬리를 얻으면 애교를 잘 부린다’는 말은 북곽 선생이 법 앞에서 비위를 맞추려는 행위와 연결된다.
- ⑤ ‘여우를 잡아 죽이자’는 말은 북곽 선생이 봉변을 당할 것임을 시사한다.

28. (라)~(바)에 나타난 북곽 선생의 행위를 표현하는 말로 거리가 먼 것은?

- ① 자화자찬(自畫自讚) ② 감언이설(甘言利說)
- ③ 임기응변(臨機應變) ④ 대경실색(大驚失色)
- ⑤ 전전긍긍(戰戰兢兢)

[31~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12.11

(가)

차레를 지내고 돌아온
 구두 밑바다에
 고향의 저문 강물 소리가 묻어 있다
 겨울 보리 파랗게 꽃힌 강둑에서
 살얼음만 몇 발자국 밟고 왔는데
 쭉쭉 상엿집 흰 눈 속을 넘을 때도
 골목 앞 보세집 흐린 불빛 아래서도
 찰랑찰랑 강물 소리가 들린다
 내 귀는 얼어
 한 소절도 듣지 못한 강물 소리를
 구두 혼자 어떻게 듣고 왔을까
 구두는 지금 황혼
 뒤축의 꿈이 몇 번 수습되고
 지난 가을 터진 가슴의 어둠 새로
 누군가의 살아 있는 오늘의 부끄러운 축수가
 짜리 유채 꽃잎처럼 곱들댄다
 고향 텃밭의 허름한 꽃과 어둠과
 구두는 초면 나는 구면
 건성으로 겨울을 보내고 돌아온 내게
 고향은 꽃잎 하나 바람 한 점 꾸러 주지 않고
 영하 속을 흔들리며 떠나는 내 낡은 구두가
 저문 고향의 강물 소리를 들려준다.
 출렁출렁 아니 덜그럭덜그럭.

[A]

[B]

[C]

[D]

[E]

-곽재구, 「구두 한 켤레의 시」-

(나)

<1>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해마다 봄바람이 남으로 오네

꽃 피는 사월이면 진달래 향기
 밀 익는 오월이면 보리 내음새

어느 것 한 가진들 실어 안 오리
 남촌서 남풍 불 제 나는 좋데나

<2>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저 하늘 저 빛같이 저리 고울까

금잔디 너른 벌엔 호랑나비 떼
 벼들밭 실개천엔 종달새 노래

어느 것 한 가진들 들려 안 오리
 남촌서 남풍 불 제 나는 좋데나

<3>

산 너머 남촌에는 배나무 있고
 배나무꽃 아래엔 누가 섰다기,

그리운 생각에 영(嶺)*에 오르니
 구름에 가리어 아니 보이니

꿇었다 이어 오는 가는 노래
 바람을 타고서 고이 들리데

- 김동환, 「산 너머 남촌에는」 -

*영: 고개

(다)

얕은 곳에 ㉠해가 지고 누운 자리 밤을 새워
 잠든 빛기 한숨이오 한숨 끝에 눈물일세
 밤밤마다 꿈에 뵈니 꿈을 둘러 상시(常時)과져*
 학발자안(鶴髮慈顏)* 못 비겨든 안족서신(雁足書信)* 잣아짐에
 기다린들 기별 올까 오노라면 ㉡달이 넘네
 못 본 제는 기다리나 보게 되면 시원할까
 노친(老親) 소식 나 모를 제 내 소식 노친 알까
 ㉢산과 강물 막힌 길에 일반고사(一般苦思)* 뉘 헤울고
 문노라 밝은 달아 두 곳에 비추는가
 마르고저 뜨는 구름 남천(南天)으로 달는구나
 흐르는 ㉣내가 되어 집 앞에 두르고저
 나는 듯 ㉤새나 되어 창가에 가 노닐고저
 내 마음 헤아리려 하니 노친 정사(情思) 일러 무삼
 여의(如意) 잃은 용이오 키 없는 배 아닌가
 추풍의 낙엽같이 어드메 가 머무를꼬

- 이광명, 「북찬가(北籟歌)」 -

- *꿈을 둘러 상시과져: 꿈을 가져다 현실로 삼고 싶구나.
- *학발자안: 머리가 하얗게 센 자애로운 얼굴. 어머니를 가리킴.
- *안족서신: 기러기 발목에 매달아 보낸 편지.
- *일반고사: 괴롭거나 고통스러운 모든 생각.

31.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연물을 통해 현실의 부정적 측면을 부각하고 있다.
- ② 대조적 소재의 열거를 통해 시적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 ③ 과거와 현재의 대비를 통해 그리움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 ④ 일상생활의 관찰을 통해 사물에서 삶의 교훈을 얻어 내고 있다.
- ⑤ 친숙한 사물을 통해 화자의 마음이 향하는 공간을 환기하고 있다.

32. (가)~(다)의 시어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의 '보리'와 (나)의 '보리'는 두 작품의 계절적 배경이 동일함을 알려 준다.
- ② (가)의 '꿈'과 (다)의 '꿈'은 출세하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를 표현한다.
- ③ (가)의 '강물 소리'와 (나)의 '노래'는 대상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 태도를 드러낸다.
- ④ (나)의 '남풍'과 (다)의 '추풍'은 화자가 동경하는 세계와 화자를 매개한다.
- ⑤ (나)의 '구름'과 (다)의 '구름'은 자유로운 소통의 가능성을 차단한다.

33. (가)와 (나)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 (나) 모두 감각적 이미지를 빈번히 사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② (가)는 (나)와 달리 의성어의 변화로 화자의 심리를 표현하고 있다.
- ③ (가)는 (나)와 달리 연을 구분하지 않고 성찰적 어조를 드러내고 있다.
- ④ (나)는 (가)와 달리 새로운 소재가 추가될 때마다 어조에 변화를 주고 있다.
- ⑤ (나)는 (가)에 비해 대구와 부드러운 어감의 표현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34. <보기>의 '하이데거'의 관점에서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하이데거에게 예술은 '존재자의 존재'를 드러내 준다. 그에 따르면 고희의 '구두' 그림에는 단순히 도구로서의 구두[=존재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림 속의 구두에는 들일을 나서는 농부의 고단한 삶, 해질 무렵 들길을 걷는 그의 고독이 드러나 있으며, 아울러 대지의 습기와 다 익은 곡식의 풍요로움이 실려 있다. 우리는 이 그림을 통해 구두에 감추어진 '존재'가 눈앞에 펼쳐지는 체험을 하게 된다.

- ① [A]: 구두 밑바닥에 녹아드는 살얼음으로 봄을 맞이하는 화자의 기쁨을 표현하고 있군.
- ② [B]: 귀가 얼어붙을 정도의 추위를 강조하여 구두에 대한 화자의 연민을 드러내고 있군.
- ③ [C]: 여러 번의 수선을 거친 구두에는 구두의 도구성에 대한 화자의 비판적 견해가 나타나 있군.
- ④ [D]: 고향 텃밭의 허름함과 현 구두를 비교하여 초면과 구면 사이에 차이가 없음을 말하고 있군.
- ⑤ [E]: 고향에 대해 무심했던 삶 속에서도 고향이 화자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었음이 낡은 구두에서 드러나고 있군.

35. (나)의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1>, <2>, <3> 모두 세 연씩으로, 각 연은 두 행씩으로 구성되어 형식적 통일성을 갖추고 있다.
- ② '산 너머 남촌에는'이 <1>, <2>, <3>의 1연마다 반복되어 시 전체의 유기적 연관성을 강화하고 있다.
- ③ <1>, <2>, <3>의 각 3연이 동일한 형태로 반복되어 후렴구로 기능하고 있다.
- ④ 시어와 표현 면에서 <1>과 <2>는 유사성이 크지만, <3>은 상대적으로 차이를 보인다.
- ⑤ <1>의 2연은 문장 구조가 같은 두 행이 짝을 이루고 있는데, 이는 <2>의 2연도 마찬가지이다.

36. (다)의 ㉠~㉣ 중 함축하는 의미가 동일한 것끼리 바르게 묶은 것은?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37~3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12.11

이때 ㉠동리 사람들, 들것에 복조 송장을 태워 들어온다. 물이 똑똑 떨어진다. 복실과 분 어미, 의아하여 잠시 보고 있더니 달려 들어 목놓고 운다. 동리 사람들, 소리를 낮춰 힐끗힐끗 운다.

간(間)

처: (부엌에서 나오며) 왜들 우니?

분 어미와 복실: 어머니, 복조예요.

동리 사람 3: ㉡쇠뿌리로 배 내다가 보니 범바위 틈에 꺾습디다.

처: 물에서 죽은 놈이 복조뿐인가? 어떻게 복조라고 장담해.

(아무 관계없는 듯이 부엌으로 들어간다.)

(노어부를 석이와 윤 침지가 양편에서 짝 붙들고 들어온다.)

노어부: 봐. 두고 볼 거 아니야.

윤 침지: 참어. 참는 데 복이 있다네. 그저 참는 것이 제일이야.

참을 인(忍) 자가 셋이면 사람 하나 살린다는 말이 있지 않나.

석이: (그제야 들것과 사람들을 보고) 누나, 이것이 작은형이요?

(붙들고 운다.)

윤 침지: 찾았으니 다행이군. (눈물을 씻는다.)

노어부: (한참 바라보고 있더니 눈물을 닦으며 서러운 소리로

똑똑히) 몇 해 전에는 배도 서너 척 있었고, 그물도 동리에

뛰어나게 가졌드랬지. 배 팔고 그물 팔고 나머지는 뭐냐? 내

살덩이밖에 없었어. 그것도 다 - 못해서 다리 한쪽 뺏겼지.

고기잡이 3년에 자식 다 - 잡아먹는다는 것은, 윤 침지…….

윤 침지: …….

노어부: 나를 두고 하는 말이야. 두고 보고 바랄 것이 인제는 하나도 없어. (별안간 부엌 뒤로 퇴장. 들어가더니 ㉢팽이를 들고 나온다. 뒤따라 처가 미친 듯이 달려들어 부지깽이로 노어부의 머리를 후려 때린다. 노어부 쓰러진다.)

처: (팽이를 잡아 뺏으며) 이 팽이가 무슨 팽인 줄 알아?

노어부: (덤벼러다가 처의 너무도 험썩한 얼굴을 보고 고개를 돌려 복조를 붙들고 운다.)

처: 내가 맑은 물 떠 놓고 수신께 빌었거든. 이것은 우리 복조 아니야. 내 정성을 봐서라도 이렇게 전신을 파먹히게 안 했을 거야. 지금쯤은 너구리섬 동녘에 있는 시퍼런 깊은 물속에. 참 거기는 미역 냄새가 향기롭지. 그리고 백옥 같은 모래가 깔렸지. 거기서 팔다리 쭉-뻗고 눈 감았을 거야. 나는 지금 눈에 완전히 보이는걸. 복조 배 위로 무지갯빛 같은 고기가 쭉- 지나갔어. (눈앞에 보이는 환영을 물리치는 듯이 손으로 앞을 가리며) 눈감은 얼굴이 너무도 쓸쓸하군. 이렇-게 (시늉을 하며) 원망스러운 얼굴이야. 불만스러운 얼굴이야. 다문 입이 너무도 쓸쓸해.

[A]

간(間), 울음소리

통창으로 가야지. 서남풍이 자고, 동풍이 불면 나를 만나러 올지도 몰라. 아니야 꼭 올 거야. 저녁물 아니면 내일 아침물 그도 아니면 모래 아침물. 산수자리를 골라 놓고 동쪽을 보고 기대려야지. (일등을 보고 픽 웃으며) 뭇 때문에 울어들? (팽이를 들고 밖으로 뛰어 나간다.)

석이: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속이 타서 발을 구르며)

아버지, 얼른 가서 어머니 좀 붙드세요. 얼른 얼른 아버지.

노어부: 내 알 것 아니야.

석이: (어머니, 어머니 부르며 뒤따라 퇴장)

㉣(떨리서 처의 웃는 소리 우는 소리 번갈아 들린다.)

노어부: (일어서며) 윤 침지, 북망산으로 가지.

복실: 촛불 하나 안 키고 관도 없이 어텔 가요?

분 어미: 사람 목숨이 이렇게도 썩가. 뒤란에 검부락지 쓸어가듯 획 쓸어 가면 고만이야.

윤 침지: 장성한 사람을 그럴 수 있나.

분 어미: (일어서며) 난 항구로 가겠다. 더 있는댕자 가슴만 줄이지. 울며 웃으며 한세상 살다 그러저러 죽을 때 되면 죽지. (언덕을 넘어 퇴장)

노어부: (뒷모양을 바라보다가) 왜, 과부 수절하기가 싫으냐?

석이: (울면서 등장) ㉤어머니가 갯가에서 팽이로 물을 파며 통곡을 하시다가는 별안간 허파가 끊어진 것처럼 웃으며 (복실의 가슴에 안겨) 누나야. 어머니는 한세상 참말 헛사였다. 왜 우리는 밤낮 울고불고 살아야 한다든?

복실: (머리를 쓰다듬으며) 굴뚝에 연기 한 번 무럭무럭 피어 오른 적도 없었지.

석이: (울음 섞인 소리로, 그러나 한 마디 한 마디 똑똑히) 왜 그런지를 난 생각해 볼 테야. 긴긴 밤 갯가에서 조개 잡으며, 긴긴 낮 신작로 오가는 길에 생각해 볼 테야.

복실: (바다를 보고) 인제 물결이 자는구나.

윤 침지: ㉥먼동이 트는군. (나가면서)

(노어부를 보고) 사람 삼키더니 물결이 얼음판 같어 졌지. 자네 한 잔 쭉 - 들이키고 수염 닦는 듯이. 어서 초상 준비나 하게. 상엿집에 행하니 다녀올 테니.

— 막 —

- 함세덕, 「산허구리」 -

37. 윗글의 등장인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① ‘복조’와 ‘복실’은 평소에 친했던 이웃이다.
- ② ‘석이’는 형의 죽음을 차분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 ③ ‘윤 침지’는 ‘노어부’의 처지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 ④ ‘분 어미’는 친정이 있는 항구로 돌아가려 하고 있다.
- ⑤ ‘복실’은 행복하기만 했던 어린 시절을 그리워하고 있다.

38. ㉠~㉣을 통해 무대 밖에서 일어난 사건이 관객에게 전달 된다고 할 때, 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무대 밖에서 이미 일어난 사건을 추후에 시각적 효과를 활용하여 알려 주고 있다.
 - ② ㉠과 상반된 ㉡의 정보로 인해, ㉡에 대한 관객들의 의심이 증폭되고 있다.
 - ③ ㉢은 무대 밖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건을 청각적 효과를 활용하여 전달하고 있다.
 - ④ ㉣은 무대 밖에서 이미 일어난 사건을 추후에 알려 주지만, ㉢과 연관되면서 무대 밖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사건을 환기 하기도 한다.
 - ⑤ 관객은 ㉣을 통해 시간의 경과를 분명하게 인지하여 새로운 아침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9. <보기>의 ㉠~㉣ 중 [A]의 **꺽이**에 대한 해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꺽이는 ‘복조’가 사용하던 것으로, 사건 진행과 인물의 정서적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도구이다. 처음에 꺽이는 관객이 볼 수 없는 부엌 뒤에 놓여 있었는데, ㉠ ‘노어부’가 무대로 가지고 들어오면서 관객들의 주목을 끌게 된다. 이후 꺽이는 ㉡ ‘처’가 ‘노어부’를 뒤따라 움직이는 계기를 제공하고, ㉢ ‘처’가 ‘노어부’와 충돌하게 만드는 매개체 구실을 하며, ㉣ ‘처’가 내면 심경을 직접 토로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기능을 순차적으로 수행한다. ㉣ 관객들은 꺽이에 대한 ‘처’의 집착을 지켜보면서 ‘처’의 내면을 엿볼 수 있게 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13~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2.09

[앞부분의 줄거리] 뱃사공 삼바우는 전쟁터로 나가는 아들 옹팔과 마을 청년 두칠, 천달을 배에 태워 강 건너로 보낸다. 얼마 후 두칠은 부상을 입어 흉측한 모습으로 돌아오지만, 옹팔과 천달에게서는 아직 소식이 없다.

첫서리가 보얗게 내린 어느 날 아침나절, 읍으로부터 오는 길에 멀리 자전거가 한 대 나타났다. 삼바우는 나룻배를 몰아 물가에 갔다 대 놓고, 가까워 오는 자전거를 기다렸다. 그것은 안면이 있는 자전거였다. ㉠ 빨간 자전거였다. 편지가 오는구나, 삼바우는 가슴이 뛰었다. 혹시 용팔이한테서나…… 자전거에서 내리는 배달부는 낯이 선 사람이었다.

“여보이소, 저 마을이 강동리 이구 맞지요?”
 “야, 맞구마. 편지 어디서 왔능교?”
 “양봉재라는 사람 있능게?”
 “야, 있구마, 천달이 저거 어르신네구마. 어디서 왔능교?”
 “에에…….”
 배달부는 편지를 뒤집는다.
 “천달이한테서 왔능교?”
 “아니요, 군수한테서 왔구마.”
 “군수라니요?”
 “군수도 모르능게? 고을 원님 말이구마.”
 “구운수?”

삼바우의 두 눈은 통방울처럼 휘둥그레진다.
 “정말로 카능게? 부러 카능게?”
 “이 양반 보소. 내가 어디 할 일이 없어서 장난하로 땡기는 사람인 줄 아능게? 허허…….”
 “하야, 군수한테서…….”

참 희한한 일도 다 있다는 듯 삼바우의 벌어진 입은 쉬 다 물리지가 않는다. 배달부의 자전거를 번쩍 들어 배에 올려 주며,
 “나한테는 없능교, 편지? 배(襄)삼바우구마.”
 “그 집 하나뿐이구마.”

서운했다. 그러나 삼바우는 노를 저으면서도, 군수한테서 편지가 오다니, 양 생원 인제 팔자 고치는 거 아니냐? 곧장 감격스러웠다. 한편 어떻게 생각하면, 양 생원한테 군수라니…… 너무 당치가 않아 슬그머니 겁이 나기도 했다.

마을에서 울음소리가 일어난 것은 그로부터 잠시 후의 일이었다. 물론 양 생원네 집이었다. 온 집안이 그대로 울음의 도가니였다. 난데없는 곡성에 마을은 발각 뒤집혀었다. 순녀의 피나는 ㉡ 울음소리는 유독 마을 사람들의 간장을 꿰었다. 대열이도 덩달아 뻘뻘이 소리를 질렀다. 천달이가 뭐 어찌고…… 뼈다귀가 뭐 어찌고 어찌고…… 사람들은 서로 귀에 입을 대고 쑥덕거렸다. 마을은 ㉢ 밝이 되어도 뒤숭숭했다. 목이 잠겨 이제 부서진 풀무 소리 같은 곡성이 그래도 끊임없이 이을락 한이 없었다. 뒤 언덕도 토리나무 잎새를 털고 지나가는 바람 소리도 별나게 스산하기만 했다.

머칠 뒤, 이른 새벽. 양 생원네는 강을 건너 ㉣ 읍내로 들어갔다. 삼바우는 떨어져 가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크게 한숨을 쉬었다.

순녀의 등에 업힌 대열이는 곧장 엄마에게,
 “엄마야, 우이 어디 가노?”
 “읍내 간다.”
 “읍내가 머꼬?”
 “…….”
 “앙? 엄마.”
 “읍내가 읍내지 뭐까 봐. 저어기 가면 읍내라고 있다.”
 “머 하로 가노?”
 “…….”
 “앙?”
 “…….”

[A] 순녀는 뭐라고 대답할 말이 없었다. 땅이 한쪽으로 기울어 지는 듯 어지럽기만 했다. 엄마의 대답이 없으니, 대열이는 할아버지를 돌아본다.
 “…….”
 “하부이! 우리 머 하로 가노?”
 “…….”
 “하부이 니도 모르나?”
 “…….”
 별그레 부어 오른 두 눈을 무겁게 내리감을 따름, 할아버지 역시 아무런 대꾸가 없다.

대열이는 울상이 되어 킁킁 칭얼거리다가 그만 엄마의 등짝을 마구 때려 준다.

그날 저녁담은 왜 그렇게 하늘이 타는지 몰랐다. ㉤ 벌건 불길기 구름을 태우며 온 벌판으로 쏟아져 내렸다. 강물도 꽃자주색으로 출렁거리고, 불어오는 바람에도 붉은 빛깔이 물들어 있었다. 이처럼 무섭게 저물어 가는 황혼 속으로 양 생원네는 돌아왔다. 양 생원은 목에 띠를 걸고 네모반듯한 상자를 하나 받쳐 안고 있었다. 상자는 하얀 보에 싸여 있었다.

(중략)

벌어먹을 세상이지, 하필 와 남의 집 외동아들을 잡아가노 말이다. 이런 소리를 주위섬기는 노인도 있고, 어떤 노파는 관샘보사알 하고, 가슴 앞에 두 손을 모으기도 했다. 감분이의 탐스런 얼굴에도 그늘이 서리었고, 두칠이의 도깨비 같은 얼굴도 오늘은 거기 섞여 있었다. 그러나 두칠이만은 입 언저리에 알갛은 웃음을 띠고 있다. 흥, 유골이라! 저 안에 든 것이 천달이 뼈다귀라 그 말쑤이지, 흥! 흥! 목덜미로 흘러내린 땀들땀들한 살점이 곧장 실룩거리다. 누렁이란 놈도 물가에 내려서서 주둥이를 하늘로 쳐들고 킁킁 킁 킁 해댄다.

유골이 배에서 내리자, 나루터는 잠시 견잡을 수 없이 들끓었다. 양 생원의 손목을 가서 붙잡고, 이 사람아, 이 사람아, 하고 한숨을 짓는 노인. 위로를 한답시고 떠들어 대는 노파들. 순녀의 울음을 달래며 찢끔찢끔 눈물을 짜는 아낙네가 있는가 하면, 옷고름에 물코를 푸는 큰애기가 있고, 우는 아이가 있고, 짓는 개가 있고……. 그러나 두칠이는 연방 얼굴을 실룩거리며,
 “머 보통이지, 보통이지…….”

하고 중얼거렸다. 그러나 그의 하나 남은 눈깔에도 눈물은 어리어 있었다.

- 하근찬, 「나룻배 이야기」 -

13.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화와 독백적 발화를 통해 인물의 심리를 생생하게 드러내고 있다.
- ② 의식의 흐름 기법을 활용하여 인물의 내적 욕망을 드러내고 있다.
- ③ 현재와 과거를 교차 서술하여 갈등을 심화하고 있다.
- ④ 서술자를 교체하면서 새로운 사건을 도입하고 있다.
- ⑤ 풍자적 서술을 통해 인물의 행위를 비판하고 있다.

14.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마을 밖의 소식을 전해 주는 매개 역할을 한다.
- ② ㉡: 천달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라는 순녀의 기대가 좌절 되었음을 의미한다.
- ③ ㉢: 불길한 일을 암시하는 복선 역할을 하여 긴장감을 조성한다.
- ④ ㉣: 천달의 죽음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되는 공간이다.
- ⑤ ㉣: 천달의 죽음으로 인한 마을의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

15. [A]를 읽은 학생들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말이 없는 어른들을 아이의 입장에서 비판하고 있군.
- ② 철없는 아이와 권위적인 어른들이 선명하게 대비되고 있군.
- ③ 어른들의 침묵을 통해 그들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④ 아이의 물음에 대답하지 못하는 어른들을 통해 비극적 상황을 부각하고 있군.
- ⑤ 지속적으로 어른들에게 질문하는 아이를 통해 작중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있군.

16.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전쟁 소설은 전쟁의 비극성을 다각도로 드러낸다. 전쟁의 비극성은 전쟁을 체험한 인물의 정신적 상처로 구체화된다. 특히 신체적 손상과 정신적 상처를 함께 안고 살아가는 인물은 자신의 운명을 원망하며 공동체에 잘 적응하지 못한다.

- ① 군수의 편지, 유골 상자 등은 전쟁의 비극성과 관련된 소재군.
- ② 하나만 남은 두철의 눈은 자신의 정신적 상처를 지속적으로 떠올리게 하겠군.
- ③ 천달의 유골을 보며 중얼거리는 두철의 모습은 전쟁의 상처가 되살아나는 것을 보여 주는군.
- ④ 천달의 유골이 배에서 내리자 나루터가 들끓은 것은 마을 사람들이 전쟁의 아픔을 공유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군.
- ⑤ 천달의 유골이 도착했을 때 사람들 틈에 섞여 있는 두철의 모습은 그가 마을 공동체에 동화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군.

[31~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2.09

(가)

1

㉠ 하늘에 깎아 논
바람의 여울터에서나
속삭이듯 서거이는
나무의 그늘에서나, 새는
노래한다. 그것이 노래인 줄도 모르면서
새는 그것이 사랑인 줄도 모르면서
두 놈이 부리를
서로의 쪽지에 파묻고
다스한 체온을 나누어 가진다.

2

새는 울어
뜻을 만들지 않고,
지어서 교태로
사랑을 가식하지 않는다.

3

—포수는 한 덩이 납으로
그 순수를 겨냥하지만,
매양 쏘는 것은
피에 젖은 한 마리 상한 새에 지나지 않는다.

- 박남수, 「새 1」 -

(나)

어머니는 그릇이라 쓰고 읽으신다
그릇이 아니라 그릇이 바른 말이지만
어머니에게 그릇은 그릇이다
물을 담아 오신 ㉡ 어머니의 그릇을 앞에 두고
그릇, 그릇 중얼거리 보면
그릇에 담긴 물이 편안한 수평을 찾고
어머니의 그릇에 담겨졌던 모든 것들이
사람의 체온처럼 따뜻했다는 것을 깨닫는다
나는 학교에서 그릇이라 배웠지만
어머니는 인생을 통해 그릇이라 배웠다
그래서 내가 담는 한 그릇의 물과
어머니가 담는 한 그릇의 물은 다르다
말 하나가 살아남아 빛나기 위해서는
말과 하나가 되는 사랑이 있어야 하는데
어머니는 어머니의 삶을 통해 말을 만드셨고
나는 사전을 통해 쉽게 말을 찾았다
무릇 시인이라면 하찮은 것들의 이름이라도
뜨겁게 살아 있도록 불러 주어야 하는데
두툼한 개정판 ㉢ 국어사전을 자랑처럼 옆에 두고
서정시를 쓰는 내가 부끄러워진다

[A]

[B]

- 정일근, 「어머니의 그릇」 -

(다)

노래는 심장에, 이야기는 뇌수에 박힌다
처용이 밤늦게 돌아와, 노래로써
아내를 범한 귀신을 쫓아 엎드리게 했다지만
막상 목청을 떼어 내고 ㉣ 남은 가사는
베개에 떨어뜨린 머리카락 하나 건드리지 못한다
하지만 처용의 이야기는 살아남아
㉤ 새로운 노래와 풍속을 짓고 유전해 가리라
정간보가 오선지로 바뀌고
이제 아무도 시집에 악보를 그리지 않는다
노래하고 싶은 시인은 말 속에
은밀히 심장의 박동을 골라 넣는다
그러나 내 격정의 상처는 노래에 쉬이 덧나
다스리는 처방은 이야기일 뿐
이야기로 하필 시를 쓰며
뇌수와 심장이 가장 긴밀히 결합되길 바란다.

[C]

[D]

[E]

- 최두석, 「노래와 이야기」 -

31.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간의 경과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② 동일한 구절의 반복을 통해 리듬감을 주고 있다.
- ③ 역설적 표현을 통해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④ 영탄적 어조를 통해 고조된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 ⑤ 시적 대상의 의미를 대비하여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32. ㉠~㉣ 중 <보기> ㉡의 문맥적 의미와 가까운 것만을 고른 것은? [3점]

<보 기>

마을의 한 아이에게 천자문을 주어 읽게 했더니 그 녀석이
읽기를 싫증 내고 짜증을 부리며 “하늘은 푸르고 푸른데
하늘을 나타내는 ㉡ ‘천(天)’이라는 글자는 푸르지 않으니
읽기에 싫증이 나는 것이죠.”라고 합디다. 이 아이의 총명함은
한자를 처음 만들었다는 창힐(蒼厓)을 애타고 괴롭게 만듭니다.

- 박지원, 「창애(蒼厓)에게」 -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33.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인위적이고 가식적인 것에 대한 비판 의식을 담고 있다.
- ② (나)는 일상생활에서 시의 발상을 얻고 있다.
- ③ (가)는 (나)와 달리 연을 구분하여 시상의 흐름을 조절하고 있다.
- ④ (나)는 (가)와 달리 시적 화자가 표면에 드러나 있다.
- ⑤ (가)와 (나) 모두 환상의 세계에 대한 동경 의식이 나타나 있다.

34. [A]~[E]에 대한 감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 ‘그릇’보다는 ‘그릇’이 훨씬 풍부하고 다채로운 의미를 담고 있다는 뜻이군.
- ② [B]: ‘그릇’이라는 말은 창조된 것이고 ‘그릇’이라는 말은 발견된 것이라는 뜻이군.
- ③ [C]: 시와 음악의 분리를 비판하는 것으로 보아 자유시보다 정형시를 선호하는군.
- ④ [D]: 말에 생명을 불어넣어 감동을 주는 시를 쓰고자 하는 바람을 표현하고 있군.
- ⑤ [E]: 덧난 상처를 ‘이야기’로 치유한다면 상처의 원인은 ‘노래’에 있다는 뜻이군.

[38~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12.09

(가)

[1] 풀은 ㉠바람이 동쪽으로 불면 동쪽으로 향하고 바람이 서쪽으로 불면 서쪽으로 향한다. 다들 바람 부는 대로 쏠리는데 굳이 따르기를 피하려 할 이유가 있겠는가? 내가 걸으면 그림자가 내 몸을 따르고 내가 외치면 메아리가 내 소리를 따른다. 그림자와 메아리는 내가 있기에 생겨난 것이니 따르기를 피할 수 있겠는가? 아무것도 따르지 않은 채 혼자 가만히 앉아서 한평생을 마칠 수 있을까? 그럴 수는 없는 법이다.

[2] 어째서 상고 시대의 의관을 따르지 않고 오늘날의 복식을 따르며, 중국의 언어를 따르지 않고 각기 자기 나라의 발음을 따르는 것일까? 이는 ㉡수많은 별들이 각자의 경로대로 움직이며 하늘의 법칙을 따르고, 온갖 넷물이 각자의 모양대로 흐르며 땅의 법칙을 따르는 것과 같은 도리이다.

[3] 물론 일반적인 추세를 따르지 않고 자신의 천성과 사명을 견지하는 경우도 있다. 천하가 모두 주나라를 새로운 천자의 나라로 섬기게 되었음에도 백이와 숙제는 그것을 부끄럽게 여겼고, 모든 풀과 나무가 가을이면 시들어 떨어짐에도 소나무와 잣나무는 여전히 푸른 것이 바로 그런 경우이다. 그렇지만 우 임금도 방문하는 나라의 풍속에 따라 일시적으로 자신의 복식을 바꾸셨고, 공자도 사냥한 짐승을 서로 비교하는 노나라 관례를 따르시지 않았던가! 성인(聖人)도 모두가 함께 하는 부분을 위배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4] 그렇다면 많은 사람이 하는 대로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 아니다! 이치를 따라야 한다. 이치는 어디에 있는가? 마음에 있다. 무슨 일이든지 반드시 자기 마음에 물어보라. 마음에 거리낌이 없으면 이치가 허락한 것이요, 마음에 거리낌이 있으면 이치가 허락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만 한다면 무엇을 따르든 모두 올바르고 하늘의 법칙에 절로 부합할 것이며, 어떤 상황에서든 마음만 따르다 보면 운명과 귀신도 모두 그 뒤를 따르게 될 것이다.

- 이용휴, 「수려기(隨慮記)*」 -

* 수려기: '따르며 살리라'라는 이름을 붙인 집에 대한 글.

(나)

내 팔자가 사는 대로 내 고생이 달는 대로
㉢ 좋은 일도 그뿐이요 그른 일도 그뿐이라
춘삼월 호시절에 화전놀음 와서들랑
꽃빛일랑 곱게 보고 새소리는 좋게 듣고
밝은 달은 예사 보며 맑은 바람 시원하다
좋은 동무 좋은 놀음에 서로 웃고 놀아 보소
㉣ 사람 눈이 이상하여 제대로 보면 관계참고
고운 꽃도 새겨 보면 눈이 캄캄 안 보이고
귀도 또한 별일이지 그대로 들으면 괜찮은걸
새소리도 고쳐 듣고 슬픈 마음 절로 나네
마음 심 자가 제일이라 단단하게 맘 잡으면
꽃은 절로 피는 거요 새는 예사 우는 거요
달은 매양 밝은 거요 바람은 일상 부는 거라

마음만 예사 태평하면 예사로 보고 예사로 듣지
보고 듣고 예사하면 고생될 일 별로 없소
앉아 울던 청춘과부 황연대각* 깨달아서
덴동어미 말 들으니 말씀마다 개개 옳아
이내 수심 풀어내어 이리저리 부쳐 보세
이팔청춘 이내 마음 봄 춘 자로 부쳐 보고
화용월태* 이내 얼굴 꽃 화 자로 부쳐 두고
술술 나는 긴 한숨은 세류춘풍 부쳐 두고
밤이나 낮이나 술한 수심 우는 새나 가져가게
일촌간장 쌓인 근심 도화유수로 씻어 불가
천만 접이나 쌓인 설움 웃음 끝에 하나 없네
구곡간장 깊은 설움 그 말끝에 술술 풀려
삼동설한 쌓인 눈이 봄 춘 자 만나 술술 녹네

- 작자 미상, 「덴동어미화전가」 -

* 황연대각: 환하게 모두 깨달음.

* 화용월태: 아름다운 여인의 얼굴과 뺨시를 이르는 말.

(다)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 초야우생*이 이렇다 어떠하리

하물며 천석고황을 고쳐 무엇 하리

고인(古人)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 못 배

고인을 못 배도 가던 길 앞에 있네

가던 길 앞에 있거든 아니 가고 어찌할꼬

청산은 어찌하여 만고에 푸르르며

유수는 어찌하여 주야에 그치지 아니한고

우리도 그치지 말아 만고상청(萬古常靑)하리라

- 이황, 「도산십이곡」 -

* 초야우생: 시골에 묻혀 사는 자신을 낮추어 이르는 말.

38.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학문에 대한 관점을 보여 주고 있다.
- ② 삶의 자세에 대한 견해를 드러내고 있다.
- ③ 대상과 합일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④ 이상을 추구하면서 사회의 모순을 비판하고 있다.
- ⑤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심리를 보여 주고 있다.

39.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1]에서는 풀, 그림자, 메아리 같은 자연 현상으로부터 사람 역시 아무것도 따르지 않고 살 수는 없음을 유추했다.
- ② [2]에서는 시대와 지역에 따라 ‘따름’의 대상이 다른 것은 당연한 일이고, 이것이 결국은 천지의 법칙을 따르는 것임을 별의 운행과 냇물의 흐름을 들어서 밝혔다.
- ③ [3]에서는 우임금과 공자 같은 권위 있는 인물의 사례를 제시하여 관습을 전혀 따르지 않고 살 수는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 ④ [4]에서는 자문자답을 반복하는 형식을 취하여 마음에 거리낌이 있더라도 하늘의 법칙을 따라야 함을 깨닫게 하였다.
- ⑤ 글의 중간 중간에 ‘따름’의 여러 측면을 반복적으로 언급함으로써 주제를 부각하였다.

40. (나)의 인물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텐동어미는 계획적인 삶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군.
- ② 텐동어미는 본격적으로 화전놀이를 떠날 준비를 하겠군.
- ③ 텐동어미는 청춘과부에게 생명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하는군.
- ④ 청춘과부는 자연의 변화에 무감각한 사람이 되어 버렸군.
- ⑤ 청춘과부는 가난이 사람을 성숙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믿게 되었군.

41. [A]와 [B]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 ① [A]는 감정 이입을 통해 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내고 있다.
- ② [A]는 대화를 통하여 인물의 성격을 분명히 보여 주고 있다.
- ③ [B]는 자연물의 속성에 빗대어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④ [B]는 의문형 어구를 반복하여 심리적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 ⑤ [A]와 [B] 모두 반어적 표현으로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42.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은 정처 없이 떠도는 인간의 운명을 의미한다.
- ② ㉡은 하늘의 별이 지상의 존재들에게 등불이 되어 준다는 의미이다.
- ③ ㉢은 마음이 상황에 따라 동요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 ④ ㉣은 성숙한 인간이 가진 안목을 의미한다.
- ⑤ ㉣은 화자가 자신의 선택에 대해 회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43~4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12.09

이윽고 백 소부가 백 소저에게 명하여 가로되,
“오늘 너를 위해 좋은 배필을 얻었으니 지극한 소원을 이루
었도다. 아버의 명을 사양치 말고 이 시에 화답하여 맹약을
정하라.”

하니, 백 소저가 얼굴에 수줍은 빛을 띠고 오래 주저하다가 화
선지 한 쪽에 ㉠ 오언 절구 두 수를 쓰더라.

봉황새가 단산(丹山)에서 나왔거늘
깃들인 곳 벽오동 아니로다.
날개가 꺾어짐을 탄식지 말지니
마침내 하늘에 오름을 보리라.

무성함은 고송(高松)의 자질이요
푸르름은 고죽(孤竹)의 마음이라.
사랑스럽다, 세한(歲寒)의 절조여!
바람과 서리에도 굴하지 않네.

백 소부가 여러 번 낭독하다 감탄하여 가로되,
“시의 격이 빼어나고 아름다우니 가히 소선의 시와 더불어
서로 백중(伯仲)이 될 만하다. 만일 남자였다면 마땅히 장원
급제하리로다. 그러나 시의 뜻이 스스로 송죽의 절조에 비함은
어찌 된 일이뇨? 후에 시참(詩譏)*이 되지 않을까 두렵노라.”
이때 김소선은 대면한 백 소저의 용모를 보지는 못하나,
시구를 듣고는 그 청아함을 사랑하고 품은 뜻에 감복하여 크게
감탄하더라. 백 소부가 김소선의 시를 화선지에 베껴 백 소저
에게 주며 가로되,

“만드시 이 시를 깊이 간직하였다가 후에 신물(信物)을 삼으라.”
하고, 또 소저의 쓴 시를 김소선에게 전하여 가로되,
“그대 또한 이 시를 간직하였다가 부귀하게 되면 이 자리의
맹약을 잊지 마시게.”

하니, 소선과 소저가 절하고 명을 받더라.

[중략 줄거리] 세력가인 배연령의 아들 배득량은 백 소저의
정혼 사실을 알면서도 백 소저와 혼인하고자 한다. 배득량은
백 소저의 외삼촌 석 시랑을 통해 그 뜻을 전하나 백 소부는
단호히 거절한다.

석 시랑이 감히 입을 열지 못하고 물러나와, 배득량에게 가
백 소부의 말을 자세히 전하니 득량이 낙담하더라. 이윽고
배연령에게 간청하여 세력으로 억지로 혼인하고자 하더라.
배연령이 평소 득량을 가장 사랑한 고로 말만 하면 들어주지
아니하는 것이 없더니, 이에 석 시랑을 불러 가로되,

“우리 집이 그대의 제부와 벼슬을 함께 하는 우의가 있고
문벌도 서로 걸맞으니, 혼인을 맺어 가문의 친밀함을 더한다면
어찌 아름다운 일이 아니리오? 그대는 나를 위해 백 소부에게
말하여 혼약을 이루고 속히 좋은 결과를 전할지어다.”

시랑이 이튿날 다시 백 소부의 집에 가 배연령의 말을 전하여
가로되,

“누이 말을 들은즉 생질녀와 정한 배필은 눈먼 폐인이라
하더이다. 아름답고 어진 생질녀를 두고 반드시 이런 폐인
을 사위로 삼고자 하니 어찌 사려 깊지 못한 것이 아니리오?
이는 아름다운 옥을 구덩이에 버리고 상서로운 난새를
까막 까치의 짝으로 삼음과 같으니, 깊이 애석하도다. 지금
배 승상은 가장 천자의 총애를 입어 위세와 복록을 이루어
그 권세가 두려울 만하거늘, 생질녀의 어짙을 듣고 그 아
들 득량을 위하여 반드시 혼약을 맺고자 하니 그 호의를
저버려서는 안 될지라. 바라건대 다시 깊이 헤아려 뒷날
크게 후회하지 않게 하소서.”

소부가 듣자마자 크게 노하여 가로되,
“어찌 식견 없는 말을 내는고? 배연령이 아무리 하늘을 태울
기세가 있고, 바다를 기올일 수완이 있다라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노라. 더구나 딸아이는 이미 다른 사람에게 허락하였
은즉, 폐인이며 폐인이 아님을 논할 것 없이 자네가 간여할
바가 아니로다.”

시랑이 크게 부끄러워 감히 말 한마디 못하고 돌아가 배연령을
보여 가로되,

“백 소부의 뜻이 이미 굳건하니, 온갖 구실로 설득할지라도
돌이키지 못할 것입니다.”

하거늘 연령이 노하여 꾸짖어 가로되,
“백문현이 어떤 존재이기에 감히 내 말을 거역하는가?”

드디어 공부 좌시랑 황보박을 부추겨서, 평장사 백문현이
비밀히 변방의 오랑캐와 결탁하여 사직을 위태롭게 꾀한다고
무고(誣告)하게 하니, 천자가 크게 노하여 백 소부를 형리에게
부처 장차 죽이고자 하더라. 여러 대신이 교대로 상소를 올려
지극히 간하니 천자의 노여움이 누그러져서 소부의 작위를
거두고 애주 참군으로 강등시켜 당일로 압송케 하니라. 조명
(詔命)*이 한번 내리매 만조백관이 두려워하여 감히 다시 간하지
못하고, 백 소부의 집은 상하가 다 통곡함을 마지아니하더라.

- 서유영, 「육미당기(六美堂記)」 -

* 시참: 우연히 지은 시가 이상하게도 뒷일과 꼭 맞는 일.
* 조명: 천자의 명령을 적은 문서.

43.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부모의 개입 없이 배우자 선택이 이루어지고 있다.
- ② 개인의 혼사 문제가 가문의 성쇠와 관련되고 있다.
- ③ 재물의 많고 적음에 따라 인물의 운명이 결정되고 있다.
- ④ 대신들 간의 다툼으로 천자의 지위가 위태로워지고 있다.
- ⑤ 간신들이 오랑캐와 결탁하여 나라를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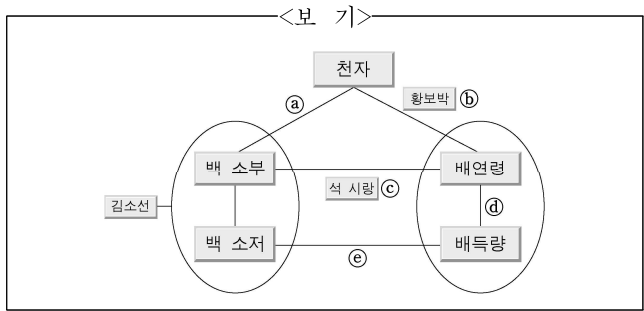
44. ㉠과 관련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시를 주고받는 행위를 통해 김소선과 백 소저의 관계가 긴밀해지고 있다.
- ② 시의 내용으로 보아 백 소저가 강직한 성품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시에 대한 백 소부의 평으로 보아 백 소저가 뛰어난 재능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시를 주며 맹약을 잊지 말라고 한 것으로 보아 백 소부가 김소선을 믿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백 소부가 '시참'이 될까 두려워하는 것으로 보아 장차 백 소저에게 고난이 닥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45. [A]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석 시량은 생질녀의 용모와 인품을 치켜세우고 있다.
- ② 석 시량은 생질녀와 혼약을 맺은 상대를 폄하하고 있다.
- ③ 석 시량은 비유를 활용하여 백 소부의 성품을 미화하고 있다.
- ④ 석 시량은 권력자의 위세를 두려워하며 그에 편승하고 있다.
- ⑤ 석 시량은 장차 닥칠 수 있는 어려움을 암시하며 백 소부를 설득하고 있다.

46. 윗글의 인물 간 관계를 <보기>와 같이 나타냈을 때,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백 소부는 천자의 노여움을 사 백척간두(百尺竿頭)의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 ② ㉠: 황보박은 배연령과 천자 사이에서 좌고우면(左顧右盼)하고 있다.
- ③ ㉢: 백 소부와 배연령은 석 시량을 통해 막역지우(莫逆之友)가 되었다.
- ④ ㉣: 배득량은 배연령의 자존심 회복을 위해 절치부심(切齒腐心)하고 있다.
- ⑤ ㉤: 배득량은 백 소저와 동병상련(同病相憐)의 처지에 놓여 있다.

[19~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2.06

(가)

조국을 언제 떠났노,
파초*의 꿈은 가련하다.

남국을 향한 불타는 향수,
너의 넓은 수녀보다도 더욱 외롭구나

소낙비를 그리는 너는 정열의 여인, [A]
나는 샘물을 길어 네 발등에 붓는다. [A]

이제 밤이 차다,
나는 샘물을 길어 네 발등에 붓는다.

나는 즐겨 너를 위해 종이 되려니,
너의 그 드리운 치맛자락으로 우리의 겨울을 가리우자.
- 김동명, 「파초」 -

* 파초: 잎이 긴 타원형이며 키가 큰 여러해살이풀.

(나)

산비탈엔 들국화가 환—하고 누이동생의 무덤 옆엔 밤나무 하나가 오뚝 서서 바람이 올 때마다 아득—한 공중을 향하여 여원 가지를 내어 저었다. 갈 길을 못 찾는 영혼 같애 절로 눈이 감긴다. 무덤 옆엔 작은 시내가 은실을 굶고 등 뒤에 서격이는 떡갈나무 수풀 앞에 차단—한 비석이 하나 노을에 젖어 있었다. 흰나비처럼 여원 모습 아울러 어느 무형(無形)한 공중에 그 체온이 꺼져 버린 후 밤낮으로 찾아 주는 건 비인 묘지의 물소리와 바람 소리뿐. 동생의 가슴 우엔 비가 나리고 눈이 쌓이고 적막한 황혼이면 별들은 이마 우에서 무엇을 속삭였는지. 한 줌 흙을 헤치고 나죽—히 부르던 함박꽃처럼 눈뜬 것만 같애 서러운 생각이 옷소매에 스며들.

- 김광균, 「수철리(水鐵里)」 -

* 수철리: 공동묘지가 있던 서울의 한 마을.

(다)

슬프나 즐거오나 옳다 하나 외다 하나
내 몸의 해울 일만 닦고 닦을 뿐이언정
그 빛과 여남은 일이야 분별할 줄 이시라. <제1수>

내 일 망령된* 줄을 내라 하여 모를쏜가
이 마음 어리기도 임 위한 탓이로세
아무가 아무리 일러도 임이 헤여 보소서. <제2수>

추성(楸城) 진호루(鎭胡樓)* 빛과 울어 예는 저 시내야
므음 호리라* 주야에 흐르는다 [B]
임 향한 내 뜻을 초차 그칠 뒤를 모르나다. [B]
<제3수>

피혼 길고 길고 물은 멀고 멀고
아버이 그릴 뜻은 많고 많고 하고 하고
어디서 외기러기는 울고 울고 가느니. <제4수>

아버이 그릴 줄을 처음부터 알아마는
임금 향한 뜻도 하늘이 삼겨시니
진실로 임금을 잊으면 귀 불효인가 여기노라. <제5수>
- 윤선도, 「전회요(遣懷謠)」 -

* 망령된: 언행이 상식에서 벗어나 주책이 없는.
* 추성 진호루: 함경북도 경원에 있는 누각.
* 므음 호리라: 무엇을 하려고.

19.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에서는 현실과 이상의 괴리가 심화되고 있다.
- ② (가)와 (다)는 자연의 섭리를 깨닫는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 ③ (나)와 (다)에는 화자가 대상을 만날 수 없는 정황이 나타나 있다.
- ④ (가)~(다)에는 대립적 가치가 첨예하게 표출되고 있다.
- ⑤ (가)~(다)에서는 시간의 변화를 중심으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20. 시적 화자의 태도를 중심으로 (가)와 (나)를 비교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에는 대상에 대한 유화적인 태도가, (나)에는 독단적인 태도가 드러난다.
- ② (가)에는 대상에 대한 단정적인 태도가, (나)에는 회의적인 태도가 드러난다.
- ③ (가)에는 대상과의 관계 단절을 두려워하는 태도가, (나)에는 관계 형성을 열망하는 태도가 나타난다.
- ④ (가)에는 현실 상황에 대한 낙천적인 태도가, (나)에는 비판적인 태도가 드러난다.
- ⑤ (가)에는 현실 상황의 변화를 기대하는 태도가, (나)에는 변화될 수 없는 현실 상황을 안타까워하는 태도가 나타난다.

21. [A]와 [B]에 나타난 공통된 표현 효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문답 형식을 통해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②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정서를 구체화하고 있다.
- ③ 대구를 통해 안정적인 운율감을 조성하고 있다.
- ④ 반어적 표현을 통해 시적 긴장감을 고조하고 있다.
- ⑤ 어조 변화를 통해 정적인 분위기를 강화하고 있다.

22.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파초를 ‘또’ 머리말에 둔다고 한 것을 보니, 계속해서 파초를 돌보겠다는 의지를 알 수 있군.
- ② 파초를 위해 ‘종’이 된다고 한 것을 보니, 파초를 아끼는 마음을 알 수 있군.
- ③ ‘파초의 잎을 ‘치맛자락’으로 비유한 것을 보니, 파초는 ‘나’에게 모성적 존재임을 알 수 있군.
- ④ ‘나’와 파초를 ‘우리’로 묶어 표현한 것을 보니, ‘나’는 파초에 대해서 일체감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⑤ 파초와 ‘나’가 처한 상황이 차가운 겨울밤인 것을 보니, 시련과 고난의 상황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군.

23. (나)의 시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환—하고’, ‘아득—한’ 등의 ‘—’는 시어의 느낌을 풍부하게 한다.
- ② ‘밤나무’의 ‘여윈 가지’는 쓸쓸한 시적 분위기를 형성한다.
- ③ ‘흰나비’는 ‘누이동생’의 여윈 모습을 연상시킨다.
- ④ ‘묘지’는 화자가 죽은 누이를 떠올리는 공간이다.
- ⑤ ‘비’, ‘눈’, ‘별’ 등은 화자의 의지를 상징한다.

24. (다)의 각 수를 연결하여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제1수의 ‘옳다 하나 외다 하나’는 제2수의 ‘아무가’의 행위로 볼 수 있다.
- ② 제2수의 망령된 ‘내 일’은 제3수의 ‘내 뜻’에 상반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③ 제3수의 ‘추성’은 제4수의 ‘뒤편’과 ‘물’에 의해 그리움의 대상으로부터 먼 공간으로 인식될 수 있다.
- ④ 제4수의 ‘뜻’은 제5수의 ‘뜻’에 와서 더욱 확대되어 표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⑤ 제5수의 ‘임금 향한 뜻’은 제1수의 ‘내 몸의 해울 일’을 직접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5~2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2.06

무슨 관청 같은 집도 화산택이는 그리 달갑지 않았다. 아들을 만난 반가움보다도 수세미처럼 영클리는 심사를 주체할 수 없었다.

빨간 스웨터를 입고 너털 살 되어 보이는 계집아이가 딸끄러미 화산택이를 바라보고,

“아버지, 이거 누고 응?”

화산택이가 그렇게도 보고 싶어 하던 손녀딸이다.

“할매다!”

“우리 할매?”

“음!”

아들은 맥없는 대답을 하면서 험 고무신 한 켄레를 내왔다. 화산택이는 걸레로 터실터실 분 발뒤꿈치 더더기를 훑치면서,

“그렇기, 나고는 침 보니…….”

하는데, 아들은 손끝에 짚세기를 걸고 나가 쓰레기통에다 던져 버렸다. 고무신이 대견찮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길 걷는 데는 짚세기가 고작인데 하니 아직 날도 안 드러난 짚세기가 화산택이는 못내 아까웠다.

다다미방도 어색했지만, 눈이 부시도록 번들거리는 의롱이 두 개나 놓였고, 그 옆에는 앉은키만 한 경대도 놓였다. 벽에는 풀기 없는 무색옷들이 쭈르르 걸렸다. 모든 것이 낯선 것들이었다. ㉠ 모든 것이 손도 못 댈 것 같고 주저스럽고 조심스럽기만 했다. 우선 어디가 구들목이며 어디 어떻게 앉아야 할지, 마치 종이 상전 방에 불러 온 것처럼 앉을 자리부터가 만만치 못했다.

(중략)

화산택이는 아들과 마주 앉고, 며느리는 저만치 떨어져 양말을 기웠다. 모두 말이 없다. 손녀만이 제 아버지 등에 매달렸다, 제 어미 젖가슴에 손을 넣었다가 하는 것을 눈으로 좇고 있던 화산택이는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런 내 정신 봐라.”

그러면서 옆에 둔 보통이를 끌어당겨 풀기 시작했다. 더깨더깨 기운 피죄죄 때 문은 버선을 들어내고 검은 보통이를 또 하나 들어냈다. 들어낸 보통이를 풀어 헤치고 아들과 며느리 어중간에 밀어 놓으면서,

“목어 봐라, 꿀밤(도토리)떡이다. 급히 하느라고 진도 털 빠진 거로 해 노니 좀 딸딸하다만…….”

그러고는 한 덩이를 떼서 손녀를 주었다. 아들도 며느리도 손을 대지 않는다.

“애가 하도 즐긴다 싶어 해 왔다. 벨 맛은 없어도 귀한 거니 목어 봐라!”

며느리는 힐끗하고 궁둥이만 달짝할 뿐이었고, 아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한번 씹어 보던 손녀도 그만 폐폐 하고는 도로 갖다 놓는다. 그러자 아들이,

“저 방에 자리해라. 엄마 곤하겠다!”

“괜찮다. 벌써 잠이 오나!”

“일찍이 자소!”

이래서 화산택이는 몇 해를 두고 버른 아들네 집이었고 밤을 새워도 모자랄 쌓이고 쌓인 이야기를 할 사이도 경황도 없었다.

후끈후끈한 방에서 곤하면 입은 채 굴러 지던 습관은, 휘높은 판자 천장이며, 유리 바른 문이며, 싸늘해 보이는 윗가루 벽이며, 다다미방이 잠을 설레었다. 화산택이는 자꾸만 쓸쓸했다. 빛을 쥐었다가 놓친 것처럼 마음이 허전했다. ‘자식도 강보에 자식이지, 쫓쫓’ 돌아놓는다. ㉡ 건넌방에서는 소곤소곤 이야기 소리가 들려 왔다.

‘저거 조먼* 그만이지.’ 또 고쳐 누웠다. 애써 잠을 청해 본다.

그러나 잠 대신 화산택이는 어느새 오리나무 숲 사이로 황토 고갯길을 넘고 있다.

보리밭이 곧 마당인 넓은 초가집이다.

빈대 피가 댓잎처럼 굵힌 토벽, 메주 뜨는 냄새가 코를 찌르는 갈자리 방에서 손자들이 아랫도리 벋은 채 제멋대로 굴러 자고, 쭈물 사발을 옆에 놓고 신을 삼고 있는 맏아들, 갈퀴손으로 누더기를 집고 있는 맏며느리, 화산택이는 그만 당장이라도 뛰어가고 싶다. 아들의 등을 쓰담아 기침을 내려 주고 며느리와 무르팍을 맞대고 실컷 울고 나면 가슴이 후련해질 것만 같다.

또 뒤쳐놓는다.

‘아무리 시에미가 시에미 같지 않기로니 침 보는 시에미에게 인삿질도 없이, 본바없는 것 같으니, 그래도 마실 사람들은 작은아들 돈 잘 벌고 하리갈레* 메뉴리 봤다고 부러하더라만, 시장처럼 가시롭다. 지가 탈기 없는 것도, 신앙기가 있는 것도 다 기집 탓이지 머고. 여태껏 땅 한 뼘기 못 사는 것도 안살림 잘못 사는 탓이지 머고.’ 화산택이는 눈꼬리만 따갑고 잠은 점점 멀어 갔다.

‘지만 하더라도 일본서 근 십 년 만에 나왔으면 그만 지 형 말대로 농사나 짓고 수더분한 색시나 골라 장가들었으면 등 따지고 배 부릴 꺼로 머 공장을 하느니 하고 날뽀 땡기더니.’

화산택이는 어서 날이 새면 싶었다. 잠도 안 오거니와 아까부터 뒤가 마려운 것을 참아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날은 언제 썰지 모르겠고 뒤는 자꾸 급해 왔다. 화산택이는 참다못해 조심조심 더듬어 부엌으로 내려갔다. 부엌에서 다시 더듬어 밖으로 나갔다. 비는 그쳤고 갈라진 구름 사이로 별이 보였다. 뒷간이 있음 직한 곳을 이리저리 찾았으나 없었다. 집을 두 바퀴나 돌았으나 뒷간은 역시 없었다. ㉢ 대체 적산집* 뒷간이 밖에 있을 리가 없다. 화산택이는 뒷간이 없는 집이란 상상도 할 수 없었으나, 일이 급해서 그만 어수룩한 담 밑에다 대고 뒤를 보았다. ㉣ 한결 개분했다. 문살만 흰하면 나와서 뒤분 자리를 챙기리라 맘먹고 다시 들어왔다.

화산택이는 소스라쳐 일어났다. 날이 활짝 됐다. 아들 내외가 깰까 싶어 조심조심 밖으로 나왔다. 뒤분 자리는 공교롭게도 돌가루로 마련된 수채였다. 수채는 앞집으로 통했다. ㉤ 아침에 봐도 역시 뒷간은 없었다.

- 오영수, 「화산택이」 -

* 저거 조먼: ‘자기네들끼리 좋으면’의 방언.

* 하리갈레: 예전에 서양식 유행을 따르던 멋쟁이를 이르던 말.

* 적산집: 해방 전에 일본인들이 지은 신식 가옥을 이르는 말.

25. '화산택이'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작은아들이 내놓은 고무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 ② 꿀밤떡을 내뱉는 손녀의 행동에 노여움을 느낀다.
- ③ 예의가 없는 며느리를 나무라고자 마음먹는다.
- ④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작은아들을 못마땅해 한다.
- ⑤ 시골로 돌아갈 생각에 설레서 날이 빨리 새기를 바란다.

26. [A]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새 인물의 등장을 통해 새로운 사건의 시작을 알린다.
- ② 환상적 배경에서 벌어진 사건을 통해 허구성을 강화한다.
- ③ 사건의 줄기에서 벗어난 장면을 통해 위기감을 해소한다.
- ④ 동시에 진행되는 사건의 병치를 통해 사건을 지연시킨다.
- ⑤ 현재 상황과 대비되는 장면을 통해 내적 갈등을 고조한다.

27. <보기>를 참고할 때, ㉠~㉣ 중 성격이 다른 것은?

<보 기>

서술자는 자신의 시각에서 이야기를 직접 서술하거나, 인물의 시각에서 인물의 경험과 인식을 반영하여 서술한다. 즉 '서술'은 서술자가 담당하지만 '시각'은 서술자의 것일 수도, 인물의 것일 수도 있는 것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28.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의 소재를 대비하였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화산택이」는 시골과 도시, 자연과 문명 세계라는 이질적인 공간에서 영위되는 삶의 양식을 대비한 작품이다.

- ① 짚세기 : 고무신
- ② 초가집 : 적산집
- ③ 토벽 : 흰가루 벽
- ④ 갈자리 방 : 다다미방
- ⑤ 수채 : 뒷간

[37~3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12.06

S#29. 궁궐 외각의 작은 문(밤)

㉠ 보쌈 한 박 나인을 들고 가는 일단의 나인들. 역시 은밀하고 기민한 동작이다. 불안한 얼굴로 보자기를 하나 들고 뒤따라가는 한 나인.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다. 몸도 마음도 진정 시키기가 어렵다.

S#30. 산 계곡 은밀한 곳(밤)

보쌈을 풀고 나오는 박 나인. 나인 하나가 눈과 입을 풀어 주면 앞의 전경이 보인다. 가운데 최고 상궁인 최 상궁이 떡 버티고 서 있고 옆엔 기미 상궁, 그리고 나인들 예닐곱 명이 서 있다. 그 가운데 불안한 눈빛의 최 나인, 그리고 한 나인, 또 한 나인이 들고 있는, 보자기를 벗긴 술병까지. 이윽고 바닥에 풀려지는 박 나인. 박 나인, 뭔가 일이 크게 잘못되었음을 깨닫는데, 그런 상황에서 주변을 살피며 재빨리 술병 안에 무언가를 넣는 한 나인.

박 나인: (영문을 모르는 채 두려움에 떨고)

최고 상궁: 네 죄를 인정하겠느냐?

박 나인: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최고 상궁: 다시 묻겠다! 네 죄를 인정하느냐?

박 나인: (더욱 안타까워) 마마님, 무엇이옵니까? 무슨 연유로 이리 하시는지 알려 주시옵소서.

한 나인: …….

(중략)

S#47. 암자 안(밤)

들어오는 천수, 보편 박 나인이 한삼으로 입을 막은 채 토약질을 하고 있다. 천수, 얼른 들어와,

㉢ 천수: 막지 마시오! 토약질을 해야 살아난다고 했소.

하고는 얼른 박 나인의 옆으로 가 등을 쓰다듬고, 두드려 주며 토약질을 돕는다. 한참을 그러고 나니, 잠시 토약질을 멈추는 박 나인. 힘없이 누우려는데, 박 나인이 누웠던 곳에 작은 쪽지 하나가 있다. 쪽지를 발견하는 천수. 박 나인에게 말없이 쪽지를 건넨다. 박 나인, 받아 들어 펴 본다. 수라간에서 급히 썼는지, 종이에 간장으로 쓴 한 나인의 옛 한글 서찰이다. 보는 박 나인의 눈에 금방 눈물이 맺히고, 천수도 같이 보게 되나 천수의 얼굴은 복잡하다.

한 나인: (E*) 명이야, 살았느냐? 살았느냐? 지금 너를 죽일 약 병을 들고 어찌할 줄을 모르겠다.

S#48. 수라간(회상*, 밤)

급히 들어오는 한 나인. ㉣ 이리저리 휘돌아보다가 선반 옆 서랍 속에서 무언가를 급히 찾는다.

한 나인: (E) 순간, 부자탕은 감두탕이나 녹두로 해독할 수 있다는 네 말이 떠올랐다. 그러나, 네가 이걸로 살아날 수 있을지 알 수가 없구나. 살았느냐, 명이야…….

이윽고 녹두물 그릇을 찾은 듯 급히 품에 넣고 나간다.

S#49. 암자 안(밤)

눈물을 흘리며 보고 있는 박 나인, 옆에서 보는 천수. 박 나인에게 연민과 동질감이 느껴질수록 마음이 복잡하다.

한 나인: (E) 혹, 죽었거든 나를 용서치 말며 혹, 살았거든 내 말을 들어다오.

S#50. 수라간(회상, 밤)

급히 글을 쓰고 있는 한 나인의 모습. ㉤ 글을 쓰며,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고 있다.

한 나인: (E) 나도 일의 전모는 알 수 없으나, 네가 남자와 통정했다는 말을 나는 믿지 않는다. 믿지 않기에 너는 다시 궁으로 돌아와서는 안 된다. 그들의 눈에 띄어서도 안 된다. 멀리 도망가서 살아라. 살아다오! 그리해서 힘없이 너를 보낸 나를, 그들의 협박에 무릎 꿇은 나를 벌해 다오! 이를 어찌하면 좋으나, 명이야…….

S#51. 암자 안(밤)

박 나인,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데……, 천수, 조용히 나오고
- 김영현, 「대장금」 -

* E: 'Effect'의 약자로서 보통 효과음을 말함. 이 극본에서는 말하는 장면은 보이지 않고 목소리만 나오는 경우를 가리킴.

* 회상: 현재 상황에서 과거를 떠올리는 것을 말함. 이 극본에서는 지난 사건에 대한 정보가 담긴 서찰 내용의 재현을 가리킴.

37.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암시적이고 비유적인 대사들이 활용되고 있다.
- ② 사건의 발생 순서에 따라 장면이 연결되고 있다.
- ③ 시간적 배경에 의해 고즈넉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 ④ 인물 간의 우호적 관계와 대립적 관계가 드러나고 있다.
- ⑤ 장소의 변화에 따라 갈등이 해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38. [서찰]과 관련지어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한 나인’은 ‘박 나인’의 생존에 대해 확신하지 못했다.
- ② ‘박 나인’은 남자와 통정했다는 혐의를 받고 징벌을 당했다.
- ③ ‘한 나인’은 구체적인 증거물에 근거하여 ‘박 나인’이 결백하다고 보았다.
- ④ ‘박 나인’이 ‘한 나인’에게 알려 준 정보 덕분에 ‘박 나인’이 살 수 있었다.
- ⑤ ‘한 나인’은 ‘박 나인’을 살리려는 시도가 발각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불안해 했다.

39. ㉠~㉣ 중 <보기>의 촬영 기법을 적용하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양각(仰角, Low-angle): 주로 인물의 권위나 위세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카메라를 인물보다 아래쪽에 설치하여 올려 찍는 기법.

- ① ㉠ ② ㉡ ③ ㉢ ④ ㉣ ⑤ ㉤

[40~4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12.06

심청이 수궁에 머물 적에 옥황상제의 명이니 거행이 오죽 하랴. 사해 용왕이 다 각기 시녀를 보내어 아침저녁으로 문안하고, 번갈아 당번을 서서 문안하고 호위하며, 금수능라 비단옷에 화용월태 고운 얼굴 다 각기 잘 보이려고 예쁜 모습 웃는 시녀, 얹전하게 차린 시녀, 천성으로 고운 시녀, 수려한 시녀들이 주야로 모실 적에 사흘마다 작은 잔치, 닷새마다 큰 잔치를 베풀니, 상당에는 비단 백 필, 하당에는 진주 서 되었다. 이처럼 받들면서도 오히려 잘못하지나 않을까 조심이 각별했다.

이때 무릉촌 장 승상 맥 부인이 심 소저의 글을 벽에 걸어 두고 날마다 징험하되 빛이 변하지 아니하더니, 하루는 ㉠글 속자에 물이 흐르고 빛이 변하여 검어지니, '심 소저가 물에 빠져 죽었는가?' 하여 무수히 슬퍼하고 탄식하더니, 이윽고 물이 건히고 빛이 도로 황홀해지니, 부인이 괴이히 여겨 '누가 구하여 살아났는가?' 하며 십분 의혹하나 어찌 그러하기 쉬우리오.

그날 밤에 장 승상 맥 부인이 제물을 갖추어 강가에 나아가 심 소저를 위하여 혼을 불러 위로하는 제사를 바치려 마음먹고 시비를 데리고 ㉡강가에 다다르니, 밤은 깊어 삼경인데 첩첩이 쌓인 안개 산골짜기에 잠겨 있고, 첩첩이 이는 연기 강물에 어리었다. 편주(片舟)를 흘리저어* 중류에 띄워 놓고, 배 안에 제사상을 차리고 부인이 친히 잔을 부어 오열하며 소저를 불러 위로하니,

“아아! 슬프다, 심 소저야. 죽기를 싫어하고 살기를 즐거워함은 인정에 당연케늘 일련단심에 양육하신 부친의 은덕을 죽음으로써 갚으려 하고, 한 가닥 쇠잔한 목숨을 스스로 끊으니, 고운 꽃이 흩어지고 나는 나비 불에 드니 어찌 아니 슬플쏘냐. 한 잔 술로 위로하니 응당 소저의 혼이 아니면 없어지지 아니 하리니 속히 와서 흠향함을 바라노라.”

하며 눈물 뿌려 통곡하니 천지 미물인들 어찌 아니 감동하리. 뚜렷이 밝은 달도 구름 속에 숨어 있고, 사납게 불던 바람도 고요하고, 용왕이 도왔는지 강물도 고요하고, 백사장에 놀던 갈매기도 목을 길게 빼어 꾸루룩 소리 하며, 심상한 어선들은 가던 돛대 머무른다. 뜻밖에 강 가운데로부터 한 줄 ㉢맑은 기운이 뱃머리에 어렸다가 잠시 뒤에 사라지며 날씨가 화창해 지거늘, 부인이 반겨 일어서서 보니 가득히 부었던 잔이 반이나 없었으므로, 소저의 영혼을 못내 슬퍼하더라.

하루는 광한전 옥진 부인이 오신다 하니 ㉣수궁이 뒤늦는 듯 용왕이 겁을 내어 사방이 분주했다. 원래 이 부인은 심 봉사의 처 짝씨 부인이 죽어 광한전 옥진 부인이 되었더니, 그 딸 심 소저가 수궁에 왔다는 말을 듣고, 상제께 말미를 얻어 모녀 상봉 하려고 온 것이었다.

심 소저는 누신 줄을 모르고 멀리 서서 바라볼 따름이었다. 오색구름이 어린 오색 가마를 옥기린에 높이 싣고 벽도화 단계 화를 좌우에 벌여 꽃고, 각 궁 시녀들은 옆에서 모시고, 청학 백학들은 앞에서 모시며, 봉황은 춤을 추고, 앵무는 말을 전하는데, 보던 중 처음이더라.

이윽고 교자에서 내려 섬돌에 올라서며,

“내 딸 심청아!”

하고 부르는 소리에 모친인 줄 알고 왈각 뛰어 나서며,

“어머니 어머니, ㉤나를 낳고 초칠일 안에 죽었으니 지금까지 십오 년을 얼굴도 모르오니 천지간 끝없이 깊은 한이 깎 날이 없었습니다. 오늘날 이곳에 와서야 어머니와 만날 줄을 알았더라면, 오던 날 부친 앞에서 이 말씀을 여쭙었다라면 날 보내고 설운 마음 적이 위로했을 것을……. 우리 모녀는 서로 만나 보니 좋지만은 외로우신 부친은 뉘를 보고 반기시리까. 부친 생각이 새롭습니다.”

부인이 울며 말하기를,

“나는 죽어 귀히 되어 인간 생각 아득하다. 너의 부친 너를 키워 서로 의지하였다가 너조차 이별하니, 너 오던 날 그 모습이 오죽하랴. 내가 너를 보니 반가운 마음이야 너의 부친 너를 잃은 설움에다 비길쏘냐. 문노라. 너의 부친 가난에 질어 그 모습이 어떠한가. 응당 많이 늙었으리라. 그간 십수 년에 홀아비나 면했으며, 뒷마을 귀덕 어미 네게 극진하지 않더냐?” 얼굴도 대어 보며, 수족도 만져 보며,

“귀와 목이 희니 너의 부친 같기도 하다. 손과 발이 고운 것은 어찌 아니 내 딸이라. 내 끼던 ㉥옥지환도 내가 지금 가졌으며, ‘수복강녕’, ‘태평안락’ 양편에 새긴 돈 붉은 춤치 청홍당사 별매듭도 애고 내가 찾구나. 아비 이별하고 어미 다시 보니 다 갖추기 어려운 건 인간 고락이라. 그러나 오늘날 나를 다시 이별하고 너의 부친을 다시 만날 줄을 내가 어찌 알겠느냐? 광한전 말은 일이 직분이 허다하여 오래 비우기 어렵기로 도리어 이별하니 애통하고 딱하니 내 맘대로 못 하니 한탄한들 어이할쏘냐. 후에 다시 만나 즐길 날이 있으리라.”

하고 떨치고 일어서니, 소저 만류하지 못하고 따를 길이 없어 울며 하직하고 수정궁에 머물더라.

이때 심 봉사는 딸을 잃고 모진 목숨이 죽지 못하여 근근이 살아갈 제, 도화동 사람들이 심 소저가 지극한 효성으로 물에 빠져 죽은 일을 불쌍히 여겨 비석을 세우고 글을 새겼으며,

앞 못 보는 아버지 위해

제 몸 바쳐 효도하러 용궁에 갔네.

안개 어린 먼 바다에 마음도 푸르니

봄풀에 해마다 한이 가없네.

강가를 오가는 행인이 비문을 보고 아니 우는 이가 없고, 심 봉사는 딸이 생각나면 그 비를 안고 울더라.

- 작자 미상, 「심청전」 (완판본, 71장) -

* 흘리저어: 배 따위를 흘리가게 띄워서 저어

40.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초월적 인물을 통해 주인공의 운명이 예고되고 있다.
- ② 시대 배경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현실감을 획득하고 있다.
- ③ 간결한 문체를 사용하여 사건 전개 속도감을 높이고 있다.
- ④ 사건을 생동감 있게 서술하여 긴박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⑤ 독백과 대화의 반복적 교차로 인물의 내면 갈등이 드러나고 있다.

41. ㉠~㉣의 서사적 기능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심청의 생사 여부를 짐작하게 하는 징표이다.
- ② ㉡: 장 승상 댁 부인에게 이승과 저승의 경계로 인식되는 공간이다.
- ③ ㉢: 장 승상 댁 부인이 지닌 비범한 능력을 보여 주는 증거이다.
- ④ ㉣: 심청이 자신의 희생에 대해 보상을 받는 공간이다.
- ⑤ ㉣: 심청과 옥진 부인 사이의 관계를 확인시키는 징표이다.

42.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심청전」 완판본(71장)에는 장 승상 댁 부인의 등장, 수궁에서의 모녀 상봉, 삼입 시 등과 같이 경판본에 없는 대목이 보인다. 이러한 요소들은 서사의 분위기 형성이나 인물의 성격 구현, 주제 의식의 발현 등에 일정한 차이를 가져왔다.

- ① 옥진 부인의 등장은 심청의 위상을 높여 주는 역할을 하고 있군.
- ② 장 승상 댁 부인이 제사를 지내는 행위는 슬픈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군.
- ③ 비석에 새겨진 시는 심청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세간의 마음을 보여 주고 있군.
- ④ 심청과 옥진 부인이 만나는 대목은 혈연의 친밀감을 드러내는 데 기여하고 있군.
- ⑤ 옥진 부인이 심청에게 하는 말은 딸을 물에 빠지게 한 심 봉사의 어리석은 행위를 부각하고 있군.

43. ㉠을 표현하기에 가장 적절한 한자 성어는?

- ① 각골통한(刻骨痛恨) ② 물아일체(物我一體)
- ③ 이심전심(以心傳心) ④ 진퇴양난(進退兩難)
- ⑤ 천우신조(天佑神助)

[13~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11.11

(가)

산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없어집니다. 도로 가 들여다
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옵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 윤동주, 「자화상(自畫像)」 -

(나)

떡밤중 한밤중 새터 중똥 개들이 시끌썩하게 짖어댄다
이 개 짖으니 저 개도 짖어
들 건너 갈매 개까지 덩달아 짖어댄다
이런 개 짖는 소리 사이로
언뜻언뜻 까 여 다 여 따위 말끝이 들린다
밤 기러기 드높게 날며
추운 땅으로 떨어뜨리는 소리하고 남이 아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의좋은 그 소리하고 남이 아니다
콩밭 김칫거리

아쉬울 때 마늘 한 접 이고 가서
군산 묵은장 가서 팔고 오는 선제리 아낙네들
팔다 못해 파장떨이로 넘기고 오는 아낙네들

㉠ 시오릿길 한밤중이니

십릿길 더 가야지

빈 광주리야 가뻐지만

빈 배 요기도 못하고 오죽이나 가벼울까

그래도 이 고생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못난 백성

못난 아낙네 끼리끼리 나누는 고생이라

얼마나 ㉡ 의좋은 한세상이더냐

그들의 말소리에 익숙한지

어느새 개 짖는 소리 뜸해지고

밤은 내가 밤이다 하고 말하려는 듯 어둠이 눈을 멀똥거린다

- 고은, 「선제리 아낙네들」 -

[A]

(다)

한 해의 꽃잎을 며칠 만에 활짝 피웠다 지운
벚꽃 가로 따라가다가
미처 제 꽃 한 송이도 펼쳐 들지 못하고 멈칫거리는
늦된 그 나무 발견했지요.

들킨 게 부끄러운지, 그 나무

시멘트 개울 한 구석으로 비틀린 뿌리 감춰놓고
앞줄 아름드리 그늘 속에 반쯤 숨어 있었지요.

봄은 그 나무에게만 더디고 더더서

꽃철 이미 지난 줄도 모르는지,

그래도 어느 꽃나무와 다름없이

가지 가득 매달고 있는 명을 어딘가 안쓰러웠지요.

늦된 나무가 비로소 밝혀드는 ㉢ 꽃불 성화,

환하게 타오를 것이므로 나도 이미 길이 끝난 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한참이나 거기 멈춰 서 있었지요.

산에서 내려 두 달거리나 제자릴 찾지 못해

해매고 다녔던 저 ㉣ 난만한 봄길 어디,

늦깎이 깨달음 함께 얻으려고 한나절

나도 병든 그 나무 곁에서 서성거렸지요.

이 봄 가기 전 저 나무도 푸릇한 잎새 매달까요?

무거운 청록으로 여름도 지치고 말면

불타는 소신공양 틈새 ㉤ 가난한 소지(燒紙)*,

저 나무도 가지가지마다 지퍼 올릴 수 있을까요?

- 김명인, 「그 나무」 -

* 소지: 부정을 없애고 신에게 소원을 빌기 위하여 태워서 공중에
올리는 종이.

[B]

13.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상의 현재 상황에 대한 화자의 비판적 태도가 드러난다.
- ② 대상의 미래에 대한 화자의 낙관적 전망이 드러난다.
- ③ 대상과 일체가 되려는 화자의 의지가 드러난다.
- ④ 대상을 딱하게 여기는 화자의 마음이 드러난다.
- ⑤ 대상에 대한 화자의 대결 의식이 드러난다.

14.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자화상(自畫像)」은 1941년 『문우(文友)』에는 ‘우물 속의 자상화(自像畵)’라는 제목으로 게재되었다. 이 제목에서는 ‘우물’과 ‘그림’이 부각되어 있다. 상징적 관점에서 볼 때, 우물은 자신의 모습을 투영해 볼 수 있는 사물이고, 하늘을 향해 있는 동굴이며, 그 동굴의 원형인 모태(母胎)를 떠올리게 하는 공간이다. 이 점에서 보면, 이 시에서 우물 속의 자상화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화자의 인식과 태도를 다층적으로 담아내고 있는 그림이다.

- ① 제1연에서 ‘외딴’, ‘홀로’,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등으로 보아, ‘우물’은 화자의 모습을 투영해 볼 수 있는 내밀한 공간이겠군.
- ② 제2연에서 ‘우물 속’에 들어 있는 자연은 하늘을 향해 있는 우물 속의 그림이므로, 화자가 지향해 온 바를 담고 있겠군.
- ③ 제3연~제5연에서 ‘한 사나이’에 대한 화자의 반응들로 보아, 화자는 자신을 성찰하는 자세를 지니고 있겠군.
- ④ 제6연에서 자연과 ‘사나이’가 함께 나타나는 것은, 우물 속의 자상화를 들여다보는 화자가 존재 탐구를 끝냈음을 의미하겠군.
- ⑤ 제6연에서 ‘추억처럼’에는 고향과 같은 모태적 공간을 통해서 자신을 바라보려는 화자의 태도가 내포되어 있겠군.

15. [A]와 [B]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B]와 달리 대조를 통해 주제 의식을 강조한다.
- ② [A]는 [B]와 달리 유사한 구절을 병치하여 운율감을 조성한다.
- ③ [B]는 [A]와 달리 공감각적 심상을 통해 입체감을 부여한다.
- ④ [B]는 [A]와 달리 현재 시제를 사용하여 현장감을 부각한다.
- ⑤ [B]는 [A]와 달리 의성어를 통해 구체적인 생동감을 부여한다.

16.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군산 목은장과 ‘선제리’ 사이의 거리로, ‘한밤중’, ‘십릿길’과 더불어 ‘아낙네들’이 처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나타낸다.
- ② ㉡: ‘끼리끼리’와 상관되는 것으로, 공동체적 삶에 공감하는 화자의 태도가 내포되어 있다.
- ③ ㉢: ‘늦된 나무’가 피워 낼 ‘꽃’을 성스러운 불에 비유한 것으로, ‘늦된 나무’에 대한 화자의 기대가 내포되어 있다.
- ④ ㉣: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는 ‘봄길’로, 일탈적 삶에 대한 화자의 갈망이 간절한 것이었음을 나타낸다.
- ⑤ ㉣: 가을의 나뭇잎을 ‘깨달음’과 관련하여 표현한 것으로, ‘불타는 소신공양’과 대비되어 화자의 겸손한 태도를 드러낸다.

[27~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1.11

(가)

홍진(紅塵)에 묻힌 분네 이 내 생애 어떠하고
 옛사람 풍류를 미칠까 못 미칠까.
 천지간 남자 몸이 나만한 이 많건마는
 ㉠ 산림에 묻혀 있어 지락(至樂)을 모를 것인가.
 수간모옥(數間茅屋)*을 벽계수(碧溪水) 앞에 두고
 송죽(松竹) 울울리(鬱鬱裏)*에 풍월주인(風月主人) 되었어라.
 엇그제 겨울 지나 새 봄이 돌아오니
 도화행화(桃花杏花)는 석양리(夕陽裏)에 피어 있고
 녹양방초(綠楊芳草)는 세우(細雨) 중에 푸르도다.
 칼로 말라냈나 붓으로 그려냈나
 조화신공(造化神功)이 물물(物物)마다 현사롭다.
 수풀에 우는 새는 춘기(春氣)를 못내 겨워
 소리마다 교태로다.
 ㉡ 물이일체(物我一體)어니 흥이야 다를쏘냐.

- 정국인, 「상춘곡(賞春曲)」 -

* 수간모옥: 몇 칸 초가집.

* 울울리: 우거진 숲.

(나)

뒷집의 술쌀을 꾸니 거친 보리 한 말 못 찻다
 주는 것 마구 찢어 쥐어 빚어 피어 내니
 여러 날 주렸던 입이니 다나 쓰나 어이리.
 어와 저 백구(白鷗)야 무슨 수고 하느냐
 ㉢ 갈 숲으로 서성이며 고기 엿보기 하는구나
 나같이 군마음 없이 잠만 들면 어떠리.
 삼공(三公)이 귀하다 한들 강산과 바꿀쏘냐
 조각배에 달을 싣고 뉘싯대를 흘던질 제
 ㉣ 이 몸이 이 청흥(淸興) 가지고 만호후(萬戶侯)*인들 부러
 우랴.

헛글고 싯근* 문서 다 주어 내던지고
 필마(匹馬) 추풍에 체적을 쳐 돌아오니
 ㉤ 아무리 매인 새 놓인다 한들 이토록 시원하라.

동풍이 건듯 불어 적설(積雪)을 다 녹이니
 사면(四面) 청산이 옛 모습 나노매라
 귀밀의 해묵은 서리는 녹을 줄을 모른다.
 - 김광옥, 「울리유곡(粟里遺曲)」 -

* 만호후: 재력과 권력을 겸비한 제후 또는 세도가.

* 헛글고 싯근: 흐트러지고 시끄러운.

(다)

㉥ 굳이 내가 소유하지 않아도 즐기는 데 방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 오로지 원림(園林)이나 누정(樓亭)뿐이겠는가? 천하의 사물 가운데 그렇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만 원림이나 누정의 경우가 특별히 더 그런 것뿐이다.

서울에서 수십 리 이내의 가까운 지역에는 사람들이 조성한 별장과 농장이 많다. 어떤 것은 강가를 따라 있고, 어떤 것은 시내를 내려다보고 있으며, 어떤 것은 산을 등지고 계곡에 걸쳐 있기도 하다. 제각기 멋진 풍경 하나쯤은 갖추고 있다. 그러나 산수(山水)를 평가하고 논하는 사람들이 걸핏하면 저쪽 경치를 들어다 이쪽 경치와 비교하면서 앞다퉀 제가 본 풍경을 자랑하는 것을 많이 보았다. 정말 웃을 노릇이다.

빼어난 경관과 아름다운 풍경을 뽐내는 천하의 명소가 어디 한두 군데에 불과하라? 또한 그 고정된 견해와 평가가 있겠는가?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보이는 풍경이 바뀌고, 지경(地境)의 변화에 따라 느낌이 달라진다. 또 같은 장소라 해도 경관이 차이가 나고, 같은 풍경이라도 때에 따라 변모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것이 낫고 어느 것이 모자라다며 제각기 자랑하고, 어느 것이 뛰어나고 어느 것이 뒤진다며 제각기 평을 내린다면, 이것은 맛 좋은 술에게 소금처럼 짜지 않고 왜 맛이 좋으냐고 혼내는 격이요, 양고기와 돼지고기에게 채소와 과일처럼 담박한 맛을 내지 않고 왜 그렇게 기름진 맛을 내느냐고 화를 내는 격이다. ㉦ 이러한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은 천하의 이름난 산과 빼어난 승경(勝景)을 모조리 자기가 소유한 뒤에야 비로소 흡족해 할 것이다. 그러면 작은 불거리에 구속되어 큰 불거리를 놓치는 사람이 되지나 않을까?

- 박규수, 「범희문회서도원림(范希文懷西都園林)」 -

27.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설의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자족감을 표출하고 있다.
- ② (가)와 (다)는 색채의 대비를 통해 표현 효과를 높이고 있다.
- ③ (나)와 (다)는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계절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가)~(다)는 풍자적 표현을 활용하여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 ⑤ (가)~(다)는 시간의 흐름을 통해 사물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28. <보기>를 참고할 때, ㉠~㉤ 중 ㉡의 관점과 거리가 먼 것은?

—<보 기>—

(다)는 범회문이라는 사람이 화려한 저택을 거부하고 겸허한 삶을 살고자 했던 사연을 바탕으로 창작되었다. 작가는 세속적 소유를 거부한 범회문의 태도에 기대어 당대 사대부들의 삶에 드러난 속물적 태도를 비판한다. 나아가 대상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통찰을 이끌어 내고 있다.

- ① ㉠: 산림에 묻혀서 지락을 아는 것
- ② ㉡: 물아일체 속에서 흥을 느끼는 것
- ③ ㉢: 갈대숲을 서성이며 고기를 엿보는 것
- ④ ㉣: 만호후를 부러워하지 않고 청흥을 느끼는 것
- ⑤ ㉤: 구속에서 벗어나 시원함을 느끼는 것

29. [A]와 [C]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와 [C]에서 봄은 모두 인간의 유한성을 상징한다.
- ② [A]는 [C]와 달리 봄을 겨울과 대조하여 표현하고 있다.
- ③ [C]는 [A]와 달리 의인화를 통해 봄의 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④ [A]의 봄은 흥겨움을, [C]의 봄은 서글픔을 불러일으킨다.
- ⑤ [A]는 근경에서 원경으로, [C]는 원경에서 근경으로 봄을 묘사하고 있다.

30. [B]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조출하고 소박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 ② 사회적 규범을 따르는 자세가 드러나 있다.
- ③ 농가와 자연을 분리하려는 의지가 보인다.
- ④ 공동체를 위한 헌신적 삶이 드러나 있다.
- ⑤ 숭고한 삶에 대한 지향이 드러나 있다.

31. ㉡와 같은 사람의 태도로 보기 어려운 것은?

- ① 휴양림을 늘 내 곁에 두고 보고 싶으니 집에 작은 정원을 만들어야겠어.
- ② 주말에 지리산에 갔는데 갈 때마다 모습도 다르고 느낌도 달라서 참 좋았어.
- ③ 가족 여행 때 다녀온 강릉 경포대의 진면목을 알려면 「관동 별곡」을 읽어야 해.
- ④ 단풍은 설악산이 최고라 하니 단풍을 구경하려면 당연히 설악산으로 가야 해.
- ⑤ 내가 한라산을 가 보고 싶은 이유는 유명한 산악인들이 추천하는 명산이기 때문이야.

[40~4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11.11

형은 또 울었다. 밤이 깊도록 어머니까지 불러 가며 엉엉 소리 내어 울었다.

동생도 형 곁에서 남모르게 소리를 죽여 흐느껴 울었다. 그저 형의 설움과 울음을 따라 울 뿐이었다. 동생도 이렇게 울면서 어쩐지 마음이 조금 호뭇했다.

이날 밤의 감시는 밤새도록 엄했다.

바깥은 ㉠ 첫눈이 흩날리고 있었다.

형은 울음을 그치고 불쑥,

“야하, 눈이 내린다, 눈이, 눈이. 벌써 겨울이 다 됐네.”

물론 감시병들의 감시가 심하니까 동생의 귀에다 입을 대지도 않고 이렇게 혼잣소리처럼 지껄었다.

“저것 봐, 저기 저기, 에에이, 모두 잠만 자구 있네.”

동생의 허리를 쿡쿡 찌르지만 하면서…….

어느새 양덕도 지났다. 하루하루는 수월히도 저물어 갔고 하늘은 변함없이 푸르렀을 뿐이었다. 산도 들판도 눈에 덮여 있었다. 경비병들의 겨울 복장을 바라보는 형의 얼굴에는 친진한 애들 같은 선망의 표정이 어려 있곤 했다. 날로 날로 풀이 죽어 갔다.

어느 날 밤이었다. 일행도 경비병들도 모두 잠들었을 무렵, 형은 또 동생의 귀에다 입을 대고, 이즈음에 와선 늘 그렇듯 별나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그 새끼 생각이 난다. 맘이 꽤 좋았겠이야이.”

㉡ “……”

“난 원래 다리에 ㉢ 담증이 있는데이. 너두 알잖니. 요새 좀 이상한 것 같아야.”

하고는 혜죽이 웃었다.

㉣ “……”

동생은 놀라 돌아다보았다. 어느 때 없이 형은 쓸쓸하게 웃으면서 두 팔로 동생의 어깨를 천천히 그려안으면서,

“칠성아, 야하, 흠쩍은 춥다.”

㉤ “……”

“저 말이다, 엄만 날 늘 불쌍히 여겼었이야, 잉. 야, 칠성아, 칠성아, 내 다리가 좀 이상헌 것 같아야이.”

㉥ “……”

동생의 눈에선 다시 눈물이 비어져 나왔다.

형은 별안간 두 눈이 휘둥그레져서 동생의 얼굴을 멀끔히 마주 쳐다보더니,

“왜 우니, 왜 울어, 왜, 왜. 어서 그치지 못하겠니.”

하면서도 도리어 제 편에서 또 울음을 터뜨리고 있었다.

이튿날, 형의 걸음걸이는 눈에 띄게 절름거렸다. 혼잣소리도 풀이 없었다.

“그만큼 걸었음 무던히 왔구만서두. 에에이, 이젠 좀 그만 걷지달, 무던히 걸었구만서두.”

하고는 주위의 경비병들을 훌끔 걸눈질해 보았다. 경비병들은 물론 알은체도 안 했다. 바뀐 사람들은 꽤나 사나운 패들이었다.

그날 밤 형은 동생을 향해 쓸쓸하게 웃기만 했다.

“칠성아, 너 집에 가거든 말이다, 집에 가거든…….”

하고는 또 무슨 생각이 났는지 별죽 웃으면서,

“히히, 내가 무슨 소릴 하니. 네가 집에 갈 뻔 나두 갈 텐데, 앙 그러니? 내가 정신이 빠졌어.”

한참 뒤엔 또 동생의 어깨를 그려안으면서,

“야, 칠성아!”

동생의 얼굴을 똑바로 마주 쳐다보기만 했다.

바깥은 바람이 세었다. 거적문이 습기 어린 소리를 내며 열리고 닫히곤 하였다. 문이 열릴 때마다 눈 덮인 초라한 ㉦ 들판이 부유스름하게 아득히 뻗었다.

동생의 눈에선 또 눈물이 비어져 나왔다.

형은 또 벌컥 성을 내며,

“왜 우니, 왜? 호호호.”

하고 제 편에서 더 더 울었다.

며칠이 지날수록 ㉧ 형의 걸음은 더 절름거려졌다. 행렬 속에서도 별로 혼잣소리 지껄이지 않았다. 평소의 형답지 않게 꽤나 조심스런 낫색이었다. 둘레를 두리번거리며 경비병의 눈치를 흘끔거리기만 했다. 이젠 밤에도 동생의 귀에다 입을 대고 이것저것 지껄이지 않았다. 그러나 먼 개 짖는 소리 같은 것에는 여전히 흠칫흠칫 놀라곤 했다. 동생은 또 참다못해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형은 왜 우느냐고 화를 내지도 않고 울음을 터뜨리지도 않았다. 동생은 이런 형이 서러워 더 더 흐느꼈다.

그날 밤, 바깥엔 ㉨ 함박눈이 내렸다.

형은 불현듯 동생의 귀에다 입을 댔다.

“너, 무슨 일이 생겨두 날 형이라구 글지 마라, 어영?”

여느 때답지 않게 숙성한 사람 같은 억양이었다.

“울지두 말구 모르는 체만 해, 꼭.”

동생은 부러 큰 소리로,

“야하, 눈이 내린다.”

형이 지껄일 소리를 자기가 지금 대신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 “……”

그러나 이미 형은 그저 꼭하니 굳은 표정이었다.

동생은 안타까워 또 울었다. 형을 그려안고 귀에다 입을 대고, “형아, 형아, 정신 차려.”

이튿날, 한낮이 기울어서 어느 영 기슭에 다다르자, 형은 동생의 허벅다리를 쿡 찌르고는 건넌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형의 걸음걸이를 주의해 보아 오던 한 사람이 뒤에서 따발총을 휘둘러 쏘았다.

형은 앉은 채 앞으로 꼬꾸라졌다. 그 사람은 총을 어깨에 둘러 메면서,

“메칠을 더 살겠다구 뼈득대? 뼈득대길.”

- 이호철, 「나상(裸像)」 -

40.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외양을 상세하게 묘사해 인물을 회화화하고 있다.
 - ② 내적 독백을 통해 시간의 흐름을 지연시키고 있다.
 - ③ 현재와 과거를 교차 서술하여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 ④ 간접 인용을 활용하여 사건 전개에 신빙성을 높이고 있다.
 - ⑤ 주인공의 반복적 행위를 서술하여 성격을 구체화하고 있다.

41.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형'의 동심을 불러일으킨다.
 - ② ㉡은 형제 사이의 갈등을 유발한다.
 - ③ ㉢은 '형'의 내면 풍경을 보여 준다.
 - ④ ㉣은 '형'의 최후를 암시한다.
 - ⑤ ㉥은 비극적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42. 윗글을 시나리오로 각색하고자 할 때, ㉠~㉥의 처리 방법에 대한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에서는 '모두 잠들었을 무렵'이라는 상황을 고려하여, 잠든 척 누워 있는 '동생'의 모습을 보여 주면 좋겠군.
 - ② ㉡에서는 '놀라 돌아다보았다'라는 표현에 주목하여, 걱정스레 '형'을 바라보는 '동생'의 표정을 보여 주면 좋겠어.
 - ③ ㉢에서는 춤다면서 끌어안는 '형'에게 기대어, 공감하듯 고개를 끄덕이는 '동생'의 모습을 보여 주면 좋겠군.
 - ④ ㉣에서는 아파하는 '형'을 눈물 어린 표정으로 바라보면서, 아픔을 나누지 못하는 '동생'의 안타까운 눈빛을 보여 주면 좋겠어.
 - ⑤ ㉥에서는 '부러 큰 소리로' 말했음에도 아무 반응이 없자, '형'을 무심하게 바라보는 '동생'의 모습을 보여 주면 좋겠군.

43. <보기>를 참조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이 작품에서 작가는 북한군의 포로가 된 형제가 전쟁이라는 상황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를 실감 나게 그리고 있다. 특히 천진난만한 '벌거숭이 인간'인 '형'이 외부의 폭력에 희생되는 모습을 묘사하여 근원적인 인간성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일깨워 준다. 또한 이 작품은 포로 호송이라는 상황을 빌려 구성원을 획일화하는 사회를 우회적으로 비판한다.

- ① 이 작품의 제목은 본연의 순수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형'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 ② '경비병'은 폭력적 상황 속에서 인간 본연의 모습을 억압하고 길들이는 감시망을 상징한다.
- ③ '형'과 '동생'이 계속 걸어야만 하는 강제적 상황은 구성원을 획일화하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 ④ 자신을 압박해 오는 공포에 무감각한 '형'의 모습은 천진성을 파괴하려는 폭력에 대한 저항을 나타낸다.
- ⑤ '형'이 그를 지켜보던 '경비병'의 총에 맞는 것은 감시자의 요구를 수행할 수 없는 데 따른 희생을 보여 준다.

[47~5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11.11

[앞부분의 줄거리] 선비 유영이 꿈에서, 죽은 운영과 김 진사를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다. 안평대군은 궁녀 열 명을 뽑아 가르치면서 궁 밖과의 인연을 금했으나, 궁녀 운영은 김 진사와 사랑에 빠졌다. 김 진사의 노비인 특의 꾀에 따라 들은 도망가려고 운영의 의복과 재물을 빼냈다.

진사는 다른 말은 하지 않고, 오로지 일렀습니다.

“너는 재물을 잘 지키고 있겠지? 내가 장차 그것을 다 팔아서 부처께 지성으로 발원하여 오래된 약속을 실천하리라.”

특은 집으로 돌아가 혼잣말로 일렀습니다.

“궁녀가 나오지 못했으니, 그 재물은 하늘이 내게 준 것이로다.”

특은 벽을 향해 남몰래 웃음을 지었으나, 다른 사람이 그것을 알 리가 없었습니다. 하루는 특이 자기 옷을 찢고 코를 스스로 때려, 피를 온몸에 흠뻑 바르고 머리를 풀어 헤친 채 맨발로 달려 들어와 뜰에 엎드려 울면서 말했습니다.

“제가 강도에게 습격을 당했습니다.”

그러고는 기절한 척했습니다. 진사는 특이 죽으면 재물을 묻은 곳을 알 수 없게 될까 염려되어, 약을 입에 흘려 넣는 등 특을 살려 냈습니다. 그러자 특이 십여 일 만에 일어나 말했습니다.

“제가 혼자 산 속에서 지키고 있는데 많은 도적들이 갑자기 들이닥쳤습니다. ① 박살날 것 같아 죽을힘을 다해 달아나 겨우 목숨을 보존하게 되었습니다. 이 보물이 아니었다면 제가 어찌 이런 위험에 처했겠습니까? 운명이 이리도 험한데 어찌 빨리 죽지 않는고!”

말을 마친 특은 발로 땅을 차고 주먹으로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진사는 부모님이 알까 두려워 따뜻한 말로 위로하여 보냈다가, 뒤늦게야 특의 소행을 알고 노비 십여 명을 거느리고 가서 불시에 특의 집을 포위하고 수색을 했습니다. 그러나 금비녀 한 쌍과 거울 하나만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 물건을 장물로 삼아 관가에 고발하여 나머지 물건들도 찾고 싶었으나, 일이 누설될까 두려워 고발하지 못했습니다. 진사는 그 재물이 없으면 불공을 드릴 수 없었기에 특을 죽이고 싶었으나, 힘으로 제압할 수 없어 애써 침묵하였습니다.

특은 자기 죄를 알고, 궁궐 담장 아래에 사는 맹인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내가 며칠 전 새벽에 이 궁궐 담장 밖을 지나가는데, 웬 놈이 궁궐 안에서 서쪽 담을 넘어 나왔소. 도적인 줄 알고 소리를 지르며 쫓아가자, 그놈은 가졌던 물건을 버리고 달아났소. 나는 그 물건을 집에 보관하고 있으면서 임자가 찾아가기를 기다렸소. 그런데 우리 주인은 본래 염치가 없어서 내가 물건을 얻었다는 소문을 듣고 몸소 내 집에 와서 그 물건들을 찾았소. 내가 다른 보물은 없고 단지 비녀와 거울 두 가지만 있다고 대답하자, 주인은 몸소 수색을 해서 과연 그 두 물건을 찾아 내었소. 주인은 그것도 부족해서 바야흐로 나를 죽이려고 하오. 그래서 내가 달아나려고 하는데, 달아나면 길(吉)하겠소?”

맹인이 말했습니다.

“길하다.”

그때 맹인의 이웃이 옆에 있다가 그 이야기를 다 듣더니 특에게 말했습니다.

“너의 주인은 어떤 사람인데, 이처럼 노비에게 포악하게 구느냐?”

특이 말했습니다.

“우리 주인은 나이는 어리나 문장에 능해서 조만간 틀림없이 급제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탐욕스러우니, 훗날 벼슬 길에 올라 조정에 섰을 때 마음 씩씩이가 어떠할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말들이 전파되어 궁중으로 들어가 대군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대군은 크게 화가 나서 남궁 사람들에게 서궁을 수색하게 하니, 제 의복과 보화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대군은 서궁의 궁녀 다섯 사람을 붙잡아 뜰 가운데 세우고, 눈앞에 형장을 얹히 갖춘 다음 명령하였습니다.

“이 다섯 사람을 죽여 다른 사람들을 경계하라.”

대군은 또 곤장을 잡은 사람에게 지시하였습니다.

“곤장 수를 헤아리지 말고 죽을 때까지 때려라.”

이에 다섯 사람이 말했습니다.

“한마디 말만 하고 죽기를 원합니다.”

대군이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든지 그간의 사정을 다 털어놓도록 해라.”

은심이 말했습니다.

“남녀의 정은 귀하든 천하든 사람이라면 모두 다 있는 법입니다. 한번 깊은 궁에 갇혀서 홀로 지내니, 꽃을 보면 눈물 흘리고 달을 대하여 슬퍼했지요. 매실을 피꼬리에게 던져 쌍쌍이 날지 못하게 하고, 발을 쳐서 제비가 쌍쌍이 깃들지 못하게 함은 부러움과 질투심 때문이었습니다. 한번 궁궐의 담을 넘으면 인간 세상의 즐거움을 알 수 있음에도 저희가 그러하지 않은 것은 어찌 힘이 부족해서였겠습니까? 다만 저희는 오로지 주군의 위엄을 두려워하여, 이 마음을 굳게 지키면서 궁중에서 말라 죽을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주군께서는 이제 죄 없는 저희들을 죽이려 하시니, 저희들은 황천에서도 눈을 감지 못할 것입니다.”

비취가 초사(招辭)를 올려 말했습니다.

“주군께서 보살피 주신 은혜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도 깊은 지라 저희들은 감동하고 두려워하여 오로지 글짓기와 거문고 연주만을 일삼을 뿐이었습니다. 이제 셋지 못할 악명이 서궁에 미쳤으니 사는 것이 죽는 것만 못하게 되었습니다.”

- 작자 미상, 「운영전」 -

* 초사: 범죄 사실에 대한 죄인의 진술.

47.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진사'는 재물을 찾기 위해 '특'의 집을 수색했다.
- ② '특'은 운영이 도둑을 맞았다고 '맹인'에게 말했다.
- ③ '맹인의 이웃'이 들은 말이 전과되어 궁중에 들어갔다.
- ④ '대군'은 소문을 듣고 서궁을 수색하게 했다.
- ⑤ '은섬'은 억울해 하면서도 다른 궁녀를 원망하지 않았다.

48. '궁궐의 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담은 위선과 진실을 구별하는 경계이다.
- ② 담 안은 물질적 욕망이 지배하는 공간이다.
- ③ 담 안의 궁녀들은 담 밖의 세상에 관심이 없다.
- ④ 담을 넘는 것은 '대군'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다.
- ⑤ 담 밖은 담 안과 달리 신분적 위계가 없는 공간이다.

49. <보기>를 참조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운영전」의 액자 속 이야기는 주인공이 서술한 것이어서, 서사는 운영과 김 진사의 시선에 포착된 현실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예전대 운영을 포함한 궁녀들을 억압하는 '대군'은 그들에게 베푼 은혜로 인해 악인으로 단정되지 않는 반면, 음모를 꾸민 '특'은 간교한 인물로만 부각된다. 이런 인물들의 개입으로 인해 금지된 사랑을 하는 주인공의 위기도 여느 고전 소설과 달리 현실적 긴장감을 띠게 된다. 이로써 이 소설은 현실의 문제를 보다 첨예하게 드러낸다.

- ① 운영도 '대군'을 배신했지만 '특'의 배신만이 부각되는 것은 운영이 서술자이기 때문이군.
- ② 달아나면 길할 것이라고 말한 '맹인'의 태도 때문에 주인공의 금지된 사랑은 위기에 처하게 되는군.
- ③ '특'이 남몰래 웃음을 지었다는 진술에서 그의 간교한 성격을 드러내려는 서술자의 의도가 느껴지는군.
- ④ 궁녀들을 박해하는 '대군'이 악인으로 단정되지 않는 까닭이 '대군'의 은혜를 인정하는 '비취'의 말에서 나타나는군.
- ⑤ 궁녀들에게 내려진 금기를 부당하다고 느끼면서도 지킬 수밖에 없었다는 '은섬'의 말에 현실의 문제가 드러나는군.

50. '특'이 ㉠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을 때,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었으나 겨우 도망했습니다.”

- ① 내우외환(內憂外患)
- ② 명재경각(命在頃刻)
- ③ 사고무친(四顧無親)
- ④ 오리무중(五里霧中)
- ⑤ 자승자박(自繩自縛)

[13~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11.09

(가)

어제도 하룻밤
나그네집에
까마귀 까악까악 울며 새었소.

오늘은
또 몇 십 리
어디로 갈까.

산으로 올라갈까
들로 갈까
오라는 곳이 없어 나는 못 가요.

말 마소 내 집도
정주 확산
차 가고 배 가는 곳이라도.

여보소 공중에
저 기러기
공중엔 길 있어서 잘 가는가?

여보소 공중에
저 기러기
열십자 북판에 내가 섰소.

갈래갈래 갈린 길
길이라도
내게 바이 갈 길은 하나 없소.

- 김소월, 「길」 -

(나)

오이밭에 벌배채* 통이 지는 때는
산에 오면 산 소리
별로 오면 벌 소리

산에 오면
큰솔밭에 빠꾸기 소리
잔솔밭에 덜거기* 소리

별로 오면
논두렁에 물닭의 소리
갈밭에 갈새 소리

산으로 오면 산이 들썩 산 소리 속에 나 홀로
㉠ 별로 오면 벌이 들썩 벌 소리 속에 나 홀로

정주 동림 구십여 리 진진 하룻길에
산에 오면 산 소리 벌에 오면 벌 소리
적막강산에 나는 있노라

- 백석, 「적막강산」 -

* 벌배채: 들 배추, 야생 배추의 방언.
* 덜거기: 늙은 장끼.

(다)

장부의 하울 사업 아는가 모르는가
효제충신(孝悌忠信)밖에 하울 일이 또 있는가
㉡ 어즈버 인도(人道)에 하울 일이 다만 인가 하노라 <1장>

남산에 많던 솔이 어디로 갔단 말고
난(亂) 후 부근(斧斤)*이 그다지도 날뻐시고
㉢ 두어라 우로(雨露)곤 깊으면 다시 불까 하노라 <2장>

창밖에 세우(細雨) 오고 뜰 가에 제비 나니
적객*의 회포는 무슨 일로 끝이 없어
㉣ 저 제비 비비(飛飛)를 보고 한숨 겨워하나니 <3장>

적객에게 벗이 없어 공량(空樑)*의 제비로다
종일 하는 말이 무슨 사설 하는지고
㉤ 어즈버 내 풀어낸 시름은 널로만 하노라 <4장>

인간(人間)에 유정한 벗은 명월밖에 또 있는가
천 리를 멀다 아녀 간 테마다 따라오니
㉥ 어즈버 반가운 옛 벗이 다만 넌가 하노라 <5장>

설월(雪月)에 매화를 보려 잔을 잡고 창을 여니
섞인 꽃 여윈 속에 잦은 것이 향기로다
어즈버 호접(蝴蝶)이 이 향기 알면 애 끊일까 하노라 <6장>
- 이신의, 「단가 육장」 -

* 부근: 큰 도끼와 작은 도끼.
* 적객: 귀양살이하는 사람.
* 공량: 들보.

13.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연물과의 관계를 통해 화자의 현재 상황을 제시한다.
- ② 시각의 대립을 통해 부정적 현실 인식을 드러낸다.
- ③ 역동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생동감을 자아낸다.
- ④ 회상을 통해 화자 자신의 삶을 반성한다.
- ⑤ 명암의 대비를 통해 시상을 전개한다.

14. (가)에서 외로움의 정서를 심화하는 상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오늘’도 정처 없이 ‘길’을 가야 함.
- ② ‘오라는 곳’이 없음.
- ③ ‘내 집’이 있어도 가지 못함.
- ④ ‘기러기’와 떨어져 있음.
- ⑤ 갈 곳 없이 ‘열십자 북판’에 서 있음.

15.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1연의 1행은 ‘벌배채’가 여물어 가는 때라는 의미로 ‘산’과 ‘벌’의 계절적 배경을 드러낸다.
- ② 1연의 2행~3행은 ‘산’과 ‘벌’에 대한 경험을 청각적으로 제시한다.
- ③ 2연과 3연은 ‘산’과 ‘벌’에서의 청각적 체험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④ 4연은 ‘산’이 ‘벌’과 상반된 공간적 의미를 지님을 드러낸다.
- ⑤ 5연은 ‘산’과 ‘벌’에 대한 체험의 의미를 집약하여 마무리한다.

16. (가)와 (나)를 비교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의 제목은 제재를, (나)의 제목은 주제 의식을 나타내고 있다.
- ② (가), (나) 모두 시어나 시구의 반복을 통해서 리듬감을 조성하고 있다.
- ③ (가)의 ‘정주 확산’, (나)의 ‘정주 동림’은 화자가 경험한 구체적 공간이다.
- ④ (가)의 ‘갈린 길’은 공간적 성격을, (나)의 ‘하룻길’은 시공간적 성격을 띤다.
- ⑤ (가)는 의문과 확인을 통해, (나)는 서술어의 제한적 사용을 통해 화자의 의지를 드러낸다.

17. (다)의 ㉠~㉣ 중 <보기>의 내용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은?

—<보 기>—

「단가 육장」에서 작가는 귀양살이가 단기간에 끝나지 않으리라는 우려 속에서도 정계에 복귀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18. (다)에서 화자와 대상의 관계가 (나)의 ㉡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1장 ② 2장 ③ 3장 ④ 5장 ⑤ 6장

[21~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11.09

하루는 승상이 심사가 상쾌하여 정신을 깨달아 내당에 들어가 부인을 위로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어려서부터 남에게 해를 끼친 일이 없는지라. 아무리 생각하여도 저것이 우리의 골육이니, 남은 다 흉물이라 하여도 출산할 때에 선녀의 말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무심한 것 이라면 어찌 선녀가 와서 해산까지 시켰으리오? 필경 무슨 이상한 일이 있을 듯하니, 아무리 흉악해도 집에 두고 나중을 보사이다.”

하고 저녁을 먹으니, 그것이 밥상 곁에서 밥 먹는 소리를 듣고는 이불 속에서 데굴데굴 굴러 나와 승상 곁에 놓이었다. 승상이 크게 놀라 이윽히 보다가 갑자기 생각하되, ‘이것이 귀와 눈이 없건마는 밥 먹는 소리를 듣고 나오니 필연 밥을 먹고자 함이라. 아무렇거나 밥을 주어 보리라.’ 하였다. 부인도 고이하여 밥을 갖다가 곁에 놓으니, 그것의 한쪽 옆이 들먹들먹하더니 한 모서리가 봉긋하며 마치 주걱 모양 같은 부리를 내밀어 밥을 완연히 먹었다. 승상이 하도 고이하여 부인을 돌아보고 말하기를, “이것이 입이 없는가 하였는데 밥을 먹으니, 사람일 것 같으면 태어난 지 십여 일 만에 어찌 한 그릇 밥을 다 먹으리오? 아무렇거나 밥을 더 주어 보라.”

하였다.

부인이 웃고 밥을 또 가져다 놓으니, 그것이 주는 대로 먹으며 승상과 부인이 더욱 고이하게 여겼다. 그것이 밥 먹는 대로 점점 자라 큰 동이만 하게 되었다. 승상이 부인을 청하여 함께 보고 크게 의혹하여 가로되,

“이후는 밥을 끊지 말고 아침저녁으로 먹이라.”

하고,

“매양 이것저것 하지 말고 이름을 지어 원(圓)이라 하라.”

하였다.

밥 먹기를 잘하여 점점 자라 큰 방 안에 가득하니, 더욱 흉하고 고이함을 측량치 못하여 말하기를,

“원이 더 자라면 방을 찢을까 싶으니 넓은 집으로 옮기자.”

하고, 노복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것을 여럿이 옮겨 후원 월영각에 가져다 두라.”

하였다. 비복이 겨우 옮겨 월영각에 두고 아침과 저녁을 공급 하였다. 몇 년 안에 한 섬의 밥을 능히 먹으니, 원이 점점 자라 방이 터지게 되었다. 승상 부부와 비복들이 그 연고를 알지 못하여 답답하여 밤낮 근심으로 지내는데, 세월이 물 흐르듯 하여 어느덧 십여 년이 되었다.

(중략)

이때 승상이 부인과 함께 집에 돌아오니 내실(內室)이 텅 비어 있었다. 가뜩이나 염려하던 차에 의혹이 가슴에 가득하여 집안 내외인을 다 찾으니, 비복 중에 한 사람이 먼저 와서 아뢰되, “월영각에 난데없는 선동(仙童)이 노복 등을 부르시나 차마 혼자 가지 못하여 모두 보온즉, 방 안에 가득한 것은 없고 한 소년 선동이 앉아서 ‘아버님께서 집에 돌아와 계시냐.’ 물으 시니, 그 연고를 알지 못하겠나이다.”

승상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그 비복을 데리고 월영각에 가보니, 한 소년이 승상을 보고 섬돌 아래로 내려와 앞뒤로 가로되, “소자는 십 년을 부모 걱정시키던 불초자 원이로소이다.”

승상이 우연히 그 형상을 보고 급히 부인을 청하여 좌정하고 소년을 불러 대청 위에 앉히고 묻기를,

“이 일이 하도 고이하니 사실을 자세히 이르라.”

하였다.

소년이 아뢰기를,

“오늘 묘시(卯時)에 붉은 도포를 입은 선관이 내려와 이르기를, ‘남두성이 옥황상제께 득죄하여 십 년 동안 허물을 쓰고 세상을 보지 못하게 하였는데, 죄악이 다 끝났다.’ 하고, 허물을 벗겨 방 안에 두고 이르기를, ‘이 허물을 가져갈 것이로되 네 부모께 뵈어 확실한 자취를 알게 하라.’ 하고 갔사오니, 소자가 보자기를 벗고 보온즉 허물이 곁에 놓여있고 책 세 권이 놓였 사오니, 십 년 불효를 어찌 다 아뢰리이까?”

승상이 자세히 살펴보니 과연 허물이 방 안에 놓여 있고 천서(天書) 세 권이 분명히 놓였거늘, 마음에 크게 놀라고 기뻐하여 소년의 손을 잡고 마음 가득 기뻐하여 말하기를,

“네가 십 년 동안을 보자기 속에 들어 있었으니 무슨 알 만한 일이 있을 것이니, 자세히 일러서 우리의 의혹을 덜게 하라.”

원이 고개를 숙여 재배하고 말하기를,

“소자가 보자기 속에서 십 년 동안 고행하였사오니 아무런 줄을 몰랐사오니 황송함을 이길 수 없사옵니다.”

승상 부부가 그제야 원을 안고 등을 어루만지며 가로되,

① “네가 어이하여 십 년 고생을 이다지도 하였느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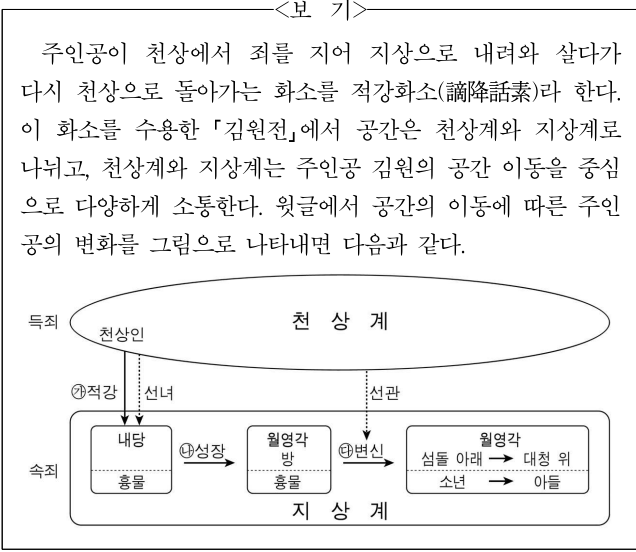
하고 못내 기뻐하였다. 내외 상하(內外上下)며 이웃과 친척 가운데 뉘 아니 기뻐하리오.

- 작자 미상, 「김원전」 -

21.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① 김 승상은 흉물의 탄생을 자신의 탓으로 여겼다.
- ② 부인은 흉물이 밥을 먹자 근심했다.
- ③ 노복은 흉물을 대하는 부인의 태도를 비웃었다.
- ④ 김원은 흉한 모습이 부모께 걱정을 끼쳤다고 여겼다.
- ⑤ 김 승상 부부는 이웃의 반응을 보고 의혹을 해소했다.

※ <보기>를 참고하여 22번과 23번의 두 물음에 답하시오.



22.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의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의 결과로 얻게 된 '이것'이라는 호칭은 주인공이 사람으로 인식되지 않음을 보여 준다.
- ② ㉠의 성격 때문에 ㉡의 과정에 선관이 개입한다.
- ③ ㉡에서 '밥' 먹기를 통해 홍물은 이름을 얻게 되어 '골육'으로서의 성격이 강화된다.
- ④ ㉡의 결과를 비복은 김 승상에게 보고하여 부자 관계 확인의 정당성을 제시한다.
- ⑤ ㉡ 이후, 부자 관계를 확인받으려는 김원의 바람은 '불초자'라는 호칭으로 구체화된다.

23. <보기>를 바탕으로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의 공간 이동은 죄의 대가라는 점에서 주인공이 ㉠에 대해 수동적임을 알 수 있다.
- ② ㉡, ㉢는 ㉠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천상계가 지상계보다 근원적인 공간임을 알 수 있다.
- ③ ㉡, ㉢에 대한 부모의 의심은 천상계와 다른 지상계 나름의 질서가 있음을 보여 준다.
- ④ ㉡, ㉢에 김원과 부모가 모두 참여하는 것은 지상계의 의지만으로 천상계의 질서가 구현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 ⑤ ㉢는 증거물을 통해 부모에게 확인받는다라는 점에서 천상계의 질서는 지상계와의 소통 속에서 구현된다고 할 수 있다.

24. ㉠의 상황을 표현한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고진감래(苦盡甘來) ② 괘목상대(刮目相對)
- ③ 권불십년(權不十年) ④ 동상이몽(同床異夢)
- ⑤ 오리무중(五里霧中)

[32~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11.09

[앞부분의 줄거리] 궁에서 쫓겨난 평강 공주는 대사와 함께 절로 가던 길에 온달을 만나 결혼한다. 10년 후 온달과 함께 궁으로 돌아온 공주는 온달이 장군이 되도록 돕는다. 온달은 전쟁터에서 죽게 되는데 장례를 치르려고 하나 관이 움직이지 않는다.

공주: 장군*, 비록 어제까지 장군이 치닫던 별판이라 하나, ㉠ 이제 누구를 위해 여기 머물겠다고 이렇게 뼈를 쓰십니까? 장군의 마음을 내가 알고 있으니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고구려는 내 아버지의 나라. 당신의 원수를 용서치 않으리라. 평양성에 가서 반역자들을 모조리 도륙을 합시다. 자, 돌아가십시오. (손짓을 한다.)

의병장들, ㉡ 관 뚜껑을 닫고 관을 올려놓은 받침의 채를 감는다.

공주: 들어 올려라.

올라오는 관. 모두, 놀라는 소리.

공주: 가자, 평양성으로. 그곳에서 잔악한 반역자들을 살살이 가려내어 목을 베이리라. (공주, 움직인다.)

공주, 시녀, 관, 군사들, 서서히 퇴장. 부장과 장수 몇 사람만 무대에 남는다.

장수1: (부장에게) 공주의 노여워하심이 두렵습니다.

장수2: 필시 무슨 기미를 알아보셨음이 틀림없습니다.

부장: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인가?

장수3: 투구를 벗으라고 하신 것이 증거가 아닙니까?

부장: 어떻게 알았을까? (둘러보고) 너희들 중에 배반하는 자가 있으면 행여 온전히 상금을 누릴 목숨이 있거니는 생각 말아라.

장수들: 무슨 말씀입니까. 억울합니다.

부장: 그렇겠지. 이것을 문제 삼는다 치더라도 (투구를 벗는다. 머리를 처맸다. 피가 배어 있다.) 이것이 어쨌단 말인가.

㉢ 이토록 신라 놈들과 싸운 것이 군법에 어긋난단 말인가? (음험한 웃음) 두려워 말라. 공주보다 더 높은 분이 우리 편이야.

장수들: (비위 맞추는 너털웃음)

부장: 가자, 평양성으로. 그곳에서 과연 누구의 목이 먼저 떨어지는가를 보기로 하자.

(중략)

장교: (공주에게) 자, 걸으시오.

공주: 네가 정녕 내 말을 듣지 못하겠느냐?

장교: 내 말을? 왕명을 받들고 온 사람에게?

공주: 이놈이 정녕 실성했구나. 내가 돌아가면 어찌 될 줄을 모르느냐? 나는 이곳에 머물기로 하고 이미 아버님께도 여쭙고 오는 길, 누가 또 나를 지시한단 말이나? 정 그렇다면 근일 중에 내가 궁에 갈 것이니 오늘은 물러가라.

장교: 정 안 가지겠소?

공주: (분을 누르며) 내가? 말을 어느 귀로 듣느냐? (타이트) 네가 아마 잘못 알고 온 것이니, 그대로 돌아가면 오늘의 허물을 내가 과히 묻지 않으리라.

장교: (들은 채를 얹고) ㉣ 정 소원이라면 평안하게 모셔 오라는 명령이었다. 잡아라.

병사들, 공주의 팔을 좌우에서 잡는다.

공주: 어머니.

장교: 편하게 해 드러라.

[A]

병사1, 칼을 뽑아 공주를 앞에서 찌른다. 공주, 앞으로 쓰러진다. 붙잡았던 병사들, 서서히 땅에 눕는다.

장교, 손으로 지시한다.

병사2, ㉤ 큰 비단 보자기로 공주의 시체를 싼다.

장교, 또 지시한다.

병사들, 공주를 들고 퇴장. 장교, 뒤따라 퇴장. 공주의 살해에서 퇴장까지의 동작은 마치 의전(儀典) 동작처럼 기계적으로 마디 있게 처리.

대사: 공주. 좋은 세상에서 또다시 만남시다.

온모*,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전혀 움직이지 않고 서 있다가 모두 퇴장한 다음 무대 정면으로 조금씩 움직여 나온다.

- 최인훈, 「어디서 무엇이 되어 만나랴」 -

* 장군: 온달.

* 온모: 온달의 어머니.

32. 윗글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공주는 장군의 죽음에 반역자가 연루되었다고 생각한다.
- ② 장수들은 부장의 머리 상처의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염려하고 있다.
- ③ 부장은 공주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 ④ 장교는 부장의 명을 받고 왔다고 말한다.
- ⑤ 병사들은 장교의 명령에 복종하고 있다.

33. ㉠~㉣ 중 <보기>의 밑줄 친 부분과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보 기>

이 작품은 고전 비극의 형식을 모방하여 ‘바보 온달과 평강 공주 이야기’를 재창작하면서 설화가 지니는 비현실적 요소를 여전히 남겨 놓았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34. [A]를 연극으로 상연하기 위해 두 명의 연출가가 [A]의 첫 장면의 무대 구성을 <보기>와 같이 짜 보았다. 연출 의도를 비교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인물의 배치만 고려할 것) [3점]

<보 기>

(가)

관객석

(나)

관객석

○ 무대 구성의 목적은 무대 위에 서게 될 배우들의 위치를 정하면서 무엇을 강조할 것인가를 보여 주는 것임.
 ○ 그림의 숫자는 등장인물이 서는 무대 지역의 중요도 순서임.

- ① (가)에서는 대사를 공주와 가깝게 배치하여 (나)에 비해 대사와 공주와의 친밀도를 더 부각할 수 있겠군.
- ② (가)에서는 장교를 2번 지역에 배치하여 (나)에 비해 장교가 극적 사건 진행의 주도권을 쥐고 있음을 더 잘 보여줄 수 있겠군.
- ③ (가)에서는 장교·병사들과 공주·대사·온모를 좌우로 나누어 배치하여 (나)에 비해 두 집단의 갈등 관계를 더 강조할 수 있겠군.
- ④ (가)에서는 이후 사건 진행 과정에서 온모를 다른 인물에 가리지 않게 함으로써, 움직이지 않고 사건을 지켜보는 온모의 역할을 (나)에 비해 더 잘 드러낼 수 있겠군.
- ⑤ (나)에서는 병사들을 2번 지역에 배치하여 (가)에 비해 위압감을 더 잘 나타낼 수 있겠군.

[35~3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11.09

“알겠습니다. 이 일은 사모님, 부사장님, 저만 아는 비밀로 백삼십에 사건을 무마하도록, 실수 없이 처리하겠습니다. 사실 이 정도는 뭐 사건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사모님이시다 보니 신중을 기하느라고 조심할 뿐, 이 정도야 간단히 처리할 수 있죠. 저쪽이 훨씬 약하니깐요. 그 처지에 돈 보고 환장 안 하게 됐습니까.”

“사무장도 말 좀 골라 벨으시오. 같은 말이라도, 환장이 뭐요? 물론 우리 집안 명예와 어머니 명예도 중요하지만, 사무장도 이걸 명심하십시오. 운전수네 가족에게 최대한 성의를 보여야 한다는 점 말입니다. 운전수 쪽 가족 생각이, 이번 일은 돈에 시우 군이 팔린 게 아니라 주인아주머니의 어쩔 수 없는 입장을 운전수 된 도리로서 자발적인 마음으로 도와주는 것 뿐이다. 그러다 보니 그 성의 표시로 생각지도 않은 돈이 생기게 되어 은혜를 갚는 느낌이다. 운전수와 가족이 이런 생각을 갖게끔 사무장이 처신해야 된단 말입니다. 돈이란 쓰기 나름이라 잘못 쓰면 오히려 돈은 돈대로 없어지고 욕까지 먹게 돼요. 운전수 가족에게 최대한 성의를 표하고 그들이 그 성의를 진실로 받아들여게끔 행동하란 말이에요.”
이 선생은 젊은 부사장의 설교조 말을 건성으로 들었다.

(중략)

이 선생이 누누이 들려준 말처럼 시우는 아무리 사태가 불리하다 하더라도 1년 미만 징역에 2년 집행 유예로 나갈 줄 알았다. 그런데 이 선생이 올린 항소가 고법에서 기각되고 형이 확정되자, 자기만 억울하게 함정에 빠진 듯했고, 사모님은 물론 가족마저도 돈에 눈이 어두워 자기를 속임수에 이용하는 듯하여 죽고 싶은 생각뿐이었다. 그러나 종우 형 면회가 있고부터 그는 한결 새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

“시우야, 일백삼십에서 또 오십만 원을 더 받았어. 네가 실형을 받았기 때문이야. 그래서 일백팔십이 된 거야. 네가 우리 가족을 살린 거란 말이야. 그 돈이면 나두 공사판을 그만두구 장사를 시작할 수 있어. 너도 야간이라도 학교엘 나갈 수 있게 됐구. 참아 줘. 이젠 정말 면목이 없다만, 어떡허니. 그럴 수밖에 없잖니? 그저께 사모님을 만나 같이 네 애길 했더랬어. 전생에 다시 갖지 못할 빚을 네게 졌다면서 말이야. 네가 출감하면 운전수든 뭐든 다시 일을 시키겠다고, 월급을 올려 주겠다고 약속하셨어. 시우야, 이 형이 양심을 팔았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그 돈으로 우리두 성공하여 옛말하구 살자꾸나. 정말 성공하여 남부럽잡게 될 때, 이 피눈물 나는 고생은 그때 가서 위로하자…….”

멀찌감치 선 간수 귀를 피해 귀엣말로 종우 형이 이렇게 말할 때, 두 형제는 함께 울었다. 시우는 검게 탄 형의 거친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눈물을 보았다. 철창 사이로 굳게 잡은 형의 억센 손이 떨리고 끝내 꺼억거리며 흐느낄 때, ㉠ 시우는 여지껏 침묵한 채 참아 왔듯 몇 달을 참기로, 무슨 일이 있더라도 몇 달 감옥 생활을 이겨 내기로 결심했다.

오늘 아침, 녀 달 동안 ㉡ 집 안방과 다름 바 없는 안착지로 떠나게 되자 까닭 없이 마음이 설레 아침밥도 거르게 되고,

그게 공복과 더불어 한기를 가중시켰다. 시우는 연방 떨며 다시 중얼거렸다. 정말 겨울은 지금부터이고 고생도 시작인데 몸과 마음이 이렇게 약해지면 안 된다고.

“눈이 오면 날씨가 포근한 뱀이다 워찌 요렇게 차다냐. 이런 날은 개팔자가 켈이여.”

“글쎄 말이다. 동지도 그름이모 열매 안 있어 새해 아닌가 말이다. 그러모 했수로 일 년 넘기는 건데, 해해. 그렇게 했수로 따져서 내보내 준다 카모 난도 출감이 가까운데 말이다.”

도란도란 입김으로 나누는 말소리가 시우 귀에 다습다. 몇명이 같은 감방에 있게 될는지, 아니면 뿔뿔이 흩어져 수감될지 모를 ㉢ 다정한 얼굴을 시우는 눈여겨보았다. 강도·절도·사기·살인, 각각 이마뺨에 눈에 띄지 않는 ㉣ 뿔뿔을 붙이고 그들은 겨울잠을 즐기는 두더지 꼴로 영겨 있었다.

“젊은 친구, 이쪽으로 와. 거긴 더 추울걸.”

개팔자를 이야기한 죄수가 떨어져 앉은 시우에게 말을 던졌다. 구레나룻 시키면 그는 도지 사기범이었다.

시우는 빙긋 웃어 보이곤 다시 쇠창살 밖으로 눈을 주었다. 버즘나무 가지에 매달린 고깔 열매가 눈을 맞고 있었다. 시우는 ㉤ 산타클로스 모자가 생각났다. 크리스마스가 가까워 오고 있었다. 이번 크리스마스는 가족이 쌀밥에 고기반찬을 먹겠거니 여겨졌다. 그리고 형은 지금쯤 눈을 맞으며 저 어디 화곡동이나 봉천동 신흥 주택 지대를 싸들며 식품점 벌일 점포를 물색하고 다닐 터였다. 그렇게만 되면 읍속이도 내년이면 ㉥ 맞춤 중학 교복을 입고 뿔뿔 터였다.

시우 마음은 어둡지 않았다. 그의 눈앞에 과자며 음료수, 채소, 과일, 각종 일용품이 진열된 상점이 떠올랐다. 점포 이름은 고향 이름 그대로 백암 상회라 붙이겠다고 형이 말했다.

철창을 올려다보던 시우가 갑자기 말 울음소리로 웃었다. 그 묘한 웃음소리를 듣고 동료 죄수들 눈이 그에게 쏠렸다. 개팔자를 이야기한 죄수가 시우를 보며 시큰둥 한마디 했다.

“저건 웃는 게 아니구면. 웃음도 여러 질이여. 저 상관 봐여.”

- 김원일, 「잠시 놓는 풀」 -

35.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의식의 흐름 기법을 사용하여 인물의 무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사물의 외양을 객관적으로 묘사하여 사실성을 강화하고 있다.
- ③ 잦은 장면 전환을 통해 긴박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 ④ 인물들의 다양한 체험을 삽화 형식으로 나열하고 있다.
- ⑤ 서술의 초점을 특정 인물이 처한 상황에 맞추고 있다.

36. 윗글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부사장은 기만적인 인물이다.
- ② 시우는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다.
- ③ 죄수들은 다른 죄수에게 관심을 보인다.
- ④ 사무장은 권력의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다.
- ⑤ 종우는 시우에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

37. ㉠의 결과로 나타난 시우의 심리를 드러내는 것과 거리가 먼 것은?

- ① ㉠ ② ㉡ ③ ㉢ ④ ㉣ ⑤ ㉤

38.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해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김원일의 초기 소설은 부조리한 현실의 폭력성을 주로 다루고 있다. 특히 권력에 의한 사건 조작 모티프는 약자의 삶에 고통을 가중하는 현실을 드러낸다. 위 작품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대립 구도 아래, 가진 자의 음모를 보여 주는 한편, 악의적 세계에 짓눌린 사람들의 실존을 그리고 있다. 작가는 급박한 생존의 현실을 감내하려는 인물을 통해 부조리한 상황을 부각하였다.

- ① ‘말 울음소리’ 같은 웃음은 자신의 선택에 대한 복잡한 심경을 담아내고 있군.
- ② ‘백암 상회’는 주인공으로 하여금 굴욕적인 현실을 견디게 해 주는 힘으로 볼 수 있겠어.
- ③ 사건 조작 모티프의 설정은 작가가 당대 사회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기 위한 것이었겠군.
- ④ ‘사모님’이 약속한 배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돈으로 사람을 거래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았어.
- ⑤ 면회소와 신홍 주택 지대의 공간적 대립은 가진 자의 악의적 세계와 그에 짓눌린 사람들의 상황을 보여 주기 위한 구도라고 할 수 있겠군.

[19~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11.06

(가)

조금 전까지는 거기 있었는데
 어디로 갔나,
 ㉠ 밥상은 차려놓고 어디로 갔나,
 넘치지지미 땀짜한 냄새가
 코를 땀짜하게 하는데
 어디로 갔나,
 이 사람이 갑자기 왜 말이 없나,
 내 목소리는 ㉡ 메아리가 되어
 되돌아온다.
 내 목소리만 내 귀에 들린다.
 이 사람이 어디 가서 잠시 누웠나,
 옆구리 담피가 다시 도졌나, 아니 아니
 ㉢ 이번에는 그게 아닌가 보다.
 한 뼘 두 뼘 어둠을 적시며 비가 온다.
 흑시나 하고 나는 밖을 기웃거린다.
 나는 ㉣ 풀이 죽는다.
 빗발은 한 치 앞을 못 보게 한다.
 웬지 느닷없이 그렇게 퍼붓는다.
 ㉤ 지금은 어쩔 수가 없다고,

- 김춘수, 「강우(降雨)」 -

(나)

어두운 방안엔
 빠알간 숯불이 피고,
 외로이 늙으신 할머니가
 애처로이 잣아드는 어린 목숨을 지키고 계시었다.
 이윽고 눈 속을
 아버지가 약을 가지고 돌아오시었다.
 아 아버지가 눈을 헤치고 따오신
 그 붉은 산수유 열매—
 나는 한 마리 어린 짐승,
 젊은 아버지의 서느런 옷자락에
 열로 상기한 불을 말없이 부비는 것이었다.
 이따금 뒷문을 눈이 치고 있었다.
 그날 밤이 어찌면 성탄제의 밤이었을지도 모른다.
 어느새 나도
 그때의 아버지만큼 나이를 먹었다.
 옛것이라곤 찾아볼 길 없는
 성탄제 가까운 도시에는
 이제 반가운 그 옛날의 것이 내리는데,

서러운 서른 살 나의 이마에
 불현듯 아버지의 서느런 옷자락을 느끼는 것은,
 눈 속에 따오신 산수유 붉은 알알이
 아직도 내 혈액 속에 녹아흐르는 까닭일까.

- 김종길, 「성탄제(聖誕祭)」 -

(다)

아직 서해엔 가보지 않았습디다
 어찌면 당신이 거기 계실지 모르겠기에
 그곳 바다인들 여느 바다와 다를까요
 검은 개펄에 작은 게들이 구멍 속을 들락거리고
 언제나 바다는 멀리서 진펄에 몸을 뒤척이겠지요
 당신이 계실 자리를 위해
 가보지 않은 곳을 남겨두어야 할까봅니다
 내 다 가보면 당신 계실 곳이 남지 않을 것이기에
 내 가보지 않은 한쪽 바다는
 늘 마음속에서나 파도치고 있습니다

- 이성복, 「서해」 -

19. (가)~(다)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대구의 방식을 활용하여 리듬감을 주고 있다.
- ② 사물에 인격을 부여해 지적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③ 도치의 방식을 활용하여 대상과의 거리를 좁히고 있다.
- ④ 감각적 심상을 통해 화자의 현재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 ⑤ 감탄사를 사용하여 화자의 고조된 감정을 나타내고 있다.

20.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에서는 독백적 어조로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 ② (나)에는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매개체가 있다.
- ③ (가)와 달리 (나)에는 과거 장면에 대한 묘사가 나타나 있다.
- ④ (나)와 달리 (가)에는 그리움의 정서가 나타나 있다.
- ⑤ (가)와 (나)에는 모두 시상을 집약하는 소재가 나타나 있다.

21. (가)의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화자의 마음이 '이 사람'과 함께했던 때와 마찬가지로 평온함을 나타낸다.
- ② ㉡은 화자와 '이 사람' 사이의 소통을 나타낸 것으로, 화자가 '이 사람'과 공감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 ③ ㉢에서 화자는 스스로 던진 질문에 대한 대답을 통해 '이 사람'과 관련된 상황이 그 이전과는 다름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다.
- ④ ㉣에는 존재를 드러내지 않는 '이 사람'에 대한 배신감이 드러나 있다.
- ⑤ ㉤에는 '이 사람'의 부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화자의 다짐이 나타난다.

22. <보기>를 참고하여 (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서해」에서 화자는 바다에 다양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당신’에 대한 역설적 태도를 드러낸다.

- ① 제1연에서 화자가 ‘서해’에 가 보지 않은 것은 ‘당신’ 때문이야. 화자는 ‘당신’ 때문에 ‘서해’를 특별한 공간으로 여기는 것이지.
- ② 제2연에서 ‘그곳 바다’는 화자가 아직 알지 못하는 바다이고, ‘여느 바다’는 화자가 알고 있는 바다야. 그런데도 화자는 두 바다가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어.
- ③ 제2연의 제2~3행에서 화자는 ‘여느 바다’의 심상을 통해 ‘그곳 바다’를 추측하고 있어. 그런데 ‘멀리서’로 보아, 화자와 ‘당신’ 사이에는 어떤 거리감이 있음을 알 수 있어.
- ④ 제3연에서 ‘계실 자리’와 ‘가보지 않은 곳’은 바다를 가리켜, ‘남겨두어야 할까봅니다’에는 지금은 ‘당신’에게 갈 수 없지만 나중에라도 가야겠다는 화자의 의지가 담겨 있어.
- ⑤ 제4연의 ‘한쪽 바다’는 화자가 ‘당신’이 계실 것으로 추측하는 곳이야. 그곳은 항상 화자의 마음속에 존재해.

[28~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1.06

그는 지금 어머니와 함께 꼬두메를 찾아 내려가고 있는 참이었다. 허황하기조차 한 그녀의 닛두리를 좇아 이렇듯 추운 한겨울밤을 완행열차에 흔들리며, 떠나온 지 십삼 년이 넘은 고향으로 향하게 되리라고는 바로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는 미처 상상조차 못 했던 것이다. 이 느닷없는 귀향길은 어찌 보면 어처구니없을 만큼 충동적으로 결행된 셈이었다. 아내의 말마따나 제정신이 아닌 것인지도 모를 일이었다. 바로 이날 오후였다. 휴일이 아닌데도 그는 담배꽂초만 재떨이에 수북하게 쌓아 가며 종일 방구석에 틀어박혀 있었다. 몸이 불편해서 출근하지 않는 줄로만 여겼는지, 아내는 되도록이면 그를 혼자 있도록 내버려두고 있는 눈치였다. 이날 아침 그는 기어이 사표를 써서 집 앞 우체통에 넣었던 것이다. 몇 푼 안 되는 퇴직금은 고사하고라도 몇 달째 밀린 봉급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기대조차 사라진 지 오래였다. 무엇보다 자신과 똑같은 처지의 동료들의 누렇게 뜬 얼굴들을 대하기가 소름이 돋도록 두려웠다. 결국 그는 또다시 실업자가 되었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번으로 꼭 두 번째였다. 신문을 나온 후, 오 년 동안의 그 ㉠ 공백 기간에 겪었던 처참함을 그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다.

이제 아내는 다시 예전처럼 방 한 칸이 달린 구멍가게 자리를 구하기 위해 발바닥이 부르드도록 번두리를 돌아다닐 수도 없으리라. 그나마 남아 있던 쥐꼬리만 한 돈은 바닥이 난 지 오래였고, 전세금을 줄여 가며 번두리로만 이사를 다니다가 급기야 월세방 처지로 주저앉게 된 지도 벌써 이태째였다. 하지만 그는 이제 도저히 또 다른 직장을 찾아 나설 용기도 아니, 그래야 할 것이라는 생각조차도 사라져 버리고 만 듯한 느낌이었다.

놀라우리만큼 자신이 허약해져 있다는 사실을 이즈음에야 그는 뒤늦게 깨닫고 있었다. 참으로 비겁한 변명일지도 모르겠지만, 어찌면 그것은 어머니의 몰락이 자신에게 가져다 준 가장 확실한 선물일 수도 있었다. 어머니의 그 넓고 미더운 그늘이 머리 위에서 견뎌 버리고 난 후, 그는 ㉡ 햇볕 속으로 나온 음지 식물처럼 삼시각에 말라 비틀어져 가고 있었다. 놀랄만한 콧물을 후룩거리던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그는 수없는 방황을 치러 왔지만, 그때마다 그를 단단히 붙잡아 안전한 곳으로 이끌어 준 것은 바로 어머니의 그 보이지 않는 손길이었다. 오 년의 실직 기간 동안, 거의 날마다, 그것도 언어 마신 술에 취해 밤늦게 돌아와 대문 앞에서 허물어지듯 쓰러져 버리곤 하던 그가 그래도 최후의 고집스런 용기만은 요행히 지킬 수 있었던 것도 역시 어머니의 그 ㉢ 변함없는 그늘을 은연중에 믿고 있었음으로 해서이리라. 하지만 이제 어머니의 그 야원 손길마저도 아무런 ㉣ 기적을 베풀 수가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하는 것이었다. 그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엄청난 ㉤ 절망의 심연으로 까마득히 가라앉아 가고 있는 느낌이었다.

(중략)

아아. 이 눈 속에서 어머니는 혼자 어디로 가신 것일까. 찬우야이. ㉦ 꼬두메로 핑 가자이. 불길한 주문만 같던 어머니의 음성이 귓전에서 맴을 돌았다. 정말, 어머니는 기어코 꼬두메를 찾아가시겠다고 열토당토않게시리 홀로 길을 나선 것일까. 온 몸에 하얗게 눈을 맞으며 어디론가 하염없는 걸음을 옮기고 있을 어머니의 모습이 눈앞에 떠올랐다. 꼬두메는 이미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과거 속의 마을이었다. 그렇다면 어머니는 이젠 더 이상 아무도 그곳을 기억해 주지 않는 이 땅을 떠나, 그 과거의 이름들이 아직 살아 숨 쉬고 있을 또 다른 세계를 찾아 길을 나선 것일까. 그렇다면 그 세상은 오직 어머니 혼자만 아는, 당신만의 소중한 세계일 터였다. 거기엔 어머니가 한시도 잊지 못했던 그리운 사람들과 정겨운 이름들이 예전 그대로 살아 있을 것이었다. 한쪽 눈을 못 보는 아버지와 착한 형, 그리고 어찌면 어린 시절의 그의 옛된 얼굴도 그 가난한 식구들 곁에서 함께 곤히 잠들어 있을지도 모른다.

아니, 아니야. 그러나 그는 세차게 고개를 흔들며 버렸다. 꼬두메는 이미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결코 아무도 찾아가할 수 없는 망각의 땅일 뿐이다. 그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아니, 온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알고 있는 그 분명한 사실을 다만 어머니 혼자서만 아직도 모르고 있을 뿐이었다.

찾아야 해. 어머니를 찾아내야만 해.

그는 마침내 흐드러지게 쏟아져 내리는 함박눈을 맞으며,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잣고개를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차츰 눈송이가 굵어져 가고 있었다. 은빛, 세상은 온통 은빛이었다.

- 임철우, 「눈이 오면」 -

28. 윗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 ②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 ③ 담담한 태도로 사건을 객관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 ④ 대화를 통해 인물의 심리와 태도를 서술하고 있다.
- ⑤ 인물 간의 대결 의식을 중심으로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29.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임철우의 소설 「눈이 오면」은 고향을 찾아가는 ‘여로(旅路) 구조’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 구조는 사건의 전개 과정이나 작중 인물의 성격 창조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 ① ‘그’가 귀향 여행을 충동적으로 결행한 것으로 설정하여, ‘그’의 성격이 즉흥적이면서도 낙천적이었음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 ② 십삼 년 만에 처음으로 고향을 찾아가도록 하여, ‘그’가 지금까지 현실과 타협하면서 잘 적응해 왔음을 보여주하고자 하였다.
- ③ 겨울밤 완행열차를 귀향 수단으로 택해 성찰의 시간과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그’가 자신의 현재 모습에 대해 반성해 보도록 하였다.
- ④ 귀향 과정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어머니’를 찾아 나서는 모습을 제시하여, ‘그’가 사려 깊지 못하고 부주의한 인물이었음이 드러나도록 하였다.
- ⑤ 귀향하는 날 사표를 제출하는 것으로 처리하여, ‘그’가 과거의 소극적인 태도를 버리고 이제는 적극적인 삶을 추구하는 인물로 변모되었음을 보여주하고자 하였다.

30. [꼬두메]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꼬두메에는 ‘그’의 어린 시절 추억이 깃들여 있다.
- ② 꼬두메는 ‘세상 사람들’이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
- ③ 꼬두메가 이 세상에 없음을 ‘어머니’는 깨닫지 못하고 있다.
- ④ 꼬두메는 ‘그’가 가족과 함께 물질적 풍요를 누리던 곳이다.
- ⑤ 꼬두메는 ‘어머니’가 찾아가고 싶어 하는 그녀의 소중한 세계이다.

31. 문맥상 ㉠~㉥의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실지했던 기간
- ② ㉡: 세상의 따뜻한 인정
- ③ ㉢: 한결같은 사랑과 보호
- ④ ㉣: 삶을 지탱해 주거나 도와줌
- ⑤ ㉤: 극심한 무력감과 좌절감

[39~4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11.06

(가)

두터비 파리를 물고 두엄 우희 치다라 안자
 것년 산 바라보니 백송골(白松鵲)이 떠 잇거늘 가슴이 급즉
 하여 풀덕 뛰여 내닷다가 두엄 아래 잣바지거고
 모쳐라 날넌 널식만정 에혈*질 번 하쾌라.
 - 작자 미상, 사설시조 -

* 에혈: 어혈. 타박상 등으로 피부에 피가 맺힌 것.

(나)

요사이 고공들은 생각이 어찌 아주 없어
 밥사발 크나 작으나 동웃이 좋고 곳으나
 마음을 다투는 듯 호수(戶首)*를 시샘하는 듯
 무슨 일 감겨들어 흘깃할것 하느냐
 너희네 일 아니하고 시절조차 사나워
 가뜩이 나의 세간 풀어지게 되었는데
 엇그제 화강도(火強盜)에 가산(家産)이 탕진하니
 집 하나 불타 버리고 먹을 것이 전혀 없다

(중략)

칠석에 호미 씻고 김을 다 맨 후에
 새끼 꼬기 누가 잘 하며 섬은 누가 엮으랴
 너희 재주 헤아려 제각기 맡아 하라
 가을건이 한 후에는 집짓기를 아니하랴
 집은 내 지오마 ㉠울은 네 묻어라
 너희 재주를 내 짐작하였노라
 너희도 먹을 일을 분별을 하려무나
 명석에 벼를 닦들
 좋은 해 구름 끼어 햇별을 언제 보랴
 방아를 못 쪼개든 거치나 거친 울벼
 옥 같은 ㉡백미 될 줄 누가 알 수 있겠느냐
 너희네 데리고 새 ㉢살릴 살자 하니
 엇그제 왔던 도적 아니 멀리 갔다 하되
 너희네 귀 눈 없어 저런 줄 모르건대
 화살을 제쳐 두고 옷 밥만 다투느냐
 너희네 데리고 추운가 굶주리는가
 ㉣죽조반(粥早飯) 아침 저녁 더 많이 먹었거든
 은혜란 생각 않고 제 일만 하려 하니
 생각 있는 새 일꾼 어느 때 얻어서
 집 일을 마치고 시름을 잊겠는가
 너희 일 애달파 하면서 ㉤새끼 한 사리 다 꼬겠도다.

- 허진, 「고공가(雇工歌)」 -

* 호수: 고공(머슴)의 우두머리.

(다)

물이 하나의 국가라면, 용은 그 나라의 군주이다. 어족(魚族)
 가운데 큰 것으로 고래, 곤어, 바다 장어 같은 것은 그 군주의
 내외 여러 신하이고, 그 다음으로 메기, 잉어, 다랑어, 자가사리

종류는 서리나 아전의 무리이다. 그 밖에 크기가 한 자가 못
 되는 것은 수국(水國)의 만백성들이다. 그 상하에 서로 차서(次
 序)가 있고 대소(大小)에 서로 거느림이 있는 것은 또 어찌
 사람과 다르겠는가?

이 때문에 용이 그 나라를 경영함에 가물어 물이 마르면
 반드시 [비]를 내려 이어주고, 사람들이 물고기 씨를 말릴까
 염려하여 겹겹이 물결을 일렁이여 덮어 주니, 그것이 물고기
 에게는 은혜가 아닌 것은 아니다.

그런데 물고기에게 자애로운 것은 한 마리 용이고, 물고기를
 못살게 하는 것은 수많은 큰 물고기들이다. 고래들은 조류를
 따라가며 들이마셔 작은 물고기를 자신의 시서(詩書)로 삼고,
 교룡, 악어는 물결을 다투어 삼키고 씹어 먹어 작은 물고기를
 거친 땅의 농사로 삼으며, 문절망둑, 쏘가리, 드렁허리, 가물치
 족속은 사이를 노리고 틈을 잡아 덮쳐서 작은 물고기를 은과
 옥으로 삼는다. 강자는 약자를 삼키고 지위가 높은 것은 아랫
 것을 사로잡는다. 진실로 그러한 행위를 싫증 내지 않는다면
 물고기들은 반드시 남아나지 않을 것이다.

슬프다! 작은 물고기가 없다면 용은 뉘와 더불어 군주 노릇을
 하며, 저 큰 물고기들이 또한 어찌 으스스할 수 있겠는가? 그러
 므로 용의 도(道)란 그들에게 구구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보다
 먼저 그들을 해치는 족속들을 물리치는 것이다.

아아, 사람들은 물고기에게만 큰 물고기가 있는 줄 알고 사람
 에게도 큰 물고기가 있는 줄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 물고기가
 사람을 슬퍼하는 것이 사람이 물고기를 슬퍼하는 것보다 더 심한
 것을 어찌 알겠는가?

- 이옥, 「어부(魚賦)」 -

39. (가)~(다)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대상을 비판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다.
- ② 과거 사실에 대한 반성적 성찰이 드러나 있다.
- ③ 고사(故事)를 활용하여 풍자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 ④ 부정적인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드러나 있다.
- ⑤ 특정 장면에 초점을 맞추어 대상을 해학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40. (나)와 (다)를 비교할 때, 문맥적 의미가 [비]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 ② ㉡ ③ ㉢ ④ ㉣ ⑤ ㉤

41. 밑줄 친 대상 간의 관계가 (가)의 ‘두터비’, ‘파리’, ‘백송골’ 간의 관계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닭은 때를 알리고 개는 도적을 살피고
소 말은 큰 구실 맡겨 다 기름 직하거니와
저 매는 뿔 잡아 절로 바치든가 나는 몰라 하노매라.
- ② 까마귀 검다 하고 백로야 웃지 마라
겉이 검은들 속조차 검은쫄나
아마도 걸 희고 속 검은 것은 너뿐인가 하노라.
- ③ 나비야 청산 가자 뱀나비 너도 가자
가다가 저물거든 꽃에 들어 자고 가자
꽃에서 푸대접하거든 앞에서나 자고 가자.
- ④ 벽오동 심은 뜻은 봉황 올까 하였더니
봉황은 아니 오고 오작만 날아든다
동자야 오작 날려라 봉황 오게 하리라.
- ⑤ 장공에 뺨은 술개 눈 살핌은 무슨 일인가
썩은 쥐를 보고 빙빙 돌고 가지 않는구나
만일에 봉황을 만나면 웃음거리 될까 하노라.

42.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고공가」는 전란으로 인해 황폐해진 나라를 재건하자는 의도에서 지어진 노래로, 국가 정치를 한 집안의 농사일에 비유하여 관료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 ① ‘고공’이 반목과 질지를 일삼는 것으로 보아 조정에는 불화가 있었군.
- ② ‘나’가 ‘고공’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관료사회에는 불신이 팽배했군.
- ③ ‘나’는 외적에 대한 경계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아 외적의 재침략을 걱정하고 있군.
- ④ ‘나’가 집안의 일을 염려하는 것으로 보아 ‘나’는 성공적인 국가 재건을 바라는 인물이군.
- ⑤ ‘고공’이 ‘옷 밥’만 탐했다는 것으로 보아 관료들은 본분을 잊어버리고 사욕만을 채우고자 하였군.

43. (다)의 논지를 긍정하는 신하가 군주에게 상소문을 올린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신은 삼가 성상께 글을 올리옵니다. 성상의 바른 다스림에 백성들은 태평성대를 살아갈 수 있었사옵습니다. ① 성상께서는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항상 성심을 다하고 계시옵니다. 하지만 성상의 뜻과는 달리 ② 조정의 대신들은 백성들을 가볍게 여기고 있사옵니다. 또한 ③ 지방 관들은 백성을 사사로이 부리고 있으며, 그 밑에 있는 서리나 아전들은 백성들의 고혈을 짜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 데만 눈이 멀어 있사옵니다. 이에 백성들은 죽어 사라질 위기에 처하였사옵니다. ④ 백성이 있어야 성상께서도 군주가 되시웁고, 벼슬아치들도 살 수 있는 것이 옳습니다. 하오니 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창고를 열어 백성들의 굶주림을 해결하는 일입니다.

전하, 부디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47~5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11.06

이때 태수 설인수는 원수(元帥)를 가까이에서 모셨으며, 원수는 설인수인 줄 아나 인수는 경작이 원수가 되었음을 생각지 못하더라. 원수가 이는 체하고자 하되, 군영(軍營)이 요란하여 사사로운 정을 펴지 못하였더니, 이제 번왕 남곽을 평정하고 군영이 고요한데 인수 홀로 모셨더라. 원수가 저의 물러가지 않았음을 보고 시동을 불러 당상으로 청한대, 태수 사양하여 오르지 않거늘 원수가 친히 이끌고 가로되,

“인수 형이 능히 경모를 모르오?”

“소관(小官)이 정신이 밝지 못하고, 일찍 면식이 없으니 알지 못하겠사옵니다.”

원수가 잠소(潛笑) 왈,

“형이 과연 눈이 무디다 하리로다. 옛날 금주에서 소 먹이던 목동이었다가 양 승상의 둘째 사위가 된 이경작을 모르오?”

태수가 생각 밖이라. 깨닫지 못하여 가로되,

“그 사람은 소관의 동서러니, 금주를 떠난 지 벌써 십일 년 이옵니다.”

“십일 년 못 보던 경작이 곧 나이니 형은 모름지기 의아치 마오.”

설 태수가 어지러운 듯, 취한 듯하여 오래 말을 못 하더니 이에 자세히 보니 완전한 경작이라. 놀라고 반가움을 이기지 못하여 지위를 잇고 손을 잡아 급히 이르되,

“경작 형! 꿈이오? 생시오?”

원수가 웃으며 왈,

“형은 놀라지 마오.”

하고 인하여 서로 잔을 들어 유쾌히 술을 마시며 정을 펼새, 태수가 매양 원수의 대덕과 넓은 도량, 기이한 풍도를 우려렸더니 이날 자리를 나란히 하여 잔을 날리며 별회를 베푸니, 마음에 세상일을 가히 헤아리기 어려움을 탄하더라.

원수가 문왈,

“외방에 있는 지 벌써 십일 년이라. 처형은 평안하시오?”

설 태수가 답소(答笑) 왈,

“나는 비록 약한 남자이나 조강지처를 무단히 버리지 아니 하니 몸이 편하여 자녀를 갖추어 두었거니와, 형은 약한 부인을 무단히 버리고 십일 년에 이르도록 한 번 편지를 부치는 일이 없었소. 이제 몸이 으름 벼슬로 부귀영광이 비길 곳이 없고, 어진 덕과 넓은 덕을 추앙하지 않는 사람이 없으며, 오직 빈 방의 약한 부인을 생각하지 아니하니 박덕함이 심하여 장차 약한 부인이 몸을 보존치 못하게 되었으니 가장 어둡고 무심한 장부라. 나는 비록 벼슬이 낮아 형을 모시고는 있으나 처자를 편히 거느리니 가히 형보다 낫다고 이르리로다.”

하고 대소한대, 원수가 또한 웃고 왈,

“형이 어찌 괴이한 말로써 나를 조롱하오? 가장 가소롭도다. 그리하나 금주의 처가는 평안하시오?”

태수 왈,

“집안은 평안하나 형의 부인이 병이 위중하여 속수무책 조석으로 목숨을 빈다 하니 형이 비록 몸이 영귀하나 무엇이 즐거우리오?”

원수가 듣고 놀라 얼굴을 붉히며 왈,

“과연 형의 말이 옳소?”

“비록 농담이라도 어이 큰 말에 허언을 하리오?”

“목숨의 길고 짧음과 부귀빈천은 하늘에 달렸으니 인력으로 어찌 하리오?”

“형이 곧 경사(京師)*로 가리니, 길이 금주로 지날 것이니 들러 감이 어떠하오?”

“부모 묘소가 게 있으니 들르지 아니리오?”

“어느 때에 경사로 향할 것이오?”

“백성이 어지러웠으니 서너 달 더 머물러 위로하고 가려 하오.”

“내 관아가 비록 작으나 수일 후 형을 전송하리니 벼슬이 높다고 사양하지 마오.”

원수가 소왈,

“본디 음식을 즐기는 사람이라. 주는 것을 사양할 리 있으리오? 먹는 양을 알아서 큼직이 준비하오. 내 당당히 가겠소.”

태수가 소왈,

“벼슬이 높으니 이제 그 술하게 자던 잠과 둔하게 많이 먹던 양을 줄이는 것이 좋을까 하오.”

원수가 대소 왈,

“금제한 후는 더 많이 먹히더이다.”

태수가 소왈,

“내가 양식이 부족하여 풍성하지 못하니 형의 양에 차게 하려면 필연 죄를 면치 못하리니 울 적에 말총으로 창자를 즐라매고 오오.”

“늘릴 수 있을 만큼 늘리고 가겠소.”

“그럴진대 아예 오지 말라 할 것이오.”

“국법이 본래 나 같은 사람을 각 도에서 영접하고 잔치하고 공경하고 관대하라 하였으니 적게 못할 것이오.”

두 사람이 대소하고 설 태수 돌아와 부인 난주를 대하여 이 원수의 전후 일을 일일이 전하고 기특히 여김을 마지않으며, 돌아가신 장인의 사람 보는 눈이 뛰어난에 못내 감복하더라.

- 작자 미상, 「낙성비룡(洛城飛龍)」 -

*경사: 나라의 수도.

47. 윗글의 표현상의 특징과 효과로 적절한 것은?

- ① 설의적 표현을 통해 사건의 결말을 암시하고 있다.
- ② 독백을 통해 인물의 내면적 성찰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상징적 소재를 통해 인물 간의 관계를 암시하고 있다.
- ④ 심리 묘사를 통해 인물의 고조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⑤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 인물 간의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다.

[A]

48. <보기>의 ㉠~㉥ 중, 윗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만을 모두 고른 것은?

<보 기>

「낙성비룡」은 조선 왕실에서 향유되었던 낙선재본 소설이다. 이 작품은 영웅소설인 「소대성전」과 내용이 유사하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 두 작품의 주인공은 모두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 신이한 태몽을 가지고 탄생한다.
-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고생한다.
- 인물됨을 알아보는 장인 될 사람을 만난다. ㉠
- 한때 잠을 많이 자는 모습을 보인다. ㉡
- 장모의 구박으로 처가를 나온다. ㉢
- 수련을 거쳐 전쟁에서 공을 세운다. ㉣
- 아내와 해후하여 행복하게 산다.

- ① ㉠, ㉡ ② ㉡, ㉢ ③ ㉢, ㉣
- ④ ㉠, ㉡, ㉣ ⑤ ㉡, ㉢, ㉣

49.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처자식을 중시하는 태도가 나타나 있다.
- ② 어질고 넓은 상대방의 인품을 칭송하고 있다.
- ③ 처제를 안타깝게 생각하는 마음이 드러나 있다.
- ④ 손윗사람으로서 상대방의 잘못된 처신을 지적하고 있다.
- ⑤ 벼슬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을 당당히 말하고 있다.

50. 윗글에 드러난 상황을 한자 성어를 이용하여 표현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경모가 11년 만에 돌아온 것은 수구초심(首丘初心)이라고 할 수 있어.
- ② 경모와 설 태수가 다시 만난 것은 오월동주(吳越同舟)라고 할 수 있어.
- ③ 경모가 설 태수에게 국법을 운운한 것은 정말 적반하장(賊反荷杖)이야.
- ④ 설 태수가 경모를 보고 놀란 것은 경모가 환골탈태(換骨奪胎)했기 때문이야.
- ⑤ 설 태수와 경모가 서로 과거의 일을 이야기한 것은 온고지신(溫故知新)의 대표적인 예야.

[16~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10.11

이때 만복사는 이미 허물어져 승려들은 구석진 방에서 살고 있었다. 법당 앞에는 행랑만이 쓸쓸히 남아 있었고, 그 끝에는 ㉠ 좁은 판자방 하나가 있었다.

양생이 여인을 불러 그곳으로 들어가니 여인은 별 주저함 없이 따라갔다.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즐기는 것이 보통 사람과 다를 없었다.

이윽고 밤이 깊어지자 달이 동산에 떠올라 달그림자가 창살에 비쳤다. 문득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여인이 묻기를,
“누구냐? 시녀가 왔느냐?”

시녀가 말하기를,

“예, 집니다. ㉡ 요즘 아가씨께서는 중문 밖을 나가지 않으셨고 뜰 안에서도 좀처럼 걷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엿저녁에는 우연히 나가시더니 어찌 이 먼 곳까지 오셨습니까?”

라고 하였다. 이에 여인이 말하기를,

“오늘 일은 아마도 우연이 아닌가 보다. 하늘이 도우시고 부처님이 돌보셔서 한 분 고운 님을 만나 백년해로하기로 했느니라. 부모님께 알리지 않은 것은 비록 명교의 법전에는 어긋나지만, 서로 즐거이 맞이하게 되니 이 또한 평생의 기이한 인연일 것이다. 너는 집에 가서 앓을 자리와 술, 과일을 가져오너라.”

시녀는 그 분부에 따라 돌아갔다. 이윽고 뜰에는 술자리가 베풀어졌는데, 밤은 이미 사경(四更)에 가까웠다.

시녀는 앓을 자리와 술상을 품위 있게 펼쳐 놓았는데, 기구들이 모두 말쑥하며 무너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술에서는 진한 향기가 풍겨 나왔는데 정녕 인간 세상의 것은 아니었다.

양생은 의심이 나고 괴이하게 생각하는 바도 있었다. 하지만 여인의 말씨와 웃음이 맑고 고우며 몸가짐과 용모가 압전했으므로, 틀림없이 귀한 집 처녀가 몰래 나온 것이려니 생각하고자 더 의심치 않았다.

여인은 시녀에게 노래를 불러 술을 권하도록 하고는, 양생에게 말했다.

“이 아이는 옛 가곡을 그대로만 부릅니다. 제가 새로운 가사를 하나 지어서 술을 권해 드려도 될까요?”

양생은 기뻐하며 대답했다.

“예.”

여인은 만강홍 곡조에 맞추어 가사를 지어 시녀에게 부르게 했다.

(중략)

잔치가 끝나자 작별하게 되었다. 여인이 은주발 하나를 내어 양생에게 주며 말했다.

“내일 보련사에서 부모님께서 제게 음식을 내려 주십니다. 만약 저를 버리지 않으신다면, 길가에서 기다리고 계시다가 함께 절로 가서서 부모님께 인사를 드려 주십시오.”

“좋소.”

이튿날 양생은 여인이 시킨 대로 주발을 쥐고 서서 보련사로 가는 길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과연 어떤 귀족 집안에서 딸의 대상(大祥)*을 치르기 위해 수레와 말을 길게 이끌고 보련사를

찾아가고 있었다. 그때 길가에서 한 서생이 주발을 들고 서 있는 것을 본 종이 주인에게 말했다.

“아가씨 장례 때 함께 묻었던 물건을 어떤 사람이 훔쳐서 가지고 있습니다.”

“뭐라고?”

“저 서생이 가지고 있는 주발을 보십시오.”

주인은 말을 몰아 양생에게 다가가 그 연유를 물었다. 양생은 그 전날 여인과 약속한 일을 그대로 이야기했다. 여인의 부모는 놀라고 의아하게 생각하더니 이윽고 입을 열었다.

“내겐 딸만 하나 있었네. 그런데 그 아이는 왜구들의 난리 때 싸움의 와중에 죽고 말았지. 정식으로 장례도 치르지 못해서 개령사 옆에다 임시로 묻어 두고, 장사를 미루어 오다가 오늘에 이르게 되었네. 오늘이 벌써 대상 날이라 재(齋)를 올려 명복이나 빌어 줄까 해서 가는 길일세. 자네가 약속을 지키려거든 내 딸을 기다리고 있다가 같이 오게. 그리고 조금도 놀라지 말게.”

말을 마치고 부모는 먼저 보련사로 떠나고, 양생은 우두커니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약속한 시간이 되자 과연 한 여인이 시녀를 데리고 하늘거리며 왔다. 그 여인이었다. 그들은 서로 기뻐하며 손을 잡고 절 안으로 들어갔다.

여인은 부처님께 절을 올리고 ㉢ 하얀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데 친척들과 승려들은 모두 그녀를 보지 못하고 오직 양생만이 볼 수 있었다. 여인이 양생에게 말했다.

“진지 드시죠.”

양생은 여인의 말을 그녀의 부모에게 전했다. 부모가 시험 삼아 함께 밥을 먹도록 명했더니 수저 놀리는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지만, 인간이 먹는 것과 조금도 다름이 없었다. 여인의 부모는 이에 경탄해 마지않더니, 양생에게 그곳에서 여인과 함께 머물도록 권했다. 밤중에 그들의 이야기 소리가 낭랑히 들렸지만 사람들이 가만히 엿들으려 하면 갑자기 중지되곤 했다.

- 김시습, 「만복사저포기」 -

*대상: 죽은 지 두 돌 만에 지내는 제사.

16. 윗글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여인은 시녀와의 대화에서 자기 행위의 명분을 제시했다.
- ② 양생은 여인의 언행을 보고 그녀에 대한 의심을 풀었다.
- ③ 시녀는 노래를 불러 양생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드러냈다.
- ④ 종은 은주발을 보고 자신의 판단을 주인에게 전했다.
- ⑤ 부모는 양생의 말을 듣고 딸의 과거사를 떠올렸다.

17. ㉠과 ㉡을 비교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은 모두 양생이 여인을 위해 마련한 공간이다.
- ② ㉠과 ㉡은 모두 여인이 타의에 의해 들어간 공간이다.
- ③ ㉠은 제의성이, ㉡은 신성성이 지배하는 공간이다.
- ④ ㉠은 인연을 맺는, ㉡은 인연을 인정받는 공간이다.
- ⑤ ㉠은 현실 속에, ㉡은 비현실 속에 설정된 공간이다.

18. <보기>는 윗글을 바탕으로 드라마를 제작하기 위한 기획 의도이다. 기획 의도를 살리기 위한 의견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죽은 이와의 사랑은 다소 생소한 소재이지만 원작에 최대한 충실하려 한다. 때로는 비현실적 요소가 더 진지하게 받아들여질 때가 있다. 현실에서 소외된 양생은 절박한 외로움 때문에 현실 너머에 있는 여인과 만나서 사랑을 할 수 있었다. 가벼운 만남에 익숙한 현대의 시청자들에게 양생의 사랑은 현재의 삶을 새롭게 인식할 기회를 줄 것이다.

- ① 주변 인물들이 양생과 여인의 만남에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장면을 제시하여, 둘의 사랑이 시청자들에게 평범한 일상으로 다가서게 하면 좋겠어.
- ② 외로웠던 양생이 여인의 정체를 알고도 변함없이 그녀를 사랑하는 모습을 부각하여, 시청자들이 만남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야겠군.
- ③ 여인의 역할을 맡은 배우는 신비하고 기이한 모습으로 시청자들에게 다가가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현실을 잊게 해야겠군.
- ④ 양생과 여인의 만남을 밝고 경쾌하게 묘사하여, 현대 시청자들의 감각과 기호에 맞출 필요가 있겠군.
- ⑤ 양생과 여인의 사랑을 최대한 강조하되, 비현실적인 요소는 줄이는 것이 좋겠어.

19. ㉠의 상황을 가장 잘 나타낸 것은?

- ① 두문불출(杜門不出) ② 가인박명(佳人薄命)
- ③ 일편단심(一片丹心) ④ 망양지탄(亡羊之歎)
- ⑤ 독야청청(獨也靑靑)

[27~2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0.11

#28. 동만네 집 전경(밤)

동만 모의 진한 핏빛 울음소리 들리는데 빗속에 누워 있는 동만네 집 전경. 끝없이 쏟아지는 ㉠장맛비. 장맛비. (F. O.)

#29. 건지산 전경

(F. I.) 한고비 숨을 돌려 보슬비 뿌리는 하늘. 멀리 회색빛 응자를 자랑하는 ㉡건지산의 자태.

#30. 동만네 마당

㉢완두콩 소쿠리를 무릎에 올려놓고 뒷마루에 나와 앉은 외할머니. 부엌에서 이모가 ㉣밥상을 들고 힘겹게 나온다. 일손 멈추고 멍하니 건지산을 바라보는 외할머니.

이모(길자): 진지 드세요.

친할머니: (밥상 받으며) 사부인은 좀 드셨는가?

이모: 통 안 드셔요. 한 숟갈두…….

친할머니: 에휴 쫓쫓…….

(밥상을 받고 사르르 문을 닫는다. 다시 부엌으로 들어가 또 한상 들고 나오는 이모.)

이모: (외할머니 앞에 멋더니) 그래 진지 안 드셔요?

(그저 넋 나간 듯 앉아 있는 외할머니. 이모 밥상을 들고 건넌방으로 간다.)

#31. 안채 건넌방

머리를 짚곤 동이고 자리에 누운 동만 모. 밥상 들고 들어오는 이모 길자.

길자: 언니 식사해요.

(언겨주춤 일어나 앉은 동만 모. 금세 눈물이 또 쏟아지며)

동만 모: 에유! 우리 길준이 따뜻한 밥 한 그릇 뿔뿔하게 끓여 주도 못하고.

(밥상머리에 앉아 눈물을 찔끔찔끔 잔다.)

길자: 인제 고만 좀 해 뒤요. 몸도 생각해야지.

동만 모: 에유! 느이 오라비 불쌍한 길준이…… 전쟁터에서 죽다니…….

(방문 벌컥 열리며 뛰어드는 동만.)

동만: 밥 쥐, 배고파.

길자: 어서 먹어라. 언니두 한술 떠요.

(마지못해 밥숟갈을 드는 동만 모. 동만이는 벌써 아구아구 입에 퍼 넣고 있다.)

동만 모: 넌 좀 안 드냐?

길자: 생각 없어요.

동만 모: 엄니는?

길자: 통 안 잡수셔요.

동만 모: 에휴! 큰일인지라. 집안 꼴이 말이 아니구나.

길자: …….

동만 모: 나야 괜찮지만은 엄니가 얼마나 상심하실 것이냐? 삼대독자 외아들을 잃었으니…….

(다시 눈물을 찔끔거리다가)

동만 모: 어서 누구를 양자로 데려다가 끊어진 대를 이어야지. 저리 큰일 아니냐.

길자: …….

(꽂보리밥 한 그릇을 우걱우걱 비우며)

동만 모: 동만 아버지 점심 안 하셨제?

길자: 형부는 밭에 나가 계세요. 점심 내다 드려야죠.

동만 모: 내 대신 니가 고생이다. 에휴 에휴…….

(밥숟갈 놓으며 다시 눈물 찔끔거리면서 드러눕는다.)

#32. ㉤마당

뒷마루에 고정된 물체처럼 먼 산 바라보고 앉은 외할머니. 동만이가 눈치를 힐끔힐끔 보며 조심스럽게 가까이 다가간다. 건지산을 향한 채 미동도 없는 외할머니의 눈길. 동만 손바닥을 펴서 외할머니 눈앞에 대고 뱅글뱅글 원을 그려 본다. 그제야 눈길 스프르 움직여 동만의 얼굴을 물끄러미 보더니 버릇처럼 완두콩을 다시 까기 시작한다. 부엌에서 이모가 대소쿠리에 점심을 담아 이고 사립문을 나간다. 냇다 따라 나가는 동만.

#33. 들길

보슬비 뿌리는 들길. 포플러 나무 우뚝우뚝 치솟은 발독길을 나란히 가는 동만과 이모.

동만: 이모.

길자: 응.

동만: 우리 외삼촌 죽었제?

길자: ……그래 전사하셨다.

동만: 전사란 게 군인이 나가 죽었다는 거제?

길자: ……그래.

동만: 왜 좀 더 숨어 있달 았구 군인 나가 죽어?

길자: 무어?

동만: 외삼촌이 뒤란 대나무밭에 숨어 있지 았았는감? 피난 와서 내내 숨어 있달 았았는감? 현디 왜 좀 더 숨어 있달 았고 군인 나가 죽어 뿌리는감?

길자: 그건……그게 아냐.

동만: 그게 아니라게 뭐가 아냐? 외삼촌이 대숲에서 한 달 동안 잘 숨어 있달 았았디야?

(무어라고 설명하기가 곤란한 길자. 따라가며 고개를 가웃해 보는 동만.)

- 윤삼육 각색, 「장마」 -

27. 위글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외할머니는 친할머니와 대화하기 싫어서 말문을 닫고 있다.
- ② 동만 모는 주변 사람들의 처지를 미처 헤아리지 못하고 있다.
- ③ 동만은 이모 길자를 통해 외삼촌의 사연을 확인하고 싶어했다.
- ④ 이모 길자는 가족들과 잠시 떨어져 있고 싶어서 일부러 외출했다.
- ⑤ 친할머니는 사돈댁이 겪은 참담한 사건에 대해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28. ㉠~㉣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울음소리’와 뒤섞이며, 관객의 정서적 반응을 고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군.
- ② ㉡은 원경으로 제시되어, 배경이 되는 공간을 확장해서 보여 주고 있군.
- ③ ㉢을 소품으로 먼저 제시한 이후, 이것을 다듬는 연기를 통해 외할머니의 내면 심리를 표현하고 있군.
- ④ ㉣은 카메라의 이동을 유도하는 기능을 하여, 가족들의 상황이 자연스럽게 화면에 포착되도록 돕고 있군.
- ⑤ ㉣은 같은 공간에 위치한 여러 인물들의 모습을 통해, 소통 부재의 상황이 해소되는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군.

29. <보기>를 바탕으로 #28~#32를 이해한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시나리오에서는 장면(scene)과 장면을 연계할 때, 이야기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매개 요소를 상정한다. 매개 요소란 장면 A의 말미와 다음 장면 B의 서두를 이어 주는 ‘형식적 고리’를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매개 요소는 두 장면 사이의 공통성이나 대립성을 활용한다. 공통성과 대립성은 인물의 성격, 연기(행위), 대사, 빛과 음향, 분위기 등의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 ① #28에서 #29로 바뀔 때, 장맛비의 긴장과 보슬비의 이완을 대립적인 매개 요소로 사용하고 있다.
- ② #28에서 #29로 바뀔 때, 빛의 어두워짐과 밝아짐이라는 대립적 매개 요소를 활용하여 시간을 자연스럽게 전환하고 있다.
- ③ #30 말미에서 앉아 있는 외할머니와 #31에서 누워 있는 동만 모를 대비하여, 상실감을 상이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④ #30과 #31에서 식사를 권유하는 대사를 반복하여, 외할머니가 있는 공간에서 동만 모가 있는 공간으로의 장면 전환을 매끄럽게 한다.
- ⑤ #31에서 #32로 바뀔 때, 이모 길자의 성격이 달라진다는 특성을 매개 요소로 활용하고 있다.

[32~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10.11

(가)

얇은 사(紗) 하이얀 고깔은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

파르라니 깎은 머리
박사(薄紗) 고깔에 감추오고

두 불에 흐르는 빛이
정작으로 고와서 **서러워라**.

빈 대(臺)에 황촉(黃燭)불이 말없이 녹는 밤에
오동잎 잎새마다 달이 지는데

소매는 길어서 하늘은 넓고
돌아설 듯 날아가며 사뿐히 접어 올린 외씨보산이여.

까만 눈동자 살포시 들어
먼 하늘 한 개 별빛에 모두오고

복사꽃 고운 뺨에 아롱질 듯 두 방울이야
세사에 시달려도 번뇌는 별빛이라.

휘어져 감기우고 다시 접어 뺨는 손이
깊은 마음 속 거룩한 합장인 양하고

이 밤사 귀뚜리도 지새는 삼경(三更)인데
얇은 사(紗) 하이얀 고깔은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
- 조지훈, 「승무」 -

(나)

여러 산봉우리에 여러 마리의 빠꾸기가
울음 울어
때로 울음 울어
석 석 삼년도 봄을 더 넘겨서야
나는 길뜰* **설움**에 맛이 들고
그것이 실상은 한 마리의 빠꼭새임을
알아냈다.

지리산 하
한 봉우리에 숨은 **실제의 빠꼭새가**
한 울음을 토해 내면
뒷산 봉우리 받아넘기고
또 뒷산 봉우리 받아넘기고
그래서 **여러 마리의 빠꼭새**로 울음 우는 것을
알았다.

지리산 중
저 연연한 **산봉우리**들이 다 울고 나서
오래 남은 추스름 끝에
비로소 한 소리 없는 **강이** 열리는 것을 보았다.

섬진강 섬진강
그 힘센 물줄기가
하동 쪽 **남해**로 흘러들어
남해 군도의 여러 작은 **섬**을 밀어 올리는 것을 보았다.

봄 하룻날 그 눈물 다 슬리어서
지리산 하에서 올던 한 마리 빠꼭새 울음이
이승의 서러운 맨 마지막 빛깔로 남아
이 세석(細石)* **철쭉꽃**발을 다 태우는 것을 보았다.
- 송수권, 「지리산 빠꼭새」 -

* 길뜰: 길이 덜 든.
* 세석: 지리산 정상 아래 부근의 지명.

(다)

무등산 한 활개 피가 동쪽으로 뻗어 있어
멀리 떴쳐 와 ㉠ **제월봉(霽月峰)**이 되었거든
무변대야(無邊大野)*에 무슨 짐작 하노라
일곱 굽이 한데 뭉쳐 우뚝우뚝 벌여 논 듯
가운데 굽이는 구멍에 든 ㉡ **넓은 용이**
선잠을 갓 깨어 머리를 앓혔으니
너럭바위 위에 송죽을 헤치고 ㉢ **정자를** 앓혔으니
구름 탄 청학이 천 리를 가리라 두 날개 벌렸는 듯
옥천산 용천산 내린 ㉣ **물이**
정자 앞 넓은 들에 울울히 퍼진 듯이
넓거든 기노라 푸르거든 회지 마나
쌍룡이 뒤트는 듯 긴 깃을 펼쳤는 듯
어디로 가노라 무슨 일 바빠서
달는 듯 따르는 듯 밤낮으로 흐르는 듯
물 좇은 사정(沙汀)*은 눈같이 퍼졌거든
어지러운 기러기는 무엇을 어르노라
앞으락 내리락 모이락 홀으락
노화(蘆花)*를 사이 두고 우러곰 좇느뇨
넓은 길 밖이요 긴 하늘 아래 두르고 꽃은 것은
피인가 병풍인가 그림인가 아닌가
높은 듯 낮은 듯 굶는 듯 잇는 듯
숨거니 뵈거니 가거니 머물거니
어지러운 가운데 이름난 양하여
하늘도 저어치 않고 우뚝이 섰는 것이 ㉤ **추월산** 머리 짓고
용구산 몽선산 불대산 어등산
용진산 금성산이 허공에 벌였거든
원근창애(遠近蒼崖)에 머문 짓도 하도 할사
- 송순, 「면양정가」 -

* 무변대야: 끝없이 넓은 들판.
* 사정: 모래톱.
* 노화: 갈대.

32.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단호한 어조로 화자의 의지를 드러낸다.
- ②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그리움의 정서를 고조한다.
- ③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시적 대상의 운동감을 나타낸다.
- ④ 대립적 시각을 바탕으로 긍정적 상황 인식을 드러낸다.
- ⑤ 역설적 표현을 통해 대상의 의미를 긴장감 있게 제시한다.

33.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승무」는 무녀(舞女)를 무대 공간의 중심에 배치하여 관객이 이를 바라보는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 무녀와 그의 춤을 초점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빛이 동원되어야 한다. 이 작품에는 지상과 천상, 상승과 하강, 생성과 소멸의 속성을 지닌 다양한 빛이 등장하여 무녀의 외양과 행위, 더 나아가 내면세계를 비추고 있다. 이 빛은 다양한 상징적 의미를 전달하고, 관객이 무대와 인물을 관조하거나 그것에 몰입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① 어두운 ‘밤’은 무녀를 비추는 다양한 빛의 양상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관객의 관심이 무녀에게 집중되게 한다.
- ② ‘흐르는 빛’은 여러 빛들에 비추어진 무녀의 낮빛으로서, 상승 이미지를 통해 환상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
- ③ 말없이 녹아내리는 ‘황촉불’과 기우는 ‘달’은 하강과 소멸 이미지를 지니고 있어 유한한 인간 존재를 떠올리게 한다.
- ④ 6연의 천상의 ‘별빛’은 번뇌에서 벗어난 초탈의 세계를 환기 하면서 승화의 의미로 이어지게 된다.
- ⑤ 7연의 ‘별빛’은 무녀의 눈과 연결되어 그녀가 지향하는 세계와 내면세계를 서로 이어 준다.

34. (가)의 ‘서러워라’와 (나)의 ‘설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의 설움은 역사적인 삶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다.
- ② (나)의 설움은 자연물의 주술적 속성을 통해 구체적으로 표출된다.
- ③ (가)와 (나)의 설움에는 부정적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이 담겨 있다.
- ④ (가)와 (나)의 설움은 외부 대상과는 무관하게 화자의 내면에서 생성되는 정서이다.
- ⑤ (가)는 밤을 지새우는 ‘귀뚜라미’의 소리를 통해, (나)는 ‘철쭉꽃’의 색깔을 통해 설움을 환기하며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35.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1연에는 화자가 깨달음에 도달하기까지 걸린 시간과 노력이 나타난다.
- ② 2연의 ‘실제의 뼈꼭새’는 ‘여러 마리의 뼈꼭새’와 상반되는 의미를 형성한다.
- ③ 2연~4연의 첫 행들은 각 연의 시적 공간에 대해 주의를 환기하는 방식으로 시상 전개에 통일성을 부여한다.
- ④ 3연~4연에서 ‘산봉우리’, ‘강’, ‘남해’, ‘섬’이 잇달아 연결되면서 변화와 생성의 세계를 보여 준다.
- ⑤ 3연~5연은 연의 끝 부분에 ‘보았다’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깨달음의 의미를 강조한다.

36. [A]와 [B]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와 달리, [B]는 직유를 통해 시각적 인상을 구체화한다.
- ② [B]와 달리, [A]는 음보율을 통해 정형적 운율미를 느끼게 한다.
- ③ [A]와 [B] 모두 어순의 도치를 통해 의미를 강조한다.
- ④ [A]와 [B] 모두 반어적 표현을 통해 냉소적 태도를 드러낸다.
- ⑤ [A]와 [B] 모두 영탄적 표현을 통해 자연물에서 받은 감흥을 표출한다.

37. <보기>를 참고하여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송순이 「면앙정가」에서 펼쳐 보인 세계는 흔히 ‘면앙우주’라고 일컬어진다. 면앙우주는 작가에게 천지만물의 이치를 심성의 수양으로 내면화하는 공간이었다. 작가는 자연 세계를 통해 인간 세계의 이치를 읽어 내는 가운데 조화와 합일을 추구했다. 그는 객관적 자연물에 인간적 생명력과 의지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이상과 세계관을 표출했다.

- ① ㉠의 ‘제월봉’이 ‘무변대야에 무슨 짐작’을 한다는 표현에는 높은 이상을 향한 작가의 의지가 자연물에 투영되어 있군.
- ② ㉡의 ‘늙은 용’이 ‘선잠을 갖 깨어’라는 표현에는 이상을 펼치기에 이미 늙었다고 여기는 작가의 조바심이 담겨 있어.
- ③ ㉢의 ‘정자가 ‘청학’처럼 ‘두 날개 벌렸는 듯’하다는 표현에서 면앙정이 비상(飛上)을 위한 심성 수양의 장소임을 알 수 있군.
- ④ ㉣의 ‘물’이 ‘밤낮으로 흐르는’ 모습을 통해 작가도 자신이 추구하는 바를 쉽 없이 행해야 함을 드러내고 있어.
- ⑤ ㉤의 ‘추월산’을 비롯한 여러 산들이 ‘높은 듯 낮은 듯 굽는 듯 있는 듯’ 서 있다는 표현에서 조화와 합일을 추구하는 삶의 태도를 볼 수 있군.

[38~4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10.11

남다른 눈썰미로 한 번 보면 못 내는 시늉이 없었고, 손속 또한 유별났으니 애써 가르친 바가 없어도 음식 맛깔과 바느질 솜씨는 어머니도 나무랄 수 없음을 진작에 선언한 정도였다.

동냥을 주면 종구라기가 넘치고 개밥을 주어도 구유가 좁게 손이 컸다.

“저것이 저리 손이 크니 시집가면 대번 시에미 눈 밖에 나 리…….”

어머니의 걱정처럼 그녀는 오종종하거나 소갈머리 오죽같은 것을 가장 싫어했고, 남의 억울한 일에는 팔뚝을 걷어붙이고 나서서 뒤통을 싸워 주며, 부지런하려 들기로도 남보다 뒤처짐이 없었던 것이다. 대소 간에 대사가 있을 때마다 그녀가 징발됐던 것도 남의 집 뒷수쇄에 뛰어난 능력을 보였음이니, 온갖 일의 들무새요 안머슴이었던 것이다.

“말꼬랑지 파리가 천 리 가더라구 웅쩍이가 그렇당께.”

부락 사람들은 그녀의 억척과 솜씨를 그렇게 비유하였고, 그녀는 그녀대로 그런 말 듣게 된 자신을 대견스레 여기는 것 같았다.

그녀가 열여섯이라는 어린 나이였음에도, 안팎 동네의 머슴이나 품일꾼, 그리고 어리전이나 드팀전을 보아 제 몫은 하던 장돌뱅이 총각들의 눈독을 한 몸에 받고 있었음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그 총각들은 장차 그녀를 아내로 맞고 싶어서 그러던 것은 분명 아닌 것 같았다. 그 시절만 해도 혼사에 있어서만은 으레 근본의 어머함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던 것이다. 양반 씨끼리들은 말할 것도 없고 향품배(鄕品輩)* 꾸트머리만 되어도 집안이 이렇고 저러함을 가장 큰 구실로 삼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 경우 교전비(轎前婢)*와 난봉난 행랑 것 사이에서 태어났던 그녀의 신분은 누구라도 고개를 저을 커다란 허물이었다. 아무리 소견이 들어 뒹뒹이가 쓸 만하고 살림에 규모가 있더라도 그녀의 내력을 변연하게 외던 근동 사람이라면 거들떠보려고도 않을 판이었다.

(중략)

관촌 부락에서 등성을 끼고 돌면 요카티라는 작은 부락이 있었다. 원래 이웃하고 농사짓는 초가집 대여섯 가구뿐으로 일년 내내 대사 한 번 치르지 않아 사는 것 같지 않던 동네였으나, 해방 이듬해부터는 금융 조합 창고 같은 연립 주택이 몇 채 들어서고 한 체에 여남은 가구씩, 북해도에서 왔다는 전채민들을 들여 정착시키자, 밤낮 조용한 날이 없게 시끄러운 마을로 변하면서 전채민촌이라는 새 이름이 붙은 곳이었다. 읍내의 지계꾼, 신기료장수, 리어카꾼과, 주체꼴이 남루한 낯선 사람은 모두 전채민촌에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무방할 지경이었다. 그 전채민촌이란 이름은 차츰 도둑놈 소굴이라는 뜻의 대명사로 불리어져 갔다. 관촌 사람들은 집 안에서 무엇이 없어진다거나, 논밭에 심은 것이 축난 듯싶으면 으레 전채민촌 사람들의 소행으로 여겨 버릇했고, 서툰 입고리장수가 들어서도 전채민촌 사람으로 판단, 물건을 갈아주기보다 집어 가는 것이 없는가를 살피려는 도사림으로 냉대해 보내기 일쑤였다.

그런 중에도 웅쩍이는 조금 달랐다. 그네들의 살아온 이야기, 살아가는 이야기를 들어 보면 불쌍하기 그지없던 거였다. 굶다 못해 이불숨을 빼다 팔아 겨울에도 흠이 불을 덮는다든가, 변변한 옷가지는 죄 팔아먹어 주체꼴이 것처럼 비렁뱅이 꼴이라는 거였다. 그렇다면서 전채민만 오면 어머니를 즐라 무엇이든 한 가지는 갈아주도록 피하던 것이다. 그녀는 특히 그녀만 보면,

[A] “옥상, 오꼬시 사 먹소.”

하며 들어붙던 절름발이 늙은이를 가장 측은하게 여기고 있었다. 일본에서 건너오다 처자를 놓쳐 홀로 된 늙은이라는 거였다.

“그 옥상만 보면 지 애비가 모집 나갔다 나오면서 고상했다던 생각이 나서 딱해 못 전디겼슈.”

웅쩍이가 어머니한테 하던 말이다.

과자를 먹어 어디서 난 것이냐고 물으면 웅쩍이는 서슴지 않고,

“쭉쟁이 보리 한 종발 주구 옥상헌티 샀지.”

했다. 옥상에게 곡식을 빼돌려 가면서까지 그녀가 내게 군것질을 시킨 이유는, 옥상이라고 부르던 그 불우한 늙은이를 돕는 마음이었지만, 그러나 더 가륙한 뜻이 없지 않았음을 나는 알고 있었다.

근래에 들어와 크게 유행을 본 말 가운데서 내가 가장 깨닫기 수월했던 말이 주체 의식이니 주체성 운운하던 단어들이었다. 어떡하는 것이 주체 의식이 있는 일이고 무엇이 주체성을 지키는 것인지 얼른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었다. 세상이 어지러운 난세일수록 유언비어가 난무함이 예사이고, 말을 얹으면 병신 대접 받기 십상인 줄 모르지 않으나, 주체 의식이나 주체성이란 말을 외래어보다도 막연하게, 개나

[B] 걸이나 지껄여 대지 않으면 행세를 못하는 줄 알던 많은 사람을 보아 온 터여서, 그 친한 말을 웅쩍이는 일찍이 내게 행동으로써 보여 준 셈이라고 장담하게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다. 한 번 더 다짐해 두지만, 그 무렵 웅쩍이의 태도를 주체 의식, 또는 주체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무방하다면, 나는 그녀만 한 정신 자세를 가진 인간을, 내가 이 사회에 나와 벌어먹게 된 뒤로는 몇 사람 외에 구경하지 못했다고 단언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 이문구, 「관촌수필」 -

* 향품배: 지방의 낮은 벼슬아치들.

* 교전비: 혼례 때에 신부가 데리고 가던 계집종.

38.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서술자를 교체하여 새로운 사건을 도입하고 있다.
- ② 과거와 현재를 반복 교차하여 사건에 입체감을 부여하고 있다.
- ③ 사건에 대한 객관적 묘사를 활용하여 독자의 판단을 유도하고 있다.
- ④ 방언과 구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생동감 있게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다.
- ⑤ 이질적인 시선을 대비해 가며 사회 현실을 총체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39. 윗글의 등장인물이 했음직한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어머니: **옹점**이가 숨씨는 나무랄 데 없지만 통이 너무 커서 앞날이 걱정이야.
- ② **옹점**이 자신: 나보고 오지랖이 넓다고들 하는데, 나 없으면 동네 큰 잔치는 누가 준비하지?
- ③ **장돌뱅이 총각**: **옹점**이가 가난하지만 **않**으면 색시로 삼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아.
- ④ **근동 사람**: **옹점**이네 속사정을 잘 아는데, **옹점**이가 사람만 놓고 보면 커다란 흠은 없지.
- ⑤ **절름발이 늙은이**: 관촌의 다른 사람들과 달리, **옹점**이는 내 처지를 잘 이해해 주지.

40. 윗글의 공간적 배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관촌은 공동체적 유대감과 계층 간 위계 의식이 남아 있는 공간이다.
- ② 전재민촌은 강한 내적 결속력을 가진 폐쇄적인 공간이다.
- ③ 관촌은 역동적인 공간임에 비해 전재민촌은 한적한 공간이다.
- ④ 관촌은 전재민촌과 달리 시대의 변화에 순응하는 공간이다.
- ⑤ 관촌과 전재민촌은 모두 물질 중심의 가치관이 지배하는 공간이다.

41. 윗글을 <보기>에 비추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관촌수필」은 전(傳)을 현대적으로 변용한 작품으로 평가 받고 있다. 전은 한 인물의 행적을 짚막하게 서술한 전통적인 글쓰기 양식이다. 대개 ㉠ ‘인물 소개 - 주요 행적 - 인물평’의 순서로 구성된다. ㉡ 서술 대상은 주로 충신, 효자 등 모범적인 덕목을 지닌 인물이었는데, 그중에는 하층민도 포함되어 있다. 전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인물평인데, 인물의 행적 요약, ㉢ 본받을 만한 덕목 제시, 작가의 최종 평가 등으로 구성된다. 이 과정에서 ㉣ 세상에 대한 작가의 판단이 덧붙여지곤 한다. 인물평은 ㉤ 행적 부분과 구별되는 진술 방식을 보여 주기도 한다.

- ① [A]는 ㉠의 ‘주요 행적’ 중 하나에 해당한다.
- ② **옹점**이가 ㉡이 된 이유는 신분적 한계를 극복하려는 의지 때문이다.
- ③ 서술자는 ㉢을 ‘주체 의식’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
- ④ [B]에 나타난 세대 비판적 태도에서 ㉣을 엿볼 수 있다.
- ⑤ [B]의 어투가 이전과는 달라진 것에서 ㉣을 확인할 수 있다.

[21~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10.09

(가)

차디찬 아침 이슬
진준가* 빛나는 못가
연꽃 하나 다복히 피고

소년아 네가 났다니
맑은 냇에 깃들여
박꽃처럼 자랐어라

큰강 목놓아 흘러
여울은 흰 돌쪽마다
소리 석양(夕陽)을 새기고

너는 준마 달리며
죽도(竹刀) 저 곧은 기운을
목숨같이 사랑했거늘

거리를 쫓아다녀도
분수(噴水) 있는 풍경 속에
동상답게 서 봐도 좋다

서풍(西風) 뺨을 스치고
하늘 한가* 구름 뜨는 곳
희고 푸른 즈음을 노래하며

노래 가락은 흔들리고
별들 춤다 얼어붙고
너조차 미친들 어떠라

- 이육사, 「소년에게」 -

*진준가: 진주인가.
*한가: 가장 끝 부분.

(나)

나무는 자기 몸으로
나무이다
자기 온몸으로 나무는 나무가 된다
자기 온몸으로 헐벗고 **영하 13도**
영하 20도 지상에
온몸을 뿌리 박고 대가리 쳐들고
무방비의 나목(裸木)으로 서서
두 손 올리고 벌받는 자세로 서서
아 벌받은 몸으로, 벌받는 목숨으로 기립하여, 그러나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온 혼(魂)으로 애타면서 속으로 몸 속으로 불타면서
버티면서 거부하면서 영하에서
영상으로 영상 5도 영상 13도 지상으로
밀고 간다, 막 밀고 올라간다

온몸이 으스러지도록
으스러지도록 부르터지면서
터지면서 자기의 뜨거운 혀로 싹을 내밀고

㉠ 천천히, 서서히, 문득, 푸른 잎이 되고
푸르른 사월 하늘 **들이받으면서**
나무는 자기의 온몸으로 나무가 된다

㉡ 아아, 마침내, 끝끝내
꽃 피는 나무는 자기 몸으로
꽃 피는 나무이다

- 황지우, 「겨울-나무로부터 봄-나무에게」 -

(다)

이 중에 시름없으니 어부(漁父)의 생애(生涯)로다
일엽편주(一葉扁舟)를 만경파(萬頃波)에 띄워 두고
인세(人世)를 다 잊었거니 날 가는 줄을 알라

굽어보면 천심(千尋) 녹수(綠水) ㉢ 돌아보니 만첩(萬疊) 청산
십장(十丈) 홍진(紅塵)이 얼마나 가렸는고
강호(江湖)에 월백(月白)하거든 더욱 무심(無心)하여라

청하(靑荷)*에 밥을 싸고 녹류(綠柳)에 고기 꿰어
노적(蘆荻) 화총(花叢)*에 배 매어 두고
일반(一般) 청의미(淸意味)*를 어느 분이 아실까

산두(山頭)에 한운(閑雲) 일고 수중에 백구(白鷗) 난다
무심(無心)코 다정한 이 이 두 것이로다
일생에 시름을 잊고 너를 좇아 놀리라

장안(長安)을 ㉣ 돌아보니 북궐(北闕)이 천리(千里)로다
어주(漁舟)에 누어신들 **잊은 때가 있으랴**
두어라 내 시름 아니라 제세현(濟世賢)*이 없으랴

- 이현보, 「어부단가」 -

*청하: 푸른 연잎.
*노적 화총: 갈대와 물억새의 덩불.
*일반 청의미: 자연이 주는 참된 의미.
*제세현: 세상을 구제할 현명한 선비.

21.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상과 조화를 이루는 삶의 태도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다.
- ② 지적 상황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자연물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 ③ 화자가 추구하는 이상 세계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④ 사물의 속성을 인간의 삶과 대비해 가며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⑤ 구도적인 자세를 통해 사물이 지닌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고 있다.

22.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의 ‘차디찬’과 (나)의 ‘영하 13도’는 모두 새로운 존재의 탄생을 예고한다.
- ② (가)의 ‘넋’과 (나)의 ‘혼’은 모두 숭고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 ③ (가)의 ‘박꽃’은 순수함을, (나)의 ‘꽃’은 생명력을 함축하고 있다.
- ④ (가)의 ‘사랑했거늘’은 화해의 의미를, (나)의 ‘으스스지도록’은 대결의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 ⑤ (가)의 ‘꽃아다너도’는 동경, (나)의 ‘들이받으면서’는 거부 의미한다.

23. (가)와 (다)를 비교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다)에 비해 청각적 이미지가 두드러진다.
- ② (다)는 (가)에 비해 음악적 리듬감이 두드러진다.
- ③ (다)는 (가)와 달리 대구의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 ④ (다)는 (가)와 달리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한다.
- ⑤ (가)와 (다) 모두 영탄의 어조로 시상을 집약하고 있다.

24.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육사의 유년 시절은 그가 쓴 수필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는 항일 의병장을 여럿 배출한 선대로부터 대의명분을 중시하고 눈물 흘리지 않는 사람이 되라고 배우며 자랐는데, 이러한 지사적 가풍이 자신의 일생을 지배했다고 고백한다. 또 그는 고향의 낙동강가에 앉아, 강물의 큰 흐름을 생각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간 ‘영웅’의 이야기에 심취했다고 한다. 이러한 유년의 경험은 민족사의 부활을 믿고 이를 위해 헌신한 그의 삶에 영향을 끼쳤다. 또한 삶과 시를 일치시킨 그의 시 세계를 구축하게 하였다.

- ① 3연의 ‘큰강’은 역사적 현실의 비유적 표현이겠군.
- ② 4연의 ‘곧은 기운’은 선대로부터 배우고 익힌 기상 의미 이겠네.
- ③ 5연의 ‘동상’은 현실에 타협하지 않고 신념을 지키려는 당당함의 표상이겠네.
- ④ 6연의 ‘노래’는 고향에 대한 상실감을 표현한 슬픔의 노래 이겠군.
- ⑤ 7연의 ‘너조차 미친들 어떠랴’에서는 화자의 시련 극복의 의지가 느껴지는군.

25. (나)의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과 ㉡은 앞과 뒤에 배치된 시상의 진행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킨다.
- ② ㉠과 ㉡은 화자의 감정과 인식에 독자가 주목하도록 한다.
- ③ ㉠의 ‘천천히’, ‘서서히’는 ‘씩’이 ‘있’이 되는 데 긴 시간이 필요함을 표현한다.
- ④ ㉡은 ‘자기의 온몸으로’가 ‘자기 몸으로 꽃 피는’으로 비약하는 데 대한 정서적 대응이다.
- ⑤ ㉠에서 ㉡으로 가면서 화자의 시선이 내면에서 외부 세계로 이동된다.

26. (다)의 ㉠과 ㉡를 중심으로 (다)를 <보기>와 같이 정리하여 감상하고자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대상	대상의 심상	화자의 태도
㉠ 돌아보니	청산	월백	더욱 무심하여라
㉡ 돌아보니	장안	홍진	잇은 때가 있으랴

- ① ‘만첩’은 ㉠과 ㉡의 대상 간의 단절을 강조하는 시어이다.
- ② ‘월백’은 ‘홍진’과 대비되어 강호 공간의 청정하고 순수한 이미지를 부각한다.
- ③ ㉠은 ‘더욱 무심하여라’와 연결되어 강호 공간에서 화자가 추구하려는 자기 절제의 내면세계를 드러낸다.
- ④ ㉡은 ‘잇은 때가 있으랴’와 연결되어 강호 공간에서도 버릴 수 없었던 정치적 이상에 대한 미련을 드러낸다.
- ⑤ ㉠과 ㉡에서 심리적 갈등을 겪던 화자가 선택한 최종적인 삶의 방향은 ㉡의 대상이다.

[27~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10.09

[**앞부분의 줄거리**] 양창곡의 연인이었던 강남홍은 그와 이별 후 백운 도사에게 무예를 배워 오랑캐의 장수가 되어 남장을 하고 명나라 원수 양창곡과 전장에서 맞서게 된다.

강남홍이 옥 같은 손을 들어 화살을 쏘니 시위 소리와 동시에 동초와 마달 두 사람의 갑옷이 쟁그랑하고 깨졌다. 두 장수가 더 싸울 뜻이 없어 말을 돌려 진영으로 돌아왔다.

뇌천풍이 투구를 주워 다시 쓰고 벽력부를 휘두르며 크게 꾸짖었다. “조그만 오랑캐 장수야! 작은 재주만 믿고 무례히 굴지 말라.” 그러고는 다시 강남홍에게 달려들더니 홀연 몸을 솟구치며 말에서 떨어졌다. 어찌된 일인지 모르겠구나. 다음 회를 보시라.

14회 옥피리는 자웅(雌雄)의 음률을 주고받으며, 거문고의 아름다운 소리는 끊어졌다 이어졌다 한다.

[A] 각설. 뇌천풍이 분기맹천하여 도끼를 휘두르며 강남홍에게 덤벼들었지만 그녀는 태연히 웃으며 부용검을 들고 서서 꼼짝도 않았다. 뇌천풍은 더욱 화가 나서 크게 소리 지르며 힘을 다해 강남홍을 공격했다. 순간 강남홍이 쌍검을 휘두르며 허공에 몸을 솟구쳤다. 뇌천풍이 허공을 쳐다보며 급히 도끼를 거두어들여려는데 갑자기 쟁그랑하는 소리가 머리 위에서 들렸다. 날아온 칼이 공중에서 떨어지며 투구를 쳐서 깨뜨린 것이었다. 뇌천풍이 황망하여 몸을 뒤돌며 말에서 떨어졌다.

그러나 강남홍은 다시 돌아보지 않고 칼을 거뒀다. 원래 강남홍의 검법은 깊고 얇음이 있어서 다만 투구만 깨뜨릴 뿐 사람을 다치게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뇌천풍은 이미 ㉠정신을 차리지 못하여 자기 머리가 없음을 의심하니 다시는 싸울 생각을 하지 못하고 급히 말을 돌려 자신의 진영으로 달아났다.

(중략)

강남홍은 백운 도사가 준 옥피리를 가지고 손삼랑과 연화봉으로 올라갔다. 멀리 명나라 진영을 바라보니 조용히 등불만 깜빡이는데, 삼경을 알리는 북소리가 울렸다. 강남홍이 옥피리를 꺼내 한 곡을 희롱했다.

이때 서풍은 쓸쓸히 불고 별과 달은 하얗게 빛나는데 원숭이의 슬픈 울음소리는 타향에서 떠도는 나그네의 시름을 돕는다. 찬 이슬은 옷깃에 가득 내리고 밝은 달은 진영을 환히 비춘다. 어떤 이는 창을 베고 누워 잠이 들고 또 다른 이는 칼을 치며 근심스럽고 슬프게 앉아 있던 때였다. 갑자기 바람결에 옥피리 소리가 아련히 반공에 퍼졌다. 처량한 곡조는 쇠와 돌도 녹이고, 흐느끼는 소리는 산천의 빛도 바꾸게 할 듯했다. 이때 명나라 십만 대군이 일시에 잠을 깨어 늑은이는 처자를 그리워하고 젊은이는 부모를 생각하여 혹 눈물을 뿌리며 탄식하고 고향을 노래하며 일어나 서성거렸다. 군중이 자연히 소란해지면서 부대의 대오가 어지러워졌다. 소유경이 깜짝 놀라 동초와 마달을 불러 군중을 단속하도록 했다. 그러나 두 장수 역시 기색이 처량하고 행동거지가 수상했다. 소유경이 급히 양창곡에게 알렸다.

마침 양창곡은 병서를 베고 잠을 자려던 참이었다. 정신이 이리저리 흔들리며 하늘에 올라 남천문에 들어가려 하니 한 보살이 백옥 여의를 들고 길을 막았다. 양창곡이 노하여 칼을 뽑아 여의를 치니 쟁그랑하고 땅에 떨어져 한 송이 꽃이 되어 붉은 빛과 기이한 향기가 천지에 진동했다. 양창곡이 놀라 깨어 보니 꿈이었다. 심중에 이상하게 생각하던 차에 소유경이 황망히 군막 안으로 들어와 군중의 동정을 보고하였다. 양창곡이 놀라 군막 밖으로 나가 시간을 물어보니 벌써 4, 5경이나 되었다. 삼군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진영이 들끓고 서풍은 손에든 깃발을 불어 흔든다. 바람결에 들리는 옥피리 소리는 애원하는 듯 처절하여 영웅의 마음으로도 비감해지는 것을 어찌지 못할 정도였다.

양창곡이 귀 기울여 들어 보니 어찌 그 곡조를 모르리오. 여러 장수를 돌아보며 말했다.

“옛날 장자방이 계명산에 올라 통소를 불어 초나라 병사를 홀어 놓았다더니 누가 이 곡조를 부는지 모르겠구나. 내 어렸을 적 옥피리 부는 것을 배워 곡조를 기억한다. 이제 한 번 시험하여 군사들의 처량한 마음을 진정케 하겠다.”

그는 상에서 옥피리를 꺼내 한 곡을 불었다. 그 소리는 평화로우면서도 호방하여 마치 천 리에 펼쳐진 봄날의 물이 장강에 흐르는 듯, 삼월 조화로운 바람이 아름다운 나무에 불어오는 듯했다. 그러자 처량했던 마음은 절로 풀렸으며 다시 한 곡을 불자 호탕한 마음이 무럭무럭 생겨나 군중이 평온해졌다. 양창곡은 다시 음률을 바꾸어 한 곡을 불었다. 그 소리는 웅장하면서도 기상이 커서 군사들의 기세가 늠름해졌다. 이에 군사들은 북을 쓰다듬고 칼춤을 추면서 다시 한번 전투를 벌이고자 하였다.

- 남영로, 「옥루몽」 -

27. 윗글로 미루어 알 수 있는 것은?

- ① 강남홍은 자신의 능력을 믿고 여유를 보이고 있다.
- ② 강남홍은 손삼랑과 함께 명나라 진영으로 잠입하였다.
- ③ 양창곡은 꿈 내용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 ④ 양창곡은 스스로를 영웅이라고 과시하고 있다.
- ⑤ 양창곡은 적이 습격할 것을 미리 알고 대처하였다.

28. ‘옥피리’ 연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강남홍의 연주는 군사들의 향수를 불러일으켰다.
- ② 강남홍이 연주한 곡은 즉흥적으로 지어낸 것이었다.
- ③ 양창곡의 연주는 강남홍의 연주와 달리 군사들의 사기를 북돋웠다.
- ④ 두 사람의 연주는 전쟁 상황에 신비감을 불어넣고 있다.
- ⑤ 두 사람이 연주한 곡조는 자연물을 활용하여 묘사되었다.

29. <보기>에서 [A]에 활용된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고전소설에 구현된 다양한 관습적 장치는 고전소설의 중요한 형식적 특징이자 독서법에 대한 일종의 약속이기도 하다. 「옥루몽」에 사용된 관습적 장치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ㄱ. 각 회의 첫머리에 놓여서 이후에 전개될 서사를 암시하는 제목
- ㄴ. 독자의 궁금증을 유발하거나 이후 전개될 내용을 선전하는 문구
- ㄷ. 인물의 행위나 상황에 대한 서술자의 심정적 동조가 들어간 논평
- ㄹ. 전 회에서 서술된 사건을 부연·반복하여 앞뒤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대목
- ㅁ. 작품 혹은 각 회의 첫 장면이 시작되거나 배경이 바뀌어 새로운 사건이 시작될 때, 이를 알리는 상투어

- ① ㄱ, ㄴ, ㅁ ② ㄱ, ㄷ, ㄹ
- ③ ㄱ, ㄴ, ㄹ, ㅁ ④ ㄴ, ㄷ, ㄹ, ㅁ
- ⑤ ㄱ, ㄴ, ㄷ, ㄹ, ㅁ

30.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뇌천풍은 사면초가(四面楚歌)에 빠졌다.
- ② 뇌천풍은 기사회생(起死回生)하여 본진으로 돌아갔다.
- ③ 뇌천풍은 적에게 패하자 삼십육계(三十六計)를 놓았다.
- ④ 뇌천풍은 강남홍의 칼 솜씨에 혼비백산(魂飛魄散)하였다.
- ⑤ 뇌천풍이 강남홍을 대적한 것은 이란투석(以卵投石)이었다.

[40~4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10.09

젊은이는 사내가 새를 사 주지 않는 데 대한 원망의 기색은 손톱만큼도 나타내지 않았다. 그는 될수록 사내가 난처해질 소리들만 골라서 그를 괴롭게 몰아붙이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결국은 사내 스스로가 견디질 못하고 가게를 떠나게 하려는 것이었다.

-아드님을 기다리신답니다. 아드님이 시골에 궁전을 지어놓고 영감님을 모시러 오시는 중이랍니다.

그는 때로 새를 사러 들어온 손님을 상대로 해서까지 그렇게 무참스럽게 사내를 비웃고 무안을 주었다.

-어디만큼 왔나, 고개만큼 왔지……. 영감님은 날마다 효자 꿈에 행복하시지요.

① 사내는 그러나 그런 젊은이의 비웃음을 아랑곳하려는 기색이 조금도 없었다. 그는 젊은이의 공박에 할 말이 전혀 없는 사람처럼 주위를 짐짓 외면해 버리곤 하였다. 젊은이가 정 그를 못 견디게 매도하고 들 때면 차라리 그 젊은이의 얄은 소갈머리가 가없어 죽겠다는 듯 슬픈 눈길로 그를 한참씩 건너다보고 있다가는 조용히 혼자 한숨을 짓고 말 뿐이었다.

하면서도 사내는 좀처럼 젊은이의 새 가게를 떠날 생각을 않고 있었다. 아니 그는 젊은이의 그런 버릇없는 공박 따위로 가게를 아주 떠나 버릴 처지의 사람이 아니었다.

그에겐 아직도 할 일이 남아 있었다.

“너석들에게 모두 새를 사야……. 그래도 너석들에게 빠짐없이 모두 한 마리씩은 새를 살 수가 있어야…….” 사내는 혼자 속으로 중얼거리곤 하였다. 그는 아직도 가막소* 안에 남아 있는 친구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 가없는 친구들을 위해 새를 사지 않고 혼자서 이곳을 떠날 수는 없다고 몇 번씩 결심을 다짐했다. 그는 그저 지금 당장은 새를 사는 일이 달갑게 여겨지지 않고 있을 뿐이었다. 새를 사더라도 전날처럼 즐겁거나 기분이 가벼워지질 못하고 있는 것뿐이었다.

하지만 사내는 그것도 그저 그 빌어먹을 잠자리의 악몽 때문일 거라 자신을 변명했다. 밤마다 그를 괴롭혀 대고 있는 빛줄기의 꿈만 꾸지 않게 되면 그는 다시 기분이 회복되어 새를 즐겁게 살 수 있으리라 자신을 기다렸다. 도대체가 새들이 낙엽처럼 빛을 맞고 떨어져 내리는 악몽이 계속되는 동안은, 그리고 그 빌어먹을 새들이 어째서 이 공원 숲을 떠나지 못하고 자꾸만 다시 조롱 속으로 붙잡혀 돌아오는지, 그런 사연을 석연히 이해하지 못하고는 새를 다시 사고 싶은 생각이 일어오질 않았다. 그건 마치 어린애들 숨바꼭질과도 같은 어리석은 장난일 뿐이었다.

한데 그러던 어느 날 밤, 사내에게 또 한 가지 이상스런 일이 일어났다.

사내는 이날 밤도 그 공원 숲 벤치 위에서 추운 새우잠을 견디고 있었는데, 자정을 한 시간쯤이나 지난 무렵이었을까, 예의 전깃불빛이 다시 공원 숲 속을 훑어 대기 시작했다.

이번엔 물론 꿈이 아니었다. 실제로 빛줄기를 앞세운 밤새 사냥이 시작된 것이었다. 사내는 벌써부터 까닭을 알 수 없는 두려움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사지가 움츠러들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다행스럽게도 전번 날 밤과는 사정이 훨씬 달랐다.

빛줄기가 아직 사내를 찾아내지 못하고 있었다. 아니, 이날 밤은 그 밤새 사냥꾼이 제 편에서 미리 사내의 잠자리를 피해 주고 있었는지도 알 수 없는 노릇이었다.

불빛은 좀처럼 사내 쪽으로 다가들 기미를 안 보이고 있었다. 사내와는 한참 거리가 떨어진 숲들만 이리저리 분주하게 휘저어 대고 있었다. 불빛을 맞은 밤새들이 낙엽처럼 어둠 속을 휘날리고 있을 뿐이었다.

불빛은 거의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미 줄음기가 말끔 달아나 버린 사내는 모른 체하고 다시 잠을 청할 수도 없었다.

그는 이윽고 야전잠바 옷깃을 들추고 천천히 벤치 위로 몸을 일으켜 앉았다. 그리고는 차분한 손짓으로 야전잠바 주머니 속을 뒤져 콩초 한 대를 찾아 물었다.

사내가 그 야전잠바 옷깃으로 불빛을 가리며 입에 문 콩초에 다 막 성냥불을 그어 붙이려던 순간이었다.

후루룩 - !

어둠 속 어느 방향으론가부터 느닷없이 사내의 잠바 깃 속으로 날아와 박혀드는 것이 있었다. 담뱃불을 붙이려다 말고 사내는 자신도 모르게 흠칫 놀라 손에 든 성냥불부터 날째게 꺼 없었다. 그리고는 그의 가슴께 깃 속으로 박혀든 물체를 재빨리 더듬어 냈다.

사내는 이내 물체의 정체를 알 수 있었다. 다름 아니라 그것은 방금 ④ 숲 속의 불빛에 쫓겨 온 한 마리의 새였다. 부드럽고 따스한 감촉이 손에 닿을 때부터 사내는 벌써 그것을 알 수 있었다. 옷깃 밖으로 끌려 나온 새는 두려움 때문인지 가슴이 몹시 팽팽거리고 있었다. 사내가 담뱃불을 붙이기 위해 옷자락에 성냥불을 켰을 때 녀석은 그 불빛을 보고 달려든 게 분명했다.

“빛에 쫓긴 녀석이 외려 또 불빛을 보고 덤벼들다니……. 역시 새 짐승이란…….”

사내는 녀석의 ⑥ 분별없는 행동이 희한하기도 하고 우습기도 하였다.

하지만 사내의 그런 생각이 오히려 오해였는지도 알 수 없었다.

사내는 잠시 녀석을 어떻게 해 주어야 좋을지를 생각해 보았다. 녀석을 금세 그냥 그대로 놓아 보낼 수는 없었다. 녀석은 몹시 겁을 먹고 있었다. 빛줄기에 쫓긴 녀석이 사내에게서 또 한 번 놀라고 있었다. 놀란 녀석을 무작정 다시 어둠 속으로 달아나게 할 수는 없었다.

그는 녀석에게 좀 안심을 시켜서 놓아주기로 작정했다.

- 이청준, 「잔인한 도시」 -

*가막소: 교도소.

40.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장면의 빈번한 전환으로 인물 사이의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 ② 과거와 현재를 병렬적으로 배치하여 특정 사건을 부각하고 있다.
 - ③ 인물이 추리 과정을 통해 특정 사건의 의미를 탐색하게 하고 있다.
 - ④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인물의 내면을 생동감 있게 묘사하고 있다.
 - ⑤ 짧고 감각적인 문장을 활용하여 공간적 배경을 세밀하게 그리고 있다.

41.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새 가게' 이외에는 거처할 곳이 없기 때문이다.
 - ② '젊은이'의 태도에 대해 무언의 항변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 ③ '가막소'에 있는 친구들을 위해 할 일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 ④ '젊은이'가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 ⑤ '아들'이 자기를 찾아올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42.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해석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이 소설은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세계에 맞서 그것의 정체를 드러내어, 이를 부정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억압적인 세계에 길들여져 있는 인간의 모습을 통해 현실 사회가 부정적인 공포의 공간이 되는 모순을 부각하고 있다. 이러한 모순은 공원 숲에서 멀리 달아나지 못하고 도리어 불빛 속으로 뛰어드는 새를 '사내'가 목격하고, 공원 숲이 더 이상 휴식의 공간이 될 수 없음을 깨닫는 데서 잘 드러난다. 또한 이 소설은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현실의 횡포와 기만에 대한 분노를 통해, 폭력과 억압이 존재하지 않는 세계를 집요하게 추구하고 있다.

- ①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세계는 '공원 숲 속을 훑어 대기 시작'하는 전깃불빛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다.
- ② 억압적인 세계에 길들여져 있는 인간의 모습은 '공원 숲을 떠나지 못하고 자꾸만 다시 조롱 속으로 붙잡혀 돌아오는' 새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 ③ 현재의 공간이 부정적인 공간이 되는 것은 사냥꾼에 쫓긴 '밤새들이 낙엽처럼 어둠 속을 휘날리'는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④ 현실의 횡포와 기만에 대한 분노는 '졸음기가 말끔 달아나 버린 사내'가 '모른 체하고 다시 잠을 청할 수' 없는 데서 확인할 수 있다.
- ⑤ 자유를 억압하는 강압적인 폭력의 결과는 '새들이 낙엽처럼 빛을 맞고 떨어져 내리는' 상황을 통해서 암시되고 있다.

43. ㉠~㉥ 중, '사내'가 <그런 사연>을 이해하기 위해 알아야 할 것으로 거리가 먼 것은?
- ① a ② b ③ c ④ d ⑤ e

[48~5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10.09

주위는 차츰차츰 어두워진다. 이윽고 ㉠ 범종 소리 들려온다. 멀리 산울림. 초부, 나무를 안고 나와 지계에 엎고, 담배를 한 대 피운다. 훗날리는 초설(初雪)을 머리에 받은 채 슬픈 듯한 표정으로 ㉡ 종소리를 듣는다. 이윽고 ㉢ 종소리 그친다. 도념, 고깔을 쓰고 바랑*을 걸머지고, 깡매기*를 들고 나온다.

초부 (지계를 지고 일어서며) 지금 그 중 네가 찼니?
도념 그러므로. 언젠 내가 안 치구 다른 이가 찼나요?
초부 밤낮 나무해 가지구 비탈 내려가면서 듣는 소리지만 오늘은 왜 그런지 유난히 슬프구나. (일어서다가 도념의 옷차림을 발견하고) 아니, 너 닷다가* 바랑은 왜 걸머지구 나오니?
도념 이번 가면 다시 안 올지 몰라요.
초부 왜? 스님이 동냥 나가라구 하시든?
도념 아아니요. 몰래 나가려구 해요.
초부 이렇게 눈이 오는데 잘 테두 없을 텐데. 어딜 간다구 이러니? 응, 갈 곳이나 있니?
도념 조선 팔도 다 돌아다닐걸요 뭐.
초부 아예, 그런 생각 말구, 어서 가서 스님 말씀 잘 듣구 있거라.
도념 벌써 언제부터 나가려구 별렀는데요? 그렇지만 스님을 속이구 몰래 도망가기가 차마 발이 떨어지지 않아서 못 갔어요
초부 어머니 아버질 찾거나 했으면 좋겠지만 찾지두 못하면 다시 돌아올 수도 없구, 거지밖에 될 게 없을 텐데 잘 생각 해서 해라.
도념 꼭 찾을 거예요. 내가 동냥 달라고 하니까 방문 열구 웬 부인이 쌀을 퍼 주며 나를 한참 바라보구 있드니 별안간 ‘도념아, 내 아들이, 이게 웬일이냐.’ 하고 맨발바닥으로 뛰어 내려오든 꿈을 여러 번 꾸었어요.
초부 가려거든 빨리 가자. 펍펍 쏟아지기 전에. 이 길루 갈테니?
도념 비탈길루 가겠어요.
초부 그럼 잘—가라. 난 이 길루 가겠다.
도념 네, 안녕히 가세요.

초부, 나무를 지고 내려간다. ㉣ 도념, 두어 걸음 나갈 때 범당에서 주지의 독경 소리. 발을 멈추고, 생각난 듯이 바랑에서 표주박을 꺼내 잣을 한 움큼 담아서 산문 앞에 놓는다.

도념 (무릎을 꿇고) 스님, 이 잣은 다람쥐가 겨울에 먹으려고 등걸 구멍에다 파 둔 것을 제가 아침이면 몰래 꺼내 뒀었어요 어머니 오시면 드리려구요. 동지선달 긴긴 밤 잠이 안오시어 심심하실 때 깨우십시오. (산문에 절을 한 후) 스님, 안녕히 계십시오.

멀리 동리를 내려다보고 길-게 한숨을 쉰다. 정적. ㉤ 원내에서는 목탁과 주지의 염불 소리만 청정히 들릴 뿐. 눈은 점점 펍펍 내리기 시작한다. 도념, 산문을 돌아다보며 비탈길을 내려간다.

- 함세덕, 「동승」 -

*바랑: 승려가 등에 지고 다니는 자루 모양의 큰 주머니
*깡매기: ‘팽과리’의 전라도 방언
*닷다가: 난데없이.

48.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대사에는 대화, 방백, 독백 등이 있다. 대화는 등장인물 간에 주고받는 대사로, 인물들의 관계를 알려 주고 사건을 진행시키는 기능을 한다. 방백이 관객을 청자로 상정한 대사라면, 독백은 배우가 심리적으로 자극을 받아 촉발된 혼잣말이다. 독백은 사건 진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배우가 내면 심리를 직접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연극의 서사에 시적 분위기를 첨가하는 기능을 한다.

- ① 두 사람의 대화는 초부와 도념이 그동안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음을 보여 주는군.
- ②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해, 초부가 도념의 결심을 헤아리고 도념의 의사를 존중하게 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군.
- ③ 도념이 초부와 헤어진 후 어머니에 대한 감정을 드러내야 한다는 심리적 자극을 받았기 때문에 독백을 한 것이군.
- ④ 도념의 독백은 절을 떠나는 사건을 지연하고 작품의 서정적 분위기를 강화하는 기능을 하는군.
- ⑤ 독백 후 도념은 말을 가급적 억제하고, 한숨이나 시선 혹은 신체 연기를 활용하여 심리적 정황을 전달하는군.

49. ㉠~㉤의 음향 효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을 통해 관객은 공간적 배경의 특성을 인지할 수 있다.
- ② ㉡에서 초부는 관객들이 음향 효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연기하고 있다.
- ③ ㉢은 새로운 사건이 일어날 것임을 알려 주는 기능을 한다.
- ④ ㉣에서는 음향이 생성되면서 도념의 행동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 ⑤ ㉤에서는 음향이 도념과 주지의 정서적 교감을 이끌며 심리적 여운을 증폭한다.

50. 윗글의 ‘비탈길’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속성	이해
①	갈라짐	초부와 헤어져 홀로 길을 떠나야 하는 도년의 처지를 보여 준다.
②	내려감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세상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도년의 마음을 보여 준다.
③	벗어남	도년이 절에서 살았던 지난날에 대한 원망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려 준다.
④	시작됨	도년이 자신의 일을 스스로 결정하면서 정신적으로 성숙해 나갈 것임을 알려 준다.
⑤	가파름	도년의 여정이 순탄하지 않을 것임을 암시한다.

[13~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0.06

(가)

처마 끝에 서린 연기 따라
 포도순이 기어 나가는 밤, 소리 없이,
 가물음 땅에 시며든 더운 김이
 등에 서리나니, 훈훈히,
 아아, 이 애 몸이 또 달아 오르노나.
 가쁜 숨결을 드내쉬노니, 박나비*처럼,
 가너린 머리, 주사* 짝은 자리에, 입술을 붙이고
 나는 중얼거리다, 나는 중얼거리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다신교도(多神教徒)와도 같이.
 아아, 이 애가 애자지게 보چه노나!
 불도 약도 달도 없는 밤,
 아득한 하늘에는
 별들이 참별 날으듯 하여라

[A]

[B]

[C]

- 정지용, 「발열(發熱)」 -

* 박나비: 흰제비불나방. 몸이 흰색이고 배에는 붉은 줄무늬가 있음.
 * 주사(朱砂): 짙은 붉은색의 광물질로, 한방에서 열을 내리는 데 사용하였음.

(나)

검은 벽에 기대선 채로
 해가 스무 번 바뀌었는지
 내 기린(麒麟)*은 영영 울지를 못한다

그 가슴을 통 흔들고 간 노인의 손
 지금 어느 끝없는 향연(饗宴)에 높이 앉았으려니
 땅 위의 외론 기린이야 하마 잊어졌을라

바깥은 거친 들 이리떼만 몰려다니고
 사람인 양 꾸민 잔나비떼들 쪼다다다니어
 내 기린은 맘들 곳 몸들 곳 없어지다

문 아주 굳이 닫고 벽에 기대선 채
 해가 또 한 번 바뀌거늘
 이 밤도 내 기린은 맘 놓고 울들 못한다

[D]

- 김영랑, 「거문고」 -

* 기린: 성인이 이 세상에 나올 징조로 나타난다는 상상 속의 동물.

(다)

해일처럼 굽이치는 백색의 산들,
 제설차 한 대 올 리 없는
 깊은 백색의 골짜기를 메우며
 굽은 눈발은 휘몰아치고,
 쪼그마한 숲덩이만한 게 짧은 날개를 파닥이며……
 굴뚝새가 눈보라 속으로 날아간다.

길 잃은 등산객들 있을 듯
 외딴 두메마을 길 끊어 놓을 듯
 은하수가 펄펄 쏟아져 날아오듯 덤벼드는 눈,
 다투어 몰려오는 힘찬 눈보라의 군단,
 눈보라가 내리는 백색의 계엄령.

쪼그마한 숲덩이만한 게 짧은 날개를 파닥이며……
 날아온다 꺼칠한 굴뚝새가
 서둘러 뒷간에 몸을 감춘다.
 그 어디에 부리부리한 솔개라도 도사리고 있다는 것일까.
 길 잃고 굽주리는 산짐승들 있을 듯
 눈더미의 무게로 소나무 가지들이 부러질 듯
 다투어 몰려오는 힘찬 눈보라의 군단,
 매죽나무와 때 끊이는 외딴집 굴뚝에
 해일처럼 굽이치는 백색의 산과 골짜기에
 눈보라가 내리는
 백색의 계엄령.

[E]

- 최승호, 「대설주의보」 -

13. (가)~(다)의 표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 (나)는 동일한 시행을 반복하여 운율감을 느끼게 한다.
- ② (가), (다)는 명사로 끝맺은 시행을 반복하여 시적인 여운을 준다.
- ③ (나), (다)는 의인화된 사물을 등장시켜 독자에게 친근감을 느끼게 한다.
- ④ (가), (나), (다)는 어순의 도치를 통해 긴장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가), (나), (다)는 대상의 현재 상황을 부각하여 시적 정서를 형성하고 있다.

14. 다음은 (가)를 영상시로 제작하기 위한 계획서이다. 이에 대한 평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유의 사항	• 카메라의 위치와 움직임은 화자의 시선 이동에 따른다. • 낭송, 영상 및 음향 효과는 시의 내용과 표현에 따른다.
[A]	ㄱ. 카메라 시선을 위쪽부터 아래로 천천히 내림. ㄴ. 화면을 점차 뿌옇게 처리.
[B]	ㄷ. 붉은색이 두드러지는 영상과 가쁜 호흡의 음향 사용. ㄹ. 클로즈업 기법 활용. ㅁ. 5행과 10행은 영탄적 어조로 낭송.
[C]	ㅂ. 카메라 시선을 밤하늘 쪽으로 옮겨 원경으로 담아 냄. ㅅ. 빛이 흩어지는 느낌이 들도록 영상 효과를 줌.

- ① ㄱ, ㄴ은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와 시간을 제시하고 작품 초반부의 분위기를 자아내는 데 효과적이겠군.
- ② ㄷ은 안타까운 상황과 분위기를 전달하고 ‘애’가 겪는 고통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
- ③ ㄹ로 ‘애’의 모습을 담으면 감상자의 공감을 이끌어 내는데 도움이 되겠군.
- ④ ㅁ은 화자의 간절한 심정과 내면 심리를 엿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겠어.
- ⑤ ㅂ, ㅅ은 의식이 혼미해진 ‘애’의 상태를 보여 주는 데 효과적일 것 같아.

15. <보기>의 설명을 듣고, 학생들이 (나)와 (다)에 대해 보일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김 선생님: 순수 서정 시인 김영랑은 1930년대 후반에 이르러 더 이상 마음속 울림을 맑은 가락으로 빚어낸 시를 쓸 수 없었어요. 모국어로 시를 쓰는 것 자체가 어려웠기 때문이지요. 「거문고」는 이런 현실을 우의적 표현으로 비판한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비슷한 맥락에서 1980년대 초반 많은 독자들의 호응을 얻은 「대설주의보」를 읽어 보지요. 이 작품은 새로운 권력 집단이 등장해서 강압 통치를 했던 시대와 관련이 깊습니다.

- ① (나)와 (다) 모두 생각의 표현이 자유롭지 못했던 시기에 창작되었어.
- ② (나)와 (다) 모두 고난 극복 의지와 미래에 대한 전망이 나타나지 않아.
- ③ (나)의 ‘울지를 못한다’와 (다)의 ‘내리는’은 모두 중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어.
- ④ (나)의 ‘기린’은 ‘노인’에게, (다)의 ‘굴뚝새’는 세상 사람들에게 외면당한 존재야.
- ⑤ (나)의 ‘이리떼’와 ‘잔나비떼’처럼, (다)의 ‘술개’는 부당한 권력을 암시하는 소재야.

16. [D]와 [E]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D]와 [E]는 자아 성찰을 위한 내면의 공간이 나타난다.
- ② [D]와 [E]는 화자의 심리적 갈등이 해소되는 계기를 보여 준다.
- ③ [D]와 [E]는 표면에 드러난 화자가 대상을 관찰하여 묘사한다.
- ④ [D]에는 화자와 대상의 거리감이, [E]에는 화자와 대상의 일체감이 나타난다.
- ⑤ [D]에는 화자가 선택한 은거의 공간이, [E]에는 생명이 위협받는 고립의 공간이 암시된다.

[23~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0.06

학교에 나가지 않으면 나는 5시에 ㉠컨베이어 앞을 떠날 수 없을 것이다. 선생님은 버스 정류장에서 내일은 꼭 학교에 나오라고 한다.

“우선 학교에 나와서 얘기하자.”

버스에 올라탄 선생님이 나를 향해 손을 흔든다. 선생님의 손 뒤로 공장 굴뚝이 울퉁울퉁하다. 처음으로 공장 속에서 사람을 만난 것 같다. 버스가 떠난 자리에 열일곱의 나, 우두커니 서 있다. 선생님의 손길이 남아 있는 내 어깨를 내 손으로 만져 보며.

다음날 교무실로 나를 부른 선생님은 내게 반성문을 써 오라 한다.

“하고 싶은 말 다 써서 사흘 후에 가져와 봐.”

㉡반성문을 쓰기 위해 학교 앞 문방구에서 대학 노트를 한 권 산다. 지난날, 노조 지부장에게 왜 외사촌과 내가 학교에 가야만 하는가를 뭐라구 뭐라구 적었듯이 이젠 선생님에게 학교 가기 싫은 이유를 뭐라구 뭐라구 적는데 어느 참에서 마음속의 이야기들이 왈칵 쏟아져 나온다. 열일곱의 나, 쓴다. 내가 생각한 도시 생활이란 이런 것이 아니었으며, 내가 생각한 학교 생활도 이런 것이 아니었다.

나는 주산 놓기도 싫고 부기책도 싫으며 지금은 오로지 마음속에 남동생 생각뿐으로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서 그 애와 함께 살고 싶다고. 반성문은 노트 삼분의 일은 되게 길어진다.

[A] 반성문을 다 읽은 선생님이 말한다.

“너 소설을 써 보는 게 어떨겠냐?”

내게 떨어진 소설이라는 말. 그때 처음 들었다. 소설을 써 보라는 말.

그는 다시 말한다.

“㉢주산 놓기 싫으면 안 놓아도 좋다. 학교에만 나와. 내가 다른 선생들에게 다 말해 놓겠어. 밀 하든 니가 하고 싶은 걸 하거라. 대신 학교는 빠지지 말아야 돼.”

그는 내게 한 권의 책을 건네준다.

“내가 요즘 최고로 잘 읽은 소설이다.”

표지에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라고 써어 있다.

(중략)

최홍이 선생님. 이후 나는 그 선생님을 보러 학교에 간다. 어색한 이향*으로 마음에 가뒀던 그리움들이 최홍이 선생님을 향해 방향을 돌린다. 열일곱의 나, 늘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을 가지고 다닌다. 어디서나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을 읽는다. 다 외울 지경이다. 회재언니가 무슨 책이냐고 묻는다.

[B] 쏘아 올린 작은 공을 읽는다. 다 외울 지경이다. 회재언니가 무슨 책이냐고 묻는다.

“소설책.”

소설책? 한번 반문해 볼 뿐 관심 없다는 듯이 회재언니가 고개를 떨군다. 최홍이 선생님이 마음 안으로 가득 들어찬다.

정말 주산을 놓지 않아도 주산 선생님은 그냥 지나간다. 부기 노트에 ㉣대차대조표를 그리지 않아도 부기 선생은 탓하지 않는다.

주산 시간에 국어 노트 뒷장을 펴고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을 옮겨 본다.

.....사람들은 아버지를 난쟁이라고 불렀다. 사람들은 옮겨 보았다. 아버지는 난쟁이었다.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아버지를 보는 것 하나만 옮겼다. 그 밖의 것들은 하나도 옮기지 않았다. 나는 아버지, 어머니, 영호, 영희, 그리고 나를 포함한 다섯 식구의 모든 것을 걸고 그들이 옮지 않다는 것을 언제나 말할 수 있다. 나의 ‘모든 것’이라는 표현에는 ‘다섯 식구의 목숨’이 포함되어 있다.

[C]이제 열일곱의 나는 컨베이어 위에서도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을 옮기고 있다.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지옥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그러나 우리 다섯 식구는 지옥에 살면서 천국을 생각했다,고. 단 하루라도 천국을 생각해 보지 않은 날이 없다,고. 하루하루의 생활이 지겨웠기 때문이다,고. 우리의 생활은 전쟁과도 같았다,고. 우리는 그 전쟁에서 날마다 지기만 했다,고. 그런데도 어머니는 모든 것을 잘 참았다,고.

그가 소설책을 써 보는 게 어떨겠느냐는 말 대신 시를 써보는 게 어떨겠느냐고 했으면 나는 시인을 꿈꾸었을 것이다. 그랬었다. 나는 꿈이 필요했었다. 내가 학교에 가기 위해서, 큰오빠의 가발을 담당하게 빗질하기 위해서, ㉤공장 굴뚝의 연기를 참아 낼 수 있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소설은 그렇게 내게로 왔다.

십이월 중순이 지날 때까지 나는 환경신 선생이 보낸 편지를 가방에 넣고 다녔다. 가끔 편지를 꺼내 전화는 오후 5시 30분 이후부터 9시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대목을 읽어 보곤 했다. 842-XXXX. 몇 번 편지를 꺼내 읽고 다시 넣고 하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전화번호를 다 외우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끝내 전화하지 못했다. 시간은 자꾸 흘러 환경신 선생이 학교에 왔으면 하는 기간인 12월 초와 중순을 지나갔다. 이제는 방학을 했겠구나, 싶었을 때 가방에서 편지를 꺼내 서랍에 넣으면서 그 학교를 떠나는 헛수를 헤아려 봤다. 떠나는 지 십삼 년이다. 이제는 그때의 일들이 나에게서 객관화가 되어 있으려니 했다.

글을 쓰기로 마음을 먹었을 땐 나는 그 시절을 다 극복한 것도 같았다. 그래서 그 시절에 대해서 할 수 있는 한 [D] 자세히 써 보기로 했다. 그때의 기억을 복원시켜 내 말문을 띄워 보고 내 인생의 폐문 앞에서 끊겨 버린 내 발자국을 연결시켜 줘 보기로.

- 신경숙, 「외판 방」 -

*이향: 고향을 떠남.

23. ㉠~㉣에 대한 ‘나’의 심리적 태도가 다른 하나는?

- ① ㉠ ② ㉡ ③ ㉢ ④ ㉣ ⑤ ㉤

24. 다음은 작가가 남긴 창작 노트의 일부이다. 이 노트의 내용이 [A], [B]에 실현된 양상으로 적절한 것은? [3점]

- 시제의 변화 ㉠
- 문단 나누기의 효과? ㉡
- 간결한 문장 위주로 쓸 것 ㉢
- ‘나’를 부르는 방식에 변화를 줄 것 ㉣
- 대화보다는 심리 묘사 위주로 ㉤

- ① ㉠은 [A]에서 현재형 어미를 사용하여 이야기 전개 속도를 높이는 식으로 실현되었군.
- ② ㉡는 [A]에서 문단 사이에 여백을 주어 인과 관계를 명료화 하는 식으로 실현되었군.
- ③ ㉢는 [B]에서 간결한 문장을 주로 사용하여 과거를 담담한 어조로 서술하는 식으로 실현되었군.
- ④ ㉣는 [B]에서 서술자가 스스로를 가리키는 방식을 달리하여 내적 분열을 강조하는 식으로 실현되었군.
- ⑤ ㉤는 [B]에서 대화를 최소화하여 사건의 긴장감을 고조하는 식으로 실현되었군.

25. [C]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의 고단한 생활을 간접적으로 보여 준다.
- ② ‘나’가 소설 쓰기를 배워 가는 과정을 보여 준다.
- ③ ‘나’가 창작의 어려움을 깨달아 가는 모습을 보여 준다.
- ④ ‘나’가 소설을 옮겨 적으며 스스로 위안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 ⑤ ‘나’가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에 대해 보이는 애착을 구체적인 장면으로 보여 준다.

26. [D]는 작품 창작의 동기를 작품에 직접 드러내고 있다. <보기>에서 [D]와 성격이 유사한 것은?

<보 기>

목중: 오랜만에 나왔으니 예전에 하던 소리나 한번 해 보자.
어어으 아-.

음중: (뒤에서 달려 나와 탁 치며) 야, 이놈아!

목중: 이크, 이게 웬 일이나. 어느 광대 놈이 나오자마자 사람 부터 쳐. ①

음중: 송아지 풀 뜯어 먹고 울 듯이 ‘어어으 아’ 하면서 나왔 다니 거 무슨 말이야? ②

목중: 내가 나오기는 부모 배 밖에 이제 나왔다고 한 것이 아니라 놀이판에 나오길 이제 나왔단 말이야. ③

음중: 옳지. 그럼 우리 여기 모인 양반들에게 박수 한번 크게 받게 제대로 놀아 보자. ④

목중: 너 그러나 저러나 그 쓴 게 뭐냐?

음중: 쓰긴 내가 뭘 써. 일수(日收)를 써 월수(月收)를 써? ... ⑤

- 「양주별산대놀이」 개작 -

[31~3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10.06

(가)

점심을 먹은 후, 다시 돌부리를 부여잡기도 하며 5, 6리쯤 나아가 **영랑재**에 올랐다. 천봉만학의 기괴한 형상을 굽어보았다. 주요 형상을 조금 들어 이름 붙여 말하면 이러하다.

사람 모습을 한 것, 새 모습을 한 것, 짐승 모습을 한 것이 있었다. 사람 모습을 한 것은 앉은 듯 일어선 듯, ㉠ 우러러보는 듯 굽어보는 듯하여, 마치 장군이 군진(軍陣)을 정돈하자 백만 군졸이 창을 옆으로 비끼고 칼을 휘두르며 다투어 적진으로 내닫는 듯도 하고, 늙은 스님이 공(空)을 강론하자 수천의 중들이 가사를 어지러이 걸치고 급하게 참선에서 돌아오는 듯도 하다. 새 모습을 한 것은 나는 듯 쫓는 듯, 새끼 부르는 듯 꼬리 뒤 채는 듯하여, 마치 ㉡ 기러기 무리가 날개를 가지런히 하여 행렬을 이루어 가을 하늘에 짐을 짊어 올 지은 듯도 하고, 짝 잃은 난(鸛)새가 외로운 그림자를 떨어뜨리면서 머뭇거리다가 거울 속으로 날아 들어가는 듯도 하다. 짐승 모습을 한 것은 웅크린 듯 엎드린 듯, 달리는 듯 누운 듯하여, ㉢ 양들이 흩어져 풀을 뜯다가 해가 저물어 내려오는 듯도 하고, 사슴들이 험한 곳을 달리다가 발을 헛디더 놀라 추락하는 듯도 하다.

지금 생각하면, 망고대와 만폭동에서 본 것은 모두 아이들의 장난같이 여겨진다.

영랑재에서 절정까지 4,5십 리를 에두르고 비스듬히 가는 길에, 해송과 측백나무는 모두 바람을 싫어하여 줄기가 한쪽으로 쏠리고, 서로 뒤엎혀 짙고 열은 푸른빛을 띠었으며, 그 키가 서너 장(丈)쯤 되어 보였다. 사람이 그 위로 걸어가니 마치 ㉣ 풀로 엮은 다리 위를 걷는 듯했다. 승려 지능이 발을 헛디더 4, 5십 보를 굴렀지만 떨어지지는 않았다.

또 4, 5백 보를 걸어 비로봉에 올랐다. 사방을 빙 돌며 둘러보니, 넓고도 아스라하여 그 끝을 알지 못할 정도였다.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이 마치 학을 타고 하늘 위로 오르는 듯하여, 나는 새라도 내 위로는 솟구치지 못할 것 같았다.

이날 천지가 맑고 개어 사방으로 작은 구름 한 점도 없

[A] 었다. 나는 승려 성정에게 말하였다.

“물을 보면 반드시 원류(源流)까지 궁구해야 하고 산에 오르면 반드시 가장 높이 올라야 한다고 했으니, 요령(要領)*이 없을 수 없겠지요. 산천의 구분과 경계를 하나하나 가리킬 수 있겠습니까?”

성정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두루 보여 주었다.

- 홍인우, 「관동록」 -

* 요령: 가장 중요하고 으뜸이 되는 골자나 줄거리.

(나)

쇼향노 대향노 눈 아래 구버보고,
정양스 진힐디 고타 올라 안즌마리,
너산(廬山) 진면목이 여괴야 다 뵈는다.
어와 조화옹이 현스토 현스홀샤.
늘거든 뿌디 마나 셋거든 솟디 마나.
㉠ 부용(芙蓉)을 고갯는 듯 백옥(白玉)을 못갯는 듯,
동명(東溟)을 박츠는 듯 북극(北極)을 괴왓는 듯.

뚝홀시고 망고더 외로올샤 혈망봉이
하늘의 추미러 므스 일을 스로리라,
천만 겁 디나드록 구뵐 줄 모르는다.
어와 너여이고 너 ㉡티니 또 잇는가.
기심디 고타 올라 동향성 브라보며,
만 이천 봉을 녀너히 혀여하니,
봉마다 밋쳐 잇고 곳마다 서린 괴운,
몹거든 조티 마나 조커든 뵈디 마나.
더 괴운 호터 내야 인걸을 문들고쟈.
형용도 그지업고 테세(體勢)도 하도 할샤.
턴디(天地) 삼기실 제 즈연이 되연마는,
이제 와 보게 되니 유정도 유정홀샤.

[B] 비로봉 상상두의 올라 보니 괴 뉘신고.
동산 태산이 어느야 뉘똥던고.
노국(魯國) 조븐 줄도 우리는 모르거든,
넙거나 넙은 턱하 엇찌혀야 적닷 말고.
어와 더 디위를 어이호면 알 거이고.
오르디 못호거니 느려가미 고이홀가.

- 정철, 「관동별곡」 -

(다)

금강 일만 이천 봉이 눈 아니면 옥이로다
[B] **혈성루** 올라가니 천상인(天上人) 되었어라
아마도 서부진 화부득*은 금강인가 하노라

- 안민영 -

* 서부진 화부득(書不盡畫不得): 글로 다 써 낼 수 없고 그림으로 다 그려 낼 수 없음.

31.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감각적인 언어로 대상을 생동감 있게 그려내고 있다.
- ② (가)와 (나)는 여행 도중의 감상과 글로 표현할 때의 감상을 구별하며 서술하고 있다.
- ③ (가)와 (다)는 물음을 통해 대상에 대한 관심을 확대하고 있다.
- ④ (나)와 (다)는 단정적 어조로 대상에 대한 주관적 정서를 강화하고 있다.
- ⑤ (나)와 (다)는 사물의 특징을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여 묘사하고 있다.

32. ㉠~㉣ 중, 표현하는 대상의 성격이 다른 하나는?

- ① ㉠ ② ㉡ ③ ㉢ ④ ㉣ ⑤ ㉠

33. (가)~(다)를 바탕으로 금강산 답사를 계획하였다. (가)~(다)의 내용을 잘못 이해한 것은?

- ① '영랑재'에서 산봉우리와 골짜기를 굽어보며 그것들이 이루는 다양한 형상을 확인해 본다.
- ② '영랑재에서 절정까지' 오르는 길에 해송과 측백나무의 모양새를 확인해 본다.
- ③ '진월디'에서 '녀산' 쪽을 바라보며 변화무쌍한 경치를 즐겨 본다.
- ④ '기심디'에서 '동향성' 쪽으로 조망하며 금강산 일만 이천 봉의 형상이 빚어내는 다양한 기운을 느껴 본다.
- ⑤ '혈성루'에서 금강산을 바라보며 신선이 되는 느낌을 가져본다.

34. [A], [B]에 나타난 서술자(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 높은 곳에 오르는 행위를 사물의 근원을 탐색하는 과정으로 여기고 있다.
- ② [B]: '비로봉'에 오르는 행위의 의미를 성인의 체험에 빗대어 생각하고 있다.
- ③ [A]와 [B]: 현실에서 부딪힌 문제를 자연 속에서 해결하고 있다.
- ④ [A]와 [B]: 자신의 여행 체험에 대해 만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 ⑤ [A]와 [B]: 자신의 시야를 넘어서는 세계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고 있다.

35. (다)를 <보기 2>와 같이 읽는다고 할 때, <보기 1>의 ㉠와 같은 속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은?

<보기 1>

기차를 타고 가다 보면 전봇대가 일정한 간격으로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된다. 이러한 반복에 익숙해지면 우리는 거기에서 리듬감을 느끼고, 그 리듬의 틀이 계속되기를 기대한다. 그래서 간혹 전봇대 하나가 안 보이더라도 하면 허전한 느낌이 드는 것이다. 또 전봇대가 촘촘히 나타나면 급한 느낌이 든다. 그러다가 다시 ㉠ 원래의 간격을 회복하면 기대감이 충족되어 편안함을 느낀다.

<보기 2>

|| 금 | 강 | 일 | 만 || 이 | 천 | 봉 | 이 || 눈 | 아 | 니 | 면 || 옥 | 이 | 로 | 다 || ①
|| 월 | 성 | 주 | || 울 | 라 | 가 | 니 || 천 | 상 | 인 | || 쇠 | 있 | 어 | 타 || ② ③
|| 아 | 마 | 도 | || 세 | 뽀 | 진 | 화 | 뽀 | 특 | 인 || 금 | 강 | 인 | 가 || 하 | 노 | 라 | || ④ ⑤

* || || : 한 음보의 길이

[43~4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10.06

(가)

(아니리)

“제가 세상에 빨리 나가 간을 속히 가지고 오겠나이다.”

용왕이 이 말을 듣더니,

“여봐라 별주부야. ㉠ 토공을 모시고 세상을 나가 간을 주겨 들랑 속히 가지고 오도록 하여라.”

명을 내리노니 별주부 기가 막혀,

(중머리)

별주부가 울며 여쭙되,

“토끼란 놈이 본시 간사하야 뱃속에 달린 간 아니 내고 보며는 조목금수(鳥木禽獸)라도 빈정거릴 터이요 맹획(孟獲)을 칠중칠금(七縱七擒)*하던 제갈량의 재주 아니어든 한번 놓아 보낸 토끼를 어찌 다시 구하리까. 당장에 배를 따 보아 간이 들었으면 좋으려니와 만일에 간이 없으면 소신의 구족(九族)을 멸하여 주옵고 소신을 능지처참하더라도 여한이 없사오니 당장 따 보시오.”

토끼가 기가 막혀,

“여봐라 이놈 별주부야. 야 이놈 몸쓸 놈아. 왕명이 지중 커늘 내가 어이 기만하랴. 옛말을 내가 못 들었느냐. 하갈(夏桀) 학정으로 용봉*을 살해코 미구(未久)에 망국 되었으니 너도 이놈 내 배를 따 보아 간이 들었으면 좋으련만 만일에 간이 없으면 불쌍한 나의 목숨이 너의 나라서 원귀 되고 너의 용왕 백 년 살 것을 하루도 못 살 테요, 너의 나라 만조백관 한낱한시에 모두 다 몰살시키리라. 아나 옛다 배 갈라라. 똥밖에는 든 것 없다. 내 배를 갈라내 보아라.”

[A]

(아니리)

“왜 이리 잔말이 심한고. 어서 빨리 나가도록 해라.”

별주부가 하릴없이 토끼를 업고 세상을 나가는데 세상 경계가 장히 좋던가 보더라.

[중략 부분의 줄거리] 토끼는 육지에 당도하여 별주부를 따돌리고 도망치지만 독수리에게 잡히는 신세가 된다.

(나)

(중머리)

“아이고 아이고 어쩔거나 아이고 이를 어쩔거나. 나 죽기는 싫지 않으나 수로 천 리 먼먼 길에 겨우겨우 얻어 온 것을 무주공산(無主空山)에 던져 두고 입자 없이 죽게 되니 이 아니 싫소이까.”

(아니리)

“아니 그게 무엇이란 말이냐.”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오라 이번에 제가 수궁엘 들어갔었지요.”

“그래서.”

“수궁엘 들어갔더니 용왕께서 ‘의사중치’를 하나 주십디다.”

“아니 무엇, ‘의사중치’라는 것이 무엇이냐.”

“글쎄 그것이 이상스럽습니다. 짝 퍼 놓고 보면 구멍이 한 두서넛씩 뚫어졌죠.”

“그래서.”

“그 한 구멍을 딱 쳐서 ‘씩은 도야지 창자 나오너라.’ 하면 그저 꾸역꾸역 나오고, 또 한 구멍을 툭 치고 ‘도야지 새끼나 개 창자나 나오너라.’ 하면 그저 꾸역꾸역 나오고, 또 한 구멍을 툭 치며 ‘그 병아리 새끼들 나오너라.’ 하면 병아리가 일천 오백 마리나 그저 꾸역꾸역 나오고, 무엇이든지 내 소원대로 나오는 그런 보물을 저기 저 무주공산에다가 던져 두고 죽게 되니 그 아니 딱한 일이오.”

“너 이놈 토끼야.”

“네.”

“네 목숨을 살려 줄 테니 그것 좀 날 줄래.”

“아이고, 목숨만 살려 주시면 드리고 말고요.”

“그럼 그것이 어데 있느냐.”

“저기 있습니다.”

“가자.”

독수리란 놈이 토끼 대굴박을 소주병 들듯 탁 들고서 훨훨 날아가더니,

“여기냐.”

“네.”

바위 옆에다 턱 내려놓고,

“어서 나 시장해 못 살겠다. 빨리 ‘의사중치’ 좀 내오너라.”

“장군님, 내 뒷발을 잡고 놓아 달라는 대로 좀 봐 주십시오. 안에 들어가서 내어 올 테니.”

토끼는 피가 많은 놈이라 앞발을 바위틈에다 쑥 허니 넣고, “장군님, 조금만 봐 주시오. 아, 닿을 만합니다. 조금만 더 조금 조금 조금.”

뒷발을 탁 차고 바위 속으로 쑥 들어가더니 느닷없이 시조 반 장을 내겼다.

“세월이 여류허여…….”

“너 이놈 토끼야. 아, 내 시장해 죽겠는데 무엇이 그리 한가해 들어가서 시조를 부르고 앉았느냐. 어서 이리 가져오너라.”

토끼가 호령을 하는데,

“너 이놈 독술아. 내 발길 나가면 네 해골 터질 테니 어서 날아가거라.”

[B]

“너 이놈, 다시 안 나올라니.”

“내가 늘그막에 출입할 수도 없고 집에서 손주나 봐 주고 지나갈란다. 어서 잔말 말고 날아가거라. 이것이 바로 내가 살아났으니 ‘의사중치’라 하는 것이다.”

- 작자 미상, 「수궁가」 -

*칠중칠금: 마음대로 잡았다 놓아 주었다 함을 이르는 말.

*용봉: 중국 하나라의 신하로, 걸왕에게 간언하다 죽임을 당함.

43.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공간의 이동을 통해 국면이 전환된다.
 - ② 배경이 되는 시대 상황을 구체적으로 서술한다.
 - ③ 창(唱)과 아니리가 교차하면서 갈등이 고조된다.
 - ④ 의도적으로 고사(故事)를 오용하여 긴장감을 낳는다.
 - ⑤ 비슷한 잘못을 반복하는 주인공의 모습을 보여 준다.

44. [A]와 [B]에 나타난 ‘토끼’의 말하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는 권력자에 기대어, [B]는 연륜을 내세워 상대를 설득하고 있다.
 - ② [A]에는 절박함을 숨기려는 심리가, [B]에는 득의양양한 심리가 내재되어 있다.
 - ③ [A]와 [B]는 모두 상황을 가정하며 상대에게 대응하고 있다.
 - ④ [A]와 [B]는 모두 비속한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를 자극하고 있다.
 - ⑤ [A]는 [B]와 달리, 드러난 청자뿐 아니라 작품 속의 다른 인물까지 청자로 상정하고 있다.

45. ㉠에 담긴 ‘용왕’의 생각을 가장 잘 드러낸 것은?
- ① 토끼가 말하는 것을 보니, 허장성세(虛張聲勢)가 대단하군.
 - ② 토끼가 돌아올 때까지 수주대토(守株待兔)하듯 기다려야겠군.
 - ③ 토끼가 이리 안하무인(眼下無人)이니 말로라도 대접하는 척 해 주지.
 - ④ 천려일실(千慮一失)이러는데, 토끼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해야겠어.
 - ⑤ 자가당착(自家撞着)도 유분수지, 겨우 잡아 온 토끼를 놓아 주어야 하다니.

46. 윗글의 ‘의사죽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독수리의 관심을 토끼에게서 돌리는 수단이 된다.
 - ② 토끼는 획득 경로를 밝혀 신빙성을 높이고자 한다.
 - ③ 독수리와 토끼가 상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 ④ 실재하지 않으면서, 실재하는 존재들에 영향을 끼친다.
 - ⑤ 독수리와 토끼의 서로 다른 욕망이 만나는 지점이 된다.

[20~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09.11

이윽고 서씨의 몸은 성벽의 저 너머로 사라져 버렸다. 그리고 잠시 후에 나는 더욱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었다. 서씨가 성벽 위에 몸을 나타내고 그리고 성벽을 이루고 있는 커다란 금고만 한 돌덩이를 그의 한 손에 하나씩 집어서 번쩍 자기의 머리 위로 치켜 올린 것이었다. 지렛대나 도르래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혹은 여러 사람이 달라붙지 않고서는 들어 올릴 수 없는 무게를 가진 돌을 그는 맨손으로 들어 올린 것이었다. 그는 나에게 보라는 듯이 자기가 들고 서 있는 돌을 여러 차례 흔들어 보이고 나서 방금 그 돌들이 있던 자리를 서로 바꾸어서 그 돌들을 곱게 내려 놓았다.

[A]

나는 꿈속에 있는 기분이었다. 고담(古談) 같은 데서 등장하는 역사(力士)만은 나도 인정하고 있는 셈이지만 이 한밤중에 바로 내 앞에서 푸르게 빛나는 조명을 온몸에 받으며 성벽을 디디고 우뚝 솟아 있는 ㉠저 사내를 나는 무엇이라고 이름 붙여야 할지 몰랐다.

역사, 서씨는 역사다, 하고 내가 별수 없이 인정하며 감탄 이라기보다는 차라리 그 귀기(鬼氣)에 찬 광경을 본 무서움에 떨고 있는 동안에 그는 어느새 돌아왔는지 유령처럼 내 앞에서 자랑스러운 웃음을 소리 없이 웃고 있었다.

서씨는 역사였다. 그날 밤 나는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까지 아무에게도 들려주지 않았다는 서씨의 얘기를 들었다.

그는 중국인의 남자와 한국인의 여자 사이에서 난 혼혈아였다. 그의 선조들은 대대로 중국에서 이름 있는 역사들이었다. 족보를 보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장수가 있다고 했다. 그네들이 가졌던 힘, 그것이 그들의 존재 이유였고 유일한 유물이었던 모양이었다. 그 무형의 재산은 가보로서 후손에게 전해졌다. 그것으로써 그들은 세상을 평안하게 할 수 있었고 자신들의 영광도 차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서씨에

[B]

와서도 그 힘이 재산이 될 수는 없었다. 이제 와서 그 힘은 서씨로 하여금 공사장에서 남보다 약간 더 많은 보수를 받게 하는 기능밖에 가질 수가 없게 된 것이다. 결국 서씨는 그 약간 더 많은 보수를 거절하기로 했다. 남만큼만 벽돌을 날랐고 남만큼만 땅을 팠다. ㉡선조의 영광은 그렇게 하여 보존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서씨는 아무도 나다니지 않는 한밤중을 택하고 동대문의 성벽에서 그 힘이 유지되고 있음을 명부(冥府)의 선조들에게 알리고 있다는 것이었다.

대낮에 서씨가, 동대문의 바로 곁에 서서 행인들 중 누구 한 사람도 성벽을 이루고 있는 돌 한 개의 위치 변화에 관심을 보내지 않고 지나다닐 때, 옮겨진 돌을 바라보며 빙그레 웃고 있는 그의 모습을 나는 쉽게 상상할 수 있었다. 그것이 서씨가 간직하고 있는 자기였고 내가 그와 접촉하면 할수록 빨려 들어갈 수 있었던 깊이였던 모양이었다.

그 집—그들 많은 얼굴들이 살던 그 집에서 나는 나 자신 속에서 꿈틀거리는 안주(安住)에의 동경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의 헤어날 길 없는 생활 속에 내가 휩쓸려 들어가게 되는 것이 무서웠기 때문이었던 모양이다.

그러나 그곳을 뚝 떠나서 이 한결같은 곡이 한결같은 악기로 연주되는 집에 오자 그것은 견디어 낼 수 없는 권태와 이 집에 대한 혐오증으로 형체를 바꾸는 것이었다. ㉢나란 놈은 아마 알 수 없는 놈인가 보다.

피아노 소리가 그쳤다. 무의식중에 나는 방바닥에서 팔목 시계를 집어 올렸다. 내가 지금 무슨 행동을 했던가를 깨닫자 나는 쓴웃음이 나왔다. ㉣피아노가 그친 시간을 재 보려고 했던 것이다. 그리고 나는 내일로 그 피아노가 그친 시간을 재서 그 시간들을 비교하며 이 집에 대한 혐오증의 이유를 강화시키려고 했던 것이다. 나는 자신에 대해서 어이가 없음을 느꼈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것은, 그것은 조금 전에 내가 서씨의 그 거짓 없는 행위를 회상했던 덕분이 아니었을까? 서씨가 내게 보여 준 게 있다면 다소 몽상적인 의미에서의 성실이었고 그리고 그것은 이 양육 속의 생활을 비판하는 데도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닌가고 내게 생각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집으로 옮겨온 다음날의 저녁, 식사 시간도 잡담 시간도 지나고 ㉤모든 사람들의 공부 시간이 되자 나는 홀로 내 방의 벽에 기대앉아서 기타를 튕겨 보기 시작했던 때의 일을 기억하고 있다. 불현듯이 ㉥기타를 켜고 싶어지는 때가 있는 법이다. 그것은 감정의 요구이지만 그렇다고 비난할 건 못 되지 않는다. 내가 줄을 고르며 음을 시험해 보고 있는데 다색(茶色) 나왕으로 된 내 방문이 열리며 할아버지가 들어왔다. 그리고 ㉦나의 기타 켜는 시간은 오전 열시부터 한 시간 동안 할머니와 며느리가 ㉧미싱을 돌리는 같은 시각으로 배치되었던 것이다. ㉨위대한 가풍이 내게 작용한 첫 번이었다. 그러나 그 이후 내가 ㉩내게 주어진 그 시간을 이용해 본 적은 하루도 없었다. 흥이 나지 않아서였다고 하면 적당한 표현이 되겠다.

- 김승옥, 「역사(力士)」 -

20. 앞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대적 배경과 밀접한 어휘를 활용하여 주제 의식을 강화한다.
- ② 빈번한 장면 전환을 통해 인물들 사이의 긴장감을 고조시킨다.
- ③ 인물들의 서로 다른 특성을 제시하며 서술자의 시각을 드러낸다.
- ④ 현학적인 표현을 주로 사용하여 이상적인 삶의 모습을 형상화한다.
- ⑤ 공간적 배경에 따라 서술자를 달리하여 상황을 입체적으로 드러낸다.

21.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서씨'가 보여 준 모습은 '나'에게 경이로운 것이었다.
- ② ㉡: 자신의 힘을 더욱 유용하게 쓰기 위해 힘을 비축해야 했다.
- ③ ㉢: '나'조차도 '나'의 감정 변화를 제대로 납득하기 어려웠다.
- ④ ㉣: 이 집안의 규칙이 얼마나 정확히 지켜지는지를 확인하고자 했다.
- ⑤ ㉣: '나'의 행동이 이 집안의 규칙에 의해 제약되기 시작했다.

22. ㉠~㉥ 중 문맥상 함축하는 의미가 다른 하나는?

- ① ㉠ ② ㉡ ③ ㉢ ④ ㉣ ⑤ ㉥

23. <보기>를 바탕으로 [A], [B]를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김승옥은 「역사」에서 일반적 통념의 범위를 넘어서는 새로운 차원의 사실성을 추구하였다. 이 작품의 창작 의도를 밝힌 글에서 그는, “우리의 눈에는 비사실적인 것도 외국인의 눈으로 보면 사실적으로 보일 수 있다.”라고 했다. 작품 속의 ‘동대문 성벽의 돌덩이 옮겨 놓기’라는 소재는, 이를테면 ‘외국인의 눈’을 통해 새롭게 ‘변형’된 것이다. 작가는 ‘변형’의 효과를 살리기 위해, 작중 상황에 실감을 주는 소설적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다.

- ① ‘금고만 한 돌덩이’는 ‘외국인의 눈’으로 보면 비사실적인 소재이겠군.
- ② ‘동대문’이라는 낯선 배경을 제시하여 독자들이 느끼는 실감을 떨어뜨리고 있군.
- ③ ‘서씨’ 가계의 내력을 제시한 것은 ‘서씨’의 행위에 사실성을 부여하기 위한 장치이군.
- ④ ‘푸르게 빛나는 조명’은 ‘서씨’의 신성한 면모를 일상적인 모습으로 ‘변형’하려는 의도에서 설정된 것이겠군.
- ⑤ ‘나’가 ‘꿈속에 있는 기분’이었다는 것은 ‘돌덩이 옮겨 놓기’가 사실이 아니라 환상이었음을 암시하고 있군.

[28~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09.11

(가)

님은 갔습니다. 아아, 사랑하는 나의님은 갔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옛 맹서는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한숨의 미풍에 날아갔습니다.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뒷걸음쳐서 사라졌습니다.
 나는 향기로운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님의 얼굴에**
 눈멀었습니다.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에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그러나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을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 걸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어부었습니다.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아아,님은 갔지만 나는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 한용운, 「님의 침묵」 -

(나)

크낙산 골짜기가 온통
 연록색으로 부풀어 올랐을 때
 그러니까 신록이 우거졌을 때
 그곳을 지나가면서 나는
 미처 몰랐었다
 뒷절로 가는 길이 온통
 주황색 단풍으로 물들고 나뭇잎들
 무더기로 바람에 떨어지던 때
 그러니까 낙엽이 지던 때도
 그곳을 거닐면서 나는
 느끼지 못했었다
 이렇게 한 해가 다 가고
 눈발이 드문드문 흩날리던 날
 양상한 대추나무 가지 끝에 매달려 있던
 ㉢ 나뭇잎 하나
 문득 혼자서 떨어졌다
 저마다 한 개씩 돌아나
 여럿이 모여서 한여름 살고
 마침내 저마다 한 개씩 떨어져
 그 많은 나뭇잎들
 사라지는 것을 보여 주면서

- 김광규, 「나뭇잎 하나」 -

(다)

삼경에 못 든 잠을 사경 말에 비로소 들어
 상사(相思)하던 우리님을 꿈 가운데 해후하니
 시름과 한(恨) 못다 일러 한바탕 꿈 흩어지니
아리따운 고운 얼굴 곁에 얼핏 앉았는데
 어화 아득하다 꿈을 생시 삼고지고
 잠 못 들어 탄식하고 바삐 일어나 바라보니
 구름산은 첩첩하여 천리몽(千里夢)을 가려 있고
 흰 달은 창창하여 두 마음을 비추었다
좋은 기약 막혀 있고 세월이 하도 할사
 엇그제 꽃이 버들 곁에 붉었더니
 그 곁에 홀홀하여* 앞에 가득 가을 소리라
새벽 서리 지는 달에 외기러기 슬피 울 제
 반가운님의 소식 행여 올라 바라더니
 아득한 구름 밖에 빈 소리뿐이로다
 지리하다 이 이별이 언제면 다시 볼까
어화 내 일이야 나도 모를 일이로다
 이리저리 그리면서 어이 그리 못 가시고
 약수(弱水)* 삼천 리 멀단 말이 이런 곳을 일렀구나
 산 머리에 조각달 되어 님의 낮에 비추고자
 바위 위에 오동 되어 님의 무릎 베고자
 빈산에 잘새 되어 북창(北窓)에 가 울고자
 지붕 위 아침 햇살에 제비 되어 날고지고
 옥창(玉窓)의 앵두화에 나비 되어 날고지고
 태산이 평지 되도록 금강이 다 마르도록
 평생 슬픈 회포 어디에 건주리오

[A]

- 작자 미상, 「춘면곡」 -

* 홀홀하여: 시간이 빨리 지나가서.
 * 약수: 신선이 사는 땅에 있다는 강 이름.

28.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거의 상황을 환기하며 화자의 정서를 드러낸다.
- ② 자연의 변화를 표현하여 화자의 미래를 암시한다.
- ③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적 대상을 예찬한다.
- ④ 관조적인 자세로 대상이 지닌 의미를 새롭게 발견한다.
- ⑤ 섬세하고 부드러운 어조로 애상적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29.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에서는 시상이 확산되고 있다.
- ② ㉠과 ㉡ 모두 감정을 직설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 ③ ㉠은 ㉡과 달리 화자의 의지가 투영되어 있다.
- ④ ㉡은 ㉠에 비해 역동적인 느낌이 두드러진다.
- ⑤ ㉠은 사실의 기술이, ㉡은 관념의 표현이 부각된다.

30. (가)와 (다)를 대응시켜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의 첫 번째 ‘아이’와 (다)의 두 번째 ‘어화’는 부정적 상황에 대한 비탄의 표현으로 볼 수 있군.
- ② (가)의 ‘차디찬 티끌’과 (다)의 ‘새벽 서리’는 허무하게 깨진 인연을 상징한다는 점에서 통하네.
- ③ (가)의 ‘꽃다운 님의 얼굴’과 (다)의 ‘아리따운 고운 얼굴’은 화자가 사랑하는 대상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
- ④ (가)의 ‘눈물’과 (다)의 ‘시름과 한’은 이별로 인해 생겨난 슬픔이라 할 수 있어.
- ⑤ (가)의 ‘다시 만날 것’과 (다)의 ‘좋은 기억’은 ‘님’과 만나고 싶은 소망과 관련되었군.

31. <보기>를 바탕으로 ㉠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님의 침묵」에서 ‘노래’와 ‘침묵’은 화자와 ‘님’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핵심이 되는 시어이다. 한용운은 시 「반비레」에서 “당신이 노래를 부르지 아니하는 때에 당신의 노랫가락은 역력히 들립니다그러 / 당신의 소리는 침묵이에요”라고 했다. 침묵이라는 부재의 상태에서 ‘님’의 실재를 본 것이다. 화자는 ‘님’을 향해 ‘노래’를 부르는데, 시 「나의 노래」에서 “나의 노래가 산과 들을 지나서 멀리 계신 님에게 들리는 줄”을 안다고 했다. 이는 화자가 자신의 노래에 ‘님’과 근원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① 노래가 제 곡조를 못 이긴다는 것은 ‘님’이 침묵하는 상황을 화자가 감당하지 못한다는 뜻이야.
- ② 노래가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돈다는 것은 화자가 부재 속에 실재하는 ‘님’과 깊이 교감한다는 뜻이야.
- ③ ‘나의 노래’가 산과 들을 지나서 멀리 나아간다고 한 데서 ‘사랑의 노래’가 자연 친화적임을 알 수 있어.
- ④ 침묵을 휩싸고 도는 노래가 ‘사랑의 노래’라는 것은 침묵이 끝나야 사랑이 비로소 시작되리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
- ⑤ 침묵하는 ‘님’에게서 노랫가락을 역력히 듣는다는 데서 ‘사랑의 노래’가 화자의 노래가 아니라 ‘님’의 노래임을 알 수 있어.

32.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1연, 2연에서 유사한 구조의 문장을 사용함으로써 대상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던 화자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 ② 1~3연에서 ‘골짜기’→‘길’→‘대추나무’→‘나뭇잎 하나’로 지적 대상이 바뀌면서 화자와 대상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있다.
- ③ 1~4연에서 ‘그러니까’, ‘문득’, ‘마침내’와 같은 부사는 독자로 하여금 화자의 인식에 주목하게 하고 있다.
- ④ 4연에서 ‘저마다 한 개씩’이라는 시구를 반복함으로써 세상과 화합할 수 없는 존재의 고뇌를 강조하고 있다.
- ⑤ 4연에서 화자는 생성에서 소멸에 이르는 자연물의 변화 과정을 통해 인간의 삶을 이해하고 있다.

33. <보기>를 바탕으로 [A]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시조나 가사에는, 입과 헤어져 있는 화자가 어떤 특정한 자연물로 다시 태어나서 입의 곁에 머물고 싶다는 진술이 흔히 나타난다. 이러한 진술은 화자의 소망을 강조하기 위한 관습적 표현인데, 그 속에는 당대인들의 세계관이 투영되어 있다. 인간과 자연이 깊은 관련을 맺으며 조화를 이룬다는 인식, 현세의 인연이 후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순환적 인식 등이 그것이다. 시가에 담긴 이러한 인식은 화자가 현실의 고난이나 결핍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준다.

- ① 관습적인 표현을 활용한 것은 개인적 정서를 보편적인 것으로 느끼게 하는 데 효과적이었겠어.
- ② 비슷한 의미 구조를 지니는 구절을 거듭 제시함으로써 화자의 소망이 간절함을 강조하고 있어.
- ③ ‘오동’, ‘제비’, ‘나비’ 등이 사용된 데서, 인간과 자연이 관련되어 있다는 화자의 인식을 엿볼 수 있어.
- ④ ‘조각달’이나 ‘잘새’ 같은 소재에는 ‘님’과 함께 크고 넓은 세계로 도약하려는 화자의 희망이 담겨 있어.
- ⑤ 자연물로 변해서라도 ‘님’과 만나려 하는 것을 보니 화자가 ‘님’과 만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어.

[37~3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09.11

#89. 불이의 집(낮)

누군가 대문을 두드린다. 들어낸 짐을 정리하면서 어머니 돌아본다. 영희나 하고 달려가 문을 열면 얼굴이 부은 영호와 영수가 들어온다.

영호: 엄마 영희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 …….

영호: 엄마 우리 파티를 하죠. 불고기 파티를……. 이거 고집니다.

하고는 어머니에게 준다. 말없이 보다가 가져가는 어머니.

불이: 얼굴은 왜 다쳤니.

영호: (빙긋 웃고) …… 덕분에 고기를 얻었어요. 애기가 좀 복잡해요.

하고 함께 마당으로 나간다.

#90. 고급 레스토랑

비프스테이크가 만들어지고 있다. 우철이 다소곳한 영희에게 다정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91. 불이의 집 마당

풍로에 불을 지피고 있는 불이. 어머니는 고기에 양념을 친다. 보고 있는 영수와 영호.

영호: 다운*은 됐지만 많은 걸 배운 것 같아요.

영수 말없이 앞만 본다.

#92. 레스토랑

영희가 접시의 고기를 서툴게 썰고 있다. 지켜보던 우철이 접시를 가져다 익숙한 솜씨로 고기를 잘라 소스까지 쳐 준다. 약간 화가 나 지켜보는 영희.

#93. 불이의 집 마당

익고 있는 고기. 식구들이 둘러앉아 고기를 먹는다. 먼 곳으로부터 들려오는 집 부수는 소리. 해머 소리.

#94. 몽타주*

영희와 우철이 고기를 먹고 있다.

영희를 뺀 가족이 고기를 씹고 있다.

이들의 면모가 다양하고 자세하게 묘사되며 몽타주된다.

#95. 불이의 집

① 팡팡 하고 소리 나며 흔들리면 담벽에 큰 구멍이 난다.
 ② 커다란 해머가 구멍을 뚫혀 온다. ③ 구멍으로 안의 전경이 보인다. 태연히 앉아 고기를 구워 먹는 난쟁이 식구들이 보인다.
 ④ 담벽이 크게 무너지며 먼지가 인다. 지켜보는 인부들. 가라앉은 먼지의 마당. ⑤ 식구들이 말없이 먹기를 계속한다. 인부의 대장이 눈짓을 하면 인부들이 흩어져 앉으며 땀을 닦는다. 마지막 파티를 하는 난쟁이 일가를 기다리는 인부들. 인부들도 즐거운 낮이 아니다. 어머니가 익은 고기를 접시마다 주섬주섬 담는다. 일어나는 어머니, 식구들이 의아하여 본다. 어머니가

고기 접시를 들고 인부들에게 간다. 어리둥절하다가 담뱃불을 끄는 인부들.

어머니: (담담하다) 고기가 얼마 남지 않았군요. 한 점씩이라도 드세요.

하며 고기 한 점을 집어 대장부터 내어 민다. 멍하니 보다가 황급히 손바닥으로 받아먹는 대장. 말없이 지켜보는 대장. 영호만이 턱을 악물고 눈물이 글썽한다. 어머니는 계속하여 고기 한 점씩 인부들에게 나누어준다.

어머니: 아저씨들을 원망하지 않아요. 아저씨들이라고 좋아서 하겠어요. 우리의 처지와 다를 것도 없을 텐데……. 집은 헐리더라도 오늘 하루 여기서 자야 해요. 딸이…… 집 나간 딸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96. 고급 맨션 앞

우철이 승용차를 몰아와 아파트로 진입하고 있다. 다소곳이 앉아 있는 영희의 모습.

#97. 불이의 집

일거에 폭삭 무너지는 담. 방문을 열고 나와 선 식구들 앞서 뺨얇게 먼지가 인다. “명희 언니는 큰오빠를 좋아해”라 쓰인 장독대가 큰 해머에 의해 부서진다. 파괴되어 가는 과정이 다각도로 보여진다.

- 흥파 각색,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

* 다운: 권투 시합에서 상대방의 공격으로 쓰러진 상태.

* 몽타주: 넓은 의미로는 편집 작업을, 좁은 의미로는 서로 다른 화면을 결합하는 방식을 가리킴.

37. 윗글로 미루어 알 수 있는 것은?

- ① 인부들은 불이의 집을 허무는 일에 대해 기꺼워하지는 않았다.
- ② 영수는 무너지는 집을 바라보며 지나간 기억을 반추하고 있다.
- ③ 어머니는 영희에 대해 무관심한 아들들의 태도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 ④ 불이는 영호의 상처에 대해 물었지만 영호는 불이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 ⑤ 영희는 우철의 다정한 태도에 호감을 느껴 자신의 현재 처지에 만족하고 있다.

38. 학생들이 모둠 활동을 통해 '#95'를 지문 내용에 충실하게 촬영 하려고 한다. ㉠~㉥에 대한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해머 소리를 음향 효과로 제시하면서 흔들리는 담벽을 보여 준 후에 담벽에 난 구멍을 보여 준다면, 상황이 실감 나게 전달될 수 있을 거야.
- ② ㉡: 담벽의 구멍을 보여 준 이후 그 구멍으로 해머가 모습을 드러내도록 촬영하면, 카메라가 인부들의 시선을 대변할 수 있을 거야.
- ③ ㉢: 담벽에 난 구멍을 통해 난쟁이 일가의 모습을 포착하려면, 카메라는 담벽 바깥쪽에 위치해야 할 거야.
- ④ ㉣: 담벽이 무너지고 인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먼지가 서서히 가라앉도록 촬영하면, 난쟁이 일가가 겪을 사태가 구체화되는 시각적 효과를 살릴 수 있을 거야.
- ⑤ ㉤: 난쟁이 일가가 식사하는 장면을 다시 화면에 담는다면, 철거 위협에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 행동하는 난쟁이 일가의 태도를 부각할 수 있을 거야.

39.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시나리오에서 두 개 이상의 이야기가 동시에 진행될 때, 중심이 되는 이야기를 '주 플롯'이라 하고 부수적인 이야기를 '부 플롯'이라 한다. 주 플롯에 해당하는 장면을 $M_1, M_2, \dots, M_k, \dots, M_n$ 이라 하고, 부 플롯에 해당하는 장면을 $S_1, S_2, \dots, S_k, \dots, S_n$ 이라 할 때, 전체 구조는 $M_1 \rightarrow S_1 \rightarrow M_2 \rightarrow S_2 \rightarrow \dots \rightarrow M_k \rightarrow S_k \rightarrow \dots \rightarrow M_n \rightarrow S_n$ 의 순서를 따르는데, 이러한 정렬 방식을 '교차편집'이라고 한다. M_k 에서 S_k 로 전환될 때 두 장면 사이의 유사성이나 대조점을 활용하면 장면 연계가 매끄럽게 이루어질 것이며, M_k 와 S_k 가 한 장면 내에서 만날 때 나뉘어 있던 두 플롯이 더욱 긴밀하게 연관될 것이다.

- ① #90, #92, #96은 부 플롯에 해당하는 장면들이다.
- ② 주 플롯에 해당하는 장면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 ③ 주 플롯과 부 플롯은 #94에서 만나 동일한 공간적 배경을 갖게 된다.
- ④ '고기'는 주 플롯과 부 플롯을 자연스럽게 연계하는 유사성으로 활용된다.
- ⑤ 고급 아파트와 낡고 무너진 집의 대조를 통해 두 플롯을 연계한 대목이 있다.

[47~5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09.11

처사가 말했다.
 “제가 한 딸을 두었으나 십육 세가 되도록 혼처를 정하지 못하였삽기로 천하를 떠돌다가, 다행히 존문에 이르러 아드님을 보니 마음에 드는지라. 여식은 용렬하고 재주가 없으나 존문에 용납될 만하니, 외람하오나 혼인을 정함이 어떠하오이까?”
 상공이 ‘처사의 도덕이 높으니 딸 또한 영민하리라.’ 생각하고 답했다.
 “존객은 선인이요 나는 속세 사람이라. 어찌 인간 세상 사람이 선인과 혼인을 의논하리까?”
 처사가 답했다.
 ㉠ “상공은 아국 재상이요 나는 미천한 인물이다. 미천한 인물이 귀객에 청혼함이 극히 불가하오나 버리시지 아니하오면 한이 없을까 하나이다.”
 공이 즐겨 즉시 혼인을 허락했다.
 이때, 상공이 친척들을 모아 정혼한 일을 이야기하니 부인의 의아해 하며 말했다.
 ㉡ “혼인은 인륜대사라. 어찌 재상가에서 의논도 없이 근본도 모르는 집안과 경솔히 혼약을 하시나이까?”
 하고 의논이 분분하자 공이 말했다.
 “내 들으니 처사의 딸이 재덕을 겸비했다 하기에 혼약했으니 괜한 시비 마시오.”
 차설, 이때 혼인날이 임박하자 혼구를 찬란하게 차려 하인들을 거느리고 금강산으로 길을 떠날새, 공은 위풍이 당당하고 시백은 풍채가 빛났다. 이런 경사에 친척과 하인 등이 웃지 않을 자 없고 조정에서도 논박이 그치지 않더라.
 여러 날 만에 금강산을 찾아가니, 풍경도 좋거니와 때도 마침 삼춘이라. ㉢ 좌우 산천 바라보니 각색 화초 만발한데 봉접은 펄펄 날아 꽃을 보고 춤을 추고, 수양버들은 늘어졌는데 황금 같은 피꼬리는 환우성(喚友聲)*이 더욱 좋다. 경치를 구경하며 점점 들어가니 사람 발자취가 없는지라. 하는 수 없이 주점을 찾아가 쉬고 이튿날 다시 발행하여 산곡으로 들어가니 인적은 고요하니 볼 수 없고, ㉣ 층암은 층층하여 병풍을 둘러친 듯, 시냇물은 잔잔하여 남청을 부르는 듯, 비죽새는 슬피 울어 허황한 일을 비양하는 듯, 두견성은 처량하여 사람의 심회를 뚫는지라. 공이 자기가 한 일을 돌아본즉 도리어 허탄한지라. 후회막급이나 어찌할 바를 몰라 방황하다가 날이 저물어 다시 주점에서 쉬고, 다음날 산곡으로 들어가니 심산공곡에 갈 길은 끊어지고 물을 굽은 전혀 없었다. 길 위에서 방황하다가 바위 위에 노송을 의지하고 앉아 허황함을 자탄하더니 홀연 산곡에서 노랫소리 나며 초동 수삼 인이 나오거늘 반겨 길을 물으니 초동이 답했다.
 “이곳은 금강산이요, 이 길은 박 처사 살던 터로 통하는 길 이온데, 우리 지금 박 처사 살던 곳에서 내려오나이다.”
 공이 기뻐 또 물었다.
 “처사는 집에 계시더냐?”
 초동이 대답했다.

“옛 노인이 말하기를 ‘수백 년 전에 여기에서 어떤 사람이 나무를 엮어 집을 짓고 열매를 먹으며 칭호를 박 처사라 하고 살았는데 돌연 간 곳을 모르겠다.’ 하고 말쑤하는 것만 들었지, 지금 박 처사가 산단 말은 금시초문이로소이다.”
 공이 이 말을 듣자 정신이 더욱 아득하여 말했다.
 “처사가 그곳에서 살던 때는 몇 해나 되었나요?”
 초동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게서 산 지가 사백 년이라 하더이다.”
 하며 다시 물어도 대답하지 않고 가거늘 공이 더욱 막막하여 하늘을 바라 크게 웃으며 차탄했다.
 “세상에 허무한 일도 많도다.”
 이미 지나간 일이라 하는 수 없어 주점에 돌아와 머물새, 시백이 부친을 위로했다.
 “㉤ 옛날 한(漢) 무제도 선술을 구하다가 마침내 구하지 못하고 쓸쓸히 돌아왔으니 후회해도 소용없사운지라. 도로 돌아감만 같지 못하오이다.”
 공이 웃으며 말했다.
 “이미 지나간 일이라. ㉥ 그저 돌아가도 남에게 웃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돌아가지 않은즉 허황함이 막심한지라. 내일은 곧 전안(鴈雁)* 날이니 부득이 내일만 찾아보리라.”
 하고 이튿날 노복을 데리고 다시 길을 재촉하여 반일토록 산중을 왕래하여 찾더라. 그날 오후에 한 사람이 갈건야복으로 죽장을 짊고 백우선으로 얼굴을 가리고 유유히 산곡에서 내려오니 반갑기도 그지없다. 일행이 고대하던 중, 내려오는 모습을 보고 너무 반가워 눈을 씻고 다시 보니 박 처사가 분명한지라.
 - 작자 미상, 「박씨전(朴氏傳)」 -
 * 환우성: 벗을 부르는 소리.
 * 전안: 전통 혼례 진행 절차 중의 하나.

47. 윗글로 미루어 알 수 있는 것은?

- ① ‘박 처사’가 혼인을 청한 것은 ‘상공’의 인품을 높이 샀기 때문 이다.
- ② ‘상공’이 사람을 보는 눈은 평범한 사람과 다른 데가 있다.
- ③ ‘상공’의 부인은 ‘박 처사’ 딸의 재주를 의심하여 혼인을 반대 하고 있다.
- ④ ‘초동’은 길을 헤매고 있는 ‘상공’ 일행을 측은하게 여기고 있다.
- ⑤ ‘이시백’은 부친의 성급한 혼인 결정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다.

48.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극진한 경양 표현을 통해서 청혼 자리의 분위기를 드러낸다.
- ② ㉡: 한문 구절을 끌어 와서 인물이 자기 생각의 정당성을 드러내게 한다.
- ③ ㉢: 시선의 이동에 따라 경치를 묘사하여 둘러보는 듯한 느낌을 준다.
- ④ ㉣: 배경을 시·청각적으로 묘사하여 인물의 심리를 잘 드러낸다.
- ⑤ ㉣: 대화 속에 고사를 인용하여 인물이 처한 쓸쓸한 상황을 부각한다.

49. <보기>를 바탕으로 밑줄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고전 소설은 현실 세계와 초월계의 교섭을 통해 신성성을 확보하는 것을 중요한 미학적 원리로 삼는다. 고전 소설은 초월계가 천상에 존재한다고 하면서도, 그 공간을 현실 세계의 연장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다. 초월계를 현실 세계보다 상위의 공간으로 인식하는 것은 수직적 사고의 소산이며, 초월계를 현실 세계의 연장으로 설정하는 것은 수평적 사고에 해당한다. 초월계는 본래 인간의 접근이 쉽지 않은데, 수평적 사고를 취하면 그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감소한다. 「박씨전」은 현실 세계와 초월계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는 공간으로 ‘금강산’을 설정하고, 그곳에서 천상 존재인 ‘박 처사’의 딸 ‘박씨’와 현실 세계의 존재인 ‘이시백’의 혼인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수직적 사고를 수평적 사고 속에 아우르고 있다.

- ① ‘부인’이 ‘상공’의 혼인 결정을 수긍하지 못하는 것은 수직적 사고의 결과이군.
- ② ‘박씨’와 ‘이시백’의 혼인 장소로 금강산을 설정한 것은 신성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군.
- ③ ‘상공’이 ‘박 처사’를 쉽게 찾지 못하도록 한 구도에서 금강산이 지닌 초월계의 성격을 찾을 수 있겠군.
- ④ ‘박 처사’와 ‘상공’이 금강산에서 만나는 장면에서 초월계와 현실 세계의 소통이라는 의미를 찾을 수 있겠군.
- ⑤ 초월계의 선인이면서도 현실 세계에서는 ‘박 처사’로 불린 인물의 모습은 금강산의 이중적 성격과도 연관되는군.

50. ㉠에 나타난 ‘상공’의 상황과 가장 잘 어울리는 말은?

- ① 이왕지사(已往之事) ② 자포자기(自暴自棄)
- ③ 만시지탄(晩時之歎) ④ 진퇴양난(進退兩難)
- ⑤ 새옹지마(塞翁之馬)

[20~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09.09

홍보 아내 그 말 듣고,
 “애고, 이게 웬 말인가? 그런대도 내가 알고 저런대도 내가 압네.”
 섰다 털썩 주저앉으며 가슴 쿵쿵 발 구르며 하는 말이,
 ㉠ “시아자씨도 야속하다. 재물만 생각하고 형제 윤기 저버리니 이런 법도 또 있는가. 무거불측 목공이도 이에서 더할손가. 무궁무진 나의 설움 생각하니 측량없다. 애고애고, 내 일이야.”
 홍보 듣고 비감하여,
 ㉡ “이 울음 그만 우소. 속이 매워 못 들었네. 우리가 곤궁함은 모두 장부의 허물이라. 부끄럽기 측량없네. 우리도 설마 때를 만나 귀히 될 제 있을 테니 설위 말고 살아 보세.”
 이날부터 홍보 품을 팔 제, 상하 평전 지심 매기, 전세 대동방아 찧기, 북경 장사 편지 전하기, 상부군의 대상 매고, 이집 저집 나래 엮기, 낡은 집에 토담 쌓고, 새집 짓고 왕토하기, 한 말 두 말 마질하고, 여각 주인 말짐 싣기, 오 푼 받고 마철 걸고, 두 푼 받고 쥐구멍 막기, 닷 냥 받고 송장 치기, 날로 벌고 달로 벌어 아무리 극력으로 벌어도 여러 식구 살릴 일이 전혀 없어 곤궁으로 지내더니, 하루는 홍보가,
 “내 갓방전 두루마기 내오소. 오늘날은 읍내를 잠깐 들어갈 수밖에는 수가 없네.”
 “읍내는 무엇하러 가라시오?”
 “환곡(還穀) 호방(戶房)과 집안끼리 아는 사이니 쌀섬이나 타다 먹세.”
 “그것 무슨 말씀이오? 환곡미는 국곡(國穀)인데, 먹을 때는 좋다 하고 갚을 때는 어찌 갚게?”
 ㉢ “여보소, 그 말 마소. 갚다 갚다 못 갚으면 몽둥이 서넛 맞기로 관계있다. 형님께로 떠넘기세.”

(중략)

“먹고 노니 좋소마는 그 돈이 웬 돈이오?”
 “자네 이 말을 천기누설 하지 마소. 읍내를 가서 환곡 호방을 보았더니 나를 보고, ‘병영으로 매품 팔러 가려오?’ 하기에, 돈 삼십 냥 받고 별도로 마삿 닷 냥까지 받아 왔네.”
 홍보 아내 이 말 듣고,
 ㉣ “애고, 이게 웬 말이오. ‘하늘은 복록이 없는 사람은 내지 않고 땅은 이름 없는 풀을 키우지 않는다.’고 하옵나니, 모진 목숨 사는 대로 살 것이지 남의 죄로 매 맞을까. 마오 마오, 가지 마오.”

홍보 하는 말이,
 “어허, 그거 방정이로고. 불기 놀려 쓸 데 있다.”
 “그러하면 불기가 다 구실이 있소?”

“내 이를 테니 들어보소. 삼정승 하였으니 평교자에 앉아 불까. 육조 판서 하였으니 초헌 위에 앉아 불까. 양국대장 하였으니 장대(將臺) 위에 앉아 불까. 팔도 방백 하였으니 선화당에 앉아 불까. 각읍 수령 하였으니 동헌 좌기 하여 불까. 좌수별감 하였으니 행사당에 앉아 불까. 이방 호장 하였으니 각청 수석 앉아 불까. 장안 일색 명기 되어 승교 위에 앉아 불까. 만금 거래 상고 되어 부담마에 앉아 불까.”

[A]

이내 몸 궁곤한데 매품이나 팔아먹지 불기 놀려 쓸 데 있다. 자네 내 말 들어 보소. 그 돈 삼십 냥 벌어들여 착한 사람 맡겨 두면 이리저리 늘리어서 큰 아들은 장가들이고 티끌 모아 태산으로 그러저런 살아 보세.”
 홍보 자식들이 이 말 듣고 벌 때 뒤통 하더니만,
 “허허 아버지. 그 돈 많이 받거들랑 풍안(風眼)* 한 벌 사다 주오.”
 “이 자식, 풍안 무엇하려느냐?”
 그놈 하는 말이,
 “부자간이라도 속을 몰라주니 답답하지요. 이월 동풍 부는 때에 뒷간 출입 다니려면 못사람의 발걸에 눈에 티가 들어 다닐 수 없어 그리하지요.”
 또 한 놈이 나왔더니,
 “아버지, 나는 송아지 한 마리 사다 주오.”
 홍보 좋아라고,
 [B] “기특한 내 아들이야. 장래 살림은 잘하겠구나. 송아지는 무엇 할래?”
 “한 마리만 사다 주면 모닥불에 구워 먹게요.”
 “어 그놈, 허망한 놈이로고. 저리 가거라.”
 또 한 놈이 썩 나오며,
 “아버지, 나일랑은 양피 조끼에 통대모 장도(粧刀) 비단 꽃신 한 벌 사다 주오.”
 “네 이 자식, 대모 장도 얻다 찰래?”
 “찰 데 없으면 갈비 뚫어 차지요.”
 홍보 아내 곁에 섰다 여러 자식들을 호통하여 물리치니, 홍보 하는 말이,
 ㉤ “요런 몸쓸 일도 있는가. 개암쪽 만한 불기쪽에 그새에 시장판을 벌였구나. 그만두어라. 많이 사다 주마.”

- 작자 미상, 「박홍보전」 -

* 풍안: 바람과 티끌을 막으려고 쓰는 안경.

20. 윗글에 나타난 당대의 사회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부자라도 죄를 지으면 스스로 형벌을 받아야 했다.
- ② 아이들이 신문물과 치장거리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
- ③ 관가에서 부담 없이 곡식을 빌려 주는 제도가 있었다.
- ④ 황금만능 풍조에 대한 사회적 반감이 널리 퍼져 있었다.
- ⑤ 노동을 통해 빈부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

21. [A]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시선의 빠른 이동을 통하여 긴장을 조성한다.
- ② 동일한 구조의 문장을 중첩하여 리듬감을 살린다.
- ③ 신체 부위를 소재로 하여 해학적 효과를 자아낸다.
- ④ 실현되기 어려운 일들을 열거하여 궁한 신세를 드러낸다.
- ⑤ 관용 표현을 이용하여 주인공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22. <보기>의 내용을 참조할 때,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판소리계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은 얼핏 평면적으로 보이지만, 작품을 세심하게 살펴보면 그 말이나 행동에 여러 층위의 심리적 요소가 작용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하나의 상황에 서로 다른 심리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양상을 읽어내는 것은 판소리계 소설의 문학성을 이해하는 요건 가운데 하나이다.

- ① ㉠: 형제간의 우애를 저버린 시아주머니에 대한 원망과 자신의 처지에 대한 비애가 함께 나타난다.
- ② ㉡: 아내의 심정을 이해하고 동조하는 마음과 가장 노릇을 못하는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이 얽혀 있다.
- ③ ㉢: 특별한 해결책이 없어 걱정하는 마음과 형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이 함께 나타난다.
- ④ ㉣: 남편이 매 맞으러 가는 것을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함께 나타난다.
- ⑤ ㉤: 철없이 행동하는 자식들에 대한 답답한 마음과 그들을 어떻게든 건사하고자 하는 책임감이 함께 나타난다.

23. [B]의 상황에 가장 잘 어울리는 한자성어는?

- ① 동가홍상(同價紅裳) ② 동문서답(東問西答)
- ③ 동병상련(同病相憐) ④ 동분서주(東奔西走)
- ⑤ 동상이몽(同床異夢)

[28~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09.09

(가)

노래가 낫기는 그중 나아도
구름까지 갔다간 되돌아오고,
네 발굽을 쳐 달려간 말은
바닷가에 가 멧어 버렸다.
활로 잡은 산돼지, 매[鷹]로 잡은 산새들에도
이제는 벌써 입맛을 잃었다.
꽃아. 아침마다 개벽하는 꽃아.
네가 좋기는 제일 좋아도,
물낫바다에 얼굴이나 비취는
해엄도 모르는 아이와 같이
나는 네 단헌 문에 기대섰을 뿐이다.
문 열이라 꽃아. 문 열이라 꽃아.
벼락과 해일만이 길일지라도
문 열이라 꽃아. 문 열이라 꽃아.

- 서정주, 「꽃밭의 독백-사소(娑蘇)* 단장」 -

* 사소: 사소는 신라 시조 박혁거세의 어머니. 처녀로 잉태하여, 산으로 신선수행(神仙修行)을 간 일이 있는데, 이 글은 그 떠나기 전 그의 집 꽃밭에서의 독백.

(나)

어둠이 오는 것이 왜 두렵지 않으리
불어 닥치는 비바람이 왜 무섭지 않으리
있들 더러 썩고 떨어지는 어둠 속에서
가지들 휘고 꺾이는 비바람 속에서
보인다 꼭 잡은 너희들 작은 손들이
손을 타고 흐르는 숨죽인 흐느낌이
어둠과 비바람까지도 삭여서
더 단단히 뿌리와 몸통을 키운다면
너희 왜 모르랴 밝는 날 어깨와 가슴에
더 많은 꽃과 열매를 달게 되리라는 걸
산바람 바닷바람보다도 짓궂은 이웃들의
비웃음과 발길질이 더 아프고 서러워
산비탈과 바위너설에서 목 움츠린 나무들이
다시 고개 들고 절로 터져 나올 잎과 꽃으로
숲과 들판에 떼 지어 설 나무들이

- 신경림, 「나무를 위하여」 -

(다)

사립을 짓혀 쓰고 망혜를 조여 신고,
조대(釣臺)*로 내려가니 내 노래 한가하다.
원근 산천이 홍일(紅日)을 띄웠으니,
만경창과는 모두 다 금빛이라.
납시를 드리우고 무심히 앉았으니,
은린옥척(銀鱗玉尺)*이 절로 와 무는구나.
구태여 내 마음이 취어(取魚)가 아니로다 지취(志趣)를 취함
이라.
납대를 떨쳐 드니 사면에 잠든 백구(白鷗),

내 납대 그림자에 저 잠을 날만 여겨 다 놀라 날겠구나.
백구야 날지 마라 너 잠을 내 아니다.
네 본디 영물이라 내 마음 모를소냐.
평생의 곱던 입을 친 리에 이별하고,
사랑은커니와 그리움을 못 이기어,
수심이 첩첩하니 마음을 둘 데 없어,
흥 없는 일간죽(一竿竹)을 실없이 드렸은들,
고기도 상관 앓거늘 하물며 너 잡으랴.
그래도 내 마음을 아무도 못 믿거든,
너 가진 긴 부리로 내 가슴 쪼아 헤쳐,
흥중의 붉은 마음 보면은 아오리랴.
공명도 다 던지고 성을을 갚으려니,
갚을 법도 있거니와 이 사이 일 없으니,
성세(盛世)에 한민(閭民)* 되어 너 좇아 다니려니,
날 보고 날지 마라 네 벗님 되오리라.

- 안조원, 「만언사」 -

* 조대: 납시를 하는 곳.
* 은린옥척: 모양이 좋고 큰 물고기.
* 한민: 한가로운 백성.

28.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연의 실상에 어울리는 다양한 색채어를 사용하고 있다.
- ② 의인화된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 ③ 정형적인 운율을 살려 시적 안정감을 확보하고 있다.
- ④ 명암의 대비를 통해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유장한 어조로 경건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29. (가)와 (다)의 시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다)	시어의 의미와 기능
①	바닷가	조대	화자가 현재 머무는 장소
②	산새	은린옥척	화자의 지향에서 벗어나 있는 대상
③	개벽	성세	화자의 처지가 변화하는 계기
④	물낫바다	그림자	화자가 수행하는 자기 성찰의 매개물
⑤	아이	벗님	화자가 부러워하는 대상

30. (나)와 (다)의 시상 전개 방식을 비교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나)와 (다) 모두 설의적 표현을 활용하며 시상을 전개한다.
- ② (나)와 (다) 모두 계절의 변화를 축으로 삼아 시상을 전개한다.
- ③ (나)는 (다)와 달리 여러 대상으로 관심을 옮겨 가며 시상을 전개한다.
- ④ (나)는 시각적 이미지를, (다)는 청각적 이미지를 위주로 시상을 전개한다.
- ⑤ (나)는 시적 화자의 심리 묘사를, (다)는 외부 대상 묘사를 위주로 시상을 전개한다.

31. 시인이 <보기>의 옛 기록을 바탕으로 (가)를 썼다고 할 때, 창작 과정을 추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경주 선도산(仙桃山)에 신모(神母)가 있었는데 그 이름을 '사소'라 했다. 일찍이 신선술을 터득하여 멀리 바다 건너 서쪽 나라로부터 해동(海東)으로 들어왔다. 솔개가 날아가 내리는 곳에 집을 지으라는 계시를 받고서 선도산에 정착하여 신선이 되었다. 사소가 처음 삼한 땅에 이르러 자식을 낳으니, 그가 동국(東國)의 첫 왕이 되었다. 무릇 혁거세와 알영의 유래를 말하는 것이리라.

- ① '사소'의 내적 갈등에 초점을 맞추어 <보기>를 새롭게 해석했군.
- ② <보기>에 없는 '노래'와 '구름' 같은 시어로 바다 건너 고향을 그리는 '사소'의 심정을 나타냈다고 볼 수 있어.
- ③ '꽃'은 시적 주제를 부각하기 위해 <보기> 밖에서 가져온 소재야.
- ④ <보기>와 달리 '사소'가 '처녀로 잉태'했다고 한 것은 '사소'를 특별한 존재로 만들기 위한 설정이야.
- ⑤ <보기>를 근거로 원주를 붙인 데에는 원주를 참조하여 시를 이해하기 바라는 시인의 의도가 담겨 있어.

32. (나)의 시적 화자의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미래에 대한 낙관적 기대를 경계하고 있다.
- ② 작은 존재들의 연대에 대한 믿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시련을 극복한 대상을 격려하는 마음을 나타내고 있다.
- ④ 과거의 고난 체험에 대한 관조적 심정을 보여주고 있다.
- ⑤ 약자들에게 외부의 도움에 대한 열린 자세를 권고하고 있다.

33. <보기>의 ㉠~㉣ 중 (다)에서 찾을 수 없는 것은?

<보 기>

옛사람들에게 '유배(流配)'는 무엇이였을까? 유배 가사를 통해 볼 때, 그것은 ㉠외롭고도 힘든 격리인 동시에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계기이기도 했다. 귀양살이의 심경은 흔히 ㉢자연물을 매개로 임금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는 형태로 정형화되었지만, 때로는 자기 부정이나 ㉣적대자에 대한 원망으로 표출되기도 했다. ㉤떠나온 곳에 마음을 두고 복귀를 욕망하는 모습을 찾아보는 것 또한 어렵지 않다. 이러한 다양한 면모가 엿히는 데에 유배 가사의 묘미가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38~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09.09

파수꾼 가: 이리 떼다, 이리 떼! 이리 떼가 몰려온다!

‘파수꾼 나’는 확신 있게 양철북을 두드린다. ‘파수꾼 다’는 어느 떼와는 달리 침착하게 일어선다. 그리고 담요를 벗어 네모반듯하게 겐 다음 식탁 위에 놓는다. 그는 북을 두드리는 ‘파수꾼 나’를 바라보면서 몹시 안타까운 표정이 된다.

파수꾼 가: 북소리 중지! 이리 떼는 몰리겠다.

파수꾼 다: 정말 이리가 있다구 믿으세요?

파수꾼 나: 보렴, 방금도 이리 떼가 오질 않았니? 그렇지 않다면 내가 왜 양철북을 치며 평생을 보냈겠느냐? 서운하다. 아무리 아픈 애라지만 너무 심한 말을 하는구나. [A]

파수꾼 다: 죄송해요. 하지만 어쩔 그 많은 나날을 단 한 번도 의심 없이 보내셨어요?

파수꾼 나: 넌 그렇게도 무섭니, 이리가?

파수꾼 다: 오히려 이리가 있다구 믿었던 때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땐 숨기라도 했으니까요. 땅에 엎드리면 아늑하게 느껴졌어요. 지금은요, 이리가 없으니 땅에 엎드려야 아무 소용 없구요, 양철북도 쓸모가 없게 됐어요. 오직 이제는 제가 본 그 사실만을 말하고 싶어요.

해설자, 촌장이 되어 등장. 검은 옷차림. 이해심이 많아 보이는 얼굴과 정중한 태도. 낮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한다.

(중략)

촌장: 오다 보니까 저쪽 뒷에 이리가 치어 있습니다.

파수꾼 나: 이리요? 어느 쪽이죠?

촌장: 저쪽요, 저쪽. 찢레 덩굴 밑이던가요…….

파수꾼 나: 드디어 잡는군요!

‘파수꾼 나’ 퇴장. 촌장은 편지를 꺼내 ‘파수꾼 다’에게 보인다.

촌장: 이것, 네가 보낸 거니?

파수꾼 다: 네, 촌장님.

촌장: 나를 이곳에 오도록 해서 고맙다. 한 가지 유감스러운 건, 이 편지를 가져온 운반인이 도중에서 읽어 본 모양이더라. ‘이리 떼는 없구, 흰 구름뿐.’ 그 수다쟁이가 사람들에게 떠벌리고 있단다. 조금 후엔 모두들 이곳으로 몰려올 거야. 물론 네 탓은 아니다. 넌 나 혼자만을 와 달라고 하지 않았니? 몰려오는 사람들은, 말하자면 불청객이지. 더구나 어떤 사람은 도끼까지 들고 온다더라.

파수꾼 다: 도끼는 왜 들고 와요?

촌장: 망루를 부순다고 그런단다. ‘이리 떼는 없구, 흰 구름뿐.’ 이것이 구조처럼 외쳐지고 있어. 그 성난 사람들만 오지 않는다면 난 너하고 딸기라도 따러 가고 싶다. 난 어디에 딸기가 많은지 알고 있거든. 이리 떼를 주의하라는 팻말 밑엔 으레히 잘 익은 **딸기**가 가득하단다.

파수꾼 다: 촌장님은 이리가 무섭지 않으세요?

촌장: 없는 걸 왜 무서워하겠니?

파수꾼 다: 촌장님도 아시는군요?

촌장: 난 알고 있지.

파수꾼 다: 아셨으면서 왜 숨기셨죠? 모든 사람들에게, 저 떼를 보러 간 파수꾼에게, 왜 말하지 않는 거예요?

촌장: 말해 주지 않는 것이 더 좋기 때문이다.

파수꾼 다: 거짓말 마세요, 촌장님! 일생을 이 쓸쓸한 곳에서 보내는 것이 더 좋아요? 사람들도 그렇죠! ‘이리 떼가 몰려온다.’ 이 헛된 두려움에 시달리는데 그게 더 좋아요?

촌장: 애야, 이리 떼는 처음부터 없었다. 없는 걸 좀 두려워한다는 것이 뭐가 그렇게 나쁘다는 거냐?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이리에게 물리지 않았단다. 마을은 늘 안전했어. 그리고 사람들은 이리 떼에 대항하기 위해서 단결했다. 그들은 질서를 만든 거야. 질서, 그게 뭔지 넌 알기나 하니? 모를 거야, 너는. 그건 마을을 지켜 주는 거란다.

-이강백, 「파수꾼」-

38.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극중 시간의 흐름이 전환되고 있다.
- ② 공간적 배경은 황야에 위치한 마을이다.
- ③ 무대 밖의 사건이 무대 내의 사건에 영향을 준다.
- ④ 등장인물들은 서로에게 협력하는 태도를 드러낸다.
- ⑤ 중심 갈등은 ‘파수꾼 나’와 ‘파수꾼 다’ 사이에 나타난다.

39. <보기>를 참조하여 [A]를 서사극으로 공연하기 위한 의견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정통 연극은 무대의 모든 사건과 인물이 현실 그대로라는 것을 강조한다. 무대 위의 행위는 진짜 행위가 아닌 특정한 배우가 아니며 무대 위의 상황도 현실의 상황인 것처럼 보여야 한다. 하지만 서사극은 현실과 극중 상황을 분리하여 관객을 관찰자로 만든다. 관객에게 무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연극’일 뿐이다. 그리고 그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서사극에서는 ‘낯설게 하기’의 기법을 활용하여, 일부러 무대 장치를 노출하기도 하고 배우가 관객에게 극중 상황을 설명하기도 한다.

- ① 무대의 배경 그림이나 망루를 실감 나게 제작한다.
- ② 배우들의 표정에서 내면이 잘 드러나도록 조명을 활용한다.
- ③ ‘촌장’이 해설자의 역할도 맡고 있다는 점을 관객이 알게 한다.
- ④ 파수꾼들에게 각각 고유한 이름을 부여하여 개성을 드러낸다.
- ⑤ ‘파수꾼 다’는 역할에 어울리는 연기로 관객의 연민을 이끌어낸다.

40. 윗글의 **팻말**과 **딸기**에 대한 해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딸기’는 본연의 직무에 충실한 파수꾼에게 촌장이 제공하는 보상을 뜻한다.
 - ② ‘팻말’은 촌장이 지난날을 돌아보며 자신의 가치관을 바꾸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
 - ③ ‘팻말’은 명분 뒤에 숨겨진 ‘딸기’라는 실리를 촌장이 차지하게 하는 수단이 된다.
 - ④ ‘팻말’은 이리 떼라는 위협으로부터 ‘딸기’라는 공동체적 가치를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 ⑤ ‘딸기’는 ‘팻말’이라는 금기와 이리 떼라는 위협 아래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희망을 나타낸다.

[47~5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09.09

어둠이 짙어 갈려 간 밤하늘에는 별들이 빙판(氷板)에 얼어 붙은 구슬들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찬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고 지나갈 때마다 낙엽이 우수수 발밑으로 떨어져 흩어졌다. 그는 [지금] 가로수에 기대어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다. 무거운 마음이 좀처럼 가라앉지가 않았다. 그는 즈봉 포켓 속에 구겨 넣은 신문지를 다시금 손으로 구겨 쥐었다. 어머니—그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부르짖었다. 그 순간 ‘아래는 아들의 소식을 듣고 실직한 노모’라는 ㉠ 신문 구절과 함께 노파의 주름진 얼굴이 어머니 얼굴과 겹쳐서 떠올랐다. 그러나 곧 ‘모두가 조국을 위해서다.’ 하는 음성이 그의 마음을 뒤덮고 지나갔다.

[A] ‘이미 우리는 ㉡ 조국을 위해서만이 있는 몸이다. 지금의 네 심정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보다 더 보람 있는 하나를 위해서 하나를 버려야지.’

약 이 개월 전 일이었다. 그가 투신하고 있는 비밀결사에서는 한 사람을 암살하지 않으면 안 될 경지에 놓여 있었다. 그리고 바로 계획된 [그날 밤] 오랜 신병 끝에 오직 한 분밖에 없는 그의 어머니가 숨겨 가고 있었던 것이었다. 클래식 소리가 짧게 밖에서 또 한 번 울려 오고 있었다. 정각에서 삼십 분 전. 야광 초침이 파란 빛깔을 그으면서 아라비아 숫자가 나열된 동그란 원반 위를 움직이고 있었다. ㉢ 클래식 소리가 다시 짧게 울렸다. 그는 묵묵히 고개를 들고 어둠과 마주 섰다.

[B] “연기는 안 돼. 생각해 봐. 우리가 오늘 이 기회를 잡기 위해서 얼마나 시간과 정력을 소비했나를……. 그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실패하는 경우엔 이미 우리들의 계획은 모두 수포로 돌아가야 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에서 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거야. 지금 우리들은 삼이라는 성공 숫자 앞에 와 있다. 알겠지? 어머니는 우리가 맡을 테다. 조국을 위해서 이미 모든 것을 버리기로 한 우리들이 아니냐.”

나직하면서도 몹시 초조한 음성이었다. 그는 조용히 문을 닫았다. 어머니의 신음 소리가 무겁게 방 안에서 울려 나오고 있었다.

(중략)

의식을 잃고 누워 있던 어머니는 방문이 부시시 열리는 소리에 눈을 떴다. 천장이 축 처져서 내려앉은 ㉣ 방 안은 더욱 답답하고 어두웠다. 그는 어머니 앞으로 조용히 다가가서 꿇어앉았다. 고개를 약간 모로 눕히면서 아들 모습을 더듬어 가고 있는 그 눈빛은 다 꺼져 가는 모닥불처럼 희미하게 등잔불 빛에 반사되어 빛나고 있었다.

“어머니…….”

노파는 아들의 음성을 알아들었는지 고개를 간신히 흔들어 보이는 것 같았다.

“어머니, 의사가 왔었어요?”

그러나 노파는 가만히 있었다. 그는 어머니가 말귀를 못 알아

들었는가 하여 다시 한 번 어머니 귀 가까이 입을 대고 물어 보았다. 그리고 나서 어머니 표정을 조용히 지켜다. 험하게 주름져 간 입술이 움직여서는 것 같았다. 어머니 손이 무엇인가를 찾아 헤매는 듯하므로 그는 어머니의 손을 마주 잡으며 물었다.

“왜 그러세요?”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의 손만을 꼭 움켜쥐는 것이었다. 어머니는 곧 아들의 손을 끌어당겨 자기 뺨 위로 가져갔다. 그리고 이미 시선과 손의 감각만으로써는 아들을 느껴 볼 수가 없는 듯이 아들의 손을 자기 입술에 가져다 대어 보는 것이었다. 그는 가슴이 몽글 뜨거운 물결 속에 휩쓸려 들어가는 것 같았다. 그는 순간 [머칠 전] 집을 나갈 때 간신히 입을 열고 중얼거리던 어머니 말쑤이 눈앞에 또렷이 아로새긴 것처럼 떠오르는 것이었다.

“언제 돌아오냐?”

“오늘은 못 돌아올 것 같아요. 저 옆집 아주머니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좀 돌봐 달라고 돈도 드렸으니까 근심 마세요. 의사도 이따 저녁에 다시 한번 들를 거예요.”

“오냐.”

그리고 나서 어머니는 잠시 멍하니 허공에 눈 주고 있다가 혼잣말처럼 이렇게 중얼거리는 것이었다.

[C] “어머니는 아들만을 위해서 있단다. 나이 들면 들어 갈수록……. 그러나 아들이야 그럴 수 있겠니, 제 할 일이 더 중한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노쇠한 어머니의 애뜻한 기대를 깨닫지 못하는 바 아니었으나 그는 자리에서 일어섰던 것이었다.

그는 [지금] 이러한 생각에 사로잡힌 채 자기 손을 끌어당겨다 입술 위에 대고 어루만지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잠시 지켜보고 있었다. 얼마 후 자기 손을 어루만지던 어머니의 손은 맥없이 그대로 멈추어졌다. 그는 뼈만이 앙상한, 여윈 어머니의 손가락 으로부터 어머니 눈 위로 시선을 옮겼다.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희미한 어머니의 눈빛, 마치 그것은 먼지 속에 퇴색하여 버린 ㉤ 유리알처럼 빛을 잃고 있었다. 그 순간 어머니는 지금 아들의 모습을 바라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마음속에서 느끼고 있을 뿐이라는 생각이 그의 마음에 어두운 선을 그으며 지나갔다.

[다음날] 그는 밀회 시간을 어기고 그대로 어머니 곁에 있었다. 정오가 가까워서였다. 자동차의 엔진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더니 집 앞에서 급히 브레이크 밟는 소리가 났다.

- 오상원, 「모반」 -

47. 윗글의 서술상의 시간을 <보기>와 같이 정리했다. 이와 관련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지금(1) → 그날 밤 → 며칠 전 → 지금(2) → 다음날

- ① '지금'(1)과 '지금'(2)는 공간적 배경이 다르다.
- ② '그날 밤'과 '지금'(2)는 시간적 배경이 동일하다.
- ③ '그날 밤'과 '며칠 전' 장면은 서술자의 시점이 서로 다르다.
- ④ 실제 시간 순으로 배열하면 '며칠 전'이 가장 먼저이다.
- ⑤ '다음날'에는 새로운 사건의 발생이 암시되어 있다.

48. ㉠~㉣ 중 <보기>에서 설명하는 '이것'에 해당하는 것은?

—<보 기>—
'이것'은 주체와 타자, 주체와 세계를 연결하는 사회적 통로이다. '이것'을 매개로 주체는 타자와 세계에 대한 앎을 확장하며, 그럼으로써 자신이 처한 상황을 재인식하고 새로운 정체성을 구성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동시성과 공공성을 특징으로 하는 '이것'은 현대소설에서 중요한 서사적 기능을 갖는 장치로 활용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49. <보기>의 ㉠~㉣ 중 [A]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만을 있는대로 고른 것은?

—<보 기>—
소설 읽기는 삶의 의미를 발견하기 위한 일종의 여행이다. 우리를 안내하는 작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여행을 돕는다. 그는 ㉠ 상황을 요약하여 제시해 줌으로써 우리의 수고를 덜어 주기도 하고, ㉡ 개념적인 언어로 자신의 사상을 직접 피력하기도 한다. 그러나 집을 떠난 여행이 그렇듯이 소설을 읽는 여정 역시 순조롭지만은 않다. 작가는 ㉢ 외부 사물의 묘사로 복잡한 심리 상태를 암시하기도 하고, ㉣ 예상하지 못했던 극적인 반전으로 우리를 당황하게 하기도 한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50. [B]와 [C]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B]에서는 '그'가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
- ② [B]에서는 '비밀결사'가 '그'를 압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
- ③ [C]에서는 '그'의 '할 일'에 대한 어머니의 불신을 읽을 수 있어.
- ④ [C]에서는 '그'를 만류하지 못하는 '어머니'의 안타까운 심정을 읽을 수 있어.
- ⑤ [B]와 [C]의 두 목소리 사이에서 갈등하는 '그'의 심리를 읽을 수 있어.

[20~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09.06

(가)

여승(女僧)은 합장(合掌)하고 절을 했다
 가지취의 내음새가 났다
 쓸쓸한 낮이 넷날같이 늙었다
 나는 불경(佛經)처럼 서러워졌다

평안도(平安道)의 어늬 산(山) 깊은 ㉠ 금덤관
 나는 파리한 여인(女人)에게서 옥수수를 샀다
 여인(女人)은 나 어린 딸아이를 따리며 가을밤같이 차게 울었다

섭별같이 나아간 지아비 기다려 십 년(十年)이 갔다
 지아비는 돌아오지 않고
 어린 딸은 도라지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갔다

산(山)평도 설게 올은 슬픈 날이 있었다
 ㉡ 산(山)절의 마당귀에 여인(女人)의 머리오리가 눈물 방울과
 같이 떨어진 날이 있었다

- 백석, 「여승(女僧)」 -

(나)

저 지붕 아래 제비집 너무도 작아
 갓 태어난 새끼들만으로 가득 차고
 어미는 동지를 날개로 덮은 채 간신히 잠들었습니다
 바로 그 옆에 누가 박아 놓았을까요, 못 하나
 그 못이 아니었다면
 아버지는 어디서 밤을 지냈을까요
 못 위에 앉아 밤새 꾸벅거리는 제비를
 눈이 뜨겁도록 올려다봅니다
 종암동 ㉢ 버스 정류장, 흙바람은 불어오고
 한 사내가 아이 셋을 데리고 마중 나온 모습
 수많은 버스를 보내고 나서야
 피곤에 지친 한 여자가 내리고, 그 창백함 때문에
 반쪽 난 달빛은 또 얼마나 창백했던가요
 아이들은 달려가 엄마의 옷자락을 잡고
 제자리에 선 채 달빛을 좀 더 바라보던
 사내의, 그 마음을 오늘 밤은 알 것도 같습니다
 실업의 호주머니에서 만져지던
 때 묻은 호두알은 쉽게 깨어지지 않고
 그럴듯한 ㉣ 질 한 채 짓는 대신
 못 하나 위에서 견디는 것으로 살아온 아버,
 거리에선 아직도 흙바람이 몰려오나 봐요
 돌아오는 길 희미한 달빛은 그런대로
 식구들의 손잡은 그림자를 만들어 주기도 했지만
 그러기엔 ㉤ 골목이 너무 좁았고
 늘 한 걸음 늦게 따라오던 아버지의 그림자
 그 꾸벅거림을 기억나게 하는
 못 하나, 그 위의 잠

- 나희덕, 「못 위의 잠」 -

(다)

어머님,
 제 예닐곱 살 적 겨울은
 목조 적산 가옥 이층 다다미방의
 별거승이 유리창 깨질 듯 울어 대던 외풍 탓으로
 한없이 추웠지요, 밤마다 나는 벌벌 떨면서
 아버지 가랭이 사이로 시린 발을 밀어 넣고
 그 가슴팍에 벌레처럼 파고들어 얼굴을 문은 채
 겨우 잠이 들곤 했었지요.

요즈음도 추운 밤이면
 곁에서 잠든 아이들 이불깃을 덮어 주며
 늘 그런 추억으로 마음이 아프고,
 나를 품어 주던 그 가슴이 이제는 한 줌 뺏가루로 삭아
 붉은 흙에 자취 없이 뒤섞여 있음을 생각하면
 옛날처럼 나는 다시 아버지 곁에 눕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오늘은 영하(零下)의 한강교를 지나면서 문득
 나를 품에 안고 추위를 막아 주던
 예닐곱 살 적 그 겨울밤의 아버지가
이승의 물로 화신(化身)해 있음을 보았습니다.
 품 안에 부드럽고 **여린 물살**은 무사히 흘러
 바다로 가라고,
 팡 팡 **얼어붙은 잔등**으로 흑한을 막으며
 하얗게 **얼음**으로 얼드려 있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 이수익, 「결빙(結氷)의 아버지」 -

20.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반어적 표현을 구사하여 주제를 부각시킨다.
- ② 시간의 변화가 시상 전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 ③ 부정적 현실을 포용하려는 여유로운 정신이 엿보인다.
- ④ 대화체를 사용하여 독자를 시 속으로 깊숙이 끌어들인다.
- ⑤ 화자와 대상의 거리를 좁혀 자연 친화적 태도를 드러낸다.

21. (가)와 (나)를 비교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사람이, (나)는 자연물이 시상을 유발한다.
- ② (가)는 (나)에 비해 내면을 성찰하는 태도가 잘 드러난다.
- ③ (나)는 (가)에 비해 간접적으로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④ (나)는 (가)에 비해 친근한 어조를 사용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비유적으로 인물을 표현하고 있다.

22.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여인'이 생계를 유지하는 공간
- ② ㉡: '여인'이 비극적 상황에서 대안으로 선택한 공간
- ③ ㉢: '사내'가 자신의 처지를 확인하는 공간
- ④ ㉣: '사내'가 지향하는 삶을 상징하는 공간
- ⑤ ㉣: '사내'가 정서적 유대감을 느끼게 되는 공간

23. (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외풍'은 아버지의 사랑을 대비적으로 부각시키는 소재이다.
- ② '이승의 물로 화신'에는 삶에 대한 유희론적 인식이 엿보인다.
- ③ '여린 물살'은 아버지의 보호를 받는 자식을 형상화한 것이다.
- ④ '얼어붙은 잔등'은 화자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된 사건을 추측하게 한다.
- ⑤ '얼음'은 일반적인 속성과는 달리 따뜻함이 투영된 이미지이다.

[28~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09.06

재종숙은 아무래도 김만호 씨보다는 강 목사에 더 애착이 가는 것 같았다.

“둘은 소학교와 농업학교를 같이 다녔고, 이 지역에서는 그래도 똑똑하다고 소문이 나 있던 사람들이었지. 강 목사는 농업학교를 나온 후 이곳 소학교에서 교편을 잡으면서 밤이면 야학을 하였어. 나도 토요일이나 방학에 집에 와서는 그 일을 도와 드렸지.”

그러는 사이에 강 목사와 김만호 씨는 자주 다투게 되었다. 한쪽에서는 일본 말을 가르치는 일을 못마땅히 생각하였고, 한편에서는 세상 돌아가는 형편을 외면한 채 저 잘난 척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는 동안 결국 한글 강습소는 문을 닫아야 하였고 강 목사는 고향을 떠나야 하였다.

“이봐, 그때 그 한글 강습소를 폐쇄시킨 게 바로 김만호였어. 우리가 주재소에 가서 혼이 나도록 당한 것도 다 뒤에서 그 작자가 조종을 한 거야. 나도 학교를 마치지도 않고 고향에 있을 수가 없어서 일본으로 떠나 버렸어. 귀찮은 일이 자꾸 따라다녔지.”

㉠ 재종숙은 그때 일을 바로 어제 일같이 말하였다.

“그 일뿐이 아니라고. 참으로 못할 짓 많이 하였지. 그런데 내가 해방이 되어서 고향에 돌아와 보니까, 아니 어디 숨어 있는 줄 알았던 그가 아주 요란스럽게 행세를 하고 있었어. 난 그 꼴이 보기 싫어서 다시 일본으로 들어가 버렸지만…….” 재종숙의 말은 자꾸 헛갈렸다.

김만호 씨는 면 농회 근무 3년 만에 서른이 안 된 나이로 면장이 됐다. 재종숙은 아마 그가 제일 악질적인 면장이었을 거라고 말하였다. 더구나 용서하지 못할 일은, 그가 가장 면민을 위하는 척하면서 제 할 일은 다 했다는 점이었다. 그는 젊은 면장으로서 이 제주 섬에서 가장 도사(島司)의 신임을 얻은 면장이 되었다. ㉡ 재종숙의 말투는 점점 과격하여 갔다. 인생의 황혼기에서, 아무리 뼈에 사무친 일이라 하더라도 이 나이쯤이면 모두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을 터인데 그게 아니었다.

“생각해 보게. 어떻게 그런 사람에게 ‘선구적인 시민상’을 주어. 나라를 팔아먹는 데, 권력의 종노릇 하는 데 선구적이었어. 그건 김만호 개인의 문제가 아니여. 신문사 문제만도 아니고, 작은 문제가 아니여. 그 사람이 상을 타면 세상 사람의 본이 되는 건데, 아니 모두들 그렇게 살아도 된다는 거여? 안 되여. 안 돼.”

그는 언성을 높였다. 바로 교장 어른을 상대하여 말하는 투였다. 그와 헤어져 거리로 나오자 이번에는 교장 어른을 만나고 싶었다. 역시 그에게서는 재종숙과는 정반대의 말을 들을 것이 뻔하지만, 재종숙에게 듣지 못했던 새로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자네가 날 찾아올 줄 알았지.”

교장 어른은 몸소 써서 만든 ‘반야심경’ 열 폭 병풍 앞에서 한복 차림으로 앉았다가 일어서면서 나를 반갑게 맞았다. 나는 그분에게서 곱게 늙고 있는 행복한 서민의 모습을 보았다. 육십 평생을 어린이 교육을 위해서만 살다 정년퇴임한 지 몇 해가

되지만, 그는 여전히 이곳 사람들의 선생으로 대접받고 있었다. 방 한편 구석 문갑 위에 있는 한란 분이 그 어른의 기품과 어울리는 것 같았다. 세배꾼들이 다녀갔는지 방석들이 즐비하니 널려 있었다.

교장 어른은 아까 종갓집에서와는 다르게 나를 대하면서 벌써 찾아가던 연유를 알고 있었다. 나는 신문사로부터 부여받은 일을 설명하고 나서,

“할아버님의 도움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할아버님께서 그분과 오랜 교분을 갖고 계신 걸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그분을 잘 알고 계시겠기에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개인적인 일 같은 것을 듣고 싶습니다.”

㉢ 되도록 조심스럽게 말하였다. 사실 나 자신 한 인간의 사회적인 삶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는 뚜렷한 생각도 잡혀지지 않은 처지라서 우선 이렇게 얼버무릴 수밖에 없었다.

“그분이 일제 시대에 관리 노릇을 하였고 더구나 면장을 오랫동안 지낸 것은 사실이지만, 그 시기에 누군들 면장을 해야 했을 거이고, ㉣ 더구나 일본 사람이 면장을 했던 것 보담야 훨씬 나았지. 나도 일제 시대 여남은 해 동안 교단에 서서 식민지 교육에 앞장섰던 사람으로서 그분의 행적에 대하여 시비를 가릴 자격은 없어. 큰집에서 내가 좀 강경하게 말한 것은 자네 칠촌 말일세. 일본 가서 살아서 이곳 사정을 모르는 처지에 이러쿵저러쿵 하는 바람에 비위가 상했던 거야. 자기도 그곳에서 살았으면 아니, 일본 사람에게 협조하지 않고 독자 청청 민족과 나라를 위하여 애국만 하며 살 수 있었겠단 말이네. 어림없어. 아마 먼저 더 철저하게 일본 사람들에게 붙어살았을지 누가 알아. 사실 이곳에서 살지 않았던 사람은 이곳에 살면서 좋은 일 곳은 일 모두 겪었던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말을 말아야 돼.”

재종숙의 처사가 못마땅하다는 것이었다. ㉤ 그런 교장 어른에게서도 새로운 김만호의 면모를 찾을 수 없을 것 같았다.

- 현길언, 「신열(身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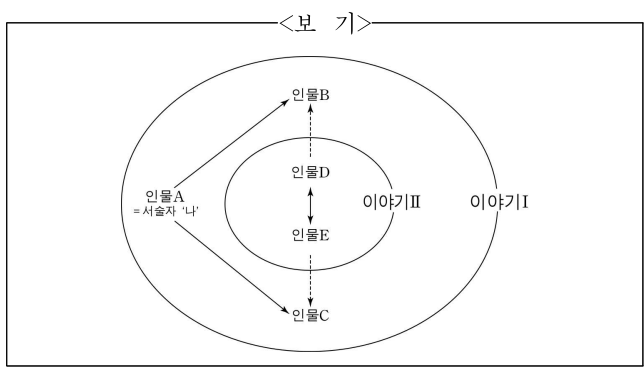
28.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화를 통해 인물의 성격을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② 상징적 소재를 활용하여 주제를 암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③ 사물에 대한 섬세한 묘사로 독자의 상상 공간을 확대하고 있다.
- ④ 비유적인 언어를 적절하게 구사하여 작품의 미적 효과를 높이고 있다.
- ⑤ 내적 독백을 연속적으로 서술하여 소설 내의 시간을 느리게 진행시킨다.

29. 윗글의 내용으로 미루어 알 수 없는 것은?
- ① '김만호'는 현실의 변화를 재빨리 수용한다.
 - ② '김만호'와 '강 목사'는 삶의 태도와 관점이 매우 다르다.
 - ③ '교장 어른'은 '강 목사'보다는 '김만호'의 입장에 서 있다.
 - ④ '나'는 '재종숙'과 '교장 어른'이 화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⑤ '재종숙'은 '김만호'의 수상 문제가 사회 정의와 관련되어 있다고 본다.

30.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과거의 일을 아직도 마음에 두고 있다.
 - ② ㉡: 분노의 감정에 휩싸여 흥분하고 있다.
 - ③ ㉢: 관련된 사안이 예민한 문제라고 느끼고 있다.
 - ④ ㉣: 상황을 들어 당시 행위를 옹호하려 한다.
 - ⑤ ㉤: 예상 밖의 결과가 나오자 실망하고 있다.

31. 윗글의 이야기 구성을 <보기>와 같이 정리한다고 할 때, 이와 관련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3점]



- ① 이야기 I 과 이야기 II의 공간적 배경을 다르게 설정하여 작품의 입체성을 강화하고 있다.
- ② 이야기 I 과 이야기 II의 시간적 배경을 동일하게 설정하여 보편적 공감을 유도해 내고 있다.
- ③ 이야기 I의 특정 인물과 이야기 II의 특정 인물만 서로 갈등 관계를 맺도록 하여 단일화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 ④ 인물 A가 인물 B와 C의 입을 통해서만 인물 D와 E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독특한 구성 방식 때문에 이야기 II의 비중이 약화된다.
- ⑤ 인물 A가 이야기 II 속의 인물 D와 E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작품의 핵심적 의미는 인물 D와 E의 실상 규명과 관련 되어 있다.

[36~3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09.06

세월이 물같이 흘러 웅의 나이 15세라. 골격이 웅장하고 기운이 뛰어나더라. 하루는 웅이 모친께 청했다.

“소자 지금 나이 15세요, 이곳이仙境(仙境)인지라 가히 살만한 곳이지만, 대장부 세상에 처하매 한곳에서 늙을 것이 아니옵니다. 신선도 두루 돌아다니 박람(博覽)*한다 하거늘 소자가 슬하를 잠시 떠나 산 밖에 나가 세상을 구경하고 황성 소식도 듣고자 하나이다.”

왕 부인이 매우 놀라며 말했다.

“천리 타향에 너는 나만 믿고 나는 너만 믿어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거늘 네 일지인들 내 슬하를 떠나며, 내 어찌 너를 내어 보내고 일지인들 잊을쏘냐. 네 어디를 갈 양이면 한가지로 할 것이라. 차후는 그런 마음 두지 말라. 매우 놀랍도다.”

웅이 다시 아뢰지 못하여 물러 나와 월경 대사와 의논했다.

“내 이제 세상에 나가도 남에게 화를 입지 않을 것이옵니다. 또한 내 몸이 중이 아니라 오래 산 속에 있사오니 황성 소식도 모르고 나의 심중에 품은 일도 아득하와, 일전에 모친께 사정을 고하오니 도리어 꾸중하시는 바람에 다시 거역하지 못하였삽거니와, 대사께서는 저를 위하여 모친의 마음을 돌려 저의 뜻을 펴게 함이 어떠하오리까?”

대사가 말했다.

“공자의 말은 반반한 장부의 말이로다.”

하고 부인 앞에 가서 고금의 일을 이야기하다가 공자의 품은 큰 뜻을 여쭙니 부인이 말했다.

“말은 당연하나 만리타국에 보내고 어찌 이 적막강산 사고 무친한 곳에서 잠시라도 잊을 수 있으며 또한 저의 나이 어리고 세상사에 어리석은지라, 어지러운 세상에 나가 어찌 될 줄 알리오.”

“부인의 말씀도 일리가 있사옵니다. 그러나 이제 공자를 어리다 하시거니와, 천병만마에 시석(矢石)*이 비 오듯 하여 살기(殺氣)가 충천한 곳에 넣어도 조금도 걱정할 바가 없을 것이니 부인은 어찌 사람의 운명을 의심하십니까? 홍문연 살기 중에 패공이 살아나고, 파강산 천경사의 부인이 살아났으니 어찌 천명을 근심하리오. 소승 또한 공자의 환란을 짐작하지 못하면 어찌 출세함을 권하며, 공자 세상에 나가도 부인은 이곳에 계시오면 무슨 근심이 있으리까?”

이렇게 설득하니 부인이 한동안 생각하다가 말했다.

㉠ “만일 존사의 말씀과 같지 못하면 어찌하리오?”

“공자의 평생 영욕(榮辱)을 다 알았사오니 조금도 염려 마옵소서.”

부인이 마지못해 허락하니 대사와 웅이 기뻐 이튿날 길을 떠났다.

(중략)

“십 년을 정성 들여 선생을 찾아왔는데 뵈지 못하오니, 바라옵건대 동자는 가신 곳을 가르쳐 주소서.”

동자가 웃으며 말했다.

“나무꾼이 기러기를 쏘아 맞히지 못하매 제 공부 부족함을 깨닫지 못하고 활과 살을 꺾어 버리니 그대도 나무꾼과 같도다.

그대 정성이 부족한 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주인이 없음을 원망하니 매우 우습도다. 다만 선생께서는 이 산중에 계시건만 산세가 워낙 험하니 그 종적을 어찌 알리오?”

다시 만나절을 기다렸으나 종적이 묘연한지라. 울적한 마음을 이기지 못해 붓을 잡아, 못 보고 가는 뜻을 글로 쓰고 동자를 불러 하직하고 나오니 마음을 헤아리지 못할러라.

이때 철관 도사가 산중에 그윽이 앉아 웅의 거동을 보더니 벽에 글을 쓰고 가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겨 급히 내려와 벽의 글을 보니 다음과 같았다.

[A] 십 년을 지내 온 나그네가
만 리 밖에서 찾아오도다.
못에서 웅이 날아오르려 하거늘
이 또한 정성이 모자람이라.

도사가 보기를 다하고 크게 놀라 급히 동자를 산 밖에 보내 웅을 청하니 웅이 동자를 보고 물었다.

“선생이 왔더니까?”

“이제야 오셔서 청하시나이다.”

웅이 반겨 동자를 따라 들어가니 도사가 사립문에 나와 웅의 손을 잡고 기뻐하며 말했다.

“험한 산길에 여러 번 고생하였도다.”

하고 동자를 시켜 저녁밥을 재촉하여 주거늘 웅이 먹은 후 감사하며 말했다.

“여러 날 굶주린 배에 좋은 밥을 많이 먹으니 향기가 뱃속에 가득한지라 감사하여이다.”

“그대의 먹는 양을 어찌 알아 권하였으리오?”

하고 책 두 권을 주며,

“이 글을 보아라.”

하거늘, 웅이 무릎을 꿇고 펼쳐 보니 성현(聖賢)들이 쓴 책이라. 웅이 다 본 후에 다른 책을 청하니, 도사가 웃고 『육도삼략』을 주거늘 받아 큰 소리로 읽었다. 도사가 더욱 기특하게 여겨 『천문도』 한 권을 주거늘 받아 보니 기묘한 법이 많은지라. 도사가 가르치는 술법을 배우니 뜻이 넓어지고 눈앞의 일을 모를 것이 없더라.

- 작자 미상, 「조웅전」 -

*박람: 사물을 널리 봄.

*시석: 전쟁에 쓰던 화살과 돌.

36. 위글의 등장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철관 도사는 조웅의 자질을 의심하고 있다.
- ② 왕 부인은 조웅의 입신양명을 희망하고 있다.
- ③ 동자는 조웅의 판단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 ④ 월경 대사는 조웅의 장래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
- ⑤ 조웅은 어머니의 입장보다 자신의 포부를 앞세우고 있다.

37. [A]의 서사적 기능을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 <보 기> —

ㄱ. 주인공의 예언 능력을 보여 준다.
 ㄴ. 주인공의 심리적 정황을 제시한다.
 ㄷ. 주인공의 위기를 예고하는 복선이 된다.
 ㄹ. 주인공의 고민을 해소하는 계기가 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38.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할 때,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소대성: 나는 「소대성전」의 주인공이야. 외세의 침입으로부터 나라를 구해 영웅이 되었지. 그런데 내가 영웅이 된 과정은 나와 다르더군.
조 웅: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간신의 박해를 받아 고생을 했고, 그 간신이 일으킨 반란을 평정해서 영웅이 되었지. 태어나면서 부귀영화를 누리기까지 줄곧 적과 싸움을 한 셈이야.
소대성: 나도 부모를 잃어 고생한 적은 있었어. 하지만 선천적으로 무예와 도술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수련의 과정이 필요 없었어.
조 웅: 그렇구나. 나는 너와 달리 스승을 찾아야 했고, 참으로 긴 수련의 과정이 필요했어.
소대성: 그래서 너의 이야기에는 나의 이야기와 다른 ㉠ 특징이 있구나.

- ① 등장인물의 수를 늘려 설정된 사건을 보다 다양한 시각에서 조망할 수 있게 한다.
- ② 주인공의 영웅성과 함께 대사나 도사의 신비한 능력을 부각시켜 환상적 분위기를 연출한다.
- ③ 스승의 존재를 부각시킴과 동시에 공부에 대한 강한 신념을 드러내어 소설의 교훈성을 부각시킨다.
- ④ 주인공의 시련을 좀 더 단계적으로 설정하여 사건의 전개 속도를 빠르게 하는 한편 주제를 심화시킨다.
- ⑤ 선천적으로 초월적 힘이 주어진 경우보다 고난 극복에 대한 주인공의 현실적이고 강인한 의지를 부각시킨다.

39. 문맥으로 보아 ㉠에 대한 독자의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왕 부인은 ‘선견지명(先見之明)’이 있군.
- ② 왕 부인은 ‘노심초사(勞心焦思)’하고 있군.
- ③ 왕 부인은 ‘식자우환(識字憂患)’에 해당하는군.
- ④ 왕 부인은 ‘시시비비(是是非非)’를 가리고 있군.
- ⑤ 왕 부인은 ‘적반하장(賊反荷杖)’의 말을 하고 있군.

[46~5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09.06

(가)

鶯子初來時 제비 한 마리 처음 날아와
 嘯嘯語不休 지지배배 ㉠그 소리 그치지 않네
 語意雖未明 말하는 뜻 분명히 알 수 없지만
 似訴無家愁 집 없는 서러움을 호소하는 듯
 榆槐老多穴 느릅나무 회나무 목어 구멍 많은데
 何不此淹留 어찌하여 그곳에 깃들지 않니
 燕子復嘯嘯 제비 다시 지지귀며
 似與人語酬 사람에게 말하는 듯
 榆穴鶴來啄 느릅나무 구멍은 황새가 쪼고
 槐穴蛇來搜 회나무 구멍은 뱀이 와서 뒤진다오

- 정약용, 「고시(古詩)」 -

(나)

북창(北窓)에 기대 앉아 새벽을 기다리니
 무정한 오디새는 이 내 환을 돕는다
 아침까지 울적하여 ㉡ 먼 들을 바라보니
 즐기는 농가(農歌)도 흥 없이 들린다
 세정(世情)* 모르는 한숨은 그칠 줄을 모른다
 술 고기 있으면 친구도 사귀련만
 두 주먹 비게 쥐고 물정 모르는 말에 모습도 못 고우니
 하루아침 부릴 소도 못 빌려 말았거든
 하물며 교외(郊外)에서 취(醉)할 뜻을 갖을쏘나
 가까운 저 쟁기는 벗보임도 좋을시고
 가지 영킨 묵은 발도 쉽사리 갈련만은
 ㉢ 텅 빈 집 벽에 쓸 데 없이 걸렸구나
 차라리 첫 봄에 팔아나 버릴 것을
 이제야 팔려 한들 알 이 있어 사러오라
 봄갈이도 끝나간다 후리 쳐 던져두자
 강호 한 꿈을 꾸 지도 오래려니
 ㉣ 입과 배가 누가 되어 어즈버 잊었도다
 저 물을 바라보니 푸른 대도 하도할사
 ㉤ 훌륭한 군자들이 뉘대 하나 빌려스라
 갈대꽃 깊은 곳에 명월청풍 벗이 되어
 ㉥ 입자 없는 풍월강산에 절로절로 늙으리라

- 박인로, 「누항사」 -

* 세정: 세상 물정.

(다)

나는 전에 관동 지방에 유람을 간 일이 있었습니다. 가는 도중에 강 너머 물가를 바라보니 인가가 물가의 산기슭에 자리 잡고 있고, 단풍나무와 떡갈나무가 서 있는데, 그 사이로 초가 지붕이 보이고, 아침 햇살이 비쳐드니 서리 내린 나뭇잎이 노랑기도 하고 붉기도 하였습니다. 땔나무를 실은 작은 배와 소금 실은 조각배가 서로 바라보며 오가고, 채소밭과 논두렁이 보였다가 사라졌다 하더군요. 또한 지팡이를 짚고 발두둑에 멈추어 서 있는 사람,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쓰는 사람, 어린애를

데리고 동이를 머리에 이고 있는 사람, 나란히 쟁기를 끄는 사람도 있었으며, 닭과 개가 여기저기 나다니고 밤 짓는 연기가 간간히 일어났지요. 자신도 모르게 정신이 내달리고 흥취가 일어나 ‘훗날 식구들을 데리고 멀리 떠나오면 근심을 잊고 노년을 마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지요. 돌아오자마자 서둘러 이 이야기를 내 친구인 포원자에게 하였던니, 포원자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곳은 내가 예전에 몸소 가 보았던 곳이라네. 내가 거기에서 보니, 마을 앞에는 메마른 자갈밭만 보이고 채소의 싹도 들성들성하게만 돌아나 있고 집은 낮는데다가 비좁아 구부정하게 몸을 구부려야 했었네. 마을 사람이 나에게 이런 말을 했대네. ‘여름에 장마가 저 강물이 불어나면 전답이 어김없이 물바다가 되어 한 해 동안 애써 농사지은 작물을 서쪽 물결에 보내 버리게 됩지요. 오래도록 가뭄이 계속되면 자갈땅이 후끈 달아올라 온갖 곡식이 바싹 말라 버린답니다. 오직 비와 햇볕이 때에 맞고 들판과 습지의 곡식이 모두 잘 익어야 우리 마을에서는 느긋하게 숨을 내쉬며 근심이 없을 수 있지요.’ 그곳에서 하룻밤을 머물렀는데, 아침과 낮에는 그러저럭 지낼 만하였지만, 어스름이 내린 뒤에는 문을 나가면 호랑이에게 물러가기 때문에 문에 들어서자마자 곧장 호랑이 그물을 친다네. 빗장을 걸어 잠그지 않은 집이 없었고, 이가 없는 집이 없었네. 가려운 데를 긁어대느라 부스럼이 되었고, 밤새도록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였지. 그때는 정말이지 미친 듯 고향을 지르고 싶었네. 앞서 말한 땔나무와 소금 실은 작은 배, 채소밭과 논둑을 몽땅 다 나에게 주면서 하룻밤을 더 머물라고 부탁해도 나는 머리를 내저으며 서둘러 도망갔을 걸세.”

㉦ 이 말은 시골 생활의 괴로움을 깊이 생각하게 할 뿐만 아니라, 실로 먼 곳과 가까운 곳의 차이에 대해 알 수 있게 했습니다.

- 이학규, 「어떤 사람에게(與某人)」 -

46.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현실에 대한 역사적 인식이 담겨 있다.
- ② 불만족스러운 삶의 현실이 내재되어 있다.
- ③ 일상생활의 소중함에 대한 자각이 나타나 있다.
- ④ 현실과의 단절로 인한 안타까움이 드러나 있다.
- ⑤ 자신의 삶의 태도를 반성하면서 개선하고자 한다.

47.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대비적 관계에 있는 시어를 배치하고 있다.
- ② (나)는 공간의 이동 경로에 따라 사물의 다양한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③ (가)는 (나)와 달리 풍자적 표현을 활용하여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 ④ (나)는 (가)와 달리 설의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⑤ (나)는 (가)에 비해 화자의 내면이 잘 드러나는 어조를 취하고 있다.

48.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 화자가 공감할 수 없는 것
㉡: 서술자가 공감할 수 있는 것
- ② ㉠: 화자에게 동정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
㉡: 서술자가 기존의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
- ③ ㉠: 화자의 심리적 갈등을 초래하는 계기
㉡: 서술자가 자신의 피로운 처지를 인식하는 계기
- ④ ㉠: 화자가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는 원인
㉡: 서술자가 체념적 태도를 갖게 되는 원인
- ⑤ ㉠: 화자의 외로움을 확대시키는 원인
㉡: 서술자가 자신의 문제를 극복하게 되는 원인

49. <보기>를 참조하여 (나)의 ㉠~㉣을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사대부들이 궁극적으로 지향했던 삶은 세상에 나아가 태평성대를 구현하는 데 힘을 보태는 것이었으며, 이것을 자신들의 직분이라고 생각했다. 박인로도 이와 같은 삶을 지향했으며 사대부의 직분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럴 만한 지위를 얻지 못했다. 그렇다고 세속적인 삶의 방식을 추종하며 살 수도 없었기에 세상에서 점점 소외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갈등하다가 그가 선택하게 된 또 하나의 가치가 ‘안빈낙도(安貧樂道)’이다. 즉 안빈낙도는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없었던 상황에서 사대부로서의 고결한 내면을 지키기 위해 선택한 삶의 양식이었던 것이다.

- ① ㉠은 화자와 세상과의 심리적 거리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② ㉡은 사대부로서의 직분을 현실에서 실천할 수 없는 화자의 안타까운 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③ ㉢은 화자가 선비로서의 고결한 삶을 살 수 없었던 이유로 볼 수 있겠군.
- ④ ㉣은 권력욕에 빠진 위정자들에 대한 비판을 보여 주는군.
- ⑤ ㉤은 안빈낙도하며 살아가겠다는 화자의 의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50. (다)를 이해한 학생이 <보기>의 서술자에게 할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도심의 한복판에서 매연과 소음 속에 살아가는 데 지쳤어. 지난 여름에 한 번 들렀다가 마음에 품었던 능수산이 생각 나는군. 이곳을 떠나 능수산의 울창한 숲과 강물을 보며 여유롭게 살고 싶어.

- ① 능수산이 정말 여유로운 생활을 보장해 줄까요? 그곳은 그곳대로 당신이 생각지 못했던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을 겁니다.
- ② 선불리 그곳으로 이주했다가는 나중방주영에 후회할 수 있습니다. 먼저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세요.
- ③ 누구나 삶의 과정에서 시련의 시기를 거치게 마련입니다. 몸이 머무는 곳이 바뀐다고 해서 당신의 마음까지 변화될 수 있을까요?
- ④ 현실을 벗어난다고 해서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현실 도피는 당신의 지친 삶을 치유하는 최선책이 아닙니다.
- 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살고 있는 곳보다 더 나은 곳을 지향합니다. 당신이 능수산에 가서 살게 되더라도 분명 또 다른 이상향을 꿈꿀 것입니다.

[13~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08.11

(가)

차단—한 등불이 하나 비인 하늘에 걸려 있다
내 호올로 어딜 가라는 ㉠ 슬픈 신호나

㉡ 긴— 여름 해 황망히 나래를 잡고
㉢ 늘어선 고층(高層) 창백한 묘석(墓石)같이 황혼에 젖어
찬란한 야경 무성한 잡초인 양 형클어진 채
사념(思念) 병어리 되어 입을 다물다

피부의 바깥에 스미는 어둠
㉣ 낯실은 거리의 아우성 소리
까닭도 없이 눈물겹고나

㉤ 공허한 군중의 행렬에 섞이어
내 어디서 그리 무거운 비애를 지고 왔기에
길—게 늘인 그림자 이다지 어두워

내 어디로 어떻게 가라는 슬픈 신호기
㉥ 차단—한 등불이 하나 비인 하늘에 걸리어 있다
- 김광균, 「와사등」 -

(나)

…… 활자(活字)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간간이
자유를 말하는데
나의 영(靈)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벗이어
그대의 말을 고개 숙이고 듣는 것이
그대는 마음에 들지 않겠지
마음에 들지 않아라

모두 다 마음에 들지 않아라
이 황혼도 저 돌벽 아래 잡초도
담장의 푸른 페인트 빛도
저 고요함도 이 고요함도

그대의 정의(正義)도 우리들의 섬세(纖細)도
행동이 죽음에서 나오는
이 육된 교외에서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마음에 들지 않아라

그대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간간이
자유를 말하는데
우스워라 나의 영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 김수영, 「사령(死靈)」 -

(다)

평생에 원하는 것이 다만 충효뿐이로다
이 두 일 말면 금수(禽獸)나 다를쏘냐
마음에 하고자 하여 십 년을 허둥대노라 <제1수>

계교(計較)* 이렇더니 공명이 늦었어라
부급동남(負笈東南)*해도 이루지 못할까 하는 뜻음
㉡ 세월이 물 흐르듯 하니 못 이룰까 하여라 <제2수>

비록 못 이뤄도 임천(林泉)이 좋으니라
무심어조(無心魚鳥)는 절로 한가하니
조만간 세사(世事) 잊고 너를 좇으려 하노라 <제3수>

강호에 놀자 하니 임금을 지버리겠고
임금을 섬기자 하니 즐거움에 어긋나네
혼자서 기로에 서서 갈 데 몰라 하노라 <제4수>

어찌랴 이러구러 이 몸이 어찌할꼬
행도(行道)도 어렵고 은둔처도 정하지 않았네
언제나 이 뜻 결단하여 내 즐기는 바 좇을 것인가 <제5수>
- 권호문, 「한거십팔곡(閑居十八曲)」 -

* 계교: 서로 견주어 살펴봄.

* 부급동남: 이리저리 공부하러 감.

13.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 (나)에서 화자는 자신이 처한 상황으로부터 도피하고자 한다.
- ② (가), (다)에는 미래에 대한 화자의 확신이 나타나 있다.
- ③ (나), (다)에는 부정적인 세계에 대한 화자의 대결 의지가 나타나 있다.
- ④ (가), (나), (다)에서 화자는 과거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 ⑤ (가), (나), (다)에는 삶에 대한 화자의 고뇌가 나타나 있다.

14. (가)와 (나)의 표현상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조적 어휘를 반복하여 공간의 의미를 강화하고 있다.
- ② 의인화를 통해 사물의 속성을 선명하게 부각시키고 있다.
- ③ 첫 연과 끝 연을 대응시켜 화자의 정서를 심화하고 있다.
- ④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대상과의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역설과 반어를 통해 화자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15.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와 달리 상승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다.
- ② ㉡는 ㉠와 달리 관습적 표현을 활용하고 있다.
- ③ ㉠, ㉡ 모두 화자의 정서를 환기하고 있다.
- ④ ㉠, ㉡ 모두 대상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⑤ ㉠, ㉡ 모두 시간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16. (가)의 ㉠~㉡ 중,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시어로 보기 어려운 것은?

<보 기>

서정적 자아는 세계를 내면화한다. 이런 작용으로 서정시에서 자아는 상상적으로 세계와 하나가 된다. 그렇지만 근대 이후의 문명사회에서 자아와 세계의 조화나 통일은 달성하기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근대 이후의 서정시에서는 자아와 세계 사이의 분열에 대한 자아의 반응을 함축하고 있는 시어들이 자주 나타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17.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이해하고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김수영은 1955년 6월 성북동에서 서강으로 이사하였다. 서강에서의 생활은 피폐해진 그의 몸과 마음을 점차 회복시키고, 그로 하여금 오랜만에 안정을 누리게 했다. 그가 이전과는 달리 생활에 대한 긍정을 시에 담아내었던 것도 그러한 안정과 관련이 깊다. 하지만 생활에 대한 시인의 긍정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다. 줄곧 이상과 현실을 문제 삼으면서 일상에 매달려 살아가야 하는 자의 설움과 비애를 느껴 왔던 시인은 다시 생활의 안정 속에 빠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겨 내려고 애를 썼다. 이러한 서강에서의 생활은 1959년에 발표된 「사령(死靈)」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

- ① '자유'는 시인이 추구하던 이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어.
- ② '고개 숙이고 듣는 것'은 이상을 묵묵히 실천하려는 태도를 보여 주는 것이겠어.
- ③ '고요함'은 생활의 안정 속에 빠져 있는 시인의 상황을 표현한 것이겠군.
- ④ '욕된 교외'는 서강에서의 생활에 대한 시인의 성찰이 반영되어 있는 것 같아.
- ⑤ '우스워라 나의 영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일상에 매달려 살아가야 하는 자의 설움과 비애를 함축하는 말이겠군.

18. <보기>를 바탕으로 (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연시조는 단순히 평시조 몇 작품을 병렬적으로 늘어놓은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대체로 각 작품들이 일관된 체계에 따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연시조는 질서 정연한 구성을 보이게 마련이다.

- ① 제1수는 시상 전개에 단서를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 ② 제2수의 '계교'는 제1수의 '충효'와 관련되어 있다.
- ③ 제3수의 '임천'의 좋은 점이 제2수에 드러나 있다.
- ④ 제4수는 제2수와 제3수의 내용을 아우르고 있다.
- ⑤ 제5수는 제4수의 내용을 변주하여 시상을 심화하고 있다.

[27~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08.11

유 한림은 두(杜) 부인 모자를 집으로 초청했다. 큰 잔치를 열어 전별하려는 것이었다. 두 부인은 그 자리에 사씨가 없는 것을 보고는 ㉠ 온종일 언짢은 표정을 짓고 있다가 마침내 한림에게 말했다.

“오라버니께서 세상을 떠나신 후로 조카님을 의지해 지내왔네. 이제 만 리 먼 작별을 앞두고 내가 한 마디 부탁을 하려고 하네.”

유 한림은 무릎을 꿇고 물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다른 일이 아니라 바로 사씨 문제라네. 사씨는 오라버니께서 아끼던 사람으로 성품이 본래 근실하고 신중하네. 그에게 죄과가 없으리라는 것은 백 번이라도 보장할 수 있지. 내가 떠난 후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절대 그대로 믿지 말게. 설혹 그의 잘못을 눈으로 직접 보았더라도 반드시 내게 편지를 보내 의논해 주게. ㉡ 부디 가볍게 처리하지 말게나.”

“삼가 가르침을 받들겠습니다.”

두 부인이 이어서 시비를 돌아보며 물었다.

“부인은 어디 계시냐? 내 직접 가 보아야겠다.”

시비는 두 부인을 모시고 사씨가 있는 곳으로 갔다. 사씨는 누추한 방에 거적을 깔고 있어 보기도 쳐참했다. 나무 비녀와 베치마에 다복썩처럼 헝클어진 머리를 하고 있는데, ㉢ 몸은 초췌하여 의복도 이기지 못할 듯했다.

사씨는 두 부인을 맞아 절을 올린 후 말했다.

“숙숙*께서 영귀하여 멀리 떠나시지요. 그러나 돌아보건대 저는 상복을 입은 사람이고 또한 씻을 수 없는 죄명을 지고 있어, 감히 뜰에 나가 경하 드리며 떠나시는 길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집에 오셨다는 말을 들었지만 또한 나가서 뵈올 수가 없었습니다. ㉣ 이생에서는 다시 존안을 대할 날이 없을 듯하여 무궁한 한으로 여기고 있었는데, 뜻밖에도 부인께서 이 누추한 곳까지 왕림하셨습니다.”

“오라버니께서 임종하실 때 한림을 내게 부탁하셨지. 그 말씀이 아직도 귀에 남아 있네. 내가 조카를 잘 인도하지 못한 탓에, 자네를 이 지경에 이르게 했어. 모두 내 허물일세. 그런데 ㉤ 내가 몇 해 전에 자네에게 했던 말을 혹시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가?”

사씨는 다시 절을 하고 대답했다.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어찌 잊을 날이 있겠습니까? 제가 눈을 있으나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여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 어찌 감히 하늘을 원망하고 사람을 탓할 수 있겠습니까?”

(중략)

[중략 부분의 줄거리] 두 부인이 떠난 뒤, 사씨는 또다시 교씨의 흥계에 빠진다. 교씨는 울면서 사씨를 모함한다.

마침내 한림은 화를 벌컥 냈다.

“투부*가 처음에 저주를 했을 때, 나는 부부의 정의를 생각하여 차마 적발할 수가 없었지. 그 후 신성현에서 더러운 행실을

한 단서가 이미 드러났을 때에도 죄를 묻지 않았어. 지금 또 이렇게 세상에 보기 드문 흉악한 것을 하다니……. 이 사람을 집안에 그대로 둔다면 조상께서 제사를 흠향하지 않으시고, 자손도 완전히 끊어질 거야.”

한림은 교씨를 위로하였다.

“오늘은 이미 저물었네. 날이 밝으면 일가들을 모아 사당에 고한 후에 투부를 내칠 것이네. 그리고 자네를 부인으로 삼을 것이야. 쓸데없이 슬퍼하지 말게. 꽃 같은 얼굴만 상하겠네.” 교씨는 눈물을 거두며 대답했다.

“그같이 조치하시다니……. 이제 첩의 원한이 거의 풀렸습니다. 하지만 ㉦ 부인의 자리를 첩이 어찌 감당하겠습니까?”

한림은 즉시 일가들에게 통지하여 아침에 모두 사당 아래로 모이게 했다.

아! 유 소사는 지하에서 일어날 수 없고 두 부인도 만 리나 멀리 떠났으니, 누가 한림의 뜻을 돌릴 수 있겠는가?

여러 시비들이 달려가 사씨에게 그 전말을 고하고 통곡하였다.
- 김만중, 「사씨남정기」 -

* 숙숙: 두 부인의 아들을 가리킴.

* 투부: 질투심이 많은 여자. 사씨를 가리킴.

27.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건이 사실적으로 서술되고 있다.
- ② 인물의 심리가 세밀하게 묘사되고 있다.
- ③ 대화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
- ④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
- ⑤ 서술자가 직접 개입하여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28.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사씨가 곤경에 빠져 있는 것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 ② ㉡: 사씨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반영되어 있다.
- ③ ㉢: 낡고 해진 옷을 입고 있는 사씨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 ④ ㉣: 자신의 처지를 절망적으로 바라보는 사씨의 생각이 드러나 있다.
- ⑤ ㉤: 잘못된 상황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사씨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29. 밑글로 보아 ㉠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항상 자신의 말을 스스로 지키며 매사에 신중하게 처신하도록 하게. 언행이 일치한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나.
- ② 새로 들어온 사람을 잘 대해 주게. 그 사람이 우리 가문에 처음 들어와 어떻게 처신해야 할 것인지 잘 모를 것이네.
- ③ 사람이 어떤가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네. 그러니 자네는 다른 사람 돌아보지 말고 자네의 말은 바 소임에만 충실하도록 하게.
- ④ 장부가 원한다 하더라도 만류할 줄 알아야 하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어떻게 알 수 있겠나. 사람을 잘 살펴 보아야 하네.
- ⑤ 장부의 뜻에 순종해야만 집안이 화목하고 가문이 번성할 수 있네. 사사로이 자네의 감정을 앞세워 장부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될 것이야.

30. 독자의 입장에서 ㉠을 비판하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표리부동(表裏不同) ② 경거망동(輕舉妄動)
- ③ 호가호위(狐假虎威) ④ 방약무인(傍若無人)
- ⑤ 감탄고토(甘呑苦吐)

[37~3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08.11

이때 그물을 메고 풀이 죽은 연철이 들어온다. ㉠ 네 사람, 우르르 몰려가 연철을 에워싼다.

곰치: 그래 얼마나 올랐어?

도삼: 기다리는 사람들 생각을 해 줘사 쓸 것 아니라고! 자네 기다리다가 지쳤어! (기대에 찬 얼굴로) 어서 어서 말이나 해 보게!

성삼: 석 장은 올랐게?

구포덕: 저 사람 무담씨 장난치고 싶으께는 일부터 쌍다구 딱 쟁그리고 말 않는 거 봐! 그라제? (수선스럽게 웃어댄다.)

연철: (㉡ 아무 말 없이 마루 끝에 가 앉으며 침통하게) 놀려라우? 맘이 기빠사 놀릴 맘도 생기지라우!

곰치: (영문을 몰라) 큰 소리여? (㉢ 와락 연철의 팔을 붙들고) 아니, 큰 소리여? 영?

연철: (처절하게) 다, 다 뺏겼오! 아무 것도 없이 다 뺏겼오!

일동: (비명처럼) 못이라고?

곰치: (미친 사람처럼) 뺏기다니? 뺏기다니? 못을 누구한테 뺏겼단 말이어? 영?

연철: (처절하게) 빛에 짝 찹혔지라우! 그것도 빛은 이만 원이나 남고……. (절규하듯) 큰 도리로 막는단 말ियो?

성삼: (주먹을 불끈 쥐곤) 죽일 놈!

도삼: (두 손바닥으로 얼굴을 감싸 버리며) 아아!

구포덕: (손바닥을 철썩 철썩 때려 가며) 그렇게 됐어? 뺏겼어? (신음처럼) 허어!

연철: (사립문 쪽을 가리키며) 쉬잇!

임제순 어색한 미소를 흘리며 들어온다. 그 뒤로 야릇한 표정의 범쇠 따라 들어와선 눈길을 땅에 박은 채, 뒷짐을 쥐고 마당을 서성댄다. 긴장해서 그들을 응시하고 있는 네 사람.

임제순: (능글맞게 웃음을 흘리며) 곰치! 오늘 잘 했어! 자네가 제일 많이 했어! 거 참 멋있거등!

곰치: (건성으로) 예예! 예예!

임제순: 부서 폐도 몇 십 년 만이지만 부서 크기도 처음이여! 죄다 허벅다리 같은 놈들이니……. (갑자기 불만스러운 얼굴을 해 가지곤) 그라제만 나는 손해여! 이익이 없그등! 천상 널린 돈 거둔 것뿐잉게……. 그나마도 일부분만 거뒀으니……. (속상하다는 듯이) 진장칠 놈의 것, 그 돈을 다른 사람한테 줘서 이자만 키웠어도……. 예잇! 쫓쫓!

범쇠: (여전히 마당을 서성대며) 아암!

임제순: 곰치!

곰치: (뉘 빼고 서선, 헛소리처럼) 예예! 예예!

(중략)

임제순: ……자네 섭섭할는지 모르겠네만은……. (강경하게) 남은 이만 원 청산할 때까지 내일부터 배를 묶었네! 묶었어!

곰치: (기겁할 듯 놀라) 예예? 아니 배, 배를 묶어라우?

성삼·연철·도삼: 배를 묶다니?

구포덕: (떨쩍 뛰며) 왔따! 큰 말씀이싱게라우? 아니, 해필이면 이럴 때 배를 묶으라우? 예예?

임제순: (단호하게) 나는 두말 않는 사람이여!

곰치: (애걸조로) 영감님! 배만은, 배만은…….

임제순: (손을 저으며) 더 말 말어! (㉣ 뺏 걸음 걸어 나가며) 배가 없어서 고기를 못 잡어! 배 빌려 달란 사람이 밀린단 말이어!

곰치: (따라가며) 영감님! 사나흘 안으로 빚 갚지랍녀! 요참 물만 안 놓치면 되고 말고라우! 제발 배는 풀어 주씨요! 제발!

임제순: (㉤ 곰치를 떠밀며) 안 돼! 안 된다면!

- 천승세, 「만선」 -

37.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대화를 간결하고 속도감 있게 진행시키고 있다.
- ② 현장감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투리를 사용하고 있다.
- ③ 언어유희를 통해 인물 간의 갈등을 부각시키고 있다.
- ④ 인물의 직업과 공간적 배경을 짐작하게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 ⑤ 지시문을 많이 사용하여 인물의 말과 행동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38. <보기>는 '연철'과 관련된 설명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연철은 ㉠ 무대 바깥에서 일어난 사건을 등장인물과 관객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다. ㉡ 연철의 첫 대사는 분위기를 반전시킨다. 또한 연철은 관객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역할을 한다. ㉢ 연철은 전달해야 할 내용을 부분적인 정보로 분할하여 점진적으로 제공하고 있지만, 누가 빼앗아 갔느냐는 물음에는 끝까지 명시적으로 대답하지 않는다. ㉣ 연철은 그 인물이 등장하는 시점을 무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 줌으로써, 빼앗아 간 자의 정체를 관객들에게 시각적으로 소개하는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 이후에는 방관적인 태도를 취하며 사태를 관망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39. 연출가가 <보기>와 같이 ㉠~㉥을 해석한 후 연기를 지시한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배우의 움직임은 상대와 접촉하려는 욕망이나 상대를 회피하려는 욕망을 표현합니다. 움직임은 사람의 다양한 감정, 심리, 태도 등을 드러내는데, ㉠, ㉡, ㉢, ㉣은 접촉하려는 욕망으로, ㉤은 회피하려는 욕망으로 해석해 봅시다.

- ① ㉠: 상대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드러내야 합니다.
- ② ㉡: 상대의 기대에 부응할 수 없는 착잡함을 드러내야 합니다.
- ③ ㉢: 상대를 질책하는 태도를 표현해야 합니다.
- ④ ㉣: 상대를 초조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 ⑤ ㉤: 상대에게 자신의 생각이 확고한 척해야 합니다.

[47~5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08.11

연습이 끝나고 막걸리 집으로 옮겨 갔을 때도, 아이들은 민 노인을 에워싸고 역시 성규 할아버지의 북소리는, 우리 같은 줄개들이 도저히 흉내 낼 수 없는 명인의 경지라고 추어올렸다. 그것이 입에 발린 칭찬일지라도, 민 노인으로서 듣기 싫지 않았다. 잊어버렸던 세월을 되일으켜 주는 말이기도 했다.

“애들아, 꺼져 가는 때돌이 북쟁이 어지럽다. 너무 비행기 태우지 말아라.”

민 노인의 겸사에도 아이들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아닙니다. 벌써 품이 다른걸요.”

“맞아요. ㉠우리가 칠 때는 죽어 있던 북소리가, 팽과리보다 더 크게 들리더라니까요.”

“성규, 이번에 참 욱보았다.”

난데없이 성규의 노력을 평가하는 녀석도 있었다. 민 노인은 뜻밖의 장소에서 의외의 술친구들과 어울린 자신의 마음이, 의견과는 달리 꽤 편안하다는 느낌도 곱씹었다. 옛날에는 없었던 노인과 젊은이들의 이런 식 담합이, 어디에 연유하고 있는가를 딱히 짚어 볼 수는 없었으며.

두어 번의 연습에 더 참가한 뒤, 본 공연이 열리던 날 새벽에 민 노인은 성규에게 일렀다.

“아무리 단역이라고는 해도, 아무 옷이나 걸치고는 못 나간다.

㉡모시 두루마기를 입지 않고는 북채를 잡을 수 없어.”

“물론이지요. 할아버지 옷장에서 꺼내 놓으세요. 제가 따로 가지고 갈게요.”

“두 시부터라고 했지?”

“네.”

“이따 만나자.”

일찍 점심을 먹고, 여느 날의 걸음걸이로 집을 나선 민 노인은,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설렘으로 흔들렸다. 아직은 눈치를 채지 못한 아들 내외에 대한 심리적 부담보다는, 자기가 맡은 일 때문이었다. 수십 명의 아이들이 어우러져 돌아가는 출판에 영감쟁이 하나가 낀다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어색하기도 하고, ㉢모처럼의 북 가락이 그런 모양으로밖에는 선보일 수 없다는 데 대한, 얽은 적막감도 씻어 내기 힘들었다. 그러나 젊은 훈장들이 뿔어내는 학교 마당에 서자 그런 머뭇거림은 가당찮은 것으로 치부되었다. 시간이 되어 옷을 갈아입고 아이들 속에 섞여 원진(圓陣)을 이루고 있는 구경꾼들을 대하자, 그런 생각들은 어디론지 녹아 내렸다. ㉣그 구경꾼들의 눈이 자기에게 쏠리는 것도 자신이 거쳐 온 어느 날의 한 대목으로 치면 그만이었다. 노장이 나오고 취발이가 등장하는가 하면, 목중들이 춤을 추며 걸쭉한 음담패설 등을 쏟아 놓을 때마다, 관중들은 까르르 웃었다. 민 노인의 북은 요긴한 대목에서 똥똥 울렸다. 째지는 소리를 내는 팽과리며 장구에 파묻혀 제값을 하지는 못해도, 민 노인에게는 전혀 개념할 일이 아니었다. 그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공연 전에 마신 술기운도 가세하여, 탈바가지들의 손끝과 발목에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그의 북소리는 퉁 퉁 뚫혔다. 그새 입에서는 열씨구! 소리도 적시에 흘러나왔다. 아무 생각도 없었다. ㉤가락과 소리와, 그것을 전체적으로 휩싸는 달착지근한 장단에 자신을 내맡기고만 있었다.

그날 밤, 민 노인은 근래에 흔치 않은 노곤함으로 깊은 잠을 잤다. 출판이 끝나고 아이들과 어울려 조금 과음한 까닭도 있을 것이었다. 더 많이는, 오랜만에 돌아온 자기 몫을 제대로 해냈다는 느긋함이, 꿈도 없는 잠을 거쳐 상큼한 아침을 맞고 했을 것으로 믿었는데, 그런 흐릿함은 오래 가지 않았다. 다 저녁때가 되어, 외출에서 돌아온 며느리는 집 안에 들어서자마자 성규를 찾았고, 그가 안 보이자 민 노인의 방문을 밀쳤다. “아버님, 어저께 성규 학교에 가셨어요?”

㉥예사로운 말씨와는 달리, 굳어 있는 표정 위로는 낭패의 그늘이 짙 깔려 있었다. 금방 대답을 못하고 엉거주춤한 형세로 며느리를 올려다보는 민 노인의 면전에서, 송 여사의 한숨 섞인 물음이 또 떨어졌다.

“북을 치셨다면서요.”

“그랬다. 잘못했니?”

우선은 죄인 다루듯 하는 며느리의 힐문에 부아가 꾸역꾸역 치솟고, 소문이 빠르기도 하다는 놀라움이 그 뒤에 일었다.

“아이들 노는 데 구경 가시는 것까지는 몰라도, 개들과 같이 어울려서 북 치고 장구 치는 게 나이 자신 어른이 할 일인가요?”

“하면 어때서. 성규가 지성으로 청하길래 응한 것뿐이고, 나는 원래 그런 사람 아니니. ㉦이번에도 내가 뇌들 체면 깬다.”

“아시니 다행이네요.”

송 여사는 후닥닥 문을 닫고 나갔다.

- 최일남, 「호르는 북」 -

47. 윗글의 서술상의 특징과 그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의식의 흐름 기법을 사용하여 인물의 내적 욕망을 드러내고 있다.
- ②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서술하여 그의 내면에 공감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 ③ 성격과 행위의 괴리를 보여 주어 인물이 처한 심리적 상황을 부각시키고 있다.
- ④ 서술자가 인물과 사건을 권위적으로 논평하여 주제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 ⑤ 시대적 배경을 섬세하게 묘사하여 사회 현실의 문제를 실감나게 드러내고 있다.

48. 윗글의 공간적 배경에 대한 해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막걸리 집’은 ‘민 노인’이 신세대와 만나 인간적인 소통을 하는 공간이다.
- ② ‘춤판’은 ‘아이들’이 함께 어우러져 유대감을 확인하는 공간이다.
- ③ ‘춤판’은 ‘구경꾼들’이 공연 내용에 반응하며 전통 예술을 향유하는 공간이다.
- ④ ‘춤판’은 ‘민 노인’이 신명 나게 북을 치며 자신감을 회복하는 공간이다.
- ⑤ ‘집’은 ‘머느리’가 사회적 체면을 중시하여 자신의 허영심을 억압하는 공간이다.

49.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상대방에 대한 존경과 애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② ㉡: 부담감을 떨치고 상황에 적응하고 있다.
- ③ ㉢: 상황에 몰입하여 무아지경의 상태에 있다.
- ④ ㉣: 불편한 속내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 ⑤ ㉣: 상대방의 감정을 누그러뜨리려고 애쓰고 있다.

50. ㉠과 ㉡를 바탕으로 ‘민 노인’의 예술에 대한 태도를 가장 잘 표현한 것은?

- ① 예술은 예술가의 고난과 인내를 통해서 성취되는 아름다움의 결정체이다.
- ② 예술은 대접을 받지 못하더라도 품위 있는 격식을 잃지는 말아야 한다.
- ③ 예술은 어려움에 처해 있을지라도 시대의 이상을 곳곳이 지켜야 한다.
- ④ 예술은 청중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통해서 성취되는 사회적 산물이다.
- ⑤ 예술은 평범한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바쳐지지 않으면 안 된다.

[13~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08.09

(가)

우리 집도 아니고
 일가 집도 아닌 집
 고향은 더욱 아닌 곳에서
 아버지의 침상(寢床) 없는 최후 최후의 밤은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노령(露嶺)*을 다니면서까지
 애써 자래운* 아들과 딸에게
 한 마디 남겨 두는 말도 없었고
 아무물 만(灣)*의 파선도
 설롱한* 니코리스크*의 밤도 완전히 잊으셨다
 목침을 반듯이 벤 채
 다시 뜨시잖는 두 눈에
 피지 못한 꿈의 꽃봉오리가 갈았고
 얼음장에 누우신 듯 손발은 식어 갈 뿐
 입술은 심장의 영원한 정지를 가리켰다
 때 늦은 의원이 아모 말없이 돌아간 뒤
 이웃 늙은이 손으로
 눈빛 미명은 고요히
 낮을 덮었다

우리는 머리맡에 었디어
 있는 대로의 울음을 다아 울었고
 아버지의 침상 없는 최후 최후의 밤은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A]

- 이용악,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

- * 노령 : 러시아의 영토.
- * 자래운 : 키운.
- * 아무물 만, 니코리스크 : 오호츠크 해 근처의 러시아 지명.
- * 설롱한 : 춥고 차가운.

(나)

첩첩산중에도 없는 마을이 여긴 있습니다. 일 진 사잇길 저 모랫둑, 그 너머 강기슭에서도 보이진 않습니다. 허방다리 들어 내면 보이는 마을.

갱(坑) 속 같은 마을. 풀깎, 해가, 노루꼬리 해가 지면 집집마다 봉당에 불을 켜지요. 콩깍지, 콩깍지처럼 후미진 외딴집, 외딴집에도 불빛은 앓아 이숙토록 창문은 모과 빛입니다.

기인 밤입니다. 외딴집 노인은 홀로 잠이 깨어 출출한 나머지 무를 깎기도 하고 고구마를 깎다, 문득 바람도 없는데 시나브로 풀러 풀러 내리는 짙단, 짙오라기의 설레임을 듣습니다. 귀를 모으고 듣지요. 후루룩 후루룩 처마깃에 나래 문는 이름 모를 새, 새들의 온기를 생각합니다. 숨을 죽이고 생각하지요.

참 오래오래, 노인의 자리맡에 맡은기침 소리도 없을 양이면 벽 속에서 겨울 귀뚜라미는 울지요. 때를 지어 읍니다, 벽이 무너지라고 읍니다.

[B]

어느덧 밖에는 눈발이라도 치는지, 펄펄 함박눈이라도 훑날 리는지, 창호지 문살에 돋는 월훈(月暈)*.

- 박용래, 「월훈(月暈)」 -

* 월훈 : 달무리.

13.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화자의 체험을 우의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 ② 장면을 초점화하여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③ 담담한 어조로 대상과의 합일을 지향하고 있다.
- ④ 자신을 대상화하여 현실의 삶을 성찰하고 있다.
- ⑤ 회상하는 방식으로 삶의 애환을 그려 내고 있다.

14. (가)와 <보기> 작품들의 화자가 동일하다고 할 때, (가)를 <보기>와 관련지어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 양털 모자 눌러쓰고 돌아오신 게 마지막 길/검은 기선은 다시 실어 주지 않았다/외할머니 큰아버지랑 계신 아라사*를 못 잊어/술을 기울이면 노 외로운 아버지였다

- 이용악, 「푸른 한 나절」 -

* 아라사 : 러시아.

○ 아버지도 어머니도/젊어서 한창 땀/우라지오*로 다니는 밀수꾼//눈보라에 숨어 국경을 넘나들 때/어머니의 등골에 파묻힌 나는/모든 가난한 사람들의 젖먹이와 다름없이/얼마나 성가스런 짐짝이었을까

- 이용악, 「우리의 거리」 -

* 우라지오 : 연해주 근처의 러시아 지명.

- ① ‘침상 없는 최후 최후의 밤’은 고생한 보람도 없이 빈한한 상태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것을 뜻할 수 있겠군.
- ② ‘애써 자래운 아들과 딸’은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나들며 밀수를 했던 이유가 될 수 있겠군.
- ③ ‘아무물 만의 파선’과 ‘니코리스크의 밤’은 ‘아버지’의 고달픈 삶을 함축하는 말이겠군.
- ④ ‘피지 못한 꿈’은 외로운 삶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던 ‘아버지’의 소망이 끝내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뜻할 수 있겠군.
- ⑤ ‘있는 대로의 울음’은 ‘아버지’의 생명을 위태롭게 했던 것에 대한 ‘우리’의 회한과 반성일 수 있겠군.

15. (나)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노인의 삶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이 느껴져.
- ② 외딴집의 정경을 통해 노인의 고독을 드러내고 있어.
- ③ 목가적 분위기를 대화적 구성을 통해 보여 주고 있어.
- ④ 시상이 집약된 시어로 끝맺으면서 여운을 남기고 있어.
- ⑤ 시어의 반복과 연쇄로 산문적 진술에 리듬감을 주고 있어.

16. [A],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 [B]는 모두 자연물을 통해 정서를 환기한다.
- ② [A], [B]는 모두 화자가 처한 무력한 현실을 상징한다.
- ③ [A], [B]에서는 모두 관조적 태도가 나타난다.
- ④ [A]는 [B]에 비해 공간의 대비가 두드러진다.
- ⑤ [B]는 [A]에 비해 시적 상황을 압축적으로 표현한다.

[20~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08.09

(가)

송간(松間) 세로(細路)에 ㉠ 두견화(杜鵑花)를 부치들고,
 봉두(峯頭)에 급히 올라 구름 속에 앉아 보니,
 천촌만락(千村萬落)이 곳곳에 펼쳐져 있네.
 연하일휘(煙霞日輝)는 금수(錦繡)를 퍼 놓은 듯,
 엇그제 검은 들이 봄빛도 유여(有餘)할사.
 功名(功名)도 날 꺼리고 부귀(富貴)도 날 꺼리니,
 청풍명월(淸風明月) 외에 어떤 벗이 있사올꼬.
 단표누향(簾瓢陋巷)에 헛된 생각 아니 하네.
 아모타 백년행락(百年行樂)이 이만한들 어찌하리.

- 정극인, 「상춘곡(賞春曲)」 -

(나)

헛된 이름 따라 허덕허덕 바빠 다니지 않고,
 평생 물과 구름 가득한 마을을 찾아다녔네.
 따스한 봄 잔잔한 호수엔 안개가 천 리에 끼었고,
 맑은 가을날 옛 기슭엔 달이 배 한 척 비추네.
 서울 길의 붉은 먼지 꿈에서도 바라지 않고,
 초록 도롱이 푸른 샷갓과 함께 살아간다네.
 어기여차 노랫소리는 뱃사람의 흥취이니,
 세상에 옥당(玉堂)* 있다고 어찌 부러워하리오.

不爲浮名役役忙	生涯追逐水雲鄉
平湖春暖烟千里	古岸秋高月一航
紫陌紅塵無夢寐	綠簾青笠共行藏
一聲欸乃舟中趣	那羨人間有玉堂

- 설장수, 「어옹(漁翁)」 -

* 옥당: 문장 관련 업무를 담당한 관청의 별칭.

(다)

나는 성품이 또한 게을러 일찍이 동산을 가꾸지 않았고, 화훼(花卉)에 관심이 없었다. 동쪽 정원에 단지 복숭아나무 한 그루와 잡목 한 그루가 있을 뿐이다. 모두 심지 않았는데도 싹이 트고, 물을 주지 않았는데도 자랐으며, 호미질하지 않았는데도 무성하게 된 것들이다. 바야흐로 춘삼월에 복숭아꽃이 막 피어났는데, 꽃잎이 곱고 꽃부리가 연약하며 꽃술이 향기로웠다. 금으로 동글리고 옥으로 깎은 듯, 분칠을 열게 하고 연지를 질게 찍은 듯하였다. 잡목은 그 곁에 서 있는데, 지나고 있도 볼 만한 것이 없고 꽃도 피지 않았다. 그저 이름도 모르는 나무일 뿐이기에 잡목이라고 불렀다.

하루는 중 녀석이 화원에 가서 한참 바라보더니 복숭아나무로 다가가 어루만지면서 주위를 서성였다. 다시 물을 주고 흙을 북돋아 주고서 떠났는데, 잡목은 거들떠보지 않았다.

내가 그 이유를 물으니 대답했다.

“지금 복숭아나무가 잎이 막 싹을 틔우고 꽃이 또 봉오리를 맺으니, 그 열매가 익기를 기다리면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나무는 사람에게 정말 사랑스러운 데다가 장차 이익까지

주게 됩니다. 저 잡목은 꽃도 잎도 볼 것이 없고, 과실도 먹을 것이 없는 데다가, 그 뿌리가 굳세고 가지가 굵습니다. 뿌리가 길게 뻗으면 지맥을 막아 복숭아나무가 번식할 수 없습니다. 가지가 크면 햇볕을 가로막고 방해하여 양기(陽氣)를 소모하게 되니 복숭아나무가 번창하여 무성할 수가 없습니다. 배임을 당하지 않는 것도 다행인데, 우리가 지켜 줄 필요가 있겠습니까?” 내가 말했다.

“그대, 그렇군. 하지만 아니야, 아니야. 너는 큰 도리를 듣지 못했느냐? 하늘의 도(道)는 만물에 두루 은혜를 베풀어서 비와 이슬이 상대를 가리지 않고 내리고, 군자는 남을 두루 사랑하여 다른 사람과 함께 인(仁)의 경지를 이룬다. 그러므로 태산의 언덕에 ㉡ 소나무, 계수나무가 가죽나무, 상수리나무와 함께 자라고, 달인(達人)의 문하에 어진 이와 어질지 못한 이가 같이 있게 되지. 복숭아나무와 잡목은 예쁘다는 점과 못생겼다는 점, 특이하다는 점과 평범하다는 점에서 정말로 차이가 있지. 하지만 똑같이 천지의 기를 받아 태어났고, 태어나서 또 마침 나의 동산에 심어져 있구나. 사람이 하나는 보호하고 하나는 버린다면, 잡목으로 태어난 존재가 더 무엇을 바랄 수 있겠느냐? 나는 내 화원에 있는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라도 모두 그 사이에 행(幸)과 불행(不幸)이 있게 하고 싶지 않다. 너는 얼른 가서 가꾸어라.”

- 남공철, 「동원화수기(東園花樹記)」 -

20.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상에 대한 그리움이 창작의 동기가 되고 있다.
- ② 세속적 이익을 좇지 않는 삶의 자세가 나타나 있다.
- ③ 인간과 자연의 대비를 통해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 ④ 견디기 힘든 현실의 고통을 자연에 의지해 잊고자 한다.
- ⑤ 현재보다 나은 삶을 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드러나 있다.

21.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주체와 객체가 전도된 표현을 통해 화자의 인생관을 분명히 하고 있다.
- ② (나)는 색채의 선명한 대조를 통해 표현 효과를 높이고 있다.
- ③ (가), (나)는 모두 설의적 표현으로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 ④ (가), (나)는 모두 정경 묘사와 정서의 표출이 어우러져 있다.
- ⑤ (가)는 (나)에 비해 청각적 심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다.

22. (나)의 화자가 <보기>의 ㉠이라고 할 때, (나)에 대한 감상
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강호(江湖)에서 살아가는 어부를 소재로 한 작품에서 ‘어부’는 고기잡이를 직업으로 하는 실제 어부, ㉠ 이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은자(隱者)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 ① 화자는 자연을 교감과 소통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달’에 인격을 부여하여 자연과의 합일을 추구하는군.
- ② 화자는 고기잡이로 생계를 유지하는 어부가 아니기에 ‘배한 척’은 한가롭고 평화로운 생활을 나타내는 소재라고 볼 수 있겠지.
- ③ 화자는 자신이 긍정하는 삶을 ‘도롱이’ 입고 ‘삿갓’ 쓴 어부로 표상하고 있군.
- ④ 화자는 자신이 원하는 공간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백사람의 흥취’를 느낄 수 있는 것이겠지.
- ⑤ 화자는 ‘옥당’이라는 공간과 거리를 둬으로써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가치를 역설하고 있군.

23. (다)를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나’는 잡목의 심미적 가치는 인정하지 않되, 존재 가치는 인정하고 있군.
- ② ‘나’는 복숭아나무의 실용적 가치는 인정하되, 심미적 가치는 인정하지 않고 있군.
- ③ ‘중’은 잡목의 실용적 가치는 인정하지 않되, 존재 가치는 인정하고 있군.
- ④ ‘중’은 복숭아나무의 심미적 가치는 인정하되, 실용적 가치는 인정하지 않고 있군.
- ⑤ ‘나’와 ‘중’은 모두 잡목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고 있군.

24. ㉠와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 ㉡는 모두 글쓴이의 감정이 이입된 대상이다.
- ② ㉠, ㉡는 모두 계절적 배경을 알게 해 주는 소재이다.
- ③ ㉠는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사물이고, ㉡는 고독을 느끼게 하는 사물이다.
- ④ ㉠는 감흥을 자아내는 자연물을, ㉡는 어진 성품을 가진 사람을 의미한다.
- ⑤ ㉠는 향토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자연물을, ㉡는 강한 생명력을 가진 존재를 의미한다.

[29~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08.09

[A] 조선 초에 송경 송인문 안에 한 선비 있으니, 성은 전이요 이름은 우치라. 일찍 높은 스승에게서 신선의 도를 배우되, 본래 재질이 뛰어나고 정성이 지극하여 마침내 오묘한 이치를 통하고 신기한 재주를 얻었으나 소리를 숨기고 자취를 감추어 지내므로 비록 가까이 지내는 이도 알 리 없더라.

이때 남방 해변 여러 고을이 여러 해 바다 도적의 노략을 당하고 었친 데 덮쳐 무서운 흉년까지 만나니, 그곳 백성의 참혹한 형상은 이루 붓으로 그리지 못할지라. 그러나 조정에 벼슬하는 이들은 권세 다투기에만 눈이 붉고 가슴이 탈 뿐이요 백성의 고통은 모르는 듯 버려두니, 뜻있는 이가 통분함이 이를 길 없더니 우치 또한 참다못하여 뜻을 결단하고 집을 버리며 세간을 헤치고, 천하로써 집을 삼고 백성으로써 몸을 삼으려 하더라.

(중략)

이때 간의태위 상소하여 왈,
“호서 땅에 사오십 명이 모여 반역을 모의하여 조만간 기병(起兵)한다는 문서를 사자가 신에게 가져왔사오니, 그를 가두어 두고 사연을 아뢰나이다.”

상이 탄식하며 말하기를,
“과인이 박덕(薄德)하여 ㉠ 곳곳에 도적이 일어나니 어찌 한심치 아니하리오.”

하고 금부와 포청으로 잡으라 하시니, 오래지 않아 적당을 잡았거늘, 상이 친히 신문하는데 그중에 한 놈이,

“선전관 전우치 재주 과인(過人)하기로 신 등이 우치로 임금을 삼아 만민을 평안케 하려 하더니, 하늘이 돕지 않아 발각 되었으니 죄사무석(罪死無惜)*이로소이다.”

하더라. 이때 우치 문사낭청(問事郎廳)*으로 있더니, 뜻밖에 이름이 역도(逆徒)의 진술에 나오는지라. 상이 대로하사,

“우치 역모함을 짐작하되 나중을 보려 하였더니, 이제 발각 되었으니 빨리 잡아오라.”

하시니, 나졸이 명을 받들어 일시에 달려들어 관대를 벗기고 옥계 하에 꿰리니, 상이 진노하사 형틀에 올려 매고 죄를 추궁 하여 왈,

“네 전일 나라를 속이고 도처마다 장난함도 용서치 못할 일 이거늘, 이제 또 역적죄에 들었으니 ㉡ 변명할들 어찌 면하리오.”

하시고, 나졸을 호령하사 한 매에 죽이라 하시니, 짐장과 나졸이 힘껏 치나 능히 또 매를 들지 못하고 ㉢ 팔이 아파 치지 못하 거늘, 우치 아뢰되,

“신의 전일 죄상은 죽어 마땅하오나, 금일 이 일은 만만 애매 하오니 용서하옵소서.”

하고, 심중에 생각하되, ‘주상이 필경 용서치 아니시리라.’ 하고 다시 아뢰기를,

“신이 이제 죽사울진대, 평생에 배운 재주를 세상에 전하지 못할지라. 지하에 돌아가오나 원혼이 되리니, 엇드려 바라건대 성상은 원을 풀게 하옵소서.”

상이 헤아리시되, ‘이놈이 재주 능하다 하니 시험하여 보리라.’ 하시고 가라사대,

“네 무슨 능함이 있어 이리 보체뇨?”

우치 아뢰기를,

“신이 본대 그림 그리기를 잘하니 나무를 그리면 나무가 점점 자라고 짐승을 그리면 짐승이 걸어가고 산을 그리면 초목이 나서 자라니 이러므로 명화라 하오니, 이런 그림을 전하지 못하고 죽사오면 ㉣ 어찌 원통치 아니리오.”

상이 가만히 생각하되, ‘이놈을 죽이면 원혼이 되어 괴로움이 있을까’ 하여 즉시 맨 것을 끌려 주시고 지필(紙筆)을 내리사 원을 풀라 하시니, ㉤ 우치 지필을 받자와 산수를 그리니 천봉 만학과 만장폭포가 산 위로부터 산 밖으로 흐르게 그리고 시냇가에 버들을 그려 가지가지 늘어지게 그리고 그 밑에 안장 지은 나귀를 그리고, 붓을 던진 후 사은(謝恩)하매, 상이 묻기를,

“너는 ㉥ 방금 죽을 놈이라, 이제 사은함은 무슨 뜻이뇨?”

우치 아뢰기를,

“신이 이제 폐하를 하직하옵고 산림에 들어 여년을 마치고자 하와 아뢰나이다.”

하고, 나귀 등에 올라 산 동구에 들어가더니 이윽고 간 데 없거늘, 상이 대경하사 왈,

“내 이놈의 꾀에 또 속았으니, 이를 어찌하리오.”

- 「전우치전」 -

* 죄사무석: 죽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죄가 큼.

* 문사낭청: 죄인을 신문할 때 기록과 낭독을 맡은 임시 벼슬.

29. 윗글을 통해 ‘전우치’에 대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기지로 어려운 국면을 타개하였다.
- ② 조정에서 내린 벼슬을 받지 않았다.
- ③ 임금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 ④ 사사로운 이익보다 대의를 중시하였다.
- ⑤ 예전에도 나라를 곤란하게 한 적이 있다.

30. [A]와 비교하여 <보기>의 특징을 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인조 대왕 시절에 강원도 원주에 사는 한 사람이 있으며, 성은 전이요 명은 중보였다. 근본이 관노였지만 부자였고 늦도록 아들이 없어 걱정이었다. 어느 해 흉년이 들었을 때, 중보는 재산을 풀어 백성을 구제한 공으로 벼슬을 얻었다. 인조 10년에 전중보는 신선의 제자가 자신의 덕성을 칭찬하는 꿈을 꾸 후 아들을 얻어서 이름을 우치라 하였다. 우치는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걷고, 오십 일 만에는 언어를 통달 하였다. 전중보는 불도를 가르칠 생각으로 우치를 절에 보냈다.

- ① 전우치의 태몽을 제시하여 인물의 신이성을 강화했군.
- ② 전우치의 출생을 전우치 아버지의 행적과 관련지었군.
- ③ 전우치의 득도 과정을 보여 주어 초월적 인물임을 강조했군.
- ④ 전우치의 출생 시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인물의 역사적 실재성을 부각했군.
- ⑤ 전우치 아버지의 원래 신분을 밝혀 전우치가 하층 출신 영웅임을 암시했군.

31. ㉠의 그림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 기>

㉠. 다른 공간으로 이어지는 통로이다.
 ㉡. 의롭지 못한 자를 단죄하는 방법이다.
 ㉢. 주인공의 능력을 보여 주는 수단이다.
 ㉣. 사건을 요약적으로 제시하는 방편이다.

- ① ㉠ ② ㉠, ㉢ ③ ㉡, ㉢
- ④ ㉡, ㉣ ⑤ ㉠, ㉡, ㉣

32. ㉠~㉣를 바꾸어 쓴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침소봉대(針小棒大)하니
- ② ㉡: 목불인견(目不忍見)이리라
- ③ ㉢: 수수방관(袖手傍觀)하거늘
- ④ ㉣: 각골통환(刻骨痛恨)하리이다
- ⑤ ㉣: 기사회생(起死回生)하리니

[40~4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08.09

아내는 너 밤새워 가면서 도착질하러 다니느냐, 계집질하러 다니느냐고 발악이다. 이것은 참 너무 억울하다. 나는 어안이 병병하여 도무지 입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너는 그야말로 나를 살해하려던 것이 아니냐고 소리를 한번 썩 질러 보고도 싶었으나 그런 긴가민가한 소리를 선볼리 입 밖에 내었다가는 무슨 화를 볼는지 알 수 있다. 차라리 억울하지만 잠자코 있는 것이 우선 상책인 듯싶이 생각이 들길래 나는 이것은 또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모르지만 툭툭 털고 일어나서 내 바지 포켓 속에 남은 돈 몇 원 몇 십전을 가만히 꺼내서는 몰래 미닫이를 열고 살며시 문지방 밑에다 놓고 나서는 그냥 줄달음박질을 쳐서 나와 버렸다.

여러 번 자동차에 치일 뻔하면서 나는 그래도 경성역을 찾았다. 빈자리와 마주 앉아서 이 쓰디쓴 입맛을 거두기 위하여 무엇으로나 입가심을 하고 싶었다.

커피. 좋다. 그러나 경성역 홀에 한 걸음을 들여놓았을 때 나는 내 주머니에는 돈이 한 푼도 없는 것을, 그것을 깜빡 잊었던 것을 깨달았다. 또 아팠다. 나는 어디선가 그저 맥없이 머뭇머뭇하면서 어쩔 줄을 모를 뿐이었다. 얼빠진 사람처럼 그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나는 어디로 어디로 들입다 쏘다녔는지 하나도 모른다. 다만 몇 시간 후에 내가 **미쓰꼬시*** 옥상에 있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거의 대낮이었다.

나는 거기 아무 데나 주저앉아서 내 자라 온 스물여섯 해를 회고하여 보았다. 몽롱한 기억 속에서는 이렇다는 아무 제목도 불그러져 나오지 않았다.

나는 또 나 자신에게 물어보았다. 너는 인생에 무슨 욕심이 있느냐고. 그러나 있다고도 없다고도, 그런 대답은 하기가 싫었다. 나는 거의 나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기조차도 어려웠다.

허리를 굽혀서 나는 그저 금붕어나 들여다보고 있었다.

[A] 금붕어는 참 잘들도 생겼다. 작은 놈은 작은 놈대로 큰 놈은 큰 놈대로 다 싱싱하니 보기 좋았다. 내리비치는 오일 햇살에 금붕어들은 그릇 바탕에 그림자를 내려뜨렸다. 지느러미는 하늘하늘 손수건을 흔드는 흉내를 낸다. 나는 이 지느러미 수효를 헤어 보기도 하면서 굽힌 허리를 쯤처럼 펴지 않았다. 등허리가 따뜻하다.

나는 또 회탁의* 거리를 내려다보았다. 거기서는 피곤한 생활이 푹 금붕어 지느러미처럼 호늑호늑 허비적거렸다. 눈에 보이지 않는 끈적끈적한 줄에 영켜서 헤어나지들을 못한다. 나는 피로와 공부 때문에 무너져 들어가는 몸뚱이를 끌고 그 회탁의 거리 속으로 섞여 들어가지 않는 수도 없다 생각하였다.

나서서 나는 또 문득 생각하여 보았다. 이 발길이 지금 어디로 향하여 가는 것인가를…….

그때 내 눈앞에는 아내의 모가지가 벼락처럼 내려 떨어졌다. 아스피린과 아달린*.

우리들은 서로 오해하고 있느니라. 설마 아내가 아스피린 대신에 아달린의 정량을 나에게 먹여 왔을까? 나는 그것을 믿을 수는 없다. 아내가 대체 그럴 까닭이 없을 것이니.

그러면 나는 낱밤을 새면서 도착질을, 계집질을 하였나? 정말이지 아니다.

우리 부부는 숙명적으로 발이 맞지 않는 절름발이인 것이다. 나나 아내나 제 거동에 로직을 붙일 필요는 없다. 변해할 필요도 없다. 사실은 사실대로 오해는 오해대로 그저 끝없이 발을 절뚝거리면서 세상을 걸어가면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까?

그러나 나는 이 발길이 아내에게로 돌아가야 옳은가. 이것만은 분간하기가 좀 어려웠다. 가야 하나? 그럼 어디로 가나?

① 이때 뚜— 하고 정오 사이렌이 울었다. 사람들은 모두 네 활개를 펴고 닭처럼 푸드덕거리는 것 같고 온갖 유리와 강철과 대리석과 지폐와 잉크가 부글부글 끓고 수선을 떨고 하는 것 같은 찰나, 그야말로 현란을 극한 정오다.

나는 불현듯이 겨드랑이가 가렵다. 아하 그것은 내 인공의 날개가 돋았던 자국이다. 오늘은 없는 이 날개, 머릿속에서는 희망과 야심의 말소된 페이지가 덕셔너리 넘어가듯 번뜩였다.

나는 건넌 걸음을 멈추고 그리고 어디 한번 이렇게 외쳐 보고 싶었다.

날개야 다시 돌아라.

날자. 날자. 날자. 한 번만 더 날자꾸나.

한 번만 더 날아 보자꾸나.

- 이상, 「날개」 -

* 미쓰꼬시: 일제 강점기에 서울에 있었던 백화점 이름.

* 회탁의: 회색의 탁한.

* 아달린: 수면제의 일종.

40. 윗글의 서술적 특징과 효과를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 기>

- ㄱ. 독백적인 어조로 현실과 단절된 의식 상태를 표현하고 있다.
- ㄴ. 단정적이고 객관적인 진술로 사건에 사실성을 부여하고 있다.
- ㄷ. 회상의 기법을 사용하여 현재와 과거의 화해를 지향하고 있다.
- ㄹ. 비유적 표현으로 인물의 생각과 인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41. 일제 강점기에 미쓰꼬시 백화점은 서울에서 매우 높은 건물이었다. 이 사실에 비추어 볼 때, [A]에서 **미쓰꼬시 옥상**이 가지는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로 하여금 내면적 성찰을 시도하게 한다.
- ② '나'에게 이전과는 다른 삶의 태도를 갖게 한다.
- ③ '회택의 거리'를 압축적으로 조감할 수 있게 한다.
- ④ '나'와 '회택의 거리' 사이의 괴리감을 드러내 준다.
- ⑤ '회택의 거리'를 부자유와 체념의 공간으로 인식하게 한다.

42. ㉠에 관한 설명의 일부인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철학과 문학에서는 전통적으로 시간을 가리키는 말에 함축적인 의미를 부여해 왔다. 특히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정오'를 각성과 재생의 시간으로 간주했다. '정오'는 인식의 태양이 가장 높이 솟아오른 때라는 것이다.

- ① '나'의 의식 상태는 ㉠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볼 수 있겠군.
- ② '정오'의 사이렌 소리가 '나'의 생명력을 일깨운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③ '정오'의 함축적 의미 때문에 ㉠을 경계로 어조와 분위기가 바뀐 것이겠군.
- ④ '나'는 '정오'가 되면서 자아의 문제에서 사회의 문제로 시선을 전환하게 되는군.
- ⑤ 이 작품은 시간의 물리적인 의미보다 심리적인 의미에 중점을 두고 읽어야겠군.

43. <보기>의 설명을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날개」는 현대 문명과 불화를 겪고 있는 지식인의 내면 세계를 '아내'와 '나'의 부조리한 관계에 빗대어 표현한 작품이다. 여기서 '아내'는 현대 문명을, '나'는 지식인의 내면세계를 상징한다. 같은 맥락에서 이 소설에 나타나는 사물들과 사건들 또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 ① 도적질하거나 계집질한다고 '아내'가 '나'를 의심하면서 따지는 것은 지식인의 내면세계에 대한 현대 문명의 위협적인 힘을 의미한다.
- ② '나'가 아내 몰래 집에서 나온 것은 현대 문명의 구속에 맞서 고자 하는 지식인의 적극적인 대결 의지를 의미한다.
- ③ '나'가 '아내'에게서 완전히 떠나겠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은 현대 문명과 결별하기 어려운 지식인의 의식 상태를 의미한다.
- ④ 자신도 모르게 아달린을 먹어 왔는지도 모른다는 '나'의 의구심은 자기의 이성이 자신도 모르게 현대 문명에 길들여져 가는 데 대한 지식인의 두려움을 의미한다.
- ⑤ '나'의 머릿속에서 희망과 야심의 말소된 페이지가 번뜩인다고 한 것은 현대 문명에 대한 비판 의식을 회복하고 싶어 하는 지식인의 소망을 의미한다.

[13~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08.06

(가)

들가에 떨어져 나가 앓은 메기습의
 넓은 바다의 물가 뒤에,
 ㉠ 나는 지오리, 나의 집을,
 다시금 큰길을 앞에만 두고.
 길로 지나가는 그 사람들은
 제가꿈 떨어져서 혼자 가는 길.
 하이얀 여울턱에 날은 저물 때.
 나는 문(門)간에 서서 기다리리
 새벽 새가 울며 지새는 그들로
 세상은 희게, 또는 고요하게,
 번쩍이며 오는 아침부터,
 지나가는 길손을 눈여겨보며,
 그대인가고, 그대인가고.

[A]

- 김소월, 「나의 집」 -

(나)

잃어 버렸습니다.
 무얼 어디다 잃었는지 몰라
 ㉡ 두 손이 주머니를 더듬어
 길에 나아갑니다.

㉢ 돌과 돌과 돌이 끝없이 연달아
 길은 돌담을 끼고 갑니다.
 담은 쇠문을 굳게 닫아
 길 위에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길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통했습니다.

돌담을 더듬어 눈물 짓다
 쳐다보면 하늘은 부끄럽게 푸릅니다.

㉣ 풀 한 포기 없는 이 길을 걷는 것은
 담 저쪽에 내가 남아 있는 까닭이고,

[B]

내가 사는 것은, 다만,
 잃은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

- 윤동주, 「길」 -

(다)

㉤ 생사(生死) 길은
 예 있으면 머뭇거리고,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르고 어찌 갑니까.
 어느 가을 이른 ㉥ 바람에
 이에 저에 떨어질 ㉦ 일처럼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곳 모르온저.

아아, 미타찰(彌陀刹)에서 만날 나
 도(道) 닦아 기다리겠노라.

- 월명사, 「제망매가(祭亡妹歌)」 -

13.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간과 자연의 대비를 통해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 ② 화자가 처한 상황에 대한 대응 방식이 드러나 있다.
- ③ 미래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제시되어 있다.
- ④ 바람직한 세계에 대한 확신을 그리고 있다.
- ⑤ 상황에 대한 우회적 비판이 나타나 있다.

14. [A]와 [B]에 나타나 있는 시간성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서는 시간이 감각적인 이미지로 표현되어 있다.
- ② [B]에서는 시간이 지속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 ③ [B]에서는 시간이 공간과 결합되어 형상화되어 있다.
- ④ [A]에서는 [B]와는 달리 시간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⑤ [A]에서는 시간이 화자의 기다림과, [B]에서는 시간이 화자의 고뇌와 연관되어 있다.

15. (나)의 ‘하늘’과 (다)의 ‘미타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하늘’과 ‘미타찰’은 화자가 몸을 담고 있는 공간이다.
- ② ‘하늘’은 숭고함을, ‘미타찰’은 비장함을 자아내는 공간이다.
- ③ ‘하늘’과 ‘미타찰’은 화자에게 환상을 불러일으키는 공간이다.
- ④ ‘하늘’은 화자의 반성을, ‘미타찰’은 화자의 지향을 함축하는 공간이다.
- ⑤ ‘하늘’은 자연의 영원성을, ‘미타찰’은 인간의 유한성을 상징하는 공간이다.

16.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의 ‘집’은 탈속한 삶에 대한 화자의 소망을 상징하고 있다.
- ② ㉡의 ‘더듬어’는 화자의 내면적인 방향을 함축하고 있다.
- ③ ㉢에서는 ‘돌’을 반복함으로써 화자의 무거운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 ④ ㉣의 ‘풀 한 포기 없는’은 화자가 처한 상황이 황량함을 표현하고 있다.
- ⑤ ㉤의 ‘머뭇거리고’는 생사의 문제에 대한 인간적 고뇌를 담고 있다.

17.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문장을 도치시켜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② 음절의 수를 조절하여 리듬감을 살리고 있다.
 - ③ 동일한 시어를 반복하여 정서를 심화하고 있다.
 - ④ 색채어를 통해 작품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⑤ 토속적인 방언을 사용하여 향토적 정감을 환기하고 있다.

18. (다)의 ㉠, ㉡와 <보기>의 밑줄 친 시어들을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간밤에 부던 <u>바람</u> 만정 <u>도화(桃花)</u> 다 지겠다	┌ A └
아이는 비를 들어 쓸려고 하는구나 낙화인들 꽃이 아니라 쓸어 무엇 하리오	
<u>바람</u> 불어 쓰러진 <u>나무</u> 비 온다 싹이 나며	┌ B └
입 그려 든 병이 약 먹다 나올쏘나 저 입아 널로 든 병이니 네 고칠까 하노라	

- ① ㉠와는 달리 A의 '바람'은 화자의 시련을 상징하고 있다.
- ② ㉠와 B의 '바람'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③ ㉡와는 달리 A의 '도화'는 화자의 감회와 흥취를 부각하고 있다.
- ④ ㉡와는 달리 B의 '나무'는 화자 자신을 비유하고 있다.
- ⑤ ㉡, A의 '도화', B의 '나무'는 수동성을 함축하고 있다.

[23~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08.06

다방을

찾는 사람들은, 어인 까닭인지 모두들 구석진 좌석을 좋아하였다. 구보는 하나 남아 있는 가운데 탁자에 앉은 수밖에 없었다. 그래도, 그는 그곳에서 엘만의 「발스 센터멘털」을 가장 마음 고요히 들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선율이 채 끝나기 전에, 방약무인(傍若無人)한 소리가, 구포 씨 아니오—— 구보는 다방안의 모든 사람들의 ㉠ 시선을 온몸에 느끼며, 소리 나는 쪽을 돌아보았다. 중학을 이삼 년 일찍 마친 사내, 어느 생명 보험 회사의 외교원이라는 말을 들었다. 평소애 결코 왕래가 없으면 서도 이제 이렇게 알은체를 하려는 것은 오직 얼굴이 새빨개 지도록 먹은 술 탓인지도 몰랐다. 구보는 무표정한 얼굴로 약간 끄떡하여 보이고 ㉡ 즉시 고개를 돌렸다. 그러나 그 사내가 또 한 번, 역시 큰 소리로, 이리 좀 안 오시오, 하고 말하였을 때 구보는 ㉢ 게으르게나마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탁자로 가는 수밖에 없었다. 이리 좀 앉으시오, 참, 최 군, 인사하지. 소설가, 구포 씨.

이 사내는, 어인 까닭인지 구보를 반드시 ‘구포’라고 발음하였다. 그는 맥주병을 들어 보고, 아이 쪽을 향하여 더 가져오라고 소리치고, 다시 구보를 보고, 그래 요새두 많이 쓰시우. 무어 별로 쓰는 것 ‘없습니다.’ 구보는 자기가 이러한 사내와 접촉을 가지게 된 것에 지극한 불쾌를 느끼며, 경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그와 사이에 간격을 두기로 하였다. 그러나 ㉣ 이 딱한 사내는 도리어 그것에서 일종 득의감을 맛볼 수 있었는데도 모른다. 그뿐 아니라, 그는 한 잔 십 전짜리 차들을 마시고 있는 사람들 틈에서 그렇게 몇 병씩 맥주를 먹을 수 있는 것에 우월감을 갖고, 그리고 지금 행복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는 구보에게 술을 따라 권하고, 내 참 구포 씨 작품을 애독하지. 그리고 그러한 말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보가 아무런 감동도 갖지 않는 듯싶은 것을 눈치 채자, 사실, 내 또 만나는 사람마다 보고, “구포 씨를 선전하지요.”

그러한 말을 하고는 혼자 히히 웃었다. 구보는 의미모퉁한 웃음을 웃으며, 문득, 이 용감하고 또 무지한 사내를 고급(高給)으로 채용하여 구보 독자 권유원을 시키면, 자기도 응당 몇 십 명의, 또는 몇 백 명의 독자를 획득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그런 난데없는 생각을 하여 보고, 그리고 ㉤ 혼자 속으로 웃었다. 참 구보 선생, 하고 최 군이라 불린 사내도 말참견을 하여, 자기가 독견(獨鵝)의 「승방비곡(僧房悲曲)」*과 윤백남(尹白南)의 「대도전(大盜傳)」*을 걸작이라 여기고 있는 것에 구보의 동의를 구하였다. 그리고, 이 어느 화재 보험 회사의 권유원인지도 알 수 없는 사내는, 가장 영리하게,

“구보 선생님의 작품은 따루 치고…….”

그러한 말을 덧붙였다. 구보가 ㉥ 간신히 그것들이 좋은 작품이라 말하였을 때, 최 군은 또 용기를 얻어, 참 조선서 원고료(原稿料)는 얼마나 됩니까. 구보는 이 사내가 원료라 발음하지 않는 것에 경의를 표하였으나 물론 그는 이러한 종류의 사내에게 조선 작가의 생활 정도를 알려 주어야 할 아무런 의무도 갖지 않는다.

그래, 구보는 혹은 상대자가 모멸을 느낄지도 모를 것을 알면서도, 불쑥, 자기는 이제까지 고료라는 것을 받아 본 일이 없어, 그러한 것은 조금도 모른다 말하고, 마침 문을 들어서려는 벅을 보자 그만 실례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어라 말할 수 있기 전에 제자리로 돌아와 노트와 단장을 집어 들고, 마약 자리에 앉으려는 벅에게,

“나갑시다. 다른 데로 갑시다.”

밖에, 여름 밤, 가벼운 바람이 상쾌하다.

- 박태원,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 -

* 「승방비곡」·「대도전」: 1930년대에 큰 인기를 얻었던 장편 소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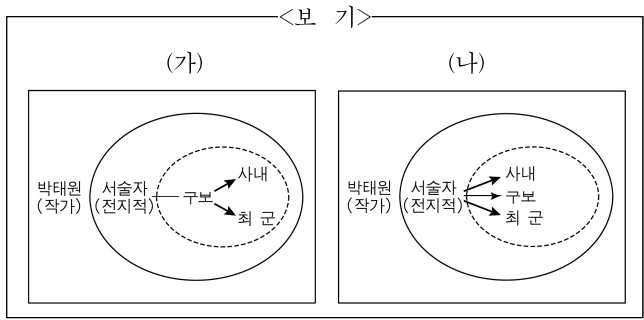
23.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제한된 공간에서의 만남을 통하여 세태를 암시하고 있다.
- ② 현재형 어미를 사용해 인물의 내면을 생동감 있게 제시하고 있다.
- ③ 시간적 순서에 따라 사건을 배열하여 사건의 인과성을 밝히고 있다.
- ④ 직접 화법과 간접 화법을 활용하여 등장인물 간의 심리적 거리를 조절하고 있다.
- ⑤ 쉽표를 의도적으로 사용하여 읽기 속도에 변화를 줌으로써 그 부분에 주목하게 하고 있다.

24. ㉠~㉥에 나타난 ‘구보’의 심리나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창피스러움과 당혹스러움을 느끼고 있다.
- ② ㉡: 상대방에 대해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③ ㉢: 내키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이 행동하고 있다.
- ④ ㉣: 상대방처럼 되지 못하는 자신을 비웃고 있다.
- ⑤ ㉤: 동의하지 않으면서도 상대방의 말을 마지못해 인정하고 있다.

25. 윗글은 <보기> (가)의 시점으로 서술되어 있다. ㉠를 (나)의 시점으로 바꾸었을 때,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이 사내는 내가 공손한 척 말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 ② 이 사내는 내가 공손하게 말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득의감을 맛보고 있는지도 몰랐다.
- ③ 그 사내는 구보가 공손하게 말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득의에 찬 듯한 표정을 지었다.
- ④ 그 사내는 딱하게도 구보가 공손한 척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한 채 득의감을 맛보고 있었다.
- ⑤ 그 사내는 딱하게도 구보가 공손한 척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한 채 득의감을 맛보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26. 윗글에 등장하는 세 사람이 미술관에서 우연히 만나 대화를 나누는다고 가정할 때, 대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내: 이 작품을 그린 사람이 내 후배라오. 대단하지요? 자, 대충 보았으니 이제 점심이나 먹으러 갑시다. 내가 환턱내지요. ①

최 군: 요즘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저 작품이 화제랍니다. 저 작품 좀 보고 갑시다. 그래야 교양 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②

구보: 글썬요. 사람들의 입에 자주 오르내린다고 훌륭한 작품이라고 말할 수 없지 않을까요? ③

최 군: 그래도 이런 작품 하나쯤 거실에 걸어 두면 폼이 날 텐데, 얼마면 살 수 있을까요? ④

구보: 아무튼 요즘은 모든 것을 돈으로만 따지려 해서 문제예요. 내가 소설을 쓰는 것은 그런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기 위한 것이지요. ⑤

[30~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08.06

모시 적삼을 입은 한영덕이 오른쪽 무대 아래에서 허리를 굽힌 채 엮을 하고 있다. 수술 장면에서 사용했던 수술대와 환자용 마네킹이 그대로 이용된다. 허름한 옷차림의 강 노인, 관을 들고 등장. 차트를 넘긴다.— ‘1972년 서울’. 강 노인은 망치를 관 위에 올려놓고 소주병을 관 옆에 둔다. 조용히 엎드려 잠을 청한다. 이때 여학생 교복을 입은 한혜자, 조심스럽게 걸어 나와 한영덕을 바라보면서 오른쪽 무대 위로 올라간다.

한혜자: (종이쪽지를 보며) 오늘 아침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전보를 받았습니다. 난, 아버지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날마다 허리를 앓거나 날마다 폭음을 하던 술꾼이라는 기억 뿐이에요. 아버지는 식구들과 말도 건네지 않고 항상 꼴이 난 사람처럼 보였어요. 술이 깨면 무슨 이상한 소리가 들린 다면서 숨으로 두 귀를 꼭 틀어막고 지냈었죠. 나는 자라는 동안, 양친의 일가친척 집에 거의 왕래를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 어느 쪽에서도 혈육의 대접을 기대할 수가 없었거든요.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아버지가 의사 노릇을 했었다는 기억이 없습니다. 난 아버지가 의사인 줄도 몰랐으니까요.

한영덕: (엮을 끝내고 흰 천을 씌우면서) 자, 이제 엮은 끝났소. 이승에서 못다 한 일, 저승에 가서라도 꼭 이루시오. (천천히 강 노인이 엎드려 있는 관 쪽으로 걸어간다)

강 노인: (인기척에 잠을 깨며) 일은 다 끝났수?

한영덕: 예.

강 노인: 내가 깜박 잠이 들었나 보구만. (한영덕이 관 옆에 앉아 소주를 마신다)

한혜자: 어느 날 아침에 아버지는 아무 얘기도 없이 집을 나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중략)

강 노인: 한 씨한테는 딸이 하나 있는 모양인데 이제 그만 집으로 들어가지 않구.

한영덕: 여기가 내 집이외다. 내레 갈 곳이 없시오.

강 노인: (쫓쫓 혀를 찬다) 필시 무슨 사연이 있을 게야. 하기사 한 씨가 우리 장의사에 처음 찾아왔을 때부턴 무슨 기막힌 사연이 있는 줄 알았지. (사이) 근데, 거, 한 씨 엮히는 솜씨를 보니까 보통 솜씨가 아니던데 전에도 시체를 다뤄 본 적이 있수?

한영덕: (뭔가 얘기를 하려다 말고) 강 노인은 집 짓던 목수가 어찌 관을 짜게 되었수?

강 노인: 나야 뭐, 늙어서 쉬운 일을 찾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지. 하지만 이 관으로 말할 것 같으면 죽은 사람의 집이니까 마찬가지예요.

한영덕: 기왕이면 내 것도 하나 짜 주시구려.

강 노인: (어이가 없다는 듯) 거 무슨 소리! 나보다 젊은 양반이 못하는 소리가 없구만. 갈려면 이 늙은이가 먼저 가야지. (사이) 정말 한 씨 엮히는 솜씨가 내 맘에 꼭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거들랑 내 엮을 해 주고 나서 뒤따라올 생각을 해도 늦지 않아요.

한영덕: 그러면 내 관은 누가 짜 줘내까?

강 노인: (한영덕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아무 말 않고 관을 두드린다)

한혜자: 한영덕 씨가 사망했다는 전보를 받고서도 울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난 그가 살았던 시대를 새롭게 실감했기 때문이죠. 아버지 한영덕 씨는 시대와 더불어 캄캄한 어둠 속에 박제될 거예요. 저 정지된 폐허 가운데 들쭉과 잡초에 뒤덮여 쓰러진 녹슨 기관차처럼 그의 매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퇴장)

술에 취한 한영덕, 관 앞에 쓰러져 잔다. 음악 소리와 함께 망치 소리 고조되면서 조명 서서히 암전된다.

- 황석영 원작, 김석만·오인두 각색, 「한씨연대기」 -

30. 윗글을 읽은 독자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한혜자는 아버지의 죽음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군.
- ② 한혜자는 아버지의 삶을 시대와 결부시켜 이해하고 있군.
- ③ 한영덕은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있었군.
- ④ 한영덕은 딸에게도 자신의 인생 내력에 대해 말하지 않았군.
- ⑤ 강 노인은 한영덕의 과거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군.

31. ‘한혜자’가 말하는 부분을 [A], ‘한영덕’과 ‘강 노인’이 대화하는 부분을 [B]라고 할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의 극중 시간은 [B]와 다르다.
- ② [A]와 [B]는 병렬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 ③ [A]는 말하기가 중심이고, [B]는 보여주기가 중심이다.
- ④ [A]는 [B]에 대한 관객의 정서적 몰입을 제한하고 있다.
- ⑤ [A]는 갈등의 내용을, [B]는 그 갈등의 원인을 다루고 있다.

32. 윗글을 공연하려고 할 때, 연출가가 지시할 만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한혜자는 다른 인물들과는 달리 해설을 하듯이 말하세요.
- ② 한영덕과 강 노인의 의상은 깔끔한 모시 적삼으로 준비해주세요.
- ③ 차트를 통해서 시간에 대한 정보를 관객들에게 시각적으로 알려 주세요.
- ④ 한혜자가 말을 할 때 다른 인물들은 퇴장하지 말고 하던 일을 계속하세요.
- ⑤ 마지막 장면의 망치 소리가 고조될 때 조금 어두운 배경 음악을 깔아 주세요.

MEMO

MEMO

[43~4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08.06

이때, 함경도 곡산 땅에 한 사람이 있으며, 성은 김(金)이요
명은 덕령(德齡)이라. 힘은 능히 삼천 근을 들고 신장은 구 척
이요, 검술과 육도삼략이 옛날 황석공의 도술을 당하는지라.
아깝도다. 이때는 부친의 초토(草土)* 중에 있고, 모부인을 섬겨
하루도 떠나지 아니하더니, 일일은 들으니 왜적이 백 리 안에
온다 하거늘 모부인에게 여쭙오되,

“국운이 불행하여 왜적이 산과 들에 가득 찻사오니, 소자가
비록 초토에 있사오나 지금은 국가가 망국하오니 신민의
도리로 어찌 편안하오리이까? 나아가 도적을 물리치고 즉시
돌아오리이다.”

부인이 책망하여 왈,

“너는 어찌 무지한 말로 어미를 놀라게 하느냐? 공자(公子)는
구 년 거상(居喪)이요, 군자(君子)는 육 년 거상이요, 대부
(大夫)는 삼 년 거상이라. 네 어찌 무슨 지략으로 사정에
어두운 말을 하느냐? 만일 내 말을 거역하면 모자지의(母子
之義)를 끊으리라.”

덕령이 다시 말을 못하고 마음을 억누르고 있더니, 수일 후
들으니 도적이 머지않아 들어온다 하거늘, 마음이 송구하여
슬하를 떠나 가등청정의 집에 자취도 없이 들어가 외쳐 왈,

“나는 조선 장수 김덕령이다. 왜적의 씨를 없이하려니와 천운이
불행하여 내 몸이 상중에 있기로 너희를 이제까지 살렸도다.
무지한 왜적은 천위를 모르고 외람되어 조선을 침범하였으니
목숨을 아끼거든 바삐 살아 가라. 너의 명이 내 수중에 달렸
으니 빨리 돌아가라. 만일 내 말을 믿지 못하거든 내일 오시
(午時)에 올 것이니, 그때를 기다려 재주를 구경하되 백지를
오려 너희 군졸 머리 위에 날날이 붙이고 기다리라.”

하고, 마침 간데없거늘, 가등청정이 대로하여 ㉠수문장을 베어
장대에 달고 왈,

“문을 어찌 지켜 요망한 놈이 임의로 출입하는가.”

하고, 군중에 전령하여,

“백지를 오려 머리 위에 날날이 붙여라. 내일 오시에 요망한
놈이 반드시 올 것이니, 동정을 살피되 일시에 함께 총과 활을
쏘아라.”

하고, 이튿날 오시가 되도록 종적이 없더니, 오시 후에 북쪽으로
부터 일점 흑운이 일어나며 광풍이 대작하고 시석(矢石)*이
날리며 큰 나무가 부러지며 천지가 뒤넘는 듯하더니 공중에서
한 소년이 상복을 입은 채 포선(布扇)*을 들고 오른손으로 억만
군중 백화 발이 된 백지를 거두어 쥐고 천둥같이 호령 왈,

“너희는 내 재주를 보라. 내 몸이 상중이 아니면 너희 장졸의
머리를 이 종이같이 경각에 거두고자 하나니, 너희가 목숨을
아끼거든 빨리 퇴병하라. 만일 나의 말을 업신여기면 내 포선
으로 너희를 씨도 없이하리라.”

하고 간데없거늘, 가등청정이 간담이 서늘하여 차탄 왈,

“내 팔 년 동안 도술을 배워 조선에 나왔오되 저러한 재주는
처음이라. 천신 같도다.”

하고, 진을 풀어 조섭의 진과 합하고자 하더라.

- 작자 미상, 「임진록」 -

- * 초토: 거적자리와 흙 베개라는 뜻으로, 상중에 있음을 이르는 말.
- * 시석: 전쟁에 쓰던 화살과 돌.
- * 포선: 상주가 외출할 때 얼굴을 가리는 부채.

43.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김덕령은 종이를 이용해서 자신의 신이한 능력을 드러냈다.
- ② 어머니는 김덕령에게 신민의 도리보다 아들의 도리를 요구했다.
- ③ 상복을 입고 공중에서 나타난 소년은 김덕령이 둔갑한 인물이다.
- ④ 김덕령은 국가에 대한 충성과 부모에 대한 효도를 모두 중시했다.
- ⑤ 가등청정은 김덕령의 능력을 두려워하여 군사들의 머리에 백지를 붙이게 했다.

44. 윗글과 <보기>는 같은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윗글과 <보기>의 비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남원부 사람으로 전에 참봉을 지냈던 변사정이 의병을 모집하여 영남으로 가려고 할 때, 최척은 활쏘기와 말 타기를 잘했기 때문에 의병에 뽑혀서 동행하게 되었다. 최척은 진중에 있으면서 옥영에 대한 근심과 걱정으로 몸이 아프게 되었다. 혼례를 치르기로 약속한 날이 되어 소장(訴狀)을 올려 휴가를 청하자, 의병장이 화를 내며 말했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감히 혼사에 대해 말하느냐? 임금께서도 난리를 당하여 피난을 가서 풀술을 방황하고 계시니, 이러한 때 신하 된 자는 마땅히 창을 베고 잘 겨를도 없어야 할 것이다.”

의병장은 이렇게 꾸짖으며 끝내 최척의 귀가를 허락하지 않았다. 옥영도 최척이 돌아오지 않자 혼례를 치르지 못하고 그날을 헛되게 보낼 수밖에 없었다.

- ① 윗글은 <보기>에 비해 통쾌한 느낌을 자아내고 있다.
- ② 윗글은 <보기>에 비해 주인공이 능동적으로 그려져 있다.
- ③ <보기>는 윗글에 비해 사실성이 두드러진다.
- ④ <보기>는 윗글에 비해 서술자의 개입이 두드러진다.
- ⑤ <보기>는 윗글에 비해 개인의 애환이 구체적으로 그려져 있다.

45. '김덕령'에 대해 정리한 다음의 역사 기록을 참조하여, 윗글을 읽은 독자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출생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라도 광주 사람이다. ○ 미친한 집안에서 태어났다.
인물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개가 있고 자부심이 있었다. ○ 다른 사람에 비해 용맹과 힘이 뛰어났다.
주요 행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 김덕홍이 의병으로 참전했다가 전사하자 세상일에 뜻을 두지 않았다. ○ 모친상을 치른 후 집에서 나오지 않았다. ○ 매부 김응희가 여러 번 왜적을 토벌하라고 권유했으나 주저하였다. ○ 최담령 등 수십 명과 함께 의병을 일으켰다. ○ 왜장 가등청정이 경계를 강화할 정도로 뛰어난 의병 활동을 하였다.

- ① 출생지를 달리 설정한 것은 독자층을 널리 확보하기 위한 것이겠군.
- ② 인물 특성을 과장한 것은 김덕령의 영웅성을 부각하기 위한 것이겠군.
- ③ 주요 행적을 단순화한 것은 핵심적인 사건만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겠군.
- ④ 상중에 출전한 것으로 바꾼 것은 김덕령의 충성심을 부각하기 위한 것이겠군.
- ⑤ 김덕령이 가등청정을 위협한 것으로 설정한 것은 민족적 자긍심을 고취하려는 의도이겠군.

46. 문맥으로 보아 ㉠과 가장 잘 어울리는 한자 성어는?

- ① 일벌백계(一罰百戒) ② 유구무언(有口無言)
- ③ 청천벽력(靑天霹靂) ④ 토사구팽(兔死狗烹)
- ⑤ 비분강개(悲憤慷慨)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8~21	②	④	①	④	
22~27	④	⑤	②	②	① ①
28~31	④	③	⑤	④	
32~34	③	⑤		②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18~21	①	③	⑤	⑤	
22~27	③	①	④	④	⑤ ③
28~31	④	③	⑤	②	
32~34	①	③		③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18~21	④	③	③	④	
22~26	①	②	⑤	②	⑤
27~30	②	③	④	③	
31~34	⑤	④	③	③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8~21	②	①	③	⑤	
22~27	②	①	③	③	② ⑤
28~31	①	④	①	②	
32~34	②	③		④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18~21	⑤	②	③	③	
22~27	②	④	④	③	② ④
28~31	①	④	⑤	④	
32~34	②	④		①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18~21	①	②	④	⑤	
22~26	⑤	④	①	③	④
27~30	⑤	③	④	②	
31~34	④	②	⑤	③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8~21	④	③	③	⑤	
22~26	①	⑤	③	③	④
27~30	①	⑤	①	②	
31~34	①	④	②	③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18~21	④	②	③	④	
22~27	①	④	⑤	⑤	④ ③
28~31	⑤	④	③	③	
32~34	④	③		②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18~21	④	③	④	⑤	
22~27	⑤	②	②	①	① ②
28~31	③	①	③	⑤	
32~34	②	④		①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8~23	③	③	②	④	① ④
24~27	④	③	⑤	⑤	
28~31	②	①	③	⑤	
32~34	④	⑤		③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18~21	④	④	③	④	
22~27	①	②	⑤	①	② ④
28~31	②	④	⑤	③	
32~34	④	②		②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18~21	②	④	①	⑤	
22~27	⑤	③	④	①	③ ②
28~31	①	③	①	③	
32~34	④	⑤		②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22~25	②	①	①	④	
31~33	④	②		⑤	
38~42	⑤	⑤	⑤	③	③
43~45	⑤	②		④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16~19	⑤	②	③	④	
31~33	⑤	②		③	
38~42	①	③	①	⑤	④
43~45	⑤	②		①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22~24	③	④		⑤	
34~37	②	⑤	④	⑤	
38~40	③	②		③	
41~45	①	②	④	⑤	④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예시문항					
1~4	④	②	③	①	
11~15	⑤	③	①	⑤	④
22~25	②	⑤	④	④	
26~29	②	④	⑤	④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21~25	②	⑤	①	③	①
30~32	①	⑤		⑤	
33~36	③	④	③	③	
43~45	④	②		④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16~20	⑤	④	②	③	⑤
32~34	①	⑤		④	
35~37	②	③		④	
42~45	②	⑤	③	①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16~18	⑤	③		③	
23~26	③	⑤	①	②	
32~36	①	④	⑤	④	③
43~45	⑤	①		④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21~26	⑤	①	④	②	⑤ ⑤
33~35	①	④		③	
36~38	⑤	⑤		④	
43~45	①	③		④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16~20	①	②	⑤	③	③	
26~28	③		③		③	
39~41	⑤		⑤		⑤	
42~45	②	④	⑤		①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27~31	①	③	②	⑤	④	
32~34	④		⑤		②	
39~42	③	③		①	④	
43~45	①		⑤		②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20~22	③		④		⑤	
23~26	②	④		①	⑤	
33~37	①	③	⑤	⑤	①	
43~45	③		②		④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20~22	①		④		③	
23~26	⑤	④		④	⑤	
33~37	④	④	④	③	⑤	
43~45	①		③		③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26~29	①	②	⑤		④	
35~38	③	③	④		③	
39~41	⑤		②		⑤	
42~45	④	③	②		⑤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21~26	④	④	⑤	③	③	⑤
27~32	②	②	①	②	④	③
43~45	③		⑤			①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16~18	③		④		④	
19~20	④				③	
21~24	④	③	④		⑤	
40~45	⑤	⑤	①	①	④	①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25~27	④		③		④	
34~38	③	④	④	③	⑤	
39~42	①	⑤		③	⑤	
43~45	②		⑤		②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B형						
31~33	④		②		⑤	
34~36	③		②		④	
37~39	①		⑤		③	
40~42	①		④		①	
43~45	⑤		④		③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A형						
31~33	①		③		④	
34~36	①		⑤		⑤	
40~42	⑤		②		④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B형					
31~33	④		④		⑤
34~38	⑤	③	②	①	④
39~41	②		①		①
42~45	①	④	①		②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A형					
31~33	⑤		③		②
39~42	④	①	①		⑤
43~45	⑤		②		③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B형					
31~33	③		④		②
34~36	⑤		④		④
37~40	②	⑤	④		⑤
41~43	④		⑤		①
44~45	③				⑤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A형					
31~33	⑤		④		①
34~37	②	①	⑤		④
38~40	②		⑤		③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B형					
31~34	④	⑤	④		②
35~37	③		⑤		②
38~42	①	⑤	⑤	④	⑤
43~45	①		③		①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A형					
31~33	③		③		④
34~37	①	①	④		②
43~45	①		④		⑤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B형					
31~33	②		③		①
34~37	③	④	②		④
38~42	④	⑤	③	④	①
43~45	①		②		③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A형					
31~33	②		④		④
34~37	①	⑤	①		②
43~45	⑤		③		②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B형					
31~33	③		②		②
34~38	④	②	④	③	①
39~42	④	⑤	⑤		②
43~45	③		④		③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A형					
31~33	②		④		⑤
39~42	③	⑤	②		④
43~45	③		③		②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B형				
31~34	③	③	①	⑤
35~37	①		③	⑤
38~40	①		⑤	②
41~43	④		⑤	③
44~45	①			④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A형				
31~33	③		④	②
34~37	①	④		⑤ ③
41~43	④		②	③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B형				
31~33	③		④	⑤
34~37	③	⑤	②	①
38~40	④		③	③
41~43	②		③	②
44~45	⑤			④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A형				
31~33	①		③	③
34~37	③	①	①	⑤
41~43	⑤		①	①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B형				
31~33	②		①	③
34~37	①	①		② ①
38~40	①		④	③
41~43	②		③	②
44~45	⑤			④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A형				
31~33	②		②	①
34~37	③	③		② ①
41~43	③		④	①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3~16	②	④	①	①
17~20	②	⑤	④	②
32~35	⑤	③	③	①
46~50	②	④	②	④ ②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20~23	⑤	⑤	④	②
27~30	③	⑤	②	④
35~39	③	④	⑤	② ①
47~50	①	②	③	③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13~18	④	①	③	⑤ ⑤ ④
26~29	③		③	① ④
34~37	②		⑤	⑤ ①
38~40	②		③	②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예비 시행 B형				
31~33	④		③	④
34~35	②			③
36~39	①	④	②	①
40~42	②		⑤	②
43~45	②		①	②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예비 시행 A형				
31~34	③	⑤	①	②
37~39	⑤		④	③
40~42	③		③	④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3~16	⑤	②	②	⑤
25~28	③	⑤	②	①
31~36	⑤	③	④	⑤ ③ ⑤
37~39	③		②	④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13~16	①	③	④	⑤
31~34	⑤	④	⑤	④
38~42	②	④	③	③ ③
43~46	②	④	③	①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19~24	③	⑤	②	③ ⑤ ②
25~28	④	⑤	③	⑤
37~39	④		③	②
40~43	①	③	⑤	①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3~16	④	④	②	④
27~31	①	③	④	① ②
40~43	⑤	②	⑤	④
47~50	②	④	②	②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13~18	①	④	④	⑤ ② ③
21~24	④	④	④	①
32~34	④		①	②
35~38	⑤	⑤	③	⑤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19~22	④	④	③	④
28~31	②	③	④	②
39~43	①	④	⑤	② ⑤
47~50	⑤	①	②	④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6~19	③	④	②	①
27~29	③		⑤	⑤
32~37	③	②	⑤	② ① ②
38~41	④	③	①	②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21~26	②	③	④	④ ⑤ ⑤
27~30	①	②	③	①
40~43	③	③	④	③
48~50	③		⑤	③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13~16	⑤	⑤	④	⑤	
23~26	②	③	③	④	
31~35	①	④	③	③	⑤
43~46	①	①	④	③	
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20~23	③	②	②	③	
28~33	①	③	②	②	④
37~39	①		②		③
47~50	②	⑤	①	④	
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20~23	②	①	④	⑤	
28~33	②	②	①	②	④
38~40	③		③		③
47~50	③	①	②	③	
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20~23	②	②	⑤	④	
28~31	①	④	⑤	⑤	
36~39	⑤	④	⑤	②	
46~50	②	②	②	④	①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3~18	⑤	③	①	②	②
27~30	②	③	④	①	
37~39	③		⑤		③
47~50	②	⑤	⑤	②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13~16	②	⑤	③	①	
20~24	②	⑤	①	①	④
29~32	②	③	②	④	
40~43	②	②	④	②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13~18	②	④	④	①	⑤
23~26	③	④	④	⑤	
30~32	①		⑤		②
43~46	⑤	④	①	①	
총 1001문제	☆ 수고하셨습니다 ☆				

이 면은 여백입니다.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